

정책보고서 2020-35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067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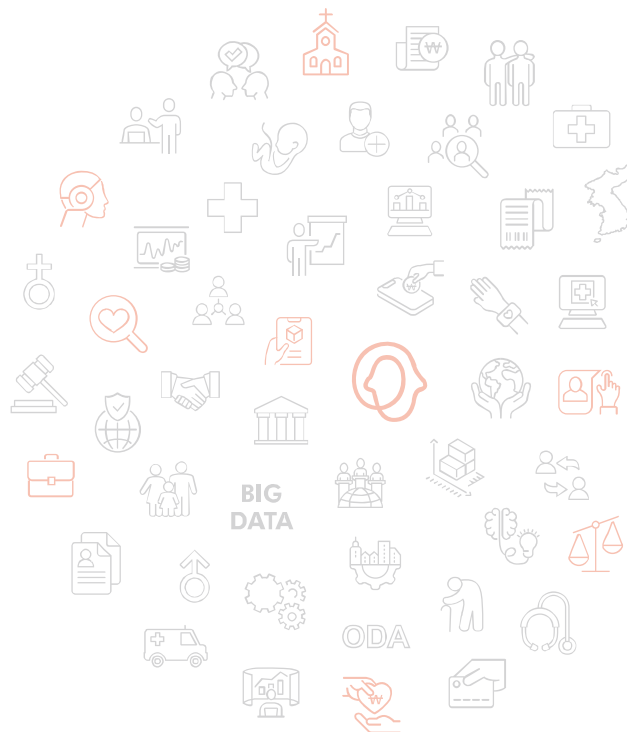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이윤경

김세진·황남희·임정미·주보혜·남궁은하·이선희·정경희·강은나·김경래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정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보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남궁은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경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부와 용역계약(2020. 3. 24.)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요 약	1
제1장 서론	2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1
제2절 조사방법과 자료처리	35
제3절 표본설계	51
제2장 노인실태조사 조사내용	65
제1절 노인실태조사의 연혁 및 주요 변화 내용	67
제2절 2020년도 조사표 설계의 기본방향 및 구성	71
제3장 노인의 일반 특성	121
제1절 일반 특성	124
제2절 가구 형태	138
제4장 노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153
제1절 자녀와 친지 유무 및 규모	155
제2절 배우자와의 관계	159
제3절 자녀와의 관계	164
제4절 손자녀와의 접촉	176
제5절 친인척과의 접촉	180
제6절 친구·이웃·지인과의 접촉	184

제5장 노인의 부양 교환 실태	189
제1절 배우자와의 부양 교환 실태	191
제2절 동거 자녀와의 부양 교환 실태	203
제3절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 교환 실태	218
제4절 노인의 부모와의 부양 교환 실태	233
제5절 주요 지출 항목의 지불 주체	246
제6절 손자녀 돌봄 실태	252
제7절 노년기 부양에 대한 태도	254
 제6장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259
제1절 건강상태	261
제2절 건강행태	282
 제7장 노인의 기능상태와 요양보호	 305
제1절 신체 및 인지 기능상태	307
제2절 요양보호 실태	332
 제8장 노인의 경제상태	 363
제1절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365
제2절 자산과 부채	386
제3절 가구지출과 개인지출	394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03



제9장 노인의 경제활동	405
제1절 경제활동 참여실태	407
제2절 최장기 종사 직종	432
제3절 향후 경제활동 의사	440
제4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 및 욕구	448
 제10장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	 455
제1절 여가문화활동	457
제2절 사회참여활동	471
제3절 여가문화시설 이용	505
제4절 정보화 현황	529
 제11장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547
제1절 주거 및 지역 환경	549
제2절 안전 실태	597
제3절 연령 규범 및 연령 차별	607
제4절 웰다잉(well-dying) 인식 및 죽음 관련 준비	615
제5절 삶의 만족도	626
제6절 노인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욕구	636
 제12장 결론	 645
제1절 2020년 조사의 주요 결과와 노인의 삶의 변화(2008~2020)	647
제2절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674
제3절 조사의 한계점 및 향후 조사 발전을 위한 과제	679

참고문헌	681
부록 I.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결과	683
부록 II. 일반특성 분석표	684
부록 III. 시·도별 분석표	705
부록 IV.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표	829
부록 V.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구	860
부록 VI. 자문위원 명단	883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전문가 자문단	36
〈표 1-2〉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권역별 교육 일정	40
〈표 1-3〉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교육 커리큘럼	41
〈표 1-4〉 시·도별 가구 및 65세 인구 분포	51
〈표 1-5〉 시·도별 조사구 특성별 조사구 수 현황	52
〈표 1-6〉 시·도별 조사구 특성별 표본배분 현황	54
〈표 1-7〉 시·도별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예상) 현황	55
〈표 1-8〉 각 시·도의 동/읍면 구분별 표본배분 결과	56
〈표 1-9〉 동/읍면 구분별 노인 인구 및 가구당 평균 노인 수	57
〈표 1-10〉 각 시·도의 동/읍면 구분별 표본 조사구 수	57
〈표 1-11〉 표본 조사구 배분 결과	58
〈표 1-12〉 표본추출 기준	59
〈표 1-13〉 주요 조사항목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분석 결과: 지역 규모 기준	63
〈표 1-14〉 주요 조사항목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분석 결과: 지역별 유배우자 비율	64
〈표 2-1〉 노인실태조사 개요 (1994~2020년)	68
〈표 2-2〉 노인실태조사 설문지 변화 내용 개요(2008~2020년)	69
〈표 2-3〉 가구 일반사항(A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0년)	73
〈표 2-4〉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G영역과 H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0년)	75
〈표 2-5〉 노인의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관계(I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11~2020년)	79
〈표 2-6〉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B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0년)	81
〈표 2-7〉 노인의 기능상태와 간병돌봄(C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0년)	85
〈표 2-8〉 노인의 인지기능(M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0년)	88
〈표 2-9〉 노인의 경제상태(J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0년)	90
〈표 2-10〉 노인의 경제활동(E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0년)	95
〈표 2-11〉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활동(D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17년)	99
〈표 2-12〉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H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0년)	104
〈표 2-13〉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설문 내용	109
〈표 3-1〉 노인의 응답유형 및 대리응답	124
〈표 3-2〉 노인의 일반특성(2017년도와 비교표)	126
〈표 3-3〉 노인의 지역·성별 일반특성 분포	131
〈표 3-4〉 노인의 연령·배우자 유무별 일반특성 분포	134

〈표 3-5〉 노인의 가구형태·교육수준별 일반특성분포	137
〈표 3-6〉 노인의 지역·성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139
〈표 3-7〉 노인의 연령·배우자 유무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139
〈표 3-8〉 노인의 교육상태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140
〈표 3-9〉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	142
〈표 3-10〉 (기혼·미혼)자녀동거 가구의 일반적 특성	144
〈표 3-11〉 노인의 지역·성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146
〈표 3-12〉 노인의 연령·배우자 유무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146
〈표 3-13〉 노인의 교육수준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147
〈표 3-14〉 노인의 일반특성별 기혼자녀 동거 시 일상생활 분담 방법	148
〈표 3-15〉 노인의 지역·성별 미혼자녀 동거 이유	149
〈표 3-16〉 노인의 연령·배우자 유무별 미혼자녀 동거 이유	150
〈표 3-17〉 노인의 교육수준별 미혼자녀 동거 이유	150
〈표 3-18〉 노인의 일반특성별 미혼자녀 동거 시 일상생활 분담 방법	151
〈표 4-1〉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 및 친구·이웃 유무(울)	157
〈표 4-2〉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 및 친구·이웃·지인 평균수	158
〈표 4-3〉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건강상태	160
〈표 4-4〉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갈등 실태	163
〈표 4-5〉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 빈도	166
〈표 4-6〉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연락 빈도	167
〈표 4-7〉 노인의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의 제 특성	168
〈표 4-8〉 노인의 일반특성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 빈도	170
〈표 4-9〉 노인의 일반특성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빈도	172
〈표 4-10〉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녀와의 갈등 실태	175
〈표 4-11〉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왕래 빈도	177
〈표 4-12〉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연락 빈도	179
〈표 4-13〉 노인의 일반특성별 친인척과의 왕래 빈도	181
〈표 4-14〉 노인의 일반특성별 친인척과의 연락 빈도	183
〈표 4-15〉 노인의 일반특성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빈도	186
〈표 4-16〉 노인의 일반특성별 친구·이웃·지인과의 연락 빈도	187
〈표 5-1〉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193



〈표 5-2〉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194
〈표 5-3〉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197
〈표 5-4〉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198
〈표 5-5〉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	201
〈표 5-6〉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	202
〈표 5-7〉 노인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205
〈표 5-8〉 노인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206
〈표 5-9〉 노인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209
〈표 5-10〉 노인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210
〈표 5-11〉 노인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	213
〈표 5-12〉 노인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	214
〈표 5-13〉 노인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217
〈표 5-14〉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220
〈표 5-15〉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221
〈표 5-16〉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224
〈표 5-17〉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225
〈표 5-18〉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	228
〈표 5-19〉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	229
〈표 5-20〉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232
〈표 5-21〉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235
〈표 5-22〉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236
〈표 5-23〉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238
〈표 5-24〉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239
〈표 5-25〉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	241
〈표 5-26〉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	242
〈표 5-27〉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245
〈표 5-28〉 노인의 일반특성별 생활비 지불방식	249
〈표 5-29〉 노인의 일반특성별 의료비 지불방식	250
〈표 5-30〉 노인의 일반특성별 간병비 지불방식	251
〈표 5-31〉 노인의 일반특성별 손자녀 돌봄 여부 및 돌봄 손자녀 수	253
〈표 5-32〉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후 자녀와의 동거 규범 동의율·희망자녀	255



〈표 5-33〉 노인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258
〈표 6-1〉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263
〈표 6-2〉 노인의 일반특성별 만성질환(의사진단 기준) 개수	266
〈표 6-3〉 노인의 성별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률(의사진단 기준) 및 현 치료율	267
〈표 6-4〉 노인의 일반특성별 우울증상	269
〈표 6-5〉 노인의 일반특성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의사처방약	271
〈표 6-6〉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난 1개월간 보건의료기관 이용 횟수	273
〈표 6-7〉 노인의 일반특성별 요양병원 지난 1년간 입원 횟수	276
〈표 6-8〉 노인의 일반특성별 요양병원 지난 1년간 입원 일수	277
〈표 6-9〉 노인의 일반특성별 그 외 병원 지난 1년간 입원 횟수	280
〈표 6-10〉 노인의 일반특성별 그 외 병원 지난 1년간 입원 일수	281
〈표 6-11〉 노인의 일반특성별 흡연상태	283
〈표 6-12〉 노인의 일반특성별 음주 정도	285
〈표 6-13〉 노인의 일반특성별 운동 정도	287
〈표 6-14〉 노인의 일반특성별 영양관리 상태	289
〈표 6-15〉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만도 수준	291
〈표 6-16〉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로식당(복지관 식당) 이용 정도	294
〈표 6-17〉 노인의 일반특성별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공공) 이용 정도	295
〈표 6-18〉 노인의 일반특성별 건강검진수진율 및 병원·치과 미치료율	299
〈표 6-19〉 노인의 일반특성별 병원 미치료 이유	301
〈표 6-20〉 노인의 일반특성별 치과 미치료 이유	303
〈표 7-1〉 노인의 일반특성별 시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309
〈표 7-2〉 노인의 일반특성별 청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311
〈표 7-3〉 노인의 일반특성별 씹기 능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313
〈표 7-4〉 노인의 일반특성별 하지 근력상태	315
〈표 7-5〉 노인의 일반특성별 신체 근력상태(평균점수)	317
〈표 7-6〉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분포	318
〈표 7-7〉 노인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320
〈표 7-8〉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분포	322
〈표 7-9〉 노인의 일반특성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324
〈표 7-10〉 노인의 일반특성별 기능상태 제한 현황	326



〈표 7-11〉 노인의 일반특성별 MMSE-DS 진단검사 결과	329
〈표 7-12〉 노인의 일반특성별 장애판정을 및 장애정도	330
〈표 7-13〉 장애판정 노인의 주장애 유형분포	331
〈표 7-14〉 장애판정 노인의 장애 정도 현황	331
〈표 7-15〉 노인의 일반특성별 돌봄 수급여부 및 돌봄제공자(중복응답)	334
〈표 7-16〉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 친척, 이웃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도움 빈도	335
〈표 7-17〉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 친척, 이웃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주도움 제공자	336
〈표 7-18〉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친척·이웃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청소·빨래·시장보기 도움빈도	337
〈표 7-19〉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친척·이웃 등 비공식돌봄제공자의 청소·빨래·시장보기 주도움제공자	339
〈표 7-20〉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친척·이웃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외출동행 도움빈도	341
〈표 7-21〉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친척·이웃 등 비공식돌봄제공자의 외출동행 주도움제공자	343
〈표 7-22〉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친척·이웃 등 비공식돌봄제공자의 식사준비 도움빈도	345
〈표 7-23〉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친척·이웃 등 비공식돌봄제공자의 식사준비 주 도움제공자	347
〈표 7-24〉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친척·이웃 등 비공식돌봄제공자의 신체기능 유지 지원 도움빈도	349
〈표 7-25〉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친척·이웃 등 비공식돌봄제공자의 신체기능 유지 지원 주도움제공자	351
〈표 7-26〉 노인의 일반특성별 개인 간병 또는 가사도우미 주평균 이용시간	352
〈표 7-27〉 노인의 일반특성별 도움 충분성	353
〈표 7-28〉 노인의 일반특성별 돌봄이 필요하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355
〈표 7-29〉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및 등급현황	357
〈표 7-30〉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서비스를	359
〈표 7-31〉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미신청 이유	361
〈표 8-1〉 노인의 일반특성별 및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가구소득)	370
〈표 8-2〉 노인의 일반특성별 연간 총소득, 소득원천별 금액 및 구성 비율(가구소득)	371
〈표 8-3〉 노인의 일반특성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개인소득)	376
〈표 8-4〉 노인의 일반특성별 연간 총소득, 소득원천별 금액 및 구성비율(개인소득)	377
〈표 8-5〉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구소득 중 개인소득의 비중	379
〈표 8-6〉 노인의 일반특성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응답 노인 외 가구원)	382
〈표 8-7〉 노인의 일반특성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응답 노인 외 가구원)	383
〈표 8-8〉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구소득 중 응답 노인 외 가구원 소득의 비중	385
〈표 8-9〉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 부동산 규모	388
〈표 8-10〉 노인의 일반특성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금융자산 규모	389



〈표 8-11〉 노인의 일반특성별 기타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기타자산 규모	391
〈표 8-12〉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채 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	393
〈표 8-13〉 노인의 일반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비지출 및 주거비지출 금액(대표 가구원 응답)	396
〈표 8-14〉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대표 가구원 응답)	398
〈표 8-15〉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을 위한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401
〈표 8-16〉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을 위한 월평균 지출액(지출 경험이 있는 노인의 평균)	402
〈표 8-17〉 노인의 일반특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404
〈표 9-1〉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제활동 실태	409
〈표 9-2〉 노인의 일반특성별 종사 직종	411
〈표 9-3〉 노인의 일반특성별 일의 내용	413
〈표 9-4〉 노인의 일반특성별 현재 종사상 지위	415
〈표 9-5〉 노인의 일반특성별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여부(임금근로자 중 비율)	416
〈표 9-6〉 노인의 일반특성별 현재 근무장소 형태	418
〈표 9-7〉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당 근무일수	421
〈표 9-8〉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당 근무시간	422
〈표 9-9〉 노인의 일반특성별 월평균 근로소득	423
〈표 9-10〉 노인의 일반특성별 현 직업의 종사 기간	425
〈표 9-11〉 노인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을 하는 이유	426
〈표 9-12〉 노인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자리 만족도	428
〈표 9-13〉 노인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429
〈표 9-14〉 노인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의 최장기 직업 여부	431
〈표 9-15〉 노인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업의 직종	433
〈표 9-16〉 노인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업의 종사상 지위	435
〈표 9-17〉 노인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종의 종사 기간	436
〈표 9-18〉 노인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종을 그만둔 이유	438
〈표 9-19〉 노인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종 퇴직 후 경제활동 지속 여부	439
〈표 9-20〉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경제활동 참여 형태	441
〈표 9-21〉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일을 하고 싶은 이유	442
〈표 9-22〉 노인의 일반특성별 희망 근로시간	444
〈표 9-23〉 노인의 일반특성별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	445
〈표 9-24〉 노인의 일반특성별 구직활동 비율 및 구직활동	447



〈표 9-25〉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참여경험	449
〈표 9-26〉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참여 사업유형	450
〈표 9-27〉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의 세부 사업유형	452
〈표 9-28〉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	453
〈표 9-29〉 노인의 일반특성별 희망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454
〈표 10-1〉 노인의 일반특성별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459
〈표 10-2〉 노인의 지역·성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1~2순위 중복 응답	462
〈표 10-3〉 노인의 연령군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1~2순위 중복 응답	463
〈표 10-4〉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465
〈표 10-5〉 노인의 지역·성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1~2순위 중복 응답	467
〈표 10-6〉 노인의 연령군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1~2순위 중복 응답	468
〈표 10-7〉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경험 여부	470
〈표 10-8〉 노인의 일반특성별 학습활동 참여율 및 교육 참여 시간	472
〈표 10-9〉 노인의 일반특성별 학습활동 참여 영역	474
〈표 10-10〉 노인의 일반특성별 학습활동 실시 기관	476
〈표 10-11〉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시간	478
〈표 10-12〉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역	480
〈표 10-13〉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종류	482
〈표 10-14〉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연계 기관	484
〈표 10-15〉 노인의 일반특성별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486
〈표 10-16〉 노인의 일반특성별 사회단체활동 참여빈도	487
〈표 10-17〉 노인의 일반특성별 종교 현황	489
〈표 10-18〉 노인의 일반특성별 종교활동 참여 정도	490
〈표 10-19〉 노인의 일반특성별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492
〈표 10-20〉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자원봉사활동 희망 정도	494
〈표 10-21〉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학습활동 희망 정도	496
〈표 10-22〉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취미·여가활동 희망 정도	498
〈표 10-23〉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종교활동 희망 정도	500
〈표 10-24〉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정치사회 단체활동 희망 정도	502
〈표 10-25〉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친목단체활동 희망 정도	504
〈표 10-26〉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이용실태	507

〈표 10-27〉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이용이유: 1~2순위 중복 응답	508
〈표 10-28〉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이용실태	511
〈표 10-29〉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 1~2순위 중복 응답	512
〈표 10-30〉 노인의 일반특성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이용실태	515
〈표 10-31〉 노인의 일반특성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이용 이유: 1~2순위 중복 응답	516
〈표 10-32〉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교실 이용실태	519
〈표 10-33〉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교실 이용 이유: 1~2순위 중복 응답	520
〈표 10-34〉 노인의 일반특성별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실태	523
〈표 10-35〉 노인의 일반특성별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 1~2순위 중복 응답	524
〈표 10-36〉 노인의 일반특성별 민간 여가문화시설 이용실태	527
〈표 10-37〉 노인의 일반특성별 민간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 1~2순위 중복 응답	528
〈표 10-38〉 노인의 일반특성별 전자기기(인터넷이 안되는 휴대폰) 보유 및 사용 여부	530
〈표 10-39〉 노인의 일반특성별 전자기기(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보유 및 사용 시간	532
〈표 10-40〉 노인의 일반특성별 전자기기(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보유 및 사용 시간	534
〈표 10-41〉 노인의 일반특성별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	536
〈표 10-42〉 생활에 필요한 정보 이용의 어려움	538
〈표 10-43〉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예매 불편함 정도	540
〈표 10-44〉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식당 기계 주문 불편함 정도	542
〈표 10-45〉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은행 ATM 사용 또는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한 불편함 정도	544
〈표 10-46〉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신용카드, 체크카드만 이용 가능한 점포 증가로 인한 불편함 정도	546
〈표 11-1〉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택종류	550
〈표 11-2〉 노인의 일반특성별 거주형태	552
〈표 11-3〉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거위치	554
〈표 11-4〉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택의 생활편리성(조사원 판단)	555
〈표 11-5〉 노인의 일반특성별 거주 주택 만족도	557
〈표 11-6〉 노인의 지역·성별 거주주택 불만족 이유	559
〈표 11-7〉 노인의 주요 기관 및 시설과의 도보 이동시간: 지역별 분포	561
〈표 11-8〉 노인의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도	562
〈표 11-9〉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역환경 만족도: 생활 편의시설 거리	565
〈표 11-10〉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역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빈도/노선	566
〈표 11-11〉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역환경 만족도: 녹지공간 충분성 또는 거리	567



〈표 11-12〉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역환경 만족도 : 치안, 교통안전	568
〈표 11-13〉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역환경 만족도 : 자녀 또는 친지와와 거주지 거리	570
〈표 11-14〉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역환경 만족도 : 이웃과의 교류기회	571
〈표 11-15〉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역환경 만족도 : 지역사회 환경 전반	572
〈표 11-16〉 노인의 일반특성별 건강 유지 시 희망 거주 형태	574
〈표 11-17〉 노인의 일반특성별 거동 불편시 희망 거주 형태	576
〈표 11-18〉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서비스별 필요도	578
〈표 11-19〉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 정도	579
〈표 11-20〉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일상생활 지원 필요 정도	580
〈표 11-21〉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안전지원 필요 정도	582
〈표 11-22〉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의료인 재가방문 의료·건강서비스 필요 정도	583
〈표 11-23〉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 필요 정도	584
〈표 11-24〉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상담 서비스 필요 정도	585
〈표 11-25〉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거시설 이용시 별도 유료서비스별 이용 희망 정도	586
〈표 11-26〉 노인의 기능상태별 주거시설 이용시 별도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	587
〈표 11-27〉 노인의 일반특성별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590
〈표 11-28〉 노인의 일반특성별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점	591
〈표 11-29〉 노인의 일반특성별 운전여부 및 운전을 그만둔 평균 나이	593
〈표 11-30〉 노인의 일반특성별 운전 시 어려움 정도	594
〈표 11-31〉 노인의 일반특성별 운전 시 장애요소	596
〈표 11-32〉 노인의 일반특성별 낙상경험	598
〈표 11-33〉 노인의 일반특성별 낙상 이유	601
〈표 11-34〉 노인의 일반특성별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경험률	603
〈표 11-35〉 노인의 일반특성별 학대유형별 경험률	605
〈표 11-36〉 노인의 일반특성별 학대 유형별 행위자	606
〈표 11-37〉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	608
〈표 11-38〉 노인의 일반특성별 상황별 연령차별 경험률	612
〈표 11-39〉 노인의 일반특성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인식	613
〈표 11-40〉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	614
〈표 11-41〉 노인의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	615
〈표 11-42〉 노인의 일반특성별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617

〈표 11-43〉 노인의 일반특성별 죽음 준비 실태	619
〈표 11-44〉 노인의 일반특성별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방법	621
〈표 11-45〉 노인의 일반특성별 바람직한 재산처리방식	623
〈표 11-46〉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살 생각 경험 및 이유	625
〈표 11-47〉 노인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	626
〈표 11-48〉 노인의 일반특성별 건강 상태 만족도	628
〈표 11-49〉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제 상태 만족도	629
〈표 11-50〉 노인의 일반특성별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	630
〈표 11-51〉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631
〈표 11-52〉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633
〈표 11-53〉 노인의 일반특성별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634
〈표 11-54〉 노인의 일반특성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635
〈표 11-55〉 노인의 정책인지도	637
〈표 11-56〉 노인의 일반특성별 정책인지도 :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639
〈표 11-57〉 확대되어야 할 노인복지정책에 의견	640
〈표 11-58〉 노인의 일반특성별 확대되어야 할 노인정책에 의견(1순위)	642
〈표 11-59〉 노인의 일반특성별 확대되어야 할 노인정책에 의견(1+2 순위)	643
〈표 12-1〉 노인의 개인소득 변화(2008년~2020년)	664
〈표 12-2〉 노인의 경제활동 변화(2008년~2020년)	665
〈표 12-3〉 노인의 사회활동 변화(2008년~2020년)	667
〈표 12-4〉 연령별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	668

부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부표 II-10-1〉 노인의 지역·성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1순위 응답	684
〈부표 II-10-2〉 노인의 연령군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1순위 응답	685
〈부표 II-10-3〉 노인의 지역·성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1순위 응답	686
〈부표 II-10-4〉 노인의 연령군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1순위 응답	687
〈부표 II-11-1〉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요기관 도보 이동시간: 시장,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장소	688
〈부표 II-11-2〉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요기관 도보 이동시간: 병·의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	689
〈부표 II-11-3〉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요기관 도보 이동시간: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690
〈부표 II-11-4〉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요기관 도보 이동시간: 노인(종합)복지관	691
〈부표 II-11-5〉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요기관 도보 이동시간: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692
〈부표 II-11-6〉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요기관 도보 이동시간: 버스정류장·지하철역	693
〈부표 II-11-7〉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요기관 도보 이동시간: 산책,운동할 수 있는 공원	694
〈부표 II-11-8〉 노인의 일반특성별 별도 주거시설 이용시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식사서비스	695
〈부표 II-11-9〉 노인의 일반특성별 별도 주거시설 이용시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청소 및 빨래서비스	696
〈부표 II-11-10〉 노인의 일반특성별 별도 주거시설 이용시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운동, 문화, 여가서비스	697
〈부표 II-11-11〉 노인의 일반특성별 별도 주거시설 이용시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의료서비스	698
〈부표 II-11-12〉 노인의 일반특성별 별도 주거시설 이용시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돌봄서비스	699
〈부표 II-11-13〉 노인의 일반특성별 별도 주거시설 이용시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병·의원 동행/ 외출 지원 서비스(교통 편의 제공)	700
〈부표 II-11-14〉 노인의 일반특성별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 임종 전 정리	701
〈부표 II-11-15〉 노인의 일반특성별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 신체적 정신적 고통없이 임종	702
〈부표 II-11-16〉 노인의 일반특성별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 가족과 함께 하는 임종	703
〈부표 II-11-17〉 노인의 일반특성별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 부담을 주지 않는 임종	704
〈부표 III-3-3〉 노인의 시·도별 지역 및 성별 분포	705
〈부표 III-3-4〉 노인의 시·도별 연령 및 배우자 유무	705
〈부표 III-3-5〉 노인의 시·도별 가구형태 및 교육수준	706
〈부표 III-3-7〉 노인의 시·도별 단독거주 이유	706
〈부표 III-3-10〉 노인의 시·도별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	707
〈부표 III-3-11〉 노인의 시·도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707
〈부표 III-3-14〉 노인의 시·도별 기혼자녀 동거 시 일상생활 분담 방법	708



〈부표 Ⅲ-3-15〉 노인의 시·도별 미혼자녀 동거 이유	708
〈부표 Ⅲ-3-18〉 노인의 시·도별 미혼자녀 동거 시 일상생활 분담 방법	709
〈부표 Ⅲ-4-1〉 노인의 시·도별 가족 및 친구·이웃·지인 유무(율)	709
〈부표 Ⅲ-4-2〉 노인의 시·도별 가족 및 친구·이웃 평균수	710
〈부표 Ⅲ-4-3〉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의 건강상태	710
〈부표 Ⅲ-4-4〉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와의 갈등 실태	711
〈부표 Ⅲ-4-5〉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빈도	711
〈부표 Ⅲ-4-6〉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712
〈부표 Ⅲ-4-8〉 노인의 시·도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빈도	712
〈부표 Ⅲ-4-9〉 노인의 시·도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713
〈부표 Ⅲ-4-10〉 노인의 시·도별 자녀와의 갈등 실태	713
〈부표 Ⅲ-4-11〉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왕래빈도	714
〈부표 Ⅲ-4-12〉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714
〈부표 Ⅲ-4-13〉 노인의 시·도별 친인척과의 왕래빈도	715
〈부표 Ⅲ-4-14〉 노인의 시·도별 친인척과의 연락빈도	715
〈부표 Ⅲ-4-15〉 노인의 시·도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빈도	716
〈부표 Ⅲ-4-16〉 노인의 시·도별 친구·이웃·지인과의 연락빈도	716
〈부표 Ⅲ-5-1〉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717
〈부표 Ⅲ-5-2〉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717
〈부표 Ⅲ-5-3〉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718
〈부표 Ⅲ-5-4〉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718
〈부표 Ⅲ-5-5〉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	719
〈부표 Ⅲ-5-6〉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	719
〈부표 Ⅲ-5-7〉 노인의 시·도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720
〈부표 Ⅲ-5-8〉 노인의 시·도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720
〈부표 Ⅲ-5-9〉 노인의 시·도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721
〈부표 Ⅲ-5-10〉 노인의 시·도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721
〈부표 Ⅲ-5-11〉 노인의 시·도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	722
〈부표 Ⅲ-5-12〉 노인의 시·도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	722
〈부표 Ⅲ-5-13〉 노인의 시·도별 동거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723
〈부표 Ⅲ-5-14〉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723



〈부표 Ⅲ-5-15〉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724
〈부표 Ⅲ-5-16〉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724
〈부표 Ⅲ-5-17〉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725
〈부표 Ⅲ-5-18〉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	725
〈부표 Ⅲ-5-19〉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	726
〈부표 Ⅲ-5-20〉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726
〈부표 Ⅲ-5-21〉 노인의 시·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727
〈부표 Ⅲ-5-22〉 노인의 시·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727
〈부표 Ⅲ-5-23〉 노인의 시·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728
〈부표 Ⅲ-5-24〉 노인의 시·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728
〈부표 Ⅲ-5-25〉 노인의 시·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	729
〈부표 Ⅲ-5-26〉 노인의 시·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	729
〈부표 Ⅲ-5-27〉 노인의 시·도별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730
〈부표 Ⅲ-5-28〉 노인의 시·도별 생활비 지불방식	730
〈부표 Ⅲ-5-29〉 노인의 시·도별 의료비 지불방식	731
〈부표 Ⅲ-5-30〉 노인의 시·도별 간병비 지불방식	731
〈부표 Ⅲ-5-31〉 노인의 시·도별 손자녀 돌봄 여부 및 돌본 손자녀 수	732
〈부표 Ⅲ-5-32〉 노인의 시·도별 노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희망자녀	732
〈부표 Ⅲ-5-33〉 노인의 시·도별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733
〈부표 Ⅲ-6-1〉 노인의 시·도별 평소의 건강상태	733
〈부표 Ⅲ-6-2〉 노인의 시·도별 만성질환(의사진단 기준) 수	734
〈부표 Ⅲ-6-4〉 노인의 시·도별 우울증상	734
〈부표 Ⅲ-6-5〉 노인의 시·도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의사처방약 수	735
〈부표 Ⅲ-6-6〉 노인의 시·도별 지난 1개월간 보건의료기관 방문 횟수	735
〈부표 Ⅲ-6-7〉 노인의 시·도별 지난 1년간 요양병원 입원 횟수	736
〈부표 Ⅲ-6-9〉 노인의 시·도별 지난 1년간 그 외 병원 입원 경험 여부 및 유경험자 입원 횟수	736
〈부표 Ⅲ-6-11〉 노인의 시·도별 흡연상태	737
〈부표 Ⅲ-6-12〉 노인의 시·도별 음주정도	737
〈부표 Ⅲ-6-13〉 노인의 시·도별 운동 정도	738
〈부표 Ⅲ-6-14〉 노인의 시·도별 영양관리 상태	738
〈부표 Ⅲ-6-15〉 노인의 시·도별 비만도 수준	739



〈부표 Ⅲ-6-18〉 노인의 시·도별 건강검진수진율 및 병원·치과 미치료를	739
〈부표 Ⅲ-7-1〉 노인의 시·도별 시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740
〈부표 Ⅲ-7-2〉 노인의 시·도별 청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740
〈부표 Ⅲ-7-3〉 노인의 시·도별 씹기능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741
〈부표 Ⅲ-7-4〉 노인의 시·도별 하지 근력상태	741
〈부표 Ⅲ-7-5〉 노인의 시·도별 신체 근력상태(평균점수)	742
〈부표 Ⅲ-7-7〉 노인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742
〈부표 Ⅲ-7-9〉 노인의 시·도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743
〈부표 Ⅲ-7-10〉 노인의 시·도별 기능상태 제한 현황	743
〈부표 Ⅲ-7-11〉 노인의 시·도별 MMSE-DS 진단검사 결과	744
〈부표 Ⅲ-7-15〉 노인의 시·도별 돌봄 수급여부 및 돌봄제공자(중복응답)	744
〈부표 Ⅲ-7-27〉 노인의 시·도별 도움 충분성	745
〈부표 Ⅲ-7-29〉 노인의 시·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및 등급현황	745
〈부표 Ⅲ-7-31〉 노인의 시·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미신청 이유	746
〈부표 Ⅲ-8-1〉 노인의 시·도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가구소득)	746
〈부표 Ⅲ-8-2〉 노인의 시·도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가구소득)	747
〈부표 Ⅲ-8-3〉 노인의 시·도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개인소득)	748
〈부표 Ⅲ-8-4〉 노인의 시·도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개인소득)	749
〈부표 Ⅲ-8-5〉 노인의 시·도별 가구소득 중 개인소득의 비중	750
〈부표 Ⅲ-8-6〉 노인의 시·도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응답 노인 외 가구원)	750
〈부표 Ⅲ-8-7〉 노인의 시·도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응답 노인 외 가구원)	751
〈부표 Ⅲ-8-8〉 노인의 시·도별 가구소득 중 응답 노인 외 가구원 소득의 비중	752
〈부표 Ⅲ-8-9〉 노인의 시·도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 부동산 규모	752
〈부표 Ⅲ-8-10〉 노인의 시·도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금융자산 규모	753
〈부표 Ⅲ-8-11〉 노인의 시·도별 기타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기타자산 규모	753
〈부표 Ⅲ-8-12〉 노인의 시·도별 부채 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	754
〈부표 Ⅲ-8-13〉 노인의 시·도별 월평균 가구소비지출 및 주거비지출 금액(대표 가구원 응답)	754
〈부표 Ⅲ-8-14〉 노인의 시·도별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대표 가구원 응답)	755
〈부표 Ⅲ-8-15〉 노인의 시·도별 노인을 위한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755
〈부표 Ⅲ-8-16〉 노인의 시·도별 노인을 위한 월평균 지출액(지출 경험이 있는 노인의 평균)	756
〈부표 Ⅲ-8-17〉 노인의 시·도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756



〈부표 Ⅲ-9-1〉 노인의 시·도별 경제활동 실태	757
〈부표 Ⅲ-9-2〉 노인의 시·도별 종사 직종	757
〈부표 Ⅲ-9-3〉 노인의 시·도별 일의 내용	758
〈부표 Ⅲ-9-4〉 노인의 시·도별 현재 종사상 지위	758
〈부표 Ⅲ-9-5〉 노인의 시·도별 정부지원일자리 참여여부	759
〈부표 Ⅲ-9-6〉 노인의 시·도별 현재 근무장소 형태	759
〈부표 Ⅲ-9-7〉 노인의 시·도별 주당 근무일수	760
〈부표 Ⅲ-9-8〉 노인의 시·도별 주당 근무시간	760
〈부표 Ⅲ-9-9〉 노인의 시·도별 월평균 근로소득	761
〈부표 Ⅲ-9-10〉 노인의 시·도별 현직업의 종사기간	761
〈부표 Ⅲ-9-11〉 노인의 시·도별 현재 일을 하는 이유	762
〈부표 Ⅲ-9-12〉 노인의 시·도별 현재 일자리 만족도	762
〈부표 Ⅲ-9-13〉 노인의 시·도별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763
〈부표 Ⅲ-9-14〉 노인의 시·도별 현재 일의 최장기 직업 여부	763
〈부표 Ⅲ-9-15〉 노인의 시·도별 최장기 직업의 직종	764
〈부표 Ⅲ-9-16〉 노인의 시·도별 최장기 직업의 종사상 지위	764
〈부표 Ⅲ-9-17〉 노인의 시·도별 최장기 직종의 종사기간	765
〈부표 Ⅲ-9-18〉 노인의 시·도별 최장기 직종을 그만둔 이유	765
〈부표 Ⅲ-9-19〉 노인의 시·도별 최장기 직종 퇴직 후 경제활동 지속 여부	766
〈부표 Ⅲ-9-20〉 노인의 시·도별 향후 경제활동 참여 형태	766
〈부표 Ⅲ-9-21〉 노인의 시·도별 향후 일을 하고 싶은 이유	767
〈부표 Ⅲ-9-22〉 노인의 시·도별 희망 근로시간	767
〈부표 Ⅲ-9-23〉 노인의 시·도별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	768
〈부표 Ⅲ-9-24〉 노인의 시·도별 구직활동 비율 및 구직활동	768
〈부표 Ⅲ-9-25〉 노인의 시·도별 노인일자리 참여경험	769
〈부표 Ⅲ-9-26〉 노인의 시·도별 노인일자리 참여 사업유형	769
〈부표 Ⅲ-9-27〉 노인의 시·도별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의 세부 사업유형	770
〈부표 Ⅲ-9-28〉 노인의 시·도별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	770
〈부표 Ⅲ-9-29〉 노인의 시·도별 희망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771
〈부표 Ⅲ-10-1〉 노인의 시·도별 TV 및 라디오 청취	771
〈부표 Ⅲ-10-2〉 노인의 시·도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1~2순위 중복응답	772



〈부표 Ⅲ-10-4〉 노인의 시·도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772
〈부표 Ⅲ-10-5〉 노인의 시·도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1~2순위 중복응답	773
〈부표 Ⅲ-10-7〉 노인의 시·도별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경험 여부	773
〈부표 Ⅲ-10-8〉 노인의 시·도별 학습활동 참여율 및 교육 참여 빈도	774
〈부표 Ⅲ-10-9〉 노인의 시·도별 학습활동 참여 영역	774
〈부표 Ⅲ-10-10〉 노인의 시·도별 학습활동 실시 기관	775
〈부표 Ⅲ-10-11〉 노인의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시간	775
〈부표 Ⅲ-10-12〉 노인의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역	776
〈부표 Ⅲ-10-13〉 노인의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종류	776
〈부표 Ⅲ-10-14〉 노인의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연계 기관	777
〈부표 Ⅲ-10-15〉 노인의 시·도별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777
〈부표 Ⅲ-10-16-1〉 노인의 시·도별 사회단체활동 참여빈도: 동호회	778
〈부표 Ⅲ-10-16-2〉 노인의 시·도별 사회단체활동 참여빈도: 친목단체	778
〈부표 Ⅲ-10-16-3〉 노인의 시·도별 사회단체활동 참여빈도: 정치사회단체	779
〈부표 Ⅲ-10-17〉 노인의 시·도별 종교 현황	779
〈부표 Ⅲ-10-18〉 노인의 시·도별 종교 활동 참여 정도	780
〈부표 Ⅲ-10-19〉 노인의 시·도별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780
〈부표 Ⅲ-10-20〉 노인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자원봉사활동 희망 정도	781
〈부표 Ⅲ-10-21〉 노인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학습활동 희망 정도	781
〈부표 Ⅲ-10-22〉 노인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취미·여가활동 희망 정도	782
〈부표 Ⅲ-10-23〉 노인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종교활동 희망 정도	782
〈부표 Ⅲ-10-24〉 노인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정치사회 단체활동 희망 정도	783
〈부표 Ⅲ-10-25〉 노인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친목단체활동 희망 정도	783
〈부표 Ⅲ-10-26〉 노인의 시·도별 경로당 이용실태	784
〈부표 Ⅲ-10-27〉 노인의 시·도별 경로당 이용이유(1,2순위 중복응답)	784
〈부표 Ⅲ-10-28〉 노인의 시·도별 노인복지관 이용실태	785
〈부표 Ⅲ-10-29〉 노인의 시·도별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1,2순위 중복응답)	785
〈부표 Ⅲ-10-30〉 노인의 시·도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이용실태	786
〈부표 Ⅲ-10-31〉 노인의 시·도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이용 이유(1,2순위 중복응답)	786
〈부표 Ⅲ-10-32〉 노인의 시·도별 노인교실 이용실태	787
〈부표 Ⅲ-10-33〉 노인의 시·도별 노인교실 이용 이유(1,2순위 중복응답)	787



〈부표 Ⅲ-10-34〉 노인의 시·도별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실태	788
〈부표 Ⅲ-10-35〉 노인의 시·도별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1,2순위 중복응답)	788
〈부표 Ⅲ-10-36〉 노인의 시·도별 민간 문화시설 이용실태	789
〈부표 Ⅲ-10-37〉 노인의 시·도별 민간 문화시설 이용 이유(1,2순위 중복응답)	789
〈부표 Ⅲ-10-38〉 노인의 시·도별 전자기기(인터넷이 안되는 휴대폰) 보유 및 사용 여부	790
〈부표 Ⅲ-10-39〉 노인의 시·도별 전자기기(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보유 및 사용 시간	790
〈부표 Ⅲ-10-40〉 노인의 시·도별 전자기기(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보유 및 사용 시간	791
〈부표 Ⅲ-10-41〉 노인의 시·도별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	791
〈부표 Ⅲ-10-42〉 노인의 시·도별 생활에 필요한 정보 이용의 어려움	792
〈부표 Ⅲ-10-43〉 노인의 시·도별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예매 불편함 정도 ..	792
〈부표 Ⅲ-10-44〉 노인의 시·도별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식당 기계 주문 불편함 정도	793
〈부표 Ⅲ-10-45〉 노인의 시·도별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은행 ATM 사용 또는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한 불편함 정도	793
〈부표 Ⅲ-10-46〉 노인의 시·도별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신용카드, 체크카드만 이용 가능한 점포 증가로 인한 불편함 정도	794
〈부표 Ⅲ-11-1〉 노인의 시·도별 주택종류	794
〈부표 Ⅲ-11-2〉 노인의 시·도별 주거위치	795
〈부표 Ⅲ-11-3〉 노인의 시·도별 주거지의 생활편리성(조사업 의견)	795
〈부표 Ⅲ-11-4〉 노인의 시·도별 거주형태	796
〈부표 Ⅲ-11-5〉 노인의 시·도별 거주주택 만족도	796
〈부표 Ⅲ-11-6〉 노인의 시·도별 시장/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장소와의 도보 이동시간	797
〈부표 Ⅲ-11-7〉 노인의 시·도별 병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과의 도보 이동시간	797
〈부표 Ⅲ-11-8〉 노인의 시·도별 주민센터와의 도보 이동시간	798
〈부표 Ⅲ-11-9〉 노인의 시·도별 노인복지관과의 도보 이동시간	798
〈부표 Ⅲ-11-10〉 노인의 시·도별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과의 도보 이동시간	799
〈부표 Ⅲ-11-11〉 노인의 시·도별 버스 정류장/지하철역과의 도보 이동시간	799
〈부표 Ⅲ-11-12〉 노인의 시·도별 산책, 운동할 수 있는 공원과의 도보 이동시간	800
〈부표 Ⅲ-11-13〉 노인의 시·도별 현재 거주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거리	800
〈부표 Ⅲ-11-14〉 노인의 시·도별 현재 거주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빈도/노선	801
〈부표 Ⅲ-11-15〉 노인의 시·도별 현재 거주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_녹지공간, 공간 충분성 또는 거리	801



〈부표 Ⅲ-11-16〉 노인의 시·도별 현재 거주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_치안, 교통안전	802
〈부표 Ⅲ-11-17〉 노인의 시·도별 현재 거주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_자녀 또는 친지의 거주지와의 거리	802
〈부표 Ⅲ-11-18〉 노인의 시·도별 현재 거주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_이웃과의 교류 기회	803
〈부표 Ⅲ-11-19〉 노인의 시·도별 현재 거주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_지역사회 환경 전반	803
〈부표 Ⅲ-11-20〉 노인의 시·도별 건강 유지시 희망 거주 형태	804
〈부표 Ⅲ-11-21〉 노인의 시·도별 거동 불편시 희망 거주 형태	804
〈부표 Ⅲ-11-22〉 노인의 시·도별 지속 거주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 정도	805
〈부표 Ⅲ-11-23〉 노인의 시·도별 지속 거주를 위한 일상생활 지원 필요 정도	805
〈부표 Ⅲ-11-24〉 노인의 시·도별 지속 거주를 위한 안전 지원 필요 정도	806
〈부표 Ⅲ-11-25〉 노인의 시·도별 지속 거주를 위한 의료인이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건강서비스 필요 정도 ..	806
〈부표 Ⅲ-11-26〉 노인의 시·도별 지속 거주를 위한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 필요 정도	807
〈부표 Ⅲ-11-27〉 노인의 시·도별 지속 거주를 위한 상담 서비스 필요 정도	807
〈부표 Ⅲ-11-28〉 노인의 시·도별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의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_	
식사서비스	808
〈부표 Ⅲ-11-29〉 노인의 시·도별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의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_	
청소 및 빨래서비스	808
〈부표 Ⅲ-11-30〉 노인의 시·도별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의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_	
운동, 문화, 여가서비스	809
〈부표 Ⅲ-11-31〉 노인의 시·도별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의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_	
의료서비스	809
〈부표 Ⅲ-11-32〉 노인의 시·도별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의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_	
돌봄서비스	810
〈부표 Ⅲ-11-33〉 노인의 시·도별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의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_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교통 편의 제공)	810
〈부표 Ⅲ-11-34〉 노인의 시·도별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811
〈부표 Ⅲ-11-35〉 노인의 시·도별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점	811
〈부표 Ⅲ-11-36〉 노인의 시·도별 운전여부 및 운전을 그만둔 나이	812
〈부표 Ⅲ-11-37〉 노인의 시·도별 시·도별 낙상경험	812
〈부표 Ⅲ-11-38〉 노인의 시·도별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경험률	813
〈부표 Ⅲ-11-39〉 노인의 시·도별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	813
〈부표 Ⅲ-11-40〉 노인의 시·도별 건강상태 만족도	814



〈부표 Ⅲ-11-41〉 노인의 시·도별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814
〈부표 Ⅲ-11-42〉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815
〈부표 Ⅲ-11-43〉 노인의 시·도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815
〈부표 Ⅲ-11-44〉 노인의 시·도별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	816
〈부표 Ⅲ-11-45〉 노인의 시·도별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816
〈부표 Ⅲ-11-46〉 노인의 시·도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817
〈부표 Ⅲ-11-47〉 노인의 시·도별 정부 정책에 영향 가능성에 대한 인식	817
〈부표 Ⅲ-11-48〉 노인의 시·도별 노인의 사회적 존중감에 대한 인식	818
〈부표 Ⅲ-11-49〉 노인의 시·도별 상황별 차별 경험	818
〈부표 Ⅲ-11-50〉 노인의 시·도별 바람직한 재산처리방식	819
〈부표 Ⅲ-11-51〉 노인의 시·도별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819
〈부표 Ⅲ-11-52〉 노인의 시·도별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방법	820
〈부표 Ⅲ-11-53〉 노인의 시·도별 죽음 준비 실태	820
〈부표 Ⅲ-11-54〉 노인의 시·도별 생애 말기 좋은 죽음을 위한 요소별 중요도_임종 전후 상황 정리	821
〈부표 Ⅲ-11-55〉 노인의 시·도별 생애 말기 좋은 죽음을 위한 요소별 중요도_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는 임종	821
〈부표 Ⅲ-11-56〉 노인의 시·도별 생애 말기 좋은 죽음을 위한 요소별 중요도_임종 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함께 하는 것	822
〈부표 Ⅲ-11-57〉 노인의 시·도별 생애 말기 좋은 죽음을 위한 요소별 중요도_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822
〈부표 Ⅲ-11-58〉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823
〈부표 Ⅲ-11-59〉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 치매조기검진서비스	823
〈부표 Ⅲ-11-60〉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	824
〈부표 Ⅲ-11-61〉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 치매전담요양기관 운영	824
〈부표 Ⅲ-11-62〉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 치매안심센터	825
〈부표 Ⅲ-11-63〉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 및 대응기관)	825
〈부표 Ⅲ-11-64〉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 성년후견인제도	826
〈부표 Ⅲ-11-65〉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 주택연금	826
〈부표 Ⅲ-11-66〉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 농지연금	827
〈부표 Ⅲ-11-67〉 시·도별 향후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노인복지정책(1순위)	827
〈부표 Ⅲ-11-68〉 시·도별 향후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노인복지정책(2순위)	828

그림 목차

[그림 1-1]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진행 과정	35
[그림 1-2]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 협조 공문	38
[그림 1-3] 조사 진행도	42
[그림 1-4] 조사 준비물 : 조사도구	43
[그림 1-5] 조사 준비물 : 홍보 및 답례품	44
[그림 1-6] 현장조사 진행 절차	46
[그림 1-7] 조사 수행 전달체계도	47
[그림 12-1] 노인의 가구형태의 변화(2008년~2020년)	648
[그림 12-2] 노인의 교육수준의 변화(2008년~2020년)	649
[그림 12-3] 노인의 생존자녀 유무 및 규모 변화(2008년~2020년)	650
[그림 12-4] 노인의 비동거자녀와의 주1회 이상 왕래(연락)비율 변화(2008년~2020년)	650
[그림 12-5] 친인척 보유율 및 연락빈도(주1회 이상)	651
[그림 12-6] 친구이웃 보유율 및 연락빈도(주1회 이상)	652
[그림 12-7] 배우자와의 부양 교환 변화(2008년~2020년)	653
[그림 12-8] 자녀와의 부양 교환 변화(2008년~2020년)	654
[그림 12-9] 노후 생활비 마련 주체에 대한 가치관 변화(2008년~2020년)	655
[그림 12-10] 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 변화(2008년~2020년)	656
[그림 12-11] 만성질환율 변화	657
[그림 12-12] 우울증상을 변화	658
[그림 12-13] 노인의 건강행태 변화(2008년~2020년)	659
[그림 12-14]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율	660
[그림 12-15] 노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제한율 변화(2011년~2020년)	661
[그림 12-16] 노인의 돌봄제공자 특성	661
[그림 12-17] 노인가구의 소득원별 구성 및 평균금액	662
[그림 12-18] 노인의 주거상태 및 희망 거주 형태	670
[그림 12-19] 노인의 웰다잉 실천 및 인식	672
[그림 12-20] 노인의 삶의 만족도 (매우 만족+만족의 비율)	672
[그림 12-21] 최근 도입된 노인정책에 대한 인지도	673



요약

I. 조사 개요

□ 노인실태조사 실시 근거

-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조사로 2007년 법제화 이후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수행되는 조사이며, 2020년 다섯번째 조사로 수행됨.

□ 조사의 목적

- 노인의 생활 현황과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
- 시계열적 자료 축적을 통해 노인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 새롭게 노인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등의 변화하는 특성 파악
- 이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 설계 및 실시

-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설계의 기본방향은 이전 조사와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자 시계열 유지를 위한 조사항목을 구성하되,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는 노인의 생활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 구성
- 국가통계승인 및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에 대해 통계청 통계변경 승인 완료 (승인번호 제117071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결과 통지서 제2020-36호) 받아 조사를 수행함.
-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하여 교육을 받은 면접조사원 169명에 의하여 2020년 9월 14일~11월 20일 기간 중 TAPI(Tablet-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일대일 직접 면접으로 조사를 수행

- 설계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969개 조사구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 최종적으로 10,097명(대리응답 167명 포함)에 대해 조사를 완료함.

II. 주요 연구결과

1.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 노인의 75.8%가 동부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거주자가 43.5%로 노인의 상당수가 수도권 및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
- 성별 분포는 57.0% 여자, 43.0% 남자
-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65~69세 33.1%, 70~74세 23.2%, 75~79세 22.7%, 80~84세 14.6%, 85세 이상 6.4%로 평균 연령이 73.8세임.
- 초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28.4%, 중학교 졸업 23.3% 등의 분포를 보임.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 노인의 비율은 지역,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임.

2. 노인의 가구구성 현황

- 노인의 19.8%가 노인독거가구이며, 노인부부가구 58.4%, 자녀동거가구 20.1%, 기타가구 1.7%로 노인부부가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남자노인의 9.7%가 노인독거가구인 것에 비해 여자노인은 27.4%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노인단독가구(노인독거+노인부부)의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 노인단독가구의 경우(독거+부부가구) 약 1/3이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것이며,

개인 생활 향유 및 기존 거주지에서의 생활 희망과 같은 노인 개인적 차원의 욕구나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약 2/3을 차지함.

○ 노인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40.9%이나 독거노인 및 후기노인의 경우 약 80%가 어려움을 경험함.

- 노인 단독가구 생활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아플 때 간호문제(23.7%)와 경제적 불안감(13.3%), 일상생활 문제처리(9.9%) 순으로 나타남.

□ 동거자녀 결혼여부에 따른 동거 이유 및 일상생활 분담 방식을 살펴보면,

○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규범적인 이유로 인한 동거는 24.9%이나, 노인에 대한 심리적, 도구적, 경제적 지원 필요성에 의한 동거가 48.0%, 자녀의 경제적 및 도구적 지원 필요성에 의한 동거가 27.1% 임.

○ 기혼자녀와 동거 시의 일상생활 분담 방식을 살펴보면 자녀가 전적으로 35.3%, 공동으로 30.2%, 본인 또는 배우자가 21.4%, 각자 따로 하는 경우가 13.1% 등으로 다양함.

○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규범적 이유로 인한 동거가 38.8%이며, 노인에 대한 심리적, 도구적, 경제적 지원 필요성에 의한 동거가 27.1%, 자녀의 경제적 및 도구적 지원 필요성에 의한 동거가 34.0%임.

○ 미혼자녀와 동거 시의 일상생활 분담 방식을 살펴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담 50.7%, 공동으로 28.2%, 각자 따로 14.0%, 자녀가 전적으로 7.1% 순임.

3.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와 부양의 교환 실태

가.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규모

□ 노인의 대부분인 96.8%가 자녀가 있고, 평균 자녀 수는 3.0명이며, 88.3%가 손자녀를 두고 있으며 평균 손자녀 수는 4.1명임.

○ 79.8%는 형제자매가 있으며, 평균 형제·자매 수는 2.9명임.

-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인척이 있는 노인은 81.7%이며, 평균 2.1명임.
- 친한 친구·이웃·지인이 있는 노인은 친인척에 비해 많은 93.6%이며 평균 3.0명임.

나. 배우자의 건강 및 관계

- 유배우 노인의 14.7%가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하였으며,
 - 유배우 노인 중 16.8%는 배우자와의 생활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갈등의 원인으로는 성격 및 사고방식, 생활방식 차이에서 기인한 갈등이 75.1%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경제 또는 돌봄 지원과 관련한 갈등이 약 15.8%를 차지함.
- 노인의 85.6%는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4.9%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호혜적인 양상을 보임.
- 도구적 지원의 수혜율은 79.9%, 제공률은 76.6%, 돌봄 지원의 수혜율은 62.7%, 제공률은 62.3%를 보여 수혜-제공이 유사한 수준임.

다. 동거 자녀와의 관계

-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중 77.9%가 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았으며, 65.3%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였음.
- 청소·식사준비·세탁 등의 도구적 지원 교환 수혜율은 74.3%, 제공률은 68.9%로 나타남.
- 돌봄의 경우 수혜율은 49.9%, 제공률은 29.5%로 차이를 보임.
-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동거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돌봄 지원 순으로 제공 받으며,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돌봄 지원 순으로 제공함. 이같은 경향은 배우자와의 지원 교환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정기적 현금지원은 수혜율 56.2%, 제공률 19.5%이며,
 - 비정기적 현금지원은 수혜율 79.8%, 제공률 33.4%, 현물지원은 수혜율 80.0%, 제공률 41.8% 등으로 나타남.
 - 수혜의 비율이 제공의 비율보다는 높으며, 현물지원, 비정기적 현금지원, 정기적 현금지원 순으로 주고받고 있음.

라. 비동거 자녀와의 관계

-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의 경우 노인의 16.9%는 주 1회 이상 왕래하고 있고 63.5%는 주 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고 있음.
- 월1~2회 왕래와 주1회 이상의 연락이 평균적인 접촉실태이며,
 - 이러한 접촉 실태는 자녀와의 거주거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
-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70.5%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제공률은 56.4%로 나타남.
- 도구적 지원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혜율은 33.0%이나 제공률은 19.6%에 그침.
 - 돌봄 지원은 동 비율이 31.3%와 9.4%임.
 - 배우자나 동거 자녀와는 다르게 거주공간을 공유하지 않음에 따라, 도구적 지원 및 돌봄 지원 등의 비율이 동거자녀, 배우자보다 낮은 수준임.
- 경제적인 지원의 경우 46.0%가 비동거 자녀로부터 정기적인 현금지원을 받고 있고, 비정기적 현금지원은 85.6%, 현물지원은 77.9% 수준임.
 - 제공의 경우 현물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현금 제공 수준은 현물 제공에 비해 낮은 수준임. 비정기 현금지원은 29.1%, 정기적 현금지원은 12.5%임.

마. 노인의 부모 및 손자녀,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

□ 부모와의 부양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22.6%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제공률은 37.8%임.

○ 도구적 지원은 29.3%가 도움을 주는 반면, 수혜율은 11.7%에 그침. 돌봄 지원은 제공 중심으로 이루어져, 50.1%가 부모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적 지원도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비정기적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적 현금지원 순으로 나타남(65.2%, 61.7%, 52.8%).

- 수혜율은 현물지원, 비정기적 현금지원, 정기적 현금지원 순을 보이며 그 비율은 제공률에 비해 현저히 낮음(13.4%, 11.2%, 7.5%).

□ 손자녀와 주1회 이상 왕래 또는 연락하는 비율은 8.6%, 17.5%로 자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지난 1년간 직접 돌봐준 10세 미만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에 그쳤으며, 평균적으로 2.3명의 손자녀를 돌본 것으로 나타남.

□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접촉을 살펴보면 45.9%가 연 1, 2회 왕래하고 있으며 10.6%는 전혀 왕래가 없음.

○ 주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이 20.3%로 접촉빈도보다는 높으며, 특히 전기노인 또는 여자노인인 경우 연락빈도가 높음.

□ 노인의 69.4%가 친구·이웃·지인과 주 1회 이상의 왕래를 하고 있으며 4.9%는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락빈도의 경우는 노인의 71.0%는 주1회 이상의 연락을 하고 있고, 6.1%는 전혀 연락이 없음.

바. 노년기 부양에 대한 태도

- 노인의 12.8%가 자녀와 동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거 시 선호하는 자녀는 장남이 가장 많아 32.1%이며, 다음으로 형편이 되는 자녀 29.9%, 마음이 맞는 자녀 23.5%, 아들 10.3%의 순임.
-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하여 40.6%의 노인이 본인 스스로, 27.0%가 본인과 사회 보장제도, 22.3%는 사회보장제도, 5.3%는 본인과 자녀, 4.7%는 자녀로 응답

4.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가. 노인의 건강상태

-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49.3%이고, 건강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19.9%로 긍정적 평가 비율이 더 높음.
- 매우 건강하다 4.5%, 건강한 편이다 44.8%, 그저 그렇다 30.8%, 건강이 나쁜 편이다 17.6%, 건강이 매우 나쁘다 2.3%임.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앓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노인의 84.0%임.
- 만성질환 1개 29.2%, 만성질환 2개 27.1%, 만성질환 3개 이상 27.8%임.
 -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는 54.9%에 달하며, 전체 노인이 평균 1.9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음.
 - 연령별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은 65~69세 42.2%, 70~74세 54.4%, 75~79세 61.4%, 80~84세 66.2%, 85세 이상 73.1%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복합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짐.
-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당뇨병 24.2%, 고지혈증 17.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 관절염 16.5%, 요통 및 좌

골신경통 10.0% 등의 순임.

□ 노인의 13.5%가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음.

-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GDS)를 사용하여 8점 이상을 우울증상으로 정의함.
- 성별 우울증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 노인의 우울증상이 10.9%, 여자 노인의 우울증상이 15.5%로 여자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4.6%포인트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65세~69세 연령군의 우울증상은 8.4%인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의 우울증상은 24.0%로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임.

□ 현재 3개월 이상 의사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비율은 전체 노인의 82.1%임.

- 의사처방약 1~2종류를 복용하는 노인은 56.4%, 3~4종류를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21.4%, 5종류 이상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4.3%이며, 전체 노인이 복용하고 있는 의사처방약의 종류는 평균 1.8종류임.

□ 지난 1개월 동안 병원, 의원, 보건(지·진료)소, 한의원, 치과 등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70.6%이고, 평균 방문횟수는 1.5회임.

- 지난 1년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0.4%이며, 요양병원 이외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7.1%임.
- 입원 횟수는 1회 4.8%, 2회 1.0%, 3회 이상 1.3%임.

나. 노인의 건강행태

□ 노인 중 현재 흡연자는 11.9%이고, 지난 1년간 음주 경험자는 38.6%이며 이 중 과음주율(1주 8잔 이상)은 6.3%임.

□ 평소 운동실천 노인은 53.7%이고, 이들 중 권장수준(1주일에 150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 경우는 37.6%임.

-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일수록 운동 실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무학 군의 운동 실천율은 38.3%인데 반해 전문대학 이상 졸업 군의 운동 실천율은 74.6%로 매우 높음.
- 노인의 영양 관리 상태는 72.2%는 양호한 수준이고, 19.0%는 영양 관리의 주의가 요구되는 수준이며, 8.8%는 영양 관리 개선이 필요한 수준임.
 - 체질량지수(BMI)로 비만 정도를 보면 응답 노인의 2.6%는 저체중(BMI 18.5 미만)이며, 72.4%는 정상(BMI 18.5 이상~25 미만), 25.0%는 비만 수준(BMI 25 이상)임.
 - 지난 1년간 경로식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11.4%이고, 이 중 일주일에 적어도 1회 이상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비율은 9.2%임.
 - 식사(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8%이고, 이 중 일주일에 적어도 1회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2.9%임.
- 지난 2년간 77.7%의 노인이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음.
 - 치매검진을 받은 노인은 전체 노인의 42.7%임.
- 지난 1년간 병의원(치과 제외) 미치료 경험률은 2.5%임.
 - 치과 미치료 경험률은 3.7%로 상대적으로 치과 미치료 경험률이 병의원 미치료 경험률보다 높음.
 - 병의원 미치료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41.8%, 증상이 가벼움 27.0%, 거동 불편 12.6%, 교통 불편 5.4%, 진단과 치료 과정의 두려움 4.8%, 병원 예약·진료 대기 어려움 4.1%, 시간 부족 3.1%, 의료정보 부족 1.1% 등임.
 - 치과 미치료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 57.5%, 증상이 가벼움 19.4%, 치료 과정의 두려움 10.8%, 시간 부족 3.5%, 거동 불편 3.3%, 병원 예약·진료 대기 어려움 3.1% 등임.

5. 노인의 기능상태와 요양 보호 실태

가. 기능상태

□ 노인의 54.0%가 시력 보조기를, 11.2%가 청력 보조기를, 36.9%가 씹기 보조기(의치)를 사용하고 있음.

○ 시력 보조기와 의치 사용률은 청력 보조기 사용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35.0%가 시력에 불편함을, 39.5%가 씹기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음.

○ 또한, 청력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에 비해 청력에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은 낮게 나타남(불편한 편 22.1%, 매우 불편 2.6%).

□ 하지 근력 상태를 보면 응답 노인의 77.9%가 수행 가능했고, 각 신체 근력 상태를 비교해보면, 운동장 한 바퀴 뛰기를 가장 어려워하며(2.7점, 1점 전혀 어렵지 않음~5점 전혀 할 수 없음), 머리 위 높은 곳 손 뻗쳐서 당기가 1.6점으로 6개 항목 중 수행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7개의 ADL 항목과 10개의 IADL 항목에 기초하여 파악한 기능상태를 살펴보면 87.8%는 기능 제한이 전혀 없지만, 6.6%는 IADL만 제한을 경험하고 있으며, 5.6%는 ADL의 제한까지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기능상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제한율이 높아 85세 이상 연령 군에서는 ADL의 제한 비율이 22.8%에 달하고 있음.

□ MMSE-DS를 이용한 인지기능 점수는 평균 24.5점이며, 25.3%가 인지저하자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85세 이상의 경우 34.0%임.

나. 요양보호 실태

□ 신체적 기능 저하자 중 55.0%가 돌봄을 받고 있고, 이 중 74.5%는 동거가족원,

39.3%는 비동거 가족원으로부터 돌봄을 받음(중복응답).

○ 또한, 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서비스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19.1%, 노인돌봄서비스가 10.7%로 나타남.

□ 가족 등에 의해 보호를 받는 노인의 도움 충분성은 응답자의 41.0%가 (매우)충분하다고 인식하였으며, 35.1%는 보통, 23.8%는 (매우)부족하다고 응답함.

○ 무배우자 노인(26.8%), 독거노인(37.1%)의 경우 도움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높아 향후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가족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경우, 청소 등 가사와 식사서비스에서는 배우자, 딸, 아들의 순으로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외출 동행과 목욕 지원 등에서는 배우자, 아들, 딸, 사회복지종사자의 도움 제공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률은 4.3%이며, 85세 이상 연령에서는 19.5%로 높음. 본 조사는 재가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설 또는 요양병원 장기입원 노인이 제외되어 행정데이터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는 방문요양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며 (62.5%), 이외 방문목욕 32.6%, 주야간보호 25.9%, 복지용구 21.2%, 방문간호 16.6% 순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기보호는 4.9%에 그침.

○ 이용 서비스 종류에 따라 방문요양은 읍·면부 노인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주야간보호는 동부 노인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이는 지역간 서비스 인프라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됨.

○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방문요양의 경우 노인독거가구의 이용률이, 주야간보호의 경우 노인부부가구 및 자녀동거가구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6. 노인의 경제상태

□ 노인가구의 연 총소득은 3,026.5만원이고,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35.6%이며,

○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적이전소득 22.3%, 사업소득 15.4%, 사적이전소득 11.7% 등의 순임.

□ 노인 개인소득의 경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소득원은 사적이전소득으로 90.0%이며, 다음이 기초연금 68.9%, 공적연금 30.6%임.

○ 이외에도 근로소득 26.3%, 재산소득 16.5%, 사업소득 12.3% 등임.

○ 노인의 연간 개인소득은 1,557.6만원이고, 공적이전소득이 2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다음은 근로소득 24.1%, 사업소득 17.2%, 사적이전소득 13.9%, 재산소득 11.0%, 사적연금소득 6.3% 등의 순임.

○ 개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1%임.

□ 노인가구의 자산을 살펴보면 전체의 96.6%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그 규모는 2억 6,182.7만원 수준임.

○ 금융자산은 77.8%가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는 3,212.8만원, 기타자산은 45.6% 수준이며 규모는 1,120.1만원임.

□ 노인가구의 27.1%가 부채를 갖고 있고 평균 부채 규모는 1,892.8만원임.

□ 가구 소비지출액은 월평균 147.5만원이며, 동부 노인과 남자노인에게서 소비지출액이 더 많음.

○ 또한, 가구소득별로 중위소득 150% 이상 노인의 경우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255.7만원인 반면, 중위소득 50% 미만의 경우는 105.3만원에 불과함.

□ 노인가구가 부담을 느끼는 지출항목으로는 식비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 46.6%이

며, 다음이 주거관련비 22.3%, 보건의료비 10.9% 등임.

□ 노인가구의 4.6%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의료급여만 적용되는 노인은 2.4%임.

7. 노인의 경제활동

가. 현재의 경제활동 참여실태

□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은 36.9%이며, 응답자의 49.5%는 과거 일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으며, 13.6%는 평생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종사 직종을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4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3.5%임.

- 그 외 서비스종사자 12.2%, 관리자 8.8%, 기능원 및 관련 직종 5.6%, 판매 종사자 4.7% 등임.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 중 일의 내용을 범주화하여 살펴보면, 경비·수위·청소 관련한 일이 25.7%로 가장 많으며, 농림어업 20.6%, 운송·건설 관련 18.7%, 가사·조리·음식 관련 업무 13.8%, 공공·환경 관련 업무 10.0% 등의 순임.

○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가 3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임시근로자 21.2%, 상용근로자 18.4%, 일용근로자 15.2% 등의 순임.

□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주당 근무 일수는 주5일 일하는 노인이 전체의 41.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주6일 24.1%, 주3일 14.7%, 주7일 10.0%, 주4일 6.3% 등임.

○ 주 40~49시간 근무한다는 노인이 26.8%로 가장 많았으며, 9시간 이하 근무 22.2%, 10~19시간 16.3%, 50시간 이상 15.5% 등임.

- 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50만원 이상이 4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9만원 이하 15.7%, 100~149만원 14.0%, 50~99만원 13.0%, 그리고 30~49만원 9.4% 순으로 나타남.
-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직업에 종사한 기간은 5년 미만이 30.1%, 30년 이상 26.9%, 10~20년 16.1%, 5~10년 미만과 20~30년 미만이 각각 13.5%임.
-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7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 유지 8.3%, 용돈 마련 7.9%, 시간 보내기 3.9% 등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70.2%(만족 56.3%, 매우 만족 13.9%)는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 24.5%,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4.7%,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7%임.
- 불만족 사유와 관련하여 낮은 급여 수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47.2%), 다음으로 일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 24.2%, 건강상태와 맞지 않아서 15.3%, 기타 13.3%로 나타남.

나. 최장기 종사 직종

- 노인이 가장 오래 일했던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 26.2%이며, 다음으로 관리자 16.4%, 서비스종사자 14.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4.0%, 기능원 및 관련 직종 9.6%, 판매종사자 6.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4% 등으로 나타남.
- 최장기 직업의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 37.4%, 자영업자 31.1%, 임시근로자 9.4%, 무급가족종사자 9.1%, 일용근로자 7.5%, 고용주 5.6%임.
- 최장기 직종에서의 종사 기간은 30~40년 미만 23.9%, 20~30년 미만 23.4%, 10~20년 미만 22.8%, 40년 이상 18.1%, 5~10년 미만 7.8%, 5년 미만 4.0%로 나타남.

- 최장기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가 35.7%로 가장 높았으며, 정년퇴직이 24.6%, 정리해고·명예퇴직·폐·휴업으로 인한 퇴직 16.9%, 근로조건이나 환경 7.8%, 가사문제 6.7% 등임.
- 최장기 직종 퇴직 후 다른 일자리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1.5%임.

다. 향후 경제활동 의사

- 노인의 61.6%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38.5%는 일을 하고 싶어함.
- 앞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61.9%로 가장 높고, 다음이 건강 유지 13.6%임.
- 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노인(현재 경제활동 참여자 포함)이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40~50시간 미만이 30.6%로 가장 높으며, 30~40시간 미만 18.4%, 10~20시간 미만 15.6%, 20~30시간 미만 15.2%, 10시간 미만 13.8%, 50시간 이상 6.4%임.
- 향후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소득은 50만원 미만이 13.4%, 50만원~100만원 미만 21.7%, 100만원~150만원 미만 15.7%, 150만원~200만원 미만 15.6%, 그리고 200만원 초과 33.5%임.
-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노인 중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34.4%였으며, 주된 구직활동 방법은 취업센터 의뢰 58.2%, 개인 인맥 의뢰 32.0%임.
-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정식 사업명칭: 노인사회활동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7.9%, 참여한 적이 있는 노인은 5.9%, 사업에 신청했으나 참여하지 못한 노인은 5.9%, 아예 신청한 적이 없는 노인은 80.3%임.
- 현재 참여 노인의 71.9%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형 사업단

5.4%, 취·창업형 사업단 13.5%, 재능나눔활동 3.2%,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5.9%임.

□ 전체 노인의 22.4%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 참여하고 싶은 사업유형으로는 공공활동이 5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취·창업형 사업단 14.3%,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10.1%, 시장형 사업단 9.7%, 그리고 재능나눔활동 7.0%임.

8.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 노인 중 96.6%가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를 하며, 이들은 1일 평균 4.2시간 시청함.

□ 노인의 80.3%는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여행을 제외한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여가문화활동은 휴식활동이 52.7%로 가장 많으며, 취미오락활동이 49.8%, 사회 및 기타활동이 44.4%로 높음.

- 휴식활동 중에서는 산책(34.1%), 가족 및 친지방문과 같은 그 외 사회활동(21.1%), 종교활동(19.0%) 등임.

-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25.9%,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20.9%, 건강이 좋지 않아서 2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인들이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이 38.3%로 가장 많으며, 산책 31.9%, 기타 관광활동 12.7%, 등산 11.8% 등임.

○ 노인의 27.6%는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을 한 경험이 있음.

□ 노인의 11.9%가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노인은 월평균 9.0시간을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학습활동 내용은 44.3%는 건강관리/운동 관련, 문화예술 28.2%, 정보화

11.4%, 어학 5.9%, 인문학 5.4% 등의 순으로 참여함.

- 이들은 노인복지관(35.5%), 시·군·구/읍·면·동(15.1%), 공공문화센터(14.4%), 사설문화센터·학원(5.8%)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매체(17.0%)를 활용하여 참여하고 있음.

□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2.9%이며, 월평균 6.3시간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음.

- 참여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참여가 48.8%로 가장 높으며, 교통질서 19.9%, 환경보호 14.4%, 문화체육 7.9%, 보건의료 5.8% 등의 순을 보임.

- 전체적으로 단순노력봉사의 비율이 83.7%로 높으며, 취미(교육) 등으로 습득한 지식/기술 활용 8.5%,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활용 7.8%임.

- 자원봉사활동 참여 노인들은 종교기관을 통한 봉사활동(33.4%)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지자체(31.2%), 복지기관(15.8%), 민간단체(7.1%)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6.6%는 연계기관이 없음.

□ 노인의 사회단체활동은 친목(단체)활동이 44.1%로 가장 높으며, 동호회 참여율 4.7%, 정치사회단체 1.2% 순임.

- 사회단체활동 참여빈도는 동호회와 친목단체는 월 1회 참여비율이 40.1%와 49.6%로 가장 높으며, 정치사회단체는 월 1회 미만 참여비율이 63.1%로 가장 높음.

□ 노인의 40.2%는 종교가 없으며, 종교가 있는 노인 중 10.9%는 종교활동을 하지 않음.

- 주 1회 활동 비율이 41.2%로 가장 높으며, 주 1회 이상의 적극적 종교활동 비율은 52.9%임.

□ 향후 노후 생활에서 희망하는 활동으로는 취미여가활동이 37.7%로 가장 높으며, 경제활동 25.4%, 친목(단체)활동 19.3%, 종교활동 14.1%, 자원봉사활동 1.7%,

학습활동 0.9%, 정치사회(단체)활동 0.2% 등의 순임.

○ 각 항목별 희망 정도(반드시 하고 싶음~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를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 45.6%, 학습활동 43.1%, 취미여가활동 89.8%, 종교활동 54.0%, 정치사회(단체)활동 24.1%, 친목(단체)활동 81.1%임.

□ 노인의 28.1%가 경로당(1주 평균 3.2일)을, 9.5%가 노인복지관(1주 평균 2.0일)을, 6.0%가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1주 평균 1.7회), 1.8%가 노인교실(1주 평균 1.2회)을, 4.7%가 공공 여가문화시설(1주 평균 1.6회)을, 0.8%가 민간 여가문화시설(1주 평균 1.4회)을 이용

○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이용 이유는 친목 도모(경로당 82.9%, 노인복지관 45.7%, 각종 복지관 35.8%)와 식사 서비스(경로당 62.5%, 노인복지관 45.9%, 각종 복지관 38.1%),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경로당 19.0%, 노인복지관 35.1%, 각종 복지관 38.4%)이 동일하게 높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각 기관의 특성별 비중은 상이함.

○ 반면, 노인교실과 공공 여가문화시설, 민간 여가문화시설은 앞선 세 가지에 비해 사회활동적인 측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앞선 시설들과 상이한 측면을 보임.

- 노인교실은 친목도모(55.0%),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38.3%),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27.4%)을 중심으로 이용하였으나, 공공 여가문화시설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52.6%),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35.8%), 친목도모(30.9%), 민간 여가문화시설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73.0%), 식사서비스 이용(30.6%),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17.2%), 친목도모(13.9%)를 위해 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함.

□ 노인의 정보화기기 보유 및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스마트폰(보유 56.4%, 사용 52.8%)을 활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인터넷이 안 되는 휴대폰(보유 57.4%, 사용 34.9%), 컴퓨터(보유 12.9%, 사용 6.3%)임.

○ 이러한 정보화 기기 사용은 가장 낮은 수준인 문자 받기(80.6%) 기능 사용 비

율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문자 보내기(69.7%), 사진·동영상 촬영(50.6%), 정보검색(48.2%), 동영상 보기(34.5%), 음악 듣기(26.2%), SNS 이용(23.7%), 게임(16.1%), 금융거래(12.6%),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9.9%), 온라인 쇼핑(7.9%) 순임.

- 생활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있어 노인의 74.1%는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인터넷 중심이어서 이용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공공기관, 마을, 마트 공지사항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 이해 어려움’은 63.5%, ‘정부나 공공기관 우편물 또는 공지사항 용어, 내용 이해 어려움’은 58.9%임.
- 다양화된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노인 중 58.3%가 정보화 기기를 통해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교통 수단을 예약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60.4%(불편하다+매우 불편하다)는 불편함을 경험함.
 - 노인 중 58.1%가 정보화 기기를 통해 식당에서 주문을 해보았으며, 이들 중 64.2%(불편하다+매우 불편하다)는 불편함을 경험함.
 - 노인 중 88.9%가 ATM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38.4%(불편하다+매우 불편하다)는 불편함을 경험함.

9.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가. 주거 및 지역 환경

□ 거주 주택의 편리성

- 노인주택의 8.9%는 생활하기에 불편한 구조이며, 71.3%는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 배려 설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비율은 19.8%로 나타남.
 -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춘 비율이 13.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최근 안전설비 설치에 대한 정책의 확대

와 아파트 중심의 도시 생활에서의 안전인테리어 확대를 통해 안전설비가 확대된 결과로 보임.

□ 주택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 노인의 75.6%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9.9%, 만족 65.7%)하는 것으로 나타남.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3.5%, 전혀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0.2%로 나타남.

○ 불만족 이유

-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주방, 화장실, 욕실 등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응답이 32.3%이며, 다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에 공간이 좁아서 19.4%, 주택의 출입이 불편해서(출입구, 계단 등) 10.2%로 나타남.
- 그다음은 개보수 등 주거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9.9%, 방음이나 채광에 문제가 있어서 9.7%, 안전관리, 보수 등 관리가 힘들어서 9.6%, 냉난방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8.1%로 나타남.

나. 희망 주거형태 및 주거 서비스 욕구

□ 건강이 유지된다는 조건에서의 희망 거주형태

- ‘현재 집에서 계속 산다’의 비중이 83.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한다’ 11.2%, ‘식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주택으로 이사한다’ 4.9%로 나타남.
- 2017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비율은 4.8%포인트 감소, 식사 등 편의시설 제공되는 주택에 들어간다는 비율은 4.7%포인트 증가
- 최근 다양한 노인 주거형태의 등장으로 인해 이에 대한 욕구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해질 때의 희망 거주형태

○ 응답자의 56.5%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 7.2%는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 친인척과 이사를 하거나 이사하도록 하여 함께 살기를 희망,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녀 또는 형제, 자매, 친구의 근거리로 이사하여 살고자 희망하는 비율은 4.9%로 나타남.

- 돌봄, 식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이사한다는 비율은 31.3%로 나타남.

□ 외출 및 교통수단

○ 노인이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택시의 대중교통 70.9%, 자가용 25.6%이며, 자전거와 오토바이 1.1%와 1.4%임.

- 65~69세의 경우 자가용 이용 38.1%, 70~74세는 23.4%, 75~79세는 15.2%, 80~84세는 16.1%, 85세 이상에서는 28.2%로 나타남.

○ 노인이 평소 외출할 때 경험하는 불편사항에서는 34.3%가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버스 이용 19.3%,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 24.9%, 교통수단 부족 5.6%, 이동 불편한 도로 상태 3.9%,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교통편의시설 5.4%, 인도가 없어 보행 시 위험 1.5%,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 4.9% 등으로 나타남.

□ 노인의 운전 실태

○ 노인의 21.9%는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운전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 비율은 17.8%, 평생 한적 없는 비율은 60.4%로 나타남.

-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비율은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41.5%로 여자 7.1%에 월등히 높고, 연령군별로는 65~69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39.2%).

다. 안전 실태

□ 낙상 실태

○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한 비율은 7.2%이며, 평균 낙상 경험은 평균 1.6회, 낙상 후 병원 치료율은 72.5%로 나타남.

○ 낙상의 원인

- 환경적 요인 : 바닥이 미끄러워서 30.1%,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 8.1%, 도로나 문턱에 걸려서 13.7%, 도로의 경사가 급해서 3.2%, 조명이 어두워서 1.8%로 환경적 요인은 총 56.9%
- 신체적 원인 : 다리를 접질려서 18.6%, 갑자기 어지러워서 4.4%, 다리에 힘이 풀려서 18.8%로 신체적 원인은 총 41.8%

□ 노인학대

○ 지난 1년간 노인의 학대 경험률은 신체적 학대 1.3%, 성 학대 1.1%, 정서적 학대 6.6%, 경제적 학대 0.4%, 신체적 방임 0.3%, 경제적 방임 0.2%로 나타남.

라. 연령 규범 및 연령 차별

□ 노인이 생각하는 노년기 시작 기준 연령

○ 평균 70.5세이며, 69세 이하 25.9%, 70~74세 52.7%, 75~79세 14.9%, 80세 이상 6.5%로 나타남.

□ 노인 차별 경험 및 사회적 존중감에 대한 인식

○ 노인 차별 경험은 대중교통 이용 시 20.8%, 식당이나 커피숍 16.1%, 판매시설 이용 시 14.7%, 의료시설 이용 시 12.7%, 일터 10.6%, 공공기관 이용 시 8.7%로 나타남. 가족 내에서 주요 의사 결정 시 11.3%임.

- 노인은 사회의 다양한 상황에서 노인이기 때문에 차별당하고 무시당한 경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

- 긍정적 응답이 33.8%이며, 27.3%가 부정적으로 응답. 긍정적 응답은 부정적 응답에 비해 6.5%포인트 높게 나타남.

마. 웰다잉에 대한 실천 및 인식

□ 좋은 죽음과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

- 노인이 생각하는 생애 말기 좋은 죽음이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90.6%,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는 죽음 90.5%로 나타나며,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 89.0%,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것 86.9%로 나타남.

○ 죽음 준비 실태

- 죽음 준비 중에서 수의, 묘지, 상조회 가입과 같은 장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79.6%이며, 그 외의 유서작성, 죽음준비 교육 수강, 상속 처리 논의, 사전연명의료, 장기기증 서약 등의 좋은 죽음을 위한 스스로 본인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은 27.4%로 나타남.
- 즉, 현 노인은 본인의 장례와 관련된 준비의 비중이 높으며 죽음을 준비하며 삶을 정리하는 다양한 행위는 그에 비해 낮게 나타남. 이와 같은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 죽음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좋은 죽음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것과 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재산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5%가 자녀에게 균등 배분, 장남에게 더 많이 10.9%, 장남에게만 배분 2.4%, 효도한 자녀에게 7%, 경제적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7.7%로 나타남.

-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자신(배우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17.4%, 전체 또는 일부를 사회에 환원 1.1%로 나타남.

□ 연명치료에 대한 동의 정도

- 연명치료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85.6%로 나타나며 특히 매우 반대하는 강

력한 의견이 46.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자살에 대한 생각

- 조사응답자의 2.1%는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에서는 건강 23.7%, 경제적 어려움 23.0%, 외로움 18.4%,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13.8%, 배우자나 가족과의 갈등 13.1%, 배우자나 가족의 건강 및 돌봄 문제 7.6%로 나타남.

바. 삶의 만족도

□ 노인의 49.6%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7.9%만이 삶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50.5%, 경제상태는 37.4%, 사회·여가·문화활동은 42.6%, 배우자 관계는 70.9%, 자녀관계는 73.3%, 친구/지역사회와의 관계는 5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삶의 영역 중 가족이나 친구/이웃과의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경제상태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남.
 - 삶의 영역별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은 영역은 경제상태에 만족하지 않음 또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20.5%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이 건강,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사. 노인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욕구

□ 최근 도입된 노인 정책에 대한 인지도

- 치매조기검진서비스는 44.1%로 가장 높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 29.7%, 치매전담요양기관 26.9%, 치매안심센터 26.0%로 치매 대응 정책은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맞춤형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 비율은 38.6%

로 높게 나타남.

-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주택연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비율은 29.4%로 높으나, 농지연금의 경우 13.2%로 주택연금에 비해 인지도가 낮게 나타남.
- 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 보장 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1.9%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에 비해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비율은 10.0%로 낮음. 아직 성년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노인복지정책 중 향후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인식(1+2순위)

- 노인빈곤완화 49.0%, 노인건강 45.9%, 노인돌봄 32.0%, 치매 22.5%, 노인고용/일자리 지원 21.3%, 노인 특화된 다양한 주거 5.2%, 자원봉사/사회참여 지원 4.8%, 주택개선 및 개조서비스 3.5%, 노인 특화된 용품 확대가 1.3%로 나타남.
- 향후 확대되어야 할 노인복지정책 1순위만을 살펴보면 빈곤 완화, 건강, 돌봄 서비스에 85.2%가 집중되는 결과를 보이며, 2순위까지를 고려한다면 치매, 노인고용/일자리 지원, 여가문화, 사회참여 정책에 대한 욕구가 나타남.

III. 결론 및 시사점

1. 노인의 특성 변화에 주목

- 노년기 자녀 역할 감소, 노인의 자립성 증가→ 노인 정책의 ‘가족’ 의미 재탐색
 - 노년기 가구 형태는 노인만으로 구성 일반화(80%는 노인 혼자 또는 부부형태로 생활)
 - 자녀와의 왕래, 연락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친인척, 친구와의 접촉은 증가함.
 - 노후 경제적 부양 주체에 대한 생각 & 실제 경제상태 : 노인과 사회보장 중심으로 자리매김(자녀 부양 기대 줄고, 실제 사적이전소득 감소)

- 돌봄의 사회보장 기능 이용 확대, 가족은 비교적 비정기적 또는 낮은 강도에서 돌봄(보조적 기능)

□ 노인 집단은 단일 집단이 아닌 다양화 → 노인 정책의 대상 특성별 접근

- 연령에 따른 특성 유형 : 사회참여, 건강은 75세 전후, 기능상태는 80세 전후 하여 특성 변화
 - 75세 이전의 전기 노인의 경우 정보화 등의 사회변화 적응
- 노인의 전반적인 경제, 건강 상태는 양호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독거노인, 후기노인, 여자 노인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에 대한 관심 필요

2. 영역별 주요 과제

□ 혼자 살거나 노인부부 중 사회적 고립 위험 집단에 대한 집중 관심과 지원

- 자녀 중심 사적 관계망 약화와 자녀 동거율 감소로 인해 노인 독거, 부부가구 중 고령이거나 기능 악화의 경우 외부와의 단절 위험
- 고독사, 가구 내 학대, 부적절한 돌봄 위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가족 기능 감소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보편화 확대

- 노인에 대한 자녀세대부터의 경제적 부양, 돌봄 감소, 접촉 또한 감소하는 경향은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의무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보장제도에 노인 부양자 기준이 없는 것과 같이 점차 장기요양보험 등 요양과 돌봄 제도에서도 암묵적 가족 기능을 고려한 급여 기준 등의 개편이 요구 되어짐.

□ 노인 돌봄에서의 가족 돌봄 감소에 따른 사회적 돌봄 기능 강화

- 서비스의 다양화, 접근성 향상, 소득 기준 폐지를 통한 기본 권리로서 보장

- 노인요양시설, 노인형 주거시설에 대한 양 및 질적 수요 증가 대응
-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
 - 노인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 단위의 다양한 주거-요양-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마련
 - 지역에서의 노인 이동권 보장 확대
 - 지역 환경의 안전 확보: 낙상 방지 등
-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적 사회문화 개선 및 제도 개편
 - 고용시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노인 비하,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적 사회문화 개선
 - 세대 간 연대, 세대 교류의 확대가 가능한 제도적 접근이 요구됨. 연령에 따른 학습과 노동, 여가의 분절적 제도, 사회문화를 변화시켜 연령에 유연한 제도의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노년기에도 교육을 받는 평생교육과 다양한 사회참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접근 필요
- 노년 가치있는 삶의 의미와 주체적 노년 실현을 위한 정책, 제도 개편
 - 불필요한 수명연장을 위한 연명치료 반대, 웰다잉(좋은 죽음), 노년기 사회활동 가치 증가
 - 연명치료 결정 및 호스피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확대
 - 지역단위 다양한 사회활동 기회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대
- 노년기의 경제적 자립 중요성 높아짐. 기존 사적 이전소득의 급속도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국민연금 보험료 상향 및 소득대체율 증가, 기초연

금의 급여 수준 상향 혹은 소득수준별 차등 등의 제도 개선 노력 지속

-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합리적인 수준의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 정책은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향상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향상 필요. 특히 후기 고령자 중심 사업을 고려하여 사회참여, 사회 기여의 형태로 전환(소득보장의 기능보다는 사회참여의 성격으로 전환)
- 정부가 추진 중인 계속 고용 지원 정책의 성과 확대를 위해 기업의 참여와 독려가 중요함.
- 정부의 재정일자리 창출만으로는 노인의 경제활동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업에서 노인근로자에 대한 수요 변화가 나타나야 함.

□ 여가문화, 평생교육 등의 욕구, 건강 및 돌봄서비스의 대한 높은 품질 욕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 참여 촉진 정책

□ 노인의 정보 접근의 소외 개선 노력

- 후기 노인의 정보화 기기 활용의 어려움과 생활에서의 정보 취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기기 보급 및 교육의 적극적 접근
 - 정보 이해력을 확대하기 위한 고령자 친화적 정보 제공 접근 시·도(예, 정보지의 글씨 크기, 쉬운 말, 간략한 표현 등)

*주요용어: 가구형태, 건강상태, 건강행태, 기능상태, 소득 및 지출, 경제활동, 사회참여, 생활환경, 노후가치관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조사방법과 자료처리
제3절 표본설계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노인에 대한 정의는 역연령(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년기를 정의를 통해 노인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 많이 사용되는 역연령을 활용한 노인의 정의는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면서 사회보장의 수급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가장 명확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우리사회에서는 과거 환갑을 기준으로 노인을 설정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기초연금 또는 교통우대제도 등의 기준인 65세를 노인의 기준점으로 두고 있다. 65세의 연령기준은 UN, WHO,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활용되는 고령화율 산정의 기준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인’은 노년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노년기의 정의는 여러 이견이 있다. 노년학자인 애칠리와 바루시는 성인 후기(later adulthood)가 60대부터이고, 노년기(old age)는 70대 후반 또는 80대 초반에 시작된다고 정의한다(Atchley and Barusch, 2004:8). 최성재·장인협(2005)에서는 노인을 “생리적 및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의 약화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노인, 노년기의 정의는 학자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다르고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많은 국가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 노인인구의 특성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5.7%이며, 향후 인구 고령화율은 2025년 20.0%, 2030년에는 25.0%으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우리사회의 인구변동은 고령화율 뿐 아니라 노인 인구의 절대 수도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노인 인구는 8,125천 명이며, 2030년에는 12,980천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20).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와 고령화율의 증가 뿐 아니라 노인인구의 특성은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기준 현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는 1900년대 초반 출생자

부터 최근 1955년 출생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일제강점기, 광복,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민주화, 그리고 최근 정보화까지의 역사적 사건과 변화를 겪은 세대이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사회와 경제제도의 발전을 통해 공교육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 국제화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현재의 65세 이상의 노인 집단 내에서도 연령별 교육수준, 자녀수와 가족관계, 직업, 부의 축적 정도, 가치관 등의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즉,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내에서도 출생 코호트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현재의 노인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연령효과, 출생 코호트 효과, 시대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2008년부터 이루어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노인특성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학력 수준은 크게 향상되어 저학력 노인의 비율은 감소하고, 고학력 노인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무학의 비중이 2008년 33.0%였으나 2017년에는 24.3%로 감소하였으며, 중학교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2008년의 29.0%에서 2017년 41.7%로 12.7%p 증가하였다. 이는 공교육의 의무화와 교육에 대한 높은 학구열은 급속한 학력 상승 효과를 보이며, 2020년 조사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편입되는 1955년 이후 출생한 1차 베이비부머(1955년부터 1963년 출생자)의 경우는 한국전쟁 이후 출생한 세대로 대부분이 1960년대에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기회가 부여된 세대이다.

노년기 가구형태 변화는 교육수준 만큼이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노년기 희망하는 가구형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함께 실제 노인의 가구형태의 변화가 나타났다. 노년기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08년 32.5%에서 2017년 15.2%로 낮아졌다.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도 자녀로부터 부양받고자 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사회보장제도 또는 노인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 세대의 부양 가치관 변화는 노인 가구형태의 변화로 나타난다. 노인 혼자 또는 노부부만이 거주하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2008년 66.8%에서 2017년 72.0%로 증가하였다. 반면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비율은 2008년 27.6%에서 2017년 23.7%로 나타난다.

노인세대의 변화 뿐 아니라 노인세대 내의 다양성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지난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거주하는 지역(도시 또는 농어촌), 성별, 연령별, 그리고 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들 특성에 따른 대표적 차이는 다음

과 같다.

지역별로는 가구형태와 경제 및 사회·여가·문화활동, 지역사회 환경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농어촌지역의 경우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다(도시 45.7%, 농어촌 54.2%). 경제활동은 도시지역 24.1%, 농어촌 45.9%로 농어촌이 높은 반면, 여가활동경험률은 도시지역이 조금 높게 나타난다. 서비스 인프라 이용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나는데, 노인복지관 이용률은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높으며, 경로당 이용률은 농어촌이 도시지역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분포를 보인다. 이처럼 지역별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에 비해 부정적인 지표의 비율이 높다. 3개 이상 만성질환 이환율은 여자노인 58.6%, 남자노인 40.6%이며, 기능 제한율도 여자노인 31.9%, 남자노인 16.5%로 여자노인이 높다. 경제 상태에서도 여자 노인의 공적연금 보유율은 20.1%로 남자 노인의 54.1%와 비교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비공식적 관계망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 개인의 공적연금 소득 비율은 전후기 노인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75세 이전의 전기노인은 40% 내외가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반면, 75~79세 연령군 30.4%, 80~84세 연령군 19.7%, 85세 이상 연령군의 경우는 동 비율이 9.3%에 불과하다. 건강 수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나쁜 경향성이 분명하며 특히 80세를 전후로 하여 기능상태가 급격히 저하된다. 85세 이상의 기능 제한율이 67.4%(ADL도 제한이 있는 비율은 32.0%), 낙상률이 22.0%에 달하고 있다. 나아가 연령이 높을수록 독거가구의 비중은 높아지고 부부가구의 비중은 낮은 경향을 보인다. 연령별 노인의 특성은 교육수준, 경제수준, 경제활동, 사회활동과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에서는 교육, 경제수준이 높으며,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의 높은 참여율을 나타낸다.

이와같은 결과는 연령에 따른 연령효과(age-effect)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출생코호트에 따른 코호트 효과(cohort-effect), 그리고 사회가 변화로 인해 노인세대도 변화하는 시대효과(period-effect)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노인의 특성을 분석할때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노화의 현상으로서의 분석 뿐 아니라 각 출생코호트가 갖고 있는 성장 배경을 고려한 특성 변화, 그리고 사회의 변화가 반영된 특성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법정조사로 2007년 법제화 이후 3년마다 수행되는 조사이며, 2008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5차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조사는 노인의 생활 현황과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고, 시계열적 자료 축적을 통해 노인의 특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과 미래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들의 건강, 경제, 사회참여와 여가 등의 노후 생활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노인 내에서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제도 보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산출하고자 한다. 또한 노후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정책 추진 우선순위 결정의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2020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삶의 영역별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고, 노인 세대 내의 다양한 계층, 대상별 특성을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과거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노인의 특성 변화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2000년 이후 노인정책은 우리사회의 사회보장 확대의 맥락과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등의 노후 삶의 소득, 요양, 사회참여의 주요 정책이 도입 확대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최근 향후 고령화율 20%를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노인정책의 관점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과거 노인을 피부양자로서의 의존적 존재이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차원의 노인정책에서 삶의 연속성 차원에서의 노년기를 사는 주체적이고 독립적 존재로서 적극적인 사회 역할과 참여를 기대하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로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는 변화는 노인정책의 지향점에 따른 정책의 개편을 고려하여 노인의 기존 사회참여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 역할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전 세계적인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동대응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령사회 대응 현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현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모습과 함께 정책 수준을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는 코로나-19상황에서 이루어진 조사이다. 조사분량이 방대하고 노인의 건강과 문해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이전 조사 결과와의 시계열 비교를 위해 이전 조사 방식과 동일한 대면조사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조사는 감염의 위험과 감염 불안으로 인한 조사 비협조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적 방역을 실시하였다. 2020년 조사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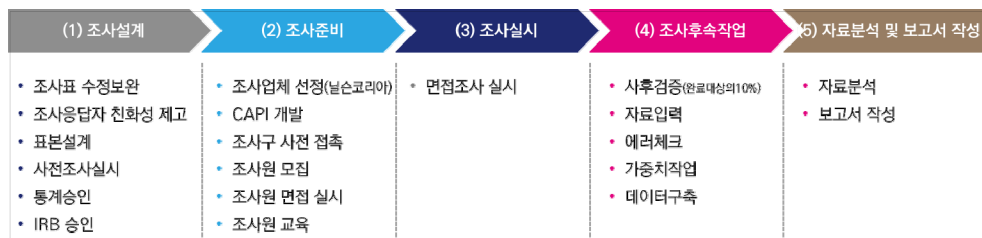
과를 해석함에 있어 문항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과 3년간의 노인의 특성 변화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따라서 향후 3년 이후 2023년의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노인의 삶의 변화 모습을 정확히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본 조사결과는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한 노년기 삶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주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조사방법과 자료처리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조사표 개발, 표본설계, 사전조사, 통계승인, IRB 등의 과정을 통해 조사를 설계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였다. 3단계에서는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단계에서는 사후검증 등의 후속작업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자료분석 및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서 기술하였다.

[그림 1-1]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진행 과정



1. 조사설계

가. 조사표 수정보완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내용은 시계열 유지를 위해 2017년 노인실태조사

조사표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노인의 특성변화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 보완 작업이 있었다. 조사내용 수정·보완을 위해 정부부처와 전문가 및 노인실태조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무부처와의 의견수렴은 총 3차례의 서면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28인(조사내용 전반 7인, 건강 3인, 기능상태 및 요양 8인, 경제활동 3인, 여가 및 사회참여 5인, 고령친화환경 2인)을 대상으로 조사표 구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국가승인통계로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노인실태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실태조사 데이터 이용자 250여 명 중 개인정보이용을 허락한 63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 중 23명이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1-1〉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전문가 자문단

연번	이름	소속
1	구철희	청주대학교
2	김민경	건강보험연구원
3	김수영	경성대학교
4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5	남일성	성공회대학교
6	남현주	가천대학교
7	모선희	공주대학교
8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9	박명화	충남대학교
10	서동민	백석대학교
11	석상훈	기획재정부
12	엄기욱	군산대학교
13	엄지혜	중원대학교
14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15	윤민석	서울연구원
16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7	윤종률	한림대학교
18	이민홍	동의대학교
19	이운환	아주대학교
20	이재정	부산복지개발원
21	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
22	전승훈	대구대학교
23	전용호	인천대학교
24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25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26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27	한정란	한서대학교
28	황경란	경기복지재단

나. 사전조사

사전조사는 2020년 6월 26일~2020년 7월 12일 기간 중 연구진과 숙련된 조사원 3명에 의하여 6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사전조사 대상은 가능한 한 다양한 연령과 남녀 노인을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현장 적합성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었다. 또한, 2020년 조사는 COVID-19 상황에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진행방법 등에 대해서도 사전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응답자가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하는 문항 등의 수정 보완과 COVID-19 상황에서의 응답률 제고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면접 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사원과 응답자 간의 거리두기와 방역 방법 등을 검토하여 본조사 적용방안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조사내용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응답 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문 내 보기 순서를 조정 하였으며, 응답자가 인지하기 쉬운 단어들로 수정하여 조사표를 보완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조사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교열팀에서 문법 등에 대한 교열을 실시하여 최종 조사표를 완성하였다.

다. 표본설계 및 통계승인

노인실태조사는 법정조사로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승인번호 제117071호)을 받은 바 있으며, 매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통계변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통계청에 조사표와 표본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2020년 7월 17일에 통계변경승인을 신청하였고, 8월 6일 변경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조사는 조사구 조사로서 조사구 내 원활한 조사수행을 위해 조사지역 내 주민자치센터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림 1-2]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 협조 공문



보건복지부

수신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대상가구 및 대상자 (경유)
제목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협조 요청

1. 귀 덕택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부에서는 전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이나 노인의원 생활실태파악 복지교육을 위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3년 주기로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설문조사 결과는 노인복지정책 수립 시 사용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조사원의 방문 및 설문 요청 시 많은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조사된 자료는 통계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조사개요

- ☐ 조사명 :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 ☐ 조사기간 : 2020년 8월 ~ 9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조사대상 :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
- ☐ 조사방법 : 태블릿PC를 통한 방문면접조사
- ☐ 연구수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조사수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조사수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관련 문의 : 남승환(내선 2122-7267), 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수신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수송 조사구 내 동원된 주민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리실 등)

제목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부속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수탁으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이나 노인의원 생활실태파악 복지교육을 위하여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귀 기관에 해당하는 지역이 본 조사의 조사구로 추출되었으며, 해당 조사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노인복지정책 수립 시 사용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고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조사된 자료는 통계처리되어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0조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 다 음 -

가. 조사명 :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나. 조사기간 : 2020년 8월~9월(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조사대상 :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
라. 조사방법 : 태블릿 PC를 통한 방문면접조사
마. 연구수행기관 : 보건복지부
바. 연구수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 조사수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관련 문의 : 남승환(내선 2122-7267), 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남승환 06131
부서 연구기획팀 연구기획팀장 김민준 06131
부서 연구기획팀 연구기획팀장 김민준 06131

발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08.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 승인

2013년 2월부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연구계획서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연구기관 내 자율적 심의 기구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 설치 의무화 되었다. 이에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는 본 기관 내 설치된 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 및 기타 연구 관련 문서에 대한 IRB를 신청하였고, 심사를 거쳐 IRB승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결과 통지서 제2020-36호)을 받았다.

2. 조사준비

가. 조사업체 선정

노인실태조사는 2011년~2017년(3차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조사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는 COVID-19 확산으로 각종 대면조사가 일시 중단되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사회조사팀에서의 조사가 어려워져 조

사업체를 통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업체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에 근거하여 2020년 5월 28일~6월 7일 기간 동안 입찰공고 후 제안서 평가 절차를 거쳐, 닐슨컴퍼니코리아(유)가 선정되었다.

나. TAPI 개발

기존 노인실태조사는 종이로 진행하는 PAPI(Paper Aid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는 TAPI(Tablet-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조사내용이 방대하고 로직(Logic)이 복잡하여 PAPI로 진행 시 조사데이터 사후검증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 이에 2020년 조사에서는 TAPI 방식을 도입하여 조사 진행 시 로직(Logic)을 미리 설정하여 응답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 데이터가 바로 입력되어 데이터 입력 기간을 단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태블릿 PC(Tablet-PC)내 GPS 기능을 탑재하여 선정된 실사 지역에서 실사가 진행되는지, 1:1 면접조사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조사진행 시간이 바로 입력되어 조사진행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였다.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닐슨컴퍼니코리아(유)에서 1차 TAPI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5차례의 연구진 검토와 조사원 교육 과정에서의 추가검토 등을 통해 TAPI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다. 조사원 모집 및 교육

안정적인 조사 운용을 위해서는 본 조사와 관련, 숙련된 조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본 조사와 가장 관련이 높은 기준을 적용, 조사원을 선발하였다. 선발기준으로는 조사구 요도 및 명부를 활용한 조사 경험자, 가구방문조사 경험자, 실태조사 경험자를 우선 선발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서울/경기/인천/강원 70명, 부산/울산/경남 27명, 대구/경북 19명, 광주/전북/전남/제주 29명, 대전/세종/충북/충남 24명이 선발되어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일정을 수립하였다.

위 기준에 의해 선발된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조사수행을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2020년 8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교육 동시 참여자 40명 미만으로 유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서울/경기/인천/강원은 70명으로 그 수가 많아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2차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였다(1차 38명, 2차 32명). 본 조사에 투입되는 모든 조사원의 교육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바이러스 이슈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본 정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조사원에 대해서는 권역별 실사 연구원 주관으로 수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교육내용을 녹화하여 조사원들이 상시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 기간 중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실시 전 조사원 최근 해외여행력 및 발열/호흡기 증상 등 확인, 손세정제 및 살균 스프레이 사용, 마스크 착용, 적정거리 유지 자리 배치 등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1-2〉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권역별 교육 일정

교육 일자	교육 일시	대상 권역	교육 장소	참여조사원수
[1회차] 2020년 8월 3일(월)	(시스템 교육) 10시~12시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강원/제주 포함	서울	38명
	(본 교육) 13~18시			
[2회차] 2020년 8월 7일(금)	(시스템 교육) 10시~12시			32명
	(본 교육) 13~18시			
2020년 8월 4일(화)	(시스템 교육) 10시~12시	경남권 (부산/울산/경남)	부산	27명
	(본 교육) 13~18시			
2020년 8월 5일(수)	(시스템 교육) 10시~12시	경북권 (대구/경북)	대구	19명
	(본 교육) 13~18시			
2020년 8월 6일(목)	(시스템 교육) 10시~12시	전라권 (광주/전북/전남)	광주	29명
	(본 교육) 13~18시			
2020년 8월 7일(금)	(시스템 교육) 10시~12시	충청권 (대전/세종/ 충북/충남)	대전	24명
	(본 교육) 13~18시			

조사원 교육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오전 시간에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조사진행시 윤리강령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과 TAPI 및 실사 관리 시스템 활용법,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오후 시간에는 조사에 대한 본 교육을 진행

하였다. 이는 조사개요 및 실사 절차 및 유의사항(조사구 요도 활용 안내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조사 소개, 조사표 내용 소개로 이루어졌으며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안전수칙 및 대응 유의사항도 교육하였다. 올해 조사방법은 태블릿 PC를 활용한 면접 조사(TAPI)이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면접원 간 역할연습(실습)도 함께 진행되었다. 교육은 조사원과 조사과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닐슨컴퍼니코리아(유)와 조사표를 개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표 1-3〉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교육 커리큘럼

교육 내용			소요시간	
구분	시간	세부 교육 내용		
시스템 교육	10:00-10:20	입장관리절차 진행(체온측정, 기록, 마스크 관리)	20분	
	10:20-10:50	윤리 강령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보안서약서 작성	30분	80분
	10:50-11:40	TAPI 및 실사관리 시스템 활용법, 주요 발생 오류 확인 사항 TAPI 활용 프로세스 소개 및 기능 교육	50분	
	11:40-12:40	점심시간 (가급적 개별식사)	60분	
	12:40-13:00	입장관리절차 진행(체온측정, 기록, 마스크 관리)	20분	
본 교육	13:00-13:05	Intro	5분	40분
	13:05-13: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조사 소개	5분	
	13:10-11:40	조사 개요 및 실사 절차 및 유의사항(조사구 요도 활용 안내)	30분	
	13:40-13:50	코로나바이러스 안전수칙 및 대응 유의사항	10분	
	13:50-14:00	break (환기 진행)	10분	
	14:00-15:00	조사표 내용(1차) 표지 및 A. 가구일반사항(15분) B. 건강상태와 건강행태(15분) C. 기능상태와 간병돌봄(15분) I. 인지기능(15분)	60분	
	15:00-15:10	break (환기 진행)	10분	
	15:10-16:00	조사표 내용(2차) D. 여가 및 사회활동(15분) E. 경제활동(15분) F. 가족 및 사회관계(15분) G. 가족 간 도움의 교환(5분)	50분	
	16:00-16:10	break (환기 진행)	10분	
	16:10-17:00	설문지 내용(3차) H. 생활환경과 노후 생활(25분) J. 경제상태(25분)	50분	
	17:00-17:30	TAPI 실습 진행	30분	
	17:30-17:50	면접원 토크플레이(실습) 및 질의 응답	40분	50분
	17:50-18:00	마무리	10분	

3. 조사 실시

가. 조사 대상

본 조사는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하여 교육받은 조사원 169명에 의해 2020년 9월 14일~11월 20일 기간 중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사전에 표본추출된 조사 지역의 모든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가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에 대한 「직접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조사대상자는 가구 내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각 조사구별로 도시지역은 10명, 농어촌지역은 15명을 조사완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실시되었다. 또한, 시·도별 통계 산출을 위하여 각 시·도별 400명 이상의 노인이 조사 완료되도록 하였다.

본 조사의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 주거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0,000명 이상으로 거주 지역, 연령, 성별, 학력, 유배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역을 선정하며, 선정된 조사구 내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7년 조사에서는 시설거주 노인이 제외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당 조사가구 중 시설 또는 요양병원 장기입원 노인에 대한 대리조사를 시·도하였었다. 그러나 2017년 조사 결과 시설 또는 요양병원 장기입원 노인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64명으로 조사결과 대표성과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19년 시행된 장기요양실태조사 실시(3년 주기)를 통해 시설 거주 노인의 실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사에서는 일반 주거지 노인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1-3] 조사 진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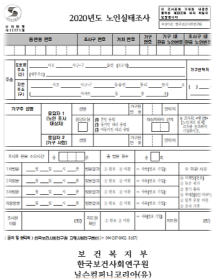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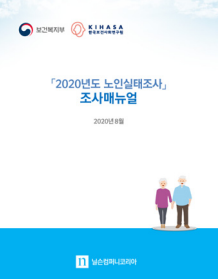
본 조사는 가구 내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본인을 대면하여 본인이 직접 조사에 대해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특수한 사항에서는 가구원의 응답을 허

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 노인이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노인과 가장 가까운 가구원이나 가족이 대리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리 응답의 경우는 객관적인 사항에 대한 문항만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인의 주관적 판단에 대한 질문은 대리 응답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노인독거 가구가 아닌 경우 본인 외 가구원의 소득, 가구원 정보 등에 대해서는 가구주나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응답자로부터 응답을 받도록 하였으며, 조사표 표지 내 ‘응답자 2’에 이 부분에 대한 응답자 정보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동일한 가구 내 2명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경우 노인을 1명씩 분리 면접하도록 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가구원 사항 등과 같이 가구 내 동일한 응답 사항에 대해서는 가구 조사내용을 노인개인조사표에 이기 하도록 하였다.

나. 조사준비물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사준비물을 조사원들에게 배포하였다. 먼저 TAPI 조사의 진행을 위한 태블릿 PC를 제공하였으며, 응답자의 거부 또는 기술적 문제로 인한 TAPI 불가 상황을 대비하여 종이 설문지를 추가로 배부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 확보를 위해 설문 문항 내 보기내용이 많은 내용들은 보기카드를 별도로 제작하여 조사대상자의 응답 편의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조사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조사내용에 대한 지침서를 정리하여 조사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림 1-4] 조사 준비물 : 조사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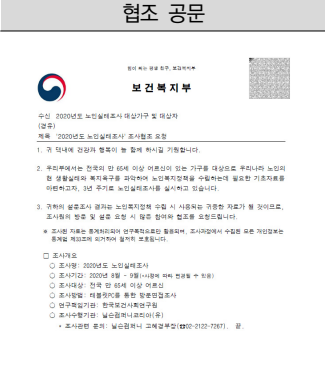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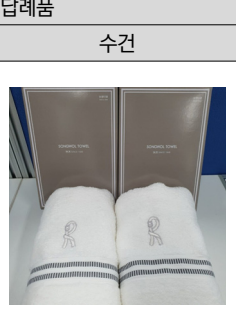
종이 설문지	보기카드	태블릿 PC	조사원 지침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달순번(비밀번호)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기카드 11 1525(09)12099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매뉴얼 2020년 8월 11 1525(09)12099

44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다음으로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협조공문과 노인실태조사 안내 팸플릿, 조사원증 등을 제작하여 응답대상자들이 거부감없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나 조사안내 팸플릿에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여 본 조사가 정부에서 진행하는 신뢰도 있는 조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응답률 확보를 위해 1만 원권 상품권과 수건을 답례품으로 지급하였으며, COVID-19로 인한 조사참여 거부감 완화를 위해 COVID-19 대비 방역키트와 응답자용 마스크를 별도로 제공하였다.

[그림 1-5] 조사 준비물 : 홍보 및 답례품

협조 공문		조사안내 팸플릿	조사원증
			
응답자 답례품		COVID-19방역	
상품권	수건	방역키트	응답자 제공용 마스크
			

다. 조사 진행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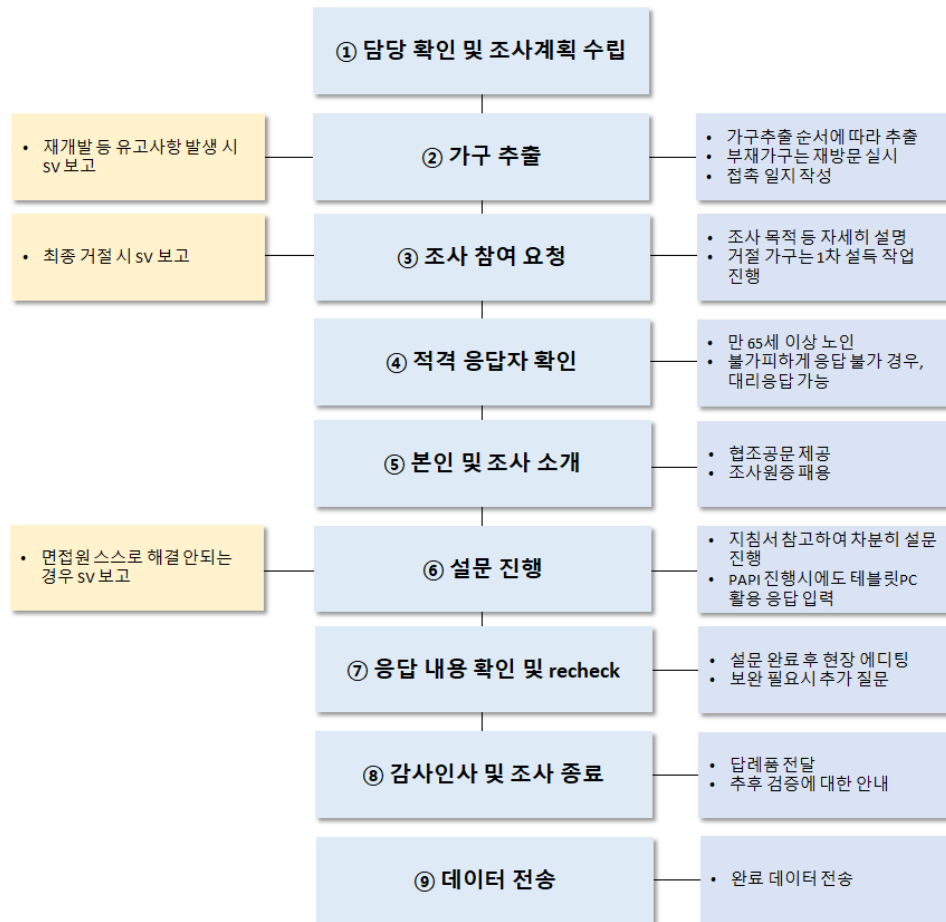
조사 진행시 COVID-19 예방을 위해 조사원 및 응답자 마스크를 제공하고, 조사원에게는 마스크 위 위생캡을 제공하여 비말을 차단하기 위한 이중방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스프레이 소독제를 제공하여 조사를 위한 가정 방문시 입구에서 1차 방역을 하도록 하였으며, 1회용 젤타입 소독제와 물티슈로 조사 시작 전과 조사 후 태블릿 PC를 소독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구 투입부터 퇴장까지의 동선은 가구명부 관리대장을 통해 파악하며, 그 외 시간 이동상의 특이사항 발생 시 수기 기록 및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가구방문시 코로나 관련 방역준비 상태에 대한 사전 설문 진행 후 본 설문으로 착수하도록 하였다. 조사원 및 조사대상자의 발열상태를 확인하고, 조사원 및 응답 대상자 모두 14일 이내 해외 방문 여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시 조사를 철회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코로나 대응 가이드라인을 응답자에게 제공하여 응답자가 COVID-19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조사진행 절차

현장에서 실시되는 조사는 다음과 같은 9개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조사원은 자신의 담당 조사구를 확인하고, 배정받은 조사구의 조사 가능여부를 판단하며, 조사구 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조사협조를 요청한다. 2단계로 표본추출된 조사구 내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추출된 가구가 부재중일 경우 3회까지 재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단계로 조사 시작 전 조사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조사 참여동의를 받는다. 4단계로 응답 대상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만약 조사대상이 응답이 어려운 경우 대리 응답을 진행하도록 한다. 5단계로 조사원은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조사에 대해 소개를 한다. 6단계로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후 차분히 면접을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TAPI로 조사를 진행하되 참여자가 TAPI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나 상황적으로 TAPI 사용이 어려운 경우 PAPI를 진행한다. 7단계로 조사가 끝나면 누락된 응답이 없는지를 확인하며, 누락되거나 일관성이 없는 응답의 경우 추가질문하여 현장에서 보완한다. 8단계로 조사가 완료되면 감사 인사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고 답

레폼 인수증을 수령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림 1-6] 현장조사 진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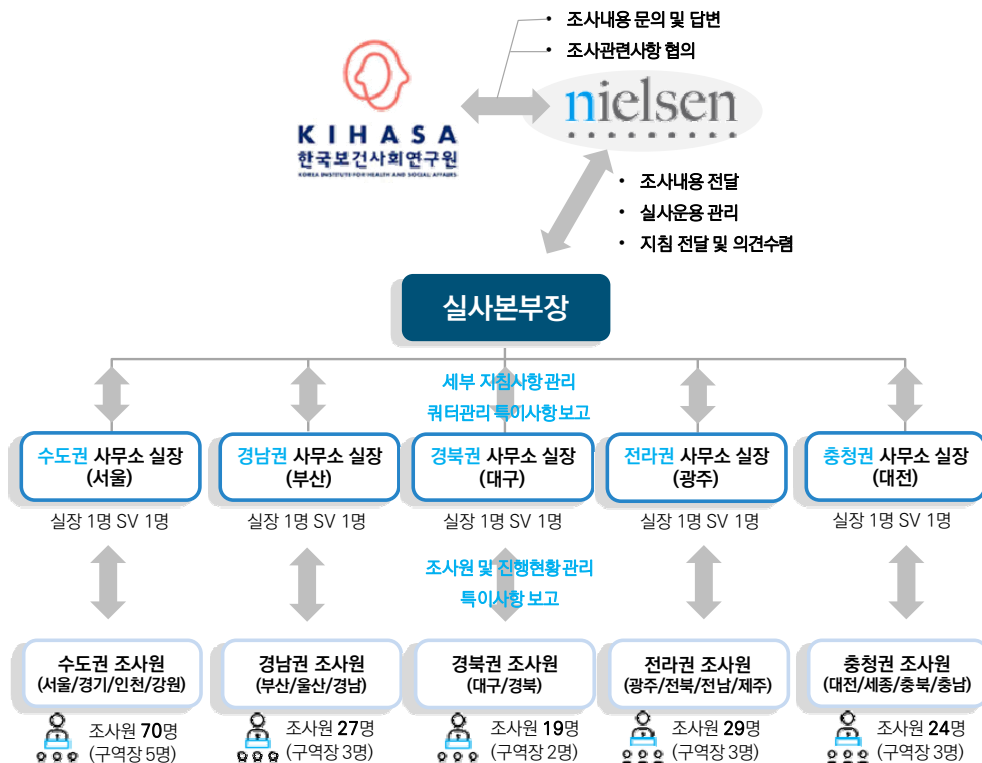


라. 조사진행 전달체계

본 조사는 2020년 9월 14일 ~ 2020년 11월 20일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조사는 실사본부장 1명, 지역별 실장 1명, 지역별 슈퍼바이저(관리자) 5명의 관리 하에 이루어졌다. 연구진은 조사와 관련된 전달사항을 닐슨컴퍼니코리아의 본사 실사 관리자에게 전달하며, 닐슨컴퍼니코리아는 이를 각 지역 조사원들에게 전달하였다.

본 조사는 대단위 조사이면서 조사구 조사로서 조사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조사이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체계적인 조사수행을 위해 의사소통 전달체계를 마련하였으며, 5개 권역별 세부적 구역을 설정하고 구역 내 구역장을 선정하여 각 조사원들의 관리 및 통제를 강화하였다. 구역장 배치는 수도권의 경우 구역장 1명당 조사원 15명 이하, 지방은 구역장 1명당 조사원 10명 이하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림 1-7] 조사 수행 전달체계도



본 조사는 다음과 같은 보고체계에 따라 운영되었다. 먼저 조사원들은 조사를 진행하여 발생하는 사항들에 대해 구역장에게 보고를 하며, 구역장은 조사업체 5개 권역 지역사무소의 실장 및 슈퍼바이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각 지역별 보고사항은 본사 실사 본부장에게 전달하고, 본부장은 연구부에 이를 전달하고, 연구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사항을 결정한다. 조사원 수준에서 특이사항 또는 민원, 문의사항 등이 발생했을 경우 보고는 연구부까지 전달이 되나, 각 그룹의 상위에서 적절한 해결이 가능할 경우 직접 해결하거나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지침 전달은 보고 체계의 역으로 진행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적인 전달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경우 해당 조사원에게 연구부에서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연구부 차원에서 먼저 해결하고 사후 보고 체계 내 구성원 모두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취했다. 또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와 해결이 이루어진 후, 해당 사례는 지침 전달 체계를 활용하여 본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조사원에게 공유하였다.

4. 조사후속작업

가. 조사 사후 검증

사후검증은 조사진행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조사진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의미로 진행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검증과 조사업체의 검증 두 가지 체계로 이루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매주 진행된 조사결과의 데이터를 수령하여, 무작위로 전체 조사대상의 10%를 선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조사 참여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된 불성실한 응답은 조사업체와 공유하여, 재조사 또는 대상자 대체 등의 과정을 거쳐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사업체에서도 전체 조사대상의 30%를 선정하여 유선으로 검증을 하였으며, 조사구 조사 원칙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조사방법이 제대로 잘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사원들에게 추가 지침으로 전달하여 조사의 방향이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자료 검증

본 조사는 설문지의 내용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웹 서버에 담아 태블릿 PC를 활용해 조사하는 방식인 TAPI(Tablet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방식이 활용되었다. 본 조사의 자료처리는 프로세스별로 살펴볼 때 총 3단계에 걸친 데이터 에디팅 등 검증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현장 자료 검증으로 조사원이 현장에서 조사완료 후 현장 내 검증하여 회수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현장 자료 검증은 조사지침서를 토대로 조사원들에 의해 실시되는 조사원 기반 현장 검증을 의미한다. 본 조사의 조사원칙은 TAPI 조사 방식으로 별도의 조사원 현장 검증이 직접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으나, 실사 진행의 원활성을 위해 조사 진행 중에 수시로 조사원의 현장 검증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래밍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오류지만 현장에서 조사원에 의해 발견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는 것이 주된 검증 내용이다(예 : 응답자가 의치를 사용하는 것을 조사원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가 의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잘못 응답한 경우 바로잡기).

두 번째는 입력 검증으로 본래 종이 조사표를 활용한 조사방법을 활용했을 때는 별도의 입력원에 의해 처리되고 검증되는 과정이었으나, 조사방법이 TAPI 방식일 경우 조사원이 조사 진행 시 현장 검증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입력 검증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설문지 설계 이후 설문 프로그래밍 단계에서 설문 문항의 지시문, 응답 base 설정, 문항별 로직 또는 응답의 범위(Range) 등을 설정하여 원활한 입력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연구진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연구진 검증에서는 최종 입력된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이 이루어졌다. 연구진 검증에서는 크게 두 가지 갈래에서 검증을 실시하였다. 첫째로는 조사 기본 정보와 관련된 검증이 진행되고 둘째로는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 기본 정보와 관련된 검증으로는 응답자 성명, 조사 대상자 여부, 조사구 번호, 주소 및 읍면동 번호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이다.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검증으로는 기본적으로 TAPI에 설정되어 있는 로직 외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① 오류값 및 무응답 검증 ② 문항별 이상치 검증 ③ 비표본오차에 의한 오류 데이터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정확성에 대한 검증은 방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 프로그램(SPSS)을 활용하여 진행되며, 연구진이 구축한 에디팅

가이드에 따라 프로그래밍을 하여 오류 데이터를 확인하였다. 재확인이 필요한 데이터의 아이디별로 재확인(Recheck) 과정을 거쳐 오류 데이터를 바로 잡거나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5. 자료 분석

본조사의 결과는 교차분석을 통해 사례 수 및 백분율을 제시하는 통계표 산출을 기본으로 하였다. 교차분석에 설정된 응답자 특성으로는 동부/읍·면부,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 가구원 수, 교육수준, 현 취업상태, 연가구소득(5분위), 중위소득 대비 비율, 신체 기능상태, 17개 시·도 등 다양한 항목들이 활용되었다. 또한, 분석 시에는 조사구별 조사 완료율의 차이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반영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례 수 또는 백분율의 합이 정확히 맞지 않는 통계표가 도출될 수 있다. 이는 가중치 적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분석결과의 신뢰도와 해석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문항 분석에 있어 관련성이 없는 ‘비해당’과 ‘무응답’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승수 적용결과 반올림에 의하여 백분율이 100.0을 약간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에도 ‘계’에서는 100.0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분석은 기본적으로 지역, 성,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 연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비율 및 기능상태에 따른 차이에 관심을 두고 실시되었으며, 질문 항목에 따라 관련된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시는 추가되었다. 또한, 주제의 특성에 따라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를 모두 분석대상으로 하거나 본인 응답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대리 응답자의 포함 여부는 표에 주로 표기하였다. 또한 동일한 항목이 2017년에 조사된 경우에는 관련 표의 하단에 2017년도 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2017년과 2020년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내용에 대한 시·도 통계는 부록에 제시하여 정책입안자나 지역별 특성의 차이에 주목하는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절 표본설계

1. 모집단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2020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일반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이 조사의 조사 모집단은 2018년 인구센서스 조사구 중 기숙사, 특수시설조사구, 섬 지역 조사구 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표 1-4〉는 각 시·도별 가구 및 노인 인구 현황이다. 시·도별 가구 비중과 노인 인구 비중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도 지역에서 가구당 평균 노인 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본설계에서 사용한 표본추출틀은 2018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전국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 리스트이다.

〈표 1-4〉 시·도별 가구 및 65세 인구 분포

지역	가구		65세 이상 인구(노인)		가구당 평균 노인 인구
	가구수	계	인구	계	
전국	19,979,188	100.0%	7,394,115	100.0%	0.37
서울	3,839,766	19.2%	1,335,559	18.1%	0.35
부산	1,363,608	6.8%	572,642	7.7%	0.42
대구	957,516	4.8%	356,842	4.8%	0.37
인천	1,094,749	5.5%	352,691	4.8%	0.32
광주	578,559	2.9%	188,115	2.5%	0.33
대전	602,175	3.0%	186,661	2.5%	0.31
울산	431,391	2.2%	120,578	1.6%	0.28
세종	119,029	0.6%	27,705	0.4%	0.23
경기	4,751,497	23.8%	1,507,093	20.4%	0.32
강원	628,484	3.1%	279,292	3.8%	0.44
충북	640,978	3.2%	254,341	3.4%	0.40
충남	851,124	4.3%	360,754	4.9%	0.42
전북	732,980	3.7%	347,592	4.7%	0.47
전남	737,406	3.7%	390,831	5.3%	0.53
경북	1,094,534	5.5%	513,286	6.9%	0.47
경남	1,306,394	6.5%	507,265	6.9%	0.39
제주	248,998	1.2%	92,868	1.3%	0.37

자료 : 통계청(2018). 2018 인구주택총조사.

2. 총화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자료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며, 전국을 17개 시·도별로 층화한 다음, 7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지역은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2차 층화한다. 각 2차 층 내에서는 조사구 특성에 따라 보통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로 세부 층화한다.

〈표 1-5〉는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자료에 대한 각 시·도별 조사구 현황이다.

〈표 1-5〉 시·도별 조사구 특성별 조사구 수 현황

지역	전체		동부		읍·면부	
	보통조사구	아파트	보통조사구	아파트	보통조사구	아파트
전국	185,789	181,057	136,265	160,151	49,524	20,906
서울	39,630	29,202	39,630	29,202	0	0
부산	11,328	14,104	11,328	14,104	0	0
대구	7,491	9,412	7,491	9,412	0	0
인천	9,068	10,435	9,068	10,435	0	0
광주	3,695	6,501	3,695	6,501	0	0
대전	4,671	5,841	4,671	5,841	0	0
울산	3,279	4,785	3,279	4,785	0	0
세종	579	1,676	579	1,676	0	0
경기	38,519	46,603	29,212	40,799	9,307	5,804
강원	6,884	5,218	2,838	3,875	4,046	1,343
충북	6,406	5,680	2,723	3,778	3,683	1,902
충남	9,037	7,254	2,769	4,274	6,268	2,980
전북	7,742	6,188	3,746	5,484	3,996	704
전남	8,646	5,479	2,110	3,650	6,536	1,829
경북	12,821	8,689	4,668	5,906	8,153	2,783
경남	12,544	12,433	6,268	8,997	6,276	3,436
제주	3,449	1,557	2,190	1,432	1,259	125

자료 : 통계청(2018). 2018 인구주택총조사.

3. 표본크기 및 표본배분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으며,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 (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여기에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표본추출방법은 1차 표본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추출된 조사구에서 표본 가구를 선정하여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이다. 이와 같은 표본추출 상황에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예산 및 시간을 고려하여 10,000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0\%$ 지만,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통계작성 단위인 시·도별 표본 조사구의 배분은 층별 가구 수에 비례배분법, 제곱비례배분법, 우선할당비례배분법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각 표본배분법에 대한 층별 표본배분은 다음 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 비례배분법: $n_h = n \times \frac{N_h}{\sum_{k=1}^H N_k}$, 단, N_h 는 층 h 의 모집단 노인 수
- 제곱근 비례배분법: $n_h = n \times \frac{\sqrt{N_h}}{\sum_{k=1}^H \sqrt{N_k}}$, 단, N_h 는 층 h 의 모집단 노인 수
- 우선할당 비례배분법: 각 층에 $n'(300)$ 명을 우선 배분한 후, 남은 표본크기 $(n - n' \times H)$ 는 층별 노인 수에 비례하여 배분함.

표본설계에 사용된 최종 배분법은 각 통계작성 단위별 노인 수에 대한 제곱근비례배분법을 기초로 최종방안을 마련하였다. 노인 인구가 극단적으로 작은 세종시는 200명 이상으로, 나머지 시·도는 최소 400명 이상이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노인 실태 관련 시·도별 통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시·도별 최종 표본배분 방안에 대한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각 시·도별 추정의 상대표준오차(예상)는 <표 1-7>에 제시하였다.

<표 1-6> 시·도별 조사구 특성별 표본배분 현황

행정구역	65세 이상 인구	표본배분 방안			
		비례배분	제곱근비례배분	우선할당 비례배분	최종 배분방안
전국	7,394,115	10,000	10,000	10,000	10,000
서울	1,335,559	1,810	1,120	1,190	1,070
부산	572,642	770	740	680	720
대구	356,842	480	580	540	570
인천	352,691	480	580	530	570
광주	188,115	250	420	420	420
대전	186,661	250	420	420	420
울산	120,578	160	340	380	400
세종	27,705	40	160	320	200
경기	1,507,093	2,040	1,190	1,290	1,130
강원	279,292	380	510	490	510
충북	254,341	340	490	470	490
충남	360,754	490	580	540	570
전북	347,592	470	570	530	560
전남	390,831	530	610	560	600
경북	513,286	690	700	640	690
경남	507,265	690	690	640	680
제주	92,868	130	300	360	400

〈표 1-7〉은 현행 표본설계와 새로운 표본설계에 대해서 주요 조사항목인 수입액과 소비지출액(가구)의 평균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현황이다. 새로운 표본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시·도별 평균 총수입액과 소비지출액 추정의 상대표준오차는 각각 11.5% 이하, 8.7% 이하를 만족하게 되어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 시·도별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예상) 현황

(단위: 명,%)

행정 구역	현행 표본설계 상대표준오차			새로운 표본설계 상대표준오차(예상)		
	표본크기	평균 총수입액 추정	평균 소비 지출액 추정	표본크기	평균 총수입액 추정	평균 소비 지출액 추정
전국	10,299	2.0%	1.6%	10,000	2.0%	1.6%
서울	999	5.9%	4.2%	1,070	5.7%	4.0%
부산	690	5.9%	4.8%	720	5.8%	4.7%
대구	540	7.3%	5.5%	570	7.1%	5.4%
인천	540	6.7%	5.7%	570	6.6%	5.6%
광주	450	7.3%	6.7%	420	7.6%	7.0%
대전	351	8.7%	6.1%	420	8.0%	5.6%
울산	300	9.9%	8.5%	400	8.6%	7.4%
세종	100	16.2%	12.3%	200	11.5%	8.7%
경기	1,320	4.8%	4.0%	1,130	5.1%	4.3%
강원	619	5.7%	4.9%	510	6.3%	5.5%
충북	590	6.9%	5.1%	490	7.6%	5.6%
충남	580	7.9%	5.1%	570	8.0%	5.2%
전북	560	7.7%	5.1%	560	7.7%	5.1%
전남	661	6.9%	4.8%	600	7.3%	5.0%
경북	750	5.1%	4.0%	690	5.4%	4.1%
경남	769	5.5%	4.6%	680	5.9%	4.8%
제주	480	7.1%	6.1%	400	7.8%	6.7%

4. 세부 층별 표본배분

각 시·도에서 동/읍면 구분별 표본배분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기준 비례배분법을 적용한다. <표 1-8>은 각 시·도의 동/읍면 구분별 표본배분 결과이다.

<표 1-8> 각 시·도의 동/읍면 구분별 표본배분 결과

(단위: 명)

행정구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모집단)			표본배분 결과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전국	5,439,457	1,954,658	7,394,115	7,140	2,860	10,000
서울	1,335,559		1,335,559	1,070	0	1,070
부산	572,642		572,642	720	0	720
대구	356,842		356,842	570	0	570
인천	352,691		352,691	570	0	570
광주	188,115		188,115	420	0	420
대전	186,661		186,661	420	0	420
울산	120,578		120,578	400	0	400
세종	27,705		27,705	200	0	200
경기	1,166,739	340,354	1,507,093	870	260	1,130
강원	139,453	139,839	279,292	250	260	510
충북	114,702	139,639	254,341	220	270	490
충남	97,392	263,362	360,754	150	420	570
전북	184,685	162,907	347,592	300	260	560
전남	105,344	285,487	390,831	160	440	600
경북	186,491	326,795	513,286	250	440	690
경남	247,033	260,232	507,265	330	350	680
제주	56,825	36,043	92,868	240	160	400

노인실태조사의 목표 표본크기는 10,000명을 목표로 한다. <표 1-9>는 동/읍면 구분별 가구당 평균 노인 수 현황이다. 동 지역에 비해서 읍면 지역의 가구당 노인 수가 많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2017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각 표본 조사구에서 동 지역은 10명, 읍·면 지역은 15명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 1-9〉 동/읍면 구분별 노인 인구 및 가구당 평균 노인 수

구분	일반 가구	65세 이상 인구	가구당 평균 노인 수
전국	19,979,188	7,394,115	0.37
동부	16,117,258	5,317,964	0.33
읍면부	3,861,930	2,076,151	0.54

이에 따라 표본설계에 의해서 추출되는 1차 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 수는 903개이다.

- 1차 추출단위: 표본 조사구
- 2차 추출단위: 조사구 내의 가구
- 최종 조사단위: 가구 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전부

〈표 1-10〉 각 시·도의 동/읍면 구분별 표본 조사구 수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전국	714	189	903
서울	107	0	107
부산	72	0	72
대구	57	0	57
인천	57	0	57
광주	42	0	42
대전	42	0	42
울산	40	0	40
세종	20	0	20
경기	87	17	104
강원	25	17	42
충북	22	18	40
충남	15	28	43
전북	30	17	47
전남	16	29	45
경북	25	29	54
경남	33	23	56
제주	24	11	35

17개 시·도별로 층화한 다음, 8개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 지역은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2차 층화한다. 각 세부 지역 층 내에서는 조사구 특성에 따라서 일반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로 세부 층화한다.

각 지역층 내에서는 보통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로 세부층화하며, 각 지역층에 배분된 표본크기를 표본추출틀 상의 조사구 수 기준의 비례배분법을 적용한다. 세부 층별 표본 배분 결과는 <표 1-11>과 같다.

<표 1-11> 표본 조사구 배분 결과

지역	동부		읍.면부		합계
	보통조사구	아파트	보통조사구	아파트	
전국	321	393	137	52	903
서울	62	45	0	0	107
부산	32	40	0	0	72
대구	25	32	0	0	57
인천	27	30	0	0	57
광주	15	27	0	0	42
대전	19	23	0	0	42
울산	16	24	0	0	40
세종	5	15	0	0	20
경기	36	51	10	7	104
강원	11	14	13	4	42
충북	9	13	12	6	40
충남	6	9	19	9	43
전북	12	18	14	3	47
전남	6	10	23	6	45
경북	11	14	22	7	54
경남	14	19	15	8	56
제주	15	9	9	2	35

5. 표본조사구 및 표본가구 추출

이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가구이다. 1차 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는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에 의해 추출하였다. 표본설계에서 고려한 각 층에서 조사구를 내재적 층화변수와 행정구역 번호에 따라 정렬한 후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함으로써 해당 층을 지리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계통추출법을 적용할 때는 추출단위를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한 후 추출하게 되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인구주택총조사의 항목 중 활용 가능한 변수인 65세 이상 노인 비율, 1인 가구 비율을 층별 내재적 층화변수로 선정하였다.

〈표 1-12〉 표본추출 기준

구분	내용
1차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
2차 기준	-1인 가구 비율

표본 조사구에 따라 노인 비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표본 조사구로부터 30가구를 계통추출법에 따라 표본가구를 선정한다. 이후 노인 거주 가구에서 조사하여 표본 조사구로부터 10명(동 지역) 또는 15명(읍면 지역)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표본대체는 추출된 표본 조사구가 조사 시점 차이로 인하여 표본 조사구 전체가 유고(재건축, 재개발, 기타사유 등)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특성이 변경(예: 주택에서 상가 지역으로 개발된 경우)되었을 경우에는 표본추출 당시 분류지표가 동일한 지역의 조사구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실사 단계에서 조사 불응가구나 조사 불가능가구가 발생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응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 표본가구를 대체하도록 하였다.

예비표본은 향후 조사의 표본교체를 위해 예비표본 조사구를 당초의 표본(903개 조사구)과는 독립적으로 추출하여 제공하여 조사 진행 중 표본 조사구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나 조사구 요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가중치 조정 및 추정

가. 가중치 산출

가중치는 모평균이나 모비율 등에 대한 비편향 추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적용의 3단계를 거쳐 산출한다.

설계가중값은 표본설계로부터 직접 구해지며, 조사구 내 가구 수를 크기 척도로 사용하여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 내에서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설계가중치는 다음 산술식에 따라 구한다.

$$\text{설계가중치: } w_h^0 = \frac{S_h}{n_h M_{hi}} \times \frac{M_{hi}}{m_{hi}} = \frac{S_h}{n_h \times m_h}$$

- h : 지역 및 조사구 특성을 나타내는 첨자
- i : 표본 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i=1, 2, \dots, n_h$)
- S_h : 표본추출에 사용된 크기 측도 (설계당시 가구 수)
- M_{hi} : h 지역, i 번째 표본 조사구 내 전체 가구 수
- n_h : h 지역 내 표본 조사구 수
- m_{hi} : h 지역, i 번째 조사구 내 표본 가구 수

무응답 조정은 응답률의 역수를 이용하여 응답 가구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 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text{무응답 조정 가중치} = \frac{m_{hi}}{r_{hi}}$$

최종가중치는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가중치로 계산된 응답자 가중치는 추정량의 정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신의 벤치마킹 모집단 노인 인구의 분포에 맞게 사후층화 조정한다. 조사완료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정보인 2019년 기준 인구총조사 결과 중 17개 광역시·도에서 각각 성별 및 연령대별(65-74세, 75세 이상) 노인 인구와 가구원 수(1인 단독, 2인 이상 가구)별 노인 인구에 대해서 레이킹 비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최종 가중치의 산술식은 다음과 같다.

$$\text{최종 가중치} = \text{설계 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계수} \times \text{벤치마킹 조정}$$

나. 추정량 및 추정량의 분산

① 용어 정의

- h : 층 번호, i : 조사구 번호, j : 응답자 번호
- y_{hij} : 관찰값 (각 문항에 대한 응답)
- w_{hij} : 표본 가중치

② 모평균에 대한 추정

- 전체 및 지역 특성별 구분에서 모평균과 모비율은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

$$\bar{y} = \frac{\left(\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w_{...}} : \text{모평균 추정치}$$

L : 층 수, n_h : 조사구 수, m_{hi} : 조사구 내 응답자 수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 \text{표본 가중치의 합계}$$

③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0 또는 1의 값을 갖는 변수인 경우,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 형태로 계산된다.

$$\hat{p} = \frac{\left(\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w_{...}} : \text{모비율 추정치}$$

L : 층 수, n_h : 조사구 수, m_{hi} : 조사구 내 응답자 수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 \text{표본 가중치의 합계}$$

④ 추정량의 분산 및 오차의 한계

- 모평균(또는 모비율) 추정량에 대해서 층화와 2단 집락추출 등의 표본설계를 반영한 추정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 여기서,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 추출단위(PSU)인 조사구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 $f_h = n_h/N_h$,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 \quad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text{이다.}$$

-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text{표준오차: } s.e(\bar{y}) = \sqrt{var(\bar{y})},$$

$$\text{상대표준오차: } rse(\bar{y}) = \frac{s.e(\bar{y})}{\bar{y}} \times 100(\%),$$

$$\text{오차의 한계: } 1.96 \times \sqrt{var(\bar{y})}$$

7. 상대표준오차

2020년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통계청)에 따르면 주요항목의 상대표준오차는 조사 규모나 목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대표준오차의 값이 30% 미만이면 신뢰할 수 있는 추정값으로 사용할 수 있고(신뢰도 높으며, 이용에 문제없는 수준), 30% 이상 60%미만 수준에서는 주의와 함께 이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설문에서 만성질환 총 수와 유배우자 비율, 주관적 건강상태 및 인지저하자 비율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는 각각 1.81%, 1.07%, 0.82%, 3.62%로 매우 안정적이었다. 읍면부 지역 인지저하자 비율에 대한 추정의 상대표준오차가 6.8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나, 이 또한 안정적인 상대표준오차 수준으로 판단되어 질 수 있다. 1)

〈표 1-13〉 주요 조사항목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분석 결과: 지역 규모 기준

지역	추정 항목	표본수	비율/평균 추정값	표준오차(s.e.)	상대표준오차(rse)
전국	만성질환 총 수	10,097	1.9개	0.0346	1.81%
	유배우자 비율	10,097	67.1%	0.0072	1.07%
	주관적 건강상태*	10,097	44.7점	0.0227	0.82%
	인지저하자 비율**	9,885	25.3%	0.0091	3.62%
동부	만성질환 총 수	7,230	1.9개	0.0387	4.16%
	유배우자 비율	7,230	67.1%	0.0086	1.29%
	주관적 건강상태*	7,230	45.0점	0.0278	1.01%
	인지저하자 비율**	7,069	24.7%	0.0105	4.25%
읍면부	만성질환 총 수	2,867	1.8개	0.0755	4.16%
	유배우자 비율	2,867	67.3%	0.0123	1.84%
	주관적 건강상태*	2,867	43.9점	0.0361	1.29%
	인지저하자 비율**	2,816	27.2%	0.0186	6.86%

이는 17개 시·도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표본 수가 적은 세종(n=204)의 경우에도 상대표준오차가 5.59%로 특성별 기준으로 볼 때 안정적이며, 상대표준오차가 가장 높은 수준인 광주(6.69%)와 전남(6.39%) 또한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다만, 전체 추정값 비율의 자체가 낮은 수준(응답 사례가 낮은 경우)의 항목일 경우에는 유의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

1) 우리나라 통계청의 경우 캐나다 통계청의 표본조사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전체 추정량은 상대표준오차 5% 이내, 특성별 추정량은 25% 이내일 때 공표를 허용하고 있어 이같은 기준에 비추었을 때,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문항 응답값의 상대표준오차는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1-14〉 주요 조사항목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분석 결과 : 지역별 유배우자 비율

지역별	표본수	비율/평균 추정값	표준오차(s.e.)	상대표준오차(rse)
전체	10,097	67.1%	0.0072	1.07%
서울	1,049	67.0%	0.0193	2.88%
부산	716	65.3%	0.0229	3.50%
대구	567	67.9%	0.0276	4.07%
인천	563	65.1%	0.0270	4.14%
광주	438	59.5%	0.0398	6.69%
대전	455	67.9%	0.0318	4.68%
울산	393	67.9%	0.0323	4.76%
세종	204	74.6%	0.0417	5.59%
경기	1,190	68.9%	0.0192	2.78%
강원	511	71.4%	0.0303	4.24%
충북	500	63.9%	0.0316	4.95%
충남	574	68.9%	0.0277	4.02%
전북	565	65.2%	0.0274	4.21%
전남	604	61.1%	0.0391	6.39%
경북	685	69.9%	0.0257	3.68%
경남	684	67.6%	0.0211	3.12%
제주	399	69.7%	0.0344	4.94%



제2장

노인실태조사 조사내용

제1절 노인실태조사의 연혁 및 주요 변화 내용

제2절 2020년도 조사표 설계의 기본방향 및 구성

제 2 장 노인실태조사 조사내용

제1절 노인실태조사의 연혁 및 주요 변화 내용

1. 노인실태조사 연혁

노인실태조사는 1994년 2,000여 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비정기적으로(1998년과 2004년)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후 2008년 조사부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조사가 되면서 노인실태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변화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이 확대되었다. 법정조사 이전 조사대상은 약 2천 명~3천 명으로 전국단위 통계만 산출이 가능하였으나, 2008년 이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되어 전국 및 시·도통계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비정기적 조사에서 정기적 조사로 변경되었다. 2008년 이전에는 1994년, 1998년, 2004년의 3차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비정기적 조사로 진행되었으나, 2008년 이후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 단위 조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노인실태조사는 법정조사에 따른 조사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조사대상, 조사성격 및 설문지 종류 등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어왔다. 1994년 첫 조사 당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횡단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1998년과 2004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조사대상이 변경되었다. 2008년 조사에서는 만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종단조사로 조사방법을 변경하였다. 2011년은 2008년 종단조사의 연속선 상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2008년 기준 만60세(2011년 기준 63세)로 조사대상이 변화되었으며, 횡단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2011년 조사부터는 기존 가구조사표와 노인조사표로 구분되어있던 설문내용을 노인조사표로 통합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증가시켰다. 2014년 조사는 조사대상을 만65세 이상으로 명확히 하고, 횡단조사를 수행하면서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대상 및 성격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17년과 2020년 조사는 2014년 조사설계 시 적용된 틀에서 운영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저하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등의 제도적 변화에 따라 2017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일부 확대하였다. 즉, 2014년 조사에서는 가구 내 거주하여

직접 만날 수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2017년 조사에서는 ‘가구원 이지만 조사 당시 요양시설 입소 또는 (요양)병원에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한 노인’도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여, 조사 당시 조사대상자 노인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일부 항목에 대해 대리 응답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2017년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중 실제 요양시설 입소 또는 (요양)병원 장기입원 대상자는 매우 적은(64명)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포함한 조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2019년부터 장기요양실태조사가 법정조사로 시작되어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실태조사에서 특성 파악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이에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정의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2-1〉 노인실태조사 개요 (1994~2020년)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조사 명칭	노인생활 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 기간	1994. 4. 4 ~ 5. 5(32일)	1998. 4. 13. ~ 5. 31.(49일)	2004. 6. 28. ~ 9. 10(75일)	2008. 8. 11. ~ 1. 10.(5개월)	2011. 8. 30 ~ 11. 29(3개월)	2014. 6. 11 ~ 9. 4(3개월)	2017. 6. 8 ~ 8. 28(3개월)	2020. 9. 14 ~ 11. 20.(3개월)
조사 대상	만 60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만 60세 이상	2008년 기준 만 60세 이상 (2011년 기준 만 63세 이상)	2014년 기준 만 65세 이상	2017년 기준 만 65세 이상	2020년 기준 만 65세 이상
	2,058명	2,535명	3,278명	15,146명	11,542명	10,451명	10,299명	10,097명
수행 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계명대 산학협력단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조사 성격	횡단조사	횡단조사	횡단조사	종단조사	종단조사+ 횡단조사	횡단조사	횡단조사	횡단조사
	전국통계	전국통계	전국통계	전국 및 시도통계	전국 및 시도통계	전국 및 시도통계	전국 및 시도통계	전국 및 시도통계
설문지 종류	노인조사표	가구조사표 노인조사표	가구조사표 노인조사표	가구조사표 동가자녀조사표 노인조사표	노인조사표	노인조사표	노인조사표	노인조사표
통계 승인	통계공표 승인번호 331-03	통계공표 승인번호 09807	통계승인번호 33105	통계승인번호 117071	통계승인번호 117071 변경승인	통계승인번호 117071 변경승인	통계승인번호 117071 변경승인	통계승인번호 117071 변경승인

주: 각 년도 내용은 다음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리하였음.

1994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정경희 외(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정경희 외(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8 - 박명화 외(2008).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건복지가족부·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 정경희 외(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 정경희 외(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 정경희 외(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노인실태조사 영역 구성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실태조사의 주제 영역은 노인의 삶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조사 영역은 1) 가족과 사회 관계, 2) 소득 중심 경제상황, 3) 건강과 요양, 4)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 5) 생활 환경, 6) 노년기 관련 가치관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영역은 조사가 수행된 연도에 따라서 영역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소영역으로 구성하기도 하였으나, 조사 문항의 수 또는 원활한 조사 수행 등을 고려하여 영역을 구성하였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최근으로 올수록 영역 간 통합을 통해 영역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이는 관련성이 많은 영역 간 통합을 통해 조사에서 불필요한 설명 문구를 줄여 조사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문항을 축소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또한, 최근으로 올수록 노인 삶에서 가족 관계의 비중이 감소함으로써 이들 영역의 항목을 축소시키고 영역을 통합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20년 조사에서는 전체 영역을 가구 일반사항 외에 크게 9개 영역을 구성하였다. 경제상태, 가족 및 사회관계, 가족 간 도움의 교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기능상태와 요양, 인지기능, 경제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과 노후생활이다. 영역별 구체적인 항목 구성의 방향과 항목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표 2-2〉 노인실태조사 설문지 변화 내용 개요(2008~2020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1. 가구조사표 A. 가구원 일반사항	I. 가구 일반사항	A. 가구 일반사항	A. 가구 일반사항	A. 가구 일반사항
B. 주거형태	II. 가구 경제상태	N. 가구 경제상태	N. 경제상태	J. 경제상태
C. 소득				
D. 가계지출				
E. 자산과 부채				
2. 노인 개인조사표 A. 자녀유무와 동거유형	III. 노인개인특성 A. 가구형태 및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H.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 형태	G.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 형태	F. 가족 및 사회관계
B.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C. 따로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D. 손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B. 부모,	I. 부모,	H. 형제·자매,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E.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지 인과의 관계	친인척, 친구·이웃·지 인과의 관계	
F. 배우자와의 관계 및 지원				
G. 형제·자매 및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 및 지원	C.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J.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I.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G. 가족 간 도움의 교환
L. 건강상태	D. 건강상태	B. 건강상태	B. 건강상태	B.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M. 건강행태	E. 건강행태	C. 건강행태	C. 건강행태	
N. 의료서비스 이용	-	-	-	-
O. 일상생활수행능력과 간병돌봄	F.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간병돌봄	D. 기능상태와 간병돌봄	D. 기능상태와 간병돌봄	C. 기능상태와 요양
Q. 신체기능	G. 신체기능	-	-	
H. 소득	I. 경제상태	G. 경제상태	-	-
I. 생활비와 용돈				
J. 자산과 부채				
K. 경제활동	H. 경제활동	F. 경제활동	F. 경제활동	E. 경제활동
R. 여가 및 사회참여	J. 여가 및 사회활동	E.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E.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D. 여가 및 사회활동
S. 노인복지서비스	K. 노인복지서비스	-	L. 정책적 이슈에 대한 노인의 인식	H. 생활환경과 노후 생활
T. 노후 생활과 삶의 질	L. 노후 생활과 삶의 질	L. 노후 생활과 삶의 질	K. 노후 생활과 삶의 질	
U. 생활환경	M. 생활환경	K. 생활환경	J. 생활환경	
P. 인지기능	N. 인지기능	M. 인지기능	M. 인지기능	I. 인지기능

제2절 2020년도 조사표 설계의 기본방향 및 구성

1. 기본방향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는 노인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주요 연구내용에 대한 시계열 유지를 통하여 노인의 특성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조사표를 개발하였다. 첫째, 1994년~2017년까지 진행된 7회의 조사를 통하여 조사의 큰 틀과 내용들이 연속성을 기반으로 하여,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유지하였다. 일부 영역 간의 통합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큰 틀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둘째, 2020년은 베이비부머가 노인 인구로 진입하는 첫해로 향후 노인의 특성과 욕구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변화하는 노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7년 조사 이후 변화된 노인의 특성, 사회·경제·문화적 상황과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여 조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셋째, 노후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영역과 이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웰다잉, 정보화 수준 등에 대한 조사 문항을 개발하였다. 넷째, 응답자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조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2017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효 응답률을 파악하고, 활용도가 높지 않은 문항은 삭제·수정하였다. 다만, 응답률은 낮으나 활용도가 높은 문항 또는 응답률은 높으나 활용도가 낮은 문항에 대해서는 수정·보완하여 문항을 개발하였다. 다섯째, 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와 관련된 항목들을 수정·보완하였다. 즉, 노인 가구형태 변화,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eing in Place), 고령친화적 환경, 노인 관련 각종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신규도입 또는 확대된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삶과 노인정책의 기본방향 등에 대한 국제적 비교 가능성 확보를 위해 UN,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검토하고, 반영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는 총 10개 영역 185문항이 개발되었다.

2. 영역별 조사내용 구성

이 절에서는 2008년 법정조사 이후 5번째 진행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조사 내용 변화를 2008년부터 정리하였다. 2008년 조사 시행 이후 한 번이라도 조사표에 포함되었던 항목을 비교표에 포함하였으며, 2020년 조사내용을 기준으로 설문내용 변화를 검토하였다.

가. 가구 일반사항

본 영역은 노인 가구의 기본적인 구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조사항목은 유지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 변화하여 진행하였다. 2020년 조사의 가장 큰 변화는 조사대상의 변화이다. 2017년 조사에서는 후기노인의 증가 및 가족의 부양기능 저하 등으로 노인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 입소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고려하여, 이들의 실태 파악도 함께 진행하기 위하여 응답 대상 노인을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거나 (요양)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하고 있는 노인까지로 확대하여 조사대상이 기존조사와 상이하였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실태조사 등 시설노인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타 조사들이 진행되면서, 2020년 조사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으로만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이에 노인 조사대상자 확인, 대리 응답 이유 등의 항목 등을 수정하였다.

기존 내용과 관련해서는 2017년도 조사내용을 유지하되, 조사대상자 범위 조정에 따라 항목을 일부 수정하였다. 지역사회 거주 노인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여, 2017년에 조사하였던 가구원 중 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 3개월 이상 입소노인 수를 삭제하고, 대리 응답 이유 선택지를 수정하였다. 또한, 정확한 가구소득 수준 파악을 위해 요구되는 가구균등화 작업을 위하여 조사 전년도인 2019년의 가구원 수를 파악하였다.

〈표 2-3〉 가구 일반사항(A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0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각)가구원 이름	○	○	○	○	○
가구주와의 관계	○	○	○	○	○
성별	○	○	○	○	○
연령	△ ¹⁾	○	○	○	○
비동거 이유	○	×	×	×	×
혼인상태	○	○	○	○	○
교육수준					
- 이수 여부	○	×	×	×	×
- 학력	○	○	○	○	○
- 교육연수(노인만)	△ ³⁾	○	○	○	○
취업여부	○	○	○	○	○
응답 노인과의 관계	×	○	○	○	○
노인 조사대상자 확인	○	○	○	○	○ (선택지 수정)
대리응답 이유	×	×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배우자 노인조사 실시 여부	×	×	○ ⁴⁾	○ ⁴⁾	○ ⁴⁾
조사원 확인사항(가구원 형태) ¹⁾	×	○	×	×	○
현재와 2019년 가구원 수 비교					
- 증감 여부	×	×	○	○	○
- 2019년 가구원 수	×	×	○	○	○
가구원 수	△ ¹⁾	○	○	○	○
노인가구원 수	△ ¹⁾	△ ¹⁾	○	○	○
조사완료 노인 수	△ ¹⁾	○ ²⁾	○	○	○
노인가구 형태	△ ¹⁾	○	○	○	○
응답 노인의 동거자녀 수					
-성별, 혼인상태별	△ ^{1) 5)}	△ ¹⁾	○	○	○
가구원 중 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 3개월 이상 입소 노인 수	×	×	×	○	×

주: 1) 직접적인 기입항목은 없지만, 조사표 상에서 산출가능함.

2) 종단조사 특성으로 인해 2008년도 조사완료노인수도 조사하였음.

3) 만 60세 이상 응답자 중 초등학교 중퇴자에 한해 교육연수를 질문하였음.

4) 『가구 일반사항(A)』영역에 있지는 않지만 배우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내용을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배우자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5) 자녀유무 및 동거유형(A영역)에서 생존해 있는 자녀 여부, 자녀 수, 자녀성별, 자녀와의 동거유형에 대하여 별도로 질문하고 있음.

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노인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인 가족 및 사회적 관계를 다루는 본 영역은 그간 큰 변화 없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계열적 비교를 고려하여 2008년 법정 조사 실시 이후 지속된 내용을 유지하되, 2014년 조사에서 유의미성이 낮은 일부 항목만 삭제하여 2017년 조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가족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영역은 노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형태적 변화를 살피는 데 초점을 둔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친인척 및 이웃·지인 등 관계망의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 교류의 측면과 관계망이 미치는 역동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2017년 조사까지 『(손)자녀·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형태』,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지인과의 관계』로 구분되었던 영역을 『가족 및 사회관계』 영역으로 통합하였다. 2020년 조사에서는 변화된 가족구조 경향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2017년 조사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본 영역의 기본방향으로 한다. 단, 사회적 변화 특성과 응답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 선택지를 수정함으로써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기존조사의 통일성 및 시계열 비교 가능성을 유지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2008년 법정 조사 실시 이후 대부분의 설문항이 유지되고 있다. 2017년 조사에서 문항 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2014년에 신설되었던 동거가족 이외의 사람의 방문 횟수를 삭제한 바 있다. 2020년 조사는 2017년까지 진행된 설문내용 대부분을 유지하되, 사회적 변화와 문항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였다.

생애 주기상 자녀 독립 및 분가 이후 빈 둥지 시기가 연장되며 노인 부부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노인에게 있어 배우자가 갖는 구체적 의미와 관계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7년 조사에서 관련 문항들이 삭제된 바 있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 문항을 신설하였다. 나아가 켄거루족 등이 증가하는 사회적 양상을 고려하여 기존 기혼자녀와의 동거 이유만을 파악하였던 것에서, 미혼자녀와의 동거 이유를 파악하는 문항을 신설하였다. 문항 수정 측면에서는 최근 연락수단이 다양화되는 측면을 고려하였다. 기존 사회적 관계망과의 왕래/연락수단을 파악하는 문항에서 연락수단의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이를 반영하였다. 문항의 활용도 측면에서 배우자와의 동반 외출 빈도, 노인 단독가구 시작 시점에 대한 문항은 삭제하였다.

〈표 2-4〉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G영역과 H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0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 자녀 여부	○ ¹⁾	○	○ (선택지 수정)	○	○
- 자녀 수	△ ²⁾	○	○	○	○
- 자녀 성별	△ ²⁾	○	○	○	○
- 자녀 배우자 유무	△ ²⁾	○	○	○	○
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전체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지난 1년간)	○	○	○	○	○ ¹⁹⁾ (연락수단 추가)
조사원 확인사항(동거자녀/비동거자녀/총자녀)					
- 성별/배우자 유무별 자녀 수	△ ²⁾	○	△ ²⁾	○	○
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중 가장 많이 접촉한 자녀 ³⁾					
- 대상(노인과의 관계)	○	○	○	○	○
- 해당자녀 거주지까지의 이동시간	○	○ (선택지 수정)	○	○	○
- 해당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지난 1년간)	○	○	○	○	○ (연락수단 추가)
지난 1년간 자녀와의 갈등					
- 갈등 경험 여부	×	×	○	○	○
- 갈등의 가장 심각한 원인	×	×	○	○	○ ²⁰⁾ (선택지 수정)
비동거손자녀					
- 존재 여부	○	○	○	○	○
- 손자녀 수	○	○	○	○	○
- 손자녀 전체와의 왕래 및 연락빈도(지난 1년간)	○	○	○	○	○ (연락수단 추가)
조사원 확인사항 (동거손자녀/비동거손자녀/총손자녀 수)	△ ²⁾	○	△ ²⁾	○	○
배우자					
- 배우자의 건강상태	○ ⁴⁾	○	○	○	○
- 배우자와 함께 산 기간('년')	○ ⁴⁾	×	×	×	×
- 배우자와 함께 살지 않은 기간('년')	○ ⁴⁾	×	×	×	×
-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동반외출 빈도	×	○	○	○	×
- 배우자에 대한 생각(대화, 신뢰)	×	×	○	×	×
- 지난 1개월간 갈등 경험 여부	×	×	○	×	○
- 갈등의 가장 큰 원인	×	×	○	×	○
가구형태					
- 노인 단독가구 시작 시점	○ ⁶⁾	○	○	○	×
- 노인 단독가구 형성 이유	×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선택지 수정)		
- 노인 단독가구의 생활상 가장 힘든 점	×	×	○	△ ¹²⁾ (선택지 수정)	○
- 기혼자녀와 따로 사는 이유	○	×	×	×	×
-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기혼자녀 동거가구)	○ ¹⁾	○	○ (선택지 수정)	○	○
-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미혼자녀 동거가구)	×	×	×	×	○
- 기혼자녀와의 경제생활/일상생활 부담방식(기혼자녀 동거가구)	×	×	○	○	○
- 미혼자녀와의 경제생활/일상생활 부담방식(미혼자녀 동거가구)	×	×	×	×	○
선호하는 노후생활					
- 자녀와 노부모 동거에 대한 생각	○ ⁷⁾	○ ⁸⁾	○	○	○
-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는 자녀에 대한 생각	○ ⁷⁾	○ ⁸⁾ (선택지 수정)	○	○	○
- 선호하는 향후의 거주형태	×	○	×	×	×
- 선호하는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 ⁷⁾	○ ⁸⁾	○	○	○
부모 및 배우자 부모					
- 생존여부	○ ⁹⁾	○	○	×	×
- 생년	○ ⁹⁾	○ ¹³⁾	×	×	×
- 건강상태	○ ⁹⁾	○ (선택지 수정)	○	×	×
- 비동거 여부	○ ⁹⁾	×	×	×	×
- 비동거 (배우자)부모와의 왕래빈도(지난 1년간)	○ ⁹⁾	○	×	×	×
- 비동거 (배우자)부모와의 연락빈도(지난 1년간)	○ ⁹⁾	△ ¹⁴⁾	×	×	×
- (배우자)부모와의 관계만족도	○ ⁹⁾	×	×	×	×
형제·자매					
- 생존여부	△ ¹⁵⁾	○	○	○	○
- 살아있는 형제·자매수	△ ¹⁶⁾	○	○	○	○
- 비동거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 (지난 1년간)	○	○	○	○	○ (연락수단 추가)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고민상담) (정서적 도움)교환	○	×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청소·식사준비·세탁 (도구적 도움) 교환	○	×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간병·돌봄·병원 동행 도움 교환	○	×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경제적 도움① (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경제적 도움② (비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경제적 도움③ (현물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 형제·자매/친인척과의 작년 한 해	○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경제적 도움을 받은/준 금액 ¹⁰⁾					
- 가깝게 지내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수	△ ¹⁷⁾	○	○	○	○
친구·이웃·지인					
-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및 연락빈도(지난 1년간)	△ ¹⁸⁾	△ ¹⁸⁾	○	○	○ (연락수단 추가)
-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지인의 수	△ ¹⁸⁾	△ ¹⁸⁾	○	○	○
- 친구·이웃과의 고민상담(정서적 도움) 교환	○	×	×	×	×
- 친구·이웃과의 청소·식사준비·세탁 (도구적 도움) 교환	○	×	×	×	×
- 친구·이웃과의 간병·돌봄·병원 동행 도움 교환	○	×	×	×	×
- 친구·이웃과의 경제적 도움① (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 친구·이웃과의 경제적 도움② (비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 친구·이웃과의 경제적 도움③ (현물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 친구·이웃과의 작년 한 해 경제적 도움을 받은/준 금액 ¹⁰⁾	○	×	×	×	×
- 친인척(형제·자매 포함)과의 관계만족도	○	×	×	×	×
동거가족 외 사람이 찾아오는 빈도(지난 1개월)	×	×	○	×	×

주: 1)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B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2) 직접 기입하는 항목은 없지만, 조사표상에서 산출 가능함.

3) 2008년의 경우, 연락과 왕래를 구분하여 접촉을 많이 한 사람을 구분하였고, 2011년과 2014년은 통합하여 구분

4) 『배우자와의 관계 및 지원(F)』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5)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C)』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6) 『자녀유무 및 동거유형(A)』영역에서 노인 단독가구로 살게 된 '기간'으로 질문하였음.

7) 2008 『노후 생활과 삶의 질(T)』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8) 2011 『노후 생활과 삶의 질(L)』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9) 『부모님과의 관계 및 지원(E)』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10) 현물은 시가로 환산하였음.

11) 배우자와의 부양의 교환은 부양의 교환에 관한 『I영역』으로 이동배치하였음. 또한 조사부담으로 인하여 배우자에 대한 생각(대화, 신뢰)과 갈등과 같은 질적인 측면에 대한 조사내용을 삭제하였음.

12) 2014년에는 '없음'이라는 선택지가 없었으나, 없다는 응답이 일정수준 이상 나타나, 2017년 조사시는 선택지에 포함하였음.

13) 연령으로 질문함.

14) 동거가구 포함하여 질문함.

15) 비동거 형제자매만 질문함.

16) 비동거 형제자매만 질문. 성별 포함.

17) 형제자매는 제외함.

18) 지인 제외함.

19) 연락수단에 '카카오톡' 추가함.

20) 선택지에 손자녀 양육방식 이견, 노인의 이성교제, 결혼 문제를 추가함.

다. 가족간 도움의 교환

가족의 구조적 변화뿐 아니라 기능의 변화 역시 중요하다. 본 영역은 2017년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영역으로 명명하였으나,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가족 간 자원 교환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족 간 도움의 교환』으로 영역명을 변경하였다.

노년기의 경우,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 축소, 노화로 인한 자립적 생활 제약 등에 연유하여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2008년 법정 조사 실시 이후, 배우자 및 부모, 자녀로 세분화하여 부양 교환에 관한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부양 교환 항목으로는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간병·돌봄·병원 동행 지원과 경제적 지원(현금지원(정기적·비정기적), 현물지원 여부)을 포함하였다. 교환 방향성에 있어서는 상호 호혜성에 방점을 둔 기존 방식을 고수하였다. 노인을 수동적, 의존적 대상으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배우자를 포함한 타 가구원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제공, 수혜, 상호교환 등의 다차원적 방향성을 유지하였다.

한편 노년기 주요 지출항목과 관련한 설문 문항에서는 2017년도 조정된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항목을 유지하였다.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에서 주거비와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주거비 14.5%, 의료비 13.4%(통계청 복지통계과, 2018. 5. 30.)), 기존 조사의 방향성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설문의 논리적 맥락을 고려하여 부양의 교환과 주요 지출 항목 문항 배치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였다. 손자녀와 관련해서는 문항 활용도를 고려할 때 삭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시계열적 비교의 통일성을 위해 기존 문항을 유지하였다.

기존 영역과의 통일성 및 시계열 비교를 위해 본 영역의 설문 문항은 큰 변화 없이 2017년 체제를 유지하였다. 배우자, 본인(배우자) 부모, 동거 및 비동거자녀의 정서적·도구적·신체적·경제적 지원 교환 여부와 교환 정도를 파악하였다. 배우자와의 지원 교환 여부는 2017년 설문 문항의 논리적 정합성 측면에서 본 영역으로 이동배치 되었으며, 2020년에도 그대로 유지하였다.

주요 지출항목은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노년기 소득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지불 방식에 따라 노인의 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문항은 2017년 조사항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손자녀 돌봄에 관한 문항 역시 10세 이하 손자녀 돌봄 경험 유무의 문항을 유지하였다.

〈표 2-5〉 노인의 자녀·부모와의 부양의 교환 실태관계(I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11~2020년)

조사내용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동거자녀/비동거자녀/본인(배우자)부모, 배우자 ¹⁾				
- 존재여부(조사원 확인사항)	○	○	○	○
- 고민 상담(정서적 도움) 상호도움 여부	○	○	○	○
- 청소·식사준비·세탁(도구적 도움) 상호도움 여부	○	○	○	○
- 간병·돌봄·병원동행 상호도움 여부	○	○	○	○
- 경제적 도움①(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경제적 도움②(비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경제적 도움③(현물지원) 상호도움 여부	○	○	○	○
- 주요 지출항목에 대한 비용지불 방식 ²⁾	×	×	○	○
손자녀				
- 지난 1년간 직접 돌본 10세 이하의 손자녀 유무 및 명 수 ³⁾	×	○	○	○

주: 1) 2014년까지는 동거자녀, 비동거자녀, 본인(배우자) 부모와의 부양 교환 실태에 대해 조사되었으며, 기존(『손자녀』 배우자와의 관계 및 가구형태(H)』영역)에서 조사된 '배우자와의 자원교환실태 항목을 설문지의 논리성 강화를 위해 본 영역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함.

2) 주요 지출항목에 대한 비용지불 방식(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에 대한 문항에 대해 2017년 신규로 추가함.

3) 2011년 조사는 '만 9세 이하의 손자녀'에 대한 정기적 돌봄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2014년을 기준으로 '만 10세 이하의 손자녀'에 대한 정기적 돌봄 여부를 확인함. 아울러 '2017년부터 1년 전' 기준으로 만 10세 이하의 손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보았는가에 대해 질문함.

라.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2020년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노인으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노인과 다른 건강상태와 건강행태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영역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문항을 설계하였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는 노인의 건강수명 제고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근거자료가 될 뿐 아니라 노인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데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만성질환 유병률, 우울증 정도, 식생활 습관, 미충족 의료 실태 등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여 노인의 건강상태와 행태 변화를 파악하고 필요한 건강 관련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이다.

건강 분야 조사표 설계는 통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7년의 조사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 영역에 포함된 항목들은 관련 국가 계획²⁾에 언급된 내용과 노인

2)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은 포괄적 건강의 정의와 건강증진의 기본이념인 '스스로 건강 관리이념 및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개념'을 적용하여, 국민 모두가 활기찬 건강과 장수를 누리는 사회의 구축을 향해서 건강수

건강 관련 최근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노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에 관련된 주요 조사내용은 <표 2-6>과 같다.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해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묻는 항목을 포함시켰다.

노인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과 그 치료 여부에 대해 문항을 구성하였다. 의료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노인성 난청 질환 유병률 파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0년 조사에서는 만성질환명에 노인성 난청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2017년도 만성질환명에 포함되어 있던 성병의 경우 2014년과 2017년 모두 해당하는 응답자가 없었기 때문에 2020년에는 조사항목에서 삭제하였다. 응답자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만성질환명 기타 항목에 예시로 심부전증과 부정맥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노인의 약물 복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의사 처방약의 개수를 질문하는 항목을 구성하였다. 또한, 2020년 조사에서는 문항 활용도가 낮은 비처방약 복용 개수를 삭제하였다.

노인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노인의 우울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단축형 노인우울 척도(SGDS-K, 15개 항목)를 사용하였다. 단축판 노인우울척도는 해외 연구에서도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문항으로 2017년과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건강행태를 측정하기 위해, 흡연 및 음주 실태, 운동실천 상태, 영양관리 상태 등을 파악하는 문항을 구성하였다. 흡연 및 음주량, 1주간의 운동 여부와 횟수, 1회 운동 시

명의 연장과 건강형평성의 제고를 목표로 추구하였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과제로 건강결정요인에 근거하여 건강생활실천의 확산, 예방중심의 상병관리, 안전 환경 보전,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사업체계의 확충과 효과적 관리 등으로 구성하였다(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p.33). 본 계획에서는 노인 건강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 예방 중심의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속 추진 치매에 대해서는 예방-조기발견-치료·관리-돌봄체계의 내실화,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마련, 노인의 안전 및 권리(학대방지) 보호 강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5, pp.422-42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을 위한 추진 방향으로 의료·돌봄 부담 경감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설정하였고,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만성질환, 낙상·약화사고, 정신건강 등 질병예방·관리 강화,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및 노인의료전달체계 내실화, 치매, 장기요양, 포괄간호·간병 서비스, 호스피스 활성화 등 의료·돌봄 부담 경감 등을 포함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6, p.119).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5.12.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추진영역별 과제로 ①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② 편안하고 안전한 치매환자 진단·치료·돌봄, ③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④ 연구·통계 및 기술을 통한 지원 등임.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2017.6. 보건복지부)에서는 온 국민의 영양관리로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 ① 건강식생활 실천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② 건강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 ③ 건강식생활 실천 기반 강화, ④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지원 강화 등임. 노인 건강을 위한 국가 영양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중요 사업내용으로는 노인 회합형 영양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마련, 노인 방문/배달형 영양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노인 영양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노인 눈높이의 체험형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모델 개발 등임.

운동시간 항목은 2017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다만 운동종류와 운동하는 장소에 관한 항목은 정책 활용도가 낮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조사항목에서 삭제하였다. 영양상태(영양관리 필요율)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과 동일하게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NSI)가 개발한 ‘Determine Your Nutrition Health’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아울러 노인의 비만지수(BMI)를 산출하기 위하여 몸무게와 키를 측정하는 질문 항목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식사 서비스 관련 노인 체감도 파악(노인 식생활 관련 정책 자료 활용)을 위해 2017년과 동일한 문항으로 경로 식당 또는 식사(밀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여부와 빈도에 대해 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방적 건강행태에서는 지난 2년간 건강검진 여부와 치매검진 여부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량을 파악하기 위해, 2017년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횟수와 병의원 입원 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단 병의원 입원의 경우, 요양병원을 추가하여 요양병원과 그 외 병의원으로 구분하여 입원 횟수와 병원 입원에 대한 연간 입원일수를 파악하였다.

노인의 의료 미충족 욕구와 의료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병의원과 치과 진료의 미충족 여부, 미진료시 그 이유에 대한 항목을 2017년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다만 정책 활용도가 낮고 자녀가 대신 가입한 민간보험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2020년 조사에서는 민간보험 가입 여부 항목은 삭제하였다.

〈표 2-6〉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B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0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평소의 건강 상태	○	○ (선택지 수정)	○	○	○
동년배 대비 건강 상태	○	○ (선택지 수정)	○	×	×
의사로부터의 장애판정 유무 및 내용	○	×	×	× ⁴⁾	×
만성질환 ⁵⁾					
- 유무	○	○	○	△ (의사진단)	△ (의사진단)
- 이환 연수	○	×	×	×	×
- 의사진단 여부	○	○	○	○ ⁶⁾	○
- 치료 여부	△ (처방약 복용)	×	○	○	○
- 의사 진단 만성질환 총 수(조사원 확인사항)	△ ¹⁾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의사 처방약 수('알'기준)	△ (종류, 기간제외)	△(종류)	○	○	○
우울증상 척도(15개 문항)	○	○	○	○	○
현재 질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정도	○	×	×	×	×
치료기관 유형(빈도기준)	○	×	×	×	×
통증					
- 평소에 느끼는 통증부위(복수응답)	○	×	×	×	×
-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	○	×	×	×	×
건강을 위한 약/건강식품					
- 복용 유무	○	×	×	×	×
- 복용의약품 유형 및 종류 수 (처방약, 비처방약, 한방처방약, 건강보조/기능성 식품)	○	×	×	△	×
지난 1주일 동안 모든 일에 대한 힘든 정도(주관적)	○	×	×	×	×
지난 1주일 동안 모든 일에 대한 수행 가능성 정도(주관적)	○	×	×	×	×
신체활동(일주일 기준)					
- 가벼운 신체활동의 수행정도 (경도)	○	×	×	×	×
- 가벼운 신체활동의 1회당 수행시간	○	×	×	×	×
- 중등도 신체활동의 수행정도 (중강도)	○	×	×	×	×
- 중등도 신체활동의 1회당 수행시간	○	×	×	×	×
- 고도 신체활동의 수행정도 (고강도)	○	×	×	×	×
- 고도 신체활동의 1회당 수행시간	○	×	×	×	×
흡연					
- 현재까지의 총 흡연량	○	×	×	×	×
- 현재 흡연 여부	○	○	○	○	○
- 1일 흡연량	○	○	×	×	×
- 흡연 기간	○	×	×	×	×
음주					
- 음주 빈도(지난 1년간)	○	○	○	○	○
- 1회 음주량	○	○ (선택지 확대)	○ (선택지 수정)	○	○
운동					
- 평소 운동 수행 여부	×	○	○	○	○
- 일주일간 운동 횟수	×	△ ⁸⁾	○	○	○
- 운동시, 1회당 운동 시간	×	○	○	○	○
- 주로 하는 운동의 종류	×	○	○	○	×
- 주로 운동하는 장소	×	○	×	○	×
신체 측정(몸무게, 키)	○ ³⁾	○ ³⁾	○	○	○
- 미측정 이유(복수응답)	○	×	×	×	×
영양관리 상태 관련 문항(지난 1개월) ⁹⁾	○	△	○	○ ¹⁰⁾	○
의료기관 이용(지난 1개월간)					
- 이용 여부 및 횟수 ¹¹⁾	×	△	○	○	○
방문간호, 가정간호 서비스 이용(지난 1년간)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제외)					
- 이용여부 및 횟수	×	○	×	×	×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건강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난 1년간)					
- 참여 여부	×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 참여 기관	×	○	×	×	×
병원 입원(지난 1년간)					
- 입원 여부	○ ²⁾	×	○	○	○
- 입원 횟수 및 일수 ¹²⁾	△	×	△	○	○
건강검진(지난 2년간)					
- 수진 여부	○	○	○	○	○
- 미수진 이유	○	○	×	×	×
치매검진(지난 2년간)					
- 수진 여부	×	×	×	○	○
병의원 미치료 경험(지난 1년간) 및 미치료 이유 ¹³⁾	×	×	△	○	○
치과 미치료 경험(지난 1년간) 및 미치료 이유 ¹³⁾	×	×	△	○	○
수면					
- 1일 평균 수면 시간(지난 일주일간)	△ ¹⁾	○	×	×	×
- 밤 수면 시간	○	×	×	×	×
- 낮 수면시간	○	×	×	×	×
- 수면제 복용 여부	○	×	×	×	×
- 숙면 빈도	○	×	×	×	×
독감 예방접종 유무	○	×	×	×	×
의료서비스 만족도(지난 1년간)	○	×	×	×	×
식사지원서비스 이용 ¹⁴⁾					
- 경로식당(지난 1년간)	○	○	○	○	○
- 식사(밀반찬)배달 서비스	○	○	○	○	○
민간보험 가입여부	×	×	×	○	×

주: 1) 직접적인 기입항목은 없지만, 조사표 상에서 산출가능함.

2) 노인전문병원, 요양시설 포함. 『의료서비스 이용(N)』영역에 있음.

3) 신체기능(2008년: 『Q』영역, 2011년: 『F』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4) 2017년도에는 관련문항을 수정하여 『기능상태와 간병돌봄(D)』영역으로 이동하여 질문함.

5) 연도별 만성질환종류 변경 및 수정함.

6) 본인인지 만성질환 유무 삭제, 의사진단 만성질환 유무만 질문함.

7) 건강식품을 제외한 3개월 이상 복용한 의사 비처방약 문항 삭제

8) 1개월간 운동횟수로 질문함.

9) 문항수 및 기간 조정(2008년: 10개, 6개월, 2011년: 7개, 6개월, 2014년, 2017년: 10개, 1개월)하였음.

10) 과일, 채소, 유제품 섭취여부 개별질문함.

11) 기간을 조정(2011년: 2주, 2014년, 2017년: 1개월).

12) 연도별 기준 상이함(2008년, 2014년 입원 횟수로 질문하였으나, 2017년 입원 일수 추가). 2020년에는 요양 병원과 그 외 병의원으로 구분하여 파악함.

13) 2014년 미치료 경험 유무에서 2017년 미치료 이유로 질문내용 추가함.

14) 2014년 『생활환경(K)』영역의 문항을 일부 수정하여 본 영역으로 이동함.

마. 기능상태와 요양보호 실태

노인의 기능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노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요하다. 이에 본 영역에서는 노인의 기능상태와 요양보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는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필요한 돌봄 욕구 및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시계열 비교를 위해 문항 구성은

2014년과 2017년 조사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노인 집단의 기능상태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등과 관련된 문항을 구성하였고, 2014년, 2017년과 동일한 지표로 구성하였다. 허약 노인 선별 지표 역시 2017년과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도움 제공자와 도움 빈도 등을 조사하고,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현황과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 등을 항목으로 구성하여 간병돌봄 실태를 파악하려 하였다. 장기요양보험등급이 6단계로 변화됨에 따라 2020년 문항은 치매특별등급을 삭제하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인지기능 상태 파악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조기검진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인지기능 검사도구(MMSE-DS)를 2017년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노인의 기능상태 및 요양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항목은 <표 2-7>에 연도별로 비교 정리하였다. 2017년과 동일한 지표를 사용해 시·청력 및 씹기 능력과 일상생활 불편함에 대해 조사하였다. 허약 노인 지표 또한 2017년과 동일한 지표를 사용하였다. 노인의 일상생활능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수행능력 지표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지표를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들 지표는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수행도를 파악하여 활동제약의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지표는 옷 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 놓은 음식 먹기(식사능력),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보행능력),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완전 자립, 부분 도움 및 완전 도움 정도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지표는, 몸단장하기, 집안 일하기, 식사 준비하기, 빨래하기,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금전 관리, 근거리 외출하기, 물건 구매 결정·돈 지불·거스름돈 받기,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완전 자립, 부분 도움 및 완전 도움 정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다.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움 여부, 도움 제공 주체, 가족, 친척 및 이웃 등의 도움 내용별 빈도와 주 도움 행위자에 대한 항목을 지표로 구성하였다. 개인 간병이나 가사 도움의 1주 평균 시간, 가족과 친척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받은 도움의 충분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도움 행위자를 파악하는데는 동거가족과 비동거 가족을 구분하여 파악하도록 하였으며, 도움 내용 또한 청소·빨래·시장보기, 외출동행, 목욕 등 신체 기능유지 지원으로 구분하여 도움 빈도와 주 도움 행위자를 파악하였다.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이 5단계에서 6단계로 변화됨에 따라 2020년 조사에서는 치매 특별등급을 삭제하고,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추가하였다. 장기요양서비스 유형별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별 이용현황에 대한 항목을 구성하였다. 아울러 2020년부터 장애등급제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2020년 조사에서는 장애등급 여부 문항을 삭제하고 장애판정 여부와 주된 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 문항으로 지표를 재구성하였다.

〈표 2-7〉 노인의 기능상태와 간병돌봄(C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0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시력/청력/씹기					
- 보조기 사용 여부	○	○	○	○	○
- 시력, 청력, 씹기 수준(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착용)	○	○	×	×	×
- 일상생활 불편함(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착용)	△ ¹⁾	×	○	○	○
물건 쥐기					
- 어려움 여부	○	×	×	×	×
- 사용하기 어려운 손	○	×	×	×	×
- 오른손잡이/왼손잡이	○	×	×	×	×
- 악력측정(응답자 욕구, 자세 포함)	○	×	×	×	×
- 악력 미측정 이유(복수응답)	○	×	×	×	×
걷기					
- 어려움 여부	○	×	×	×	×
- 걷기 측정(응답자 욕구 포함)	○	×	×	×	×
- 걷기 미측정 이유(중복응답)	○	×	×	×	×
근력상태(앉았다 일어나기 5회 반복수행)	×	○	○ (선택지 수정)	○	○
항목별 활동 어려움					
-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뛰기	○	○	○	○	○
-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걷기	×	○	○	○	○
-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	○	○	○	○
- 몸을 구부리거나, 쭉그려 앉거나, 무릎 꿇기	○	○	○	○	○
-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어서 닿기	○	○	○	○	○
- 쌀 1말(8kg) 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	○	○	○	○
일상생활 수행능력(지난 일주일간)					
- 옷 입기	○	○	○	○	○
-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	○	○	○	○
- 목욕 또는 샤워하기(욕조 드나들기, 때밀기, 샤워)	○	○	○	○	○
- 차려 놓은 음식 먹기	○	○	○	○	○
-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	○	○	○	○
- 대소변 조절하기	○	○	○	○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지난 일주일 간)					
- 몸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	○	○	○	○
- 집안일(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안정리정돈 등)	○	○	○	○	○
- 식사준비(음식 재료 준비, 요리, 상차리기)	○	○	○	○	○
- 빨래(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	○	○	○	○
-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	○	○	○	○
- 금전 관리(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	○	○	○	○
- 근거리 외출하기(가까운 거리 걸어서)	○	○	○	○	○
- 물건 구매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	○	○	○	○
- 전화 걸고 받기	○	○	○	○	○
- 교통수단 이용하기(대중교통, 개인 차)	○	○	○	○	○
일상생활 돌봄 도움					
- 도움 받음 여부	○	○	○	○	○
- 도움을 받게 된 기간	○	×	×	×	×
- 도움 받은 주체 ⁷⁾	○ ²⁾	○ ³⁾	○	○	○
·가족원(동거, 비동거)	○	○	○	○ ⁸⁾	○
·친척, 이웃·친구·지인	○	○	○	○	○
·개인 간병인 또는 가사 도우미(파출부)	○	○	○	○	○
·장기요양보험서비스(요양보호사 등)	×	○	○	○	○
·노인돌봄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 등 각종 공공돌봄서비스)	×	○	○	○	○
- 가족, 친척, 이웃 등의 도움의 내용별 빈도와 주 도움 행위자	×	○ ⁹⁾	○ ⁹⁾	○ ¹⁰⁾	○
·청소, 빨래, 시장보기 도움빈도와 주 도움 행위자	×	×	×	○	○
·외출동행 도움빈도와 주 도움 행위자	×	×	×	○	○
·식사준비(음식준비) 도움빈도와 주 도움 행위자	×	×	×	○	○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지원 도움빈도와 주 도움 행위자	×	×	×	○	○
- 개인간병이나 가사도움의 1주 평균 시간	×	×	×	○	○
- 가족과 친척, 장기요양서비스 도움 충분성	×	×	×	○	○
- 도움을 가장 많이 준 가족원의 도움정도(일주일) ¹¹⁾	×	○	○	×	×
-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	×	×	○	○ (선택지 수정)	○
노인장기요양보험 ⁵⁾					
- 인지여부	○	○	×	×	×
- 서비스 이용 경험여부	×	○	×	×	×
- 현재 서비스 이용여부 ¹²⁾	○	×	×	○	○
- 서비스 만족도	○	○	×	×	×
- 등급신청경험 여부	×	○	○ (선택지 수정)	○	○
- (등급신청 시) 가장 최근에 받은 등급	×	○	○ (선택지 수정)	○	○
- (등급미신청 시) 신청하지 않은 이유	×	×	○	○ (선택지 수정)	○
일상생활 수행관련 노인복지서비스 ⁵⁾⁶⁾					
- 인지여부, 이용경험, 향후 이용의향					
·요양시설	○	△	×	×	×
·노인전문병원(노인치매병원 등)	○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주간(야간)보호서비스	○	△	×	×	×
·단기보호서비스	○	△	×	×	×
·방문요양서비스	○	△	×	×	×
·방문간호서비스	○	△	×	×	×
·방문목욕서비스	○	△	×	×	×
·장기요양 보장구 구매 및 대여	×	△	×	×	×
장애판정여부 및 유형 ¹³⁾					
- 장애등급여부	○	×	×	○	×
- 장애유형 및 정도	○	×	×	○	○

주: 1) '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착용 후' 문구 생략, 시력과 청력의 경우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질문, 씹기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거나 사래가 든 경험 질문.

- 2)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과 그 다음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만 해당함.
- 3) 가족원, 외부서비스, 가족원/외부서비스, 기타, 이웃, 가사도우미 중 택일함.
- 4) 가족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질문은 있음.
- 5) 『노인복지서비스(2008년: S영역, 2011년: K영역)』에 있음.
- 6) 2011년의 경우, 서비스 이용경험여부만 복수응답형태로 질문함.
- 7) 연도별 기준 상이함(2008년: 1,2순위, 2011년: 선택지 중 택일, 2014년, 2017년: 복수응답).
- 8) 동거, 비동거 구분함.
- 9) 가족 중 도움을 가장 많이 준 사람과 도움 정도(3개월).
- 10) 가족 이외 친척, 이웃까지 대상 확대. 도움내용별 빈도, 행위자 구분(1개월).
- 11) 연도별 기준 상이(2008년, 2014년: 빈도구간, 2011년: 지난 3개월간 실수 기입으로 질문).
- 12)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으로 2008년, 2011년의 노인복지서비스와 구분. 서비스별 이용여부로 각각의 서비스별 질문(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 요양시설, 단기보호, 복지용구).
- 13) 연도별 기준 상이(2008년: 등급 받은 경험여부, 장애유형만 질문, 2017년: 등급 받은 경험여부, 장애유형, 장애등급 질문). 2020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판정 여부와 유형, 장애정도로 재구성함.

노인의 인지기능과 관련된 연도별 주요 조사내용은 <표 2-9>와 같다. 치매 관리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치매조기검진, 치매유병률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는 MMSE-DS를 사용하여 노인의 인지기능을 검사하였고, 2017년과 동일하다.³⁾

3) MMSE-DS는 한글판 MMSE 간의 문항 및 시행방법의 차이가 발생하여 동일한 피험자라도 적용되는 도구에 따라 점수에 차이가 발생하며, 검사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단일화된 치매 선별 검사 도구의 개발과 표준화된 시행지침의 마련이 요구되어왔음. 이에 K-MMSE와 MMSE-KC의 세부항목을 이용하여 MMSE-DS를 개발함(www.nid.or.kr 2012년 치매예방관리사업 교육대회 자료). K-MMSE, MMSE-KC, MMSE-DS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2-8〉 노인의 인지기능(M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0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주관적인 기억력 상태	○	×	×	×	×
기억력 및 집중력 체크 문항					
- 연도	○	○	○	○	○
- 계절	○	○	○	○	○
- ‘일’	○	○	○	○	○
- 요일	○	○	○	○	○
- ‘월’	○	○	○	○	○
- 도/특별시/광역시	○	○	○	○	○
- 시/군/구	○	○	○	○	○
- 동/읍/면	○	○	○	○	○
- 건물 층수	○	○	○	○	○
- 장소 이름	○	○	○	○	○
- 3가지 물건 이름 기억(나무, 자동차, 모자)	○	○	○	○	○
- 단어 거꾸로 말하기(삼천리강산)	○	○	×	×	×
- 뱀셈(100에서 순차적으로 7 빼기)	×	×	○	○	○
- 3가지 물건 이름 재질문(나무, 자동차, 모자)	○	○	○	○	○
- 사물 이름 맞추기 ^{주1)}	○	○	○	○	○
- 듣고 따라하기(간장공장공장장)	○	○	○	○	○
-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오른손으로 종이를 받아 반으로 접고 무릎 위에 놓기)	○	○	○	○	○
- 겹쳐진 오각형 그리기	○	○	○	○	○
- 이유 말하기(웃은 왜 빨아서 입습니까?)	○	○	○	○	○
- 숙답 뜻 말하기(티끌 모아 태산)	×	×	○	○	○
- 상황별 적절한 행동 말하기(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쉽게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	○	○	×	×	×

주: 1) 2008년/2011년: 열쇠, 도장, 2014년/2017년: 시계, 연필

	K-MMSE	MMSE-KC	MMSE-DS
시간지남력	년/월/일/요일/계절	년/월/일/요일/계절	년/월/일/요일/계절
장소지남력	여기는 어디입니까? (나라/도/무엇을 하는 곳/장소명/층)	여기는 어디입니까? (도/시/면/장소명/층)	여기는 어디입니까? (도/시/구/장소명/층)
기억등록	비행기, 연필, 소나무	나무, 자동차, 모자	나무, 자동차, 모자
주의집중력	Serial 7	삼천리강산 거꾸로(채점기준 표준화)	Serial 7
기억회상	비행기, 연필, 소나무	나무, 자동차, 모자	나무, 자동차, 모자
이름대기	시계, 볼펜	열쇠, 도장	시계, 연필
명령실행	종이를 뒤집고 반으로 접은 다음 저에게 주세요	오른손으로 받아서 반으로 접은 다음 무릎 위에 놓으세요	오른손으로 받아서 반으로 접은 다음 무릎 위에 놓으세요
따라말하기	백문이 불여 일견	간장공장공장장	간장공장공장장
구성능력	오각형 겹쳐 그리기	오각형 겹쳐 그리기	오각형 겹쳐 그리기
읽기, 쓰기	눈을 감으세요 원하는 한 문장 쓰기	이해 판단으로 대체	이해 판단으로 대체
이해 판단	없음	웃은 왜 빨아서 입나? 길에서 남의 주민등록증을 주웠을 때?	웃을 왜 빨아서 입나? 티끌 모아 태산
점수해석	정상규준으로 분석	정상규준으로 분석	정상규준으로 분석

바. 경제상태

경제상태는 노인과 노인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생활상황을 파악하는 영역이며,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정책적 관심이 높다. 경제상태 영역의 조사표 설계는 조사자료의 시계열적인 안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조사항목을 조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향은, “경제상태 관련 조사의 중요성과 어려움, 노인의 인지능력, 조사의 연속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2017년 노인실태조사는 지난 조사와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정경희 등, 2016, p.76).”라는 문헌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제도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한편 노인의 경제수준은 노인이 속한 가구 단위의 경제수준에 의해 크게 좌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가구 내에서 가구원이 경제수준을 동일하게 누리지는 않다. 따라서 ‘누구의 경제상태를 파악할 것인가’는 사회적 변화를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구소득은 노인과 그 외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체계를 2017년 조사표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2017년 조사표 마련 당시 노인이나 노인부부로 구성된 가구의 출현 비중이 높아지면서 조사대상 노인과 배우자의 경제상태를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은 불필요해졌고,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 조사항목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2017년 조사부터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은 조사항목에서 삭제하고, 대신 가구소득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인 본인과 그 외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소득의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가구소득은 노인 본인과 그 외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다.

조사표 설계과정에서 문헌조사와 자문회의, 정부 정책 입안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자료의 활용도가 낮은 항목과 추가적으로 실태 파악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선별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상태의 경우 시계열 유지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2017년의 조사 문항을 유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자료 활용도를 고려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소득 항목을 세분화하여 조사하던 것을 통합하였다. 2017년 결과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의 비율은 6.4%로 매우 낮은 상황으로 세분화 의미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이는 조사 부담을 낮추고, 통계청의 대표적인 가구소득 자산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조사 범위와 일치시킨 것이다.

한편 가구소득과 자산 및 부채의 규모를 파악하는 단위를 ‘십만 원’으로 수정하여 조

사 응답자의 부담을 낮추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과 같이 ‘만 원’으로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제상태는 만 원(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 또는 천 원(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 2-9〉 노인의 경제상태(J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0년)

조사내용		2008	2011	2014	2017년	2020년
가구 (N) ^{a)}	주관적 생활수준	○ ¹⁾²⁾	○ ²⁾ (선택지 수정)	○	×	×
	작년 한 해 월평균 소비지출액(전체)	△ ³⁾	○	○	○	○
	항목별 월평균 지출액(작년 한 해)					
	소비지출					
	- 식비	○	×	×	×	×
	- 교육비	○	×	×	×	×
	- 차량유지비	○	×	×	×	×
	- 주거비	○	×	×	○	○
	- 보건의료비	○	×	×	×	×
	- 교양문화오락비	○	×	×	×	×
	- 내구재	○	×	×	×	×
	- 통신비	○	×	×	×	×
	- 피복비	○	×	×	×	×
	- 대중교통비	○	×	×	×	×
	- 기타	○	×	×	×	×
	비소비 지출					
	- 경조사비	○	×	×	×	×
	- 현금 및 각종 기부금	○	×	×	×	×
	- 이자상환액	○	×	×	×	×
	- 비동거가족에 대한 생활보조금	○	×	×	×	×
	- 기타	○	×	×	×	×
	지출되는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추가)	○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월평균 생활비 규모	○	×	×	×	×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월평균 생활비 규모	○	×	×	×	×
	(작년 한 해)근로소득 유무 및 금액	△ ⁴⁾	○	○	○	○
	(작년 한 해)사업소득 유무 및 금액	(통합질문)	○	○	○	○
	(작년 한 해)재산소득 유무 및 금액	○ ⁵⁾	○	○	○	○
	(작년 한 해)사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공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	○	○	○ ¹⁶⁾ (세분화)	○ ²²⁾ (통합)
	(작년 한 해)기타소득 유무 및 금액	○	○	○	○ ¹⁷⁾ (세분화)	○
	(작년 한 해)총소득	△ ³⁾	○	○	○	○
	살고 있는 집 이외의 소유하고 있는 집 여부	×	○	×	×	×
	주택 시가(소유, 전세, 보증금, 월세)	○	○	×	×	×

조사내용		2008	2011	2014	2017년	2020년
	주택 종류	○	○ ⁶⁾ (선택지 수정)	○ ⁶⁾ (선택지 수정)	○ ⁶⁾	○ ⁶⁾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여부 및 월평균 급여액	○	△ ⁷⁾	△ ⁷⁾	△ ⁷⁾	△ ⁷⁾
	부동산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금융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기타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부채 유무 및 금액	○	×	○	○	○
노인 (본인) (G) ^{a)}	가구 생활비 및 용돈 주 부담 주체	○ ⁸⁾	○	×	×	×
	생활비 또는 용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자녀	○	×	×	×	×
	생활비 외에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용돈 금액(월)	○	×	×	×	×
	용돈 중 가장 많이 지출하는 영역	○	×	×	×	×
	(작년 한 해)근로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사업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재산소득 유무 및 금액	○ ⁵⁾	○	○	○	○
	(작년 한 해)개인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퇴직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주택연금/농지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사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공적연금 유무 및 금액	○ ⁹⁾	○	○	○	○
	(작년 한 해)기초노령연금 유무 및 금액	×	○	○	○ ¹⁸⁾	○ ¹⁸⁾
	(작년 한 해)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유무 및 금액	△ ⁷⁾	○	○	×	×
	(작년 한 해)기타 공적급여 유무 및 금액	○ ¹¹⁾	○	○	○	○
	(작년 한 해)기타 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총 수입액	△ ¹²⁾	○	○	○	○
	경제적 지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 ¹³⁾	○	○	○	○
	등록장애인 여부	×	○	×	×	×
	부동산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금융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기타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부채 유무 및 금액	○	○	○	×	×
	부채를 지게 된 이유(노인 본인 + 배우자)	△ ²⁰⁾	○ (선택지 수정)	×	×	×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의료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 ¹⁵⁾	○ ¹⁴⁾	○	○	○
	- 의료비 주 부담주체	○ ¹⁵⁾	×	×	×	×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간병돌봄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	×	×	○	○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문화여가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	×	○	○	○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경조사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	×	○	○	○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지원 필요 여부	○	×	×	×	×
배우자 (G)	(작년 한 해)근로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조사내용		2008	2011	2014	2017년	2020년
	(작년 한 해)사업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재산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개인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퇴직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주택연금/농지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사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공적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기초노령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기타 공적급여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기타 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총 수입액	×	○	○	×	×
	부동산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금융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기타자산 유무 및 금액	×	×	○	×	×
노인+배우자 (G)	부채 유무 및 금액	×	○	○	×	×
	총 수입액	×	○	○	×	×
노인 (본인) 이외 가구원 (N)	(작년 한 해)근로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사업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재산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개인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퇴직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주택연금/농지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사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공적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기초연금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기타 공적급여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기타 소득 유무 및 금액	×	×	×	○	○
	(작년 한 해)총 수입액	×	×	×	○	○

주: a) 2017년에는 개인과 가구 단위의 경제상태 파악이 별도의 영역으로 나뉘어 조사하던 것을 통합하였 구성하였으므로, 구성의 변화를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2014년의 영역명칭을 제시하였음.

- 1) 2011년/2014년과 다르게 “어르신 님의 경제 형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함.
- 2) 개인의 경제상태 관련영역에서 질문함.
- 3) 직접적인 기입항목은 없지만, 조사표 상에서 산출가능함.
- 4)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분리할 수 없음.
- 5)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구분하여 질문함.
- 6) 조사표 맨 뒤의 ‘조사원 확인 사항’에 항목이 있음.
- 7) 2008년에는 가구를 기준으로 물어본 반면에 2011년, 2014년에는 노인과 배우자 각각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액 여부 및 연 급여를 기입하게 되어 있으며, 경제적 지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그 외로 구분하여 다시 질문하고 있음. 2017년, 2020년은 가구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액 여부 및 연 급여에 대해 물어보고, 노인 본인에 한해 경제적 지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그 외로 구분하여 파악함.
- 8) 가구생활비가 아닌 노인 본인을 위한 생활비/용돈만 해당함.
- 9)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분리하여 질문함.
- 10) 2008년 조사에서는 해당영역에 경로연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기초노령연금은 노인복지서비스(S영역)에

서 인지여부, 현재 수령여부, 급여액, 생활의 도움정도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음.

- 11) 세부항목별(보훈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교통수당,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로 질문함.
- 12) 기타소득을 제외하면 산출가능함.
- 13) 가구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여부만 파악가능함.
- 14) 작년 한해 월평균 보건의료비로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로 질문, 『건강상태(D)』영역에 해당문항 있으며, 지출 유무를 별도로 체크하지는 않음.
- 15) 『의료서비스 이용(N)』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연지출액으로 질문함.
- 16)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제외하고,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타공적급여로 세분화하여 파악함.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가구 기준에서 일괄 파악함.
- 17)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농지연금, 기타소득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함.
- 18) 제도변경으로 기초연금으로 명칭 변경함.
- 1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개인단위에서는 질문하지 않음.
- 20)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음.
- 21) 2017년, 2020년에는 관련 문항을 수정하여 『기능상태와 간병돌봄(C)』영역으로 이동하여 질문함.
- 22)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통합하여 질문함.

사. 경제활동

인구 고령화와 건강한 노인의 증가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노인은 노후소득 단절과 노인빈곤의 위협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 욕구는 매우 높은 상황이다. 노인 경제활동 조사 항목은 기본적으로 현재 경제활동, 최장기 종사 직업, 향후 근로희망, 그리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네 개의 세부 영역으로 구성된다. 경제활동 조사표는 조사 결과의 시계열 비교분석 활용을 염두에 두고 경제활동 영역의 문항 구조와 내용을 가급적 2017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2017년 조사표에서는 응답자 범위의 조정 작업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2020년은 응답 문항 간소화와 제도 변경 작업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종사상 지위의 선택지에서 응답 비율이 낮은 문항은 삭제하였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유형의 잦은 변경이 있으므로, 2020년 기준을 반영하였다.

노인 경제활동의 조사 항목 변화를 살펴보면, 현재 경제활동 영역, 최장기 종사직업 영역, 향후 근로희망 영역,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영역은 2008년 이후 2020년 조사까지 거의 동일한 구조와 문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단, 지난 3년간 노인의 특성과 경제활동 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선택지의 수정, 한 문항 정도의 문항 삭제와 신규 하위 문항 추가 등이 이루어졌다. 현재 직업 및 최장기 종사 직업의 종사상 지위는 2017년 조사에서 포함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제외하였다. 2017년 ‘특수형태근로 종사’라는 응답이 0.9%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 종사상 지위 응답에

‘기타’는 0%로 종사상 지위 분류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역시 삭제하였다.

현재 경제활동 이유의 경우 희망 경제활동 이유와 선택 문항을 일치되도록,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를 ‘사회적으로 기여하기 위해’로 문구 수정하였다.

삭제한 문항은 최장기 일자리의 정부 지원 일자리 여부인데, 정책 활용도가 낮고 현재 일자리 특성과 최장기 일자리 특성을 통해 일정 수준 유추 가능하다는 점에서 내린 판단이다. 2017년 최장기 종사 직업이 정부 지원 일자리인 비율이 2.9%에 불과하였다.

구직노력의 경우 2순위까지 조사 조사하던 것을 1순위 조사로 수정하였다. 2017년 2순위 응답 비율이 27.7%(1순위 1,350명 중 374명)로 낮고,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하여도 순위의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 유형 및 희망하는 참여 유형의 선택 문항은 노인의 응답 가능성과 현행 제도에 맞춰 적절히 수정하였다. 2020년 정책변화에 맞춰 사업 대분류로 선택지 문구를 수정하고 세부설명을 추가하였는데, 응답 노인의 입장에서 사회서비스형과 재능나눔형의 경우 공익활동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이 활동성격과 시간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추가하였다. (1) 공익활동(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일 3시간 이내 참여), (2) 시장형 사업단(소규모 매장, 사업단 등을 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3) 취·창업형 사업단(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4) 재능나눔활동(노인안전예방, 상담·안내, 교육 및 학습지도, 문화예술 등의 봉사활동), (5) 사회서비스형 사업단(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주 15시간 이상 근로).

그리고 2017년 기준 노인의 85.7%가 공익형(2020년 기준 공익활동)이라는 점에서, 2020년은 공익활동의 하위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현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형 중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10〉 노인의 경제활동(E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0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현재 경제활동					
- 경제활동 상태	○	○ (선택지 수정)	○	○	○
- 직업 종류(통계청 중분류)	○	○	○	○	○
- 일의 내용	×	×	○	○	○
- 종사상 지위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⁶⁾ (선택지 수정)	○ ⁶⁾ (선택지 수정)
- 정부지원 일자리 여부	×	×	○	○	○
- 근무하는 기관 유형	×	×	○	○	○
- 향후 1년간 지속가능여부	×	×	○	×	×
- 평균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	△ (근무일수 제외)	○	○	○
- 종사 기간	○	○	○	○	○
- 근로소득(월평균)	○	×	×	○	○
- 경제활동 이유	○	○ (선택지 수정)	○	○	○ ⁹⁾ (선택지 수정)
- 직업에 대한 만족도	○	○	○	○	○
- 직업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	×	×	○	○	○
- 현재 일에 대한 지속의향	○	○	×	×	×
- 현 직업의 최장기 종사 직업 여부	○	○	○	○	○
현재까지 취업경험 여부	○	○ ²⁾	×	×	×
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	○	×	×	×
최장기 종사 직업					
- 직업종류(통계청 중분류)	○	○	○	○	○
- 종사상 지위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⁶⁾ (선택지 수정)	○ ⁶⁾ (선택지 수정)
- 정부지원 일자리 여부	×	×	○	○	×
- 종사 기간(연도/개월)	○ ³⁾	○	○	○	○
- 근로소득	○	×	×	×	×
- 그만둔 이유	○	○	○ (선택지 수정)	○	○
- 최장기 일자리 퇴직 후 다른 근로활동 참여여부	×	×	○	○	○
최근 그만둔 직업					
- 직업종류(통계청 중분류)	○	×	○	×	×
일의 내용	×	×	○	×	×
- 종사상 지위	○	×	○ (선택지 수정)	×	×
-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	×	○	×	×
- 종사기간(연도/개월)	○ ³⁾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 근로소득	○	×	×	×	×
- 그만둔 이유	○	×	○ (선택지 수정)	×	×
향후 근로 희망					
향후 근로 희망 유무 및 특성	○	○	○	○	○
근로 희망 이유	○	○ (선택지 수정)	○	○	○
하고 싶은 일의 종류(통계청 중분류)	○	×	×	×	×
- 희망근로시간	△ ⁴⁾	○	○	○	○
- 희망근로소득	○	○	○	○	○
- 구직 시 우선 조건(1/2순위)	○	○	×	×	×
- 구직노력(1/2순위)	×	○	○ (선택지 수정)	○	○ ¹¹⁾
노인일자리사업5)					
- 인지 여부	○	○	×	×	×
- 참여 경험	○	○ (선택지 수정)	○	○	○
- 참여기간/참여빈도	×	○	×	×	×
- 참여 유형	×	○	○	○ ⁷⁾	○ ⁷⁾
- 참여 만족도	○	○	×	×	×
- 참여하지 않는 주된 이유	○	○ (선택지 수정)	×	×	×
- 향후 참여 의향	×	○	○	○ ⁸⁾	○ ⁸⁾
- 향후 희망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	○	×	○	○ ¹²⁾

주: 1) 향후 근로 희망에 관한 문항에서 파악할 수 있음.

2) 현재 경제활동 상태문항에서 파악가능함.

3) 일한 시점에서 그만둔 시점까지 질문한 문항에서 계산가능함. 단, '개월'은 불가함.

4) 시간에 따른 근무형태에 대한 질문으로 간접적으로만 파악가능함.

5) 『노인복지서비스(2008년: S영역, 2011년: K영역)』에 있음.

6) 2017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추가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에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제외하고 '기타' 역시 제외함. 또한 2020년은 '고용주'를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자영업자'를 '단독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수정하여 질문함.

7) 2017년부터 참여했던 사업유형에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유형으로 질문의 성격 변경함. 2020년은 제도 변경에 맞춰 선택문항을 수정하고, '공익활동'인 경우 보다 세분화하여 유형을 질문하도록 변경함.

8) 2017년부터 응답자 범위를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인'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함.

9) 2020년 선택지 문항에서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는 '사회적으로 기여하기 위해'로 변경함.

10) 2020년은 삭제함. 현재 경제활동 및 최장기 종사직업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가능함.

11) 2020년은 1순위 질문으로 변경함.

12) 2020년은 제도 변경에 맞춰 선택문항을 변경함.

아. 여가 및 사회활동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 이후 여유로운 시간이 증가하는 노년기는 의미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노년기 여가 및 사회활동은 노인들의 특성과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그 특성이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에 그동안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년기 여가 및 사회활동 특성의 변화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가 및 사회활동 영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시계열 유지를 통한 경향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표를 구성하였다. 이에 2020년 조사에서도 여가 및 사회활동 영역은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2017년의 문항을 가능한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매우 빠른 정보화 발달 속도로 노인들의 스마트 폰 활용 및 정보기기 활용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베이비부머가 노인인구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특성도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부 문항에서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이에 노인들의 특성 변화, 우리 사회의 시대적 변화, 조사대상자의 응답 부담 정도, 정책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하였다. 첫째, 매우 빠른 속도의 정보화 발달 사회적 변화에 따라 스마트 폰 활용 및 노인들의 정보기기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보기기 활용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자기기 활용 현황(사용 여부, 사용시간 등), 전자기기 활용 능력, 정보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둘째,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진입 등에 따른 노인인구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특히나 노인 여가문화시설의 경우 기존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중심의 인프라에서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포괄할 수 있는 노인 여가문화시설 이용의 다각화를 위한 현황 파악 필요하다. 이에 2014년 조사에서 조사하였던 다양한 시설 이용(경로당, 복지관,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 여가시설, 문화센터와 같은 민간 여가시설)현황 파악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 인프라 욕구를 검토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응답 부담정도를 낮추기 위하여 경로당 이용 불만족 이유 등 2017년 조사 시 응답률이 적어 활용도가 낮은 항목은 삭제하였다. 넷째, 타 조사와의 중복 여부 및 본 조사 내 타 변수와의 분석 연결성 확인을 통해 일부 문항을 수정 및 삭제하였다. 예를 들어 여행에 대한 것은 국민여가실태조사에서 세분화되어 질문하고 있어, 여행경험 횟수의 경우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자료

로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지 일부 항목들을 수정하였다.

여가 및 사회활동 영역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여가문화활동, 여행, 평생학습, 사회참여활동, 자원봉사, 정보화 정도, 희망하는 활동, 여가문화인프라 관련 내용들이 큰 틀에서 유지되었으며, 당시의 사회적 흐름에 따라 일부 문항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2020년 조사에서는 가능한 시계열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다음의 몇 가지 부분은 일부 수정·삭제·추가되었다. 첫째, 전자기기 활용의 다양화와 우리 사회의 급격한 정보화를 고려하여 2017년 대비 관련 문항을 수정 및 추가하였다. 먼저 전자기기의 활용 접근성에 대한 파악을 위해 피쳐폰(인터넷이 안되는 휴대폰), 스마트 폰 및 태블릿 PC, 컴퓨터 등으로 구분하여 보유 여부, 사용 여부, 사용시간을 조사 추가하였다. 또한, 전자기기 활용 정도에 대한 각 항목들을 추가하였으며, 정보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상생활 속 정보이용의 어려움과 일상생활 속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둘째, 여행 현황과 관련하여 2017년 여행경험 여부와 횟수에 대해 질문한 사항을 여행은 타 조사와의 중복성 및 조사 부담, 타 변수와의 연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여행을 모두 포함하여 여행 여부 정도만으로 측정하였다. 셋째,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여, 향후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넷째, 사회참여활동은 시계열 유지를 위하여 기존의 문항을 유지하였다. 평생교육과 자원봉사의 경우 참여횟수를 월간 참여횟수와 회당 참여 시간으로 문항을 구체화하여 참여 강도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문항을 조정하였다. 다섯째, 베이비부머 등 신노년층이 노인으로 유입되면서 노인 여가문화시설 이용의 다각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2017년까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조사되었던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조사내용을 조정하였다. 즉, 기존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중심의 항목을 축소하고, 경로당,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 여가시설, 대학의 평생학습기관 또는 사설 문화센터와 같은 민간 여가시설 등의 현재 이용현황, 이용 빈도, 이용 이유, 향후 이용 의향 등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지표와의 비교를 위해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UN의 활기찬 노화 지수(Active Ageing Index), 헬프에이지 인터네셔널의 글로벌 에이지 위치 지수(Global AgeWatch Index) 등을 고려하여, 국제비교를 위한 문항은 기존 문항을 유지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정치활동 참여 여부와 ICT 활용 등의 문항이 이에 해당한다.

〈표 2-11〉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활동(D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17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여가·문화 활동(취미활동, 여행, 영화 관람, TV 시청 등)					
- 여가·문화 활동 여부(지난 1년간)	△ ¹⁾	△ ²⁾	○	○ ⁶⁾	○ ⁶⁾
- 주로 하는 여가·문화 활동 3순위 (통합질문)		△	○	○ ⁶⁾	○ ⁶⁾
- 주된 여가·문화 활동 빈도	×	○	×	×	×
- 주된 여가·문화 활동을 주로 함께하는 사람	×	○	×	×	×
- 주된 여가·문화 활동 장소	×	○	×	×	×
- 여가문화활동 미참여 이유	×	×	×	×	○
- TV시청 여부(지난 1개월간) 및 평균 시청시간	×	○	×	○ ⁷⁾	○ ⁷⁾
- 향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	○	×	○ ⁶⁾ ○ ⁸⁾	○ ⁸⁾
여행					
- 여행 경험 여부(지난 1년간)	×	○	○	○	○
- 여행 횟수(지난 1년간, 국내/해외)	×	○	○	○	×
- 여행 계획에 있어 중요한 기준	×	○	×	×	×
- 주된 여행 방법(희망)	×	○	×	×	×
평생학습 ¹¹⁾					
- 참여 여부	○	○	○	○ ⁹⁾ (질문 수정)	○ ⁹⁾ (질문 수정)
- 향후 참여 희망 여부	○	○	×	×	×
- 참여 교육 종류	×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향후 희망하는 교육 종류	○	○ (선택지 수정)	×	×	×
- 교육 장소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 향후 희망하는 교육 실시 기관	×	○	×	×	×
- 참여 횟수	×	○	○	○	○ ¹³⁾ (질문수정)
- 향후 참여 희망 횟수	×	○	×	×	×
- 교육 미참여(원하지 않는) 이유	○	○ (선택지 수정)	×	×	×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¹²⁾					
- 참여 여부	○ ³⁾	○	○	○	○
- 참여 빈도	○	○ (선택지 수정)	○	○	○
- 참여 경로(친목단체 제외)	×	○	×	×	×
- 향후 참여 의향	×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항목별 활동(지난 1개월간)					
- 기부	×	×	○	×	×
- 잘 모르는 타인 돕기(금전적 대가 없이)	×	×	○	×	×
- 자원봉사활동	×	×	○	×	×
자원봉사활동					
- 전 생애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	○	○ (선택지 수정)	○	○	○ (선택지 수정)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분야	×	○	○ (선택지 수정)	○	○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종류	×	×	○	○	○ (선택지 수정)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시작 시점	×	○	×	×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빈도	×	○	○	○	○ ¹³⁾ (질문수정)
- 자원봉사활동 하는 주된 이유	×	○	×	×	×
-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	○	×	×	×
- 자원봉사활동 불만족 이유	×	○	×	×	×
- 향후 자원봉사활동 희망 여부	○	○	×	×	×
- 향후 자원봉사활동 희망 분야	○	○ (선택지 수정)	×	×	×
- 향후 자원봉사활동 희망 종류	×	○	×	×	×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	○	×	×	×
- 자원봉사활동에 가장 필요한 지원	○	○ (선택지 수정)	×	×	×
-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연계기관	×	○	○ (선택지 수정)	○	○
컴퓨터·인터넷 이용					
- 이용 경험	○	×	×	○ ¹⁰⁾	×
- 이용 능력 수준	×	○	○	○ ¹⁰⁾	×
- 이용 영역	○	×	×	○ ¹⁰⁾	×
핸드폰 →전자기기(피쳐폰, 스마트 폰, 태블릿 PC, 컴퓨터)					
- 보유 여부	×	○	○	○ ¹⁰⁾	○
- 사용여부	×	×	×	×	○
- 사용시간	×	×	×	×	○
- 기능 및 서비스 활용 능력	×	×	○	○ ¹⁰⁾	○ (질문수정)
일상생활 정보습득의 어려움	×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일상생활 정보화기기 이용의 어려움	×	×	×	×	○
종교					
- 종교의 종류	○	○ ⁴⁾ (선택지 수정)	○	○	○
- 종교활동 참여 빈도(지난 1년간)	×	×	×	○	○ (선택지 수정)
삶에 있어 종교의 중요성	×	○ ⁴⁾	×	×	×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	×	×	×	×	○
향후 여러 활동들에 대한 희망 정도					
- 소득활동	×	×	○	×	×
- 자원봉사활동	×	×	○	○	○
- 학습활동	×	×	○	○	○
- 취미·여가활동	×	×	○	○	○
- 종교활동	×	×	○	○	○
- 정치사회 단체활동	×	×	○	○	○
- 친목단체활동	×	×	○	○	○
경로당/노인복지관 ¹¹⁾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노인교실/ 공공여가문화시설/민간문화시설 ¹⁴⁾					
- 인지 여부	○	×	×	×	×
- 이용 여부	○	○	○	○	○
- 이용 빈도(일주일 기준)	×	○	○	○	○
- 이용 이유	×	○	○	○ (선택지 수정)	○
- 이용 만족도	×	○	○	○	×
- 이용 불만족 이유	×	○	○	○ (선택지 수정)	×
- 이용 만족 이유	×	○	×	×	×
- 이용하지 않는 이유	×	○	×	○	×
- 향후 이용 의향	○	○	○	○	○

주: 1) 현재부터 1년 전까지 가장 즐거웠던 여가 및 사회활동의 우선순위 2가지 질문함.

2) TV시청, 여행, 컴퓨터(인터넷), 배우기(평생교육), 운동하기 제외함.

3) 친목단체,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스포츠레저단체, 시민단체/사회단체, 이익단체 및 정치단체, 봉사단체, 학습단체로 개별 구분하여 질문함.

4) 『노후 생활과 삶의 질(L)』영역에 있음.

5) 『노인복지서비스(2008년: S영역, 2011년: K영역)』에 있음.

6)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여행 제외 / 2순위까지 질문함.

7) TV시청, 라디오청취 포함.

8)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여행 포함. / 2순위까지 질문함.

9)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포함.

10) 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 PC, 인터넷 TV 등 전자기기 활용을 통합하여 각 가능별 사용능력으로 질문함.

11) 연도별 기준 상이함(2008년: 전생애, 2011년: 현재, 2014년, 2017년: 지난 1년).

12) 연도별 기준 상이함(2008년, 2011년: 현재, 2014년, 2017년: 지난 1년).

13) 월참여횟수 6개 보기→월참여횟수 개방형 응답, 회당참여시간 추가

14)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노인교실/ 공공여가문화시설/민간문화시설 추가

자.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기존 의존적, 수동적인 노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상이 새로운 노년기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되면서 노화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 지금의 노인들은 이전세대보다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노인층으로 노인의 삶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영역에서는 노인의 생활 전반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환경을 통합하여 살펴보았으며, 2017년 『J. 생활환경』, 『K. 노후 생활과 삶의 질』, 『L. 정책적 이슈에 대한 노인의 인식』 영역을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하여 구성하였다.

먼저 ‘생활환경’은 신체적 기능 제한, 사회적 관계 약화 등으로 행동반경이 좁아지는 노인은 일상생활에서 거주공간, 근린환경 중심성이 강화되므로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고령자가 생활하기에 적합한 도시와 근린환경 제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제안하였고, WHO의 ‘고령친화도시’와 같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는 그동안 노인의 생활환경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회기마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조사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조사표 내용을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노후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삶의 만족도, 연령기준, 학대, 웰다잉, 자살 등의 영역을 유지하며, 영역 내에서 문항을 일부 조정하였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영역별로 살펴보고, 국제비교를 할 수 있도록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삶 전체의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노인의 연령기준에 대해서는 연령의 기준과 연령규범, 노인이라는 이유로 당한 차별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세대통합에 대한 노인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웰다잉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였으며, 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 죽음준비, 장례방법, 연명치료에 대한 생각 등을 포함하였다. 그 외 삶의 질 차원에서 자살 관련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노인의 삶 전반에 대해서는 삶의 질, 학대, 자살, 연령기준 등의 경우 학술지 등에서 활용되는 척도가 있으나, 본 연구의 조사 부담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황파악 중심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2017년 ‘L. 정책적 이슈에 대한 노인의 인식’은 조사 시점에서 가장 시의성 높은 노인 관련 이슈를 다룸으로써 노인들의 생활과 인식을 파악하는 것으로

2020년은 노인복지 관련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노인돌봄정책별 인지도와 향후 우선적으로 확대될 정책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본 영역은 시계열 유지를 위해 2017년의 조사 문항을 상당수 유지하였으나, 사회 및 정책적 변화 등을 반영하여 문항을 일부 수정·삭제·신설하였다. 먼저 생활환경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항목을 유지하되 주택과 주거환경에서의 불만족 원인을 보다 구체화하여 주택 세부 항목과 주거환경 세부 항목별 만족도 파악하였다. 또한, 2017년 신규로 마련된 기능상태에 따른 시설이용의향에 대한 내용을 대폭 수정하여, 거주 의향만 파악하는 것으로 질문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사회 계속거주와 노인복지주택 이용 욕구에 대한 항목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식사, 가사, 동행, 방문의료, 물품구매, 재산관리 등)에 대한 욕구, 비용 지불 의사, 노인복지주택에서 추가 이용 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 파악으로 구성하였다.

노후생활에 대해서는 국제지표와의 비교를 위해 OECD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UN의 활기찬 노화 지수(Active Ageing Index), 헬프에이지 인터네셔널의 글로벌 에이지워치 지수(Global AgeWatch Index) 등을 고려하여,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노인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국제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노인에 대한 연령규범을 좀 더 세분화하여 노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지 여부를 추가하고, 2017년 전반적인 차별 경험과 차별 경험 장소를 분리하여 질문하였던 것을 수정하여 2020년에는 각 상황별 차별 경험 여부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확대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노인학대 목격 시 대응방법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목격에 대한 대응을 질문하는 것보다는 전연령을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사의 조사 부담과 조사 문항 구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2020년 노후생활 관련 문항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문항은 웰다잉 관련 문항이다.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좋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을 파악하는 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죽음준비 항목을 기존 5개 항목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족과 상속처리 및 장례의향에 대한 논의,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음 등의 문항을 추가하여 세분화하였다. 또한, 선호하는 장례 방식도 구체화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내용들은 2017년 성생활, 지하철무임승차 등의 항목은 삭제하고, 현재 확대되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노인들의 노인복지정책

에 대한 욕구 파악을 위한 향후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것으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표 2-12〉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H영역)에 관한 주요 조사내용 비교(2008~2020년)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주거(주택) 실태					
- 거주유형(자가, 전세, 월세, 무상)	○ ¹⁾	○ ¹⁾	○ (선택지 수정)	○	○
- 무상거주 이유	×	×	×	○	×
- 거주 주택 만족도	×	×	×	○	○
- 거주 주택 불만족 이유	×	×	×	○	○ (선택지 수정)
주거환경 전반					
- 현 거주지 거주기간	○	×	×	×	○
- 주택 종류(조사원 확인사항)	○	○	○	○	○
- 주거 위치(조사원 확인사항)	×	○	○	○	○
- 주거 편리성(조사원 확인사항)	×	○	○	○	○
- 주거생활환경 중 가장 불편한 공간	×	○	○ (선택지 수정)	×	×
- 거주하는 주택에서의 생활하기 편리성 정도	○	×	×	×	×
거주 지역 환경					
- 거주 지역 환경 만족도	×	×	×	○	○ (문항 세분화)
- 거주환경 불만족 이유	×	×	×	○	×
- 거주지역 불편사항	×	×	○	×	×
주요기관(시설)까지의 도보이동 거리					
-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	×	○	○	○
- 병·의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	×	×	○	○ (선택지 수정)	○
- 읍·면·동 사무소	×	×	○	○	○ (선택지 수정)
-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	×	×	○	○	○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	×	○	○	○
- 버스·지하철역	×	×	○	○	○
- 공원	×	×	×	×	○
희망 주거형태					
- 선호 거주방식(건강유지시)	×	×	×	○	○ (선택지 수정)
- 선호 거주방식(거동불편시)	×	×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선택지 수정)
- (시설입소 희망자) 서비스 종류별 이용의향(건강상태 별)	×	×	×	○	○ (질문지 수정)
- (시설입소 희망자) 주요공간 전유·공유(건강상태별)	×	×	×	○	×
- (시설입소 희망자) 지불의향 생활비 수준(건강상태별)	×	×	×	○	X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서비스별 필요도					
- 주거환경개선	×	×	×	×	○
- 일상생활지원	×	×	×	×	○
- 안전지원	×	×	×	×	○
- 방문형 의료서비스	×	×	×	×	○
-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	×	×	×	×	○
- 정보제공 및 상담서비스	×	×	×	×	○
주거시설이용시 유료서비스 이용희망 정도					
- 식사서비스	×	×	×	×	○
- 청소 및 빨래서비스	×	×	×	×	○
- 운동, 문화, 여가서비스	×	×	×	×	○
- 의료서비스	×	×	×	×	○
- 돌봄서비스	×	×	×	×	○
- 병원 동행/외출 지원	×	×	×	×	○
외출					
- 외출 시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	○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⁴⁾	○ (선택지 수정)
운전					
- 현재 운전 여부	○	○	○	○	○
- 과거 운전 경험	○	(통합질문)	(통합질문)	○	○
- 운전을 그만둔 연령	(통합질문)	○	○	○	○
- 운전 시 어려움 정도(현재)	×	○	○	○	○
- 운전 시 장애요소	×	○	×	○	○
비영업용 차량 소유 여부	×	○	○ (선택지 수정)	×	×
- 차량가격	×	○	○	×	×
낙상(지난 1년간)					
- 낙상 경험 유무	○ ²⁾	○ ³⁾	○	○	○
- 낙상 횟수	○ ²⁾	×	(통합질문)	○	○
- 병원치료 유무	×	○ ³⁾	○	○	○
- 낙상 장소	○ ²⁾	○ ³⁾ (선택지 수정)	×	×	×
- 낙상 이유	○ ²⁾	○ ³⁾ (선택지 수정)	○	○	○ (선택지 수정)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 낙상으로 인한 후유증 경험 여부 및 증상	×	○ ³⁾	×	×	×
- 낙상에 대한 두려움 정도	○ ²⁾	○ ³⁾	○	×	×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지난 1년간)	○	○	○	○	○
- 안전사고 경험(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	○	○	○	○
- 범죄피해 경험(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 구매, 보이스피싱)	×	○	○	○	○
교통사고 경험 여부(지난 1년간)	○	○ (선택지 수정)	×	×	○
노인학대 경험 유무/행위자 ⁷⁾					
- 신체적 학대	○	○	○	○	○
- 성적 학대	×	×	×	○	○
- 정서적 학대	○	○	○	○	○
- 경제적 학대	○	○	○	○	○
- 방임	○	○	○	○	○
- 유기	○	○	○	○	○
노인보호전문기관 인지 여부	×	×	○	×	×
노인학대 대응방법	×	○	×	○	×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 (구간 측정)	○	○	○	○
연령규범					
- 노인이 재혼하는 것에 대한 생각	×	×	○	○	×
- 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한 생각	×	×	○	○	×
- 노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생각	×	×	○	○	×
- 노인이 젊어 보이려고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한 생각	×	×	○	○	×
노인차별					
- 차별 경험 여부	×	×	○	○	○ (문항 구성 변경)
- 빈번한 차별 경험 내용	×	×	○	○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영향 정도	×	×	×	×	○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	×	×	×	×	○
죽음에 대한 준비					
- 수의	×	×	○	○	○ (문항 수정)
- 묘지(납골당 포함)	×	×	○	○	○ (문항 수정)
- 상조회 가입	×	×	○	○	○ (문항 수정)
- 유서 작성	×	×	○	○	○
- 죽음준비 교육 수강	×	×	○	○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	×	×	○
- 장기 등 기증서약	×	×	×	×	○
- 가족과 상속처리 장례의향 논의	×	×	×	×	○
장례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 선호하는 장례방식	○	○	○ (통합 질문, 선택지 수정)		○ (선택지 수정)
- 화장 시 유골처리방법	○	×		○	
연명치료에 대한 생각	×	×	○	○	○
선호하는 재산처리방식	○	○	○	○	○
생애 말기 좋은 죽음을 위한 요소	×	×	×	×	○
자살(만 60세 이후)					
- 자살 생각 경험 여부	×	○	○	○	○
-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	×	○	○ (선택지 수정)	○	○
- 자살 사·도 경험 여부 및 횟수	×	○	○	○	×
삶의 만족도					
- 건강상태	○ ¹⁾	○	○	○	○
- 경제상태	○ ²⁾	○	○	○	○
- 배우자와의 관계(유배우자만)	○ ³⁾	○	○	○	○
- 자녀와의 관계(생존 자녀가 있는 경우만)	○ ⁴⁾	○	○	○	○
- 사회·여가·문화활동	○ ⁵⁾	△ ⁵⁾	○	○	○
-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 ⁶⁾	×	○	○	×
- 삶전반	×	×	×	×	○
정부 운영 및 실시기관, 서비스 인지 여부	×	×	×	×	○
-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
- 치매조기검진서비스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					○
- 치매전담요양기관 운영					○
- 치매안심센터					○
- 노인보호전문기관					○
- 성년후견인제도					○
- 주택연금	×	○	×	×	○
- 농지연금	×	○	×	×	○
향후 확대 필요한 노인복지정책 2가지	×	×	×	×	○
주택연금/농지연금					
- 인지 여부	×	○	×	×	○
- 활용 의사 여부	×	○	×	×	×
- 활용 의사가 없는 이유	×	○	×	×	×
부모-자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	○ (선택지 수정)	×	×	×
무임승차 제도					
- 현행제도 동의정도	×	×	×	○	×
- (중립 및 반대 의견) 대상연령 상향조정 동의정도	×	×	×	○	×
- (중립 및 반대 의견) 운임 일부부담 동의정도	×	×	×	○	×
지금 가장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사항	○	○ ⁴⁾	×	×	×
노인복지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것 2가지	○ ³⁾⁶⁾	○ ⁴⁾	×	×	×
- 현재 가장 필요한 서비스 2가지	×	○ ⁴⁾	×	×	×

조사내용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 현재 가장 필요한 노인용품 2가지	×	○ ⁴⁾	×	×	×
새로운 노인복지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복수응답)	○ ³⁾	×	×	×	×
지속적인 간병·돌봄이 필요할 경우 대처방법	○	×	×	×	×
현재 가구형태에 대한 만족도	○	×	×	×	×
현재 가구형태에서 가장 어려운 점	○	×	×	×	×
노후생활 준비 여부(준비 중 포함)	○	×	×	×	×
노후생활비 마련 여부 또는 마련 계획(복수응답)	○	×	×	×	×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영역	○	×	×	×	×
본인 삶에 대한 생각(25가지 척도)	○	×	×	×	×
홀로 된 노인의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	○	×	×	×	×
성생활 ⁹⁾					
- (배우자/이성친구)성생활 질문에 대한 답변 의향	○	×	×	×	×
- (배우자/이성친구)성생활 중요성	○	×	×	×	×
- (배우자/이성친구)성관계 빈도	○	×	×	×	×
- (배우자/이성친구)성관계 만족도	○	○ ⁸⁾	×	×	×
- (배우자/이성친구)성관계 불만족 이유	○	×	×	×	×
- 성생활 상담서비스 필요도	×	○	×	×	×
노년의 성					
- 성생활 중요성	○ ²⁾	×	×	○	×
- 성교육·성상담 참여경험	×	×	×	○	×
- 성교육·성상담 필요도	×	○ ²⁾⁵⁾	×	○	×
부엌·화장실 유형, 세면·목욕시설 온수여부	○	×	×	×	×
화장실·욕실에 미끄럼 방지 장치 여부	○	×	×	×	×
범죄로부터의 거주지역 안전성 정도	○	×	×	×	×

주: 1) 『건강상태(L)』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2) 『자산과 부채(J)』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3) 『배우자와의 관계 및 지원(F)』 영역에 해당문항 있음.

4) 『함께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B)』 영역과 『따로 사는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C)』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만족도 측정함.

5) 2008년: 『여가 및 사회활동(R)』 영역에 해당문항이 있음.

2011년: 『여가 및 사회활동(J)』 영역에서는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함.

6)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이웃과의 관계 및 지원(G)』 영역에서 '친구 및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측정

7) 2008년: 행위자를 '함께 사는 가족', '따로 사는 가족', '가족이외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복수응답형태 질문

2011년, 2014년: '노인과의 관계'로 질문함.

8) 배우자/이성친구에 대한 제한없이 질문함.

9) 2017년도에는 관련문항을 수정하여 『정책적 이슈에 대한 노인의 인식(L)』영역으로 이동하여 질문함.

3.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영역 및 조사내용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내용은 앞서 제시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논의과정을 거쳐 <표 2-13>과 같이 확정되었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는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을 고려하여 2017년 조사에 비해 영역을 통합하였으며, 각 영역별 세부 분류를 제시하여 응답자의 응답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분석내용 결과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조사표의 흐름에 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부 문항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제별로 분석내용을 재구성하여 조사표의 흐름과 달리 제시되기도 하였다. 본 조사는 전국 단위와 시·도 단위 통계 산출을 목표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본문에서는 전국 단위의 결과를 보고하고, 부록에서 시·도 단위 결과를 제시하였다. 부표에서 제시된 표는 본문의 표와 동일한 번호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동일한 항목에 대한 표가 본문에 복수로 제시된 경우, 처음 시작하는 표 번호를 활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렬번호 중 빠진 부표 번호가 있을 수 있다.

<표 2-13>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설문 내용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A. 가구 일반 사항	A1.	(각)가구원 이름	제3장 노인의 일반특성
	A2.	가구주와의 관계	
	A3.	성별	
	A4.	연령	
	A5.	혼인상태	
	A6.	교육수준	
	A6-1.	-교육수준	
	A6-2.	-교육연수(노인만)	
	A7.	취업여부	
	A8.	응답 노인과의 관계	
	A9.	노인 조사 대상자 확인	
	A9-1.	대리응답이유	
	A10.	현재와 2019년 가구원 수 비교	
	A10-1	-2019년 가구원 수	
	A10-2	-가구원 수 변동	
	확인	가구원 수(조사원 확인사항)	
	확인	노인가구원 수(조사원 확인사항)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확인	조사완료노인 수(조사원 확인사항)	
	확인	노인가구 형태(조사원 확인사항)	
	응답	노인의 동거자녀 수(조사원 확인사항)	
	확인	-성별, 혼인상태별	
B.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B1.	평소의 건강상태	제6장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B2.	만성질환(연도별 만성질환종류 변경 및 수정)	
	B2-1.	-의사진단 여부	
	B2-2.	-치료여부	
	B2-3.	의사 진단 만성질환 총 수(조사원 확인사항)	
	B3.	일일 복용의약품(처방약) 유형 및 종류 수(3개월이상)	
	B4.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지난 1개월간)	
	B5.	병원입원(요양병원/그외 병원) 경험 여부 및 횟수(지난 1년간)	
	B6.	우울증상 척도(15개 문항)	
	B7.	흡연: 현재 흡연 여부	
	B8.	음주: 지난 1년간 음주 빈도	
	B8-1.	-1회 음주량	
	B9.	운동: 평소 운동 수행 여부	
	B9-1.	-일주일간 운동 횟수	
	B9-2.	-운동 시, 1회당 운동 시간	
	B10.	신체 측정(몸무게, 키)	
	B11.	영양관리 상태 관련 문항(지난 1개월) (10개 항목)	
	B12.	정부·복지관 제공 경로식당·식사배달서비스 이용(지난 1년간)	
C. 기능상태와 간병돌봄	B13.	건강검진(신체/치매)(지난 2년간)	제7장 노인의 기능상태와 요양보호
	B14.	병의원, 치과 미치료 경험(지난 1년간)	
	B15.	병의원, 치과 미치료 이유(지난 1년간)	
	C1.	시력 1) 보조기 사용 여부 2) 일상생활 불편함(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착용)	
	C2.	청력 1) 보조기 사용 여부 2) 일상생활 불편함(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착용)	
	C3.	잡기 1) 보조기 사용 여부 2) 일상생활 불편함(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착용)	
	C4.	근력상태(앉았다 일어나기 5회 반복수행)	
	C5	항목별 활동 어려움 1)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뛰기	
		2)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걷기	
		3)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4) 몸을 구부리거나, 쭈그러 앉거나, 무릎 꿇기	
		5)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어서 닿기	
		6) 쌀 1말(8kg) 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C6.	일상생활 수행능력(지난 일주일 간) (7개 항목) 1) 옷 입기 2)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3) 목욕 또는 샤워하기(욕조 드나들기, 때밀기, 샤워) 4) 차려 놓은 음식 먹기 5)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6)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7) 대소변 조절하기	
	C7.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지난 일주일 간) (10개 항목) 1) 몸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2) 집안일(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안정리정돈 등) 3) 식사준비(음식 재료 준비, 요리, 상차리기) 4) 빨래(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5)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6) 금전 관리(용돈, 통장관리, 재산 관리) 7) 근거리 외출하기(가까운 거리 걸어서) 8) 물건 구매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9) 전화 걸고 받기 10) 교통수단 이용하기(대중교통, 개인 차)	
	C8.	일상생활 수행 도움 받은 여부	
	C8-1.	-도움 받은 주제 ·동거가족원 ·비동거가족원 ·친척, 이웃·친구·지인 ·개인 간병인 또는 가사 도우미(파출부) ·장기요양보험서비스(요양보호사 등) ·노인돌봄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 등 각종 공공돌봄서비스)	
	C8-2.	가족,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 받은 도움의 빈도, 행위자 1) 청소, 빨래, 시장보기 -도움빈도 -주 도움 행위자 2) 외출동행 -도움빈도 -주 도움 행위자 3) 식사준비(음식준비) -도움빈도 -주 도움 행위자 4)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지원 -도움빈도 -주 도움 행위자	
	C8-3.	개인간병인, 가사도우미의 도움 받은 시간(1주일)	
	C8-4.	가족, 친척,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한 도움의 충분도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C8-5.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	
	C9.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경험 여부	
	C9-1.	-(등급신청시) 가장 최근에 받은 등급	
	C9-1-1.	현재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	
		1) 방문요양	
		2) 방문간호	
		3) 방문목욕	
		4) 주야간보호서비스	
		5) 요양시설	
		6) 단기보호	
		7) 복지용구	
	C9-2.	-(등급미신청시) 신청하지 않은 이유	
	C10.	장애등급 여부	
	C10-1.	장애유형과 등급	
		1) 장애유형	
		2) 장애등급	
D.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D1.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여부 및 시간(지난 1년간)	제10장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D2.	여행 경험 여부(지난 1년간)	
	D3.	여가문화활동 여부(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여행 제외)	
	D3-1.	주로 하는 여가·문화 활동 2순위	
	D3-2.	여가문화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지난 1년간)	
	D4.	향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여행 포함)	
	D5.	학습활동 참여 여부(지난 1년간)	
	D5-1.	-참여 교육 종류	
	D5-2.	-교육 장소	
	D5-3.	-참여 빈도(월간, 회당)	
	D6.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참여 여부	
	D6-1.	-참여 빈도	
	D7.	자원봉사활동 경험여부(지난 1년간)	
	D7-1.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분야	
	D7-2.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종류	
	D7-3.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빈도	
	D7-4.	-현재 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연계기관	
	D8.	종교	
	D8-1.	종교활동 참여 빈도	
	D9.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D10.	향후 여러 활동들에 대한 희망 정도	
		1) 자원봉사활동	
		2) 학습활동	
		3) 취미·여가활동	
		4) 종교활동	
		5) 정치사회단체활동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D11.	6) 친목단체활동 여가문화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노인교실, 공공여가문화시설, 민간문화시설) 이용 현황	
	D11-1.	-이용 여부(지난 1년간)	
	D11-2.	-이용 빈도(주당)	
	D11-3.	-이용 이유	
	D11-4.	-향후 이용 의향	
	D12.	전자기기 보유여부, 사용여부, 사용시간	
	D13.	전자기기 이용 가능 여부	
		1) 문자 받기	
		2) 문자 보내기	
		3) 뉴스, 날씨 등 정보검색 및 조회	
		4) 사진, 동영상 촬영	
		5) 음악(MP3 등) 듣기	
		6) 게임	
		7) 동영상(영화, TV프로그램 등 보기)	
		8)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9) 전자상거래 쇼핑	
		10) 금융거래	
		11)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	
		12) 기타	
	D14.	생활 속 정보이용의 어려움	
	D15.	생활 속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E. 경제 활동	E1.	현재 경제활동 상태	제9장 노인의 경제활동
	E1-1.	-직업 종류(통계청 중분류)	
	E1-2.	-일의 내용	
	E1-3.	-종사상 지위	
	E1-3-1.	-정부지원일자리 여부	
	E1-4.	-근무하는 기관 유형	
	E1-5.	-평균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	
	E1-6.	-월평균 소득	
	E1-7.	-종사 기간	
	E1-8.	-경제활동 이유	
	E1-9.	-직업에 대한 만족도	
	E1-9-1.	-직업에 만족하지 않은 이유	
	E1-10.	-현 직업의 최장기 종사 직업 여부	
	E2.	최장기 일자리 직업종류(통계청 중분류)	
	E2-1.	-종사상 지위	
	E2-2.	-종사 기간(년/개월)	
	E2-3.	-그만둔 이유	
	E2-4.	-최장기 일자리 퇴직 후 다른 근로활동 참여여부	
	E3.	향후 근로 희망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E3-1.	-근로 희망 이유	
	E3-2.	-희망근로시간	
	E3-3.	-희망근로소득	
	E3-4.	-구직노력(1/2순위)	
	E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경험 여부	
	E4-1.	-참여 유형	
	E4-1-1.	-공익활동 참여 유형	
	E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향후 참여 의향	
	E5-1.	-향후 참여 희망 유형	
F. 가족 및 사회관계	F1.	비동거자녀 여부	제4장 노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관계
	F1-1.	비동거자녀(성별, 혼인상태별) 수	
	F2.	(지난 1년간) 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전체와의 왕래빈도	
	F2-1.	-(지난 1년간)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전체와의 연락빈도	
	F3.	비동거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중 가장 많이 접촉한 자녀	
	F3-1.	-해당자녀 거주지까지의 이동시간	
	F3-2.	-(지난 1년간) 해당자녀와의 왕래빈도	
	F3-3.	-(지난 1년간) 해당자녀와의 접촉빈도	
	F4.	지난 1년간 자녀와의 갈등 경험 여부	
	F4-1.	-갈등의 가장 심각한 원인	
	F5.	비동거손자녀 존재 여부 및 수	
	F5-1.	-(지난 1년간) 손자녀 전체와의 왕래빈도	
	F5-2.	-(지난 1년간) 손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F6.	배우자의 건강상태	
	F7.	(지난 1년간)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F7-1.	-배우자와의 갈등 원인	
	F8.	노인 단독가구 형성 이유	제3장 노인의 일반특성
	F9.	노인 단독가구의 생활상 가장 힘든 점	
	F10.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기혼자녀 동거가구)	
	F11.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미혼자녀 동거가구)	
	F12.	자녀와의 일상생활 분담 방식(자녀 동거가구)	
	F13.	형제·자매 생존여부 및 형제·자매수	
	F14.	(지난 1년간) 비동거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왕래빈도	
	F14-1.	-(지난 1년간) 비동거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의 연락빈도	제4장 노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관계
	F15.	(지난 1년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빈도	
	F15-1.	-(지난 1년간) 친구·이웃·지인과의 빈도	
	F16.	1) 가깝게 지내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수 2) 가깝게 지내는 친구·이웃·지인의 수	
	F17.	자녀 중 적어도 한명은 부모와 동거에 대한 생각	제5장 노인의 부양교환 실태
	F17-1.	-자녀 중 부모와 동거해야 하는 자녀에 대한 생각	
	F18.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G. 가족간 도움의 교환	G1.	동거자녀	
	G2.	비동거자녀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H.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G3.	본인(배우자)부모	제5장 노인의 부양의 교환 실태
	G4.	배우자	
	확인	존재여부	
		1) 고민 상담(정서적 도움) 상호도움 여부	
		2) 청소·식사준비·세탁(도구적 도움) 상호도움 여부	
		3) 간병·돌봄·병원동행 상호도움 여부	
		4) 경제적 도움	
		①(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②(비정기적 현금 지원) 상호도움 여부	
		③(현물지원) 상호도움 여부	
	G5.	비용지불부담 인식	제11장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1) 생활비	
		2) 의료비	
		3) 간병비	
	G6.	(지난 1년간) 직접 돌본 10세 미만의 손자녀 유무 및 명수	
	H1.	주거소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무상 등)	
	H2.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	
	H2-1.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불만족 이유	
	H3.	주요기관(시설)까지의 도보이동 거리	
		1)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2)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3)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4)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	
		5)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6) 버스·지하철역	
	H4.	7) 산책, 운동할 수 있는 공원	
		거주지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1)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의 거리	
		2) 대중교통 빈도/노선	
		3) 녹지공간, 공간 충분성 또는 거리	
		4) 치안, 교통안전	
		5) 자녀 또는 친지의 거주지와 거리	
	H5.	6) 이웃과의 교류 기회	
		7) 지역사회 환경 전반	
	H5.	건강유지시 선호하는 거주형태	
	H6.	거동불편시 선호하는 거주형태	
	H7.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서비스	
		1)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2) 일상생활 지원(가사, 간병, 목욕, 요양, 식사 지원 등)	
		3) 안전 지원(정기적 안부 확인,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연계 지원 등)	
		4)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건강서비스	
		5)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6) 상담 서비스(각종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7) 기타()	
	H8.	노인주거시설이용시 유료서비스 이용 의향 1) 식사 서비스 2) 청소 및 빨래 서비스 3) 운동·문화·여가 서비스 4) 의료 서비스 5) 돌봄 서비스 6)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교통 편의 제공)	
	H9.	외출 시 이용하는 주된 교통수단	
	H10.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H11.	현재 운전	
	H11-1.	-운전시 어려움 정도	
	H11-2.	-운전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H11-3.	-운전을 그만둔 연령	
	H12.	낙상(지난 1년간)경험 유무 및 횟수	
	H12-1.	-병원치료 유무	
	H12-2.	-낙상 이유	
	H13.	1년간 범죄 또는 사고 경험 1) 재산범죄 2) 폭력 및 강력범죄 3) 노인 대상 사기성 물건 구매 경험 4) 사기전화(보이스 피싱) 피해 경험 5)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 6) 안전사고(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경험	
	H14.	노인학대 경험 유무 및 행위자 1) 신체적 학대 2) 성적 학대 3) 정서적 학대 4) 경제적 학대 5) 방임(신체적) 6) 방임(경제적)	
	H15.	노인연령기준	
	H16.	삶의 만족도 1) 건강상태 2) 경제상태 3) 배우자와의 관계(유배우자만) 4) 자녀와의 관계(생존 자녀가 있는 경우만) 5) 사회·여가·문화활동 6) 친구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H17.	정책 영향력	
	H18.	사회적으로 존중받는지에 대한 생각	
	H19.	무시(차별)경험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1) 대중교통 이용 시	
		2) 식당, 커피숍 이용 시	
		3)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판매 시설 이용 시	
		4) 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기관 이용 시	
		5) 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 시	
		6) 일터(직장)	
		7) 가족 내 주요 의사 결정시	
		8) 기타 (구체적으로)	
	H20.	선호하는 재산처리방식	
	H21.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	
	H22.	선호하는 장례방식	
	H23.	죽음에 대한 준비	
		1) 죽음 준비교육 수강	
		2) 가족과 상속처리·장례의향 논의	
		3) 장례 상담 및 상조회 가입	
		4) 유서 작성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6) 장기 등 기증 서약	
		7) 장지(자연장지, 봉안당, 묘지 등)	
	H24.	8) 수의 또는 영정사진	
		좋은 죽음에 대한 생각	
		1) 임종전후 스스로 준비	
		2)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는 임종	
		3) 임종시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하는 것	
	H25.	4)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자살(만 60세 이후) 생각 경험 여부	
	H25-1.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된 이유	
	H26.	정부운영 기관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인지	
		1)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2) 치매조기검진서비스	
		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	
		4) 치매전담요양기관 운영	
		5) 치매안심센터	
		6)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 및 대응기관)	
		7) 성년후견인제도	
		8) 주택연금	
		9) 농지연금	
	H27.	노인복지정책 중 향후 우선적으로 확대될 정책(2순위)	
I. 인지기능	I1.	기억력 및 집중력 체크 문항	제7장 노인의 기능상태와 요양보호
		1) 연도	
		2) 계절	
		3) '일'	
		4) 요일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5) '월' 6) 도/특별시/광역시 7) 시/군/구 8) 동/읍/면 9) 건물 층수 10) 장소 이름 11) 3가지 물건 이름 기억(나무, 자동차, 모자) 12) 뺄셈(100에서 순차적으로 7 빼기) 13) 3가지 물건 이름 재질문(나무, 자동차, 모자) 14) 사물 이름 맞히기 15) 듣고 따라하기(간장공장공장장) 16) 지시에 따라 행동하기 (오른손으로 종이를 받아 반으로 접고 무릎 위에 놓기) 17) 겹쳐진 오각형 그리기 18) 이유 말하기(웃은 왜 빨아서 입습니까?) 19) 속담 뜻 말하기(티끌 모아 태산)	
J. 경제상태	J1. J2. J3-1. J3-2. J3-3. J4.	주요 항목별 지출액 1)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보건의료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2)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간병돌봄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3)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문화여가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4) (작년 한 해) 노인 본인을 위한 경조사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경제적 지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본인/그외가구원/가구 소득 1) (작년 한 해)근로소득 유무 및 금액 2) (작년 한 해)사업소득 유무 및 금액 3) (작년 한 해)재산소득 유무 및 금액 4) (작년 한 해)개인연금 유무 및 금액 5) (작년 한 해)퇴직연금 유무 및 금액 6) (작년 한 해)주택연금/농지연금 유무 및 금액 7) (작년 한 해)사적이전소득 유무 및 금액 8) (작년 한 해)공적연금 유무 및 금액 9) (작년 한 해)기초연금 유무 및 금액 10) (작년 한 해)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유무 및 금액 11) (작년 한 해)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급여 유무 및 금액 12) (작년 한 해)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급여 유무 및 금액 13) (작년 한 해)기타 공적급여 유무 및 금액 14) (작년 한 해)기타 소득 유무 및 금액 15) (작년 한 해)총 수입액 작년 한 해 월평균 소비지출액(전체)	제8장 노인의 경제상태

영역	질문항목	조사내용	보고서 장 구성
	J4-1.	- 월평균 주거비 지출액	
	J5.	지출되는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J6.	1) 부동산자산 유무 및 금액	
		2) 금융자산 유무 및 금액	
		3) 기타자산 유무 및 금액	
		4) 부채 유무 및 금액	
조사원 사항	확인	1. 주택의 종류	제11장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2. 주거위치(지하, 반지하, 지상, 옥탑)	
		3. 사용하고 있는 방의 개수	
		4. 주택의 편리성	
		5. 배우자 조사 실시 여부	-
		6. 응답방식	



제3장

노인의 일반 특성

제1절 일반 특성

제2절 가구 형태

제3장 노인의 일반 특성

본 장에서는 영역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본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 노인의 일반 특성을 검토하였다. 제1절에서는 먼저 응답자의 응답유형과 기본특성을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기본특성은 지역, 성, 연령의 인구학적 특성과 교육수준, 가구형태, 취업상태, 가구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 그리고 신체적 기능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각 변수별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역은 본 조사의 표본설계에서 적용된 동부와 읍·면부로 구분하였으며, 동부는 주소상 '동' 지역, 읍·면부는 읍 또는 면지역을 말한다. 성별은 남자노인과 여자노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연령은 65세 이상부터 5세 단위로 분류하였다. 다만, 85세 이상의 경우 표본 수가 타 연령층에 비해 적어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유배우(기혼)만 배우자 있음으로 간주하였으며, 그 외 미혼, 사별(기혼), 이혼(기혼), 별거(기혼), 기타는 배우자 없음으로 하였다. 가구형태는 노인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노인독거, 노인과 배우자(부부 중 1인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로만 구성된 가구는 노인부부가구, 노인과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는 자녀동거가구, 그 외 조손가구, 노인과 노인의 부모동거가구, 노인과 친인척 또는 비혈연이 동거하는 가구 등은 기타가구로 정의하였다.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중퇴나 퇴학의 경우에는 이전 학력으로 작성하였다. 취업여부는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경우를 취업으로 간주하며, 무급 가족종사자도 1주일 동안 18시간 이상 돈을 받지 않고 일한 경우는 취업으로 간주하였다.

연가구 소득은 2019년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가구소득 오분위 기준은 본 조사에서 조사된 노인 가구의 소득을 오분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조사 응답 가구의 오분위 소득수준은 제1오분위 945.96만원 미만, 제2오분위 945.96만원 이상 1,582.20만원 이하, 제3오분위 1,582.20만원 초과 2,660만원 미만, 제4오분위 2,660만원 이상 4,324.58만원 이하, 제5오분위 4,324.58만원 초과이다. 오분위 조정과정에서 이하, 초과, 미만이 혼재되어 사용되었다. 소득의 또 다른 기준은 중위소득에

대한 것으로 상대적 빈곤율 산출 방법인 기준 중위소득위 50% 미만과 그 이상을 50%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분류하여 구간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 제한 여부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중 1개라도 부분도움 이상의 기능제한이 있는 경우 기능제한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제2절에서는 응답자의 가구형태를 노인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제1절 일반 특성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응답자 수는 총 10,097명으로 이들의 1.7%인 167명이 대리 응답이다. 대리 응답의 이유는 정신 심리 상태의 불안정(치매 등)이 30.5%(51명)로 가장 많았으며, 노쇠와 와병상태가 23.4%와 23.3%로 높게 나타났다. 대리응답자의 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가 26.3%로 가장 많았으며, 장남 17.4%, 장녀 16.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 노인의 응답유형 및 대리응답

응답유형	비율	(명)	대리응답 이유	비율	(명)	대리응답자의 노인과의 관계	비율	(명)
본인응답	98.3	(9,930)	와병상태	23.3	(39)	배우자	26.3	(44)
대리응답	1.7	(167)	정신 심리 상태의 불안정	30.5	(51)	장남	17.4	(29)
			청각장애	18.5	(31)	장남의 배우자	10.8	(18)
			언어장애	4.3	(7)	차남 이상 및 차남 이상의 배우자	12.0	(20)
			노쇠	23.4	(39)	장녀	16.8	(28)
			기타	0.0	(0)	차녀 이상 및 차녀 이상의 배우자	6.0	(10)
						손자녀	6.0	(10)
계	100.0	(10,097)	계	100.0	(167)	기타 ¹⁾	4.8	(8)
계	100.0	(10,097)	계	100.0	(167)	계	100.0	(167)

주: 1) 기타에는 형제 및 기타혈연, 비혈연 동거인, 친구 및 이웃, 사회복지관련 종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대상자인 10,097명의 특성은 〈표 3-2〉와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75.8%이며, 읍·면부 노인은 24.2%로 2017년(동부 노인 68.6%와 읍·면부 노인 31.4%) 조사결과에 비해 동부지역 거주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7개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0.7%와 서울이 18.0%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경기도와 강원을 제외한 도지역

의 비율이 2017년에 비해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노인이 43.0%, 여자노인이 57.0%로 여자노인의 비율이 높았으며, 2017년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연령구성에서는 65~69세가 33.1%로 가장 많았으며, 70~74세 23.2%, 75~79세 22.7%, 80~84세 14.6%, 85세 이상 6.4%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73.8세로 나타났다. 2017년에 비해 85세 이상 인구의 비율(8.5%)이 2.1%포인트 낮은 특성을 보이며, 평균연령도 74.1세에서 73.8세로 낮아졌다.

노인의 가족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이 67.1%로 2017년 63.4%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독거가구가 19.8%, 노인부부가구 58.4%, 자녀동거가구 20.1%, 기타가구 1.7%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는 2017년과의 비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으로 2017년 노인독거가구와 자녀동거가구의 비율보다 각각 3.8%포인트, 3.6%포인트 낮아진 반면, 노인부부가구는 10%포인트 높아져 노인가구형태의 특성이 부부가구 중심으로 변화되는 사회적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원 수 역시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2020년 평균 가구원 수는 2.0명으로 2017년 2.1명보다 적어졌으며, 가구원 수가 2명 이하인 비율이 2017년 79.4%에서 2020년 85.8%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와의 관계에서도 가구주 본인과 가구주의 배우자 비율이 94.4%로 2017년 89.1%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는 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독거가구 또는 노인부부가구의 형태가 공고화되고 있으며, 또한 자녀와 동거하더라도 노인이 가구주인 비율이 높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에서는 초등학교 졸업이 3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28.4%, 중학교 졸업 23.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노인의 일반적 사항 중 2017년 대비 많은 차이를 보이는 영역 중 하나로 무학의 비율이 2017년에 비해 13.7%포인트 감소한 반면,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졸업이 6.4%포인트, 11.1%포인트 증가하여 노인들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은 35.3%로 2017년 30.3%에 비해 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경제상태는 가구소득에 기초하여 오분위 수준과 중위소득 대비 비율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가구소득의 오분위별 기준은 제1오분위 945.96만원 미만, 제2오분위 945.96만원 이상~1,582.20만원 이하, 제3오분위 1,582.20만원 초과~2,660

만원 미만, 제4오분위 2,660만원 이상~ 4,324.58만원 이하, 제5오분위 4,324.58만원 초과였다.

그 외 노인 가구의 경제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살펴보았으며, 중위소득 50% 미만이 39.6%로 가장 많았으며, 50% 이상~100% 미만이 33.5%, 100% 이상~150% 미만 16.3%, 150% 이상이 10.6%로 저소득 집단이 높게 나타난 특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인 중 기능상태의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은 12.2%로 나타났다.

〈표 3-2〉 노인의 일반특성(2017년도와 비교표)

(단위: %, 명)

특성	2020년		2017년	
	비율	명	비율	명
전체 ¹⁾	100.0	(10,097)	100.0	(10,299)
지역				
동부	75.8	(7,651)	68.6	(7,067)
읍·면부	24.2	(2,446)	31.4	(3,232)
시·도				
서울	18.0	(1,820)	18.3	(1,886)
부산	7.8	(784)	7.6	(786)
대구	4.8	(486)	4.8	(490)
인천	4.8	(487)	4.7	(485)
광주	2.5	(255)	2.5	(260)
대전	2.5	(256)	2.5	(257)
울산	1.7	(168)	1.6	(163)
세종	0.4	(39)	0.4	(37)
경기	20.7	(2,090)	20.1	(2,068)
강원	3.8	(380)	3.8	(391)
충북	3.4	(346)	3.5	(356)
충남	4.8	(487)	5.0	(511)
전북	4.6	(468)	4.8	(494)
전남	5.1	(520)	5.5	(561)
경북	6.9	(694)	7.0	(720)
경남	6.9	(692)	7.0	(705)
제주	1.2	(126)	1.3	(130)
성				
남자	43.0	(4,346)	42.5	(4,375)
여자	57.0	(5,751)	57.5	(5,924)
연령				
65~69세	33.1	(3,344)	32.4	(3,332)
70~74세	23.2	(2,342)	24.9	(2,560)
75~79세	22.7	(2,292)	21.1	(2,176)

특성	2020년		2017년	
	비율	명	비율	명
80~84세	14.6	(1,475)	13.2	(1,356)
85세 이상	6.4	(644)	8.5	(875)
(평균)	73.8	(10,097)	74.1	(10,29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7.1	(6,779)	63.4	(6,525)
배우자 없음	32.9	(3,318)	36.6	(3,774)
가구형태				
노인독거	19.8	(1,998)	23.6	(2,426)
노인부부	58.4	(5,898)	48.4	(4,980)
자녀동거	20.1	(2,026)	23.7	(2,444)
기타	1.7	(174)	4.4	(449)
가구원수				
1명	19.8	(1,998)	23.6	(2,426)
2명	66.0	(6,664)	55.8	(5,749)
3명	9.2	(930)	12.1	(1,247)
4명	3.0	(306)	4.6	(471)
5명	1.6	(159)	2.5	(258)
6명 이상	0.4	(39)	1.4	(147)
(평균)	2.0	(10,097)	2.1	(10,299)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65.8	(6,641)	63.1	(6,497)
가구주의 배우자	28.6	(2,888)	26.0	(2,675)
가구주의 자녀	0.1	(9)	0.1	(5)
가구주 부모	5.5	(555)	10.6	(1,091)
가구주의 조부모	0.0	(1)	0.1	(14)
가구주의 형제자매	0.0	(3)	0.1	(9)
기타	-	-	0.1	(8)
교육수준				
무학	10.6	(1,073)	24.3	(2,493)
초등학교	31.7	(3,198)	34.1	(3,514)
중학교	23.3	(2,356)	16.9	(1,735)
고등학교	28.4	(2,870)	17.3	(1,780)
전문대학 이상	5.9	(599)	7.5	(775)
현 취업상태				
취업중	35.3	(3,564)	30.3	(3,120)
미취업	64.7	(6,533)	69.7	(7,179)
연가구소득 ²⁾				
제1오분위	20.0	(2,019)	20.0	(2,066)
제2오분위	20.0	(2,020)	20.0	(2,052)
제3오분위	20.0	(2,017)	20.0	(2,061)
제4오분위	20.0	(2,024)	20.0	(2,060)
제5오분위	20.0	(2,017)	20.0	(2,060)
중위소득 대비				

특성	2020년		2017년	
	비율	명	비율	명
50%미만	39.6	(3,999)	-	-
50%이상~100%미만	33.5	(3,382)	-	-
100%이상~150%미만	16.3	(1,647)	-	-
150%이상	10.6	(1,068)	-	-
기능상태				
제한 없음	87.8	(8,864)	74.7	(7,690)
제한 있음	12.2	(1,233)	25.3	(2,609)

주: 1) 2020년도는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09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7년도는 대리응답자를 포함한 10,299명을 대상으로 함.

2) 가구소득 오분위 기준금액은 제1오분위 945.96만원 미만, 제2오분위 945.96만원 이상~1,582.20만원 이하, 제3오분위 1,582.20만원 초과~2,660만원 미만, 제4오분위 2,660만원 이상~4,324.58만원 이하, 제5오분위 4,324.58만원 초과임. 오분위 기준인 20%를 맞추기 위해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혼재되어 사용됨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지역, 성, 가구형태, 교육수준, 연령, 배우자 유무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3>~<표 3-5>와 같다.

먼저 <표 3-3>과 같이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동부의 여자노인 비율이 57.3%로 읍·면부 55.9%에 비해 약간 높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동부는 65~69세 34.4%, 70~74세 23.4%, 75~79세 22.4%, 80~84세 13.7%, 85세 이상 6.1%이며, 읍·면부는 65~69세 29.0%, 70~74세 22.6%, 75~79세 23.5%, 80~84세 17.5%, 85세 이상 7.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연령구성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65~69세의 비율이 동부는 34.4%로 읍·면부 29.0%에 비해 5.4%포인트 높은 반면, 80~84세와 85세 이상은 각각 3.8%포인트, 1.2%포인트 낮은 특성을 보인다. 즉, 읍·면부는 동부에 비해 고연령 노인들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노인의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배우자 유무는 동부와 읍·면부의 유배우 비율이 67.1%와 67.3%로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가구형태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은 동부 57.3%, 읍·면부 61.9% 두 지역 모두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읍·면부에서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독거가구는 읍·면부가 23.7%로 동부 18.5%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동부 22.3%, 읍·면부 13.0%로 동부에서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이 더 높은 특성을 보인다.

지역별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동부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이 30.9%로 가장 높은 반면, 읍·면부는 초등학교 졸업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도 동부 7.0%, 읍·면부 2.6%로 고학력 노인의 비율은 동부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무학은 읍·면부 15.7%, 동부 9.0%로 읍·면부가 동부에 비해 6.7%포인트 높은 특성을 보인다. 즉, 동부의 노인들이 읍·면부의 노인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의 32.0%가 취업중인 반면, 읍·면부 노인은 45.5%가 일을 하고 있어 두 집단 간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읍·면부의 경우 농업종사자와 같이 정년기준이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음에 따른 결과로 보이며, 추가적 분석은 9장의 경제활동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가구소득 오분위 분포에 따라서는 동부는 제4오분위와 제5오분위의 비율이 20.9%와 22.9%로 높은 반면, 읍·면부는 제1오분위가 25.9%로 가장 높으며, 제3오분위 23.5%, 제2오분위 22.3% 등으로 지역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에 따라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율이 동부는 36.7%, 읍·면부는 48.7%로 읍·면부가 동부에 비해 12.0%포인트 높은 특성을 보이는 반면, 중위소득 150% 이상의 경우 동부는 12.2%, 읍·면부는 5.4%로 2배 이상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 제한자의 경우 동부 12.1%, 읍·면부 12.6%로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지역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남자노인은 65~69세 31.9%, 70~74세 25.7%, 75~79세 23.6%, 80~84세 14.4%, 85세 이상 4.5%이고, 여자노인은 65~69세 34.1%, 70~74세 21.3%, 75~79세 22.0%, 80~84세 14.8%, 85세 이상 7.8%로 여자노인의 경우 85세 이상의 비율이 남자노인에 비해 3.3%포인트 높은 특성을 보인다.

노인의 성별에 따른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가구특성이다. 남자노인의 86.5%가 유배우인 반면, 여자노인은 52.5%가 유배우로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가구형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남자노인은 74.7%가 부부가구인 반면, 여자노인은 46.1%가 부부가구이다. 또한, 남자노인은 노인독거가구가 9.7%, 자녀동거가구가 14.1%인 것에 비해, 여자노인은 노인독거가구가 27.4%, 자녀동거가구가 24.5%로 여자노인의 노인독거가구 비율이 남자노인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남자노인은 배우자와의 동거가 대다수인

반면, 여자노인은 다양한 가구형태를 보임과 동시에 독거가구로서 생활하는 비율도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른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노인은 고등학교 졸업이 37.2%, 전문대학 이상이 10.6%로 고학력자가 전체 남성노인의 47.8%를 차지하며, 여자노인은 고등학교 졸업이 21.8%, 전문대학 이상이 2.5%로 남성노인의 절반정도인 반면, 여자노인은 무학이 15.3%, 초등학교 졸업이 38.1%로 저학력자의 비율이 53.4%를 차지하는 등 성별에 따른 학력차이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 상태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노인의 45.4%, 여자노인의 27.7%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노인의 근로 비율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른 경제상태에서는 연가구소득과 중위소득 모두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자노인은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에 각각 23.6%, 20.7%가 해당하는 반면, 남자노인은 제4오분위 22.4%, 제3오분위 22.2%가 해당하는 등 여자노인의 가구소득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중위소득에서도 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율은 여자노인이 42.2%, 남자노인이 36.1%로 여자노인이 높은 반면, 150%이상은 남자노인이 11.9%, 여자노인이 9.6%로 남자노인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여자노인의 가구소득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능상태 제한에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약하게 나타나는데 남자노인은 11.6%가 제한이 있는 반면, 여자노인은 12.6%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노인의 지역·성별 일반특성 분포

(단위: %, 명)

특성	지역		성		전체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지역 ¹⁾					
동부	-	-	75.2	76.2	75.8
읍·면부	-	-	24.8	23.8	24.2
성					
남자	42.7	44.1	-	-	43.0
여자	57.3	55.9	-	-	57.0
연령					
65~69세	34.4	29.0	31.9	34.1	33.1
70~74세	23.4	22.6	25.7	21.3	23.2
75~79세	22.4	23.5	23.6	22.0	22.7
80~84세	13.7	17.5	14.4	14.8	14.6
85세 이상	6.1	7.3	4.5	7.8	6.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7.1	67.3	86.5	52.5	67.1
배우자 없음	32.9	32.7	13.5	47.5	32.9
가구형태					
노인독거	18.5	23.7	9.7	27.4	19.8
노인부부	57.3	61.9	74.7	46.1	58.4
자녀동거	22.3	13.0	14.1	24.5	20.1
기타	1.8	1.5	1.5	1.9	1.7
교육수준					
무학	9.0	15.7	4.4	15.3	10.6
초등학교	29.5	38.4	23.2	38.1	31.7
중학교	23.6	22.6	24.6	22.4	23.3
고등학교	30.9	20.7	37.2	21.8	28.4
전문대학 이상	7.0	2.6	10.6	2.5	5.9
현 취업상태					
취업중	32.0	45.5	45.4	27.7	35.3
미취업	68.0	54.5	54.6	72.3	64.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1	25.9	15.2	23.6	20.0
제2오분위	19.3	22.3	19.1	20.7	20.0
제3오분위	18.8	23.5	22.2	18.3	20.0
제4오분위	20.9	17.4	22.4	18.3	20.0
제5오분위	22.9	10.8	21.1	19.1	20.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6.7	48.7	36.1	42.2	39.6
50%이상~100%미만	33.5	33.6	35.1	32.3	33.5
100%이상~150%미만	17.6	12.3	16.8	15.9	16.3
150%이상	12.2	5.4	11.9	9.6	10.6
기능상태					
제한 없음	87.9	87.4	88.4	87.4	87.8
제한 있음	12.1	12.6	11.6	12.6	1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651)	(2,446)	(4,346)	(5,751)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다음으로 <표 3-4>와 같이 연령과 배우자 유무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령에 따른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고연령집단일 수록 읍·면부 거주비율이 높으며, 저연령일수록 동부 거주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80~84세의 읍·면부 거주율이 29.1%로 타 연령층에 비해 높으며, 65~69세의 동부 거주비율은 78.8%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 성 분포는 85세 이상에서 여자노인의 비율이 6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연령에 따른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의 유배우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는 가구형태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또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노인독거가구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자녀동거가구 역시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특히 85세 이상에서는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이 39.8%로 타 연령대에 비하여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노인의 연령별 학력 및 취업,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의 무학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특히나 65~69세의 경우 무학의 비율은 1.2%로 매우 낮은 반면, 85세 이상은 41.9%로 그 차이가 매우 높다. 이러한 경향은 취업상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65~69세는 53.3%가 현재 취업중인 반면 85세 이상은 9.2%만이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에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분위의 소득수준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특히나 제1오분위의 경우 65~69세는 11.0%인 반면, 85세 이상은 35.5%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그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85세 이상에서 제5오분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자녀동거의 비율이 높음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을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65~69세는 4.3%만이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반면, 85세 이상은 41.9%가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배우자 유무별 일반특성을 비교해보면, 지역별 특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노인은 남자노인의 비율이 55.5%로 높게 나타났으며, 65~74세인 전기노인의 비율이 64.3%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무배우 노인은 여자노인의 비율이 82.4%로 높은 분포를 보이며,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비율(75~79세 23.7%,

80~84세 22.5%, 85세 이상 13.8%)이 60.0%로 나타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배우 노인의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가 87.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무배우 노인은 노인독거가가 60.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유배우 노인의 자녀동거가구 비율은 11.7%인 것에 비해 무배우 노인의 자녀동거가구 비율은 37.2%로 무배우 노인의 자녀동거가구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은 초졸이하의 저학력 비율이 32.7%이고, 무배우 노인은 62.0%로 무배우 노인의 저학력자 비율이 유배우 노인에 비해 2배가량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배우 노인은 고학력자의 비율(고등학교 이상)이 41.8%로 높은 반면 무배우 노인은 고학력자의 비율이 19.2%로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취업 상태 역시 배우자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유배우 노인은 39.6%가 취업중인 반면, 무배우 노인은 26.6%가 취업중으로 유배우 노인의 취업률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경제상태에서는 유배우 노인은 제3오분위~제5오분위의 비율이 높은 반면, 무배우 노인은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중위소득에서는 배우자 유무에 관계 없이 50% 미만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무배우 노인은 43.7%로 유배우 노인 37.6%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인다. 기능상태에서는 무배우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 비율이 17.8%로 유배우 노인 9.5%보다 높은 특성을 보인다.

〈표 3-4〉 노인의 연령·배우자 유무별 일반특성 분포

(단위: %, 명)

특성	연령					배우자 유무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지역							
동부	78.8	76.3	74.9	70.9	72.4	75.7	75.9
읍·면부	21.2	23.7	25.1	29.1	27.6	24.3	24.1
성							
남자	41.4	47.6	44.7	42.3	30.6	55.5	17.6
여자	58.6	52.4	55.3	57.7	69.4	44.5	82.4
연령							
65~69세	-	-	-	-	-	38.8	21.5
70~74세	-	-	-	-	-	25.5	18.4
75~79세	-	-	-	-	-	22.2	23.7
80~84세	-	-	-	-	-	10.7	22.5
85세 이상	-	-	-	-	-	2.7	13.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8.7	73.9	65.7	49.3	28.7	-	-
배우자 없음	21.3	26.1	34.3	50.7	71.3	-	-
가구형태							
노인독거	13.6	17.0	21.5	29.8	33.2	0.0	60.2
노인부부	65.6	66.6	58.2	44.1	25.0	87.0	0.0
자녀동거	18.7	15.1	18.5	24.7	39.8	11.7	37.2
기타	2.1	1.3	1.8	1.4	2.0	1.3	2.6
교육수준							
무학	1.2	5.1	12.1	24.9	41.9	5.7	20.8
초등학교	15.1	31.0	44.0	46.8	41.6	27.0	41.2
중학교	25.6	29.8	22.9	15.4	7.3	25.6	18.7
고등학교	49.1	28.6	16.9	9.2	5.6	33.9	17.3
전문대학 이상	9.0	5.5	4.0	3.7	3.6	7.9	1.9
현 취업상태							
취업중	53.3	35.6	27.4	17.6	9.2	39.6	26.6
미취업	46.7	64.4	72.6	82.4	90.8	60.4	73.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0	18.7	24.3	28.8	35.5	13.1	34.0
제2오분위	12.1	19.6	25.6	30.4	19.2	19.7	20.6
제3오분위	20.8	22.9	20.1	16.1	13.6	23.5	12.7
제4오분위	26.8	21.7	15.0	12.3	14.4	22.4	15.2
제5오분위	29.3	17.1	15.0	12.4	17.2	21.2	17.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3.0	38.8	50.1	56.4	53.2	37.6	43.7
50%이상~100%미만	35.8	36.1	31.6	30.0	27.3	35.2	30.0
100%이상~150%미만	23.6	15.6	12.1	9.6	11.5	16.2	16.6
150%이상	17.6	9.6	6.2	4.1	8.1	11.0	9.7
기능상태							
제한 없음	95.7	91.9	86.6	78.2	58.1	90.5	82.2
제한 있음	4.3	8.1	13.4	21.8	41.9	9.5	17.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344)	(2,342)	(2,292)	(1,475)	(644)	(6,779)	(3,318)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다음으로 <표 3-5>와 같이 가구형태와 교육수준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가구형태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는 동부의 비율이 84.3%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이며, 노인독거가구가 읍·면부가 29.0%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 성 분포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여자노인의 비율이 78.9%이고,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이 69.7% 높은 반면, 노인부부가구는 남자노인의 비율이 55.0%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 중 65~69세 이 비율이 22.7%로 타 가구형태에 비하여 낮은 특성을 보이며, 노인부부가구는 85세 이상에서 2.7%로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노인독거가구는 75세 이후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특성이 있으며, 노인부부가구는 75세 이전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구형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상태를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무학이 19.2%, 초등학교 졸업이 41.5%로 저학력자의 분포가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반면, 노인부부가구는 고등학교 졸업이 33.2%, 전문대학 이상이 7.9%로 고학력자의 분포가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자녀동거가구에서의 취업률이 26.2%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낮으며, 노인부부가구는 39.7%로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제4오분위와 제5오분위가 25.3%와 46.8%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이는 반면, 노인독거가구는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가 50.7%와 26.4%로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중위소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노인독거가구는 50% 미만의 비율이 57.2%이고, 150% 이상의 비율이 5.6%인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50% 미만이 22.5%, 150% 이상이 16.7%로 노인독거가구의 가구소득이 타 가구형태에 비해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자녀동거가구의 기능상태 제한자 비율이 18.1%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이며, 노인부부가구는 9.5%로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별 노인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의 경우 동부의 비중이 89.3%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무학은 읍·면부에서 35.7%로 타 교육수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전문대학 이상이 남자노인은 76.5%, 여자노인은 23.5%인 반면, 무학은 남자노인은 17.9%, 여자노인은 82.1%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남자노인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무학의 비율은

80~84세가 34.3%로 가장 높은 반면, 전문대학 이상의 고학력은 65~69세가 50.4%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연령대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유배우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가구형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그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노인독거가구와 자녀동거가구는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경제적 상태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제활동 비율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무학의 경제활동 비율이 17.5%로 가장 낮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무학의 경우 제1오분위의 비율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학교 졸업은 제2오분위 26.2%, 중학교 졸업은 제3오분위 24.2%, 고등학교 졸업과 전문대학 이상은 제5오분위가 각각 29.7%와 45.1%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위소득 기준에서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구성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중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중위소득 50%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이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50% 이상~100% 미만인 36.8%로 가장 높고,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150% 이상이 33.9%로 가장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기능상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무학의 기능상태 제한율이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5〉 노인의 가구형태·교육수준별 일반특성분포

(단위: %, 명)

특성	가구형태				교육수준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지역									
동부	71.0	74.4	84.3	79.3	64.3	70.6	76.6	82.3	89.3
읍·면부	29.0	25.6	15.7	20.7	35.7	29.4	23.4	17.7	10.7
성									
남자	21.1	55.0	30.3	37.1	17.9	31.5	45.4	56.3	76.5
여자	78.9	45.0	69.7	62.9	82.1	68.5	54.6	43.7	23.5
연령									
65~69세	22.7	37.2	30.9	39.7	3.6	15.8	36.4	57.2	50.4
70~74세	19.9	26.4	17.5	17.2	11.1	22.7	29.7	23.3	21.4
75~79세	24.7	22.6	20.9	24.1	25.9	31.5	22.3	13.5	15.4
80~84세	22.0	11.0	18.0	11.5	34.3	21.6	9.6	4.7	9.0
85세 이상	10.7	2.7	12.7	7.5	25.1	8.4	2.0	1.3	3.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0	100.0	39.0	51.4	35.8	57.2	73.6	80.0	89.3
배우자 없음	100.0	0.0	61.0	48.6	64.2	42.8	26.4	20.0	10.7
가구형태									
노인독거	-	-	-	-	35.7	25.9	17.0	12.1	6.5
노인부부	-	-	-	-	31.7	51.3	63.4	68.2	77.5
자녀동거	-	-	-	-	30.8	21.4	17.9	17.8	13.2
기타	-	-	-	-	1.9	1.4	1.7	1.8	2.8
교육수준									
무학	19.2	5.8	16.3	11.4	-	-	-	-	-
초등학교	41.5	27.8	33.7	25.7	-	-	-	-	-
중학교	20.0	25.3	20.8	23.4	-	-	-	-	-
고등학교	17.4	33.2	25.3	29.7	-	-	-	-	-
전문대학 이상	2.0	7.9	3.9	9.7	-	-	-	-	-
현 취업상태									
취업중	32.0	39.7	26.2	28.7	17.5	29.2	37.9	46.2	37.6
미취업	68.0	60.3	73.8	71.3	82.5	70.8	62.1	53.8	62.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0.7	13.9	8.5	8.0	34.5	27.3	18.5	10.0	8.5
제2오분위	26.4	21.3	9.8	21.8	27.1	26.2	19.6	12.7	10.7
제3오분위	14.1	25.4	9.6	23.6	12.9	19.9	24.2	21.3	10.4
제4오분위	6.1	22.6	25.3	31.0	13.6	14.3	21.7	26.3	25.4
제5오분위	2.7	16.7	46.8	15.5	11.9	12.2	16.0	29.7	45.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7.2	39.6	22.5	38.5	59.2	51.9	39.1	23.0	20.5
50%이상~100%미만	27.6	35.6	32.1	47.1	28.0	32.4	37.2	36.8	19.0
100%이상~150%미만	9.6	14.6	28.7	8.0	9.7	11.0	16.2	22.6	26.5
150%이상	5.6	10.3	16.7	6.3	3.1	4.7	7.5	17.6	33.9
기능상태									
제한 없음	86.1	90.5	81.9	84.6	70.3	86.1	91.1	93.3	88.3
제한 있음	13.9	9.5	18.1	15.4	29.7	13.9	8.9	6.7	1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	100.0	100.0	100.0	100.0
(명)	(1,998)	(5,898)	(2,026)	(174)	(1,073)	(3,198)	(2,356)	(2,870)	(59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2절 가구 형태

1. 노인단독가구(노인독거가구 및 노인부부가구) 특성

노인 혼자 또는 배우자와 거주하는 노인 단독가구의 노인만이 거주하는 이유 및 주요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 단독가구 형성 이유로는 자녀의 결혼이 28.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개인(부부)생활 향유 19.9%, 기존 거주지에서의 거주 희망 18.2%, 경제적 능력이 있어서 12.7%, 건강해서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개인적 차원의 욕구나 특성(건강 또는 경제적 능력, 개인 생활 향유 등)에 의한 노인 단독가구 형성이 약 2/3를 차지한다. 반면 자녀의 결혼이나 별거 희망, 타 지역 거주 등 자녀와 관련한 요인에 의한 노인 단독가구 형성은 37.4%로 나타났다. 노인 단독가구 형성은 노인의 자발성 또는 자녀와 관련한 상황적 요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제 특성별 차이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동부 노인은 자녀의 결혼이 28.3%, 개인(부부) 생활 향유 22.7% 등의 순으로 노인 단독가구를 선택한 반면, 읍·면부 노인은 익숙한 지역에서 거주 31.6%, 자녀의 결혼 2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읍·면부 노인의 노인 단독가구 형성에 있어서 익숙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게 작용함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성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경제적 능력이나 양호한 건강상태, 개인(부부) 생활 향유와 같은 노인 개인적 차원에 의한 노인 단독가구 선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자녀의 결혼 또는 기존 거주지에서의 거주 희망을 이유로 노인 단독가구를 선택한 비율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 노인 단독가구 형성 이유에 있어서는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모두 자녀의 결혼으로 인한 이유가 각각 29.0%,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순위에 있어서 독거가구는 기존 거주지에서의 거주 희망(22.4%), 개인(부부) 생활 향유(15.0%)를 이유로 노인 단독가구를 선택한 반면, 부부가구는 개인(부부)생활 향유(21.6%), 기존 거주지에서의 거주 희망(16.8%) 순으로 노인 단독가구를 선택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건강해서 또는 개인(부부) 생활 향유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자녀와 관련한 상황적 요인(별

거 희망, 결혼) 때문이라는 응답은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표 3-6〉 노인의 지역·성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¹⁾	지역		성		2017년도 ²⁾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경제적 능력	12.7	13.5	10.5	14.4	11.3	1.8
건강	11.2	11.3	10.9	10.9	11.4	1.1
개인(부부)생활 향유	19.9	22.7	12.1	21.4	18.6	18.8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18.2	13.4	31.6	17.3	19.0	11.0
자녀의 결혼	28.3	28.6	27.5	27.5	29.0	36.0
자녀의 별거 희망	5.9	6.8	3.5	5.0	6.6	8.7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	3.2	3.1	3.5	3.0	3.3	18.8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	-	-	-	-	2.2
기타	0.5	0.6	0.4	0.3	0.7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832)	(5,757)	(2,075)	(3,626)	(4,206)	(7,324)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에서 노인 단독가구 7,832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3-7〉 노인의 연령·배우자 유무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¹⁾	연령					가구형태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노인독거	노인부부
경제적 능력	12.7	18.7	12.1	9.8	6.3	6.0	8.6	14.1
건강	11.2	13.9	11.5	10.1	7.5	6.5	9.9	11.6
개인(부부)생활 향유	19.9	22.3	21.0	16.6	19.4	14.3	15.0	21.6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18.2	13.8	17.6	23.2	22.3	17.6	22.4	16.8
자녀의 결혼	28.3	23.3	29.6	29.6	31.3	43.2	29.0	28.1
자녀의 별거 희망	5.9	4.4	5.5	6.4	9.1	7.2	9.8	4.6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	3.2	3.3	2.3	3.8	3.2	3.7	3.7	3.0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	-	-	-	-	-	-	-
기타	0.5	0.4	0.4	0.5	1.0	1.5	1.6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832)	(2,646)	(1,947)	(1,814)	(1,070)	(355)	(1,985)	(5,847)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에서 노인 단독가구 7,832명을 대상으로 함.

〈표 3-8〉 노인의 교육상태별 노인 단독거주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1)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경제적 능력	12.7	6.6	8.7	11.8	18.4	18.9
건강	11.2	4.6	9.8	11.8	15.2	6.5
개인(부부)생활 향유	19.9	11.7	17.9	21.6	21.7	26.7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18.2	28.7	21.5	17.4	13.6	11.5
자녀의 결혼	28.3	34.6	30.7	27.9	23.8	30.1
자녀의 별거 희망	5.9	8.8	7.6	5.6	3.9	3.8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	3.2	4.2	3.0	3.4	3.0	2.3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	-	-	-	-	-
기타	0.5	0.9	0.6	0.5	0.5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832)	(711)	(2,447)	(1,881)	(2,295)	(498)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에서 노인 단독가구 7,832명을 대상으로 함

노인 단독가구 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경우 약 40%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려운 이유로는 아플 때 간호 23.7%, 경제적 불안감 13.3%,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 발견된 차이는 다음과 같다. 동부 노인과 읍·면부 노인 모두 아플 때 간호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동부 노인은 경제적 불안(14.6%), 읍·면부 노인은 일상생활 문제처리(10.6%)를 차순위의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성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남자 노인은 47.2%인 반면 여자 노인은 35.5%로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어려움에 있어서 남녀노인 모두 아플 때 간호를 언급하였으나, 여자 노인은 27.8%가 이에 해당하여 남자 노인(18.9%)에 비해 어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 65~69세 연령군의 약 1/2은 노인 단독가구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은 약 1/4만이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단독가구 생활의 어려움으로 아플 때 간호, 일상생활 문제 처리 등의 신체적 돌봄과 관련한 어려움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심리적 불안이나 외로움 등의 이유 역시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다.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로 노인 단독가구 생활의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독거가구는 19.7%인 반면 부부가구는 48.1%로 현격한 차이가 있다. 노인 단독가구 생활로 인한

실질적 어려움이 독거가구에 더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독거가구가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아플 때 적절한 간호를 받지 못함에 대한 어려움이 45.6%로 부부가구에 비해 매우 높다. 다음으로 심리적 불안감이나 외로움 13.2%, 경제적 불안 9.4% 등의 순이다. 부부가구가 경험하는 어려움 역시 아플 때 간호의 어려움이 16.3%로 가장 높고, 경제적 불안감 14.7%, 일상생활 문제 처리 10.2% 등의 순이다. 소득수준별로는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높다.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아플 때 간호 또는 심리적 외로움을 높게 지적하였다. 이같은 경향성은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기능상태에 있어서는 기능상태의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에게서 노인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81.8%로 제한이 없는 노인의 56.5%에 비해 매우 높다. 또한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아플 때 간호(32.3%), 일상생활 문제처리(22.8%) 등의 어려움을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높게 지적하였다.

〈표 3-9〉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없음	아플 때 간호	일상생활 문제처리	경제적 불안감	안전에 대한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외로움	계 (명)
전체 ¹⁾	40.9	23.7	9.9	13.3	3.8	8.3	100.0 (7,832)
지역							
동부	41.5	21.6	9.7	14.6	4.0	8.6	100.0 (5,757)
읍·면부	39.3	29.5	10.6	9.8	3.4	7.4	100.0 (2,075)
성							
남자	47.2	18.9	10.2	13.6	3.7	6.5	100.0 (3,626)
여자	35.5	27.8	9.7	13.1	3.9	9.9	100.0 (4,206)
연령							
65~69세	50.2	19.1	7.6	12.9	3.5	6.7	100.0 (2,646)
70~74세	42.1	21.4	8.9	14.0	4.7	9.0	100.0 (1,947)
75~79세	37.0	25.5	10.3	14.8	3.8	8.7	100.0 (1,814)
80~84세	27.9	31.9	14.8	12.2	3.4	9.7	100.0 (1,070)
85세 이상	25.0	36.1	16.1	9.0	3.5	10.4	100.0 (355)
가구형태							
노인독거	19.7	45.6	9.1	9.4	3.0	13.2	100.0 (1,985)
노인부부	48.1	16.3	10.2	14.7	4.1	6.6	100.0 (5,84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1.3	32.6	9.1	11.9	4.2	10.9	100.0 (1,814)
제2오분위	30.8	29.6	11.1	17.2	3.0	8.3	100.0 (1,758)
제3오분위	41.8	20.9	11.6	13.8	3.9	8.2	100.0 (1,771)
제4오분위	50.8	16.3	7.5	12.9	4.0	8.5	100.0 (1,450)
제5오분위	59.5	1.2	9.9	9.2	4.4	3.8	100.0 (1,03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2.8	28.5	10.6	15.1	3.7	9.4	100.0 (3,431)
50%이상~100%미만	42.2	22.3	9.6	13.5	3.9	8.5	100.0 (2,636)
100%이상~150%미만	55.6	15.4	8.5	10.3	3.9	6.3	100.0 (1,048)
150%이상	53.7	18.1	9.8	8.5	4.4	5.5	100.0 (716)
기능상태							
제한 없음	43.5	22.7	8.5	13.1	3.9	8.0	100.0 (7,044)
제한 있음	18.2	32.3	22.8	12.6	3.2	10.9	100.0 (788)
2017년 ²⁾	44.5	19.0	7.5	17.3	1.5	10.3	100.0 (7,324)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에서 노인 단독가구 7,832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기혼·미혼)자녀동거 가구

가. (기혼·미혼)자녀동거 가구의 일반적 특성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83.3%로 읍·면부 노인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여자 노인이 77.1%로 남자 노인에 비해 많다. 연령군별로는 75세 이상 후기노인 연령군에서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72.0%를 차지한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에게서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75.1%로 높게 나타나며,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저학력 노인에게서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64.2%로 높은 수준이다. 취업상태에 있어서는 미취업 노인의 동거율이 86.7%로 높고,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연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할 시 차이가 두드러진다. 제5오분위에 속한 노인에게서 기혼자녀와의 동거율이 50.6%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기능상태 제한 여부에 따라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동거율이 73.5%로 더 높다.

한편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기혼자녀 동거가구와 마찬가지로 동부 노인의 비율이 85.3%, 여자 노인의 비율이 63.2%로 읍·면부, 남자 노인에 비해 더 높다. 한편 연령군별로는 기혼자녀 동거가구와 달리 75세 미만의 전기노인의 비율이 높다. 65~69세 연령군에서의 비율이 45.3%로 타 연령군에 비해 월등히 높고, 70~74세 연령군이 20.9%로 다음을 차지한다. 노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 노인에게서 미혼자녀와의 동거율이 두드러진 경향이 있다(38.9%). 취업상태에 있어서는 미취업 노인의 동거율이 62.6%로 높고,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에서의 동거율이 높다. 즉 제5오분위에 속한 노인의 경우 44.4%가 이에 해당한다. 기능상태 제한 여부에 따라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동거율이 89.2%로 대다수이다.

일련의 특성을 통해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고연령군 노인이 다수라는 점에서 자녀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의 기능을 기대함에 따른 동거 경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전기노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미혼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한 동거 경향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10〉 (기혼·미혼)자녀동거 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특성	기혼자녀 동거가구	미혼자녀 동거가구
	계 (명)	계 (명)
전체 ¹⁾	100.0 (938)	100.0 (1,086)
지역		
동부	83.3 (782)	85.3 (926)
읍·면부	16.7 (157)	14.7 (159)
성		
남자	22.9 (215)	36.8 (400)
여자	77.1 (723)	63.2 (686)
연령		
65~69세	14.2 (133)	45.3 (492)
70~74세	13.8 (129)	20.9 (227)
75~79세	24.1 (226)	17.4 (189)
80~84세	27.0 (254)	11.3 (122)
85세 이상	20.9 (196)	5.1 (5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4.9 (234)	51.6 (560)
배우자 없음	75.1 (704)	48.4 (525)
교육수준		
무학	23.8 (223)	10.1 (110)
초등학교	40.4 (379)	27.8 (302)
중학교	18.0 (169)	23.2 (252)
고등학교	16.3 (153)	33.0 (358)
전문대학 이상	1.6 (15)	5.9 (64)
현취업상태		
취업중	13.3 (125)	37.4 (406)
미취업	86.7 (814)	62.6 (68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7 (91)	7.2 (78)
제2오분위	7.6 (71)	11.6 (126)
제3오분위	8.4 (79)	10.9 (118)
제4오분위	23.7 (222)	25.8 (280)
제5오분위	50.6 (475)	44.4 (48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1.5 (202)	23.3 (253)
50%이상~100%미만	37.3 (350)	28.1 (305)
100%이상~150%미만	26.2 (246)	30.4 (330)
150%이상	15.0 (141)	18.2 (198)
기능상태		
제한 없음	73.5 (690)	89.2 (969)
제한 있음	26.5 (249)	10.8 (117)
2017년 ²⁾	100.0 (993)	- -

주: 1) 전체응답자 중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938명,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1,08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기혼 및 미혼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노인은 22명으로 실수가 적어 별도 분석하지 않음.

2) 2017년 조사시 미혼자녀 동거가구에 대해서 별도 조사하지 않음.

나. 기혼자녀 동거가구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동거 이유를 살펴본 결과,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다는 응답이 24.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17.4%, 노인 단독가구의 외로움이 16.6%, 본인/배우자의 돌봄 필요가 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범적 이유에 의한 동거 외에 노인-자녀간 지원교환에 의해 동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기혼자녀와의 동거 이유에 대해 동부 노인은 기혼자녀와의 동거 당위성(24.1%),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 도움(18.5%), 노인 단독가구의 외로움(16.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읍·면부 노인은 기혼자녀와의 동거 당위성(29.2%), 노인 단독가구의 외로움(19.0%), 본인이나 배우자의 돌봄 필요성(18.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규범적 이유에 의한 동거는 읍·면부 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자녀에 대한 경제적, 도구적 지원에 의한 동거는 동부 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 비교 결과, 남자 노인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의 돌봄 필요(23.1%), 자녀에게 가사지원이나 손자녀 양육 도움 제공(20.7%)을 위해서 기혼자녀와 동거한다는 응답이 여자 노인에 비해 높다. 반면 여자 노인의 경우 기혼자녀와의 동거 당위성(26.7%), 노인 단독가구의 외로움(17.1%), 경제적 능력 부족(16.7%)에 의한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남자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동 응답이 19.1%인데 반해, 85세 이상에서는 23.9%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본인이나 배우자의 돌봄 필요에 의한 기혼자녀와의 동거 역시 연령이 많을수록 높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동 응답이 7.9%이었으나,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36.1%로 월등히 높다.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와의 양육 도움 제공을 위한 기혼자녀와의 동거는 연령이 적을수록 높아, 65~69세 연령군에서는 36.5%가 이에 해당된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10.0%에 불과하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인 경우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가 33.5%로 무배우 노인(11.8%)의 약 3배에 달한다. 노인 본인의 돌봄이나 경제적 능력 부족에 의한 이유는 무배우 노인에게서 높다(본인/배우자 돌봄 필요 18.9%, 경제적 능력 부족

17.0%).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인 단독가구의 외로움, 자녀에 대한 가사지원이나 손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 제공을 기혼자녀와의 동거 이유로 높게 언급한다.

〈표 3-11〉 노인의 지역·성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¹⁾	지역		성		2017년도 ²⁾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24.9	24.1	29.2	19.1	26.7	14.8
노인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16.6	16.1	19.0	15.2	17.1	6.9
본인/배우자 돌봄 필요	16.3	15.8	18.7	23.1	14.2	15.9
경제적 능력 부족	15.1	15.2	14.6	9.7	16.7	19.5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 도움 제공	17.4	18.5	12.1	20.7	16.4	27.3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9.7	10.4	6.5	12.1	9.0	14.8
기타	-	-	-	-	-	0.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72)	(724)	(149)	(200)	(672)	(993)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기혼자녀 동거가구 872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3-12〉 노인의 연령·배우자 유무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¹⁾	연령					배우자 유무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24.9	19.1	16.5	31.4	27.6	23.9	21.4	26.1
노인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16.6	18.2	22.9	15.5	17.6	10.6	8.1	19.5
본인/배우자 돌봄 필요	16.3	7.9	7.4	8.3	18.6	36.1	8.4	18.9
경제적 능력 부족	15.1	7.2	14.4	14.0	20.6	15.7	9.5	17.0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 도움 제공	17.4	36.5	24.0	16.5	9.1	10.0	33.5	11.8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9.7	11.1	14.7	14.1	6.5	3.7	19.1	6.5
기타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72)	(131)	(128)	(211)	(233)	(169)	(222)	(650)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기혼자녀 동거가구 872명을 대상으로 함.

〈표 3-13〉 노인의 교육수준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¹⁾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24.9	25.6	31.0	25.0	10.5	18.2
노인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16.6	11.5	16.8	19.6	20.4	12.6
본인/배우자 돌봄 필요	16.3	22.3	14.0	11.9	17.7	19.1
경제적 능력 부족	15.1	18.9	18.6	7.0	10.9	10.6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 도움 제공	17.4	10.8	11.0	27.3	30.4	18.3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9.7	10.9	8.6	9.3	10.0	21.2
기타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72)	(200)	(349)	(158)	(151)	(15)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기혼자녀 동거가구 872명을 대상으로 함

다음으로 기혼자녀와 동거 시 일상생활 분담 방법을 살펴보면, 자녀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35.3%, 공동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30.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21.4%, 각자 따로 수행하는 경우가 13.1%이다.

제 특성별로 보면 읍·면부 노인의 경우 자녀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비율이 41.1%로 동부 노인에 비해 높다. 반면 동부 노인의 경우 각자 따로 분담한다는 비율이 14.4%로 읍·면부 노인(6.8%)의 약 2배에 가깝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에게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24.4%), 자녀(38.2%)가 수행한다는 비율이 여자 노인에 비해 높다. 여자 노인의 경우 공동 분담이 32.4%로 남자 노인에 비해 높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당하거나, 각자 따로 분담한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며,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가 담당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노인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녀의 일상생활 지원의 몫이 커짐을 시사한다.

〈표 3-14〉 노인의 일반특성별 기혼자녀 동거 시 일상생활 분담 방법

(단위: %, 명)

특성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공동	각자 따로	계 (명)
전체 ¹⁾	21.4	35.3	30.2	13.1	100.0 (872)
지역					
동부	21.1	34.1	30.4	14.4	100.0 (724)
읍·면부	22.9	41.1	29.2	6.8	100.0 (149)
성					
남자	24.4	38.2	22.8	14.6	100.0 (200)
여자	20.5	34.4	32.4	12.6	100.0 (672)
연령					
65~69세	31.3	16.4	29.3	23.0	100.0 (131)
70~74세	22.2	21.4	40.9	15.5	100.0 (128)
75~79세	28.0	25.1	30.8	16.2	100.0 (211)
80~84세	17.7	47.8	27.8	6.7	100.0 (233)
85세 이상	10.0	55.9	25.6	8.5	100.0 (169)
2017년도	20.7	28.3	44.1	7.0	100.0 (993)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기혼자녀 동거가구 872명을 대상으로 함

다. 미혼자녀 동거가구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동거 이유를 살펴본 결과, 미혼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다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녀에게 가사지원 등의 도움 제공 17.3%,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1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범적 이유에 의한 미혼자녀와의 동거 비율이 기혼자녀와의 동거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 특성별로는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단, 미혼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기 때문 또는 노인 단독가구의 외로움이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돌봄 필요성에 의해 동거한다는 응답이 읍·면부 노인에게서 더 높다. 성별 차이에 있어서 남자 노인의 경우, 미혼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다는 규범적 응답이 43.9%로 여자 노인에 비해 높다. 다음으로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20.2%, 자녀에게 가사지원 등의 도움 제공 14.1%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여자 노인 역시 규범적 이유에 의한 동거가 35.9%로 가장 높고, 자녀에게 가사지원 등의 도움 제공(19.2%),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14.7%) 등의 이유로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군별로 두드러진 특성 차이는 적다. 다만 미혼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다는 응답이 전기노인(65세~74세) 연령군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전기노인의 자녀일 경우,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규범적 이유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응답의 차이가 있다. 유배우자 노인은 미혼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41.9%),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21.1%), 자녀에게 가사지원 등의 도움 제공(17.9%) 등의 순으로 그 이유를 언급하였다. 무배우자 노인 역시 미혼자녀와의 동거가 당연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35.5%), 다음으로 자녀에게 가사지원 등의 도움 제공(16.7%), 경제적 능력 부족(15.4%), 노인 단독가구의 외로움(14.5%) 등이 차지한다. 유배우자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에게 경제적, 도구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무배우자 노인은 본인의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등에 의한 미혼자녀와의 동거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규범적 이유에 의한 동거 선택에 있어 차이가 있다. 미혼자녀와 동거가 당연하다는 응답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노인인 경우 60.2%에 달한다. 반면 노인의 경제적 능력 부족에 의해 미혼자녀와 동거한다는 응답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다. 무학 노인은 동 응답이 16.0%인데 반해,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노인은 4.1%에 불과하다.

〈표 3-15〉 노인의 지역·성별 미혼자녀 동거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¹⁾	지역		성		2017년도 ²⁾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미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38.8	38.5	40.6	43.9	35.9	-
노인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11.4	11.1	13.2	9.1	12.9	-
본인/배우자 돌봄 필요	5.1	4.7	7.3	5.0	5.2	-
경제적 능력 부족	10.6	10.8	9.6	7.9	12.2	-
자녀에게 가사지원 등의 도움 제공	17.3	17.6	15.6	14.1	19.2	-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16.7	17.2	13.7	20.2	14.7	-
기타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60)	(905)	(155)	(394)	(666)	(993)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미혼자녀 동거가구 1,060명을 대상으로 함.

2) 2020년도 신설문항으로 이전 년도와 비교 불가함.

〈표 3-16〉 노인의 연령·배우자 유무별 미혼자녀 동거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¹⁾	연령					배우자 유무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미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38.8	44.1	41.3	30.0	28.8	32.9	41.9	35.5
노인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11.4	12.2	8.0	10.1	19.1	5.5	8.7	14.5
본인/배우자 돌봄 필요	5.1	3.4	6.2	4.5	10.3	7.0	4.2	6.1
경제적 능력 부족	10.6	8.4	9.5	14.7	10.6	21.8	6.2	15.4
자녀에게 가사지원 등의 도움 제공	17.3	16.9	16.8	19.1	18.5	14.7	17.9	16.7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16.7	15.1	18.1	21.5	12.8	18.1	21.1	11.9
기타	-	-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60)	(491)	(218)	(187)	(116)	(48)	(554)	(506)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미혼자녀 동거가구 1,060명을 대상으로 함

〈표 3-17〉 노인의 교육수준별 미혼자녀 동거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¹⁾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
미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38.8	20.5	32.6	36.6	46.7	60.2
노인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11.4	7.4	10.5	13.6	12.2	9.9
본인/배우자 돌봄 필요	5.1	14.0	5.5	3.7	3.7	2.4
경제적 능력 부족	10.6	16.0	13.6	11.0	7.5	4.1
자녀에게 가사지원 등의 도움 제공	17.3	23.4	14.3	20.3	15.7	18.9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16.7	18.7	23.5	14.8	14.2	4.4
기타	-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60)	(100)	(292)	(246)	(358)	(64)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미혼자녀 동거가구 1,060명을 대상으로 함

한편 미혼자녀와 동거 시 일상생활 분담 방법에 있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당하는 비율이 50.7%로 약 1/2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공동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28.2%, 각자 따로 하는 경우가 14.0%, 자녀가 담당하는 경우가 7.1%의 순으로 나타난다. 제 특성별 차이에 있어, 지역 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성별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적은 편이나, 여자 노인의 경우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비율이 32.1%로 남자 노인의 21.7%에 비해 높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분담한다는 비율이 높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동 응답이 61.7%인데 반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26.4%로 약 3배 정도 차이가 있다. 반대로 자녀가 분담한다는 비율은 대체로 연령이 많을수록 높다. 신체적 노화 가속화에 따른 일상생활 영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동거 자녀의 도구적 지원이 많아짐을 시사한다.

〈표 3-18〉 노인의 일반특성별 미혼자녀 동거 시 일상생활 분담 방법

(단위: %, 명)

특성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공동	각자 따로	계 (명)
전체 ¹⁾	50.7	7.1	28.2	14.0	100.0 (1,060)
지역					
동부	50.5	6.6	28.6	14.3	100.0 (905)
읍·면부	52.1	9.8	26.1	12.0	100.0 (155)
성					
남자	59.0	5.8	21.7	13.6	100.0 (394)
여자	45.9	7.8	32.1	14.2	100.0 (666)
연령					
65~69세	61.7	3.1	21.4	13.7	100.0 (491)
70~74세	55.1	4.2	27.7	13.0	100.0 (218)
75~79세	33.4	7.9	39.4	19.4	100.0 (187)
80~84세	34.3	22.9	35.5	7.3	100.0 (116)
85세 이상	26.4	18.5	38.9	16.2	100.0 (48)
2017년도	-	-	-	-	-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미혼자녀 동거가구 1,060명을 대상으로 함



제4장

노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관계

제1절 자녀와 친지 유무 및 규모

제2절 배우자와의 관계

제3절 자녀와의 관계

제4절 손자녀와의 접촉

제5절 친인척과의 접촉

제6절 친구·이웃·지인과의 접촉

제4장 노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관계

본 장에서는 노인의 주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중심으로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콘보이 모델(convoy model)에 따르면(Kahn, Antonucci, 1980), 관계망의 유대 정도에 따라 주요한 사회적 관계들이 놓이게 된다. 따라서 동심원의 중심에서 외부로 갈수록 배우자, 자녀, 친인척, 친구 및 이웃, 지인 등이 위치한다. 따라서 이같은 주요 타자와의 접촉 현황을 직접적 만남을 기준으로 한 왕래와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한 연락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자녀와 친지 유무 및 규모

자녀 및 형제·자매, 가까운 친인척 및 친구나 이웃, 지인 등이 있는지와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96.8%는 생존자녀가 있으며, 생존손자녀는 이보다 조금 낮은 88.3%, 형제·자매는 79.8%로 자녀나 손자녀에 비해 적은 수치이다. 노인 뿐 아니라 형제·자매 역시 노화에 따른 사망 등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생존자녀, 생존손자녀, 형제·자매의 평균 수는 3.0명, 4.1명, 2.9명이다. 스스로 인식하기에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81.7%이며 평균 2.1명이다. 또한, 친한 친구·이웃이 있다는 응답은 93.6%이며 평균 3.0명이다. 즉, 대다수의 노인이 고민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을만큼 가깝게 지내는 비공식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 또는 친구나 이웃, 지인의 보유율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혈연을 중심으로 한 관계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동년배와의 관계가 확장되는 등 관계망이 다각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에 비해 읍·면부 노인에게서 생존 자녀와 생존손자녀, 친한 친구나 이웃이 있는 비율이 더 높다. 특히 생존손자녀의 경우 동부 노인의 경우 87.2%인데 반해 읍·면부 노인은 92.1%로 차이가 있다. 평균 생존손자녀 역시 동부는 3.9명이나 읍·면부 노인은 5.0명이다. 반면 형제·자매나 가까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동부 노인에게서 더 높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 노인은 평균 2.8명의 자녀를, 여자 노인은 3.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손자녀와 형제·자매에 있어 남자

노인은 각각 3.9명, 2.8명, 여자 노인은 4.3명, 3.0명을 두고 있다. 대다수의 관계에 있어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더 많은 관계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단, 친한 친구나 이웃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다. 연령군별로 비교해 보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자녀 및 손자녀 역시 더 많다. 특히 손자녀의 경우 65~69세 연령군에서는 2.9명인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6.4명으로 약 2배 차이가 있다. 형제·자매는 이와 반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노인 연령이 많아질수록 형제·자매 역시 고령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가까운 친인척의 경우 역시 연령이 적을수록 더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 응답에 대해 65~69세 연령군에서는 90.8%가 응답하였으며 그 규모 역시 2.5명이다.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57.4% 수준에 그치며, 규모 역시 1.2명으로 1/2 수준에 그친다. 친한 친구·이웃이 있는 비율 및 규모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이다. 전기노인의 경우 가구규모 축소에 따라 자녀나 손자녀 규모는 적지만, 형제자매를 비롯해 가깝게 지내는 가용 자원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 유무별로 비교해 보면, 유배우 노인은 자녀나 손자녀 규모는 약간 적지만 형제·자매,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이웃의 규모는 더 많다. 가구형태별로 자녀수는 자녀동거 가구에서 3.6명으로 가장 많지만, 손자녀 수는 노인 독거가구에서 4.5명으로 가장 많다. 형제·자매 규모는 가구형태별 큰 차이가 없다. 가까운 친인척과 친구·이웃은 노인 부부가구에서 많은데, 부부 각각이 보유한 관계망에 따른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있는 비율은 교육수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으나 평균 자녀수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다. 손자녀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이다. 반면 형제·자매, 가까운 친인척 및 친구·이웃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 규모가 크다. 취업 여부에 있어서는 미취업 노인이 자녀나 손자녀가 조금 더 많은 반면, 취업 노인은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한 친구·이웃이 조금 더 많다. 형제·자매는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와 손자녀는 적은 편이나 형제·자매, 가까운 친인척의 수와 친한 친구 및 이웃 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자녀와 손자녀를 제외한 모든 관계를 보유한 비율이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더 높다. 단 자녀의 규모는 제한이 있는 노인이 3.5명으로 제한이 없는 노인(2.9명)에 비해 많다. 이는 기능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은 노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과 관련될 것이다.

〈표 4-1〉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 및 친구·이웃 유무(율)

(단위: %)

특성	생존자녀 ¹⁾	생존손자녀 ¹⁾	형제·자매 ¹⁾	가까운 친인척 ²⁾	친한 친구·이웃·지인 ²⁾
전체 ¹⁾	96.8	88.3	79.8	81.7	93.6
지역					
동부	96.8	87.2	81.9	82.2	92.9
읍·면부	97.1	92.1	73.2	80.2	95.7
성					
남자	97.2	87.9	80.9	81.4	93.7
여자	96.6	88.7	78.9	81.9	93.5
연령					
65~69세	96.7	81.8	88.7	90.8	97.1
70~74세	96.3	89.4	82.8	84.2	95.2
75~79세	97.0	91.4	79.5	79.4	92.4
80~84세	97.8	94.4	66.0	69.9	88.6
85세 이상	96.6	93.3	54.6	57.4	8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7.5	89.5	82.7	84.8	94.6
배우자 없음	95.5	86.0	73.7	75.2	91.4
가구형태					
노인독거	93.2	87.4	72.3	74.1	92.5
노인부부	97.2	91.0	82.3	85.2	94.8
자녀동거	99.7	81.5	79.4	78.8	91.1
기타	92.3	90.1	84.0	81.3	89.6
교육수준					
무학	97.1	93.8	60.6	63.1	87.2
초등학교	96.1	89.6	77.3	78.6	92.0
중학교	96.9	87.7	82.1	84.7	93.9
고등학교	97.1	85.8	85.3	87.3	96.7
전문대학 이상	98.8	86.4	91.4	90.9	96.0
현 취업상태					
취업중	97.3	86.0	84.1	85.1	96.6
미취업	96.6	89.6	77.4	79.8	91.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4.2	89.8	74.0	77.3	91.9
제2오분위	96.5	90.1	76.4	76.9	92.2
제3오분위	97.6	90.3	80.9	82.5	94.1
제4오분위	98.3	87.1	84.2	86.6	95.2
제5오분위	97.6	84.4	83.4	85.2	94.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5.6	90.0	76.0	78.0	92.3
50%이상~100%미만	98.0	89.5	80.6	82.2	93.0
100%이상~150%미만	97.9	85.9	84.2	85.4	94.7
150%이상	96.4	82.5	84.3	88.4	98.1
기능상태					
제한 없음	96.9	88.0	81.7	83.4	94.8
제한 있음	96.5	91.1	65.6	68.3	83.3
2017년도 ³⁾	97.1	91.3	84.7	46.2	57.1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 생존자녀, 생존손자녀 및 형제자매는 전체 응답자, 가까운 친인척 및 친한 친구나 이웃, 지인은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4-2〉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 및 친구·이웃·지인 평균수

(단위: 명)

특성	생존자녀 ¹⁾	생존손자녀 ¹⁾	형제·자매 ¹⁾	가까운 친인척 ²⁾	친한 친구·이웃·지인 ²⁾
전체 ¹⁾	3.0	4.1	2.9	2.1	3.0
지역					
동부	2.9	3.9	3.0	2.1	3.0
읍·면부	3.3	5.0	2.7	2.1	3.2
성					
남자	2.8	3.9	2.8	2.1	3.1
여자	3.1	4.3	3.0	2.1	3.0
연령					
65~69세	2.5	2.9	3.1	2.5	3.4
70~74세	2.8	3.9	3.0	2.1	3.0
75~79세	3.2	4.7	2.8	2.0	2.9
80~84세	3.7	5.5	2.5	1.5	2.6
85세 이상	4.2	6.4	2.4	1.2	2.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8	4.0	3.0	2.2	3.1
배우자 없음	3.3	4.4	2.8	1.9	2.8
가구형태					
노인독거	3.1	4.5	2.8	1.8	2.9
노인부부	2.8	4.2	2.9	2.2	3.1
자녀동거	3.6	3.7	3.0	2.0	2.9
기타	2.9	4.2	2.9	1.9	2.9
교육수준					
무학	3.9	6.0	2.6	1.6	2.6
초등학교	3.3	4.7	2.9	1.9	2.8
중학교	2.8	3.9	2.9	2.1	3.0
고등학교	2.5	3.2	3.0	2.3	3.2
전문대학 이상	2.6	3.3	3.1	2.5	3.9
현 취업상태					
취업중	2.8	3.8	2.9	2.2	3.4
미취업	3.1	4.3	2.9	2.0	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1	4.5	2.9	1.9	2.8
제2오분위	3.2	4.6	2.9	1.9	2.9
제3오분위	2.9	4.2	2.9	2.1	2.9
제4오분위	2.8	3.8	2.9	2.2	3.0
제5오분위	2.9	3.5	3.0	2.3	3.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2	4.6	2.9	1.9	2.9
50%이상~100%미만	2.9	4.2	2.9	2.1	2.9
100%이상~150%미만	2.8	3.6	2.9	2.2	3.1
150%이상	2.7	3.3	2.9	2.5	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9	4.0	2.9	2.2	3.1
제한 있음	3.5	5.1	2.8	1.6	2.3
2017년도 ³⁾	3.1	4.9	3.4	0.8	1.4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 생존자녀, 생존손자녀 형제자매는 전체응답자, 가까운 친인척 및 친한 친구나 이웃, 지인은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2절 배우자와의 관계

노인의 삶에 있어 배우자가 지니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관련하여 살펴본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유배우 노인의 56.9%는 긍정적으로 이를 평가하고 있고, 28.4%는 그저 그렇다, 14.7%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인의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의 58.9%는 배우자의 건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읍·면부 노인의 비율(50.5%)보다 높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의 59.1%가, 여자 노인의 54.1%가 배우자의 건강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 연령군별로 보면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배우자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다.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배우자의 건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은 39.6%로 65~69세 연령군의 6.8%에 비해 약 6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 이는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중위소득 대비 150%이상 소득수준의 노인은 배우자의 건강에 대해 71.6%가 긍정적으로 인식한 반면, 50% 미만 소득수준의 노인은 47.5%만이 해당한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별 배우자의 건강상태를 비교하면, 노인이 건강한 편일수록 배우자의 건강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다. 매우 건강하다고 인식한 노인 중 88.7%는 배우자의 건강 역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스스로 전혀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한 노인 중 18.7%는 배우자의 건강 역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관심을 가져야 할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기능상태에 따른 차이 역시 주관적 건강상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 중 배우자의 건강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비율은 32.8%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12.8%에 비해 매우 높다.

〈표 4-3〉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의 건강상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건강	건강한 편	그저 그렇다	건강하지 않은 편	전혀 건강하지 않음	계(명)
전체 ¹⁾	5.8	51.1	28.4	12.4	2.3	100.0(6,779)
지역						
동부	6.5	52.4	26.2	12.5	2.4	100.0(5,134)
읍·면부	3.5	47.0	35.4	12.0	2.1	100.0(1,645)
성						
남자	6.5	52.6	26.6	12.0	2.3	100.0(3,760)
여자	4.9	49.2	30.6	12.8	2.4	100.0(3,019)
연령						
65~69세	9.4	61.9	22.0	5.9	0.9	100.0(2,632)
70~74세	4.7	54.4	28.7	10.7	1.4	100.0(1,729)
75~79세	3.6	41.0	34.4	16.6	4.3	100.0(1,506)
80~84세	1.3	31.3	37.0	27.3	3.0	100.0(727)
85세 이상	0.0	26.4	33.9	27.2	12.4	100.0(18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7	48.1	34.4	10.7	1.0	100.0(891)
제2오분위	3.3	40.3	35.3	17.9	3.2	100.0(1,338)
제3오분위	3.2	49.2	30.3	14.2	3.2	100.0(1,595)
제4오분위	6.2	57.2	24.9	9.6	2.1	100.0(1,519)
제5오분위	10.6	58.6	19.8	9.2	1.7	100.0(1,43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8	43.7	34.6	15.4	2.5	100.0(2,550)
50%이상~100%미만	4.7	52.1	27.8	12.6	2.8	100.0(2,387)
100%이상~150%미만	6.9	61.8	21.0	8.5	2.0	100.0(1,095)
150%이상	14.2	57.4	20.2	7.2	1.0	100.0(74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	49.7	39.0	6.1	3.6	1.6	100.0(382)
건강한 편	4.9	73.1	16.1	4.9	1.0	100.0(3,306)
그저 그렇다	1.7	32.5	51.0	13.4	1.4	100.0(1,979)
건강하지 않은 편	0.8	22.7	33.5	36.2	6.9	100.0(930)
전혀 건강하지 않음	0.0	27.6	21.9	31.8	18.7	100.0(107)
기능상태						
제한 없음	6.3	53.0	27.9	10.9	1.9	100.0(6,137)
제한 있음	1.3	32.4	33.4	26.0	6.8	100.0(643)
2017년도 ²⁾	1.9	37.8	19.8	33.6	6.9	100.0(6,401)

주: 1) 전체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6,77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에 대해 노인의 16.8%는 이를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갈등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성격 및 사고방식에 의한 갈등이 53.9%로 약 1/2을 차지한다. 다음은 배우자의 생활 방식 21.2%, 경제적 문제 8.1%,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돌봄 문제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기인한 갈등이 75.1%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경제 또는 돌봄 지원과 관련한 갈등이 약 15.8%를 차지하고 있다.

갈등 경험률을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는 읍·면부 노인이 17.7%로 동부 노인의 16.5%에 비해 높다. 성별로는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군별로는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으며, 75~79세 연령군에서 19.9%로 가장 높다. 배우자의 건강상태와 관련해서는 건강하지 않은 편에 속할 경우 갈등 경험률이 23.9%로 가장 높고, 그저 그렇다 20.0%, 건강한 편 1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일상생활 제약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여부에 따라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률이 23.5%로 그렇지 않은 노인의 16.1%보다 높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서 갈등 경험률이 높다. 연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제1오분위에서 갈등 경험률은 21.4%이다.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적다.

갈등 경험 이유에 대해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부 노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 등에 의한 갈등(76.8%)을 읍·면부 노인(70.1%)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읍·면부 노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돌봄 관련 갈등이 10.5%로 동부 노인의 6.7%보다 높다. 노인의 돌봄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읍·면부 지역에 부족함에 따라 가정 내에서 돌봄 등을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을 읍·면부 노인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성별과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 연령군별로는 노인의 연령이 적을수록 대체로 배우자와의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 등에 의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65~69세 연령군에서는 79.7%에 이른다. 한편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85세 연령군에서는 29.4%로 65~69세 연령군의 약 4배에 이른다. 초고령노인의 경우 가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부족함에 따라, 이로 인한 갈등을 배우자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전혀 건강하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돌봄 문제로 인한 갈등을 62.5%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노 케어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부담이 갈등으로 야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적절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측면이라 하겠다.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돌봄으로 인한 갈등을 22.8%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선 결과와 같이 적절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노인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특별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 4-4〉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갈등 실태

(단위: %, 명)

특성	갈등 경험률 ¹⁾	이유 ²⁾								계 (명)
		부모 동거 및 돌봄 문제	형제 자매 갈등	배우자 생활 방식	성격 및 사고 방식	본인 (배우자) 돌봄	경제 문제	가사 분담	기타	
전체 ¹⁾	16.8	3.0	1.3	21.2	53.9	7.7	8.1	4.8	0.1	100.0(1,125)
지역										
동부	16.5	3.4	1.5	24.7	52.1	6.7	7.7	3.9	0.1	100.0(837)
읍·면부	17.7	1.8	0.6	10.9	59.2	10.5	9.3	7.6	0.0	100.0(288)
성										
남자	15.7	2.8	1.4	21.8	53.7	6.8	7.8	5.7	0.0	100.0(581)
여자	18.1	3.2	1.1	20.4	54.2	8.6	8.4	3.9	0.2	100.0(543)
연령										
65~69세	15.5	3.7	1.6	23.9	55.8	4.3	7.0	3.7	0.0	100.0(407)
70~74세	18.1	2.7	2.6	22.1	53.3	8.8	6.1	4.2	0.3	100.0(311)
75~79세	19.9	1.5	0.0	17.3	54.0	10.1	8.7	8.4	0.0	100.0(296)
80~84세	13.4	6.1	0.0	14.8	51.7	12.3	13.8	1.5	0.0	100.0(94)
85세 이상	9.8	0.0	0.0	42.5	28.2	0.0	29.4	0.0	0.0	100.0(1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1.4	2.3	0.0	15.5	58.5	8.5	7.4	7.7	0.0	100.0(188)
제2오분위	15.7	3.0	1.0	27.9	49.4	3.5	9.2	6.0	0.0	100.0(207)
제3오분위	15.7	4.6	1.9	19.3	49.9	10.6	8.9	4.9	0.0	100.0(250)
제4오분위	16.3	3.6	2.4	21.0	57.8	3.4	9.3	2.2	0.4	100.0(244)
제5오분위	16.6	1.3	0.7	21.9	54.4	11.9	5.5	4.2	0.0	100.0(23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7.3	3.1	0.5	21.2	51.8	7.3	9.0	7.0	0.0	100.0(435)
50%이상~100%미만	16.3	3.9	2.3	21.5	54.0	5.7	9.0	3.4	0.2	100.0(387)
100%이상~150%미만	16.0	2.1	1.0	17.5	62.8	8.4	6.0	2.3	0.0	100.0(174)
150%이상	17.4	1.0	1.3	24.9	48.8	13.7	5.0	5.3	0.0	100.0(129)
배우자 건강상태										
매우 건강	9.2	0.0	0.0	13.9	77.8	2.8	2.8	2.8	0.0	100.0(36)
건강한 편	14.4	2.8	2.0	24.1	58.2	1.4	6.8	4.4	0.2	100.0(498)
그저 그렇다	20.0	2.4	1.1	19.2	54.5	8.7	8.2	6.1	0.0	100.0(380)
건강하지 않은 편	23.9	4.6	0.0	20.1	40.2	17.5	12.9	4.6	0.0	100.0(194)
전혀 건강하지 않음	10.7	6.3	0.0	6.3	25.0	62.5	0.0	0.0	0.0	100.0(16)
기능상태										
제한 없음	16.1	2.6	1.1	20.5	56.6	5.5	8.2	5.2	0.1	100.0(987)
제한 있음	23.5	5.5	2.3	25.6	34.3	22.8	7.6	1.9	0.0	100.0(137)
2017년도 ³⁾	-	-	-	-	-	-	-	-	-	-

주: 1) 본인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6,401명을 대상으로 함.

2) 배우자와의 갈등을 경험한 1,125명을 대상으로 함.

3) 2020년 신설문항으로 이전년도와 비교가 불가함.

제3절 자녀와의 관계

1.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 및 연락 빈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접촉 빈도를 대면을 중심으로 한 왕래와 전화 등을 중심으로 한 연락 빈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2.5%는 거의 매일 왕래하며 8.2%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주1회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노인의 16.9%가 주1회 이상 왕래하며 63.5%가 주1회 이상 연락을 주고 받는다.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연락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단 분기별 1~2회 이하로 연락하는 비율이 10.3%로 나타나 약 1/10은 원만한 교류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 실태를 제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동부 노인의 경우 주1회 이상 왕래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18.2%로 읍·면부 노인의 12.6%에 비해 약 6%p 높다. 분기별 1~2회 이하로 왕래하는 비율의 경우, 읍·면부 노인은 59.2%로 동부 노인 44.9%에 비해 약 15%p 높다. 자녀의 주거지와 거리가 있는 읍·면부 노인의 경우 동부 노인에 비해 대면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교류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임을 가늠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다. 연령군별로는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주1회 이상 왕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23.7%). 노인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일상생활 자립의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와의 왕래가 빈번해지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무배우 노인의 경우 분기별 1~2회 이하로 자녀와 왕래하는 노인이 48.5%에 달한다는 점에서, 관심 필요대상임을 시사한다. 가구형태별 차이 역시 두드러지지 않으나, 노인 독거가구 중 자녀와 왕래가 전혀 없다는 비율이 2.2%로 타 가구유형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별거 자녀수별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높다(5명 이상 20.0%).

교육수준별로는 큰 차이가 없고 노인이 미취업 중일 경우 주1회 이상 왕래가 이루어지는 비율이 근소하게 높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1회 이상 왕래 비율이 제5오분위의 경우 18.8%로 제1오분위 16.0%에 비해 조금 높다. 이 같은 경향성은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유사하며,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

소득수준 노인의 경우 동 비율이 20.9%인 반면 50% 미만 소득수준 노인은 15.7%이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 주1회이상 왕래한다는 비율이 23.5%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높다. 단, 연 1~2회 왕래하거나 왕래가 전혀 없는 비율 역시 16.0%라는 점에서 적절한 지원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제 특성별 연락 빈도에 있어서 주1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은 64.6%로 읍·면부 노인 60.3%에 비해 높아, 왕래 빈도와 같은 경향을 띤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높다(남자 60.5%, 여자 65.9%). 연령군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연 1~2회 이하로 연락하는 비율이 6.0%로 타 연령군에 비해 높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배우자 유무별 차이 역시 크지 않다. 왕래 빈도에서는 가구형태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연락 빈도에 있어서는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다. 가구형태별로 주1회 이상 연락 비율을 비교해 보면 노인 독거가구(64.3%)와 노인 부부가구(64.4%)에서 보다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독거가구 중 연 1~2회 이하로 연락하는 비율이 5.9%라는 점에서 적절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별거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연락 빈도 역시 높다. 이는 왕래 빈도와 유사한 경향이다. 별거자녀가 1명일 경우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은 60.9%이나 5명 이상에서는 64.8%이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높다. 무학 노인의 경우 동 비율이 59.6%인데 반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69.5%로 약 10%p 높다. 반대로 연 1~2회 이하 연락하는 비율은 무학 노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7.1%). 취업상태별 차이는 크지 않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높아, 제1오분위의 경우 64.2%였으나 제5분위의 경우 68.4%이다. 연 1~2회 이하 연락하는 비율은 반대로 제1오분위는 6.2%였으나 제5오분위는 1.3%에 그친다. 이같은 경향은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기능상태에 따른 연락 빈도 차이는 크지 않다.

〈표 4-5〉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2회	분기 1~2회	연 1~2회	왕래 없음	계 (명)
전체 ¹⁾	2.5	3.5	10.9	34.8	30.4	17.0	0.9	100.0(9,552)
지역								
동부	2.7	3.6	11.9	36.9	28.9	15.0	1.0	100.0(7,188)
읍·면부	1.8	2.9	7.9	28.1	35.1	23.3	0.8	100.0(2,364)
성								
남자	2.1	3.2	10.6	35.3	30.7	17.0	1.1	100.0(4,145)
여자	2.8	3.7	11.2	34.3	30.2	17.0	0.8	100.0(5,407)
연령								
65~69세	2.0	2.7	11.3	38.5	31.6	13.1	0.8	100.0(3,121)
70~74세	2.4	2.9	9.8	33.6	32.9	17.7	0.7	100.0(2,215)
75~79세	2.5	3.2	11.3	34.4	28.1	19.5	1.2	100.0(2,198)
80~84세	2.4	4.9	11.5	30.3	29.1	20.7	1.1	100.0(1,421)
85세 이상	6.1	7.0	10.6	31.4	26.5	17.3	1.1	100.0(59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5	3.3	10.9	35.1	31.4	16.3	0.6	100.0(6,549)
배우자 없음	2.5	3.9	11.0	34.1	28.3	18.5	1.7	100.0(3,003)
가구형태								
노인독거	2.9	3.9	12.2	34.8	26.3	17.8	2.2	100.0(1,884)
노인부부	2.4	3.3	11.1	34.8	31.4	16.4	0.6	100.0(5,791)
자녀동거	2.2	3.8	8.9	34.2	32.1	18.2	0.7	100.0(1,716)
기타	3.3	0.2	12.8	38.3	25.1	19.2	1.0	100.0(162)
별거자녀수								
1명	2.2	4.2	7.8	34.3	30.5	19.1	1.9	100.0(961)
2명	2.0	3.0	10.9	34.8	31.5	16.6	1.1	100.0(3,493)
3명	2.1	3.2	11.3	36.5	32.0	14.5	0.4	100.0(2,722)
4명	3.2	3.5	11.9	32.8	28.0	20.4	0.2	100.0(1,414)
5명 이상	4.7	4.6	10.7	32.7	27.4	19.4	0.4	100.0(872)
교육수준								
무학	3.0	3.8	8.2	28.7	31.5	23.1	1.8	100.0(1,019)
초등학교	3.2	4.2	10.4	31.5	31.4	18.4	0.9	100.0(3,020)
중학교	1.4	2.9	12.0	35.9	30.2	16.6	1.0	100.0(2,228)
고등학교	2.7	2.5	11.5	39.0	30.2	13.7	0.5	100.0(2,711)
전문대학 이상	1.4	5.7	11.3	38.5	25.3	16.2	1.5	100.0(57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8	2.6	10.8	34.5	30.3	19.1	1.0	100.0(3,391)
미취업	2.9	3.9	11.0	34.9	30.5	15.9	0.9	100.0(6,16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	2.8	10.9	34.8	30.8	16.2	2.2	100.0(1,906)
제2오분위	2.2	3.7	10.6	31.3	28.9	22.5	0.9	100.0(1,941)
제3오분위	3.7	3.4	8.9	33.4	31.2	18.9	0.5	100.0(1,956)
제4오분위	2.3	3.6	11.4	34.8	32.8	14.6	0.7	100.0(1,932)
제5오분위	2.0	3.8	13.0	39.9	28.3	12.7	0.4	100.0(1,81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1	3.4	10.2	32.8	30.1	20.0	1.5	100.0(3,807)
50%이상~100%미만	3.5	3.3	10.1	34.4	31.2	16.8	0.7	100.0(3,240)
100%이상~150%미만	2.1	3.8	11.4	33.0	33.8	15.6	0.3	100.0(1,538)
150%이상	1.2	3.9	15.8	46.5	23.7	8.4	0.5	100.0(967)
기능상태								
제한 없음	2.2	3.3	10.4	34.8	31.1	17.3	0.9	100.0(8,396)
제한 있음	4.4	4.7	14.4	34.7	25.7	14.9	1.1	100.0(1,156)
2017년도 ²⁾	9.6	10.1	18.3	37.0	17.2	5.8	2.1	100.0(9,627)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또는 배우자)가 있는 9,552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4-6〉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연락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2회	분기 1~2회	연 1~2회	왕래 없음	계 (명)
전체 ¹⁾	8.2	23.0	32.3	26.1	6.6	2.9	0.8	100.0(9,552)
지역								
동부	9.0	24.3	31.3	25.1	6.4	3.1	0.8	100.0(7,188)
읍·면부	5.8	19.2	35.3	28.9	7.2	2.6	0.9	100.0(2,364)
성								
남자	6.2	21.9	32.4	29.3	6.9	2.3	0.9	100.0(4,145)
여자	9.8	23.9	32.2	23.6	6.4	3.4	0.8	100.0(5,407)
연령								
65~69세	7.9	25.4	32.4	25.6	6.3	1.7	0.6	100.0(3,121)
70~74세	7.3	21.6	32.8	28.1	7.3	2.4	0.5	100.0(2,215)
75~79세	7.9	22.1	32.5	26.7	5.8	3.9	1.1	100.0(2,198)
80~84세	8.1	21.9	31.8	25.8	6.9	4.4	1.0	100.0(1,421)
85세 이상	15.0	21.7	30.3	19.1	7.9	4.1	1.9	100.0(59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4	22.8	33.5	26.8	6.6	2.5	0.5	100.0(6,549)
배우자 없음	10.0	23.5	29.7	24.5	6.7	3.8	1.6	100.0(3,003)
가구형태								
노인독거	10.2	24.6	29.5	23.3	6.5	4.0	1.9	100.0(1,884)
노인부부	7.3	23.0	34.1	26.1	6.6	2.3	0.5	100.0(5,791)
자녀동거	8.9	21.2	29.7	28.5	6.9	3.9	0.9	100.0(1,716)
기타	12.4	25.0	25.4	29.7	5.1	1.3	1.0	100.0(162)
별거자녀수								
1명	9.5	22.7	28.7	28.4	7.1	2.0	1.7	100.0(961)
2명	6.9	24.8	32.8	26.2	6.0	2.6	0.8	100.0(3,493)
3명	7.5	23.7	33.6	26.4	6.6	1.9	0.4	100.0(2,722)
4명	9.7	20.0	31.1	26.3	7.5	5.0	0.3	100.0(1,414)
5명 이상	12.2	20.3	32.3	22.1	7.3	5.0	0.7	100.0(872)
교육수준								
무학	9.0	21.6	29.0	25.7	7.6	5.0	2.1	100.0(1,019)
초등학교	8.4	20.9	33.6	25.0	7.1	4.2	0.8	100.0(3,020)
중학교	7.0	23.1	32.3	26.8	6.8	2.8	1.0	100.0(2,228)
고등학교	8.8	23.8	32.9	27.0	6.0	1.2	0.3	100.0(2,711)
전문대학 이상	8.2	33.1	28.2	24.9	4.2	1.1	0.3	100.0(574)
현 취업상태								
취업중	6.1	22.3	33.5	27.8	6.5	3.1	0.8	100.0(3,391)
미취업	9.4	23.4	31.6	25.1	6.7	2.8	0.9	100.0(6,16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4	21.8	34.0	24.3	5.2	4.1	2.1	100.0(1,906)
제2오분위	7.8	20.5	31.2	27.1	7.4	5.2	0.8	100.0(1,941)
제3오분위	9.6	20.7	30.1	27.4	8.8	2.8	0.5	100.0(1,956)
제4오분위	7.6	24.5	33.5	26.3	6.3	1.4	0.4	100.0(1,932)
제5오분위	7.8	27.9	32.7	25.2	5.1	1.0	0.3	100.0(1,81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9	21.0	32.3	25.9	6.7	4.8	1.4	100.0(3,807)
50%이상~100%미만	9.5	21.9	31.2	27.5	7.3	1.9	0.6	100.0(3,240)
100%이상~150%미만	7.2	24.6	33.7	26.4	6.0	2.0	0.2	100.0(1,538)
150%이상	7.1	32.0	33.8	21.3	4.8	0.6	0.4	100.0(967)
기능상태								
제한 없음	7.9	23.0	32.6	26.6	6.3	2.9	0.7	100.0(8,396)
제한 있음	10.9	23.2	30.1	22.1	9.1	3.1	1.5	100.0(1,156)
2017년도 ²⁾	28.3	29.4	23.3	14.4	2.1	1.1	1.4	100.0(9,627)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또는 배우자)가 있는 9,552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접촉이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 빈도

비동거자녀 중 접촉(왕래 및 연락)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로는 장남이 3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녀가 36.0%를 차지한다. 거주거리로는 자동차로 30분에서 1시간 이내 거주하는 경우가 25.3%로 가장 많다. 도보로 이동가능한 거리(걸어서 30분 이내 이하)에 자녀가 거주하는 비율은 12.1%로 나타난다. 또한 자동차로 1시간~2시간 내 거주하는 경우는 23.9%, 자동차로 2시간~3시간 내 거주하는 경우는 10.0%, 자동차로 3시간 이상 정도의 거리에 거주하는 경우는 7.8%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0.7%이다.

〈표 4-7〉 노인의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의 제 특성

(단위: %, 명)

특성	비율	(명)	특성	비율	(명)
형제·자매 순위 ¹⁾			거주거리		
장남	38.7	(3,695)	걸어서 10분 이내	3.2	(306)
장남의 배우자	5.0	(475)	걸어서 10분~30분 이내	8.9	(847)
차남	8.8	(845)	자동차로 30분 이내	20.1	(1,923)
차남의 배우자	0.8	(75)	자동차로 30분~1시간 이내	25.3	(2,421)
삼남 이상	1.1	(107)	자동차로 1시간~2시간 정도	23.9	(2,282)
삼남 이상의 배우자	0.2	(16)	자동차로 2시간~3시간 정도	10.0	(956)
장녀	36.0	(3,435)	자동차로 3시간 이상	7.8	(743)
장녀의 남편	0.4	(36)	해외거주	0.7	(65)
차녀	7.4	(704)	기타	0.1	(9)
차녀의 남편	0.1	(9)			
삼녀 이상	1.6	(154)			
삼녀 이상의 남편	0.0	(1)			
계	100.0	(9,552)	계	100.0	(9,552)

주: 1) 전체 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있는 9,552명을 대상으로 함.

다빈도 접촉 자녀와의 왕래 및 연락 빈도는 다음과 같다. 노인의 22.0%는 주1회 이상 왕래하고 있으며, 67.8%는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접촉이 빈번한 자녀의 경우 약 1/5은 주1회 이상 왕래를 하고 2/3는 주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연락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왕래 빈도와 비교하여 연락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24.1%인 반면 읍·면부 노인은 15.9%에 그친다. 동부 노인이 읍·면부 거주 노인에 비해 자녀의 거주지와 보다 근접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연령군별로는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32.2%로 65~69세 연령군의 20.9%에 비해 약 12%p 높다. 이는 전체 비동거자녀와의 왕래 경향과 유사하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자 노인에게서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유배우자 노인에 비해 근소히 높다. 단, 무배우자 노인 중 16.5%는 연 1~2회 이하로 비동거자녀와 왕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가구형태별로는 기타가구를 제외하고 노인 독거가구에서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25.5%로, 노인 부부가구 21.7%, 자녀동거 가구 18.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이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23.3%로 취업 노인 19.8%에 비해 약간 높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대체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높아, 동 비율이 제5오분위의 경우 23.7%로 나타나며 제1오분위는 21.8%이다.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이같은 경향은 유사하여, 50% 미만의 경우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20.9%인 반면 150% 이상인 경우 26.7%이다.

자녀의 거주거리에 따라서 살펴보면, 가까이 거주할수록 왕래 빈도가 높은 경향이 명확하다. 걸어서 10분 이내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거의 매일 왕래하는 비율이 49.3%이며, 89.6%는 주1회 이상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동차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은 도보가 가능한 거리에서 왕래하는 비율보다 매우 낮다. 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이 왕래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는 측면이다. 기능상태에 따른 차이는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29.3%로 제한이 없는 노인의 21.0%에 비해 높다. 기능제한에 따른 일상생활 제약으로 인해 자녀와의 왕래가 촉진된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표 4-8〉 노인의 일반특성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왕래 없음	계(명)
전체 ¹⁾	3.4	6.4	12.2	33.7	30.4	12.9	1.0	100.0(9,552)
지역								
동부	3.6	6.7	13.8	34.8	28.6	11.5	1.1	100.0(7,188)
읍·면부	2.6	5.8	7.5	30.3	35.8	17.2	0.8	100.0(2,364)
성								
남자	3.0	6.2	11.5	34.7	30.4	13.0	1.1	100.0(4,145)
여자	3.6	6.6	12.7	32.9	30.4	12.8	0.9	100.0(5,407)
연령								
65~69세	2.9	5.6	12.4	36.8	30.9	10.6	0.8	100.0(3,121)
70~74세	3.0	4.9	11.4	34.5	32.0	13.4	0.7	100.0(2,215)
75~79세	3.5	6.5	12.7	31.6	29.5	14.8	1.3	100.0(2,198)
80~84세	3.2	8.2	11.9	30.6	29.7	15.1	1.3	100.0(1,421)
85세 이상	6.6	11.9	13.7	29.7	27.0	10.3	0.9	100.0(59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4	6.1	12.0	34.4	31.5	12.0	0.7	100.0(6,549)
배우자 없음	3.3	7.2	12.7	32.1	28.1	14.9	1.6	100.0(3,003)
가구형태								
노인독거	3.4	8.3	13.8	33.0	25.3	14.2	2.0	100.0(1,884)
노인부부	3.4	6.0	12.3	34.3	31.6	11.7	0.8	100.0(5,791)
자녀동거	3.3	6.0	9.4	32.3	32.4	15.8	0.7	100.0(1,716)
기타	3.3	5.7	19.5	34.2	26.0	11.3	0.0	100.0(162)
교육수준								
무학	4.1	8.2	9.2	28.2	33.2	15.6	1.6	100.0(1,019)
초등학교	4.1	7.4	10.9	30.6	31.9	14.2	0.9	100.0(3,020)
중학교	2.6	4.9	13.6	35.5	30.4	12.1	1.0	100.0(2,228)
고등학교	3.2	5.7	13.8	36.6	29.0	11.3	0.5	100.0(2,711)
전문대학 이상	1.8	8.1	11.8	39.4	24.2	12.2	2.6	100.0(574)
현 취업상태								
취업중	2.7	5.5	11.6	34.0	29.1	16.1	0.9	100.0(3,391)
미취업	3.7	7.0	12.6	33.5	31.1	11.1	1.0	100.0(6,16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9	5.8	13.1	32.9	30.3	12.8	2.2	100.0(1,906)
제2오분위	2.9	7.1	10.7	32.7	29.4	16.5	0.7	100.0(1,941)
제3오분위	4.9	7.1	10.6	31.6	30.3	14.8	0.6	100.0(1,956)
제4오분위	3.0	6.6	11.9	33.5	33.6	10.7	0.8	100.0(1,932)
제5오분위	3.0	5.7	15.0	38.0	28.3	9.4	0.6	100.0(1,81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9	6.5	11.5	32.5	30.1	15.1	1.4	100.0(3,807)
50%이상~100%미만	4.5	6.8	11.4	32.7	31.1	12.7	0.8	100.0(3,240)
100%이상~150%미만	3.0	4.9	12.4	32.6	34.9	11.4	0.7	100.0(1,538)
150%이상	1.7	7.8	17.2	43.4	22.1	7.3	0.5	100.0(967)
거주거리								
걸어서 10분 이내	49.3	23.8	16.5	8.4	1.7	0.0	0.2	100.0(306)
걸어서 10분~30분 이내	11.4	26.2	31.2	24.5	6.0	0.5	0.2	100.0(847)
자동차로 30분 이내	2.3	8.4	22.6	47.4	17.9	1.2	0.2	100.0(1,923)
자동차로 30분~1시간 이내	0.8	4.0	12.5	47.3	31.3	3.9	0.2	100.0(2,421)
자동차로 1시간~2시간 정도	0.2	1.7	3.8	32.7	44.0	17.0	0.5	100.0(2,282)
자동차로 2시간~3시간 정도	0.4	1.5	1.7	14.4	52.7	26.9	2.4	100.0(956)
자동차로 3시간 이상	0.0	1.0	1.4	5.6	31.4	58.7	1.8	100.0(743)
해외거주	0.6	0.0	2.6	5.6	7.2	38.2	45.8	100.0(65)
기타	0.0	0.0	0.0	3.4	4.4	33.2	59.0	100.0(9)
기능상태								
제한 없음	3.0	6.4	11.6	33.6	31.1	13.3	1.0	100.0(8,396)
제한 있음	5.6	7.1	16.6	34.3	25.6	9.6	1.2	100.0(1,156)
2017년도 ²⁾	8.0	7.2	17.3	35.5	22.0	7.9	2.1	100.0(9,627)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또는 배우자)가 있는 9,552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다빈도 접촉 자녀와의 제 특성별 연락 빈도는 다음과 같다. 주1회 이상 연락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별 차이는 적다. 성별에 있어서 남자 노인은 64.8%가 주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여자 노인은 동 응답에 70.2%가 해당하여 보다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음을 알 수 있다. 주1회 이상을 기준으로 한 연락 빈도는 연령군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비율은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16.6%로 가장 높다. 한편 유배우 노인인 경우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은 68.4%로 무배우 노인의 66.9%에 비해 약간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독거가구에서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빈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높아, 무학 노인의 경우 동 비율이 65.0%인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70.5%이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빈번히 연락하는 비율은 높고 연락이 전혀 없는 비율은 낮다. 취업 여부에 따른 연락 빈도의 차이는 크지 않다. 가구소득에 따른 연락 빈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연 1~2회 이하로 연락하는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다(제1오분위 4.4%, 제5오분위 1.2%). 이같은 경향성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유사하다.

자녀와의 거주거리를 중심으로 볼 때, 왕래 빈도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거주지와 근접성이 높을수록 주1회 연락하는 비율이 높다. 자녀가 걸어서 10분 이내 거주하는 경우 동 비율은 94.1%로 매우 높다. 근접성이 떨어질수록 연락 빈도 역시 낮아지는 경향이 높으며, 이는 왕래 빈도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한편 기능상태의 경우,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68.2%로 제한이 있는 노인의 65.3%보다 약간 높다.

〈표 4-9〉 노인의 일반특성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연락 없음	계(명)
전체 ¹⁾	9.8	25.8	32.2	20.7	8.7	1.7	1.0	100.0(9,552)
지역								
동부	10.7	25.6	31.6	20.2	9.0	1.8	1.0	100.0(7,188)
읍·면부	7.3	26.4	34.1	22.1	8.0	1.2	0.9	100.0(2,364)
성								
남자	7.8	24.4	32.6	23.2	8.8	2.2	1.1	100.0(4,145)
여자	11.4	26.9	31.9	18.8	8.7	1.3	1.0	100.0(5,407)
연령								
65~69세	9.3	27.0	32.1	20.9	8.8	1.3	0.7	100.0(3,121)
70~74세	8.9	23.7	32.6	23.2	9.2	1.6	0.8	100.0(2,215)
75~79세	10.5	26.1	32.2	19.5	8.5	1.9	1.3	100.0(2,198)
80~84세	8.6	27.1	32.6	19.7	8.1	2.4	1.4	100.0(1,421)
85세 이상	16.6	23.5	30.5	16.8	9.4	1.9	1.3	100.0(59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2	26.4	32.8	21.0	8.4	1.5	0.7	100.0(6,549)
배우자 없음	11.3	24.7	30.9	20.0	9.5	2.0	1.7	100.0(3,003)
가구형태								
노인독거	11.7	25.6	32.2	18.6	7.7	2.2	2.0	100.0(1,884)
노인부부	8.9	26.8	33.5	20.4	8.4	1.4	0.7	100.0(5,791)
자녀동거	10.5	22.7	27.9	24.5	11.2	2.2	1.0	100.0(1,716)
기타	17.0	27.1	31.5	15.4	7.5	0.6	1.0	100.0(162)
교육수준								
무학	12.9	24.4	27.7	19.2	10.4	3.6	1.8	100.0(1,019)
초등학교	9.9	25.0	33.6	19.2	9.6	1.6	1.1	100.0(3,020)
중학교	9.3	25.1	33.2	20.8	8.8	1.6	1.1	100.0(2,228)
고등학교	9.2	25.9	32.8	22.4	8.0	1.2	0.5	100.0(2,711)
전문대학 이상	9.2	35.2	26.1	22.6	4.8	1.3	0.8	100.0(574)
현 취업상태								
취업중	7.3	25.2	34.4	21.9	8.5	1.9	0.8	100.0(3,391)
미취업	11.2	26.2	31.0	20.0	8.9	1.6	1.1	100.0(6,16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7	24.3	36.2	18.6	6.9	2.2	2.2	100.0(1,906)
제2오분위	9.3	27.1	31.7	21.3	7.4	2.2	1.0	100.0(1,941)
제3오분위	12.3	22.9	30.7	20.0	11.4	2.0	0.7	100.0(1,956)
제4오분위	8.1	26.9	31.3	21.6	10.1	1.2	0.7	100.0(1,932)
제5오분위	9.7	28.1	31.2	22.0	7.9	0.8	0.4	100.0(1,81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5	25.6	33.5	20.0	7.5	2.4	1.5	100.0(3,807)
50%이상~100%미만	11.7	24.1	31.3	20.7	10.1	1.2	0.9	100.0(3,240)
100%이상~150%미만	8.1	25.9	28.8	24.5	10.9	1.7	0.2	100.0(1,538)
150%이상	7.7	32.5	35.7	17.2	5.9	0.6	0.4	100.0(967)
거주거리								
걸어서 10분 이내	57.0	26.1	11.0	3.6	2.0	0.0	0.2	100.0(306)
걸어서 10분~30분 이내	23.5	44.0	21.5	6.4	3.9	0.2	0.5	100.0(847)
자동차로 30분 이내	9.3	34.2	35.1	13.8	6.2	1.1	0.3	100.0(1,923)
자동차로 30분~1시간 이내	7.3	23.8	38.5	22.0	7.0	0.9	0.5	100.0(2,421)
자동차로 1시간~2시간 정도	5.7	20.2	31.4	28.5	11.8	1.6	0.9	100.0(2,282)
자동차로 2시간~3시간 정도	4.2	16.6	30.4	28.7	15.4	2.3	2.3	100.0(956)
자동차로 3시간 이상	4.1	19.2	32.4	23.6	11.6	7.4	1.6	100.0(743)
해외거주	12.2	25.5	13.1	17.7	8.9	3.4	19.2	100.0(65)
기타	18.5	0.0	7.6	14.8	0.0	2.5	56.5	100.0(9)
가능상태								
제한 없음	9.4	26.0	32.8	20.8	8.4	1.7	0.9	100.0(8,396)
제한 있음	12.7	24.3	28.3	20.1	11.1	1.8	1.6	100.0(1,156)
2017년도 ²⁾	21.0	23.4	31.7	18.1	2.8	1.5	1.4	100.0(9,627)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또는 배우자)가 있는 9,552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 자녀와의 갈등

자녀는 다양한 상황에서 노인의 결속형 자본으로서 기능한다. 관련하여 살펴본 자녀와의 갈등 경험에 대해서 노인의 6.1%는 이를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갈등이 있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본 결과,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19.2%로 가장 높고, 다음은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 18.7%,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돌봄 문제 16.5%, 자녀의 장래 문제 15.0%, 노인의 생활비 보조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의존과 관련한 요인이 약 1/3, 노인의 의존성과 관련한 요인이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갈등 경험률을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다. 성별로는 남자보다 여자 노인이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군별로는 75~79세 연령군에서 갈등 경험률이 6.6%로 타 연령군보다 약간 높고, 가구유형별로는 자녀동거 가구에서 9.5%로 타 가구유형에 비해 높다.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경향성은 없으나,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이 8.9%로 월등히 높다. 취업한 노인이 미취업 노인보다 갈등 경험률이 높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제5오분위에서 갈등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유사하여, 150% 이상 소득수준 노인은 12.2%가 자녀와의 갈등을 경험하였으나 50% 미만의 경우 4.9%에 그친다. 기능상태와 관련해서는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에게서 갈등 경험률이 10.1%로 제한이 없는 노인의 5.6%에 비해 약 2배 높다.

갈등 경험 이유에 대해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부 노인은 동거 여부 또는 자녀와 관련한 요인(경제적 도움, 장래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읍·면부 노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돌봄 문제(19.1%), 노인의 생활비 보조(20.8%)를 둘러싼 갈등이 동부 노인에 비해 높다. 성별과 관련해서는 여자 노인의 경우 자녀의 장래 문제(16.4%), 손자녀 양육 방식(12.5%)과 관련하여 남자 노인에 비해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남자 노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돌봄 문제(19.2%),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20.3%), 노인의 생활비 보조(15.0%) 등과 같이 보다 실리적인 이유와 관련하여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군별로는 노인의 연령이 많을수록 대체로 동거여부를 둘러싼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33.3%에 이른다. 한편 노인의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의 장래 문제 또는 손자녀 양육방식과 관련한 갈등을 더 많이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65~69세 연령군에서 동 비율은 각각 21.3%, 14.8%이다.

가구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독거가구에서는 동거여부(27.5%), 노인의 생활비 보조(22.2%) 등에 의해 갈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노인 부부가구에서는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22.6%), 노인의 돌봄문제(18.1%), 동거 여부(14.1%) 등으로 인한 갈등을 많이 경험한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임에 따라 노인의 의존성과 관련한 요인으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녀동거 가구에서는 자녀의 장래 문제(24.0%), 동거 여부(22.8%) 등과 관련한 갈등 경험률이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장래문제와 관련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경우 동 응답이 21.3%인 반면 무학 노인은 7.6%에 그친다. 단 무학 노인은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24.7%)나 노인 생활비 보조(27.2%)와 관련한 갈등을 타 교육수준의 노인에 비해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경제적 요인과 관련한 자녀갈등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이다.

취업여부와 관련하여 취업 중인 노인은 동거 여부(21.9%),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20.1%)로 인한 갈등을 미취업 노인에 비해 많이 경험한다. 한편 미취업 노인은 돌봄 문제(18.4%), 손자녀 양육과 관련한 갈등(11.0%)을 취업 노인에 비해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인의 생활비 보조와 같이 노인의 의존성과 관련한 이유로 갈등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손자녀 양육과 관련한 갈등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며, 다른 이유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서 이러한 경향성은 보다 명확하다.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의 경우, 노인의 생활비 보조로 인한 갈등이 24.4%로 매우 높다. 손자녀 양육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은 2.6%만 경험하는 것에 반해, 150% 이상의 노인은 13.2%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기능상태와 관련해서는 제한이 있는 노인은 돌봄을 둘러싼 갈등이 38.7%로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제한이 없는 노인은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나 자녀의 장래 문제로 인한 갈등을 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19.4%, 16.5%).

〈표 4-10〉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녀와의 갈등 실태

(단위: %, 명)

특성	갈등 경험률 ¹⁾	이유 ²⁾									계 (명)
		동거 여부	돌봄 문제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	노인 생활비 보조	편애	자녀 장래 문제	손자녀 양육 방식	나의 이성, 결혼 문제	기타	
전체	6.1	19.2	16.5	18.7	12.9	1.4	15.0	9.2	2.6	4.6	100.0 (604)
지역											
동부	6.2	20.4	15.7	19.8	10.3	1.1	16.7	10.5	3.5	2.2	100.0 (459)
읍·면부	6.0	15.5	19.1	15.5	20.8	2.3	9.6	4.9	0.0	12.2	100.0 (146)
성											
남자	5.9	19.5	19.2	20.3	15.0	1.5	13.0	4.5	1.2	5.7	100.0 (251)
여자	6.3	19.0	14.6	17.6	11.3	1.3	16.4	12.5	3.6	3.8	100.0 (353)
연령											
65~69세	5.9	14.7	14.4	17.6	9.0	0.4	21.3	14.8	6.1	1.7	100.0 (197)
70~74세	6.4	18.9	16.5	23.7	13.5	4.9	13.0	5.9	0.9	2.7	100.0 (150)
75~79세	6.6	24.6	11.9	18.5	12.9	0.0	13.9	8.2	0.9	9.2	100.0 (148)
80~84세	5.6	14.8	31.7	14.2	20.5	0.0	5.2	6.0	0.0	7.6	100.0 (76)
85세 이상	5.8	33.3	14.3	14.2	15.4	0.0	13.1	2.5	4.0	3.2	100.0 (33)
가구형태											
노인독거	5.8	27.5	13.8	13.7	22.2	0.3	10.2	5.0	1.5	5.8	100.0 (115)
노인부부	5.1	14.1	18.1	22.6	12.4	2.6	10.8	13.3	1.1	5.0	100.0 (300)
자녀동거	9.5	22.8	15.3	15.6	8.2	0.0	24.0	4.9	5.8	3.3	100.0 (185)
기타	4.2	0.0	25.2	16.8	0.0	0.0	38.5	19.6	0.0	0.0	100.0 (5)
교육수준											
무학	6.8	15.9	13.5	24.7	27.2	0.6	7.6	10.5	0.0	0.0	100.0 (68)
초등학교	5.5	25.6	14.5	20.8	12.5	2.0	12.0	1.1	0.7	10.7	100.0 (174)
중학교	5.3	27.1	17.7	13.0	12.7	2.7	11.0	10.9	3.5	1.3	100.0 (121)
고등학교	6.7	10.6	20.4	18.8	8.6	0.5	21.1	13.4	5.5	1.1	100.0 (188)
전문대학 이상	8.9	14.7	10.3	17.4	11.1	0.0	21.3	14.9	0.0	10.3	100.0 (54)
현 취업상태											
취업중	6.3	21.9	13.3	20.1	12.7	2.3	14.3	6.1	2.5	6.9	100.0 (225)
미취업	6.0	17.6	18.4	18.0	13.0	0.8	15.4	11.0	2.7	3.2	100.0 (38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6	14.7	11.6	18.0	23.3	2.0	14.7	2.4	1.8	11.5	100.0 (107)
제2오분위	4.6	16.0	10.7	14.3	28.2	1.0	15.7	5.6	1.3	7.2	100.0 (93)
제3오분위	4.4	26.1	18.5	13.9	12.2	0.9	14.1	10.4	3.8	0.0	100.0 (89)
제4오분위	6.8	24.8	16.7	27.4	5.5	2.5	12.4	7.2	1.5	1.9	100.0 (135)
제5오분위	9.2	15.8	21.3	17.4	4.6	0.5	17.1	15.9	4.0	3.4	100.0 (18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9	14.2	14.0	15.3	24.4	1.6	16.5	2.6	1.5	9.9	100.0 (193)
50%이상~100%미만	5.6	25.9	15.9	21.0	9.3	1.4	13.3	10.7	2.5	0.0	100.0 (186)
100%이상~150%미만	6.1	17.0	14.2	25.6	8.8	1.6	14.1	14.0	2.1	2.6	100.0 (98)
150%이상	12.2	18.7	23.0	15.2	3.7	0.8	15.8	13.2	4.9	4.8	100.0 (127)
기능상태											
제한 없음	5.6	20.5	11.8	19.4	12.9	1.6	16.5	9.7	3.2	4.3	100.0 (498)
제한 있음	10.1	13.2	38.7	16.0	12.3	0.0	7.5	6.6	0.0	5.7	100.0 (107)
2017년도 ³⁾	7.8	9.5	13.6	20.9	14.0	2.6	33.7	-	-	6.1	100.0 (770)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생존 자녀가 있는 9,617명을 대상으로 함. 2)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604명을 대상으로 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017년과 일부 선택지가 상이함.

제4절 손자녀와의 접촉

비동거 손자녀와의 접촉 실태를 왕래 및 연락 빈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동거 손자녀와의 왕래 빈도는 분기에 1~2회가 38.8%, 연 1~2회가 32.0%, 월 1회 17.9% 등의 순이다.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은 8.6%에 그치며, 월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은 26.5%로 비동거자녀에 비해 왕래 빈도가 낮다. 손자녀와의 접촉은 대부분 노인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연락 빈도는 월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35.4%,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17.5%로 나타나 왕래 빈도에 비해서는 높다.

손자녀와의 왕래 실태를 제 특성별로 비교해 보면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왕래 빈도가 높다. 주1회 이상 왕래를 기준으로 동부 노인은 10.0%가 해당하는 반면 읍·면부 노인은 4.3%에 불과하다. 이는 비동거자녀와의 왕래 빈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 또는 손자녀와 노인간 지리적 근접성이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성별과 관련한 차이는 적다. 연령군별로는 노인의 연령이 적을수록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동 비율이 65~69세는 11.8%이나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6.3%로 나타나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이 무배우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왕래를 하고 있다. 주1회 이상 왕래를 기준으로 유배우 노인은 9.1%가 왕래하고 있으나 무배우 노인은 7.3%로 나타난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 부부가구에서 주1회 이상 왕래 비율이 9.2%로 타 가구유형에 비해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경우 주1회 이상 손자녀와 왕래하는 비율이 12.6%였으나, 무학 노인은 동 비율이 3.7%에 그친다. 취업상태별 차이는 크지 않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에 있어서도 동일한 경향을 띤다. 기능상태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제한이 없는 노인이 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해 손자녀와 활발히 왕래하는 경향이 있다. 주1회 이상 손자녀와 왕래하는 비율이 제한이 없는 노인은 9.0%인데 반해 제한이 있는 노인은 5.6%에 그친다.

〈표 4-11〉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왕래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왕래 없음	계	(명)
전체 ¹⁾	1.3	2.2	5.1	17.9	38.8	32.0	2.7	100.0	(8,829)
지역									
동부	1.6	2.3	6.1	20.1	38.4	28.8	2.8	100.0	(6,579)
읍·면부	0.5	1.7	2.1	11.7	39.9	41.5	2.6	100.0	(2,250)
성									
남자	1.5	2.2	5.1	20.0	39.0	29.7	2.5	100.0	(3,797)
여자	1.2	2.1	5.1	16.4	38.5	33.8	2.9	100.0	(5,032)
연령									
65~69세	1.5	2.4	7.9	24.4	40.8	21.7	1.3	100.0	(2,721)
70~74세	1.5	1.8	5.2	19.0	40.4	30.0	2.1	100.0	(2,075)
75~79세	1.4	1.9	3.8	16.2	37.9	36.0	2.8	100.0	(2,067)
80~84세	0.7	2.5	2.3	9.4	35.2	45.2	4.6	100.0	(1,376)
85세 이상	1.1	2.6	2.6	9.9	34.7	42.2	6.9	100.0	(59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5	2.2	5.4	19.7	40.0	29.1	2.0	100.0	(6,037)
배우자 없음	0.9	2.1	4.3	14.1	36.0	38.4	4.2	100.0	(2,792)
가구형태									
노인독거	1.1	2.4	5.0	14.4	35.2	37.3	4.6	100.0	(1,746)
노인부부	1.4	2.1	5.7	19.3	40.3	29.1	2.1	100.0	(5,365)
자녀동거	1.2	2.1	3.5	17.2	37.0	36.7	2.4	100.0	(1,579)
기타	0.6	4.6	0.7	16.7	44.5	25.6	7.4	100.0	(140)
교육수준									
무학	0.7	1.9	1.1	8.3	32.9	48.5	6.6	100.0	(997)
초등학교	1.4	2.2	3.5	12.6	39.5	38.1	2.7	100.0	(2,823)
중학교	0.9	1.8	5.6	19.8	40.9	28.8	2.2	100.0	(2,052)
고등학교	1.8	2.1	7.7	23.7	39.6	23.5	1.6	100.0	(2,442)
전문대학 이상	1.2	4.3	7.1	31.1	33.5	20.3	2.5	100.0	(515)
현 취업상태									
취업중	0.8	2.1	5.8	20.9	37.1	31.1	2.1	100.0	(3,058)
미취업	1.6	2.2	4.7	16.4	39.6	32.5	3.0	100.0	(5,77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	1.5	4.2	14.9	38.6	35.5	4.2	100.0	(1,807)
제2오분위	1.2	2.0	3.9	13.6	36.6	38.4	4.2	100.0	(1,810)
제3오분위	2.0	1.9	3.7	15.5	41.6	33.3	2.0	100.0	(1,818)
제4오분위	0.9	3.3	5.5	20.7	39.7	27.7	2.2	100.0	(1,739)
제5오분위	1.4	2.1	8.3	25.7	37.1	24.4	0.9	100.0	(1,65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	1.7	3.8	14.0	38.1	37.1	4.0	100.0	(3,579)
50%이상~100%미만	1.5	2.8	4.3	17.5	40.4	31.3	2.2	100.0	(2,984)
100%이상~150%미만	1.6	2.1	6.1	19.5	41.2	28.3	1.3	100.0	(1,403)
150%이상	0.8	1.9	11.1	33.2	31.9	19.8	1.2	100.0	(86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3	2.3	5.4	18.0	39.6	31.0	2.3	100.0	(7,721)
제한 있음	1.1	1.5	2.8	17.2	32.6	39.0	5.7	100.0	(1,108)
2017년도 ²⁾	4.3	3.0	7.0	19.8	27.4	33.5	5.2	100.0	(9,081)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손자녀가 있는 8,82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 특성별 연락 빈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주1회 이상 손자녀와 연락하는 비율이 높아 18.8%이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에 비해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근소하게 높다(남자 18.1%, 여자 17.1%). 연령군별로는 왕래 빈도와 유사하게 연령이 많을수록 주1회 이상 연락 비율이 낮다. 65~69세에서는 동 비율이 25.1%였으나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11.0%로 약 2배 정도의 차이가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 부부가구에서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18.5%이며, 독거가구는 16.8%, 자녀동거 가구는 15.3% 순이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1회 이상 빈번히 연락하는 비율이 높아,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경우 29.2%가 이에 해당한다. 취업상태와 관련해서는 취업 노인이 미취업 노인에 비해 보다 활발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주1회 이상 연락을 기준으로 취업 노인은 21.0%가 이에 해당한 반면 미취업 노인은 15.7%이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높다. 제5오분위의 경우 24.4%가 주1회 이상 연락을 하고 있으나, 제1오분위는 15.4%로 나타난다. 이는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동일하여, 150% 이상인 경우 동 비율이 31.5%이며 50% 미만인 경우 15.1%가 해당한다. 기능상태와 관련해서는 왕래 빈도와 동일하게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18.7%로 제한이 있는 노인보다 높다. 반면 연락이 없는 비율은 제한이 있는 노인이 20.6%로 제한이 없는 노인의 12.3%에 비해 높다.

〈표 4-12〉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연락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연락 없음	계 (명)
전체 ¹⁾	1.3	5.5	10.7	17.9	29.6	21.7	13.3	100.0 (8,829)
지역								
동부	1.5	5.9	11.4	18.3	28.8	20.9	13.2	100.0 (6,579)
읍·면부	0.6	4.6	8.7	16.8	31.9	23.9	13.5	100.0 (2,250)
성								
남자	1.4	5.7	11.0	19.1	29.5	20.2	13.2	100.0 (3,797)
여자	1.2	5.4	10.5	17.0	29.7	22.8	13.4	100.0 (5,032)
연령								
65~69세	1.9	9.0	14.2	20.8	29.9	13.9	10.3	100.0 (2,721)
70~74세	1.1	4.5	11.6	20.4	30.3	19.4	12.7	100.0 (2,075)
75~79세	1.0	3.8	9.6	16.7	30.0	25.1	13.8	100.0 (2,067)
80~84세	0.6	3.7	6.0	12.6	29.8	31.4	16.0	100.0 (1,376)
85세 이상	1.2	3.8	6.0	12.6	24.2	30.6	21.6	100.0 (59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	5.8	11.2	18.8	30.3	20.1	12.4	100.0 (6,037)
배우자 없음	1.1	4.9	9.6	16.0	28.0	25.0	15.4	100.0 (2,792)
가구형태								
노인독거	1.1	5.5	10.2	15.7	27.9	23.5	16.0	100.0 (1,746)
노인부부	1.4	5.8	11.3	18.2	30.3	20.5	12.6	100.0 (5,365)
자녀동거	1.1	4.8	9.4	19.3	29.2	23.8	12.4	100.0 (1,579)
기타	0.7	3.2	8.0	19.7	30.0	19.8	18.6	100.0 (140)
교육수준								
무학	0.7	2.2	4.0	9.8	27.4	32.1	23.8	100.0 (997)
초등학교	0.8	4.4	8.7	15.1	31.3	27.6	12.0	100.0 (2,823)
중학교	1.5	4.8	12.0	19.8	30.1	17.9	13.9	100.0 (2,052)
고등학교	1.9	6.1	14.8	21.6	29.8	15.5	10.3	100.0 (2,442)
전문대학 이상	1.2	18.5	9.5	24.2	21.5	13.3	11.8	100.0 (515)
현 취업상태								
취업중	0.9	7.2	12.9	19.2	28.0	20.9	10.9	100.0 (3,058)
미취업	1.5	4.7	9.5	17.2	30.5	22.1	14.6	100.0 (5,77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8	5.1	9.5	16.5	29.8	24.9	13.3	100.0 (1,807)
제2오분위	1.3	5.0	9.5	14.5	27.7	24.9	17.1	100.0 (1,810)
제3오분위	2.2	3.3	8.4	18.4	33.2	21.5	13.1	100.0 (1,818)
제4오분위	0.9	5.9	11.9	20.0	28.8	19.3	13.2	100.0 (1,739)
제5오분위	1.1	8.7	14.6	20.5	28.4	17.2	9.5	100.0 (1,65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1	4.8	9.2	15.5	29.0	25.2	15.2	100.0 (3,579)
50%이상~100%미만	1.5	4.6	9.7	18.5	31.8	20.8	13.1	100.0 (2,984)
100%이상~150%미만	1.3	5.1	12.2	18.4	29.5	20.8	12.7	100.0 (1,403)
150%이상	1.1	12.7	17.7	25.2	24.6	11.7	7.2	100.0 (86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3	6.0	11.4	17.7	30.0	21.3	12.3	100.0 (7,721)
제한 있음	1.2	2.3	6.0	19.3	26.7	23.9	20.6	100.0 (1,108)
2017년도 ²⁾	3.0	3.9	8.9	21.2	15.9	19.6	26.4	100.0 (9,081)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손자녀가 있는 8,829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5절 친인척과의 접촉

노인의 친인척과의 접촉 실태를 왕래 및 연락 빈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중 4.7%만이 주1회 이상 친인척과 왕래하고 있으며, 월 1회는 12.0%, 분기 1~2회 이하가 다수를 차지한다. 연락 빈도는 20.3%가 주1회 이상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와 비교하여 왕래 및 연락 빈도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연락 빈도에 있어서는 손자녀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친인척과의 왕래 빈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에 비해 친인척과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약간 높다. 성별로는 동 응답에 대해 여자 노인이 5.3%로 남자 노인 3.9%에 비해 약간 높은 왕래 수준을 보인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친인척과의 왕래 빈도가 높다. 친인척 역시 노인과 동년배로 연령이 높을수록 직접적인 대면을 바탕으로 한 왕래의 어려움을 갖기 때문으로 보인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친인척과 왕래가 전혀 없는 비율은 14.9%로 유배우자 노인의 8.7%에 비해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의 14.7%가 왕래가 전혀 없으며, 자녀동거 가구는 동 비율이 11.4%, 노인 부부가구는 8.8%이다. 가까운 친인척 수별로는 가까운 친인척 수가 많을수록 왕래가 없는 비율은 극히 적다. 즉 가용할 수 있는 관계자원의 규모와 친인척과의 왕래 빈도간 관련성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왕래가 전혀 없다는 비율은 적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노인이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비율이 5.0%로 미취업 노인의 4.5%에 비해 조금 높다. 반면 전혀 왕래가 없는 비율은 미취업 노인이 12.4%로 취업 노인에 비해 약 5%p 높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왕래가 없는 비율이 낮아, 제5오분위에서는 5.6%로 나타난다. 이같은 경향은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 있어도 동일하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에게서 왕래가 전혀 없다는 비율이 22.5%로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9.2%에 비해 매우 높다.

〈표 4-13〉 노인의 일반특성별 친인척과의 왕래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왕래 없음	계 (명)
전체 ¹⁾	0.7	1.7	2.3	12.0	26.8	45.9	10.6	100.0 (8,053)
지역								
동부	0.6	1.5	2.2	12.1	27.2	45.8	10.6	100.0 (6,263)
읍·면부	1.0	2.4	2.8	11.5	25.5	46.1	10.7	100.0 (1,790)
성								
남자	0.4	1.4	2.1	11.6	26.4	48.2	9.9	100.0 (3,515)
여자	0.9	1.9	2.5	12.2	27.2	44.2	11.1	100.0 (4,539)
연령								
65~69세	0.6	1.8	2.7	15.2	33.9	41.5	4.3	100.0 (2,967)
70~74세	0.5	1.7	2.7	11.5	27.7	47.8	8.1	100.0 (1,939)
75~79세	0.9	1.9	2.0	9.9	20.6	50.3	14.4	100.0 (1,821)
80~84세	0.8	1.1	1.8	8.3	18.2	49.0	20.8	100.0 (974)
85세 이상	0.6	1.9	0.3	8.1	18.5	41.8	28.7	100.0 (35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4	1.4	2.4	12.4	27.3	47.4	8.7	100.0 (5,608)
배우자 없음	1.3	2.3	2.2	10.9	25.8	42.6	14.9	100.0 (2,446)
가구형태								
노인독거	1.3	2.1	2.9	12.3	25.9	40.7	14.7	100.0 (1,445)
노인부부	0.4	1.4	2.3	12.7	26.8	47.4	8.8	100.0 (4,853)
자녀동거	0.6	2.0	1.5	9.6	27.1	47.7	11.4	100.0 (1,610)
기타	3.7	2.1	5.1	8.3	34.0	27.7	19.1	100.0 (146)
가까운 친인척수								
0명	0.2	0.4	0.8	4.5	10.3	42.2	41.6	100.0 (633)
1명	1.0	0.9	1.3	8.9	22.0	49.9	15.9	100.0 (1,811)
2명	0.5	2.0	3.1	13.7	27.9	46.9	5.9	100.0 (2,730)
3명 이상	0.7	2.2	2.7	14.1	33.3	43.4	3.6	100.0 (2,778)
교육수준								
무학	0.8	1.1	1.6	7.5	11.2	48.0	29.8	100.0 (651)
초등학교	1.0	2.1	2.3	9.8	23.6	49.0	12.2	100.0 (2,472)
중학교	0.9	1.7	2.5	12.0	29.9	44.0	9.0	100.0 (1,935)
고등학교	0.3	1.5	2.7	12.8	32.2	45.1	5.3	100.0 (2,447)
전문대학 이상	0.2	1.5	1.1	23.0	25.3	39.6	9.3	100.0 (548)
현 취업상태								
취업중	0.5	1.9	2.6	12.8	26.8	47.9	7.5	100.0 (2,996)
미취업	0.8	1.6	2.1	11.5	26.9	44.8	12.4	100.0 (5,05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8	1.8	2.9	11.5	25.5	45.2	12.2	100.0 (1,494)
제2오분위	0.5	1.5	2.1	9.9	23.0	46.9	16.0	100.0 (1,542)
제3오분위	0.8	1.9	2.0	11.3	26.4	45.3	12.2	100.0 (1,631)
제4오분위	0.7	1.3	1.6	10.4	28.2	50.1	7.6	100.0 (1,703)
제5오분위	0.5	1.9	3.0	16.4	30.6	42.0	5.6	100.0 (1,68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6	1.6	2.2	10.7	24.1	46.9	13.9	100.0 (3,040)
50%이상~100%미만	1.0	1.7	2.2	11.0	26.5	46.7	10.8	100.0 (2,726)
100%이상~150%미만	0.4	1.8	2.5	11.0	28.0	49.2	7.2	100.0 (1,386)
150%이상	0.5	1.9	2.6	20.7	35.3	35.0	4.0	100.0 (901)
기능상태								
제한 없음	0.7	1.8	2.4	11.9	28.1	45.8	9.2	100.0 (7,245)
제한 있음	0.6	1.0	1.3	12.4	15.2	46.9	22.5	100.0 (809)
2017년도 ²⁾	1.9	1.2	2.5	11.1	18.8	43.2	21.3	100.0 (10,073)

주: 1) 전체응답자 중 생존 형제자매가 있는 8,053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연락 빈도와 관련한 제 특성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읍·면 부 노인보다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근소하게 높다는 점에서, 왕래 경향과는 차이가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왕래 빈도와 유사하게 여자 노인의 연락 빈도가 남자 노인에 비해 많다.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의 경우, 여자 노인은 24.9%인 반면 남자 노인은 14.5%에 그친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동 비율이 25.4%로 85세 이상 연령군의 13.2%보다 약 2배 높다. 반면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는 비율 역시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18.1%로 나타나 타 연령군보다 월등히 높다. 배우자 유무와 관련해서는 무배우 노인에게서 전혀 연락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로 유배우 노인보다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가까운 친인척 수별로는 가까운 친인척이 없는 경우 27.2%가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며, 3명 이상인 경우는 동 응답이 0.8%에 그친다. 가깝게 지내는 친인척이 많을수록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연락이 없다는 응답이 높다. 미취업 노인에게도 이러한 경향이 발견된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중위소득 150% 이상 소득수준 노인의 경우,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28.6%로 50% 미만 노인의 17.7%에 비해 높다. 기능상태와 관련해서는 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 3.9%만이 전혀 연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한이 있는 노인은 13.9%가 이에 해당한다.

〈표 4-14〉 노인의 일반특성별 친인척과의 연락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연락 없음	계 (명)
전체 ¹⁾	2.0	6.3	12.0	25.4	30.8	18.6	4.9	100.0 (8,053)
지역								
동부	2.1	6.1	12.4	25.2	30.8	18.1	5.3	100.0 (6,263)
읍·면부	1.7	7.2	10.3	26.3	30.7	20.3	3.6	100.0 (1,790)
성								
남자	1.2	4.3	9.0	25.3	34.2	21.1	4.8	100.0 (3,515)
여자	2.7	7.9	14.3	25.5	28.2	16.6	5.0	100.0 (4,539)
연령								
65~69세	2.1	7.8	15.5	30.1	29.3	13.0	2.3	100.0 (2,967)
70~74세	1.7	6.0	13.2	26.2	31.7	17.5	3.7	100.0 (1,939)
75~79세	2.0	5.7	8.8	20.6	33.2	23.9	5.8	100.0 (1,821)
80~84세	1.9	4.8	6.8	21.8	29.7	26.1	8.9	100.0 (974)
85세 이상	3.6	3.5	6.1	16.5	28.9	23.3	18.1	100.0 (35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	5.9	11.9	26.7	31.9	18.4	3.8	100.0 (5,608)
배우자 없음	3.5	7.4	12.0	22.6	28.2	18.9	7.4	100.0 (2,446)
가구형태								
노인독거	3.1	8.4	12.3	23.2	27.6	18.6	6.8	100.0 (1,445)
노인부부	1.3	5.7	11.9	26.7	32.3	18.5	3.8	100.0 (4,853)
자녀동거	2.9	6.2	11.6	24.4	29.2	19.2	6.4	100.0 (1,610)
기타	7.1	7.9	17.1	17.2	30.0	14.4	6.2	100.0 (146)
가까운 친인척수								
0명	0.6	1.9	3.7	13.8	20.9	31.8	27.2	100.0 (633)
1명	2.9	4.3	9.6	25.2	31.7	20.3	6.1	100.0 (1,811)
2명	1.6	7.2	13.6	27.2	31.3	17.1	2.1	100.0 (2,730)
3명 이상	2.3	7.9	14.1	26.9	32.6	15.4	0.8	100.0 (2,778)
교육수준								
무학	3.4	2.7	4.9	14.5	25.4	31.9	17.2	100.0 (651)
초등학교	2.1	5.7	10.8	21.9	30.1	23.5	5.9	100.0 (2,472)
중학교	2.1	7.7	13.3	28.1	29.5	15.6	3.7	100.0 (1,935)
고등학교	1.6	7.0	14.0	27.2	34.1	13.8	2.3	100.0 (2,447)
전문대학 이상	1.8	5.4	11.9	36.9	30.0	11.9	2.2	100.0 (548)
현 취업상태								
취업중	1.7	7.3	12.0	26.9	29.4	19.3	3.5	100.0 (2,996)
미취업	2.2	5.7	12.0	24.6	31.6	18.1	5.8	100.0 (5,05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	6.4	10.2	22.4	31.8	22.0	5.7	100.0 (1,494)
제2오분위	2.3	6.7	10.1	23.0	30.9	20.4	6.6	100.0 (1,542)
제3오분위	1.7	6.7	12.2	22.5	32.6	18.2	6.1	100.0 (1,631)
제4오분위	1.7	5.8	11.5	28.7	30.9	18.0	3.5	100.0 (1,703)
제5오분위	3.0	6.1	15.4	29.8	27.9	14.8	2.9	100.0 (1,68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5	6.3	9.9	22.4	32.7	21.2	6.1	100.0 (3,040)
50%이상~100%미만	2.1	6.3	12.2	25.3	30.4	18.5	5.2	100.0 (2,726)
100%이상~150%미만	2.3	6.1	11.9	29.2	30.2	16.8	3.5	100.0 (1,386)
150%이상	3.3	6.8	18.5	30.1	26.5	12.4	2.4	100.0 (901)
기능상태								
제한 없음	2.1	6.6	12.2	26.1	31.5	17.7	3.9	100.0 (7,245)
제한 있음	1.4	4.2	10.1	19.4	24.4	26.6	13.9	100.0 (809)
2017년도 ²⁾	3.4	4.7	8.7	30.6	20.9	18.9	12.9	100.0 (10,073)

주: 1) 전체응답자 중 생존 형제자매가 있는 8,053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6절 친구·이웃·지인과의 접촉

친구·이웃·지인과의 접촉 실태를 왕래 및 연락 빈도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24.5%는 친구 및 이웃 등과 거의 매일 왕래하고 있으며, 26.7%는 주2~3회, 18.2%는 주1회 왕래하고 있다. 즉 노인의 약 2/3는 친구 또는 이웃과 주1회 이상 왕래하고 있다. 연락의 경우는 19.9%가 매일 연락하고 있으며 28.1%는 주2~3회, 23.0%는 주1회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왕래 빈도에 비해 높은 71.0%가 친구·이웃·지인과 주1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 조사와 비교하여 연락빈도는 약 6.5%p 높아진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계망의 다각화 측면과 맞물려 해석할 수 있다.

왕래 빈도의 제 특성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매일 왕래한다는 비율은 읍·면부 노인은 35.7%가 해당하였으나 동부 노인은 20.9%로 나타난다. 주1회 이상 왕래한다는 비율 역시 읍·면부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 82.4%가 이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에 비해 친구와의 왕래 빈도가 활발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매일 왕래한다는 비율이 여자 노인 27.0%로 남자 노인의 21.1%에 비해 높다. 연령군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 매일 왕래를 기준으로 75~79세가 29.1%로 가장 높다. 왕래가 없다는 비율에 있어서는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17.5%로 약 1/5이 해당한다. 고연령군의 경우 거동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에 따른 기동력 저하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주1회 이상 왕래한다는 비율이 무배우 노인은 71.8%로 유배우 노인의 68.2%보다 높다. 매일 왕래를 기준으로 할 때 역시 무배우 노인이 27.7%로 유배우 노인의 22.9%보다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 독거가구 중 28.6%가 매일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활발한 수준을 보인다. 반면 노인 부부가구는 22.8%, 자녀동거 가구는 25.1%로 노인 독거가구에 비해 낮다.

가까운 친구나 이웃, 지인 수가 많을수록 왕래 빈도가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4명 이상인 경우 거의 매일 왕래하는 비율은 40.1%로 가까운 친구나 이웃이 없는 노인의 11.2%에 비해 약 4배 높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거의 매일 왕래한다는 응답이 높다. 무학노인의 경우 32.6%가 매일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14.7%에 그친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중인 노인은 25.7%가 거의 매일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취업 노인은 23.8%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체로 주1회 이상 왕래하는 빈도가 높다. 이는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노인에게서 친구나 이웃, 지인 등과 왕래하는 비율이 높다. 한편 기능상태 여부에 따라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의 주1회 이상 왕래 비율이 71.4%로 기능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에 비해 높다. 왕래하지 않는 비율에 있어서는 기능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의 18.4%가 해당하여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3.1%)의 약 6배에 달한다.

제 특성별 연락 빈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왕래 빈도와 동일하게 읍·면부 노인의 연락 빈도가 동부 노인에 비해 빈번하다. 거의 매일을 기준으로 읍·면부 노인은 28.0%가 해당한 반면 동부 노인은 17.3%이다. 성별 역시 여자 노인의 연락 빈도가 남자 노인과 비교하여 활발한 수준이다. 연령군별 차이에 있어서는 75~79세 연령군에서 매일 연락하는 비율이 23.9%로 가장 높다. 대체로 연령이 적을수록 주1회 이상 연락하는 비율이 높다.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22.2%로 나타나 65세~69세 연령군과 극명한 대비를 보인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이 매일 연락하는 비율이 유배우 노인에 비해 높아, 왕래 빈도와 유사한 경향이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 독거가구에서 매일 연락한다는 비율이 22.9%로 나타났으며, 노인 부부가구 18.1%, 자녀 동거가구 21.8%에 비해 높다. 이는 주1회 이상 연락 빈도를 기준으로 할 때도 동일한 경향이다. 단, 연락이 없는 비율에 있어서는 자녀동거가구가 9.7%로 타 가구유형보다 높다. 이는 동거하는 자녀와 일상생활을 공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친구나 이웃, 지인 등과 같은 외부 교류의 필요성을 노인 단독가구에 비해 덜 인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왕래 빈도와 마찬가지로 연락 빈도에 있어서도 가까운 친구나 이웃, 지인이 많을수록 보다 활발한 교류 현황이 나타난다. 4명 이상의 친구나 이웃을 지닌 노인의 경우 83.5%가 주1회 이상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접촉·연락 빈도 역시 잦아지는 양상이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주1회 이상 연락 빈도가 높아, 왕래 빈도와는 다른 경향을 띤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중인 노인이 미취업 노인에 비해 더 빈번히 연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구소득 또는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향을 발견하기 어렵다. 단, 연락이 없는 비율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다. 기능상태의 경우, 제한이 없는 노인이 친구나 이웃과 더 빈번히 연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5〉 노인의 일반특성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왕래 없음	계 (명)
전체 ¹⁾	24.5	26.7	18.2	15.6	7.0	3.1	4.9	100.0 (10,097)
지역								
동부	20.9	24.2	20.2	17.7	7.9	3.5	5.6	100.0 (7,651)
읍·면부	35.7	34.7	12.0	9.0	4.1	1.7	2.8	100.0 (2,446)
성								
남자	21.1	24.6	20.0	18.8	7.7	3.0	4.8	100.0 (4,346)
여자	27.0	28.4	16.9	13.2	6.4	3.1	5.0	100.0 (5,751)
연령								
65~69세	21.0	23.7	20.2	21.5	8.7	3.2	1.7	100.0 (3,344)
70~74세	23.4	28.1	19.6	15.8	6.9	3.1	3.1	100.0 (2,342)
75~79세	29.1	28.7	16.9	10.5	6.7	2.6	5.5	100.0 (2,292)
80~84세	26.7	28.5	15.4	11.9	4.9	3.8	8.8	100.0 (1,475)
85세 이상	24.5	26.8	14.0	11.2	3.5	2.5	17.5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9	26.2	19.1	17.5	7.4	2.9	3.9	100.0 (6,779)
배우자 없음	27.7	27.8	16.3	11.7	6.1	3.4	7.0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28.6	30.6	16.2	10.8	5.7	3.0	5.1	100.0 (1,998)
노인부부	22.8	26.3	19.7	17.1	7.3	3.1	3.7	100.0 (5,898)
자녀동거	25.1	24.5	15.7	16.2	7.2	3.1	8.1	100.0 (2,026)
기타	25.6	21.4	20.1	13.9	8.3	1.2	9.4	100.0 (174)
가까운 친구·이웃·지인 수								
0명	11.2	12.0	9.9	15.3	5.7	3.3	42.5	100.0 (640)
1명	14.3	22.3	22.8	17.7	9.5	5.8	7.4	100.0 (1,242)
2명	18.0	29.3	19.7	17.3	10.1	3.9	1.6	100.0 (2,981)
3명	24.8	32.0	20.8	14.1	5.4	2.3	0.4	100.0 (2,407)
4명 이상	40.1	25.5	14.0	14.5	4.2	1.4	0.4	100.0 (2,659)
교육수준								
무학	32.6	27.1	12.2	8.7	4.3	2.9	12.3	100.0 (1,074)
초등학교	26.0	29.5	17.3	11.2	6.3	3.9	5.7	100.0 (3,198)
중학교	25.1	27.7	18.7	14.3	7.5	2.4	4.1	100.0 (2,356)
고등학교	21.2	24.1	20.9	20.8	8.1	3.0	2.0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14.7	20.6	18.7	32.1	7.6	1.2	5.0	100.0 (599)
현 취업상태								
취업중	25.7	27.4	17.9	16.3	7.4	2.9	2.4	100.0 (3,564)
미취업	23.8	26.4	18.4	15.2	6.7	3.1	6.3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9	34.7	16.4	11.8	4.7	2.5	6.1	100.0 (2,019)
제2오분위	29.5	27.5	15.5	11.6	6.1	3.3	6.4	100.0 (2,020)
제3오분위	26.1	26.7	18.7	14.0	6.8	2.7	4.9	100.0 (2,017)
제4오분위	21.9	23.2	20.3	18.4	8.4	3.3	4.4	100.0 (2,024)
제5오분위	20.9	21.6	20.2	22.3	8.7	3.6	2.8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6.2	30.9	16.2	12.0	5.5	2.9	6.3	100.0 (3,993)
50%이상~100%미만	25.6	24.7	18.9	15.4	7.4	2.8	5.2	100.0 (3,376)
100%이상~150%미만	21.4	26.0	19.6	18.4	8.7	2.9	2.9	100.0 (1,662)
150%이상	19.0	18.7	21.4	25.5	8.6	4.8	2.0	100.0 (1,066)
기능상태								
제한 없음	25.6	27.3	18.5	15.5	7.1	3.0	3.1	100.0 (8,864)
제한 있음	16.7	22.9	15.9	16.4	6.3	3.4	18.4	100.0 (1,233)
2017년도 ²⁾	48.2	17.5	12.5	13.3	2.3	1.8	4.2	100.0 (10,07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4-16〉 노인의 일반특성별 친구·이웃·지인과의 연락 빈도

(단위: %, 명)

특성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왕래 없음	계 (명)
전체 ¹⁾	19.9	28.1	23.0	14.2	6.3	2.4	6.1	100.0 (10,097)
지역								
동부	17.3	26.7	24.4	15.9	6.7	2.6	6.4	100.0 (7,651)
읍·면부	28.0	32.5	18.6	9.0	4.9	2.0	5.0	100.0 (2,446)
성								
남자	18.6	25.1	23.8	17.4	6.7	2.4	6.0	100.0 (4,346)
여자	20.9	30.3	22.4	11.8	6.0	2.5	6.1	100.0 (5,751)
연령								
65~69세	18.5	28.4	25.0	16.3	7.2	2.4	2.2	100.0 (3,344)
70~74세	19.2	29.6	24.5	14.7	6.3	1.9	3.8	100.0 (2,342)
75~79세	23.9	28.5	21.8	10.9	6.2	2.7	6.1	100.0 (2,292)
80~84세	19.1	26.5	20.4	14.5	5.2	2.9	11.2	100.0 (1,475)
85세 이상	17.3	23.6	17.6	12.8	4.2	2.5	22.2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8.8	28.2	23.9	15.2	6.7	2.3	4.9	100.0 (6,779)
배우자 없음	22.2	27.9	21.2	12.1	5.4	2.8	8.3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22.9	30.9	21.3	11.5	5.1	2.2	6.2	100.0 (1,998)
노인부부	18.1	28.7	24.1	15.3	6.7	2.3	4.7	100.0 (5,898)
자녀동거	21.8	23.9	21.5	13.9	6.3	3.0	9.7	100.0 (2,026)
기타	24.1	26.0	23.9	11.0	3.9	1.8	9.2	100.0 (174)
가까운 친구·이웃·지인 수								
0명	6.4	10.1	10.6	19.4	2.6	3.8	47.2	100.0 (640)
1명	9.7	18.5	27.4	19.9	9.5	5.4	9.5	100.0 (1,242)
2명	13.1	28.9	27.6	16.5	8.8	2.7	2.5	100.0 (2,981)
3명	20.1	35.5	25.5	10.6	5.4	1.8	1.0	100.0 (2,407)
4명 이상	36.3	30.0	17.2	11.2	3.8	0.9	0.5	100.0 (2,659)
교육수준								
무학	19.0	27.2	18.3	9.1	4.7	3.8	17.9	100.0 (1,074)
초등학교	20.5	28.3	22.2	12.7	6.4	3.3	6.7	100.0 (3,198)
중학교	21.5	29.0	22.4	15.0	5.7	1.6	4.8	100.0 (2,356)
고등학교	19.2	27.7	26.3	15.4	7.5	1.8	2.1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16.0	27.2	23.0	22.8	4.9	1.2	4.9	100.0 (599)
현 취업상태								
취업중	21.0	29.6	24.0	14.4	5.9	2.2	2.8	100.0 (3,564)
미취업	19.3	27.3	22.5	14.1	6.5	2.5	7.8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1.0	34.6	18.0	11.5	5.6	1.6	7.6	100.0 (2,019)
제2오분위	21.9	27.3	19.8	15.0	5.0	2.9	8.2	100.0 (2,020)
제3오분위	18.9	27.6	25.6	13.3	6.3	2.7	5.6	100.0 (2,017)
제4오분위	16.9	26.5	27.0	14.5	6.8	3.0	5.4	100.0 (2,024)
제5오분위	20.9	24.5	24.6	16.8	7.6	2.0	3.6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0.9	30.4	19.6	13.1	5.6	2.3	8.1	100.0 (3,993)
50%이상~100%미만	19.1	26.6	25.4	14.1	6.1	2.7	6.1	100.0 (3,376)
100%이상~150%미만	18.0	29.2	25.3	14.5	7.4	2.1	3.6	100.0 (1,662)
150%이상	21.6	22.7	25.1	18.2	7.8	2.5	2.1	100.0 (1,066)
기능상태								
제한 없음	20.8	29.0	23.4	14.3	6.4	2.3	3.8	100.0 (8,864)
제한 있음	13.1	21.6	20.4	13.7	5.2	3.5	22.5	100.0 (1,233)
2017년도 ²⁾	20.6	20.8	22.8	16.8	2.2	1.5	15.3	100.0 (10,07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5장

노인의 부양 교환 실태

- 제1절 배우자와의 부양 교환 실태
- 제2절 동거 자녀와의 부양 교환 실태
- 제3절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 교환 실태
- 제4절 노인의 부모와의 부양 교환 실태
- 제5절 주요 지출 항목의 지불 주체
- 제6절 손자녀 돌봄 실태
- 제7절 노년기 부양에 대한 태도

제5장 노인의 부양 교환 실태

본 장에서는 노인의 주요한 관계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지원 교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주요한 관계로서 배우자, 동거 및 비동거 자녀, 부모와의 부양 교환 실태를 정서적, 도구적, 돌봄, 경제 지원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노인의 손자녀 돌봄 실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노인이 경험하는 주요한 지출의 분담실태와 노년기 부양 가치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자 한다.

제1절 배우자와의 부양 교환 실태

노년의 삶에 있어 배우자가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그에 따라 배우자와의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돌봄 지원을 중심으로 교환 실태를 살펴보았다. 배우자는 가구소득 및 지출을 공유하므로, 경제적 지원 여부에 대한 파악은 제외하였다. 전체의 85.6%는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84.9%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구적 지원의 수혜율은 79.9%, 제공률은 76.6%이다. 돌봄 지원은 배우자에게 62.7%가 받고, 62.3%는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노인은 배우자와 정서적, 도구적, 돌봄 지원 순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제공-수혜 간에는 상호 호혜적 양상을 띤다.

배우자와의 부양교환 실태에 대한 제 특성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정서적 지원 수혜에 있어, 지역별 차이는 적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 중 88.8%가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 노인에 비해 높다. 연령군별 차이 역시 두드러지지 않으나, 75~79세 연령군에서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는 비율이 87.4%로 가장 높다. 한편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81.7%로 타 연령군에 비해서 낮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적 지원 수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92.8%가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 노인은 77.0%로 약 20%p 차이가 있다. 취업 중인 노인의 정서적 지원

수혜가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고,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적다. 단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정서적 지원을 전혀 제공받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노인의 기능상태에 따른 차이 역시 적으나,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차이가 발견된다. 즉 배우자가 건강한 편일수록 정서적 지원 수혜율이 높아져, 배우자가 매우 건강할 때 정서적 지원 수혜율은 94.2%에 달한다.

정서적 지원 제공률에 따른 제 특성별 차이에서도 지역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에 비해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혜율과 유사한 양상이다. 연령군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8.5%로 타 집단에 비해 높고, 약 1/10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지원 제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혜율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 무학 노인의 경우 79.0%가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91.0%이다. 취업여부와 관련해서는 취업 중인 노인이 미취업 노인에 비해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더 제공하고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적은 편이다. 다만 연가구소득 또는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각각 6.0%, 5.3%로 높은 편이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상태의 제한이 없는 노인이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비율이 85.5%로 나타나 기능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의 78.7%보다 높다. 기능상태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의 경우, 본인의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기타 부양자로부터 돌봄 또는 도구적 지원을 받는 위치에 놓일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한편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른 정서적 지원 제공률 역시 수혜율과 유사하다. 즉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다.

즉, 정서적 지원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 고학력 노인, 취업 중인 노인이거나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제공 및 수혜율이 모두 높다. 기능상태 여부에 따라서는 제공률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다. 나머지 제 특성별 차이는 비교적 적다.

〈표 5-1〉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¹⁾	30.9	54.7	9.9	4.5	100.0(6,778)
지역					
동부	27.3	58.1	10.7	3.9	100.0(5,133)
읍·면부	42.0	44.1	7.5	6.3	100.0(1,645)
성					
남자	32.9	55.9	7.6	3.7	100.0(3,759)
여자	28.4	53.2	12.8	5.5	100.0(3,019)
연령					
65~69세	32.5	52.1	11.2	4.2	100.0(2,632)
70~74세	27.7	59.1	9.9	3.3	100.0(1,728)
75~79세	32.2	55.2	6.6	6.0	100.0(1,506)
80~84세	28.6	54.6	11.8	4.9	100.0(727)
85세 이상	35.7	46.0	11.3	7.0	100.0(185)
교육수준					
무학	27.7	49.3	12.1	10.9	100.0(384)
초등학교	30.3	55.2	9.7	4.8	100.0(1,830)
중학교	29.6	54.2	11.4	4.8	100.0(1,735)
고등학교	30.1	56.6	9.5	3.7	100.0(2,294)
전문대학 이상	42.7	50.1	5.8	1.5	100.0(5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34.5	53.0	8.4	4.1	100.0(2,683)
미취업	28.5	55.8	10.9	4.8	100.0(4,09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8.0	39.2	6.8	6.0	100.0(890)
제2오분위	28.1	55.7	9.9	6.4	100.0(1,338)
제3오분위	28.9	56.2	10.6	4.3	100.0(1,595)
제4오분위	25.9	60.3	10.3	3.5	100.0(1,519)
제5오분위	30.4	55.8	10.7	3.1	100.0(1,43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5.3	50.0	8.8	5.9	100.0(2,548)
50%이상~100%미만	27.6	57.1	10.9	4.3	100.0(2,387)
100%이상~150%미만	25.9	59.8	11.0	3.3	100.0(1,095)
150%이상	33.5	55.4	8.8	2.2	100.0(748)
기능상태					
제한 없음	31.2	54.4	9.9	4.4	100.0(6,135)
제한 있음	27.6	57.6	9.5	5.3	100.0(643)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61.5	32.7	3.3	2.6	100.0(392)
건강한 편	32.0	55.1	9.4	3.5	100.0(3,463)
그저 그렇다	29.2	57.1	9.2	4.4	100.0(1,926)
건강하지 않은 편	19.1	60.8	14.3	5.8	100.0(839)
전혀 건강하지 않음	14.1	37.9	22.2	25.8	100.0(158)
2017년도 ²⁾	16.8	68.2	10.8	4.2	100.0(6,416)

주: 1) 전체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6,778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5-2〉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28.5	56.4	10.6	4.6	100.0 (6,778)
지역					
동부	25.9	59.2	11.0	3.9	100.0 (5,133)
읍·면부	36.5	47.5	9.4	6.6	100.0 (1,645)
성					
남자	29.4	56.7	9.6	4.3	100.0 (3,759)
여자	27.4	56.0	11.8	4.8	100.0 (3,019)
연령					
65~69세	29.5	55.4	10.9	4.3	100.0 (2,632)
70~74세	26.2	60.7	9.5	3.6	100.0 (1,728)
75~79세	31.0	54.1	9.6	5.3	100.0 (1,506)
80~84세	25.0	55.3	14.3	5.4	100.0 (727)
85세 이상	28.9	53.1	9.6	8.5	100.0 (185)
교육수준					
무학	25.1	53.9	11.8	9.1	100.0 (384)
초등학교	27.4	56.7	11.2	4.7	100.0 (1,830)
중학교	26.1	57.0	11.6	5.3	100.0 (1,735)
고등학교	29.1	57.3	9.7	3.9	100.0 (2,294)
전문대학 이상	39.8	51.2	7.7	1.2	100.0 (5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31.1	55.8	9.0	4.0	100.0 (2,683)
미취업	26.8	56.7	11.6	4.9	100.0 (4,09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4.7	40.6	8.7	6.0	100.0 (890)
제2오분위	25.9	57.1	11.5	5.5	100.0 (1,338)
제3오분위	26.4	57.1	11.9	4.6	100.0 (1,595)
제4오분위	23.4	62.8	9.4	4.3	100.0 (1,519)
제5오분위	28.5	57.9	10.6	3.0	100.0 (1,43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2.7	51.7	10.3	5.3	100.0 (2,548)
50%이상~100%미만	24.9	57.9	12.1	5.0	100.0 (2,387)
100%이상~150%미만	24.8	62.9	8.9	3.4	100.0 (1,095)
150%이상	30.9	57.9	9.1	2.1	100.0 (74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9.1	56.4	10.4	4.1	100.0 (6,135)
제한 있음	22.2	56.5	12.1	9.2	100.0 (643)
배우자의 건강 ²⁾					
매우 건강	55.9	36.6	4.6	2.9	100.0 (392)
건강한 편	28.9	56.4	10.6	4.1	100.0 (3,463)
그저 그렇다	26.2	59.1	9.6	5.0	100.0 (1,926)
건강하지 않은 편	20.3	61.4	14.0	4.3	100.0 (839)
전혀 건강하지 않음	21.7	43.7	18.6	15.9	100.0 (158)
2017년도 ²⁾	16.0	70.2	10.8	3.0	100.0 (6,416)

주: 1) 전체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6,778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도구적 지원 수혜에 대한 제 특성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성별에 따라서 남자 노인은 배우자로부터 91.0%가 도구적 지원을 제공받지만, 여자 노인은 66.0%로 그 차이가 크다. 청소, 빨래, 식사 등의 가사지원이 여전히 여자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군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많을수록 수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다. 단 85세 이상 연령군에서의 수혜율이 79.6%로 65~69세 연령군의 수혜율 다음으로 낮다. 이는 다음의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본인 스스로 가사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 기능적 여건이 조성되므로 배우자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받을 필요성이 없을 수 있다. 한편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배우자 역시 고령 노인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그에 따른 일상생활지원 제한 측면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구적 지원 수혜율이 높다. 무학 노인의 경우 70.1%가 도구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88.8%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취업 중인 노인의 도구적 지원 수혜율이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다. 가구소득 수준에 있어서는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구적 지원 수혜율이 높다.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노인은 79.1%가 도구적 지원을 받는 반면 150% 이상 노인은 83.7%가 도구적 지원을 받는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제한이 없는 노인 대비 제한이 있는 노인의 도구적 지원 수혜율이 87.0%로 높다. 기능상태 제한에 따른 일상생활 영위의 어려움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배우자의 건강상태 역시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도구적 지원 수혜율이 높다. 배우자가 전혀 건강하지 않은 경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39.8%로, 배우자가 매우 건강한 노인의 85.3%와 비교하여 차이가 두드러진다.

도구적 지원 제공률에 대한 제 특성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에 비해 도구적 지원 제공률이 약간 더 높다. 성별과 연령에 있어서는 수혜율과 반대의 경향이 나타난다. 즉, 여자 노인 또는 저연령 노인일수록 배우자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한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81.0%가 배우자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나,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60.6%로 약 20%p의 차이가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나,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제공률이 높다. 취업 중인 노인의 도구적 지원 제공률은 78.6%로 미취업 노인의 75.2%에 비해 높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도구적 지원 제공률이 78.5%로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높다. 다만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 중 57.8%가 배우자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심이 요구되는 바이다.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수혜율과 마찬가지로,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제공률이 높다.

즉, 도구적 지원에 있어는 제공-수혜 간 성별 차이가 두드러져 남자 노인은 배우자로부터 수혜를, 여자 노인은 배우자에게 제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학력 노인, 취업 중인 노인,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의 경우 배우자와의 도구적 지원 제공-수혜율이 모두 높다. 도구적 지원이 가사지원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능상태가 양호한 전기노인에게서 배우자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률이 높게 나타난다.

〈표 5-3〉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39.9	40.0	14.9	5.2	100.0 (6,778)
지역					
동부	36.5	43.6	14.7	5.2	100.0 (5,133)
읍·면부	50.5	28.8	15.5	5.2	100.0 (1,645)
성					
남자	51.5	39.5	6.7	2.4	100.0 (3,759)
여자	25.4	40.6	25.2	8.7	100.0 (3,019)
연령					
65~69세	36.8	40.1	18.5	4.7	100.0 (2,632)
70~74세	38.8	41.9	13.9	5.3	100.0 (1,728)
75~79세	44.4	37.9	12.6	5.1	100.0 (1,506)
80~84세	43.3	40.4	9.9	6.4	100.0 (727)
85세 이상	43.8	35.8	13.1	7.3	100.0 (185)
교육수준					
무학	38.1	32.0	19.6	10.4	100.0 (384)
초등학교	38.1	39.8	16.1	6.1	100.0 (1,830)
중학교	38.0	42.3	15.1	4.6	100.0 (1,735)
고등학교	40.1	40.6	14.8	4.5	100.0 (2,294)
전문대학 이상	52.7	36.1	7.8	3.3	100.0 (5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43.7	39.5	13.1	3.7	100.0 (2,683)
미취업	37.4	40.3	16.2	6.1	100.0 (4,09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0.1	32.3	14.0	3.7	100.0 (890)
제2오분위	40.1	37.0	15.7	7.2	100.0 (1,338)
제3오분위	38.5	41.1	14.4	6.0	100.0 (1,595)
제4오분위	35.4	43.5	16.2	4.8	100.0 (1,519)
제5오분위	39.7	42.5	14.0	3.8	100.0 (1,43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3.5	35.6	15.2	5.7	100.0 (2,548)
50%이상~100%미만	38.1	41.3	14.7	5.9	100.0 (2,387)
100%이상~150%미만	35.6	44.5	15.3	4.6	100.0 (1,095)
150%이상	39.8	43.9	14.2	2.1	100.0 (748)
기능상태					
제한 없음	39.5	39.7	15.6	5.3	100.0 (6,135)
제한 있음	44.1	42.9	8.6	4.4	100.0 (643)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61.4	23.9	13.0	1.7	100.0 (392)
건강한 편	38.9	44.1	13.6	3.5	100.0 (3,463)
그저 그렇다	41.1	39.6	14.8	4.5	100.0 (1,926)
건강하지 않은 편	35.1	35.1	21.9	7.9	100.0 (839)
전혀 건강하지 않음	19.8	20.0	14.6	45.5	100.0 (158)
2017년도 ²⁾	30.1	46.6	14.2	9.1	100.0 (6,416)

주: 1) 전체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6,778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5-4〉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34.4	42.2	17.6	5.8	100.0 (6,778)
지역					
동부	31.2	44.6	18.5	5.7	100.0 (5,133)
읍·면부	44.2	34.5	14.8	6.5	100.0 (1,645)
성					
남자	26.8	41.9	24.1	7.1	100.0 (3,759)
여자	43.8	42.5	9.4	4.3	100.0 (3,019)
연령					
65~69세	37.6	43.4	14.7	4.2	100.0 (2,632)
70~74세	32.5	43.1	18.3	6.1	100.0 (1,728)
75~79세	35.3	39.8	18.9	6.0	100.0 (1,506)
80~84세	26.9	43.0	22.5	7.6	100.0 (727)
85세 이상	29.1	31.5	21.6	17.8	100.0 (185)
교육수준					
무학	38.6	35.4	14.9	11.1	100.0 (384)
초등학교	36.0	40.7	16.6	6.7	100.0 (1,830)
중학교	33.3	42.6	18.4	5.7	100.0 (1,735)
고등학교	32.7	44.1	18.5	4.7	100.0 (2,294)
전문대학 이상	36.8	42.2	16.3	4.7	100.0 (5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36.2	42.4	17.4	4.0	100.0 (2,683)
미취업	33.2	42.0	17.7	7.0	100.0 (4,09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7.9	32.1	13.8	6.2	100.0 (890)
제2오분위	33.9	38.3	20.7	7.1	100.0 (1,338)
제3오분위	34.3	42.1	17.6	6.0	100.0 (1,595)
제4오분위	29.5	46.7	18.3	5.5	100.0 (1,519)
제5오분위	31.8	47.3	16.3	4.6	100.0 (1,43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9.0	36.8	17.7	6.5	100.0 (2,548)
50%이상~100%미만	31.8	42.9	19.2	6.1	100.0 (2,387)
100%이상~150%미만	31.0	49.2	15.2	4.6	100.0 (1,095)
150%이상	32.1	47.5	15.6	4.9	100.0 (748)
기능상태					
제한 없음	35.8	42.7	16.8	4.7	100.0 (6,135)
제한 있음	20.9	36.9	25.6	16.6	100.0 (643)
배우자의 건강 ²⁾					
매우 건강	59.3	26.8	12.6	1.3	100.0 (392)
건강한 편	32.7	45.4	17.0	4.9	100.0 (3,463)
그저 그렇다	32.7	41.1	18.9	7.2	100.0 (1,926)
건강하지 않은 편	32.4	41.9	19.2	6.5	100.0 (839)
전혀 건강하지 않음	40.5	24.2	18.2	17.1	100.0 (158)
2017년도 ²⁾	25.4	49.7	17.4	7.4	100.0 (6,416)

주: 1) 전체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6,778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에 대한 제 특성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65.8%)이 동부 노인(61.7%)에 비해 배우자로부터 더 많은 돌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읍·면부 거주 노인이 동부 거주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해 가능한 측면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에 비해 배우자에게 돌봄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남자 노인 66.1%가 이에 해당한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배우자에게 돌봄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59.3%이나, 80~84세 연령군에서는 68.2%이다. 단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64.3%로 이전 연령군보다 낮는데, 이는 배우자 역시 고령 노인으로 적절한 돌봄 지원이 어렵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이 취업 노인에 비해 배우자로부터 돌봄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취업 61.5%, 미취업 63.5%).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은 외부 활동이 가능한 상태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취업 노인의 수혜율이 더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연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돌봄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1오분위의 경우 70.3%가 배우자에게 돌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제5오분위는 61.8%이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제한이 있는 노인의 82.3%는 배우자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는다. 배우자의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돌봄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는 측면에서, 도구적 지원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돌봄 지원에 대한 특성별 차이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는 수혜율과 유사하다. 즉 배우자에게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에 있어 읍·면부 노인은 65.2%가, 동부 노인은 61.4%가 해당한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더 많은 돌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연령군별로는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56.7%로 타 연령군에 비해 낮다. 본인 및 배우자 모두 고령이라는 점에서, 배우자를 동반하여 병원 진료 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돌봄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무학 노인의 61.1%가 배우자에게 돌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66.7%가 이에 해당한다.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수혜율과 마찬가지로 연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돌봄 지원을 더 많이 제

공한다. 제1오분위의 경우 68.1%가 배우자에게 돌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62.9%가 배우자에게 돌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해 높다. 단 기능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 중 57.0%가 배우자에게 신체적 돌봄 등의 돌봄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배우자에게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다.

즉, 돌봄 지원에 있어서는 도구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제공-수혜 간 성별 차이가 두드러져 남자 노인은 배우자로부터 수혜를, 여자 노인은 배우자에게 제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전히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가사 지원이나 신체적 돌봄 등의 돌봄 제공에 치중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읍·면부 노인,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에게서 돌봄 지원 제공-수혜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수혜율은 고령 노인, 미취업 노인,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반대로 제공률은 고학력 노인,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에게서 높다.

〈표 5-5〉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24.8	37.9	14.5	22.8	100.0 (6,778)
지역					
동부	21.6	40.1	15.1	23.2	100.0 (5,133)
읍·면부	34.7	31.1	12.8	21.4	100.0 (1,645)
성					
남자	27.1	39.0	12.0	21.9	100.0 (3,759)
여자	21.9	36.6	17.6	23.9	100.0 (3,019)
연령					
65~69세	23.4	35.9	15.6	25.1	100.0 (2,632)
70~74세	23.0	37.6	15.7	23.7	100.0 (1,728)
75~79세	28.8	39.3	12.9	19.0	100.0 (1,506)
80~84세	25.2	43.0	11.2	20.5	100.0 (727)
85세 이상	26.4	37.9	14.7	21.0	100.0 (185)
교육수준					
무학	17.8	41.0	17.6	23.6	100.0 (384)
초등학교	25.8	38.3	15.9	20.1	100.0 (1,830)
중학교	25.0	39.2	14.4	21.5	100.0 (1,735)
고등학교	23.3	36.3	13.8	26.6	100.0 (2,294)
전문대학 이상	32.3	37.4	11.1	19.2	100.0 (5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26.6	34.9	13.2	25.2	100.0 (2,683)
미취업	23.6	39.9	15.3	21.2	100.0 (4,09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1.6	28.7	11.1	18.6	100.0 (890)
제2오분위	25.7	39.1	15.1	20.1	100.0 (1,338)
제3오분위	22.9	37.1	15.4	24.6	100.0 (1,595)
제4오분위	18.1	42.1	16.2	23.6	100.0 (1,519)
제5오분위	22.7	39.1	13.2	25.0	100.0 (1,43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1.0	36.0	14.0	19.0	100.0 (2,548)
50%이상~100%미만	20.6	36.9	16.3	26.2	100.0 (2,387)
100%이상~150%미만	19.6	42.6	14.0	23.7	100.0 (1,095)
150%이상	24.5	40.8	11.3	23.3	100.0 (74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3.9	36.7	15.3	24.0	100.0 (6,135)
제한 있음	32.7	49.6	6.5	11.2	100.0 (643)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51.7	22.1	9.0	17.1	100.0 (392)
건강한 편	23.7	38.1	14.9	23.2	100.0 (3,463)
그저 그렇다	26.1	40.2	12.9	20.8	100.0 (1,926)
건강하지 않은 편	16.4	42.1	18.5	23.0	100.0 (839)
전혀 건강하지 않음	9.6	22.8	16.7	50.9	100.0 (158)
2017년도 ²⁾	14.9	47.2	21.0	16.9	100.0 (6,416)

주: 1) 배우자가 있는 6,778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5-6〉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23.3	39.0	15.5	22.1	100.0 (6,778)
지역					
동부	20.8	40.6	16.2	22.4	100.0 (5,133)
읍·면부	31.2	34.0	13.4	21.4	100.0 (1,645)
성					
남자	22.9	37.8	15.9	23.4	100.0 (3,759)
여자	23.9	40.5	15.1	20.6	100.0 (3,019)
연령					
65~69세	22.6	38.1	15.3	24.1	100.0 (2,632)
70~74세	22.7	39.0	14.9	23.4	100.0 (1,728)
75~79세	26.2	40.7	15.5	17.5	100.0 (1,506)
80~84세	21.3	40.4	17.2	21.0	100.0 (727)
85세 이상	24.5	32.2	18.4	24.9	100.0 (185)
교육수준					
무학	20.8	40.3	20.3	18.6	100.0 (384)
초등학교	24.2	39.3	15.8	20.7	100.0 (1,830)
중학교	22.6	39.8	17.1	20.5	100.0 (1,735)
고등학교	22.1	38.5	13.7	25.8	100.0 (2,294)
전문대학 이상	30.0	36.7	14.1	19.2	100.0 (535)
현 취업상태					
취업중	25.4	37.5	13.2	24.0	100.0 (2,683)
미취업	22.0	40.0	17.1	20.9	100.0 (4,09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0.1	28.0	13.9	18.0	100.0 (890)
제2오분위	24.4	39.0	17.2	19.5	100.0 (1,338)
제3오분위	22.3	38.8	15.6	23.3	100.0 (1,595)
제4오분위	17.0	43.1	16.5	23.4	100.0 (1,519)
제5오분위	19.7	41.6	14.0	24.6	100.0 (1,436)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0.0	35.7	15.9	18.4	100.0 (2,548)
50%이상~100%미만	19.1	39.1	16.6	25.2	100.0 (2,387)
100%이상~150%미만	18.5	44.0	14.4	23.1	100.0 (1,095)
150%이상	21.1	42.5	12.7	23.7	100.0 (74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3.8	39.1	14.9	22.2	100.0 (6,135)
제한 있음	18.7	38.3	21.7	21.3	100.0 (643)
배우자의 건강					
매우 건강	49.8	23.3	9.8	17.1	100.0 (392)
건강한 편	20.3	39.0	16.6	24.1	100.0 (3,463)
그저 그렇다	23.0	39.7	16.1	21.2	100.0 (1,926)
건강하지 않은 편	21.0	45.6	13.3	20.1	100.0 (839)
전혀 건강하지 않음	39.7	34.5	12.5	13.3	100.0 (158)
2017년도 ²⁾	14.7	48.8	21.7	14.7	100.0 (6,416)

주: 1) 배우자가 있는 6,778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2절 동거 자녀와의 부양 교환 실태

동거 자녀와의 부양 교환 실태는 정서적, 도구적, 돌봄 지원 및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인이 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77.9%이며, 제공하는 비율은 65.3%이다. 도구적 지원은 74.3%가 받으며, 68.9%가 제공하고 있다. 돌봄 지원은 49.9%가 받으며, 29.5%가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돌봄 지원의 제공-수혜 간 격차는 자녀의 연령대를 감안할 때, 병원 이용 등의 외부 활동의 어려움을 덜 경험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은 지원 항목 및 정기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현물지원 80.0%, 비정기적 현금지원 79.8%, 정기적 현금지원 56.2% 순으로 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역시 현물지원 41.8%, 비정기적 현금지원 33.4%, 정기적 현금지원 19.5% 순이다. 즉 노인은 동거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⁴⁾,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돌봄 지원 순으로 받고 있으며,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돌봄 지원 순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경향은 배우자와의 지원 교환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동거 자녀와의 정서적 지원 교환 실태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혜율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는 적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 노인 79.5%가 이에 해당한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동거 자녀로부터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75.2%가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으나,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87.0%이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무배우 노인이 유배우 노인에 비해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아, 무배우 노인의 80.3%가 이에 해당한다. 동거자녀 특성별로는 기혼의 딸 및 기타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88.2%), 기혼 장남 및 기타 자녀 80.7%, 기혼 차남 이하 및 기타 자녀 76.5%, 미혼자녀 74.3% 순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 중 79.0%가 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 노인에 비해 높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지원 수

4) 경제적 측면의 경우,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작성함.

혜율이 높다.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 소득수준의 노인은 84.7%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50% 미만은 76.6%이다. 한편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 중 86.2%가 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높다.

정서적 지원 제공률에 대한 제 특성별 차이에 있어서는 동부 지역 노인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동거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 제공률이 높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에 비해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 수혜율과는 다른 양상이다. 연령군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자녀에게 제공하는 정서적 지원율이 가장 낮은 47.7%이다. 전반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태 저하에 따른 이유로 볼 수 있다. 유배우 노인의 동거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 제공률이 68.9%로 무배우 노인의 63.0%에 비해 높다. 동거 자녀의 특성에 따라서는 수혜율과 마찬가지로 기혼 딸 및 기타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 제공률이 69.1%로 가장 높아, 노인-기혼 딸 간 상호호혜적인 정서적 지원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미혼자녀 68.3%, 기혼 장남 및 기타 자녀 59.7%, 기혼차남 이하 및 기타 자녀 58.9% 순이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다. 수혜율에 있어서는 뚜렷한 경향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제공률에 있어서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이 84.7%로 무학 노인의 49.9%에 비해 약 40%p 높다. 취업 여부와 관련해서는 취업 노인 중 73.6%가 동거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미취업 노인의 62.3%보다 높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경향성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 중 68.9%가 동거 자녀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반면,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49.0%이다.

즉, 동거 자녀와의 정서적 지원에 있어서 동거 자녀 중 기혼 딸의 경우 노인과의 제공-수혜율이 모두 높다. 이외 제 특성에 있어서 수혜율은 여자 노인, 무배우자 노인, 미취업 노인, 기능제한 경험 노인에게서 높은 반면, 제공률은 반대의 경향으로 나타난다. 한편 소득수준은 수혜율 측면에서, 교육수준은 제공률 측면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발견된다.

〈표 5-7〉 노인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26.0	51.9	15.0	7.1	100.0 (1,998)
지역					
동부	25.5	52.4	15.4	6.7	100.0 (1,685)
읍·면부	28.7	49.4	12.3	9.6	100.0 (314)
성					
남자	24.2	50.0	19.1	6.7	100.0 (609)
여자	26.7	52.8	13.1	7.3	100.0 (1,389)
연령					
65~69세	22.6	52.6	16.5	8.3	100.0 (620)
70~74세	27.5	47.2	17.5	7.8	100.0 (353)
75~79세	20.2	54.0	17.9	7.9	100.0 (411)
80~84세	33.0	50.5	11.4	5.1	100.0 (364)
85세 이상	31.4	55.6	7.8	5.2	100.0 (25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6	51.5	17.8	8.0	100.0 (783)
배우자 없음	28.1	52.2	13.1	6.6	100.0 (1,216)
교육수준					
무학	25.6	49.2	15.2	10.0	100.0 (329)
초등학교	27.9	52.7	13.3	6.2	100.0 (671)
중학교	26.3	47.6	16.1	10.0	100.0 (414)
고등학교	23.0	56.4	16.1	4.5	100.0 (506)
전문대학 이상	28.9	51.1	14.4	5.7	100.0 (79)
현취업상태					
취업중	23.9	51.1	17.3	7.7	100.0 (521)
미취업	26.7	52.3	14.1	6.9	100.0 (1,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5.6	45.7	13.2	5.5	100.0 (168)
제2오분위	29.4	41.3	19.4	9.9	100.0 (197)
제3오분위	32.7	46.5	13.4	7.5	100.0 (190)
제4오분위	25.3	50.3	14.3	10.1	100.0 (500)
제5오분위	22.5	57.3	15.0	5.2	100.0 (94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0.2	46.4	16.0	7.4	100.0 (449)
50%이상~100%미만	27.7	48.5	13.8	9.9	100.0 (644)
100%이상~150%미만	20.6	56.3	16.8	6.4	100.0 (571)
150%이상	26.2	58.5	12.6	2.7	100.0 (335)
기능상태					
제한 없음	24.4	51.6	16.3	7.7	100.0 (1,636)
제한 있음	32.8	53.4	9.0	4.7	100.0 (363)
동거 자녀의 특성					
기혼장남(과 기타자녀)	28.7	52.0	14.1	5.2	100.0 (589)
기혼차남이하(과 기타자녀)	22.6	53.9	17.7	5.7	100.0 (125)
기혼딸(과 기타자녀)	34.4	53.8	5.2	6.7	100.0 (227)
미혼자녀	23.0	51.3	17.2	8.5	100.0 (1,058)
2017년도 ²⁾	11.5	56.1	24.4	8.0	100.0 (2,389)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자녀가 있는 1,998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5-8〉 노인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16.1	49.2	22.4	12.3	100.0 (1,998)
지역					
동부	15.6	50.2	22.6	11.5	100.0 (1,685)
읍·면부	18.9	43.5	21.0	16.6	100.0 (314)
성					
남자	17.5	49.1	22.5	10.9	100.0 (609)
여자	15.5	49.2	22.3	12.9	100.0 (1,389)
연령					
65~69세	17.1	53.8	19.2	9.9	100.0 (620)
70~74세	21.9	51.7	16.7	9.7	100.0 (353)
75~79세	12.5	52.0	25.3	10.2	100.0 (411)
80~84세	17.0	43.7	28.6	10.7	100.0 (364)
85세 이상	10.2	37.5	24.4	27.9	100.0 (25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8.8	50.1	20.2	10.9	100.0 (783)
배우자 없음	14.4	48.6	23.8	13.2	100.0 (1,216)
교육수준					
무학	7.9	42.0	25.9	24.2	100.0 (329)
초등학교	14.9	45.6	27.3	12.2	100.0 (671)
중학교	18.6	51.1	18.1	12.3	100.0 (414)
고등학교	19.3	55.7	19.1	5.9	100.0 (506)
전문대학 이상	27.5	57.2	9.2	6.1	100.0 (79)
현취업상태					
취업중	18.4	55.2	18.3	8.1	100.0 (521)
미취업	15.3	47.0	23.8	13.8	100.0 (1,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0	52.2	12.0	10.8	100.0 (168)
제2오분위	17.4	46.7	23.0	12.9	100.0 (197)
제3오분위	17.6	46.4	18.4	17.6	100.0 (190)
제4오분위	13.9	47.8	23.3	15.0	100.0 (500)
제5오분위	15.2	50.5	24.4	10.0	100.0 (94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0.2	49.6	18.4	11.8	100.0 (449)
50%이상~100%미만	13.4	45.6	23.1	17.8	100.0 (644)
100%이상~150%미만	14.8	49.6	26.0	9.6	100.0 (571)
150%이상	18.1	54.6	20.2	7.1	100.0 (33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7.3	51.6	21.3	9.8	100.0 (1,636)
제한 있음	10.9	38.1	27.2	23.8	100.0 (363)
동거 자녀의 특성					
기혼장남(과 기타자녀)	14.7	45.0	26.6	13.8	100.0 (589)
기혼차남이하(와 기타자녀)	13.3	45.6	27.9	13.2	100.0 (125)
기혼딸(과 기타자녀)	16.3	52.8	13.2	17.6	100.0 (227)
미혼자녀	17.2	51.1	21.4	10.3	100.0 (1,058)
2017년도 ²⁾	8.3	55.4	27.0	9.3	100.0 (2,389)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자녀가 있는 1,998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에 대한 제 특성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74.9%로 읍·면부 노인(71.0%)에 비해 더 많이 받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이 75.6%로 남자 노인(71.3%)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도구적 지원을 받는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도구적 지원을 받는 경향이 뚜렷하다.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대다수(89.6%)가 동거 자녀로부터 가사 지원을 받으며, 65~69세 연령군과 약 25%p 차이가 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일 경우 82.5%가 동거 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으며, 유배우 노인은 61.6%가 이에 해당한다. 동거 자녀별 특성으로는 기혼 딸 및 기타 자녀로부터 수혜율이 88.8%로 가장 높고, 기혼 장남 및 기타 자녀 86.7%, 기혼 차남 이하 및 기타 자녀 72.2%, 미혼자녀 64.5% 순으로 나타나 정서적 지원 수혜 양상과 유사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도구적 지원 수혜율이 높다. 무학 노인은 86.2%가 동거 자녀로부터 가사일과 같은 도구적 지원을 받는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64.1%가 이에 해당한다. 무학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후기 노인이 많이 포진됨에 따라, 신체적 기능 쇠퇴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취업 여부에 있어서는 미취업 노인이 취업 노인에 비해 동거 자녀로부터 더 많은 도구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취업 68.9%, 미취업 76.2%).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한편 기능상태와 관련해서는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 중 88.1%는 동거 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제공받아,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다음으로 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에 대해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약간 높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제공률이 73.3%로 남자 노인의 58.9%에 비해 약 15%p 높다. 여자 노인은 동거 자녀로부터 가사와 같은 도구적 지원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본인 또한 동거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도구적 지원 제공률이 낮다.

배우자 유무별 차이는 적고, 동거 자녀 특성에 따른 도구적 지원 제공률은 수혜율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미혼자녀에 대한 제공률이 75.1%로 가장 높고, 기혼 장남 및 기타 자녀 64.2%, 기혼 딸 및 기타 자녀 58.3%, 기혼 차남 이하 및 기타 자녀 57% 순이다.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없다. 취업 여부와 관련해서는 취업한 노인의 도구적 지원 제공률이 76.4%로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구적 지원 제공률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서 두드러진다. 한편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도구적 지원 제공률은 74.1%로 제한이 있는 노인의 45.3%에 비해 더 높다.

즉, 동거 자녀와의 도구적 지원에 있어서 동부지역 거주 노인, 여자 노인, 고연령 노인인 경우에 자녀에 대한 제공률 및 자녀로부터의 수혜율이 모두 높다. 이외 무배우 노인, 저학력 노인, 기능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의 도구적 지원 수혜율이 높고, 자녀 특성에 있어서는 기혼 딸로부터의 도구적 지원 수혜율이 높다. 반면 노인이 동거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취업 중인 노인,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자녀 특성에 있어서는 미혼자녀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높다.

〈표 5-9〉 노인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30.0	44.3	16.2	9.6	100.0 (1,998)
지역					
동부	29.2	45.7	16.0	9.1	100.0 (1,685)
읍·면부	34.2	36.8	17.3	11.8	100.0 (314)
성					
남자	31.3	40.0	17.8	10.9	100.0 (609)
여자	29.4	46.2	15.4	9.0	100.0 (1,389)
연령					
65~69세	18.8	45.3	22.9	13.0	100.0 (620)
70~74세	26.4	43.4	18.0	12.2	100.0 (353)
75~79세	23.9	52.4	14.2	9.5	100.0 (411)
80~84세	41.8	41.2	11.9	5.1	100.0 (364)
85세 이상	55.5	34.1	6.6	3.7	100.0 (25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9.4	42.2	23.4	15.0	100.0 (783)
배우자 없음	36.8	45.7	11.5	6.1	100.0 (1,216)
교육수준					
무학	41.9	44.3	8.7	5.0	100.0 (329)
초등학교	32.5	45.1	14.4	8.0	100.0 (671)
중학교	26.7	42.2	19.9	11.1	100.0 (414)
고등학교	23.6	44.5	20.0	12.0	100.0 (506)
전문대학 이상	16.6	47.5	17.6	18.3	100.0 (79)
현취업상태					
취업중	27.0	41.9	20.3	10.9	100.0 (521)
미취업	31.0	45.2	14.7	9.1	100.0 (1,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9.4	39.1	18.5	3.0	100.0 (168)
제2오분위	30.9	38.7	16.8	13.7	100.0 (197)
제3오분위	38.7	38.7	14.0	8.6	100.0 (190)
제4오분위	25.4	50.4	15.6	8.6	100.0 (500)
제5오분위	28.8	44.3	16.3	10.5	100.0 (94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5.3	39.5	16.9	8.4	100.0 (449)
50%이상~100%미만	29.9	45.1	14.5	10.5	100.0 (644)
100%이상~150%미만	26.6	45.6	18.6	9.2	100.0 (571)
150%이상	28.8	47.1	14.2	10.0	100.0 (335)
기능상태					
제한 없음	26.4	44.8	18.0	10.8	100.0 (1,636)
제한 있음	46.0	42.1	8.0	3.9	100.0 (363)
동거 자녀의 특성					
기혼장남(과 기타자녀)	41.0	45.7	7.8	5.5	100.0 (589)
기혼차남이하(과 기타자녀)	26.0	46.2	18.3	9.5	100.0 (125)
기혼딸(과 기타자녀)	53.8	35.0	6.4	4.8	100.0 (227)
미혼자녀	19.2	45.3	22.7	12.8	100.0 (1,058)
2017년도 ²⁾	17.4	45.4	24.0	13.2	100.0 (2,389)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자녀가 있는 1,998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5-10〉 노인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25.6	43.3	17.9	13.2	100.0 (1,998)
지역					
동부	25.0	44.0	18.1	12.9	100.0 (1,685)
읍·면부	28.6	39.8	16.7	15.0	100.0 (314)
성					
남자	20.3	38.6	23.7	17.4	100.0 (609)
여자	27.9	45.4	15.4	11.4	100.0 (1,389)
연령					
65~69세	34.0	44.4	12.5	9.1	100.0 (620)
70~74세	28.7	46.5	15.6	9.1	100.0 (353)
75~79세	25.1	46.8	14.7	13.4	100.0 (411)
80~84세	17.9	40.5	29.9	11.7	100.0 (364)
85세 이상	12.4	34.5	22.3	30.8	100.0 (25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9.4	39.6	17.0	14.0	100.0 (783)
배우자 없음	23.1	45.7	18.5	12.7	100.0 (1,216)
교육수준					
무학	19.0	42.6	20.4	17.9	100.0 (329)
초등학교	23.3	44.0	18.9	13.7	100.0 (671)
중학교	26.3	42.9	17.6	13.1	100.0 (414)
고등학교	32.7	42.7	15.2	9.5	100.0 (506)
전문대학 이상	22.5	46.4	17.7	13.4	100.0 (79)
현취업상태					
취업중	29.5	46.9	16.4	7.2	100.0 (521)
미취업	24.2	42.1	18.4	15.3	100.0 (1,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0.9	39.0	20.0	10.1	100.0 (168)
제2오분위	34.0	34.3	19.6	12.0	100.0 (197)
제3오분위	24.1	44.3	14.5	17.1	100.0 (190)
제4오분위	18.1	48.2	18.1	15.5	100.0 (500)
제5오분위	27.1	43.1	17.8	12.0	100.0 (94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9.4	39.5	19.9	11.3	100.0 (449)
50%이상~100%미만	20.0	44.9	15.6	19.5	100.0 (644)
100%이상~150%미만	29.1	41.0	19.3	10.6	100.0 (571)
150%이상	25.2	49.3	17.3	8.2	100.0 (335)
기능상태					
제한 없음	28.8	45.3	16.8	9.1	100.0 (1,636)
제한 있음	10.9	34.4	22.9	31.8	100.0 (363)
동거 자녀의 특성					
기혼장남(과 기타자녀)	20.1	44.1	19.6	16.2	100.0 (589)
기혼차남이하(와 기타자녀)	19.5	37.5	29.0	14.1	100.0 (125)
기혼딸(과 기타자녀)	15.0	43.3	16.6	25.1	100.0 (227)
미혼자녀	31.6	43.5	15.9	8.9	100.0 (1,058)
2017년도 ²⁾	11.5	56.1	24.4	8.0	100.0 (2,389)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자녀가 있는 1,998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의 제 특성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 노인은 50.1%가 자녀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았으나, 읍·면부 거주 노인은 48.7%로 나타나 동부 거주 노인이 약간 더 높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이 52.0%로 남자 노인보다 수혜율이 높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로부터의 돌봄 지원 경험률이 높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34.0%만이 자녀로부터 돌봄을 받았으나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약 2배인 71.3%에 이른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57.8%)이 유배우 노인(37.6%)에 비해 돌봄 경험률이 높다. 동거 자녀 특성별로는 기혼 장남 및 기타 자녀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은 비율이 62.8%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기혼 딸 및 기타 자녀에게 60.8%, 기혼차남 이하 및 기타 자녀 49.6%, 미혼자녀 40.4% 순이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돌봄 경험률이 높다. 무학 노인은 65.6%가 동거 자녀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는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34.0%이다. 취업 여부와 관련해서는 미취업 노인이 53.4%로 취업 노인에 비해 더 많은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적다. 기능 제한에 있어서는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의 돌봄 수혜율이 76.9%로 제한이 없는 노인(43.9%)에 비해 약 30%p 높다.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의 제 특성별 차이에서, 지역별 차이는 제공률과는 다른 양상이다. 읍·면부 거주 노인은 34.0%가 동거 자녀에게 돌봄을 제공한 반면, 동부 거주 노인은 28.6%가 이에 해당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에 비해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율이 높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에게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높다. 65~69세 연령군의 돌봄 지원 제공률이 32.4%인데 반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19.7%이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동거 자녀 특성과 관련해서는 미혼자녀에 대한 돌봄 제공률이 30.6%로 가장 높고, 다음은 기혼 장남 및 기타 자녀 29.4%, 기혼 딸 및 기타 자녀 29.0%, 기혼차남 이하 및 기타 자녀 20.5% 순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무학 노인의 돌봄 제공률이 22.0%로 가장 낮다. 취업 노인의 돌봄 제공률은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으며,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 역시 뚜렷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는다. 기능 제한의 경우,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31.5%가 자녀에게 돌봄 지원을 제공하여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해 높다.

동거 자녀와의 돌봄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 성별, 연령, 취업여부, 기능 저하에 따라

제공-수혜 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돌봄 지원은 신체 및 기능상태 저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동거 자녀로부터의 돌봄 지원 수혜율은 동부 지역 거주 노인, 여자 노인, 고령 노인, 미취업 노인, 기능 제한을 경험한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제공은 이와 반대의 경향이다. 저학력 노인이거나 무배우 노인인 경우에 동거 자녀로부터의 돌봄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기혼 장남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비율이 높다. 반면 돌봄 제공에 있어서는 도구적 지원 제공과 마찬가지로 미혼자녀에 대한 제공률이 기타 다른 동거 자녀들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5-11〉 노인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14.3	35.6	19.3	30.8	100.0 (1,998)
지역					
동부	13.8	36.3	18.6	31.3	100.0 (1,685)
읍·면부	17.2	31.5	23.0	28.2	100.0 (314)
성					
남자	10.7	34.3	21.3	33.7	100.0 (609)
여자	15.9	36.1	18.4	29.5	100.0 (1,389)
연령					
65~69세	3.8	30.2	23.9	42.0	100.0 (620)
70~74세	9.5	29.2	24.1	37.1	100.0 (353)
75~79세	14.4	40.6	19.1	25.9	100.0 (411)
80~84세	22.3	44.9	14.1	18.7	100.0 (364)
85세 이상	35.3	36.0	8.9	19.8	100.0 (25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1	31.5	22.6	39.7	100.0 (783)
배우자 없음	19.6	38.2	17.1	25.0	100.0 (1,216)
교육수준					
무학	25.4	40.2	14.8	19.7	100.0 (329)
초등학교	16.5	39.3	18.0	26.2	100.0 (671)
중학교	13.2	33.3	22.7	30.8	100.0 (414)
고등학교	6.4	30.7	21.6	41.2	100.0 (506)
전문대학 이상	6.4	27.6	17.1	49.0	100.0 (79)
현취업상태					
취업중	7.9	32.1	22.9	37.0	100.0 (521)
미취업	16.6	36.8	18.0	28.6	100.0 (1,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7.1	32.0	21.2	29.7	100.0 (168)
제2오분위	12.5	37.0	19.4	31.1	100.0 (197)
제3오분위	21.2	29.3	23.8	25.7	100.0 (190)
제4오분위	13.7	38.8	21.8	25.7	100.0 (500)
제5오분위	13.2	35.5	16.7	34.7	100.0 (94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3.3	35.8	22.6	28.2	100.0 (449)
50%이상~100%미만	19.2	33.1	18.0	29.7	100.0 (644)
100%이상~150%미만	10.3	38.7	17.7	33.3	100.0 (571)
150%이상	13.0	34.8	20.0	32.2	100.0 (33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6	33.3	20.6	35.5	100.0 (1,636)
제한 있음	30.9	46.0	13.5	9.5	100.0 (363)
동거 자녀의 특성					
기혼장남(과 기타자녀)	21.7	41.1	13.7	23.5	100.0 (589)
기혼차남이하(과 기타자녀)	10.4	39.2	16.9	33.5	100.0 (125)
기혼딸(과 기타자녀)	27.6	33.2	19.0	20.3	100.0 (227)
미혼자녀	7.8	32.6	22.8	36.8	100.0 (1,058)
2017년도 ²⁾	13.8	36.8	27.6	21.8	100.0 (2,389)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자녀가 있는 1,998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5-12〉 노인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8.5	21.0	21.8	48.7	100.0 (1,998)
지역					
동부	8.0	20.6	21.9	49.5	100.0 (1,685)
읍·면부	11.1	22.9	21.7	44.4	100.0 (314)
성					
남자	9.5	21.6	21.2	47.7	100.0 (609)
여자	8.0	20.7	22.1	49.2	100.0 (1,389)
연령					
65~69세	7.7	24.7	20.6	47.0	100.0 (620)
70~74세	11.2	20.1	18.8	49.9	100.0 (353)
75~79세	9.7	23.2	23.8	43.2	100.0 (411)
80~84세	7.7	17.6	27.1	47.6	100.0 (364)
85세 이상	5.4	14.3	18.1	62.2	100.0 (25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0	20.7	18.9	51.3	100.0 (783)
배우자 없음	8.1	21.1	23.7	47.1	100.0 (1,216)
교육수준					
무학	3.9	18.1	24.8	53.3	100.0 (329)
초등학교	8.9	23.8	22.4	45.0	100.0 (671)
중학교	11.3	22.3	20.4	46.1	100.0 (414)
고등학교	9.2	18.6	20.1	52.1	100.0 (506)
전문대학 이상	4.7	17.7	23.5	54.2	100.0 (79)
현재취업상태					
취업중	11.8	24.9	16.2	47.1	100.0 (521)
미취업	7.3	19.6	23.8	49.3	100.0 (1,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1	14.6	18.8	52.5	100.0 (168)
제2오분위	10.8	22.8	15.9	50.5	100.0 (197)
제3오분위	9.2	21.4	22.4	47.0	100.0 (190)
제4오분위	6.0	29.5	20.8	43.7	100.0 (500)
제5오분위	8.1	17.2	24.0	50.7	100.0 (94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1.2	20.3	17.8	50.8	100.0 (449)
50%이상~100%미만	6.5	24.3	20.1	49.0	100.0 (644)
100%이상~150%미만	7.1	19.7	25.9	47.3	100.0 (571)
150%이상	10.9	17.6	23.6	47.8	100.0 (335)
기능상태					
제한 없음	9.2	22.3	21.4	47.1	100.0 (1,636)
제한 있음	5.0	15.0	24.0	56.0	100.0 (363)
동거 자녀의 특성					
기혼장남(과 기타자녀)	9.2	20.2	20.6	50.0	100.0 (589)
기혼차남이하(과 기타자녀)	5.6	14.9	36.0	43.5	100.0 (125)
기혼딸(과 기타자녀)	10.2	18.8	22.6	48.3	100.0 (227)
미혼자녀	8.0	22.6	20.7	48.7	100.0 (1,058)
2017년도 ²⁾	3.7	17.3	33.0	46.0	100.0 (2,389)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자녀가 있는 1,998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경제적 부양의 경우, 수혜율은 정기적 현금지원 56.2%, 비정기적 현금지원 79.8%, 현물지원 80.0%로 나타난 반면 제공률은 각각 19.5%, 33.4%, 41.8%이다. 즉 경제적 부양에 있어서는 수혜율이 제공률보다 높고, 교환수준은 현물지원, 비정기적 현금지원, 정기적 현금지원 순이다.

제 특성별 경제적 부양 교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혜율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거의 없으나, 현물지원에 있어서 동부 거주 노인이 81.0%로 읍·면부 거주노인의 75%에 비해 높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이 경제적 부양 항목과 관계없이 남자 노인보다 수혜율이 높다. 연령군별 차이는 적은 편이며, 비정기적 현금지원에 있어서 고연령일수록 수혜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수혜율이 현금·현물 지원에 있어 모두 유배우 노인보다 높다. 동거 자녀의 특성별로 현금지원에 있어서는 기혼차남 이하 및 기타 자녀로부터의 수혜율이 높고, 현물지원에 있어서는 기혼 딸 및 기타 자녀로부터의 수혜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이는 뚜렷한 경향성이라기보다는, 동거 자녀의 특성과 경제적 지원 유형 간 역동이 작용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비정기적 현금지원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수혜율이 높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 중 60.0%가 동거 자녀로부터 비정기적 현금지원을 받는 반면에 무학 노인은 동 비율이 84.1%에 이른다. 미취업 노인의 수혜율은 현금, 현물의 정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 노인보다 높다. 취업으로 인한 정기적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가구소득에 있어서 두드러진 경향성은 적은 편이다. 한편 노인의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양 제공률에 있어 세부적인 특성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 노인이 읍·면부 거주 노인에 비해 자녀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에서 지역 간 차이는 8.2%p로 가장 크다. 성별에 따라서는 수혜율과 달리 남자 노인이 현금, 현물의 정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여자 노인보다 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높다. 연령별 차이도 두드러져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비율이 높다. 정기적 현금지원에 있어 65~69세 연령군에서는 24.3%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8.7%가 해당하여 약 3배의 차이가 있다. 비정기적 현금지원에 있어서는 동 연령군에서 각각 41.8%, 22.7%를 제공하

며, 현물지원에 있어서는 각각 52.1%, 23.5%를 제공하여 약 2배 정도 차이를 둔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이 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 비율이 더 높다. 무배우 노인에 비해 유배우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구자산을 더 많이 보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거 자녀의 특성별로는 현금성 지원은 기혼차남 이하 및 기타 자녀에게, 현물성 지원은 미혼자녀에게 제공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동거 자녀의 특성이 작용했다기보다, 앞서 살펴본 수혜율과의 호혜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동거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현물성 지원에서 두드러지며, 무학 노인은 24.4%가 제공한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60.8%로 그 격차가 크다. 취업한 노인의 동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율이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으며, 이는 수혜율과는 다른 양상이다. 가구소득은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율이 더 낮다.

종합할 때, 여자 노인, 무배우자 노인, 저학력 노인, 미취업 노인, 기능상태 제한 경험 노인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닌 경우에 동거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제적 지원의 제공에 있어서는 상반된 양상이 나타난다.

〈표 5-13〉 노인의 일반특성별 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특성	수혜			제공			계(명)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전체 ¹⁾	56.2	79.8	80.0	19.5	33.4	41.8	100.0(1,998)
지역							
동부	56.3	79.9	81.0	19.8	34.7	42.3	100.0(1,685)
읍·면부	55.6	79.2	75.0	17.8	26.5	39.4	100.0(314)
성							
남자	49.3	74.6	76.0	24.8	39.3	46.9	100.0(609)
여자	59.2	82.0	81.8	17.1	30.8	39.6	100.0(1,389)
연령							
65~69세	52.3	75.6	79.7	24.3	41.8	52.1	100.0(620)
70~74세	63.5	76.0	78.0	20.6	33.5	45.6	100.0(353)
75~79세	56.5	84.5	82.5	21.7	37.1	47.4	100.0(411)
80~84세	61.7	82.0	78.5	14.8	22.1	26.9	100.0(364)
85세 이상	47.0	84.3	81.8	8.7	22.7	23.5	100.0(25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6.9	74.7	78.3	22.0	39.8	52.1	100.0(783)
배우자 없음	62.1	83.0	81.1	17.8	29.2	35.2	100.0(1,216)
교육수준							
무학	49.3	84.1	82.6	9.8	22.2	24.4	100.0(329)
초등학교	63.9	81.9	78.6	20.0	28.5	38.6	100.0(671)
중학교	56.3	78.3	80.2	21.7	36.1	46.7	100.0(414)
고등학교	53.1	78.4	79.4	22.6	42.6	50.5	100.0(506)
전문대학 이상	39.1	60.0	84.4	23.9	47.9	60.8	100.0(79)
현취업상태							
취업중	47.9	73.0	75.6	29.7	45.6	54.5	100.0(521)
미취업	59.1	82.1	81.6	15.8	29.1	37.3	100.0(1,4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0.7	87.2	84.7	18.6	44.0	52.1	100.0(168)
제2오분위	59.2	75.5	75.8	22.8	35.6	40.0	100.0(197)
제3오분위	51.8	73.6	73.4	16.0	31.4	43.9	100.0(190)
제4오분위	58.0	79.2	75.7	18.8	28.7	37.0	100.0(500)
제5오분위	56.5	80.9	83.7	19.9	33.9	42.5	100.0(94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4.5	79.2	79.5	20.3	37.9	46.5	100.0(449)
50%이상~100%미만	53.5	79.2	75.0	16.4	28.2	38.0	100.0(644)
100%이상~150%미만	60.9	80.4	81.7	18.1	30.2	38.3	100.0(571)
150%이상	55.6	80.4	87.4	26.4	42.9	48.8	100.0(335)
기능상태							
제한 없음	55.9	78.9	79.3	21.2	35.5	46.0	100.0(1,636)
제한 있음	57.6	83.4	83.3	11.5	23.8	23.1	100.0(363)
동거 자녀							
기혼장남(과 기타자녀)	56.8	85.1	81.7	17.1	29.9	36.4	100.0(589)
기혼차남이하(과 기타자녀)	62.0	85.6	82.5	20.8	43.5	45.0	100.0(125)
기혼딸(과 기타자녀)	59.3	80.5	86.9	12.6	24.3	29.6	100.0(227)
미혼자녀	54.5	76.0	77.3	22.1	36.1	47.0	100.0(1,058)
2017년도 ²⁾	56.8	73.2	78.7	12.8	27.8	47.3	100.0(2,389)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자녀가 있는 1,998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3절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 교환 실태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 교환 실태 역시 정서적, 도구적, 돌봄, 경제적 지원 측면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노인이 비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70.5%이며, 제공하는 비율은 56.4%이다. 도구적 지원은 33.0%가 받으며, 19.6%가 제공한다. 돌봄 지원은 31.3%가 받으며, 9.4%가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자녀 간 연령대를 고려할 때, 전반적인 지원 교환은 자녀로부터 수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비동거 자녀는 배우자나 동거 자녀와 같이 거주공간을 공유하지 않으므로, 도구적 지원이나 돌봄 지원에 있어 앞선 두 관계보다 해당 비율이 더 낮은 수준이다. 경제적 측면의 경우, 비정기적 현금지원 85.6%, 현물지원 77.9%, 정기적 현금지원 46.0% 순으로 비동거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반면, 경제적 지원 제공은 현물지원 42.4%, 비정기적 현금지원 29.1%, 정기적 현금지원 12.5% 순으로 나타난다. 즉, 노인은 비동거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⁵⁾,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돌봄 지원 순으로 받으며,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도구적 지원, 돌봄 지원 순으로 제공하고 있다.

비동거 자녀와의 정서적 지원 수혜에 관한 제 특성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차이는 동부 노인이 읍·면부 노인과 비교하여 근소하게 높으나, 그 차이가 적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남자 67.1%, 여자 73.1%), 이는 동거 자녀의 정서적 지원에 있어서도 발견된 바 있다. 연령군별로는 비교적 연령이 많을수록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을 띤다.

한편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무배우 노인의 정서적 지원 수혜율이 71.9%로 유배우 노인에 비해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 가구 74.6%, 노인 독거가구 70.6%, 노인 부부가구 69.4% 등의 순이다.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노인과 동거 자녀 간 발생할 수 있는 역동 및 관계 갈등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비동거 자녀와의 정서적 지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노인 독거가구의 경우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떨어져 있는 자녀를 통해 이를 충족시키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정서적 지지는 비동거 자녀 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

5) 경제적 측면의 경우,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작성함.

나,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79.6%가 이에 해당한다. 취업 중인 노인이 정서적 지원을 미취업 노인에 비해 더 많이 받으며, 소득수준에 따른 경향성은 적은 편이다. 한편 기능상태 제한을 경험한 노인(75.3%)이 그렇지 않은 노인(69.8%)에 비해 비동거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의 제 특성별 차이는 수혜율과 마찬가지로 동부 노인의 제공률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높다. 성별 차이는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근소하게 더 높긴 하나, 수혜율에 비해 그 차이가 적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65~69세 연령군에서는 62.7%로 85세 연령군의 44.8%와 비교하여 약 20%p 높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 제공률이 더 높다(58.7%).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정서적 지원 제공률이 58.5%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 가구 54.1%, 기타가구 53.8%, 노인 독거가구 52.9% 순이다. 비동거 자녀 수에 따라서는 2명까지는 제공률이 높아지나, 3명 이상부터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띤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 제공률 역시 높아,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75.6%가 이에 해당한 반면 무학 노인은 42.7%로 약 30%p 이상 차이가 있다. 취업 중인 노인의 정서적 지원 제공률이 62.3%로 더 높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지원 제공률 역시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자녀와 정서적 교류 역시 활발함을 의미한다. 나이가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정서적 지원 제공률이 57.6%로 더 높다.

즉, 비동거 자녀와의 정서적 지원은 동부 지역 거주 노인, 여자 노인, 고학력 노인, 취업 중인 노인에게서 제공-수혜율이 더 높다. 한편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경우는 고령 노인, 무배우 노인, 기능 제한을 경험한 노인에게서 더 높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의 노인이 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의 경향을 띤다. 나이가 비동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받으나, 제공률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한 양상은 아니다.

〈표 5-14〉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¹⁾	18.8	51.7	16.7	12.9	100.0(9,463)
지역					
동부	18.0	52.9	17.8	11.3	100.0(7,124)
읍·면부	21.2	47.9	13.2	17.7	100.0(2,340)
성					
남자	16.9	50.2	19.0	13.8	100.0(4,111)
여자	20.3	52.8	14.9	12.1	100.0(5,352)
연령					
65~69세	19.7	51.3	17.0	12.0	100.0(3,086)
70~74세	16.6	51.2	19.0	13.2	100.0(2,191)
75~79세	18.0	52.7	16.8	12.5	100.0(2,178)
80~84세	19.7	52.5	13.7	14.0	100.0(1,415)
85세 이상	23.5	49.4	12.6	14.5	100.0(59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8.3	51.5	17.3	12.8	100.0(6,488)
배우자 없음	19.9	52.0	15.2	12.9	100.0(2,975)
가구형태					
노인독거	20.9	49.7	15.5	14.0	100.0(1,863)
노인부부	18.4	51.0	17.2	13.3	100.0(5,734)
자녀동거	17.8	56.8	15.1	10.3	100.0(1,706)
기타	19.4	43.4	27.5	9.7	100.0(161)
교육수준					
무학	17.4	49.5	15.9	17.2	100.0(1,011)
초등학교	19.8	51.0	15.9	13.2	100.0(2,992)
중학교	17.7	49.7	17.2	15.3	100.0(2,207)
고등학교	17.5	54.5	17.8	10.3	100.0(2,681)
전문대학 이상	26.5	53.1	14.4	6.0	100.0(573)
현취업상태					
취업중	19.9	52.9	15.3	11.9	100.0(3,357)
미취업	18.2	51.0	17.4	13.4	100.0(6,1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9.2	49.2	13.3	18.3	100.0(1,882)
제2오분위	18.8	50.2	18.4	12.5	100.0(1,929)
제3오분위	19.7	51.4	16.3	12.7	100.0(1,947)
제4오분위	17.2	52.3	18.5	12.1	100.0(1,914)
제5오분위	19.1	55.5	16.7	8.6	100.0(1,79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8.2	50.3	15.8	15.7	100.0(3,773)
50%이상~100%미만	19.2	51.6	16.9	12.2	100.0(3,222)
100%이상~150%미만	16.8	53.4	18.1	11.8	100.0(1,518)
150%이상	23.2	54.6	17.0	5.2	100.0(950)
기능상태					
제한 없음	18.7	51.1	16.8	13.4	100.0(8,316)
제한 있음	19.7	55.6	15.8	8.9	100.0(1,147)
비동거 자녀 수					
1명	15.9	48.2	22.2	13.7	100.0(961)
2명	16.1	53.5	18.2	12.2	100.0(3,493)
3명	18.9	53.2	15.5	12.3	100.0(2,722)
4명	23.3	48.9	13.2	14.6	100.0(1,414)
5명 이상	25.3	47.5	13.7	13.4	100.0(872)
2017년도 ²⁾	9.6	60.6	23.4	6.4	100.0(9,615)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463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5-15〉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¹⁾	12.5	43.9	25.3	18.3	100.0(9,463)
지역					
동부	12.9	44.3	26.3	16.6	100.0(7,124)
읍·면부	11.6	42.9	22.2	23.4	100.0(2,340)
성					
남자	12.3	43.6	26.0	18.1	100.0(4,111)
여자	12.8	44.1	24.7	18.4	100.0(5,352)
연령					
65~69세	16.8	45.9	23.2	14.2	100.0(3,086)
70~74세	12.3	45.0	24.4	18.3	100.0(2,191)
75~79세	9.9	45.2	26.2	18.8	100.0(2,178)
80~84세	9.4	39.1	29.5	22.0	100.0(1,415)
85세 이상	8.8	36.0	26.3	28.9	100.0(59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3.7	45.0	24.4	17.0	100.0(6,488)
배우자 없음	10.1	41.6	27.2	21.1	100.0(2,975)
가구형태					
노인독거	10.7	42.2	25.5	21.6	100.0(1,863)
노인부부	13.8	44.7	24.2	17.4	100.0(5,734)
자녀동거	10.4	43.7	28.0	17.9	100.0(1,706)
기타	14.6	39.2	32.3	13.9	100.0(161)
교육수준					
무학	6.1	36.6	28.1	29.2	100.0(1,011)
초등학교	10.1	42.4	27.5	19.9	100.0(2,992)
중학교	12.2	42.3	25.7	19.8	100.0(2,207)
고등학교	15.3	48.2	23.2	13.3	100.0(2,681)
전문대학 이상	25.1	50.5	16.1	8.3	100.0(573)
현취업상태					
취업중	14.7	47.6	22.1	15.6	100.0(3,357)
미취업	11.4	41.9	27.0	19.7	100.0(6,1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0	39.8	24.4	25.8	100.0(1,882)
제2오분위	9.3	43.6	27.2	19.9	100.0(1,929)
제3오분위	13.7	44.8	24.3	17.2	100.0(1,947)
제4오분위	13.2	45.9	25.0	15.9	100.0(1,914)
제5오분위	16.9	45.5	25.3	12.3	100.0(1,79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0	41.7	26.1	23.2	100.0(3,773)
50%이상~100%미만	13.9	45.1	24.2	16.8	100.0(3,222)
100%이상~150%미만	13.6	43.7	28.0	14.7	100.0(1,518)
150%이상	20.4	48.8	21.2	9.6	100.0(950)
기능상태					
제한 없음	12.9	44.7	24.5	17.9	100.0(8,316)
제한 있음	10.0	38.4	30.7	20.9	100.0(1,147)
비동거 자녀 수					
1명	11.7	40.4	30.0	17.9	100.0(961)
2명	12.9	45.6	25.4	16.2	100.0(3,493)
3명	13.0	45.3	24.5	17.2	100.0(2,722)
4명	13.1	41.8	23.0	22.1	100.0(1,414)
5명 이상	9.8	40.3	25.6	24.2	100.0(872)
2017년도 ²⁾	6.1	53.0	29.1	11.8	100.0(9,615)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463명을 대상으로 한.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은 정서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동부 거주 노인이 33.4%로 읍·면부 거주 노인의 31.9%에 비해 높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이 34.5%로 남자 노인의 31.0%에 비해 높은 수혜율을 보인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로부터 가사지원 등의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30.7%가 이에 해당하나,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40%가 해당한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이 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36.6%로 더 많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 독거가구 41.4%, 노인 부부가구 31.9%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협소한 자원망으로 인해 가사지원 등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비동거 자녀 수가 많을수록 돌봄 지원 수혜율 역시 높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무학 노인일 경우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 37.0%가 해당한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27.1%이다. 무학 노인일 경우 상대적으로 고령층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미취업 노인의 도구적 지원 수혜율이 더 높고, 소득수준에 따른 경향성 차이는 적다. 기능 제한을 경험한 노인에게서 도구적 지원 수혜율은 48.3%로 나타나, 기능 제한을 경험하지 않는 노인에 비해 높다. 기능 제한에 따른 일상생활 활동 제약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은 수혜율과 마찬가지로 동부 지역 노인이 20.0%로 읍·면부 지역 노인의 18.6%에 비해 더 높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제공률이 21.7%로 남자 노인에 비해 높으며, 이같은 경향성은 배우자나 동거 자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다. 연령군별로는 노인의 연령이 적을수록 비동거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한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24.9%가 자녀에게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나,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15.3%이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20.2%)이 무배우 노인(18.5%)에 비해 더 많은 도구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 및 노인부부가구에서 이같은 경향성이 높다. 자녀로부터 도구적 지원 수혜율 역시 노인 단독가구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호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자녀 수와 관련한 제공률에 있어서는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노인의 교육수준에 있어서 역시 수혜율과 달리 도구적 지원 제공에 있어서는 명확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단, 무학 노인의 도구적 지원 제공률이 12.9%로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낮다. 취업 중인 노인,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의 도구적 지원 제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나이가 기능상태 제한을 경험하지 않는 노인의 경우, 제한을 경험한 노인에 비해 제공률이 3.0%p 더 높다.

비동거 자녀와의 도구적 지원에 있어서 동부 거주 노인, 여자 노인, 노인 독거가구인 경우 자녀에 대한 제공률 및 자녀로부터의 수혜율이 모두 높다. 한편 도구적 지원 수혜율은 고령 노인, 무배우 노인, 저학력 노인, 미취업 노인, 기능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에게서 더 높다. 수혜율의 이같은 양상은 상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적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제공률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 경향을 띠며,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의 경우 역시 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률이 높다.

〈표 5-16〉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¹⁾	7.9	25.1	29.1	37.9	100.0(9,463)
지역					
동부	7.3	26.1	28.5	38.1	100.0(7,124)
읍·면부	9.8	22.1	31.1	37.1	100.0(2,340)
성					
남자	7.2	23.8	29.7	39.3	100.0(4,111)
여자	8.4	26.1	28.6	36.8	100.0(5,352)
연령					
65~69세	7.3	23.4	31.5	37.8	100.0(3,086)
70~74세	7.0	23.5	29.6	39.9	100.0(2,191)
75~79세	7.0	25.8	29.5	37.7	100.0(2,178)
80~84세	9.3	29.9	24.8	36.0	100.0(1,415)
85세 이상	14.2	25.8	23.8	36.2	100.0(59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8	24.6	30.4	38.2	100.0(6,488)
배우자 없음	10.2	26.4	26.3	37.2	100.0(2,975)
가구형태					
노인독거	11.2	30.2	26.2	32.4	100.0(1,863)
노인부부	6.9	25.0	31.0	37.1	100.0(5,734)
자녀동거	7.8	20.0	25.4	46.8	100.0(1,706)
기타	6.6	25.7	33.9	33.8	100.0(161)
교육수준					
무학	7.4	29.6	28.1	34.9	100.0(1,011)
초등학교	9.9	26.9	27.0	36.1	100.0(2,992)
중학교	7.6	24.7	29.2	38.5	100.0(2,207)
고등학교	6.6	22.5	30.8	40.1	100.0(2,681)
전문대학 이상	5.4	21.7	33.3	39.7	100.0(573)
현취업상태					
취업중	8.4	23.6	32.2	35.8	100.0(3,357)
미취업	7.6	26.0	27.4	39.0	100.0(6,1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7	25.7	26.7	38.9	100.0(1,882)
제2오분위	9.4	25.2	28.9	36.4	100.0(1,929)
제3오분위	8.1	27.2	28.6	36.1	100.0(1,947)
제4오분위	6.9	23.5	31.6	38.0	100.0(1,914)
제5오분위	6.2	24.0	29.8	40.1	100.0(1,79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5	25.1	27.9	38.4	100.0(3,773)
50%이상~100%미만	8.1	26.0	28.7	37.2	100.0(3,222)
100%이상~150%미만	6.4	19.5	32.9	41.1	100.0(1,518)
150%이상	7.3	31.0	29.0	32.8	100.0(950)
기능상태					
제한 없음	7.4	23.5	29.9	39.2	100.0(8,316)
제한 있음	11.2	37.1	23.1	28.6	100.0(1,147)
비동거 자녀 수					
1명	5.0	15.4	29.5	50.0	100.0(961)
2명	6.4	24.9	30.4	38.4	100.0(3,493)
3명	7.5	25.6	29.5	37.4	100.0(2,722)
4명	11.5	28.1	27.2	33.2	100.0(1,414)
5명 이상	12.4	30.3	25.6	31.7	100.0(872)
2017년도 ²⁾	3.8	30.7	38.4	27.1	100.0(9,615)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463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5-17〉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¹⁾	3.8	15.8	31.2	49.1	100.0 (9,463)
지역					
동부	3.9	16.1	30.7	49.3	100.0 (7,124)
읍·면부	3.7	14.9	32.9	48.5	100.0 (2,340)
성					
남자	3.1	14.0	31.6	51.3	100.0 (4,111)
여자	4.5	17.2	30.9	47.4	100.0 (5,352)
연령					
65~69세	4.7	20.2	31.7	43.4	100.0 (3,086)
70~74세	3.6	15.9	32.0	48.5	100.0 (2,191)
75~79세	3.5	13.3	32.3	50.9	100.0 (2,178)
80~84세	2.8	11.9	31.5	53.8	100.0 (1,415)
85세 이상	3.8	11.5	21.1	63.6	100.0 (59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6	16.6	32.3	47.5	100.0 (6,488)
배우자 없음	4.3	14.2	28.9	52.6	100.0 (2,975)
가구형태					
노인독거	4.8	15.4	30.1	49.7	100.0 (1,863)
노인부부	3.6	16.6	33.1	46.7	100.0 (5,734)
자녀동거	3.9	13.7	26.0	56.4	100.0 (1,706)
기타	3.0	14.3	32.5	50.2	100.0 (161)
교육수준					
무학	2.8	10.1	28.9	58.2	100.0 (1,011)
초등학교	4.1	15.5	30.9	49.5	100.0 (2,992)
중학교	4.3	17.1	31.3	47.4	100.0 (2,207)
고등학교	3.8	17.2	31.7	47.4	100.0 (2,681)
전문대학 이상	2.9	16.7	34.6	45.7	100.0 (573)
현취업상태					
취업중	5.3	17.5	32.6	44.6	100.0 (3,357)
미취업	3.1	14.9	30.5	51.6	100.0 (6,1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5	12.8	29.6	54.1	100.0 (1,882)
제2오분위	4.6	12.8	31.5	51.0	100.0 (1,929)
제3오분위	3.8	16.8	32.9	46.5	100.0 (1,947)
제4오분위	3.7	17.1	32.4	46.8	100.0 (1,914)
제5오분위	3.6	19.7	29.6	47.2	100.0 (1,79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9	12.3	30.8	53.0	100.0 (3,773)
50%이상~100%미만	3.8	16.9	31.5	47.8	100.0 (3,222)
100%이상~150%미만	3.3	17.6	31.5	47.7	100.0 (1,518)
150%이상	4.9	23.3	31.4	40.5	100.0 (950)
기능상태					
제한 없음	4.0	16.1	31.5	48.5	100.0 (8,316)
제한 있음	3.1	14.0	29.1	53.8	100.0 (1,147)
비동거 자녀 수					
1명	3.2	11.6	27.5	57.7	100.0 (961)
2명	3.7	17.6	31.9	46.8	100.0 (3,493)
3명	3.3	16.1	32.6	47.9	100.0 (2,722)
4명	5.4	15.9	30.0	48.6	100.0 (1,414)
5명 이상	4.1	12.3	30.2	53.5	100.0 (872)
2017년도 ²⁾	1.1	6.0	33.4	59.5	100.0 (9,615)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463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비동거 자녀에게 받은 돌봄 지원은 정서적 지원이나 도구적 지원과 달리 읍·면부 거주 노인이 33.3%로 동부 거주 노인의 30.7%에 비해 더 높다. 여자 노인(32.6%)이 남자 노인(29.6%)에 비해 돌봄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연령군별로는 고령 노인일수록 이같은 경향성을 띤다.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비동거자녀에게 41.7%가 돌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65~69세 연령군에서는 26.8%가 이에 해당한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인 경우 35.9%가 비동거 자녀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으며,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노인 독거가구가 38.5%로 타 가구유형에 비해 돌봄 지원 수혜율이 높다. 배우자를 비롯하여 가구 내에서 노인을 부양할 가족원이 부재한 경우, 떨어져 있는 자녀가 돌봄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노인이 돌봄 지원을 경험할 비율이 높아져, 5명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42.8%에 이른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적으며, 미취업 노인의 경우 자녀로부터 더 많은 돌봄 지원을 받는다(34.0%).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역시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기능 상태에 따른 차이는 보다 명확하여, 제한을 경험하는 노인 중 51.8%는 비동거 자녀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동거 자녀에 대한 돌봄 제공률은 전반적으로 동거 자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세부 특성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 노인(9.7%)이 읍·면부 지역 노인(8.4%)에 비해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돌봄 지원 비율이 근소하게 높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다소 높은 돌봄 제공률을 보여, 65~69세 연령군에서 16.0%이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11.0%)이 무배우 노인(5.8%)에 비해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비율이 약 2배 높고, 가구 유형에 있어서는 노인 부부가구가 11.9%로 타 가구 유형에 비해 높다. 이는 돌봄 지원 수혜율과 반대의 양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관계자원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 수와 관련해서는 정서적 지원 제공에서와 같이 2명까지는 제공률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나, 이후 점차 낮아져 등락이 있다.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고학력 노인일 경우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제공률이 높다. 무학 노인은 1.8%만이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담당하나,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18.7%로 높다. 전문대학 이상 학력을 보유한 노인일 경우 상대적으로 전기노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다. 취업 중인 노인의 13.0%는

자녀에게 돌봄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미취업 노인의 7.3%보다 높다. 소득수준에서도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제공률이 높은 경향을 띤다. 나이가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률은 9.9%로 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해 더 높다.

비동거 자녀와의 돌봄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 연령, 배우자 유무, 취업여부, 기능 저하 여부에 따라 제공-수혜 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비동거 자녀로부터의 돌봄 지원 수혜율은 읍·면부 노인, 여자 노인, 노인 독거가구, 고령 노인, 미취업 노인, 무배우 노인, 기능 제한을 경험한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건강 및 기능상태 저하, 상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관계 자원이 적은 노인에게서 돌봄 지원 수혜율이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 돌봄 지원 제공은 이와 반대의 경향을 띤다.

〈표 5-18〉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¹⁾	8.2	23.1	24.6	44.1	100.0(9,463)
지역					
동부	7.6	23.1	24.4	45.0	100.0(7,124)
읍·면부	10.2	23.1	25.2	41.5	100.0(2,340)
성					
남자	7.6	22.0	24.7	45.7	100.0(4,111)
여자	8.7	23.9	24.5	42.9	100.0(5,352)
연령					
65~69세	6.3	20.5	26.6	46.6	100.0(3,086)
70~74세	7.6	21.4	25.1	45.9	100.0(2,191)
75~79세	8.4	25.1	25.7	40.8	100.0(2,178)
80~84세	10.7	26.4	20.5	42.4	100.0(1,415)
85세 이상	14.5	27.2	17.8	40.5	100.0(59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2	22.1	25.7	45.1	100.0(6,488)
배우자 없음	10.6	25.3	22.2	42.0	100.0(2,975)
가구형태					
노인독거	11.1	27.4	21.7	39.7	100.0(1,863)
노인부부	7.3	22.2	26.6	43.8	100.0(5,734)
자녀동거	8.1	21.2	21.3	49.4	100.0(1,706)
기타	9.4	22.9	20.1	47.6	100.0(161)
교육수준					
무학	8.9	25.1	22.8	43.3	100.0(1,011)
초등학교	10.8	26.0	22.4	40.8	100.0(2,992)
중학교	7.3	21.4	27.1	44.1	100.0(2,207)
고등학교	6.2	19.7	26.1	48.0	100.0(2,681)
전문대학 이상	6.9	26.5	22.3	44.3	100.0(573)
현취업상태					
취업중	8.0	20.4	27.7	44.0	100.0(3,357)
미취업	8.4	24.6	22.9	44.2	100.0(6,1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1	23.4	22.2	44.3	100.0(1,882)
제2오분위	9.5	24.4	25.9	40.2	100.0(1,929)
제3오분위	8.9	21.2	25.2	44.7	100.0(1,947)
제4오분위	6.0	22.0	26.8	45.2	100.0(1,914)
제5오분위	6.7	24.3	22.7	46.3	100.0(1,79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4	23.6	24.0	43.0	100.0(3,773)
50%이상~100%미만	8.1	21.9	24.5	45.4	100.0(3,222)
100%이상~150%미만	6.3	19.0	27.4	47.3	100.0(1,518)
150%이상	7.3	31.5	22.4	38.8	100.0(950)
기능상태					
제한 없음	7.5	21.0	25.5	46.0	100.0(8,316)
제한 있음	13.8	38.0	18.2	30.0	100.0(1,147)
비동거 자녀 수					
1명	6.9	17.2	23.0	52.9	100.0(961)
2명	6.5	21.8	27.2	44.5	100.0(3,493)
3명	7.5	23.2	23.6	45.7	100.0(2,722)
4명	11.4	26.4	23.6	38.6	100.0(1,414)
5명 이상	13.9	28.9	20.5	36.7	100.0(872)
2017년도 ²⁾	5.2	25.9	33.0	35.9	100.0(9,615)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463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5-19〉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¹⁾	1.5	7.9	34.8	55.9	100.0(9,463)
지역					
동부	1.5	8.2	34.1	56.2	100.0(7,124)
읍·면부	1.5	6.9	36.7	54.9	100.0(2,340)
성					
남자	1.2	8.6	34.4	55.8	100.0(4,111)
여자	1.7	7.3	35.1	55.9	100.0(5,352)
연령					
65~69세	2.8	13.2	31.0	53.0	100.0(3,086)
70~74세	2.4	9.8	33.0	54.8	100.0(2,191)
75~79세	0.1	5.5	38.7	55.7	100.0(2,178)
80~84세	0.0	0.2	41.5	58.3	100.0(1,415)
85세 이상	0.0	0.0	30.7	69.3	100.0(59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7	9.3	34.8	54.2	100.0(6,488)
배우자 없음	1.1	4.7	34.7	59.6	100.0(2,975)
가구형태					
노인독거	1.7	6.7	35.1	56.6	100.0(1,863)
노인부부	1.9	10.0	35.4	52.8	100.0(5,734)
자녀동거	0.1	2.3	32.8	64.9	100.0(1,706)
기타	0.0	5.7	32.1	62.2	100.0(161)
교육수준					
무학	0.0	1.8	34.0	64.2	100.0(1,011)
초등학교	1.1	5.7	37.5	55.7	100.0(2,992)
중학교	2.5	8.3	34.7	54.4	100.0(2,207)
고등학교	1.7	10.1	32.9	55.3	100.0(2,681)
전문대학 이상	1.5	17.2	30.8	50.6	100.0(573)
현취업상태					
취업중	2.5	10.5	33.9	53.0	100.0(3,357)
미취업	0.9	6.4	35.2	57.4	100.0(6,1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	4.8	34.1	60.1	100.0(1,882)
제2오분위	1.8	5.8	38.1	54.2	100.0(1,929)
제3오분위	2.0	8.9	35.2	54.0	100.0(1,947)
제4오분위	1.5	8.4	35.5	54.6	100.0(1,914)
제5오분위	1.2	11.6	30.7	56.5	100.0(1,79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3	5.3	35.9	57.5	100.0(3,773)
50%이상~100%미만	1.6	8.2	34.7	55.5	100.0(3,222)
100%이상~150%미만	1.5	8.1	34.0	56.5	100.0(1,518)
150%이상	1.8	16.7	31.8	49.7	100.0(950)
기능상태					
제한 없음	1.6	8.3	34.4	55.7	100.0(8,316)
제한 있음	0.8	4.9	37.4	56.8	100.0(1,147)
비동거 자녀 수					
1명	1.1	5.3	31.4	62.2	100.0(961)
2명	1.7	9.7	34.3	54.2	100.0(3,493)
3명	1.4	7.9	34.1	56.6	100.0(2,722)
4명	1.9	6.7	37.4	54.0	100.0(1,414)
5명 이상	0.6	5.0	38.4	56.0	100.0(872)
2017년도 ²⁾	0.3	2.9	31.2	65.6	100.0(9,615)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463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경제적 부양의 경우, 수혜율은 정기적 현금지원 46.0%, 비정기적 현금지원 85.6%, 현물지원 77.9%로 나타난 반면 제공률은 각각 12.5%, 29.1%, 42.4%이다. 경제적 부양 역시 수혜율이 제공률보다 높다. 단 교환수준은 수혜율에 있어서는 비정기적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적 현금지원 순으로 나타나며, 제공률에 있어서는 현물지원, 비정기적 현금지원, 정기적 현금지원 순이다. 동거 자녀와 비교할 때, 비동거 자녀로부터 정기적 현금지원 수혜율은 더 낮고 비정기적 현금지원 수혜율은 더 높다. 현물지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제공률에 있어서는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이 동거 자녀보다 더 적은 수준이며, 현물지원에 있어서는 역시 큰 차이가 없다.

제 특성별 경제적 부양 교환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혜율에 있어서는 지역별 차이가 적은 편이나, 현물지원에 있어서 동부 거주 노인이 78.7%로 읍·면부 거주 노인의 75.7%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난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이 현금, 현물 여부와 관계없이 남자 노인보다 수혜율이 높다. 연령군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많을수록 경제적 지원 수혜율이 더 높다. 특히 비정기적 현금지원에 있어서 85세 이상 연령군의 수혜율은 93.0%로 타 연령군에 비해 훨씬 높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수혜율이 모든 경제적 부양지원 항목에 있어서 유배우 노인보다 높다. 가구유형별로는 정기적 현금지원은 노인 독거가구가(54.2%), 비정기적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은 자녀 동거가구가(87.8%, 82.9%) 높다. 독거가구의 경우 타 가구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정기성을 띤 경제적 지원 수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동거 자녀 수와 관련해서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이 더 많다.

교육수준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지원 수혜율이 높다. 무학 노인의 비동거 자녀로부터 정기적 현금지원은 49.9%, 비정기적 현금지원은 90.5%, 현물지원은 80.4%로 나타난다. 미취업 노인의 수혜율은 현금, 현물의 정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 노인보다 높다. 현금지원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다.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노인의 경우, 정기적 현금지원 53.5%, 비정기적 현금지원 87.0%로 150% 이상 노인(38.1%, 77.5%)보다 각각 15%p, 10%p 높은 수준이다. 경제적 취약성에 기인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노인의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양 제공률에 있어 세부적인 특성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 노인이 현금, 현물지원에 있어 모두 읍·면부 거주 노인보다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비정기적인 현금지원에서 지역 간 차이는 약 13%p로 가장 크며, 이는 동거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발견된 특성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의 경제적 지원 제공률이 근소하게 더 높다. 연령군별 차이는 보다 명확하다.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비율이 높다. 정기적 현금지원에 있어 65~69세 연령군에서는 15.6%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6.8%가 해당하여 약 2배의 차이가 있다. 비정기적 현금지원에 있어서는 동 연령군에서 각각 36.9%, 16.6%를 제공하며, 현물지원에 있어서는 각각 49.6%, 25.4%를 제공하여 약 2배 정도 차이를 둔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이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율이 더 높다. 가구유형에 따른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는 노인 부부가구가 전 항목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제공률을 보인다. 자녀 수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경향성은 없으나, 비동거 자녀 수가 5명 이상일 때 제공률이 가장 낮다. 이는 노인이 가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한정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비정기적 현금지원이나 현물지원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동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률이 높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경우, 각각의 비율이 41.5%, 58.7%이다. 또한 취업 중인 노인의 비동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율이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소득수준의 경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경제적 지원 항목과 관계없이 제공률이 높다. 특히 비정기적 현금지원에 있어 소득수준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한편 비정기적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에 있어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 비동거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률이 높다.

비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 교환은 동거 자녀와의 교환 실태와 유사하다. 즉, 여자 노인, 고연령 노인, 무배우 노인, 노인독거가구, 저학력 노인, 미취업 노인, 저소득 노인, 기능상태 제한 노인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인 노인일 경우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지원의 제공은 이와 반대 경향을 띤다.

〈표 5-20〉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특성	수혜			제공			계(명)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전체 ¹⁾	46.0	85.6	77.9	12.5	29.1	42.4	100.0(9,463)
지역							
동부	45.8	84.2	78.7	13.6	32.2	42.9	100.0(7,124)
읍·면부	46.3	89.8	75.7	9.2	19.6	40.8	100.0(2,340)
성							
남자	42.0	83.5	75.4	13.0	31.3	42.7	100.0(4,111)
여자	49.0	87.3	79.9	12.2	27.4	42.2	100.0(5,352)
연령							
65~69세	37.6	80.1	75.4	15.6	36.9	49.6	100.0(3,086)
70~74세	44.8	85.5	77.2	13.3	31.6	46.4	100.0(2,191)
75~79세	50.2	90.7	79.8	11.2	25.3	40.3	100.0(2,178)
80~84세	55.1	87.0	78.1	9.0	19.4	30.9	100.0(1,415)
85세 이상	56.2	93.0	86.6	6.8	16.6	25.4	100.0(59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2.9	84.8	77.6	13.5	31.9	46.5	100.0(6,488)
배우자 없음	52.6	87.3	78.6	10.5	23.0	33.6	100.0(2,975)
가구형태							
노인독거	54.2	86.3	76.9	12.1	23.4	35.7	100.0(1,863)
노인부부	43.1	84.7	76.9	13.7	32.0	46.3	100.0(5,734)
자녀동거	45.4	87.8	82.9	9.6	25.3	37.1	100.0(1,706)
기타	56.3	87.5	77.1	8.0	31.0	37.9	100.0(161)
교육수준							
무학	49.9	90.5	80.4	4.6	11.6	27.0	100.0(1,011)
초등학교	50.3	89.0	76.7	11.2	24.6	38.2	100.0(2,992)
중학교	48.9	85.4	79.1	13.0	30.9	45.0	100.0(2,207)
고등학교	41.4	84.0	77.2	16.3	36.6	47.4	100.0(2,681)
전문대학 이상	26.2	67.8	79.6	13.6	41.5	58.7	100.0(573)
현취업상태							
취업중	38.3	82.5	73.1	17.1	37.1	51.0	100.0(3,357)
미취업	50.2	87.3	80.6	10.0	24.7	37.7	100.0(6,1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0.5	84.3	71.2	9.1	18.1	31.8	100.0(1,882)
제2오분위	58.9	89.7	80.5	11.1	21.4	37.6	100.0(1,929)
제3오분위	46.7	87.0	77.7	11.6	28.6	43.2	100.0(1,947)
제4오분위	35.0	85.1	80.1	12.7	36.3	46.8	100.0(1,914)
제5오분위	38.1	81.6	80.2	18.5	41.7	53.2	100.0(1,79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3.5	87.0	75.8	9.9	19.4	34.9	100.0(3,773)
50%이상~100%미만	44.2	87.0	79.4	11.4	29.9	42.4	100.0(3,222)
100%이상~150%미만	35.8	84.2	80.2	13.7	37.9	50.0	100.0(1,518)
150%이상	38.1	77.5	77.9	24.8	50.9	60.1	100.0(950)
기능상태							
제한 없음	44.6	85.2	77.5	12.3	29.6	43.6	100.0(8,316)
제한 있음	55.6	88.7	81.4	14.2	25.2	34.1	100.0(1,147)
비동거 자녀 수							
1명	37.7	79.5	70.1	9.3	28.1	39.2	100.0(961)
2명	42.1	83.1	75.2	15.6	34.2	44.1	100.0(3,493)
3명	46.7	86.7	80.1	11.6	29.3	44.4	100.0(2,722)
4명	53.0	89.4	82.0	11.1	23.1	41.4	100.0(1,414)
5명 이상	56.8	92.6	84.2	9.3	19.0	34.9	100.0(872)
2017년도 ²⁾	59.4	86.4	89.3	4.0	25.1	49.5	100.0(9,615)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463명을 대상으로 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4절 노인의 부모와의 부양 교환 실태

전체 노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생존 부모(5.1%)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정서적, 도구적, 돌봄, 경제적 지원 실태는 다음과 같다. 노인이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비율은 22.6%이며, 제공하는 비율은 37.8%이다. 도구적 지원은 11.7%가 받고 있으며, 29.3%가 제공한다. 돌봄 지원에 있어서는 일방적 제공만이 이루어져 50.1%가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노인이 부모로부터 받는 비율은 항목에 따라 현물지원 13.4%, 비정기적 현금지원 11.2%, 정기적 현금지원 7.5% 순으로 나타나며, 제공하는 비율은 각각 52.8%, 65.2%, 61.7%이다. 앞선 관계 유형들과 달리, 부모와의 부양 교환에 있어서는 노인의 제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노인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⁷⁾, 돌봄 지원,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순으로 제공하며, 수혜는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 지원에 국한되어 있고 그 비율 역시 적다.

정서적 지원 수혜에 관한 제 특성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차이는 읍·면부 노인이 26.8%로 동부 노인의 21.7%에 비해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자 노인(23.7%)이 여자 노인(21.4%)에 비해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아,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발견된다. 연령별로는 전기노인의 경우에만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기노인의 경우, 부모가 생존해 계실 확률이 적기 때문으로 간주된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30.0%가, 70~74세 연령군에서는 21.0%가 이에 해당된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26.5%)이 유배우 노인(22.2%)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기타가구가 29.3%로 타 유형에 비해 정서적 지원 수혜율이 높다.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하여 교육수준의 경우, 고학력 노인 집단에서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 중 30.2%는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초등학교 졸업 노인은 11.8%이다. 저학력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후기노인의 구성비가 높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일 경우 초고령 노인에 가깝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취업 중인 노인의 경우 26.8%가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어, 미취업 노인의 18.3%에 비해 높다. 소득수준 역시 연가구소득 또는 중위소

6)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돌봄지원 수혜율(매우 그렇다 + 매우 그렇지 않다)은 4.0% 수준임.

7) 경제적 측면의 경우,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작성함.

득 대비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능 제한 여부에 따라서는 제한을 경험하지 않는 노인(23.2%)이 제한이 있는 노인(16.0%)보다 부모로부터 더 많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정서적 지원 제공에 대한 세부 특성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정서적 지원 제공률 역시 수혜율과 마찬가지로 읍·면부 노인에게서 높다. 읍·면부 거주 노인의 41.4%는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부 거주 노인은 37.1%로 차이가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제공률이 더 높은 40.4%로 나타나며, 수혜율과는 다른 양상이다. 연령군별로는 전기노인 중에서도 65~69세 연령군의 제공률이 두드러져, 52.9%가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경우 동 비율이 5% 미만에 그친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무배우 노인의 경우,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 제공률이 더 높다(46.0%). 가구유형에 따라서는 수혜율과 마찬가지로 기타가구에서 제공률이 48.4%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 제공 역시 높게 나타나, 수혜율의 경향과 같다. 무학 노인은 동 비율이 3.7%에 그치는 반면 고등학교 졸업 노인은 48.9%이다. 취업 중인 노인의 경우, 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원 제공률이 43.5%로 미취업 노인의 31.9%보다 약 12%p 높다. 소득수준의 경우 수혜율과 마찬가지로 그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능 제한 여부에 따라서는 제한을 경험하지 않는 노인의 제공률이 38.6%로 제한이 있는 노인(29.7%)보다 약 10%p 높다.

부모와의 정서적 지원 교환은 읍·면부 거주 노인, 저연령 노인, 무배우 노인, 기타 가구 노인, 고학력 노인, 취업 노인, 소득수준이 높은 노인, 기능 제한을 경험하지 않는 노인에게서 제공-수혜율이 모두 높다. 한편 수혜율은 남자 노인에게서, 제공률은 여자 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차이가 있다.

〈표 5-21〉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¹⁾	1.4	21.2	42.3	35.0	100.0(519)
지역					
동부	1.0	20.7	43.5	34.7	100.0(426)
읍·면부	3.3	23.5	36.9	36.3	100.0(92)
성					
남자	1.9	21.8	41.3	34.9	100.0(277)
여자	0.9	20.5	43.5	35.1	100.0(242)
연령					
65~69세	2.4	27.6	40.4	29.7	100.0(310)
70~74세	0.0	21.0	46.7	32.3	100.0(117)
75~79세	0.0	0.0	40.2	59.8	100.0(59)
80~84세	0.0	0.0	53.9	46.1	100.0(23)
85세 이상 ²⁾	0.0	0.0	37.8	62.2	100.0(1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	20.8	41.4	36.4	100.0(465)
배우자 없음	1.5	25.0	50.4	23.1	100.0(53)
가구형태					
노인독거	3.7	19.2	55.1	22.0	100.0(22)
노인부부	0.9	20.2	43.3	35.6	100.0(342)
자녀동거	4.2	19.5	44.2	32.1	100.0(87)
기타	0.0	29.3	31.0	39.7	100.0(67)
교육수준					
무학	0.0	0.0	42.0	58.0	100.0(17)
초등학교	0.0	11.8	52.8	35.4	100.0(103)
중학교	2.3	17.9	43.9	35.9	100.0(115)
고등학교	1.8	26.9	37.1	34.2	100.0(229)
전문대학 이상	1.1	29.1	41.5	28.4	100.0(54)
현취업상태					
취업중	1.5	25.3	39.8	33.5	100.0(266)
미취업	1.4	16.9	45.1	36.6	100.0(25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4	11.6	44.3	41.6	100.0(55)
제2오분위	0.0	17.0	37.9	45.0	100.0(76)
제3오분위	0.9	17.0	44.2	38.0	100.0(107)
제4오분위	1.3	18.8	49.3	30.7	100.0(136)
제5오분위	2.4	32.5	36.1	29.0	100.0(14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5	18.0	38.1	42.4	100.0(153)
50%이상~100%미만	1.0	14.7	48.5	35.8	100.0(186)
100%이상~150%미만	2.8	29.9	40.8	26.5	100.0(92)
150%이상	0.9	31.4	38.4	29.3	100.0(8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	21.8	41.1	35.7	100.0(477)
제한 있음	1.9	14.1	56.9	27.1	100.0(42)
2017년도 ³⁾	1.2	20.8	44.2	33.8	100.0(669)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519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5-22〉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¹⁾	7.6	30.2	33.2	29.0	100.0(519)
지역					
동부	7.4	29.7	33.2	29.7	100.0(426)
읍·면부	8.9	32.5	33.1	25.5	100.0(92)
성					
남자	8.0	27.6	35.9	28.4	100.0(277)
여자	7.2	33.2	30.0	29.6	100.0(242)
연령					
65~69세	11.1	41.8	24.8	22.3	100.0(310)
70~74세	2.7	22.3	43.6	31.5	100.0(117)
75~79세	3.4	0.0	50.3	46.3	100.0(59)
80~84세	0.0	4.1	43.5	52.4	100.0(23)
85세 이상 ²⁾	0.0	0.0	47.6	52.4	100.0(1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5	29.4	33.0	30.1	100.0(465)
배우자 없음	8.4	37.6	34.8	19.2	100.0(53)
가구형태					
노인독거	4.9	31.9	38.0	25.2	100.0(22)
노인부부	6.8	29.1	34.4	29.8	100.0(342)
자녀동거	5.2	32.6	33.0	29.3	100.0(87)
기타	16.2	32.2	25.8	25.9	100.0(67)
교육수준					
무학	3.7	0.0	28.7	67.6	100.0(17)
초등학교	1.9	17.8	48.7	31.5	100.0(103)
중학교	9.2	26.0	32.8	32.0	100.0(115)
고등학교	10.0	38.9	25.9	25.2	100.0(229)
전문대학 이상	6.3	35.8	36.7	21.2	100.0(54)
현취업상태					
취업중	8.2	35.3	29.7	26.8	100.0(266)
미취업	7.0	24.9	36.8	31.2	100.0(25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	24.3	36.6	36.6	100.0(55)
제2오분위	6.2	18.4	40.1	35.3	100.0(76)
제3오분위	8.5	26.3	33.5	31.7	100.0(107)
제4오분위	11.4	29.6	31.1	28.0	100.0(136)
제5오분위	6.2	42.2	29.9	21.7	100.0(14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8	23.0	35.4	36.8	100.0(153)
50%이상~100%미만	9.9	26.2	33.3	30.6	100.0(186)
100%이상~150%미만	6.0	38.6	33.9	21.4	100.0(92)
150%이상	9.4	42.4	28.3	19.9	100.0(88)
기능상태					
제한 없음	7.8	30.8	31.6	29.8	100.0(477)
제한 있음	5.6	24.1	50.9	19.3	100.0(42)
2017년도 ³⁾	6.1	37.7	33.5	22.7	100.0 (669)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519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 특성별 부모와의 도구적 지원 경향성은 다음과 같다.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전체 노인의 약 11.7%라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도구적 지원 수혜 측면에서 지역별 차이는 읍·면부 거주 노인이 17.1%로 동부 거주 노인 10.4%에 비해 높다. 성별에 따라서는 타 관계 유형에서와 유사하게 남자 노인의 수혜 경험률이 14.1%로 여자 노인보다 높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수혜율이 높아, 65~69세 연령군에서는 14.9%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기노인일 경우 그들의 부모 역시 상대적으로 연령이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일 경우,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 수혜율이 11.9%로 무배우 노인에 비해 높다. 가구형태와 관련해서는 정서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기타가구 유형에서 도구적 지원 수혜율이 가장 높다(21.8%).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다. 전문대학 이상 노인의 수혜율은 16.1%인 반면 초등학교 졸업 노인은 3.3%이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일 경우, 전기노인 연령군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그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취업 중인 노인의 도구적 지원 수혜율은 13.9%로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고,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는 적다.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16.1%가 부모로부터 가사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높다.

도구적 지원 제공에 따른 세부 특성별 차이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발견된다. 읍·면부 거주 노인의 도구적 지원 제공률이 36.6%로 동부 거주 노인의 27.7%보다 높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적다. 연령군별 차이에 있어서는 85세 이상 노인의 사례 수가 소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저연령일수록 제공률이 높다. 이에 65~69세 연령군의 부모에 대한 도구적 지원 제공률은 37.1%로 나타난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 역시 적고, 가구유형의 경우 기타가구에서 부모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지원 제공률이 59.3%로 가장 높다. 노인 독거가구의 경우 동 비율이 11.1%로 타 가구유형에 비해 가장 낮다. 교육수준별 차이 역시 두드러지지 않으며, 취업 여부에 있어서는 취업 중인 노인의 도구적 지원 제공률이 32.4%로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 역시 뚜렷한 경향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기능 제한 여부에 따라서는 제한이 없는 노인의 도구적 지원 제공률이 29.7%로 제한이 있는 노인(25.1%)에 비해 약 4%p 높다. 도구적 지원에 있어서는 읍·면부 거주 노인, 기타 가구, 저연령 노인, 취업 중인 노인에게서 도구적 지원의 제공-수혜율이 높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부모와의 도구적 지원 제공-수혜율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5-23〉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¹⁾	1.9	9.8	25.4	62.9	100.0(519)
지역					
동부	1.9	8.5	25.7	63.8	100.0(426)
읍·면부	1.6	15.5	24.1	58.7	100.0(92)
성					
남자	2.9	11.2	21.8	64.1	100.0(277)
여자	0.7	8.1	29.6	61.6	100.0(242)
연령					
65~69세	2.7	12.2	31.9	53.1	100.0(310)
70~74세	0.0	10.9	18.2	70.8	100.0(117)
75~79세	1.0	0.0	16.9	82.1	100.0(59)
80~84세	2.4	0.0	0.0	97.6	100.0(23)
85세 이상 ²⁾	0.0	0.0	16.7	83.3	100.0(1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0	9.9	24.6	63.5	100.0(465)
배우자 없음	1.1	8.5	32.6	57.8	100.0(53)
가구형태					
노인독거	2.6	0.0	30.9	66.5	100.0(22)
노인부부	2.1	8.4	26.1	63.4	100.0(342)
자녀동거	0.4	10.3	25.6	63.7	100.0(87)
기타	2.7	19.1	20.1	58.1	100.0(67)
교육수준					
무학	0.0	0.0	3.7	96.3	100.0(17)
초등학교	0.5	2.8	17.8	78.9	100.0(103)
중학교	1.1	9.5	23.7	65.7	100.0(115)
고등학교	1.7	14.0	26.8	57.5	100.0(229)
전문대학 이상	7.4	8.7	45.2	38.8	100.0(54)
현취업상태					
취업중	2.7	11.2	27.4	58.7	100.0(266)
미취업	1.0	8.3	23.3	67.4	100.0(25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	5.9	23.4	69.6	100.0(55)
제2오분위	1.4	8.9	21.1	68.6	100.0(76)
제3오분위	2.7	9.4	25.9	62.1	100.0(107)
제4오분위	2.7	6.7	26.9	63.7	100.0(136)
제5오분위	1.1	14.8	26.8	57.3	100.0(14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7	9.4	22.0	67.0	100.0(153)
50%이상~100%미만	2.5	7.1	25.4	65.0	100.0(186)
100%이상~150%미만	1.0	14.1	29.5	55.3	100.0(92)
150%이상	1.8	11.5	27.2	59.4	100.0(8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9	9.3	25.5	63.3	100.0(477)
제한 있음	1.3	14.8	24.8	59.1	100.0(42)
2017년도 ³⁾	1.5	5.7	26.9	65.9	100.0(669)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519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5-24〉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¹⁾	9.1	20.2	32.9	37.8	100.0(519)
지역					
동부	8.8	18.9	36.1	36.2	100.0(426)
읍·면부	10.7	25.9	18.3	45.1	100.0(92)
성					
남자	8.0	21.3	36.6	34.1	100.0(277)
여자	10.5	18.9	28.6	42.0	100.0(242)
연령					
65~69세	11.9	25.2	25.0	37.9	100.0(310)
70~74세	7.9	14.2	53.0	24.8	100.0(117)
75~79세	2.2	2.2	27.6	68.0	100.0(59)
80~84세	0.0	22.9	45.4	31.7	100.0(23)
85세 이상 ²⁾	0.0	34.7	45.5	19.9	100.0(1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7	20.6	32.9	37.7	100.0(465)
배우자 없음	13.1	16.1	32.7	38.1	100.0(53)
가구형태					
노인독거	8.6	2.5	43.6	45.3	100.0(22)
노인부부	5.5	20.3	35.0	39.2	100.0(342)
자녀동거	5.6	18.6	35.7	40.1	100.0(87)
기타	32.2	27.1	15.3	25.3	100.0(67)
교육수준					
무학	3.7	19.9	26.1	50.3	100.0(17)
초등학교	5.0	13.4	37.7	43.9	100.0(103)
중학교	9.8	13.0	40.7	36.5	100.0(115)
고등학교	12.1	26.0	28.5	33.5	100.0(229)
전문대학 이상	4.9	23.9	28.1	43.0	100.0(54)
현취업상태					
취업중	8.7	23.7	29.9	37.7	100.0(266)
미취업	9.6	16.5	36.0	37.9	100.0(25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0	11.9	58.6	24.5	100.0(55)
제2오분위	5.6	19.1	39.1	36.2	100.0(76)
제3오분위	12.6	24.3	21.5	41.5	100.0(107)
제4오분위	14.1	17.4	28.0	40.5	100.0(136)
제5오분위	5.3	23.4	32.9	38.3	100.0(14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5	20.8	40.7	31.0	100.0(153)
50%이상~100%미만	14.1	18.3	25.9	41.8	100.0(186)
100%이상~150%미만	5.6	26.3	36.8	31.2	100.0(92)
150%이상	5.2	16.7	30.1	48.0	100.0(88)
기능상태					
제한 없음	9.1	20.6	32.6	37.7	100.0(477)
제한 있음	9.8	15.3	36.6	38.3	100.0(42)
2017년도 ³⁾	9.1	19.3	23.3	48.3	100.0(669)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519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생존한 부모가 있을지라도 노인은 그들의 부모로부터 전적으로 돌봄 지원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돌봄 지원은 간병, 병원 동행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므로, 후기 또는 초고령노인에 접어들면 그들의 부모로부터 이같은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나, 경향성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 유배우 노인, 미취업 노인,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의 경우 부모로부터 돌봄 지원을 전적으로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부모에게 제공하는 돌봄지원의 제 특성별 차이에 있어서는 읍·면부 거주 노인(52.5%)이 동부 거주 노인(49.6%)에 비해 그들의 부모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이 50.5%로 여자 노인(49.7%)에 비해 더 많은 돌봄 지원을 하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 80세 미만 연령군에서는 노인의 연령이 적을수록 부모에 대한 돌봄지원 제공률이 높은 경향이 있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52.1%가 부모에게 돌봄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무배우 노인(61.2%)이 그들의 부모에게 제공하는 돌봄지원이 유배우 노인(48.9%)에 비해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기타가구가 76.2%로 가장 높고, 노인 부부가구 47.2%, 자녀동거 가구 43.4%, 노인 독거가구 42.3% 순이다. 기타가구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노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가구유형에서 돌봄 제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에 따른 경향성은 두드러지지 않으며, 취업한 노인의 경우 55.0%가 그들의 부모에게 돌봄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소득 역시 뚜렷한 경향성은 부재하다. 한편 기능상태 제한 여부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기능상태가 양호한 노인의 경우 50.9%가 그들의 부모에게 돌봄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과 그들의 부모 간 돌봄 지원에 있어서는 일방향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읍·면부 거주 노인, 남자 노인, 무배우 노인, 기타가구 노인 등에게서 그 제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5-25〉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모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¹⁾	-	-	29.4	70.6	100.0(519)
지역					
동부	-	-	28.2	71.8	100.0(426)
읍·면부	-	-	34.5	65.5	100.0(92)
성					
남자	-	-	24.2	75.8	100.0(277)
여자	-	-	35.2	64.8	100.0(242)
연령					
65~69세	-	-	34.0	66.0	100.0(310)
70~74세	-	-	26.2	73.8	100.0(117)
75~79세	-	-	19.4	80.6	100.0(59)
80~84세	-	-	9.6	90.4	100.0(23)
85세 이상 ²⁾	-	-	28.8	71.2	100.0(1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	-	28.0	72.0	100.0(465)
배우자 없음	-	-	41.1	58.9	100.0(53)
가구형태					
노인독거	-	-	39.0	61.0	100.0(22)
노인부부	-	-	29.1	70.9	100.0(342)
자녀동거	-	-	26.2	73.8	100.0(87)
기타	-	-	31.5	68.5	100.0(67)
교육수준					
무학	-	-	27.0	73.0	100.0(17)
초등학교	-	-	21.5	78.5	100.0(103)
중학교	-	-	25.4	74.6	100.0(115)
고등학교	-	-	32.1	67.9	100.0(229)
전문대학 이상	-	-	42.2	57.8	100.0(54)
현취업상태					
취업중	-	-	30.0	70.0	100.0(266)
미취업	-	-	28.7	71.3	100.0(25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	-	18.9	81.1	100.0(55)
제2오분위	-	-	22.5	77.5	100.0(76)
제3오분위	-	-	38.6	61.4	100.0(107)
제4오분위	-	-	32.3	67.7	100.0(136)
제5오분위	-	-	27.4	72.6	100.0(14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	-	24.0	76.0	100.0(153)
50%이상~100%미만	-	-	31.5	68.5	100.0(186)
100%이상~150%미만	-	-	37.5	62.5	100.0(92)
150%이상	-	-	25.6	74.4	100.0(88)
기능상태					
제한 없음	-	-	29.0	71.0	100.0(477)
제한 있음	-	-	33.4	66.6	100.0(42)
2017년도 ³⁾	0.9	3.1	26.0	70.0	100.0(669)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519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5-26〉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모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명)
전체 ¹⁾	18.1	32.0	16.0	33.9	100.0(519)
지역					
동부	16.9	32.7	15.1	35.2	100.0(426)
읍·면부	23.7	28.8	19.7	27.8	100.0(92)
성					
남자	19.2	31.3	12.8	36.8	100.0(277)
여자	16.9	32.8	19.6	30.7	100.0(242)
연령					
65~69세	19.1	33.0	16.5	31.4	100.0(310)
70~74세	16.4	30.8	11.4	41.4	100.0(117)
75~79세	16.9	27.5	19.4	36.2	100.0(59)
80~84세	22.5	35.4	21.7	20.3	100.0(23)
85세 이상 ²⁾	4.1	34.7	16.7	44.5	100.0(1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7.1	31.8	15.4	35.8	100.0(465)
배우자 없음	27.3	33.9	21.3	17.6	100.0(53)
가구형태					
노인독거	16.6	25.7	29.1	28.6	100.0(22)
노인부부	14.9	32.3	17.3	35.5	100.0(342)
자녀동거	16.4	27.0	13.4	43.2	100.0(87)
기타	37.3	38.9	8.2	15.6	100.0(67)
교육수준					
무학	8.5	33.5	30.9	27.1	100.0(17)
초등학교	13.1	27.9	16.6	42.4	100.0(103)
중학교	20.8	36.9	13.4	28.9	100.0(115)
고등학교	17.7	31.7	15.8	34.7	100.0(229)
전문대학 이상	26.8	30.1	15.8	27.3	100.0(54)
현취업상태					
취업중	21.4	33.6	14.5	30.5	100.0(266)
미취업	14.7	30.3	17.5	37.5	100.0(25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8	18.7	14.8	49.7	100.0(55)
제2오분위	16.7	43.7	11.2	28.4	100.0(76)
제3오분위	23.5	26.4	18.4	31.7	100.0(107)
제4오분위	20.0	32.1	17.5	30.4	100.0(136)
제5오분위	13.6	35.0	15.7	35.8	100.0(14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8.5	33.2	11.8	36.5	100.0(153)
50%이상~100%미만	23.5	30.9	17.3	28.3	100.0(186)
100%이상~150%미만	12.2	32.8	23.0	32.0	100.0(92)
150%이상	12.1	31.6	13.1	43.2	100.0(8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8.6	32.3	15.1	34.0	100.0(477)
제한 있음	13.1	28.6	25.5	32.8	100.0(42)
2017년도 ³⁾	10.6	29.4	21.6	38.4	100.0(669)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519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교환 실태에 있어, 수혜율은 정기적 현금지원 7.5%, 비정기적 현금지원 11.2%, 현물지원 13.4%로 나타난 반면 제공률은 각각 52.8%, 65.2%, 61.7%로 그 격차가 크다. 이전 부양 교환 실태에서와 같이 제공을 중심으로 경제적 교환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 수준이 낮긴 하나 수혜율에 있어서는 현물지원, 비정기적 현금지원, 정기적 현금지원 순으로 나타나며, 제공률에 있어서는 비정기적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적 현금지원 순이다.

제 특성별 경제적 부양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혜율에 있어서는 읍·면부 거주 노인이 동부 거주 노인에 비해 전 항목에서 수혜율이 더 높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수혜율이 높다. 이같은 양상은 교환대상(동거자녀, 비동거자녀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교환 측면에 있어서 여자 노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연령군별로는 전기노인에게서 경제적 지원 수혜율이 높다. 다만 80세 이상 연령군에서 생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수혜율 자체가 적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부양 교환 항목에 따라서, 유배우 노인에게서는 정기적 현금지원 수혜율이 7.9%로 무배우 노인(4.7%)과 비교하여 약간 높다. 이외 항목에서는 무배우 노인의 수혜율이 더 높다. 가구유형별로는 정기적 현금지원에 있어서는 노인 부부가구가, 현물지원에 있어서는 노인 독거가구가 수혜율이 타 가구유형에 비해 높다.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 수준과 관련한 뚜렷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취업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기적 현금지원을 제외하고는 취업 노인의 수혜율(12.9%, 13.6%)이 미취업 노인의 수혜율(9.4%, 13.2%)보다 더 높다. 기능 제한을 경험하지 않는 노인 역시 기능 제한을 경험한 노인에 비해, 정기적 현금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경제적 지원 수혜율이 더 높다.

경제적 부양 제공률에 있어 세부적인 특성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 노인이 현금, 현물지원에 있어 모두 읍·면부 거주 노인보다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수혜율과는 차이가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정기성을 띤 현금지원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이(53.7%), 비정기성을 띤 현금지원이나(68.8%), 현물지원(62.4%)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의 제공률이 더 높다. 연령군별로는 전기노인 집단에서 연령이 적을수록 제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배우자 유무와 관련해서는 무배우 노인의 제공률이 유배우 노인보다 전 항목에서 높

다. 가구 유형, 교육수준과 관련한 뚜렷한 차이는 적다. 취업 상태에 관련하여 취업 중인 노인의 경제적 지원 제공이 미취업 노인에 비해 전 항목에서 높다. 가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측면과 결부된다. 소득수준에 있어서는 현물성 지원과 관련하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제공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기능 제한 측면에서는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경제적 지원 제공률이 높다.

생존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 교환에 있어, 수혜율은 그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앞서 살펴본 배우자나 자녀 등의 주요 관계에서의 경제적 교환 실태와 같이, 생존 부모와의 경제적 지원 수혜에 있어서는 여자 노인이나 읍·면부 거주 노인에게서 그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반면 제공률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거나 기동력이 있는 남자 노인, 취업 중인 노인,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그 비율이 높다.

〈표 5-27〉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특성	수혜			제공			계(명)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전체 ¹⁾	7.5	11.2	13.4	52.8	65.2	61.7	100.0(519)
지역							
동부	7.4	10.4	12.9	55.8	67.5	64.1	100.0(426)
읍·면부	8.4	15.0	16.0	38.7	54.3	50.5	100.0(92)
성							
남자	4.8	9.6	11.5	53.7	62.0	61.1	100.0(277)
여자	10.7	13.0	15.6	51.7	68.8	62.4	100.0(242)
연령							
65~69세	9.8	14.5	17.7	55.2	71.3	68.6	100.0(310)
70~74세	6.0	9.4	7.8	50.2	56.2	55.1	100.0(117)
75~79세	2.9	1.1	3.8	52.2	59.4	48.4	100.0(59)
80~84세	0.0	6.1	13.8	30.0	44.3	49.3	100.0(23)
85세 이상 ²⁾	0.0	0.0	0.0	63.4	63.4	30.9	100.0(1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9	10.7	13.0	52.8	64.8	60.3	100.0(465)
배우자 없음	4.7	15.3	16.8	53.0	68.4	73.8	100.0(53)
가구형태							
노인독거	6.1	18.0	23.9	38.7	70.6	58.9	100.0(22)
노인부부	8.9	11.9	14.4	55.6	65.8	59.0	100.0(342)
자녀동거	6.3	6.3	9.5	53.3	69.3	71.6	100.0(87)
기타	2.8	11.7	10.3	42.1	54.9	63.3	100.0(67)
교육수준							
무학	3.7	8.5	10.0	47.7	52.5	34.3	100.0(17)
초등학교	6.4	4.3	6.1	59.9	64.6	53.6	100.0(103)
중학교	11.1	12.0	17.0	50.6	60.6	60.8	100.0(115)
고등학교	5.4	11.8	12.6	49.8	68.0	66.7	100.0(229)
전문대학 이상	12.5	20.9	24.2	58.3	68.0	66.7	100.0(54)
현취업상태							
취업중	6.7	12.9	13.6	59.6	71.0	68.5	100.0(266)
미취업	8.5	9.4	13.2	45.6	59.0	54.6	100.0(25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4	14.9	15.2	57.9	70.7	43.4	100.0(55)
제2오분위	3.1	4.2	8.9	41.2	57.0	53.5	100.0(76)
제3오분위	11.8	13.6	11.5	49.8	61.0	51.6	100.0(107)
제4오분위	4.3	8.6	10.1	54.8	66.9	67.9	100.0(136)
제5오분위	9.0	14.1	19.6	57.3	68.8	74.7	100.0(14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1	10.6	12.7	47.9	60.0	47.7	100.0(153)
50%이상~100%미만	6.5	6.6	6.9	54.9	65.9	61.5	100.0(186)
100%이상~150%미만	8.0	17.5	19.7	54.8	71.8	68.3	100.0(92)
150%이상	10.0	15.3	22.1	54.7	65.8	79.6	100.0(88)
기능상태							
제한 없음	7.3	11.7	13.6	53.9	66.4	63.3	100.0(477)
제한 있음	9.9	5.0	10.9	40.5	51.0	43.7	100.0(42)
2017년도 ³⁾	4.5	8.5	13.0	32.1	63.7	67.6	100.0(669)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519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5절 주요 지출 항목의 지불 주체

노인의 주요 지출항목인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를 중심으로 지불 주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노인과 가구원 간 부양교환이 이루어지는 역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생활비, 의료비, 간병비 순으로 각각의 지출항목에 대하여 지불 상황이 없는 경우부터, 지불 상황이 있을 시 구체적 지불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생활비는 모든 노인이 지불 경험이 있으며, 지불 방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65.0%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는 본인(배우자)이 부담하되 자녀가 일부 보조하는 비율이 17.1%, 자녀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비율이 10.1%, 자녀가 전액 부담하는 비율이 7.0%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사회복지기관이나 친인척 부담은 소수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 특성별 차이에 있어서 지역별로는 동부, 읍·면부 노인 모두 본인(배우자) 부담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성별에 있어서 남자 노인의 약 3/4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여자 노인은 동 응답이 59.1%로 적다. 자녀가 일정 부분 또는 전액 부담한다는 비율은 여자 노인이 22.4%로 남자 노인의 10.3%에 비해 약 2배 높아,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본인(배우자) 부담률이 높다. 65~69세 연령군에서 동 응답은 77.3%에 이르며,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34.9%로 약 1/2 수준이다. 한편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한다는 비율이 46.3%로 본인이 대다수 부담하는 비율(34.9%)보다 약 10%p 높다.

배우자 유무와 관련해서는 유배우 노인의 74.0%가 본인(배우자)이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 배우자가 존재함에 따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폭이 넓기 때문에 해석 가능하다. 한편 무배우 노인은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한다는 비율이 34.8%로 유배우 노인의 8.6%에 비해 약 4배 높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대다수 자녀를 통해 주요한 경제적 지출이 이루어짐을 가늠할 수 있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 부부가구에서 본인(배우자)가 부담한다는 비율이 76.7%로 가장 높다.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한다는 비율은 자녀동거 가구에서 48.5%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배우자) 부담률이 높게 나타나,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경우 동 비율이 84.5%에 이른다. 한편 무학 노인의 경우, 자녀의 일정 또는 전액 부담률이 35.9%로 타 교육수준의 노인에 비해 높다. 취업 중인 노인의 경우 경제적 활동을 지속함에 따라, 본인(배우자)이 생활비를 부담한다는 비율이 78.0%로 미취업 노인(58.0%)에 비해 더 높다. 가구소득 수준에 대한 뚜렷한 경향성은 적은 편이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대다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기능 제한을 경험하지 않는 노인에게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담률이 69.0%로 나타나,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36.8%에 비해 약 2배 높다.

다음으로 의료비에 있어서는 전체의 97.9%가 지불 경험이 있다. 이 중 59.0%는 본인(배우자)이 의료비를 지불하며, 다음으로 본인(배우자)이 부담하되 자녀가 일부 보조한다는 응답이 20.7%, 대부분 자녀의 일정 부담 10.7%, 자녀의 전액 부담 6.5% 등의 순이다.

의료비 지불 경험이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제 특성별 특성 차이를 살펴보면, 본인(배우자)이 부담한다는 비율은 동부 노인에게서 더 높다. 읍·면부 노인은 본인(배우자)의 부담 및 자녀의 일부 보조 비율이 23.8%로 동부 노인의 19.7%에 비해 높다. 성별 차이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의 본인(배우자) 부담률이 65.3%로 여자 노인의 54.3%에 비해 약 10%p 높다. 여자 노인의 경우 생활비 지출 부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한다는 비율이 21.6%로 남자 노인의 11.4%보다 약 2배 높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본인(배우자) 부담률이 더 높아, 85세 이상 연령군은 동 응답이 33.6%인 반면 65~69세 연령군에서는 72.4%에 이른다.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하는 비율은 80세 이상 연령군부터 급격히 높아져, 80~84세 연령군에서는 31.6%,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41.5%에 이른다. 고령 노인의 경우 자녀로부터 돌봄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으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 역시 자녀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게서 본인(배우자) 부담률이 더 높다. 유배우 노인은 동 비율이 66.8%인 반면, 무배우 노인은 43.2%이다. 무배우 노인의 경우, 자녀가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는 비율이 32.0%로 유배우자 노인의 10.0%에 비해 약 3배 높은 수준이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본인(배우자) 부담률이 68.1%로 타 가구유형의 노인에 비해 높다.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한다는 응답은 생활비 지불방식에서와 같이 자녀동거 가구에서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배우자) 부담률이 높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79.7%가 이에 해당한 반면 무학 노인은 약 1/2 수준인 38.0%이다. 취업 여부와 관련해서도 취업 중인 노인의 70.0%는 본인(배우자)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반면 미취업 노인은 이보다 약 17%p 낮은 53.0%이다. 미취업 노인의 21.9%는 의료비 지출에 있어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소득에 따른 경향성은 비교적 두드러지지 않는다. 기능상태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 35.2%, 본인(배우자) 부담 30.4%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간병비는 6.1%만이 지불 경험이 있다. 전체 중 대부분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한다는 비율이 3.0%, 본인(배우자) 부담이 1.7%, 본인(배우자) 부담과 자녀의 일부 보조가 0.8% 등의 순이다. 지불 경험 자체가 매우 적어 제 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기 어려울 수 있으나, 경향성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에 비해 자녀 부담률이 3.6%로 더 높고, 본인(배우자) 부담률은 동부 노인이 더 높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의 본인(배우자) 부담률이 여자 노인에 비해 더 높고(2.2%), 여자 노인은 자녀의 일정 또는 전액 부담률이 4.0%로 남자 노인(1.8%)에 비해 더 높다. 연령군별로는 고령일수록 본인(배우자) 부담률이 낮아지며, 자녀의 일정 또는 전액 부담률이 높아진다.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동 응답이 7.6%에 이른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무배우 노인인 경우,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하는 비율이 4.6%이나 유배우 노인은 동 비율이 2.3%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생활비나 의료비와 같은 지출 항목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가구형태에 있어서는 자녀동거 가구에서 자녀의 일부 또는 전액 부담률이 5.2%로 타 가구유형에 비해 높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간병비를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한다는 비율이 더 높고, 취업 여부에 있어서는 미취업 노인일 경우 동 비율이 4.0%로 취업 노인에 비해 높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기능 제한의 경우,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13.6%가 간병비 지불 경험이 있으며 제한이 없는 노인은 5%만이 지불 경험이 있다. 한편 지출 분담에 있어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자녀가 일정 또는 전액 부담하는 비율이 7.9%로 제한이 없는 노인의 2.3%에 비해 더 높다.

〈표 5-28〉 노인의 일반특성별 생활비 지불방식

(단위: %, 명)

	대부분 본인 (배우자)부담	본인 (배우자)부담, 자녀일부보조	대부분 자녀 일정부담	대부분 전액부담	친인척 대부분 부담	사회 복지기관 부담	계(명)
전체 ¹⁾	65.0	17.1	10.1	7.0	0.1	0.7	100.0(10,097)
지역							
동부	64.3	16.7	10.7	7.5	0.1	0.8	100.0(7,651)
읍·면부	67.5	18.2	8.3	5.5	0.1	0.4	100.0(2,446)
성							
남자	72.9	16.2	6.9	3.4	0.0	0.6	100.0(4,346)
여자	59.1	17.7	12.6	9.8	0.1	0.7	100.0(5,751)
연령							
65~69세	77.3	14.2	5.4	2.7	0.1	0.3	100.0(3,344)
70~74세	70.4	16.1	8.2	4.7	0.0	0.6	100.0(2,342)
75~79세	61.3	19.3	11.5	7.0	0.1	0.8	100.0(2,292)
80~84세	47.9	21.7	15.1	14.4	0.0	0.9	100.0(1,475)
85세 이상	34.9	16.6	24.9	21.4	0.1	2.1	100.0(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4.0	17.2	6.3	2.3	0.0	0.3	100.0(6,779)
배우자 없음	46.7	16.9	18.0	16.8	0.2	1.5	100.0(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62.6	18.8	12.2	4.2	0.0	2.2	100.0(1,998)
노인부부	76.7	16.4	5.3	1.3	0.0	0.3	100.0(5,898)
자녀동거	34.0	17.3	21.8	26.7	0.1	0.0	100.0(2,026)
기타	59.1	18.7	12.8	5.2	1.6	2.5	100.0(174)
교육수준							
무학	43.7	18.3	19.3	16.6	0.4	1.7	100.0(1,074)
초등학교	59.8	17.9	12.6	8.8	0.0	0.8	100.0(3,198)
중학교	66.7	18.2	8.7	5.8	0.0	0.7	100.0(2,356)
고등학교	73.4	15.8	6.5	3.8	0.1	0.3	100.0(2,870)
전문대학 이상	84.5	11.8	3.1	0.4	0.0	0.1	100.0(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78.0	14.8	5.2	1.9	0.0	0.0	100.0(3,564)
미취업	58.0	18.3	12.8	9.8	0.1	1.0	100.0(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3.2	17.2	11.6	6.4	0.0	1.7	100.0(2,019)
제2오분위	63.2	19.4	11.9	4.1	0.0	1.3	100.0(2,020)
제3오분위	68.9	19.1	9.0	2.6	0.1	0.3	100.0(2,017)
제4오분위	70.9	13.7	8.0	7.1	0.2	0.1	100.0(2,024)
제5오분위	58.9	15.9	10.2	14.9	0.0	0.0	100.0(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3.6	18.2	11.4	5.4	0.0	1.4	100.0(3,999)
50%이상100%미만	65.8	17.6	9.7	6.4	0.2	0.4	100.0(3,382)
100%이상150%미만	65.6	13.4	9.6	11.4	0.0	0.0	100.0(1,647)
150%이상	67.0	16.9	7.7	8.3	0.0	0.0	100.0(1,068)
기능상태							
제한없음	69.0	16.0	8.9	5.6	0.0	0.4	100.0(8,864)
제한있음	36.8	24.5	18.7	17.0	0.3	2.7	100.0(1,233)
2017년 ²⁾	43.6	18.0	18.4	13.6	0.2	6.3	100.0(10,07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며, 기타 응답은 0.1%임.

〈표 5-29〉 노인의 일반특성별 의료비 지불방식

(단위: %, 명)

특성	지불 상황 없었음	지불상황 있었음						계 (명)
		대부분 본인 (배우자)부담	본인 (배우자)부담자 녀일부부조	대부분 자녀 일정부담	대부분 자녀 전액부담	친인척 대부분 부담	사회 복지기관 부담	
전체 ¹⁾	2.1	59.0	20.7	10.7	6.5	0.0	0.9	100.0 (10,097)
지역								
동부	2.2	60.0	19.7	10.7	6.4	0.0	1.0	100.0 (7,651)
읍·면부	1.8	56.2	23.8	10.8	6.8	0.1	0.5	100.0 (2,446)
성								
남자	2.6	65.3	20.0	8.0	3.4	0.0	0.8	100.0 (4,346)
여자	1.7	54.3	21.2	12.8	8.8	0.0	1.0	100.0 (5,751)
연령								
65~69세	3.0	72.4	17.1	5.1	1.9	0.0	0.4	100.0 (3,344)
70~74세	1.9	63.6	20.3	9.5	4.0	0.0	0.7	100.0 (2,342)
75~79세	1.9	53.7	23.2	12.0	7.7	0.1	1.4	100.0 (2,292)
80~84세	1.0	40.9	25.7	18.1	13.5	0.0	0.8	100.0 (1,475)
85세 이상	1.3	33.6	20.7	22.8	18.7	0.1	2.7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1	66.8	20.6	7.3	2.7	0.0	0.5	100.0 (6,779)
배우자 없음	2.0	43.2	21.0	17.8	14.2	0.1	1.7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1.6	52.4	23.3	14.5	5.8	0.1	2.4	100.0 (1,998)
노인부부	2.1	68.1	19.8	7.2	2.3	0.0	0.5	100.0 (5,898)
자녀동거	2.6	39.7	20.8	17.1	19.3	0.1	0.5	100.0 (2,026)
기타	2.5	53.5	19.9	14.1	6.6	0.0	3.4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2	38.0	22.7	19.1	16.4	0.2	2.5	100.0 (1,074)
초등학교	1.4	52.7	22.2	13.9	9.0	0.0	0.9	100.0 (3,198)
중학교	2.2	59.9	22.8	9.6	4.5	0.0	0.9	100.0 (2,356)
고등학교	3.2	69.0	18.0	6.4	2.8	0.0	0.5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1.3	79.7	13.5	4.5	0.9	0.0	0.1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2.5	70.0	18.6	5.7	3.0	0.0	0.1	100.0 (3,564)
미취업	1.9	53.0	21.8	13.5	8.4	0.0	1.4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7	53.8	20.2	14.2	8.2	0.0	1.9	100.0 (2,019)
제2오분위	1.8	54.4	23.8	13.1	5.4	0.0	1.6	100.0 (2,020)
제3오분위	1.4	60.5	23.2	10.5	3.9	0.1	0.5	100.0 (2,017)
제4오분위	2.6	66.6	17.1	7.9	5.8	0.0	0.1	100.0 (2,024)
제5오분위	3.0	59.9	19.3	8.0	9.2	0.0	0.5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6	54.8	21.6	13.5	6.9	0.1	1.6	100.0 (3,999)
50%이상-100%미만	2.2	58.7	22.3	10.4	5.7	0.0	0.7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1.8	67.4	15.5	7.8	7.2	0.0	0.3	100.0 (1,647)
150%이상	3.9	63.0	20.4	6.3	6.4	0.0	0.0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없음	2.2	63.0	19.5	9.7	5.1	0.0	0.5	100.0 (8,864)
제한있음	1.6	30.4	29.1	18.5	16.7	0.1	3.7	100.0 (1,233)
2017년 ²⁾	1.9	53.1	18.9	9.7	8.8	0.1	7.5	100.0 (10,073)

주: 1) 전체 응답자 10,0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며, 기타 응답은 0.0%임

〈표 5-30〉 노인의 일반특성별 간병비 지불방식

(단위: %, 명)

특성	지불상황 없었음	지불상황 있었음							계 (명)
		대부분 본인 (배우자)부담	본인 (배우자) 부담, 자녀일부 보조	대부분 자녀 일정부담	대부분 자녀 전액부담	친인척 대부분 부담	사회 복지기관 부담	기타	
전체 ¹⁾	93.9	1.7	0.8	0.7	2.3	0.0	0.6	0.0	100.0 (10,097)
지역									
동부	94.0	1.9	0.7	0.6	2.2	0.0	0.6	0.0	100.0 (7,651)
읍·면부	93.9	0.8	1.2	1.0	2.6	0.0	0.6	0.0	100.0 (2,446)
성									
남자	94.8	2.2	0.7	0.5	1.3	0.0	0.4	0.0	100.0 (4,346)
여자	93.3	1.2	0.8	0.9	3.1	0.0	0.7	0.0	100.0 (5,751)
연령									
65~69세	95.7	2.2	0.7	0.4	0.6	0.0	0.3	0.0	100.0 (3,344)
70~74세	94.3	1.9	1.0	0.6	1.9	0.0	0.3	0.0	100.0 (2,342)
75~79세	94.4	1.3	0.4	1.2	2.0	0.0	0.8	0.0	100.0 (2,292)
80~84세	91.2	0.9	0.9	0.8	5.7	0.0	0.4	0.0	100.0 (1,475)
85세 이상	88.0	0.9	1.2	1.3	6.3	0.0	2.3	0.1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4.3	2.2	0.9	0.6	1.7	0.0	0.4	0.0	100.0 (6,779)
배우자 없음	93.2	0.5	0.6	1.0	3.6	0.0	1.0	0.0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94.0	0.5	0.8	1.0	2.5	0.0	1.1	0.0	100.0 (1,998)
노인부부	94.3	2.3	1.0	0.6	1.6	0.0	0.3	0.0	100.0 (5,898)
자녀동거	93.1	0.8	0.2	0.9	4.3	0.0	0.7	0.0	100.0 (2,026)
기타	91.9	3.8	0.0	1.3	0.2	0.0	2.6	0.2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91.9	0.5	0.9	1.3	3.9	0.0	1.4	0.0	100.0 (1,074)
초등학교	93.3	1.2	0.5	0.9	3.6	0.0	0.5	0.0	100.0 (3,198)
중학교	92.9	2.5	1.2	0.8	1.9	0.0	0.8	0.0	100.0 (2,356)
고등학교	95.4	2.0	0.7	0.5	1.0	0.0	0.3	0.0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98.2	1.1	0.7	0.0	0.0	0.0	0.0	0.0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95.8	1.8	1.1	0.5	0.7	0.0	0.1	0.0	100.0 (3,564)
미취업	92.9	1.6	0.6	0.8	3.2	0.0	0.8	0.0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3.9	1.3	0.2	0.9	2.5	0.0	1.0	0.0	100.0 (2,019)
제2오분위	93.6	1.2	0.9	1.0	2.4	0.0	0.9	0.0	100.0 (2,020)
제3오분위	93.4	1.6	0.9	0.9	2.7	0.0	0.5	0.0	100.0 (2,017)
제4오분위	94.4	2.4	1.3	0.4	1.5	0.0	0.0	0.0	100.0 (2,024)
제5오분위	94.4	1.8	0.5	0.4	2.4	0.0	0.5	0.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3.6	1.3	0.5	1.1	2.7	0.0	0.9	0.0	100.0 (3,999)
50%이상~100%미만	93.2	1.9	1.4	0.5	2.4	0.0	0.5	0.0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96.0	1.5	0.4	0.3	1.6	0.0	0.2	0.0	100.0 (1,647)
150%이상	94.6	2.4	0.7	0.6	1.6	0.0	0.0	0.0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없음	95.0	1.7	0.7	0.6	1.7	0.0	0.2	0.0	100.0 (8,864)
제한있음	86.4	1.1	1.6	1.3	6.6	0.0	3.0	0.0	100.0 (1,233)
2017년 ²⁾	95.6	1.2	0.4	0.5	1.7	-	0.6	0.0	100.0 (10,073)

주: 1) 전체 응답자 10,0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6절 손자녀 돌봄 실태

최근 손자녀를 돌봐주는 노인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손자녀 돌봄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1년간 직접 돌봐 준 10세 미만의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이다. 평균 2.3명의 손자녀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1명 또는 2명의 손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각각 35.4%, 3명 이상 29.2% 순이다.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9.5%로 읍·면부 노인의 7.5%에 비해 손자녀 돌봄 비율이 더 높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노인이 9.5%, 여자 노인이 8.6%이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손자녀 돌봄 비율이 높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13.7%가 이를 담당한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2.3%로 약 10%p 차이가 있다. 유배우 노인의 손자녀 돌봄 비율이 10.0%로 무배우 노인에 비해 높다. 가구유형에 있어서는 기타 가구 14.5%, 노인 부부가구 9.9%, 자녀동거 가구 8.5% 등의 순이다. 노인부부 또는 자녀 외 가용할 수 있는 관계자원을 보유한 기타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자녀 돌봄이 용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석 가능하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손자녀 돌봄수급률이 높아지나,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경우 11.6%로 고등학교 졸업 노인(13.3%)보다는 약간 낮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노인의 경우, 전기노인 연령군이 다수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손자녀 돌봄보다는 본인의 시간을 향유하거나 현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일 수 있다. 취업 상태에 있어서는 취업 중인 노인이 11.2%로 미취업 노인에 비해 손자녀 돌봄수급률이 높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제한이 없는 노인의 손자녀 돌봄수급률이 9.6%로 제한이 있는 노인의 5.1%에 비해 높다. 가구소득 수준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손자녀 돌봄수급률이 높다. 제1오분위의 경우 7.1%이나, 제5오분위의 경우 12.6%로 약 5%p 높다. 이는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에 있어서도 유사한 경향이다.

〈표 5-31〉 노인의 일반특성별 손자녀 돌봄 여부 및 돌본 손자녀 수

(단위: %, 명)

특성	손자녀 돌봄수급률	돌봄 손자녀 수 ¹⁾			평균 돌봄 손자녀 수	계(명)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9.0	35.4	35.4	29.2	2.3	100.0(911)
지역						
동부	9.5	34.7	35.0	30.3	2.3	100.0(728)
읍·면부	7.5	37.9	37.3	24.8	2.3	100.0(183)
성						
남자	9.5	37.2	35.0	27.9	2.2	100.0(415)
여자	8.6	33.9	35.9	30.3	2.4	100.0(496)
연령						
65~69세	13.7	39.1	36.6	24.4	2.0	100.0(458)
70~74세	10.0	39.4	33.8	26.8	2.2	100.0(233)
75~79세	5.7	25.7	40.6	33.7	2.8	100.0(132)
80~84세	5.0	21.6	25.5	52.9	3.4	100.0(73)
85세 이상	2.3	11.1	30.1	58.8	2.9	100.0(1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0.0	35.7	35.9	28.4	2.3	100.0(675)
배우자 없음	7.1	34.5	34.3	31.3	2.3	100.0(236)
가구형태						
노인독거	6.5	27.9	37.3	34.8	2.4	100.0(129)
노인부부	9.9	33.1	36.7	30.2	2.4	100.0(584)
자녀동거	8.5	42.7	32.7	24.5	2.2	100.0(172)
기타	14.5	75.3	15.8	8.9	1.4	100.0(25)
교육수준						
무학	3.8	30.9	19.8	49.3	3.5	100.0(41)
초등학교	6.4	25.6	30.6	43.8	2.9	100.0(204)
중학교	9.1	38.3	33.5	28.2	2.2	100.0(215)
고등학교	13.3	40.6	37.7	21.7	2.0	100.0(382)
전문대학 이상	11.6	29.1	52.4	18.4	2.1	100.0(69)
현취업상태						
취업중	11.2	34.2	39.3	26.5	2.2	100.0(400)
미취업	7.8	36.3	32.4	31.3	2.4	100.0(511)
기능상태						
제한없음	9.6	34.9	36.0	29.0	2.3	100.0(848)
제한있음	5.1	41.1	27.6	31.2	2.6	100.0(6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1	27.0	38.9	34.0	2.5	100.0(144)
제2오분위	6.1	28.8	26.0	45.2	2.8	100.0(122)
제3오분위	8.8	41.0	29.5	29.6	2.3	100.0(177)
제4오분위	10.5	33.9	42.3	23.8	2.3	100.0(213)
제5오분위	12.6	40.6	36.5	22.9	2.1	100.0(25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8	30.0	32.0	38.0	2.6	100.0(271)
50%이상~100%미만	9.3	38.1	34.4	27.6	2.3	100.0(313)
100%이상~150%미만	12.4	37.1	38.4	24.5	2.2	100.0(204)
150%이상	11.5	37.4	40.9	21.7	2.0	100.0(123)
2017년도 ²⁾	4.4	56.7	37.7	5.6	1.5	100.0(442)

주: 1) 전체응답자 10,097명 중 손자녀를 돌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9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본인응답자 중 돌보는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442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7절 노년기 부양에 대한 태도

노부모 부양과 관련한 노인의 태도를 살펴본 바, 노인의 12.8%는 자녀와 동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동거 시 선호하는 자녀는 장남이 32.1%로 가장 높고, 형편이 되는 자녀 29.9%, 마음이 맞는 자녀 23.5%, 아들 10.3% 등의 순이다.

제 특성별 차이는 동부 거주 노인 중 13.4%는 자녀와 동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읍·면부 노인의 10.7%보다 높다.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자녀가 도시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물리적 근접성이 동부 노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이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성별로는 여자 노인의 응답이 14.8%로 남자 노인의 10.2%에 비해 높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 동거에 대한 규범적 응답률이 높다. 65~69세 연령군에서는 9.1%가 이에 해당한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29.6%에 달하여 약 3배 차이가 난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응답이 20.0%로 유배우 노인 9.3%의 약 2배이다.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구유형별로는 자녀동거 가구 29.7%, 기타가구 22.4%, 노인 독거가구 10.3%, 노인 부부가구 7.8% 순이다. 노인 부부가구의 응답률이 가장 낮은 것은 이미 노인 부부만의 생활양식이 성립되고 공유되어, 자녀 동거의 필요성을 타 가구유형에 비해 덜 인지하기 때문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이 높아져, 무학 노인은 19.7%,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은 9.5%이다. 취업 여부에 있어서는 미취업 노인이 14.8%로 취업 노인의 9.3%에 비해 높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 소득수준의 노인이 16.0%로 타 소득수준 노인에 비해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이 높다. 기능 제한과 관련해서는 제한이 있는 노인이 자녀와의 동거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24.2%). 기능 제한에 따른 일상 생활 제약으로 인해, 돌봄 및 도구적 지원 등 자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동거 희망자녀에 대해 파악한 결과, 읍·면부 노인(36.4%), 남자 노인(35.0%),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37.7%), 무배우 노인(32.3%)에게서 장남이라는 응답이 많다.

〈표 5-32〉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후 자녀와의 동거 규범 동의율·희망자녀

(단위: %, 명)

특성	자녀동거 희망률 ¹⁾	노후 동거 희망 자녀 ²⁾							기타 ³⁾	계(명)
		장남	아들	장녀	딸	형편이 되는 자녀	마음이 맞는 자녀			
전체	12.8	32.1	10.3	3.3	0.8	29.9	23.5	-		100.0(1,270)
지역										
동부	13.4	31.0	10.4	4.1	0.8	30.5	23.3	-		100.0(1,011)
읍·면부	10.7	36.4	10.2	0.4	0.9	27.7	24.4	-		100.0(259)
성										
남자	10.2	35.0	9.9	1.6	0.6	30.2	22.8	-		100.0(436)
여자	14.8	30.6	10.6	4.2	0.9	29.8	24.0	-		100.0(833)
연령										
65~69세	9.1	29.0	8.5	4.5	0.9	36.7	20.5	-		100.0(303)
70~74세	11.5	22.8	10.9	2.0	1.0	28.8	34.5	-		100.0(266)
75~79세	11.5	37.0	9.9	2.4	0.3	30.2	20.3	-		100.0(260)
80~84세	18.7	36.4	12.0	1.3	1.3	25.6	23.6	-		100.0(266)
85세 이상	29.6	37.7	10.7	7.9	0.7	26.1	17.0	-		100.0(17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3	31.8	10.8	2.0	0.8	30.7	23.9	-		100.0(624)
배우자 없음	20.0	32.3	9.9	4.6	0.8	29.2	23.2	-		100.0(646)
가구형태										
노인독거	10.3	28.8	9.4	3.1	0.5	38.3	19.9	-		100.0(205)
노인부부	7.8	31.4	12.0	2.6	1.0	28.8	24.2	-		100.0(453)
자녀동거	29.7	33.4	9.6	3.4	0.6	28.2	24.9	-		100.0(575)
기타	22.4	38.3	6.0	12.4	4.6	23.4	15.2	-		100.0(37)
교육수준										
무학	19.7	39.0	14.2	3.0	0.5	22.8	20.4	-		100.0(202)
초등학교	14.6	31.8	11.7	2.7	0.4	32.5	21.0	-		100.0(457)
중학교	12.2	28.0	5.9	2.9	1.3	38.1	23.9	-		100.0(284)
고등학교	9.5	33.5	8.3	4.1	0.9	25.8	27.4	-		100.0(270)
전문대학 이상	9.5	23.4	18.0	8.1	3.0	12.7	34.8	-		100.0(56)
현취업상태										
취업중	9.3	31.4	6.4	2.8	1.0	39.4	19.0	-		100.0(329)
미취업	14.8	32.3	11.7	3.5	0.8	26.6	25.1	-		100.0(94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6	26.2	9.9	1.9	2.2	35.0	24.8	-		100.0(230)
제2오분위	10.5	32.2	9.1	1.2	0.5	37.4	19.7	-		100.0(208)
제3오분위	9.9	22.2	17.6	6.2	0.6	34.1	19.3	-		100.0(197)
제4오분위	12.9	33.9	9.7	3.7	0.7	30.9	21.1	-		100.0(257)
제5오분위	19.0	39.5	7.9	3.6	0.4	19.8	28.8	-		100.0(37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1.3	28.1	9.5	1.5	1.3	36.3	23.4	-		100.0(445)
50%이상100%미만	12.7	30.2	12.2	4.5	0.8	32.0	20.3	-		100.0(423)
100%이상150%미만	14.4	39.4	10.1	2.0	0.0	20.4	28.1	-		100.0(232)
150%이상	16.0	37.2	8.2	7.0	0.9	20.8	25.8	-		100.0(169)
가능상태										
제한없음	11.4	30.5	10.5	2.9	0.7	31.9	23.6	-		100.0(1,004)
제한있음	24.2	38.2	9.8	5.0	1.2	22.6	23.3	-		100.0(266)
2017년도 ⁴⁾	15.2	45.7	15.5	4.0	3.4	17.2	14.2	0.1		100.0(1,529)

주: 1) 본안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안응답자 9,930명 중 동거희망자 1,270명을 대상으로 함.
 3) 2020년에는 기타 보기가 없었음. 4) 본안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40.6%는 본인 스스로, 27.0%는 본인과 사회보장제도로 응답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라는 응답은 22.3%, 본인과 자녀 5.3%, 자녀라는 응답은 4.7%에 불과하다. 본인 또는 사회보장제도, 본인과 사회보장제도간 협업을 통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응답이 89.9%로 매우 높다. 자녀의 도움을 통해 마련하고자 하는 노인은 10%에 그친다.

제 특성별로 이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41.2%)이 읍·면부 노인(38.8%)에 비해 본인 스스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응답이 더 높다. 성별에 따라서는 동 응답에서 남자 노인이 43.6%, 여자 노인이 38.3%이다.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제도(23.6%), 또는 자녀의 도움(11.1%)을 필요로 한다는 응답이 더 높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적을수록 본인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경향이 뚜렷하다. 65~69세 연령군에서 동 응답은 47.9%로 약 1/2이 해당한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30.4%로 약 18%p 차이가 있다. 반면 사회보장제도라는 응답은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28.1%로 전 연령군에서 가장 높다. 초고령노인의 경우,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거나 자녀 역시 고령층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지원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에게서 본인 스스로 응답하고자 하는 비율이 43.3%로 무배우 노인의 35.0%보다 높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 부부가구가 42.5%로 본인 스스로 응답하고자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자녀라는 응답은 4.2%로 가장 낮다. 한편 사회보장제도라는 응답은 노인 독거가구에서 28.3%로 가장 높다. 독거가구의 경우, 협소한 자원망을 보유했기에 따라 제도적 지원을 통한 노후 생활비 마련을 더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 스스로 준비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에게서 동 응답은 49.4%이나, 무학 노인은 27.4%에 그친다. 반면 무학 노인에게서는 타 교육수준 노인에 비해 사회보장제도라는 응답이 34.2%로 높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 중인 노인 중 46.8%가 본인 스스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본인 스스로 준비하려는 응답 비율이 높다. 제5오분위의 경우 동 응답이 46.8%로 가장 높고, 사회보장제도라는 응답은 14.1%로 가장 낮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본인 스스로라는 응답이 42.1%로 기능 제한 노인의 28.1%에

비해 월등히 높다.

종합할 때 노인 스스로 또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며, 자녀에 대한 의존은 적은 편이다. 단,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여자 노인, 고연령 노인, 저학력 노인, 기능 제한 경험 노인 등)에서 제도적 지원을 통한 노후 생활비 마련을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33〉 노인의 일반특성별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명)

특성	본인 스스로	자녀	사회보장 제도	본인과 자녀	본인과 사회보장제도	기타	계(명)
전체	40.6	4.7	22.3	5.3	27.0	0.0	100.0(9,930)
지역							
동부	41.2	4.4	20.5	5.6	28.3	0.0	100.0(7,518)
읍·면부	38.8	5.7	27.9	4.5	23.2	0.0	100.0(2,413)
성							
남자	43.6	3.9	20.6	4.7	27.1	0.0	100.0(4,281)
여자	38.3	5.3	23.6	5.8	27.0	0.0	100.0(5,649)
연령							
65~69세	47.9	4.4	17.7	4.5	25.5	0.1	100.0(3,337)
70~74세	40.9	4.5	21.5	5.3	27.7	0.1	100.0(2,319)
75~79세	37.1	4.3	25.3	5.8	27.4	0.0	100.0(2,262)
80~84세	32.6	5.4	27.4	6.6	28.0	0.0	100.0(1,426)
85세 이상	30.4	7.1	28.1	5.5	28.9	0.0	100.0(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3.3	4.2	20.5	5.1	26.9	0.0	100.0(6,704)
배우자 없음	35.0	5.7	26.2	5.8	27.4	0.0	100.0(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34.5	5.4	28.3	5.3	26.6	0.0	100.0(1,985)
노인부부	42.5	4.2	21.5	5.1	26.7	0.0	100.0(5,847)
자녀동거	41.2	5.3	19.1	5.7	28.7	0.1	100.0(1,935)
기타	39.8	6.7	18.1	8.4	27.1	0.0	100.0(164)
교육수준							
무학	27.4	5.3	34.2	5.9	27.3	0.0	100.0(1,023)
초등학교	37.0	6.0	25.6	5.2	26.1	0.1	100.0(3,134)
중학교	41.7	4.5	21.0	5.8	26.9	0.0	100.0(2,323)
고등학교	46.5	4.0	17.8	5.3	26.4	0.0	100.0(2,857)
전문대학 이상	49.4	0.8	11.2	3.2	35.4	0.0	100.0(594)
현직업상태							
취업중	46.8	5.2	19.9	4.3	23.7	0.0	100.0(3,554)
미취업	37.1	4.4	23.7	5.9	28.9	0.0	100.0(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9.9	5.0	37.0	4.9	23.3	0.0	100.0(1,986)
제2오분위	36.7	4.8	25.6	6.4	26.5	0.0	100.0(1,987)
제3오분위	41.1	4.9	18.5	5.7	29.7	0.1	100.0(1,991)
제4오분위	48.4	4.3	16.5	4.8	26.1	0.0	100.0(1,987)
제5오분위	46.8	4.5	14.1	4.9	29.7	0.1	100.0(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3.6	4.7	31.0	5.8	24.8	0.0	100.0(3,927)
50%이상100%미만	42.7	4.9	18.4	5.4	28.5	0.0	100.0(3,330)
100%이상150%미만	48.5	3.9	14.9	4.7	28.0	0.1	100.0(1,618)
150%이상	47.7	5.3	13.9	4.1	29.0	0.0	100.0(1,055)
가능상태							
제한없음	42.1	4.5	21.6	5.2	26.5	0.0	100.0(8,832)
제한있음	28.1	6.2	28.1	6.3	31.2	0.0	100.0(1,098)
2017년도 ²⁾	34.0	7.6	14.1	10.2	33.7	0.4	100.0(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제1절 건강상태

제2절 건강행태

제6장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본 장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건강상태 영역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실태, 우울증상, 약물 복용 및 의료 이용률 등을 파악하고, 건강행태 영역에서는 흡연 및 음주실태, 운동실천 상태, 영양관리 상태, 건강검진 여부, 병의원 및 치과 진료 미치료 여부와 그 이유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건강상태

1. 주관적 건강상태

노인 자신이 평소 생각하는 건강상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4.5%, 건강한 편이다 44.8%, 그저 그렇다 30.8%, 건강이 나쁜 편이다 17.6%, 건강이 매우 나쁘다 2.3%로 나타났다.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49.3%이고, 건강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19.9%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51%)이 읍·면부 노인(44.4%)보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55.3%)이 여자 노인(44.8%)보다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자 노인(55%)이 무배우자 노인(37.6%)보다 평소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 주관적 건강상태 응답을 살펴보면, 노인부부가구 55.2%, 자녀동거가구 43.5%, 기타가구 43.3%, 노인독거가구 38.6%로, 노인독거가구보다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가구가 평소의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체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40.3%)에 비해 취업한 노인(65.7%)이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평가하고 고소득층일수록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제1오분위(37.4%)는 제5오분위(60.9%)에 비하여 23.5% 포인트 더 높게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평가하였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군은 38.7%가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한 반면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인 군에서는 67.2%가 건강상태를 좋다고 평가하였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53.6%)이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14.5%)에 비해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6-1〉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특성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체 ¹⁾	4.5	44.8	30.8	17.6	2.3	100.0 (9,930)
지역						
동부	5.0	46.0	28.9	17.8	2.4	100.0 (7,518)
읍·면부	3.1	41.3	36.5	17.1	2.0	100.0 (2,413)
성						
남자	6.9	48.4	29.7	13.2	1.7	100.0 (4,281)
여자	2.7	42.1	31.6	20.9	2.7	100.0 (5,649)
연령						
65~69세	8.1	60.6	23.4	7.1	0.8	100.0 (3,337)
70~74세	4.6	48.6	32.4	13.2	1.2	100.0 (2,319)
75~79세	2.0	35.4	37.2	22.3	3.1	100.0 (2,262)
80~84세	1.7	25.2	35.2	33.9	3.9	100.0 (1,426)
85세 이상	0.9	23.9	30.3	37.2	7.8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7	49.3	29.5	13.9	1.6	100.0 (6,704)
배우자 없음	2.1	35.5	33.4	25.4	3.6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2.0	36.6	34.5	23.3	3.5	100.0 (1,985)
노인부부	5.7	49.5	29.6	13.7	1.6	100.0 (5,847)
자녀동거	3.6	39.9	30.8	22.8	3.0	100.0 (1,935)
기타	5.0	38.3	25.1	28.0	3.7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0.8	21.0	33.1	37.1	7.9	100.0 (1,023)
초등학교	1.5	35.7	37.1	23.4	2.3	100.0 (3,134)
중학교	2.8	49.6	31.9	13.9	1.9	100.0 (2,323)
고등학교	6.8	58.6	25.2	8.8	0.6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2.5	49.3	15.8	10.5	2.0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7.0	58.7	26.2	7.7	0.3	100.0 (3,554)
미취업	3.2	37.1	33.3	23.1	3.3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9	35.5	37.8	21.0	3.9	100.0 (1,986)
제2오분위	2.7	36.8	34.3	23.6	2.6	100.0 (1,987)
제3오분위	3.6	47.1	31.2	16.1	2.0	100.0 (1,991)
제4오분위	5.6	52.8	26.3	13.5	1.9	100.0 (1,987)
제5오분위	8.9	52.0	24.3	13.9	0.9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4	36.3	35.8	22.2	3.3	100.0 (3,927)
50%이상~100%미만	4.1	46.7	30.1	16.7	2.4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6.0	54.6	25.3	13.5	0.7	100.0 (1,618)
150%이상	11.6	55.6	22.7	9.7	0.4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5.0	48.6	31.2	15.1	0.0	100.0 (8,832)
제한 있음	0.5	14.0	27.1	37.9	20.4	100.0 (1,098)
2017년도	2.2	34.8	23.3	34.9	4.8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만성질환 실태

앞에서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면 만성질환 수는 노인의 객관적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앓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표 6-2). 전체 노인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만성질환 1개를 지니고 있는 노인이 29.2%, 만성질환 2개는 27.1%, 만성질환이 3개 이상인 노인은 27.8%로 나타났다. 만성질환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는 54.9%였으며, 평균 만성질환 수는 1.9개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실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84.9%)과 읍·면부 노인(81.2%)에 큰 차이가 없었고, 성별로는 여자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86.1%)이 남자 노인(81.3%)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에서 74세까지 전기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각각 75.6%, 83.8%로 나타났고,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각각 89.8%, 90.8%, 93.1%로 나타나, 전기노인 보다 후기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았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89%로 유배우 노인 81.6%보다 높았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87.9%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자녀동거가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87.4%, 노인부부가구는 81.9%, 기타가구는 77.9%로 나타났다.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지니고 있는 복합이환자는 노인독거가구가 6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동거가구는 60.9%, 기타가구는 60.6%였으며, 노인부부가구는 5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체적으로 저학력일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 노인(79.3%)보다 미취업 노인(86.7%)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 제1오분위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8.1%로 가장 높았으며, 제2오분위 85%, 제3오분위 82.5%, 제4오분위 82.6%, 제5분위 82.1%로 나타났다. 복합만성질환 유병률 역시 제1오분위가 59.6%로 제5오분위 52%에 비해 7.6%포인트 더 높았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복합만성질환 유병률 역시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군이 57.7%로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인 군 48.8%보다 만성질환 유

병률이 높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제한이 있는 노인(99%)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81.9%)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17.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병 종류별 유병률을 살펴보면<표 6-3>,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당뇨병 24.2%, 고지혈증 17.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 관절염 16.5%, 요통 및 좌골신경통 10.0%로 나타났다. 성별 만성질병 종류별 유병률을 보면, 남자 노인은 고혈압 57.0%, 당뇨병 23.9%, 고지혈증 13.5%, 전립선비대증 9.3% 등의 순이고, 여자 노인은 고혈압 56.6%, 당뇨병 24.4%,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 관절염 23.3%, 고지혈증 19.9% 등의 순이다.

만성질병 종류별 치료율을 살펴보면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 관절염의 치료율은 모두 90%이상의 치료율을 보이고, 요통 및 좌골신경통은 80% 이상의 치료율을 보인다. 2020년 조사에서는 새롭게 노인성 난청 항목이 추가되었다. 노인성 난청의 유병률은 2.5%, 치료율은 53.9%로 나타났다. 만성질병 중 요실금(43.7%)과 노인성 난청(53.9%)의 치료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6-2〉 노인의 일반특성별 만성질병(의사진단 기준) 개수

(단위: %, 명, 개)

특성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계 (명)	평균(개)
전체 ¹⁾	16.0	29.2	27.1	27.8	100.0 (10,097)	1.9
지역						
동부	15.1	29.4	27.0	28.5	100.0 (7,651)	1.9
읍·면부	18.8	28.3	27.2	25.7	100.0 (2,446)	1.8
성						
남자	18.8	32.7	26.8	21.8	100.0 (4,346)	1.7
여자	13.9	26.5	27.3	32.3	100.0 (5,751)	2.1
연령						
65~69세	24.4	33.4	24.0	18.2	100.0 (3,344)	1.5
70~74세	16.3	29.4	28.0	26.4	100.0 (2,342)	1.9
75~79세	10.2	28.4	28.5	32.9	100.0 (2,292)	2.1
80~84세	9.2	24.6	28.6	37.6	100.0 (1,475)	2.3
85세 이상	7.0	20.0	31.0	42.1	100.0 (644)	2.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8.4	31.5	26.0	24.1	100.0 (6,779)	1.7
배우자 없음	11.0	24.4	29.2	35.4	100.0 (3,318)	2.3
가구형태						
노인독거	12.2	25.0	28.3	34.6	100.0 (1,998)	2.2
노인부부	18.2	31.9	25.7	24.3	100.0 (5,898)	1.8
자녀동거	12.7	26.5	30.5	30.4	100.0 (2,026)	2.1
기타	22.2	17.3	21.0	39.6	100.0 (174)	2.3
교육수준						
무학	8.3	21.0	29.7	41.0	100.0 (1,073)	2.5
초등학교	12.2	27.3	26.9	33.6	100.0 (3,198)	2.1
중학교	16.5	29.0	28.0	26.5	100.0 (2,356)	1.9
고등학교	21.4	33.8	27.0	17.8	100.0 (2,870)	1.6
전문대학 이상	21.8	32.2	20.2	25.7	100.0 (599)	1.8
현취업상태						
취업중	20.8	34.4	24.9	20.0	100.0 (3,564)	1.6
미취업	13.3	26.3	28.3	32.1	100.0 (6,533)	2.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0	28.5	29.7	29.9	100.0 (2,019)	2.1
제2오분위	15.0	28.2	26.8	30.0	100.0 (2,020)	2.0
제3오분위	17.5	31.4	23.9	27.2	100.0 (2,017)	1.9
제4오분위	17.5	27.7	29.4	25.5	100.0 (2,024)	1.9
제5오분위	17.9	30.1	25.5	26.5	100.0 (2,017)	1.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3.8	28.4	28.2	29.5	100.0 (3,999)	2.0
50%이상~100%미만	16.4	29.0	26.4	28.2	100.0 (3,382)	1.9
100%이상~150%미만	18.7	28.8	26.7	25.8	100.0 (1,647)	1.8
150%이상	18.4	32.8	25.6	23.2	100.0 (1,068)	1.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8.1	30.9	27.0	24.0	100.0 (8,864)	1.7
제한 있음	1.0	16.5	27.3	55.2	100.0 (1,233)	3.2
2017년도 ²⁾	10.5	16.5	22.0	51.0	100.0 (10,073)	2.7

주: 1) 전체 응답자 10,0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6-3〉 노인의 성별 만성질환 종류별 유병률(의사진단 기준) 및 현 치료율¹⁾

(단위: %)

특성	전체		남자		여자		2017년도 유병률 ²⁾
	유병률	치료율	유병률	치료율	유병률	치료율	
고혈압	56.8	98.7	57.0	99.0	56.6	98.5	59.0
뇌졸중(중풍, 뇌경색)	4.3	96.5	4.8	96.8	3.8	96.2	7.1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17.1	96.9	13.5	96.1	19.9	97.3	29.5
협심증, 심근경색증	4.4	96.9	4.8	97.3	4.2	96.6	7.0
기타 심장질환	4.5	98.2	4.2	99.0	4.8	97.7	6.6
당뇨병	24.2	99.0	23.9	99.4	24.4	98.7	23.2
갑상선 질환	3.3	97.3	1.3	97.2	4.9	97.3	3.3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 관절염	16.5	91.1	7.4	87.3	23.3	92.1	33.1
골다공증	8.5	90.1	1.7	87.4	13.7	90.3	13.0
요통, 좌골신경통	10.0	82.1	4.3	82.5	14.3	82.0	24.1
만성기관지염, 폐기종(CO포인트D)	1.5	91.8	2.2	94.2	0.9	87.7	1.5
천식	2.0	94.3	2.4	93.3	1.7	95.4	3.1
폐결핵, 결핵	0.1	82.9	0.2	74.9	0.1	100.0	0.3
백내장	5.3	74.1	6.0	76.8	4.8	71.5	7.1
녹내장	1.1	81.1	1.2	86.7	1.0	76.2	2.4
만성중이염	0.7	98.1	1.0	100.0	0.5	95.3	0.4
암(악성신생물)	1.8	88.5	2.4	90.2	1.4	86.3	3.8
위·십이지장궤양	5.0	93.6	4.9	95.8	5.0	92.0	9.1
간염	0.4	84.1	0.4	75.7	0.3	94.1	0.8
간경변	0.3	90.1	0.6	87.1	0.1	100.0	0.5
만성신장질환	1.1	95.1	1.4	91.8	0.9	98.8	1.9
전립선비대증	4.1	96.2	9.3	96.2	0.1	100.0	8.9
요실금	3.9	43.7	0.5	43.7	6.5	43.7	2.5
빈혈	1.8	75.9	0.7	77.0	2.5	75.6	2.1
피부병	0.9	84.3	1.1	91.0	0.7	76.3	1.9
우울증	1.5	81.3	0.8	90.7	2.1	78.4	3.0
치매	2.1	93.8	1.9	95.2	2.2	93.0	1.5
골절, 탈골 및 사고 후유증	1.5	87.0	1.1	86.7	1.8	87.1	1.7
불면증	2.0	78.9	1.1	78.3	2.6	79.1	3.5
파킨슨	0.6	100.0	0.7	100.0	0.4	100.0	1.0
노인성 난청	2.5	53.9	2.6	59.6	2.4	49.2	-
기타	1.6	94.4	1.8	93.8	1.4	95.1	-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 우울증상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hort Form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를 사용하여 노인의 우울 증상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0~15점 중에서 8~15점을 우울증상으로 분류한다. 전체 노인의 13.5%가 우울증상을 지니고 있고, 15개 문항의 평균 점수는 3.5점이었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13.1%, 읍·면부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14.6%로 읍·면부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더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10.9%, 여자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15.5%로 여자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4.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에서 69세 연령군의 우울증상은 8.4%인 반면 85세 이상 연령군의 우울증상은 24.0%로, 85세 이상 연령군은 65세에서 69세 연령군보다 우울증상이 약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10.7%, 무배우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19.2%로 무배우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8.5%포인트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기타가구의 우울증상 비율이 21.7%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노인 독거가구의 우울증상 비율이 18.7%, 자녀동거가구 16.8%, 노인부부가구 10.4%이다.

교육수준별 우울증상 비율을 보면 고학력보다 저학력인 경우 우울증상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무학인 경우 23.5%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초등학교인 경우 16.5%, 중학교인 경우 13.6%, 고등학교는 7.2%, 전문대학 이상은 10.6%의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 노인의 우울증상은 7.8%인 반면 미취업 노인의 우울증상은 16.7%로, 취업 노인에 비해 미취업 노인의 우울증상이 두 배 이상 높은 경향을 보인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증상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제1오분위의 우울증상 비율은 17.3%이고 제5오분위의 우울증상 비율은 10.7%로 우울증상 비율이 두 계층 간 6.6%포인트 차이를 보인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우울증상이 높게 나타났고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군(17%)은 중위소득 대비 150%이상인 군(9.6%)보다 우울증상 비율이 7.4%포인트 높은 경향을 보인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이 41.8%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 10.0%에 비하여 네 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다.

〈표 6-4〉 노인의 일반특성별 우울증상

(단위: %, 명, 점)

특성	정상	우울증상	계 (명)	평균(점)
전체 ¹⁾	86.5	13.5	100.0 (9,930)	3.5
지역				
동부	86.9	13.1	100.0 (7,518)	3.4
읍·면부	85.4	14.6	100.0 (2,413)	3.7
성				
남자	89.1	10.9	100.0 (4,281)	3.1
여자	84.5	15.5	100.0 (5,649)	3.7
연령				
65~69세	91.6	8.4	100.0 (3,337)	2.8
70~74세	87.7	12.3	100.0 (2,319)	3.3
75~79세	84.4	15.6	100.0 (2,262)	3.7
80~84세	80.3	19.7	100.0 (1,426)	4.4
85세 이상	76.0	24.0	100.0 (587)	4.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9.3	10.7	100.0 (6,704)	3.1
배우자 없음	80.8	19.2	100.0 (3,226)	4.3
가구형태				
노인독거	81.3	18.7	100.0 (1,985)	4.2
노인부부	89.6	10.4	100.0 (5,847)	3.1
자녀동거	83.2	16.8	100.0 (1,935)	3.9
기타	78.3	21.7	100.0 (164)	4.2
교육수준				
무학	76.5	23.5	100.0 (1,023)	5.0
초등학교	83.5	16.5	100.0 (3,134)	3.9
중학교	86.4	13.6	100.0 (2,323)	3.6
고등학교	92.8	7.2	100.0 (2,857)	2.7
전문대학 이상	89.4	10.6	100.0 (594)	2.2
현취업상태				
취업중	92.2	7.8	100.0 (3,554)	2.8
미취업	83.3	16.7	100.0 (6,377)	3.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2.7	17.3	100.0 (1,986)	3.9
제2오분위	84.1	15.9	100.0 (1,987)	4.0
제3오분위	87.3	12.7	100.0 (1,991)	3.3
제4오분위	89.1	10.9	100.0 (1,987)	3.2
제5오분위	89.3	10.7	100.0 (1,980)	2.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3.0	17.0	100.0 (3,927)	3.9
50%이상~100%미만	87.7	12.3	100.0 (3,330)	3.4
100%이상~150%미만	90.0	10.0	100.0 (1,618)	3.0
150%이상	90.4	9.6	100.0 (1,055)	2.8
기능상태				
제한 없음	90.0	10.0	100.0 (8,832)	3.1
제한 있음	58.2	41.8	100.0 (1,098)	6.6
2017년도	78.9	21.1	100.0 (10,073)	4.1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GDS)를 사용하였으며, 0~15점 중에서 8~15점을 우울증상으로 분류함.

4. 의료 이용

가. 약복용

현재 3개월 이상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82.1%이다. 17.8%는 의사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다. 의사처방약 1~2종류를 복용하는 노인은 56.4%, 3~4종류를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21.4%, 5종류 이상을 복용하고 있는 노인은 4.3%이며, 전체 노인이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의 종류는 평균 1.8종류이다(〈표 6-5〉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의사처방약 복용률이 82.9%, 읍·면부 노인의 의사처방약 복용률이 79.7%로, 동부 노인의 의사처방약 복용률이 더 높다. 반면 처방약 5종류 이상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읍·면부 노인의 의사처방약 복용률은 4.9%로 동부 노인의 의사처방약 복용률 4.1%보다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79.1%)보다 여자 노인(84.5%)의 의사처방약 복용률이 더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사처방약 복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65~69세 연령군의 처방약 복용률은 73.6%이고, 70~74세는 81.7%, 75~79세 88.3%, 80~84세 88.4%, 85세 이상 연령군이 91.7%로 나타났다. 처방약을 5종류 이상 복용하는 경우도 65~69세 연령군은 1.7%인데 반해 85세 이상 연령군은 7.1%로 네 배이상 더 높은 수준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처방약 복용률이 79.7%, 무배우 노인의 처방약 복용률이 87.3%로 유배우 노인보다 무배우 노인의 처방약 복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 분포를 보면 노인독거가구의 처방약 복용률이 86.1%로 가장 높고, 이어서 자녀동거가구 85.1%, 노인부부가구 80.0%, 기타가구 76.5%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의사 처방약 복용률은 저학력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취업상태별 의사처방약 복용률은 취업 노인이 77.2%, 미취업 노인이 84.9%로 취업노인보다 미취업 노인의 의사 처방약 복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가구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처방약을 더 많이 복용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제1오분위의 처방약 복용률은 86.1%로 제5오분위 79.9%보다 높다. 중위소득 대비 비율별로 보면,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낮아질수록 의사처방약 복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군의 처방약 복용률이 84.2%로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 79.1%보다 높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의사처방약 복용률이 96.8%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의사처방약 복용률 80.1%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이다.

〈표 6-5〉 노인의 일반특성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의사처방약

(단위: %, 명, 종류)

특성	없음	1~2종류	3~4종류	5종류 이상	계 (명)	평균(종류)
전체 ¹⁾	17.8	56.4	21.4	4.3	100.0 (10,097)	1.8
지역						
동부	17.1	57.1	21.7	4.1	100.0 (7,651)	1.8
읍·면부	20.2	54.1	20.7	4.9	100.0 (2,446)	1.8
성						
남자	20.9	58.2	17.7	3.2	100.0 (4,346)	1.6
여자	15.5	55.0	24.3	5.2	100.0 (5,751)	1.9
연령						
65~69세	26.4	57.0	14.9	1.7	100.0 (3,344)	1.4
70~74세	18.3	56.9	20.5	4.3	100.0 (2,342)	1.8
75~79세	11.6	57.4	25.2	5.7	100.0 (2,292)	2.1
80~84세	11.6	54.3	27.2	6.9	100.0 (1,475)	2.2
85세 이상	8.3	52.0	32.6	7.1	100.0 (644)	2.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0.3	57.3	18.8	3.6	100.0 (6,779)	1.7
배우자 없음	12.8	54.5	26.9	5.9	100.0 (3,318)	2.1
가구형태						
노인독거	13.9	54.0	25.5	6.6	100.0 (1,998)	2.1
노인부부	20.0	57.2	19.1	3.7	100.0 (5,898)	1.7
자녀동거	14.9	57.9	23.2	4.0	100.0 (2,026)	1.9
기타	23.5	38.6	34.4	3.5	100.0 (174)	2.0
교육수준						
무학	10.1	51.9	30.5	7.4	100.0 (1,073)	2.3
초등학교	13.5	55.6	25.5	5.4	100.0 (3,198)	2.0
중학교	18.3	57.1	20.4	4.2	100.0 (2,356)	1.8
고등학교	24.1	59.1	14.7	2.1	100.0 (2,870)	1.5
전문대학 이상	23.1	53.0	19.9	3.9	100.0 (599)	1.6
현취업상태						
취업중	22.8	59.0	16.5	1.7	100.0 (3,564)	1.5
미취업	15.1	55.0	24.1	5.8	100.0 (6,533)	2.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9	58.1	22.2	5.8	100.0 (2,019)	2.0
제2오분위	17.2	54.7	22.7	5.4	100.0 (2,020)	1.9
제3오분위	19.0	56.6	21.9	2.5	100.0 (2,017)	1.7
제4오분위	18.9	57.2	20.6	3.3	100.0 (2,024)	1.7
제5오분위	20.2	55.4	19.9	4.6	100.0 (2,017)	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5.9	56.8	22.2	5.2	100.0 (3,999)	1.9
50%이상~100%미만	17.9	55.8	22.3	4.0	100.0 (3,382)	1.8
100%이상~150%미만	20.5	56.1	20.4	3.0	100.0 (1,647)	1.7
150%이상	20.9	57.4	17.6	4.1	100.0 (1,068)	1.6
기능상태						
제한 없음	19.9	58.0	19.5	2.6	100.0 (8,864)	1.6
제한 있음	3.3	44.6	35.6	16.6	100.0 (1,233)	3.0
2017년도 ²⁾	16.5	23.5	23.0	37.0	100.0 (10,073)	3.92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나. 보건의료기관 이용

지난 1개월 동안 병원, 의원, 보건(지·진료)소, 한의원, 치과 등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를 보면, 전체 노인의 70.6%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방문횟수는 1.5회이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 노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70.2%, 읍·면부 노인이 71.9%로 읍·면부 노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약간 더 높다. 하지만 보건의료기관 평균 이용 횟수는 동부가 1.6회로 읍·면부 1.4회보다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66.9%, 여자 노인 73.5%로 남자 노인에 비해 여자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평균 방문횟수는 여자 노인 1.7회, 남자 노인 1.3회이다.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65~69세 연령군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은 62.3%, 70~74세 연령군은 71.4%, 75~79세 연령군은 74.7%, 80~84세 연령군은 78.8%, 85세 이상은 76.9%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68.7%, 무배우 노인이 74.6%로 무배우 노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72.9%로 가장 높고, 노인부부가구가 69%로 가장 낮다. 보건의료기관 평균 이용 횟수를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가 1.7회, 노인부부가구 1.4회, 자녀동거가구 1.8회, 기타가구가 1.5회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저학력일수록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건의료기관 월평균 이용 횟수는 무학이 1.9회이며, 전문대학 1.5회보다 높다. 취업상태별로 보면 취업노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66.8%로 미취업 노인 72.7%보다 낮다. 소득수준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제1오분위의 이용률이 76.0%로 가장 높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군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74.9%로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인 군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 66.5%보다 8.4%포인트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률이 86.6%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68.4%)보다 18.2%포인트 더 높다.

〈표 6-6〉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난 1개월간 보건의료기관 이용 횟수

(단위: %, 명, 회)

특성	없음	1회	2~3회	4~5회	6회 이상	계 (명)	평균(회)
전체 ¹⁾	29.4	38.0	23.6	5.0	4.0	100.0 (10,097)	1.5
지역							
동부	29.8	37.1	23.5	5.2	4.4	100.0 (7,651)	1.6
읍·면부	28.1	40.6	24.0	4.5	2.8	100.0 (2,446)	1.4
성							
남자	33.1	37.6	22.6	4.0	2.7	100.0 (4,346)	1.3
여자	26.6	38.2	24.4	5.8	5.1	100.0 (5,751)	1.7
연령							
65~69세	37.7	36.4	19.6	3.6	2.7	100.0 (3,344)	1.2
70~74세	28.5	39.3	22.4	5.4	4.3	100.0 (2,342)	1.6
75~79세	25.2	37.9	26.7	4.8	5.3	100.0 (2,292)	1.8
80~84세	21.2	39.6	27.8	7.1	4.3	100.0 (1,475)	1.7
85세 이상	23.1	37.6	28.2	6.6	4.5	100.0 (644)	1.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1.3	38.2	22.6	4.5	3.4	100.0 (6,779)	1.4
배우자 없음	25.4	37.4	25.8	6.0	5.4	100.0 (3,318)	1.8
가구형태							
노인독거	27.1	37.5	24.9	5.8	4.7	100.0 (1,998)	1.7
노인부부	30.9	38.3	23.0	4.5	3.2	100.0 (5,898)	1.4
자녀동거	27.1	37.4	24.2	5.5	5.7	100.0 (2,026)	1.8
기타	30.5	37.1	21.9	6.7	3.8	100.0 (174)	1.5
교육수준							
무학	19.6	40.7	26.8	7.9	5.0	100.0 (1,073)	1.9
초등학교	25.0	38.7	26.5	5.7	4.2	100.0 (3,198)	1.7
중학교	30.9	38.5	22.3	4.3	4.0	100.0 (2,356)	1.5
고등학교	36.2	35.9	20.1	4.3	3.5	100.0 (2,870)	1.3
전문대학 이상	31.4	37.0	24.6	2.9	3.9	100.0 (599)	1.5
현취업상태							
취업중	33.1	40.6	20.1	3.8	2.3	100.0 (3,564)	1.3
미취업	27.3	36.5	25.6	5.6	5.0	100.0 (6,533)	1.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4.0	41.0	26.3	5.4	3.3	100.0 (2,019)	1.6
제2오분위	26.6	39.9	25.2	4.6	3.6	100.0 (2,020)	1.5
제3오분위	32.1	37.4	22.0	5.2	3.3	100.0 (2,017)	1.4
제4오분위	32.4	35.7	22.6	5.1	4.2	100.0 (2,024)	1.6
제5오분위	31.7	35.8	22.0	4.7	5.7	100.0 (2,017)	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5.1	40.6	25.6	5.2	3.5	100.0 (3,999)	1.5
50%이상~100%미만	32.2	36.1	22.1	5.4	4.1	100.0 (3,382)	1.5
100%이상~150%미만	31.2	36.7	23.6	4.8	3.9	100.0 (1,647)	1.6
150%이상	33.4	35.8	21.0	3.5	6.2	100.0 (1,068)	1.6
기능상태							
제한 없음	31.6	38.5	22.7	4.3	2.9	100.0 (8,864)	1.4
제한 있음	13.4	33.8	30.4	10.4	12.0	100.0 (1,233)	2.7
2017년도	22.6	35.2	22.3	9.5	10.4	100.0 (10,073)	2.4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다. 병의원 입원

1) 요양병원

지난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0.4%이고, 입원횟수는 1회 0.3%, 2회 0.0%, 3회 이상 0.1%이다(표 6-7).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노인(0.5%)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읍·면부 노인(0.1%)보다 높고, 성별로는 여자 노인의 요양병원 입원율(0.5%)이 남자 노인(0.3%)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85세 이상의 연령군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2.4%로 가장 높고, 65~69세 연령군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0.1%로 가장 낮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0.2%인데 반해 무배우 노인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0.6%로 0.4%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0.1%, 노인부부가구 0.2%, 자녀동거가구 1.1%, 기타가구 0.0%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인 군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1.4%로 가장 높고, 이어서 초등학교 군이 0.5%순 등이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0.5%로 취업 노인(0.0%)보다 더 높다. 가구소득별 요양병원 입원율에는 일정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제5오분위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0.6%로 가장 높고, 이어서 제 3오분위 0.5%, 제1오분위 0.4%순 등이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0.8%, 중위소득 대비 50%이상 100% 미만에서 0.4%순 등이다.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요양병원 입원율이 2%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요양병원 입원율 0.2%보다 10배 더 높다.

지난 1년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노인의 입원기간을 살펴보면, 15~30일 간이 0.2%, 61일 이상이 0.1%로 나타났고, 평균 입원일수는 0.3일이다.

지역별 요양병원 입원기간은 동부 노인이 0.3일로 읍·면부 노인 0.0일보다 길다. 2주 초과 요양병원 입원 비율은 동부노인(0.4%)이 읍·면부 노인(0.1%)보다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요양병원 입원기간이 평균 0.3일, 여자 노인이 평균 0.2일이고, 2주 초과 요양병원 입원 비율 역시 여자 노인(0.4%)이 남자 노인(0.3%)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85세 이상 연령군의 요양병원 입원기간이 3.0일로 가장 길고, 2주 초과 입원 비율 역시 85세 이상 연령군이 2.5%로 높은 편이다. 그다음으로 70~74세 0.4%, 75~79세 0.2%순

등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요양병원 입원기간이 평균 0.4일로 유배우 노인의 요양병원 입원기간은 0.2일보다 2배 길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의 요양병원 입원기간이 평균 0.9일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긴 편이고, 노인독거가구는 0.1일, 노인부부가구는 0.1일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군의 입원기간이 평균 1.5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입원기간이 평균 0.4일로 취업 노인(0.0일)보다 길며, 미취업 노인의 2주 초과 입원율은 0.5%로 취업노인(0.0%)보다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으며, 제5오분위의 요양병원 입원기간이 평균 0.5일로 가장 길고, 제1오분위 0.4일, 제2오분위 0.2일, 제3오분위와 제4오분위는 각각 0.1일이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인 군의 요양병원 입원기간이 평균 0.9일,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군의 요양병원 입원기간은 평균 0.3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입원기간이 평균 1.5일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0.1일에 비해 1.4일 길다.

〈표 6-7〉 노인의 일반특성별 요양병원 지난 1년간 입원 횟수

(단위: %, 명, 회)

특성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계 (명)	평균(회)
전체 ¹⁾	99.6	0.3	0.0	0.1	100.0 (10,097)	0.0
지역						
동부	99.5	0.4	0.0	0.1	100.0 (7,651)	0.0
읍·면부	99.9	0.1	0.0	0.0	100.0 (2,446)	0.0
성						
남자	99.7	0.2	0.0	0.1	100.0 (4,346)	0.0
여자	99.5	0.4	0.0	0.1	100.0 (5,751)	0.0
연령						
65~69세	99.8	0.1	0.0	0.0	100.0 (3,344)	0.0
70~74세	99.6	0.4	0.0	0.0	100.0 (2,342)	0.0
75~79세	99.7	0.2	0.0	0.0	100.0 (2,292)	0.0
80~84세	99.8	0.2	0.0	0.0	100.0 (1,475)	0.0
85세 이상	97.6	1.4	0.0	1.0	100.0 (644)	0.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9.7	0.2	0.0	0.0	100.0 (6,779)	0.0
배우자 없음	99.3	0.5	0.0	0.1	100.0 (3,318)	0.0
가구형태						
노인독거	99.8	0.1	0.0	0.0	100.0 (1,998)	0.0
노인부부	99.8	0.2	0.0	0.0	100.0 (5,898)	0.0
자녀동거	98.9	0.8	0.0	0.3	100.0 (2,026)	0.0
기타	100.0	0.0	0.0	0.0	100.0 (174)	0.0
교육수준						
무학	98.7	0.7	0.1	0.6	100.0 (1,073)	0.0
초등학교	99.5	0.5	0.0	0.0	100.0 (3,198)	0.0
중학교	99.9	0.1	0.0	0.0	100.0 (2,356)	0.0
고등학교	99.8	0.2	0.0	0.0	100.0 (2,870)	0.0
전문대학 이상	100.0	0.0	0.0	0.0	100.0 (599)	0.0
현취업상태						
취업중	99.9	0.0	0.0	0.0	100.0 (3,564)	0.0
미취업	99.4	0.4	0.0	0.1	100.0 (6,533)	0.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9.6	0.2	0.0	0.2	100.0 (2,019)	0.0
제2오분위	99.8	0.2	0.0	0.0	100.0 (2,020)	0.0
제3오분위	99.4	0.5	0.0	0.0	100.0 (2,017)	0.0
제4오분위	99.8	0.2	0.0	0.0	100.0 (2,024)	0.0
제5오분위	99.5	0.4	0.0	0.2	100.0 (2,017)	0.0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99.7	0.2	0.0	0.1	100.0 (3,999)	0.0
50%이상~100%미만	99.6	0.4	0.0	0.0	100.0 (3,382)	0.0
100%이상~150%미만	99.7	0.2	0.0	0.0	100.0 (1,647)	0.0
150%이상	99.2	0.5	0.0	0.3	100.0 (1,068)	0.0
기능상태						
제한 없음	99.8	0.2	0.0	0.0	100.0 (8,864)	0.0
제한 있음	98.0	1.4	0.1	0.5	100.0 (1,233)	0.0
2017년도 ²⁾	83.2	13.5	2.4	0.9	100.0 (10,073)	0.2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며, 지난 1년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의원 입원횟수를 나타낸 결과임

〈표 6-8〉 노인의 일반특성별 요양병원 지난 1년간 입원 일수

(단위: %, 명, 일)

특성	없음	1~7 일간	8~14 일간	15~30 일간	31~60 일간	61일 이상	계 (명)	평균 (일)
전체 ¹⁾	99.6	0.0	0.0	0.2	0.0	0.1	100.0 (10,097)	0.3
지역								
동부	99.5	0.0	0.0	0.3	0.0	0.1	100.0 (7,651)	0.3
읍·면부	99.9	0.0	0.1	0.1	0.0	0.0	100.0 (2,446)	0.0
성								
남자	99.7	0.0	0.0	0.1	0.0	0.2	100.0 (4,346)	0.3
여자	99.5	0.0	0.1	0.3	0.0	0.1	100.0 (5,751)	0.2
연령								
65~69세	99.8	0.1	0.0	0.1	0.0	0.0	100.0 (3,344)	0.0
70~74세	99.6	0.0	0.0	0.4	0.0	0.0	100.0 (2,342)	0.1
75~79세	99.7	0.0	0.1	0.2	0.0	0.0	100.0 (2,292)	0.1
80~84세	99.8	0.0	0.1	0.0	0.0	0.0	100.0 (1,475)	0.1
85세 이상	97.6	0.0	0.0	0.8	0.0	1.7	100.0 (644)	3.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9.7	0.0	0.0	0.2	0.0	0.1	100.0 (6,779)	0.2
배우자 없음	99.3	0.0	0.1	0.3	0.0	0.2	100.0 (3,318)	0.4
가구형태								
노인독거	99.8	0.0	0.1	0.0	0.1	0.0	100.0 (1,998)	0.1
노인부부	99.8	0.0	0.0	0.2	0.0	0.0	100.0 (5,898)	0.1
자녀동거	98.9	0.0	0.1	0.5	0.0	0.5	100.0 (2,026)	0.9
기타	100.0	0.0	0.0	0.0	0.0	0.0	100.0 (174)	0.0
교육수준								
무학	98.7	0.0	0.1	0.5	0.1	0.7	100.0 (1,073)	1.5
초등학교	99.5	0.0	0.1	0.3	0.0	0.1	100.0 (3,198)	0.2
중학교	99.9	0.0	0.0	0.1	0.0	0.0	100.0 (2,356)	0.0
고등학교	99.8	0.1	0.0	0.1	0.0	0.0	100.0 (2,870)	0.1
전문대학 이상	100.0	0.0	0.0	0.0	0.0	0.0	100.0 (599)	0.0
현취업상태								
취업중	99.9	0.0	0.0	0.0	0.0	0.0	100.0 (3,564)	0.0
미취업	99.4	0.0	0.0	0.3	0.0	0.2	100.0 (6,533)	0.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9.6	0.0	0.0	0.2	0.0	0.2	100.0 (2,019)	0.4
제2오분위	99.8	0.0	0.0	0.1	0.0	0.0	100.0 (2,020)	0.2
제3오분위	99.4	0.1	0.1	0.5	0.0	0.0	100.0 (2,017)	0.1
제4오분위	99.8	0.0	0.1	0.1	0.0	0.0	100.0 (2,024)	0.1
제5오분위	99.5	0.0	0.0	0.2	0.0	0.3	100.0 (2,017)	0.5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99.7	0.0	0.0	0.2	0.0	0.1	100.0 (3,999)	0.3
50%이상~100%미만	99.6	0.1	0.0	0.3	0.0	0.0	100.0 (3,382)	0.1
100%이상~150%미만	99.7	0.0	0.1	0.1	0.0	0.0	100.0 (1,647)	0.1
150%이상	99.2	0.0	0.0	0.2	0.0	0.6	100.0 (1,068)	0.9
기능상태								
제한 없음	99.8	0.0	0.0	0.1	0.0	0.0	100.0 (8,864)	0.1
제한 있음	98.0	0.1	0.1	1.1	0.0	0.6	100.0 (1,233)	1.5
2017년도 ²⁾	83.2	6.2	3.6	4.9	1.4	0.7	100.0 (10,073)	3.4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며, 지난 1년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의원 입원일수를 나타낸 결과임.

2) 병의원(요양병원 제외)

지난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7.1%이고, 입원횟수는 1회 4.8%, 2회 1.0%, 3회 이상 1.3%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노인(7.3%)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율이 읍·면부 노인(6.2%)보다 높고, 성별로는 여자 노인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율(7.4%)이 남자노인(6.9%)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75세~79세 연령군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율이 9.9%, 85세 이상이 9.5%, 80~84세가 9.4%, 70~74세가 6.4%, 65~69세가 4.1%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율은 6.3%인데 반해 무배우 노인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율은 8.8%로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기타 가구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율이 11.4%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 9.4%, 노인 독거가구 7.5%, 노인부부가구 6.0%순 등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인 군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율이 8.9%로 가장 높고, 이어서 초등학교 군이 8.7% 순이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율이 8.2%로 취업 노인 5.0%보다 높다. 가구소득별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율은 제5오분위가 7.8%로 가장 높고, 제2오분위 7.6%, 제1오분위 6.9%순 등이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율이 5.9%로 가장 낮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율이 19.6%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율 5.4%보다 약 4배가량 높다.

지난 1년간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는 노인의 입원기간을 살펴보면, 1~7일간이 2.5%, 15~30일간이 2.0%, 8~14일간이 1.9%, 31~60일간이 0.4%, 61일 이상이 0.3%이며, 평균 입원일수는 1.4일이다.

지역별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기간은 동부 노인이 평균 1.5일로 읍·면부 노인 1.2일보다 길다. 2주 초과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 비율은 동부노인(2.7%)이 읍·면부 노인(2.6%)보다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기간이 평균 1.3일, 여자 노인이 평균 1.5일로 여자 노인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기간이 더 긴 편이다. 연령별로는 75~79세 연령군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기간이 평균 2.4일로 가장 길고, 85세 이상 연령군의 입원기간은 2.3일이다. 대체적으로 65~74세의 전기도

인보다 75세 이상의 후기노인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기간이 긴 편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기간이 평균 1.7일로 유배우 노인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기간 1.2일보다 길다. 가구형태별로는 기타가구와 자녀동거가구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기간이 각각 평균 2.8일, 2.0일이며, 노인독거가구는 1.3일, 노인부부가구는 1.2일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군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기간이 평균 2.2일로 가장 긴 편이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기간이 평균 1.7일로 취업 노인 0.8일보다 길며, 미취업 노인의 2주 초과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율은 3.6%로 취업노인 1.3%보다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제2오분위와 제5오분위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기간이 각각 1.6일로, 제3오분위 1.5일, 제1오분위 1.2일, 제4오분위 1.0일이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인 군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기간이 평균 1.3일이며, 그 외 군은 모두 1.4일이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입원기간이 평균 4.9일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0.9일에 비해 4.0일 길다.

〈표 6-9〉 노인의 일반특성별 그 외 병원 지난 1년간 입원 횟수

(단위: %, 명, 회)

특성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계	(명)	평균(회)
전체 ¹⁾	92.9	4.8	1.0	1.3	100.0	(10,097)	0.2
지역							
동부	92.6	4.9	1.1	1.3	100.0	(7,651)	0.2
읍·면부	93.7	4.2	0.6	1.4	100.0	(2,446)	0.2
성							
남자	93.2	4.8	1.1	1.0	100.0	(4,346)	0.2
여자	92.7	4.8	1.0	1.6	100.0	(5,751)	0.2
연령							
65~69세	95.8	3.0	0.5	0.6	100.0	(3,344)	0.1
70~74세	93.6	3.9	1.3	1.2	100.0	(2,342)	0.2
75~79세	90.2	7.3	0.9	1.7	100.0	(2,292)	0.2
80~84세	90.5	5.5	1.8	2.1	100.0	(1,475)	0.3
85세 이상	90.5	6.3	1.4	1.8	100.0	(644)	0.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3.7	4.5	0.8	1.0	100.0	(6,779)	0.1
배우자 없음	91.2	5.4	1.4	2.0	100.0	(3,318)	0.3
가구형태							
노인독거	92.5	4.6	0.9	2.0	100.0	(1,998)	0.2
노인부부	94.0	4.2	0.9	0.9	100.0	(5,898)	0.1
자녀동거	90.5	5.9	1.6	1.9	100.0	(2,026)	0.3
기타	88.5	11.2	0.0	0.2	100.0	(174)	0.1
교육수준							
무학	91.1	5.9	1.6	1.4	100.0	(1,073)	0.2
초등학교	91.3	5.5	0.8	2.4	100.0	(3,198)	0.3
중학교	94.0	4.3	0.9	0.8	100.0	(2,356)	0.1
고등학교	94.7	3.9	0.9	0.4	100.0	(2,870)	0.1
전문대학 이상	91.7	4.7	1.7	1.9	100.0	(599)	0.2
현취업상태							
취업중	95.0	3.3	0.4	1.3	100.0	(3,564)	0.2
미취업	91.8	5.6	1.3	1.3	100.0	(6,533)	0.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3.1	4.4	0.9	1.6	100.0	(2,019)	0.2
제2오분위	92.4	5.0	0.7	1.9	100.0	(2,020)	0.3
제3오분위	93.3	4.8	0.7	1.2	100.0	(2,017)	0.2
제4오분위	93.5	4.9	1.2	0.4	100.0	(2,024)	0.1
제5오분위	92.2	4.9	1.6	1.3	100.0	(2,017)	0.2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92.8	4.8	0.7	1.7	100.0	(3,999)	0.2
50%이상~100%미만	92.7	5.1	1.0	1.2	100.0	(3,382)	0.2
100%이상~150%미만	92.8	5.5	1.4	0.3	100.0	(1,647)	0.1
150%이상	94.0	2.6	1.5	1.8	100.0	(1,068)	0.2
기능상태							
제한 없음	94.6	3.9	0.5	1.0	100.0	(8,864)	0.1
제한 있음	80.4	11.4	4.7	3.5	100.0	(1,233)	0.4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6-10〉 노인의 일반특성별 그 외 병원 지난 1년간 입원 일수

(단위: %, 명, 일)

특성	없음	1~7 일간	8~14 일간	15~30 일간	31~60 일간	61일 이상	계 (명)	평균 (일)
전체 ¹⁾	92.9	2.5	1.9	2.0	0.4	0.3	100.0 (10,097)	1.4
지역								
동부	92.6	2.7	1.9	1.9	0.5	0.3	100.0 (7,651)	1.5
읍·면부	93.7	2.0	1.7	2.1	0.3	0.2	100.0 (2,446)	1.2
성								
남자	93.2	2.8	1.4	2.0	0.4	0.3	100.0 (4,346)	1.3
여자	92.7	2.3	2.3	2.0	0.5	0.3	100.0 (5,751)	1.5
연령								
65~69세	95.8	2.1	0.8	0.9	0.3	0.1	100.0 (3,344)	0.6
70~74세	93.6	2.5	1.5	1.8	0.5	0.1	100.0 (2,342)	1.1
75~79세	90.2	3.4	2.7	2.7	0.2	0.8	100.0 (2,292)	2.4
80~84세	90.5	2.4	2.9	3.2	0.8	0.2	100.0 (1,475)	1.7
85세 이상	90.5	1.7	3.2	2.8	1.3	0.6	100.0 (644)	2.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3.7	2.5	1.4	1.8	0.3	0.3	100.0 (6,779)	1.2
배우자 없음	91.2	2.5	2.8	2.4	0.7	0.3	100.0 (3,318)	1.7
가구형태								
노인독거	92.5	2.6	2.2	1.9	0.5	0.2	100.0 (1,998)	1.3
노인부부	94.0	2.4	1.3	1.7	0.3	0.3	100.0 (5,898)	1.2
자녀동거	90.5	2.6	2.9	2.9	0.8	0.3	100.0 (2,026)	2.0
기타	88.5	6.0	3.8	0.6	0.0	0.9	100.0 (174)	2.8
교육수준								
무학	91.1	2.6	1.9	2.9	1.1	0.4	100.0 (1,073)	2.2
초등학교	91.3	2.4	3.0	2.3	0.4	0.5	100.0 (3,198)	1.9
중학교	94.0	2.7	1.5	1.4	0.1	0.2	100.0 (2,356)	1.0
고등학교	94.7	2.6	0.9	1.5	0.2	0.1	100.0 (2,870)	0.8
전문대학 이상	91.7	2.2	1.5	2.9	1.3	0.3	100.0 (599)	1.9
현취업상태								
취업중	95.0	1.8	2.0	0.9	0.2	0.2	100.0 (3,564)	0.8
미취업	91.8	2.9	1.8	2.6	0.6	0.4	100.0 (6,533)	1.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3.1	2.7	2.1	1.5	0.5	0.2	100.0 (2,019)	1.2
제2오분위	92.4	2.2	2.8	1.9	0.2	0.5	100.0 (2,020)	1.6
제3오분위	93.3	2.5	1.6	1.9	0.3	0.4	100.0 (2,017)	1.5
제4오분위	93.5	3.1	0.9	1.9	0.5	0.1	100.0 (2,024)	1.0
제5오분위	92.2	2.3	2.0	2.6	0.7	0.2	100.0 (2,017)	1.6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92.8	2.5	2.3	1.6	0.4	0.3	100.0 (3,999)	1.4
50%이상~100%미만	92.7	2.5	1.7	2.4	0.4	0.3	100.0 (3,382)	1.4
100%이상~150%미만	92.8	3.4	1.5	1.9	0.1	0.4	100.0 (1,647)	1.4
150%이상	94.0	1.5	1.2	2.1	1.2	0.0	100.0 (1,068)	1.3
기능상태								
제한 없음	94.6	2.3	1.5	1.1	0.2	0.2	100.0 (8,864)	0.9
제한 있음	80.4	4.3	4.4	8.1	1.9	0.9	100.0 (1,233)	4.9
2017년도 ²⁾	83.2	6.2	3.6	4.9	1.4	0.7	100.0 (10,073)	3.4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며, 지난 1년간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의원 입원일수를 나타낸 결과임.

제2절 건강행태

1. 흡연 실태

65세 이상 노인 중 11.9%가 현재 흡연하고 있으며, 88.1%는 흡연을 하지 않는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흡연율이 11.3%, 읍·면부 노인의 흡연율은 13.8%로 읍·면부 노인의 흡연율이 약간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흡연율이 24.7%로 여자 노인 2.3%에 비해 월등히 높다. 연령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65~69세 연령군의 흡연율은 14.9%, 70~74세 연령군은 14.1%, 75~79세 연령군은 10.8%, 80~84세 연령군은 6.5%, 85세 이상 연령군은 4.6%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흡연율이 14.3%로 무배우 노인의 6.9%에 비해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기타가구의 흡연율이 14.6%, 노인부부가구의 흡연율이 14.3%로 높은 편이며, 노인독거가구의 흡연율은 7.6%, 자녀동거가구는 8.8%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 군의 흡연율이 3.6%로 가장 낮고 고등학교 군의 흡연율은 16.7%로 가장 높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의 흡연율이 19.6%로 미취업 노인의 7.7%보다 높은 편이며, 가구소득별로는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흡연율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제1오분위의 흡연율이 8.6%로 가장 낮고, 제2오분위 9.2%, 제3오분위 12.2%, 제4오분위 16.1%, 제5오분위 13.4%이다. 중위소득별로 살펴보면 중위소득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흡연율이 12.1%로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흡연율 10.1%보다 높다.

〈표 6-11〉 노인의 일반특성별 흡연상태

(단위: %, 명)

특성	비흡연	현재 흡연	계 (명)
전체 ¹⁾	88.1	11.9	100.0 (10,097)
지역			
동부	88.7	11.3	100.0 (7,651)
읍·면부	86.2	13.8	100.0 (2,446)
성			
남자	75.3	24.7	100.0 (4,346)
여자	97.7	2.3	100.0 (5,751)
연령			
65~69세	85.1	14.9	100.0 (3,344)
70~74세	85.9	14.1	100.0 (2,342)
75~79세	89.2	10.8	100.0 (2,292)
80~84세	93.5	6.5	100.0 (1,475)
85세 이상	95.4	4.6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5.7	14.3	100.0 (6,779)
배우자 없음	93.1	6.9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92.4	7.6	100.0 (1,998)
노인부부	85.7	14.3	100.0 (5,898)
자녀동거	91.2	8.8	100.0 (2,026)
기타	85.4	14.6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96.4	3.6	100.0 (1,073)
초등학교	91.6	8.4	100.0 (3,198)
중학교	86.0	14.0	100.0 (2,356)
고등학교	83.3	16.7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85.7	14.3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80.4	19.6	100.0 (3,564)
미취업	92.3	7.7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1.4	8.6	100.0 (2,019)
제2오분위	90.8	9.2	100.0 (2,020)
제3오분위	87.8	12.2	100.0 (2,017)
제4오분위	83.9	16.1	100.0 (2,024)
제5오분위	86.6	13.4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0.9	9.1	100.0 (3,999)
50%이상~100%미만	87.1	12.9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85.4	14.6	100.0 (1,647)
150%이상	85.0	15.0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87.9	12.1	100.0 (8,864)
제한 있음	89.9	10.1	100.0 (1,233)
2017년도 ²⁾	89.8	10.2	100.0 (10,07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음주실태

지난 1년간 음주실태를 보면, 61.4%가 최근 1년간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고, 38.6%는 술을 마셨다고 응답하였다. 음주한 노인 중 적정음주(1주일에 7잔 이하) 노인은 32.2%이고, 과음주노인(1주일에 7잔 초과)은 6.3%이다⁸⁾.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음주율이 38.1%, 읍·면부 노인이 40.2%로 읍·면부 노인의 음주율이 더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음주율이 58.4%로 여자 노인의 음주율 23.6%에 비해 월등히 높다. 남자 노인의 과음주 비율은 12.8%로 여자 노인(1.5%)에 비해 약 8.5배가량 높다.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음주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65~69세 연령군은 50.1%, 70~74세 연령군은 43.1%, 75~79세 연령군은 32.6%, 80~84세 연령군은 25.6%, 85세 이상 연령군은 13.6%이다. 과음주율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음주율이 43.8%로 무배우 노인의 27.9%에 비해 높고, 과음주율도 유배우 노인은 7.5%로 유배우 노인 4.0%보다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기타가구의 음주율이 28.9%로 가장 낮고, 노인독거가구가 30.8%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 군의 음주율이 19.0%로 가장 낮고 고등학교 군의 음주율이 52.3%로 가장 높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의 음주율이 53.4%로 미취업 노인의 30.5%보다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고소득일수록 음주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제5오분위의 음주율이 46.2%인 반면 제1오분위의 음주율은 30.5%이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음주 비율이 40.5%로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음주율 25.0%보다 높다.

8) 적정음주는 1주일에 7잔 이하, 과음주는 1주일에 7잔 초과를 말함(김종성, 2012)

〈표 6-12〉 노인의 일반특성별 음주 정도

(단위: %, 명, 잔)

특성	비음주	음주 정도 ²⁾			계 (명)	평균
		소계	적정 음주	과음주		
전체 ¹⁾	61.4	38.6	32.2	6.3	100.0 (10,097)	1.9
지역						
동부	61.9	38.1	31.7	6.3	100.0 (7,651)	1.9
읍·면부	59.8	40.2	33.9	6.4	100.0 (2,446)	2.1
성						
남자	41.6	58.4	45.7	12.8	100.0 (4,346)	3.8
여자	76.4	23.6	22.1	1.5	100.0 (5,751)	0.6
연령						
65~69세	49.9	50.1	42.1	8.0	100.0 (3,344)	2.5
70~74세	56.9	43.1	33.8	9.2	100.0 (2,342)	2.6
75~79세	67.4	32.6	28.0	4.6	100.0 (2,292)	1.6
80~84세	74.4	25.6	22.8	2.8	100.0 (1,475)	0.8
85세 이상	86.4	13.6	12.1	1.5	100.0 (644)	0.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6.2	43.8	36.3	7.5	100.0 (6,779)	2.3
배우자 없음	72.1	27.9	23.9	4.0	100.0 (3,318)	1.2
가구형태						
노인독거	69.2	30.8	26.2	4.6	100.0 (1,998)	1.4
노인부부	56.3	43.7	36.3	7.4	100.0 (5,898)	2.2
자녀동거	67.7	32.3	27.4	4.9	100.0 (2,026)	1.5
기타	71.1	28.9	21.6	7.3	100.0 (174)	2.5
교육수준						
무학	81.0	19.0	16.7	2.3	100.0 (1,073)	0.7
초등학교	70.4	29.6	25.4	4.2	100.0 (3,198)	1.4
중학교	58.5	41.5	33.7	7.8	100.0 (2,356)	2.3
고등학교	47.7	52.3	43.5	8.8	100.0 (2,870)	2.6
전문대학 이상	55.8	44.2	37.0	7.2	100.0 (599)	2.6
현취업상태						
취업중	46.6	53.4	42.3	11.1	100.0 (3,564)	3.2
미취업	69.5	30.5	26.8	3.7	100.0 (6,533)	1.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9.5	30.5	26.7	3.9	100.0 (2,019)	1.2
제2오분위	68.3	31.7	27.5	4.2	100.0 (2,020)	1.4
제3오분위	61.0	39.0	31.4	7.6	100.0 (2,017)	2.2
제4오분위	54.5	45.5	36.8	8.7	100.0 (2,024)	2.6
제5오분위	53.8	46.2	38.9	7.3	100.0 (2,017)	2.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8.6	31.4	27.3	4.2	100.0 (3,999)	1.3
50%이상~100%미만	60.5	39.5	31.9	7.5	100.0 (3,382)	2.2
100%이상~150%미만	55.9	44.1	36.6	7.6	100.0 (1,647)	2.3
150%이상	45.9	54.1	45.2	8.9	100.0 (1,068)	2.8
기능상태						
제한 없음	59.5	40.5	33.9	6.6	100.0 (8,864)	2.0
제한 있음	75.0	25.0	20.6	4.4	100.0 (1,233)	1.3
2017년도	73.4	26.6	16.0	10.6	100.0 (10,072)	-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적정음주는 일주일에 7잔 이하의 알콜을 섭취한 경우, 과음주는 일주일에 7잔을 초과하여 섭취한 경우임.

3. 운동실천

평소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53.7%는 운동을 실천하며, 46.3%는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운동실천 노인 중 권장수준(1주일에 150분 이상)⁹⁾에 미치는 운동을 하는 경우는 37.6%이고, 16.1%는 권장수준 미달의 운동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운동실천율이 57.6%로 읍·면부 노인의 41.5%보다 더 높고, 운동실천율 권장수준도 동부 노인이 40.8%로 읍·면부 노인 27.5%보다 높다. 성별 운동실천율은 남자 노인(56.7%)이 여자 노인(51.5%) 보다 높고, 운동실천율 권장수준도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운동실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65~69세 연령군은 57.8%인데 반해 85세 이상 연령군은 35.7%로 운동실천율이 낮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운동실천율(56.6%)이 무배우 노인의 운동실천율(47.8%)보다 높고, 권장수준 운동실천율은 유배우 노인이 40.3%, 무배우 노인이 32.1%이다. 가구형태별 운동실천율은 노인부부가구가 56.1%, 기타가구가 56.2%로 높았고, 자녀동거가구 52.4%, 노인독거가구 47.9%이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일수록 운동실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며, 무학 군의 운동실천율은 38.3%인데 반해 전문대학 이상 졸업 군은 74.6%로 매우 높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의 운동실천율이 50.0%로 미취업 노인의 55.7%보다 낮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아질수록 운동실천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이 낮은수록 운동실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며 운동실천율 권장수준 역시 동일한 경향을 나타낸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운동실천율이 56.3%로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운동실천율 35.4%보다 높다.

9) 운동실천 권장수준은 일주일에 총 15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을 말함(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표 6-13〉 노인의 일반특성별 운동 정도

(단위: %, 명, 분)

특성	비실천	운동 실천 정도 ³⁾			계 (명)
		소계	권장수준 미달	권장수준	
전체 ¹⁾	46.3	53.7	16.1	37.6	100.0 (10,097)
지역					
동부	42.4	57.6	16.8	40.8	100.0 (7,651)
읍·면부	58.5	41.5	14.0	27.5	100.0 (2,446)
성					
남자	43.3	56.7	15.6	41.1	100.0 (4,346)
여자	48.5	51.5	16.5	35.0	100.0 (5,751)
연령					
65~69세	42.2	57.8	17.9	39.8	100.0 (3,344)
70~74세	41.9	58.1	16.2	41.9	100.0 (2,342)
75~79세	44.7	55.3	15.0	40.2	100.0 (2,292)
80~84세	57.0	43.0	14.4	28.6	100.0 (1,475)
85세 이상	64.3	35.7	14.0	21.6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3.4	56.6	16.3	40.3	100.0 (6,779)
배우자 없음	52.2	47.8	15.8	32.1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52.1	47.9	14.9	33.1	100.0 (1,998)
노인부부	43.9	56.1	16.2	39.9	100.0 (5,898)
자녀동거	47.6	52.4	16.8	35.6	100.0 (2,026)
기타	43.8	56.2	20.2	36.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61.7	38.3	14.2	24.1	100.0 (1,073)
초등학교	52.4	47.6	14.2	33.4	100.0 (3,198)
중학교	44.4	55.6	15.4	40.2	100.0 (2,356)
고등학교	39.6	60.4	18.3	42.2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25.4	74.6	22.4	52.1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50.0	50.0	16.3	33.7	100.0 (3,564)
미취업	44.3	55.7	16.0	39.7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6.4	43.6	15.1	28.5	100.0 (2,019)
제2오분위	47.5	52.5	13.5	39.0	100.0 (2,020)
제3오분위	44.9	55.1	16.9	38.3	100.0 (2,017)
제4오분위	46.3	53.7	16.6	37.1	100.0 (2,024)
제5오분위	36.3	63.7	18.5	45.2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1.8	48.2	14.4	33.8	100.0 (3,999)
50%이상~100%미만	46.2	53.5	16.2	37.3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41.3	58.7	16.8	41.9	100.0 (1,647)
150%이상	32.7	67.3	21.1	46.2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43.7	56.3	16.4	39.9	100.0 (8,864)
제한 있음	64.6	35.4	14.3	21.1	100.0 (1,233)
2017년도 ²⁾	32.0	68.0	19.9	48.2	100.0 (10,07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 운동실천율=권장수준 미달+권장수준, 권장수준은 1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한 경우임.

4. 영양관리

Nutrition Screening Initiative(NSI)가 개발한 ‘Determine Your Nutrition Health’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노인의 영양관리상태를 조사하였다. 영양선별도구(NSI)의 10개 항목¹⁰⁾에 문항별 가중치를 부여한 총점 21점을 기준으로 0~2점은 양호, 3~5점은 영양관리 주의, 6점 이상은 영양관리 개선으로 구분하였다.

노인 영양관리상태는 전체 노인의 72.2%는 양호한 수준이고, 19.0%는 영양관리 주의가 요구되며, 8.8%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는 비율은 동부 노인은 8.6%, 읍·면부 노인은 9.7%이다. 성별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는 비율은 여자 노인이 10.6%로 남자 노인 6.6%보다 높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영양관리 개선 요구 비율에서 65~69세 연령군은 5.4%인데 비해 85세 이상 연령군은 17.1%였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15.1%가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며, 유배우 노인은 5.8%의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었다. 무배우 노인은 유배우 노인보다 영양관리 개선 요구비율이 약 3배 정도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가 영양관리 개선 요구 비율이 17.2%로 가장 높고, 이어서 기타가구의 영양관리 개선 요구 비율이 11.1%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독거가구는 노인부부가구보다 영양관리 개선 요구 비율이 약 3배 이상 더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저학력일수록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며, 무학인 군(16.6%)은 전문대학 이상 군(3.7%)보다 약 5배 이상 영양관리 개선 요구 비율이 높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7.6%)보다 미취업 노인(9.5%)의 영양관리 개선 요구 비율이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영양관리 개선 요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위소득 대비 비율별로도 소득이 낮을수록 영양관리 개선 요구 비율이 높아져, 저소득층일수록 영양관리 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여진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23.3%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하며,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은 6.8%가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영양선별 도구에 포함되어 있는 10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질병(건강) 때문에 먹는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바꾸고 있다. (2) 하루에 채 두 끼를 못 먹는다. (3) 과일, 채소 또는 유제품(우유 등)을 거의 먹지 않는다(각각 응답). (4) 거의 매일 3잔 이상의 술을 마신다. (5) 치아가 좋지 않거나 입안이 헐어서 음식 먹기가 힘들다. (6) 돈이 부족해 필요한 음식을 구입 못할 때도 있다. (7) 거의 매번 혼자서 식사한다. (8) 하루에 세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약(처방 및 비처방)을 복용한다. (9) 지난 6개월 사이 일부러 체중을 조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5kg 이상 줄거나 늘었다. (10) 장보고, 음식 만들고, 식사하는 것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다.

〈표 6-14〉 노인의 일반특성별 영양관리 상태

(단위: %, 명, 점)

특성	양호	영양관리주의	영양관리개선	계 (명)	평균(점)
전체 ¹⁾	72.2	19.0	8.8	100.0 (10,097)	1.9
지역					
동부	72.7	18.8	8.6	100.0 (7,651)	1.9
읍·면부	70.5	19.8	9.7	100.0 (2,446)	2.1
성					
남자	75.8	17.6	6.6	100.0 (4,346)	1.7
여자	69.4	20.0	10.6	100.0 (5,751)	2.1
연령					
65~69세	80.2	14.4	5.4	100.0 (3,344)	1.5
70~74세	73.0	19.4	7.6	100.0 (2,342)	1.8
75~79세	69.4	20.8	9.8	100.0 (2,292)	2.1
80~84세	63.3	23.3	13.4	100.0 (1,475)	2.5
85세 이상	57.7	25.2	17.1	100.0 (644)	2.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7.7	16.5	5.8	100.0 (6,779)	1.6
배우자 없음	60.9	24.1	15.1	100.0 (3,318)	2.7
가구형태					
노인독거	54.6	28.1	17.2	100.0 (1,998)	3.0
노인부부	77.2	17.1	5.8	100.0 (5,898)	1.6
자녀동거	75.1	15.6	9.3	100.0 (2,026)	1.9
기타	69.4	19.5	11.1	100.0 (174)	1.9
교육수준					
무학	59.0	24.4	16.6	100.0 (1,073)	2.7
초등학교	66.8	21.5	11.7	100.0 (3,198)	2.3
중학교	73.4	18.9	7.7	100.0 (2,356)	1.9
고등학교	79.8	15.4	4.8	100.0 (2,870)	1.4
전문대학 이상	82.7	13.6	3.7	100.0 (599)	1.4
현취업상태					
취업중	75.9	16.5	7.6	100.0 (3,564)	1.8
미취업	70.1	20.4	9.5	100.0 (6,533)	2.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2.0	23.5	14.6	100.0 (2,019)	2.7
제2오분위	68.4	19.3	12.3	100.0 (2,020)	2.3
제3오분위	74.1	19.2	6.7	100.0 (2,017)	1.8
제4오분위	76.2	18.3	5.5	100.0 (2,024)	1.5
제5오분위	80.0	14.8	5.2	100.0 (2,017)	1.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6.6	20.7	12.7	100.0 (3,999)	2.4
50%이상~100%미만	73.8	19.1	7.1	100.0 (3,382)	1.7
100%이상~150%미만	75.5	18.6	5.9	100.0 (1,647)	1.5
150%이상	82.2	13.3	4.5	100.0 (1,068)	1.4
기능상태					
제한 없음	76.6	16.6	6.8	100.0 (8,864)	1.7
제한 있음	40.4	36.3	23.3	100.0 (1,233)	3.8
2017년도 ³⁾	41.3	39.3	19.5	100.0 (10,073)	3.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영양선별 도구의 10개 항목에 문항별 가중치를 부여한 총점 21점 기준으로 0~2점은 양호, 3~5점은 영양관리 주의, 6점 이상은 영양관리 개선으로 구분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5. 비만정도

노인의 비만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체질량지수(BMI)를 분석하였다. 비만지수(체질량지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발한 ‘한국인 비만지수 참조표준’에 근거하여 신장(키)과 체중(몸무게)을 활용한 $BMI = \text{체중} / (\text{신장}^2)$ 값으로 계산하였으며, 체질량지수(BMI) 18.5 미만은 저체중범위, BMI 18.5 이상~25 미만은 정상범위, BMI 25 이상은 비만범위로 분류하였다. 노인의 비만정도는 전체 노인의 2.6%가 저체중이며, 72.4%는 정상, 25.0%는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2.5%)보다 읍·면부 노인(2.8%)이 저체중인 편이고, 반대로 동부 노인(26.0%)이 읍·면부 노인(22.1%)보다 비만이다. 성별로는 여자 노인의 비만지수가 28.0%로 남자 노인의 21.1%보다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저체중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85세 이상 연령군의 저체중 비율이 8.2%로 높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저체중 비율은 3.4%로 유배우 노인의 저체중 비율 2.2%보다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와 기타가구의 저체중 비율이 각각 3.3%, 3.0%이며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의 저체중 비율 2.8%, 2.2%보다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인 군의 저체중 비율이 5.3%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군의 저체중 비율이 1.3%로 가장 낮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보다 미취업 노인의 저체중 비율이 높은 편이다.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비만도 평균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이 높을수록 비만도 평균 점수가 높아지며, 반대로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저체중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저체중 비율이 6.6%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 2.0%보다 높은 편이다.

〈표 6-15〉 노인의 일반특성별 비만도 수준

(단위: %, 명, BMI)

특성	비만지수(BMI)2			계 (명)	평균
	저체중(BMI<18.5)	정상(18.5≤BMI<25)	비만(BMI≥25)		
전체 ¹⁾	2.6	72.4	25.0	100.0 (10,092)	23.5
지역					
동부	2.5	71.5	26.0	100.0 (7,649)	23.6
읍·면부	2.8	75.1	22.1	100.0 (2,443)	23.3
성					
남자	2.6	76.4	21.1	100.0 (4,344)	23.4
여자	2.6	69.4	28.0	100.0 (5,748)	23.6
연령					
65~69세	1.2	72.3	26.5	100.0 (3,344)	23.8
70~74세	1.4	72.1	26.4	100.0 (2,340)	23.8
75~79세	3.0	71.4	25.7	100.0 (2,291)	23.5
80~84세	4.4	73.8	21.8	100.0 (1,474)	23.1
85세 이상	8.2	74.3	17.6	100.0 (643)	22.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	73.4	24.4	100.0 (6,777)	23.6
배우자 없음	3.4	70.4	26.3	100.0 (3,315)	23.4
가구형태					
노인독거	2.8	72.8	24.4	100.0 (1,996)	23.5
노인부부	2.2	73.6	24.2	100.0 (5,897)	23.6
자녀동거	3.3	69.0	27.7	100.0 (2,025)	23.5
기타	3.0	66.0	31.0	100.0 (174)	23.7
교육수준					
무학	5.3	71.8	22.8	100.0 (1,071)	23.0
초등학교	3.1	70.6	26.3	100.0 (3,196)	23.6
중학교	1.9	71.3	26.8	100.0 (2,356)	23.7
고등학교	1.3	75.1	23.6	100.0 (2,870)	23.7
전문대학 이상	3.2	74.7	22.1	100.0 (599)	23.3
현취업상태					
취업중	1.7	73.8	24.5	100.0 (3,561)	23.7
미취업	3.1	71.6	25.3	100.0 (6,531)	23.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	74.4	23.1	100.0 (2,018)	23.4
제2오분위	3.2	73.0	23.7	100.0 (2,018)	23.4
제3오분위	2.3	73.2	24.4	100.0 (2,017)	23.6
제4오분위	2.4	70.9	26.7	100.0 (2,022)	23.7
제5오분위	2.4	70.5	27.1	100.0 (2,017)	23.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0	74.1	22.9	100.0 (3,996)	23.4
50%이상~100%미만	2.3	71.9	25.8	100.0 (3,382)	23.6
100%이상~150%미만	2.9	69.4	27.7	100.0 (1,647)	23.6
150%이상	1.4	72.3	26.3	100.0 (1,068)	23.9
기능상태					
제한 없음	2.0	72.8	25.2	100.0 (8,861)	23.6
제한 있음	6.6	69.7	23.8	100.0 (1,231)	23.0
2017년도	4.0	66.4	29.5	100.0 (10,062)	

주: 1) 전체 응답자 10,097명 중 무응답자 5명을 제외한 10,0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비만지수(BMI)=체중/(신장²), 실측이 아닌 경우가 있어 해석에 유의하여야 함.

6. 경로식당 또는 식사(밑반찬) 배달 서비스 이용 경험

가. 경로식당 이용률

지난 1년간 경로식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노인의 11.4%이고, 이중 거의 매일 이용하는 노인이 1.6%, 일주일에 2~3회는 5.2%, 일주일에 1회는 2.4%, 한 달에 1~2회는 0.7%, 3개월에 1~2회는 0.4%, 1년에 1~2회는 1.1%이다.

일주일에 1회 이상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7.2%)보다 읍·면부 노인(15.4%)의 경로식당 이용률이 높고, 성별 경로식당 이용률은 남자노인 8.2%, 여자노인 9.9%이다.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후기노인의 경로식당 이용률이 65세~74세 전기노인보다 높은 편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경로식당 이용률이 7.4%, 무배우 노인의 경로식당 이용률은 12.8%로 무배우 노인의 경로식당 이용률이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로식당 이용률이 13.9%로 가장 높고, 노인부부가구가 7.8%, 자녀동거가구가 8.9%, 기타가구가 9.2%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경로식당 이용률은 무학인 군이 15.7%, 초등학교 군이 12.5%, 중학교 군이 7.9%, 고등학교 군이 5.0%, 전문대학 이상인 군이 5.5%이다. 거의 매일 이용에 대해서는 무학인 군의 이용률이 2.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군이 2.4%이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경로식당 이용률이 4.0%로 취업 노인 5.8%보다 낮다. 가구소득별로는 제1오분위의 경로식당 이용률이 13.5%로 가장 높고, 거의 매일 이용하는 비율도 제1오분위 군이 다른 군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중위소득별로 살펴보면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경로식당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8.3%)보다 없는 노인(15.8%)의 경로식당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나. 식사(밑반찬) 배달 서비스 이용률

지난 1년간 식사(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전체 노인의 3.8%이고, 이중 거의 매일 이용하는 노인이 0.8%, 일주일에 2~3회 0.9%, 일주일에 1회 1.2%, 한 달에 1회 0.3%, 3개월에 1~2회 0.3%, 1년에 1~2회 0.3%이다.

일주일에 1회 이상 식사(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은 지역별로는 동부 노

인(2.5%)보다 읍·면부 노인(4.2%)의 식사(밑반찬) 배달 서비스 이용률이 높고, 성별로는 여자노인(3.2%)이 남자노인(2.5%)보다 식사 배달 서비스 이용률이 더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식사 배달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85세 이상에서 식사 배달 서비스 이용률이 6.1%로 높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식사 배달 서비스 이용률이 4.6%로 유배우 노인의 2.1%보다 높은 편이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 식사 배달 서비스 이용률이 6.2%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인군의 식사 배달 서비스 이용률이 5.1%, 초등학교 군이 3.9%로 나타났다. 취업별로는 취업중인 노인(2.1%)보다 미취업중인 노인의 식사 배달 서비스 이용률(3.3%)이 높다. 소득구간별로는 저소득일수록,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식사 배달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9.1%,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 2.1%에 비해 식사 배달 서비스 이용률이 약 4배 이상 높다.

〈표 6-16〉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로식당(복지관 식당) 이용 정도

(단위: %, 명)

특성	전혀 이용 하지 않음	거의 매일	일주일에 2~3회	일주일에 1회	한 달에 1~2회	3개월에 1~2회	1년에 1~2회	계 (명)
전체 ¹⁾	88.5	1.6	5.2	2.4	0.7	0.4	1.1	100.0 (10,097)
지역								
동부	90.7	1.5	4.0	1.7	0.7	0.4	1.0	100.0 (7,651)
읍·면부	81.7	1.8	9.0	4.6	1.0	0.6	1.3	100.0 (2,446)
성								
남자	89.5	1.1	4.7	2.4	0.9	0.4	1.0	100.0 (4,346)
여자	87.8	1.9	5.6	2.4	0.6	0.5	1.1	100.0 (5,751)
연령								
65~69세	94.9	0.4	2.1	1.6	0.4	0.2	0.3	100.0 (3,344)
70~74세	89.5	1.3	4.4	2.4	0.9	0.2	1.4	100.0 (2,342)
75~79세	83.6	2.0	8.2	3.1	0.9	0.5	1.8	100.0 (2,292)
80~84세	82.2	3.2	8.4	3.0	0.8	1.1	1.4	100.0 (1,475)
85세 이상	84.0	3.5	6.8	3.3	1.3	0.7	0.3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0.4	0.8	4.4	2.2	0.7	0.4	1.2	100.0 (6,779)
배우자 없음	84.8	3.0	7.0	2.8	0.9	0.6	0.9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83.6	3.4	7.4	3.1	1.0	0.7	0.8	100.0 (1,998)
노인부부	89.9	0.9	4.6	2.3	0.6	0.4	1.3	100.0 (5,898)
자녀동거	89.1	1.7	5.2	2.0	0.9	0.4	0.8	100.0 (2,026)
기타	90.8	2.1	4.3	2.8	0.0	0.0	0.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83.2	2.9	10.3	2.5	0.7	0.5	0.1	100.0 (1,073)
초등학교	84.7	2.4	6.7	3.4	1.0	0.8	1.1	100.0 (3,198)
중학교	89.9	0.7	4.8	2.4	0.6	0.3	1.4	100.0 (2,356)
고등학교	92.7	0.8	2.5	1.7	0.8	0.3	1.1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93.3	1.1	3.5	0.9	0.0	0.0	1.1	100.0 (599)
현직업상태								
취업중	88.4	0.9	4.9	3.7	0.7	0.5	0.9	100.0 (3,564)
미취업	88.6	1.9	5.4	1.7	0.8	0.4	1.1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4.7	2.6	6.4	4.5	0.7	0.4	0.7	100.0 (2,019)
제2오분위	87.3	1.6	6.8	2.0	1.1	0.8	0.4	100.0 (2,020)
제3오분위	89.6	1.0	3.8	2.6	0.8	0.4	1.8	100.0 (2,017)
제4오분위	90.5	1.2	4.2	1.9	0.3	0.4	1.5	100.0 (2,024)
제5오분위	90.6	1.4	4.9	1.2	0.9	0.2	0.9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6.9	1.8	6.2	3.2	0.8	0.5	0.6	100.0 (3,999)
50%이상~100%미만	89.0	1.4	4.6	2.1	0.7	0.5	1.7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89.8	1.8	4.4	1.9	0.5	0.3	1.4	100.0 (1,647)
150%이상	91.4	0.9	5.1	1.3	1.1	0.2	0.0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89.4	1.2	4.7	2.4	0.7	0.5	1.1	100.0 (8,864)
제한 있음	82.3	3.9	9.4	2.5	1.2	0.2	0.5	100.0 (1,233)
2017년도 ²⁾	94.9	1.8	1.8	0.7	0.5	0.1	0.1	100.0 (10,07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6-17〉 노인의 일반특성별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공공) 이용 정도

(단위: %, 명)

특성	전혀 이용 하지 않음	거의 매일	일주일 에 2~3회	일주일 에 1회	한 달 에 1~2회	3개월 에 1~2회	1년에 1~2회	계 (명)
전체 ¹⁾	96.1	0.8	0.9	1.2	0.3	0.3	0.3	100.0 (10,097)
지역								
동부	96.5	0.8	0.7	1.0	0.3	0.3	0.3	100.0 (7,651)
읍·면부	94.8	0.9	1.6	1.7	0.2	0.3	0.5	100.0 (2,446)
성								
남자	96.6	0.7	0.8	1.0	0.3	0.3	0.2	100.0 (4,346)
여자	95.7	0.9	1.0	1.3	0.3	0.4	0.4	100.0 (5,751)
연령								
65~69세	98.2	0.5	0.4	0.5	0.1	0.2	0.1	100.0 (3,344)
70~74세	97.0	0.8	0.7	0.9	0.3	0.2	0.1	100.0 (2,342)
75~79세	94.9	1.1	1.2	1.5	0.4	0.4	0.6	100.0 (2,292)
80~84세	93.7	0.8	1.8	2.1	0.3	0.8	0.5	100.0 (1,475)
85세 이상	91.6	1.9	1.5	2.7	0.8	0.7	0.9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7.3	0.6	0.5	1.0	0.2	0.2	0.2	100.0 (6,779)
배우자 없음	93.7	1.3	1.7	1.6	0.5	0.6	0.6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91.6	1.6	2.1	2.5	0.6	0.7	0.9	100.0 (1,998)
노인부부	97.1	0.6	0.6	1.1	0.2	0.3	0.2	100.0 (5,898)
자녀동거	97.5	0.8	0.8	0.3	0.2	0.2	0.3	100.0 (2,026)
기타	97.2	0.0	0.0	1.9	0.9	0.0	0.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93.5	1.7	1.3	2.1	0.5	0.3	0.5	100.0 (1,073)
초등학교	94.4	0.9	1.1	1.9	0.5	0.6	0.7	100.0 (3,198)
중학교	96.9	0.5	1.2	0.6	0.3	0.4	0.1	100.0 (2,356)
고등학교	98.0	0.8	0.5	0.4	0.1	0.1	0.1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97.3	0.4	0.4	2.0	0.0	0.0	0.0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97.2	0.5	0.7	0.9	0.1	0.3	0.3	100.0 (3,564)
미취업	95.5	1.0	1.0	1.3	0.4	0.4	0.4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3.8	1.7	1.2	2.1	0.3	0.4	0.4	100.0 (2,019)
제2오분위	94.5	0.7	1.2	1.6	0.7	0.6	0.7	100.0 (2,020)
제3오분위	96.2	0.5	0.8	1.7	0.2	0.3	0.3	100.0 (2,017)
제4오분위	97.6	0.5	1.0	0.5	0.1	0.3	0.1	100.0 (2,024)
제5오분위	98.4	0.6	0.4	0.2	0.1	0.1	0.1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4.7	1.2	1.1	1.7	0.5	0.4	0.4	100.0 (3,999)
50%이상~100%미만	96.5	0.5	0.7	1.3	0.2	0.4	0.4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97.1	0.6	1.2	0.5	0.2	0.2	0.2	100.0 (1,647)
150%이상	98.5	0.6	0.3	0.2	0.2	0.0	0.2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97.0	0.8	0.6	0.7	0.2	0.3	0.3	100.0 (8,864)
제한 있음	89.4	1.2	3.0	4.9	0.7	0.5	0.3	100.0 (1,233)
2017년도 ²⁾	98.2	0.4	0.7	0.4	0.1	-	0.2	100.0 (10,07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7. 건강검진 및 병원·치과 미치료

가. 건강검진

지난 2년간 77.7%의 노인이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건강검진수진율이 78.2%로 읍·면부 노인 76.0%보다 약간 더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건강검진수진율이 79.6%로 여자 노인의 76.2%보다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70~74세의 건강검진수진율이 80.3%로 높게 나타났고, 65~69세가 79.5%, 75~79세가 78.8%, 80~84세가 72.5%, 85세 이상이 66.3%이다.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검진수진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건강검진수진율이 79.5%, 무배우 노인의 건강검진수진율이 73.9%로 유배우노인의 건강검진수진율이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건강검진수진율이 79.3%로 가장 높고, 노인독거가구의 건강검진수진율이 73.5%로 가장 낮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검진수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취업한 노인(80.9%)이 미취업한 노인(75.9%)보다 건강검진수진율이 높은 편이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검진수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제1오분위의 건강검진수진율이 68.7%로 가장 낮고, 제5오분위의 건강검진수진율은 85.0%로 가장 높다. 중위소득별로 보면,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검진 수진률이 높아지며,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이 78.1%로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 74.3%보다 건강검진수진율이 높다.

지난 2년간 치매검진율은 42.7%로 일반 건강검진수진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의 치매검진율이 47.2%로 동부 노인 41.2%보다 높다. 성별로는 여자 노인의 치매검진율이 44.0%, 남자 노인의 치매검진율이 40.9%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연령별 치매검진율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검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65~69세 연령군은 32.0%로 가장 낮고, 70~74세 연령군 42.5%, 75~79세 연령군 50.5%, 80~84세 연령군은 52.6%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치매검진율이 41.0%로 무배우 노인의 치매검진율 46.1%보다 낮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치매검진율이 45.9%로 가장 높고 노인부부가구는 41.0%로 가장 낮다.

교육수준별 치매검진율은 초등학교 군이 48.8%로 가장 높고, 고등학교 군이 35.6%

로 가장 낮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노인 41.6%보다 미취업 노인의 치매검진율이 43.3%로 높은 편이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은 제1오분위 군과 제2오분위 군의 치매검진율이 각각 45.3%, 45.0%로 높게 나타났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치매검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이며,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치매검진율이 54.0%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치매검진율 41.1%보다 높다.

나. 병원 및 치과 미치료 및 그 이유

지난 1년간 병원(치과 제외)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는지, 병원 미치료율에 대해 질문하였다. 2.5%의 노인이 지난 1년간 병원 미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의 병원 미치료율이 2.8%로 동부 노인 2.4%보다 약간 더 높다. 성별로는 여자 노인의 병원 미치료율이 2.9%로 남자 노인 2.0%보다 높은 편이며,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병원 미치료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85세 이상 노인의 병원 미치료율은 3.3%로 전체 노인 평균 2.5%보다 높은 편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병원 미치료율이 3.5%로 유배우 노인의 미치료율 2.0%보다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병원 미치료율이 4.0%로 가장 높고, 노인부부가구의 미치료율이 1.9%로 가장 낮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일수록 병원 미치료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무학인 군이 5.3%로 가장 높고, 초등학교 졸업 군이 2.9%, 중학교 졸업 군이 2.1%, 고등학교 졸업 군이 1.6%, 전문대학 이상 졸업 군이 1.2%이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노인(1.8%)보다 미취업 노인(2.9%)의 병원 미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일수록 병원 미치료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의 병원 미치료율은 각각 3.4%이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병원 미치료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병원 미치료율이 6.3%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병원 미치료율 2.0%보다 약 3배 높은 편이다.

한편 연간 치과 미치료율을 살펴보면, 3.7%의 노인이 치과 미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앞의 병원 미치료율 2.5%에 비하면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지역

별로는 동부 노인(3.5%)보다 읍·면부 노인(4.2%)의 치과 미치료율이 더 높다. 성별로는 여자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4.0%)이 남자 노인 3.2%에 비해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85세 이상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이 4.3%로 가장 높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이 5.1%로 유배우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 2.9% 보다 높은 편이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와 기타가구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이 6.0%, 5.9%로 높게 나타났고,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의 치과 미치료율은 3.0%, 3.1%이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일수록 치과 미치료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무학인 군의 치과 미치료율은 8.2%로 가장 높았고, 전문대학 이상 졸업 군 1.7%에 비해 약 7배 높은 편이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이 4.0%로 취업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 3.1%보다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치과 미치료율이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중위소득별로도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치과 미치료율이 낮아진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이 8.2%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치과 미치료율 3.1%보다 더 높은 편이다.

〈표 6-18〉 노인의 일반특성별 건강검진수진율 및 병원·치과 미치료율

(단위: %, 명)

특성	수진율 ¹⁾		(대상자수)	미치료율 ²⁾³⁾		(대상자수)
	건강검진	치매검진		병원진료	치과진료	
전체	77.7	42.7	(10,097)	2.5	3.7	(9,930)
지역						
동부	78.2	41.2	(7,651)	2.4	3.5	(7,517)
읍·면부	76.0	47.2	(2,446)	2.8	4.2	(2,413)
성						
남자	79.6	40.9	(4,346)	2.0	3.2	(4,282)
여자	76.2	44.0	(5,751)	2.9	4.0	(5,649)
연령						
65~69세	79.5	32.0	(3,344)	2.0	3.4	(3,337)
70~74세	80.3	42.5	(2,342)	2.1	3.9	(2,319)
75~79세	78.8	50.5	(2,292)	2.9	3.4	(2,262)
80~84세	72.5	52.6	(1,475)	3.2	3.9	(1,426)
85세 이상	66.3	48.1	(644)	3.3	4.3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9.5	41.0	(6,779)	2.0	2.9	(6,703)
배우자 없음	73.9	46.1	(3,318)	3.5	5.1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73.5	45.9	(1,998)	4.0	6.0	(1,985)
노인부부	79.3	41.0	(5,898)	1.9	3.0	(5,846)
자녀동거	77.2	44.3	(2,026)	2.6	3.1	(1,935)
기타	75.9	42.7	(174)	2.7	5.9	(163)
교육수준						
무학	66.4	46.7	(1,073)	5.3	8.2	(1,023)
초등학교	74.7	48.8	(3,198)	2.9	3.7	(3,134)
중학교	77.9	42.3	(2,356)	2.1	3.3	(2,323)
고등학교	82.9	35.6	(2,870)	1.6	2.7	(2,857)
전문대학 이상	88.1	37.6	(599)	1.2	1.7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80.9	41.6	(3,564)	1.8	3.1	(3,553)
미취업	75.9	43.3	(6,533)	2.9	4.0	(6,37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8.7	45.3	(2,019)	3.4	4.9	(1,986)
제2오분위	74.8	45.0	(2,020)	3.4	4.5	(1,986)
제3오분위	78.3	40.4	(2,017)	2.6	3.6	(1,991)
제4오분위	81.4	41.4	(2,024)	1.5	2.7	(1,987)
제5오분위	85.0	41.2	(2,017)	1.5	2.7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2.0	44.7	(3,999)	3.4	4.7	(3,927)
50%이상~100%미만	79.1	42.0	(3,382)	2.2	3.1	(3,330)
100%이상~150%미만	83.5	40.9	(1,647)	1.8	2.8	(1,618)
150%이상	85.0	39.9	(1,068)	1.1	2.5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78.1	41.1	(8,864)	2.0	3.1	(8,832)
제한 있음	74.3	54.0	(1,233)	6.3	8.2	(1,097)
2017년도 ⁴⁾	82.9	39.6	(10,073)	8.6	15.0	(9,930)

주: 1) 수진율은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 미치료율은 본인이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 받지 못한 비율임. 4)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지난 1년간 노인 본인이 진료가 필요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즉, 병원 미치료 경험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라는 응답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증상이 가벼워서 27.0%, 거동이 불편해서(동행할 가족 등이 없어서) 12.6%, 교통이 불편해서 5.4%, 진단 받거나 치료받는 것이 두려워서 4.8%, 병원 예약이 힘들거나 진료받기 위한 대기의 어려움 4.1%, 가사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 3.1%, 의료정보가 부족해서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병원 미치료 이유를 살펴보면, 동부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46.7%)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읍·면부 노인은 증상이 가벼움(26.9%), 거동 불편(23.9%)의 이유가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은 증상이 가벼움(34.5%)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여자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43.2%), 거동 불편(13.8%)의 응답이 더 높다. 연령별 병원 미치료 이유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거동 불편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시간이 없어서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병원 미치료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증상이 가벼워서가 17.7%, 거동불편이 15.9% 등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에서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 거동불편, 증상이 가벼움, 교통불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인 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외에 거동불편의 비율이 25.9%로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증상이 가벼움 20.4%이다. 전문대학 이상인 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외에 증상이 가벼움이 42.9%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 증상이 가벼움, 거동 불편을 병원 미치료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병원 미치료 이유로 제1오분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으로 거동 불편, 증상이 가벼움을 응답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제 5오분위에서는 증상이 가벼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순이었다. 기능상태별 병원 미치료 이유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은 증상이 가벼움(31.4%), 교통 불편(6.3%), 거동 불편(4.7%)이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증상이 가벼움(15.9%), 거동 불편(32.8%), 치료과정의 두려움(7.7%)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6-19〉 노인의 일반특성별 병의원 미치료 이유

(단위: %, 명)

특성	경제적 어려움	교통 불편	거동 불편	의료 정보 부족	병원예약 진료대기 어려움	증상이 가벼움	치료과정 두려움	시간이 없어서	계 (명)
전체 ¹⁾	41.8	5.4	12.6	1.1	4.1	27.0	4.8	3.1	100.0 (247)
지역									
동부	46.7	5.0	8.3	1.7	4.4	26.7	3.9	3.3	100.0 (180)
읍·면부	29.9	6.0	23.9	0.0	3.0	26.9	7.5	3.0	100.0 (67)
성									
남자	39.1	3.6	10.4	0.0	3.3	34.5	6.9	2.2	100.0 (85)
여자	43.2	6.4	13.8	1.7	4.5	23.1	3.7	3.6	100.0 (162)
연령									
65~69세	36.8	8.8	4.4	1.5	7.4	30.9	4.4	5.9	100.0 (68)
70~74세	38.8	2.0	12.2	0.0	4.1	32.7	2.0	8.2	100.0 (49)
75~79세	48.5	6.1	13.6	3.0	3.0	18.2	7.6	0.0	100.0 (66)
80~84세	46.7	4.4	20.0	0.0	2.2	24.4	2.2	0.0	100.0 (45)
85세 이상	36.8	0.0	15.8	0.0	0.0	36.8	10.5	0.0	100.0 (1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7.3	4.5	9.7	1.5	3.0	35.1	5.2	3.7	100.0 (134)
배우자 없음	46.9	6.2	15.9	0.9	5.3	17.7	4.4	2.7	100.0 (113)
가구형태									
노인독거	38.8	7.5	18.8	1.3	6.3	17.5	6.3	3.8	100.0 (80)
노인부부	35.4	5.3	10.6	1.8	3.5	32.7	6.2	4.4	100.0 (113)
자녀동거	60.0	4.0	8.0	0.0	2.0	26.0	0.0	0.0	100.0 (50)
기타	50.0	0.0	0.0	0.0	0.0	50.0	0.0	0.0	100.0 (4)
교육수준									
무학	44.4	3.7	25.9	0.0	0.0	20.4	5.6	0.0	100.0 (54)
초등학교	48.9	7.8	10.0	0.0	4.4	21.1	4.4	3.3	100.0 (90)
중학교	36.0	2.0	12.0	4.0	6.0	28.0	4.0	8.0	100.0 (50)
고등학교	26.7	6.7	4.4	2.2	8.9	42.2	6.7	2.2	100.0 (45)
전문대학 이상	57.1	0.0	0.0	0.0	0.0	42.9	0.0	0.0	100.0 (7)
현취업상태									
취업중	32.8	10.9	3.1	1.6	9.4	21.9	7.8	12.5	100.0 (64)
미취업	44.6	3.8	16.3	1.1	2.2	28.3	3.8	0.0	100.0 (18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2.2	4.3	21.7	0.0	5.8	10.1	5.8	0.0	100.0 (69)
제2오분위	44.1	5.9	13.2	2.9	2.9	25.0	2.9	2.9	100.0 (68)
제3오분위	42.3	1.9	5.8	1.9	0.0	36.5	9.6	1.9	100.0 (52)
제4오분위	20.0	10.0	10.0	0.0	6.7	40.0	0.0	13.3	100.0 (30)
제5오분위	32.1	10.7	7.1	0.0	10.7	39.3	0.0	0.0	100.0 (2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8.5	3.7	16.4	1.5	3.0	20.1	5.2	1.5	100.0 (134)
50%이상~100%미만	40.8	2.8	8.5	0.0	4.2	33.8	7.0	2.8	100.0 (71)
100%이상~150%미만	20.0	10.0	10.0	3.3	10.0	33.3	0.0	13.3	100.0 (30)
150%이상	33.3	25.0	0.0	0.0	0.0	41.7	0.0	0.0	100.0 (12)
기능상태									
제한 없음	43.5	6.3	4.7	1.5	4.5	31.4	3.7	4.3	100.0 (177)
제한 있음	37.5	3.2	32.8	0.0	3.0	15.9	7.7	0.0	100.0 (69)
2017년도 ²⁾	50.1	4.2	11.7	1.8	1.9	17.6	7.3	5.1	100.0 (871) ³⁾

주: 1) 전체 응답자 10,097명 중 병의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2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본인응답자 중 병의원 미치료 경험 있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 기타항목이 포함됨

치과 미치료 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57.5%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증상이 가벼움 19.4%, 치료과정의 두려움 10.8%, 시간이 없어서 3.5% 등의 순이다.

지역별 치과 미치료 이유를 살펴보면, 읍·면부 노인은 동부노인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 교통불편, 거동불편, 치료과정의 두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고, 동부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의료정보 부족, 병원예약 진료대기의 어려움,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은 여자 노인에 비해 교통불편, 거동불편, 증상이 가벼움을 이유로 치과를 미치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65.1%) 외에 증상이 가벼움(19.1%), 치료과정의 두려움(12.0%), 거동불편(3.8%)을 이유로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치과 미치료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67.1%, 증상이 가벼움 12.9%, 치료과정의 두려움 9.0%로 응답하였고, 유배우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 증상이 가벼움, 치료과정의 두려움, 시간이 없어서 순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구형태별 치과 미진료 이유로 노인독거가구는 거동불편(4.9%)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노인부부가구는 병원예약 진료대기의 어려움, 증상이 가벼움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교육수준별 치과 미치료 이유는 무학인 군은 경제적 어려움, 거동불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문대학 이상 졸업 군은 증상의 가벼움, 치료과정의 두려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별 치과진료 미치료 이유로는 미취업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 거동불편의 이유가 취업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대체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이유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중위소득별 치과진료 미치료 이유를 살펴보면,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군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70.9%, 증상이 가벼움 14.0%, 치료과정의 두려움 8.2% 등으로 응답하였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 증상이 가벼움, 거동 불편, 치료과정의 두려움을 응답한 비율이 높다.

〈표 6-20〉 노인의 일반특성별 치과 미치료 이유

(단위: %, 명)

특성	경제적 어려움	교통 불편	거동 불편	의료 정보 부족	병원예약 진료대기 어려움	증상이 가벼움	치료과정 두려움	시간이 없어서	계	(명)
전체 ¹⁾	57.5	1.8	3.3	0.6	3.1	19.4	10.8	3.5	100.0	(363)
지역										
동부	55.1	0.3	2.7	0.9	4.0	21.9	10.6	4.7	100.0	(261)
읍·면부	63.5	5.8	5.1	0.0	0.8	12.9	11.4	0.4	100.0	(102)
성										
남자	53.7	2.2	4.7	1.2	2.7	23.6	8.5	3.4	100.0	(137)
여자	59.7	1.6	2.5	0.3	3.4	16.9	12.2	3.5	100.0	(226)
연령										
65~69세	45.7	2.5	1.0	0.0	6.6	22.8	15.5	5.9	100.0	(114)
70~74세	49.9	1.8	2.9	2.5	4.0	24.0	10.2	4.7	100.0	(91)
75~79세	59.0	2.7	6.6	0.0	0.0	18.6	11.0	2.0	100.0	(77)
80~84세	88.1	0.0	4.3	0.0	0.0	6.3	1.4	0.0	100.0	(56)
85세 이상	65.1	0.0	3.8	0.0	0.0	19.1	12.0	0.0	100.0	(2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9.4	1.9	2.8	0.8	3.5	24.9	12.3	4.4	100.0	(198)
배우자 없음	67.1	1.7	4.0	0.4	2.6	12.9	9.0	2.4	100.0	(165)
가구형태										
노인독거	67.6	2.3	4.9	0.6	2.9	13.4	7.6	0.7	100.0	(119)
노인부부	46.5	1.8	3.2	0.9	4.0	25.2	13.4	5.0	100.0	(174)
자녀동거	71.4	1.0	0.6	0.0	1.4	17.7	5.3	2.6	100.0	(60)
기타	42.6	0.0	3.9	0.0	0.0	0.0	37.3	16.2	100.0	(10)
교육수준										
무학	72.8	2.7	5.5	0.0	0.0	10.5	8.6	0.0	100.0	(84)
초등학교	63.6	1.2	3.0	0.6	0.0	20.9	9.2	1.7	100.0	(115)
중학교	65.1	0.8	3.1	0.0	2.0	18.4	7.4	3.1	100.0	(76)
고등학교	29.4	2.9	1.8	2.0	12.5	26.2	14.6	10.6	100.0	(78)
전문대학 이상	19.7	0.0	3.9	0.0	0.0	32.1	44.3	0.0	100.0	(10)
현취업상태										
취업중	49.3	1.3	0.0	0.0	8.0	20.5	10.9	10.0	100.0	(109)
미취업	61.0	2.0	4.8	0.9	1.0	18.9	10.8	0.6	100.0	(25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7.5	0.7	4.4	0.7	0.7	5.8	10.2	0.0	100.0	(96)
제2오분위	57.7	1.5	5.1	1.8	1.7	22.7	7.8	1.8	100.0	(89)
제3오분위	63.1	0.9	3.6	0.0	1.9	25.1	5.3	0.0	100.0	(72)
제4오분위	42.6	7.2	0.7	0.0	2.9	29.1	11.4	6.0	100.0	(53)
제5오분위	27.7	0.0	0.7	0.0	11.7	21.3	23.9	14.8	100.0	(5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0.9	0.4	4.2	1.2	0.4	14.0	8.2	0.8	100.0	(186)
50%이상~100%미만	54.2	4.1	3.8	0.0	2.7	26.3	7.3	1.5	100.0	(104)
100%이상~150%미만	31.3	3.5	0.8	0.0	13.0	21.6	25.6	4.2	100.0	(46)
150%이상	22.0	0.0	0.0	0.0	6.6	26.6	17.0	27.7	100.0	(27)
기능상태										
제한 없음	58.0	2.1	0.7	0.8	4.1	20.7	11.1	2.5	100.0	(273)
제한 있음	55.9	0.8	11.4	0.0	0.0	15.6	9.9	6.4	100.0	(90)
2017년도 ²⁾	72.0	0.7	3.5	0.5	1.2	6.9	12.3	2.4	100.0	(1,508) ³⁾

주: 1) 전체 응답자 10,097명 중 치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3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본인응답자 중 치과 미치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 기타항목이 포함된 값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7장

노인의 기능상태와 영양보호

제1절 신체 및 인지 기능상태

제2절 영양보호 실태

제 7 장 노인의 기능상태와 요양보호

본 장에서는 노인의 기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감각기능과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을 측정한다. 또 기능 상태에 따른 간병돌봄 등의 도움 실태와 각 자원을 분석한다. 노인의 기능 상태에 따라 어떤 도움이 제공되고 있는지, 도움 빈도와 도움주체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1절 신체 및 인지 기능상태

1. 시력, 청력과 씹기 능력

전체 노인 중 시력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54.0%이며, 이는 2017년도(61.4%)에 비해 감소한 추세를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 54.2%, 읍·면부 53.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성별로는 남성 노인의 시력 보조기 사용률이 56.5%로 여성 노인의 사용률인 52.2%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시력 보조기 사용률을 살펴보면, 65~69세 노인의 사용률은 49.1%로 타 연령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80~84세 노인이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시력 보조기 사용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 형태에서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의 시력 보조기 사용률이 54.9%, 55.4%로 나타나 자녀동거가구(50.1%)와 기타가구(44.7%)에 비해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시력 보조기 사용률은 무학인 군이 49.8%로 가장 낮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군은 59.2%로 가장 높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보다 미취업 노인의 시력 보조기 사용률이 약간 높다. 가구소득별 시력 보조기 사용률을 살펴보면, 제5오분위가 56.5%, 제1오분위가 55.9%로 시력 보조기 사용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인 군에서 시력 보조기 사용률(60.7%)이 가장 높다. 기능상태에 대해서는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59.8%)의 시력보조기 사용률이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53.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력으로 인해 느끼는 일상생활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65.0%의 노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하였으며, 32.2%는 불편한 편, 2.8%는 매우 불편하다고 답하였다. 즉, 전체 노인의 35.0%는 시력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남성에 비해 여성 노인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무배우 노인, 노인독거가구, 저학력 노인, 미취업 노인, 중위소득이 낮은 노인,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 군에서 시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1〉 노인의 일반특성별 시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단위: %, 명)

특성	보조기 사용여부 ¹⁾		일상생활 불편함 ²⁾			
	사용률	계 (명)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편이다	매우 불편하다	계 (명)
전체	54.0	100.0 (10,097)	65.0	32.2	2.8	100.0 (9,930)
지역						
동부	54.2	100.0 (7,651)	64.9	32.1	3.0	100.0 (7,518)
읍·면부	53.4	100.0 (2,446)	65.6	32.4	2.1	100.0 (2,413)
성						
남자	56.5	100.0 (4,346)	67.7	30.0	2.4	100.0 (4,281)
여자	52.2	100.0 (5,751)	63.0	33.9	3.1	100.0 (5,649)
연령						
65~69세	49.1	100.0 (3,344)	71.4	26.9	1.7	100.0 (3,337)
70~74세	56.9	100.0 (2,342)	68.3	29.0	2.7	100.0 (2,319)
75~79세	54.7	100.0 (2,292)	63.6	33.2	3.2	100.0 (2,262)
80~84세	59.3	100.0 (1,475)	55.3	41.6	3.1	100.0 (1,426)
85세 이상	54.8	100.0 (644)	44.8	47.8	7.4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4.2	100.0 (6,779)	68.0	29.9	2.1	100.0 (6,704)
배우자 없음	53.6	100.0 (3,318)	58.8	36.8	4.3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54.9	100.0 (1,998)	60.9	36.0	3.2	100.0 (1,985)
노인부부	55.4	100.0 (5,898)	67.9	30.0	2.1	100.0 (5,847)
자녀동거	50.1	100.0 (2,026)	60.5	35.2	4.3	100.0 (1,935)
기타	44.7	100.0 (174)	67.1	29.1	3.8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49.8	100.0 (1,073)	46.2	49.1	4.7	100.0 (1,023)
초등학교	54.7	100.0 (3,198)	60.9	35.5	3.6	100.0 (3,134)
중학교	52.6	100.0 (2,356)	69.1	29.3	1.6	100.0 (2,323)
고등학교	55.0	100.0 (2,870)	70.7	26.9	2.3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59.2	100.0 (599)	76.4	21.7	1.8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52.0	100.0 (3,564)	70.3	28.3	1.5	100.0 (3,554)
미취업	55.1	100.0 (6,533)	62.1	34.3	3.5	100.0 (6,377)
연가소득						
제1오분위	55.9	100.0 (2,019)	61.4	35.3	3.3	100.0 (1,986)
제2오분위	54.6	100.0 (2,020)	65.3	32.3	2.4	100.0 (1,987)
제3오분위	51.5	100.0 (2,017)	65.1	32.7	2.2	100.0 (1,991)
제4오분위	51.7	100.0 (2,024)	67.6	30.6	1.7	100.0 (1,987)
제5오분위	56.5	100.0 (2,017)	65.7	29.9	4.4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4.9	100.0 (3,999)	63.2	34.0	2.7	100.0 (3,927)
50%이상~100%미만	51.7	100.0 (3,382)	65.6	32.3	2.0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52.4	100.0 (1,647)	66.3	30.8	2.9	100.0 (1,618)
150%이상	60.7	100.0 (1,068)	67.9	26.8	5.4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없음	53.2	100.0 (8,864)	68.5	29.8	1.7	100.0 (8,832)
제한있음	59.8	100.0 (1,233)	37.0	51.3	11.7	100.0 (1,098)
2017년도	61.4	100.0 (10,299)	66.2	31.0	2.9	100.0 (10,07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청력 저하와 그로 인한 불편함의 정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청력 보조기 사용 여부와 청력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11.2%의 노인이 청력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2017년도 청력 보조기 사용률 4.8%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성별 청력 보조기 사용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력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무배우 노인의 청력 보조기 사용률이 14.2%로 유배우 노인 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청력 보조기 사용률이 1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동거가구, 노인부부가구, 기타가구 순으로 높았다. 또한, 비교적 학력수준이 높은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 집단에서는 각각 5.7%, 6.0%로 청력 보조기 사용률이 낮고, 나머지 집단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청력 보조기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인 노인의 청력 보조기 사용률이 12.2%로 취업 노인보다 높았고, 가구소득과 중위소득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일수록 청력 보조기 사용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의 청력 보조기 사용률이 9.2%인 반면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25.5%로 약 2배 이상 청력 보조기 사용률이 높다.

청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노인 중 75.4%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며, 22.1%는 불편한 편, 2.6%는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2017년도 결과에 비해 노인이 청력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청력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에 큰 차이가 없고,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청력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청력으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배우자가 없거나 노인독거 가구인 경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청력저하로 인한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태와 관련해서는 미취업 노인, 소득이 낮은 군(가구소득에서 제1오분위에 속하는 경우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낮은 가구)에서 청력저하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불편하다 44.6%, 매우 불편 11.2%로 응답하여,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7-2〉 노인의 일반특성별 청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단위: %, 명)

특성	보조기 사용여부 ¹⁾			일상생활 불편 ²⁾		
	사용률	계	(명)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편이다	매우 불편하다
전체	11.2	100.0	(10,097)	75.4	22.1	2.6
지역						
동부	11.1	100.0	(7,651)	75.3	21.9	2.8
읍·면부	11.5	100.0	(2,446)	75.5	22.4	2.1
성						
남자	10.9	100.0	(4,346)	76.6	21.0	2.4
여자	11.4	100.0	(5,751)	74.4	22.9	2.7
연령						
65~69세	5.7	100.0	(3,344)	86.7	12.5	0.7
70~74세	8.1	100.0	(2,342)	79.4	18.6	2.0
75~79세	13.2	100.0	(2,292)	73.2	24.6	2.2
80~84세	17.9	100.0	(1,475)	58.5	36.7	4.8
85세 이상	27.9	100.0	(644)	43.8	44.4	11.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7	100.0	(6,779)	78.2	19.9	1.9
배우자 없음	14.2	100.0	(3,318)	69.5	26.4	4.1
가구형태						
노인독거	14.3	100.0	(1,998)	70.6	25.8	3.6
노인부부	9.7	100.0	(5,898)	77.7	20.4	1.9
자녀동거	12.8	100.0	(2,026)	73.2	23.4	3.5
기타	8.5	100.0	(174)	76.7	19.0	4.3
교육수준						
무학	16.7	100.0	(1,073)	55.8	38.4	5.9
초등학교	15.2	100.0	(3,198)	70.3	26.1	3.7
중학교	11.2	100.0	(2,356)	78.3	20.3	1.4
고등학교	5.7	100.0	(2,870)	83.8	14.8	1.4
전문대학 이상	6.0	100.0	(599)	83.4	14.7	1.9
현취업상태						
취업중	9.3	100.0	(3,564)	82.2	17.0	0.8
미취업	12.2	100.0	(6,533)	71.6	24.9	3.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9	100.0	(2,019)	70.5	26.4	3.1
제2오분위	13.0	100.0	(2,020)	71.6	24.9	3.5
제3오분위	9.9	100.0	(2,017)	77.2	20.7	2.2
제4오분위	9.4	100.0	(2,024)	79.5	19.1	1.4
제5오분위	7.7	100.0	(2,017)	77.9	19.2	2.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4.4	100.0	(3,999)	70.8	25.8	3.4
50%이상~100%미만	9.9	100.0	(3,382)	77.3	20.8	1.9
100%이상~150%미만	8.2	100.0	(1,647)	81.0	17.3	1.7
150%이상	7.6	100.0	(1,068)	77.4	19.3	3.3
기능상태						
제한없음	9.2	100.0	(8,864)	79.2	19.3	1.5
제한있음	25.5	100.0	(1,233)	44.2	44.6	11.2
2017년도	4.8	100.0	(10,299)	82.1	16.0	1.8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씹는 능력(저작능력)의 보조기 사용률은 36.9%이며, 2017년도의 사용률(46.0%)에 비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치과 치료에서 임플란트를 통한 치료가 확대되었으나, 씹는 능력을 위한 보조기는 임플란트는 제외되고 틀니로 제한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제 특성을 살펴보면, 동부 노인보다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 고연령 노인 군에서 씹기 능력 보조기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은 44.9%로 유배우 노인(33.0%)에 비해 높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와 자녀동거 가구가 각각 43.8%, 42.2%로 다른 가구 형태에 비해 보조기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와 관련해서 미취업인 노인의 경우 사용률이 41.0%로 취업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보다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가 각각 39.9%, 43.7%로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해 씹는 능력 보조기 사용률이 높았으며, 중위소득별 집단에서도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조기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은 59.3%이며, 이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보조기 사용률 33.8%보다 높다.

씹는 능력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7년도 대비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2017년, 불편한 편이다+매우불편하다, 46.2%)가 매우 감소했으며, 전체 노인 중 60.5%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며, 불편한 편이다는 34.8%, 매우 불편하다는 4.7%로 나타났다(2020년, 불편한 편이다+매우 불편하다, 39.5%). 지역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여성 노인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무배우 노인인 경우, 노인독거가구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미취업 노인, 소득수준이 낮은 군일수록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에 제한이 없는 노인의 35.4%가 씹기 능력에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7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7-3〉 노인의 일반특성별 씹기 능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단위: %, 명)

특성	보조기 사용여부 ¹⁾		일상생활 불편함 ²⁾			
	사용률	계 (명)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편이다	매우 불편하다	계(명)
전체	36.9	100.0 (10,097)	60.5	34.8	4.7	100.0 (9,930)
지역						
동부	36.1	100.0 (7,651)	60.9	34.8	4.4	100.0 (7,518)
읍·면부	39.4	100.0 (2,446)	59.3	35.0	5.7	100.0 (2,413)
성						
남자	34.0	100.0 (4,346)	63.7	33.0	3.3	100.0 (4,281)
여자	39.1	100.0 (5,751)	58.1	36.2	5.7	100.0 (5,649)
연령						
65~69세	22.4	100.0 (3,344)	72.0	25.5	2.4	100.0 (3,337)
70~74세	32.3	100.0 (2,342)	63.9	31.8	4.3	100.0 (2,319)
75~79세	43.4	100.0 (2,292)	57.4	37.7	4.8	100.0 (2,262)
80~84세	54.6	100.0 (1,475)	44.6	48.5	6.8	100.0 (1,426)
85세 이상	64.8	100.0 (644)	31.8	55.0	13.1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3.0	100.0 (6,779)	64.5	32.1	3.4	100.0 (6,704)
배우자 없음	44.9	100.0 (3,318)	52.1	40.5	7.4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43.8	100.0 (1,998)	54.1	38.9	7.0	100.0 (1,985)
노인부부	33.1	100.0 (5,898)	63.8	32.6	3.6	100.0 (5,847)
자녀동거	42.2	100.0 (2,026)	57.2	37.1	5.7	100.0 (1,935)
기타	22.0	100.0 (174)	58.8	37.9	3.3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59.3	100.0 (1,073)	36.1	51.8	12.1	100.0 (1,023)
초등학교	44.4	100.0 (3,198)	54.7	39.7	5.6	100.0 (3,134)
중학교	34.0	100.0 (2,356)	61.8	34.6	3.6	100.0 (2,323)
고등학교	25.0	100.0 (2,870)	71.1	26.4	2.5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5.0	100.0 (599)	76.6	21.6	1.7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29.3	100.0 (3,564)	67.2	29.8	3.0	100.0 (3,554)
미취업	41.0	100.0 (6,533)	56.8	37.6	5.6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9.9	100.0 (2,019)	57.5	36.5	6.0	100.0 (1,986)
제2오분위	43.7	100.0 (2,020)	55.7	38.2	6.1	100.0 (1,987)
제3오분위	36.2	100.0 (2,017)	61.1	34.8	4.1	100.0 (1,991)
제4오분위	33.0	100.0 (2,024)	63.7	33.2	3.1	100.0 (1,987)
제5오분위	31.7	100.0 (2,017)	64.5	31.4	4.1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1.6	100.0 (3,999)	56.6	37.2	6.1	100.0 (3,927)
50%이상~100%미만	36.6	100.0 (3,382)	61.4	35.1	3.5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34.5	100.0 (1,647)	63.4	33.1	3.5	100.0 (1,618)
150%이상	24.1	100.0 (1,068)	67.7	27.4	4.9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없음	33.8	100.0 (8,864)	64.6	32.1	3.3	100.0 (8,832)
제한있음	59.3	100.0 (1,233)	27.1	56.8	16.0	100.0 (1,098)
2017년도	46.0	100.0(10,299)	53.8	38.1	8.1	100.0(10,07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근력

하지 근력상태는 응답자가 의자나 침대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5회 반복하는 것을 직접 수행하는 방법을 통해 파악했다. 조사 결과, 노인의 77.9%는 무리 없이 수행했으며, 18.8%는 시·도는 했으나 수행하지 못하고, 3.3%는 수행 시·도조차 못하는 상태로 나타났다.

하지 근력상태를 살펴보면, 읍·면부 노인보다는 동부 노인이, 여성 노인 보다 남성 노인에서 무리 없이 수행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시·도했으나 수행하지 못한 비율과 수행 시·도조차 못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하지 근력상태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행 시·도조차 못한 상태인 비율에 대해 80~84세가 5.3%인 것에 반해 85세 이상인 경우 12.0%인 것을 미루어 보아 85세 이후 급격한 하지 근력의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배우 노인보다 무배우 노인에서, 다른 가구 군보다 노인독거가구 군에서 하지근력 검사를 수행한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 무배우 노인, 노인독거가구의 하지 근력 상태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중인 노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중위소득 수준이 높은 군일수록, 하지 근력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 보면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수행한 비율이 83.1%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는 그 절반인 수준으로 40.6%만 수행했으며, 수행 시·도조차 못한 상태는 1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7-4〉 노인의 일반특성별 하지 근력상태

(단위: %, 명)

특성	수행함	시·도했으나 수행 못함	수행 시·도조차 못하는 상태	계 (명)
전체 ¹⁾	77.9	18.8	3.3	100.0 (10,097)
지역				
동부	79.7	17.1	3.2	100.0 (7,651)
읍·면부	72.3	24.1	3.6	100.0 (2,446)
성				
남자	83.5	13.7	2.8	100.0 (4,346)
여자	73.7	22.6	3.6	100.0 (5,751)
연령				
65~69세	98.0	0.2	1.9	100.0 (3,344)
70~74세	79.8	18.1	2.0	100.0 (2,342)
75~79세	70.8	26.2	2.9	100.0 (2,292)
80~84세	57.0	37.7	5.3	100.0 (1,475)
85세 이상	40.0	48.1	12.0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2.9	14.5	2.6	100.0 (6,779)
배우자 없음	67.7	27.6	4.7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69.7	26.7	3.6	100.0 (1,998)
노인부부	82.1	15.3	2.6	100.0 (5,898)
자녀동거	73.9	21.4	4.7	100.0 (2,026)
기타	76.1	17.9	6.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50.9	41.9	7.2	100.0 (1,073)
초등학교	70.4	25.0	4.5	100.0 (3,198)
중학교	79.9	17.5	2.6	100.0 (2,356)
고등학교	92.2	6.6	1.3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90.5	7.8	1.7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89.9	9.2	0.9	100.0 (3,564)
미취업	71.4	24.0	4.6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8.8	27.3	3.9	100.0 (2,019)
제2오분위	71.6	24.6	3.8	100.0 (2,020)
제3오분위	79.6	17.0	3.4	100.0 (2,017)
제4오분위	83.6	13.5	2.8	100.0 (2,024)
제5오분위	85.9	11.6	2.5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0.4	25.5	4.1	100.0 (3,999)
50%이상~100%미만	79.6	17.3	3.0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85.6	12.0	2.5	100.0 (1,647)
150%이상	88.8	8.9	2.3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없음	83.1	15.9	1.0	100.0 (8,864)
제한있음	40.6	39.9	19.5	100.0 (1,233)
2017년도 ²⁾	78.6	19.7	1.8	100.0 (10,29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신체의 전반적인 근력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동장 한 바퀴 뛰기, 운동장 한 바퀴 걷기, 쉬지 않고 계단 10개 오르기, 몸 구부리기·쭈그려 앉기·무릎 꿇기, 머리 위 높은 곳 손 뻗쳐서 닿기, 쌀 1말(8kg) 정도의 물건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총 6개 항목의 수행가능 능력에 대해 질문했다. 각 항목을 4점 척도로 파악하였으며, 전혀 어렵지 않다(1), 약간 어렵다(2), 매우 어렵다(3), 전혀 할 수 없다(4)로 파악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항목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운동장 한 바퀴 뛰기 2.7점, 운동장 한 바퀴 걷기 1.8점, 쉬지 않고 계단 오르기 1.9점, 몸 구부리기·쭈그려 앉기·무릎 꿇기 1.8점, 머리 위 높은 곳 손 뻗쳐서 닿기 1.6점, 쌀 1말 정도의 물건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1.9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에 비해 전체적인 근력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근력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전반적인 근력활동의 평균점수가 2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화로 인해 전반적인 근력상태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에서도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근력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인 경우 모든 항목에서 근력상태 점수가 2점을 상회하였다. 기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기능에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신체 근력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지표에서 평균 점수가 2점을 상회하는 등 전반적인 근력상태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5〉 노인의 일반특성별 신체 근력상태(평균점수)¹⁾

(단위: 점)

특성	운동장 한바퀴 뛰기(400m)	운동장 한바퀴 걷기(400m)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몸 구부리기 쭈그려 앉기 무릎 꿇기	머리 위 높은 곳 손 뻗쳐서 달기	쌀 1말(8kg) 정도의 물건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전체 ¹⁾	2.7	1.8	1.9	1.8	1.6	1.9
지역						
동부	2.7	1.7	1.8	1.8	1.6	1.9
읍·면부	2.9	1.9	2.0	1.9	1.6	2.0
성						
남자	2.5	1.6	1.7	1.6	1.4	1.7
여자	2.9	1.9	2.0	1.9	1.7	2.1
연령						
65~69세	2.3	1.4	1.5	1.5	1.4	1.6
70~74세	2.6	1.7	1.8	1.7	1.5	1.8
75~79세	2.9	1.8	2.0	1.9	1.6	2.0
80~84세	3.2	2.1	2.3	2.1	1.8	2.3
85세 이상	3.4	2.5	2.7	2.5	2.2	2.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6	1.6	1.8	1.7	1.5	1.8
배우자 없음	3.0	2.0	2.1	2.0	1.8	2.2
가구형태						
노인독거	2.9	1.9	2.1	2.0	1.8	2.1
노인부부	2.6	1.7	1.8	1.7	1.5	1.8
자녀동거	2.9	1.9	2.0	1.9	1.7	2.0
기타	3.0	1.7	1.9	1.8	1.6	1.9
교육수준						
무학	3.3	2.3	2.5	2.3	2.0	2.4
초등학교	3.0	1.9	2.0	1.9	1.7	2.1
중학교	2.7	1.7	1.8	1.7	1.5	1.9
고등학교	2.4	1.5	1.6	1.5	1.4	1.7
전문대학 이상	2.2	1.4	1.5	1.4	1.3	1.5
현취업상태						
취업중	2.4	1.5	1.6	1.6	1.4	1.6
미취업	2.9	1.9	2.0	1.9	1.7	2.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0	2.0	2.1	1.9	1.7	2.1
제2오분위	3.0	1.9	2.1	1.9	1.7	2.0
제3오분위	2.7	1.7	1.9	1.7	1.6	1.9
제4오분위	2.5	1.6	1.7	1.6	1.4	1.7
제5오분위	2.5	1.6	1.7	1.7	1.5	1.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0	2.0	2.0	1.9	1.7	2.1
50%이상~100%미만	2.7	1.7	1.8	1.8	1.5	1.9
100%이상~150%미만	2.5	1.5	1.7	1.6	1.4	1.8
150%이상	2.3	1.5	1.6	1.6	1.5	1.8
기능상태						
제한없음	2.6	1.6	1.7	1.7	1.5	1.8
제한있음	3.4	2.6	2.8	2.6	2.3	2.7
2017년도 ²⁾	2.6	1.4	1.7	1.6	1.2	1.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평균점수는 전혀 어렵지 않다=1, 약간 어렵다=2, 매우 어렵다=3, 전혀 할 수 없다=4로 계산함.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은 옷 입기, 세수·양치질·머리감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차려 놓은 음식 먹기,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노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항목 7개로 구성되어 있다. 7개 항목은 완전 자립(1), 부분 도움(2), 완전 도움(3)의 3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별 완전자립의 비율은 옷 입기 97.0%, 세수·양치질·머리감기 96.9%, 목욕 또는 샤워하기 95.0%, 차려 놓은 음식 먹기 97.8%,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97.4%,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97.8%, 대소변 조절하기 98.1%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수행능력 7개 항목의 완전자립률이 90% 후반대로 대부분 높게 나타났으며, 2017년의 완전자립률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다. 완전자립률이 가장 높은 항목은 대소변조절하기 98.1%, 완전자립률이 가장 낮은 항목은 목욕 또는 샤워하기 95.0%이다.

〈표 7-6〉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분포

(단위: %, 명)

특성	완전자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계(명) ¹⁾	2017년 완전자립률
옷 입기 (옷 꺼내기, 단추·지퍼, 벨트)	97.0	2.4	0.6	100.0(10,097)	96.8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96.9	2.4	0.6	100.0(10,097)	96.9
목욕 또는 샤워하기 (욕조 드나들기, 때밀기, 샤워)	95.0	3.7	1.3	100.0(10,097)	93.1
차려 놓은 음식 먹기	97.8	1.9	0.4	100.0(10,097)	98.5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97.4	2.1	0.5	100.0(10,097)	98.8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97.8	1.8	0.5	100.0(10,097)	98.0
대소변 조절하기	98.1	1.3	0.7	100.0(10,097)	96.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측정하는 7개 항목 중 도움이 필요한 항목의 수를 살펴보면,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립이 가능한 비율이 94.4%이며, 1개 도움 필요는 1.6%, 2개 도움 필요는 1.0%, 3개 0.5%, 4개는 0.3%, 5개 0.4%, 6개 0.3%, 7개 모두 도움이 필요한 비율은 1.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보다 완전자립률이 약간 높고, 성별로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완전자립률이 낮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낮아져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완전자립률은 65~69세 98.5%, 70~74세 96.7%, 75~79세 94.1%로 집단 내 대부분의 노인이 90% 이상의 자립률을 보이는 반면, 80세 이후부터 기능 저하가 나타나 80~84세의 완전자립률이 89.6%, 85세 이상 집단은 77.2%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85세 이상 집단의 경우 7개 항목 모두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6.4%로 다른 연령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무배우 노인이 유배우 노인보다 완전자립률이 낮고,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의 완전자립률이 91.2%로 다른 가구 군과 비교해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수준이 가장 낮은 무학 군의 완전자립률이 85.4%로 90% 이상의 완전자립률을 보이는 타 군과 비교해 완전자립률이 낮았다. 또한, 무학인 군은 모든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4.5%로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이 타 집단에 비해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완전자립률이 99.1%로 대부분이 자립적인 생활을 수행하는 반면 미취업의 경우 91.9%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완전자립률이 100.0%였으며,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완전자립률은 54.3%였다.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모든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11.4%로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기능 제한이 없는 군과 비교해 높다.

〈표 7-7〉 노인의 일반특성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단위: %, 명)

특성	완전 자립	1개 도움	2개 도움	3개 도움	4개 도움	5개 도움	6개 도움	7개 도움	계 (명)
전체 ¹⁾	94.4	1.6	1.0	0.5	0.3	0.4	0.3	1.4	100.0 (10,097)
지역									
동부	94.3	1.7	1.0	0.5	0.3	0.5	0.2	1.4	100.0 (7,651)
읍·면부	94.8	1.4	1.0	0.6	0.3	0.3	0.3	1.3	100.0 (2,446)
성									
남자	95.0	1.8	0.7	0.6	0.2	0.3	0.1	1.3	100.0 (4,346)
여자	94.0	1.5	1.2	0.5	0.4	0.5	0.4	1.5	100.0 (5,751)
연령									
65~69세	98.5	0.7	0.0	0.1	0.0	0.2	0.1	0.4	100.0 (3,344)
70~74세	96.7	1.3	0.6	0.3	0.2	0.1	0.2	0.6	100.0 (2,342)
75~79세	94.1	1.5	1.0	0.4	0.2	0.7	0.3	1.7	100.0 (2,292)
80~84세	89.6	2.7	2.5	1.4	0.9	0.5	0.2	2.1	100.0 (1,475)
85세 이상	77.2	5.7	3.8	2.3	1.5	1.7	1.4	6.4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5.7	1.6	0.7	0.4	0.2	0.3	0.2	1.1	100.0 (6,779)
배우자 없음	91.9	1.8	1.6	0.8	0.6	0.7	0.4	2.1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94.2	1.4	1.3	0.6	0.4	0.6	0.1	1.4	100.0 (1,998)
노인부부	95.6	1.7	0.7	0.5	0.2	0.3	0.2	0.9	100.0 (5,898)
자녀동거	91.2	1.8	1.6	0.7	0.6	0.7	0.7	2.7	100.0 (2,026)
기타	93.9	0.5	1.2	0.6	0.8	0.6	0.2	2.3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85.4	2.8	3.0	1.0	1.1	1.7	0.4	4.5	100.0 (1,073)
초등학교	93.4	1.8	1.1	0.8	0.4	0.4	0.5	1.6	100.0 (3,198)
중학교	96.1	1.2	0.7	0.4	0.2	0.2	0.2	1.0	100.0 (2,356)
고등학교	97.6	1.2	0.4	0.3	0.1	0.0	0.1	0.4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94.3	2.9	1.0	0.2	0.1	0.5	0.0	1.1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99.1	0.5	0.1	0.1	0.0	0.1	0.0	0.1	100.0 (3,564)
미취업	91.9	2.3	1.5	0.8	0.5	0.6	0.4	2.1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2.8	1.6	1.4	0.9	0.6	0.8	0.1	2.0	100.0 (2,019)
제2오분위	93.9	2.1	1.0	0.5	0.4	0.3	0.3	1.4	100.0 (2,020)
제3오분위	95.9	1.2	0.7	0.3	0.3	0.2	0.4	1.1	100.0 (2,017)
제4오분위	95.3	0.7	0.9	0.6	0.2	0.4	0.5	1.5	100.0 (2,024)
제5오분위	94.2	2.7	0.9	0.6	0.1	0.4	0.1	0.9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3.1	1.9	1.3	0.7	0.5	0.6	0.2	1.8	100.0 (3,999)
50%이상~100%미만	95.0	1.1	1.1	0.4	0.2	0.3	0.4	1.5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95.8	1.5	0.3	0.4	0.4	0.5	0.3	0.8	100.0 (1,647)
150%이상	95.4	2.6	0.6	0.5	0.1	0.0	0.0	0.6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없음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8,864)
제한있음	54.3	13.4	8.0	4.5	2.6	3.4	2.2	11.4	100.0 (1,233)
2017년도	91.3	4.5	1.3	0.8	0.5	0.4	0.3	0.8	100.0 (10,29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마찬가지로 노인이 자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문항은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먹기, 금전 관리, 근거리 외출하기, 물건 구매 결정·돈 지불·거스름돈 받기, 전화 걸고 받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 10개 항목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 항목별 완전자립 비율을 살펴보면, 몸단장 96.6%, 집안일 93.1%, 식사준비 92.1%, 빨래 93.2%,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먹기 96.5%, 금전 관리 93.6%, 근거리 외출하기 94.6%, 물건 구매 결정·돈 지불·거스름돈 받기 95.4%, 전화 걸고 받기 96.0%, 교통수단 이용하기 92.1%로 나타났다.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모든 항목의 완전 자립 비율이 90%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집안일, 식사준비, 빨래, 교통수단 이동하기 등 신체적 체력을 요구하는 항목이 타 항목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2017년도 결과에 비해 완전 자립 비율이 증가한 경향이 나타났다.

〈표 7-8〉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항목별 분포

(단위: %, 명)

특성	완전 자립	부분도움		완전 도움	계(명) ¹⁾	2017년 완전자립률
		적은 부분도움	많은 부분도움			
몸단장 (빗질, 화장, 면도, 손톱·발톱 깎기)	96.6	2.8		0.6	100.0 (10,097)	95.2
집안일 (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단정리정돈 등)	93.1	4.5		2.4	100.0 (10,097)	84.1
식사준비 (음식 재료준비, 요리, 상차리기)	92.1	5.2		2.7	100.0 (10,097)	86.5
빨래 (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93.2	4.2		2.6	100.0 (10,097)	86.5
제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96.5	2.6		1.0	100.0 (10,097)	96.5
금전 관리 (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93.6	4.5		2.0	100.0 (10,097)	90.0
근거리 외출하기 (가까운 거리 걸어서)	94.6	3.5		1.9	100.0 (10,097)	94.4
물건 구매 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95.4	2.1	1.4	1.1	100.0 (10,097)	94.4
전화 걸고 받기	96.0	2.2	1.1	0.7	100.0 (10,097)	86.3
교통수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개인 차)	92.1	3.4	2.3	2.2	100.0 (10,097)	85.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10개 항목 중 도움이 필요한 항목 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노인 중 88.0%가 10개 항목 모두에 대한 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개 항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비율은 4.3%, 3~4개는 2.5%, 5~6개는 1.4%, 7~8개는 1.2%, 9~10개는 2.7%로 나타났다.

일반특성에 따른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살펴보면, 거주지역별,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연령별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립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65~69세, 70~74세 집단은 각각 95.8%, 92.0%로 집단 내 노인 대다수가 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75~79세부터 완전 자립 비율이 하락함으로써 75~79세 86.9%, 80~84세 78.7%, 85세 이상 58.5%로 완전자립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85세 이상의 경우 완전 자립률이 매우 낮을뿐더러 9~10개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한 비율도 14.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완전 자립률이 82.3%로 유배우 노인(90.8%) 보다 전반적인 기능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가구의 완전자립률(90.7%)에 비해 노인독거가구(86.2%), 자녀동거(82.1%), 기타(85.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노인독거 가구에 비해 완전자립률이 낮게 나타났으며, 5개 이상의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전반적인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노인독거가구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의 완전 자립률이 70.8%로 타 교육수준 집단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현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완전 자립률이 83.7%로 취업 노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연가구소득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인 제1오분위의 완전 자립률 84.8%로 가장 낮았으며, 중위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집단이 85.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따른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수준은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완전 자립률이 1.8%에 불과하며, 1~2개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3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9~10개 항목에서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22.0%로 높았으며, 3~4개(20.3%), 5~6개(11.2%), 7~8개(9.9%) 순으로 나타났다.

〈표 7-9〉 노인의 일반특성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단위: %, 명)

특성	완전 자립	1~2개 도움	3~4개 도움	5~6개 도움	7~8개 도움	9~10개 도움	계 (명)
전체 ¹⁾	88.0	4.3	2.5	1.4	1.2	2.7	100.0 (10,097)
지역							
동부	88.2	4.1	2.5	1.4	1.3	2.6	100.0 (7,651)
읍·면부	87.4	4.9	2.6	1.3	0.9	2.9	100.0 (2,446)
성							
남자	88.6	4.5	2.8	0.9	1.2	2.1	100.0 (4,346)
여자	87.6	4.1	2.3	1.7	1.2	3.1	100.0 (5,751)
연령							
65~69세	95.8	2.1	1.0	0.4	0.2	0.6	100.0 (3,344)
70~74세	92.0	3.0	2.3	0.8	1.0	0.9	100.0 (2,342)
75~79세	86.9	5.3	2.6	1.4	1.1	2.6	100.0 (2,292)
80~84세	78.7	7.2	3.7	2.2	2.8	5.4	100.0 (1,475)
85세 이상	58.5	9.7	7.2	6.4	4.0	14.2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0.8	3.6	1.9	1.1	0.9	1.8	100.0 (6,779)
배우자 없음	82.3	5.7	3.6	1.9	1.9	4.5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86.2	5.6	2.7	1.7	1.2	2.7	100.0 (1,998)
노인부부	90.7	3.6	2.1	1.0	0.9	1.6	100.0 (5,898)
자녀동거	82.1	4.8	3.5	1.9	2.0	5.7	100.0 (2,026)
기타	85.1	5.7	1.7	2.3	1.7	3.4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70.8	9.6	5.0	3.5	1.8	9.3	100.0 (1,073)
초등학교	86.4	4.9	2.3	1.4	1.7	3.3	100.0 (3,198)
중학교	91.2	3.4	1.8	1.1	1.1	1.4	100.0 (2,356)
고등학교	93.5	2.5	2.2	0.6	0.4	0.8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88.5	3.0	3.4	2.0	1.4	1.6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96.0	2.4	1.1	0.1	0.3	0.1	100.0 (3,564)
미취업	83.7	5.3	3.2	2.1	1.7	4.1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4.8	5.0	2.7	2.1	1.6	3.8	100.0 (2,019)
제2오분위	86.9	5.0	2.5	1.1	1.8	2.6	100.0 (2,020)
제3오분위	90.1	4.6	1.4	1.1	0.7	2.1	100.0 (2,017)
제4오분위	90.7	3.6	1.2	0.8	1.1	2.8	100.0 (2,024)
제5오분위	87.5	3.1	4.7	1.7	0.9	2.1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5.5	5.0	2.6	1.8	1.8	3.4	100.0 (3,999)
50%이상~100%미만	89.6	4.2	1.5	1.1	1.0	2.6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90.6	3.0	2.4	1.0	0.7	2.4	100.0 (1,647)
150%이상	88.3	3.7	5.3	1.0	0.7	0.8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없음	100.0	0.0	0.0	0.0	0.0	0.0	100.0 (8,864)
제한있음	1.8	34.8	20.3	11.2	9.9	22.0	100.0 (1,233)
2017년도	75.4	9.6	5.6	4.3	2.4	2.6	100.0 (10,29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의 제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노인 중 87.8%가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모두에서 자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만 제한이 있는 노인은 6.6%이며, 일상생활수행능력까지 제한이 발생한 비율은 5.6%이다.

일반특성별로 신체기능 자립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 성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립도도 낮아지며, 특히 85세 이상 노인에서 기능 제한이 없는 비율이 58.0%로 급격하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만 제한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수행능력까지 제한 있는 경우 모두에서 85세 이상 노인집단의 비율(각각 19.2%, 22.8%)이 타 연령집단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이 신체기능 자립률이 낮았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독거가구와 자녀동거가구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신체기능 자립률을 보였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신체 기능에 제한이 없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무학집단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만 제한이 있는 비율이 15.1%, 일상생활수행능력까지 제한이 있는 비율은 14.6%로 타 교육수준 집단과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취업상태별로 보면, 취업중인 노인의 신체기능 자립률이 95.9%로 미취업 중인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제1오분위인 집단,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집단이 신체기능 자립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7-10〉 노인의 일반특성별 기능상태 제한 현황

(단위: %, 명)

특성	기능제한 없음	IADL만 제한	ADL도 제한 ²⁾	계 (명)
전체 ¹⁾	87.8	6.6	5.6	100.0 (10,097)
지역				
동부	87.9	6.4	5.7	100.0 (7,651)
읍·면부	87.4	7.4	5.2	100.0 (2,446)
성				
남자	88.3	6.7	5.0	100.0 (4,346)
여자	87.4	6.6	6.0	100.0 (5,751)
연령				
65~69세	95.7	2.8	1.5	100.0 (3,344)
70~74세	91.9	4.7	3.4	100.0 (2,342)
75~79세	86.5	7.6	5.8	100.0 (2,292)
80~84세	78.2	11.4	10.5	100.0 (1,475)
85세 이상	58.0	19.2	22.8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0.5	5.1	4.4	100.0 (6,779)
배우자 없음	82.2	9.7	8.1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86.2	8.0	5.8	100.0 (1,998)
노인부부	90.5	5.2	4.4	100.0 (5,898)
자녀동거	81.9	9.3	8.8	100.0 (2,026)
기타	84.7	9.2	6.1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70.3	15.1	14.6	100.0 (1,073)
초등학교	86.2	7.3	6.6	100.0 (3,198)
중학교	91.1	5.0	4.0	100.0 (2,356)
고등학교	93.3	4.3	2.4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88.3	6.0	5.7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95.9	3.2	0.9	100.0 (3,564)
미취업	83.4	8.5	8.2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4.7	8.1	7.3	100.0 (2,019)
제2오분위	86.6	7.3	6.1	100.0 (2,020)
제3오분위	89.9	6.0	4.1	100.0 (2,017)
제4오분위	90.7	4.6	4.7	100.0 (2,024)
제5오분위	87.1	7.1	5.8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5.2	7.8	7.0	100.0 (3,999)
50%이상~100%미만	89.5	5.5	5.0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90.2	5.6	4.2	100.0 (1,647)
150%이상	88.1	7.3	4.6	100.0 (1,068)
2017년도	74.7	16.6	8.7	100.0 (10,29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동 항목에는 IADL에는 제한이 없고 ADL만 제한이 있는 사람 22명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조사 기간 내(조사 표 문항 상 조사 시점 기준 지난 일주일) 일시적으로 제한이 있는 사람임.

4. 인지기능

인지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치매선별용 한국어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 version of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for Dementia Screening: MMSE-DS)를 사용하였다.¹¹⁾ 이 도구로 측정함으로써 총 30점 중에서 성별, 연령과 교육수준을 고려하여 계산된 일정 점수 미만인 경우에는 치매의심의 ‘인지저하자’로 판정하고, 치매확정을 위한 진단검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당 점수 미만일 경우 ‘인지저하자’로 볼 수 있다. 응답자의 MMSE-DS 진단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 점수는 24.5점이며, 인지저하자의 비율은 25.3%로 나타났다. 일반특성 별로 살펴보면, 지역별에서는 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보다 평균 점수 다소 낮은 반면, 인지저하자 비율에서도 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의 평균 점수가 다소 높은 반면 인지저하자 비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고, 인지저하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85세 이상 집단의 인지저하자 비율은 34.0%로, 이전 연령대의 인지저하자 비율(27.8%)보다 크게 증가했다.

배우자 유무별로 보면 무배우 노인의 검사 점수가 유배우노인 보다 다소 낮았으며, 인지저하자 비율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독거노인 가구가 평균 점수 23.3점, 인지저하자 비율 27.3%로 타 가구형태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평균 점수가 24.2점으로 독거노인 가구 다음으로 점수가 낮지만, 인지저하자의 비율은 23.9%로 가구 형태 집단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11) 치매의심 판정은 연령과 성별, 교육수준을 고려한 기준점에 따라 해당 점수 미만일 경우로 판정함.

* 〈MMSE-DS 진단검사 의뢰점수〉

연령	성별	교육연수			
		0~3년	4~6년	7~12년	13년 이상
60~69세	남	20	24	25	26
	여	19	23	25	26
70~74세	남	20	23	25	26
	여	18	21	25	26
75~79세	남	20	22	25	25
	여	17	21	24	26
80세 이상	남	18	22	24	25
	여	16	20	24	26('14년, 27)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 치매정책사업안내 2020.

교육수준에 따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인지저하자 비율에서는 일정한 경향성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에서는 미취업 노인의 평균 점수가 24.0점으로 취업 중인 노인(25.6점)보다 다소 낮고, 인지저하자의 비율은 미취업 노인이 27.9%로 취업 중인 노인(20.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가구소득수준에서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평균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인지저하자는 별다른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평균 점수가 낮아지며, 인지저하자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 있는 경우 평균 점수가 21.1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인지저하자의 비율도 43.9%로 제한이 없는 노인의 인지저하자 비율(23.0%)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7-11〉 노인의 일반특성별 MMSE-DS 진단검사 결과

(단위: 점, %, 명)

특성	평균점수	인지저하자 비율	대상자수
전체 ¹⁾	24.5	25.3	(9,887)
지역			
동부	24.8	24.7	(7,480)
읍·면부	23.8	27.2	(2,407)
성			
남자	25.3	25.4	(4,255)
여자	24.0	25.2	(5,632)
연령			
65~69세	26.2	20.6	(3,327)
70~74세	25.1	25.7	(2,312)
75~79세	24.0	28.0	(2,247)
80~84세	22.4	27.8	(1,418)
85세 이상	20.5	34.0	(58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5.1	24.6	(6,674)
배우자 없음	23.3	26.8	(3,212)
가구형태			
노인독거	23.3	27.3	(1,983)
노인부부	25.1	25.0	(5,826)
자녀동거	24.2	23.9	(1,918)
기타	24.6	29.1	(160)
교육수준			
무학	20.8	19.8	(1,022)
초등학교	23.5	25.0	(3,114)
중학교	24.9	34.1	(2,315)
고등학교	26.2	22.7	(2,843)
전문대학 이상	27.5	14.9	(593)
현취업상태			
취업중	25.6	20.6	(3,547)
미취업	24.0	27.9	(6,34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3	26.5	(1,985)
제2오분위	23.7	27.3	(1,976)
제3오분위	24.4	30.5	(1,976)
제4오분위	25.4	21.5	(1,983)
제5오분위	25.8	20.7	(1,96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3.6	27.1	(3,914)
50%이상~100%미만	24.6	26.8	(3,314)
100%이상~150%미만	25.4	22.2	(1,608)
150%이상	26.7	18.6	(1,050)
기능상태			
제한 없음	25.0	23.0	(8,797)
제한 있음	21.1	43.9	(1,090)
2017년도	25.2	14.5	(10,055)

주: 1) 본인 응답자 9,930명 중 비해당 처리된 시각장애인 43명을 제외한 9,887명을 분석함.

5. 장애등급

전체 응답자 중 4.6%가 장애판정을 받았으며, 특성별 장애판정률을 살펴보면, 지역, 성별,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 소득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연령에서는 노인의 나이가 높아질수록 장애판정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가구형태에서 노인부부가구인 경우 장애판정률이 3.9%이었으며, 노인독거가구가 4.7%, 자녀동거가구가 6.5%로 나타나 자녀동거가구 집단의 장애판정률이 타 가구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무학의 장애판정률이 7.9%로 가장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장애판정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노인의 장애판정률은 1.8%에 그치는 반면 미취업 노인의 장애판정률은 6.1%로 취업중인 노인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장애판정률이 14.4%로 제한이 없는 경우(3.2%) 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7-12〉 노인의 일반특성별 장애판정률 및 장애정도

(단위: %, 명)

특성	장애판정률	(명)	특성	장애판정률	(명)
전체 ¹⁾	4.6	(464)	교육수준		
지역			무학	7.9	(85)
동부	4.4	(336)	초등학교	6.2	(197)
읍·면부	5.2	(127)	중학교	3.8	(90)
성			고등학교	2.6	(75)
남자	5.6	(243)	전문대학 이상	2.7	(16)
여자	3.8	(221)	현취업상태		
연령			취업중	1.8	(65)
65~69세	2.2	(75)	미취업	6.1	(399)
70~74세	4.0	(94)	연가구소득		
75~79세	5.5	(127)	제1오분위	4.4	(90)
80~84세	7.3	(108)	제2오분위	5.6	(113)
85세 이상	9.2	(59)	제3오분위	5.4	(110)
배우자 유무			제4오분위	3.9	(79)
배우자 있음	4.2	(286)	제5오분위	3.6	(72)
배우자 없음	5.4	(178)	중위소득 대비		
가구형태			50%미만	5.3	(212)
노인독거	4.7	(94)	50%이상~100%미만	4.7	(159)
노인부부	3.9	(228)	100%이상~150%미만	3.8	(63)
자녀동거	6.5	(131)	150%이상	2.8	(30)
기타	5.4	(9)	기능상태		
			제한 없음	3.2	(286)
			제한 있음	14.4	(178)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097명 중 장애판정을 받았다고 응답한 4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장애 판정을 받은 응답자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체장애가 56.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청각장애(19.4%), 시각장애(9.8%), 뇌병변장애(5.2%), 신장장애(2.3%), 심장장애(1.6%), 정신장애(1.5%), 언어장애(1.1%), 지적장애(1.0%), 호흡기장애(0.8%), 안면장애(0.7%), 장루·요루장애(0.5%), 뇌전증장애(0.1%) 순으로 나타났다.

〈표 7-13〉 장애판정 노인의 주장애 유형분포

(단위: %)

장애유형	비율	장애유형	비율
전체 ¹⁾	100.0		
장애유형			
지체장애	56.0	신장장애	2.3
뇌병변장애	5.2	심장장애	1.6
시각장애	9.8	호흡기장애	0.8
청각장애	19.4	안면장애	0.7
언어장애	1.1	장루·요루장애	0.5
지적장애	1.0	뇌전증장애	0.1
정신장애	1.5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097명 중 장애판정을 받았다고 응답한 4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장애등급을 받은 응답자의 장애정도를 살펴보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가 심한 노인의 비율이 23.2%이며,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노인의 비율이 76.8%로 나타났다.

〈표 7-14〉 장애판정 노인의 장애 정도 현황

(단위: %, 명)

특성	심한 장애(1~3급)	심하지 않은 장애(4~6급)	계(명)
전체	23.2	76.8	100.0 (464)

제2절 요양보호 실태

1. 보호 실태

노인의 돌봄 수급여부와 돌봄제공자에 대한 문항은 전체 응답자 중 ADL과 IADL의 총 17개 항목 중 1개 이상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ADL과 IADL의 총 17개 항목 중 1개 이상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12.2%이다(〈표 7-10〉 참고). 이들 중 가족, 친인척, 간병인 등 돌봄을 받고 있는 비율은 55.0%로 나타났다. 돌봄제공자의 특성은 동거 가족원이 74.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동거 가족원(39.3%), 장기요양보험서비스 19.1%, 친척·이웃·친구·지인(15.3%), 노인돌봄서비스(10.7%), 개인간병인·가사도우미(4.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특성별 돌봄수급률과 돌봄제공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동부지역 돌봄수급률이 56.5%로 읍·면부 노인이 50.3%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돌봄을 받는 동부지역 노인의 경우 동거 가족원 77.8%, 비동거 가족원 41.6%로 가족원에 의한 돌봄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부 노인의 경우 가족원의 돌봄비율이 높지만 친척·이웃·친구·지인이나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의 돌봄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각각 21.4%, 19.6%, 15.7%). 성별로 보면 남성 노인 보다 여성 노인의 돌봄수급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남성 노인의 경우 동거 가족원의 돌봄수급률이 86.1%로 매우 높은 반면, 여성 노인의 경우 66.8%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22.3%로 가족원을 제외한 돌봄제공자 유형 중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80~84세 집단의 돌봄수급률이 56.9%, 85세 이상에서는 68.8%로 80세 이상부터 돌봄수급률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거가족원의 돌봄수급률이 낮아지는 반면, 장기요양보험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65~69세, 70~74세 집단에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률이 10% 미만인 수준이지만, 75세 이상부터는 20%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52.0%가 돌봄을 받고 있으며, 무배우 노인은

58.3%가 돌봄을 받고 있다. 또한, 배우자 있는 노인의 경우 주로 가족원에 의해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무배우 노인의 경우 가족원의 돌봄 비율이 그리 높지 않으며,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비율이 23.7%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자녀동거 가구의 돌봄수급률이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부부 가구와 자녀동거 가구에서는 동거 가족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독거노인 가구는 비동거 가구원(47.4%)과 장기요양보험서비스(30.4%)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현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노인에 비해 미취업 노인의 돌봄수급률이 57.9%로 높았으며, 돌봄제공자 특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외에도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서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7-15〉 노인의 일반특성별 돌봄 수급여부 및 돌봄제공자(중복응답)

(단위: %, 명)

특성	돌봄수 급률 ¹⁾	돌봄제공자 ²⁾						
		가족원		친척,이웃· 친구·지인	개인간병인, 가사도우미	장기요양 보험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명)
		동거	비동거					
전체	55.0	74.5	39.3	15.3	4.2	19.1	10.7	(678)
지역								
동부	56.5	77.8	41.6	13.5	5.0	18.9	9.3	(522)
읍·면부	50.3	63.3	31.7	21.4	1.5	19.6	15.7	(155)
성								
남자	53.4	86.1	40.2	7.0	3.4	14.1	13.1	(270)
여자	56.1	66.8	38.8	20.9	4.7	22.3	9.2	(407)
연령								
65~69세	50.0	94.2	50.2	22.0	7.0	8.3	2.8	(72)
70~74세	50.4	81.1	46.1	18.4	6.6	6.3	9.7	(95)
75~79세	46.1	70.0	39.8	14.1	3.4	21.1	11.9	(142)
80~84세	56.9	74.2	41.2	16.1	3.2	21.4	10.5	(183)
85세 이상	68.8	67.2	29.5	11.5	3.5	25.8	13.8	(18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2.0	89.5	47.2	11.5	6.2	14.3	10.4	(334)
배우자 없음	58.3	59.9	31.7	19.1	2.2	23.7	11.1	(344)
가구형태								
노인독거	47.7	0.0	47.4	21.8	3.7	30.4	18.2	(132)
노인부부	49.6	88.6	47.4	12.6	5.8	11.8	8.6	(279)
자녀동거	69.0	96.6	26.8	14.9	1.5	21.9	9.5	(253)
기타	51.9	100.0	28.4	15.4	28.6	7.1	0.0	(14)
교육수준								
무학	56.8	64.6	34.0	13.9	1.6	21.5	10.9	(181)
초등학교	52.6	69.5	29.7	11.5	3.5	22.9	13.3	(233)
중학교	53.5	83.9	37.2	22.7	0.7	19.8	11.6	(112)
고등학교	54.2	90.4	61.0	17.3	6.4	11.2	7.6	(104)
전문대학 이상	68.6	81.3	64.6	18.7	20.8	6.4	4.1	(48)
현취업상태								
취업중	33.3	89.6	46.9	22.9	4.1	14.3	0.0	(48)
미취업	57.9	73.4	38.8	14.8	4.2	19.4	11.6	(62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6	45.4	41.8	15.1	3.6	20.0	13.5	(166)
제2오분위	54.5	67.2	31.4	12.7	3.4	22.2	10.3	(147)
제3오분위	41.7	81.5	37.5	12.0	6.3	18.9	12.8	(85)
제4오분위	51.3	90.7	32.8	15.7	1.3	27.8	18.7	(97)
제5오분위	70.3	95.1	47.7	19.1	5.9	10.9	3.4	(18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4.0	60.8	37.7	12.5	4.4	20.2	13.3	(319)
50%이상~100%미만	48.3	82.0	28.2	13.5	2.0	26.0	11.5	(171)
100%이상~150%미만	55.9	92.2	34.4	18.3	0.0	21.5	6.8	(90)
150%이상	77.2	89.8	68.4	25.5	11.1	1.0	5.1	(98)
2017년도	71.4	69.0	36.2	6.4	1.4	19.0	4.2	(1,86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097명 중 1개 이상의 ADL/IADL에서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이 필요한 1,233명을 대상으로 함.

2) ADL/IADL 중 1개 이상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이 필요한 1,233명 중 돌봄을 받고 있는 678명을 대상으로 함.

2. 가족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의한 보호실태

가족, 친척, 이웃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도움 내용별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빨래·시장보기에서 도움을 받은 비율이 91.8%, 외출동행은 83.4%, 식사준비는 90.0%,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 지원에서는 67.1%가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빨래·시장보기나 식사준비의 경우 거의 매일 도움을 받는 비중이 각각 51.5%,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 2~3회나 1주 1회 도움을 받는 비율도 높게 나타나 대부분이 거의 주 1회 이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출동행은 월 1회 이하가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도움 빈도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지원은 1주 1회가 21.7%로 가장 높았지만, 거의 매일이 18.1%, 주 2~3회가 13.3%로 낮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청소, 빨래, 시장보기 등의 가사활동과 식사준비 항목에서 가족 등의 비공식 돌봄제공자로부터의 도움 빈도가 높은 편이고, 외출동행과 목욕 등의 신체기능 유지 지원 항목에서는 가족 등의 비공식 돌봄제공자로부터의 도움 빈도가 낮은 편이다.

〈표 7-16〉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 친척, 이웃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도움 빈도

(단위: %, 명)

특성	도움받지 않음	거의매일	주2~3회	1주1회	격주1회	월1회이하	계 (명) ¹⁾
청소, 빨래, 시장보기	8.1	51.5	18.8	15.4	2.8	3.3	100.0 (603)
외출동행	16.7	18.8	8.8	18.9	13.8	23.1	100.0 (603)
식사준비	9.8	64.8	13.8	7.6	2.5	1.3	100.0 (603)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 지원	32.9	18.1	13.3	21.7	6.5	7.5	100.0 (603)

주: 1) 돌봄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678명 중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603명을 대상으로 함.

도움 내용별 비공식 제공자와 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도움 제공자가 배우자인 비율이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외출동행의 경우 장남이 19.7%로 딸의 비중(19.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 지원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19.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다. 또한, 각 항목에서 장남의 배우자의 비율은 청소·빨래·시장보기 10.7%, 외출동행 6.7%, 식사준비 11.7%,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 지원 6.0%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17〉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 친척, 이웃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주도움 제공자

(단위: %, 명)

특성	배우자	장남	장남 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 이하 배우자	딸	딸 배우자	친인척	비혈연 동거인	친구 및 이웃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기타	타인 도움 받지 않음	계 (명)
청소, 빨래, 시장보기	41.3	9.9	10.7	3.6	1.8	18.8	0.0	2.6	0.1	0.9	8.2	2.0	0.0	100.0 (554)
외출동행	33.4	19.7	6.7	6.6	1.4	19.8	0.8	1.5	0.1	1.2	6.8	1.9	0.0	100.0 (502)
식사준비	42.4	8.5	11.7	3.5	1.7	17.6	0.1	2.7	0.1	0.8	8.4	2.5	0.0	100.0 (543)
목욕 등 신체기능 유지 지원	32.4	11.1	6.0	3.0	0.7	22.5	0.0	2.2	0.1	1.3	19.9	0.8	0.0	100.0 (404)

주: 1)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678명 중 개별 항목별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함. 청소·빨래·시장보기(554명), 외출동행(502명), 식사준비(543명), 목욕 등 신체기능유지지원(404명).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의한 청소·빨래·시장보기 등 가사활동 도움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보다 읍·면부 노인이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14.9%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9.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남성 노인은 거의 매일 도움을 받는 비율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도움을 받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 가구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12.3%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동거 가구는 5.7%로 가장 낮았다. 노인 독거 가구는 주 2~3회, 일주일 1회 도움을 받는 비중이 각각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노인부부 가구와 자녀동거 가구는 거의 매일 도움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인 경우 도움을 받는 비중이 92.3%로 취업 중인 노인보다 높았다. 도움을 받는 경우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도움 빈도가 높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 교육수준별, 연가구소득 소득분위, 중위소득에서는 특정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7-18〉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친척·이웃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청소·빨래·시장보기 도움빈도

(단위: %, 명)

특성	도움받지않음	거의매일	주2~3회	일주일1회	격주1회	월1회이하	계 (명)
전체	8.1	51.5	18.8	15.4	2.8	3.3	100.0(603)
지역							
동부	6.2	53.5	20.1	15.0	1.7	3.5	100.0(471)
읍·면부	14.9	44.6	14.3	17.1	6.4	2.7	100.0(132)
성							
남자	6.8	66.2	11.0	12.8	1.0	2.1	100.0(251)
여자	9.0	41.0	24.4	17.3	4.0	4.2	100.0(352)
연령							
65~69세	18.6	48.6	17.1	12.9	0.0	2.9	100.0(70)
70~74세	6.6	48.4	16.5	27.5	0.0	1.1	100.0(91)
75~79세	8.0	47.2	16.0	21.6	3.2	4.0	100.0(125)
80~84세	9.3	53.7	17.3	11.1	4.9	3.7	100.0(162)
85세 이상	3.2	55.5	25.2	9.7	2.6	3.9	100.0(15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0	55.0	16.4	16.3	0.8	2.5	100.0(321)
배우자 없음	7.1	47.6	21.6	14.4	5.0	4.3	100.0(281)
가구형태							
노인독거	12.3	16.4	26.0	26.0	9.6	9.6	100.0(73)
노인부부	9.7	52.4	16.4	17.8	1.1	2.6	100.0(269)
자녀동거	5.7	59.5	20.6	8.9	2.8	2.4	100.0(247)
기타	0.0	76.9	0.0	23.1	0.0	0.0	100.0(13)
교육수준							
무학	8.4	40.2	24.8	13.7	5.8	7.2	100.0(151)
초등학교	8.2	50.2	18.5	16.5	3.6	3.0	100.0(201)
중학교	12.2	54.1	19.3	13.7	0.7	0.0	100.0(103)
고등학교	5.4	66.1	15.3	11.5	0.0	1.7	100.0(100)
전문대학 이상	4.2	56.3	8.3	29.2	0.0	2.1	100.0(48)
현취업상태							
취업중	12.5	56.3	18.8	12.5	0.0	0.0	100.0(48)
미취업	7.7	51.1	18.9	15.6	3.1	3.6	100.0(55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0	40.0	20.8	20.8	4.0	6.4	100.0(125)
제2오분위	8.7	46.8	21.4	15.9	2.4	4.8	100.0(126)
제3오분위	8.6	53.1	17.3	14.8	2.5	3.7	100.0(81)
제4오분위	8.8	52.7	15.4	11.0	7.7	4.4	100.0(91)
제5오분위	7.6	60.9	17.9	13.6	0.0	0.0	100.0(18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0	45.0	21.4	17.9	2.7	5.0	100.0(262)
50%이상~100%미만	7.1	53.2	17.9	14.1	5.8	1.9	100.0(156)
100%이상~150%미만	9.2	63.2	17.2	6.9	0.0	3.4	100.0(87)
150%이상	9.3	55.7	15.5	18.6	0.0	1.0	100.0(97)

주: 1) 돌봄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678명 중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603명을 대상으로 함.

청소·빨래·시장보기 등의 도움 제공은 주로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은 딸, 장남의 배우자, 장남,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순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주로 배우자와 딸의 비중이 각각 43.5%, 19.1%로 높게 나타났다. 읍·면부의 경우 배우자의 비중이 동부 노인 보다 다소 낮은 반면 장남과 장남의 배우자의 비율이 각각 15.9%, 12.7%로 높았으며,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비율도 10.3%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배우자 비율이 77.5%에 달하며, 여자인 경우 배우자의 비중이 14.5%로 매우 낮은 반면 딸(26.4%), 장남(16.4%), 장남의 배우자(17.6%) 등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의한 도움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에 의한 도움 제공이 감소하며, 딸과 장남 그리고 장남의 배우자가 지원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85세 이상의 경우 장남의 배우자에 의한 도움 제공 비율이 24.7%로 딸(26.7)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배우 노인의 경우 주로 배우자에 의해 도움이 제공되고 있으며, 무배우 노인은 딸에 의한 도움 제공이 33.1%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장남의 배우자가 21.3%, 장남 19.6%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보면 노인 독거가구의 경우 딸이 41.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20.6%로 높았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도움 제공이 83.4%에 달했으며, 자녀동거 가구는 딸이 가장 높았고 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 의해 도움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의한 가사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수준이 낮아질수록 딸, 아들 등 자녀와 며느리에 의한 가사지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취업상태에서도 취업 중인 경우 배우자에 의한 가사지원이 높았으며, 이에 비해 미취업인 경우 배우자에 의한 가사지원이 다소 낮아지며, 딸, 장남, 장남의 배우자에 의한 가사지원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서는 특정한 경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표 7-19〉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친척·이웃 등 비공식돌봄제공자의 청소·빨래·시장보기 주도움제공자

(단위: %, 명)

특성	배우자	장남	장남 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 이하 배우자	딸	친인척	비혈연 동거인	이웃 친구	사회복 지관련 종사자	기타	계 (명)
전체 ¹⁾	41.3	9.9	10.7	3.6	1.8	18.8	2.6	0.1	0.9	8.2	2.0	100.0(554)
지역												
동부	43.5	8.4	10.2	4.1	2.1	19.1	2.5	0.0	0.4	7.7	1.9	100.0(441)
읍·면부	32.4	15.9	12.7	1.6	0.6	17.7	3.1	0.3	3.0	10.3	2.4	100.0(112)
성												
남자	77.5	1.3	1.3	4.2	0.4	8.9	0.8	0.0	0.0	5.1	0.4	100.0(236)
여자	14.5	16.4	17.6	3.1	2.8	26.4	4.1	0.0	1.6	10.4	3.1	100.0(318)
연령												
65~69세	76.8	5.4	0.0	0.0	0.0	5.4	7.1	0.0	0.0	0.0	5.4	100.0(56)
70~74세	64.0	4.7	2.3	4.7	1.2	15.1	0.0	0.0	0.0	7.0	1.2	100.0(86)
75~79세	50.9	7.9	6.1	3.5	0.0	12.3	0.9	0.0	2.6	12.3	3.5	100.0(114)
80~84세	38.9	11.1	9.6	3.1	3.5	23.0	0.9	0.0	0.9	8.1	1.0	100.0(146)
85세 이상	10.4	15.1	24.7	4.8	2.5	26.7	5.1	0.2	0.6	8.8	1.0	100.0(15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8.2	1.3	1.3	3.7	0.4	6.1	0.0	0.0	0.0	7.1	2.0	100.0(292)
배우자 없음	0.0	19.6	21.3	3.5	3.3	33.1	5.6	0.1	2.0	9.4	2.0	100.0(261)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12.7	7.9	0.0	0.0	41.3	3.2	0.0	7.9	20.6	6.3	100.0(63)
노인부부	83.4	1.5	0.9	0.0	0.5	5.9	0.0	0.0	0.0	7.1	1.0	100.0(242)
자녀동거	10.0	18.7	22.1	8.5	3.7	27.4	2.6	0.0	0.0	6.5	0.4	100.0(234)
기타	23.1	0.0	0.0	0.0	0.0	0.0	46.2	0.0	0.0	0.0	30.8	100.0(13)
교육수준												
무학	12.9	14.9	20.7	7.5	3.8	27.3	4.1	0.3	0.5	6.4	1.6	100.0(139)
초등학교	31.7	13.1	10.4	3.4	2.2	22.5	3.1	0.0	1.9	10.7	0.9	100.0(184)
중학교	57.1	2.2	7.7	0.0	1.1	13.2	2.2	0.0	1.1	14.3	1.1	100.0(91)
고등학교	67.0	5.3	3.2	3.2	0.0	11.7	2.1	0.0	0.0	4.3	3.2	100.0(94)
전문대학 이상	80.3	6.5	2.2	0.0	0.0	2.2	0.0	0.0	0.0	0.0	8.7	100.0(46)
현취업상태												
취업중	66.7	2.4	0.0	4.8	7.1	4.8	0.0	0.0	2.4	9.5	2.4	100.0(42)
미취업	39.1	10.5	11.6	3.6	1.3	20.0	2.8	0.1	0.9	8.2	2.0	100.0(51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6.0	13.2	7.2	0.6	0.0	26.2	1.8	0.3	0.2	9.1	5.4	100.0(114)
제2오분위	52.2	8.6	3.8	0.0	1.0	14.6	3.7	0.0	3.1	12.2	0.6	100.0(115)
제3오분위	43.8	8.2	1.4	2.7	0.0	26.0	0.0	0.0	1.4	15.1	1.4	100.0(73)
제4오분위	19.3	11.7	22.9	9.4	4.5	20.5	3.4	0.0	0.0	8.3	0.0	100.0(83)
제5오분위	47.0	8.4	15.7	5.6	3.0	13.1	3.0	0.0	0.0	2.1	2.1	100.0(17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6.5	10.7	5.5	0.7	0.5	19.7	2.6	0.2	0.1	10.8	2.8	100.0(241)
50%~100%미만	23.1	9.3	17.2	6.0	2.6	23.8	3.4	0.0	2.9	11.4	0.4	100.0(145)
00%~150%미만	29.1	8.9	24.1	3.8	5.1	19.0	3.8	0.0	1.3	3.8	1.3	100.0(79)
150%이상	67.4	10.1	2.2	6.7	1.1	9.0	0.0	0.0	0.0	0.0	3.4	100.0(89)

주: 1)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678명중 청소·빨래·시장보기에 도움을 받은 55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가족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의한 외출 동행에 대해 일반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 노인에 비해 여성 노인이 도움을 더 받고 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5~69세의 34.0%가 외출 시 도움을 받지 않으며, 반면 85세 이상에서는 9.7%만이 도움을 받지 않았다.

배우자 유무 별로는 무배우 노인이 도움을 더 많이 받고,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거 가구의 경우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노인부부 가구와 자녀동거 가구에 비해 다소 높다. 또한, 노인부부 가구와 자녀동거 가구에서 거의 매일 제공받는 비율이 각각 19.9%, 20.9%로 노인독거 가구에 비해 높으며, 노인독거 가구는 빈도 수가 낮은 쪽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취업 중인 노인의 40.4%가 도움을 받지 않으며, 이는 미취업 노인의 경우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미취업 노인의 경우 취업 중인 노인에 비해 거의 매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서는 특정한 경향을 발견하지 못했다.

〈표 7-20〉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친척·이웃 등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외출동행 도움빈도

(단위: %, 명)

특성	도움받지않음	거의매일	주2~3회	일주일1회	격주1회	월1회이하	계 (명)
전체 ¹⁾	16.7	18.8	8.8	18.9	13.8	23.1	100.0(603)
지역							
동부	18.1	19.7	7.6	19.5	11.8	23.4	100.0(471)
읍·면부	11.9	15.4	13.2	16.7	20.9	21.9	100.0(132)
성							
남자	23.7	24.0	5.3	15.2	8.5	23.3	100.0(251)
여자	11.8	15.0	11.4	21.5	17.5	22.9	100.0(352)
연령							
65~69세	34.0	12.7	1.9	14.1	8.6	28.8	100.0(70)
70~74세	22.0	14.3	7.7	27.5	8.8	19.8	100.0(91)
75~79세	19.5	23.3	9.0	23.6	10.6	14.0	100.0(125)
80~84세	10.9	17.8	8.8	16.4	18.1	27.9	100.0(162)
85세 이상	9.7	21.4	12.8	14.4	17.3	24.4	100.0(15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8.6	20.7	6.2	21.6	10.5	22.3	100.0(321)
배우자 없음	14.6	16.5	11.8	15.7	17.4	23.9	100.0(281)
가구형태							
노인독거	17.4	9.8	9.3	19.2	15.8	28.4	100.0(73)
노인부부	16.6	19.9	6.1	22.9	11.8	22.6	100.0(269)
자녀동거	16.3	20.9	10.7	15.4	15.0	21.8	100.0(247)
기타	24.3	5.4	25.7	0.0	17.7	26.8	100.0(13)
교육수준							
무학	10.8	9.1	12.7	14.2	19.0	34.2	100.0(151)
초등학교	12.9	25.7	10.3	16.9	17.6	16.7	100.0(201)
중학교	15.4	13.5	5.8	29.8	17.3	18.3	100.0(103)
고등학교	35.4	22.2	4.0	14.1	1.0	23.2	100.0(100)
전문대학 이상	14.6	25.4	7.4	26.2	0.0	26.4	100.0(48)
현취업상태							
취업중	40.4	10.6	8.5	8.5	6.4	25.5	100.0(48)
미취업	14.7	19.4	8.8	19.8	14.3	22.9	100.0(55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2	24.7	8.7	23.4	11.2	13.7	100.0(125)
제2오분위	10.8	15.3	8.4	16.2	13.4	35.9	100.0(126)
제3오분위	18.7	21.9	14.0	12.5	17.6	15.3	100.0(81)
제4오분위	11.3	20.5	12.3	11.3	22.6	22.1	100.0(91)
제5오분위	21.7	14.9	5.2	24.2	9.6	24.4	100.0(18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4.5	19.8	8.4	20.2	14.1	22.9	100.0(262)
50%이상~100%미만	14.1	22.4	12.2	15.4	12.2	23.7	100.0(156)
100%이상~150%미만	17.4	17.4	11.6	12.8	27.9	12.8	100.0(87)
150%이상	26.5	10.2	2.0	26.5	3.1	31.6	100.0(97)

주: 1) 돌봄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678명 중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603명을 대상으로 함.

비공식 돌봄제공자에 의한 외출동행에서 도움 제공자와 노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의 경우 배우자와 장남의 비중이 제일 높고 그 다음 딸,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순으로 높았다. 반면 동부 노인에게서는 배우자, 딸, 장남과 차남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가 57.6%, 장남 14.3%인 반면, 여성 노인은 딸이 24.9%, 장남이 23.1%, 배우자가 18.4%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에 의한 도움 제공 보다 자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배우자에 의한 외출동행 도움은 낮아지고, 대체적으로 자녀(딸, 장남, 차남 등)와 자녀의 배우자에 의한 도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5세 이상 집단에서 장남의 배우자의 비율이 20.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유배우 노인의 경우 도움 제공은 주로 배우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무배우 노인의 경우 딸, 장남, 장남의 배우자 순으로 외출동행에서의 도움 제공이 이루어진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 가구의 경우 딸이 도움 제공자인 경우가 46.7%이며, 그 다음으로 장남이 16.7%로 높았다. 또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의 비율도 16.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의 경우 주로 배우자에 의해 도움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녀동거 가구에서 노인은 배우자의 도움 제공 비율이 8.0%로 낮으며,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 취업 상태별로는 취업 중인 노인의 경우 배우자, 장남, 차남 이하, 딸 순으로 외출 동행에서 도움을 받으며, 미취업 노인의 경우 배우자, 딸, 장남, 장남의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딸의 비율은 취업 중이 10.3%인 것에 비해 미취업 노인의 경우 20.3%로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 따른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 7-21〉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친척·이웃 등 비공식돌봄제공자의 외출동행 주도움제공자

(단위: %, 명)

특성	배우자	장남	장남 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 이하 배우자	딸	딸 배우자	친인척	비혈연 동거인	이웃 친구	사회복 지관련 종사자	기타	계(명)
전체 ¹⁾	33.4	19.7	6.7	6.6	1.4	19.8	0.8	1.5	0.1	1.2	6.8	1.9	100.0(502)
지역													
동부	35.6	18.4	7.2	7.6	1.0	20.9	1.1	1.1	0.0	0.4	5.2	1.5	100.0(385)
읍·면부	26.2	24.0	5.1	3.4	2.8	16.2	0.0	2.6	0.3	4.1	12.0	3.3	100.0(116)
성													
남자	57.6	14.3	0.0	7.3	1.7	11.4	0.6	0.0	0.0	0.0	7.0	0.0	100.0(192)
여자	18.4	23.1	10.8	6.2	1.2	24.9	1.0	2.4	0.1	2.0	6.7	3.1	100.0(310)
연령													
65~69세	65.2	10.9	2.2	4.3	0.0	2.2	0.0	6.5	0.0	0.0	8.7	0.0	100.0(46)
70~74세	54.2	11.0	0.0	6.9	0.0	19.4	0.0	0.0	0.0	0.0	8.3	0.0	100.0(72)
75~79세	51.5	15.2	1.0	4.0	0.5	13.1	0.0	1.0	0.0	3.0	7.1	4.0	100.0(99)
80~84세	24.4	30.1	2.6	7.4	2.2	21.3	2.1	0.0	0.0	1.5	5.4	2.8	100.0(144)
85세 이상	8.6	19.4	20.1	8.6	2.2	29.5	0.7	2.2	0.0	0.7	7.2	0.7	100.0(1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4.1	12.2	0.0	5.5	1.4	9.1	1.0	0.0	0.0	0.0	4.7	2.0	100.0(262)
배우자 없음	0.0	28.0	14.0	7.9	1.4	31.4	0.6	3.0	0.2	2.6	9.1	1.9	100.0(240)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16.7	0.0	1.7	0.0	46.7	0.0	1.7	0.0	8.3	16.7	8.3	100.0(60)
노인부부	67.4	13.6	0.0	0.8	1.7	9.8	0.5	0.0	0.0	0.0	5.5	0.8	100.0(224)
자녀동거	8.0	28.1	16.1	14.4	1.6	23.8	1.5	0.7	0.0	0.7	5.1	0.0	100.0(206)
기타	0.0	0.0	0.0	0.0	0.0	0.0	0.0	45.5	0.0	0.0	18.2	36.4	100.0(11)
교육수준													
무학	11.5	22.0	13.5	9.4	2.8	29.1	1.2	2.5	0.3	1.5	4.7	1.7	100.0(135)
초등학교	28.8	23.8	2.5	7.7	0.0	20.8	0.9	1.3	0.0	2.5	10.5	1.4	100.0(175)
중학교	57.7	10.7	8.8	2.7	3.7	9.1	1.3	0.0	0.0	0.0	4.2	1.8	100.0(87)
고등학교	50.0	10.9	4.7	4.7	0.0	17.2	0.0	3.1	0.0	0.0	9.4	0.0	100.0(64)
전문대학 이상	47.6	26.2	0.0	4.8	0.0	11.9	0.0	0.0	0.0	0.0	0.0	9.5	100.0(41)
현취업상태													
취업중	41.4	27.3	0.0	17.2	0.0	10.3	0.0	0.0	0.0	3.4	0.0	0.0	100.0(29)
미취업	32.9	19.3	7.1	6.0	1.5	20.3	0.9	1.5	0.1	1.2	7.2	2.0	100.0(47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7.6	26.2	0.0	4.8	0.0	11.9	0.0	0.0	0.0	0.0	0.0	9.5	100.0(99)
제2오분위	37.1	27.0	0.0	0.6	0.4	16.4	1.4	2.4	0.0	1.3	11.8	1.6	100.0(112)
제3오분위	39.1	17.2	1.6	3.1	4.7	25.0	0.0	0.0	0.0	1.6	4.7	3.1	100.0(64)
제4오분위	10.9	25.2	8.8	10.9	4.0	25.0	0.0	3.5	0.0	0.0	11.7	0.0	100.0(80)
제5오분위	40.6	15.6	14.5	13.6	0.0	12.1	1.1	0.3	0.0	1.0	1.2	0.0	100.0(14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6.0	21.3	2.2	1.8	1.8	21.8	1.3	1.8	0.0	0.9	8.0	3.1	100.0(225)
50%~100%미만	21.5	21.5	10.4	7.4	2.2	23.7	1.5	2.2	0.0	1.5	7.4	0.7	100.0(135)
100%~150%미만	27.8	12.5	18.1	13.9	0.0	12.5	0.0	0.0	0.0	2.8	9.7	2.8	100.0(72)
150%이상	53.5	18.3	1.4	12.7	0.0	14.1	0.0	0.0	0.0	0.0	0.0	0.0	100.0(71)

주: 1)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678명 중 외출동행에 도움을 받은 50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식사준비에서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도움 빈도를 살펴보면, 식사준비의 특성상 거의 매일 이루어지는 경우가 전체 노인의 64.8%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반특성별로는 먼저 지역에서 동부 노인보다 읍·면부 노인이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15.4%로 높았으며, 도움 빈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성 노인은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가 12.6%인 것에 비해 남자 노인은 6.0%였다. 남성 노인의 경우 거의 매일 도움을 받는 비율이 8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구형태에서 도움을 받지 않는 비중을 보면 노인독거 가구(15.3%), 노인부부 가구(10.4%), 자녀동거 가구(8.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독거 가구의 경우 거의 매일의 비율이 29.2%로 다른 가구형태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교육수준에서는 대체적으로 고학력에 비해 저학력 또는 무학인 경우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취업상태별로 비교하면 도움을 받지 않는 비율이 취업 중인 노인에 비해 미취업 노인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도움 빈도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소득수준과 관련한 항목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이 보이지 않았다.

〈표 7-22〉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친척·이웃 등 비공식돌봄제공자의 식사준비 도움빈도

(단위: %, 명)

특성	도움받지않음	거의매일	주2~3회	일주일1회	격주1회	월1회이하	계 (명)
전체 ¹⁾	9.8	64.8	13.8	7.6	2.5	1.3	100.0(603)
지역							
동부	8.3	66.4	14.0	8.1	1.5	1.7	100.0(471)
읍·면부	15.4	59.2	13.4	5.8	6.2	0.0	100.0(132)
성							
남자	6.0	80.3	6.4	3.9	2.2	1.3	100.0(251)
여자	12.6	53.8	19.2	10.3	2.8	1.4	100.0(352)
연령							
65~69세	15.8	55.8	16.7	9.1	0.0	2.5	100.0(70)
70~74세	7.7	62.2	23.0	7.1	0.0	0.0	100.0(91)
75~79세	10.4	62.6	9.2	9.2	7.5	1.2	100.0(125)
80~84세	11.6	68.0	12.7	4.3	1.4	2.0	100.0(162)
85세 이상	6.2	69.0	12.1	9.4	2.3	1.0	100.0(15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7	68.4	11.5	7.2	1.7	1.5	100.0(321)
배우자 없음	10.0	60.7	16.5	8.1	3.5	1.1	100.0(281)
가구형태							
노인독거	15.3	29.2	25.0	15.3	11.1	4.2	100.0(73)
노인부부	10.4	63.6	13.7	8.4	2.0	1.8	100.0(269)
자녀동거	8.1	76.1	10.1	4.9	.8	0.0	100.0(247)
기타	0.0	76.9	23.1	0.0	0.0	0.0	100.0(13)
교육수준							
무학	12.0	51.2	18.3	12.3	3.1	3.1	100.0(151)
초등학교	10.6	64.9	13.1	5.9	4.7	0.8	100.0(201)
중학교	11.9	71.2	7.6	6.5	1.1	1.7	100.0(103)
고등학교	7.5	74.3	15.0	3.1	0.0	0.0	100.0(100)
전문대학 이상	0.0	72.9	14.6	12.5	0.0	0.0	100.0(48)
현취업상태							
취업중	8.3	68.8	12.5	2.1	8.3	0.0	100.0(48)
미취업	10.1	64.4	14.0	8.1	2.0	1.4	100.0(55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7	57.9	13.8	12.8	6.5	1.3	100.0(125)
제2오분위	11.3	62.4	15.5	4.8	3.5	2.5	100.0(126)
제3오분위	17.4	61.0	13.8	4.9	0.8	2.0	100.0(81)
제4오분위	10.1	69.8	9.5	8.2	2.4	0.0	100.0(91)
제5오분위	6.8	70.4	14.9	6.9	0.0	1.0	100.0(18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4	61.1	15.3	8.8	5.3	1.1	100.0(262)
50%이상~100%미만	12.2	70.5	9.0	5.8	0.6	1.9	100.0(156)
100%이상~150%미만	12.6	66.7	10.3	8.0	0.0	2.3	100.0(87)
150%이상	7.2	64.9	21.6	6.2	0.0	0.0	100.0(97)

주: 1) 돌봄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678명 중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603명을 대상으로 함.

비공식 도움제공자로부터 식사준비 도움을 받는 노인의 특성별 도움제공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비율이 42.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딸, 장남의 배우자, 장남,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배우자, 딸, 장남의 배우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순으로 높았으며, 읍·면부 노인은 배우자, 딸, 장남, 장남의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부 노인(44.4%)이 읍·면부 노인(34.7%)보다 배우자에 의한 도움 제공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낮을수록 배우자에 의한 도움 제공 비율이 높아졌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자녀(딸, 장남)와 장남의 배우자에 의한 도움 제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5세 이상에서는 장남의 배우자가 27.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딸(25.0%), 장남(13.9%) 순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 비교해보면, 무배우 노인의 경우 딸과 장남의 배우자에 의한 도움 제공 비율이 높았으며, 유배우 노인은 배우자의 도움 제공 비율이 79.4%로 주로 배우자에 의해 도움이 제공되고 있다. 가구형태 별로는 독거노인 가구의 경우 딸의 비율이 39.5%로 높으며,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의 비율도 23.6%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부부 가구의 유배우 노인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도움을 제공하는 비율이 딸과 장남의 배우자, 장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의한 도움이 주를 이루고,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자녀에 의한 식사준비 도움이 크게 나타났다. 현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중인 경우 도움제공자가 배우자인 비율이 69.3%로 높은 반면, 미취업 노인은 배우자 비율이 40.1%로 다소 낮은 수준이며, 딸과 장남의 배우자의 도움 제공 비율이 각각 18.8%, 12.7%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특정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7-23〉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친척·이웃 등 비공식돌봄제공자의 식사준비 주 도움제공자

(단위: %, 명)

특성	배우자	장남	장남 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 이하 배우자	딸	딸 배우자	친인척	비혈연 동거인	이웃 친구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기타	계(명)
전체 ¹⁾	42.4	8.5	11.7	3.5	1.7	17.6	0.1	2.7	0.1	0.8	8.4	2.5	100.0(543)
지역													
동부	44.4	6.9	11.1	3.6	2.1	18.1	0.2	2.9	0.0	0.8	7.7	2.3	100.0(432)
읍·면부	34.7	14.6	14.1	2.9	0.0	16.0	0.0	1.6	0.3	1.1	11.4	3.4	100.0(112)
성													
남자	78.7	1.8	1.4	4.1	0.2	7.6	0.0	0.7	0.0	0.0	5.2	0.4	100.0(236)
여자	14.5	13.6	19.6	3.0	2.8	25.3	0.2	4.2	0.1	1.5	10.9	4.2	100.0(307)
연령													
65~69세	78.0	0.0	3.0	0.0	0.0	5.0	0.0	7.5	0.0	0.0	1.6	4.8	100.0(58)
70~74세	62.4	4.7	2.1	5.1	0.6	14.0	0.0	0.0	0.0	0.0	7.7	3.5	100.0(84)
75~79세	50.8	4.2	7.4	4.7	0.4	11.4	0.0	2.4	0.0	3.1	11.8	3.7	100.0(113)
80~84세	41.4	11.9	8.3	1.5	3.1	22.3	0.0	0.9	0.0	0.0	8.9	1.7	100.0(143)
85세 이상	11.1	13.9	27.4	4.9	2.6	25.0	0.5	4.1	0.3	0.7	8.5	1.0	100.0(14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9.4	1.2	1.8	3.3	0.2	4.3	0.0	0.0	0.0	0.0	6.8	3.0	100.0(290)
배우자 없음	0.0	16.7	23.0	3.6	3.4	32.9	0.3	5.7	0.1	1.8	10.3	2.0	100.0(253)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11.5	7.7	0.0	0.0	39.5	1.1	2.4	0.0	7.4	23.6	6.7	100.0(61)
노인부부	84.0	1.5	1.6	0.0	0.2	4.3	0.0	0.0	0.0	0.0	6.3	2.2	100.0(241)
자녀동거	11.0	15.5	24.1	8.3	3.8	26.9	0.0	2.9	0.0	0.0	7.1	0.4	100.0(228)
기타	24.3	0.0	0.0	0.0	0.0	0.0	0.0	47.2	2.7	0.0	0.0	25.7	100.0(14)
교육수준													
무학	14.2	13.6	20.8	7.8	3.9	25.0	0.5	4.9	0.3	2.1	5.2	1.7	100.0(133)
초등학교	33.6	10.4	12.4	2.9	1.9	21.6	0.0	2.6	0.0	0.8	12.2	1.6	100.0(179)
중학교	56.4	0.8	10.1	0.0	0.6	13.5	0.0	1.7	0.0	0.3	15.8	0.9	100.0(91)
고등학교	70.2	3.9	4.0	3.4	0.0	10.9	0.0	1.9	0.0	0.0	2.7	3.0	100.0(92)
전문대학 이상	74.0	10.4	1.5	0.0	0.0	3.0	0.0	0.0	0.0	0.0	0.0	11.1	100.0(48)
현취업상태													
취업중	69.3	4.9	0.0	3.6	7.9	4.2	0.0	0.0	0.0	0.0	8.2	1.8	100.0(43)
미취업	40.1	8.8	12.7	3.5	1.2	18.8	0.1	2.9	0.1	0.9	8.4	2.6	100.0(50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7.0	11.6	8.4	0.6	0.0	23.9	0.6	1.3	0.3	0.7	10.2	5.4	100.0(114)
제2오분위	55.9	8.3	1.9	0.0	0.4	13.5	0.0	2.9	0.0	3.3	12.2	1.6	100.0(111)
제3오분위	45.1	4.5	5.3	1.3	0.0	26.2	0.0	0.6	0.0	0.0	16.1	1.0	100.0(66)
제4오분위	20.7	12.1	22.7	8.0	4.5	19.0	0.0	5.2	0.0	0.0	7.9	0.0	100.0(82)
제5오분위	46.6	6.3	17.4	6.3	2.9	12.3	0.0	3.0	0.0	0.0	2.1	3.1	100.0(17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8.7	9.8	5.2	0.3	0.2	17.8	0.3	2.0	0.2	1.0	11.3	3.3	100.0(240)
50%~100%미만	24.0	6.9	19.7	6.2	2.7	23.0	0.0	4.5	0.0	1.6	10.9	0.5	100.0(138)
100%~150%미만	27.0	5.1	29.2	4.3	5.4	18.2	0.0	4.6	0.0	0.0	4.8	1.4	100.0(75)
150%이상	66.5	10.0	2.3	6.9	1.1	8.5	0.0	0.0	0.0	0.0	0.0	4.7	100.0(91)

주: 1)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678명중 식사준비에 도움을 받은 543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신체기능 유지 지원에서의 가족 등에 의한 도움 빈도를 살펴본 결과, 도움 받지 않음이 32.9%, 도움 받음이 67.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보다 읍·면부 노인이 신체기능 유지 지원에서 도움받는 비율이 높으며, 성별로는 남자 노인보다 여자 노인이 신체기능 유지 지원에서 도움받는 비율이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도움 받는 비율이 높아지며, 85세 이상에서는 거의 매일 신체기능 유지 지원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이 무배우 노인보다 도움 받는다는 비율이 높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신체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도움 받는다는 비율이 70.8%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일수록 신체기능 유지 지원에서 도움 받는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이 취업 노인보다 신체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제5오분위에서 신체기능 유지 지원에서의 도움 비율이 가장 높고,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대비 150%이상인 군에서 신체기능 유지 지원에서의 도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24〉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친척·이웃 등 비공식돌봄제공자의 신체기능 유지 지원 도움빈도
(단위: %, 명)

특성	도움받지않음	거의매일	주2~3회	일주일1회	격주1회	월1회이하	계 (명)
전체 ¹⁾	32.9	18.1	13.3	21.7	6.5	7.5	100.0(603)
지역							
동부	34.0	19.2	13.3	19.3	5.4	8.6	100.0(471)
읍·면부	28.9	14.0	13.3	30.1	10.2	3.7	100.0(132)
성							
남자	34.4	19.1	11.4	21.7	6.8	6.6	100.0(251)
여자	31.8	17.3	14.6	21.7	6.3	8.2	100.0(352)
연령							
65~69세	64.7	10.3	5.9	4.4	1.5	13.2	100.0(70)
70~74세	38.9	12.2	11.1	16.7	7.8	13.3	100.0(91)
75~79세	27.8	23.0	15.1	25.4	4.0	4.8	100.0(125)
80~84세	28.4	16.0	11.1	28.4	8.0	8.0	100.0(162)
85세 이상	25.0	23.1	18.6	22.4	8.3	2.6	100.0(15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1.6	18.5	10.4	21.4	6.6	11.4	100.0(321)
배우자 없음	34.4	17.5	16.6	22.1	6.4	3.1	100.0(281)
가구형태							
노인독거	29.2	9.7	9.7	27.8	12.5	11.1	100.0(73)
노인부부	29.3	15.8	9.8	23.7	7.8	13.7	100.0(269)
자녀동거	36.3	23.2	17.9	19.0	3.3	.3	100.0(247)
기타	69.2	15.4	15.4	0.0	0.0	0.0	100.0(13)
교육수준							
무학	27.0	15.0	17.9	23.3	10.4	6.5	100.0(151)
초등학교	25.2	24.4	17.4	23.2	6.0	3.9	100.0(201)
중학교	34.5	14.6	10.6	28.2	6.2	5.9	100.0(103)
고등학교	49.0	13.7	4.0	11.5	4.8	16.9	100.0(100)
전문대학 이상	46.8	19.1	6.4	17.0	0.0	10.6	100.0(48)
현취업상태							
취업중	71.7	4.3	2.2	19.6	0.0	2.2	100.0(48)
미취업	29.7	19.2	14.2	21.8	7.0	8.1	100.0(55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7.0	18.0	14.8	23.8	13.9	2.5	100.0(125)
제2오분위	21.0	15.3	11.3	31.5	9.7	11.3	100.0(126)
제3오분위	27.5	21.3	15.0	31.3	3.8	1.3	100.0(81)
제4오분위	29.3	23.9	21.7	17.4	3.3	4.3	100.0(91)
제5오분위	49.2	15.7	8.6	11.9	2.2	12.4	100.0(18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2.9	15.6	14.1	29.4	11.8	6.1	100.0(262)
50%이상~100%미만	28.7	26.8	15.3	22.3	3.2	3.8	100.0(156)
100%이상~150%미만	40.2	18.4	18.4	10.3	3.4	9.2	100.0(87)
150%이상	58.6	11.1	3.0	11.1	0.0	16.2	100.0(97)

주: 1) 돌봄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678명 중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603명을 대상으로 함.

신체기능 유지지원에서의 가족 등의 비공식 돌봄제공자는 배우자가 32.4%, 딸이 22.5%,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19.9%, 장남이 11.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과 동부 노인 모두 신체기능 유지지원에서의 배우자의 도움 비중이 높다. 읍·면부 노인은 배우자와 같은 비중으로 신체기능 유지지원에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 신체기능 유지지원에서 남자 노인은 배우자의 도움 비중이 61.1%로 매우 높으며, 여자 노인은 딸의 비중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의 도움 비중이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에 의한 신체기능 유지지원에서의 도움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연령별로는 65~69세 연령군의 배우자 도움 비중이 가장 높고, 85세 이상에서 신체기능 유지지원에서의 사회복지관련종사자의 도움 비중이 높은 편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은 배우자의 도움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딸,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이다. 무배우 노인은 딸에 의한 도움 비중이 높으며, 이어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이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에서 딸에 의한 도움 비중이 높고, 노인부부가구는 배우자, 자녀동거가구는 딸, 기타가구는 친인척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인 군에서 딸에 의한 도움 비중이 높으며, 초등학교 졸업 이상인 군에서는 배우자의 도움 비중이 높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은 배우자, 딸의 도움 비중이 높고, 취업 노인은 배우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의 도움 비중이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제2오분위에서 다른 군과 비교해 신체기능 유지지원을 위해 배우자의 도움 비중이 높고, 제5오분위에서 다른 군과 비교해 딸의 도움 비중이 높은 편이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군과 중위소득 대비 50%이상~100%미만 군에서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의 도움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7-25〉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족·친척·이웃 등 비공식돌봄제공자의 신체기능 유지 지원 주도움제공자

(단위: %, 명)

특성	배우자	장남	장남 배우자	차남 이하	차남 이하 배우자	딸	친인척	비혈연 동거인	이웃 친구	사회복 지관련 중사자	기타	계 (명)
전체 ¹⁾	32.4	11.1	6.0	3.0	0.7	22.5	2.2	0.1	1.3	19.9	0.8	100.0(404)
지역												
동부	35.1	10.5	4.4	2.5	0.5	24.3	2.1	0.0	1.5	18.9	0.4	100.0(310)
읍·면부	23.4	13.2	11.4	4.6	1.4	16.8	2.7	0.4	0.6	23.4	2.2	100.0(94)
성												
남자	61.1	11.5	0.0	6.2	0.0	5.3	0.0	0.0	0.0	15.9	0.0	100.0(165)
여자	12.6	10.9	10.1	0.7	1.2	34.3	3.7	0.2	2.2	22.7	1.4	100.0(240)
연령												
65~69세	52.0	0.0	0.0	0.0	0.0	28.0	4.0	0.0	0.0	16.0	0.0	100.0(25)
70~74세	47.4	7.0	0.0	3.5	0.0	22.8	0.0	0.0	3.5	15.8	0.0	100.0(57)
75~79세	46.7	4.3	4.3	1.1	1.1	14.1	1.1	0.0	4.3	21.7	1.1	100.0(92)
80~84세	32.8	14.7	5.2	2.6	0.9	27.6	0.0	0.0	0.0	15.5	0.9	100.0(116)
85세 이상	9.7	16.8	12.4	5.3	0.0	23.9	5.3	0.0	0.0	25.7	0.9	100.0(11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9.6	8.9	0.0	4.4	0.0	13.2	0.0	0.0	0.8	12.8	0.3	100.0(220)
배우자 없음	0.0	13.7	13.1	1.2	1.6	33.6	4.8	0.2	1.9	28.4	1.4	100.0(185)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11.4	3.2	0.0	0.0	46.2	2.8	0.0	6.9	24.4	5.1	100.0(52)
노인부부	61.0	9.6	0.0	1.7	0.0	13.4	0.0	0.0	0.9	13.1	0.3	100.0(190)
자녀동거	9.5	13.3	14.3	5.5	1.8	26.5	3.0	0.0	0.0	26.1	0.0	100.0(158)
기타	0.0	0.0	0.0	0.0	0.0	0.0	55.0	7.3	0.0	37.8	0.0	100.0(5)
교육수준												
무학	11.7	13.2	8.0	3.9	1.4	28.4	6.0	0.3	1.9	23.8	1.4	100.0(111)
초등학교	33.9	9.0	5.7	2.6	0.9	23.3	1.5	0.0	1.0	21.0	1.2	100.0(150)
중학교	43.8	4.4	4.9	5.6	0.0	19.1	0.0	0.0	0.0	22.2	0.0	100.0(68)
고등학교	37.0	18.3	6.8	0.0	0.0	19.5	0.0	0.0	3.4	15.0	0.0	100.0(51)
전문대학 이상	74.5	18.5	0.0	0.0	0.0	7.0	0.0	0.0	0.0	0.0	0.0	100.0(25)
현취업상태												
취업중	49.6	10.7	0.0	0.0	0.0	13.8	0.0	0.0	0.0	25.9	0.0	100.0(14)
미취업	31.8	11.1	6.2	3.1	0.7	22.8	2.3	0.1	1.4	19.7	0.8	100.0(39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4.5	16.2	3.0	0.7	0.0	20.6	1.6	0.4	0.6	20.3	2.2	100.0(90)
제2오분위	41.8	10.0	1.0	0.0	0.0	20.3	2.7	0.0	3.0	20.5	0.7	100.0(100)
제3오분위	34.4	9.7	2.3	5.6	0.0	25.3	0.0	0.0	0.0	21.6	1.1	100.0(58)
제4오분위	7.3	10.0	8.8	5.1	0.7	20.1	6.8	0.0	0.0	41.2	0.0	100.0(64)
제5오분위	36.5	9.1	14.6	5.2	2.6	26.7	0.4	0.0	1.9	3.1	0.0	100.0(9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8.5	12.5	2.2	1.9	0.0	19.9	2.1	0.2	1.0	20.4	1.3	100.0(202)
50%~100%미만	20.1	10.9	9.7	2.9	0.4	24.3	4.2	0.0	1.3	25.6	0.6	100.0(111)
100%~150%미만	17.3	15.0	14.7	3.2	2.7	28.3	0.0	0.0	0.0	18.8	0.0	100.0(51)
150%이상	55.6	0.0	3.6	7.9	2.6	23.1	0.0	0.0	4.3	2.9	0.0	100.0(40)

주: 1) 가족, 친척, 친구·이웃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678명 중 신체기능 유지 지원에 도움을 받은 404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

개인 간병 또는 가사도우미를 활용하는 경우는 29명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평균 10시간 미만은 이용은 12명, 주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은 11명,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4명,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0명, 40시간 이상이 2명으로 나타났다.

〈표 7-26〉 노인의 일반특성별 개인 간병 또는 가사도우미 주평균 이용시간

(단위: 명)

특성	10시간 미만	10~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계 (명)
전체 ¹⁾	12	11	4	0	2	100.0 (29)

주: 1) 돌봄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678명 중 개인 간병이나 가사도우미에게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29명을 대상으로 함.

가족, 친인척, 간병인,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노인에게 그 도움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매우 충분은 5.2%, 충분 35.8%, 보통 35.1%, 부족 22.5%, 매우 부족 1.3%로 나타났다. 도움이 충분하다(매우충분+충분)는 41%, 보통은 35.1%, 부족하다(부족하다+매우부족하다)는 23.8%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20.5%)보다 읍·면부 노인(34.2%)의 도움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16.4%)보다 여자 노인(28.8%)의 도움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다. 연령별로는 75~79세 노인의 도움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4%로 가장 높고, 85세 이상 노인은 21.7%로 가장 낮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21.1%)보다 무배우 노인(26.8%)의 도움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도움이 부족하다는 비율이 37.1%로 가장 높고, 자녀동거가구가 17%로 가장 낮다. 노인부부가구와 기타가구는 각각 23.1%, 27.2%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인 군에서 도움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8.3%로 가장 높고, 이어서 초등학교 졸업 군 25%, 중학교 졸업 군과 전문대학 졸업 군 22.2%, 고등학교 졸업 군 17%이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18.7%)보다 미취업 노인(24.2%)의 도움이 부족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제2오분위에서 도움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3.4%로 가장 높고, 제 5오분위가 17.1%로 가장 낮다.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대비 100%이상~150%미만인 군에서 도움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7-27〉 노인의 일반특성별 도움 충분성

(단위: %, 명)

특성	매우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부족	계 (명)
전체 ¹⁾	5.2	35.8	35.1	22.5	1.3	100.0 (556)
지역						
동부	5.3	38.9	35.3	19.4	1.1	100.0 (423)
읍·면부	5.2	26.1	34.6	32.3	1.9	100.0 (133)
성						
남자	8.2	39.9	35.4	15.7	0.7	100.0 (224)
여자	3.2	33.1	34.9	27.1	1.7	100.0 (331)
연령						
65~69세	14.7	41.2	19.1	22.1	2.9	100.0 (68)
70~74세	2.4	32.5	42.2	22.9	0.0	100.0 (83)
75~79세	6.6	30.6	36.4	25.6	0.8	100.0 (121)
80~84세	4.2	31.9	39.6	21.5	2.8	100.0 (144)
85세 이상	2.4	43.5	32.5	21.2	0.5	100.0 (14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6	34.6	37.7	20.0	1.1	100.0 (291)
배우자 없음	3.8	37.2	32.3	25.3	1.5	100.0 (265)
가구형태						
노인독거	3.6	23.4	35.8	33.4	3.7	100.0 (106)
노인부부	5.1	32.1	39.7	21.8	1.3	100.0 (250)
자녀동거	4.9	47.9	30.2	17.0	0.0	100.0 (188)
기타	27.2	36.4	9.2	27.2	0.0	100.0 (11)
교육수준						
무학	3.0	27.7	41.0	26.6	1.7	100.0 (144)
초등학교	3.7	40.6	30.7	23.7	1.3	100.0 (180)
중학교	6.0	41.1	30.6	19.6	2.6	100.0 (95)
고등학교	5.8	36.7	40.5	17.0	0.0	100.0 (93)
전문대학 이상	15.8	29.5	32.4	22.2	0.0	100.0 (45)
현취업상태						
취업중	20.9	41.9	18.6	14.0	4.7	100.0 (43)
미취업	3.9	35.31	36.6	23.1	1.1	100.0 (51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6	32.2	41.9	18.7	0.6	100.0 (131)
제2오분위	2.7	32.6	31.4	29.5	3.9	100.0 (122)
제3오분위	2.2	42.9	29.4	25.5	0.0	100.0 (70)
제4오분위	8.0	30.5	32.2	26.7	2.2	100.0 (71)
제5오분위	6.0	40.5	36.3	17.1	0.0	100.0 (16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2	32.5	38.1	22.8	1.5	100.0 (261)
50%이상~100%미만	4.5	38.3	33.0	23.0	1.2	100.0 (133)
100%이상~150%미만	1.4	45.1	28.2	22.5	2.8	100.0 (71)
150%이상	9.2	34.7	35.5	20.6	0.0	100.0 (91)
2017년도	602	59.4	20.2	12.3	2.0	100.0 (1,641)

주: 1) 동거 가족원, 비동거 가족원, 친척·이웃·친구·지인, 개인 간병인 혹은 가사도우미,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노인 돌봄서비스 중 하나 이상의 주체로부터 돌봄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678명 중 본인응답자 556명을 대상으로 함.

ADL과 IADL에 제한이 있으나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 없어서라고 응답한 노인이 45.1%이며,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30.7%,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10.3%, 비용이 부담돼서 7.1%,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싫어서가 4.2%, 도움받는 방법을 알 수 없어서가 2.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48.7%)이 읍·면부 노인(35.8%)보다 도움이 필요 없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노인보다 남자 노인이 도움이 필요 없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도움이 필요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5~69세 노인은 도움이 필요 없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62.9%로 85세 이상 노인 31.6%보다 약 2배 높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이 53.2%로 무배우 노인이 34.9%보다 도움이 필요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에서 도움이 필요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2.2%로 가장 높으며, 노인독거가구는 34.7%로 가장 낮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움이 필요 없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65.4%)이 미취업 노인(40.4%)보다 도움이 필요 없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제1오분위에서, 중위소득별로는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군에서 도움이 필요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9.7%, 39.1%로 가장 낮다.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로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읍·면부 노인, 여자 노인, 75~79세 노인, 무배우 노인, 자녀동거가구 노인, 초등학교 졸업 노인 군, 미취업 노인, 제1오분위 군, 중위소득 대비 150%이상 군에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노인의 특성 살펴보면, 읍·면부 노인, 여자 노인, 85세 이상 노인, 무배우 노인, 기타가구 노인, 무학인 노인, 미취업 노인, 소득이 낮은 노인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28〉 노인의 일반특성별 돌봄이 필요하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도움이 필요없어서	가족에게 부담주고싶지않아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비용이 부담돼서	도움받는 방법을 알 수 없어서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싫어서	계 (명)
전체 ¹⁾	45.1	30.7	10.3	7.1	2.6	4.2	100.0 (520)
지역							
동부	48.7	27.4	9.9	7.9	2.0	4.1	100.0 (375)
읍·면부	35.8	39.1	11.4	5.2	4.2	4.3	100.0 (145)
성							
남자	58.0	22.2	5.5	5.7	2.1	6.5	100.0 (225)
여자	35.3	37.1	13.9	8.2	3.0	2.4	100.0 (296)
연령							
65~69세	62.9	20.4	5.4	6.2	2.8	2.2	100.0 (69)
70~74세	52.3	22.6	14.2	1.3	4.1	5.5	100.0 (91)
75~79세	41.1	39.0	7.2	6.8	2.1	3.8	100.0 (161)
80~84세	42.9	27.3	11.3	10.2	2.9	5.3	100.0 (128)
85세 이상	31.6	38.2	15.2	10.6	1.1	3.3	100.0 (7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3.2	26.7	7.6	5.0	2.6	4.8	100.0 (291)
배우자 없음	34.9	35.7	13.7	9.7	2.6	3.4	100.0 (229)
가구형태							
노인독거	34.7	31.9	18.1	11.1	1.4	2.8	100.0 (144)
노인부부	52.2	27.4	8.1	5.6	2.2	4.4	100.0 (270)
자녀동거	40.0	40.0	3.0	7.0	4.0	6.0	100.0 (100)
기타	50.0	0.0	30.0	0.0	20.0	0.0	100.0 (10)
교육수준							
무학	38.8	29.0	12.4	14.1	3.1	2.7	100.0 (127)
초등학교	41.6	35.4	10.8	5.3	2.3	4.7	100.0 (198)
중학교	47.0	31.6	10.3	3.6	5.0	2.6	100.0 (86)
고등학교	56.5	22.9	8.5	6.2	1.1	4.8	100.0 (87)
전문대학 이상	61.8	23.8	0.0	0.0	0.0	14.3	100.0 (21)
현취업상태							
취업중	65.4	17.3	7.8	5.2	3.2	1.0	100.0 (98)
미취업	40.4	33.8	10.9	7.6	2.5	4.9	100.0 (42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9.7	37.6	17.5	11.2	1.6	2.5	100.0 (140)
제2오분위	44.8	30.5	14.0	5.0	1.4	4.4	100.0 (116)
제3오분위	60.5	17.7	6.9	4.9	4.4	5.5	100.0 (108)
제4오분위	46.8	36.3	1.8	6.8	5.7	2.6	100.0 (87)
제5오분위	50.8	30.3	5.4	6.4	0.0	7.2	100.0 (6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9.1	34.3	14.1	7.6	2.2	2.7	100.0 (256)
50%이상~100%미만	51.4	23.5	8.1	7.8	3.7	5.4	100.0 (169)
100%이상~150%미만	52.1	30.6	1.3	5.0	2.5	8.4	100.0 (68)
150%이상	45.0	41.0	10.4	3.6	0.0	0.0	100.0 (27)
2017년도	45.6	25.8	27.7	0.7	0.1 ²⁾		

주: 1) ADL/IADL에서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 1개 이상 받은 응답자 1,233명 중 돌봄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555명 중 본인응답자 520명(대리응답 제외)을 대상으로 함. 2) 도움 받을 방법을 알 수 없어서와 기타가 포함된 항목임

3.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현황

응답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률은 4.3%이다. 4등급과 등급외자가 21.3%와 37.7%로 가장 높고, 3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등급, 1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에 의하면 2019년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누적 신청자는 1,113,093명(노인인구 대비 13.9%), 등급인정자는 772,20명(노인인구대비 9.6%)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본 조사에서의 장기요양보험 신청율이 행정통계에 비해 낮게 나타난 이유는 본 조사의 모집단은 일반거주시설(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장기입원 노인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4.1%)보다 읍·면부 노인(4.9%)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률이 높으며, 성별로는 남자 노인(3.2%)보다 여자 노인(5.1%)의 등급 신청률이 높다. 연령이 높을수록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률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85세 이상 군의 신청률은 19.5%로 65~69세 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2.5%)보다 무배우 노인(7.9%)의 등급 신청률이 약 3배 높으며, 가구형태별로는 자녀 동거가구의 등급 신청률이 7.7%로 가장 높고, 이어서 노인독거가구 6.5%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인 군에서 등급 신청률이 10.9%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0.9%)보다 미취업 노인(6.1%)의 등급 신청률이 월등히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대체적으로 저소득인 경우 등급 신청률이 높다. 중위소득별로 살펴보면 중위소득이 낮을수록 등급 신청률이 높으며,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1.5%)보다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24.0%)의 등급 신청률이 월등히 높다.

〈표 7-29〉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및 등급현황

(단위: %, 명)

특성	신청률 ¹⁾	최근에 받은 등급 ²⁾								계 (명)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 원등급	등급외	기타	
전체	4.3	0.6	5.4	18.8	21.3	9.2	6.8	37.7	0.1	100.0 (431)
지역										
동부	4.1	0.0	6.3	19.8	24.3	8.9	6.0	34.4	0.2	100.0 (312)
읍·면부	4.9	2.1	2.9	16.1	13.5	10.1	8.9	46.4	0.0	100.0 (119)
성										
남자	3.2	0.1	7.2	18.1	17.5	7.1	9.2	40.4	0.4	100.0 (138)
여자	5.1	0.8	4.5	19.1	23.2	10.2	5.7	36.5	0.0	100.0 (293)
연령										
65~69세	0.7	0.0	14.2	13.0	0.0	10.7	15.6	46.6	0.0	100.0 (22)
70~74세	2.2	0.2	5.1	3.6	9.4	13.1	4.3	64.3	0.0	100.0 (51)
75~79세	5.0	0.0	2.5	18.6	20.8	8.8	4.1	45.2	0.0	100.0 (114)
80~84세	8.0	0.6	4.7	22.3	13.2	6.4	13.5	39.4	0.0	100.0 (118)
85세 이상	19.5	1.3	7.2	22.7	38.2	10.4	2.5	17.1	0.5	100.0 (12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5	0.5	6.8	16.9	19.3	7.9	5.8	42.4	0.4	100.0 (169)
배우자 없음	7.9	0.6	4.4	20.0	22.7	10.1	7.5	34.7	0.0	100.0 (262)
가구형태										
노인독거	6.5	0.7	4.0	15.6	27.6	9.8	7.8	34.5	0.0	100.0 (129)
노인부부	2.3	0.6	6.6	16.9	16.3	7.3	4.6	47.7	0.0	100.0 (138)
자녀동거	7.7	0.5	5.6	23.8	21.1	10.7	8.2	29.7	0.4	100.0 (157)
기타	3.8	0.0	0.0	0.0	11.1	5.5	0.0	83.3	0.0	100.0 (7)
교육수준										
무학	10.9	0.6	6.8	23.0	28.0	10.4	2.3	28.8	0.0	100.0 (118)
초등학교	5.3	1.0	4.5	19.8	20.9	10.9	6.3	36.6	0.0	100.0 (168)
중학교	3.5	0.1	1.5	14.8	18.5	5.7	10.7	47.9	0.8	100.0 (81)
고등학교	1.7	0.0	13.0	7.8	11.1	9.0	13.2	45.9	0.0	100.0 (50)
전문대학 이상	2.3	0.0	0.0	33.0	22.8	0.0	5.3	38.9	0.0	100.0 (14)
현취업상태										
취업중	0.9	1.3	0.0	20.6	0.0	17.3	14.2	46.7	0.0	100.0 (34)
미취업	6.1	0.5	5.8	18.6	23.2	8.6	6.2	37.0	0.2	100.0 (39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2	1.7	4.5	21.5	21.8	11.3	7.7	31.5	0.0	100.0 (105)
제2오분위	4.4	0.0	6.0	18.6	27.2	8.5	8.5	31.2	0.0	100.0 (89)
제3오분위	4.4	0.8	5.7	18.2	17.3	11.3	1.2	45.5	0.0	100.0 (89)
제4오분위	4.4	0.0	1.3	18.8	17.9	10.6	0.0	51.3	0.0	100.0 (88)
제5오분위	2.9	0.0	11.5	14.9	23.0	1.6	21.5	26.5	1.1	100.0 (5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8	0.9	5.8	21.1	22.0	10.5	6.9	32.9	0.0	100.0 (194)
50%이상~100%미만	4.6	0.5	3.3	18.8	19.6	11.5	2.2	43.8	0.4	100.0 (157)
100%이상~150%미만	3.3	0.0	9.8	11.5	23.8	2.7	16.8	35.4	0.0	100.0 (54)
150%이상	2.4	0.0	5.5	16.1	22.4	0.0	13.3	42.7	0.0	100.0 (26)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	0.3	2.6	5.6	7.8	7.4	7.1	69.2	0.0	100.0 (135)
제한 있음	24.0	0.7	6.6	24.8	27.6	10.1	6.7	23.3	0.2	100.0 (296)
2017	4.6	4.6	6.9	30.0	36.7	7.5	-	10.1	4.2	100.0 (47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 2) 장기요양등급신청 경험자 431명을 대상으로 함.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의 각 서비스별 이용률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문요양이 62.5%로 가장 많으며, 방문간호 16.6%, 방문목욕 32.6%, 주야간보호 25.9%, 단기보호 4.9%, 복지용구 21.2%이다. 지역별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면,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주야간 보호와 복지용구의 이용률이 높으며, 읍·면부 노인은 동부 노인에 비해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의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은 여자 노인에 비해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의 이용률이 높으며,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보다 방문요양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률이 높으며, 연령이 낮은 경우 비교적 주야간보호 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대체적으로 유배우 노인이 무배우 노인보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방문요양에서는 노인독거가구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방문간호에서는 노인부부가구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방문목욕에서는 노인부부가구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주야간보호에서는 자녀동거가구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단기보호는 노인독거가구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복지용구는 기타가구의 이용률이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방문요양에서는 무학인 군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방문간호에서는 전문대학 이상인 군의 이용률이 가장 높다. 방문목욕에 대해서는 전문대학 이상 군과 무학인 군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이 취업 노인보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복지용구의 이용률이 높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 있는 노인이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의 이용률이 높다.

〈표 7-30〉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서비스율

(단위: %, 명)

특성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	단기보호	복지옹구	(명)
전체 ¹⁾	62.5	16.6	32.6	25.9	4.9	21.2	(259)
지역							
동부	61.9	13.8	30.9	26.1	1.9	21.6	(196)
읍·면부	64.5	25.4	38.0	25.2	14.0	20.0	(63)
성							
남자	58.8	17.9	39.4	34.0	7.1	22.1	(81)
여자	64.2	16.0	29.6	22.3	3.8	20.9	(178)
연령							
65~69세	36.4	18.2	27.3	45.5	0.0	9.1	(11)
70~74세	61.1	27.8	44.4	22.2	16.5	27.8	(18)
75~79세	61.3	15.7	33.6	31.7	5.0	15.9	(63)
80~84세	63.2	14.7	32.1	29.9	5.9	27.9	(67)
85세 이상	66.0	16.5	31.6	18.5	2.0	21.0	(1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3.4	17.5	39.9	32.0	4.8	25.3	(97)
배우자 없음	62.0	16.0	28.3	22.7	4.9	18.8	(162)
가구형태							
노인독거	77.4	14.6	29.6	19.0	9.4	21.1	(84)
노인부부	58.3	22.3	37.4	28.5	6.5	22.4	(72)
자녀동거	53.9	13.9	31.7	30.4	0.0	20.0	(102)
기타	100.0	0.0	0.0	0.0	0.0	100.0	(1)
교육수준							
무학	75.2	14.7	40.2	15.2	2.5	20.3	(80)
초등학교	57.0	15.5	29.2	23.7	2.8	19.9	(106)
중학교	66.8	23.7	28.7	43.5	15.4	26.5	(38)
고등학교	41.9	11.5	19.2	44.9	11.5	15.4	(26)
전문대학 이상	55.4	37.5	55.4	22.2	0.0	37.1	(8)
현취업상태							
취업중	28.6	6.7	6.7	35.7	6.7	6.7	(14)
미취업	64.5	17.2	34.3	25.5	4.9	22.3	(24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6.1	20.9	38.0	15.3	11.1	24.0	(72)
제2오분위	72.4	14.0	26.3	28.1	6.8	19.3	(58)
제3오분위	61.3	18.4	37.5	10.2	0.0	14.3	(49)
제4오분위	67.5	27.5	45.0	40.0	2.5	37.5	(40)
제5오분위	39.0	0.0	14.3	46.3	0.0	9.8	(4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7.4	20.2	35.7	19.3	9.4	23.2	(126)
50%이상~100%미만	68.8	14.1	38.0	21.4	0.0	23.4	(84)
100%이상~150%미만	39.7	11.9	14.7	44.1	2.9	17.6	(34)
150%이상	40.0	13.3	20.0	60.0	0.0	0.0	(15)
기능상태							
제한없음	59.4	11.9	16.6	14.7	7.3	11.9	(42)
제한있음	63.1	17.6	35.7	28.1	4.1	23.0	(217)
2017년도 ²⁾	57.8	4.8	8.4	5.0	0.0	27.8	(477)

주: 1)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259명을 대상으로 함. 2)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477명을 대상으로 함.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61.8%가 건강이 양호해서로 답하였으며, 제도를 알지 못해서가 9.7%,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10.4%, 타인의 도움을 희망하지 않아서 7.7%,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8.6% 등으로 나타났다.

제도를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읍·면부노인, 여자 노인, 80세 이상 노인, 무배우 노인, 노인독거가구, 무학인 군, 미취업 노인, 저소득 가구 노인,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응답 비율이 높다.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으나,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읍·면부 노인, 여자 노인, 고연령 노인, 무배우 노인, 저학력 노인, 미취업 노인, 소득이 낮은 노인,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응답 비율이 높다. 이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노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읍·면부 노인, 남자 노인, 75세 이상의 고연령 노인, 무배우 노인, 노인독거가구,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 취업한 노인, 소득이 낮은 노인,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7-31〉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미신청 이유

(단위: %, 명)

특성	건강 양호	제도를 알지 못해서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타인의 도움 비희망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요양 병원 희망	원하는 서비스 부재	현 서비스 로 충분	기타	계 (명)
전체 ¹⁾	61.8	9.7	10.4	7.7	8.6	0.8	0.3	0.7	0.1	100.0 (9,663)
지역										
동부	65.6	8.7	10.0	7.2	6.5	0.8	0.3	0.8	0.1	100.0 (7,338)
읍·면부	49.8	13.1	11.4	9.1	15.3	0.8	0.3	0.2	0.0	100.0 (2,325)
성										
남자	63.8	8.9	9.0	7.3	8.8	0.8	0.4	0.8	0.2	100.0 (4,208)
여자	60.3	10.3	11.4	7.9	8.4	0.8	0.3	0.6	0.0	100.0 (5,456)
연령										
65~69세	74.9	7.7	6.0	4.3	5.2	0.8	0.3	0.8	0.1	100.0 (3,322)
70~74세	62.5	10.1	11.6	6.5	7.5	0.8	0.4	0.6	0.0	100.0 (2,290)
75~79세	55.6	9.2	12.2	9.4	12.2	0.5	0.3	0.5	0.1	100.0 (2,178)
80~84세	46.7	14.2	12.5	12.9	12.1	0.7	0.3	0.7	0.0	100.0 (1,355)
85세 이상	40.9	11.7	19.5	13.3	10.4	1.8	0.3	1.2	1.0	100.0 (51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5.3	9.0	9.1	7.0	7.8	0.6	0.3	0.7	0.1	100.0 (6,609)
배우자 없음	54.2	11.2	13.1	9.1	10.2	1.0	0.4	0.7	0.0	100.0 (3,054)
가구형태										
노인독거	52.0	13.0	11.6	9.0	12.1	0.9	0.6	0.8	0.0	100.0 (1,868)
노인부부	63.8	9.6	9.2	7.2	8.4	0.7	0.3	0.7	0.2	100.0 (5,759)
자녀동거	65.0	7.1	12.4	8.0	6.0	0.8	0.2	0.4	0.0	100.0 (1,868)
기타	68.0	6.8	13.0	5.9	4.3	0.0	0.0	2.1	0.0	100.0 (168)
교육수준										
무학	43.2	15.2	13.7	11.2	14.9	0.7	0.3	0.8	0.0	100.0 (955)
초등학교	54.7	10.3	13.2	8.6	11.5	0.8	0.4	0.3	0.2	100.0 (3,030)
중학교	61.8	11.1	10.7	7.6	7.1	0.6	0.3	0.7	0.0	100.0 (2,273)
고등학교	71.7	7.6	7.1	5.7	5.5	0.9	0.3	1.0	0.2	100.0 (2,820)
전문대학 이상	81.1	2.6	4.6	6.7	3.5	0.5	0.0	0.9	0.0	100.0 (585)
현취업상태										
취업중	69.0	7.3	6.8	5.2	10.2	0.7	0.4	0.5	0.0	100.0 (3,530)
미취업	57.7	11.1	12.4	9.1	7.6	0.8	0.3	0.8	0.2	100.0 (6,1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1.6	12.2	11.6	8.3	14.1	0.8	0.4	0.9	0.1	100.0 (1,914)
제2오분위	56.1	11.6	11.2	8.8	11.2	0.3	0.3	0.5	0.0	100.0 (1,929)
제3오분위	61.6	11.2	10.7	6.7	8.0	0.9	0.3	0.5	0.0	100.0 (1,928)
제4오분위	68.5	8.9	8.6	7.4	5.0	0.8	0.4	0.5	0.0	100.0 (1,934)
제5오분위	71.0	4.9	9.7	7.1	4.8	1.0	0.2	1.0	0.4	100.0 (1,95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4.5	11.8	11.5	8.4	12.2	0.5	0.2	0.7	0.1	100.0 (3,805)
50%이상~100%미만	63.0	10.7	10.2	7.5	7.2	0.7	0.5	0.3	0.0	100.0 (3,224)
100%이상~150%미만	71.1	6.1	8.5	6.7	5.1	1.1	0.3	1.0	0.0	100.0 (1,593)
150%이상	70.6	4.9	9.5	7.0	4.8	1.2	0.1	1.2	0.8	100.0 (1,042)
기능상태										
제한없음	65.9	8.9	8.9	6.9	7.9	0.7	0.3	0.6	0.0	100.0 (8,728)
제한있음	23.9	17.1	24.1	15.1	15.3	1.2	0.5	1.6	1.1	100.0 (935)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097명 중 등급신청을 한 적이 없는 응답자 9,6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제 8 장

노인의 경제상태

제1절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제2절 자산과 부채

제3절 가구지출과 개인지출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제 8 장 노인의 경제상태

본 장에서는 노인의 소득과 지출, 자산 및 부채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의 경우 응답 노인과 그 외 가구원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가구소득에서 노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소득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가구 내 노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출은 노인가구의 월평균 지출수준과 함께 노인을 위한 지출 그리고 노인가구의 지출 중 부담되는 항목, 주거비지출액을 추가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가구의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그리고 부채 보유 여부와 규모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경제상태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의 제도적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본 장의 소득 및 자산 등의 금액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임을 밝힌다. 소득이나 자산의 경우 보유 개인을 기준으로 평균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는 노인 전체의 경제상태를 조망한다는 측면에서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제1절 가구소득 및 개인소득

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가구의 본인 및 그 외 가구원 그리고 가구의 2019년 연간 소득을 조사하였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공적이전소득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공적급여를 포함하며,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한다.

1. 가구소득

가구소득을 구성하고 있는 소득원천별로 해당 소득의 존재 여부를 살펴본 <표 8-1>에 의하면 노인의 95.1%는 사적이전소득을, 87.1%는 공적이전소득을 갖고 있어 대부

분의 노인들이 이전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소득 44.0%, 재산소득 34.8%, 사업소득 17.5%, 사적연금소득 13.0%, 그리고 기타소득 0.1%의 순으로 각 소득원을 갖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근로소득(46.7%), 재산소득(38.0%), 사적연금소득(15.5%)의 보유율이 높고, 읍·면부 노인은 동부 노인에 비해 사업소득(27.8%), 사적이전소득(95.9%), 그리고 공적이전소득(90.2%)에서 보유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사업소득(20.5%), 사적연금소득(15.5%)에서 보유율이 높고, 여자 노인은 사적이전소득(95.3%)과 공적이전소득(89.3%)에서 더 높은 보유율을 나타냈다. 공적이전소득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남자 노인의 경우 공적연금(46.3%)의 보유율이 높은 반면, 여자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76.6%)의 보유율이 높은 특성이 있다.

한편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69세 연령군에서는 근로소득(57.1%), 사업소득(26.0%), 재산소득(38.8%)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유율이 높다. 또한, 80~84세까지 연령대가 높을수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연금소득의 보유율이 낮아지고,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의 보유율은 높아지는 경향성이 확인된다.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의 경우 사업소득이 20.8%, 사적이전소득 95.2%, 사적연금소득 15.7%로 무배우 노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무배우 노인은 근로소득 45.7%, 재산소득 43.0%, 공적이전소득 90.2%로 유배우 노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근로소득(26.7%), 사업소득(9.0%), 사적이전소득(91.6%) 보유율은 낮은 반면, 공적이전소득은 다른 가구형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노인부부가구는 사업소득(20.3%), 사적연금소득(16.4%)에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높은 보유율을 나타낸 반면, 재산소득(28.6%)은 낮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자녀동거가구에서는 근로소득(77.6%)과 사적이전소득(99.5%)이 높고 사적연금소득(7.8%)의 보유율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높다가 낮아지는 $\cap$ 자형을 나타내는 반면, 재산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의 보유율이 높고 공적이전소득의 보유율은 낮은 경향이 있다.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취업 노인은 근로소득(69.7%), 사업소득(36.3%)의 보유율이 미취업 노인보다 높은 반면, 미취업 노인은 공적이전소득(93.7%)의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별로 살펴보

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연금소득이 높은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하여 사적이전소득은 $\cap$ 형의 관계성을 보이지만 소득수준별 차이가 크지는 않다. 공적이전소득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다. 기능상태별 소득원천별 보유율에 서는 기능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근로소득(45.2%), 사업소득(18.3%), 재산소득(35.3%), 사적연금소득(13.2%)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사적이전소득(96.4%)과 공적이전소득(92.3%)은 기능에 제한이 있는 노인이 조금 더 높다. 공적이전소득 중 공적연금은 기능상 제한이 없는 경우가 41.8%로 다소 높고, 그 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공적급여의 보유율은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다소 높게 나타났다(각각 81.5%, 13.5%, 19.4%).

〈표 8-2〉를 통하여 노인가구의 소득원천별 금액과 구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가구의 연 총소득은 3,026.5만원이고, 소득원천별 구성비율은 근로소득이 1,077.8만원(35.6%)으로 가장 많고, 공적이전소득 675.6만원(22.3%), 사업소득 465.5만원(15.4%), 사적이전소득 353.7만원(11.7%), 재산소득 294.5만원(9.7%), 그리고 사적연금소득 158만원(5.2%)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일반특성별 소득규모와 구성을 보면, 우선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연 총 가구소득은 3,295.7만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연 2,184.6만원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동부와 읍·면부의 소득구성을 비교해보면,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 1,221.7만원(37.1%), 재산소득 366.2만원(11.1%), 그리고 사적연금소득이 189.2만원(5.7%)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읍·면부 노인은 사업소득이 478.4만원(21.9%)으로 동부 노인보다 더 높은 수준인데,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읍·면부 노인은 사적이전소득 321.3만원(14.7%), 공적이전소득 621.6만원(28.5%)으로 동부 노인보다 금액은 적지만, 연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가구소득이 3,158.0만원으로 여자 노인의 가구소득 2,927.2만원 보다 연 230.8만원 더 많다. 소득항목별로 살펴보면, 남자 노인은 사업소득이 541.8만원(17.2%), 공적이전소득이 744.7만원(23.6%) 그리고 사적연금소득이 196.9만원(6.2%)으로 더 많았으며, 여자 노인은 근로소득이 1,102.8만원(37.7%), 재산소득이 302.2만원(10.3%), 사적이전소득이 359.8만원(12.3%)으로 다소 높다. 연령별 소득을 비교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낮으나, 85세 이상의 경우에는 다소 높은 경

향이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은 연 3,181.9만원으로 무배우자의 연소득 2,709.1만원보다 높다. 그리고 유배우 노인은 사업소득이 551.8만원(17.3%), 공적이전소득이 780.2만원(24.5%), 그리고 사적연금소득이 203.5만원(6.4%)이 무배우 노인에 비해 많은 반면, 무배우 노인은 근로소득이 1,170.5만원(43.2%), 재산소득이 381.9만원(14.1%), 기타소득이 4.3만원(0.2%)으로 유배우 노인에 비해 많다. 한편 유배우 노인의 사적이전소득은 362.2만원(11.4%)으로 규모면에서는 무배우 노인보다 더 높지만 비율에서는 더 낮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연 1,444.0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 노인부부가구 연 2,897.8만원, 기타가구 연 2,992.9만원, 자녀동거가구 연 4,965.0만원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소득구성을 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에는 공적이전소득이 466.2만원(32.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사적이전소득 267.1만원(18.5%), 근로소득 258.9만원(17.9%)으로 이들 소득이 전체 소득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는 공적이전소득이 788.6만원(27.2%)으로 가장 많지만, 그 다음 근로소득 768.8만원(26.5%), 사업소득 520.2%(18.0%), 사적이전소득 358.9만원(12.4%)으로 독거노인에 비해 근로 및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노인독거가구와 노인부부가구 모두 가구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공적이전소득은 노년기 소득원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2,792.0만원(56.2%)로 가장 높으며, 사업소득이 612.8만원(12.3%)으로 다른 가구형태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가구는 근로소득 994.6만원(33.2%), 사적이전소득 632.6만원(21.1%)이며, 공적이전소득 846.1만원(28.3%)으로 노인독거가구보다도 많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노인의 경우, 연 총 가구소득은 5,892.3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무학의 경우 연 2,054.1만원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고학력인 경우 근로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사업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의 비중이 큰 특징이 발견되었다. 전문대학 이상 학력자는 근로소득이 1,967.3만원(33.4%)으로 연 총소득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공적이전소득이 1,290.6만원(21.9%), 사업소득 1,192.1만원(20.2%), 사적연금소득 620.8만원(10.5%) 순으로 높다. 반면 무학인 노인은 근로소득이 802.0만원(39.0%)으로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 공적이전소득이 533.3만원(26.0%), 사적이전소득 374.4만원(18.2%) 순으로 높다. 따라서 고학력 노인은 저학력 노인에 비해 소득구성이 상대적으로 고른 편임을 알 수 있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 노인의 연소득은 3,391.3만원, 미취업 노인의 연소득은 2,827.6만원으로 취업 노인의 소득이 다소 높게 나타났고, 취업 노인은 근로소득 1,442.3만원(42.5%), 사업소득 836.0만원(24.7%)에서 미취업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취업 노인은 사적이전소득 393.1만원(13.9%), 공적이전소득 801.2만원(28.3%), 사적연금소득 196.2만원(6.9%)에서 취업 노인보다 높다.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 등이전소득의 비중이 높은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중위소득 150% 이상인 노인은 근로소득 3,486.8만원(35.7%), 사업소득 2,063.1만원(21.1%), 그리고 재산소득 1,991.1만원(20.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위소득 50% 미만에서는 공적이전소득 509.1만원(50.8%), 사적이전소득 294.6만원(29.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 연소득이 3,062.4만원으로 제한이 있는 노인의 2,768.4만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의 제한이 없는 노인은 근로소득 1,095.7만원(35.8%), 공적이전소득 675.7만원(22.1%), 사업소득 490.4만원(16.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한이 있는 노인은 근로소득 948.6만원(34.3%), 공적이전소득 675.1만원(24.4%), 사적이전소득 399.0만원(14.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8-1〉 노인의 일반특성별 및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가구소득)

(단위: %, 명)

특성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계	사적연 금소득 ²⁾	기타 소득	(명)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가장생활 보장급여	기타 공적급여				
전체 ¹⁾	44.0	17.5	34.8	95.1	40.5	71.6	5.6	15.4	87.1	13.0	0.1	(10,097)
지역												
동부	46.7	14.3	38.0	94.9	42.9	68.8	5.6	14.4	86.1	15.1	0.1	(7,651)
읍·면부	35.7	27.8	24.8	95.9	32.8	80.3	5.5	18.4	90.2	6.5	0.0	(2,446)
성												
남자	44.0	20.5	34.3	94.8	46.3	64.9	5.3	15.8	84.3	15.5	0.0	(4,346)
여자	44.0	15.3	35.1	95.3	36.0	76.6	5.8	15.1	89.3	11.1	0.1	(5,751)
연령												
65~69세	57.1	26.0	38.8	94.3	44.7	53.9	3.7	10.8	76.3	16.5	0.1	(3,344)
70~74세	41.9	16.9	34.9	94.2	47.4	71.3	5.4	16.4	88.3	16.4	0.0	(2,342)
75~79세	37.1	12.9	31.3	95.9	40.5	81.9	7.6	17.9	94.6	11.5	0.2	(2,292)
80~84세	33.1	9.6	31.5	96.7	28.2	88.6	6.5	18.7	94.9	5.8	0.0	(1,475)
85세 이상	33.7	10.6	33.3	96.2	21.4	88.7	6.9	19.3	94.4	4.4	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3.2	20.8	30.8	95.2	47.2	67.3	3.9	18.4	85.6	15.7	0.0	(6,779)
배우자 없음	45.7	10.8	43.0	94.8	26.7	80.3	9.0	9.2	90.2	7.4	0.2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26.7	9.0	46.3	91.6	28.2	78.8	12.0	9.8	89.9	8.6	0.1	(1,998)
노인부부	38.4	20.3	28.6	94.8	47.8	67.7	4.3	17.7	86.1	16.4	0.0	(5,898)
자녀동거	77.6	18.6	41.5	99.5	30.4	74.7	2.8	13.0	86.8	7.8	0.1	(2,026)
기타	43.1	10.2	35.0	95.8	50.9	83.5	6.7	28.9	94.6	9.1	2.0	(174)
교육수준												
무학	36.2	11.9	26.0	96.1	23.4	90.7	8.6	17.5	96.2	2.2	0.0	(1,073)
초등학교	40.8	13.3	31.8	95.1	34.3	86.1	6.9	19.0	93.8	7.8	0.1	(3,198)
중학교	45.5	17.8	31.5	94.7	41.3	74.2	5.9	15.3	89.3	12.8	0.0	(2,356)
고등학교	49.1	23.3	40.4	95.2	50.1	52.9	3.3	12.1	78.1	19.2	0.1	(2,870)
전문대학 이상	44.4	21.3	52.8	94.0	54.8	38.7	2.6	8.7	69.3	31.1	0.0	(599)
현 취업상태												
취업중	69.7	36.3	32.8	94.8	33.8	54.4	4.1	11.5	75.1	11.5	0.0	(3,564)
미취업	30.0	7.3	35.9	95.3	44.1	80.9	6.4	17.6	93.7	13.8	0.1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6	5.4	27.5	91.2	25.5	84.6	8.8	12.0	92.6	8.3	0.2	(2,019)
제2오분위	28.5	8.6	31.5	94.9	40.3	87.1	8.3	21.5	95.1	7.1	0.0	(2,020)
제3오분위	40.4	21.3	31.6	96.5	44.6	74.1	4.8	19.2	86.7	11.9	0.0	(2,017)
제4오분위	58.3	24.1	34.0	96.9	45.8	63.4	3.3	13.2	85.4	14.9	0.0	(2,024)
제5오분위	69.2	28.4	49.3	96.1	46.1	48.7	2.8	11.1	75.6	22.8	0.1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5.9	7.7	26.6	93.2	33.3	87.2	7.7	18.8	94.4	7.4	0.1	(3,999)
50%이상~100%미만	49.3	20.3	33.0	97.4	43.2	73.0	4.8	16.1	88.1	12.6	0.0	(3,382)
100%이상~150%미만	64.9	24.6	44.3	95.8	46.3	55.4	2.6	10.1	79.0	15.0	0.0	(1,647)
150%이상	62.4	34.4	56.4	94.0	50.4	33.9	4.5	8.6	69.4	32.1	0.2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45.2	18.3	35.3	94.9	41.8	70.2	4.5	14.8	86.4	13.2	0.1	(8,864)
제한 있음	35.7	12.3	31.2	96.4	30.6	81.5	13.5	19.4	92.3	11.4	0.0	(1,233)
2017년도	40.7	25.4	34.7	94.7	49.4	70.4	7.0	24.6	93.9	2.0	6.6	(10,29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 해(2019.1.1.~2019.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표 8-2〉 노인의 일반특성별 연간 총소득, 소득원천별 금액 및 구성 비율(가구소득)

(단위: 만원, %)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연금 소득 ²⁾	기타소득	연 총소득
전체 ¹⁾	1,077.8	465.5	294.5	353.7	675.6	158.0	1.4	3,026.5
지역								
동부	1,221.7	461.4	366.2	364.0	692.9	189.2	0.2	3,295.7
읍·면부	627.3	478.4	70.5	321.3	621.6	60.5	5.0	2,184.6
성								
남자	1,044.6	541.8	284.4	345.6	744.7	196.9	0.0	3,158.0
여자	1,102.8	407.9	302.2	359.8	623.4	128.7	2.5	2,927.2
연령								
65~69세	1,635.1	819.0	335.6	316.1	619.1	157.2	4.1	3,886.3
70~74세	839.6	372.6	435.4	338.5	758.1	223.1	0.0	2,967.4
75~79세	769.1	272.9	254.6	370.7	725.7	175.4	0.1	2,568.5
80~84세	709.9	181.2	106.6	410.1	628.1	78.4	0.0	2,114.4
85세 이상	990.2	304.1	141.9	414.3	599.3	46.4	0.0	2,496.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032.3	551.8	251.8	362.2	780.2	203.5	0.0	3,181.9
배우자 없음	1,170.5	289.1	381.9	336.3	461.9	65.1	4.3	2,709.1
가구형태								
노인독거	258.9	179.5	196.4	267.1	466.2	69.7	6.1	1,444.0
노인부부	768.8	520.2	243.7	358.9	788.6	217.6	0.0	2,897.8
자녀동거	2,792.0	612.8	546.7	399.8	538.4	74.4	0.8	4,965.0
기타	994.6	181.3	210.2	632.6	846.1	126.8	1.2	2,992.9
교육수준								
무학	802.0	210.2	106.4	374.4	533.3	27.8	0.0	2,054.1
초등학교	845.2	260.9	174.7	356.3	603.3	70.3	0.1	2,310.8
중학교	1,043.8	391.6	124.3	359.8	617.4	127.1	0.0	2,664.0
고등학교	1,282.2	698.1	598.5	341.4	728.8	233.3	4.8	3,887.1
전문대학 이상	1,967.3	1,192.1	484.5	337.1	1,290.6	620.8	0.0	5,892.3
현 취업상태								
취업중	1,442.3	836.0	298.1	281.4	445.4	88.1	0.0	3,391.3
미취업	878.9	263.4	292.6	393.1	801.2	196.2	2.2	2,827.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7.5	11.5	21.5	197.2	365.1	10.3	0.1	673.3
제2오분위	135.6	50.0	42.9	371.5	607.9	32.2	0.0	1,240.1
제3오분위	508.0	287.5	107.6	407.4	698.4	90.8	0.0	2,099.6
제4오분위	1,358.9	554.5	158.8	356.4	764.6	172.5	0.0	3,365.7
제5오분위	3,319.8	1,424.6	1,142.9	436.0	942.2	484.6	6.9	7,757.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09.1	39.3	28.8	294.6	509.1	19.1	3.1	1,003.1
50%이상~100%미만	931.9	346.0	127.9	383.8	675.6	107.8	0.0	2,572.9
100%이상~150%미만	2,167.1	709.9	181.9	364.1	834.7	246.8	0.0	4,504.5
150%이상	3,486.8	2,063.1	1,991.1	463.4	1,053.7	700.5	1.6	9,760.2
가능상태								
제한 없음	1,095.7	490.4	313.7	347.4	675.7	138.0	1.6	3,062.4
제한 있음	948.6	287.0	156.5	399.0	675.1	302.2	0.0	2,768.4
2017년도	885.7	338.8	224.1	392.4	710.4	15.4	22.6	2,589.7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연금소득 ²⁾	기타소득	계(명)
〈구성비〉								
전체 ¹⁾	35.6	15.4	9.7	11.7	22.3	5.2	0.0	100.0 (10,097)
지역								
동부	37.1	14.0	11.1	11.0	21.0	5.7	0.0	100.0 (7,651)
읍·면부	28.7	21.9	3.2	14.7	28.5	2.8	0.2	100.0 (2,446)
성								
남자	33.1	17.2	9.0	10.9	23.6	6.2	0.0	100.0 (4,346)
여자	37.7	13.9	10.3	12.3	21.3	4.4	0.1	100.0 (5,751)
연령								
65~69세	42.1	21.1	8.6	8.1	15.9	4.0	0.1	100.0 (3,344)
70~74세	28.3	12.6	14.7	11.4	25.5	7.5	0.0	100.0 (2,342)
75~79세	29.9	10.6	9.9	14.4	28.3	6.8	0.0	100.0 (2,292)
80~84세	33.6	8.6	5.0	19.4	29.7	3.7	0.0	100.0 (1,475)
85세 이상	39.7	12.2	5.7	16.6	24.0	1.9	0.0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2.4	17.3	7.9	11.4	24.5	6.4	0.0	100.0 (6,779)
배우자 없음	43.2	10.7	14.1	12.4	17.0	2.4	0.2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17.9	12.4	13.6	18.5	32.3	4.8	0.4	100.0 (1,998)
노인부부	26.5	18.0	8.4	12.4	27.2	7.5	0.0	100.0 (5,898)
자녀동거	56.2	12.3	11.0	8.1	10.8	1.5	0.0	100.0 (2,026)
기타	33.2	6.1	7.0	21.1	28.3	4.2	0.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39.0	10.2	5.2	18.2	26.0	1.4	0.0	100.0 (1,073)
초등학교	36.6	11.3	7.6	15.4	26.1	3.0	0.0	100.0 (3,198)
중학교	39.2	14.7	4.7	13.5	23.2	4.8	0.0	100.0 (2,356)
고등학교	33.0	18.0	15.4	8.8	18.7	6.0	0.1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33.4	20.2	8.2	5.7	21.9	10.5	0.0	100.0 (599)
현 취업상태								
취업중	42.5	24.7	8.8	8.3	13.1	2.6	0.0	100.0 (3,564)
미취업	31.1	9.3	10.3	13.9	28.3	6.9	0.1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0	1.7	3.2	29.3	54.2	1.5	0.0	100.0 (2,019)
제2오분위	10.9	4.0	3.5	30.0	49.0	2.6	0.0	100.0 (2,020)
제3오분위	24.2	13.7	5.1	19.4	33.3	4.3	0.0	100.0 (2,017)
제4오분위	40.4	16.5	4.7	10.6	22.7	5.1	0.0	100.0 (2,024)
제5오분위	42.8	18.4	14.7	5.6	12.1	6.2	0.1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0.9	3.9	2.9	29.4	50.8	1.9	0.3	100.0 (3,999)
50%이상~100%미만	36.2	13.4	5.0	14.9	26.3	4.2	0.0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48.1	15.8	4.0	8.1	18.5	5.5	0.0	100.0 (1,647)
150%이상	35.7	21.1	20.4	4.7	10.8	7.2	0.0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35.8	16.0	10.2	11.3	22.1	4.5	0.1	100.0 (8,864)
제한 있음	34.3	10.4	5.7	14.4	24.4	10.9	0.0	100.0 (1,233)
2017년도	34.2	13.1	8.7	15.2	27.4	0.6	0.9	100.0 (10,29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 해(2019.1.1.~2019.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2. 개인소득

노인 자신의 소득원천별 보유 비율을 분석한 <표 8-3>에 의하면 근로소득 26.3%, 사업소득 12.3%, 재산소득 16.5%, 사적이전소득 90.0%, 공적연금 30.6%, 기초연금 68.9%, 기타공적급여 12.8%, 사적연금소득 10.3%이다. 즉, 노인 개인의 소득원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사적이전소득과 기초연금이다. 또한, 노인 3중 1명은 공적연금소득을 갖고 있다는 점도 파악되었다.

<표 8-4>에서 노인 본인의 항목별 소득 금액과 비율을 살펴보면, 본인의 연간 총소득은 1,557.6만원으로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기타공적급여 포함)이 428.7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근로소득 375.8만원, 사업소득 267.4만원, 사적이전소득 215.8만원, 재산소득 171.8만원 그리고 사적연금소득 97.9만원, 기타소득 0.2만원 순이다. 구성비를 통해 살펴보면, 공적이전소득 27.5%, 근로소득 24.1%, 사업소득 17.2%, 사적이전소득 13.9%, 재산소득 11.0% 그리고 사적연금소득 6.3%, 기타소득 0% 순이다.

구성비를 노인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24.8%, 재산소득이 12.9%로 읍·면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읍·면부 노인은 사업소득이 23.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의 농어업 소득을 반영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구성비가 각각 26.2%와 9.1%로 여자 노인의 29.3%와 20.3%보다 낮지만 상대적으로 근로소득(26.6%), 사업소득(20.7%), 사적연금소득(7.9%)에서 여자 노인에 비해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 소득구성을 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적 및 공적이전소득은 연령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다.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은 근로소득이 26.9%, 사업소득이 19.6%, 사적연금소득이 7.0%로 무배우 노인보다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고 무배우 노인의 경우 재산소득 17.1%, 사적이전소득 19.8%, 공적이전소득 30.2%로 유배우 노인보다 더 높다.

가구형태별 본인 소득구성을 보면 노인독거가구는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30.5%로 가장 높으며,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각각 18.8%, 16.5%)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의 경우 공적이전소득(44.6%)과 사적이전소득(30.8%)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근로소득(각각 25.3%, 28.1%)과 사업소득(각각 21.1%, 21.0%), 재산소득

(각각 16.8%, 10.0%)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연금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은 낮은 특성을 보인다. 또한, 기능상태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는 근로소득(25.6%)과 사업소득(17.9%), 재산소득(11.5%)의 비중이 높고, 제한이 있는 경우는 사적이전소득(21.4%)과 공적이전소득(39.0%), 사적연금소득(14.8%)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표 8-5>에서 총 가구소득에서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 가구소득의 80~100%인 경우가 35.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가구소득 40~60% 미만인 22.6%이다. 총 가구소득에서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59.1%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평균 비중이 동부의 58.1%에 비하여 읍·면부 노인은 62.3%로 읍·면부 노인에게서 가구소득 대비 노인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또한, 성별로도 남자 노인 66.7%, 여자 노인 53.4%로 남자 노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노인은 개인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80~100%인 경우 39.8%, 가구소득의 20% 미만인 경우 7.0%이다. 반면 여자 노인은 가구소득 80~100%가 32.4%, 가구소득의 20% 미만 24.7%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가구소득에서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두드러진 차이가 크지 않지만, 65~69세에서 75~79세 연령군까지는 58.1%에서 60.8%로 평균 비중이 높아지고 80~84세 연령군에서는 60.1%, 85세 이상 58.0%로 낮은 ㄱ자형 관계를 보이고 있다. 유배우 노인 평균 비중은 53.4%이지만 무배우 노인은 70.8%에 달하고 있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대부분인 90.0%가 본인의 소득이 가구소득의 80~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독거가구에서 본인의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가 아닌 것은 가구형태의 조사시점과 소득의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구형태는 조사년도인 2020년, 소득은 작년 한해(2019년)를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 가구소득의 80~100%를 차지하는 비율은 25.1%, 자녀동거가구는 12.8%, 기타가구는 29.6%이다.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가구소득 20% 미만 비중이 44.4%로 나타나 가구형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독거가구는 개인이 스스로의 소득을 충당하고 있었으며 자녀동거가구는 자녀의 경제적 부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개인소득이 가구소득의 20% 미만인 비중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한편 취업유무에 따라 비교해보면, 취업 노인 보다 미취업 노인의

경우 노인 본인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미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각각 5.5%, 23.4%).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소득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이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 중위소득 50%미만 노인의 평균 비중이 65.1%에서 중위소득 100% 이상~150% 미만 노인 50.1%로 낮아진 후, 중위소득 150% 이상에서는 52.9%로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인다. 즉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인 스스로의 소득 외에도 다른 가구원으로부터의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제한이 없는 경우 개인소득의 평균 비중이 60.%로 제한이 있는 경우의 52.4%보다 높다. 또한, 기능상 제한이 없는 노인은 본인 소득이 가구소득의 80~100%를 차지하는 비율이 36.7%인 반면, 제한이 있는 노인은 가구소득의 40% 이하 비율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구소득 20% 미만 24.3%, 가구소득 20~40% 15.1%).

〈표 8-3〉 노인의 일반특성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개인소득)

(단위: %, 명)

특성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상적 소득 ¹⁾	기타 소득	(명)
					연금	기초 연금	기타 공적 급여	계			
전체 ¹⁾	26.3	12.3	16.5	90.0	30.6	68.9	12.8	81.8	10.3	0.0	(10,097)
지역											
동부	26.8	9.7	17.8	89.6	32.8	66.1	11.7	80.5	12.1	0.0	(7,651)
읍·면부	24.7	20.3	12.2	91.2	23.8	77.9	16.2	85.8	4.7	0.0	(2,446)
성											
남자	31.5	18.3	15.8	88.3	44.4	60.8	13.2	81.4	14.5	0.0	(4,346)
여자	22.4	7.7	17.0	91.2	20.2	75.1	12.5	82.1	7.2	0.0	(5,751)
연령											
65~69세	38.5	18.9	16.2	87.9	30.8	50.6	7.9	67.7	12.4	0.1	(3,344)
70~74세	25.7	12.6	16.9	88.6	36.1	67.8	13.2	82.6	14.0	0.0	(2,342)
75~79세	21.6	9.1	16.4	91.1	32.9	79.8	16.0	91.5	9.2	0.0	(2,292)
80~84세	14.9	5.6	16.8	93.8	23.3	87.4	15.7	93.3	4.2	0.0	(1,475)
85세 이상	8.0	3.0	15.6	93.7	17.9	86.9	18.5	91.8	3.8	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8.0	14.7	9.5	88.4	33.0	63.5	14.9	78.6	11.8	0.0	(6,779)
배우자 없음	22.8	7.3	30.7	93.3	25.8	80.1	8.5	88.4	7.2	0.1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26.1	9.0	46.3	91.6	28.1	78.7	9.7	88.2	8.6	0.0	(1,998)
노인부부	28.3	14.6	8.9	87.8	33.6	63.9	14.3	79.3	12.4	0.0	(5,898)
자녀동거	21.0	9.3	9.1	95.6	23.9	73.9	11.1	82.8	6.3	0.1	(2,026)
기타	21.3	7.7	14.8	81.5	35.9	68.6	14.5	82.2	6.7	0.0	(174)
교육수준											
무학	15.0	5.7	13.1	92.2	17.5	90.1	15.2	93.1	1.3	0.0	(1,073)
초등학교	22.8	8.3	15.4	90.7	24.5	84.6	16.1	90.8	6.0	0.0	(3,198)
중학교	28.1	12.4	14.6	90.2	31.2	71.3	13.2	83.1	10.0	0.0	(2,356)
고등학교	31.6	17.8	18.0	89.0	38.0	48.8	9.3	69.7	15.0	0.1	(2,870)
전문대학 이상	32.7	18.1	28.1	85.9	49.6	35.0	5.7	66.1	28.4	0.0	(599)
현 취업상태											
취업중	63.7	31.4	16.4	88.9	26.8	51.9	7.8	9.3	68.5	0.0	(3,564)
미취업	5.9	1.9	16.5	90.6	32.7	78.2	15.5	10.9	89.1	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1	3.8	19.6	87.0	19.6	83.3	10.5	88.5	7.3	0.0	(2,019)
제2오분위	22.6	6.8	16.3	91.6	30.6	86.1	18.5	92.4	6.5	0.0	(2,020)
제3오분위	26.5	15.1	16.4	91.0	32.8	71.4	15.5	81.7	8.9	0.0	(2,017)
제4오분위	31.8	17.0	12.4	90.4	34.8	58.1	10.4	77.7	10.5	0.0	(2,024)
제5오분위	32.5	18.8	17.6	90.0	35.3	45.8	9.0	68.7	18.4	0.1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9.0	5.5	13.5	88.7	24.3	85.5	16.2	90.8	6.5	0.0	(3,999)
50%이상~100%미만	27.9	14.0	15.8	92.2	32.4	69.7	12.9	82.0	9.0	0.0	(3,382)
100%이상~150%미만	32.8	17.4	16.5	90.2	36.5	51.4	8.3	73.3	10.9	0.0	(1,647)
150%이상	38.2	24.6	29.9	87.8	39.3	31.3	7.0	60.6	27.8	0.2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8.6	13.2	16.9	89.8	31.4	67.5	12.1	81.0	10.4	0.0	(8,864)
제한 있음	9.8	6.0	13.2	91.1	24.7	79.0	17.7	87.9	9.9	0.0	(1,233)
2017년도	17.1	14.8	23.5	93.4	34.6	68.6	16.9	-	1.3	4.2	(10,29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 해(2019.1.1.~2019.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표 8-4〉 노인의 일반특성별 연간 총소득, 소득원천별 금액 및 구성비율(개인소득)

(단위: 만원, %)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연금소득 ²⁾	기타소득	연 총소득
전체 ¹⁾	375.8	267.4	171.8	215.8	428.7	97.9	0.2	1,557.6
지역								
동부	413.3	260.9	214.8	220.0	442.8	116.8	0.2	1,668.8
읍·면부	258.5	287.9	37.2	202.5	384.6	38.7	0.0	1,209.5
성								
남자	550.5	429.0	200.0	187.9	542.1	162.7	0.0	2,072.2
여자	243.8	145.3	150.5	236.9	343.0	48.9	0.3	1,168.7
연령								
65~69세	753.6	509.4	225.6	184.9	365.9	91.9	0.5	2,131.8
70~74세	315.9	228.4	211.9	200.8	461.3	143.2	0.0	1,561.5
75~79세	176.6	157.1	147.1	226.4	483.2	103.8	0.0	1,294.3
80~84세	67.7	56.9	72.9	264.5	431.0	56.1	0.0	949.1
85세 이상	46.1	27.7	60.8	281.2	437.4	39.1	0.0	892.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46.9	325.6	143.5	190.8	439.5	115.5	0.0	1,661.8
배우자 없음	230.5	148.5	229.6	266.8	406.7	62.0	0.5	1,344.6
가구형태								
노인독거	240.4	179.1	196.4	264.9	416.2	69.7	0.0	1,366.7
노인부부	439.9	310.7	141.6	190.8	444.4	122.7	0.0	1,650.1
자녀동거	323.0	242.4	236.7	221.7	393.3	54.0	0.8	1,472.0
기타	372.2	108.1	155.4	428.2	452.7	93.2	0.0	1,609.8
교육수준								
무학	89.1	42.1	58.5	247.9	359.0	9.1	0.0	805.8
초등학교	191.1	116.0	77.2	230.8	380.8	39.1	0.0	1,034.9
중학교	377.9	217.7	70.1	215.5	373.9	72.4	0.0	1,327.4
고등학교	537.6	446.9	357.4	195.4	441.1	144.1	0.6	2,123.0
전문대학 이상	1,092.2	815.6	390.8	176.8	965.5	450.1	0.0	3,891.0
현 취업상태								
취업중	878.5	629.1	225.3	162.9	279.5	62.5	0.0	2,237.8
미취업	101.5	70.1	142.6	244.6	510.1	117.2	0.3	1,186.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2.5	7.3	14.7	149.2	272.2	7.8	0.0	493.7
제2오분위	94.2	35.3	27.3	241.4	377.6	25.8	0.0	801.5
제3오분위	302.8	187.6	68.8	236.3	415.2	61.9	0.0	1,272.5
제4오분위	581.2	350.6	92.2	195.4	482.6	105.6	0.0	1,807.8
제5오분위	858.2	756.6	656.5	256.8	595.8	288.5	0.8	3,413.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3.2	22.8	15.2	185.7	320.7	13.9	0.0	621.5
50%이상~100%미만	359.8	206.3	78.7	226.6	422.6	67.7	0.0	1,361.6
100%이상~150%미만	633.0	411.2	104.3	215.1	543.5	130.1	0.0	2,037.2
150%이상	1,200.1	1,155.2	1,157.1	295.2	675.4	458.7	1.6	4,943.2
기능상태								
제한 없음	414.5	289.5	185.7	212.6	427.8	88.5	0.2	1,618.8
제한 있음	97.5	108.7	71.7	238.6	435.3	165.4	0.0	1,117.2
2017년도	156.2	160.4	143.3	258.4	434.7	9.1	14.2	1,176.5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사적 연금소득 ²⁾	기타소득	계(명)
〈구성비〉								
전체 ¹⁾	24.1	17.2	11.0	13.9	27.5	6.3	0.0	100.0 (10,097)
지역								
동부	24.8	15.6	12.9	13.2	26.5	7.0	0.0	100.0 (7,651)
읍·면부	21.4	23.8	3.1	16.7	31.8	3.2	0.0	100.0 (2,446)
성								
남자	26.6	20.7	9.7	9.1	26.2	7.9	0.0	100.0 (4,346)
여자	20.9	12.4	12.9	20.3	29.3	4.2	0.0	100.0 (5,751)
연령								
65~69세	35.4	23.9	10.6	8.7	17.2	4.3	0.0	100.0 (3,344)
70~74세	20.2	14.6	13.6	12.9	29.5	9.2	0.0	100.0 (2,342)
75~79세	13.6	12.1	11.4	17.5	37.3	8.0	0.0	100.0 (2,292)
80~84세	7.1	6.0	7.7	27.9	45.4	5.9	0.0	100.0 (1,475)
85세 이상	5.2	3.1	6.8	31.5	49.0	4.4	0.0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6.9	19.6	8.6	11.5	26.4	7.0	0.0	100.0 (6,779)
배우자 없음	17.1	11.0	17.1	19.8	30.2	4.6	0.0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17.6	13.1	14.4	19.4	30.5	5.1	0.0	100.0 (1,998)
노인부부	26.7	18.8	8.6	11.6	26.9	7.4	0.0	100.0 (5,898)
자녀동거	21.9	16.5	16.1	15.1	26.7	3.7	0.1	100.0 (2,026)
기타	23.1	6.7	9.7	26.6	28.1	5.8	0.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1.1	5.2	7.3	30.8	44.6	1.1	0.0	100.0 (1,073)
초등학교	18.5	11.2	7.5	22.3	36.8	3.8	0.0	100.0 (3,198)
중학교	28.5	16.4	5.3	16.2	28.2	5.5	0.0	100.0 (2,356)
고등학교	25.3	21.1	16.8	9.2	20.8	6.8	0.0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28.1	21.0	10.0	4.5	24.8	11.6	0.0	100.0 (599)
현 취업상태								
취업중	39.3	28.1	10.1	7.3	12.5	2.8	0.0	100.0 (3,564)
미취업	8.6	5.9	12.0	20.6	43.0	9.9	0.0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6	1.5	3.0	30.2	55.1	1.6	0.0	100.0 (2,019)
제2오분위	11.8	4.4	3.4	30.1	47.1	3.2	0.0	100.0 (2,020)
제3오분위	23.8	14.7	5.4	18.6	32.6	4.9	0.0	100.0 (2,017)
제4오분위	32.1	19.4	5.1	10.8	26.7	5.8	0.0	100.0 (2,024)
제5오분위	25.1	22.2	19.2	7.5	17.5	8.5	0.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0.2	3.7	2.4	29.9	51.6	2.2	0.0	100.0 (3,999)
50%이상~100%미만	26.4	15.2	5.8	16.6	31.0	5.0	0.0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31.1	20.2	5.1	10.6	26.7	6.4	0.0	100.0 (1,647)
150%이상	24.3	23.4	23.4	6.0	13.7	9.3	0.0	100.0 (1,068)
가능상태								
제한 없음	25.6	17.9	11.5	13.1	26.4	5.5	0.0	100.0 (8,864)
제한 있음	8.7	9.7	6.4	21.4	39.0	14.8	0.0	100.0 (1,233)
2017년도	13.3	13.6	12.2	22.0	36.9	0.8	1.2	100.0 (10,29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 해(2019.1.1.~2019.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표 8-5〉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구소득 중 개인소득의 비중

(단위: %, 명)

특성	가구소득 20% 미만	가구소득 20~40%	가구소득 40~60%	가구소득 60~80%	가구소득 80~100%	계(명)	평균 비중
전체 ¹⁾	17.1	13.0	22.6	11.7	35.6	100.0 (10,097)	59.1
지역							
동부	18.5	13.2	21.9	11.4	35.0	100.0 (7,651)	58.1
읍·면부	12.5	12.4	25.0	12.7	37.4	100.0 (2,446)	62.3
성							
남자	7.0	8.6	26.5	18.1	39.8	100.0 (4,346)	66.7
여자	24.7	16.3	19.7	6.9	32.4	100.0 (5,751)	53.4
연령							
65~69세	18.5	13.7	20.8	10.5	36.4	100.0 (3,344)	58.1
70~74세	15.4	14.2	24.2	13.2	33.0	100.0 (2,342)	58.6
75~79세	14.1	11.6	25.2	13.7	35.4	100.0 (2,292)	60.8
80~84세	16.7	13.5	22.7	10.8	36.3	100.0 (1,475)	60.1
85세 이상	26.5	9.6	16.9	7.9	39.1	100.0 (644)	58.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5.9	15.0	30.3	15.1	23.7	100.0 (6,779)	53.4
배우자 없음	19.5	8.9	6.9	4.9	59.8	100.0 (3,318)	70.8
가구형태							
노인독거	0.7	2.0	4.0	3.3	90.0	100.0 (1,998)	94.7
노인부부	13.0	13.9	31.8	16.2	25.1	100.0 (5,898)	55.6
자녀동거	44.4	20.8	15.4	6.6	12.8	100.0 (2,026)	34.8
기타	24.2	17.9	11.6	16.7	29.6	100.0 (174)	51.6
교육수준							
무학	22.2	11.7	18.5	8.8	38.8	100.0 (1,073)	59.4
초등학교	16.5	14.4	23.4	11.8	33.9	100.0 (3,198)	58.7
중학교	17.8	12.7	24.9	11.5	33.1	100.0 (2,356)	57.4
고등학교	16.7	13.1	21.5	12.1	36.6	100.0 (2,870)	59.3
전문대학 이상	10.0	9.2	22.5	15.4	42.9	100.0 (599)	66.5
현 취업상태							
취업중	5.5	10.2	23.8	14.1	46.4	100.0 (3,564)	69.4
미취업	23.4	14.6	22.0	10.4	29.6	100.0 (6,533)	53.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4	7.7	27.3	10.3	50.3	100.0 (2,019)	73.3
제2오분위	3.5	15.1	29.2	18.9	33.3	100.0 (2,020)	64.8
제3오분위	15.3	13.6	19.2	13.8	38.1	100.0 (2,017)	60.7
제4오분위	28.1	13.1	12.5	8.5	37.8	100.0 (2,024)	54.2
제5오분위	33.9	15.6	25.1	7.2	18.2	100.0 (2,017)	42.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0	12.9	30.9	16.0	35.2	100.0 (3,999)	65.1
50%이상~100%미만	23.5	12.5	12.9	10.1	41.0	100.0 (3,382)	58.4
100%이상~150%미만	30.3	14.0	18.4	6.6	30.7	100.0 (1,647)	50.1
150%이상	21.2	13.6	29.1	8.8	27.3	100.0 (1,068)	52.9
기능상태							
제한 없음	16.0	12.8	22.8	11.7	36.7	100.0 (8,864)	60.0
제한 있음	24.3	15.1	21.2	11.8	27.6	100.0 (1,233)	52.4
2017년도	22.4	16.7	16.0	10.9	34.0	100.0 (10,299)	55.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소득은 작년 한 해(2019.1.1.~2019.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3. 응답 노인 외 가구원의 소득

〈표 8-6〉에서 응답 노인의 특성에 따라 그 외 가구원의 소득원별 유무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35.3%, 사업소득 10.4%, 재산소득 24.5%, 사적이전소득 92.2%, 공적연금 21.2%, 기초연금 44.5%, 기타공적급여 11.2%, 사적연금소득 7.2%, 기타소득 0.0%로 나타났다.

〈표 8-7〉에서 그 외 가구원의 소득원천별 금액과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연간 총소득은 1,805.2만원으로 근로소득 876.8만원(48.6%), 공적이전소득 278.7만원(15.4%), 사업소득 247.4만원(13.7%), 사적이전소득 172.3만원(9.5%), 재산소득 153.3만원(8.5%), 사적연금소득 75.1만원(4.2%), 기타소득 1.5만원(0.1%) 순이다.

지역별로 그 외 가구원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동부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이, 읍·면부 노인의 경우 사업소득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지역별 구성비 순서 차원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동부 노인은 근로소득(50.4%), 공적이전소득(14.2%), 사업소득(12.5%), 재산소득(9.4%), 사적이전소득(9.0%), 사적연금소득(4.5%)의 순이며, 읍·면부 노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39.0%), 공적이전소득(21.9%), 사업소득(20.2%), 사적이전소득(12.6%), 재산소득(3.5%), 사적연금소득(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 여자 노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소득구성을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은 낮아졌다 높아지는 U자형을 보인다. 반면 재산소득과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연금소득은 연령 증가에 따라 비중이 낮아지는 역U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이 공적이전소득(21.5%)과 사적이전소득(11.4%)의 비중이 높고, 무배우 노인은 근로소득(70.8%)과 재산소득(11.5%)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는 근로소득(61.2%)과 공적이전소득(10.5%), 기타소득(20.0%)의 비중은 높고, 사업소득(1.1%)과 재산소득(0.0%)의 비중은 낮다. 반면 노인부부가구는 근로소득(26.8%)의 비중이 낮고, 사업소득(17.1%)과 공적이전소득(26.4%), 사적연금소득(7.7%)의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다. 자녀동거가구는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근로소득(70.9%)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외의 소득 비중은 낮은 특성이 있다. 이는 자녀동거가구는 자녀의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기 때문에 해석된다. 기타가구는 근로소득(46.4%)과 공적이전소득(26.3%)의 비중이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모든 형태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사업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의 비중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특히 무학 노인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이 58.6%로 다른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반면, 전문대학 이상 노인의 경우 사업소득 비중이 19.0%로 다른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 노인은 미취업 노인에 비해 사업소득(18.2%) 비중이 높은 반면, 미취업 노인은 취업 노인에 비해 재산소득(9.3%)과 공적이전소득(16.4%)의 비중이 높다.

〈표 8-8〉에 기초하여 총 가구소득에서 그 외 가구원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가구소득 80~100%인 경우가 36.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가구소득 20% 미만으로 17.9%이다. 평균 비중은 48.9%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이 49.4%로 읍·면부 노인 47.4%보다 조금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에는 그 외 가구원의 가구소득이 20% 미만인 경우는 30.9%인 반면, 여자 노인은 8.1%에 불과하다. 평균은 각각 35.6%와 61.2%이다. 즉 여성 노인의 경우 그 외 가구원의 소득 비중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다. 65~69세의 그 외 가구원 소득 평균 비중이 47.6%이며, 85세는 58.4%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 평균 비중이 46.0%로 무배우 노인 63.6%보다 낮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자녀동가가구의 경우 그 외 가구원의 소득이 가구소득의 평균 비중이 64.7%로 높고, 노인부부가구와 기타가구는 이 보다 낮은 43.6%와 45.7%이다.¹²⁾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중 그 외 가구원 소득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비중이 높아지다가 낮아지는 역U자형을 보이고 있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경우(55.7%)가 취업 노인(36.8%)보다 그 외 가구원의 소득이 비중이 높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상 제한이 있는 경우(54.8%)가 기능상 제한이 없는 경우(48.1%)보다 그 외 가구원의 소득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12) 가구소득은 작년 한해(2016.1.1.~2016.12.31.) 기준이므로, 가구형태의 항목과 시점 차이가 있으므로 독거가구에서도 그 외 가구원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음. 노인독거가구와 기타가구의 경우 사례 수가 작아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표 8-6〉 노인의 일반특성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응답 노인 외 가구원)

(단위: %, 명)

특성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업 소득 ²⁾	기타 소득	(명)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기타 공적 급여	계			
전체 ¹⁾	35.3	10.4	24.5	92.2	21.2	44.5	11.2	55.7	7.2	0.0	(8,083)
지역											
동부	37.8	7.8	26.7	92.2	22.2	41.2	9.8	53.5	8.4	0.1	(6,226)
읍·면부	26.9	19.2	17.2	92.4	17.9	55.5	15.9	63.1	3.4	0.1	(1,858)
성											
남자	27.6	6.4	22.6	92.5	11.6	48.1	11.5	54.3	5.3	0.0	(3,884)
여자	42.5	14.2	26.4	92.0	30.1	41.1	11.0	57.0	9.1	0.1	(4,199)
연령											
65~69세	40.2	13.6	28.1	91.5	26.3	31.6	7.4	47.8	9.5	0.0	(2,874)
70~74세	31.1	9.5	23.9	91.6	25.1	48.8	11.9	62.0	8.8	0.0	(1,941)
75~79세	31.0	7.7	20.1	92.9	17.6	56.4	12.9	63.0	6.3	0.2	(1,798)
80~84세	33.8	7.4	22.1	93.7	11.5	53.2	16.7	57.5	2.4	0.0	(1,039)
85세 이상	43.5	12.0	27.3	93.3	8.6	40.6	13.7	45.3	0.9	0.0	(43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8.9	10.7	23.2	91.3	24.9	52.4	12.8	65.2	8.6	0.0	(6,729)
배우자 없음	67.1	9.1	31.4	96.8	3.0	5.0	3.2	8.4	0.6	0.3	(1,354)
가구형태											
노인독거	30.0	2.5	0.0	59.0	10.3	27.5	2.5	35.0	2.5	2.5	(40)
노인부부	23.3	10.4	21.5	90.6	25.5	54.1	12.1	66.8	9.1	0.0	(5,853)
자녀동거	70.8	11.0	33.9	97.6	9.1	17.0	7.5	24.2	2.4	0.0	(2,019)
기타	28.3	5.8	23.3	93.0	20.3	43.4	26.2	53.8	2.3	2.3	(173)
교육수준											
무학	39.8	11.5	20.8	93.8	13.6	47.3	14.6	52.7	1.6	0.0	(693)
초등학교	36.4	9.8	22.7	92.4	19.5	56.2	14.4	62.7	4.8	0.2	(2,375)
중학교	34.8	10.2	22.0	91.8	22.3	48.0	11.3	59.8	7.2	0.0	(1,955)
고등학교	34.7	11.6	28.0	91.8	24.5	34.8	8.3	50.5	9.6	0.0	(2,504)
전문대학 이상	30.0	7.0	30.7	92.1	19.0	22.6	5.9	38.7	14.5	0.0	(557)
현 취업상태											
취업중	37.6	15.4	21.5	93.0	15.9	37.1	8.8	47.6	5.7	0.0	(2,901)
미취업	34.1	7.7	26.3	91.7	24.2	48.7	12.6	60.2	8.1	0.1	(5,18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2.4	4.2	16.4	86.0	17.1	57.8	7.4	64.8	7.1	0.4	(1,002)
제2오분위	16.7	5.0	21.0	92.5	18.2	67.0	18.6	71.8	2.9	0.0	(1,498)
제3오분위	23.1	10.6	19.1	94.2	23.8	57.8	15.1	65.7	4.7	0.0	(1,729)
제4오분위	40.0	11.6	24.3	93.3	22.7	32.4	7.7	47.4	7.3	0.0	(1,888)
제5오분위	62.4	16.4	36.5	92.3	22.0	20.4	7.6	38.0	12.8	0.1	(1,96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8.7	5.2	18.9	90.3	18.7	64.2	14.9	69.8	4.3	0.1	(2,850)
50%이상~100%미만	34.5	11.1	22.0	94.8	21.3	45.3	11.6	55.4	5.8	0.0	(2,825)
100%이상~150%미만	55.8	12.7	32.8	93.5	22.6	23.9	7.2	40.8	9.2	0.0	(1,451)
150%이상	56.0	20.4	36.4	88.3	26.3	14.6	5.2	37.1	17.3	0.0	(957)
기능상태											
제한 없음	35.0	10.5	24.6	92.1	22.4	44.5	10.7	56.4	6.9	0.1	(7,121)
제한 있음	38.0	9.6	24.0	92.9	12.7	44.7	14.9	50.7	10.0	0.0	(962)
2017년도	38.0	14.9	18.5	80.2	24.8	47.1	12.6	-	1.1	3.7	(7,797)

주: 1) 2019년 기준 소득이 있는 그 외 가구원 8,083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해(2019.1.1.~2019.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표 8-7〉 노인의 일반특성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응답 노인 외 가구원)

(단위: 만원, %)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연 총소득
전체 ¹⁾	876.8	247.4	153.3	172.3	278.7	75.1	1.5	1,805.2
지역								
동부	993.6	246.4	186.0	177.0	280.6	89.0	0.0	1,972.7
읍·면부	485.5	250.8	43.8	156.4	272.2	28.6	6.5	1,243.8
성								
남자	552.6	126.1	94.4	176.4	199.5	38.3	0.0	1,187.4
여자	1,176.8	359.7	207.8	168.4	351.9	109.2	2.9	2,376.8
연령								
65~69세	1,025.6	360.2	127.9	152.7	271.6	75.9	4.2	2,018.2
70~74세	632.0	174.1	269.7	166.1	334.8	96.4	0.0	1,673.2
75~79세	755.6	147.6	137.1	184.0	270.9	91.3	0.1	1,586.7
80~84세	911.7	176.5	47.8	206.7	242.1	31.7	0.0	1,616.5
85세 이상	1,406.7	411.9	120.9	198.3	194.3	10.9	0.0	2,343.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89.8	227.9	109.1	172.7	325.7	88.7	0.0	1,513.8
배우자 없음	2,303.6	344.5	373.3	170.3	45.0	7.4	9.1	3,253.2
가구형태								
노인독거	932.8	16.9	0.0	109.2	159.9	1.3	305.2	1,525.4
노인부부	331.4	211.2	102.8	169.4	327.3	95.7	0.0	1,237.9
자녀동거	2,478.5	371.8	311.2	178.8	133.5	20.5	0.0	3,494.3
기타	628.2	73.9	55.3	206.3	355.7	33.9	1.2	1,354.6
교육수준								
무학	1,103.8	260.3	74.1	196.0	219.9	28.9	0.0	1,883.0
초등학교	880.8	195.1	131.3	169.0	261.4	42.1	0.1	1,679.7
중학교	802.7	209.6	65.4	173.9	262.5	65.9	0.0	1,580.0
고등학교	853.6	288.0	276.5	167.5	311.8	102.2	4.9	2,004.5
전문대학 이상	942.1	405.3	100.9	172.5	333.7	183.7	0.0	2,138.2
현 취업상태								
취업중	692.6	254.2	89.5	145.6	181.1	31.4	0.0	1,394.3
미취업	979.9	243.7	189.1	187.2	333.3	99.6	2.4	2,035.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0.4	8.6	13.8	96.7	140.5	5.1	0.2	315.3
제2오분위	55.8	19.9	21.0	175.4	254.6	8.7	0.0	535.4
제3오분위	239.3	116.6	45.3	199.6	303.3	33.6	0.0	937.8
제4오분위	833.3	218.5	71.3	172.6	291.8	71.6	0.0	1,659.1
제5오분위	2,526.2	685.4	499.1	184.0	333.2	201.3	6.2	4,435.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4.3	23.1	19.1	152.9	222.8	7.3	4.3	493.9
50%이상~100%미만	685.0	167.3	58.9	188.1	280.6	48.1	0.0	1,428.0
100%이상~150%미만	1,740.5	339.0	88.1	169.0	318.3	132.4	0.0	2,787.2
150%이상	2,552.3	1013.4	930.8	187.8	379.4	269.8	0.0	5,333.5
기능상태								
제한 없음	847.9	250.0	159.4	167.8	284.3	61.6	1.7	1,772.7
제한 있음	1,090.7	228.5	108.7	205.6	237.0	175.3	0.0	2,045.8
2017년도	947.2	231.6	104.9	173.9	315.8	8.2	10.9	1,792.6

특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²⁾	공적이전 소득	사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계(명)
〈구성비〉								
전체 ¹⁾	48.6	13.7	8.5	9.5	15.4	4.2	0.1	100.0 (8,083)
지역								
동부	50.4	12.5	9.4	9.0	14.2	4.5	0.0	100.0 (6,226)
읍·면부	39.0	20.2	3.5	12.6	21.9	2.3	0.5	100.0 (1,858)
성								
남자	46.5	10.6	8.0	14.9	16.8	3.2	0.0	100.0 (3,884)
여자	49.5	15.1	8.7	7.1	14.8	4.6	0.1	100.0 (4,199)
연령								
65~69세	50.8	17.8	6.3	7.6	13.5	3.8	0.2	100.0 (2,874)
70~74세	37.8	10.4	16.1	9.9	20.0	5.8	0.0	100.0 (1,941)
75~79세	47.6	9.3	8.6	11.6	17.1	5.8	0.0	100.0 (1,798)
80~84세	56.4	10.9	3.0	12.8	15.0	2.0	0.0	100.0 (1,039)
85세 이상	60.0	17.6	5.2	8.5	8.3	0.5	0.0	100.0 (43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9.0	15.1	7.2	11.4	21.5	5.9	0.0	100.0 (6,729)
배우자 없음	70.8	10.6	11.5	5.2	1.4	0.2	0.3	100.0 (1,354)
가구형태								
노인독거	61.2	1.1	0.0	7.2	10.5	0.1	20.0	100.0 (40)
노인부부	26.8	17.1	8.3	13.7	26.4	7.7	0.0	100.0 (5,853)
자녀동거	70.9	10.6	8.9	5.1	3.8	0.6	0.0	100.0 (2,019)
기타	46.4	5.5	4.1	15.2	26.3	2.5	0.1	100.0 (173)
교육수준								
무학	58.6	13.8	3.9	10.4	11.7	1.5	0.0	100.0 (693)
초등학교	52.4	11.6	7.8	10.1	15.6	2.5	0.0	100.0 (2,375)
중학교	50.8	13.3	4.1	11.0	16.6	4.2	0.0	100.0 (1,955)
고등학교	42.6	14.4	13.8	8.4	15.6	5.1	0.2	100.0 (2,504)
전문대학 이상	44.1	19.0	4.7	8.1	15.6	8.6	0.0	100.0 (557)
현 취업상태								
취업중	49.7	18.2	6.4	10.4	13.0	2.3	0.0	100.0 (2,901)
미취업	48.1	12.0	9.3	9.2	16.4	4.9	0.1	100.0 (5,18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0	2.7	4.4	30.7	44.6	1.6	0.1	100.0 (1,002)
제2오분위	10.4	3.7	3.9	32.8	47.6	1.6	0.0	100.0 (1,498)
제3오분위	25.5	12.4	4.8	21.3	32.3	3.6	0.0	100.0 (1,729)
제4오분위	50.2	13.2	4.3	10.4	17.6	4.3	0.0	100.0 (1,888)
제5오분위	57.0	15.5	11.3	4.1	7.5	4.5	0.1	100.0 (1,96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3.0	4.7	3.9	31.0	45.1	1.5	0.9	100.0 (2,850)
50%이상~100%미만	48.0	11.7	4.1	13.2	19.6	3.4	0.0	100.0 (2,825)
100%이상~150%미만	62.4	12.2	3.2	6.1	11.4	4.8	0.0	100.0 (1,451)
150%이상	47.9	19.0	17.5	3.5	7.1	5.1	0.0	100.0 (957)
기능상태								
제한 없음	47.8	14.1	9.0	9.5	16.0	3.5	0.1	100.0 (7,121)
제한 있음	53.3	11.2	5.3	10.0	11.6	8.6	0.0	100.0 (962)
2017년도	52.8	12.9	5.9	9.7	17.6	0.5	0.6	100.0 (7,797)

주: 1) 2019년 기준 소득이 있는 그 외 가구원 8,083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해(2019.1.1.~2019.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표 8-8〉 노인의 일반특성별 가구소득 중 응답 노인 외 가구원 소득의 비중

(단위: %, 명)

특성	가구소득 20% 미만	가구소득 20~40%	가구소득 40~60%	가구소득 60~80%	가구소득 80~100%	계(명)	평균 비중
전체 ¹⁾	17.9	12.0	21.7	12.0	36.4	100.0 (8,083)	48.9
지역							
동부	18.6	11.7	20.9	12.4	36.4	100.0 (6,226)	49.4
읍·면부	15.6	13.3	24.1	10.8	36.2	100.0 (1,858)	47.4
성							
남자	30.9	19.1	25.8	7.3	16.9	100.0 (3,884)	35.6
여자	8.1	6.7	18.6	15.5	51.0	100.0 (4,199)	61.2
연령							
65~69세	23.5	10.7	20.3	13.3	32.2	100.0 (2,874)	47.6
70~74세	17.9	13.4	23.3	13.4	32.0	100.0 (1,941)	48.2
75~79세	16.8	14.4	24.2	9.8	34.8	100.0 (1,798)	47.0
80~84세	10.4	10.8	21.3	11.7	45.8	100.0 (1,039)	53.2
85세 이상	9.9	8.4	15.4	8.3	58.0	100.0 (432)	58.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3.5	16.3	30.2	14.0	16.0	100.0 (6,729)	46.0
배우자 없음	6.4	3.3	4.5	7.8	78.0	100.0 (1,354)	63.6
가구형태							
노인독거	0.5	0.5	0.5	0.1	98.4	100.0 (40)	42.8
노인부부	25.0	17.5	31.6	12.8	13.1	100.0 (5,853)	43.6
자녀동거	13.1	7.0	14.8	20.9	44.2	100.0 (2,019)	64.7
기타	32.0	18.2	10.8	16.8	22.2	100.0 (173)	45.7
교육수준							
무학	8.2	8.9	16.6	9.9	56.4	100.0 (693)	57.9
초등학교	11.4	12.1	22.2	12.9	41.4	100.0 (2,375)	52.6
중학교	18.0	12.0	23.9	11.9	34.2	100.0 (1,955)	49.4
고등학교	24.8	12.2	21.2	12.6	29.2	100.0 (2,504)	45.8
전문대학 이상	36.8	16.7	22.3	8.2	16.0	100.0 (557)	34.5
현 취업상태							
취업중	28.8	13.9	23.4	9.9	24.0	100.0 (2,901)	36.8
미취업	12.0	11.1	20.7	13.1	43.1	100.0 (5,183)	55.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0	10.2	24.6	6.2	54.0	100.0 (1,002)	47.1
제2오분위	12.1	20.2	27.3	12.1	28.3	100.0 (1,498)	42.7
제3오분위	24.9	14.5	19.1	12.8	28.7	100.0 (1,729)	44.4
제4오분위	31.6	8.2	12.5	13.1	34.6	100.0 (1,888)	48.7
제5오분위	15.9	7.3	25.0	15.6	36.2	100.0 (1,965)	58.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0.5	17.2	29.0	10.6	32.7	100.0 (2,850)	44.5
50%이상~100%미만	26.3	9.7	12.3	12.2	39.5	100.0 (2,825)	48.5
100%이상~150%미만	19.2	6.4	18.7	13.8	41.9	100.0 (1,451)	56.2
150%이상	17.3	9.0	28.8	13.7	31.2	100.0 (957)	52.1
가능상태							
제한 없음	18.8	11.9	22.1	11.9	35.3	100.0 (7,121)	48.1
제한 있음	11.7	13.0	18.7	12.8	43.8	100.0 (962)	54.8
2017년도	20.0	14.9	18.6	18.7	27.8	100.0 (7,797)	41.3

주: 1) 2019년 기준 소득이 있는 그 외 가구원 8,083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소득은 작년 한해(2019.1.1.~2019.12.31.)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제2절 자산과 부채

1. 자산

〈표 8-9〉에 의하면 노인의 96.6%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보유주택, 전세/사무실보증금, 논, 밭, 임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규모는 2억 6,182.7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97.2%)이 동부 노인(96.4%)보다 부동산 보유율이 높지만, 보유 부동산의 가격은 읍·면부 노인의 경우 1억 3,899.3만원으로 동부 노인의 3억 109.1만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97.8%)이 여자 노인(95.7%)보다 보유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부동산 규모 또한, 남자 노인은 2억 8,478.6만원으로 여자 노인 2억 2,448.0만원보다 높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동산 보유율이 낮는데, 65~69세 연령군이 98.3%, 75~79세 연령군이 96.3%, 85세 이상 연령군이 90.7%이며, 보유 부동산의 가격 또한 각각 3억 380.7만원, 2억 3,425.5만원, 2억 94.8만원으로 낮다. 또한, 유배우 노인의 보유율은 98.5%, 무배우 노인은 92.7%로 나타나 유배우 노인의 보유율이 다소 높은 편이며 보유 부동산 규모 또한 유배우 노인이 2억 9,373.9만원으로 무배우 노인의 1억 9,661.7만원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부동산 보유율이 98.4%로 가장 높고, 기타가구는 90.1%로 가장 낮다. 그러나 노인독거가구의 부동산 보유율도 기타가구와 유사한 90.9%라는 점에서 낮은 편이다. 보유 부동산 가격은 자녀동거가구 3억 1,951.5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노인독거가구의 경우에는 1억 4,450.9만원에 불과하다. 즉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부동산 소유율도 낮고 부동산 가치도 크지 않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부동산 보유율이나 보유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무학의 보유율은 92.3%로 가장 낮고, 보유 부동산 가격 또한 1억 3,597.6만원으로 가장 낮다. 반면에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부동산 보유율은 98.8%로 가장 높고, 가격 또한 4억 7,646.5만원으로 무학의 경우보다 약 3.5배 높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취업 노인의 부동산 보유율은 98.0%로 미취업 노인의 95.8%보다 2.2%포인트 높지만, 규모의 경우 취업 노인이 2억 4,891.5만원으로 미취업 노인의 2억 6,887.1만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동산 보

유율이 더 높고, 부동산 가치 역시 더 크다.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의 부동산 보유율은 94.4%이며, 부동산 금액은 1억 7,000.5만원이다. 반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중위소득 150% 이상은 부동산 보유율 99.1%, 부동산 금액 5억 7,954.6만원이다. 기능상의 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 부동산 보유율이 97.1%로,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노인 93.1%보다 높은 부동산 보유율을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규모는 제한이 있는 노인의 2억 6,607.1만원으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 2억 6,123.7만원보다 조금 높다.

〈표 8-10〉은 노인의 금융자산 유무와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노인의 77.8%는 금융자산이 있으며, 금융자산의 평균 규모는 3,212.8만원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금융자산 보유율이 78.5%로 읍·면부 노인의 금융자산 보유율 75.6%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규모는 동부 노인이 3,568.6만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2,099.5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금융자산 보유율이 80.5%로 여자 노인의 75.7%보다 높고, 금융자산 규모 또한 남자 노인이 더 높다(남자 노인 3,571.2만원, 여자 노인 2,941.9만원). 연령별 금융자산 보유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규모면에서는 65~69세 연령군이 3,860.5만원으로 가장 높고, 85세 이상 연령군이 2,289.3만원으로 가장 작다. 가구형태별 금융자산 보유 비율은 노인부부가구가 80.6%로 가장 높지만, 금융자산 보유금액은 자녀동거가구가 3,835.1만원으로 가장 많다.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부동산 보유율이 기타가구 71.0% 다음으로 낮은 71.1%이며, 부동산 규모는 1,843.0만원으로 가장 작다.

교육수준별 금융자산 보유 비율과 규모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7,411.8만원(89.7%)으로 무학 1,363.1만원(63.7%)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의 금융자산 보유율은 83.7%로 미취업 노인의 74.6%보다 높지만, 규모의 경우 취업 노인이 3,125.6만원으로 미취업 노인의 3,260.3만원보다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부동산 보유 비율과 규모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다. 중위소득 150% 이상 노인의 경우 7,602.0만원(92.3%)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 2,037.1만원(69.7%)에 비해 약 4배 높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의 금융자산 보유율이 79.8%로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63.6%)보다 높지만, 금융자산 규모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이 3,435.8만원으로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3,181.8만원)보다 더 높다.

〈표 8-9〉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 부동산 규모

(단위: %, 명, 만원)

특성	보유유무		계 (명)	부동산 규모
	있음	없음		
전체 ¹⁾	96.6	3.4	100.0 (10,097)	26,182.7
지역				
동부	96.4	3.6	100.0 (7,651)	30,109.1
읍·면부	97.2	2.8	100.0 (2,446)	13,899.3
성				
남자	97.8	2.2	100.0 (4,346)	28,478.6
여자	95.7	4.3	100.0 (5,751)	24,448.0
연령				
65~69세	98.3	1.7	100.0 (3,344)	30,380.7
70~74세	97.7	2.3	100.0 (2,342)	28,182.2
75~79세	96.3	3.7	100.0 (2,292)	23,425.5
80~84세	93.8	6.2	100.0 (1,475)	20,433.9
85세 이상	90.7	9.3	100.0 (644)	20,094.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8.5	1.5	100.0 (6,779)	29,373.9
배우자 없음	92.7	7.3	100.0 (3,318)	19,661.7
가구형태				
노인독거	90.9	9.1	100.0 (1,998)	14,450.9
노인부부	98.4	1.6	100.0 (5,898)	28,282.1
자녀동거	97.4	2.6	100.0 (2,026)	31,951.5
기타	90.1	9.9	100.0 (174)	22,575.8
교육수준				
무학	92.3	7.7	100.0 (1,073)	13,597.6
초등학교	95.2	4.8	100.0 (3,198)	17,904.6
중학교	97.7	2.3	100.0 (2,356)	23,299.7
고등학교	98.4	1.6	100.0 (2,870)	38,000.3
전문대학 이상	98.8	1.2	100.0 (599)	47,646.5
현 취업상태				
취업중	98.0	2.0	100.0 (3,564)	24,891.5
미취업	95.8	4.2	100.0 (6,533)	26,887.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2.7	7.3	100.0 (2,019)	16,050.6
제2오분위	94.8	5.2	100.0 (2,020)	17,334.2
제3오분위	97.6	2.4	100.0 (2,017)	21,884.3
제4오분위	98.9	1.1	100.0 (2,024)	27,985.7
제5오분위	98.8	1.2	100.0 (2,017)	47,672.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4.4	5.6	100.0 (3,999)	17,000.5
50%이상-100%미만	97.4	2.6	100.0 (3,382)	23,825.0
100%이상-150%미만	98.4	1.6	100.0 (1,647)	32,715.9
150%이상	99.1	0.9	100.0 (1,068)	57,954.6
기능상태				
제한 없음	97.1	2.9	100.0 (8,864)	26,123.7
제한 있음	93.1	6.9	100.0 (1,233)	26,607.1
2017년도	91.3	8.7	100.0 (10,299)	24,546.2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8-10〉 노인의 일반특성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금융자산 규모

(단위: %, 명, 만원)

특성	보유 유무		계 (명)	금융자산 규모
	있음	없음		
전체 ¹⁾	77.8	22.2	100.0 (10,097)	3,212.8
지역				
동부	78.5	21.5	100.0 (7,651)	3,568.6
읍·면부	75.6	24.4	100.0 (2,446)	2,099.5
성				
남자	80.5	19.5	100.0 (4,346)	3,571.2
여자	75.7	24.3	100.0 (5,751)	2,941.9
연령				
65~69세	84.8	15.2	100.0 (3,344)	3,860.5
70~74세	79.5	20.5	100.0 (2,342)	3,243.3
75~79세	73.6	26.4	100.0 (2,292)	2,748.8
80~84세	71.0	29.0	100.0 (1,475)	2,820.0
85세 이상	65.4	34.6	100.0 (644)	2,289.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0.9	19.1	100.0 (6,779)	3,614.4
배우자 없음	71.4	28.6	100.0 (3,318)	2,392.1
가구형태				
노인독거	71.1	28.9	100.0 (1,998)	1,843.0
노인부부	80.6	19.4	100.0 (5,898)	3,478.6
자녀동거	76.6	23.4	100.0 (2,026)	3,835.1
기타	71.0	29.0	100.0 (174)	2,685.1
교육수준				
무학	63.7	36.3	100.0 (1,073)	1,363.1
초등학교	73.7	26.3	100.0 (3,198)	2,202.3
중학교	76.7	23.3	100.0 (2,356)	2,892.4
고등학교	86.0	14.0	100.0 (2,870)	4,417.0
전문대학 이상	89.7	10.3	100.0 (599)	7,411.8
현 취업상태				
취업중	83.7	16.3	100.0 (3,564)	3,125.6
미취업	74.6	25.4	100.0 (6,533)	3,260.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9.7	30.3	100.0 (2,019)	1,976.1
제2오분위	69.6	30.4	100.0 (2,020)	2,027.8
제3오분위	78.2	21.8	100.0 (2,017)	2,589.2
제4오분위	82.3	17.7	100.0 (2,024)	3,473.1
제5오분위	89.1	10.9	100.0 (2,017)	5,999.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9.7	30.3	100.0 (3,999)	2,037.1
50%이상~100%미만	78.3	21.7	100.0 (3,382)	2,711.7
100%이상~150%미만	86.9	13.1	100.0 (1,647)	4,249.9
150%이상	92.3	7.7	100.0 (1,068)	7,602.0
기능상태				
제한 없음	79.8	20.2	100.0 (8,864)	3,181.8
제한 있음	63.6	36.4	100.0 (1,233)	3,435.3
2017년도	91.6	8.4	100.0 (10,299)	3,631.8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인 중 기타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45.6%이며, 평균 기타자산 규모는 1,120.1만원으로 나타났다(〈표 8-11〉 참조).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동부 노인의 기타자산 보유율은 44.9%로 읍·면부 노인의 48.0%보다 낮지만, 기타자산 규모는 동부 노인 1,221.0만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803.5만원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1,275.2만원(51.5%), 여자 노인이 1,002.9만원(41.2%)으로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기타자산 규모와 보유율이 크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75세 미만 연령군에서 기타자산의 보유율과 규모가 높은 경향이 있다. 특히 65~69세 연령군의 기타자산 보유율과 규모가 가장 높아서 각각 58.1%와 1,622.1만원인 반면, 75~79세 연령군은 기타자산 규모가 가장 낮아서 653.3만원(35.9%)이다. 기타자산 보유율은 80~84세에서 35.1%로 가장 낮지만 규모는 75~79세보다 높은 1,010.9만원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 무배우 노인보다 기타자산 보유 비율과 규모가 높다. 유배우 노인의 기타자산은 1,273.3만원(51.3%), 무배우 노인의 기타자산은 805.5만원(34.0%)이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의 기타자산 보유율과 규모가 가장 높고(각각 58.6%, 1,862.6만원), 노인독거가구가 가장 낮다(각각 22.0%, 268.2만원).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타자산 보유 비율과 규모가 커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경우 4,263.1만원(70.1%)으로 무학 354.7만원(29.2%)보다 높게 나타났다. 취업 노인의 기타자산 보유율은 54.9%로 미취업 노인의 40.6%보다 14.3%포인트 높으며, 규모 역시 취업 노인이 1,504.8만원으로 미취업 노인의 909.2만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타자산의 규모가 커서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노인의 경우 491만원(30.5%)지만,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 노인의 경우 4,035.1만원(78.6%)에 달하고 있다. 한편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가 기타자산 보유율이 높지만(46.4%, 1010.2만원), 기타자산 보유 규모는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40.1%, 1,934.5만원).

〈표 8-11〉 노인의 일반특성별 기타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기타자산 규모

(단위: %, 명, 만원)

특성	보유유무		계 (명)	기타자산 규모
	있음	없음		
전체 ¹⁾	45.6	54.4	100.0 (10,097)	1,120.1
지역				
동부	44.9	55.1	100.0 (7,651)	1,221.0
읍·면부	48.0	52.0	100.0 (2,446)	803.5
성				
남자	51.5	48.5	100.0 (4,346)	1,275.2
여자	41.2	58.8	100.0 (5,751)	1,002.9
연령				
65~69세	58.1	41.9	100.0 (3,344)	1,622.1
70~74세	45.6	54.4	100.0 (2,342)	1,044.4
75~79세	35.9	64.1	100.0 (2,292)	653.3
80~84세	35.1	64.9	100.0 (1,475)	1,010.9
85세 이상	39.7	60.3	100.0 (644)	675.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1.3	48.7	100.0 (6,779)	1,273.3
배우자 없음	34.0	66.0	100.0 (3,318)	805.5
가구형태				
노인독거	22.0	78.0	100.0 (1,998)	268.2
노인부부	49.3	50.7	100.0 (5,898)	1,168.3
자녀동거	58.6	41.4	100.0 (2,026)	1,862.6
기타	42.4	57.6	100.0 (174)	562.9
교육수준				
무학	29.2	70.8	100.0 (1,073)	354.7
초등학교	36.9	63.1	100.0 (3,198)	553.0
중학교	43.9	56.1	100.0 (2,356)	861.8
고등학교	57.8	42.2	100.0 (2,870)	1,592.9
전문대학 이상	70.1	29.9	100.0 (599)	4,263.1
현 취업상태				
취업중	54.9	45.1	100.0 (3,564)	1,504.8
미취업	40.6	59.4	100.0 (6,533)	909.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2.7	67.3	100.0 (2,019)	461.7
제2오분위	26.2	73.8	100.0 (2,020)	458.6
제3오분위	34.4	65.6	100.0 (2,017)	592.4
제4오분위	59.9	40.1	100.0 (2,024)	1,079.8
제5오분위	75.1	24.9	100.0 (2,017)	3,006.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0.5	69.5	100.0 (3,999)	491.0
50%이상~100%미만	43.5	56.5	100.0 (3,382)	706.6
100%이상~150%미만	65.2	34.8	100.0 (1,647)	1,595.4
150%이상	78.6	21.4	100.0 (1,068)	4,035.1
기능상태				
제한 없음	46.4	53.6	100.0 (8,864)	1,010.2
제한 있음	40.1	59.9	100.0 (1,233)	1,934.5
2017년도	44.6	55.4	100.0 (10,299)	855.3

주: 1) 기타자산 보유 유무는 전제응답자, 기타자산 규모는 무응답 118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부채

〈표 8-12〉는 가구의 부채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 중에 가구 부채가 있는 비율은 27.1%이며 부채 규모는 1,892.8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부채 보유율이 24.4%로 읍·면부 노인의 35.5%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 규모는 동부 노인이 1,998.7만원으로 읍·면부 노인의 1,561.7만원 보다 많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부채 보유율이 31.6%이며 규모는 2,180.9만원으로, 여자 노인의 부채보유율 23.7%와 규모 1,675.1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부채 보유율이 높고, 부채 수준 또한 연령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65~69세 연령군은 2,727.9만원, 70~74세 연령군은 1,880.6만원, 75~79세 연령군은 1,364.9만원, 80~84세 1,081.9만원이다. 그러나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부채 수준이 증가하여 1,337.3만원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부채 비율(31.0%)과 부채 규모(2,131.8만원)가 더 많다. 또한, 가구 형태별 부채 보유 비율을 보면, 노인독거가구의 부채 비율이 13.2%로 가장 낮으며, 노인부부가구와 기타가구 29.8%, 자녀동거가구는 32.6%로 가장 높다. 부채규모 역시 노인독거가구가 964.1만원으로 가장 적다. 그 다음 노인부부가구 1,902.8만원 자녀동거가구 2,707.6만원, 기타가구 2,730.7만원 순으로 부채 규모가 크다.

교육수준별 부채 보유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으며, 규모 또한 학력 수준이 높으면 보유금액이 많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부채 보유 비율과 규모가 가장 큰 유형은 고등학교 졸업 노인으로 2,959.4만원(34.8%)로, 가장 낮은 무학 노인 1,003.2만원(18.0%)의 약 3배로 파악되었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노인의 부채 보유율은 46.5%로 미취업 노인의 16.5%보다 높으며, 규모 역시 취업 노인이 2,953.5만원으로 미취업 노인의 1,314.2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비율과 규모가 높다. 중위소득 150% 이상 노인의 경우 6,452.6만원(48.3%)로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 534.2만원(14.8%)의 약 12배 수준이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 부채 보유율이 28.1%로 더 높고, 부채 규모도 1,934.6만원으로 더 높다.

〈표 8-12〉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채 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

(단위: %, 명, 만원)

특성	보유 유무			부채 규모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¹⁾	27.1	72.9	100.0 (10,097)	1,892.8
지역				
동부	24.4	75.6	100.0 (7,651)	1,998.7
읍·면부	35.5	64.5	100.0 (2,446)	1,561.7
성				
남자	31.6	68.4	100.0 (4,346)	2,180.9
여자	23.7	76.3	100.0 (5,751)	1,675.1
연령				
65~69세	37.3	62.7	100.0 (3,344)	2,727.9
70~74세	27.9	72.1	100.0 (2,342)	1,880.6
75~79세	20.2	79.8	100.0 (2,292)	1,364.9
80~84세	17.3	82.7	100.0 (1,475)	1,081.9
85세 이상	17.9	82.1	100.0 (644)	1,337.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1.0	69.0	100.0 (6,779)	2,131.8
배우자 없음	19.1	80.9	100.0 (3,318)	1,404.5
가구형태				
노인독거	13.2	86.8	100.0 (1,998)	964.1
노인부부	29.8	70.2	100.0 (5,898)	1,902.8
자녀동거	32.6	67.4	100.0 (2,026)	2,707.6
기타	29.8	70.2	100.0 (174)	2,730.7
교육수준				
무학	18.0	82.0	100.0 (1,073)	1,003.2
초등학교	21.4	78.6	100.0 (3,198)	1,199.9
중학교	27.7	72.3	100.0 (2,356)	1,762.6
고등학교	34.8	65.2	100.0 (2,870)	2,959.4
전문대학 이상	34.3	65.7	100.0 (599)	2,588.5
현 취업상태				
취업중	46.5	53.5	100.0 (3,564)	2,953.5
미취업	16.5	83.5	100.0 (6,533)	1,314.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9	86.1	100.0 (2,019)	532.1
제2오분위	14.1	85.9	100.0 (2,020)	483.9
제3오분위	29.0	71.0	100.0 (2,017)	1,410.7
제4오분위	35.6	64.4	100.0 (2,024)	2,183.2
제5오분위	42.8	57.2	100.0 (2,017)	4,856.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4.8	85.2	100.0 (3,999)	534.2
50%이상-100%미만	30.3	69.7	100.0 (3,382)	1,715.7
100%이상-150%미만	36.4	63.6	100.0 (1,647)	2,598.5
150%이상	48.3	51.7	100.0 (1,068)	6,452.6
기능상태				
제한 없음	28.1	71.9	100.0 (8,864)	1,934.6
제한 있음	20.0	80.0	100.0 (1,233)	1,592.3
2017년도	29.0	71.0	100.0 (10,299)	2,408.4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3절 가구지출과 개인지출

1. 가구지출

〈표 8-13〉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은 147.5만원으로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 158.3만원, 읍·면부 노인 113.6만원으로 동부 노인이 약 44.7만원 정도 더 지출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156.7만원, 여자 노인이 140.6만원으로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소비지출이 16.1만원 더 많다. 연령별로는 65~69세 연령군의 소비지출이 172.6만원으로 가장 많고, 70~74세 연령군이 143.9만원, 75~79세 연령군이 131.2만원이지만, 80~84세 연령군에서는 127.3만원,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134.9만원으로 U자형의 지출구조를 보인다.

한편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인 경우 156.9만원, 무배우 노인의 경우 128.3만원으로 유배우 노인이 28.6만원 더 지출하고 있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인 경우 84.3만원, 노인부부가구 145.7만원 그리고 자녀동거가구 소비지출이 215.9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기타가구는 138.3만원이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소비지출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노인은 130만원 미만의 소비지출을 하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 138.9만원, 고등학교 졸업 177.0만원 그리고 전문대학 이상 졸업은 230.1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비지출을 보여준다. 현재 취업상태에 따른 소비지출은 차이는 크지 않지만 취업 노인이 155.4만원, 미취업 노인이 143.2만원으로 취업 노인이 12.2만원 더 소비하고 있다.

또한, 가구소득별 소비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역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지출도 높다. 중위소득 150% 이상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7만원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105.3만원보다 2배 이상 많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제한이 있는 경우 165.6만원으로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 145.0만원보다 약 20.6만원 더 높은 소비지출 수준이다.

한편 월평균 주거비지출은 23.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 23.6만원, 읍·면부 노인 21.2만원으로 동부 노인이 2.4만원 정도 더 지출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23.8만원, 여자 노인이 22.3만원으로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주거비지출이 1.5만

원 더 많으며, 연령별로는 65~69세 연령군의 주거비지출이 25.8만원으로 가장 많고, 70~74세 연령군 22.9만원, 75~79세 21.4만원, 80~84세와 85세 이상은 약 20만원 씩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월평균 주거비지출이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은 23.6만원, 무배우 노인은 21.7만원으로 유배우 노인이 1.9만원 더 지출하고 있다. 가구 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가 17.6만원으로 주거비지출이 가장 적고, 노인부부가구는 22.9만원, 기타가구는 24.1만원 그리고 자녀 동거가구의 주거비지출이 28.5만원으로 가장 많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비지출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노인은 21만원 이하의 주거비지출을 하고 있으며 중학교 졸업 23.5만원, 고등학교 졸업 24.9만원 그리고 전문대학 이상 졸업은 30.8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비지출을 보여준다. 현재 취업상태별 주거비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취업 노인(23.4만원)과 미취업 노인(22.7만원) 간의 지출 규모 차이가 거의 없다. 가구소득별로는 상위 분위로 올라감에 따라 주거비지출도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거비지출도 높아서 중위소득 150% 이상 30.7만원으로 중위소득 50% 미만 19.3만원보다 11.4만원 더 지출하고 있다. 기능상태별로 주거비지출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23.5만원으로 제한이 없는 노인이 22.9만원보다 약 0.6만원 더 많이 주거비를 지출하였다.

〈표 8-13〉 노인의 일반특성별 월평균 가구소비지출 및 주거비지출 금액(대표 가구원 응답)

(단위: 만원, 명)

특성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월평균 주거비지출 금액	(명)
전체 ¹⁾	147.5	23.0	(10,097)
지역			
동부	158.3	23.6	(7,651)
읍·면부	113.6	21.2	(2,446)
성			
남자	156.7	23.8	(4,346)
여자	140.6	22.3	(5,751)
연령			
65~69세	172.6	25.8	(3,344)
70~74세	143.9	22.9	(2,342)
75~79세	131.2	21.4	(2,292)
80~84세	127.3	20.2	(1,475)
85세 이상	134.9	20.8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56.9	23.6	(6,779)
배우자 없음	128.3	21.7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84.3	17.6	(1,998)
노인부부	145.7	22.9	(5,898)
자녀동거	215.9	28.5	(2,026)
기타	138.3	24.1	(174)
교육수준			
무학	110.1	17.4	(1,073)
초등학교	124.5	21.2	(3,198)
중학교	138.9	23.5	(2,356)
고등학교	177.0	24.9	(2,870)
전문대학 이상	230.1	30.8	(599)
현 취업상태			
취업중	155.4	23.4	(3,564)
미취업	143.2	22.7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9.4	19.8	(2,019)
제2오분위	105.0	18.4	(2,020)
제3오분위	123.3	21.2	(2,017)
제4오분위	163.1	25.1	(2,024)
제5오분위	246.8	30.2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05.3	19.3	(3,999)
50%이상~100%미만	139.9	22.8	(3,382)
100%이상~150%미만	194.9	27.1	(1,647)
150%이상	255.7	30.7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5.0	22.9	(8,864)
제한 있음	165.6	23.5	(1,233)
2017년도	162.2	17.8	(10,29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지출은 작년 한해(2019.1.1.~2019.12.31.) 기준임.

가구 소비지출 중 부담을 느끼는 생활비 항목을 살펴본 <표 8-14>에 의하면, 노인의 약 절반에 가까운 46.6%가 식비 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의 22.3%가 주택관리비, 냉난방비, 수도비 등을 포함하는 주거 관련 비용의 지출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응답했으며, 월세 2.2%를 더하면 전체 응답자 중에 24.5%가 주거와 관련된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보건의료비 10.9%, 경조사비 1.6%의 순으로 부담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노인의 10.5%는 부담되는 생활비 지출 항목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 특징을 보면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식비와 월세에 대해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부 노인은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 경조사비에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69세 연령군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담되는 지출 항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4.2%로 다른 연령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되는 지출 항목이 없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건의료비의 경우 연령과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 식비, 무배우 노인의 경우 월세, 주거관련비에 대한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 특징을 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주거관련비(28.0%)와 월세(4.8%)에 대한 부담이 높으며,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식비(48.2%)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자녀동거가구는 식비(48.5%)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가구형태이며, 이외에도 기타의 부담정도가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특징을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경조사비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학력이 낮을수록 주거관련비와 보건의료비, 월세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부담되는 지출 항목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서 전문대학 이상 학력 노인의 경우 24.8%로 무학 노인 4.1% 보다 6배 이상 높다. 취업상태별로 부담되는 지출 항목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취업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되는 지출 항목이 없다(12.7%), 미취업 노인의 경우 보건의료비(12.1%)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거관련비와 보건의료비, 월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반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조사비와 기타 항목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을 받지 않는 노인의 경우 식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반면, 제한이 있는 노인은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4〉 노인의 일반특성별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대표 가구원 응답)

(단위: %, 명)

특성	식비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	월세	경조사비	기타 ²⁾	없음	계 (명)
전체 ¹⁾	46.6	22.3	10.9	2.2	1.6	5.9	10.5	100.0 (10,097)
지역								
동부	48.3	20.2	10.1	2.7	1.5	6.2	11.1	100.0 (7,651)
읍·면부	41.4	28.7	13.6	0.9	1.8	5.0	8.6	100.0 (2,446)
성								
남자	46.5	20.7	10.5	1.8	2.0	6.0	12.5	100.0 (4,346)
여자	46.8	23.5	11.2	2.6	1.2	5.9	9.0	100.0 (5,751)
연령								
65~69세	49.4	19.6	4.8	1.7	2.7	7.6	14.2	100.0 (3,344)
70~74세	48.8	22.0	9.5	2.4	1.2	5.8	10.3	100.0 (2,342)
75~79세	43.2	24.0	16.2	2.8	1.1	4.9	8.0	100.0 (2,292)
80~84세	45.2	23.8	16.4	2.7	0.6	3.9	7.4	100.0 (1,475)
85세 이상	40.4	27.8	16.7	1.3	0.8	5.7	7.4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8.6	21.1	10.9	1.3	1.9	5.4	10.9	100.0 (6,779)
배우자 없음	42.6	24.8	11.0	4.2	0.9	6.9	9.6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39.4	28.0	12.6	4.8	1.0	3.5	10.6	100.0 (1,998)
노인부부	48.2	21.7	11.4	1.2	1.9	4.6	11.1	100.0 (5,898)
자녀동거	48.5	18.9	8.1	2.6	1.3	11.8	8.7	100.0 (2,026)
기타	55.4	16.8	9.0	2.9	0.0	8.3	7.5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47.0	26.5	14.6	2.4	0.4	4.9	4.1	100.0 (1,073)
초등학교	44.2	26.3	14.4	2.6	1.1	4.2	7.3	100.0 (3,198)
중학교	50.3	21.6	10.7	2.8	1.5	4.3	8.8	100.0 (2,356)
고등학교	48.5	18.5	6.2	1.5	2.0	8.4	14.8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35.7	13.6	9.2	1.2	4.1	11.4	24.8	100.0 (599)
현 취업상태								
취업중	45.2	22.5	8.8	2.4	2.3	6.1	12.7	100.0 (3,564)
미취업	47.4	22.1	12.1	2.1	1.2	5.8	9.2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4.9	25.9	13.8	3.7	1.3	3.6	6.9	100.0 (2,019)
제2오분위	42.2	29.4	13.9	2.7	0.8	3.5	7.5	100.0 (2,020)
제3오분위	48.2	22.3	12.0	2.0	0.9	4.2	10.4	100.0 (2,017)
제4오분위	50.6	18.8	9.5	1.2	2.1	6.6	11.4	100.0 (2,024)
제5오분위	47.2	15.1	5.4	1.6	2.8	11.8	16.2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4.4	27.4	14.2	2.8	1.1	3.5	6.7	100.0 (3,999)
50%이상~100%미만	48.5	21.4	11.1	2.5	1.2	5.0	10.3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48.1	17.3	6.9	1.2	2.7	9.4	14.3	100.0 (1,647)
150%이상	47.1	14.0	4.5	1.1	2.7	12.0	19.1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47.8	22.6	9.0	2.1	1.6	5.6	11.3	100.0 (8,864)
제한 있음	38.4	20.2	24.9	3.4	0.9	7.9	4.3	100.0 (1,233)
2017년도	18.7	24.9	23.1	5.5	4.4	14.3	9.3	100.0 (10,29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원이 응답한 결과임.

2) 기타는 교육비(1.0), 교통비(0.9), 간병돌봄비(0.9), 피복비(0.8), 부채상환(0.8), 통신비(0.7), 교양오락비(0.4), 가구·집기·사무용품(0.2), 기타(0.1)를 합한 항목임.

2. 개인지출

〈표 8-15〉에 기초하여 본인을 위한 지출 항목과 지출액을 살펴보면, 보건의료비, 간병돌봄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에 지출하고 있는 비율이 92.6%, 3.7%, 57.9%, 52.0%로 지출액은 각각 9.4만원, 1.6만원, 6.9만원, 7.6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개인지출 비율과 규모가 모두 큰 편이며, 특히 경조사비가 동부 노인 8.8만원으로 읍·면부 노인 3.8만원 보다 5만원 더 지출하고 있었다. 동부 노인은 보건의료비(10.3만원)와 문화여가비(7.8만원)도 읍·면부 노인(각각 6.3만원, 4.0만원)보다 약 4만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여자 노인보다 개인지출이 모두 높은 수준이다. 특히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는 남자 노인의 경우 지출 비율과 지출액이 모두 여자 노인보다 높아서, 남자 노인 문화여가비 65.2%, 9.2만원(여자노인 52.3%, 5.1만원), 경조사비 59.3%, 9.8만원(여자노인 46.4%, 5.9만원)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에 지출의 비율과 금액이 적어, 65~69세 연령군의 경조사비가 12.1만원이며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1.4만원이다(문화여가비 각각 10.7만원, 1.4만원). 보건의료비는 연령군별 차이가 크지 않고, 간병돌봄비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출 경험 비율은 높아지지만, 지출액은 규모가 작아서 연령군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배우자 유무별로 보면, 유배우 노인에게서 문화여가비(61.9%, 8.4만원)와 경조사비(57.9%, 9.5만원) 지출비율과 금액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노인부부가구의 경우에는 문화여가비(61.5%, 8.5만원)와 경조사비(57.2%, 9.8만원)가 다른 가구형태보다 높게 지출되고 있다. 또한 기타가구는 다른 가구형태보다 간병돌봄비 지출 비율은 높지 않지만 금액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지출하고 있다(5.3%, 2.9만원).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 모두 지출율과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 모두 지출률과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비는 취업 노인과 미취업 노인의 보건의료비 지출률은 동일하나, 그 규모에 있어서는 취업 노인이 다소 작은 편이다(8.2만원). 그리고 취업 노인은 상대적으로 문화여가비(73.5%, 9.4만원)와 경조사비(67.5%, 11.0만원)의 지출률과 지출 규모

가 큰 반면, 미취업 노인은 간병돌봄비(4.7%, 2.3만원)의 지출률과 지출 규모가 크다. 가구소득별 소비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건의료비, 간병돌봄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지출액이 모두 높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 비해 보건의료비와 간병돌봄비 지출 뿐만 아니라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 역시 더 적게 지출하고 있다. 특히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 간병돌봄비를 지출한 비율이 18.9%이나, 간병돌봄 지출액은 11.0만원으로 제한이 없는 경우 0.3만원과 차이가 있다.

〈표 8-16〉과 같이 항목별로 본인을 위한 지출 경험이 있는 노인의 지출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건의료비 10.1만원, 간병돌봄비 44.0만원, 문화여가비 11.9만원, 경조사비 14.6만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이 있는 노인의 지출규모 기준으로 볼 경우 간병돌봄비가 가장 크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개인지출 규모가 모두 큰 편이며, 특히 간병돌봄비의 경우 동부 노인 50.4만원으로 읍·면부 노인 18.5만원 보다 약 32만원 더 지출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여자 노인보다 개인지출 규모가 크며, 특히 간병돌봄비와 문화여가비의 경우 남자 노인 48.8만원과 14.2만원으로 여자 노인의 각각 40.8만원, 9.7만원 보다 높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문화여가비와 경조사비에 지출 금액이 적어, 65~69세 연령군의 경조사비가 17.9만원이며 85세 이상 연령군에서는 6.3만원이다(문화여가비 각각 14.6만원, 5.2만원). 배우자 유무별로 보면 유배우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지출 규모가 모두 크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가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지출 규모가 모두 큰 특성이 있다.

교육수준별로 비교해 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개인 지출 금액이 큰 편이며 특히 경조사비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39.7만원으로 무학 5.6만원의 약 7배 수준이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비는 취업 노인은 상대적으로 경조사비(취업 노인 16.3만원, 미취업 노인 13.2만원)가 많은 반면, 미취업 노인은 상대적으로 간병돌봄비(취업 노인 22.5만원, 미취업 노인 48.5만원) 지출 규모가 크다.

〈표 8-15〉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을 위한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단위: %, 만원, 명)

특성	지출유무				지출액				(명)
	보건 의료비	간병 돌봄비	문화 여가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간병돌봄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전체 ¹⁾	92.6	3.7	57.9	52.0	9.4	1.6	6.9	7.6	(10,097)
지역									
동부	93.1	3.9	59.5	53.8	10.3	2.0	7.8	8.8	(7,651)
읍·면부	90.8	3.0	52.8	46.3	6.3	0.6	4.0	3.8	(2,446)
성									
남자	91.3	3.4	65.2	59.3	10.1	1.7	9.2	9.8	(4,346)
여자	93.6	3.9	52.3	46.4	8.8	1.6	5.1	5.9	(5,751)
연령									
65~69세	89.9	1.9	73.4	67.7	9.2	1.3	10.7	12.1	(3,344)
70~74세	92.7	2.7	60.9	56.0	10.4	2.2	7.9	8.2	(2,342)
75~79세	94.4	4.2	52.9	46.5	9.8	1.8	4.6	5.3	(2,292)
80~84세	94.6	6.5	39.0	31.9	7.7	1.2	2.5	2.7	(1,475)
85세 이상	94.3	8.4	26.8	22.0	8.7	2.0	1.4	1.4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1.9	3.2	61.9	57.9	10.1	1.9	8.4	9.5	(6,779)
배우자 없음	94.0	4.7	49.5	39.9	7.8	1.1	3.8	3.6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92.6	3.2	51.1	40.2	6.5	.6	3.9	3.7	(1,998)
노인부부	91.7	3.0	61.5	57.2	10.5	1.9	8.5	9.8	(5,898)
자녀동거	95.5	6.1	54.5	48.7	9.0	1.6	5.2	5.2	(2,026)
기타	86.9	5.3	50.5	51.4	7.0	2.9	5.8	5.5	(174)
교육수준									
무학	94.1	5.2	31.2	24.5	6.7	1.4	1.3	1.4	(1,073)
초등학교	94.4	3.8	45.0	42.7	8.3	0.9	2.9	3.5	(3,198)
중학교	91.7	2.8	58.9	52.1	8.7	0.6	6.0	6.7	(2,356)
고등학교	90.9	3.4	75.8	67.7	11.1	2.2	10.4	10.5	(2,870)
전문대학 이상	91.4	5.4	84.4	75.7	14.3	7.3	23.8	30.1	(599)
현 취업상태									
취업중	91.9	1.8	73.5	67.5	8.2	0.4	9.4	11.0	(3,564)
미취업	92.9	4.7	49.3	43.5	9.7	2.3	5.5	5.7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4.0	3.4	39.2	39.2	6.7	0.8	2.5	3.8	(2,019)
제2오분위	92.0	3.2	45.8	40.5	7.9	0.5	2.6	3.5	(2,020)
제3오분위	91.2	2.8	60.4	50.7	7.9	0.8	4.3	4.7	(2,017)
제4오분위	91.9	3.6	66.9	60.1	9.0	0.9	8.7	8.6	(2,024)
제5오분위	93.7	5.5	76.9	69.5	15.3	5.1	16.2	17.5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3.2	3.2	41.5	40.1	7.5	0.6	2.5	3.6	(3,999)
50%이상~100%미만	91.6	3.9	60.5	51.9	7.8	1.0	5.2	5.7	(3,382)
100%이상~150%미만	92.7	3.5	74.6	63.7	10.6	1.2	10.8	9.8	(1,647)
150%이상	93.0	5.4	84.3	78.5	19.6	8.0	22.4	25.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91.9	1.6	61.5	54.2	7.5	0.3	6.5	7.0	(8,864)
제한 있음	97.5	18.9	31.8	36.0	22.7	11.0	9.1	11.7	(1,233)
2017년도	93.6	5.2	73.7	61.6	8.7	0.9	6.8	3.0	(10,29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다만, 보건의료비 금액은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지출은 작년 한해(2019.1.1.~2019.12.31.) 기준임.

〈표 8-16〉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을 위한 월평균 지출액(지출 경험이 있는 노인의 평균)

(단위: 만원, 명)

특성	지출노인의 지출액				지출노인 수(명)			
	보건 의료비	간병 돌봄비	문화 여가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간병돌봄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전체 ¹⁾	10.1	44.0	11.9	14.6	(9,347)	(373)	(5,842)	(5,250)
지역								
동부	11.1	50.4	13.1	16.4	(7,125)	(299)	(4,552)	(4,119)
읍·면부	6.9	18.5	7.6	8.1	(2,222)	(75)	(1,290)	(1,131)
성								
남자	11.0	48.8	14.2	16.5	(3,966)	(148)	(2,832)	(2,579)
여자	9.4	40.8	9.7	12.8	(5,381)	(225)	(3,010)	(2,671)
연령								
65~69세	10.2	65.9	14.6	17.9	(3,008)	(64)	(2,455)	(2,263)
70~74세	11.3	81.1	12.9	14.7	(2,171)	(63)	(1,427)	(1,310)
75~79세	10.4	42.2	8.6	11.3	(2,164)	(97)	(1,212)	(1,066)
80~84세	8.1	18.0	6.5	8.5	(1,396)	(95)	(575)	(470)
85세 이상	9.2	24.3	5.2	6.3	(607)	(54)	(173)	(14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1.0	58.7	13.5	16.4	(6,228)	(217)	(4,199)	(3,928)
배우자 없음	8.3	23.5	7.7	9.1	(3,119)	(156)	(1,643)	(1,322)
가구형태								
노인독거	7.0	18.1	7.6	9.3	(1,850)	(64)	(1,021)	(803)
노인부부	11.5	64.7	13.7	17.1	(5,411)	(176)	(3,629)	(3,371)
자녀동거	9.4	27.0	9.6	10.6	(1,934)	(124)	(1,104)	(986)
기타	8.1	55.2	11.4	10.7	(151)	(9)	(88)	(89)
교육수준								
무학	7.1	26.2	4.2	5.6	(1,010)	(56)	(335)	(263)
초등학교	8.8	22.9	6.5	8.2	(3,017)	(121)	(1,438)	(1,366)
중학교	9.5	20.5	10.3	13.0	(2,162)	(67)	(1,388)	(1,227)
고등학교	12.2	66.5	13.8	15.5	(2,609)	(97)	(2,175)	(1,942)
전문대학 이상	15.6	135.9	28.2	39.7	(548)	(32)	(506)	(453)
현 취업상태								
취업중	9.0	22.5	12.8	16.3	(3,275)	(64)	(2,620)	(2,407)
미취업	10.7	48.5	11.1	13.2	(6,071)	(309)	(3,222)	(2,84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1	24.7	6.3	9.6	(1,898)	(68)	(792)	(792)
제2오분위	8.6	15.2	5.8	8.7	(1,859)	(64)	(925)	(818)
제3오분위	8.7	27.7	7.1	9.2	(1,839)	(56)	(1,219)	(1,023)
제4오분위	9.8	25.2	12.9	14.2	(1,860)	(73)	(1,354)	(1,216)
제5오분위	16.3	93.4	21.1	25.1	(1,891)	(111)	(1,551)	(1,40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0	19.6	6.0	9.0	(3,725)	(127)	(1,667)	(1,606)
50%이상~100%미만	8.5	25.3	8.5	11.1	(3,098)	(135)	(2,042)	(1,760)
100%이상~150%미만	11.2	35.9	14.2	15.1	(1,527)	(56)	(1,230)	(1,046)
150%이상	21.3	153.0	26.9	32.2	(997)	(56)	(903)	(837)
기능상태								
제한 없음	8.2	20.7	10.6	13.0	(8,145)	(140)	(5,450)	(4,807)
제한 있음	23.2	57.9	28.6	32.5	(1,202)	(234)	(392)	(443)
2017년도	9.3	17.7	9.3	4.9	(9,691)	(539)	(7,482)	(6,185)

주: 1) 전체응답자 중 항목별로 지출이 있었던 노인을 대상으로, 평균 지출액을 계산함.

2) 지출은 작년 한해(2019.1.1.~2019.12.31.) 기준임.

제4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표 8-17〉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4.6%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며, 의료급여만 적용되는 노인은 2.4%, 그 외 일반노인은 92.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5.1%로 동부 노인 4.5%로 보다 0.6%포인트 높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 4.3%, 여자 노인 4.9%로 여자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다가 85세 이상에서 조금 낮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65~69세 연령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2.5%, 70~74세 연령군 4.3%, 75~79세 연령군 6.3%, 80~84세 연령군 6.7%, 85세 이상 연령군 6.4%이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은 2.9%이지만 무배우 노인의 경우 동 비율은 8.2%로 훨씬 더 높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가 10.9%로 가장 높고, 노인부부가구 3.1%, 자녀동거가구 2.9%, 그리고 기타가구가 6.6%이다.

교육수준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 무학 8.2%, 초등학교 졸업 6.2%, 중학교 졸업 4.7%, 고등학교 졸업 2.0%, 전문대학 이상 졸업 2.4%이다.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 노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미취업 노인보다 높으며(취업 노인 2.8%, 미취업 노인 5.7%), 가구소득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높아 중위소득 50% 미만의 경우 7.4%, 중위소득 50% 이상~100% 미만 3.7%, 중위소득 100% 이상~150% 미만 2.0% 등의 순이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13.2%로 제한이 없는 경우 3.5%보다 9.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표 8-17〉 노인의 일반특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단위: %, 명)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만	그 외	계 (명)
전체 ¹⁾	4.6	2.4	92.9	100.0 (10,097)
지역				
동부	4.5	2.2	93.3	100.0 (7,651)
읍·면부	5.1	3.2	91.7	100.0 (2,446)
성				
남자	4.3	2.3	93.4	100.0 (4,346)
여자	4.9	2.5	92.6	100.0 (5,751)
연령				
65~69세	2.5	1.0	96.5	100.0 (3,344)
70~74세	4.3	1.6	94.1	100.0 (2,342)
75~79세	6.3	4.5	89.3	100.0 (2,292)
80~84세	6.7	3.2	90.1	100.0 (1,475)
85세 이상	6.4	3.7	89.9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9	1.9	95.2	100.0 (6,779)
배우자 없음	8.2	3.6	88.2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10.9	4.1	85.0	100.0 (1,998)
노인부부	3.1	1.8	95.1	100.0 (5,898)
자녀동거	2.9	2.4	94.7	100.0 (2,026)
기타	6.6	2.9	90.5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8.2	3.7	88.1	100.0 (1,073)
초등학교	6.2	3.8	90.0	100.0 (3,198)
중학교	4.7	1.8	93.5	100.0 (2,356)
고등학교	2.0	1.1	96.8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2.4	1.3	96.3	100.0 (599)
현 취업상태				
취업중	2.8	1.6	95.7	100.0 (3,564)
미취업	5.7	2.9	91.4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2	4.8	87.0	100.0 (2,019)
제2오분위	8.2	3.4	88.4	100.0 (2,020)
제3오분위	4.1	2.1	93.8	100.0 (2,017)
제4오분위	1.5	1.2	97.3	100.0 (2,024)
제5오분위	1.2	0.7	98.1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4	4.1	88.5	100.0 (3,999)
50%이상~100%미만	3.7	2.0	94.3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2.0	0.5	97.5	100.0 (1,647)
150%이상	1.3	0.5	98.2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3.5	2.1	94.4	100.0 (8,864)
제한 있음	13.2	4.5	82.3	100.0 (1,233)
2017년도	6.4	1.6	92.0	100.0 (10,29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9장

노인의 경제활동

제1절 경제활동 참여실태

제2절 최장기 종사 직종

제3절 향후 경제활동 의사

제4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 및 욕구

제9장 노인의 경제활동

본 장에서는 노인의 경제활동 관련 특징을 현재, 과거, 미래의 관점에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즉 현재의 경제활동 참여실태를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노년기 이전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최장기 종사 직종을 조사하였다. 또한, 향후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실태를 전망하기 위하여 미래의 관점에서 향후 경제활동 의사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1절 경제활동 참여실태

본 조사에서 일이란 조사시점으로부터 일주일 기간 중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202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36.9%는 현재 일을 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49.5%는 과거 일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고, 13.6%는 평생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1〉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은 33.7%, 읍·면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46.8%로 농어촌 지역 거주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다. 또한, 성별로도 차이가 있어 남자 노인은 46.9%이며 여자 노인은 29.3%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은 낮은 경향을 보여, 65~69세 연령군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5.1%, 70~74세 연령군 37.2%, 75~79세 연령군 28.8%, 80~84세 연령군 19.1%, 그리고 85세 이상 연령군은 10.6%이다.

유배우 노인의 41.2%, 무배우 노인의 28.0%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1.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노인독거가구 33.5%, 기타가구 30.9%, 자녀동거가구 27.5%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서, 무학 경제활동 참여율 19.4%, 초등학교 30.7%, 중학교 39.4%, 고등학교 47.2%로 증가한다. 그러나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져 42.4%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높아서, 중위소득 150% 이상 52.8%로 중위소득 50% 미만 25.4%보다 약 2배 높다. 기능상태별로 살펴보면, 신체적인 기능상의 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40.2%로 전체 평균 36.9% 보다 높으나, 신체적인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13.4%이다.

〈표 9-1〉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제활동 실태

(단위: %, 명)

특성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한 경험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계	(명)
전체 ¹⁾	36.9	49.5	13.6	100.0	(10,097)
지역					
동부	33.7	51.4	14.9	100.0	(7,651)
읍·면부	46.8	43.7	9.4	100.0	(2,446)
성					
남자	46.9	51.3	1.8	100.0	(4,346)
여자	29.3	48.2	22.5	100.0	(5,751)
연령					
65~69세	55.1	34.9	10.0	100.0	(3,344)
70~74세	37.2	50.4	12.4	100.0	(2,342)
75~79세	28.8	57.0	14.2	100.0	(2,292)
80~84세	19.1	63.4	17.4	100.0	(1,475)
85세 이상	10.6	63.5	25.9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1.2	48.2	10.6	100.0	(6,779)
배우자 없음	28.0	52.3	19.7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33.5	49.3	17.1	100.0	(1,998)
노인부부	41.4	48.2	10.4	100.0	(5,898)
자녀동거	27.5	53.6	19.0	100.0	(2,026)
기타	30.9	49.6	19.5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9.4	61.9	18.7	100.0	(1,073)
초등학교	30.7	51.5	17.8	100.0	(3,198)
중학교	39.4	46.9	13.7	100.0	(2,356)
고등학교	47.2	44.1	8.8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42.4	53.1	4.5	100.0	(59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2.6	57.5	19.9	100.0	(2,019)
제2오분위	29.6	55.0	15.4	100.0	(2,020)
제3오분위	42.4	46.0	11.6	100.0	(2,017)
제4오분위	46.6	43.2	10.2	100.0	(2,024)
제5오분위	43.2	45.9	10.9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5.4	57.1	17.4	100.0	(3,999)
50%이상~100%미만	41.1	46.3	12.6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45.8	44.8	9.4	100.0	(1,647)
150%이상	52.8	38.3	8.9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40.2	46.8	13.1	100.0	(8,864)
제한 있음	13.4	69.2	17.4	100.0	(1,233)
2017년도 ²⁾	30.9	59.3	9.8	100.0	(10,07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2〉에 의하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중 단순노무 종사자가 48.7%로 가장 큰 비율로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가 13.5%로 나타났다. 그 밖에 서비스종사자 12.2%, 관리자 8.8%, 기능원 및 관련 직종 5.6%, 판매종사자 4.7% 등이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의 34.7%가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이며, 단순노무종사자는 동부 노인 48.0%, 읍·면부 노인 50.1%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남자 노인이 14.5%, 여자 노인이 12.3%로 남녀 간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는 남자 노인이 44.5%, 여자 노인이 53.7%로 여자 노인의 비율이 높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및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으며, 그 외 직종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종사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의 44.5%는 단순노무종사자, 15.2%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2.4%는 서비스종사자이다. 반면 무배우 노인의 61.2%는 단순노무종사자이며, 8.3%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1.8%는 서비스종사자 등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가구형태에 상관없이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독거가구의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6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서비스종사자 12.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8.6%이다. 노인부부가구는 노인독거가구에 비해 단순노무종사자(45.8%) 비율이 낮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율(15.6%)은 높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종사상 지위의 차이가 크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 노인의 경우 다른 교육 수준에 비해 관리자 비율이 22.2%로 월등히 높은 반면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은 28.3%로 매우 낮다. 반면 무학 노인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이 70.8%로 대다수이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높은 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관리자, 서비스종사자 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48.4%는 단순노무종사자, 13.3%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이며,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53.7%는 단순노무종사자, 17.4%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 노인의 일반특성별 종사 직종

(단위: %, 명)

특성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 자	서비스종 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계 (명)
전체 ¹⁾	8.8	2.0	1.1	12.2	4.7	13.5	5.6	3.2	48.7	0.3	100.0 (3,725)
지역											
동부	11.5	2.4	1.3	15.5	5.9	4.1	6.9	4.4	48.0	0.0	100.0 (2,579)
읍·면부	2.6	1.0	0.6	4.8	2.0	34.7	2.8	0.4	50.1	1.0	100.0 (1,145)
성											
남자	10.9	1.4	1.1	10.3	4.1	14.5	8.1	4.7	44.5	0.4	100.0 (2,039)
여자	6.2	2.7	1.0	14.6	5.4	12.3	2.7	1.4	53.7	0.2	100.0 (1,686)
연령											
65~69세	12.8	2.4	1.5	17.2	7.0	10.0	7.5	4.6	36.9	0.0	100.0 (1,843)
70~74세	5.2	1.8	1.1	10.9	3.3	15.6	4.5	2.9	54.5	0.2	100.0 (871)
75~79세	5.7	1.6	0.1	4.8	1.5	16.6	4.2	1.1	63.5	0.7	100.0 (660)
80~84세	2.5	0.7	0.1	4.2	1.8	21.1	1.2	0.4	66.2	1.6	100.0 (282)
85세 이상	0.0	1.5	0.0	1.7	0.0	20.7	0.0	0.0	75.3	0.0	100.0 (6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5	2.0	1.0	12.4	5.0	15.2	6.1	3.9	44.5	0.3	100.0 (2,796)
배우자 없음	6.5	1.8	1.1	11.8	3.7	8.3	4.1	1.2	61.2	0.3	100.0 (929)
가구형태											
노인독거	6.2	1.3	0.8	12.3	4.0	8.6	3.9	1.4	61.2	0.4	100.0 (670)
노인부부	8.9	2.2	1.0	12.0	4.8	15.6	6.0	3.5	45.8	0.4	100.0 (2,444)
자녀동거	11.8	1.3	1.3	14.1	5.1	9.4	6.0	3.7	47.3	0.0	100.0 (556)
기타	5.6	7.4	5.6	5.6	1.9	22.2	5.6	7.4	38.9	0.0	100.0 (54)
교육수준											
무학	1.7	0.5	0.0	3.4	3.3	14.7	3.3	0.0	70.8	2.2	100.0 (208)
초등학교	3.0	1.0	0.2	7.4	2.0	18.8	2.4	1.2	63.6	0.5	100.0 (982)
중학교	6.4	1.3	0.4	10.0	4.2	18.9	5.9	2.3	50.5	0.2	100.0 (927)
고등학교	13.2	2.2	1.6	17.6	7.1	7.7	8.7	4.9	37.1	0.0	100.0 (1,353)
전문대학 이상	22.2	8.1	4.7	18.3	4.9	3.4	2.8	7.4	28.3	0.0	100.0 (25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2	1.4	0.4	6.3	3.8	9.5	1.8	2.5	67.1	1.9	100.0 (457)
제2오분위	4.2	1.1	0.1	5.2	0.6	19.1	2.3	1.0	66.3	0.3	100.0 (598)
제3오분위	3.7	2.1	0.4	9.0	5.4	21.2	4.9	2.4	50.7	0.2	100.0 (855)
제4오분위	10.4	2.5	1.5	13.0	6.1	12.1	9.1	3.1	42.2	0.0	100.0 (943)
제5오분위	17.0	2.3	2.2	22.6	5.6	5.7	6.9	5.9	31.8	0.0	100.0 (87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8	1.3	0.3	6.2	2.1	16.8	2.0	1.7	63.7	1.0	100.0 (1,017)
50%이상·100%미만	5.6	2.1	0.4	7.7	5.2	16.9	5.9	2.8	53.3	0.1	100.0 (1,390)
100%이상·150%미만	9.8	2.6	2.6	20.4	6.3	8.9	8.2	3.9	37.1	0.0	100.0 (754)
150%이상	22.2	2.0	1.9	23.4	5.7	5.3	8.0	5.9	25.5	0.0	100.0 (564)
기능상태											
제한 없음	8.9	1.9	1.1	12.4	4.6	13.3	5.7	3.3	48.4	0.3	100.0 (3,560)
제한 있음	5.5	3.5	0.9	9.2	6.2	17.4	3.5	0.0	53.7	0.0	100.0 (165)
2017년도 ²⁾	1.8	2.2	0.9	5.2	5.6	32.9	3.8	7.5	40.1	0.0	100.0 (3,117)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인이 종사하는 일의 내용을 범주화하여 살펴본 <표 9-3>에 의하면 경비·수위·청소 관련한 일이 25.7%로 가장 많으며, 농림어업 20.6%, 운송·건설 관련 18.7%, 가사·조리·음식 관련 업무 13.8%, 공공·환경 관련 업무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거주 노인의 54.4%가 농림어업에 종사하였으며, 동부 거주노인의 경우 경비·수위·청소 업무가 3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운송·건설 24.4%, 가사·조리·음식 종사자 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은 운송, 건설 관련 종사자 28.3%로 가장 높으며, 경비·수위·청소 종사자 24.0%, 농림어업 22.4% 순으로 높았다. 반면 여자 노인은 경비·수위·청소 종사자 27.8%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가사, 조리 음식 종사자 23.4%, 농림어업 18.5%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연령에 따른 일의 내용은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농림어업 관련 일을 하는 비율이 전체 평균(20.6%)보다 높다. 그리고 경비·수위·청소 종사자는 70세 이상 연령군에서 30%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송과 건설 종사자는 65~69세 연령군의 비율이 25.7%로 나타났다. 그리고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다른 연령군과 달리 공공, 환경 관련 종사자 비율이 34.6%로 높은 것이 특징이며, 경비·수위·청소 종사자 34.7%, 농림어업 25.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경우 경비·수위·청소 종사자 비율이 32.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가사·조리·음식 종사자 18.0%, 농림어업 15.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경비·수위·청소 종사자 비율이 31.4%, 공공, 환경 관련 종사자 15.1%로 모든 가구형태에서 가장 높다.

교육수준에 따른 일의 내용을 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농림어업과 공공·환경 종사자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조리·음식 종사자와 운송·건설 관련 종사자, 기타분야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경향성이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공공·환경 관련 종사자와 경비·수위·청소 종사자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사, 조리 음식 종사자와 운송, 건설 관련 종사자, 기타 분야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신체적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31.9%는 농림어업에 종사하였으며, 경비·수위·청소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노인도 18.7%에 달하였다. 반면 신체적 기능상의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는 경비·수위·청소, 운송·건설 관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9-3〉 노인의 일반특성별 일의 내용

(단위: %, 명)

특성	농림 어업	경비,수위 청소	가사,조리 음식	운송,건설 관련 ²⁾	공공,환경 관련 ³⁾	기타 ⁴⁾	계 (명)
전체 ¹⁾	20.6	25.7	13.8	18.7	10.0	11.2	100.0 (3,725)
지역							
동부	5.6	30.4	17.4	24.4	8.4	13.8	100.0 (2,579)
읍·면부	54.4	15.2	5.5	6.0	13.5	5.4	100.0 (1,145)
성							
남자	22.4	24.0	5.8	28.3	8.9	10.5	100.0 (2,039)
여자	18.5	27.8	23.4	7.2	11.2	12.0	100.0 (1,686)
연령							
65~69세	15.5	19.6	19.6	25.7	3.8	15.8	100.0 (1,843)
70~74세	23.7	30.8	10.2	15.7	10.8	8.8	100.0 (871)
75~79세	26.8	30.9	6.2	10.4	19.8	5.8	100.0 (660)
80~84세	29.0	35.5	7.4	6.8	18.4	2.9	100.0 (282)
85세 이상	25.8	34.7	1.1	1.2	34.6	2.6	100.0 (6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4	23.4	12.4	21.2	8.8	11.9	100.0 (2,796)
배우자 없음	15.3	32.8	18.0	11.4	13.4	9.1	100.0 (929)
가구형태							
노인독거	15.6	31.4	17.6	10.9	15.1	9.4	100.0 (670)
노인부부	22.3	23.9	12.2	20.5	9.8	11.2	100.0 (2,444)
자녀동거	18.3	26.5	16.2	20.4	5.4	13.2	100.0 (556)
기타	31.5	27.8	11.1	18.5	0.0	11.1	100.0 (54)
교육수준							
무학	22.5	38.1	5.3	4.4	25.1	4.7	100.0 (208)
초등학교	31.3	30.2	8.8	8.8	16.3	4.7	100.0 (982)
중학교	26.4	27.3	15.1	15.6	7.5	8.2	100.0 (927)
고등학교	11.7	20.2	17.1	29.7	5.9	15.4	100.0 (1,353)
전문대학 이상	4.7	22.0	17.2	22.4	3.8	30.0	100.0 (25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6	26.5	9.9	12.5	32.2	5.4	100.0 (457)
제2오분위	24.9	34.9	9.3	7.6	19.7	3.7	100.0 (598)
제3오분위	32.2	28.0	13.0	13.5	5.1	8.2	100.0 (855)
제4오분위	19.3	25.4	13.2	24.3	3.1	14.7	100.0 (943)
제5오분위	11.5	17.2	20.2	28.9	3.7	18.4	100.0 (87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2.3	29.3	9.4	9.8	24.3	5.0	100.0 (1,017)
50%이상·100%미만	26.6	30.3	10.7	17.2	5.8	9.4	100.0 (1,390)
100%이상·150%미만	14.7	22.6	19.8	23.7	3.7	15.5	100.0 (754)
150%이상	10.8	12.2	21.2	32.0	2.7	21.0	100.0 (564)
기능상태							
제한 없음	20.1	26.0	13.9	19.1	9.8	11.1	100.0 (3,560)
제한 있음	31.9	18.7	11.0	12.0	14.2	12.1	100.0 (165)
2017년도 ⁵⁾	34.7	20.1	12.0	15.3	6.3	11.6	100.0 (3,117)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운전·운송(5.1), 택배·배달(0.9), 건설·기계(5.3), 생산작업(4.7), 현장관리(2.6)가 해당됨.

3) 환경조경(5.7), 공공질서유지(3.0), 폐휴지 줍기(1.0)가 포함됨.

4) 전문직(2.8), 행정사무직(1.6), 문화예술(0.4), 기타(7.2)가 해당됨.

5)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의 종사상 지위는 자영업자 33.4%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임시근로자 21.2%, 상용근로자 18.4%, 일용근로자 15.2%, 무급가족종사자 7.4%로 나타났다(〈표 9-4〉 참조). 지역별로는 동부 거주 노인은 자영업자 26.2%, 임시근로자 26.0%, 상용근로자 22.6%, 일용근로자 15.2% 등 종사상 지위가 비교적 고른 편이나, 읍·면부 노인은 자영업자 비율이 49.4%로 절반을 차지하며, 그 다음 일용근로자 15.3%, 임시근로자 10.5%, 상용근로자 9.0% 등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노인의 경우, 자영업자가 40.8%를 차지하며, 여자 노인은 임시근로자 25.8%와 자영업자 24.3%이다. 또한, 여자 노인은 상대적으로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높은 14.1%(남자 노인 1.8%)에 달한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용근로자와 고용주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 연령군 특성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65~69세 연령군에서 가장 높으며, 임시근로자는 85세 이상 연령군에서 37.7%로 가장 높다. 자영업자는 70대 미만에서 평균 이상의 비율을 보이며, 임시근로자는 70대 이상에서 평균 이상의 비율이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은 자영업자(35.1%) 비율이 높은 반면, 무배우 노인의 경우 임시근로자(30.2%) 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용근로자와 고용주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확인되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상용근로자와 고용주 비율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에 종사하고 있는 2,045명을 대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가 정부지원 일자리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표 9-5〉 참조). 노인 임금근로자의 41.8%는 정부지원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다.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특성을 보면, 지역별로 동부 노인(37.5%)보다는 읍·면부 노인(59.6%)의 비율이 높고, 성별로 남자 노인(33.3%)보다는 여자 노인(50.8%)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연령별로는 임금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80세 이상 연령군의 84% 이상이 정부지원 일자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임금근로 노인의 52.3%, 노인독거가구 노인의 53.8%가 정부지원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정부지원 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9-4〉 노인의 일반특성별 현재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특성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	(명)
전체 ¹⁾	18.4	21.2	15.2	4.3	33.4	7.4	-	100.0	(3,725)
지역									
동부	22.6	26.0	15.2	5.5	26.2	4.4	-	100.0	(2,579)
읍·면부	9.0	10.5	15.3	1.7	49.4	14.0	-	100.0	(1,145)
성									
남자	21.9	17.5	12.1	6.0	40.8	1.8	-	100.0	(2,039)
여자	14.3	25.8	19.0	2.4	24.3	14.1	-	100.0	(1,686)
연령									
65~69세	26.4	16.7	8.8	5.7	34.7	7.6	-	100.0	(1,843)
70~74세	14.5	25.6	14.8	3.8	33.8	7.6	-	100.0	(871)
75~79세	9.2	24.3	27.3	2.8	30.5	6.0	-	100.0	(660)
80~84세	4.5	26.4	27.3	1.3	30.7	9.8	-	100.0	(282)
85세 이상	1.4	37.7	27.5	1.4	29.0	2.9	-	100.0	(6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9.0	18.3	13.4	5.0	35.1	9.3	-	100.0	(2,796)
배우자 없음	16.9	30.2	20.6	2.5	28.3	1.6	-	100.0	(929)
가구형태									
노인독거	18.1	29.3	20.1	3.0	28.7	0.7	-	100.0	(670)
노인부부	18.7	18.5	14.3	4.9	33.9	9.7	-	100.0	(2,444)
자녀동거	16.2	23.8	14.2	3.7	36.8	5.4	-	100.0	(556)
기타	33.3	18.5	5.6	1.9	33.3	7.4	-	100.0	(54)
교육수준									
무학	3.0	30.9	29.1	0.5	29.5	7.0	-	100.0	(208)
초등학교	9.0	23.5	23.6	1.3	32.4	10.2	-	100.0	(982)
중학교	17.6	23.4	13.5	2.8	35.0	7.7	-	100.0	(927)
고등학교	26.5	18.4	8.7	6.6	34.5	5.3	-	100.0	(1,353)
전문대학 이상	27.9	11.8	12.6	12.8	28.3	6.6	-	100.0	(25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5	30.7	34.6	1.6	21.8	3.7	-	100.0	(457)
제2오분위	6.4	27.3	31.8	1.7	25.9	7.0	-	100.0	(598)
제3오분위	16.9	22.6	10.6	1.5	38.0	10.3	-	100.0	(855)
제4오분위	23.5	17.3	8.2	3.7	39.3	8.0	-	100.0	(943)
제5오분위	28.5	15.1	5.8	11.1	33.5	6.0	-	100.0	(87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2	27.5	32.0	1.6	25.9	6.9	-	100.0	(1,017)
50%이상~100%미만	18.4	22.8	11.6	1.9	36.2	9.1	-	100.0	(1,390)
100%이상~150%미만	25.8	17.2	8.5	5.6	37.1	5.8	-	100.0	(754)
150%이상	30.9	11.5	3.1	13.7	34.7	6.2	-	100.0	(56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8.7	21.4	15.2	3.8	33.4	7.4	-	100.0	(3,560)
제한 있음	13.4	17.5	15.1	15.7	31.9	6.4	-	100.0	(165)
2017년도 ²⁾	5.6	33.3	9.2	1.3	38.0	11.7	0.9	100.0	(3,117)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5〉 노인의 일반특성별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여부(임금근로자 중 비율)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¹⁾	41.8	58.2	100.0	(2,045)
지역				
동부	37.5	62.5	100.0	(1,646)
읍·면부	59.6	40.4	100.0	(399)
성				
남자	33.3	66.7	100.0	(1,049)
여자	50.8	49.2	100.0	(997)
연령				
65~69세	16.8	83.2	100.0	(957)
70~74세	48.7	51.3	100.0	(478)
75~79세	70.4	29.6	100.0	(401)
80~84세	84.1	15.9	100.0	(164)
85세 이상	93.3	6.7	100.0	(4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7.2	62.8	100.0	(1,417)
배우자 없음	52.3	47.7	100.0	(629)
가구형태				
노인독거	53.8	46.2	100.0	(453)
노인부부	39.1	60.9	100.0	(1,259)
자녀동거	38.5	61.5	100.0	(301)
기타	12.5	87.5	100.0	(32)
교육수준				
무학	81.3	18.7	100.0	(131)
초등학교	65.3	34.7	100.0	(551)
중학교	40.8	59.2	100.0	(506)
고등학교	19.9	80.1	100.0	(725)
전문대학 이상	29.2	70.8	100.0	(1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6.0	24.0	100.0	(333)
제2오분위	75.1	24.9	100.0	(391)
제3오분위	30.8	69.2	100.0	(428)
제4오분위	23.4	76.6	100.0	(462)
제5오분위	16.1	83.9	100.0	(43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6.1	23.9	100.0	(667)
50%이상~100%미만	34.7	65.3	100.0	(734)
100%이상~150%미만	17.6	82.4	100.0	(388)
150%이상	10.0	90.0	100.0	(256)
기능상태				
제한 없음	41.4	58.6	100.0	(1,970)
제한 있음	52.3	47.7	100.0	(76)
2017년도 ²⁾	42.8	57.2	100.0	(1,498)

주: 1) 전체응답자 중 임금근로자 2,04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중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65세 이상 노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율이 31.6%로 가장 높으며, 사업체가 아닌 논이나 밭, 길거리 등 21.3%, 민간회사 20.8%, 공공기관 20.4% 등의 순이다(〈표 9-6〉 참조).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읍·면부 노인의 54.2%가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동부 노인은 개인사업체 39.2%, 민간회사 26.8%, 공공기관 20.5% 등에서 근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나, 남자 노인은 민간회사(26.1%), 여자 노인은 공공기관(27.3%)에서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개인사업체와 민간회사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논이나 밭, 길거리 등 사업체가 아닌 장소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자의 경우 공공기관(31.9%)의 비율이 높은 반면, 유배우자의 경우 사업체 아님(23.2%), 개인사업체(33.5%)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31.5%이며,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개인사업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사업체 아닌 곳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개인사업체나 민간회사 근무자 비율은 낮은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이와 함께 무학 노인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일하거나 비영리·시민·종교단체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개인사업체와 민간회사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사업체가 아닌 곳에서 일하거나(28.3%),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율(21.4%)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표 9-6〉 노인의 일반특성별 현재 근무장소 형태

(단위: %, 명)

특성	사업체 아님(농림 어업)	개인 사업체	민간 회사	공공 기관	비영리, 시민, 종교단체	특정사업 미소속	미등록 사업장	계 (명)
전체 ¹⁾	21.3	31.6	20.8	20.4	1.8	2.6	1.5	100.0 (3,725)
지역								
동부	6.6	39.2	26.8	20.5	2.0	3.3	1.6	100.0 (2,579)
읍·면부	54.2	14.6	7.3	20.1	1.4	1.2	1.1	100.0 (1,145)
성								
남자	22.4	32.1	26.1	14.6	1.2	2.8	0.8	100.0 (2,039)
여자	19.9	31.1	14.5	27.3	2.5	2.4	2.3	100.0 (1,686)
연령								
65~69세	15.5	43.8	28.4	7.7	1.2	2.6	0.9	100.0 (1,843)
70~74세	24.8	26.1	21.6	20.5	2.5	2.7	1.8	100.0 (871)
75~79세	27.1	17.4	9.3	39.4	2.5	2.3	1.9	100.0 (660)
80~84세	31.6	9.6	1.2	49.1	1.8	3.3	3.5	100.0 (282)
85세 이상	32.8	3.0	0.0	59.7	3.0	1.5	0.0	100.0 (6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3.2	33.5	21.8	16.5	1.5	2.4	1.2	100.0 (2,796)
배우자 없음	15.6	26.0	18.1	31.9	2.6	3.4	2.3	100.0 (929)
가구형태								
노인독거	16.2	26.9	17.3	31.5	2.8	3.6	1.8	100.0 (670)
노인부부	23.3	32.5	21.8	17.6	1.5	2.3	1.1	100.0 (2,444)
자녀동거	17.7	34.9	20.1	20.4	1.6	2.9	2.5	100.0 (556)
기타	30.9	20.0	29.1	9.1	3.6	5.5	1.8	100.0 (54)
교육수준								
무학	24.8	12.7	5.0	50.8	1.7	1.8	3.1	100.0 (208)
초등학교	33.1	16.4	9.7	35.3	1.8	2.1	1.7	100.0 (982)
중학교	26.3	27.7	22.7	17.5	1.5	2.5	1.8	100.0 (927)
고등학교	11.8	45.8	28.0	8.5	1.5	3.5	0.9	100.0 (1,353)
전문대학 이상	4.7	44.9	32.0	11.7	4.3	1.2	1.2	100.0 (25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1	15.2	15.0	50.9	1.6	2.5	1.7	100.0 (457)
제2오분위	26.4	13.3	6.2	46.1	2.8	3.2	2.1	100.0 (598)
제3오분위	34.5	28.3	18.9	13.6	1.4	1.6	1.8	100.0 (855)
제4오분위	18.8	39.6	27.4	7.5	2.3	2.9	1.5	100.0 (943)
제5오분위	11.7	47.5	28.8	7.4	1.0	3.1	0.5	100.0 (87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2.9	14.4	9.5	47.1	1.7	2.7	1.7	100.0 (1,017)
50%이상~100%미만	28.1	29.5	21.4	14.9	2.3	1.9	2.0	100.0 (1,390)
100%이상~150%미만	14.1	44.4	29.4	6.0	1.8	3.6	0.7	100.0 (754)
150%이상	11.1	51.0	28.4	4.9	0.8	3.1	0.7	100.0 (564)
기능상태								
제한 없음	20.9	31.9	21.0	20.3	1.7	2.7	1.4	100.0 (3,560)
제한 있음	28.3	25.2	16.5	21.4	3.7	2.0	2.9	100.0 (165)
2017년도 ²⁾	34.9	15.2	17.3	15.1	8.9	7.2	1.4	100.0 (3,117)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7〉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주당 근무일수를 보면, 주5일 일하는 노인이 전체의 41.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주6일 24.1%, 주3일 14.7%, 주7일 10.0%, 주4일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주5일 근무하는 노인은 동부와 읍·면부가 유사하나, 주3일 근무자는 읍·면부(9.0%) 노인보다 동부(17.3%)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주7일 근무 노인은 읍·면부 노인이 18.5%로 동부 노인(6.2%)보다 더 높다. 성별에 따른 근무일수 차이는 크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남자 노인은 주6일(25.8%), 여자 노인은 주3일(18.8%) 비율이 높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5일 근무와 주6일 근무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주3일 근무자는 80~84세 연령군(35.5%), 85세 이상 연령군(39.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85세 이상 연령군의 37.7%는 주5일 동안 일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배우자 유무별로 주당 근무일수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무배우 노인은 주3일(22.2%), 유배우 노인은 주6일(25.1%)과 주7일(10.9%)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구 형태별 역시 주당 근무일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주5일 근무가 40%대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주3일 근무 비율이 높아서 20.6%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 노인의 경우 주3일 근무자 비율이 약 36%를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이상 졸업 노인의 경우 주5일 근무자가 40%로 높은 특성이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주2일 이하와 주3일 근무자 비율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5일과 주6일 근무자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에서 주5일 이상 근무 비율이 64.4%로 절반에 불과한 반면,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에서는 90.7%로 큰 차이가 있다. 기능상태별 근무일수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신체적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 주5일 근무(41.6%) 비율이 높고,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주3일 이하 근무(24.3%) 비율이 높다.

노인의 주당 근무시간 현황을 살펴보면, 주9시간 이하 근무한다는 노인이 22.2%로 가장 많으며, 40~49시간 근무 26.8%, 10~19시간 16.3%, 50시간 이상 15.5% 등으로 나타났다(〈표 9-8〉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노인은 주9시간 이하 근무하는 비율(24.9%), 5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16.9%)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읍·면부 노인은 주30~39시간 근무자가 21.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40시간 이상 근무자가 52.9%를 차지한 반면 여자 노인의 49.0%는 주19시간 이하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20시간 미만 비율이 높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29.8%는 주9시간 이하로 일을 하였으며, 노인독거가구의 28.1%도 주9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주9시간 이하부터 주50시간 이상까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주19시간 이하 근무자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9시간 이하 근무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중위소득 대비 100% 이상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 비율이 약 60%대 혹은 그 이상이다.

일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50만원 이상이 47.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9만원 이하 15.7%, 100~149만원 14.0%, 50~99만원 13.0%, 그리고 30~49만원 9.4% 순으로 나타났다(〈표 9-9〉 참조).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동부 노인의 경우, 150만원 이상 비율이 54.6%로 절반 이상인데 반해, 읍·면부 노인은 상대적으로 30~99만원 비율(33.8%)이 높은 편이다. 성별로는 15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비율이 남자 노인의 경우 61.1%로 높은 반면 여자 노인은 이의 절반 수준인 31.9%에 불과하다. 여자 노인의 23.9%는 29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을 받았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노인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1~29만원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에서 근로소득 100만원 이상 비율이 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무배우 노인의 경우 월평균 근로소득 월 100만원 미만 비율이 53.5%를 차지한다(월 1~29만원 비율 23.7%).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50만원 이하의 비율이 34.6%로 다른 가구형태보다 높은 편이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이 없거나 29만원 이하인 일을 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비율이 높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상에 제한이 없는 노인의 경우 150만원 이상의 비율이 48.7%로 약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기능상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100만원 미만의 비율이 57%를 차지한다.

〈표 9-7〉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당 근무일수

(단위: %, 명)

특성	2일 이하	3일	4일	5일	6일	7일	계 (명)
전체 ¹⁾	3.4	14.7	6.3	41.5	24.1	10.0	100.0 (3,725)
지역							
동부	4.0	17.3	6.1	40.8	25.6	6.2	100.0 (2,579)
읍·면부	2.2	9.0	6.7	43.0	20.7	18.5	100.0 (1,145)
성							
남자	2.3	11.4	8.1	42.2	25.8	10.3	100.0 (2,039)
여자	4.8	18.8	4.1	40.6	22.0	9.7	100.0 (1,686)
연령							
65~69세	1.7	7.6	5.5	43.8	32.1	9.3	100.0 (1,843)
70~74세	3.8	15.4	8.4	40.5	19.3	12.5	100.0 (871)
75~79세	6.2	22.3	5.1	43.1	13.6	9.6	100.0 (660)
80~84세	7.6	35.5	7.5	26.2	15.1	8.1	100.0 (282)
85세 이상	2.9	39.1	5.8	37.7	7.2	7.2	100.0 (6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1	12.3	7.1	41.5	25.1	10.9	100.0 (2,796)
배우자 없음	4.4	22.2	3.9	41.3	20.9	7.2	100.0 (929)
가구형태							
노인독거	3.9	20.6	4.3	42.8	21.2	7.2	100.0 (670)
노인부부	3.2	12.7	7.0	41.5	24.7	10.9	100.0 (2,444)
자녀동거	3.8	16.7	5.7	40.3	24.6	9.0	100.0 (556)
기타	5.6	13.0	5.6	37.0	24.1	14.8	100.0 (54)
교육수준							
무학	6.6	36.1	5.2	28.8	16.4	7.0	100.0 (208)
초등학교	4.8	23.4	5.5	38.5	16.6	11.2	100.0 (982)
중학교	5.1	11.9	7.9	38.2	23.7	13.3	100.0 (927)
고등학교	0.8	8.3	6.2	47.8	28.6	8.3	100.0 (1,353)
전문대학 이상	3.8	8.6	4.8	41.3	36.3	5.1	100.0 (25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4	20.6	4.3	47.1	17.3	5.2	100.0 (457)
제2오분위	8.1	30.0	3.5	38.0	11.0	9.3	100.0 (598)
제3오분위	3.4	12.7	8.3	40.4	23.7	11.6	100.0 (855)
제4오분위	1.7	10.6	9.4	38.7	28.0	11.6	100.0 (943)
제5오분위	1.2	7.8	3.8	44.9	32.7	9.6	100.0 (87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5	24.6	4.5	40.9	14.8	8.7	100.0 (1,017)
50%이상~100%미만	3.4	14.1	8.5	40.1	22.6	11.3	100.0 (1,390)
100%이상~150%미만	1.2	9.7	7.2	43.5	29.6	8.9	100.0 (754)
150%이상	1.2	5.4	2.7	43.0	37.0	10.7	100.0 (564)
기능상태							
제한 없음	3.4	14.6	6.2	41.6	24.3	10.0	100.0 (3,560)
제한 있음	5.4	18.9	8.7	37.8	18.1	11.0	100.0 (165)
2017년도 ²⁾	5.6	26.7	8.9	23.9	14.6	20.3	100.0 (3,117)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8〉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당 근무시간

(단위: %, 명)

특성	10시간 미만	10-19시간	20-29시간	30-39시간	40-49시간	50시간 이상	계 (명)
전체 ¹⁾	22.2	16.3	7.2	12.1	26.8	15.5	100.0 (3,725)
지역							
동부	24.9	14.6	6.4	8.1	29.0	16.9	100.0 (2,579)
읍·면부	16.0	20.2	8.8	21.0	21.8	12.2	100.0 (1,145)
성							
남자	16.2	13.7	5.4	11.9	33.5	19.4	100.0 (2,039)
여자	29.4	19.6	9.3	12.3	18.7	10.7	100.0 (1,686)
연령							
65~69세	15.8	9.3	6.0	11.6	35.2	22.2	100.0 (1,843)
70~74세	24.5	18.2	7.6	11.4	24.6	13.6	100.0 (871)
75~79세	28.9	26.8	9.4	12.8	16.6	5.3	100.0 (660)
80~84세	35.2	27.9	7.7	16.3	8.7	4.1	100.0 (282)
85세 이상	45.6	33.8	7.4	10.3	1.5	1.5	100.0 (6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9.6	14.9	7.1	13.1	28.7	16.7	100.0 (2,796)
배우자 없음	29.8	20.8	7.4	9.2	20.9	11.9	100.0 (929)
가구형태							
노인독거	28.1	21.6	7.1	10.3	20.6	12.3	100.0 (670)
노인부부	20.4	15.8	6.8	13.4	27.7	16.0	100.0 (2,444)
자녀동거	22.1	12.8	8.6	8.9	29.7	17.9	100.0 (556)
기타	29.6	13.0	7.4	9.3	33.3	7.4	100.0 (54)
교육수준							
무학	49.1	21.5	6.2	12.8	7.7	2.8	100.0 (208)
초등학교	29.2	24.6	9.0	13.5	14.8	8.9	100.0 (982)
중학교	22.8	14.7	7.6	14.4	26.3	14.3	100.0 (927)
고등학교	12.7	11.6	6.2	10.6	37.5	21.3	100.0 (1,353)
전문대학 이상	20.5	11.6	4.0	5.8	33.4	24.7	100.0 (25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5.0	37.1	4.2	7.7	9.3	6.8	100.0 (457)
제2오분위	36.1	28.5	8.2	12.5	10.2	4.4	100.0 (598)
제3오분위	20.5	12.1	10.2	20.7	27.3	9.4	100.0 (855)
제4오분위	15.9	9.4	6.7	10.5	37.2	20.3	100.0 (943)
제5오분위	14.3	8.8	5.5	7.4	35.6	28.4	100.0 (87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4.5	30.4	6.4	11.3	11.7	5.6	100.0 (1,017)
50%이상~100%미만	21.1	13.7	9.5	16.3	27.5	11.9	100.0 (1,390)
100%이상~150%미만	15.1	9.0	7.0	9.2	38.2	21.6	100.0 (754)
150%이상	11.9	7.2	2.9	7.1	37.0	33.9	100.0 (564)
기능상태							
제한 없음	22.1	16.2	7.2	12.0	27.5	15.1	100.0 (3,560)
제한 있음	23.5	19.0	6.8	14.6	12.5	23.6	100.0 (165)
2017년도 ²⁾	22.1	15.7	16.2	13.3	18.1	14.7	100.0 (3,114)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9〉 노인의 일반특성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명)

특성	1-29만원	30-49만원	50-99만원	100-149만원	150만원 이상	계 (명)
전체 ¹⁾	15.7	9.4	13.0	14.0	47.9	100.0 (3,725)
지역						
동부	15.5	7.2	10.2	12.5	54.6	100.0 (2,579)
읍·면부	16.1	14.2	19.6	17.3	32.8	100.0 (1,145)
성						
남자	8.9	7.2	9.7	13.1	61.1	100.0 (2,039)
여자	23.9	11.9	17.0	15.1	31.9	100.0 (1,686)
연령						
65~69세	6.0	4.0	8.8	14.8	66.4	100.0 (1,843)
70~74세	15.7	8.6	16.8	16.1	42.8	100.0 (871)
75~79세	27.9	18.4	17.6	11.2	25.0	100.0 (660)
80~84세	40.9	22.0	19.0	10.7	7.4	100.0 (282)
85세 이상	53.6	24.6	10.1	7.2	4.3	100.0 (6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3.0	8.5	11.5	14.7	52.3	100.0 (2,796)
배우자 없음	23.7	12.0	17.8	11.9	34.6	100.0 (929)
가구형태						
노인독거	20.8	13.8	19.4	12.8	33.2	100.0 (670)
노인부부	13.9	8.8	12.1	14.4	50.9	100.0 (2,444)
자녀동거	18.0	6.2	10.1	13.1	52.5	100.0 (556)
기타	9.3	11.1	9.3	20.4	50.0	100.0 (54)
교육수준						
무학	43.5	21.3	17.9	11.1	6.3	100.0 (208)
초등학교	27.4	17.1	16.3	14.1	25.2	100.0 (982)
중학교	14.6	9.0	14.0	17.3	45.1	100.0 (927)
고등학교	5.0	3.4	10.8	12.8	67.9	100.0 (1,353)
전문대학 이상	8.7	2.7	5.2	10.2	73.2	100.0 (25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4.2	32.4	12.8	5.7	24.9	100.0 (457)
제2오분위	35.7	19.7	27.1	8.8	8.8	100.0 (598)
제3오분위	16.1	5.4	15.7	28.6	34.1	100.0 (855)
제4오분위	7.5	2.2	9.2	13.0	68.1	100.0 (943)
제5오분위	5.9	1.8	5.1	8.7	78.5	100.0 (87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0.6	24.3	18.3	9.2	17.6	100.0 (1,017)
50%이상-100%미만	15.3	5.8	16.1	20.8	42.1	100.0 (1,390)
100%이상-150%미만	5.4	1.4	7.6	13.8	71.9	100.0 (754)
150%이상	3.7	1.8	3.4	6.2	84.9	100.0 (564)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5	9.1	12.6	14.1	48.7	100.0 (3,560)
제한 있음	19.0	14.5	23.5	12.2	30.7	100.0 (165)
2017년도 ²⁾	32.5	7.3	14.9	15.6	17.8	100.0 (3,117)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없음' 응답이 11.9%임.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직업에 종사한 기간은 5년 미만이 30.1%, 30년 이상 26.9%, 10~20년 미만 16.1%, 5~10년 미만과 20~30년 미만이 각각 13.5%로 나타났다(〈표 9-10〉 참조). 현 직업의 종사 기간이 5년 미만인 비율은 동부지역 거주노인(33.0%)과 여자 노인(36.8%)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30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읍·면부 거주노인(48.0%)과 남자 노인(31.8%)에서 높다. 그리고 현 직업 종사 기간이 5년 미만인 노인의 연령대는 75세 이상 연령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30년 이상 근무자는 전체 연령대에서 30% 안팎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의 39.7%는 현재 직업 종사 기간이 5년 미만이며, 유배우 노인의 경우에는 30년 이상 근무자가 29.9%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현재 직업 종사 기간 5년 미만의 응답비율이 노인독거가구 41.3%로 가장 높았다. 그 외 다른 가구형태에서 현재 직업 종사 기간 5년 미만의 비율은 20% 중후반대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현재 직업 종사 기간이 5년 미만과 30년 이상이 높은 경향성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5~20년 미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5년 미만 근무자 비율이 낮으며, 10~30년 미만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30년 이상 근무자 비율은 모든 가구소득에서 20%대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신체적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32.0%는 현재 직업이 5년 미만이지만, 30년 이상인 비율도 35.4%를 차지하였다.

〈표 9-11〉을 통하여 현재 일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생계비 마련이 73.9%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유지 8.3%, 용돈마련 7.9%, 시간보내기 3.9% 등으로 나타났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을 하는 노인의 특성은 읍·면부 노인, 남자 노인, 75세~79세 연령군, 무배우 노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건강유지가 목적인 경우는 동부 노인, 남자 노인, 85세 이상 연령군, 유배우 노인, 기타가구, 전문대학 이상, 중위소득 150%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9-10〉 노인의 일반특성별 현 직업의 종사 기간

(단위: %, 명)

특성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계 (명)
전체 ¹⁾	30.1	13.5	16.1	13.5	26.9	100.0 (3,725)
지역						
동부	33.0	16.1	19.1	14.3	17.5	100.0 (2,579)
읍·면부	23.5	7.5	9.3	11.6	48.0	100.0 (1,145)
성						
남자	24.5	12.9	15.8	15.0	31.8	100.0 (2,039)
여자	36.8	14.1	16.5	11.6	21.0	100.0 (1,686)
연령						
65~69세	21.4	15.4	20.5	18.6	24.2	100.0 (1,843)
70~74세	31.8	15.8	12.3	10.3	29.8	100.0 (871)
75~79세	44.9	6.7	13.5	6.3	28.7	100.0 (660)
80~84세	43.5	9.9	6.5	8.0	32.0	100.0 (282)
85세 이상	41.4	14.3	11.4	7.1	25.7	100.0 (6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6.8	12.4	16.1	14.7	29.9	100.0 (2,796)
배우자 없음	39.7	16.7	16.2	9.6	17.7	100.0 (929)
가구형태						
노인독거	41.3	15.7	15.5	10.6	16.9	100.0 (670)
노인부부	27.8	12.5	15.6	14.4	29.6	100.0 (2,444)
자녀동거	26.7	14.7	19.3	12.2	27.1	100.0 (556)
기타	26.4	18.9	13.2	17.0	24.5	100.0 (54)
교육수준						
무학	49.6	6.5	11.8	3.3	28.7	100.0 (208)
초등학교	38.9	9.4	10.1	10.0	31.6	100.0 (982)
중학교	29.0	14.8	15.4	10.5	30.3	100.0 (927)
고등학교	22.9	16.3	20.6	19.3	21.0	100.0 (1,353)
전문대학 이상	22.1	15.2	21.1	14.9	26.6	100.0 (25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8.9	10.0	7.4	5.3	18.4	100.0 (457)
제2오분위	50.6	9.5	9.3	6.5	24.1	100.0 (598)
제3오분위	24.8	17.2	13.4	11.6	33.0	100.0 (855)
제4오분위	19.5	15.6	20.0	17.6	27.3	100.0 (943)
제5오분위	17.4	12.2	23.6	19.9	26.9	100.0 (87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2.2	9.0	8.0	6.2	24.5	100.0 (1,017)
50%이상~100%미만	27.2	15.8	14.7	12.7	29.6	100.0 (1,390)
100%이상~150%미만	18.6	15.2	22.2	19.2	24.8	100.0 (754)
150%이상	12.4	13.6	26.0	20.6	27.4	100.0 (564)
기능상태						
제한 없음	30.0	13.6	16.3	13.6	26.5	100.0 (3,560)
제한 있음	32.0	10.2	11.9	10.5	35.4	100.0 (165)
2017년도 ²⁾	34.8	12.2	14.8	7.9	30.3	100.0 (3,117)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11〉 노인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을 하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생계비 마련	용돈 마련	건강 유지	친교 사교	시간 보내기	능력 발휘	사회 기여	기타	계 (명)
전체 ¹⁾	73.9	7.9	8.3	1.7	3.9	3.6	0.5	0.2	100.0 (3,712)
지역									
동부	71.3	7.8	9.9	2.1	3.9	4.4	0.4	0.2	100.0 (2,568)
읍·면부	79.9	8.1	4.8	0.9	4.1	1.6	0.5	0.1	100.0 (1,144)
성									
남자	75.1	6.0	9.3	1.5	3.1	4.4	0.4	0.2	100.0 (2,033)
여자	72.5	10.3	7.2	2.0	4.9	2.5	0.5	0.1	100.0 (1,680)
연령									
65~69세	73.4	6.3	9.7	1.8	3.4	4.9	0.3	0.2	100.0 (1,842)
70~74세	72.5	9.5	7.9	1.8	4.3	3.5	0.6	0.0	100.0 (867)
75~79세	78.5	9.8	4.2	1.7	4.0	1.3	0.3	0.2	100.0 (657)
80~84세	74.9	8.5	7.3	1.2	5.9	1.1	1.2	0.0	100.0 (277)
85세 이상	59.4	10.1	21.7	1.4	5.8	0.0	1.1	0.0	100.0 (6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3.4	7.7	8.5	1.6	4.1	4.0	0.5	0.2	100.0 (2,788)
배우자 없음	75.5	8.5	7.7	2.1	3.5	2.2	0.4	0.1	100.0 (925)
가구형태									
노인독거	78.2	7.6	6.1	2.5	3.4	1.9	0.2	0.1	100.0 (670)
노인부부	73.0	7.5	8.9	1.7	4.3	3.9	0.5	0.2	100.0 (2,438)
자녀동거	73.6	9.8	8.3	0.7	2.7	4.1	0.7	0.0	100.0 (550)
기타	69.8	9.4	9.4	1.9	5.7	3.8	0.0	0.0	100.0 (54)
교육수준									
무학	76.5	13.2	4.6	1.6	3.3	0.4	0.4	0.0	100.0 (208)
초등학교	82.6	7.3	4.3	1.0	3.5	0.9	0.4	0.0	100.0 (975)
중학교	74.3	9.4	6.5	2.0	5.2	2.4	0.2	0.0	100.0 (923)
고등학교	73.5	6.9	8.4	2.3	3.4	4.7	0.5	0.3	100.0 (1,352)
전문대학 이상	39.6	6.0	33.0	0.4	4.3	14.3	1.8	0.6	100.0 (25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5.9	7.5	6.2	2.7	4.6	2.6	0.2	0.3	100.0 (457)
제2오분위	72.2	12.2	7.3	1.3	4.0	2.0	0.7	0.2	100.0 (596)
제3오분위	79.4	8.2	4.6	1.2	4.6	1.8	0.3	0.0	100.0 (854)
제4오분위	76.1	7.5	7.1	1.3	4.3	3.0	0.5	0.2	100.0 (942)
제5오분위	66.3	5.2	15.2	2.5	2.5	7.5	0.7	0.1	100.0 (86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5.5	9.8	6.2	1.8	3.6	2.4	0.5	0.3	100.0 (1,014)
50%이상-100%미만	76.0	8.8	5.9	1.6	5.1	2.2	0.4	0.1	100.0 (1,390)
100%이상-150%미만	74.9	6.8	9.3	1.6	3.5	3.0	0.7	0.2	100.0 (747)
150%이상	64.7	3.7	16.8	2.2	2.1	9.9	0.4	0.1	100.0 (561)
기능상태									
제한 없음	74.1	7.8	8.3	1.7	3.9	3.5	0.5	0.2	100.0 (3,553)
제한 있음	69.8	10.1	8.2	1.9	5.7	4.4	0.0	0.0	100.0 (159)
2017년도 ²⁾	73.0	11.5	6.0	0.7	5.8	1.3	1.6	0.2	100.0 (3,117)

주: 1)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12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17년에는 경력 활용으로 조사함.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70.2%(만족 56.3%과 매우 만족 13.9%)는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그저 그렇다' 24.5%,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4.7%,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0.7%로 나타났다(〈표 9-12〉 참조).

지역별로는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이 동부 거주 노인에 비해 그저 그렇다 및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성별로는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그저 그렇다 및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85세 이상 연령군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연령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80~84세 연령군의 경우, 그저 그렇다 30.1%,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8.3%로 불만족 수준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배우자 유무와 가구형태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중위소득 150% 이상에 속한 노인의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매우 만족 23.3%, 만족하는 편 55.2%), 중위소득 50%이상~100% 미만에 속한 노인의 일자리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만족하지 않는 편 7.3%, 전혀 만족하지 않음 0.9%).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않는다(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및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97명을 대상으로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낮은 급여수준이 가장 큰 불만족 사유였으며(47.2%), 다음으로 일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 24.2%, 건강상태와 맞지 않아서 15.3%, 기타 13.3%이다(〈표 9-13〉 참조). 낮은 급여수준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은 집단은 동부 노인, 남자 노인, 70대 연령군, 고등학교 졸업 학력의 노인, 그리고 가구소득이 낮은 노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상태와 맞지 않아서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읍·면부 노인, 80~84세 연령군, 무학 노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은 집단은 읍·면부 노인, 여자 노인, 80~84세 연령군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유인 불안정한 일자리나 근로시간 등에 의한 불만족이 높은 집단은 동부 노인, 65~69세 연령군, 85세 이상 연령군,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 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노인으로 나타났다.

〈표 9-12〉 노인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자리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 (명)
전체 ¹⁾	13.9	56.3	24.5	4.7	0.7	100.0 (3,712)
지역						
동부	15.3	57.3	22.2	4.5	0.7	100.0 (2,568)
읍·면부	10.7	54.0	29.8	5.0	0.5	100.0 (1,144)
성						
남자	15.0	58.8	21.7	4.0	0.4	100.0 (2,033)
여자	12.5	53.2	27.9	5.4	0.9	100.0 (1,680)
연령						
65~69세	15.6	58.2	22.1	3.7	0.5	100.0 (1,842)
70~74세	13.8	55.0	25.9	4.8	0.6	100.0 (867)
75~79세	11.5	53.7	28.3	5.6	1.0	100.0 (657)
80~84세	8.5	52.0	30.1	8.3	1.2	100.0 (277)
85세 이상	14.7	64.7	14.7	4.4	1.5	100.0 (6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0	56.5	24.5	4.5	0.6	100.0 (2,788)
배우자 없음	13.4	55.8	24.7	5.2	0.9	100.0 (925)
가구형태						
노인독거	13.6	57.9	23.9	4.3	0.3	100.0 (670)
노인부부	13.9	56.6	24.5	4.5	0.6	100.0 (2,438)
자녀동거	13.9	52.8	26.2	5.9	1.2	100.0 (550)
기타	14.8	59.3	16.7	5.6	3.7	100.0 (54)
교육수준						
무학	9.5	52.1	28.2	8.3	1.8	100.0 (208)
초등학교	9.9	54.1	28.4	6.7	0.7	100.0 (975)
중학교	11.4	56.3	26.3	5.2	0.8	100.0 (923)
고등학교	13.3	60.5	22.8	3.0	0.3	100.0 (1,352)
전문대학 이상	44.3	45.9	8.8	0.4	0.7	100.0 (25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9	54.7	29.7	2.4	0.3	100.0 (457)
제2오분위	15.2	54.4	24.6	4.7	1.1	100.0 (596)
제3오분위	9.8	55.7	26.0	7.8	0.7	100.0 (854)
제4오분위	11.1	59.1	24.2	5.1	0.6	100.0 (942)
제5오분위	20.5	56.0	20.7	2.3	0.6	100.0 (86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3.9	54.6	27.2	3.6	0.7	100.0 (1,014)
50%이상~100%미만	9.7	58.0	24.2	7.3	0.9	100.0 (1,390)
100%이상~150%미만	14.5	56.2	25.8	3.0	0.4	100.0 (747)
150%이상	23.3	55.2	18.7	2.4	0.3	100.0 (561)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2	56.5	24.1	4.5	0.6	100.0 (3,553)
제한 있음	5.6	50.6	33.1	8.1	2.5	100.0 (159)
2017년도	7.8	56.3	18.5	15.3	2.0	100.0 (3,117)

주: 1)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12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13〉 노인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특성	낮은 급여수준	건강상태와 맞지 않음	일의 내용	기타 ²⁾	계 (명)
전체 ¹⁾	47.2	15.3	24.2	13.3	100.0 (197)
지역					
동부	50.0	11.9	19.4	18.7	100.0 (134)
읍·면부	40.6	23.4	32.8	3.1	100.0 (63)
성					
남자	48.9	14.4	21.1	15.6	100.0 (90)
여자	45.8	15.9	26.2	12.1	100.0 (107)
연령					
65~69세	48.1	9.1	22.1	20.8	100.0 (77)
70~74세	50.0	15.2	26.1	8.7	100.0 (46)
75~79세	51.2	18.6	18.6	11.6	100.0 (43)
80~84세	34.6	26.9	38.5	0.0	100.0 (26)
85세 이상	50.0	0.0	25.0	25.0	100.0 (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7.1	15.7	23.7	13.5	100.0 (141)
배우자 없음	48.2	14.3	25.0	12.5	100.0 (57)
가구형태					
노인독거	51.6	16.1	25.8	6.5	100.0 (31)
노인부부	44.4	14.5	26.6	14.5	100.0 (123)
자녀동거	51.3	17.9	15.4	15.4	100.0 (39)
기타	40.0	20.0	40.0	0.0	100.0 (4)
교육수준					
무학	47.6	23.8	28.6	0.0	100.0 (21)
초등학교	43.8	19.2	31.5	5.5	100.0 (73)
중학교	43.6	12.7	27.3	16.4	100.0 (56)
고등학교	60.0	8.9	4.4	26.7	100.0 (45)
전문대학 이상	33.3	0.0	66.7	0.0	100.0 (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8.3	25.0	16.7	0.0	100.0 (12)
제2오분위	51.4	11.4	25.7	11.4	100.0 (35)
제3오분위	50.0	18.1	26.4	5.6	100.0 (73)
제4오분위	45.3	11.3	26.4	17.0	100.0 (53)
제5오분위	32.0	20.0	12.0	36.0	100.0 (2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4.5	15.9	20.5	9.1	100.0 (44)
50%이상~100%미만	51.3	15.0	25.7	8.0	100.0 (113)
100%이상~150%미만	24.0	12.0	28.0	36.0	100.0 (26)
150%이상	31.3	25.0	18.8	25.0	100.0 (15)
기능상태					
제한 없음	45.9	14.9	25.4	13.8	100.0 (181)
제한 있음	58.8	17.6	11.8	11.8	100.0 (16)
2017년도	65.9	19.2	6.0	8.9	100.0 (540)

주: 1) 현재 일하고 있는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9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시간, 대인관계 등을 포함한 값임.

현재 종사하는 일이 전 생애에 걸쳐 가장 오래 일한 직업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61.0%는 최장기 직업이며, 나머지 39.0%는 최장기 직업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표 9-14〉 참조).

거주 지역별로는 동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58.2%가 최장기 직종인 반면, 읍·면부 거주노인의 경우 67.4%가 최장기 직종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58.2%)보다 여자 노인(65.5%)의 최장기 직종인 경우가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최장기 직종인 비율이 높으며,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에 속한 노인 중 66.9%가 최장기 직종인 반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이보다 낮은 56.9%가 최장기 직업으로 응답하였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최장기 직업인 비율이 62~63%대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무학의 경우, 최장기 직업인 비율은 51.4%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 일자리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서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은 73.9%로 중위소득 50% 미만의 47.7%보다 26.2%포인트 높다. 그리고 신체적 기능상태의 제한이 없는 노인의 61.1%, 그리고 제한이 있는 노인의 59.1%가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 일자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노인의 기능상태별 최장기 직업 여부의 차이는 작은 편이다.

〈표 9-14〉 노인의 일반특성별 현재 일의 최장기 직업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¹⁾	61.0	39.0	100.0	(3,725)
지역				
동부	58.2	41.8	100.0	(2,579)
읍·면부	67.4	32.6	100.0	(1,145)
성				
남자	57.3	42.7	100.0	(2,039)
여자	65.5	34.5	100.0	(1,686)
연령				
65~69세	67.8	32.2	100.0	(1,843)
70~74세	55.7	44.3	100.0	(871)
75~79세	51.6	48.4	100.0	(660)
80~84세	57.6	42.4	100.0	(282)
85세 이상	53.1	46.9	100.0	(6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1.9	38.1	100.0	(2,796)
배우자 없음	58.6	41.4	100.0	(929)
가구형태				
노인독거	56.9	43.1	100.0	(670)
노인부부	60.9	39.1	100.0	(2,444)
자녀동거	66.9	33.1	100.0	(556)
기타	59.4	40.6	100.0	(54)
교육수준				
무학	51.4	48.6	100.0	(208)
초등학교	58.8	41.2	100.0	(982)
중학교	62.6	37.4	100.0	(927)
고등학교	63.7	36.3	100.0	(1,353)
전문대학 이상	57.7	42.3	100.0	(25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2.7	57.3	100.0	(457)
제2오분위	50.0	50.0	100.0	(598)
제3오분위	63.5	36.5	100.0	(855)
제4오분위	66.7	33.3	100.0	(943)
제5오분위	69.7	30.3	100.0	(87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7.7	52.3	100.0	(1,017)
50%이상~100%미만	61.6	38.4	100.0	(1,390)
100%이상~150%미만	68.3	31.7	100.0	(754)
150%이상	73.9	26.1	100.0	(564)
기능상태				
제한 없음	61.1	38.9	100.0	(3,560)
제한 있음	59.1	40.9	100.0	(165)
2017년도 ²⁾	46.1	53.9	100.0	(3,117)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2절 최장기 종사 직종

65세 이상 노인이 가장 오래 일했던 직종은 단순노무종사자로 26.2%이며, 다음으로 관리자 16.4%, 서비스종사자 14.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4.0%, 기능원 및 관련 직종 9.6%, 판매종사자 6.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1%, 사무종사자 4.0% 등으로 나타났다(〈표 9-15〉 참조).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동부 노인의 22.6%는 단순노무직이 최장기 직종이며, 관리자 19.3%, 서비스종사자 16.8%, 판매종사자 7.8%, 농림어업숙련종사자 7.2% 등이다. 읍·면부 노인의 36.8%는 단순노무종사자로서 가장 오래 일했으며, 그 다음으로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4.2%, 관리자 7.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은 상대적으로 관리자(22.4%)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6.7%)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자 노인은 단순노무종사자(33.4%)와 서비스종사자(18.1%)의 비율이 높다.

연령대별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단순노무종사자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관리자와 서비스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경우 관리자 비율(18.6%)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무배우 노인은 단순노무종사자 비율(34.5%)이 높다.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35.5%로 모든 가구형태에서 가장 높으며, 노인부부가구는 관리자 비율이 18.4%로 가장 높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관리자 및 전문가 비율이 높고, 농림어업종사자와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기능상태와 관련해서는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은 단순노무종사자 25.9%,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13.3%인 반면,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28.4%가 단순노무종사자이며, 농림어업숙련 종사자도 19.6%로 나타났다.

〈표 9-15〉 노인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업의 직종

(단위: %, 명)

특성	관공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계 (명)
전체 ¹⁾	16.4	4.4	4.0	14.3	6.7	14.0	9.6	4.1	26.2	0.5	100.0 (8,724)
지역											
동부	19.3	5.3	4.8	16.8	7.8	7.2	11.1	4.8	22.6	0.4	100.0 (6,509)
읍·면부	7.8	1.7	1.8	6.8	3.3	34.2	5.1	1.8	36.8	0.6	100.0 (2,215)
성											
남자	22.4	5.4	4.2	10.3	5.0	12.1	14.3	6.7	18.7	0.9	100.0 (4,268)
여자	10.6	3.4	3.8	18.1	8.2	15.9	5.0	1.6	33.4	0.1	100.0 (4,457)
연령											
65~69세	21.2	4.3	5.5	18.0	8.5	8.1	9.1	4.7	20.6	0.2	100.0 (3,010)
70~74세	17.1	5.1	5.3	14.3	6.0	13.1	10.2	3.8	24.6	0.4	100.0 (2,052)
75~79세	13.2	4.6	2.9	12.1	5.3	14.7	10.8	4.0	31.9	0.6	100.0 (1,967)
80~84세	10.6	3.2	1.0	11.8	6.7	23.5	8.6	3.5	30.6	0.5	100.0 (1,218)
85세 이상	10.9	3.3	1.4	6.4	3.5	29.1	7.0	2.7	33.5	2.1	100.0 (47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8.6	5.1	4.6	13.5	6.7	13.2	10.1	5.0	22.5	0.6	100.0 (6,061)
배우자 없음	11.4	2.7	2.6	16.2	6.5	15.9	8.3	1.8	34.5	0.1	100.0 (2,664)
가구형태											
노인독거	12.0	2.8	2.4	15.0	6.4	16.1	7.8	1.8	35.5	0.2	100.0 (1,656)
노인부부	18.4	5.4	4.6	13.3	6.7	13.7	9.8	4.7	22.7	0.7	100.0 (5,286)
자녀동거	14.4	2.8	3.4	17.0	6.6	12.7	10.4	4.1	28.5	0.1	100.0 (1,642)
기타	14.4	3.6	6.7	12.4	6.5	18.5	12.9	5.0	20.1	0.0	100.0 (140)
교육수준											
무학	5.8	0.7	0.1	7.6	6.0	26.6	4.4	2.5	45.6	0.7	100.0 (872)
초등학교	9.5	1.6	1.3	13.9	5.6	20.0	8.8	2.9	36.2	0.1	100.0 (2,629)
중학교	14.8	1.5	2.9	16.5	6.3	14.8	12.4	5.1	25.5	0.2	100.0 (2,032)
고등학교	23.8	5.5	8.1	16.4	8.8	6.0	11.0	5.0	14.7	0.7	100.0 (2,618)
전문대학 이상	35.6	27.6	7.4	8.3	4.1	1.4	4.2	3.8	5.8	1.6	100.0 (57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5	3.0	2.3	11.8	5.8	18.6	7.6	2.5	33.6	0.3	100.0 (1,617)
제2오분위	11.8	2.6	2.4	12.6	6.5	19.6	10.0	4.9	29.3	0.2	100.0 (1,708)
제3오분위	14.8	3.0	4.6	13.4	7.6	15.7	10.3	4.2	26.0	0.5	100.0 (1,784)
제4오분위	18.8	5.5	4.4	15.1	6.0	9.9	10.8	4.2	24.4	0.8	100.0 (1,818)
제5오분위	21.6	7.5	6.1	18.1	7.3	7.1	8.9	4.4	18.6	0.5	100.0 (1,79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3.1	2.9	2.5	12.1	6.2	19.5	9.0	4.0	30.6	0.2	100.0 (3,303)
50%이상~100%미만	15.7	3.2	4.0	13.3	6.8	14.0	10.6	4.0	27.9	0.5	100.0 (2,957)
100%이상~150%미만	18.5	7.3	5.2	18.2	7.0	8.1	10.4	4.1	20.5	0.9	100.0 (1,492)
150%이상	26.6	8.4	7.2	18.7	7.2	4.8	7.2	4.4	15.0	0.5	100.0 (97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6.6	4.3	4.2	14.7	6.5	13.3	9.8	4.1	25.9	0.5	100.0 (7,707)
제한 있음	14.4	4.5	2.4	11.3	7.7	19.6	7.7	3.7	28.4	0.1	100.0 (1,018)
2017년도 ²⁾	2.9	5.2	6.6	8.7	12.0	25.2	10.1	7.6	21.0	0.6	100.0 (9,086)

주: 1) 전체응답자 중 최장기 직업이 있는 8,72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중 최장기 직업이 있는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16〉을 통하여 최장기 직업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37.4%, 자영업자가 31.1%, 임시근로자 9.4%, 무급가족종사자 9.1%, 일용근로자 7.5%, 고용주 5.6%로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비율은 읍·면부 노인보다 동부 노인이 높고, 여자 노인보다 남자 노인,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유배우, 노인부부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주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자영업자 비율은 동부 노인보다는 읍·면부 노인에서 높으며, 여자 노인보다는 남자 노인,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임시근로자는 동부 노인, 여자 노인, 연령대가 낮을수록, 무배우 노인에서, 무급가족종사자는 읍·면부 노인, 여자 노인, 연령대가 높을수록, 무배우 독거노인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다. 일용근로자는 동부 노인, 여자 노인, 무배우 노인,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율이 높다.

최장기 직종에서의 종사 기간을 살펴보면, 30~40년 미만인 23.9%, 20~30년 미만 23.4%, 10~20년 미만 22.8%, 40년 이상 18.1%, 5~10년 미만 7.8%, 5년 미만 4.0%로 나타났다(〈표 9-17〉 참조).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동부 노인의 최장기 종사 기간이 30년 미만인 비율은 66%를 상회하는 반면, 읍·면부 노인은 최장기 종사 기간이 20년 이상이 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읍·면부 노인의 최장기 종사 기간이 도시지역 거주 노인에 비해 긴 것을 볼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최장기 일자리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비율이 81%를 넘지만, 여자노인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비율은 약 5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유배우 노인의 경우, 최장기 직종에서 30년 이상 일한 비율이 45% 정도 차지하는 반면 무배우 노인은 10년에서 30년 미만 근무한 비율(47.2%)이 높다. 교육수준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졸업 학력을 지닌 노인의 경우, 30~40년 미만 비율이 44.8%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무학인 노인의 경우, 40년 이상 일한 비율이 36.5%로 나타났다.

〈표 9-16〉 노인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업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특성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계 (명)
전체 ¹⁾	37.4	9.4	7.5	5.6	31.1	9.1	-	100.0 (8,724)
지역								
동부	43.6	10.5	8.8	6.4	25.6	5.2	-	100.0 (6,509)
읍·면부	19.1	6.0	3.6	3.4	47.3	20.6	-	100.0 (2,215)
성								
남자	47.2	3.7	6.3	7.4	34.6	0.9	-	100.0 (4,268)
여자	28.0	14.8	8.7	4.0	27.7	16.9	-	100.0 (4,457)
연령								
65~69세	42.9	10.2	5.1	5.7	29.7	6.3	-	100.0 (3,010)
70~74세	41.8	8.6	6.3	5.8	29.0	8.5	-	100.0 (2,052)
75~79세	34.8	9.9	10.1	5.4	30.6	9.3	-	100.0 (1,967)
80~84세	25.6	9.4	9.8	5.2	37.8	12.3	-	100.0 (1,218)
85세 이상	24.0	5.5	11.2	5.7	33.3	20.2	-	100.0 (47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1.3	7.5	6.0	5.7	31.5	8.0	-	100.0 (6,061)
배우자 없음	28.4	13.5	10.8	5.5	30.1	11.6	-	100.0 (2,664)
가구형태								
노인독거	30.0	12.3	9.9	4.9	31.4	11.5	-	100.0 (1,656)
노인부부	41.9	7.3	5.8	5.6	31.1	8.4	-	100.0 (5,286)
자녀동거	30.4	12.8	10.4	6.9	30.6	8.9	-	100.0 (1,642)
기타	36.0	14.3	9.8	1.3	31.3	7.2	-	100.0 (140)
교육수준								
무학	16.1	9.2	14.4	2.6	33.0	24.7	-	100.0 (872)
초등학교	24.1	11.0	11.6	4.0	36.3	13.0	-	100.0 (2,629)
중학교	37.0	12.2	7.1	5.2	32.4	6.2	-	100.0 (2,032)
고등학교	51.1	7.5	2.5	7.7	27.6	3.6	-	100.0 (2,618)
전문대학 이상	69.4	1.0	2.2	9.5	15.3	2.6	-	100.0 (57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9.2	10.1	10.1	4.3	32.3	14.0	-	100.0 (1,617)
제2오분위	29.9	10.4	10.7	4.6	33.9	10.4	-	100.0 (1,708)
제3오분위	39.1	9.1	6.1	4.2	32.6	8.8	-	100.0 (1,784)
제4오분위	40.8	9.2	6.4	5.4	31.1	7.2	-	100.0 (1,818)
제5오분위	46.7	8.2	4.5	9.3	25.8	5.6	-	100.0 (1,79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9.5	10.0	10.2	4.4	33.6	12.4	-	100.0 (3,303)
50%이상~100%미만	38.6	9.9	7.0	4.5	31.2	8.8	-	100.0 (2,957)
100%이상~150%미만	43.4	9.1	6.5	6.9	29.1	5.1	-	100.0 (1,492)
150%이상	51.1	6.3	1.2	11.2	25.3	4.9	-	100.0 (973)
기능상태								
제한 없음	38.0	9.5	7.1	5.5	31.2	8.6	-	100.0 (7,707)
제한 있음	32.2	8.7	10.1	6.3	29.9	12.8	-	100.0 (1,018)
2017년도 ²⁾	26.9	9.1	12.4	3.7	29.3	17.6	1.1	100.0 (9,086)

주: 1) 전체응답자 중 최장기 직업이 있는 8,72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중 최장기 직업이 있는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17〉 노인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종의 종사 기간

(단위: %, 명)

특성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40년 미만	40년 이상	계 (명)
전체 ¹⁾	4.0	7.8	22.8	23.4	23.9	18.1	100.0 (8,724)
지역							
동부	4.7	9.2	26.6	25.6	22.9	11.0	100.0 (6,509)
읍·면부	1.8	3.7	11.7	16.9	26.8	39.2	100.0 (2,215)
성							
남자	0.9	2.6	14.9	26.1	34.3	21.1	100.0 (4,268)
여자	6.9	12.8	30.3	20.7	13.9	15.3	100.0 (4,457)
연령							
65~69세	4.1	10.4	28.7	26.8	22.6	7.3	100.0 (3,010)
70~74세	3.3	7.9	22.5	24.8	25.0	16.4	100.0 (2,052)
75~79세	4.0	6.5	21.4	21.8	22.7	23.6	100.0 (1,967)
80~84세	4.8	5.2	14.5	17.3	27.0	31.1	100.0 (1,218)
85세 이상	3.6	3.1	13.6	16.9	24.7	38.1	100.0 (47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0	6.8	21.6	24.1	26.5	18.1	100.0 (6,061)
배우자 없음	6.2	10.2	25.5	21.7	17.9	18.3	100.0 (2,664)
가구형태							
노인독거	6.6	9.1	24.2	21.8	19.0	19.3	100.0 (1,656)
노인부부	2.9	6.9	21.3	23.9	26.0	18.9	100.0 (5,286)
자녀동거	4.7	9.8	26.0	23.1	21.1	15.3	100.0 (1,642)
기타	4.3	5.0	24.1	23.4	34.0	9.2	100.0 (140)
교육수준							
무학	4.0	6.7	18.0	17.7	17.0	36.5	100.0 (872)
초등학교	4.7	7.1	21.3	21.7	21.6	23.5	100.0 (2,629)
중학교	4.3	9.1	25.3	24.7	20.2	16.5	100.0 (2,032)
고등학교	3.6	8.6	25.6	25.5	26.9	9.7	100.0 (2,618)
전문대학 이상	0.7	4.6	15.3	24.9	44.8	9.8	100.0 (57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	6.3	21.9	19.7	21.2	25.5	100.0 (1,617)
제2오분위	5.6	6.7	19.8	23.0	23.8	21.1	100.0 (1,708)
제3오분위	3.6	8.2	20.6	23.4	24.1	20.1	100.0 (1,784)
제4오분위	2.8	8.5	25.9	25.7	22.6	14.5	100.0 (1,818)
제5오분위	2.8	9.2	25.5	24.7	27.5	10.4	100.0 (1,79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3	6.3	20.2	21.3	23.0	24.0	100.0 (3,303)
50%이상~100%미만	3.6	8.4	22.8	23.9	23.7	17.6	100.0 (2,957)
100%이상~150%미만	3.0	8.9	26.9	26.1	23.2	11.8	100.0 (1,492)
150%이상	1.9	9.5	25.4	24.8	28.6	9.8	100.0 (973)
기능상태							
제한 없음	4.2	7.9	23.6	23.8	23.3	17.2	100.0 (7,707)
제한 있음	2.5	7.1	17.0	19.9	28.6	25.0	100.0 (1,018)
2017년도 ²⁾	4.7	7.0	20.3	23.1	22.8	22.1	100.0 (9,086)

주: 1) 전체응답자 중 최장기 직업이 있는 8,72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중 최장기 직업이 있는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최장기 일자리를 그만둔 이유로는 건강상의 이유가 35.7%로 가장 높으며, 정년퇴직이 24.6%,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휴업으로 인한 퇴직 16.9%, 근로조건이나 환경 7.8%, 가사문제 6.7% 등으로 나타났다(〈표 9-18〉 참조). 동부 노인의 주된 사유는 건강문제 32.5%, 정년퇴직이 27.2%,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휴업 18.2% 등이며, 읍·면부 노인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도시 노인 보다 높은 46.7%이며, 정년퇴직과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휴업은 도시 노인 보다 낮은 15.8%, 12.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의 경우, 정년퇴직이 43.1%로 가장 높은 반면 여자 노인은 건강상의 이유 45.5%가 높고, 가사문제 역시 12.1%로 남자 노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퇴직 비율은 연령대에 따른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으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상의 이유나 일할 필요가 없어서 퇴직한 비율이 높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휴업으로 인한 퇴직 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년퇴직 비율이 높으며, 특히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정년퇴직 비율이 6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이 좋지 않아 퇴직한 경우는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에게서 높고, 무학 노인의 경우 건강으로 인한 퇴직이 61.3%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휴업으로 인한 퇴직은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가사문제로 인해 퇴직한 비율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 노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년퇴직 비율이 높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에서 높다. 신체적 제한이 있는 노인의 58.1%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최장기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장기 직종에서 퇴직 후 다른 일자리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5%이다(〈표 9-19〉 참조). 동부 노인의 31.8%와 읍·면부 노인의 30.4%가 최장기 일자리에서 퇴직 후 일한 경험이 있으며, 남자 노인은 38.2%, 여자 노인은 25.3%가 다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유배우 노인의 33.6%, 무배우 노인의 27.3%가 다시 일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부부가구의 33.7%가 퇴직 후 일을 한 적이 있으며, 교육수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36.2%)에서 최장기 직업 퇴직 후 다시 일한 적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가구소득에서는 중위소득 50% 이상~100% 미만과 중위소득 100% 이상~150% 미만에서 최장기 직업 퇴직 이후에 경제활동을 지속한 비율이 34%대로 높다.

〈표 9-18〉 노인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종을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특성	정년 퇴직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휴업	가사 문제	근로조건/ 환경이 나빠서	이직, 창업	일할 필요가 없어서	기타	계 (명)
전체 ¹⁾	24.6	35.7	16.9	6.7	7.8	3.5	4.4	0.4	100.0 (6,451)
지역									
동부	27.2	32.5	18.2	7.3	8.2	2.3	3.8	0.5	100.0 (5,008)
읍·면부	15.8	46.7	12.3	4.6	6.3	7.5	6.7	0.2	100.0 (1,443)
성									
남자	43.1	25.1	16.7	0.9	7.5	4.0	2.5	0.2	100.0 (3,099)
여자	7.5	45.5	17.0	12.1	8.1	3.0	6.2	0.6	100.0 (3,352)
연령									
65~69세	25.0	23.8	21.7	12.0	10.7	2.9	3.8	0.0	100.0 (1,761)
70~74세	31.4	31.0	16.2	5.7	7.8	2.9	4.2	0.9	100.0 (1,567)
75~79세	24.4	38.5	15.2	5.1	7.2	4.7	4.4	0.4	100.0 (1,626)
80~84세	18.4	49.6	15.0	3.2	5.6	3.3	4.8	0.1	100.0 (1,055)
85세 이상	15.0	55.5	10.8	3.4	4.0	3.1	7.3	0.8	100.0 (44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0.9	29.7	16.8	6.9	8.2	3.7	3.7	0.2	100.0 (4,331)
배우자 없음	11.9	47.9	17.0	6.4	7.1	3.1	6.0	0.7	100.0 (2,120)
가구형태									
노인독거	12.9	46.6	17.8	5.2	7.7	3.4	5.7	0.8	100.0 (1,275)
노인부부	31.0	29.4	16.9	6.8	8.2	3.7	3.9	0.1	100.0 (3,798)
자녀동거	17.6	43.1	15.9	7.8	6.7	3.1	4.9	0.8	100.0 (1,269)
기타	21.5	42.1	17.8	6.5	6.5	0.9	4.7	0.0	100.0 (108)
교육수준									
무학	7.3	61.3	12.8	2.6	5.4	4.1	5.4	1.0	100.0 (765)
초등학교	12.5	46.7	17.1	5.1	8.2	4.6	5.1	0.6	100.0 (2,052)
중학교	21.6	34.9	18.8	7.2	9.8	2.7	4.7	0.4	100.0 (1,452)
고등학교	39.5	18.9	17.8	9.7	7.7	2.7	3.8	0.0	100.0 (1,756)
전문대학 이상	63.5	8.3	12.7	7.7	4.2	2.4	1.1	0.0	100.0 (42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3	46.8	16.5	5.4	6.9	5.4	4.4	0.5	100.0 (1,422)
제2오분위	19.6	41.2	18.6	4.1	8.0	2.9	5.3	0.3	100.0 (1,410)
제3오분위	28.6	31.7	18.5	6.6	7.7	2.3	4.1	0.5	100.0 (1,241)
제4오분위	31.2	30.1	16.2	6.5	8.6	2.7	4.2	0.6	100.0 (1,189)
제5오분위	32.3	25.4	14.4	11.7	8.1	3.8	4.2	0.2	100.0 (1,19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7.8	43.7	17.2	4.9	7.0	4.3	4.7	0.4	100.0 (2,817)
50%이상~100%미만	27.3	32.9	18.4	6.1	8.6	2.1	4.0	0.5	100.0 (2,100)
100%이상~150%미만	31.0	28.6	14.4	9.8	7.9	3.5	4.4	0.4	100.0 (977)
150%이상	37.9	18.1	13.8	12.6	8.5	4.4	4.6	0.1	100.0 (557)
기능상태									
제한 없음	25.8	31.9	17.9	7.0	8.4	3.9	4.6	0.4	100.0 (5,531)
제한 있음	17.7	58.1	10.5	4.6	4.2	0.9	3.5	0.5	100.0 (921)
2017년도 ²⁾	13.8	34.2	24.0	9.1	7.9	6.0	2.6	2.4	100.0 (7,649)

주: 1) 전체응답자 중 과거 일한 적이 있는 응답자와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 직업이 아닌 6,45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중 과거 일한 적이 있는 응답자와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 직업이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19〉 노인의 일반특성별 최장기 직종 퇴직 후 경제활동 지속 여부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¹⁾	31.5	68.5	100.0	(6,451)
지역				
동부	31.8	68.2	100.0	(5,008)
읍·면부	30.4	69.6	100.0	(1,443)
성				
남자	38.2	61.8	100.0	(3,099)
여자	25.3	74.7	100.0	(3,352)
연령				
65~69세	38.1	61.9	100.0	(1,761)
70~74세	33.1	66.9	100.0	(1,567)
75~79세	32.3	67.7	100.0	(1,626)
80~84세	23.0	77.0	100.0	(1,055)
85세 이상	17.2	82.8	100.0	(44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3.6	66.4	100.0	(4,331)
배우자 없음	27.3	72.7	100.0	(2,120)
가구형태				
노인독거	30.2	69.8	100.0	(1,275)
노인부부	33.7	66.3	100.0	(3,798)
자녀동거	26.6	73.4	100.0	(1,269)
기타	27.3	72.7	100.0	(108)
교육수준				
무학	22.8	77.2	100.0	(765)
초등학교	29.0	71.0	100.0	(2,052)
중학교	33.4	66.6	100.0	(1,452)
고등학교	36.2	63.8	100.0	(1,756)
전문대학 이상	34.1	65.9	100.0	(42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7.1	72.9	100.0	(1,422)
제2오분위	30.4	69.6	100.0	(1,410)
제3오분위	33.6	66.4	100.0	(1,241)
제4오분위	36.1	63.9	100.0	(1,189)
제5오분위	31.4	68.6	100.0	(1,19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8.0	72.0	100.0	(2,817)
50%이상~100%미만	34.7	65.3	100.0	(2,100)
100%이상~150%미만	34.2	65.8	100.0	(977)
150%이상	32.9	67.1	100.0	(557)
기능상태				
제한 없음	33.6	66.4	100.0	(5,531)
제한 있음	18.9	81.1	100.0	(921)
2017년도 ²⁾	43.3	56.7	100.0	(7,649)

주: 1) 전체응답자 중 과거 일한 적이 있는 응답자와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 직업이 아닌 6,45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중 과거 일한 적이 있는 응답자와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 직업이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3절 향후 경제활동 의사

65세 이상 노인의 61.6%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38.5%는 일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20〉 참조). 전체 노인의 28.6%는 현재의 일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으며, 지금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는 응답자는 2.7%였다. 동부 노인 중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은 61.7%, 현재 일을 지속하고 싶다 27.3%, 지금은 일하지 않으나 앞으로 일하고 싶다 8.0% 등으로 나타났으며, 읍·면부 노인의 경우 현재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3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많다. 무배우 노인 중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69.6%로 유배우 노인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무학 노인이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 졸업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28.6%)보다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중위 소득 50% 미만 71.9%),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일을 지속하고 싶다는 응답이 높다(중위소득 150% 이상 41.9%). 그리고 신체적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노인의 84.5%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6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강유지 목적이 13.6%이며, 용돈 마련 11.2%이다. 생계비 마련의 목적이 높은 노인 은 읍·면부 거주, 75~79세 연령군, 무배우, 독거노인,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9-21〉 참조). 건강유지를 위해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은 동부 노인, 남자 노인, 65~69세, 유배우, 노인부부가구, 고등학교 이상 학력 노인, 중위소득 100% 이상에서 평균 비율(13.6%)보다 높다. 용돈 마련이라는 응답은 읍·면부 노인, 여자 노인, 70세 이상 연령군, 무배우 노인,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노인,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능력 발휘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을 하고 싶은 비율은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상 졸업 노인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상인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9-20〉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경제활동 참여 형태

(단위: %, 명)

특성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현재 일을 지속하고 싶다	현재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지금 일을 하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다	계 (명)
전체 ¹⁾	61.6	28.6	2.7	7.2	100.0 (9,930)
지역					
동부	61.7	27.3	3.0	8.0	100.0 (7,518)
읍·면부	61.3	32.5	1.6	4.5	100.0 (2,413)
성					
남자	51.7	37.2	3.4	7.6	100.0 (4,281)
여자	69.1	22.0	2.1	6.8	100.0 (5,649)
연령					
65~69세	45.5	42.1	4.0	8.3	100.0 (3,337)
70~74세	60.0	28.2	3.0	8.7	100.0 (2,319)
75~79세	67.8	22.8	2.0	7.3	100.0 (2,262)
80~84세	80.9	14.2	0.9	4.0	100.0 (1,426)
85세 이상	88.2	9.9	0.3	1.6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7.7	31.6	2.9	7.8	100.0 (6,704)
배우자 없음	69.6	22.3	2.1	6.0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66.1	26.5	2.2	5.3	100.0 (1,985)
노인부부	57.8	32.0	2.8	7.4	100.0 (5,847)
자녀동거	68.4	20.7	2.7	8.2	100.0 (1,935)
기타	62.8	25.3	2.3	9.6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78.1	16.2	1.1	4.5	100.0 (1,023)
초등학교	67.9	23.7	1.6	6.8	100.0 (3,134)
중학교	61.3	27.6	3.4	7.7	100.0 (2,323)
고등학교	50.7	37.3	3.8	8.2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53.2	37.5	2.6	6.7	100.0 (59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3.5	19.0	1.5	6.0	100.0 (1,986)
제2오분위	69.7	22.6	1.9	5.8	100.0 (1,987)
제3오분위	59.1	29.6	3.0	8.2	100.0 (1,991)
제4오분위	50.5	38.0	3.1	8.4	100.0 (1,987)
제5오분위	55.1	33.7	3.8	7.3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1.9	20.2	1.6	6.3	100.0 (3,927)
50%이상~100%미만	57.8	30.5	3.1	8.6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52.6	36.3	3.6	7.5	100.0 (1,618)
150%이상	49.0	41.9	3.8	5.3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58.7	30.9	2.8	7.5	100.0 (8,832)
제한 있음	84.5	10.0	1.3	4.2	100.0 (1,098)
2017년도	66.4	22.5	1.8	9.4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21〉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일을 하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특성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돈이 필요해서	건강유지를 위해서	사람들과 사귄다 싶어서	능력(경력)을 발휘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기타	계 (명)
전체 ¹⁾	61.9	11.2	13.6	4.6	3.8	4.1	0.8	100.0 (3,814)
지역								
동부	59.3	10.8	15.7	5.5	4.2	3.7	0.7	100.0 (2,881)
읍·면부	70.0	12.3	7.0	1.6	2.7	5.2	1.1	100.0 (933)
성								
남자	62.3	8.8	14.8	4.0	4.9	4.1	1.1	100.0 (2,067)
여자	61.5	14.1	12.1	5.2	2.6	4.0	0.4	100.0 (1,747)
연령								
65~69세	61.2	9.2	14.7	4.5	5.9	3.9	0.6	100.0 (1,818)
70~74세	59.3	12.5	12.9	5.1	3.8	5.1	1.3	100.0 (928)
75~79세	66.5	13.2	11.1	5.0	0.5	2.7	1.0	100.0 (727)
80~84세	64.5	13.7	14.5	2.3	0.0	5.0	0.0	100.0 (272)
85세 이상	59.4	14.5	14.5	2.9	0.0	5.8	2.9	100.0 (6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0.2	10.8	15.0	4.5	4.3	4.2	1.0	100.0 (2,835)
배우자 없음	67.1	12.3	9.5	4.7	2.6	3.6	0.2	100.0 (979)
가구형태								
노인독거	72.0	10.0	7.7	3.8	1.8	4.4	0.1	100.0 (674)
노인부부	60.5	10.6	15.3	4.0	4.3	4.2	1.0	100.0 (2,467)
자녀동거	57.0	14.1	13.7	7.0	4.3	3.4	0.5	100.0 (612)
기타	54.8	19.4	9.7	9.7	1.6	1.6	3.2	100.0 (61)
교육수준								
무학	73.1	13.5	7.4	3.0	0.4	2.1	0.5	100.0 (224)
초등학교	72.5	12.5	8.0	2.5	1.4	2.8	0.3	100.0 (1,006)
중학교	62.5	13.5	11.3	5.9	2.2	3.8	0.7	100.0 (899)
고등학교	58.5	9.3	15.1	5.7	5.4	5.3	0.7	100.0 (1,407)
전문대학 이상	30.1	6.9	38.6	2.8	13.1	4.8	3.4	100.0 (27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3.1	12.0	7.2	4.1	0.8	2.8	0.0	100.0 (526)
제2오분위	64.4	17.4	9.5	2.6	1.4	4.7	0.0	100.0 (602)
제3오분위	67.7	10.3	9.9	4.8	1.9	4.5	0.9	100.0 (814)
제4오분위	62.2	11.0	12.8	3.6	4.3	4.7	1.5	100.0 (984)
제5오분위	48.2	7.6	24.4	7.1	8.6	3.3	0.9	100.0 (88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9.1	15.0	8.5	3.3	1.1	3.0	0.0	100.0 (1,104)
50%이상~100%미만	63.3	11.5	11.2	4.9	2.8	5.2	1.0	100.0 (1,405)
100%이상~150%미만	60.1	9.0	15.8	4.9	4.0	4.5	1.6	100.0 (767)
150%이상	46.4	5.6	27.0	5.8	11.9	2.7	0.5	100.0 (5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62.0	11.2	13.5	4.6	3.7	4.1	0.8	100.0 (3,644)
제한 있음	60.5	11.0	14.5	3.5	7.0	3.5	0.0	100.0 (170)
2017년도	62.3	16.4	10.6	1.2	3.8	4.9	1.0	100.0 (3,390)

주: 1) 본인응답자 중 향후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3,81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향후 일을 계속하고 싶은 노인(현재 경제활동 참여자 포함)이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40~50시간 미만이 30.6%로 가장 높으며, 30~40시간 미만이 18.4%, 10~20시간 미만 15.6%, 20~30시간 미만 15.2%, 10시간 미만 13.8%, 50시간 이상 6.4%로 나타났다(〈표 9-22〉 참조). 1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싶은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집단은 동부 노인, 여자 노인, 70대~80대 초반 노인, 무배우 노인, 독거노인,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이다. 그리고 40~50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싶다는 응답률은 동부 노인, 남자 노인, 65~69세 연령군, 유배우 노인, 노인부부가구,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상인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신체적 제한이 있는 노인의 약 53%는 30시간 미만 근로를 선호하였다. 마지막으로 50시간 이상 일하고 싶다는 응답률은 동부 노인(6.8%), 남자 노인(8.3%), 65~69세 연령군(9.1%), 무배우 노인(6.7%),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상(고등학교 9.0%, 전문대학 이상 11.1%),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상(13.8%)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표 9-23〉에 의하면 향후 희망하는 월평균 근로소득은 50만원 미만이 13.4%,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1.7%,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5.7%, 150만원~200만원 미만 15.6%, 그리고 200만원 초과 33.5%로 나타났다. 희망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평균(13.4%)보다 높은 경우는 읍·면부, 여자, 70세 이상의 고령, 무배우, 노인부부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형태, 중학교 이하 학력,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미만,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이다. 희망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노인의 특성은 읍·면부 노인, 여자 노인, 70세 이상 연령군, 무배우 노인, 노인독거가구, 초등학교 이하 졸업 학력의 노인,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 신체기능의 제한이 있는 노인으로 나타났다. 희망 월평균소득을 150만원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은 동부 노인, 남자 노인, 74세 이하 연령군, 유배우 노인, 노인부부 및 기타가구,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수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150% 미만인 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이 200만원 초과로 응답한 비율이 평균(33.5%) 이상인 집단의 특성은 동부 노인, 남자 노인, 65~69세 연령군, 유배우 노인,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가구,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노인, 중위소득 100%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다.

〈표 9-22〉 노인의 일반특성별 희망 근로시간

(단위: %, 명)

특성	10시간 미만	10-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계 (명)
전체 ¹⁾	13.8	15.6	15.2	18.4	30.6	6.4	100.0 (3,814)
지역							
동부	14.8	12.6	16.2	17.4	32.2	6.8	100.0 (2,881)
읍·면부	10.7	25.1	12.1	21.5	25.7	5.0	100.0 (933)
성							
남자	11.1	12.6	12.0	17.8	38.2	8.3	100.0 (2,067)
여자	17.0	19.2	19.0	19.2	21.6	4.0	100.0 (1,747)
연령							
65~69세	11.4	7.0	11.9	19.6	41.1	9.1	100.0 (1,818)
70~74세	14.9	13.4	18.7	20.8	27.3	5.0	100.0 (928)
75~79세	17.0	31.2	18.3	14.3	16.5	2.8	100.0 (727)
80~84세	18.0	31.9	18.0	14.0	14.7	3.4	100.0 (272)
85세 이상	12.7	45.9	11.7	16.9	10.0	2.7	100.0 (6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1.8	14.1	14.5	19.6	33.2	6.7	100.0 (2,835)
배우자 없음	19.7	20.0	17.2	14.9	23.0	5.2	100.0 (979)
가구형태							
노인독거	19.1	20.7	15.9	13.9	24.4	6.0	100.0 (674)
노인부부	11.7	15.2	14.8	19.5	32.3	6.5	100.0 (2,467)
자녀동거	16.3	12.2	15.7	19.4	29.9	6.5	100.0 (612)
기타	13.1	11.5	16.4	16.4	39.3	3.3	100.0 (61)
교육수준							
무학	21.2	34.1	19.0	14.0	10.2	1.5	100.0 (224)
초등학교	18.2	24.2	17.9	16.2	19.7	3.9	100.0 (1,006)
중학교	12.0	13.4	17.1	22.0	30.8	4.7	100.0 (899)
고등학교	10.6	9.2	12.9	18.9	39.5	9.0	100.0 (1,407)
전문대학 이상	14.1	9.9	7.9	16.1	41.0	11.1	100.0 (27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0.6	33.7	14.4	10.5	18.5	2.4	100.0 (526)
제2오분위	15.3	28.2	19.9	17.0	17.3	2.3	100.0 (602)
제3오분위	11.0	13.1	16.8	23.1	30.7	5.3	100.0 (814)
제4오분위	12.1	7.3	12.9	20.6	39.5	7.5	100.0 (984)
제5오분위	13.2	8.0	13.5	17.3	36.9	11.1	100.0 (88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6.6	30.1	16.4	15.2	19.6	2.2	100.0 (1,104)
50%이상-100%미만	12.8	12.7	16.9	21.3	31.0	5.3	100.0 (1,405)
100%이상-150%미만	13.0	7.9	11.7	19.5	38.9	9.0	100.0 (767)
150%이상	11.8	4.8	13.4	15.9	40.4	13.8	100.0 (5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3.8	15.2	15.2	18.1	31.2	6.4	100.0 (3,644)
제한 있음	14.0	24.5	14.3	24.7	17.9	4.5	100.0 (170)
2017년도	15.6	18.9	19.0	15.3	26.0	5.2	100.0 (3,390)

주: 1) 본인응답자 중 향후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3,81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23〉 노인의 일반특성별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명)

특성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계 (명)
전체 ¹⁾	13.4	21.7	15.7	15.6	33.5	100.0 (3,814)
지역						
동부	12.9	18.5	15.1	16.5	37.0	100.0 (2,881)
읍·면부	15.2	31.5	17.3	13.1	22.9	100.0 (933)
성						
남자	7.8	16.2	12.4	17.2	46.3	100.0 (2,067)
여자	20.0	28.2	19.5	13.8	18.4	100.0 (1,747)
연령						
65~69세	5.0	11.6	15.4	18.2	49.8	100.0 (1,818)
70~74세	13.5	22.0	18.2	18.1	28.2	100.0 (928)
75~79세	25.4	35.4	15.3	10.2	13.7	100.0 (727)
80~84세	31.3	45.2	11.8	8.5	3.3	100.0 (272)
85세 이상	37.1	45.7	10.0	2.9	4.3	100.0 (6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0.7	19.6	15.7	16.3	37.7	100.0 (2,835)
배우자 없음	21.3	27.8	15.5	13.8	21.6	100.0 (979)
가구형태						
노인독거	20.3	29.1	15.4	13.8	21.3	100.0 (674)
노인부부	10.8	20.6	15.8	16.2	36.6	100.0 (2,467)
자녀동거	15.9	19.4	14.9	14.8	34.9	100.0 (612)
기타	16.4	8.2	23.0	21.3	31.1	100.0 (61)
교육수준						
무학	32.4	39.4	16.1	7.6	4.5	100.0 (224)
초등학교	23.7	34.4	15.1	11.4	15.1	100.0 (1,006)
중학교	12.4	19.2	17.9	20.5	30.0	100.0 (899)
고등학교	5.4	13.3	15.2	17.2	48.8	100.0 (1,407)
전문대학 이상	4.1	12.2	12.6	13.7	57.6	100.0 (27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0.4	43.6	12.8	8.6	14.3	100.0 (526)
제2오분위	26.8	41.5	15.6	8.1	8.0	100.0 (602)
제3오분위	13.0	20.7	22.2	20.9	23.1	100.0 (814)
제4오분위	6.5	10.9	13.8	18.8	49.9	100.0 (984)
제5오분위	8.1	8.2	13.6	16.6	53.5	100.0 (88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2.3	40.8	15.3	9.8	11.7	100.0 (1,104)
50%이상~100%미만	13.4	19.2	18.1	18.1	31.1	100.0 (1,405)
100%이상~150%미만	5.8	10.9	15.1	21.1	46.9	100.0 (767)
150%이상	5.8	4.3	10.9	13.6	65.4	100.0 (53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2.9	21.4	15.8	15.9	33.9	100.0 (3,644)
제한 있음	25.3	27.1	12.4	9.4	25.9	100.0 (170)
2017년도	28.5	23.4	19.0	14.4	14.6	100.0 (3,390)

주: 1) 본인응답자 중 향후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3,81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현재 경제활동 참여자 포함)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여부와 구직활동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싶은 노인 중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34.4%였으며, 주된 구직활동 방법은 취업센터 의뢰 58.2%, 개인 인맥 의뢰 32.0%로 나타났다(〈표 9-24〉 참조). 그 외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취업 정보 검색,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작성, 직업상담 등을 수행한 노인비율은 매우 낮다.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는 노인은 동부 노인, 여자 노인, 70세 이상의 고령노인, 무배우 노인, 노인독거가구,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저소득에 속한 노인으로, 전반적으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한 노인의 구직활동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직활동의 방법 중 취업지원센터 의뢰 활동 비율이 전체 평균(58.2%)보다 높은 집단은 읍·면부 거주노인, 여자 노인, 75세 이상 연령군, 무배우 노인, 노인독거가구,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의 노인,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에 속한 노인, 그리고 신체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노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 인맥을 통한 구직활동을 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동부 노인, 남자 노인, 70세 이하 연령군, 유배우 노인, 자녀동거 및 기타가구, 중학교 졸업자 이상,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노인으로 나타났다.

〈표 9-24〉 노인의 일반특성별 구직활동 비율 및 구직활동

(단위: %, 명)

특성	구직활동 비율	구직활동				계 (명)
		취업지원 센터 의뢰	개인 인맥 의뢰	신문, 잡지, 컴퓨터 등 검색	기타	
전체	34.4	58.2	32.0	3.9	5.9	100.0 (1,311)
지역						
동부	35.3	52.7	36.1	4.3	6.8	100.0 (1,017)
읍·면부	31.5	77.3	17.8	2.4	2.4	100.0 (294)
성						
남자	32.0	51.6	33.0	6.9	8.5	100.0 (660)
여자	37.2	65.0	31.0	0.9	3.1	100.0 (651)
연령						
65~69세	26.2	40.2	45.0	4.8	10.1	100.0 (476)
70~74세	38.7	56.6	33.5	3.6	6.1	100.0 (359)
75~79세	46.6	73.8	19.8	4.6	1.8	100.0 (339)
80~84세	37.9	87.9	12.1	0.0	0.0	100.0 (103)
85세 이상	49.3	84.8	15.2	0.0	0.0	100.0 (3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2.3	53.1	35.0	4.9	7.1	100.0 (917)
배우자 없음	40.2	70.2	25.0	1.7	3.0	100.0 (394)
가구형태						
노인독거	41.3	70.1	23.9	2.4	3.6	100.0 (278)
노인부부	33.7	54.8	33.3	4.8	7.1	100.0 (833)
자녀동거	30.2	57.5	37.6	0.5	4.3	100.0 (185)
기타	24.6	35.7	42.9	21.4	0.0	100.0 (15)
교육수준						
무학	56.1	87.6	12.4	0.0	0.0	100.0 (125)
초등학교	38.9	70.6	24.0	3.0	2.3	100.0 (391)
중학교	35.2	55.1	37.6	1.9	5.4	100.0 (316)
고등학교	29.9	42.9	41.3	5.9	10.0	100.0 (422)
전문대학 이상	20.1	38.6	29.8	15.8	15.8	100.0 (5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2.5	76.0	19.0	1.7	3.2	100.0 (276)
제2오분위	42.9	80.2	13.9	2.4	3.5	100.0 (258)
제3오분위	32.7	52.2	38.0	5.9	3.8	100.0 (266)
제4오분위	31.1	44.5	41.6	4.2	9.8	100.0 (306)
제5오분위	23.0	34.8	50.1	5.8	9.3	100.0 (20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5.5	78.5	16.9	1.2	3.4	100.0 (503)
50%이상~100%미만	35.2	52.9	36.0	5.6	5.5	100.0 (495)
100%이상~150%미만	27.5	35.3	50.6	5.6	8.5	100.0 (211)
150%이상	19.0	31.9	48.3	5.5	14.4	100.0 (102)
기능상태						
제한 없음	33.6	58.2	32.2	3.8	5.9	100.0 (1,226)
제한 있음	49.9	58.8	29.8	5.6	5.9	100.0 (85)
2017년도	40.1	67.7	27.8	2.3	2.3	100.0 (1,359)

주: 1) 본인응답자 중 향후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3,814명(현재 경제활동 참여자 포함) 중 구직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31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4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 및 욕구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정식 명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7.9%이며, 참여한 적이 있는 노인은 5.9%, 사업에 신청했으나 참여하지 못한 노인은 5.9%, 아예 신청한 적이 없는 노인은 80.3%로 나타났다(〈표 9-25〉 참조).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동부 노인의 7.1%, 읍·면부 지역 노인의 10.6%이며, 75~79세 연령군 중 13.1%가 참여하고 있고, 노인독거가구의 11.4%, 무학인 노인의 11.5%와 초등학교 졸업인 노인의 11.6%,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의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 노인, 남자 노인, 70~79세 연령군, 그리고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미만 노인에게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했으나 참여하지 못한 노인의 비율이 높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신청한 적이 없는 노인은 65~69세 연령군과 85세 이상 노인, 자녀동거가구 노인,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상 졸업 노인, 그리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상에 속한 노인, 신체 기능상의 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6〉에 의하면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71.9%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형 사업단 5.4%, 취·창업형 사업단 13.5%, 재능나눔활동 3.2%,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5.9%로 나타났다. 공익활동은 읍·면부 노인의 86.4%가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공익활동 참여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 시장형 사업단은 동부 노인, 여자 노인, 65~69세 연령군, 유배우자, 노인부부가구,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 중위소득 50% 이상, 신체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에게서 참여 비율이 높다. 취·창업형 사업단은 동부 노인, 여자 노인, 80~84세 연령군, 무배우 노인, 자녀동거가구, 무학 노인, 가구소득 중위소득 50% 이상~100% 미만, 신체기능 제한 없는 노인의 참여가 높은 특성이 있다.

참여 노인의 3.2%에 해당하는 재능나눔활동의 경우, 동부 노인, 남자 노인, 65~69세와 85세 이상 연령군, 유배우 노인, 노인부부가구,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 중위소득 100%이상,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참여 비율이 평균 수준보다 높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동부 거주노인, 남자 노인, 70~74세 연령군, 무배우 노인, 자녀동거가구, 중학교 졸업 학력에 속한 노인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9-25〉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참여경험

(단위: %, 명)

특성	현재 참여	참여 경험있음	신청했으나 참여기회 없었음	비신청	계 (명)
전체 ¹⁾	7.9	5.9	5.9	80.3	100.0 (10,097)
지역					
동부	7.1	6.1	6.0	80.8	100.0 (7,651)
읍·면부	10.6	5.2	5.7	78.5	100.0 (2,446)
성					
남자	7.3	6.0	6.1	80.6	100.0 (4,346)
여자	8.5	5.8	5.7	80.0	100.0 (5,751)
연령					
65~69세	4.0	4.1	5.3	86.6	100.0 (3,344)
70~74세	7.7	5.5	7.2	79.5	100.0 (2,342)
75~79세	13.1	7.9	7.4	71.6	100.0 (2,292)
80~84세	9.7	7.9	4.1	78.4	100.0 (1,475)
85세 이상	6.7	4.3	3.2	85.7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1	5.5	5.9	81.6	100.0 (6,779)
배우자 없음	9.8	6.6	6.0	77.6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11.4	6.7	6.7	75.2	100.0 (1,998)
노인부부	7.6	5.8	6.1	80.5	100.0 (5,898)
자녀동거	6.0	5.3	4.2	84.5	100.0 (2,026)
기타	3.4	3.4	10.9	82.3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1.5	5.2	4.8	78.4	100.0 (1,073)
초등학교	11.6	6.3	6.9	75.2	100.0 (3,198)
중학교	6.6	6.5	6.1	80.8	100.0 (2,356)
고등학교	4.5	5.4	5.8	84.2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4.0	3.9	2.2	89.8	100.0 (59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5	5.1	6.4	77.0	100.0 (2,019)
제2오분위	14.0	6.1	6.5	73.5	100.0 (2,020)
제3오분위	6.6	5.2	6.3	81.8	100.0 (2,017)
제4오분위	4.0	6.5	6.5	83.1	100.0 (2,024)
제5오분위	3.7	6.5	3.8	86.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2	5.5	6.4	75.8	100.0 (3,999)
50%이상~100%미만	6.9	6.3	6.8	80.0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3.2	6.1	4.4	86.3	100.0 (1,647)
150%이상	2.6	5.4	3.4	88.5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8.5	5.9	6.1	79.5	100.0 (8,864)
제한 있음	3.7	5.8	4.5	86.0	100.0 (1,233)
2017년도 ²⁾	6.7	4.6	3.5	85.3	100.0 (10,07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26〉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참여 사업유형

(단위: %, 명)

특성	공익활동	시장형 사업단	취·창업형 사업단	재능나눔활동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계 (명)
전체 ¹⁾	71.9	5.4	13.5	3.2	5.9	100.0 (802)
지역						
동부	65.1	5.9	17.4	4.0	7.5	100.0 (544)
읍·면부	86.4	4.2	5.4	1.6	2.5	100.0 (259)
성						
남자	71.6	4.9	10.9	6.2	6.4	100.0 (316)
여자	72.2	5.7	15.3	1.3	5.6	100.0 (487)
연령						
65~69세	68.1	11.1	11.9	4.4	4.4	100.0 (135)
70~74세	73.0	4.2	12.0	2.2	8.6	100.0 (181)
75~79세	73.3	5.3	12.9	3.3	5.1	100.0 (301)
80~84세	69.5	3.1	18.9	2.3	6.2	100.0 (142)
85세 이상	79.1	2.3	11.6	4.7	2.3	100.0 (4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2.9	6.3	11.4	4.0	5.3	100.0 (478)
배우자 없음	70.5	4.0	16.7	2.1	6.8	100.0 (324)
가구형태						
노인독거	74.0	4.5	13.2	2.5	5.8	100.0 (228)
노인부부	73.2	6.4	11.9	4.2	4.4	100.0 (447)
자녀동거	62.4	3.6	20.8	1.3	12.0	100.0 (122)
기타	100.0	0.0	0.0	0.0	0.0	100.0 (6)
교육수준						
무학	74.0	2.4	21.1	0.8	1.6	100.0 (123)
초등학교	77.4	3.7	12.1	1.1	5.6	100.0 (370)
중학교	62.4	7.7	13.7	4.9	11.2	100.0 (156)
고등학교	68.4	10.1	6.3	10.4	4.8	100.0 (129)
전문대학 이상	60.0	4.0	32.0	0.0	4.0	100.0 (2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8.8	2.3	11.1	2.3	5.5	100.0 (231)
제2오분위	74.4	4.8	14.3	1.5	5.0	100.0 (282)
제3오분위	61.9	8.2	17.2	3.7	9.0	100.0 (134)
제4오분위	61.9	9.9	12.4	12.2	3.8	100.0 (80)
제5오분위	69.3	6.7	13.3	2.7	8.0	100.0 (7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4.7	3.2	13.8	2.5	5.8	100.0 (488)
50%이상~100%미만	68.4	8.0	15.1	2.6	5.9	100.0 (234)
100%이상~150%미만	67.9	7.5	7.5	11.3	5.7	100.0 (53)
150%이상	63.0	14.8	7.4	7.4	7.4	100.0 (28)
기능상태						
제한 없음	71.9	4.5	14.2	3.1	6.2	100.0 (756)
제한 있음	73.3	20.0	2.2	4.4	0.0	100.0 (46)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802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17년도 응답문항과 동일하지 않아 비교 불가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비율이 가장 높은 공익활동의 세부 사업유형을 살펴보면, 노노케어 25.8%, 취약계층 지원 6.1%, 공공시설 봉사 67.1%, 경륜 전수 활동 1.0%로 나타났다(〈표 9-27〉 참조). 노노케어에 참여하는 노인의 특성은 동부 노인, 여자 노인, 80~84세 연령군, 무배우 노인, 자녀동거가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 이상, 신체기능 제한 있음으로 확인된다.

취약계층 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동부 노인, 여자 노인, 80세 이상, 유배우 노인,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가구, 고등학교 졸업자, 중위소득 100%이상~150%미만에서 평균(6.1%)보다 높은 특성이 나타난다. 공공시설 봉사는 읍·면부 노인, 75~79세 연령군, 무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에 속하는 노인의 참여 비율이 높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을 살펴본 〈표 9-28〉에 의하면 노인의 22.4%가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나머지 77.6%는 참여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남자 노인, 75~79세 연령군, 노인독거가구, 초등학교 졸업자, 중위소득 100% 미만,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에게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업유형을 파악해 보았는데, 공공활동이 5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취·창업형 사업단 14.3%,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10.1%, 시장형 사업단 9.7%, 그리고 재능나눔활동 7.0%로 나타났다(〈표 9-29〉 참조). 공익활동에 참여의향은 읍·면부 노인 74.8%, 여자 노인 63.2%, 75~79세의 67.3%, 무배우 노인의 61.5%, 노인독거가구의 63.6%, 초등학교 졸업 이하 노인의 약 70%,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의 67.9%로 나타났다.

시장형 사업단은 74세 이하 연령군, 중학교 이상 학력 노인에게서 참여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취·창업형 사업단은 동부 노인, 65~69세 연령군, 무학 노인, 중위소득 50% 이상~150% 미만에 속한 노인의 참여 의향이 높다.

재능나눔형은 동부 노인, 남자 노인, 65~69세 연령군, 유배우 노인, 노인부부가구, 고등학교 이상 학력, 중위소득 100% 이상의 노인계층에서 평균보다 높은 참여의향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형 사업단은 동부 노인, 남자 노인, 74세 이하 연령군, 무배우 노인, 자녀동거가구, 중학교 이상 졸업자, 중위소득 100% 이상 가구에서 선호하고 있다.

〈표 9-27〉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의 세부 사업유형

(단위: %, 명)

특성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	계 (명)
전체 ¹⁾	25.8	6.1	67.1	1.0	100.0 (577)
지역					
동부	35.5	8.7	55.2	0.6	100.0 (355)
읍·면부	10.3	2.2	85.7	1.8	100.0 (224)
성					
남자	22.5	5.7	69.6	2.2	100.0 (227)
여자	27.9	6.3	65.5	0.3	100.0 (351)
연령					
65~69세	28.0	4.3	65.6	2.2	100.0 (93)
70~74세	25.8	6.8	67.4	0.0	100.0 (132)
75~79세	22.6	4.5	71.9	0.9	100.0 (221)
80~84세	31.0	8.0	58.0	3.0	100.0 (100)
85세 이상	27.3	12.1	60.6	0.0	100.0 (3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4.4	7.2	67.6	0.9	100.0 (349)
배우자 없음	28.4	4.4	65.9	1.3	100.0 (229)
가구형태					
노인독거	27.1	2.9	68.2	1.8	100.0 (170)
노인부부	22.3	7.6	69.1	0.9	100.0 (327)
자녀동거	34.2	7.9	57.9	0.0	100.0 (76)
기타	83.3	0.0	16.7	0.0	100.0 (6)
교육수준					
무학	15.4	7.7	75.8	1.1	100.0 (91)
초등학교	30.7	4.9	64.1	0.3	100.0 (287)
중학교	38.8	4.1	56.1	1.0	100.0 (98)
고등학교	9.1	11.4	77.3	2.3	100.0 (88)
전문대학 이상	13.3	6.7	80.0	0.0	100.0 (1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9	2.7	78.1	2.2	100.0 (183)
제2오분위	26.7	7.6	64.8	1.0	100.0 (210)
제3오분위	34.5	7.1	58.3	0.0	100.0 (84)
제4오분위	32.0	16.0	52.0	0.0	100.0 (50)
제5오분위	34.6	1.9	63.5	0.0	100.0 (5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1.4	5.5	71.7	1.4	100.0 (364)
50%이상-100%미만	34.4	6.3	59.4	0.0	100.0 (160)
100%이상-150%미만	25.0	11.1	63.9	0.0	100.0 (36)
150%이상	44.4	5.6	50.0	0.0	100.0 (1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5.0	6.3	67.6	1.1	100.0 (544)
제한 있음	41.2	2.9	55.9	0.0	100.0 (34)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유형 참여자 577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20년도 신규 추가된 문항으로 2017년도와 비교 불가함.

〈표 9-28〉 노인의 일반특성별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

(단위: %, 명)

특성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¹⁾	22.4	77.6	100.0	(9,930)
지역				
동부	22.5	77.5	100.0	(7,518)
읍·면부	21.9	78.1	100.0	(2,413)
성				
남자	23.1	76.9	100.0	(4,281)
여자	21.8	78.2	100.0	(5,649)
연령				
65~69세	20.8	79.2	100.0	(3,337)
70~74세	24.1	75.9	100.0	(2,319)
75~79세	28.3	71.7	100.0	(2,262)
80~84세	18.3	81.7	100.0	(1,426)
85세 이상	11.6	88.4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1	77.9	100.0	(6,704)
배우자 없음	23.0	77.0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23.8	76.2	100.0	(1,985)
노인부부	21.9	78.1	100.0	(5,847)
자녀동거	22.1	77.9	100.0	(1,935)
기타	24.1	75.9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21.6	78.4	100.0	(1,023)
초등학교	25.0	75.0	100.0	(3,134)
중학교	23.8	76.2	100.0	(2,323)
고등학교	19.3	80.7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19.1	80.9	100.0	(59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7	76.3	100.0	(1,986)
제2오분위	25.6	74.4	100.0	(1,987)
제3오분위	22.9	77.1	100.0	(1,991)
제4오분위	21.9	78.1	100.0	(1,987)
제5오분위	17.7	82.3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4.0	76.0	100.0	(3,927)
50%이상~100%미만	25.1	74.9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18.3	81.7	100.0	(1,618)
150%이상	14.3	85.7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23.6	76.4	100.0	(8,832)
제한 있음	12.5	87.5	100.0	(1,098)
2017년도	16.2	83.8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9-29〉 노인의 일반특성별 희망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단위: %, 명)

특성	공익활동	시장형 사업단	취·창업형 사업단	재능나눔활동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계 (명)
전체 ¹⁾	58.9	9.7	14.3	7.0	10.1	100.0 (2,222)
지역						
동부	54.0	9.8	16.8	8.1	11.3	100.0 (1,694)
읍·면부	74.8	9.4	6.3	3.3	6.2	100.0 (528)
성						
남자	53.6	10.6	14.7	8.7	12.5	100.0 (988)
여자	63.2	9.0	13.9	5.6	8.2	100.0 (1,234)
연령						
65~69세	47.7	13.8	16.3	10.3	11.9	100.0 (696)
70~74세	56.4	10.5	13.8	6.7	12.6	100.0 (559)
75~79세	67.3	8.1	13.5	4.0	7.1	100.0 (639)
80~84세	66.9	3.4	13.6	6.9	9.2	100.0 (261)
85세 이상	85.3	1.5	7.4	2.9	2.9	100.0 (6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7.6	9.7	14.8	8.2	9.5	100.0 (1,481)
배우자 없음	61.5	9.7	13.2	4.5	11.1	100.0 (741)
가구형태						
노인독거	63.6	9.8	12.1	4.7	9.8	100.0 (473)
노인부부	58.4	10.0	14.2	8.5	8.9	100.0 (1,281)
자녀동거	55.6	8.8	16.1	5.0	14.5	100.0 (428)
기타	57.5	10.0	22.5	7.5	2.5	100.0 (39)
교육수준						
무학	72.6	2.7	16.8	1.7	6.2	100.0 (221)
초등학교	70.0	6.6	12.6	3.1	7.7	100.0 (784)
중학교	54.4	14.5	14.9	3.9	12.2	100.0 (553)
고등학교	48.3	12.0	15.3	13.6	10.8	100.0 (551)
전문대학 이상	29.8	10.5	13.2	26.3	20.2	100.0 (11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9.1	9.0	10.4	4.7	6.8	100.0 (470)
제2오분위	67.2	6.7	13.2	2.3	10.6	100.0 (509)
제3오분위	60.9	12.8	13.7	4.4	8.3	100.0 (457)
제4오분위	42.7	10.7	21.3	12.3	13.0	100.0 (435)
제5오분위	50.8	10.0	13.2	13.8	12.3	100.0 (35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7.9	7.0	11.9	4.0	9.2	100.0 (941)
50%이상~100%미만	56.6	12.0	17.3	5.7	8.5	100.0 (834)
100%이상~150%미만	46.3	10.1	15.8	13.3	14.5	100.0 (297)
150%이상	40.9	13.4	9.6	20.4	15.6	100.0 (151)
기능상태						
제한 없음	59.0	9.4	14.5	7.0	10.1	100.0 (2,085)
제한 있음	58.0	14.5	10.1	7.2	10.1	100.0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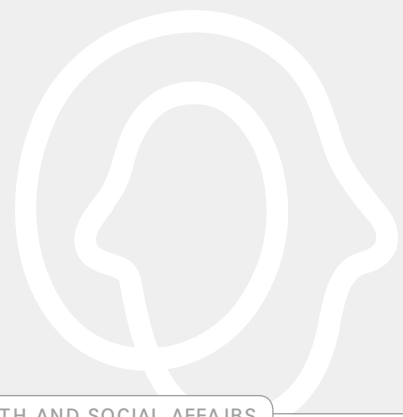
주: 1) 본인응답자 중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2,222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17년도 응답 문항과 동일하지 않아 비교 불가함.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10장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

제1절 여가문화활동

제2절 사회참여활동

제3절 여가문화시설 이용

제4절 정보화 현황

제 10 장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

본 장에서는 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여가 및 사회활동을 여가문화활동, 사회참여활동, 여가문화시설 이용, 정보화 기기 활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각 영역별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문화활동은 TV 및 라디오 이용, 여행, 여가문화활동 여부 및 미참여 이유, 향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둘째, 사회참여활동은 학습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주된 참여 내용, 참여기관, 참여빈도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그 외 사회단체 활동은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참여 여부 및 참여빈도를 파악하고, 종교활동 여부 및 참여빈도도 함께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활동에 대해서도 실태를 확인하였다. 셋째, 여가문화시설 이용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공공 여가문화시설, 민간 여가문화시설의 이용경험, 이용빈도, 주된 이용이유, 향후 이용 의향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정보화 기기 활용은 전자기기 보유 및 활용 여부와 시간, 전자기기 사용 역량, 생활에 필요한 정보 이용의 어려움,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 여가문화활동

1.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노인의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현황을 살펴보면, 10,097명의 노인 중 96.6%가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시청시간은 4.2시간으로 5시간 이상의 장시간 시청자의 비율이 39.0%로 가장 높았으며, 3시간 25.3%, 4시간 20.0%로 나타났다.

일반특성별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이 96.2%, 읍·면부 노인이 97.6%로 읍·면부 노인이 높은 반면, 1일 평균 시청시간은

동부 노인 4.3시간, 읍·면부 노인 4.1시간으로 동부 노인이 더 장시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 96.4%, 여자 노인 96.7%로 비율에서는 유사한 특성을 보였으나, 1일 평균 시청시간은 여자 노인이 4.4시간, 남자 노인이 4.0시간으로 여자 노인이 높았으며 5시간 장시간 시청비율도 여자 노인이 42.7%로 남자 노인 34.0%보다 8.7%포인트 높아 여자 노인이 더 장시간 시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1일 평균 시청시간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특성을 보인다. 또한, 5시간 이상 장시간 시청비율 역시 65~69세 28.9%, 70~74세 36.7%, 75~79세 43.0%, 80~84세 49.8%, 85세 이상 60.4%로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1일 평균 시청시간은 무배우 노인이 4.7시간으로 유배우 노인 4.0시간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인다. 5시간 이상의 장시간 시청비율 역시 유배우 노인은 34.3%인 반면, 무배우 노인은 48.5%로 14.2%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도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1일 평균 시청시간은 노인독거가구가 4.7시간, 자녀동거가구가 4.4시간으로 높게 나타났다. 5시간 이상 장시간 시청비율도 노인독거가구 47.3%, 자녀동거가구 42.1%, 기타가구 43.5%로 노인부부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면,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율은 교육수준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1일 평균 시청시간이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무학은 5.1시간, 초등학교 졸업 4.6시간, 중학교 졸업 4.1시간, 고등학교 졸업 3.8시간, 전문대학 이상 졸업 3.5시간의 분포를 보인다. 5시간 이상 장시간 시청비율도 동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중인 경우 3.6시간, 미취업중인 경우 4.6시간으로 미취업자의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연 가구소득과 중위소득 분포 모두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1일 평균 시청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5시간 이상 장시간 시청비율 역시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경우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율은 95.4%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경우보다 낮지만, 1일 평균 시청시간은 4.9시간으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경우의 4.1시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0-1〉 노인의 일반특성별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단위: %, 명, 시간)

특성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 ¹⁾	1일 평균 시청시간	1일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시간 ²⁾					계 (명)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이상	
전체	96.6	4.2	3.0	12.7	25.3	20.0	39.0	100.0 (9,749)
지역								
동부	96.2	4.3	3.3	12.3	25.2	20.0	39.2	100.0 (7,364)
읍·면부	97.6	4.1	2.3	14.0	25.4	20.1	38.2	100.0 (2,386)
성								
남자	96.4	4.0	3.8	15.6	27.1	19.4	34.0	100.0 (4,189)
여자	96.7	4.4	2.5	10.6	23.9	20.4	42.7	100.0 (5,561)
연령								
65~69세	96.1	3.8	3.4	17.0	28.7	22.0	28.9	100.0 (3,213)
70~74세	97.2	4.1	3.3	12.3	27.3	20.5	36.7	100.0 (2,276)
75~79세	96.5	4.5	2.9	10.6	25.2	18.3	43.0	100.0 (2,211)
80~84세	97.4	4.8	2.1	9.8	18.4	19.9	49.8	100.0 (1,436)
85세 이상	95.1	5.0	2.5	6.3	16.9	14.0	60.4	100.0 (61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6.5	4.0	3.6	14.7	26.6	20.8	34.3	100.0 (6,540)
배우자 없음	96.7	4.7	1.9	8.7	22.6	18.3	48.5	100.0 (3,209)
가구형태								
노인독거	96.4	4.7	1.8	8.7	22.4	19.7	47.3	100.0 (1,926)
노인부부	96.7	4.0	3.3	14.4	26.4	21.0	34.9	100.0 (5,707)
자녀동거	96.2	4.4	3.4	11.2	25.5	17.8	42.1	100.0 (1,948)
기타	96.6	4.5	4.2	19.6	18.5	14.3	43.5	100.0 (168)
교육수준								
무학	96.6	5.1	2.1	9.1	18.2	15.8	54.8	100.0 (1,037)
초등학교	96.8	4.6	2.7	8.2	22.5	20.1	46.5	100.0 (3,095)
중학교	96.3	4.1	2.7	12.1	27.0	21.2	36.9	100.0 (2,268)
고등학교	96.4	3.8	3.4	17.0	29.8	21.2	28.7	100.0 (2,766)
전문대학 이상	97.3	3.5	6.2	25.6	24.6	16.4	27.3	100.0 (583)
현 취업상태								
취업중	96.5	3.6	4.0	19.4	32.9	18.7	24.9	100.0 (3,441)
미취업	96.6	4.6	2.5	9.1	21.1	20.7	46.6	100.0 (6,30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6.7	4.6	1.2	10.2	18.7	20.2	49.6	100.0 (1,952)
제2오분위	97.1	4.5	1.9	9.4	24.4	19.2	45.1	100.0 (1,961)
제3오분위	96.7	4.2	3.2	11.9	26.8	21.0	37.1	100.0 (1,950)
제4오분위	96.6	4.0	4.6	15.5	26.2	20.5	33.2	100.0 (1,955)
제5오분위	95.7	3.8	4.2	16.7	30.3	19.0	29.7	100.0 (1,93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6.9	4.5	1.6	10.3	21.9	20.0	46.1	100.0 (3,868)
50%이상~100%미만	96.8	4.2	3.6	12.8	24.9	20.3	38.4	100.0 (3,267)
100%이상~150%미만	96.2	3.9	4.4	14.2	29.4	21.2	30.0	100.0 (1,599)
150%이상	95.2	3.6	4.4	19.3	32.8	17.0	26.5	100.0 (1,015)
기능상태								
제한 없음	96.7	4.1	2.8	12.8	26.5	20.8	37.0	100.0 (8,573)
제한 있음	95.4	4.9	4.8	11.9	16.6	13.8	53.0	100.0 (1,176)
2017년도 ³⁾	99.3	3.8	9.0	20.9	21.6	16.7	31.8	100.0 (10,07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 2)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를 한다고 응답한 9,749명을 대상으로 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여가문화활동 참여

가. 현재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여가문화활동은 TV 시청 또는 라디오 청취를 제외한 활동으로 여가문화활동 참여율과 주된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된 활동은 1, 2순위로 구분하고 전체, 지역, 성별, 연령에 따른 특성을 다중응답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여가문화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노인들은 지난 1년간 80.3%가 여가문화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은 82.4%, 읍·면부 노인은 74.0%로 동부 노인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남자 노인은 79.9%, 여자 노인은 80.7%로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참여율이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특성을 보이는데, 65~69세 85.4%, 70~74세 82.4%, 75~79세 78.7%, 80~84세 73.2%, 85세 이상 68.1%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주된 여가문화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휴식활동(산책, 음악감상, 기타)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미오락활동이 49.8%, 사회 및 기타활동 44.4%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는 산책이 34.1%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및 친지방문과 같은 그 외 사회활동이 21.1%, 종교활동이 19.0%로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와 읍·면부 노인 모두 휴식활동이 각각 52.9%와 52.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동부 노인은 취미오락활동 51.0%, 사회 및 기타활동이 42.2%인 반면, 읍·면부 노인은 사회 및 기타활동 51.9%, 취미오락활동 4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문화예술 관람활동(동부 4.2%, 읍·면부 1.2%), 문화예술 참여활동(동부 5.7%, 읍·면부 3.1%), 스포츠 관람활동(동부 3.3%, 읍·면부 1.3%), 스포츠 참여활동(동부 8.8%, 읍·면부 5.5%), 등산(동부 15.4%, 읍·면부 9.6%) 등 적극적인 활동에서의 비율이 많은 반면, 읍·면부 노인은 동부 노인에 비해 화투·고스톱(동부 4.7%, 읍·면부 7.8%), 화초·텃밭가꾸기(동부 11.1%, 읍·면부 11.8%), 바둑·장기·윷놀이(동부 4.7%, 읍·면부 6.5%) 등 정적인 활동에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특성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은 취미오락활동이 59.9%로 가장 많았으며, 휴식활

동 49.3%, 사회 및 기타활동 39.4%의 순이었다. 여자 노인은 휴식활동이 55.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 및 기타활동 48.1%, 취미오락활동 4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는 남자 노인은 스포츠 관람활동(남자 5.4%, 여자 1.0%), 스포츠 참여활동(남자 10.1%, 여자 6.5%), 등산(남자 20.7%, 여자 9.2%), 낚시(남자 6.2%, 여자 0.3%), 바둑·장기·윷놀이(남자 10.8%, 여자 0.8%) 등의 비율이 여자 노인에 비해 높은 반면, 여자 노인은 악기연주·노래교실(남자 1.8%, 여자 4.4%), 화투·고스톱(남자 4.3%, 여자 6.3%), 화초·텃밭가꾸기(남자 8.1%, 여자 13.6%), 음악감상(남자 3.7%, 여자 6.3%), 종교활동(남자 14.8%, 여자 22.1%) 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특성에 따른 여가문화활동 참여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 및 기타활동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문화예술관람활동,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참여활동, 취미오락활동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세부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화투·고스톱, 종교활동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특성을 보인다.

〈표 10-2〉 노인의 지역·성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1~2순위 중복 응답

(단위: %, 명)

특성	전체 ¹⁾	지역 ²⁾		성 ²⁾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¹⁾	80.3	82.4	74.0	79.9	80.7
주된 여가활동 ²⁾					
문화예술관람활동	3.5	4.2	1.2	3.4	3.6
영화보기	2.4	2.9	0.8	2.4	2.4
기타 ³⁾	1.1	1.3	0.4	0.9	1.3
문화예술참여활동	5.1	5.7	3.1	3.8	6.2
악기연주·노래교실	3.3	3.6	2.2	1.8	4.4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0.9	1.0	0.5	1.0	0.8
춤·무용	0.3	0.4	0.1	0.2	0.4
기타 ⁴⁾	0.6	0.7	0.3	0.8	0.5
스포츠관람활동	2.9	3.3	1.3	5.4	1.0
스포츠참여활동	8.1	8.8	5.5	10.1	6.5
취미오락활동	49.8	51.0	45.9	59.9	42.4
화투·고스톱 등	5.4	4.7	7.8	4.3	6.3
등산	14.1	15.4	9.6	20.7	9.2
화초·텃밭가꾸기	11.3	11.1	11.8	8.1	13.6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2.4	2.6	1.5	2.6	2.2
낚시	2.8	3.1	2.0	6.2	0.3
바둑·장기·윷놀이 등	5.1	4.7	6.5	10.8	0.8
교양강좌, 노인교실 등	3.2	3.5	2.0	2.5	3.7
기타 ⁵⁾	5.6	5.8	4.8	4.7	6.2
휴식활동	52.7	52.9	52.2	49.3	55.3
산책	34.1	34.4	33.2	35.0	33.5
음악감상	5.2	5.2	5.1	3.7	6.3
기타 ⁶⁾	13.4	13.3	13.8	10.7	15.5
사회 및 기타활동	44.4	42.2	51.9	39.4	48.1
종교활동	19.0	19.1	18.5	14.8	22.1
그 외 사회활동 ⁷⁾	21.1	19.7	26.0	20.1	21.9
기타활동 ⁸⁾	4.3	3.4	7.4	4.4	4.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111)	(6,301)	(1,809)	(3,471)	(4,63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전체응답자 10,097명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8,111명을 대상으로 함.

3) 문화예술관람활동의 기타는 전시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 등이 포함됨.

4) 문화예술참여활동의 기타에는 문학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이 포함됨.

5) 취미오락활동의 기타에는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생활공예, 요리하기·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이 포함됨.

6) 휴식활동의 기타에는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등이 포함됨.

7) 그 외 활동에는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이 포함됨.

8) 기타활동에는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이 포함됨.

〈표 10-3〉 노인의 연령군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1~2순위 중복 응답

(단위: %, 명)

특성	전체 ¹⁾	연령 ²⁾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¹⁾	80.3	85.4	82.4	78.7	73.2	68.1
주된 여가활동 ²⁾						
문화예술관람활동	3.5	6.0	2.7	2.0	2.2	0.2
영화보기	2.4	4.5	1.5	1.5	1.0	0.0
기타 ³⁾	1.1	1.6	1.3	0.5	1.2	0.2
문화예술참여활동	5.1	5.7	6.0	4.9	3.8	2.4
악기연주·노래교실	3.3	3.6	3.9	3.1	2.5	1.7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0.9	0.9	1.1	0.9	0.6	0.4
춤·무용	0.3	0.5	0.3	0.2	0.3	0.0
기타 ⁴⁾	0.6	0.7	0.6	0.8	0.4	0.2
스포츠관람활동	2.9	2.8	3.7	2.5	2.6	1.7
스포츠참여활동	8.1	10.1	10.2	6.1	4.8	1.5
취미오락활동	49.8	56.3	51.1	43.3	44.1	43.8
화투·고스톱 등	5.4	4.9	5.5	5.9	5.2	6.7
등산	14.1	19.6	15.2	9.7	7.4	8.1
화초·텃밭가꾸기	11.3	11.8	11.5	10.5	10.5	11.5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2.4	2.6	2.0	2.7	1.6	3.0
낚시	2.8	4.2	3.3	1.7	1.2	0.3
바둑·장기·윷놀이 등	5.1	4.7	5.9	4.9	5.9	2.9
교양강좌, 노인교실 등	3.2	2.5	2.5	2.9	5.3	6.7
기타 ⁵⁾	5.6	5.9	5.1	5.0	7.0	4.5
휴식활동	52.7	52.5	52.9	57.2	47.3	47.7
산책	34.1	32.9	34.8	38.6	30.5	30.2
음악감상	5.2	5.9	5.2	5.3	3.0	5.4
기타 ⁶⁾	13.4	13.8	12.9	13.4	13.8	12.2
사회 및 기타활동	44.4	41.2	43.7	45.6	49.4	50.9
종교활동	19.0	15.7	16.7	21.1	23.7	30.8
그 외 사회활동 ⁷⁾	21.1	21.9	22.3	20.6	19.8	16.8
기타활동 ⁸⁾	4.3	3.7	4.7	4.0	5.9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111)	(2,857)	(1,930)	(1,804)	(1,080)	(43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전체응답자 10,097명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8,111명을 대상으로 함.

3) 문화예술관람활동의 기타는 전시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 등이 포함됨.

4) 문화예술참여활동의 기타에는 문학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이 포함됨.

5) 취미오락활동의 기타에는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생활공예, 요리하기·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이 포함됨.

6) 휴식활동의 기타에는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등이 포함됨.

7) 그 외 활동에는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이 포함됨.

8) 기타활동에는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이 포함됨.

이러한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가 25.9%,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20.9%, 건강이 좋지 않아서 20.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22.7%, 시간이 없어서 22.0%,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1.8% 등의 순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읍·면부 노인은 시간이 없어서가 34.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은 시간이 없어서가 32.3%로 가장 높은 반면, 여자 노인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23.1%, 건강이 좋지 않아서 22.7%, 시간이 없어서 20.8% 등으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는 시간이 없어서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은 시간이 없어서가 31.1%로 가장 높았으며, 무배우 노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2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22.7%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부부가구는 시간이 없어서의 비율이 30.7%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독거가구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3.5%,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22.9%, 건강이 좋지 않아서 22.4% 등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자녀동거가구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의 비율이 29.4%로 가장 높았다.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서는 먼저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고등학교 졸업자는 시간이 없어서의 비율이 높은 반면, 무학과 전문대학 이상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9.7%로 매우 높았으며, 초등~중학교 졸업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의 비율도 높았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명확히 다르다. 현재 취업자는 시간이 없어서가 50.0%로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미취업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28.4%로 가장 높았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23.7%,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제1오분위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24.4%, 제2오분위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27.3%로 가장 높은 반면, 제3오분위~제5오분위는 시간이 없어서가 24.1%, 32.3%, 39.3%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중위소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중위소득 100% 이상~150% 미만과 150% 이상에서 시간이 없어서의 비율이 40.9%와 44.1%로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에서는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서의 비율이 67.1%로 매우 높았으며,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가 30.0%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4〉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특성	시간이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가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멀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타	계 (명)
전체 ¹⁾	25.9	19.5	20.9	8.6	3.9	20.7	0.5	100.0 (1,905)
지역								
동부	22.0	21.8	20.9	8.2	3.8	22.7	0.5	100.0 (1,286)
읍·면부	34.0	14.6	20.9	9.5	4.1	16.6	0.3	100.0 (619)
성								
남자	32.3	19.0	18.1	7.2	4.7	18.3	0.4	100.0 (849)
여자	20.8	19.9	23.1	9.8	3.3	22.7	0.5	100.0 (1,056)
연령								
65~69세	46.6	18.6	17.9	7.1	4.0	5.4	0.4	100.0 (481)
70~74세	27.4	24.1	23.3	7.8	2.9	13.4	1.0	100.0 (400)
75~79세	20.2	20.4	19.5	7.0	5.5	27.2	0.2	100.0 (476)
80~84세	13.8	20.6	23.2	11.8	2.4	28.1	0.0	100.0 (369)
85세 이상	7.1	6.7	22.3	12.4	5.0	45.8	0.9	100.0 (17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1.1	19.3	19.9	8.1	4.2	17.0	0.5	100.0 (1,223)
배우자 없음	16.6	19.8	22.7	9.5	3.5	27.4	0.3	100.0 (682)
가구형태								
노인독거	17.1	23.5	22.9	8.8	4.8	22.4	0.5	100.0 (416)
노인부부	30.7	19.8	19.7	8.1	4.4	16.7	0.6	100.0 (1,055)
자녀동거	23.6	13.0	21.8	10.0	2.1	29.4	0.0	100.0 (399)
기타	11.4	34.3	22.9	5.7	2.9	22.9	0.0	100.0 (34)
교육수준								
무학	11.5	17.9	19.3	13.1	3.2	35.1	0.0	100.0 (269)
초등학교	22.5	21.9	22.5	9.1	3.7	20.2	0.2	100.0 (746)
중학교	27.5	21.7	20.8	8.1	3.9	17.1	0.9	100.0 (414)
고등학교	39.7	15.1	19.3	6.0	4.1	14.9	0.8	100.0 (417)
전문대학 이상	25.4	11.9	18.6	5.1	10.2	28.8	0.0	100.0 (59)
현 취업상태								
취업중	50.0	18.0	15.7	6.0	3.3	6.8	0.2	100.0 (673)
미취업	12.8	20.3	23.7	10.0	4.3	28.4	0.6	100.0 (1,23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0.9	18.7	24.4	11.6	2.8	21.5	0.1	100.0 (499)
제2오분위	19.8	27.3	16.6	7.0	4.8	23.5	1.1	100.0 (432)
제3오분위	24.1	22.6	22.0	8.3	4.5	18.0	0.4	100.0 (368)
제4오분위	32.3	15.9	20.9	7.7	3.7	19.0	0.3	100.0 (332)
제5오분위	39.3	8.6	19.6	7.2	4.2	20.8	0.2	100.0 (27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1.2	21.7	21.4	10.1	3.3	21.8	0.5	100.0 (917)
50%이상~100%미만	22.8	21.5	21.5	7.5	5.0	21.2	0.5	100.0 (604)
100%이상~150%미만	40.9	11.0	20.3	7.2	3.4	16.9	0.4	100.0 (237)
150%이상	44.1	11.0	15.9	6.2	4.8	17.9	0.0	100.0 (145)
기능상태								
제한 없음	30.0	21.1	23.0	8.9	4.4	12.2	0.5	100.0 (1,609)
제한 있음	3.6	10.8	9.5	7.3	1.7	67.1	0.0	100.0 (296)

주: 1) 본인응답자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 활동을 하지 않은 1,905명을 대상으로 함.

나. 향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향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은 휴식활동이 8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미 오락활동 48.0%, 사회 및 기타활동 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영역별로는 TV 시청이 38.3%, 산책 31.9%, 기타 관광활동 12.7%, 등산 11.8%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두 지역 모두 휴식활동, 취미오락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관광활동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영화보기(동부 4.3%, 읍·면부 1.2%), 스포츠 관람활동(동부 4.3%, 읍·면부 2.9%), 스포츠 참여활동(동부 9.7%, 읍·면부 6.8%), 등산(동부 13.1%, 읍·면부 7.9%), 교양강좌·노인교실(동부 4.4%, 읍·면부 1.7%) 등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화투·고스톱(동부 4.8%, 읍·면부 10.2%), 바둑·장기·윷놀이(동부 3.6%, 읍·면부 7.1%) 등은 낮게 나타났다. 즉, 동부 노인들이 읍·면부 노인들에 비해 좀 더 활동적인 여가문화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 모두 휴식활동, 취미오락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나, 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자 노인은 휴식활동이 90.2%로 남자 노인 75.0%에 비해 높으며, 남자 노인은 취미오락활동이 57.9%로 여자 노인 40.4%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인다. 그 외에도 여자 노인은 문화예술 참여활동이 14.6%로 남자 노인 7.8%에 비해 높으며, 반대로 스포츠 관람활동과 스포츠 참여활동, 관광활동은 남자 노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세부 영역별로는 여자인은 악기연주·노래교실(남자 3.4%, 여자 9.3%), 화초·텃밭가꾸기(남자 6.6%, 여자 14.9%), TV 시청(남자 34.9%, 여자 40.9%), 종교활동(남자 3.1%, 여자 6.3%)이 남자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남자 노인은 등산(남자 19.1%, 여자 6.3%), 낚시(남자 9.1%, 여자 0.3%) 등이 여자 노인에 비해 높았다.

연령에 따른 중분류 특성을 살펴보면 휴식활동과 사회 및 기타활동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활동에서는 취미오락활동, 관광활동, 스포츠 참여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등과 같이 이동이 많이 있거나 동적인 취미활동에 대한 희망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부 영역별로는 일부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데, 동일한 중분류 내에서도 화투·고스톱과 같은 정적인 활동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등산과 같은 활동적인 활동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0-5〉 노인의 지역·성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1~2순위 중복 응답

(단위: %, 명)

특성	전체 ¹⁾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문화예술관람활동	7.2	7.9	4.8	6.0	8.0
영화보기	3.6	4.3	1.2	3.4	3.7
기타 ²⁾	3.6	3.6	3.5	2.5	4.4
문화예술참여활동	11.7	12.2	10.1	7.8	14.6
악기연주·노래교실	6.8	7.0	6.2	3.4	9.3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2.3	2.3	2.0	2.2	2.3
춤·무용	1.1	1.2	0.5	0.4	1.6
기타 ³⁾	1.5	1.6	1.3	1.8	1.4
스포츠관람활동	4.0	4.3	2.9	7.7	1.2
스포츠참여활동	9.0	9.7	6.8	11.8	6.8
관광활동	14.4	14.3	14.7	7.7	1.2
자동차 드라이브	1.6	1.5	2.1	1.8	1.5
기타 ⁴⁾	12.7	12.8	12.5	12.2	13.1
취미오락활동	48.0	48.2	47.2	57.9	40.4
화투·고스톱 등	6.1	4.8	10.2	5.2	6.8
등산	11.8	13.1	7.9	19.1	6.3
화초·텃밭가꾸기	11.3	11.6	10.3	6.6	14.9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2.1	2.2	1.7	1.9	2.2
낚시	4.1	4.2	3.9	9.1	0.3
바둑·장기·윷놀이 등	4.5	3.6	7.1	10.0	0.3
교양강좌, 노인교실 등	3.7	4.4	1.7	3.3	4.1
기타 ⁵⁾	4.4	4.4	4.4	2.7	5.7
휴식활동	83.7	83.1	85.4	75.0	90.2
TV시청	38.3	37.3	41.4	34.9	40.9
산책	31.9	33.0	28.6	31.3	32.5
음악감상	3.5	3.9	2.5	2.1	4.7
기타 ⁶⁾	9.9	8.9	13.0	6.8	12.2
사회 및 기타활동	20.9	19.7	24.7	17.9	23.2
종교활동	4.9	5.7	2.3	3.1	6.3
그 외 사회활동 ⁷⁾	11.2	10.0	14.7	10.7	11.5
기타활동 ⁸⁾	4.9	3.9	7.7	4.1	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30)	(7,518)	(2,413)	(4,281)	(5,64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문화예술관람활동의 기타는 전시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 등이 포함됨.

3) 문화예술참여활동의 기타에는 문학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이 포함됨.

4) 관광활동의 기타에는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산림욕, 여행, 소풍·야유회·나들이 등이 포함됨.

5) 취미오락활동의 기타에는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생활공예, 요리하기·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이 포함됨.

6) 휴식활동의 기타에는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등이 포함됨.

7) 그 외 활동에는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이 포함됨.

8) 기타활동에는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이 포함됨.

〈표 10-6〉 노인의 연령군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1~2순위 중복 응답

(단위: %, 명)

특성	전체 ¹⁾	연령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문화예술관람활동	7.2	10.1	8.1	5.6	3.7	1.2
영화보기	3.6	5.1	3.9	2.9	1.6	0.7
기타 ²⁾	3.6	4.9	4.1	2.7	2.1	0.5
문화예술참여활동	11.7	13.9	13.0	11.4	7.9	3.6
악기연주·노래교실	6.8	7.7	7.3	7.3	4.8	2.7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2.3	2.9	2.5	2.1	1.6	0.5
춤·무용	1.1	1.8	1.2	0.6	0.2	0.2
기타 ³⁾	1.5	1.6	2.0	1.4	1.3	0.2
스포츠관람활동	4.0	5.2	5.0	2.5	3.1	0.6
스포츠참여활동	9.0	11.7	10.2	7.8	5.6	1.3
관광활동	14.4	17.9	16.2	12.2	9.5	6.9
자동차 드라이브	1.6	2.2	1.6	1.4	0.9	1.2
기타 ⁴⁾	12.7	15.7	14.6	10.9	8.6	5.7
취미오락활동	48.0	55.6	49.9	43.2	40.8	32.3
화투·고스톱 등	6.1	5.3	6.3	6.9	6.4	6.5
등산	11.8	18.5	12.6	8.1	4.6	2.3
화초·텃밭가꾸기	11.3	11.6	10.1	10.6	13.0	12.4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2.1	2.2	2.0	2.1	2.0	2.4
낚시	4.1	5.9	5.1	2.7	1.8	0.8
바둑·장기·윷놀이 등	4.5	2.8	4.9	5.9	6.1	2.9
교양강좌, 노인교실 등	3.7	3.6	4.4	3.7	3.5	2.3
기타 ⁵⁾	4.4	5.7	4.7	3.3	3.4	2.7
휴식활동	83.7	66.5	77.0	92.9	103.5	123.5
TV시청	38.3	29.8	34.1	42.3	50.1	59.1
산책	31.9	25.7	29.6	36.2	38.5	44.4
음악감상	3.5	2.5	3.9	4.2	3.6	5.2
기타 ⁶⁾	9.9	8.5	9.3	10.2	11.4	14.7
사회 및 기타활동	20.9	18.5	19.8	21.6	24.1	28.5
종교활동	4.9	4.7	4.4	5.0	4.3	8.8
그 외 사회활동 ⁷⁾	11.2	10.1	10.5	12.2	11.9	14.2
기타활동 ⁸⁾	4.9	3.7	4.9	4.4	7.8	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30)	(3,337)	(2,319)	(2,262)	(1,426)	(587)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문화예술관람활동의 기타는 전시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 등이 포함됨.

3) 문화예술참여활동의 기타에는 문학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이 포함됨.

4) 관광활동의 기타에는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삼림욕, 여행, 소풍·야유회·나들이 등이 포함됨.

5) 취미오락활동의 기타에는 수집활동(스crap 포함), 생활공예, 요리하기·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이 포함됨.

6) 휴식활동의 기타에는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등이 포함됨.

7) 그 외 활동에는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이 포함됨.

8) 기타활동에는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이 포함됨.

다. 여행경험

지난 1년간 노인의 여행경험률은 27.6%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 28.8%, 읍·면부 노인 24.0%가 지난 1년간 여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 30.0%, 여자 노인 25.8%로 남자 노인이 4.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여행경험률은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65~69세는 40.0%가 여행을 경험한 반면, 85세 이상은 7.0%만이 여행을 경험하여 두 연령대 간 33.0%포인트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적은 집단에서의 여행경험률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여행경험률은 31.2%로 무배우 노인 2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부부가구의 30.9%가 여행을 경험한 반면, 노인독거가구는 20.5%만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가구의 여행 경험률은 26.0%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여행경험의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먼저 교육 수준에 따라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여행경험률이 4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대학 이상 졸업 41.3%, 중학교 졸업 26.5%, 초등학교 졸업 17.7%, 무학 12.5%의 순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의 여행경험률이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 노인의 여행경험률이 34.1%로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연 가구소득 제4오분위와 제5오분위는 34.5%와 38.8%가 여행을 경험한 반면, 제1오분위와 제2오분위는 20.3%와 18.4%만이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대비 기준에서도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의 여행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은 14.2%만이 여행을 경험한 반면,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은 29.5%가 여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7〉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경험 여부

(단위: %, 명)

특성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체 ¹⁾	27.6	72.4	100.0 (10,097)
지역			
동부	28.8	71.2	100.0 (7,651)
읍·면부	24.0	76.0	100.0 (2,446)
성			
남자	30.0	70.0	100.0 (4,346)
여자	25.8	74.2	100.0 (5,751)
연령			
65~69세	40.0	60.0	100.0 (3,344)
70~74세	30.7	69.3	100.0 (2,342)
75~79세	21.6	78.4	100.0 (2,292)
80~84세	13.1	86.9	100.0 (1,475)
85세 이상	7.0	93.0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1.2	68.8	100.0 (6,779)
배우자 없음	20.3	79.7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20.5	79.5	100.0 (1,998)
노인부부	30.9	69.1	100.0 (5,898)
자녀동거	26.0	74.0	100.0 (2,026)
기타	18.8	81.2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2.5	87.5	100.0 (1,073)
초등학교	17.7	82.3	100.0 (3,198)
중학교	26.5	73.5	100.0 (2,356)
고등학교	42.5	57.5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41.3	58.7	100.0 (599)
현 취업상태			
취업중	34.1	65.9	100.0 (3,564)
미취업	24.1	75.9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0.3	79.7	100.0 (2,019)
제2오분위	18.4	81.6	100.0 (2,020)
제3오분위	26.2	73.8	100.0 (2,017)
제4오분위	34.5	65.5	100.0 (2,024)
제5오분위	38.8	61.2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9.5	80.5	100.0 (3,999)
50%이상~100%미만	26.6	73.4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40.7	59.3	100.0 (1,647)
150%이상	41.3	58.7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9.5	70.5	100.0 (8,864)
제한 있음	14.2	85.8	100.0 (1,233)
2017년도 ²⁾	33.8	66.2	100.0 (3,404)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2절 사회참여활동

1. 학습활동

노인의 학습활동 참여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의 11.9%가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월 참여시간은 1시간~5시간이 48.8%로 가장 많았으며, 6시간~10시간 25.4%, 11시간~15시간 9.8%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 12.4%, 읍·면부 노인 10.1%로 동부 노인이 2.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시간과 관련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 11.8%, 여자 노인 11.9%로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나, 참여시간은 남자 노인이 9.6시간, 여자 노인이 8.5시간으로 남자 노인의 참여시간이 1.1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군별로는 85세 이상의 연령군에서 참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참여시간은 70~74세가 9.8시간으로 가장 오랜 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이 12.0%로 무배우 노인 11.6%에 비해 참여율은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참여시간은 유배우 노인 8.9시간, 무배우 노인 9.2시간으로 무배우 노인의 참여시간이 더 길었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기타가구의 참여율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참여시간도 9.7시간으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독거가구는 참여율은 11.2%, 평균참여시간은 8.7시간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참여율이 15.6%로 가장 높았으며, 참여시간 역시 10.2시간으로 가장 높았다.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1시간~5시간은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6시간~10시간은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12.5%로 취업 노인 10.6%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실제 참여시간은 취업 노인이 9.7시간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수준별 학습활동 참여율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학습활동 참여율이 12.4%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 11.8%보다 높으며, 참여시간 역시 높게 나타났다.

〈표 10-8〉 노인의 일반특성별 학습활동 참여율 및 교육 참여 시간

(단위: %, 시간, 명)

특성	학습활동 참여율 ¹⁾	평균 참여 시간	월당 교육 참여 시간 ²⁾					계 (명)
			1시간~5시간	6시간~10시간	11시간~15시간	16시간~20시간	21시간 이상	
전체	11.9	9.0	48.8	25.4	9.8	9.4	6.7	100.0 (1,198)
지역								
동부	12.4	9.0	49.2	24.9	9.7	9.4	6.8	100.0 (950)
읍·면부	10.1	8.8	47.2	27.4	10.1	9.3	6.0	100.0 (248)
성								
남자	11.8	9.6	49.2	24.8	9.0	10.0	7.0	100.0 (512)
여자	11.9	8.5	48.3	25.9	10.3	9.0	6.4	100.0 (686)
연령								
65~69세	11.3	8.8	48.8	25.5	8.5	10.1	7.2	100.0 (377)
70~74세	12.2	9.8	47.2	24.1	11.9	10.1	6.6	100.0 (286)
75~79세	12.5	9.0	47.9	25.2	11.5	10.1	5.2	100.0 (286)
80~84세	10.9	8.2	52.2	29.2	5.0	6.8	6.8	100.0 (160)
85세 이상	13.7	8.7	50.6	23.6	11.2	5.6	9.0	100.0 (8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2.0	8.9	50.1	24.1	10.0	8.8	7.0	100.0 (813)
배우자 없음	11.6	9.2	45.7	28.3	9.4	10.6	6.0	100.0 (385)
가구형태								
노인독거	11.2	8.7	47.8	28.1	10.3	8.0	5.8	100.0 (224)
노인부부	12.0	9.0	49.9	24.0	9.6	9.2	7.2	100.0 (706)
자녀동거	12.0	9.2	46.7	28.5	9.1	9.5	6.2	100.0 (243)
기타	14.3	9.7	45.8	12.5	12.5	25.0	4.2	100.0 (25)
교육수준								
무학	11.9	9.2	37.2	35.7	9.3	12.4	5.4	100.0 (128)
초등학교	11.0	9.3	45.9	26.3	9.1	10.8	7.9	100.0 (353)
중학교	12.1	8.0	50.0	23.9	12.7	7.4	6.0	100.0 (285)
고등학교	11.8	9.0	52.8	22.7	9.7	8.6	6.2	100.0 (339)
전문대학 이상	15.6	10.2	55.3	22.3	5.3	9.6	7.4	100.0 (94)
현취업상태								
취업중	10.6	9.7	46.2	25.6	10.0	8.7	9.5	100.0 (379)
미취업	12.5	8.7	49.9	25.4	9.6	9.6	5.4	100.0 (81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7	9.3	44.7	27.0	12.1	7.4	8.8	100.0 (216)
제2오분위	11.5	8.9	46.8	27.5	6.4	12.9	6.4	100.0 (232)
제3오분위	13.2	8.8	55.6	20.5	10.8	5.2	7.8	100.0 (266)
제4오분위	12.1	8.1	46.5	28.6	11.8	7.8	5.3	100.0 (245)
제5오분위	11.9	9.9	48.3	24.2	7.5	14.6	5.4	100.0 (24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1.0	9.6	45.1	26.1	10.9	9.1	8.8	100.0 (441)
50%이상~100%미만	12.5	8.2	51.7	25.4	10.9	6.6	5.5	100.0 (423)
100%이상~150%미만	12.6	8.1	48.1	27.9	6.7	11.5	5.8	100.0 (207)
150%이상	11.9	11.1	51.6	19.5	7.8	15.6	5.5	100.0 (127)
기능상태								
제한 없음	11.8	8.7	49.1	26.5	9.5	8.5	6.4	100.0 (1,045)
제한 있음	12.4	10.6	46.1	18.2	11.7	15.6	8.4	100.0 (153)
2017년도 ³⁾	12.9	-	-	-	-	-	-	-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전체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학습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198명을 대상으로 평균 참여 횟수와 회당 하루 참여시간을 곱하여 산출함.

3)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며, 일주일을 기준으로 폐쇄형 보기를 제시하였으므로 2017년과 2020년의 학습활동 참여빈도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함.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 중 44.3%는 건강관리/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 28.2%, 정보화 11.4%, 어학 5.9% 인문학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비율(동부 29.3%, 읍·면부 24.0%)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은 건강관리/운동(남자 47.3%, 여자 42.0%)에서 여자 노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여자 노인은 문화예술(남자 26.0%, 여자 29.8%)과 정보화(남자 10.1%, 여자 12.4%)에서 높은 특성을 보인다. 연령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85세 이상의 경우 건강관리/운동 프로그램 참여율이 53.4%로 타 연령집단에 비해 참여율이 높으며, 65~69세는 정보화와 취업/직업의 비율이 14.1%와 6.1%로 타 집단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집단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자녀동거가구가 건강관리/운동의 비율이 52.9%로 가장 높으며, 노인독거가구는 문화예술의 비율이 32.9%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가구형태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에서 건강관리/운동의 비율이 50.0% 가장 높으며, 중학교 졸업은 문화예술의 비율이 32.6%로 타 집단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히나 무학의 경우 어학의 비율이 10.2%로 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에서 문해 교육을 받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정보화 교육은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취업 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의 취업/직업 교육 비율이 5.4%로 취업 노인 2.9%에 비해 높았으며, 정보화 교육은 취업 노인이 12.4%로 미취업 노인 10.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 건강관리/운동의 비율이 47.4%로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10-9〉 노인의 일반특성별 학습활동 참여 영역

(단위: %, 명)

특성	건강관리 /운동	문화예술	어학	인문학	정보화	취업 /직업	기타	계 (명)
전체 ¹⁾	44.3	28.2	5.9	5.4	11.4	4.6	0.3	100.0 (1,198)
지역								
동부	43.8	29.3	6.0	4.7	11.0	4.8	0.4	100.0 (950)
읍·면부	45.8	24.0	5.6	8.1	13.0	3.5	0.0	100.0 (248)
성								
남자	47.3	26.0	5.9	5.5	10.1	4.7	0.5	100.0 (512)
여자	42.0	29.8	5.9	5.3	12.4	4.5	0.1	100.0 (686)
연령								
65~69세	41.5	27.4	5.9	5.1	14.1	6.1	0.0	100.0 (377)
70~74세	38.7	28.6	6.3	10.1	12.2	3.8	0.3	100.0 (286)
75~79세	47.0	32.3	5.6	1.8	8.4	4.2	0.7	100.0 (286)
80~84세	50.6	25.0	5.0	3.8	11.3	4.4	0.0	100.0 (160)
85세 이상	53.4	25.0	6.8	6.8	6.8	1.1	0.0	100.0 (8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3.6	28.6	5.3	6.0	11.9	4.1	0.3	100.0 (813)
배우자 없음	45.6	27.3	7.0	4.1	10.3	5.5	0.2	100.0 (385)
가구형태								
노인독거	37.8	32.9	6.2	6.2	12.9	4.0	0.0	100.0 (224)
노인부부	43.1	28.1	5.5	6.9	12.3	3.8	0.1	100.0 (706)
자녀동거	52.9	24.6	6.6	0.8	7.4	7.0	0.8	100.0 (243)
기타	52.0	20.0	8.0	0.0	12.0	8.0	0.0	100.0 (25)
교육수준								
무학	48.0	23.6	10.2	3.1	12.6	0.8	1.6	100.0 (128)
초등학교	44.9	27.4	6.8	5.9	12.4	2.3	0.3	100.0 (353)
중학교	40.7	32.6	2.8	6.3	11.2	6.3	0.0	100.0 (285)
고등학교	43.6	28.5	5.3	4.7	11.0	6.5	0.3	100.0 (339)
전문대학 이상	50.0	22.3	8.5	5.3	8.5	5.3	0.0	100.0 (94)
현취업상태								
취업중	44.7	29.5	5.3	5.3	12.4	2.9	0.0	100.0 (379)
미취업	44.1	27.6	6.1	5.4	10.9	5.4	0.4	100.0 (81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1.2	30.1	5.1	4.6	14.8	4.2	0.0	100.0 (216)
제2오분위	51.1	23.8	5.6	5.2	11.3	3.0	0.0	100.0 (232)
제3오분위	41.0	33.5	4.5	8.3	10.2	2.6	0.0	100.0 (266)
제4오분위	44.3	25.8	9.0	5.7	10.7	3.7	0.8	100.0 (245)
제5오분위	44.4	27.6	5.0	2.5	10.9	8.8	0.8	100.0 (24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7.4	24.9	5.2	5.2	13.2	4.1	0.0	100.0 (441)
50%이상~100%미만	40.9	33.1	4.5	6.9	10.6	3.5	0.5	100.0 (423)
100%이상~150%미만	46.4	25.1	9.7	4.3	11.1	3.4	0.0	100.0 (207)
150%이상	41.7	27.6	6.3	2.4	8.7	11.8	1.6	100.0 (127)
기능상태								
제한 없음	43.8	28.5	5.0	5.5	11.7	5.1	0.3	100.0 (1,045)
제한 있음	47.4	26.3	11.8	4.6	9.2	0.7	0.0	100.0 (153)
2017년도	41.9	34.9	10.4	3.6	6.7	0.8	1.6	100.0 (1,300)

주: 1) 전체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학습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198명을 대상으로 함.

학습활동 참여자의 학습활동 실시 기관은 노인복지관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매체활용 17.0%, 시·군·구/읍·면·동 15.1%, 공공문화센터 14.4%, 사설문화센터·학원 5.8%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과 매우 다른 경향성으로 매체활용을 통한 학습활동은 2017년 대비 14.8%포인트 증가하였으며, 경로당은 15.5%포인트 감소하여 노인의 학습활동 인프라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은 노인복지관 36.3%, 매체활용 17.6% 등의 순인 반면, 읍·면부 노인은 노인복지관 32.7%, 공공문화센터 17.3%, 시·군·구/읍·면·동 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남녀노인 모두 노인복지관, 매체활용, 시·군·구/읍·면·동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지만, 남자 노인은 매체활용의 비율이 18.2%로 여자 노인 16.2%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대한노인회 운영 노인 교실의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은 노인복지관 이용과 매체활용 비율이 각각 36.3%와 18.6%로 높았으며, 무배우 노인은 노인복지관 33.8%, 공공문화센터 17.1%, 시·군·구/읍·면·동 15.1% 등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기타가구를 제외하고 노인복지관은 노인독거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매체활용은 노인부부가구, 시·군·구/읍·면·동과 공공문화센터는 자녀동거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노인복지관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나, 그 외에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전문대학 이상 졸업은 사설문화센터·학원의 비율이 8.6%로 타 집단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제한이 있는 노인의 40.8%가 노인복지관에서 19.7%는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활동을 하여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시·군·구/읍·면·동, 공공문화센터의 비율이 15.6%와 15.1%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와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표 10-10〉 노인의 일반특성별 학습활동 실시 기관

(단위: %, 명)

특성	노인 복지관	경로당	대학 노인회 (노인교실)	종교 기관	사·군·구/ 읍·면·동	학교	공공문화 센터	사설문화 센터·학원	매체 활용	계 (명)
전체 ¹⁾	35.5	3.7	2.4	3.2	15.1	2.8	14.4	5.8	17.0	100.0 (1,198)
지역										
동부	36.3	3.4	2.5	3.3	14.6	2.7	13.7	6.0	17.6	100.0 (950)
읍·면부	32.7	4.8	2.0	2.8	16.9	3.2	17.3	5.2	14.9	100.0 (248)
성										
남자	36.3	3.7	1.6	3.5	14.8	2.9	14.5	4.5	18.2	100.0 (512)
여자	34.9	3.6	3.2	2.9	15.3	2.6	14.6	6.7	16.2	100.0 (686)
연령										
65~69세	36.2	4.8	1.3	2.1	14.0	2.1	13.0	7.4	19.0	100.0 (377)
70~74세	35.3	2.8	1.7	2.1	13.6	2.1	20.3	4.5	17.5	100.0 (286)
75~79세	38.0	3.8	2.8	5.2	13.6	3.5	13.9	3.8	15.3	100.0 (286)
80~84세	31.4	3.1	4.4	5.0	19.5	2.5	10.1	8.2	15.7	100.0 (160)
85세 이상	32.6	2.2	5.6	1.1	21.3	6.7	11.2	4.5	14.6	100.0 (8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6.3	3.9	2.1	2.8	15.1	2.2	13.2	5.7	18.6	100.0 (813)
배우자 없음	33.8	3.1	3.1	3.9	15.1	3.9	17.1	6.2	13.8	100.0 (385)
가구형태										
노인독거	39.6	3.6	1.8	3.6	14.2	2.7	13.8	5.8	15.1	100.0 (224)
노인부부	36.8	3.7	2.3	2.3	15.2	2.3	13.6	5.9	18.0	100.0 (706)
자녀동거	27.6	4.1	3.7	6.2	15.6	4.1	16.9	5.3	16.5	100.0 (243)
기타	40.0	0.0	0.0	0.0	16.0	4.0	20.0	8.0	12.0	100.0 (25)
교육수준										
무학	30.7	5.5	2.4	4.7	23.6	1.6	15.0	5.5	11.0	100.0 (128)
초등학교	34.5	3.1	3.7	4.2	15.0	3.7	16.9	5.9	13.0	100.0 (353)
중학교	35.8	4.2	1.1	2.5	11.9	1.4	15.4	5.3	22.5	100.0 (285)
고등학교	37.8	3.2	2.7	2.4	14.7	3.5	12.1	5.3	18.3	100.0 (339)
전문대학 이상	38.7	4.3	1.1	1.1	15.1	2.2	9.7	8.6	19.4	100.0 (94)
현취업상태										
취업중	34.6	4.5	3.2	1.6	16.9	3.2	14.5	4.2	17.4	100.0 (379)
미취업	35.9	3.3	2.2	3.9	14.3	2.6	14.5	6.6	16.8	100.0 (81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6.7	1.9	3.3	2.3	13.0	3.7	14.4	4.7	20.0	100.0 (216)
제2오분위	35.5	4.8	2.6	1.7	13.0	2.2	18.6	6.5	15.2	100.0 (232)
제3오분위	37.1	3.4	3.0	2.2	18.0	1.5	14.6	4.5	15.7	100.0 (266)
제4오분위	35.7	3.7	2.0	5.7	15.6	2.5	13.1	5.7	16.0	100.0 (245)
제5오분위	32.9	4.6	1.7	3.3	15.0	4.6	11.7	7.5	18.8	100.0 (24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7.2	3.4	3.6	1.8	12.7	2.7	15.9	5.7	17.0	100.0 (441)
50%이상~100%미만	36.6	3.8	1.7	4.3	15.6	2.6	13.5	5.0	17.0	100.0 (423)
100%이상~150%미만	31.9	4.3	2.4	4.3	22.2	1.0	15.0	4.3	14.5	100.0 (207)
150%이상	32.3	3.9	.8	2.4	9.4	7.1	11.8	11.8	20.5	100.0 (127)
기능상태										
제한 없음	34.8	3.8	2.5	3.0	15.6	2.8	15.1	5.7	16.7	100.0 (1,045)
제한 있음	40.8	2.6	2.0	4.6	11.8	2.6	9.9	5.9	19.7	100.0 (153)
2017년도 ³⁾	34.8	19.2	2.5	5.7	13.8	1.1	10.5	7.7	2.2	97.5 (1,300)

주: 1) 전체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학습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198명을 대상으로 함.

2) 2017년은 기타가 2.5%로 현재 제시된 보기로는 총합은 97.5%임

2. 자원봉사활동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경험률 및 참여 시간을 살펴보면, 2.9%가 자원봉사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월평균 참여시간은 6.3시간으로 83.2%가 월 10시간 이하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참여율이 3.2%로 읍·면부 노인 2.0%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이는 반면, 월평균 참여시간은 읍·면부 노인이 8.1시간으로 동부 노인 5.9시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실제 6시간~10시간 참여자의 비율은 동부 노인은 19.0%, 읍·면부 노인은 46.9%로 읍·면부 노인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은 3.0% 여자 노인은 2.8%가 참여하고 있으며, 월평균 참여시간도 남자노인이 7.8시간으로 여자 노인 5.0시간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낮은 특성을 보이며, 월평균 참여시간은 75~79세가 8.9시간으로 가장 많고, 80~84세가 3.4시간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참여율이 3.4%로 무배우 노인 1.8%에 비해 높았으며, 월평균 참여시간 역시 유배우 노인 6.4시간으로 무배우 노인 0.8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가 3.1%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참여시간은 자녀동거가구가 7.4시간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월평균 참여시간은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3.5%이고 미취업 노인은 2.6%이었으나 미취업 노인의 참여시간이 취업노인에 비해 많았다. 경제상태에 따라서는 가구의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연 가구소득 오분위와 중위 소득 기준 모두에서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참여시간은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3.0%로 제한이 있는 노인 2.1%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시간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1〉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시간

(단위: %, 시간, 명)

특성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 ¹⁾	월 평균 참여시간 ⁴⁾	월당 자원봉사 참여 시간 ²⁾					계 (명)
			0시간~ 5시간	6시간~ 10시간	11시간~ 15시간	16시간~ 20시간	21시간 이상	
전체	2.9	6.3	59.5	23.7	6.9	4.5	5.5	100.0 (291)
지역								
동부	3.2	5.9	62.8	19.0	8.3	4.1	5.8	100.0 (241)
읍·면부	2.0	8.1	42.9	46.9	0.0	6.1	4.1	100.0 (49)
성								
남자	3.0	7.8	48.9	30.5	6.9	5.3	8.4	100.0 (132)
여자	2.8	5.0	67.9	18.2	6.9	3.8	3.1	100.0 (158)
연령								
65~69세	4.4	4.9	63.0	23.3	8.2	3.4	2.1	100.0 (146)
70~74세	2.9	7.0	63.8	21.7	0.0	4.3	10.1	100.0 (69)
75~79세	3.0	8.9	44.1	27.9	10.3	7.4	10.3	100.0 (68)
80~84세	0.5	3.4	100.0	0.0	0.0	0.0	0.0	100.0 (8)
85세 이상	0.1	5.2	0.0	0.0	0.0	0.0	0.0	100.0 (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4	6.4	57.5	26.2	5.6	4.7	6.0	100.0 (232)
배우자 없음	1.8	5.6	67.2	13.8	12.1	3.4	3.4	100.0 (58)
가구형태								
노인독거	1.6	5.3	71.9	12.5	6.3	6.3	3.1	100.0 (32)
노인부부	3.1	6.3	59.5	27.6	3.2	4.3	5.4	100.0 (185)
자녀동거	3.1	7.4	48.4	21.0	16.1	4.8	9.7	100.0 (62)
기타	6.9	3.2	83.3	0.0	16.7	0.0	0.0	100.0 (12)
교육수준								
무학	0.6	9.3	14.3	57.1	0.0	28.6	0.0	100.0 (6)
초등학교	1.0	9.7	48.5	24.2	6.1	6.1	15.2	100.0 (33)
중학교	2.4	6.2	49.1	31.6	14.0	1.8	3.5	100.0 (57)
고등학교	5.1	5.8	66.4	18.5	4.8	5.5	4.8	100.0 (146)
전문대학 이상	8.2	5.1	63.3	24.5	6.1	2.0	4.1	100.0 (49)
현취업상태								
취업중	3.5	6.0	54.5	32.5	7.3	2.4	3.3	100.0 (123)
미취업	2.6	6.5	62.9	17.4	6.6	6.0	7.2	100.0 (16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7	6.2	55.6	30.6	0.0	5.6	8.3	100.0 (35)
제2오분위	1.6	6.0	59.4	25.0	6.3	9.4	0.0	100.0 (33)
제3오분위	2.2	6.4	48.9	37.8	0.0	8.9	4.4	100.0 (44)
제4오분위	3.5	7.7	56.3	31.0	2.8	1.4	8.5	100.0 (70)
제5오분위	5.4	5.4	66.1	11.0	14.7	2.8	5.5	100.0 (10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7	5.9	58.0	29.0	1.4	7.2	4.3	100.0 (69)
50%이상~100%미만	2.3	7.4	48.7	32.1	6.4	9.0	3.8	100.0 (78)
100%이상~150%미만	4.6	6.7	60.0	22.7	6.7	0.0	10.7	100.0 (76)
150%이상	6.3	4.8	72.1	8.8	13.2	1.5	4.4	100.0 (67)
기능상태								
제한 없음	3.0	6.4	58.0	25.4	7.6	3.0	6.1	100.0 (264)
제한 있음	2.1	5.2	70.4	7.4	0.0	18.5	3.7	100.0 (26)
2017년도 ³⁾	3.9	-	-	-	-	-	-	-

주: 1) 전체응답자 10,09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0년은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경험률이며, 2017년도는 '현재 하고 있음'(3.9%)값임

2) 전체응답자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91명을 대상으로 함.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2017년에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폐쇄형 보기를 제시하였으나, 2020년에는 1개월을 기준으로 개방형 질문을 제시하였으므로 2017년과 2020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횟수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함

4) 월 평균 참여시간은 전체 응답자 10,097명 중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291명을 대상으로 평균 참여횟수와 회당 하루 참여시간을 곱하여 산출함

자원봉사활동 참여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역에 대한 분포는 <표 10-12>와 같다. 사회복지 부분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이 48.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교통질서 19.9%, 환경보호 14.4%, 문화체육 7.9%, 보건의료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사회복지 외에 교통질서의 비율이 21.0%로 높은 반면, 읍·면부 노인은 사회복지 외에 문화체육이 22.9%로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사회복지분야 참여율이 63.3%로 남자 노인 31.6%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남자 노인은 교통질서의 비율이 34.6%로 여자 노인 7.6%에 비해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80~84세의 사회복지 영역 비율이 71.4%로 가장 높았으며, 75~79세는 38.2%로 가장 낮았다. 75~79세는 교통질서 영역 비율이 27.9%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였다.

배우자 유무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은 사회복지 영역 비율이 45.5%로 무배우 노인 62.1%에 비해 낮았으며, 문화체육(9.0%), 교통질서(22.3%), 환경보호(15.0%) 비율이 무배우 노인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자녀동거가구의 사회복지 영역 참여 비율이 66.1%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부부가구는 41.1%로 가장 낮았다. 반면, 노인부부가구는 교통질서의 비율이 24.3%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노인 집단에서 다양한 영역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교통질서영역 32.7%로 가장 높았으며, 교육활동이 12.2%로 타 교육수준과는 참여영역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연가구소득 오분위 기준에서는 일정한 경향성이 도출되지 않았으나, 중위소득 기준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150% 이상의 집단에서 교육활동의 비율이 6.1%로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교육활동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사회복지 34.6%, 교통질서 30.8%, 환경보호 23.1%의 비율이 높은 반면,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사회복지영역의 비율이 50.2%로 매우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표 10-12〉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역

(단위: %, 명)

특성	사회복지	문화체육	교통질서	환경보호	보건의료	교육활동	계 (명)
전체 ¹⁾	48.8	7.9	19.9	14.4	5.8	3.1	100.0 (291)
지역							
동부	48.6	4.9	21.0	14.8	7.0	3.7	100.0 (241)
읍·면부	50.0	22.9	14.6	12.5	0.0	0.0	100.0 (49)
성							
남자	31.6	14.3	34.6	14.3	2.3	3.0	100.0 (132)
여자	63.3	2.5	7.6	14.6	8.9	3.2	100.0 (158)
연령							
65~69세	53.8	8.3	18.6	13.8	4.1	1.4	100.0 (146)
70~74세	46.4	8.7	17.4	14.5	10.1	2.9	100.0 (69)
75~79세	38.2	4.4	27.9	16.2	5.9	7.4	100.0 (68)
80~84세	71.4	28.6	0.0	0.0	0.0	0.0	100.0 (8)
85세 이상 ²⁾	0.0	0.0	0.0	100.0	0.0	0.0	100.0 (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5.5	9.0	22.3	15.0	4.7	3.4	100.0 (232)
배우자 없음	62.1	3.4	10.3	12.1	10.3	1.7	100.0 (58)
가구형태							
노인독거	54.5	6.1	15.2	18.2	3.0	3.0	100.0 (32)
노인부부	41.1	9.7	24.3	15.7	4.9	4.3	100.0 (185)
자녀동거	66.1	4.8	12.9	9.7	6.5	0.0	100.0 (62)
기타	50.0	0.0	0.0	16.7	33.3	0.0	100.0 (12)
교육수준							
무학	33.3	0.0	0.0	66.7	0.0	0.0	100.0 (6)
초등학교	63.6	0.0	21.2	3.0	12.1	0.0	100.0 (33)
중학교	49.1	5.3	14.0	29.8	1.8	0.0	100.0 (57)
고등학교	52.1	7.5	18.5	13.7	6.2	2.1	100.0 (146)
전문대학 이상	30.6	18.4	32.7	0.0	6.1	12.2	100.0 (49)
현취업상태							
취업중	48.0	10.6	22.8	15.4	2.4	0.8	100.0 (123)
미취업	49.4	6.0	17.9	13.7	8.3	4.8	100.0 (16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4.3	5.7	8.6	20.0	11.4	0.0	100.0 (35)
제2오분위	33.3	18.2	24.2	24.2	0.0	0.0	100.0 (33)
제3오분위	45.5	11.4	20.5	11.4	6.8	4.5	100.0 (44)
제4오분위	48.6	4.2	26.4	11.1	5.6	4.2	100.0 (70)
제5오분위	52.3	6.4	17.4	13.8	6.4	3.7	100.0 (10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7.8	10.1	14.5	20.3	7.2	0.0	100.0 (69)
50%이상~100%미만	49.4	11.7	23.4	10.4	2.6	2.6	100.0 (78)
100%이상~150%미만	42.7	8.0	24.0	16.0	5.3	4.0	100.0 (76)
150%이상	59.1	0.0	16.7	10.6	7.6	6.1	100.0 (67)
기능상태							
제한 없음	50.2	8.7	18.9	13.6	5.3	3.4	100.0 (264)
제한 있음	34.6	0.0	30.8	23.1	11.5	0.0	100.0 (26)
2017년도 ³⁾	63.1	3.6	9.3	12.4	5.4	2.9	96.7 (389)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91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3) 2017년 기타 3.3%를 제외하여 96.7%로 제시함

자원봉사활동 참여 종류는 <표 10-13>과 같다. 전체적으로 단순노력봉사가 8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미(교육)등으로 습득한 지식/기술 활용이 8.5%,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활용이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단순노력봉사가 81.3%인 반면, 읍·면부 노인은 95.9%로 읍·면부 대부분의 참여노인들이 단순 노력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활용을 통한 자원봉사에서 여자 노인이 8.9%로 남자 노인 6.8%보다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 특성을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의 단순노력봉사 비율이 85.3%로 무배우 노인 77.6%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가구형태별로는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단순 노력봉사가 90.2%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가구는 취미(교육)등으로 습득한 지식/기술 활용이 16.7%,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활용이 25.0%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무학은 100.0%가 단순노력봉사를 하고 있었으며, 전문대학 이상 졸업은 71.4%만이 단순노력봉사를 하고 있었다. 이들 집단은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을 활용하는 봉사활동 비율이 18.4%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에서는 취업 노인의 87.8%, 미취업 노인의 81.4%가 단순노력봉사를 하며, 취미(교육)등으로 습득한 지식/기술 활용은 미취업 노인의 비율이 13.8%로 취업 노인에 비해 13%포인트 높고,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활용은 취업 노인이 11.4%로 미취업 노인에 비해 6.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소득에 따라서는 저소득에서는 단순노력봉사의 비율이 높으며, 제5오분위와 중위소득 150%이상에서는 타 소득수준에 비해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을 활용한 봉사활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은 단순노력봉사의 비율이 92.6%로 제한이 없는 노인 82.6%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연령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표 10-13〉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종류

(단위: %, 명)

특성	단순 노력 봉사	취미(교육) 등으로 습득한 지식/기술 활용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활용	기타	계 (명)
전체 ¹⁾	83.7	8.5	7.8	-	100.0 (291)
지역					
동부	81.3	9.5	9.1	-	100.0 (241)
읍·면부	95.9	2.0	2.0	-	100.0 (49)
성					
남자	84.8	8.3	6.8	-	100.0 (132)
여자	82.9	8.2	8.9	-	100.0 (158)
연령					
65~69세	84.1	9.0	6.9	-	100.0 (146)
70~74세	84.1	10.1	5.8	-	100.0 (69)
75~79세	86.8	1.5	11.8	-	100.0 (68)
80~84세	50.0	37.5	12.5	-	100.0 (8)
85세 이상 ²⁾	100.0	0.0	0.0	-	100.0 (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5.3	7.8	6.9	-	100.0 (232)
배우자 없음	77.6	12.1	10.3	-	100.0 (58)
가구형태					
노인독거	84.4	9.4	6.3	-	100.0 (32)
노인부부	82.8	9.7	7.5	-	100.0 (185)
자녀동거	90.2	3.3	6.6	-	100.0 (62)
기타	58.3	16.7	25.0	-	100.0 (12)
교육수준					
무학	100.0	0.0	0.0	-	100.0 (6)
초등학교	78.8	6.1	15.2	-	100.0 (33)
중학교	87.7	5.3	7.0	-	100.0 (57)
고등학교	86.3	10.3	3.4	-	100.0 (146)
전문대학 이상	71.4	10.2	18.4	-	100.0 (49)
현취업상태					
취업중	87.8	0.8	11.4	-	100.0 (123)
미취업	81.4	13.8	4.8	-	100.0 (16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1.2	8.8	0.0	-	100.0 (35)
제2오분위	90.6	0.0	9.4	-	100.0 (33)
제3오분위	80.0	15.6	4.4	-	100.0 (44)
제4오분위	82.9	8.6	8.6	-	100.0 (70)
제5오분위	82.4	7.4	10.2	-	100.0 (10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2.8	4.3	2.9	-	100.0 (69)
50%이상~100%미만	75.6	14.1	10.3	-	100.0 (78)
100%이상~150%미만	85.5	10.5	3.9	-	100.0 (76)
150%이상	82.4	4.4	13.2	-	100.0 (67)
기능상태					
제한 없음	82.6	8.7	8.7	-	100.0 (264)
제한 있음	92.6	7.4	0.0	-	100.0 (26)
2017년도	77.9	12.3	8.7	1.0	100.0 (389)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91명을 대상으로 함. /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자원봉사활동 참여노인의 연계기관 특성은 <표 10-14>와 같다. 전반적으로 종교기관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 비율이 33.4%로 가장 높았으며, 지자체 31.2%, 복지기관 15.8%, 민간단체 7.1%, 연계기관 없음 6.6%, 경로당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동부 노인은 종교기관 36.9%, 지자체 26.7%, 복지기관 16.9%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읍·면부 노인은 지자체 53.2%, 종교기관 16.2%, 경로당과 복지기관 각각 10.2%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은 지자체의 비율이 44.3%, 종교기관 21.4%의 분포이나, 여자 노인은 종교기관 43.9%, 복지기관과 지자체 각각 20.4%로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에 따라서는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80~84세는 종교기관의 비율이 57.1%로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특성 외에는 연령에 따른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은 지자체 35.9%, 종교기관 28.6%로 높은 분포를 보이는 반면, 무배우 노인은 종교기관이 52.5%로 압도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인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자녀동거가구와 기타가구에서 종교기관의 비율이 58.1%와 58.3%로 높은 분포를 보이며, 노인독거가구는 타 가구에 비해 복지기관과 경로당에서 21.9%와 15.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무학은 경로당과 복지기관이 각각 66.7%와 33.3%의 비율을 보여 타 교육수준과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또한,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복지기관(22.9%)과 민간단체(10.4%)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는 등 타 집단에 비해 보다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노인은 지자체가 40.7%로 가장 높으며, 미취업 노인은 종교기관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종교기관을 통한 봉사활동 비율이 46.4%로 매우 높으며, 다음으로 복지기관이 25.0%인 반면,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지자체 32.8%, 종교기관 32.1%로 기능상태에 따라 상이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14〉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원봉사활동 연계 기관

(단위: %, 명)

특성	연계기관 없음	종교기관	경로당	복지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계 (명)
전체 ¹⁾	6.6	33.4	5.9	15.8	31.2	7.1	100.0 (291)
지역							
동부	7.6	36.9	5.0	16.9	26.7	6.8	100.0 (241)
읍·면부	1.4	16.2	10.2	10.2	53.2	8.8	100.0 (49)
성							
남자	10.7	21.4	3.8	9.9	44.3	9.9	100.0 (132)
여자	3.2	43.9	7.6	20.4	20.4	4.5	100.0 (158)
연령							
65~69세	6.2	32.9	4.8	13.0	31.5	11.6	100.0 (146)
70~74세	2.9	36.2	5.8	18.8	31.9	4.3	100.0 (69)
75~79세	11.9	28.4	9.0	17.9	32.8	0.0	100.0 (68)
80~84세	0.0	57.1	0.0	28.6	0.0	14.3	100.0 (8)
85세 이상 ²⁾	0.0	0.0	0.0	0.0	0.0	0.0	100.0 (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4	28.6	4.8	16.5	35.9	6.9	100.0 (232)
배우자 없음	3.4	52.5	10.2	11.9	13.6	8.5	100.0 (58)
가구형태							
노인독거	6.3	37.5	15.6	21.9	15.6	3.1	100.0 (32)
노인부부	9.2	22.7	4.9	20.0	36.8	6.5	100.0 (185)
자녀동거	0.0	58.1	4.8	3.2	24.2	9.7	100.0 (62)
기타	0.0	58.3	0.0	0.0	25.0	16.7	100.0 (12)
교육수준							
무학	0.0	0.0	66.7	33.3	0.0	0.0	100.0 (6)
초등학교	9.4	34.4	9.4	12.5	34.4	0.0	100.0 (33)
중학교	12.3	33.3	10.5	10.5	26.3	7.0	100.0 (57)
고등학교	4.7	35.8	2.0	14.9	34.5	8.1	100.0 (146)
전문대학 이상	6.3	29.2	4.2	22.9	27.1	10.4	100.0 (49)
현취업상태							
취업중	10.6	27.6	6.5	8.9	40.7	5.7	100.0 (123)
미취업	3.6	37.5	5.4	20.8	24.4	8.3	100.0 (16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7	40.0	5.7	8.6	40.0	0.0	100.0 (35)
제2오분위	9.4	40.6	9.4	12.5	28.1	0.0	100.0 (33)
제3오분위	0.0	34.1	6.8	18.2	29.5	11.4	100.0 (44)
제4오분위	11.3	25.4	2.8	12.7	38.0	9.9	100.0 (70)
제5오분위	5.5	33.9	6.4	21.1	24.8	8.3	100.0 (10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2	40.6	5.8	11.6	33.3	1.4	100.0 (69)
50%이상~100%미만	6.6	27.6	5.3	9.2	40.8	10.5	100.0 (78)
100%이상~150%미만	6.5	31.2	9.1	19.5	26.0	7.8	100.0 (76)
150%이상	6.0	35.8	3.0	23.9	23.9	7.5	100.0 (67)
기능상태							
제한 없음	7.2	32.1	6.0	14.7	32.8	7.2	100.0 (264)
제한 있음	0.0	46.4	7.1	25.0	14.3	7.1	100.0 (26)
2017년도 ³⁾	5.7	29.8	14.1	17.2	20.8	10.8	98.5 (389)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91명을 대상으로 함. /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3) 2017년 기타 1.5%를 제외하여 98.5%로 제시함

3. 사회단체활동

사회단체활동은 <표 10-15>과 <표 10-16>과 같이 동호회 활동, 친목단체 활동, 정치사회단체 활동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노인의 동호회 활동 참여율은 4.7%, 친목단체활동 참여율은 44.1%, 정치사회단체활동 참여율은 1.2%로 나타났다.

동호회 활동의 참여율은 동부 노인이 5.0%로 읍·면부 노인보다 높으며, 주 1회 이상의 참여정도 역시 27.6%로 읍·면부 노인에 비해 약 8.0%포인트 높다. 남자 노인의 동호회 참여율은 7.7%로 여자노인보다 약 5.3%포인트 높게 나타난 반면, 주 1회 이상의 빈번한 참여는 여자 노인이 33.5%로, 남자 노인에 비해 10.6%포인트 높았다.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동호회 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참여 빈도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른 일관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친목단체활동 참여율은 44.1%로 월 1회 이하 참여율은 78.5%로 대다수 노인들이 월 1회 이하의 간헐적인 친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부 노인의 참여율은 46.3%로 읍·면부 노인 37.0%에 비하여 높다. 남자 노인의 참여율이 50.1%로 여자 노인 39.5%보다 높았으며, 월 1회 이상 참여율은 남자 노인이 71.7%로 여자 노인 70.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적을수록 친목단체 참여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참여빈도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정치사회단체활동 참여율은 1.2%로 참여자 중 63.1%가 월 1회 미만으로 간헐적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 노인은 1.0%, 읍·면부 노인은 1.8%가 정치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월 1회 미만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은 동부 노인은 55.7%, 읍·면부 노인은 76.7%로 읍·면부 노인의 정치사회단체활동 참여율은 높으나 참여빈도는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 노인의 참여율이 2.2%로 여자 노인 0.5%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월 1회 이상의 참여 비율도 남자 노인이 37.9%로 여자 노인 34.6%에 비해 3.3%포인트 높다. 연령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참여율이 높았으며, 참여빈도에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10-15〉 노인의 일반특성별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단위: %, 명)

특성	참여율			(명)
	동호회	친목단체	정치사회단체	
전체 ¹⁾	4.7	44.1	1.2	(10,097)
지역				
동부	5.0	46.3	1.0	(7,651)
읍·면부	3.8	37.0	1.8	(2,446)
성				
남자	7.7	50.1	2.2	(4,346)
여자	2.4	39.5	0.5	(5,751)
연령				
65~69세	7.3	63.9	1.6	(3,344)
70~74세	5.5	49.1	1.6	(2,342)
75~79세	3.5	34.3	0.8	(2,292)
80~84세	1.4	22.1	0.8	(1,475)
85세 이상	0.2	7.5	0.2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7	49.8	1.4	(6,779)
배우자 없음	2.6	32.2	0.8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2.6	33.1	0.8	(1,998)
노인부부	5.4	49.8	1.4	(5,898)
자녀동거	4.3	39.1	1.0	(2,026)
기타	8.0	33.7	1.7	(174)
교육수준				
무학	0.3	11.9	0.1	(1,073)
초등학교	1.3	32.2	0.4	(3,198)
중학교	3.1	46.7	0.5	(2,356)
고등학교	8.2	61.1	1.9	(2,870)
전문대학 이상	20.2	73.1	7.2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6.3	57.7	2.2	(3,564)
미취업	3.8	36.6	0.7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7	32.9	1.0	(2,019)
제2오분위	2.3	32.1	1.0	(2,020)
제3오분위	2.7	45.0	0.9	(2,017)
제4오분위	5.1	51.3	0.9	(2,024)
제5오분위	10.8	59.1	2.3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7	33.1	1.0	(3,999)
50%이상~100%미만	3.3	43.9	0.8	(3,382)
100%이상~150%미만	6.2	55.6	1.2	(1,647)
150%이상	14.7	67.8	3.2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4.7	47.2	1.1	(8,864)
제한 있음	4.5	21.2	2.1	(1,233)
2017년도 ²⁾	4.4	45.6	0.4	(10,07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0-16〉 노인의 일반특성별 사회단체활동 참여빈도

(단위: %, 명)

특성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동호회							
전체	4.4	6.8	14.8	8.4	40.1	25.4	100.0 (475)
지역							
동부	5.2	6.6	15.8	8.9	41.7	21.8	100.0 (382)
읍·면부	1.1	7.6	10.9	6.5	33.7	40.2	100.0 (93)
성							
남자	4.4	4.5	14.0	8.9	39.9	28.3	100.0 (334)
여자	4.3	12.1	17.1	7.1	40.7	18.6	100.0 (140)
연령							
65~69세	2.9	4.5	13.9	8.2	47.3	23.3	100.0 (245)
70~74세	3.1	7.1	15.0	6.3	37.8	30.7	100.0 (128)
75~79세	12.3	11.1	17.3	9.9	24.7	24.7	100.0 (80)
80~84세	0.0	19.0	14.3	19.0	28.6	19.0	100.0 (21)
85세 이상	0.0	0.0	50.0	0.0	50.0	0.0	100.0 (1)
2017년도	14.2	17.1	19.8	7.8	31.1	10.0	100.0 (450)
친목단체							
전체	0.6	2.1	4.8	14.0	49.6	28.9	100.0 (4,448)
지역							
동부	0.6	1.9	5.0	13.8	49.0	29.8	100.0 (3,543)
읍·면부	0.6	3.0	3.8	14.9	52.0	25.7	100.0 (905)
성							
남자	0.6	2.1	4.3	15.0	49.7	28.3	100.0 (2,177)
여자	0.7	2.1	5.2	13.0	49.5	29.5	100.0 (2,272)
연령							
65~69세	0.5	1.3	5.5	16.8	50.4	25.5	100.0 (2,138)
70~74세	0.3	2.3	5.4	13.9	47.9	30.1	100.0 (1,150)
75~79세	1.4	3.2	1.8	9.1	52.8	31.8	100.0 (785)
80~84세	0.4	2.8	4.7	9.2	43.8	39.2	100.0 (326)
85세 이상	2.0	8.2	4.1	4.1	42.9	38.8	100.0 (48)
2017년도	1.7	2.7	7.9	17.0	48.1	22.7	100.0 (4,597)
정치사회단체							
전체	-	0.7	0.8	8.2	27.0	63.1	100.0 (122)
지역							
동부	-	1.3	1.3	12.7	29.1	55.7	100.0 (78)
읍·면부	-	0.0	0.0	0.0	23.3	76.7	100.0 (43)
성							
남자	-	0.0	1.1	10.5	26.3	62.1	100.0 (96)
여자	-	3.8	0.0	0.0	30.8	65.4	100.0 (26)
연령							
65~69세	-	0.0	1.9	3.8	39.6	54.7	100.0 (53)
70~74세	-	0.0	0.0	5.4	24.3	70.3	100.0 (37)
75~79세	-	0.0	0.0	16.7	5.6	77.8	100.0 (18)
80~84세	-	6.8	0.0	25.0	8.3	58.3	100.0 (12)
85세 이상	-	0.0	0.0	0.0	0.0	100.0	100.0 (2)
2017년도	9.5	0.0	4.8	9.5	35.7	40.5	100.0 (42)

주: 1) 해당 항목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4. 종교활동

노인의 사회참여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는 종교활동이다. 이에 <표 10-17>과 <표 10-18>과 같이 종교 현황 및 종교활동 수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노인의 40.2%는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개신교(기독교)가 24.3%, 불교 23.8%, 천주교 10.8%, 유교 0.6%, 원불교 0.2%, 기타 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노인 중에는 10.9%가 종교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주 1회 활동의 비율이 41.2%로 가장 높았다. 또한, 주 1회 이상의 적극적 종교활동 비율은 52.9%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부 노인의 49.2%가 종교가 없었으며 동부 노인에 비해 11.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가 있는 노인 중 주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비율은 동부 노인 53.9%, 읍·면부 노인 49.0%로 동부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종교가 없는 비율이 남자 노인은 46.4%, 여자 노인은 35.6%로 여자 노인이 종교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았으나, 주 1회 이상 적극적 활동 비율은 남자노인 55.5%, 여자 노인 51.4%로 남자 노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종교 현황에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종교활동 참여정도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주 1회 이상의 적극적 활동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종교없음은 42.0%로 무배우 노인 36.5%에 비해 높으나, 주 1회 이상의 적극적 참여는 유배우 노인이 높았다. 가구형태에서도 노인부부가구는 42.3%가 종교가 없으며,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노인부부가구의 주 1회 이상 적극적 참여 비율은 54.2%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종교활동 참여정도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주 1회 이상의 적극적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취업 노인의 경우 46.1%가 종교가 없으며,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종교활동 참여 정도에서는 취업 노인의 주 1회 이상 참여율이 55.3%로 미취업 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분포에서는 종교 유무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종교활동의 적극성과 관련해서는 중위 소득 대비 100% 이상 집단이 이보다 낮은 소득수준 집단에 비해 주 1회 이상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이 종교없음이 41.1%로 기능 제한 있는 노인에 비해 높은 반면, 주 1회 이상 적극적 참여도 이 집단에서 높은 특성을 보인다.

〈표 10-17〉 노인의 일반특성별 종교 현황

(단위: %, 명)

특성	종교없음	불교	개신교(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기타	계 (명)
전체 ¹⁾	40.2	23.8	24.3	10.8	0.6	0.2	0.1	100.0 (10,097)
지역								
동부	37.4	24.1	25.8	11.7	0.6	0.2	0.2	100.0 (7,651)
읍·면부	49.2	22.8	19.5	7.9	0.5	0.1	0.0	100.0 (2,446)
성								
남자	46.4	19.6	22.9	10.2	0.7	0.2	0.1	100.0 (4,346)
여자	35.6	27.0	25.3	11.2	0.5	0.2	0.2	100.0 (5,751)
연령								
65~69세	40.3	21.6	24.3	12.2	1.5	0.1	0.0	100.0 (3,344)
70~74세	39.8	24.7	25.5	9.5	0.2	0.2	0.1	100.0 (2,342)
75~79세	40.9	25.5	23.3	10.0	0.1	0.1	0.2	100.0 (2,292)
80~84세	41.5	25.1	21.7	10.7	0.3	0.4	0.4	100.0 (1,475)
85세 이상	36.4	23.3	28.5	11.3	0.1	0.4	0.1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2.0	22.9	24.0	10.2	0.7	0.2	0.1	100.0 (6,779)
배우자 없음	36.5	25.8	24.8	12.0	0.4	0.2	0.2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37.6	25.9	24.2	11.5	0.6	0.1	0.2	100.0 (1,998)
노인부부	42.3	22.8	23.9	10.1	0.7	0.2	0.1	100.0 (5,898)
자녀동거	37.1	24.6	25.4	12.1	0.4	0.1	0.2	100.0 (2,026)
기타	35.4	26.3	25.1	10.3	0.6	1.1	1.1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36.1	28.8	24.8	9.9	0.1	0.2	0.1	100.0 (1,073)
초등학교	41.9	26.1	21.4	9.5	0.5	0.3	0.3	100.0 (3,198)
중학교	37.4	25.3	24.6	12.0	0.6	0.1	0.1	100.0 (2,356)
고등학교	42.4	20.0	25.2	11.4	0.8	0.1	0.0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39.6	15.2	32.8	11.4	0.8	0.1	0.0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46.1	19.9	22.9	10.2	0.7	0.2	0.1	100.0 (3,564)
미취업	37.1	26.0	25.0	11.1	0.5	0.2	0.2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1.6	26.5	21.0	10.0	0.6	0.1	0.2	100.0 (2,019)
제2오분위	38.1	23.1	26.2	11.8	0.3	0.4	0.0	100.0 (2,020)
제3오분위	39.9	23.8	26.2	9.1	0.8	0.1	0.2	100.0 (2,017)
제4오분위	40.8	23.7	23.8	10.9	0.7	0.2	0.1	100.0 (2,024)
제5오분위	40.9	22.0	24.1	12.0	0.6	0.2	0.2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9.4	25.5	23.7	10.6	0.5	0.2	0.1	100.0 (3,999)
50%이상~100%미만	40.2	23.8	25.6	9.6	0.6	0.2	0.2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39.4	21.9	24.1	13.4	1.0	0.2	0.0	100.0 (1,647)
150%이상	45.0	20.5	22.5	11.1	0.4	0.1	0.3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41.1	23.7	23.6	10.7	0.6	0.2	0.1	100.0 (8,864)
제한 있음	34.3	24.7	29.0	11.2	0.6	0.2	0.1	100.0 (1,233)
2017년도	38.8	26.9	23.3	9.1	0.8	0.2	0.8	100.0 (10,07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표 10-18〉 노인의 일반특성별 종교활동 참여 정도

(단위: %, 명)

특성	없음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월 2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체 ¹⁾	10.9	2.6	9.1	41.2	3.7	8.4	24.1	100.0 (6,034)
지역								
동부	10.7	2.5	9.5	41.9	3.6	8.4	23.3	100.0 (4,792)
읍·면부	11.4	3.0	7.6	38.4	3.8	8.2	27.6	100.0 (1,242)
성								
남자	11.8	3.3	8.0	44.2	3.5	7.4	21.9	100.0 (2,328)
여자	10.3	2.2	9.8	39.4	3.8	9.0	25.6	100.0 (3,707)
연령								
65~69세	7.9	1.8	10.6	43.9	3.2	9.7	23.0	100.0 (1,997)
70~74세	10.5	2.3	10.0	39.9	3.9	8.9	24.5	100.0 (1,410)
75~79세	12.8	3.9	9.4	38.6	4.2	7.3	23.8	100.0 (1,354)
80~84세	11.6	2.9	5.7	41.1	3.0	7.7	28.0	100.0 (863)
85세 이상	18.5	3.0	5.2	41.3	5.1	5.4	21.5	100.0 (41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0.1	2.7	10.1	41.4	3.3	8.2	24.2	100.0 (3,929)
배우자 없음	12.2	2.5	7.3	40.8	4.3	8.8	24.1	100.0 (2,105)
가구형태								
노인독거	11.9	2.3	7.0	40.0	4.3	10.3	24.2	100.0 (1,246)
노인부부	9.7	2.7	10.1	41.4	3.5	8.6	24.1	100.0 (3,401)
자녀동거	13.1	3.0	8.4	41.9	3.8	5.9	23.9	100.0 (1,275)
기타	9.8	0.0	10.7	41.1	0.9	9.8	27.7	100.0 (112)
교육수준								
무학	11.9	2.9	5.5	39.7	3.9	5.3	30.9	100.0 (687)
초등학교	13.4	2.7	7.9	37.3	3.8	8.0	26.9	100.0 (1,858)
중학교	10.0	2.4	8.2	43.6	3.7	9.7	22.4	100.0 (1,476)
고등학교	9.0	2.6	10.2	43.6	3.7	9.1	21.8	100.0 (1,652)
전문대학 이상	7.8	3.1	20.8	43.4	2.1	7.9	15.0	100.0 (362)
현취업상태								
취업중	7.6	2.2	8.6	44.5	3.5	9.8	23.8	100.0 (1,922)
미취업	12.4	2.8	9.3	39.7	3.7	7.7	24.3	100.0 (4,11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3	2.7	6.9	38.4	4.0	10.1	24.5	100.0 (1,179)
제2오분위	11.9	2.4	7.5	45.5	2.6	7.4	22.7	100.0 (1,250)
제3오분위	9.7	3.3	9.4	39.0	4.6	8.1	25.9	100.0 (1,213)
제4오분위	9.9	2.0	9.8	43.0	4.1	7.9	23.2	100.0 (1,199)
제5오분위	9.6	2.8	11.9	39.8	3.1	8.4	24.4	100.0 (1,193)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	12.6	2.7	7.1	41.1	3.5	8.7	24.3	100.0 (2,424)
50%이상~100%미만	10.1	2.5	9.9	40.4	4.2	7.3	25.5	100.0 (2,024)
100%이상~150%미만	11.2	3.4	8.7	44.1	3.3	8.5	20.8	100.0 (999)
150%이상	5.9	1.3	15.1	39.5	3.2	10.4	24.6	100.0 (587)
기능상태								
제한 없음	9.9	2.5	9.4	41.6	3.9	8.4	24.3	100.0 (5,224)
제한 있음	17.3	3.3	7.0	38.5	2.4	8.1	23.4	100.0 (810)
2017년도	12.3	6.1	14.2	28.0	2.2	7.2	30.0	100.0 (6,164)

주: 1) 전체응답자 중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6,034명을 대상으로 함.

5.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 활동

가. 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

향후 희망하는 사회참여 활동을 파악하기 전에 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에 대해 <표 10-19>와 같이 살펴보았으며, 취미여가활동이 3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제활동 25.4%, 친목(단체)활동 19.3%, 종교활동 1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에 상관없이 유사한 특성을 보이나, 읍·면부 노인은 동부 노인에 비해 경제활동의 비율이 높고(동부 24.0%, 읍·면부 29.6%), 동부 노인은 종교활동(동부 15.5%, 읍·면부 9.8%)의 비율이 뚜렷하게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은 경제활동의 비율이 30.1%로 여자 노인에 비해 8.3%포인트 높은 반면, 여자 노인은 종교활동의 비율이 18.5%로 남자 노인에 비해 10.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65~79세의 경우 취미여가활동 다음으로 경제활동의 비율이 높았으나, 80~84세는 취미여가활동 다음으로 친목(단체)활동, 85세 이상은 종교활동의 비율이 높아 80대를 전후로 차이가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유배우 노인은 취미여가활동 외에 경제활동의 비율이 26.1%로 높아 무배우 노인에 비해 2.2%포인트 높으며, 무배우 노인은 종교활동의 비율이 17.3%로 유배우 노인에 비해 4.7%포인트 높은 특성을 보인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무학은 취미여가활동의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으며, 초등학교 졸업은 경제활동, 중학교 졸업은 종교활동, 고등학교 졸업은 자원봉사, 전문대학 이상 졸업은 친목(단체)활동의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으나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취업상태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취업 노인은 42.5%가 경제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미취업 노인은 43.8%가 취미여가활동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취업상태에 따른 중요한 활동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연 가구소득은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며,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았을 때 친목(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은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취미여가활동과 경제활동은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경우 취미여가활동이 43.4%,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경우는 37.0%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경우 중요한 활동의 범위가 좀 더 넓은 특성을 보인다.

〈표 10-19〉 노인의 일반특성별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단위: %, 명)

특성	자원봉사 활동	학습 활동	취미·여 가 활동	종교 활동	정치사회 (단체)활동	친목(단체)활동	경제 활동	기타	계 (명)
전체 ¹⁾	1.7	0.9	37.7	14.1	0.2	19.3	25.4	0.8	100.0 (9,930)
지역									
동부	1.5	0.9	37.7	15.5	0.2	19.4	24.0	0.8	100.0 (7,518)
읍·면부	2.4	0.9	37.6	9.8	0.2	18.7	29.6	0.8	100.0 (2,413)
성									
남자	1.7	0.9	38.8	8.4	0.2	19.0	30.1	1.0	100.0 (4,281)
여자	1.7	0.8	36.8	18.5	0.2	19.5	21.8	0.7	100.0 (5,649)
연령									
65~69세	2.5	0.9	34.1	13.6	0.2	20.6	27.8	0.3	100.0 (3,337)
70~74세	1.5	0.8	39.5	13.3	0.3	17.7	26.3	0.5	100.0 (2,319)
75~79세	2.0	0.6	38.7	14.2	0.1	18.1	25.2	1.1	100.0 (2,262)
80~84세	0.3	1.7	40.4	14.0	0.0	21.3	20.8	1.6	100.0 (1,426)
85세 이상	0.5	0.3	40.3	20.0	0.2	17.3	19.2	2.2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0	0.9	38.3	12.6	0.2	19.4	26.1	0.7	100.0 (6,704)
배우자 없음	1.2	0.8	36.4	17.3	0.2	19.0	23.9	1.2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1.4	1.0	34.9	16.1	0.2	19.2	26.1	1.1	100.0 (1,985)
노인부부	1.7	0.9	38.1	12.6	0.2	19.9	26.1	0.6	100.0 (5,847)
자녀동거	2.1	0.8	38.9	16.1	0.1	18.4	22.4	1.2	100.0 (1,935)
기타	2.6	0.2	42.0	19.6	1.0	9.8	24.0	0.8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0.5	0.8	39.3	14.8	0.0	18.8	23.3	2.4	100.0 (1,023)
초등학교	2.0	1.0	37.3	13.7	0.2	18.8	26.2	0.7	100.0 (3,134)
중학교	1.6	0.7	36.4	15.3	0.2	19.7	25.5	0.6	100.0 (2,323)
고등학교	2.1	0.7	38.3	13.6	0.2	19.0	25.7	0.4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0.8	1.7	39.0	12.9	0.6	21.8	22.2	1.0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1.7	0.5	26.7	10.1	0.1	18.4	42.5	0.1	100.0 (3,554)
미취업	1.7	1.1	43.8	16.3	0.2	19.8	15.8	1.3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	1.2	38.2	13.3	0.2	18.7	25.7	1.6	100.0 (1,986)
제2오분위	1.4	0.6	39.2	14.7	0.2	18.2	24.9	0.7	100.0 (1,987)
제3오분위	1.8	0.7	38.4	14.2	0.2	17.7	26.8	0.4	100.0 (1,991)
제4오분위	1.6	0.9	36.7	13.2	0.3	19.1	27.3	0.9	100.0 (1,987)
제5오분위	2.6	1.0	35.8	15.1	0.1	22.7	22.2	0.5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4	0.9	39.5	13.4	0.2	18.1	25.4	1.1	100.0 (3,927)
50%이상~100%미만	1.6	1.0	37.0	14.6	0.2	18.5	26.3	0.9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2.2	0.6	37.0	14.8	0.1	20.1	24.6	0.5	100.0 (1,618)
150%이상	2.7	0.9	33.9	14.2	0.1	24.8	23.3	0.2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9	0.9	37.0	13.9	0.2	19.8	25.8	0.5	100.0 (8,832)
제한 있음	0.4	0.6	43.4	15.8	0.0	15.1	21.5	3.3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나. 향후 노후생활에서의 사회참여 활동 희망 정도

향후 노후생활에서 사회참여 활동의 희망 정도를 6가지 종류의 활동(자원봉사활동, 학습 활동, 취미·여가활동, 종교활동, 정치사회단체활동, 친목단체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자원봉사활동은 <표 10-20>과 같이 별로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노인이 30.4%로 가장 높으며, 전혀 할 생각이 없음 23.9%,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25.3%,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18.0%, 반드시 하고 싶음 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반드시 하고 싶음~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45.6%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47.5%, 읍·면부 노인은 39.9%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었다. 또한, 전혀 할 생각이 없음에서 집단 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동부 노인은 22.0%, 읍·면부 노인은 30.1%가 자원봉사활동을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이 47.0%, 여자 노인이 44.5%로 남자 노인의 참여의향이 더 높았으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65~69세의 57.6%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반면, 85세 이상은 23.2%만이 희망하고 있어,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49.2%가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였으며, 무배우 노인 38.4%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가구형태에서도 노인부부가구의 참여 희망 비율이 48.7%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녀동거가구는 41.9%, 노인독거가구는 41.2%, 기타가구는 36.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이 있는 경우는 무학이 25.5%, 초등학교 40.8%, 중학교 47.2%, 고등학교 54.8%, 전문대학 이상 55.5%로 학력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취업상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취업 노인은 54.4%가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고 있어 미취업 노인 40.7%보다 높다. 가구소득에 따른 분포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 희망 비율이 연 가구소득 오분위에서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중위소득 기준에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자원봉사활동 참여 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능상태에 따른 분포에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48.2%가 자원봉사를 희망하였으나,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25.6%가 희망 의사를 밝혔다.

〈표 10-20〉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자원봉사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2.3	18.0	25.3	30.4	23.9	100.0 (9,930)
지역						
동부	2.5	18.7	26.3	30.5	22.0	100.0 (7,518)
읍·면부	1.6	15.9	22.4	30.1	30.1	100.0 (2,413)
성						
남자	2.5	17.9	26.6	30.5	22.5	100.0 (4,281)
여자	2.1	18.1	24.3	30.4	25.0	100.0 (5,649)
연령						
65~69세	3.7	22.8	31.1	24.3	18.0	100.0 (3,337)
70~74세	2.4	16.4	27.5	32.2	21.5	100.0 (2,319)
75~79세	1.8	16.8	23.1	33.4	25.0	100.0 (2,262)
80~84세	0.4	14.3	17.2	35.6	32.5	100.0 (1,426)
85세 이상	0.2	11.0	12.0	34.0	42.7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9	19.0	27.3	29.6	21.3	100.0 (6,704)
배우자 없음	1.1	16.0	21.3	32.1	29.5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1.1	16.7	23.4	29.7	29.1	100.0 (1,985)
노인부부	2.7	18.5	27.5	29.7	21.6	100.0 (5,847)
자녀동거	2.3	18.0	21.6	32.8	25.3	100.0 (1,935)
기타	2.9	18.5	14.8	36.3	27.6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0.5	9.5	15.5	35.6	39.1	100.0 (1,023)
초등학교	1.2	16.9	22.7	33.7	25.5	100.0 (3,134)
중학교	2.2	17.8	27.2	29.4	23.3	100.0 (2,323)
고등학교	3.0	21.4	30.4	26.3	18.8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8.2	22.8	24.5	27.6	16.9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2.7	20.5	31.2	27.7	17.9	100.0 (3,554)
미취업	2.1	16.6	22.0	31.9	27.3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	18.6	25.9	27.4	27.0	100.0 (1,986)
제2오분위	1.0	17.2	21.1	33.4	27.2	100.0 (1,987)
제3오분위	1.8	16.8	22.4	32.3	26.7	100.0 (1,991)
제4오분위	2.8	17.4	27.7	31.4	20.7	100.0 (1,987)
제5오분위	4.8	20.1	29.5	27.5	18.1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	17.8	23.4	30.3	27.4	100.0 (3,927)
50%이상~100%미만	2.0	16.3	23.1	33.6	25.1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3.3	18.1	30.6	27.8	20.2	100.0 (1,618)
150%이상	5.7	24.3	31.7	24.9	13.4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2.5	18.8	26.9	30.2	21.7	100.0 (8,832)
제한 있음	0.5	12.1	13.0	32.5	41.9	100.0 (1,098)
2017년도	1.4	5.1	9.6	42.5	41.5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다음으로 노후(여생)의 학습활동 희망 정도를 살펴보면, <표 10-21>과 같이 별로 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30.1%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전혀 할 생각이 없음 26.8%,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24.6%,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15.5%, 반드시 하고 싶음 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습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반드시 하고 싶음~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43.1%이다. 노인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의 45.9%가 학습활동을 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며, 읍·면부 노인은 33.9%로 동부 노인의 학습활동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이 43.5%로 여자 노인에 비해 조금 높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65~69세 52.0%, 85세 이상은 22.6%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습활동 희망률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학습활동 희망률이 46.1%로 무배우 노인 36.9%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인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부부가구의 학습활동 희망률이 45.9%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동거가구 39.4%, 노인독거가구 39.1%, 기타가구 32.7%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무학은 24.1%의 희망률을 보이는 반면, 전문대학 이상 졸업은 55.7%의 희망률을 보여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학습활동 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볼 수 있다. 취업상태에 따른 분포에서는 취업 노인은 47.9%가 학습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며, 미취업 노인 40.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연 가구소득 오분위에서는 학습활동 희망률이 소득수준별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중위소득 대비 소득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학습활동에 대한 희망률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혀 할 생각이 없음은 두 가지 소득기준 모두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능상태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학습활동 희망률은 45.4%인 반면,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학습활동 희망률은 24.6%로 기능상태에 따른 학습활동 참여 희망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21〉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학습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3.0	15.5	24.6	30.1	26.8	100.0 (9,930)
지역						
동부	3.3	16.6	26.0	29.7	24.3	100.0 (7,518)
읍·면부	1.9	12.1	19.9	31.5	34.6	100.0 (2,413)
성						
남자	3.0	14.9	25.6	31.1	25.5	100.0 (4,281)
여자	3.0	16.0	23.8	29.4	27.9	100.0 (5,649)
연령						
65~69세	4.0	19.1	28.9	26.5	21.4	100.0 (3,337)
70~74세	3.4	15.4	24.5	32.0	24.7	100.0 (2,319)
75~79세	2.1	13.7	24.2	31.7	28.2	100.0 (2,262)
80~84세	2.2	13.6	19.0	30.8	34.4	100.0 (1,426)
85세 이상	0.9	6.7	15.0	35.2	42.3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2	16.5	26.4	30.1	23.8	100.0 (6,704)
배우자 없음	2.6	13.5	20.8	30.0	33.2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2.7	14.5	21.9	28.5	32.4	100.0 (1,985)
노인부부	3.1	16.1	26.7	29.9	24.2	100.0 (5,847)
자녀동거	2.7	14.9	21.8	32.3	28.3	100.0 (1,935)
기타	6.1	13.6	13.0	32.6	34.7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1.3	8.2	14.6	33.4	42.5	100.0 (1,023)
초등학교	2.4	14.7	23.3	32.1	27.5	100.0 (3,134)
중학교	3.1	17.2	25.7	27.7	26.3	100.0 (2,323)
고등학교	4.0	17.2	26.6	29.0	23.2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4.2	17.6	33.9	28.5	15.9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3.5	16.9	27.5	29.1	22.9	100.0 (3,554)
미취업	2.7	14.7	22.9	30.6	29.0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2	15.0	23.2	28.7	30.9	100.0 (1,986)
제2오분위	2.8	13.4	21.3	32.1	30.3	100.0 (1,987)
제3오분위	2.7	14.7	23.1	33.1	26.4	100.0 (1,991)
제4오분위	3.4	17.8	25.7	28.0	25.1	100.0 (1,987)
제5오분위	4.0	16.7	29.4	28.5	21.4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5	14.2	22.4	30.9	30.1	100.0 (3,927)
50%이상~100%미만	3.1	14.9	23.2	31.5	27.3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2.7	17.7	28.2	26.6	24.8	100.0 (1,618)
150%이상	5.1	19.1	31.4	27.8	16.5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3.2	16.5	25.7	29.8	24.8	100.0 (8,832)
제한 있음	1.6	7.9	15.1	32.2	43.2	100.0 (1,098)
2017년도	1.8	10.0	12.1	41.6	34.5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후(여생)의 취미여가활동 희망 정도는 <표 10-22>와 같이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이 39.1%로 가장 높았으며, 반드시 하고 싶음 29.8%,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20.9%, 별로 할 생각이 없음 6.6%, 전혀 할 생각이 없음 3.6%로 취미여가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89.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동부 노인의 취미여가활동 희망률은 90.2%로 읍·면부 노인 88.5%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인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 90.8%, 여자 노인 89.0%가 취미여가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며, 성별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취미여가활동 희망률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65~69세는 93.0%가 취미여가활동을 희망하는 것에 비해, 85세 이상의 희망률은 82.3%로 높은 차이를 보였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취미여가활동 희망률은 91.4%로 무배우 노인 86.5%에 비해 높으며,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기타가구의 91.6%가 취미여가활동을 희망하며, 노인부부가구 90.9%, 자녀동거가구 89.6%, 노인독거가구 86.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에서는 무학은 81.9%가 취미여가활동을 희망하였으나, 전문대학 이상 졸업은 95.1%가 희망하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취미여가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초등학교 졸업은 90.0%, 중학교 졸업은 88.4%로 경향성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다. 취업 노인 중 91.9%는 취미여가활동을 희망하며, 미취업 노인 8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분포에서는 연 가구소득 제3오분위는 90.3% 제4오분위는 90.1%로 일부 다른 경향을 보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취미여가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능상태에 따른 분포에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90.9%가 취미여가활동을 희망하는 반면,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81.1%가 취미여가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2〉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취미·여가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29.8	39.1	20.9	6.6	3.6	100.0 (9,930)
지역						
동부	28.7	40.4	21.1	6.4	3.5	100.0 (7,518)
읍·면부	33.1	35.0	20.4	7.5	4.0	100.0 (2,413)
성						
남자	31.3	38.6	20.9	5.9	3.3	100.0 (4,281)
여자	28.7	39.4	20.9	7.2	3.8	100.0 (5,649)
연령						
65~69세	33.9	38.8	20.3	4.4	2.6	100.0 (3,337)
70~74세	28.4	41.9	20.4	6.1	3.1	100.0 (2,319)
75~79세	28.7	37.9	21.8	7.8	3.7	100.0 (2,262)
80~84세	26.9	38.9	20.0	9.0	5.2	100.0 (1,426)
85세 이상	23.6	33.9	24.8	10.9	6.8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2.2	38.9	20.3	5.9	2.8	100.0 (6,704)
배우자 없음	24.9	39.4	22.2	8.3	5.2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24.8	39.1	22.4	8.0	5.7	100.0 (1,985)
노인부부	31.8	38.8	20.3	6.1	3.0	100.0 (5,847)
자녀동거	28.8	39.6	21.2	7.4	3.0	100.0 (1,935)
기타	32.3	39.7	19.6	2.5	5.8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27.9	36.0	18.0	11.7	6.3	100.0 (1,023)
초등학교	26.9	39.5	23.6	6.8	3.2	100.0 (3,134)
중학교	26.0	40.5	21.9	7.3	4.2	100.0 (2,323)
고등학교	34.2	38.2	19.8	4.8	3.0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42.0	40.6	12.5	3.0	1.9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31.1	40.0	20.8	5.7	2.5	100.0 (3,554)
미취업	29.1	38.5	21.0	7.2	4.2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5.7	32.2	19.8	7.3	5.0	100.0 (1,986)
제2오분위	28.0	39.4	21.0	7.3	4.3	100.0 (1,987)
제3오분위	25.9	40.7	23.7	5.9	3.8	100.0 (1,991)
제4오분위	28.2	41.8	20.1	7.1	2.8	100.0 (1,987)
제5오분위	31.2	41.2	19.9	5.5	2.1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2.0	35.7	20.5	7.2	4.5	100.0 (3,927)
50%이상~100%미만	27.1	40.5	22.3	6.5	3.5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28.7	43.4	19.3	6.2	2.3	100.0 (1,618)
150%이상	31.9	40.2	20.1	5.6	2.3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30.6	39.5	20.8	6.3	2.9	100.0 (8,832)
제한 있음	23.8	35.7	21.6	9.6	9.2	100.0 (1,098)
2017년도	14.2	52.2	20.1	10.7	2.8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후(여생)동안 종교활동을 희망하는 정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10-23>과 같이 반드시 하고 싶음 14.7%,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21.1%,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18.2%, 별로 할 생각이 없음 24.9%, 전혀 할 생각이 없' 21.1로 나타나,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반드시 하고 싶음~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이 54.0%였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동부 노인은 55.9%, 읍·면부 노인은 48.0%로 동부 노인이 향후 종교활동 희망률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은 60.0%로 남자 노인 46.2% 보다 13.8%포인트 높았다. 연령에 따른 분포에서는 80~84세는 48.1%, 85세 이상은 49.2%로 경향성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종교활동 희망률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비율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뚜렷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무배우 노인의 종교활동 희망률은 55.5%로 유배우 노인 53.3에 비해 높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기타가구의 희망률이 56.8%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독거가구 56.4%, 자녀동거가구 53.6%, 노인부부가구 53.2%의 순으로 가구형태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무학 45.8%, 초등학교 졸업 54.8%, 중학교 졸업과 전문대학 이상 55.1%, 고등학교 졸업 55.2%로 무학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수준은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의 54.3%가 종교활동을 희망하고 있어 취업 노인 53.5%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지만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종교활동 희망률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기능상태에 따른 분포에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54.8%가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47.4%가 종교활동을 희망하고 있다.

〈표 10-23〉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종교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14.7	21.1	18.2	24.9	21.1	100.0 (9,930)
지역						
동부	16.4	21.5	18.0	24.4	19.7	100.0 (7,518)
읍·면부	9.4	19.7	18.9	26.5	25.5	100.0 (2,413)
성						
남자	10.2	18.2	17.8	28.5	25.3	100.0 (4,281)
여자	18.2	23.3	18.5	22.1	17.9	100.0 (5,649)
연령						
65~69세	16.7	23.6	18.4	22.7	18.6	100.0 (3,337)
70~74세	15.0	20.8	18.9	24.9	20.4	100.0 (2,319)
75~79세	13.2	19.7	18.5	26.9	21.7	100.0 (2,262)
80~84세	12.0	19.4	16.7	26.7	25.3	100.0 (1,426)
85세 이상	15.0	17.3	16.9	24.9	26.1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2	21.0	18.1	25.5	21.1	100.0 (6,704)
배우자 없음	15.8	21.3	18.4	23.5	21.1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14.7	21.8	19.9	22.2	21.4	100.0 (1,985)
노인부부	13.7	21.2	18.3	25.8	20.9	100.0 (5,847)
자녀동거	17.3	19.9	16.4	25.1	21.3	100.0 (1,935)
기타	20.1	24.0	12.7	21.2	22.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11.2	18.7	15.9	23.9	30.3	100.0 (1,023)
초등학교	12.8	21.5	20.5	25.5	19.7	100.0 (3,134)
중학교	14.6	22.2	18.3	24.6	20.3	100.0 (2,323)
고등학교	16.5	21.6	17.1	24.6	20.3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3.3	16.4	15.4	25.6	19.4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13.6	21.7	18.2	26.1	20.3	100.0 (3,554)
미취업	15.4	20.7	18.2	24.2	21.5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1.3	20.5	23.5	23.9	20.7	100.0 (1,986)
제2오분위	14.9	21.5	15.9	25.6	22.2	100.0 (1,987)
제3오분위	15.1	19.3	16.3	25.7	23.6	100.0 (1,991)
제4오분위	14.9	21.4	17.6	25.2	20.9	100.0 (1,987)
제5오분위	17.4	22.8	17.7	23.9	18.2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7	20.6	19.6	25.1	22.0	100.0 (3,927)
50%이상~100%미만	15.6	20.4	16.5	25.3	22.1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15.8	21.6	17.7	24.2	20.7	100.0 (1,618)
150%이상	18.0	24.3	18.9	23.7	15.2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0	21.5	18.3	24.9	20.3	100.0 (8,832)
제한 있음	12.2	17.7	17.5	24.6	28.0	100.0 (1,098)
2017년도	23.8	26.4	8.4	20.2	21.2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후(여생)동안 정치사회 단체활동 희망 정도는 <표 10-24>와 같이 반드시 하고 싶음 1.5%,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9.0%,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13.6%, 별로 할 생각이 없음 32.6%, 전혀 할 생각이 없음 43.3%로 나타났으며, 정치사회 단체활동을 희망하는 비율(반드시 하고 싶음~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은 24.1%로 다른 활동들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은 24.7%, 읍·면부 노인은 22.2%가 정치사회 단체활동을 희망하였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 26.8%, 여자 노인 22.0%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읍·면부 노인에 비해 동부 노인, 여자 노인에 비해 남자 노인의 정치사회 단체활동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65~69세 28.1%, 85세 이상 15.0%로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정치사회 단체활동 희망률이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25.7%, 무배우 노인의 20.9%가 정치사회 단체활동을 희망하였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부부가구의 정치사회 단체활동 희망 비율이 25.8%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독거가구 23.1%, 자녀동거가구 20.7%, 기타 가구 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무학은 13.6%, 초등학교 졸업은 25.5%, 중학교 졸업은 25.6%, 고등학교 졸업은 25.1%, 전문대학 이상 졸업은 24.0%가 정치사회 단체활동을 희망하였으나 무학을 제외하고는 그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반면, 전혀 할 생각이 없음 비율은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취업상태에 따른 정치사회 단체활동 희망률을 살펴보면, 취업 노인은 28.1%, 미취업 노인은 21.8%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연 가구소득과 중위소득 대비 모두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능상태에 따른 분포에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25.2%,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15.7%가 정치사회 단체활동 참여를 희망하고 있었다.

〈표 10-24〉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정치사회 단체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1.5	9.0	13.6	32.6	43.3	100.0 (9,930)
지역						
동부	1.7	8.7	14.3	32.9	42.4	100.0 (7,518)
읍·면부	0.7	9.9	11.6	31.4	46.4	100.0 (2,413)
성						
남자	1.6	9.0	16.2	34.6	38.5	100.0 (4,281)
여자	1.3	9.0	11.7	31.0	47.0	100.0 (5,649)
연령						
65~69세	2.0	10.2	15.9	32.2	39.7	100.0 (3,337)
70~74세	1.3	9.0	14.4	33.5	41.8	100.0 (2,319)
75~79세	1.3	7.5	13.8	33.4	44.1	100.0 (2,262)
80~84세	0.8	9.3	9.8	31.6	48.5	100.0 (1,426)
85세 이상	1.4	7.0	6.6	30.1	54.9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	9.3	14.8	33.8	40.6	100.0 (6,704)
배우자 없음	1.2	8.5	11.2	30.1	49.1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1.2	9.8	12.1	30.3	46.6	100.0 (1,985)
노인부부	1.5	9.2	15.1	33.7	40.5	100.0 (5,847)
자녀동거	1.7	7.7	11.3	31.9	47.4	100.0 (1,935)
기타	1.3	8.6	5.6	27.9	56.6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0.8	4.0	8.8	27.9	58.5	100.0 (1,023)
초등학교	1.1	11.0	13.4	31.0	43.5	100.0 (3,134)
중학교	1.4	9.2	15.0	31.4	43.0	100.0 (2,323)
고등학교	2.1	8.9	14.1	34.5	40.5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1.8	6.6	15.6	44.2	31.8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2.2	10.7	15.2	34.2	37.6	100.0 (3,554)
미취업	1.0	8.1	12.7	31.6	46.5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	11.7	15.4	29.5	42.0	100.0 (1,986)
제2오분위	1.0	9.8	13.1	30.8	45.3	100.0 (1,987)
제3오분위	1.2	8.5	11.6	33.4	45.4	100.0 (1,991)
제4오분위	1.4	7.5	13.2	34.4	43.5	100.0 (1,987)
제5오분위	2.3	7.5	15.0	34.7	40.6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	10.4	14.2	30.5	43.7	100.0 (3,927)
50%이상~100%미만	1.4	8.2	12.0	32.9	45.5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1.2	7.6	12.3	34.0	44.9	100.0 (1,618)
150%이상	3.0	8.5	19.0	36.8	32.8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	9.5	14.2	32.8	42.0	100.0 (8,832)
제한 있음	1.5	4.9	9.3	30.3	54.0	100.0 (1,098)
2017년도	0.1	0.9	0.6	23.8	74.7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마지막으로 노후(여생)동안 친목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희망 정도는 <표 10-25>와 같이 반드시 하고 싶음 14.8%,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39.5%,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26.8%, 별로 할 생각이 없음 11.7%, 전혀 할 생각이 없음 7.2%로 나타났다. 친목단체활동 희망률(반드시 하고 싶음~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은 81.1%이다.

지역별로는 동부 노인 80.6%, 읍·면부 노인 82.6%가 친목단체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의 83.2%, 여자 노인의 79.6%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65~69세의 87.3%가 친목단체활동을 희망하는 것에 비해 85세 이상은 60.2%만이 희망하고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희망률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은 84.0%, 무배우 노인은 75.2%가 친목단체활동을 희망하고 있으며,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가구 83.9%, 자녀동거가구 77.7%, 노인독거가구 76.5%, 기타가구 76.2% 등의 순으로 희망률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무학은 63.0%, 전문대학 이상은 88.2%가 친목단체활동을 희망하는 것과 같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희망률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취업 노인의 87.6%, 미취업 노인의 77.4%가 친목단체활동을 희망하고 있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연 가구소득 오분위의 경우 친목단체활동 희망률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나, 중위소득 대비에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친목단체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83.3%,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63.9%가 친목단체활동을 희망하고 있었다.

〈표 10-25〉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후(여생)의 친목단체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14.8	39.5	26.8	11.7	7.2	100.0 (9,930)
지역						
동부	15.1	39.8	25.7	12.3	7.1	100.0 (7,518)
읍·면부	13.7	38.8	30.1	10.0	7.3	100.0 (2,413)
성						
남자	17.7	39.4	26.1	10.6	6.3	100.0 (4,281)
여자	12.6	39.7	27.3	12.6	7.8	100.0 (5,649)
연령						
65~69세	20.6	41.8	24.9	8.3	4.4	100.0 (3,337)
70~74세	14.4	42.3	26.4	10.6	6.3	100.0 (2,319)
75~79세	12.1	38.1	28.9	13.0	7.8	100.0 (2,262)
80~84세	10.3	36.3	28.4	15.8	9.2	100.0 (1,426)
85세 이상	4.2	28.6	27.4	21.1	18.8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7	40.7	26.6	10.7	5.3	100.0 (6,704)
배우자 없음	10.9	37.2	27.1	13.8	11.1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10.7	38.5	27.3	12.7	10.8	100.0 (1,985)
노인부부	16.3	40.4	27.2	10.7	5.4	100.0 (5,847)
자녀동거	14.4	38.7	24.6	14.2	8.1	100.0 (1,935)
기타	12.6	32.5	31.1	7.6	16.2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6.5	29.8	26.7	20.2	16.8	100.0 (1,023)
초등학교	11.0	38.9	30.0	13.0	7.0	100.0 (3,134)
중학교	14.3	40.0	27.7	11.6	6.3	100.0 (2,323)
고등학교	18.9	42.8	24.9	8.5	4.8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30.9	42.2	15.1	6.1	5.7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18.6	44.6	24.4	8.1	4.3	100.0 (3,554)
미취업	12.6	36.7	28.1	13.8	8.8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6	38.0	26.7	10.7	8.9	100.0 (1,986)
제2오분위	9.7	38.6	28.2	15.2	8.3	100.0 (1,987)
제3오분위	12.4	39.7	28.9	11.6	7.3	100.0 (1,991)
제4오분위	15.5	40.3	27.1	10.9	6.1	100.0 (1,987)
제5오분위	20.7	40.9	22.9	10.3	5.1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9	37.8	28.3	12.9	8.1	100.0 (3,927)
50%이상~100%미만	13.3	39.5	27.3	12.0	7.9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16.4	42.8	24.3	10.7	5.8	100.0 (1,618)
150%이상	24.0	40.9	23.5	8.2	3.4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8	40.5	27.0	10.9	5.8	100.0 (8,832)
제한 있음	7.0	31.8	25.1	18.3	17.8	100.0 (1,098)
2017년도	9.8	35.4	11.9	25.0	17.7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3절 여가문화시설 이용

1. 경로당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 중 가장 보편적으로 분포되어있어 접근성이 높아 많은 수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경로당 이용 현황과 이용 이유는 <표 10-26>~<표 10-27>과 같다. 전체 노인의 28.1%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3.2회 이용하고 있다. 또한, 45.8%의 노인이 향후(계속)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앞으로 더 많은 수의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노인들은 친목도모(82.9%)와 식사서비스(62.5%) 이용을 위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 21.8%, 읍·면부 노인 47.8%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읍·면부 노인이 동부 노인보다 약 2배 이상 경로당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계속)이용 희망률에서도 유사하다. 동부 노인은 39.6%, 읍·면부 노인은 65.3%가 향후(계속) 이용 희망 의사를 가지고 있어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당 평균 이용 빈도는 동부 노인 3.2회, 읍·면부 노인 3.1회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로당 이용 이유에서도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데 동부 노인은 읍·면부 노인보다 적지만, 친목도모(79.0%)와 식사서비스 이용(60.2%)이 높게 나타났으며,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21.2%), 건강증진프로그램(11.7%), 정서지원프로그램(3.0%), 일자리사업 참여(2.2%)와 같이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경로당 이용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현재 이용률이 32.4%로 남자 노인 22.5%에 비해 높았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 의사도 여자 노인은 49.1%, 남자 노인은 41.6%로 여자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1주일간 평균 이용 횟수도 여자 노인은 3.3회, 남자 노인은 2.9회로 여자 노인이 더 높았다. 경로당 이용 이유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이용률과 향후(계속)이용 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1주간 평균 이용 횟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경로당 평균 이용 일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주일에 평균 3.8일을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 이유는 연령별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식사서비스 이용을 위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무배우 노인의 현재 이용률은 37.6%로 유배

우 노인 23.5%보다 높으며, 향후(계속)이용 희망률 역시 무배우 노인이 52.4%로 유배우 노인 42.7%에 비해 높았다. 또한, 1주간 평균 이용 횟수 역시 무배우 노인은 3.5회, 유배우 노인은 2.9회로 무배우 노인이 경로당을 더 자주·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배우 노인은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12.5%),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20.1%)의 비율이 무배우 노인에 비해 높은 반면, 무배우 노인은 식사서비스 이용(66.0%)이 유배우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독거가구의 현재 이용률(39.0%),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53.6%), 1주간 평균 이용 횟수(3.5회) 모두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독거가구는 식사서비스 이용을 위한 경로당 이용의 비율이 69.3%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다.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경로당 이용률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1주간 평균 이용 횟수 모두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친목도모를 위한 경로당 이용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특성을 보이는 반면,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과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특성을 보인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의 현재 이용률(30.7%),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47.1%), 1주간 평균 이용 횟수(3.3회) 모두 취업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취업 노인은 취업 노인에 비해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취업 15.1%, 미취업 20.6%)을 위한 경로당 이용 비율이 높으며, 취업 노인은 친목도모를 위한 이용(취업 87.3%, 미취업 81.0%)이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연 가구소득 오분위와 중위소득 대비 모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경로당 이용률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1주간 평균 이용 횟수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는 친목도모를 위한 경로당 이용이 낮은 분포를 보이며, 취미여가프로그램과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은 높은 분포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이용률이 35.8%, 이용 희망률이 55.2%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높은 특성을 보이지만, 1주간 평균 이용 횟수 3.2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경로당 이용 이유에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해 친목도모를 위한 이용비율이 높으며,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식사서비스 이용과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경로당 이용 비율이 높다.

〈표 10-26〉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이용실태

(단위: %, 회, 명)

특성	이용 현황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²⁾
	현재 이용률 ¹⁾	현재 평균 이용 빈도 ³⁾	(명)	
전체	28.1	3.2	(2,841)	45.8
지역				
동부	21.8	3.2	(1,672)	39.6
읍·면부	47.8	3.1	(1,169)	65.3
성				
남자	22.5	2.9	(979)	41.6
여자	32.4	3.3	(1,862)	49.1
연령				
65~69세	11.2	2.6	(375)	31.2
70~74세	27.7	2.9	(650)	45.3
75~79세	37.9	3.2	(870)	54.5
80~84세	43.6	3.5	(643)	60.4
85세 이상	47.0	3.8	(303)	62.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3.5	2.9	(1,595)	42.7
배우자 없음	37.6	3.5	(1,246)	52.4
가구형태				
노인독거	39.0	3.5	(778)	53.6
노인부부	24.9	2.9	(1,471)	44.3
자녀동거	27.3	3.4	(553)	42.4
기타	22.2	3.0	(39)	47.5
교육수준				
무학	47.8	3.4	(513)	65.0
초등학교	39.0	3.4	(1,248)	57.5
중학교	24.5	2.9	(578)	41.2
고등학교	14.8	2.7	(424)	31.9
전문대학 이상	13.0	2.6	(78)	36.1
현직업상태				
취업중	23.5	2.9	(837)	43.6
미취업	30.7	3.3	(2,004)	47.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9.5	3.3	(797)	55.4
제2오분위	35.3	3.2	(713)	52.9
제3오분위	27.3	3.1	(550)	46.9
제4오분위	18.9	2.9	(383)	36.8
제5오분위	19.8	3.3	(399)	37.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6.5	3.2	(1,461)	54.0
50%이상~100%미만	25.4	3.2	(860)	43.2
100%이상~150%미만	20.3	3.1	(335)	38.4
150%이상	17.3	3.1	(185)	35.2
기능상태				
제한 없음	27.1	3.2	(2,399)	44.7
제한 있음	35.8	3.2	(442)	55.2
2017년도 ⁴⁾	23.0	-		36.8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3)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2,841명을 대상으로 함.

4) 2017년도에는 이용만족도, 2020년도에는 이용 빈도에 대해 질문하였으므로 비교가 불가능함.

〈표 10-27〉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로당 이용이유: 1~2순위 중복 응답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식사 서비스 이용	돌봄 서비스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참여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기타	계(명)
전체 ¹⁾²⁾	0.2	19.0	11.0	62.5	-	2.3	1.6	1.3	82.9	-	(2,841)
지역											
동부	0.3	21.2	11.7	60.2	-	3.0	2.2	1.0	79.0	-	(1,672)
읍·면부	0.0	15.8	10.1	65.8	-	1.2	0.7	1.8	88.5	-	(1,169)
성											
남자	0.0	19.1	10.8	61.0	-	2.4	1.3	1.3	83.9	-	(979)
여자	0.3	19.0	11.2	63.3	-	2.2	1.7	1.4	82.3	-	(1,862)
연령											
65~69세	0.2	19.9	12.4	58.2	-	1.5	1.5	2.5	84.0	-	(375)
70~74세	0.0	17.2	10.6	58.5	-	3.4	1.0	0.6	83.4	-	(650)
75~79세	0.4	22.0	11.8	63.3	-	1.3	2.5	2.0	80.4	-	(870)
80~84세	0.0	17.8	10.5	66.2	-	2.8	1.6	0.6	84.0	-	(643)
85세 이상	0.1	15.9	9.4	66.1	-	2.4	0.2	1.0	85.2	-	(30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3	20.1	12.5	59.7	-	2.0	1.0	1.6	83.0	-	(1,595)
배우자 없음	0.0	17.6	9.2	66.0	-	2.6	2.3	1.0	82.8	-	(1,246)
가구형태											
노인독거	0.0	15.9	9.0	69.3	-	2.1	1.7	1.1	83.9	-	(778)
노인부부	0.1	19.7	12.8	60.3	-	2.2	1.1	1.7	82.3	-	(1,471)
자녀동거	0.6	21.5	10.0	59.0	-	2.7	2.1	0.8	83.6	-	(553)
기타	0.0	20.4	1.8	60.9	-	2.7	8.9	0.0	72.6	-	(39)
교육수준											
무학	0.1	13.4	10.7	64.4	-	1.1	1.4	0.3	88.6	-	(513)
초등학교	0.0	19.5	9.6	65.1	-	2.4	2.1	1.9	84.5	-	(1,248)
중학교	0.6	20.5	11.9	57.2	-	3.2	1.5	0.8	81.3	-	(578)
고등학교	0.2	20.3	13.7	60.3	-	2.0	0.8	1.1	76.8	-	(424)
전문대학 이상	0.0	30.4	16.0	59.6	-	2.7	0.0	5.1	64.6	-	(78)
현취업상태											
취업중	0.0	15.1	11.8	61.5	-	1.5	2.5	1.6	87.3	-	(837)
미취업	0.2	20.6	10.7	62.9	-	2.6	1.2	1.2	81.0	-	(2,00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5	15.0	8.0	68.8	-	1.3	1.0	1.6	85.0	-	(797)
제2오분위	0.0	17.0	12.9	62.7	-	2.7	1.8	0.9	85.4	-	(713)
제3오분위	0.0	19.7	10.5	59.3	-	1.7	1.4	1.2	86.3	-	(550)
제4오분위	0.2	21.9	13.2	52.8	-	4.9	2.8	1.4	79.5	-	(383)
제5오분위	0.0	26.9	12.4	63.2	-	1.5	1.3	1.9	72.6	-	(39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3	16.2	10.2	65.9	-	1.7	1.3	1.4	85.2	-	(1,461)
50%이상											
100%미만	0.1	20.9	11.7	55.2	-	3.0	2.2	1.0	84.8	-	(860)
100%이상	0.0	25.1	13.0	59.7	-	4.0	1.8	1.8	72.9	-	(335)
150%미만											
150%이상	0.0	21.0	10.7	74.6	-	0.0	0.3	1.9	73.7	-	(185)
기능상태											
제한 없음	0.2	18.3	11.0	60.6	-	2.5	1.7	1.6	84.3	-	(2,399)
제한 있음	0.0	22.7	11.1	72.9	-	1.0	0.8	0.1	75.3	-	(442)
2017년도	0.6	8.3	9.0	57.2	0.1	0.3	0.6	1.5	91.4	0.5	(2,319)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2,841명을 대상으로 함.

2) 1,2순위 중복응답으로 분석하여 전체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2.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용 현황과 이용 이유는 <표 10-28>~<표 10-29>와 같다. 전체 노인의 9.5%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2.0회 이용하고 있다. 또한, 37.8%의 노인이 향후(계속)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앞으로 더 많은 수의 노인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친목도모(45.7%)와 식사서비스(45.9%),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35.1%),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23.4%) 등으로 경로당에 비해 더 다양한 이유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 10.4%, 읍·면부 노인 6.8%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경로당과 달리 동부 노인의 노인복지관 이용률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향후(계속)이용 희망률에서도 유사하다. 그러나 주당 평균 이용 빈도는 동부 노인 2.0회, 읍·면부 노인 2.2회로 읍·면부 노인이 조금 높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에서도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데 동부 노인은 친목도모(동부 41.6%, 읍·면부 65.5%)와 식사서비스(동부 43.2%, 읍·면부 59.1%) 이용은 읍·면부 노인보다 적지만,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동부 38.7%, 읍·면부 18.0%), 건강증진프로그램(동부 25.8%, 읍·면부 11.8%)은 읍·면부 노인에 비해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현재 이용률이 10.3%로 남자 노인 8.5%에 비해 높았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 의사도 여자 노인은 38.6%, 남자 노인은 36.8%로 여자인 것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1주일간 평균 이용 횟수는 여자 노인 2.0회, 남자 노인 2.1회로 남자 노인이 더 높았다.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는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현재 이용률은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75~79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주간 평균 이용 횟수 역시 75~84세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는 연령별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연령이 낮은 집단(65~74세)에서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무배우 노인의 현재 이용률은 11.7%로 유배우 노인 8.5%보다 높다. 향후(계속) 이용희망률은 무배우 노인이 38.9%로 유배우 노인 37.3%에 비해 높았지만 차이가 크지 않다. 또한, 1주간 평균 이용 횟수는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배우 노인은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24.2%), 취미여가프로

그램 이용(37.3%), 친목도모(47.2%)의 비율이 무배우 노인에 비해 높은 반면, 무배우 노인은 식사서비스 이용(50.5%)이 유배우 노인(42.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기타가구의 현재 이용률(13.9%),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43.6%), 1주간 평균 이용 횟수(2.3회)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인독거가구가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독거가구와 기타가구는 식사서비스 이용의 비율이 높은 반면,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는 취미여가프로그램이용, 건강증진프로그램이용의 비율이 타 집단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인다.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중학교 졸업의 노인복지관 이용률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1주간 평균 이용 횟수는 무학이 2.3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친목도모를 위한 노인복지관 이용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특성을 보이는 반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특성을 보인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의 현재 이용률(10.7%),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38.1%), 1주간 평균 이용 횟수(2.1회) 모두 취업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미취업 노인은 취업 노인에 비해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취업 25.3%, 미취업 38.8%),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취업 10.3%, 미취업 28.2%)을 위한 이용 비율이 높으며, 취업 노인은 친목도모(취업 61.5%, 미취업 39.8%)와 일자리 사업 참여(취업 20.4%, 미취업 4.9%)가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연가구소득 오분위와 중위소득 대비 모두 이용률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모두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주간 평균 이용 횟수는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는 소득구분 기준에 따라 상이한 경향을 보이는데, 연가구소득 오분위를 기준으로 할 시 소득이 높을수록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의 비율이 높으며, 식사서비스 이용 비율은 낮다. 반면, 중위소득 대비에 따라서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이용률 14.7%, 이용 희망률 40.5%, 1주간 평균 이용 빈도 2.2일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높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해 일자리사업 참여, 정서지원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비율이 높으며,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식사서비스 이용과 친목도모의 비율이 높다.

〈표 10-28〉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이용실태

(단위: %, 회, 명)

특성	이용 현황		(명)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²⁾
	현재 이용률 ¹⁾	현재 평균 이용 빈도 ³⁾		
전체	9.5	2.0	(963)	37.8
지역				
동부	10.4	2.0	(797)	38.4
읍·면부	6.8	2.2	(165)	36.2
성				
남자	8.5	2.1	(369)	36.8
여자	10.3	2.0	(594)	38.6
연령				
65~69세	4.4	1.9	(146)	32.1
70~74세	10.3	1.8	(241)	39.5
75~79세	12.5	2.2	(285)	43.9
80~84세	13.9	2.2	(205)	41.0
85세 이상	13.2	2.1	(85)	32.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5	2.0	(574)	37.3
배우자 없음	11.7	2.1	(388)	38.9
가구형태				
노인독거	11.9	2.2	(237)	38.8
노인부부	8.8	2.0	(517)	37.9
자녀동거	9.1	1.9	(184)	36.2
기타	13.9	2.3	(24)	43.6
교육수준				
무학	8.6	2.3	(93)	35.4
초등학교	11.3	2.0	(361)	39.4
중학교	10.9	2.1	(256)	40.4
고등학교	7.1	2.0	(205)	35.2
전문대학 이상	7.9	1.9	(48)	36.8
현취업상태				
취업중	7.3	2.0	(261)	37.4
미취업	10.7	2.1	(701)	38.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0	2.4	(183)	37.4
제2오분위	11.7	2.1	(237)	38.8
제3오분위	9.8	2.0	(198)	38.5
제4오분위	9.1	1.9	(184)	39.3
제5오분위	8.0	1.8	(161)	35.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5	2.2	(378)	37.6
50%이상~100%미만	10.6	2.1	(359)	39.2
100%이상~150%미만	8.2	1.8	(135)	37.1
150%이상	8.5	1.7	(90)	3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8.8	2.0	(782)	37.5
제한 있음	14.7	2.2	(181)	40.5
2017년도 ⁴⁾	9.3	-		27.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3) 본인응답자 9,930명 중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963명을 대상으로 함.

4) 2017년도에는 이용만족도, 2020년도에는 이용 빈도에 대해 질문하였으므로 비교가 불가능함.

〈표 10-29〉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 1~2순위 중복 응답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식사 서비스 이용	돌봄 서비스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참여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기타	계(명)
전체 ¹⁾²⁾	3.7	35.1	23.4	45.9	-	7.0	9.1	1.9	45.7	0.1	(963)
지역											
동부	4.0	38.7	25.8	43.2	-	5.8	9.0	1.9	41.6	0.0	(797)
읍·면부	2.2	18.0	11.8	59.1	-	12.8	9.7	2.0	65.5	0.4	(165)
성											
남자	4.2	34.4	22.2	48.9	-	7.0	8.1	0.5	49.5	0.0	(369)
여자	3.4	35.6	24.1	44.1	-	7.0	9.7	2.7	43.3	0.1	(594)
연령											
65~69세	3.8	41.6	18.5	41.3	-	7.0	11.8	6.3	44.4	0.0	(146)
70~74세	4.5	40.9	25.8	39.7	-	6.7	8.9	0.4	40.1	0.0	(241)
75~79세	3.8	37.1	25.0	47.5	-	6.0	6.8	2.7	45.8	0.0	(285)
80~84세	4.0	27.6	25.3	54.8	-	8.7	6.4	0.0	47.5	0.3	(205)
85세 이상	0.0	18.9	15.1	44.8	-	6.7	19.2	0.3	59.2	0.0	(8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4	37.3	24.2	42.8	-	7.8	8.0	2.7	47.2	0.0	(574)
배우자 없음	4.1	32.0	22.1	50.5	-	5.8	10.7	0.7	43.5	0.2	(388)
가구형태											
노인독거	3.8	30.4	17.3	53.5	-	7.5	7.2	0.8	47.9	0.3	(237)
노인부부	3.6	36.5	22.8	44.0	-	8.1	8.5	2.0	47.8	0.0	(517)
자녀동거	4.3	37.5	29.7	39.8	-	4.0	14.4	3.1	38.3	0.0	(184)
기타	0.0	35.1	48.4	58.7	-	0.0	0.0	0.0	34.9	0.0	(24)
교육수준											
무학	0.0	16.3	24.0	48.8	-	2.2	12.4	0.0	58.0	0.0	(93)
초등학교	1.9	32.4	23.2	51.0	-	7.3	9.1	2.0	50.7	0.2	(361)
중학교	4.6	35.2	25.4	40.9	-	9.3	9.7	1.9	44.1	0.0	(256)
고등학교	6.5	46.8	20.9	45.3	-	5.0	6.6	2.1	37.0	0.0	(205)
전문대학 이상	7.0	42.1	23.2	31.5	-	10.0	10.3	3.4	29.7	0.0	(48)
현취업상태											
취업중	1.8	25.3	10.3	46.1	-	8.7	20.4	3.5	61.5	0.0	(261)
미취업	4.4	38.8	28.2	45.9	-	6.3	4.9	1.3	39.8	0.1	(70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8	25.8	18.8	53.5	-	8.1	7.3	2.0	53.0	0.4	(183)
제2오분위	1.7	25.9	22.4	49.1	-	6.1	9.6	1.0	45.8	0.0	(237)
제3오분위	6.4	39.3	17.7	42.2	-	9.6	8.2	0.9	51.7	0.0	(198)
제4오분위	8.4	43.8	30.6	42.2	-	5.2	10.3	0.9	38.9	0.0	(184)
제5오분위	1.2	44.3	28.8	41.4	-	5.7	10.1	5.3	37.6	0.0	(16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4	23.7	21.7	50.0	-	7.7	9.5	1.4	49.2	0.2	(378)
50%이상											
100%미만	4.8	41.4	20.2	45.1	-	6.1	9.9	1.0	47.6	0.0	(359)
100%이상	8.6	47.9	32.2	36.0	-	9.0	5.5	3.3	34.9	0.0	(135)
150%미만											
150%이상	1.1	39.4	29.9	47.2	-	4.1	9.5	5.4	39.6	0.0	(90)
기능상태											
제한 없음	4.5	35.2	25.0	42.0	-	7.9	9.9	2.3	44.0	0.0	(782)
제한 있음	0.0	34.9	16.5	62.9	-	3.0	5.6	0.1	53.0	0.4	(181)
2017년도	13.5	49.6	26.4	27.5	0.2	1.8	4.1	4.3	42.3	0.5	(933)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963명을 대상으로 함.

2) 1,2순위 중복응답으로 분석하여 전체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3.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의 이용 현황과 이용 이유는 <표 10-30>~<표 10-31>과 같다. 전체 노인의 6.0%가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1.7회 이용하고 있다. 또한, 30.6%의 노인이 향후(계속)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친목도모(38.5%)와 식사서비스(38.1%),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38.4%),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23.2%) 등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보다 더 다양한 이유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의 6.3%, 읍·면부 노인의 4.8%가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동부 노인 33.0%, 읍·면부 노인 23.3%로 두 가지 다 동부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두 지역 모두 1.7회로 동일하다.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이용 이유에서도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데 읍·면부 노인은 친목도모(49.2%)와 식사서비스(43.5%) 이용이 동부 노인보다 높으며, 동부 노인은 취미여가프로그램(40.1%), 평생교육프로그램(3.7%) 등이 읍·면부 노인에 비해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현재 이용률이 6.8%로 남자 노인 4.9%에 비해 높았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 의사도 여자 노인 31.7%, 남자 노인 29.2%로 여자 노인이 높았다. 그러나 1주일간 평균 이용 횟수는 여자 노인 1.6회, 남자 노인 1.9회로 남자 노인이 더 높았다.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의 이용 이유는 남자 노인은 식사서비스 이용과 친목도모, 여자 노인은 취미여가프로그램이용, 친목도모가 높았다.

연령에 따른 현재 이용률은 75~79세가 7.1%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았다. 1주간 평균 이용 횟수는 80~84세가 1.9회로 높게 나타났다.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의 이용에서 취미여가프로그램과 건강증진프로그램, 일자리사업 참여의 이용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무배우 노인의 현재 이용률은 6.9%로 유배우 노인 5.5%보다 높다. 반면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무배우 노인이 28.8%로 유배우 노인 31.5%에 비해 낮다. 1주간 평균 이용 횟수는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배우 노인은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25.5%),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46.1%)의 비

율이 무배우 노인에 비해 높은 반면, 무배우 노인은 식사서비스 이용(48.4%)과 친목도모(42.5%)가 유배우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기타가구의 현재 이용률(8.0%),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32.1%)이 가장 높았으며, 1주간 평균 이용 횟수는 노인독거가구가 1.9회로 가장 높았다. 또한, 노인독거가구는 식사서비스 이용을 위한 시설 이용이 50.5%로 가장 높은 반면, 노인부부가구는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이 46.3%로, 자녀동거가구는 친목도모 43.2%로 타 가구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기타가구는 타 가구형태에 비해 정서지원프로그램 이용의 비율이 25.4%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중학교 졸업의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이용률은 7.1%로 타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이용률에 있어 연령별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1주간 평균 이용 횟수는 무학이 1.9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특성을 보이는 반면, 식사서비스이용은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특성을 보인다. 특히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에서 16.7%로 높았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의 현재 이용률(6.7%)과 1주간 평균 이용 횟수(1.8회)는 취업 노인보다 높았으나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취업 노인(32.3%)이 더 높았다. 미취업 노인은 취업 노인에 비해 식사서비스,의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노인은 친목도모, 일자리 사업 참여,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연가구소득 오분위와 중위소득 대비 모두 이용률과 1주간 평균 이용 횟수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중위소득 대비 기준에서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이용 이유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소득이 높은 집단의 취미여가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 비율은 일부에서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이용률이 10.4%, 1주간 평균 이용횟수 1.9회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높으나 이용 희망률은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이 30.9%로 더 높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 일자리사업 참여, 정서지원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높으며,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식사서비스 이용과 친목도모의 비율이 높다.

〈표 10-30〉 노인의 일반특성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이용실태

(단위: %, 회, 명)

특성	이용 현황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²⁾
	현재 이용률 ¹⁾	현재 평균 이용 빈도 ³⁾	(명)	
전체	6.0	1.7	(602)	30.6
지역				
동부	6.3	1.7	(484)	33.0
읍·면부	4.8	1.7	(118)	23.3
성				
남자	4.9	1.9	(211)	29.2
여자	6.8	1.6	(391)	31.7
연령				
65~69세	4.5	1.7	(152)	34.6
70~74세	6.8	1.7	(159)	31.7
75~79세	7.1	1.7	(162)	30.6
80~84세	6.1	1.9	(90)	25.1
85세 이상	6.0	1.5	(39)	17.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5	1.7	(373)	31.5
배우자 없음	6.9	1.8	(229)	28.8
가구형태				
노인독거	7.2	1.9	(143)	28.2
노인부부	5.4	1.7	(317)	31.3
자녀동거	6.3	1.7	(128)	31.0
기타	8.0	1.4	(14)	32.1
교육수준				
무학	3.6	1.9	(39)	22.3
초등학교	6.1	1.8	(196)	25.4
중학교	7.1	1.6	(168)	33.2
고등학교	5.5	1.8	(159)	35.4
전문대학 이상	6.8	1.5	(41)	39.6
현취업상태				
취업중	4.7	1.6	(167)	32.3
미취업	6.7	1.8	(435)	29.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6	1.6	(113)	24.4
제2오분위	6.3	1.8	(126)	27.5
제3오분위	6.4	1.8	(129)	32.5
제4오분위	6.2	1.7	(125)	35.3
제5오분위	5.4	1.7	(108)	33.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7	1.8	(228)	25.5
50%이상~100%미만	6.2	1.6	(209)	32.9
100%이상~150%미만	6.3	1.8	(104)	34.6
150%이상	5.7	1.8	(61)	36.3
기능상태				
제한 없음	5.3	1.7	(474)	30.9
제한 있음	10.4	1.9	(128)	28.5
2017년도 ²⁾	9.3	-		27.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3)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602명을 대상으로 함.

〈표 10-31〉 노인의 일반특성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이용 이유: 1~2순위 중복 응답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식사 서비스 이용	돌봄 서비스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참여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기타	계(명)
전체 ¹⁾²⁾	3.2	38.4	23.2	38.1	-	12.1	8.7	3.4	38.5	-	(602)
지역											
동부	3.7	40.1	22.6	36.7	-	12.0	9.0	3.1	35.9	-	(484)
읍·면부	1.2	31.4	25.4	43.5	-	12.4	7.9	4.5	49.2	-	(118)
성											
남자	4.2	35.8	23.9	43.5	-	10.3	8.7	2.5	41.8	-	(211)
여자	2.7	39.8	22.8	35.1	-	13.0	8.8	3.8	36.7	-	(391)
연령											
65~69세	4.6	49.8	31.3	22.2	-	7.8	13.1	5.6	35.9	-	(152)
70~74세	1.1	45.0	25.3	38.5	-	11.4	6.9	3.9	34.1	-	(159)
75~79세	6.6	30.4	18.6	41.1	-	17.8	9.3	3.1	32.0	-	(162)
80~84세	0.0	32.4	17.2	47.7	-	11.5	5.7	0.8	56.9	-	(90)
85세 이상	0.0	13.9	15.7	63.4	-	8.6	4.2	0.0	51.5	-	(3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3	46.1	25.5	31.7	-	12.8	8.5	4.3	36.1	-	(373)
배우자 없음	1.4	25.8	19.4	48.4	-	10.8	9.1	1.9	42.5	-	(229)
가구형태											
노인독거	1.0	24.7	16.6	50.5	-	13.8	11.7	1.7	40.7	-	(143)
노인부부	3.0	46.3	28.0	35.5	-	12.1	8.9	4.6	36.0	-	(317)
자녀동거	6.8	36.3	21.0	30.8	-	8.6	5.2	1.3	43.2	-	(128)
기타	0.0	19.1	0.0	35.7	-	25.4	7.2	12.6	31.4	-	(14)
교육수준											
무학	0.0	8.2	5.9	70.9	-	8.3	9.6	1.2	24.5	-	(39)
초등학교	0.5	38.6	22.0	47.6	-	11.1	5.1	1.1	50.0	-	(196)
중학교	4.8	33.7	26.8	34.4	-	14.0	12.0	1.7	44.7	-	(168)
고등학교	4.7	46.1	25.3	26.3	-	12.0	10.4	5.0	27.7	-	(159)
전문대학 이상	7.3	55.3	21.5	22.1	-	12.8	5.5	16.7	13.2	-	(41)
현취업상태											
취업중	2.9	41.8	21.2	27.8	-	12.8	17.8	4.2	51.9	-	(167)
미취업	3.3	37.1	23.9	42.0	-	11.8	5.3	3.1	33.4	-	(43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0	19.5	15.7	37.6	-	12.4	10.1	1.1	36.8	-	(113)
제2오분위	1.2	31.4	21.0	49.0	-	10.8	7.9	1.9	44.6	-	(126)
제3오분위	0.0	47.0	22.4	39.7	-	13.8	9.1	1.3	41.6	-	(129)
제4오분위	1.6	47.2	26.9	28.0	-	16.6	11.6	5.2	38.0	-	(125)
제5오분위	6.3	45.9	30.1	35.4	-	6.0	4.5	7.9	30.1	-	(10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6	28.0	16.9	43.3	-	10.9	8.0	1.4	41.1	-	(228)
50%이상											
100%미만	1.1	46.3	24.7	33.2	-	17.4	9.8	3.0	40.1	-	(209)
100%이상	3.2	37.7	35.4	42.9	-	4.8	12.2	3.1	29.2	-	(104)
150%미만											
150%이상	5.3	51.3	20.6	27.2	-	10.5	2.4	12.4	39.0	-	(61)
기능상태											
제한 없음	3.8	40.3	26.0	32.1	-	12.9	10.3	3.8	38.1	-	(474)
제한 있음	1.2	31.3	12.6	60.2	-	8.9	3.1	1.9	40.1	-	(128)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602명을 대상으로 함.

2) 1,2순위 중복응답으로 분석하여 전체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4. 노인교실

노인교실 이용 현황과 이용 이유는 <표 10-32>~<표 10-33>과 같다. 전체 노인의 1.8%가 노인교실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1.2회 이용하고 있다. 또한, 24.3%의 노인이 향후(계속)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교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친목도모(55.0%),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38.3%),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27.4%) 등 순으로 높았으며, 앞서 분석된 경로당,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보다 프로그램 이용의 목적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 1.8%, 읍·면부 노인 1.6%가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계속)이용 희망률은 동부 노인 25.9%, 읍·면부 노인 19.2%로 두 가지 다 동부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주당 평균 이용 횟수는 동부 노인 1.2회, 읍·면부 노인 1.3회로 큰 차이가 없었다. 노인교실 이용 이유는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데 동부 노인은 친목도모(58.0%)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36.2%),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27.0%)의 순인 반면, 읍·면부 노인은 취미여가프로그램(45.7%), 친목도모(44.3%), 건강증진프로그램(28.9%), 식사서비스 이용(27.8%) 등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현재 이용률이 2.0%로 남자 노인 1.5%에 비해 높았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 의사도 여자 노인 25.2%, 남자 노인 23.0%로 여자 노인이 높았다. 그러나 1주일간 평균 이용횟수는 여자 노인 1.3회, 남자 노인 1.2회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노인교실의 이용 이유는 남자 노인은 친목도모, 식사서비스, 일자리사업 참여의 비율이 여자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여자 노인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의 비율이 남자 노인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현재 이용률은 75~79세가 2.6%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1주당 이용 횟수는 85세 이상이 1.7회로 높았다. 노인교실 이용 이유로는 일자리사업 참여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그 외 항목들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무배우 노인의 현재 이용률은 2.0%로 유배우 노인 1.7%보다 높다. 반면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무배우 노인이 22.3%로 유배우 노인 25.2%에 비해 낮다. 1주간 평균 이용횟수는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유배우 노인은 건강증진프로그램(29.0%), 취미여가프로그램(39.0%), 정서지원프로그램(17.4%), 평생교육프로그램(11.3%)의 비율이 무배우 노인에 비해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독거가구의 현재 이용률이 2.2%로 가장 높았으며, 1주간 평균 이용횟수도 1.4회로 가장 높았다. 반면,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노인부부가구가 25.6%로 가장 높았다. 노인교실 이용 이유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노인부부가구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의 비율이 12.4%로 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는 중학교 졸업의 노인교실 이용률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에서 각각 2.7%와 27.8%로 타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이용률에 있어 연령별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1주간 평균 이용횟수는 무학이 1.8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인교실 이용 이유로 식사서비스 이용은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의 현재 이용률(1.9%)과 1주간 평균 이용 횟수(1.3회),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24.4%)은 취업 노인보다 높았다. 미취업 노인은 취업 노인에 비해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노인교실 이용이 많았으며, 취업노인은 친목도모, 일자리 사업 참여, 식사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연가구소득 오분위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이용률이 높았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두 가지 소득 기준 모두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1주간 평균 이용횟수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노인교실 이용 이유는 중위소득 대비 기준에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는데 친목도모는 소득이 높을수록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은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기능상태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노인교실 이용률은 1.8%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보다 높고,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도 25.0%로 높았으나, 1주간 평균 이용횟수는 1.2회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적었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정서지원프로그램 이용,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과 일자리사업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0-32〉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교실 이용실태

(단위: %, 회, 명)

특성	이용 현황		(명)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²⁾
	현재 이용률 ¹⁾	현재 평균 이용 빈도 ³⁾		
전체	1.8	1.2	(181)	24.3
지역				
동부	1.8	1.2	(141)	25.9
읍·면부	1.6	1.3	(40)	19.2
성				
남자	1.5	1.2	(65)	23.0
여자	2.0	1.3	(116)	25.2
연령				
65~69세	1.1	1.1	(35)	24.8
70~74세	2.1	1.2	(50)	26.9
75~79세	2.6	1.3	(60)	24.8
80~84세	1.7	1.1	(25)	22.0
85세 이상	1.9	1.7	(12)	13.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7	1.2	(115)	25.2
배우자 없음	2.0	1.3	(66)	22.3
가구형태				
노인독거	2.2	1.4	(44)	22.0
노인부부	1.8	1.2	(106)	25.6
자녀동거	1.5	1.2	(31)	22.8
기타	1.0	0.0	(2) ⁴⁾	22.6
교육수준				
무학	1.0	1.8	(10)	18.2
초등학교	2.2	1.2	(71)	21.7
중학교	2.7	1.2	(64)	27.8
고등학교	1.2	1.3	(34)	25.6
전문대학 이상	0.4	1.0	(2) ⁴⁾	27.5
현취업상태				
취업중	1.6	1.1	(58)	24.0
미취업	1.9	1.3	(123)	24.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0	1.5	(40)	19.4
제2오분위	2.0	1.1	(40)	20.7
제3오분위	1.7	1.2	(34)	24.8
제4오분위	1.7	1.2	(34)	28.5
제5오분위	1.6	1.2	(33)	2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9	1.3	(75)	19.4
50%이상~100%미만	1.8	1.3	(62)	25.7
100%이상~150%미만	1.4	1.1	(23)	29.5
150%이상	2.0	1.1	(21)	29.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8	1.2	(162)	25.0
제한 있음	1.5	1.5	(19)	18.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3) 노인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181명을 대상으로 함.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0-33〉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교실 이용 이유: 1~2순위 중복 응답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식사 서비스 이용	돌봄 서비스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참여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기타	계(명)
전체 ¹⁾²⁾	9.5	38.3	27.4	14.8	-	15.9	12.6	0.2	55.0	-	(181)
지역											
동부	7.7	36.2	27.0	11.1	-	17.1	15.4	0.0	58.0	-	(141)
읍·면부	15.9	45.7	28.9	27.8	-	11.8	2.7	1.0	44.3	-	(40)
성											
남자	4.8	38.6	26.7	17.6	-	15.2	18.1	0.6	62.0	-	(65)
여자	12.2	38.2	27.8	13.2	-	16.3	9.4	0.0	51.0	-	(116)
연령											
65~69세	4.4	52.6	28.3	13.0	-	14.9	7.8	0.0	49.8	-	(35)
70~74세	6.6	35.9	29.2	17.6	-	19.9	14.3	0.0	53.6	-	(50)
75~79세	18.4	35.7	33.3	8.5	-	14.3	12.2	0.7	50.7	-	(60)
80~84세	5.8	28.5	14.4	28.2	-	10.2	15.2	0.0	67.1	-	(25)
85세 이상	0.0	39.7	14.6	12.5	-	22.0	15.5	0.0	71.6	-	(1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1.3	39.0	29.0	14.2	-	17.4	13.6	0.0	55.2	-	(115)
배우자 없음	6.4	37.2	24.6	15.9	-	13.3	10.7	0.6	54.6	-	(66)
가구형태											
노인독거	8.3	31.1	16.6	19.6	-	20.2	10.5	1.0	60.2	-	(44)
노인부부	12.4	35.5	28.3	14.6	-	18.4	14.9	0.0	57.4	-	(106)
자녀동거	2.1	55.0	41.1	9.4	-	2.1	8.3	0.0	42.2	-	(31)
기타	0.0	100.0	0.0	0.0	-	0.0	0.0	0.0	0.0	-	(2) ³⁾
교육수준											
무학	0.0	0.0	66.1	15.9	-	16.4	3.8	0.0	31.1	-	(10)
초등학교	10.4	40.9	22.2	14.7	-	16.1	15.2	0.0	53.8	-	(71)
중학교	7.4	34.6	22.2	18.6	-	8.2	17.3	0.7	71.3	-	(64)
고등학교	13.3	49.6	35.9	8.4	-	30.5	1.9	0.0	37.0	-	(34)
전문대학 이상	30.6	71.4	28.6	0.0	-	0.0	0.0	0.0	12.2	-	(2) ³⁾
현취업상태											
취업중	5.7	18.9	22.3	19.0	-	14.0	29.6	0.7	74.1	-	(58)
미취업	11.4	47.6	29.8	12.8	-	16.8	4.5	0.0	45.8	-	(12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5	27.0	21.5	13.9	-	21.6	20.1	0.0	52.1	-	(40)
제2오분위	3.5	27.7	18.4	26.8	-	14.2	24.7	0.0	74.2	-	(40)
제3오분위	24.0	46.6	21.5	14.4	-	15.3	8.3	0.0	44.6	-	(34)
제4오분위	14.3	32.9	17.0	12.8	-	27.2	3.1	1.2	57.6	-	(34)
제5오분위	2.0	62.5	62.8	3.5	-	0.0	2.6	0.0	42.8	-	(3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9.3	31.2	22.7	15.7	-	16.1	22.4	0.0	57.4	-	(75)
50%이상	15.6	38.6	11.4	20.9	-	26.3	7.1	0.0	56.1	-	(62)
100%미만											
100%이상	0.0	39.7	47.9	8.9	-	1.8	3.1	1.8	50.0	-	(23)
150%미만											
150%이상	3.0	61.2	68.9	0.0	-	0.0	3.9	0.0	48.5	-	(21)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7	40.7	26.1	15.0	-	16.5	11.0	0.3	55.2	-	(162)
제한 있음	0.0	17.8	38.9	12.7	-	11.2	26.0	0.0	53.3	-	(19)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노인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181명을 대상으로 함.

2) 1,2순위 중복응답으로 분석하여 전체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5. 공공 여가문화시설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 현황과 이용 이유는 <표 10-34>~<표 10-35>와 같다. 전체 노인의 4.7%가 공공 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1.6회 이용하고 있다. 또한, 31.2%의 노인이 향후(계속)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52.6%),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35.8%), 친목도모(30.9%)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 5.2%, 읍·면부 노인 3.2%가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계속)이용 희망률은 동부 노인 34.8%, 읍·면부 노인 19.4%로 두 가지 다 동부 노인이 높게 나타났다. 주당 평균 이용횟수는 동부 노인 1.7회, 읍·면부 노인 1.4회로 동부 노인의 이용빈도가 높았다.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는 지역별 차이를 보이는데 동부 노인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56.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36.2%), 친목도모(31.0%)의 순인 반면, 읍·면부 노인은 건강증진프로그램(33.5%), 식사서비스 이용(33.2%), 취미여가프로그램(32.3%), 친목도모(30.4%) 등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현재 이용률이 5.4%로 남자 노인 3.8%에 비해 높았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 의사도 여자 노인 31.7%, 남자 노인 30.5%로 여자 노인이 높았다. 1주일간 평균 이용횟수 역시 여자 노인 1.7회, 남자 노인 1.5회로 여자 노인이 높았다.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는 남자 노인은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 식사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등이 여자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여자 노인은 취미여가프로그램이 남자노인에 비해 높은 특성을 보였다.

공공 여가문화시설의 현재 이용률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며, 1주간 평균 이용횟수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과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나, 그 외 항목들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현재 이용률은 5.0%로 무배우 노인 4.1%보다 높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역시 유배우 노인이 무배우 노인에 비해 6.7%포인트 높다. 1주간 평균 이용횟수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유배우 노인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57.2%)과 친목도모(31.7%)에서 무배우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무배우 노

인은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45.1%), 식사서비스(20.1%), 일자리사업참여(10.6%)에서 유배우 노인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부부가구의 현재이용률(5.1%)과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33.1%) 모두 가장 높았으며, 1주간 평균 이용 횟수는 노인독거가구가 1.7회로 가장 높았다.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타 가구유형들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이 가장 높은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이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는 전문대학 이상의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률(7.1%)과 중학교 졸업의 1주간 평균 이용 횟수(1.7회)가 가장 높았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는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의 현재 이용률(4.9%)과 1주간 평균 이용 횟수(1.7회)는 취업 노인에 비해 높은 반면,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취업 노인 35.3%로 미취업노인에 비해 높았다. 미취업 노인은 취업 노인에 비해 취미여가프로그램과 정서지원프로그램 이용을 위해 공공 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 노인은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 친목도모, 일자리사업참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비율이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았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소득 기준 모두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이용률과 향후(계속)이용 희망률이 높았으며, 1주간 평균 이용횟수는 기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중위소득 대비 기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1주간 평균 이용횟수가 낮게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률은 5.1%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보다 높고,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도 32.8%로 높았으며, 1주간 평균 이용횟수도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 1.6회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보다 높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 친목도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은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과 식사서비스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0-34〉 노인의 일반특성별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실태

(단위: %, 회, 명)

특성	이용 현황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²⁾
	현재 이용률 ¹⁾	현재 평균 이용 빈도 ³⁾	(명)	
전체	4.7	1.6	(477)	31.2
지역				
동부	5.2	1.7	(397)	34.8
읍·면부	3.2	1.4	(79)	19.8
성				
남자	3.8	1.5	(164)	30.5
여자	5.4	1.7	(313)	31.7
연령				
65~69세	5.7	1.6	(191)	41.5
70~74세	5.3	1.6	(124)	32.8
75~79세	4.5	1.8	(104)	26.2
80~84세	3.2	1.5	(47)	20.7
85세 이상	1.7	1.1	(11)	10.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0	1.6	(340)	33.3
배우자 없음	4.1	1.6	(137)	26.6
가구형태				
노인독거	3.8	1.7	(75)	24.9
노인부부	5.1	1.6	(298)	33.1
자녀동거	4.6	1.6	(94)	32.0
기타	5.7	1.3	(10)	28.7
교육수준				
무학	2.5	1.6	(27)	15.5
초등학교	3.1	1.6	(98)	22.6
중학교	6.3	1.7	(149)	34.3
고등학교	5.6	1.5	(160)	40.2
전문대학 이상	7.1	1.6	(42)	47.5
현취업상태				
취업중	4.5	1.4	(159)	35.3
미취업	4.9	1.7	(317)	28.9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6	1.6	(52)	22.6
제2오분위	3.2	1.8	(66)	23.7
제3오분위	5.4	1.8	(109)	31.2
제4오분위	5.4	1.5	(110)	37.6
제5오분위	7.0	1.5	(141)	40.8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8	1.8	(113)	22.9
50%이상~100%미만	5.3	1.6	(179)	32.5
100%이상~150%미만	6.3	1.5	(104)	39.7
150%이상	7.5	1.5	(81)	44.8
기능상태				
제한 없음	5.1	1.6	(448)	32.8
제한 있음	2.3	1.4	(29)	17.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3) 공공 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477명을 대상으로 함.

〈표 10-35〉 노인의 일반특성별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 1~2순위 중복 응답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식사 서비스 이용	돌봄 서비스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참여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기타	계(명)
전체 ¹⁾²⁾	5.9	52.6	35.8	16.9	-	9.8	8.5	4.1	30.9	-	(477)
지역											
동부	6.7	56.7	36.2	13.7	-	7.9	8.1	4.5	31.0	-	(397)
읍·면부	1.7	32.3	33.5	33.2	-	18.9	10.2	2.0	30.4	-	(79)
성											
남자	7.4	36.6	38.2	22.5	-	14.0	9.8	5.5	30.0	-	(164)
여자	5.0	61.0	34.5	14.0	-	7.5	7.8	3.4	31.4	-	(313)
연령											
65~69세	9.3	59.3	37.3	11.0	-	7.1	6.8	3.0	31.1	-	(191)
70~74세	4.3	50.3	40.9	12.7	-	8.6	13.3	3.1	37.9	-	(124)
75~79세	4.7	50.5	26.3	24.4	-	12.0	7.1	9.6	20.2	-	(104)
80~84세	0.0	45.9	30.9	32.2	-	17.7	4.3	0.0	35.6	-	(47)
85세 이상	0.0	9.1	61.7	31.3	-	14.4	14.1	0.0	30.4	-	(1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0	57.2	32.1	15.6	-	9.0	7.6	5.3	31.7	-	(340)
배우자 없음	8.0	41.1	45.1	20.1	-	11.6	10.6	1.0	29.0	-	(137)
가구형태											
노인독거	7.5	47.6	30.5	22.2	-	10.0	14.2	1.9	35.2	-	(75)
노인부부	4.3	55.8	30.9	16.7	-	8.7	8.7	5.5	32.6	-	(298)
자녀동거	10.3	45.0	55.5	13.2	-	14.0	4.1	0.0	22.1	-	(94)
기타	0.0	66.7	37.3	17.3	-	0.0	0.0	17.2	29.5	-	(10)
교육수준											
무학	0.0	27.0	36.3	37.2	-	13.3	8.2	0.0	21.4	-	(27)
초등학교	8.4	49.2	34.7	26.7	-	12.5	8.7	1.6	36.8	-	(98)
중학교	3.8	53.4	42.2	12.6	-	15.9	10.8	4.6	26.2	-	(149)
고등학교	5.3	50.9	31.6	13.7	-	3.5	6.7	6.9	35.1	-	(160)
전문대학 이상	13.1	80.4	31.3	8.8	-	3.1	6.9	0.0	24.4	-	(42)
현취업상태											
취업중	9.2	35.3	42.7	17.7	-	8.3	18.9	4.0	33.3	-	(159)
미취업	4.2	61.3	32.3	16.5	-	10.5	3.3	4.1	29.7	-	(31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	29.7	33.3	23.0	-	11.9	13.9	0.0	24.7	-	(52)
제2오분위	0.0	57.2	30.2	27.9	-	13.6	13.3	0.0	34.0	-	(66)
제3오분위	7.0	57.0	41.7	15.0	-	7.7	6.3	5.2	30.3	-	(109)
제4오분위	2.7	50.5	22.6	18.1	-	4.7	8.5	5.9	43.3	-	(110)
제5오분위	11.9	57.2	45.0	10.1	-	12.7	5.9	5.2	22.5	-	(14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1	51.5	29.9	23.6	-	10.6	12.8	0.0	30.6	-	(113)
50%이상	3.7	46.7	35.1	20.0	-	8.8	8.7	3.2	36.7	-	(179)
100%미만	6.5	68.3	34.0	8.6	-	7.5	4.7	6.3	23.2	-	(104)
100%이상	15.1	47.2	47.7	11.2	-	13.7	6.8	9.0	28.3	-	(81)
기능상태											
제한 없음	5.9	54.7	35.1	15.2	-	9.9	8.2	4.3	31.7	-	(448)
제한 있음	5.4	20.7	46.5	43.2	-	7.1	12.6	0.0	18.1	-	(29)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공공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477명을 대상으로 함.

2) 1,2순위 중복응답으로 분석하여 전체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6. 민간 여가문화시설

민간 여가문화시설 이용 현황과 이용 이유는 <표 10-36>~<표 10-37>과 같다. 전체 노인의 0.8%가 민간 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민간 여가문화시설 이용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4.6%의 노인들이 향후(계속)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욕구 파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간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은 주당 평균 1.4회 이용하고 있었다. 민간 여가문화시설 이용 노인의 이용 이유는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이 7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식사서비스 이용 30.6%,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 17.2%, 친목도모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 1.0%, 읍·면부 노인 0.2%가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계속)이용 희망률은 동부 노인 16.7%, 읍·면부 노인 8.1%로 두 지역 간 높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주당 평균 이용횟수는 동부 노인과 읍·면부 노인 모두 1.4회로 동일하다. 민간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동부 노인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73.4%)과 식사서비스 이용(32.2%)이 주를 이루며, 읍·면부 노인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65.9%), 친목도모(27.2%),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23.3%) 등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현재 이용률이 0.9%로 남자 노인 0.6%에 비해 높았으며, 향후(계속) 이용 희망 의사도 여자 노인 15.3%, 남자 노인 13.6%로 여자 노인이 높았다. 1주일간 평균 이용횟수 역시 여자 노인 1.6회, 남자 노인 1.2회로 여자 노인이 높았다. 민간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는 여자 노인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이 81.8%로 주를 이루는 반면, 남자 노인은 식사서비스 이용이 72.7%로 가장 높았으며,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 또한 55.8%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민간 여가문화시설의 현재 이용률과 1주간 평균 이용횟수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 저연령 노인집단의 여가문화시설 이용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는 연령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무배우 노인의 현재 이용률은 0.9%로 유배우 노인 0.7%보다 높고, 1주간 평균 이용횟수 역시 무배우 노인이 1.6회로 유배우 노인 1.3회보다 높았으나,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에서는 유배우 노인이 2.6%포인트 높았다. 유배우 노

인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77.7%) 외에 식사서비스(34.1%), 친목도모(17.9%)에서 무배우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무배우 노인은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29.2%), 일자리 사업참여(12.7%)에서 유배우 노인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기타가구의 현재 이용률이 3.8%로 높았으며, 1주간 평균 이용 횟수는 자녀동거가구가 1.8회로 가장 높았다.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노인부부가구가 15.3%로 가장 높았다. 민간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는 가구형태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교육수준에 따른 분포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민간 여가문화시설 이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이며, 이는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에서도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1주간 평균 이용횟수는 초등학교 졸업 노인이 2.2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간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친목도모 비율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 노인은 0.7%, 미취업 노인은 0.8%가 민간 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계속)이용 희망률은 취업 노인이 17.3%로 미취업 노인에 비해 4.3%포인트 높았다. 취업상태에 따른 민간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는 취업 노인은 식사서비스 이용이 71.5%로 가장 높았으나, 미취업 노인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이 82.5%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과 관련해서는 제5오분위와 중위소득 150%이상 집단에서 이용률이 2.0%와 3.4%로 높게 나타났으며, 1주간 평균 이용횟수도 이 집단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은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민간 여가문화시설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적 이용보다는 소득이 높은 경우에 이용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기능상태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민간 여가문화시설 이용률은 0.9%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보다 높고,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도 15.6%로 높았으며, 1주간 평균 이용횟수도 1.5회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보다 높다.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 식사서비스 이용, 친목도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0-36〉 노인의 일반특성별 민간 여가문화시설 이용실태

(단위: %, 회, 명)

특성	이용 현황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²⁾
	현재 이용률 ¹⁾	현재 평균 이용 빈도 ³⁾	(명)	
전체	0.8	1.4	(79)	14.6
지역				
동부	1.0	1.4	(75)	16.7
읍·면부	0.2	1.4	(4) ⁴⁾	8.1
성				
남자	0.6	1.2	(27)	13.6
여자	0.9	1.6	(53)	15.3
연령				
65~69세	1.4	1.7	(48)	22.3
70~74세	0.7	1.1	(17)	12.9
75~79세	0.3	1.0	(6) ⁴⁾	11.3
80~84세	0.6	1.0	(9) ⁴⁾	8.7
85세 이상	0.0	5.0	(0) ⁴⁾	4.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7	1.3	(48)	15.4
배우자 없음	0.9	1.6	(31)	12.8
가구형태				
노인독거	0.6	1.4	(13)	12.1
노인부부	0.7	1.4	(42)	15.3
자녀동거	0.9	1.8	(18)	15.1
기타	3.8	0.7	(7) ⁴⁾	13.8
교육수준				
무학	0.0	2.0	(0) ⁴⁾	4.3
초등학교	0.2	2.2	(7) ⁴⁾	9.1
중학교	0.7	1.1	(16)	14.1
고등학교	1.3	1.4	(38)	20.8
전문대학 이상	3.1	1.4	(18)	33.0
현취업상태				
취업중	0.7	1.4	(25)	17.3
미취업	0.8	1.4	(54)	13.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7	1.2	(14)	10.9
제2오분위	0.1	1.0	(1) ⁴⁾	9.8
제3오분위	0.4	1.3	(8) ⁴⁾	13.3
제4오분위	0.8	1.1	(16)	15.2
제5오분위	2.0	1.6	(40)	23.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4	1.2	(14)	9.9
50%이상~100%미만	0.7	1.4	(23)	13.4
100%이상~150%미만	0.3	1.4	(5) ⁴⁾	18.1
150%이상	3.4	1.5	(37)	30.2
기능상태				
제한 없음	0.9	1.5	(77)	15.6
제한 있음	0.2	0.3	(2) ⁴⁾	5.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3) 민간 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79명을 대상으로 함.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표 10-37〉 노인의 일반특성별 민간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 1~2순위 중복 응답

(단위: %, 명)

특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식사 서비스 이용	돌봄 서비스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참여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기타	계(명)
전체 ¹⁾	2.9	73.0	17.2	30.6	-	3.2	5.0	-	13.9	-	(79)
지역											
동부	3.0	73.4	16.9	32.2	-	2.3	4.7	-	13.2	-	(75)
읍·면부	0.0	65.9	23.3	0.0	-	19.7	10.8	-	27.2	-	(4) ³⁾
성											
남자	8.5	55.8	9.3	72.7	-	0.0	1.7	-	12.3	-	(27)
여자	0.0	81.8	21.3	9.2	-	4.9	6.7	-	14.8	-	(53)
연령											
65~69세	1.5	73.8	17.1	28.9	-	5.3	5.0	-	14.2	-	(48)
70~74세	9.5	57.2	6.9	62.2	-	0.0	0.0	-	21.7	-	(17)
75~79세	0.0	100.0	72.4	0.0	-	0.0	0.0	-	10.8	-	(6) ³⁾
80~84세	0.0	81.9	0.0	0.0	-	0.0	18.1	-	0.0	-	(9) ³⁾
85세 이상	0.0	0.0	100.0	0.0	-	0.0	0.0	-	0.0	-	(0) ³⁾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0	77.7	9.5	34.1	-	3.6	0.0	-	17.9	-	(48)
배우자 없음	7.3	65.8	29.2	25.1	-	2.6	12.7	-	7.7	-	(31)
가구형태											
노인독거	5.4	57.0	20.9	34.7	-	0.0	17.2	-	18.7	-	(13)
노인부부	0.0	81.7	11.1	31.9	-	4.2	0.0	-	20.8	-	(42)
자녀동거	8.7	72.0	35.1	8.7	-	4.5	9.6	-	0.0	-	(18)
기타	0.0	52.4	0.0	74.4	-	0.0	0.0	-	0.0	-	(7) ³⁾
교육수준											
무학	0.0	0.0	100.0	0.0	-	0.0	0.0	-	0.0	-	(0) ³⁾
초등학교	0.0	41.9	9.6	0.0	-	0.0	48.5	-	9.8	-	(7) ³⁾
중학교	0.0	86.8	10.9	21.1	-	0.0	2.9	-	13.8	-	(16)
고등학교	0.0	78.3	28.6	22.3	-	6.7	0.5	-	14.1	-	(38)
전문대학 이상	12.4	63.5	0.0	68.0	-	0.0	0.0	-	15.5	-	(18)
현직업상태											
취업중	9.1	52.3	16.4	71.5	-	0.0	0.8	-	11.7	-	(25)
미취업	0.0	82.5	17.6	11.8	-	4.7	6.9	-	15.0	-	(54)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0	74.1	6.8	11.4	-	0.0	14.6	-	3.2	-	(14)
제2오분위	0.0	49.0	51.0	0.0	-	0.0	0.0	-	49.0	-	(1) ³⁾
제3오분위	0.0	77.8	41.4	0.0	-	20.8	2.5	-	15.0	-	(8) ³⁾
제4오분위	0.0	89.4	28.8	14.5	-	0.0	0.0	-	26.4	-	(16)
제5오분위	5.7	66.1	10.2	50.8	-	2.0	4.3	-	11.4	-	(4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0	75.2	6.5	10.9	-	0.0	13.9	-	7.4	-	(14)
50%이상	0.0	81.9	30.3	6.9	-	7.6	8.5	-	23.6	-	(23)
100%미만	0.0	66.5	32.7	13.3	-	0.0	0.0	-	22.2	-	(5) ³⁾
100%이상	0.0	66.5	32.7	13.3	-	0.0	0.0	-	22.2	-	(5) ³⁾
150%미만	0.0	66.5	32.7	13.3	-	0.0	0.0	-	22.2	-	(5) ³⁾
150%이상	6.2	67.6	11.1	55.5	-	2.2	0.0	-	9.3	-	(37)
기능상태											
제한 없음	3.0	73.1	17.8	30.6	-	3.3	5.1	-	14.4	-	(77)
제한 있음	0.0	70.7	0.0	29.3	-	0.0	0.0	-	0.0	-	(2) ³⁾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민간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79명을 대상으로 함.

2) 1,2순위 중복응답으로 분석하여 전체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제4절 정보화 현황

1. 정보화 기기 보유 및 사용 현황

가. 인터넷이 안되는 휴대폰

노인 중 인터넷이 안되는 휴대폰을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표 10-38>과 같다. 전체 노인 중 37.4%는 인터넷이 안되는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34.9%는 사용하고 있으며, 보유율과 사용률의 차이는 2.5%포인트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동부 노인에 비해 읍·면부 노인의 보유 및 사용률이 49.8%와 47.8%로 높았으며, 약 16~17%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노인의 보유율이 40.5%, 사용률이 37.8%로 남자 노인에 비해 7.3%포인트와 6.6%포인트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보유율과 사용률 모두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무배우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은 49.6%와 46.4%로 유배우 노인에 비해 18.2%포인트, 17.0%포인트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독거가구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51.5%와 48.2%로 타 가구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기타가구의 보유율과 사용률은 29.3%와 27.9%로 낮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무학의 보유율과 사용률은 64.3%와 59.1%인 것에 비해 전문대학 이상은 10.8%와 9.3%로 매우 낮아 둘 간의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이 안되는 휴대폰의 보유율과 사용률 모두 낮았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미취업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42.6%와 39.7%로 취업 노인에 비해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두 기준 모두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인터넷이 안되는 휴대폰 보유율 및 사용률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은 52.6%와 48.4%로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보다 높았다.

〈표 10-38〉 노인의 일반특성별 전자기기(인터넷이 안되는 휴대폰) 보유 및 사용 여부

(단위: %, 명)

특성	보유	사용	계 (명)
전체 ¹⁾	37.4	34.9	100.0 (10,097)
지역			
동부	33.4	30.8	100.0 (7,651)
읍·면부	49.8	47.8	100.0 (2,446)
성			
남자	33.2	31.2	100.0 (4,346)
여자	40.5	37.8	100.0 (5,751)
연령			
65~69세	13.8	12.9	100.0 (3,344)
70~74세	32.8	31.2	100.0 (2,342)
75~79세	52.1	48.8	100.0 (2,292)
80~84세	63.2	58.2	100.0 (1,475)
85세 이상	64.7	60.5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1.4	29.4	100.0 (6,779)
배우자 없음	49.6	46.4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51.5	48.2	100.0 (1,998)
노인부부	32.6	30.4	100.0 (5,898)
자녀동거	38.1	35.8	100.0 (2,026)
기타	29.3	27.9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64.3	59.1	100.0 (1,073)
초등학교	55.0	51.4	100.0 (3,198)
중학교	32.7	31.2	100.0 (2,356)
고등학교	17.0	16.0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10.8	9.3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27.7	26.3	100.0 (3,564)
미취업	42.6	39.7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2.7	50.0	100.0 (2,019)
제2오분위	48.3	44.4	100.0 (2,020)
제3오분위	36.4	33.4	100.0 (2,017)
제4오분위	27.3	25.8	100.0 (2,024)
제5오분위	22.0	21.1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9.6	46.2	100.0 (3,999)
50%이상~100%미만	36.0	33.2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24.7	24.2	100.0 (1,647)
150%이상	15.5	14.9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35.3	33.1	100.0 (8,864)
제한 있음	52.6	48.4	100.0 (1,23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노인 중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표 10-39>과 같이 56.4%와 52.8%이며, 사용자는 주당 6.4일, 일일 평균 1.3시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동부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은 61.1%와 57.4%로 읍·면부 노인 41.4%와 38.6%에 비해 높지만, 주당 사용일수와 일일 사용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62.5%와 59.0%로 여자 노인 51.7%와 48.2%에 비해 높으며, 주당 사용일수 및 일일 사용시간도 남자 노인이 6.5일과 1.4시간으로 여자 노인 6.3일과 1.2시간보다 높으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보유율과 사용률 모두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당 사용일수는 연령에 따른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 반면, 일일 사용시간은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1시간 미만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는 반면, 3시간 이상의 장시간 이용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은 63.7%와 59.9%로 무배우 노인 41.5%와 38.2%에 비해 높았으나, 주당 사용일수와 일일 사용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기타 가구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65.7%와 59.4%로 높았으며, 일일 사용시간도 기타가구에서 높았다. 반면, 노인독거가구는 보유율과 사용률 모두 타 가구형태에 비해 가장 낮지만, 일일 사용시간은 1.3시간으로 평균수준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당 사용일수와 일일 사용시간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았으며, 3시간 이상의 장시간 사용자의 비율도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높았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 노인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의 보유율과 사용률은 69.5%와 66.1%로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주당 사용일수와 일일 사용시간도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두 가지 소득기준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높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60.1%와 56.5%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보다 높다. 주당 사용일수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이 많은 반면, 일일 사용시간은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이 더 많았다.

〈표 10-39〉 노인의 일반특성별 전자기기(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보유 및 사용 시간

(단위: %, 명)

특성	보유 ¹⁾	사용 ¹⁾	주당 사용 일수 ²⁾	일일 사용 시간 ²⁾					계 (명)
				평균 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전체 ¹⁾	56.4	52.8	6.4	1.3	40.5	35.9	13.2	10.4	100.0 (5,331)
지역									
동부	61.1	57.4	6.4	1.3	39.6	37.1	13.2	10.1	100.0 (4,388)
읍·면부	41.4	38.6	6.3	1.3	44.5	30.2	13.5	11.8	100.0 (943)
성									
남자	62.5	59.0	6.5	1.4	36.9	37.4	14.6	11.1	100.0 (2,563)
여자	51.7	48.2	6.3	1.2	43.8	34.4	12.0	9.8	100.0 (2,770)
연령									
65~69세	84.7	81.6	6.5	1.4	34.2	37.7	14.9	13.3	100.0 (2,727)
70~74세	63.0	59.3	6.3	1.2	42.5	35.7	13.4	8.4	100.0 (1,389)
75~79세	42.2	37.7	6.1	1.0	51.7	31.3	10.7	6.4	100.0 (863)
80~84세	22.9	19.6	6.1	1.0	53.3	34.7	5.5	6.5	100.0 (291)
85세 이상	12.4	9.9	6.4	0.9	54.7	28.1	10.9	6.3	100.0 (6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3.7	59.9	6.4	1.3	39.1	36.8	13.3	10.8	100.0 (4,064)
배우자 없음	41.5	38.2	6.3	1.2	44.8	32.8	13.0	9.4	100.0 (1,268)
가구형태									
노인독거	41.3	39.0	6.3	1.3	45.0	31.7	13.6	9.6	100.0 (778)
노인부부	62.8	59.2	6.4	1.3	39.7	35.8	13.3	11.1	100.0 (3,490)
자녀동거	51.6	47.4	6.4	1.2	39.8	39.2	12.8	8.2	100.0 (961)
기타	65.7	59.4	6.4	1.4	38.8	36.9	12.6	11.7	100.0 (103)
교육수준									
무학	17.1	15.6	5.3	0.4	69.5	19.2	9.6	1.8	100.0 (167)
초등학교	37.1	32.1	6.3	1.1	49.6	32.2	10.1	8.1	100.0 (1,028)
중학교	62.1	57.4	6.3	1.1	47.5	35.6	10.6	6.4	100.0 (1,353)
고등학교	81.3	79.1	6.5	1.4	33.3	39.9	15.5	11.3	100.0 (2,270)
전문대학 이상	87.5	86.0	6.6	1.8	26.2	31.5	17.7	24.7	100.0 (515)
현취업상태									
취업중	69.5	66.1	6.5	1.4	34.8	38.1	15.5	11.6	100.0 (2,357)
미취업	49.2	45.6	6.3	1.2	44.9	34.1	11.4	9.5	100.0 (2,9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9.5	36.7	6.5	1.4	41.0	35.3	12.1	11.6	100.0 (742)
제2오분위	42.3	39.8	6.3	1.1	51.2	29.8	9.3	9.7	100.0 (805)
제3오분위	58.4	54.5	6.3	1.1	46.1	33.5	12.7	7.6	100.0 (1,100)
제4오분위	67.7	62.6	6.4	1.2	41.5	39.1	13.2	6.2	100.0 (1,268)
제5오분위	73.9	70.3	6.5	1.5	28.9	38.5	16.4	16.2	100.0 (1,41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1.7	39.2	6.3	1.3	46.2	32.7	11.0	10.1	100.0 (1,569)
50%이상~100%미만	58.4	53.6	6.4	1.1	45.2	36.5	11.4	6.9	100.0 (1,814)
100%이상~150%미만	71.6	67.1	6.3	1.3	37.1	36.6	15.7	10.6	100.0 (1,104)
150%이상	81.4	79.1	6.6	1.6	24.0	39.3	18.2	18.5	100.0 (845)
기능상태									
제한 없음	60.1	56.5	6.4	1.3	40.8	36.0	13.0	10.2	100.0 (5,005)
제한 있음	29.4	26.6	6.3	1.5	36.1	33.6	16.8	13.5	100.0 (32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 2)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5,33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다.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노인 중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을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표 10-40>과 같이 12.9%와 6.3%이며, 사용자는 주당 3.6일, 일일 평균 1.5시간을 사용하였다.

동부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은 15.1%와 7.0%로 읍·면부 노인 6.0%와 3.9%에 비해 높지만, 주당 사용일수는 읍·면부 노인이 4.4일로 동부 노인 3.4일에 비해 많으며, 일일 평균 사용시간은 두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15.6%와 10.3%로 여자 노인 10.8%와 3.2%에 비해 높으며, 주당 사용일수 및 일일 사용시간도 남자 노인 3.7일과 1.6시간으로 여자 노인 3.1일과 1.2시간보다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보유율과 사용률 모두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주당 사용일수는 연령에 따른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 반면, 일일 사용시간은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의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보유율과 사용률은 14.9%와 8.1%로 무배우 노인 8.8%와 2.7%에 비해 높았으나, 주당 사용일수와 일일 사용시간은 무배우 노인이 3.8일, 1.6시간으로 유배우 노인보다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자녀동거가구의 보유율이 22.1%로 가장 높았으나, 사용률은 노인부부가구가 7.6%로 가장 높았고, 주당 사용일수는 기타가구가 6.1일로, 일일 사용시간은 노인독거가구가 1.9시간으로 가장 높아 가구형태별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보유율과 사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당 사용일수와 일일 사용시간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 노인의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의 보유율과 사용률은 14.4%와 9.7%로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았으며, 주당 사용일수는 취업 노인이 높았으나, 일일 사용시간은 미취업 노인이 높았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두 가지 소득 기준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높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13.1%와 6.7%가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을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보다 높았다. 그러나 주당 사용일수와 일일 사용시간 모두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이 더 많았다.

〈표 10-40〉 노인의 일반특성별 전자기기(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보유 및 사용 시간

(단위: %, 명)

특성	보유 ¹⁾	사용 ¹⁾	주당 사용 일수 ²⁾	일일 사용 시간 ²⁾					계 (명)
				평균 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전체 ¹⁾	12.9	6.3	3.6	1.5	19.4	44.9	24.1	11.7	100.0 (635)
지역									
동부	15.1	7.0	3.4	1.5	21.3	43.1	23.0	12.6	100.0 (539)
읍·면부	6.0	3.9	4.4	1.5	9.3	54.6	29.9	6.2	100.0 (96)
성									
남자	15.6	10.3	3.7	1.6	13.8	46.1	26.7	13.4	100.0 (449)
여자	10.8	3.2	3.1	1.2	32.8	41.9	17.7	7.5	100.0 (186)
연령									
65~69세	20.8	11.3	3.3	1.5	19.4	44.8	26.3	9.5	100.0 (377)
70~74세	12.4	6.5	3.7	1.4	23.0	46.7	21.1	9.2	100.0 (152)
75~79세	8.0	3.0	4.2	1.7	10.1	47.8	20.3	21.7	100.0 (69)
80~84세	7.1	2.2	4.0	1.7	24.2	30.3	27.3	18.2	100.0 (33)
85세 이상	4.3	0.7	3.5	2.1	0.0	60.0	0.0	40.0	100.0 (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9	8.1	3.5	1.4	19.2	46.0	23.6	11.2	100.0 (546)
배우자 없음	8.8	2.7	3.8	1.6	20.0	38.9	27.8	13.3	100.0 (89)
가구형태									
노인독거	3.2	2.1	4.3	1.9	7.1	38.1	38.1	16.7	100.0 (42)
노인부부	12.9	7.6	3.6	1.5	16.3	48.8	24.8	10.1	100.0 (447)
자녀동거	22.1	6.7	3.0	1.4	34.6	33.8	16.9	14.7	100.0 (136)
기타	17.7	5.6	6.1	1.6	0.0	55.6	33.3	11.1	100.0 (10)
교육수준									
무학	3.3	0.5	6.6	2.8	16.7	16.7	0.0	66.7	100.0 (5)
초등학교	4.7	0.9	3.3	1.1	41.4	31.0	27.6	0.0	100.0 (29)
중학교	8.5	2.9	3.1	1.1	31.9	53.6	8.7	5.8	100.0 (69)
고등학교	23.1	12.5	3.4	1.4	18.2	49.3	23.5	9.0	100.0 (358)
전문대학 이상	42.6	29.0	4.1	1.7	13.2	35.6	32.2	19.0	100.0 (174)
현취업상태									
취업중	14.4	9.7	3.6	1.4	19.1	47.8	24.9	8.1	100.0 (345)
미취업	12.1	4.4	3.5	1.6	19.7	41.7	23.1	15.5	100.0 (29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2	3.5	3.9	1.4	25.0	41.7	18.1	15.3	100.0 (72)
제2오분위	5.4	3.0	4.2	1.5	18.3	40.0	31.7	10.0	100.0 (60)
제3오분위	8.9	4.7	3.3	1.3	22.1	49.5	24.2	4.2	100.0 (95)
제4오분위	14.1	7.2	3.5	1.3	22.4	44.9	27.2	5.4	100.0 (146)
제5오분위	29.9	13.0	3.4	1.6	15.6	45.0	22.1	17.2	100.0 (26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4	3.5	3.9	1.4	22.1	45.7	21.4	10.7	100.0 (140)
50%이상~100%미만	10.8	5.4	3.5	1.3	23.5	43.7	25.7	7.1	100.0 (184)
100%이상~150%미만	20.5	9.0	3.2	1.6	16.8	45.6	22.1	15.4	100.0 (149)
150%이상	32.0	15.3	3.6	1.6	14.7	44.8	26.4	14.1	100.0 (163)
기능상태									
제한 없음	13.1	6.7	3.5	1.4	20.5	45.5	22.7	11.3	100.0 (592)
제한 있음	11.2	3.5	3.8	1.8	4.7	37.2	44.2	14.0	100.0 (4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 2)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63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

정보화기기 보급의 확대로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정보화 기기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때 노인세대의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보화기기 사용 역량을 <표 10-41>과 같이 살펴보았다.

각 기능 상태별 이용 가능 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문자받기는 전체 노인의 80.6%가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문자보내기 69.7%, 사진·동영상 촬영 50.6%, 정보검색 48.2%, 동영상 보기 34.5%, 음악듣기 26.2%, SNS이용 23.7%, 게임 16.1%, 금융거래 12.6%,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 9.9%, 온라인 쇼핑 7.9%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이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이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모든 영역의 정보화 기기 내 기능 사용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자기기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과 금융거래의 경우 무학은 0.0%와 0.1%로 나타나 교육수준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역량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41〉 노인의 일반특성별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

(단위: %, 명)

구분	전체 ¹⁾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문자받기	80.6	83.6	71.3	85.2	77.0
문자보내기	69.7	73.2	58.4	75.7	64.9
정보검색	48.2	53.2	32.2	56.1	41.9
사진동영상촬영	50.6	53.8	40.0	56.8	45.6
음악듣기	26.2	28.8	18.0	30.4	22.8
게임	16.1	17.3	12.4	19.7	13.3
동영상보기	34.5	37.8	23.7	40.8	29.4
SNS이용	23.7	26.3	15.7	28.6	19.9
온라인쇼핑	7.9	9.2	3.8	10.4	6.0
금융거래	12.6	14.1	8.0	16.7	9.4
애플리케이션 검색, 설치	9.9	11.1	6.1	14.0	6.7
기타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721)	(6,641)	(2,081)	(3,860)	(4,862)
구분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문자받기	96.2	87.4	71.8	56.1	39.9
문자보내기	92.4	77.0	55.6	37.1	19.9
정보검색	77.5	50.0	29.0	13.2	5.6
사진동영상촬영	74.6	52.3	36.6	21.4	7.6
음악듣기	43.0	26.8	14.4	7.6	3.9
게임	28.1	15.1	8.4	3.6	1.7
동영상보기	56.4	36.3	18.2	9.8	5.1
SNS이용	40.8	24.1	10.9	6.1	3.1
온라인쇼핑	16.4	5.8	2.4	1.1	0.2
금융거래	25.2	9.7	4.3	2.0	0.7
애플리케이션 검색, 설치	19.6	9.1	2.6	1.0	0.5
기타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122)	(2,084)	(1,957)	(1,125)	(433)
구분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이상
문자받기	46.7	66.7	87.2	95.6	97.2
문자보내기	25.5	49.0	77.8	91.6	93.7
정보검색	4.8	24.4	51.9	73.7	83.8
사진동영상촬영	12.7	31.7	52.7	72.0	81.0
음악듣기	2.2	11.5	25.3	41.2	59.4
게임	2.1	6.5	14.2	26.6	36.7
동영상보기	4.0	13.6	34.4	56.1	70.5
SNS이용	1.7	8.5	22.1	38.4	60.9
온라인쇼핑	0.0	1.8	5.4	12.5	34.6
금융거래	0.1	2.5	7.7	23.3	43.4
애플리케이션 검색, 설치	0.2	2.2	6.7	16.2	41.1
기타	-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781)	(2,630)	(2,051)	(2,692)	(568)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휴대폰(피쳐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을 1개 이상 사용 가능한 8,721명에 대해 분석함.

3. 생활에 필요한 정보 이용의 어려움

노인이 되면 시력의 약화, 신조어의 출현,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화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다양한 정보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노인이 느끼는 생활에 필요한 정보 이용의 어려움을 <표 10-42>와 같이 살펴보았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있어 노인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인터넷 중심이어서 이용하기 어려움’으로 노인의 74.1%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마을, 마트 공지사항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 이해 어려움’이 63.5% 였으며, ‘정부나 공공기관 우편물 또는 공지사항 용어, 내용 이해 어려움’도 58.9%로 나타났다.

세부 특성별로 살펴보면, 세 가지 어려움 모두 가구형태를 제외하고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먼저 지역에 따라서는 동부 노인에 비해 읍·면부 노인이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노인에 비해 여자 노인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에 비해 무배우 노인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형태는 항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정부나 공공기관 우편물 또는 공지사항 용어, 내용 이해 어려움’은 기타가구가 70.3%로 가장 높으며, 노인부부가구가 55.2%로 가장 낮다. ‘공공기관, 마을, 마트 공지사항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 이해 어려움’은 노인독거가구가 71.8%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노인부부가구가 61.0%로 가장 낮았다.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인터넷 중심이어서 이용하기 어려움’은 기타가구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83.0%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부부가구가 71.8%로 가장 낮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았으며, 취업 노인에 비해 미취업 노인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두 가지 기준 모두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경우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았다.

〈표 10-42〉 생활에 필요한 정보 이용의 어려움

(단위: %, 명)

특성	정부나 공공기관 우편물 또는 공지사항 용어, 내용 이해 어려움	공공기관, 마을, 마트 공지사항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 이해 어려움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인터넷 중심이어서 이용하기 어려움	(명)
전체 ¹⁾	58.9	63.5	74.1	(9,930)
지역				
동부	56.3	61.3	72.3	(7,518)
읍·면부	67.0	70.4	80.0	(2,413)
성				
남자	50.1	56.1	69.1	(4,281)
여자	65.6	69.1	77.9	(5,649)
연령				
65~69세	41.8	48.0	60.8	(3,337)
70~74세	56.4	61.4	74.5	(2,319)
75~79세	68.0	71.7	82.8	(2,262)
80~84세	79.0	81.8	85.2	(1,426)
85세 이상	82.3	83.6	88.3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3.8	59.4	71.1	(6,704)
배우자 없음	69.4	71.9	80.3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68.3	71.8	79.2	(1,985)
노인부부	55.2	61.0	71.8	(5,847)
자녀동거	59.5	62.4	75.1	(1,935)
기타	70.3	65.1	83.0	(164)
교육수준				
무학	88.7	89.4	90.9	(1,023)
초등학교	74.2	75.5	84.8	(3,134)
중학교	56.9	59.5	74.6	(2,323)
고등학교	38.5	48.6	61.2	(2,857)
전문대학 이상	33.3	42.9	49.5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49.8	55.7	66.6	(3,554)
미취업	64.0	67.8	78.3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9.6	73.2	80.7	(1,986)
제2오분위	67.8	71.1	79.9	(1,987)
제3오분위	57.9	62.2	75.6	(1,991)
제4오분위	50.4	55.7	68.2	(1,987)
제5오분위	48.8	55.1	66.2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8.4	71.6	80.1	(3,927)
50%이상~100%미만	57.3	62.3	75.0	(3,330)
100%이상~150%미만	46.6	53.7	65.5	(1,618)
150%이상	47.4	51.9	62.3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56.0	60.7	72.3	(8,832)
제한 있음	82.0	85.6	88.9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4.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우리사회에서 정보화 기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화기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화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표 10-43>~<표 10-46>과 같이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정보화 기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예매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살펴본 결과 노인 중 58.3%가 정보화 기기를 통해 교통수단 예매를 해보았으며, 이들 중 60.4%(불편하다+매우 불편하다)는 불편함을 경험하였다.

지역별로는 정보화 기기를 통한 교통수단 예매를 경험한 비율은 동부 노인은 61.4%, 읍·면부 노인은 48.8%로 동부 노인의 경험률이 더 높으며,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동부 노인 60.2%, 읍·면부 노인 61.0%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정보화 기기를 통한 교통수단 예매 경험률은 남자 노인 62.5%, 여자 노인 55.1%로 남자 노인의 비율이 높았으며,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여자 노인이 64.2%로 남자 노인에 비해 8.4%포인트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정보화 기기를 통한 교통수단 예매 경험률은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낮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이 정보화 기기를 통한 교통수단 예매를 경험한 비율이 61.1%로 무배우 노인에 비해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무배우 노인이 67.2%로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부부가구의 경험률이 61.2%로 가장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58.3%로 가장 낮았으며, 기타가구의 경험률은 48.4%로 가장 낮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69.6%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화 기기를 통한 교통수단 예매 경험률이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취업 노인의 정보화 기기를 통한 교통수단 예매 경험률은 68.1%로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미취업 노인이 66.0%로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화 기기를 통한 교통수단 예매 경험률은 높으며,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낮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정보화 기기를 통한 교통수단 예매 경험률은 높고, 불편함 경험률은 낮았다.

전체적으로 예매 경험률과 불편함을 느낀 비율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0-43〉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예매 불편함 정도

(단위: %, 명)

특성	이용한 경험 있음 ¹⁾	불편함 정도 ²⁾					계 (명)
		전혀불편하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	보통이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전체 ¹⁾	58.3	7.2	11.6	20.9	35.7	24.7	100.0 (5,792)
지역							
동부	61.4	8.2	11.2	20.4	37.2	23.0	100.0 (4,615)
읍·면부	48.8	3.2	12.8	22.9	29.8	31.2	100.0 (1,177)
성							
남자	62.5	9.6	12.1	22.4	34.4	21.4	100.0 (2,677)
여자	55.1	5.1	11.1	19.6	36.7	27.5	100.0 (3,115)
연령							
65~69세	72.2	10.7	14.8	26.7	30.5	17.4	100.0 (2,408)
70~74세	60.0	5.4	10.1	20.3	40.2	24.0	100.0 (1,390)
75~79세	53.0	4.8	9.5	15.1	40.4	30.2	100.0 (1,199)
80~84세	41.5	3.5	7.6	12.7	38.5	37.7	100.0 (592)
85세 이상	34.3	2.5	7.0	14.4	30.3	45.8	100.0 (20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1.1	8.4	12.3	21.8	34.7	22.8	100.0 (4,096)
배우자 없음	52.6	4.2	9.8	18.8	37.9	29.3	100.0 (1,696)
가구형태							
노인독거	53.1	4.9	9.9	19.1	38.3	27.8	100.0 (1,055)
노인부부	61.2	8.5	11.6	21.7	35.2	23.1	100.0 (3,577)
자녀동거	55.8	5.3	13.3	20.4	34.8	26.2	100.0 (1,079)
기타	48.4	6.3	8.9	15.2	34.2	35.4	100.0 (79)
교육수준							
무학	30.7	2.2	7.3	15.9	31.2	43.3	100.0 (314)
초등학교	50.2	3.6	9.6	17.5	36.1	33.2	100.0 (1,574)
중학교	60.1	4.1	9.9	19.3	41.8	25.0	100.0 (1,396)
고등학교	69.9	8.3	13.9	25.4	33.8	18.5	100.0 (1,998)
전문대학 이상	85.9	25.5	15.5	20.8	28.0	10.2	100.0 (510)
현취업상태							
취업중	68.1	7.6	13.9	25.8	31.8	20.8	100.0 (2,419)
미취업	52.9	6.9	9.8	17.3	38.5	27.5	100.0 (3,37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2.5	3.0	11.9	21.2	36.3	27.6	100.0 (1,042)
제2오분위	50.8	5.3	10.4	17.2	38.7	28.3	100.0 (1,010)
제3오분위	56.1	6.2	12.2	16.8	34.9	29.9	100.0 (1,116)
제4오분위	64.8	8.6	10.9	23.5	36.3	20.7	100.0 (1,287)
제5오분위	67.4	11.3	12.3	24.2	33.1	19.1	100.0 (1,33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1.8	4.3	11.7	18.9	36.7	28.4	100.0 (2,037)
50%이상~100%미만	57.0	6.7	10.7	19.3	35.9	27.4	100.0 (1,898)
100%이상~150%미만	64.3	9.1	10.4	24.9	35.1	20.6	100.0 (1,041)
150%이상	77.4	13.1	14.7	24.4	33.4	14.4	100.0 (817)
기능상태							
제한 없음	59.6	7.8	12.2	21.6	34.8	23.6	100.0 (5,268)
제한 있음	47.7	1.3	5.4	13.8	44.2	35.4	100.0 (52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알지 못하거나 이용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이를 제외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다~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분석 함.

다음으로 정보화 기기를 이용한 식당 주문(키오스크)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살펴본 결과 노인 중 58.1%가 정보화 기기를 통해 식당에서 주문을 해보았으며, 이들 중 64.2%(불편하다+매우 불편하다)는 불편함을 경험하였다.

지역별로는 정보화 기기를 통한 식당 주문을 경험한 비율은 동부 노인은 60.7%, 읍·면부 노인은 49.8%로 동부 노인의 경험률이 더 높으며,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동부 노인 63.5%, 읍·면부 노인 66.8%로 읍·면부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정보화 기기를 통한 식당 주문 경험률은 남자 노인 63.2%, 여자 노인 54.2%로 남자 노인의 비율이 높았으며,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여자 노인이 66.9%로 남자 노인에 비해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정보화 기기를 통한 식당 주문 경험률은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낮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이 정보화 기기를 통한 식당 주문을 경험한 비율이 62.0%로 무배우 노인에 비해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무배우 노인이 68.6%로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부부가구의 경험률이 61.8%로 가장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62.9%로 가장 낮았으며, 기타가구의 경험률은 50.6%로 가장 낮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72.3%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화 기기를 통한 식당 주문 경험률이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취업 노인의 정보화 기기를 통한 식당 주문 경험률은 69.6%로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미취업 노인이 68.8%로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화 기기를 통한 식당 주문 경험률은 높으며,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낮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도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정보화 기기를 통한 식당 주문 경험률은 높고, 불편함 경험률은 낮았다.

전체적으로 정보화 기기를 통한 식당 주문을 경험한 비율과 불편함을 느낀 비율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0-44〉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식당 기계 주문 불편함 정도

(단위: %, 명)

특성	이용한 경험 있음 ¹⁾	불편함 정도 ²⁾					계 (명)
		전혀 불편 하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	보통이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전체 ¹⁾	58.1	6.5	10.4	18.8	36.1	28.1	100.0 (5,766)
지역							
동부	60.7	7.6	10.3	18.6	35.8	27.7	100.0 (4,564)
읍·면부	49.8	2.7	10.8	19.6	37.3	29.5	100.0 (1,202)
성							
남자	63.2	8.5	11.5	18.9	36.7	24.4	100.0 (2,704)
여자	54.2	4.8	9.5	18.8	35.6	31.3	100.0 (3,061)
연령							
65~69세	74.9	10.6	13.1	22.8	33.5	20.1	100.0 (2,498)
70~74세	59.4	4.6	11.2	18.2	38.7	27.2	100.0 (1,377)
75~79세	51.4	2.5	6.8	15.5	40.9	34.3	100.0 (1,162)
80~84세	38.9	2.9	5.6	11.7	31.6	48.2	100.0 (554)
85세 이상	29.6	2.3	6.9	10.9	37.4	42.5	100.0 (17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2.0	7.6	11.1	18.9	36.3	26.2	100.0 (4,158)
배우자 없음	49.8	4.0	8.7	18.7	35.7	32.9	100.0 (1,609)
가구형태							
노인독거	51.5	4.6	8.4	19.2	37.4	30.4	100.0 (1,022)
노인부부	61.8	7.6	10.9	18.6	36.1	26.8	100.0 (3,611)
자녀동거	54.2	5.0	10.9	19.5	34.4	30.2	100.0 (1,050)
기타	50.6	4.8	9.6	13.3	43.4	28.9	100.0 (83)
교육수준							
무학	26.5	1.9	1.9	12.6	37.8	45.9	100.0 (270)
초등학교	47.0	2.9	6.4	15.6	40.1	35.1	100.0 (1,473)
중학교	60.1	2.7	10.2	16.7	38.2	32.3	100.0 (1,396)
고등학교	74.2	8.1	13.6	22.3	35.1	20.8	100.0 (2,119)
전문대학 이상	85.2	24.1	14.2	22.5	22.5	16.6	100.0 (506)
현취업상태							
취업중	69.6	7.1	12.5	22.4	36.6	21.5	100.0 (2,474)
미취업	51.6	6.2	8.9	16.1	35.8	33.0	100.0 (3,29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3	3.5	8.2	16.8	40.5	31.0	100.0 (1,058)
제2오분위	48.8	3.3	8.9	18.2	37.3	32.3	100.0 (968)
제3오분위	55.1	4.8	9.1	18.2	35.6	32.2	100.0 (1,097)
제4오분위	66.3	7.1	11.6	19.9	37.3	24.1	100.0 (1,319)
제5오분위	66.8	12.2	13.2	20.3	31.1	23.1	100.0 (1,32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1.0	3.4	8.7	17.3	38.7	31.9	100.0 (2,003)
50%이상~100%미만	56.8	5.5	9.4	18.5	37.0	29.7	100.0 (1,891)
100%이상~150%미만	66.6	7.8	13.3	20.8	33.2	25.0	100.0 (1,078)
150%이상	75.2	15.1	13.5	20.9	31.7	18.8	100.0 (793)
기능상태							
제한 없음	60.0	7.0	11.0	19.4	35.5	27.1	100.0 (5,301)
제한 있음	42.4	1.3	4.3	12.0	43.6	38.8	100.0 (466)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알지 못하거나 이용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이를 제외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다~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분석 함.

다음으로 은행 ATM 사용 또는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하여 노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살펴본 결과 노인 중 88.9%가 ATM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38.4%(불편하다+매우 불편하다)는 불편함을 경험하였다. ATM 사용 또는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하여 노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타 정보화 기기 이용에 비해 경험률은 높고 불편율은 낮은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ATM 사용을 통한 은행 업무가 시행된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등이 활성화된 것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ATM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동부 노인은 91.3%, 읍·면부 노인은 81.4%로 동부 노인의 경험률이 더 높으며,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동부 노인 37.1%, 읍·면부 노인 43.1%로 읍·면부 노인의 비율이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ATM을 사용한 경험률은 남자 노인 92.4%, 여자 노인 86.2%로 남자 노인의 비율이 높았으며,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여자 노인이 42.4%로 남자 노인에 비해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ATM을 사용한 경험률은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낮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이 ATM을 사용한 경험한 비율이 91.5%로 무배우 노인에 비해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무배우 노인이 47.1%로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부부가구의 경험률이 91.3%로 가장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35.5%로 가장 낮았으며, 노인독거가구의 경험률은 83.6%로 가장 낮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47.6%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ATM을 사용한 경험률이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특히나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경우 99.1%가 ATM을 사용한 경험이 있었다. 취업 노인의 ATM을 사용한 경험률은 93.2%로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미취업 노인이 42.6%로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ATM을 사용한 경험률은 높으며,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낮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도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ATM을 사용한 경험률은 높고, 불편함 경험률은 낮았다.

전체적으로 ATM을 사용한 경험률과 불편함을 느낀 비율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0-45〉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은행 ATM 사용 또는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한 불편함 정도

(단위: %, 명)

특성	이용한 경험 있음 ¹⁾	불편함 정도 ²⁾					계 (명)
		전혀불편 하지않다	불편하지 않다	보통이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전체 ¹⁾	88.9	10.6	21.2	29.8	29.0	9.4	100.0 (8,827)
지역							
동부	91.3	12.1	22.5	28.3	28.3	8.8	100.0 (6,861)
읍·면부	81.4	5.2	16.8	34.9	31.7	11.4	100.0 (1,966)
성							
남자	92.4	13.9	22.5	30.1	26.5	7.0	100.0 (3,955)
여자	86.2	7.9	20.2	29.6	31.1	11.3	100.0 (4,870)
연령							
65~69세	96.9	16.5	28.2	29.0	21.3	5.1	100.0 (3,232)
70~74세	92.5	8.9	21.9	32.8	29.2	7.2	100.0 (2,144)
75~79세	87.1	7.8	15.8	31.2	33.7	11.5	100.0 (1,970)
80~84세	77.7	4.6	12.1	26.0	39.6	17.7	100.0 (1,107)
85세 이상	63.4	.8	13.2	23.7	39.8	22.6	100.0 (37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1.5	12.5	22.4	30.5	27.6	7.0	100.0 (6,138)
배우자 없음	83.3	6.0	18.6	28.2	32.3	14.8	100.0 (2,688)
가구형태							
노인독거	83.6	6.3	16.7	29.5	33.9	13.7	100.0 (1,660)
노인부부	91.3	11.7	21.2	31.5	28.4	7.1	100.0 (5,339)
자녀동거	86.9	11.4	25.3	24.8	26.3	12.2	100.0 (1,682)
기타	88.7	6.9	25.5	29.0	28.3	10.3	100.0 (145)
교육수준							
무학	66.8	1.2	10.2	25.8	43.5	19.3	100.0 (683)
초등학교	85.3	4.0	16.0	30.3	35.9	13.9	100.0 (2,675)
중학교	90.7	7.8	20.9	31.8	30.4	9.2	100.0 (2,107)
고등학교	97.1	16.0	28.3	30.5	20.9	4.3	100.0 (2,775)
전문대학 이상	99.1	35.5	25.5	22.3	15.0	1.7	100.0 (588)
현취업상태							
취업중	93.2	12.2	23.4	33.0	25.1	6.3	100.0 (3,311)
미취업	86.5	9.6	19.9	27.9	31.4	11.2	100.0 (5,51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4.6	5.1	18.6	33.8	29.8	12.8	100.0 (1,680)
제2오분위	84.5	5.5	18.9	28.1	35.4	12.2	100.0 (1,679)
제3오분위	89.0	9.6	21.3	30.3	30.4	8.4	100.0 (1,772)
제4오분위	93.4	13.4	23.2	29.6	26.6	7.3	100.0 (1,856)
제5오분위	92.9	18.3	23.7	27.6	23.8	6.7	100.0 (1,84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4.4	5.8	18.4	31.3	32.5	12.0	100.0 (3,315)
50%이상~100%미만	89.1	10.2	21.8	29.4	29.5	9.1	100.0 (2,967)
100%이상~150%미만	94.1	16.3	25.7	27.2	24.0	6.8	100.0 (1,523)
150%이상	96.7	18.5	22.0	30.2	24.1	5.2	100.0 (1,021)
기능상태							
제한 없음	90.9	11.3	22.2	30.8	27.4	8.2	100.0 (8,032)
제한 있음	72.2	3.2	10.8	19.7	45.5	20.8	100.0 (79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알지 못하거나 이용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이를 제외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다~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분석 함.

마지막으로 카드만 이용이 가능한 점포 증가로 인하여 노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살펴본 결과 노인 중 87.9%가 카드만 이용이 가능한 점포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31.3%(불편하다+매우 불편하다)는 불편함을 경험하였다. 카드만 이용이 가능한 점포 이용에 따른 불편함은 타 정보화 기기 이용에 비해 경험률은 높고 불편율은 낮은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카드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카드만 이용이 가능한 점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동부 노인은 90.5%, 읍·면부 노인은 79.7%로 동부 노인의 경험률이 더 높으며,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읍·면부 노인의 비율이 더 높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카드만 이용이 가능한 점포를 이용한 경험률은 남자 노인 91.3%, 여자 노인 85.3%로 남자 노인의 비율이 높았으며,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여자 노인이 34.5%로 남자 노인에 비해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카드만 이용이 가능한 점포를 이용한 경험률은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낮았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유배우 노인은 카드만 이용이 가능한 점포를 이용한 경험한 비율이 90.8%로 무배우 노인에 비해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무배우 노인이 38.6%로 높았다. 가구형태에 따라서는 노인부부가구의 경험률이 90.5%로 가장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자녀동거가구가 28.7%로 가장 낮았으며, 노인독거가구의 경험률은 82.5%로 가장 낮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41.1%로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카드만 이용이 가능한 점포를 이용한 경험률이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았다. 특히나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경우 98.7%가 카드만 이용이 가능한 점포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취업 노인의 카드만 이용이 가능한 점포를 이용한 경험률은 93.0%로 미취업 노인에 비해 높았으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미취업 노인이 34.1%로 높았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카드만 이용이 가능한 점포를 이용한 경험률은 높으며,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낮았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도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노인의 카드만 이용이 가능한 점포를 이용한 경험률은 높고, 불편함 경험률은 낮았다.

전체적으로 카드만 이용이 가능한 점포를 이용한 경험률과 불편함을 느낀 비율은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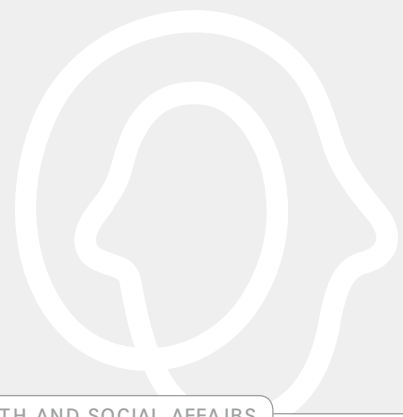
〈표 10-46〉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신용카드, 체크카드만 이용 가능한 점포 증가로 인한 불편함 정도

(단위: %, 명)

특성	이용한 경험 있음 ¹⁾	불편함 정도 ²⁾					계 (명)
		전혀불편하 지않다	불편하지 않다	보통이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전체	87.9	11.0	26.0	31.7	23.6	7.7	100.0 (8,727)
지역							
동부	90.5	12.5	27.8	30.5	22.0	7.2	100.0 (6,804)
읍·면부	79.7	5.6	19.6	35.8	29.4	9.6	100.0 (1,923)
성							
남자	91.3	14.0	27.6	31.1	21.7	5.7	100.0 (3,908)
여자	85.3	8.6	24.7	32.2	25.2	9.3	100.0 (4,819)
연령							
65~69세	97.0	18.0	32.2	30.3	16.3	3.3	100.0 (3,238)
70~74세	91.2	9.4	25.8	34.7	24.3	5.8	100.0 (2,115)
75~79세	85.9	6.5	22.4	32.1	28.8	10.2	100.0 (1,942)
80~84세	76.0	4.2	16.8	31.2	32.7	15.1	100.0 (1,084)
85세 이상	59.7	2.0	18.5	25.9	30.8	22.8	100.0 (35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0.8	12.9	26.7	32.3	22.3	5.9	100.0 (6,090)
배우자 없음	81.7	6.6	24.5	30.3	26.8	11.8	100.0 (2,637)
가구형태							
노인독거	82.5	7.1	20.9	30.9	29.8	11.3	100.0 (1,639)
노인부부	90.5	12.1	25.3	33.3	23.3	5.9	100.0 (5,291)
자녀동거	85.4	11.6	32.8	27.0	19.1	9.6	100.0 (1,653)
기타	89.0	8.2	29.5	32.9	19.2	10.3	100.0 (146)
교육수준							
무학	64.2	0.8	17.4	31.6	34.6	15.7	100.0 (656)
초등학교	84.0	3.9	19.9	31.3	32.4	12.5	100.0 (2,632)
중학교	90.0	7.9	25.0	35.9	24.6	6.6	100.0 (2,092)
고등학교	96.7	16.9	33.5	31.7	14.9	3.0	100.0 (2,762)
전문대학 이상	98.7	37.5	31.7	18.1	9.7	2.9	100.0 (586)
현취업상태							
취업중	93.0	12.7	28.4	32.1	21.3	5.4	100.0 (3,304)
미취업	85.0	9.9	24.5	31.4	25.0	9.1	100.0 (5,422)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3.5	6.3	22.0	30.0	31.3	10.4	100.0 (1,659)
제2오분위	83.2	5.1	20.5	33.0	30.1	11.2	100.0 (1,653)
제3오분위	87.7	9.9	23.6	36.3	23.0	7.2	100.0 (1,746)
제4오분위	92.1	13.0	30.0	32.6	19.0	5.4	100.0 (1,830)
제5오분위	92.9	19.5	32.8	26.6	16.2	4.9	100.0 (1,83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3.3	6.0	21.3	32.1	30.4	10.2	100.0 (3,272)
50%이상~100%미만	88.0	10.1	26.4	33.7	21.9	8.0	100.0 (2,931)
100%이상~150%미만	93.4	16.7	31.7	29.3	17.7	4.7	100.0 (1,512)
150%이상	96.1	21.3	31.6	28.0	15.9	3.3	100.0 (1,014)
기능상태							
제한 없음	90.3	11.5	26.7	32.2	22.8	6.8	100.0 (7,974)
제한 있음	68.6	5.2	18.5	25.8	32.7	17.7	100.0 (75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2) 알지 못하거나 이용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이를 제외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다~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분석 함.



제11장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제1절 주거 및 지역환경

제2절 안전 실태

제3절 연령 규범 및 연령 차별

제4절 웰다잉(well-dying) 인식 및 죽음 관련 준비

제5절 삶의 만족도

제6절 노인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욕구

제 11 장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제1절 주거 및 지역 환경

노후에도 지역사회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노년기 삶에서 주거와 지역 환경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년기는 이전 연령대에 비해 사회활동이 감소하고 활동하는 반경이 좁아지면서 집과 근거리의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어 주거 환경과 지역 주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매우 높다. 본 절에서는 노인이 생활하는 주거 실태와 집을 둘러싼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실태, 만족도, 노년기 희망 거주형태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였다.

1. 주거 실태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종류는 단독주택 35.3%, 아파트 48.4%, 연립·다세대 주택이 15.1%, 기타가 1.2%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화와 아파트 중심 주택구성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동부는 아파트의 비중이 54.8%, 연립·다세대 주택이 18.2%로 약 70%가 공동 거주형태를 보인 반면, 읍·면부 지역은 65.9%가 단독주택이며, 아파트 28.5%, 연립·다세대 주택 5.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초기 노인의 경우 아파트 또는 연립·다세대의 공동 거주형태의 비중이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거일 경우 타 가구형태에 비해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으며, 자녀동거의 경우 아파트 거주 형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파트와 같은 공동거주형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중위소득 대비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거주 주택종류는 거주지역과 연령, 가구형태,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도시지역의 경우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의 비중이 높으며, 후기 노인일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 배우자 유무별, 기능 상태별 거주하는 주택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1〉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택종류

(단위: %, 명)

특성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기타	계 (명)
전체 ¹⁾	35.3	48.4	15.1	1.2	100.0 (10,097)
지역					
동부	25.5	54.8	18.2	1.6	100.0 (7,651)
읍·면부	65.9	28.5	5.6	0.1	100.0 (2,446)
성					
남자	35.3	47.9	15.6	1.1	100.0 (4,346)
여자	35.2	48.8	14.7	1.3	100.0 (5,751)
연령					
65~69세	30.7	51.2	16.3	1.8	100.0 (3,344)
70~74세	33.4	49.0	16.4	1.3	100.0 (2,342)
75~79세	38.5	45.3	15.1	1.1	100.0 (2,292)
80~84세	41.5	45.2	12.9	0.3	100.0 (1,475)
85세 이상	40.1	50.2	9.4	0.3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5.1	48.7	14.9	1.2	100.0 (6,779)
배우자 없음	35.5	47.7	15.5	1.2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40.8	42.1	15.6	1.5	100.0 (1,998)
노인부부	35.9	48.0	15.0	1.2	100.0 (5,898)
자녀동거	27.8	55.7	15.4	1.1	100.0 (2,026)
기타	37.7	50.9	10.9	0.5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47.8	37.6	14.2	0.3	100.0 (1,073)
초등학교	41.7	44.4	12.8	1.1	100.0 (3,198)
중학교	35.1	47.1	16.7	1.0	100.0 (2,356)
고등학교	26.9	55.0	16.3	1.9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19.5	62.6	17.0	0.9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40.4	39.5	18.6	1.4	100.0 (3,564)
미취업	32.5	53.3	13.2	1.1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0.6	43.5	15.2	0.7	100.0 (2,019)
제2오분위	40.2	45.5	13.4	0.8	100.0 (2,020)
제3오분위	38.0	45.3	15.5	1.2	100.0 (2,017)
제4오분위	32.3	49.5	17.2	1.0	100.0 (2,024)
제5오분위	25.3	58.3	14.2	2.2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0.6	44.4	14.3	0.6	100.0 (3,999)
50%이상~100%미만	36.4	46.5	15.9	1.2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26.5	56.1	15.0	2.4	100.0 (1,647)
150%이상	25.0	57.6	15.9	1.6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35.2	48.4	15.1	1.3	100.0 (8,864)
제한 있음	35.7	48.3	15.2	0.8	100.0 (1,233)
2017년도 ²⁾	48.8	35.1	14.6	1.6	100.0 (10,29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017년 노인실태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아파트 거주비율이 13.3%포인트 높아졌으며, 단독주택의 비중은 13.5%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우리나라 주택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9.8%는 자가로 나타났으며 전세가 9.8%, 월세(보증금 유 또는 무) 7.6%, 무상이 2.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거주 노인의 자가 비중이 86.4%로 동부(77.6%)에 비해서 8.8%포인트 높으며, 동부는 11.9%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가 7.4%, 사글세가 0.5%로 나타났다. 무상으로 거주하는 비율은 읍·면부가 3.5%로 동부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자가의 비중이 높으며, 여자는 남자에 비해 전세, 월세, 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약소한 차이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사글세, 무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고연령에서 주거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거나 독거노인의 경우 자가의 비중이 낮고, 전세, 월세, 무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독거노인은 64.5%가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14.1%가 전세, 14.2%는 보증금 있는 월세, 5.7%가 무상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주거 안정성이 특히 낮음을 볼 수 있다.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기준으로 할 때 중위소득 50% 미만인 노인은 76.0%가 자가 거주인 반면, 150% 이상의 노인의 87.7%가 자가 거주로 나타나 주거형태에서 소득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기능 상태별로는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월세, 무상의 비중이 높고,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자가의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노인주택의 안전을 위한 주거 개조 지원 정책에서 자가 거주가 아닌 임대 주택(전세, 월세 등)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2017년과 비교할 때 자가의 비중은 약 8.9%포인트 높아졌으며, 전월세의 비중은 2.2%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무상 거주 비중이 6.7%포인트 낮아졌다.

〈표 11-2〉 노인의 일반특성별 거주형태

(단위: %, 명)

특성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	계 (명)
전체 ¹⁾	79.8	9.8	7.1	0.5	2.8	100.0 (10,097)
지역						
동부	77.6	11.9	7.4	0.5	2.6	100.0 (7,651)
읍·면부	86.4	3.4	6.1	0.5	3.5	100.0 (2,446)
성						
남자	83.4	8.8	5.7	0.4	1.6	100.0 (4,346)
여자	77.0	10.6	8.1	0.5	3.7	100.0 (5,751)
연령						
65~69세	83.0	10.8	4.9	0.4	0.9	100.0 (3,344)
70~74세	81.8	9.4	6.8	0.5	1.6	100.0 (2,342)
75~79세	78.2	8.9	9.3	0.4	3.2	100.0 (2,292)
80~84세	76.0	9.6	8.3	0.7	5.4	100.0 (1,475)
85세 이상	69.9	10.6	8.8	0.8	10.0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6.1	7.8	4.5	0.2	1.4	100.0 (6,779)
배우자 없음	66.9	14.0	12.3	1.1	5.7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64.5	14.1	14.2	1.4	5.7	100.0 (1,998)
노인부부	86.0	7.8	4.6	0.2	1.5	100.0 (5,898)
자녀동거	77.5	11.2	7.5	0.3	3.4	100.0 (2,026)
기타	70.8	14.4	4.0	2.1	8.8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72.1	8.7	10.5	0.9	7.8	100.0 (1,073)
초등학교	77.4	8.9	9.5	0.7	3.5	100.0 (3,198)
중학교	80.2	10.8	6.6	0.4	2.0	100.0 (2,356)
고등학교	84.3	10.0	4.2	0.2	1.2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82.6	12.5	3.6	0.0	1.3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82.3	10.4	5.5	0.3	1.4	100.0 (3,564)
미취업	78.4	9.5	7.9	0.6	3.6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0.8	10.8	12.2	0.8	5.3	100.0 (2,019)
제2오분위	77.4	8.8	9.7	0.6	3.4	100.0 (2,020)
제3오분위	81.6	8.9	7.0	0.6	2.0	100.0 (2,017)
제4오분위	84.0	9.8	4.2	0.2	1.8	100.0 (2,024)
제5오분위	85.0	10.9	2.2	0.1	1.7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6.0	8.9	10.4	0.6	4.1	100.0 (3,999)
50%이상~100%미만	80.7	9.7	6.9	0.6	2.1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81.9	12.3	3.2	0.3	2.4	100.0 (1,647)
150%이상	87.7	10.2	1.3	0.0	0.8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80.9	9.9	6.4	0.4	2.3	100.0 (8,864)
제한 있음	71.5	9.2	11.7	0.8	6.8	100.0 (1,233)
2017년도 ²⁾	70.9	7.3	11.3	1.0	9.5	100.0 (10,23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인의 주택 안전성을 살펴보면 지하 또는 반지하의 거주비율은 1.2%, 옥탑은 나타나지 않으며, 98.7%인 대부분의 노인이 지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3〉 참조).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지하 또는 반지하의 거주비율은 2.0%포인트 낮아진 결과이다. 노인의 특성별 주거 위치를 살펴보면, 지하 또는 반지하 거주 비율은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이 1.5%로 읍면부에 비해 다소 높으며, 성별로는 여자 노인,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2.1%, 노인독거가구 2.2%,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낮을수록,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 주택의 위치가 지하 또는 반지하로 나타나 부적합한 주택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주택의 방수는 평균 2.9개이며, 응답자의 특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생활 편리성은 조사를 실시한 조사원에 의해 파악하도록 하여 〈표 11-4〉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 노인 주택의 8.9%는 생활하기에 불편한 구조이며, 71.3%는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배려 설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비율은 19.8%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춘 비율이 13.7%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안전 설비 설치에 대한 정책의 확대, 아파트 중심의 도시생활에서의 안전 인테리어 확대를 통해 안전설비가 확대되었다고 판단되어진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노인이 동부 지역 거주 노인에 비해 불편한 주택에서 거주하며, 성별로는 여자,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불편한 구조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거가구,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을 경우 거주하는 주택의 구조가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의 경우 생활편리성을 위한 구조, 설비가 마련되는 반면, 단독주택은 주택별로 편리성이 부족한 상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갖는다.

노인을 배려한 설비 구비에서는 동부, 연령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노인부부 또는 자녀동거 가구, 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기능이 저하되는 후기 노인의 경우 안전설비 등의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연령, 기능제한자의 경우 거주하는 주택의 안전 설비 설치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정책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

〈표 11-3〉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거위치

(단위: %, 명)

특성	주거위치			평균 방 개수	계 (명)
	지하 또는 반지하	지상	옥탑		
전체 ¹⁾	1.2	98.7	0.0	2.9	100.0 (10,097)
지역					
동부	1.5	98.5	0.0	2.9	100.0 (7,651)
읍·면부	0.5	99.4	0.0	2.9	100.0 (2,446)
성					
남자	1.1	98.9	0.0	3.0	100.0 (4,346)
여자	1.4	98.6	0.1	2.8	100.0 (5,751)
연령					
65~69세	0.9	99.1	0.0	2.9	100.0 (3,344)
70~74세	0.6	99.3	0.0	2.9	100.0 (2,342)
75~79세	1.6	98.3	0.0	2.9	100.0 (2,292)
80~84세	2.0	98.0	0.1	2.8	100.0 (1,475)
85세 이상	2.2	97.8	0.0	2.8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8	99.2	0.0	3.0	100.0 (6,779)
배우자 없음	2.1	97.9	0.0	2.7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2.2	97.7	0.0	2.5	100.0 (1,998)
노인부부	0.9	99.1	0.0	2.9	100.0 (5,898)
자녀동거	1.3	98.7	0.0	3.1	100.0 (2,026)
기타	0.6	99.4	0.0	2.8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2.7	97.2	0.1	2.7	100.0 (1,073)
초등학교	1.2	98.8	0.0	2.8	100.0 (3,198)
중학교	1.2	98.8	0.0	2.9	100.0 (2,356)
고등학교	0.9	99.1	0.0	3.0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0.6	99.4	0.0	3.2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1.2	98.8	0.0	2.9	100.0 (3,564)
미취업	1.2	98.7	0.0	2.9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	98.4	0.0	2.6	100.0 (2,019)
제2오분위	1.7	98.2	0.1	2.7	100.0 (2,020)
제3오분위	1.5	98.5	0.0	2.9	100.0 (2,017)
제4오분위	1.0	99.0	0.0	3.0	100.0 (2,024)
제5오분위	0.5	99.5	0.0	3.3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6	98.3	0.1	2.7	100.0 (3,999)
50%이상~100%미만	1.3	98.7	0.0	2.9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0.9	99.1	0.0	3.1	100.0 (1,647)
150%이상	0.4	99.6	0.0	3.2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1	98.9	0.0	2.9	100.0 (8,864)
제한 있음	2.4	97.5	0.1	3.1	100.0 (1,233)
2017년도 ²⁾	3.2	96.6	0.2	3.1	100.0 (10,29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4〉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택의 생활편리성(조사원 판단)

(단위: %, 명)

특성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배려설비 없음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음	계 (명)
전체 ¹⁾	8.9	71.3	19.8	100.0 (10,097)
지역				
동부	7.3	72.6	20.0	100.0 (7,651)
읍·면부	13.8	67.3	18.9	100.0 (2,446)
성				
남자	7.5	72.1	20.3	100.0 (4,346)
여자	9.9	70.7	19.4	100.0 (5,751)
연령				
65~69세	6.6	70.1	23.4	100.0 (3,344)
70~74세	8.3	71.3	20.4	100.0 (2,342)
75~79세	8.4	74.8	16.8	100.0 (2,292)
80~84세	14.1	69.1	16.8	100.0 (1,475)
85세 이상	12.6	71.0	16.4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9	71.3	20.8	100.0 (6,779)
배우자 없음	11.0	71.4	17.6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12.7	71.8	15.5	100.0 (1,998)
노인부부	7.9	71.1	21.0	100.0 (5,898)
자녀동거	7.7	72.3	20.0	100.0 (2,026)
기타	11.6	64.2	24.2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4.5	71.9	13.7	100.0 (1,073)
초등학교	11.4	72.3	16.3	100.0 (3,198)
중학교	8.5	73.7	17.7	100.0 (2,356)
고등학교	5.0	70.2	24.8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5.6	61.3	33.1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10.1	70.7	19.3	100.0 (3,564)
미취업	8.2	71.7	20.1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3	73.9	13.8	100.0 (2,019)
제2오분위	11.4	70.3	18.3	100.0 (2,020)
제3오분위	9.1	72.7	18.2	100.0 (2,017)
제4오분위	7.6	70.7	21.6	100.0 (2,024)
제5오분위	4.0	69.0	27.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1.9	71.9	16.2	100.0 (3,999)
50%이상~100%미만	8.9	72.6	18.5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5.0	71.3	23.8	100.0 (1,647)
150%이상	3.8	65.2	31.0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7.9	72.1	20.0	100.0 (8,864)
제한 있음	15.8	66.0	18.1	100.0 (1,233)
2017년도	9.9	84.0	6.1	100.0 (10,29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인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11-5>와 같다. 응답자의 9.9%는 매우 만족하며, 만족하는 비율은 65.7%로 75.6%는 만족(매우만족+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3.5%, 전혀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0.2%로 나타났다. 노인의 3/4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만족하는 비율이 76.5%로 읍·면부의 72.1%로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5.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69세의 경우 매우 만족하는 비율이 12.9%, 만족이 66.8%로 노인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 수준을 보였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 수준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0세 이후의 경우 불만족(만족하지 않음+전혀 만족하지 않음)의 비율이 80세 미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결혼 상태에서는 무배우에 비해 유배우가 주택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 자녀동거 가구, 기타가구, 노인독거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노인독거의 경우는 68.0%가 만족(매우 만족+만족), 5.9%는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에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29.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에서도 매우 만족이 11.9%, 만족이 71.4%로 상당수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에서는 취업중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없는 경우 만족하는 비율이 77.0%, 제한이 있는 경우는 64.1%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불만족하는 비율은 7.0%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주택 만족도는 3.3%포인트 낮아졌으며, 불만족 비율 또한 4.7%포인트 낮아져 만족도의 큰 변화는 없다.

〈표 11-5〉 노인의 일반특성별 거주 주택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체 ¹⁾	9.9	65.7	20.7	3.5	0.2	100.0 (9,930)
지역						
동부	10.2	66.5	20.0	3.1	0.2	100.0 (7,518)
읍·면부	8.9	63.2	23.0	4.7	0.2	100.0 (2,413)
성						
남자	11.9	66.8	18.1	2.9	0.3	100.0 (4,281)
여자	8.4	64.8	22.6	3.9	0.2	100.0 (5,649)
연령						
65~69세	12.9	66.8	17.9	2.3	0.1	100.0 (3,337)
70~74세	9.0	67.4	19.5	3.8	0.3	100.0 (2,319)
75~79세	7.7	66.4	22.5	3.2	0.3	100.0 (2,262)
80~84세	8.7	60.6	24.3	5.9	0.5	100.0 (1,426)
85세 이상	7.6	61.2	25.9	5.2	0.2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0.8	67.8	18.5	2.7	0.2	100.0 (6,704)
배우자 없음	8.0	61.2	25.3	5.1	0.3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7.1	60.9	26.1	5.5	0.4	100.0 (1,985)
노인부부	11.0	67.5	18.5	2.8	0.2	100.0 (5,847)
자녀동거	9.4	65.0	22.0	3.4	0.2	100.0 (1,935)
기타	8.9	66.7	17.9	6.5	0.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4.7	57.9	30.0	6.7	0.8	100.0 (1,023)
초등학교	7.4	64.7	23.5	4.3	0.2	100.0 (3,134)
중학교	8.3	65.5	23.0	3.2	0.0	100.0 (2,323)
고등학교	11.9	71.4	14.6	2.0	0.1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9.0	57.1	10.6	2.4	0.9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11.5	66.2	18.7	3.4	0.2	100.0 (3,554)
미취업	9.0	65.4	21.8	3.5	0.2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6	63.5	23.2	4.2	0.4	100.0 (1,986)
제2오분위	7.5	62.5	24.5	5.3	0.2	100.0 (1,987)
제3오분위	8.9	66.2	21.3	3.6	0.1	100.0 (1,991)
제4오분위	9.8	67.1	19.3	3.3	0.5	100.0 (1,987)
제5오분위	14.7	69.1	15.1	1.1	0.0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9	63.8	23.6	4.5	0.3	100.0 (3,927)
50%이상~100%미만	9.4	65.5	21.0	3.8	0.3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10.1	69.7	17.7	2.3	0.1	100.0 (1,618)
150%이상	18.7	66.8	13.5	0.9	0.0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5	66.5	19.7	3.2	0.2	100.0 (8,832)
제한 있음	5.2	58.9	28.9	6.3	0.7	100.0 (1,098)
2017년도	11.3	67.6	12.7	7.5	0.9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주방, 화장실, 욕실 등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응답이 32.3%이며, 다음이 일상생활을 하기에 공간이 좁아서가 19.4%, 주택의 출입이 불편해서(출입구, 계단 등)가 10.2%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개보수 등 주거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가 9.9%, 방음이나 채광에 문제가 있어서 9.7%, 안전관리, 보수 등 관리가 힘들어서 9.6%, 냉난방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가 8.1%로 나타났다. 즉, 주택 공간, 설비 부족 등의 불만족이 50.6%로 가장 높으며, 공간 부족, 관리 어려움, 방음 및 채광 등의 문제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부 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은 만큼 주방이나 화장실 등의 사용 불편함의 비중이 49.6%로 매우 높으며, 동부의 경우는 공간의 부족과 주방, 화장실 등의 사용 불편함이 25.5%와 24.0%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 출입 불편, 주방, 화장실, 욕실의 사용 불편함, 냉난방 등 편의 시설 부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주거비용, 안전관리 등 관리의 어려움, 좁은 공간, 방음과 채광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유배우일 경우 공간 부족의 이유가 높게 나타나며, 가구형태에서는 독거가구의 경우 주방, 욕실 등의 사용 불편함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보수 비용 부담, 안전관리의 어려움, 방음과 채광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반면 노인부와 자녀동거 가구의 경우 타 가구형태에 비해 좁은 공간으로 인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중위소득 50% 미만 노인의 경우 주방, 화장실 등의 사용 불편이 29.2%로 가장 높으며, 공간의 부족이 21.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11-6〉 노인의 지역·성별 거주주택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특성	주방, 화장실, 욕실 등 사용 불편	냉난방 등 편의시설 미비	방음이나 채광에 문제	안전관리, 보수 등 관리 어려움	임차료, 주거관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상생활을 하기에 협소한 공간	주택의 출입 불편(출입구 관련, 계단 등)	기타	계 (명)
전체 ¹⁾	32.3	8.1	9.7	9.6	9.9	19.4	10.2	0.8	100.0 (371)
지역									
동부	24.0	7.8	9.6	8.7	11.0	25.5	12.4	1.0	100.0 (251)
읍·면부	49.6	8.7	10.0	11.4	7.5	6.7	5.7	0.5	100.0 (120)
성									
남자	32.1	9.7	10.4	10.0	9.5	20.2	7.4	0.6	100.0 (136)
여자	32.4	7.1	9.3	9.3	10.1	19.0	11.9	0.9	100.0 (234)
연령									
65~69세	22.9	6.6	13.4	13.4	12.4	24.5	4.5	2.4	100.0 (78)
70~74세	29.3	2.4	11.7	5.4	19.4	19.7	11.3	0.7	100.0 (93)
75~79세	45.8	5.3	7.8	11.1	4.9	16.7	8.4	0.0	100.0 (77)
80~84세	31.8	15.3	8.2	10.0	5.3	15.4	13.3	0.6	100.0 (91)
85세 이상	32.3	14.6	3.5	7.5	0.7	24.1	17.2	0.0	100.0 (3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2.0	9.7	7.2	8.8	9.5	26.0	5.9	1.0	100.0 (196)
배우자 없음	32.6	6.3	12.5	10.4	10.3	12.1	15.1	0.7	100.0 (175)
가구형태									
노인독거	36.2	9.5	15.5	12.1	11.2	7.8	6.9	0.9	100.0 (117)
노인부부	32.5	9.4	8.0	9.1	9.5	23.8	6.6	1.1	100.0 (174)
자녀동거	24.2	3.7	4.4	5.7	9.9	25.9	26.2	0.0	100.0 (69)
기타	45.7	0.0	6.9	15.5	0.0	31.9	0.0	0.0	100.0 (11)
교육수준									
무학	44.7	14.5	3.9	9.2	3.9	7.9	14.5	1.3	100.0 (76)
초등학교	36.7	5.8	10.1	12.9	8.6	18.7	6.5	0.7	100.0 (139)
중학교	21.1	6.6	9.2	9.2	15.8	22.4	13.2	2.6	100.0 (76)
고등학교	26.2	3.3	14.8	6.6	11.5	29.5	8.2	0.0	100.0 (61)
전문대학 이상	10.5	15.8	15.8	0.0	15.8	26.3	15.8	0.0	100.0 (19)
현취업상태									
취업중	40.3	7.8	5.4	11.6	10.9	17.1	6.2	0.8	100.0 (130)
미취업	28.2	8.4	12.0	8.3	9.2	20.6	12.5	0.9	100.0 (24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2.6	9.8	13.0	14.1	9.8	10.9	8.7	1.1	100.0 (92)
제2오분위	28.8	9.9	9.0	7.2	9.0	24.3	9.9	1.8	100.0 (111)
제3오분위	45.2	5.5	5.5	6.8	12.3	21.9	2.7	0.0	100.0 (73)
제4오분위	25.7	8.1	8.1	10.8	10.8	13.5	23.0	0.0	100.0 (74)
제5오분위	28.6	0.0	14.3	9.5	4.8	42.9	0.0	0.0	100.0 (2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9.2	9.5	9.9	12.0	8.0	21.0	8.9	1.7	100.0 (186)
50%이상	39.4	8.0	6.6	4.5	13.7	18.8	9.0	0.0	100.0 (136)
100%미만									
100%이상	21.9	3.8	13.2	18.0	8.3	11.0	23.8	0.0	100.0 (39)
150%미만									
150%이상	32.8	0.0	34.6	0.0	0.0	32.69	0.0	0.0	100.0 (10)
기능상태									
제한 없음	33.3	8.0	9.4	9.4	10.3	19.3	9.7	0.6	100.0 (294)
제한 있음	28.1	8.2	10.9	10.1	8.4	20.1	12.4	1.9	100.0 (77)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37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거주 지역환경 실태 및 만족도

노화가 점차 진행되면서 노년기에는 생활반경은 좁아지게 된다. 특히 운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의 생활시설이 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의 집에서 지역사회의 주요 기관과의 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용품 구매 장소는 걸어서 5분 이내가 14.3%, 5~10분 이내가 53.3%, 10~20분이 21.1%로 약 90%가 도보로 20분 이내에 일상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 기관은 도보 10분 이내가 42.4%로 나타나며, 걸어서 10~20분 이내가 36.7%로 나타났다. 주민센터는 생활용품 구매장소, 보건의료 기관에 비해 다소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나, 20분 이내 위치한 경우는 69.9%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의 공공 여가문화시설의 경우는 걸어서 20분 이내에 위치한 경우는 55.2%, 51.7%로 나타났다. 반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은 걸어서 5분 이내가 16.2%, 걸어서 5~10분 이내가 54.9%로, 71.1%는 도보 10분 이내에 버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책,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은 14.3%가 5분 미만 거리에 위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5~10분 미만이 47.3%로 나타났다.

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요 기관들과의 거리는 응답자 개인의 특성별 차이보다는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¹³⁾. 지역별 주요 기관/인프라와의 도보 이동거리는 걸어서 30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동부와 읍·면부의 차이를 기술하고자 한다. 주요 기관(시설물)과의 거리는 적극적 지역사회 활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 용품 구매 장소는 동부에서는 대부분이 걸어서 20분 이내에 일상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반면, 읍·면부의 경우 걸어서 30분 이상인 경우는 19.9%로 높게 나타났다. 보건의료기관, 주민센터의 경우 읍·면부 지역은 도보 30분 이상이 26.7%, 29.3%로 도시지역의 약 10% 수준과 비교할 때 매우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노인이 사회참여를 하는 주요 기관인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 회관 등은 읍·면부의 경우 36.8%와 37.8%가 걸어서 30분 이상 거리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13) 응답자의 일반특성별 개별 주요기관까지의 도보 이동시간에 대한 구체적 분석내용은 <부표 II-11-1>~<부표 II-11-7>까지를 참고

며, 동부의 경우는 각각이 14.7%, 18.0%로 나타났다. 버스/지하철 정류장은 10분 이내에 위치하는 비율이 동부는 74.1%, 읍·면부는 61.9%로 타 기관과의 동부와 읍·면부와의 차이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읍·면부의 경우 버스/지하철 정류장과의 거리가 도보 30분 이상인 경우도 5.8%로 나타났다. 산책,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은 10분 이내에 위치하는 비율이 동부와 읍·면부 모두 62.7%와 58.6%로 나타났다.

동부에 비해 읍면부 지역의 경우 노인이 생활에 필요로 하는 상점, 보건의료, 공공기관, 사회참여기관 등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기관이 거리가 멀게 위치함에 따라 접근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진다.

〈표 11-7〉 노인의 주요 기관 및 시설과의 도보 이동시간 : 지역별 분포

(단위: %, 명)

특성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걸어서 10분 ~20분	걸어서 20분 ~30분	걸어서 30분 이상	계 (명)
일상용품 구매장소	14.3	53.3	21.1	5.7	5.6	100.0 (10,097)
동부	16.6	58.2	20.0	4.2	1.0	100.0 (7,651)
읍·면부	7.2	37.8	24.6	10.5	19.9	100.0 (2,446)
보건의료기관	6.9	35.5	36.7	11.7	9.2	100.0 (10,097)
동부	8.3	39.9	37.6	10.5	3.6	100.0 (7,651)
읍·면부	2.4	21.6	33.8	15.4	26.7	100.0 (2,446)
주민센터	5.2	27.5	37.2	19.3	10.8	100.0 (10,097)
동부	6.0	30.9	39.7	18.6	4.9	100.0 (7,651)
읍·면부	2.8	16.9	29.5	21.5	29.3	100.0 (2,446)
노인복지관	3.9	20.8	30.5	24.8	20.1	100.0 (10,097)
동부	4.3	22.9	32.2	25.9	14.7	100.0 (7,651)
읍·면부	2.7	14.2	24.9	21.4	36.8	100.0 (2,446)
사회복지관 등	3.6	19.1	29.0	25.5	22.8	100.0 (10,097)
동부	4.3	20.9	30.5	26.4	18.0	100.0 (7,651)
읍·면부	1.7	13.5	24.5	22.5	37.8	100.0 (2,446)
버스/지하철 정류장	16.2	54.9	22.8	4.3	1.8	100.0 (10,097)
동부	17.8	56.3	22.0	3.4	0.5	100.0 (7,651)
읍·면부	11.3	50.6	25.2	7.2	5.8	100.0 (2,446)
공원	14.5	47.3	30.7	5.4	2.2	100.0 (10,097)
동부	13.6	49.1	31.6	4.7	1.0	100.0 (7,651)
읍·면부	17.1	41.5	28.0	7.7	5.7	100.0 (2,44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노인의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은 편의시설, 교통, 안전과 같은 외적 인프라와 함께 자녀/친지, 이웃 교류 등의 전반에 있어서 개인적 차이를 보인다(〈표 11-8〉 참조). 이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지역사회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나게 된다. 노인의 지역사회 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이 6.9%, 만족이 57.0%, 그저 그렇다가 32.1%, 불만족이 3.6%, 전혀 만족 않음이 0.3%로 만족하고 있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과의 거리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포함하여 70.0%이며, 대중교통 빈도/노선은 67.9%, 녹지공간의 충분성과 거리는 65.3%, 치안, 교통안전은 65.0%, 자녀 또는 친지와 거리는 55.6%, 이웃과의 교류는 67.8%로 편의시설이나 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으며, 관계에서는 이웃과의 교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불만족과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불만의 비율은 자녀 또는 친지의 거주지와의 거리가 10.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편의시설 거리에 대한 불만 비율이 그다음인 8.1%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8〉 노인의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전혀 만족않음	계 ¹⁾ (명)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 거리	7.6	62.4	21.8	6.3	1.8	100.0 (9,930)
대중교통 빈도/노선	14.3	53.6	24.7	6.1	1.4	100.0 (9,930)
녹지공간,공간 충분성 또는 거리	19.8	45.5	29.1	4.8	0.7	100.0 (9,930)
치안, 교통안전	13.1	51.9	29.2	4.9	1.0	100.0 (9,930)
자녀 또는 친지의 거주지와의 거리	9.8	45.8	33.7	9.3	1.4	100.0 (9,930)
이웃과의 교류기회	12.0	55.8	28.3	3.6	0.3	100.0 (9,930)
지역사회 환경 전반	6.9	57.0	32.1	3.6	0.3	100.0 (9,9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인의 특성별 지역의 생활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대한 만족도 <표 11-9>를 살펴보면, 지역, 연령, 가구형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기능상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 거주 노인의 경우 만족의 비율이 75.9%로 읍·면부의 51.9%와 비교할 때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 생활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80~84세의 경우 생활편의시설 거리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1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자녀동거 가구가 노인 독거, 노인부부 가구와 비교할 때 지역 생활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 거주할 경우 동부지역 거주 비율이 높아 생활편의시설과 거리가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육수준은 학력이 높을수록 생활 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소득수준 또한,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의 경우 65.0%가 생활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만족하는 반면 150% 이상에서는 80.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별 만족도는 제한이 있는 노인은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만족도가 약 7.6%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가구형태, 교육수준, 소득수준별 생활 편의시설과의 거리에 대한 만족도의 경향은 거주 지역과의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연령과 기능상태에서는 본인의 외부 활동에서의 자립 능력이 낮은 고연령 집단과 기능 제한 노인의 경우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역환경의 대중교통의 빈도/노선에 대한 만족도는 <표 11-10>에서 제시하였다. 거주지역, 연령, 가구형태, 소득분위, 기능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특히 거주지역별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나 동부는 74.1%가 만족하는 것에 반해 읍면부는 48.6%만이 만족하고 읍·면부는 17.8%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일반특성에서의 차이는 거주지역별 차이에 비해 크지는 않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으며, 가구형태에서는 자녀동거가구에 비해 노인독거, 노인부부가구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별 차이는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는 64.3%가 만족하지만,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는 68.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지역사회 환경 중 대중교통 빈도/노선에 대한 만족도는 대중교통 체계가 잘 구비되어있는 도시지역이 만족도가 높으며, 그에 반해 농어촌 즉, 읍·면부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의 부족으로 인해 노인의 만족 수준이 낮게 나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 기회가 높아지는 고연령 집단의 경우, 그리고 고연령의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에서의 불편함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결과로 보인다.

거주지역 녹지 공간 충분성 또는 거리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 노인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에 비해 읍·면부의 만족도가 약 3.4%포인트 높게 나타나며,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거 또는 노인부부 가구에 비해 자녀동거가구의 노인이 지역사회 녹지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중졸에 비해 무학, 초졸, 고졸, 전문대학 이상이 녹지 공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소득수준에서는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과 150%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능상태에서는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가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에 비해 약 4.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녹지 공간에 대한 만족도의 결과는 지역적으로 녹지 공간이 많은 농어촌 지역, 도시 정비가 잘 갖추어진 도시지역에 거주할 경우 높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그 외의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취업상태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치안과 교통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지역, 가구형태, 학력, 소득별 차이를 보인다(〈표 11-12〉 참조). 특히 지역별로는 동부에 비해 읍·면부의 만족도가 8.5%포인트 낮게 나타났으며,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61.3% 만족하는 것에 비해 자녀동거가구는 70.3%가 만족하고 있어 가장 높은 자녀동거가구 대비 가장 낮은 노인독거가구의 만족하는 비율은 약 9.0%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 차이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치안, 교통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무학이 60.8%이며, 전문대학 이상은 75.6%로 14.8%포인트의 차이를 나타냈다. 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역의 치안, 교통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치안과 교통 등 안전에 대한 만족도는 학력, 소득, 가구형태,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거주하는 지역의 객관적 안전에 대한 외부 환경과 함께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혼자 거주하는 것에서 오는 심리적 안전감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9〉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역환경 만족도 : 생활 편의시설 거리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그렇다	불만족	전혀 만족않음	계 (명)
전체 ¹⁾	7.6	62.4	21.8	6.3	1.8	100.0 (9,930)
지역						
동부	8.5	67.4	20.0	3.8	0.4	100.0 (7,518)
읍·면부	5.0	46.9	27.7	14.2	6.1	100.0 (2,413)
성						
남자	9.1	61.4	21.4	6.1	2.0	100.0 (4,281)
여자	6.5	63.2	22.2	6.5	1.7	100.0 (5,649)
연령						
65~69세	9.8	64.6	19.8	4.5	1.3	100.0 (3,337)
70~74세	7.4	63.5	21.4	5.7	2.0	100.0 (2,319)
75~79세	6.0	62.5	22.6	6.8	2.2	100.0 (2,262)
80~84세	6.6	56.0	25.2	10.3	1.9	100.0 (1,426)
85세 이상	5.6	61.1	24.2	7.5	1.5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2	62.2	21.7	6.0	1.9	100.0 (6,704)
배우자 없음	6.5	62.8	22.2	7.0	1.5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6.7	59.3	24.1	7.9	2.0	100.0 (1,985)
노인부부	8.1	61.8	21.7	6.2	2.2	100.0 (5,847)
자녀동거	7.1	67.7	19.5	5.0	0.6	100.0 (1,935)
기타	8.2	58.8	27.0	6.0	0.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3.8	51.1	29.9	12.4	2.9	100.0 (1,023)
초등학교	5.9	59.3	24.6	7.5	2.7	100.0 (3,134)
중학교	5.7	67.0	20.5	5.6	1.1	100.0 (2,323)
고등학교	8.9	67.3	18.8	4.1	0.9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5.2	56.7	13.0	3.3	1.7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8.3	60.3	21.6	6.6	3.2	100.0 (3,554)
미취업	7.3	63.6	21.9	6.2	1.0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6	60.3	23.4	7.3	3.5	100.0 (1,986)
제2오분위	6.3	58.5	25.1	7.8	2.3	100.0 (1,987)
제3오분위	7.9	61.4	22.3	6.8	1.7	100.0 (1,991)
제4오분위	7.1	65.2	20.9	5.8	0.9	100.0 (1,987)
제5오분위	11.2	66.7	17.5	3.8	0.6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7	59.3	24.6	7.6	2.9	100.0 (3,927)
50%이상~100%미만	7.6	62.8	21.7	6.7	1.3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8.3	66.6	20.1	4.3	0.8	100.0 (1,618)
150%이상	14.0	66.8	14.8	3.7	0.7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7.8	63.1	21.4	5.9	1.8	100.0 (8,832)
제한 있음	6.2	57.1	25.1	9.6	1.9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10〉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역환경 만족도 : 대중교통 빈도/노선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그렇다	불만족	전혀 만족않음	계 (명)
전체 ¹⁾	14.3	53.6	24.7	6.1	1.4	100.0 (9,930)
지역						
동부	16.5	57.6	21.8	3.7	0.3	100.0 (7,518)
읍·면부	7.5	41.1	33.6	13.3	4.5	100.0 (2,413)
성						
남자	15.0	53.0	24.4	6.1	1.4	100.0 (4,281)
여자	13.8	54.0	24.9	6.0	1.3	100.0 (5,649)
연령						
65~69세	16.8	52.8	24.9	4.4	1.1	100.0 (3,337)
70~74세	14.3	53.6	24.1	6.8	1.3	100.0 (2,319)
75~79세	12.4	55.4	24.5	6.3	1.5	100.0 (2,262)
80~84세	13.5	51.8	24.3	8.5	1.9	100.0 (1,426)
85세 이상	9.4	55.5	27.8	6.1	1.2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8	53.2	24.5	6.1	1.4	100.0 (6,704)
배우자 없음	13.2	54.5	25.1	6.0	1.3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11.5	52.9	26.8	7.2	1.5	100.0 (1,985)
노인부부	14.4	52.8	25.0	6.2	1.6	100.0 (5,847)
자녀동거	16.7	56.6	21.5	4.5	0.6	100.0 (1,935)
기타	17.3	52.5	26.4	3.8	0.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8.6	48.7	29.8	9.6	3.4	100.0 (1,023)
초등학교	11.6	52.1	26.6	7.8	1.9	100.0 (3,134)
중학교	14.3	55.3	24.1	5.5	0.8	100.0 (2,323)
고등학교	16.4	55.7	23.7	3.7	0.5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8.7	52.8	13.1	4.3	1.2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14.9	50.8	24.7	7.3	2.3	100.0 (3,554)
미취업	14.0	55.1	24.7	5.4	0.8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2	49.9	26.2	8.3	2.4	100.0 (1,986)
제2오분위	12.5	51.4	26.9	7.3	2.0	100.0 (1,987)
제3오분위	14.0	52.6	25.8	6.6	1.1	100.0 (1,991)
제4오분위	13.0	55.9	25.3	5.0	0.8	100.0 (1,987)
제5오분위	18.9	58.1	19.4	3.2	0.5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8	50.8	26.3	7.9	2.2	100.0 (3,927)
50%이상~100%미만	13.6	53.2	26.6	5.8	0.9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15.7	58.5	20.4	4.4	0.9	100.0 (1,618)
150%이상	19.9	57.6	19.4	2.7	0.4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7	53.6	24.5	5.9	1.3	100.0 (8,832)
제한 있음	10.8	53.5	26.4	7.7	1.6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11〉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역환경 만족도 : 녹지공간 충분성 또는 거리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그렇다	불만족	전혀 만족않음	계 (명)
전체 ¹⁾	19.8	45.5	29.1	4.8	0.7	100.0 (9,930)
지역						
동부	19.0	45.5	30.5	4.6	0.4	100.0 (7,518)
읍·면부	22.4	45.5	24.9	5.5	1.7	100.0 (2,413)
성						
남자	21.0	45.8	27.6	4.7	0.8	100.0 (4,281)
여자	18.9	45.3	30.2	4.9	0.7	100.0 (5,649)
연령						
65~69세	20.1	45.1	29.8	4.3	0.7	100.0 (3,337)
70~74세	20.2	44.0	29.7	5.5	0.6	100.0 (2,319)
75~79세	20.7	45.8	28.0	4.7	0.8	100.0 (2,262)
80~84세	19.9	45.7	28.0	5.3	1.2	100.0 (1,426)
85세 이상	13.0	51.8	29.8	4.4	0.9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0.7	44.5	29.2	4.9	0.7	100.0 (6,704)
배우자 없음	18.0	47.5	29.0	4.7	0.9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18.2	44.4	30.8	5.5	1.1	100.0 (1,985)
노인부부	20.5	43.7	30.1	5.1	0.6	100.0 (5,847)
자녀동거	19.5	51.5	25.0	3.3	0.7	100.0 (1,935)
기타	22.2	49.2	23.0	5.5	0.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16.1	50.8	23.6	7.9	1.7	100.0 (1,023)
초등학교	20.1	45.1	29.4	4.9	0.6	100.0 (3,134)
중학교	16.9	44.6	33.6	4.4	0.6	100.0 (2,323)
고등학교	20.7	45.9	28.3	4.4	0.7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32.6	40.3	23.6	2.9	0.6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21.8	43.7	29.1	4.6	0.7	100.0 (3,554)
미취업	18.7	46.5	29.1	4.9	0.7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9	42.8	27.8	4.6	1.0	100.0 (1,986)
제2오분위	18.2	46.2	29.1	5.5	1.0	100.0 (1,987)
제3오분위	16.8	47.4	30.2	4.9	0.6	100.0 (1,991)
제4오분위	18.0	44.4	31.7	5.4	0.6	100.0 (1,987)
제5오분위	22.4	46.7	26.7	3.7	0.5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1.0	45.0	28.0	5.2	0.8	100.0 (3,927)
50%이상~100%미만	17.5	46.3	30.3	5.0	0.8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19.3	43.7	31.6	4.7	0.7	100.0 (1,618)
150%이상	23.7	47.4	25.7	2.7	0.5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20.4	45.4	28.7	4.8	0.7	100.0 (8,832)
제한 있음	15.6	45.8	32.4	5.1	1.0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12〉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역환경 만족도 : 치안, 교통안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그렇다	불만족	전혀 만족않음	계 (명)
전체 ¹⁾	13.1	51.9	29.2	4.9	1.0	100.0 (9,930)
지역						
동부	13.7	53.3	28.9	4.0	0.2	100.0 (7,518)
읍·면부	11.1	47.4	30.0	8.0	3.5	100.0 (2,413)
성						
남자	14.5	52.1	27.3	4.9	1.2	100.0 (4,281)
여자	12.0	51.7	30.5	5.0	0.8	100.0 (5,649)
연령						
65~69세	14.8	50.4	29.9	4.3	0.6	100.0 (3,337)
70~74세	13.0	51.5	29.4	5.1	1.0	100.0 (2,319)
75~79세	11.5	53.0	28.3	5.9	1.3	100.0 (2,262)
80~84세	12.2	51.5	29.7	5.2	1.4	100.0 (1,426)
85세 이상	11.5	58.1	25.8	3.5	1.0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3.7	51.7	28.5	5.0	1.1	100.0 (6,704)
배우자 없음	11.7	52.3	30.5	4.8	0.7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11.6	49.7	31.9	5.9	1.0	100.0 (1,985)
노인부부	13.5	50.7	29.3	5.2	1.2	100.0 (5,847)
자녀동거	13.3	57.0	26.1	3.2	0.4	100.0 (1,935)
기타	12.5	57.0	25.8	4.8	0.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10.6	50.2	30.7	6.2	2.3	100.0 (1,023)
초등학교	11.7	51.2	29.9	5.9	1.3	100.0 (3,134)
중학교	12.2	51.3	31.2	4.7	0.6	100.0 (2,323)
고등학교	13.4	54.1	27.8	4.1	0.5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6.0	49.6	20.7	2.7	0.8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13.3	48.8	30.2	5.9	1.8	100.0 (3,554)
미취업	13.0	53.5	28.6	4.4	0.5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3	48.8	29.1	7.6	2.1	100.0 (1,986)
제2오분위	12.7	48.5	32.5	5.0	1.4	100.0 (1,987)
제3오분위	12.1	54.0	28.5	4.8	0.7	100.0 (1,991)
제4오분위	12.8	53.3	29.2	4.4	0.4	100.0 (1,987)
제5오분위	15.6	54.6	26.5	2.9	0.4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3	48.9	30.7	6.3	1.7	100.0 (3,927)
50%이상~100%미만	12.9	53.6	28.3	4.6	0.6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11.4	56.8	28.1	3.4	0.2	100.0 (1,618)
150%이상	18.9	49.7	27.9	3.1	0.4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3.4	51.7	29.0	5.0	1.0	100.0 (8,832)
제한 있음	10.8	53.4	30.6	4.3	1.0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자녀 또는 친지의 거주지와 거리에 대한 만족도 결과인 <표 11-13>을 살펴보면, 교육수준, 가구형태, 소득수준,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지역의 안전에 대한 만족도와 매우 유사한 결과로 도시 특성을 보이는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았고, 전체적으로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이 읍·면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를 반영한 결과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에 비해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자녀 또는 친지와 거거리에 대한 만족도는 14.6%포인트가 높게 나타나며, 노인독거가구에 비해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10.9%포인트 높으며, 소득수준에서도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이 50% 미만에 비해 10.6%포인트가 높게 나타났다.

이웃과의 교류기회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수준과 기능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11-14> 참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웃과의 교류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무학에 비해 16.5%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11.7%포인트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가 동부에 비해 다소 높으며, 연령별로는 80대 미만이 그 이후보다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무배우 노인에 비해 유배우 노인의 만족도가 다소 높으며, 노인독거가구에 비해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이웃과의 교류기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환경 전반에 대한 만족도 결과인 <표 11-15>를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읍·면부에 비해 동부,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독거가구 또는 노인부부가구에 비해 자녀동거가구,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능 제한이 없을 경우 높은 만족도 나타났다. 특히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에서는 만족도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무학의 경우 55.5%가 만족하는 반면 전문대학 이상은 74.2%가 지역환경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서도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의 경우 58.5%가 만족하지만,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에서는 76.8%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표 11-13〉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역환경 만족도 : 자녀 또는 친지와의 거주지 거리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그렇다	불만족	전혀 만족않음	계 (명)
전체 ¹⁾	9.8	45.8	33.7	9.3	1.4	100.0 (9,930)
지역						
동부	10.9	46.6	32.9	8.6	1.1	100.0 (7,518)
읍·면부	6.4	43.3	36.2	11.6	2.4	100.0 (2,413)
성						
남자	10.7	45.6	33.3	8.9	1.4	100.0 (4,281)
여자	9.1	46.0	34.0	9.6	1.4	100.0 (5,649)
연령						
65~69세	11.1	45.6	33.9	8.2	1.3	100.0 (3,337)
70~74세	10.5	43.6	35.2	9.6	1.0	100.0 (2,319)
75~79세	8.5	46.8	33.7	9.3	1.6	100.0 (2,262)
80~84세	8.7	47.5	30.3	11.9	1.6	100.0 (1,426)
85세 이상	7.5	47.4	35.0	8.1	1.9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0.2	45.9	33.3	9.4	1.1	100.0 (6,704)
배우자 없음	8.9	45.6	34.4	9.1	2.0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7.7	42.4	37.0	10.3	2.6	100.0 (1,985)
노인부부	10.1	45.6	33.4	9.7	1.1	100.0 (5,847)
자녀동거	11.5	49.5	30.8	7.1	1.0	100.0 (1,935)
기타	2.8	49.8	37.6	8.9	1.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6.4	44.3	34.3	12.0	3.0	100.0 (1,023)
초등학교	8.5	43.9	36.0	9.9	1.6	100.0 (3,134)
중학교	9.4	45.7	34.2	9.6	1.1	100.0 (2,323)
고등학교	10.6	48.6	32.4	7.7	0.8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0.3	45.0	24.8	8.3	1.5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10.8	45.9	32.5	9.5	1.4	100.0 (3,554)
미취업	9.3	45.7	34.4	9.2	1.4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9.7	44.3	34.5	9.9	1.7	100.0 (1,986)
제2오분위	7.7	44.8	35.5	10.2	1.8	100.0 (1,987)
제3오분위	9.3	45.4	34.8	9.1	1.4	100.0 (1,991)
제4오분위	7.8	47.5	33.5	10.2	0.9	100.0 (1,987)
제5오분위	14.5	46.9	30.2	7.1	1.2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7	44.4	35.5	9.9	1.5	100.0 (3,927)
50%이상~100%미만	8.7	47.0	33.3	9.7	1.3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10.1	46.1	34.4	8.5	0.9	100.0 (1,618)
150%이상	17.1	46.6	27.4	7.0	1.9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2	45.7	33.5	9.2	1.3	100.0 (8,832)
제한 있음	6.3	46.4	35.0	10.3	2.0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14〉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역환경 만족도 : 이웃과의 교류기회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그렇다	불만족	전혀 만족않음	계 (명)
전체 ¹⁾	12.0	55.8	28.3	3.6	0.3	100.0 (9,930)
지역						
동부	12.6	54.6	28.9	3.6	0.3	100.0 (7,518)
읍·면부	9.9	59.7	26.4	3.4	0.6	100.0 (2,413)
성						
남자	12.8	54.6	28.8	3.4	0.4	100.0 (4,281)
여자	11.4	56.7	28.0	3.7	0.3	100.0 (5,649)
연령						
65~69세	13.6	55.4	27.9	2.8	0.3	100.0 (3,337)
70~74세	12.2	55.8	28.2	3.6	0.2	100.0 (2,319)
75~79세	11.2	58.3	27.1	3.3	0.2	100.0 (2,262)
80~84세	10.4	52.9	30.6	5.5	0.6	100.0 (1,426)
85세 이상	9.1	55.5	30.4	4.4	0.6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2.6	55.8	28.0	3.2	0.3	100.0 (6,704)
배우자 없음	10.7	55.7	29.0	4.2	0.4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11.0	54.7	29.0	4.9	0.5	100.0 (1,985)
노인부부	12.6	55.8	27.9	3.4	0.4	100.0 (5,847)
자녀동거	11.4	57.2	28.3	3.0	0.1	100.0 (1,935)
기타	10.2	52.1	35.4	1.8	0.4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8.5	50.6	34.4	5.8	0.7	100.0 (1,023)
초등학교	11.6	55.7	28.2	4.3	0.3	100.0 (3,134)
중학교	11.3	56.3	28.9	3.1	0.4	100.0 (2,323)
고등학교	12.3	57.7	27.3	2.5	0.1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1.3	54.3	21.1	2.4	0.8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13.9	56.8	26.3	2.6	0.3	100.0 (3,554)
미취업	10.9	55.2	29.4	4.1	0.3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9	55.9	25.7	5.3	0.2	100.0 (1,986)
제2오분위	9.9	55.6	30.0	3.9	0.6	100.0 (1,987)
제3오분위	10.7	56.9	28.6	3.5	0.3	100.0 (1,991)
제4오분위	11.2	54.2	31.3	3.0	0.3	100.0 (1,987)
제5오분위	15.2	56.5	25.9	2.1	0.3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1.1	56.1	27.8	4.7	0.3	100.0 (3,927)
50%이상~100%미만	11.1	55.0	30.3	3.2	0.4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11.9	56.6	28.3	3.1	0.1	100.0 (1,618)
150%이상	18.1	56.0	24.1	1.3	0.4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2.4	56.7	27.5	3.1	0.3	100.0 (8,832)
제한 있음	8.8	48.6	34.5	7.2	0.9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15〉 노인의 일반특성별 지역환경 만족도 : 지역사회 환경 전반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그렇다	불만족	전혀	만족않음	계 (명)
전체 ¹⁾	6.9	57.0	32.1	3.6	0.3		100.0 (9,930)
지역							
동부	7.6	58.9	30.6	2.9	0.1		100.0 (7,518)
읍·면부	4.7	51.4	37.1	5.9	0.9		100.0 (2,413)
성							
남자	7.6	57.0	31.1	3.9	0.4		100.0 (4,281)
여자	6.4	57.0	33.0	3.4	0.2		100.0 (5,649)
연령							
65~69세	9.3	57.9	30.0	2.5	0.3		100.0 (3,337)
70~74세	7.4	56.5	32.1	3.9	0.2		100.0 (2,319)
75~79세	5.4	57.8	32.6	4.0	0.3		100.0 (2,262)
80~84세	4.2	55.0	35.1	5.2	0.5		100.0 (1,426)
85세 이상	3.5	56.4	36.1	3.7	0.3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7	56.6	31.6	3.7	0.4		100.0 (6,704)
배우자 없음	5.1	57.9	33.2	3.5	0.2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4.6	54.9	36.2	3.8	0.4		100.0 (1,985)
노인부부	7.6	55.8	32.4	3.8	0.4		100.0 (5,847)
자녀동거	7.0	62.7	27.4	2.9	0.1		100.0 (1,935)
기타	6.8	60.7	29.5	2.9	0.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4.0	51.5	38.1	5.9	0.4		100.0 (1,023)
초등학교	4.8	55.8	34.5	4.6	0.3		100.0 (3,134)
중학교	7.2	56.6	32.4	3.3	0.4		100.0 (2,323)
고등학교	7.6	60.9	29.0	2.3	0.2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18.2	56.0	23.2	2.0	0.6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7.7	55.3	32.8	3.8	0.4		100.0 (3,554)
미취업	6.5	58.0	31.8	3.5	0.3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	52.6	35.9	5.8	0.3		100.0 (1,986)
제2오분위	5.3	54.1	35.5	4.6	0.5		100.0 (1,987)
제3오분위	7.8	56.3	33.2	2.5	0.3		100.0 (1,991)
제4오분위	6.3	58.7	31.6	3.2	0.2		100.0 (1,987)
제5오분위	9.8	63.5	24.5	1.9	0.2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5	53.0	35.8	5.4	0.3		100.0 (3,927)
50%이상~100%미만	7.3	57.6	32.1	2.7	0.3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6.0	60.8	30.3	2.8	0.1		100.0 (1,618)
150%이상	12.4	64.4	21.7	1.1	0.4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7.0	57.6	31.7	3.4	0.3		100.0 (8,832)
제한 있음	6.0	52.7	35.4	5.2	0.7		100.0 (1,098)
2017 ¹⁾	11.0	67.7	12.5	8.2	0.5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 희망 거주 형태 및 주거 서비스 욕구

최근 노인정책의 주요한 비전으로 노인 누구나 본인이 희망한다면 건강이나 외부 환경과 무관하게 노년기에 ‘거주하던 집(지역)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Aging in place)’이 강조되어지고 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노인이 희망하는 거주형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건강이 유지된다는 조건에서의 희망 거주형태는 ‘현재 집에서 계속 산다’의 비중이 83.8%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한다’가 11.2%, ‘식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주택으로 이사한다’의 비중이 4.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건강할 때의 희망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동부에 비해 읍·면부가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유배우일 경우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거가구에 비해 노인부부가구 또는 자녀동거가구의 현재 주거형태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으며, 교육수준에서는 중졸 또는 고졸에 비해 무학, 전문대학 이상에서의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현재 거주지역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며,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에 기능 제한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은, 동부 지역, 연령이 낮을수록, 중졸이나 고졸인 경우, 현 취업상태에서 취업중인 경우, 소득이 높은 경우로 나타났다.

서비스 제공형 노인주택에 대한 선호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형태는 노인독거가구,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85세 이상에서는 8.1%로 서비스 제공형 노인주택을 선호하며, 독거노인은 8.5%,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는 7.3%로 나타났다.

2017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비율은 4.8% 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식사 등 편의시설 제공되는 주택에 들어간다는 비율이 4.7%포인트 증가하였다. 최근 다양한 노인 주택형태의 등장으로 인해 이에 대한 욕구가 약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16〉 노인의 일반특성별 건강 유지 시 희망 거주 형태

(단위: %, 명)

특성	현재 집에서 계속 산다	거주 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한다	식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주택에 들어간다	기타	계 (명)
전체 ¹⁾	83.8	11.2	4.9	0.0	100.0 (9,930)
지역					
동부	82.6	11.9	5.4	0.0	100.0 (7,518)
읍·면부	87.8	8.9	3.3	0.0	100.0 (2,413)
성					
남자	84.3	11.2	4.4	0.0	100.0 (4,281)
여자	83.5	11.2	5.3	0.0	100.0 (5,649)
연령					
65~69세	82.4	13.3	4.3	0.0	100.0 (3,337)
70~74세	82.1	13.0	4.9	0.0	100.0 (2,319)
75~79세	85.9	9.8	4.2	0.0	100.0 (2,262)
80~84세	86.2	7.8	6.0	0.0	100.0 (1,426)
85세 이상	85.5	6.2	8.1	0.2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5.3	11.0	3.7	0.0	100.0 (6,704)
배우자 없음	80.9	11.6	7.5	0.1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79.0	12.4	8.5	0.0	100.0 (1,985)
노인부부	85.4	10.7	3.9	0.0	100.0 (5,847)
자녀동거	84.0	11.7	4.3	0.1	100.0 (1,935)
기타	87.1	8.1	4.8	0.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88.0	6.9	5.1	0.0	100.0 (1,023)
초등학교	86.0	9.8	4.1	0.1	100.0 (3,134)
중학교	81.5	12.6	5.9	0.0	100.0 (2,323)
고등학교	81.6	13.7	4.7	0.0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85.2	8.9	5.9	0.0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82.6	13.1	4.4	0.0	100.0 (3,554)
미취업	84.6	10.2	5.2	0.0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2.4	11.7	5.9	0.0	100.0 (1,986)
제2오분위	86.4	8.0	5.5	0.0	100.0 (1,987)
제3오분위	85.3	11.2	3.5	0.0	100.0 (1,991)
제4오분위	83.3	11.3	5.4	0.0	100.0 (1,987)
제5오분위	81.8	13.8	4.3	0.1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85.5	9.5	5.0	0.0	100.0 (3,927)
50%이상~100%미만	84.2	11.2	4.6	0.0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83.6	11.8	4.6	0.0	100.0 (1,618)
150%이상	76.9	16.6	6.4	0.1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84.2	11.2	4.6	0.0	100.0 (8,832)
제한 있음	80.9	11.8	7.3	0.1	100.0 (1,098)
2017년도	88.6	11.2	0.2	0.0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욕구는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는 희망 거주 형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해 진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실 생각인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56.5%는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는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 친인척과 이사를 하거나 이사 오도록 하여 함께 살기를 희망하였다.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녀 또는 형제, 자매, 친구의 근거리로 이사하여 살고자 하는 비율은 4.9%로 나타났다. 돌봄, 식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이사한다는 비율은 31.3%로 나타났다. 노인의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할 경우 희망 거주 형태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는 결과이다.

거동 불편 시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동부에 비해 읍·면부 지역, 여자에 비해 남자, 유배우일 경우, 노인부부 또는 자녀동거 가구 거주일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일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등 같이 또는 근거리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는 75세 미만 연령에서 75세 이상보다 높게 나타나며, 노인 독거, 고졸, 소득이 높은 경우 높게 나타났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서비스 제공형 주택에 대한 선호는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약 4.3%포인트 높게 나타나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서비스 제공형 시설/주택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85세 이상에서는 37.6%가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69세에서는 29.1%로 나타나 약 8.5%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37.9%가 희망하여 유배우(28.2%)에 비해 9.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가구는 28.1%가 서비스 제공형 시설/주택을 선호하는 것에 비해 자녀동거가구는 32.3%, 노인독거가구는 39.2%, 기타가구는 41.2%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무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위소득 대비 50%~100%와 100%~150% 미만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에서는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 36.0%가 서비스 제공형 시설/주택을 희망하여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30.8%)와 비교할 때 5.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2017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에 거주한다는 비율은 약 1.1%포인트 감소,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간다는 비율은 0.6% 감소와 같이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노인의 2/3은 본인의 집에서 재가서비스 또는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며, 약 1/3은 요양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7〉 노인의 일반특성별 거동 불편시 희망 거주 형태

(단위: %, 명)

특성	(자가서비스를 받으며)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산다	자녀 또는 형제자매 근거리로 이사하여 산다	돌봄, 식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들어간다	기타	계 (명)
전체 ¹⁾	56.5	7.2	4.9	31.3	0.0	100.0 (9,930)
지역						
동부	55.7	7.4	5.3	31.6	0.0	100.0 (7,518)
읍·면부	59.2	6.4	3.9	30.5	0.0	100.0 (2,413)
성						
남자	59.6	7.0	4.4	28.9	0.0	100.0 (4,281)
여자	54.2	7.3	5.3	33.2	0.0	100.0 (5,649)
연령						
65~69세	57.1	7.8	6.0	29.1	0.0	100.0 (3,337)
70~74세	54.7	8.1	5.7	31.4	0.0	100.0 (2,319)
75~79세	59.3	7.0	3.7	29.8	0.1	100.0 (2,262)
80~84세	54.4	5.2	4.2	36.2	0.0	100.0 (1,426)
85세 이상	54.7	5.1	2.6	37.6	0.0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9.2	7.5	5.1	28.2	0.0	100.0 (6,704)
배우자 없음	51.0	6.5	4.5	37.9	0.0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47.5	7.5	5.9	39.2	0.0	100.0 (1,985)
노인부부	58.9	7.6	5.3	28.1	0.0	100.0 (5,847)
자녀동거	58.9	6.0	2.8	32.3	0.0	100.0 (1,935)
기타	52.2	1.8	4.9	41.2	0.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55.5	5.3	3.1	36.0	0.0	100.0 (1,023)
초등학교	59.3	6.6	4.2	29.9	0.0	100.0 (3,134)
중학교	54.2	7.4	5.1	33.2	0.0	100.0 (2,323)
고등학교	55.0	8.3	6.4	30.4	0.0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60.3	6.8	4.2	28.5	0.2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58.3	7.2	5.0	29.5	0.0	100.0 (3,554)
미취업	55.5	7.1	4.9	32.4	0.0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5.4	9.2	4.4	30.9	0.0	100.0 (1,986)
제2오분위	57.2	4.2	4.8	33.8	0.1	100.0 (1,987)
제3오분위	55.2	5.8	6.2	32.8	0.0	100.0 (1,991)
제4오분위	55.7	7.4	5.4	31.5	0.0	100.0 (1,987)
제5오분위	59.2	9.2	3.8	27.7	0.0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7.5	6.5	4.5	31.4	0.0	100.0 (3,927)
50%이상~100%미만	54.1	6.5	5.8	33.6	0.0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57.5	7.6	4.4	30.5	0.0	100.0 (1,618)
150%이상	59.4	10.9	4.4	25.2	0.0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57.1	6.9	5.2	30.8	0.0	100.0 (8,832)
제한 있음	52.2	8.9	2.9	36.0	0.0	100.0 (1,098)
2017년도	57.6	10.3	-	31.9	0.1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인은 거동에 불편이 없는 건강한 상태라면 서비스 제공형 시설/주택이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고 싶은 비율이 95.0%이며(〈표 11-16〉 참조), 거동이 불편할 경우라도 68.6%가 시설이나 노인형 주택이 아닌 ‘집’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것(〈표 11-17〉 참조)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시설이나 노인형 주택이 아닌 지역사회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일상생활지원, 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대해 노인이 인식하는 필요도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가사, 간병, 목욕 등의 일상생활 지원, 정기적 안부 확인이나 응급 시 구조 등의 안전 지원, 의료인이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건강서비스, 병·의원 동행/외출지원 서비스, 각종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상담서비스, 그 외 기타에 대해 필요로 하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들 서비스 중 노인이 집에서 계속 거주를 위해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하다고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은 의료인의 가정 방문 서비스가 69.4%로 가장 높았으며, 병의원이거나 외출 동행이 67.7%, 주거환경개선이 67.4%, 안전 지원이 66.5%, 일상생활지원이 65.1%, 상담서비스가 58.2%로 나타났다. 이들 서비스 중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가정 방문 의료서비스가 25.9%, 안전 서비스가 22.5%, 일상생활지원이 22.2%, 병의원 외출동행이 21.2%, 상담서비스 11.3%, 주거환경 개선 11.0%로 나타났다.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의 제한요인이 건강악화와 일상생활에서 자립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므로 노인의 집으로 찾아오는 건강서비스, 병의원 외출을 지원, 일상생활 지원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들 서비스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타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노인이 인식하는 절실함의 정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의료서비스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18〉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서비스별 필요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	필요	그저 그렇다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 ¹⁾ (명)
주거 환경 개선	11.0	56.4	21.1	9.2	2.2	100.0 (9,930)
일상생활 지원	22.2	42.9	23.6	8.3	3.0	100.0 (9,930)
안전지원	22.5	44.0	22.8	8.2	2.6	100.0 (9,930)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가정 방문서비스	25.9	43.5	20.9	7.1	2.6	100.0 (9,930)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서비스	21.2	46.5	22.2	7.5	2.6	100.0 (9,930)
상담서비스	11.3	46.9	31.0	8.5	2.3	100.0 (9,9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인이 집에서 계속 거주를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중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도에 대한 인식은 읍·면부의 거주 노인이 동부에 비해서,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동거가구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기능상태에 제한 있을 경우에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표11-19〉 참조). 읍·면부 거주자의 경우 69.5%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연령별로는 80~84세의 경우 70.3%,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70.6%, 기능 제한이 있을 경우 75.9%가 노인의 지역 계속거주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능상태 제한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능에 제한이 없는 경우는 66.4%가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제한이 있는 경우에 비해 9.5%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인식은 읍·면부에 거주할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 독거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그리고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을 경우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표 11-20〉 참조). 특히, 기능상태에 따른 필요도에 대한 인식 정도는 차이를 보였다.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는 31.7%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5.6%로 총 필요성을 인식하는 비율은 77.3%로 나타났다. 반면,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는 21.0%가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2.5%로 총 63.5%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표 11-19〉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필요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필요	필요	그저 그렇다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 (명)
전체 ¹⁾	11.0	56.4	21.1	9.2	2.2	100.0 (9,930)
지역						
동부	10.3	56.5	20.4	10.2	2.7	100.0 (7,518)
읍·면부	13.4	56.1	23.5	6.4	0.6	100.0 (2,413)
성						
남자	11.5	55.3	21.4	8.8	3.0	100.0 (4,281)
여자	10.7	57.2	20.9	9.5	1.6	100.0 (5,649)
연령						
65~69세	11.5	55.7	21.1	7.9	3.8	100.0 (3,337)
70~74세	11.2	56.1	22.1	9.1	1.5	100.0 (2,319)
75~79세	10.6	57.9	20.7	9.0	1.8	100.0 (2,262)
80~84세	11.0	59.3	18.9	10.3	0.5	100.0 (1,426)
85세 이상	9.8	48.7	24.3	15.9	1.3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1.4	55.8	21.3	9.0	2.5	100.0 (6,704)
배우자 없음	10.3	57.7	20.8	9.7	1.6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11.0	56.2	23.3	8.3	1.3	100.0 (1,985)
노인부부	11.4	55.2	22.1	8.7	2.6	100.0 (5,847)
자녀동거	9.9	60.7	16.2	11.2	2.0	100.0 (1,935)
기타	13.5	50.0	18.9	17.6	0.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10.9	52.3	23.3	12.6	0.9	100.0 (1,023)
초등학교	9.4	58.3	21.4	9.6	1.3	100.0 (3,134)
중학교	10.7	57.6	21.8	7.9	2.0	100.0 (2,323)
고등학교	12.5	56.7	20.5	8.6	1.7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14.0	47.6	16.4	10.0	12.0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11.1	58.4	19.9	7.4	3.2	100.0 (3,554)
미취업	11.0	55.3	21.8	10.3	1.6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8	58.6	22.7	6.8	1.1	100.0 (1,986)
제2오분위	10.1	59.7	21.6	7.6	1.0	100.0 (1,987)
제3오분위	12.0	53.7	23.2	9.9	1.2	100.0 (1,991)
제4오분위	10.7	56.0	21.0	10.0	2.2	100.0 (1,987)
제5오분위	11.6	54.0	17.1	11.8	5.4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0.6	59.1	22.3	7.1	0.9	100.0 (3,927)
50%이상~100%미만	11.3	54.2	22.2	10.9	1.4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12.4	55.6	18.1	11.5	2.4	100.0 (1,618)
150%이상	9.7	54.4	18.4	8.6	8.9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3	56.1	21.9	9.4	2.3	100.0 (8,832)
제한 있음	17.0	58.9	15.0	8.3	0.8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20〉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일상생활 지원 필요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필요	필요	그저 그렇다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 (명)
전체 ¹⁾	22.2	42.9	23.6	8.3	3.0	100.0 (9,930)
지역						
동부	20.1	43.0	24.4	9.1	3.4	100.0 (7,518)
읍·면부	28.7	42.5	21.1	5.6	2.0	100.0 (2,413)
성						
남자	22.6	41.7	23.4	8.2	4.1	100.0 (4,281)
여자	21.9	43.8	23.7	8.3	2.2	100.0 (5,649)
연령						
65~69세	21.2	40.8	24.6	8.5	4.9	100.0 (3,337)
70~74세	22.8	43.3	23.5	7.9	2.5	100.0 (2,319)
75~79세	22.3	42.3	24.7	8.6	2.0	100.0 (2,262)
80~84세	23.2	46.1	21.6	7.4	1.6	100.0 (1,426)
85세 이상	22.7	47.6	18.6	9.4	1.7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6	41.8	23.9	8.3	3.3	100.0 (6,704)
배우자 없음	21.4	45.1	22.9	8.3	2.4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20.4	46.8	23.4	7.4	1.9	100.0 (1,985)
노인부부	22.1	42.3	24.7	7.6	3.3	100.0 (5,847)
자녀동거	23.6	40.3	21.5	11.2	3.4	100.0 (1,935)
기타	29.9	46.3	12.4	8.8	2.7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23.3	40.4	23.2	10.9	2.2	100.0 (1,023)
초등학교	22.4	45.3	22.9	7.6	1.7	100.0 (3,134)
중학교	20.1	42.8	25.9	8.3	2.9	100.0 (2,323)
고등학교	23.3	42.5	23.5	8.0	2.7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2.4	36.2	19.3	8.6	13.4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24.0	39.8	23.9	8.2	4.2	100.0 (3,554)
미취업	21.2	44.6	23.4	8.4	2.4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7	43.3	23.6	5.7	1.7	100.0 (1,986)
제2오분위	22.8	44.6	24.9	6.2	1.6	100.0 (1,987)
제3오분위	21.9	45.0	22.9	8.1	2.1	100.0 (1,991)
제4오분위	18.2	44.6	23.8	10.4	3.1	100.0 (1,987)
제5오분위	22.4	36.9	22.9	11.1	6.8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4.5	43.4	24.7	5.8	1.6	100.0 (3,927)
50%이상-100%미만	20.8	44.4	22.8	9.6	2.4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21.1	42.2	22.9	10.7	3.1	100.0 (1,618)
150%이상	19.8	37.0	23.2	9.9	10.1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21.0	42.5	24.6	8.6	3.3	100.0 (8,832)
제한 있음	31.7	45.6	15.7	5.8	1.2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정기적인 안부를 확인하거나 응급 상황 발생 시 구조 연계지원 등의 안전 지원 서비스가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6.5%, 그렇지 않다고 22.8%,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8%로 나타났다. 특히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응답자는 지역별로 읍·면부, 가구형태에서 독거노인,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경우,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부 응답자의 73.1%와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72.9%는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안전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건강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타 서비스에 비해 필요도를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표 11-22>). 지역별로는 동부에 비해 읍·면부 거주 노인의 경우 74.2%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5.0%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필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으며,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의 경우 자녀동거에 비해 가정으로의 방문의료에 대한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기능상태에서는 제한이 있는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31.0%, 필요하다는 47.0%로 총 78.0%의 높은 비율이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기능 제한이 있을 경우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23>). 특히 기능상태 제한에 따라 노인이 지역사회에 계속거주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 79.7%가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제한이 없는 경우(66.2%)에 비해 13.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한 각종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상담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특성별 차이는 기능상태의 제한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표 11-24>).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7.9%로 제한이 없는 경우(57%)와 비교할 때 10.9%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1〉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안전지원 필요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필요	필요	그저 그렇다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 (명)
전체 ¹⁾	22.5	44.0	22.8	8.2	2.6	100.0 (9,930)
지역						
동부	20.3	44.0	23.5	9.2	3.0	100.0 (7,518)
읍·면부	29.1	44.0	20.5	5.1	1.3	100.0 (2,413)
성						
남자	22.2	43.6	22.7	8.0	3.4	100.0 (4,281)
여자	22.7	44.2	22.9	8.3	1.9	100.0 (5,649)
연령						
65~69세	20.5	44.1	23.4	7.4	4.5	100.0 (3,337)
70~74세	23.1	44.3	23.3	7.4	1.9	100.0 (2,319)
75~79세	24.1	41.7	22.9	9.5	1.8	100.0 (2,262)
80~84세	22.9	46.8	21.2	8.2	0.9	100.0 (1,426)
85세 이상	24.2	43.3	20.9	10.6	1.0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2.3	44.1	22.8	8.0	2.8	100.0 (6,704)
배우자 없음	22.8	43.6	22.9	8.7	2.1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23.2	44.8	23.6	6.9	1.5	100.0 (1,985)
노인부부	22.5	44.2	23.0	7.5	2.7	100.0 (5,847)
자녀동거	21.4	42.8	21.1	11.5	3.2	100.0 (1,935)
기타	23.2	39.7	25.1	9.9	2.1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24.2	40.2	21.7	12.5	1.3	100.0 (1,023)
초등학교	23.2	44.6	23.0	7.7	1.5	100.0 (3,134)
중학교	20.9	44.3	25.0	7.7	2.1	100.0 (2,323)
고등학교	22.5	44.9	22.6	7.6	2.5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1.2	41.0	16.6	8.7	12.5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24.0	43.2	21.9	7.1	3.8	100.0 (3,554)
미취업	21.6	44.4	23.3	8.8	1.9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4	45.0	22.1	6.3	1.2	100.0 (1,986)
제2오분위	23.6	46.5	22.4	6.3	1.2	100.0 (1,987)
제3오분위	23.9	42.0	24.5	8.3	1.3	100.0 (1,991)
제4오분위	19.5	44.3	24.1	9.5	2.5	100.0 (1,987)
제5오분위	19.9	42.0	21.0	10.5	6.6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4.4	45.5	22.6	6.4	1.1	100.0 (3,927)
50%이상-100%미만	22.4	42.3	24.0	9.5	1.7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21.1	43.0	23.5	9.0	3.4	100.0 (1,618)
150%이상	17.6	44.8	18.9	9.4	9.3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22.0	43.6	23.2	8.4	2.8	100.0 (8,832)
제한 있음	26.2	46.7	19.4	6.9	0.9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22〉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의료인 재가방문 의료·건강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필요	필요	그저 그렇다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 (명)
전체 ¹⁾	25.9	43.5	20.9	7.1	2.6	100.0 (9,930)
지역						
동부	22.9	44.9	21.4	7.8	3.0	100.0 (7,518)
읍·면부	35.0	39.2	19.4	4.9	1.5	100.0 (2,413)
성						
남자	27.4	42.2	19.8	7.1	3.7	100.0 (4,281)
여자	24.7	44.5	21.8	7.1	1.9	100.0 (5,649)
연령						
65~69세	24.0	42.2	22.6	6.5	4.6	100.0 (3,337)
70~74세	25.8	43.0	21.5	7.4	2.3	100.0 (2,319)
75~79세	27.6	43.7	20.1	6.8	1.7	100.0 (2,262)
80~84세	26.4	47.8	17.5	7.6	0.7	100.0 (1,426)
85세 이상	28.6	41.5	20.0	8.6	1.3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6.1	43.2	20.9	6.8	3.0	100.0 (6,704)
배우자 없음	25.4	44.2	20.9	7.6	1.8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26.6	44.8	20.6	6.7	1.3	100.0 (1,985)
노인부부	26.3	43.3	20.9	6.5	3.0	100.0 (5,847)
자녀동거	24.1	42.6	21.2	9.0	3.1	100.0 (1,935)
기타	22.4	45.6	19.9	11.0	1.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30.8	37.9	19.4	10.2	1.8	100.0 (1,023)
초등학교	26.8	44.6	20.3	6.7	1.6	100.0 (3,134)
중학교	23.4	45.2	22.3	7.2	1.9	100.0 (2,323)
고등학교	24.8	44.1	22.3	6.1	2.7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7.3	38.2	14.0	7.7	12.8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27.1	41.7	20.8	6.6	3.8	100.0 (3,554)
미취업	25.2	44.5	21.0	7.3	2.0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0.3	43.3	19.7	5.5	1.2	100.0 (1,986)
제2오분위	28.9	44.3	20.6	4.8	1.4	100.0 (1,987)
제3오분위	25.7	44.8	20.2	7.8	1.5	100.0 (1,991)
제4오분위	21.7	44.4	22.1	8.9	2.9	100.0 (1,987)
제5오분위	22.8	40.7	21.8	8.5	6.2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9.8	43.9	20.0	5.1	1.2	100.0 (3,927)
50%이상~100%미만	24.2	44.1	20.9	8.8	2.0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23.6	43.1	21.9	8.1	3.2	100.0 (1,618)
150%이상	20.0	40.7	22.6	7.6	9.1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25.2	43.1	21.6	7.3	2.8	100.0 (8,832)
제한 있음	31.0	47.0	15.5	5.0	1.5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23〉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필요	필요	그저 그렇다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 (명)
전체 ¹⁾	21.2	46.5	22.2	7.5	2.6	100.0 (9,930)
지역						
동부	20.1	47.4	21.2	8.4	2.9	100.0 (7,518)
읍·면부	24.6	43.8	25.3	4.9	1.4	100.0 (2,413)
성						
남자	20.7	45.4	22.1	8.3	3.5	100.0 (4,281)
여자	21.6	47.4	22.3	6.9	1.8	100.0 (5,649)
연령						
65~69세	20.4	45.2	22.6	7.3	4.5	100.0 (3,337)
70~74세	20.5	46.6	23.1	7.5	2.2	100.0 (2,319)
75~79세	20.5	46.8	23.4	7.7	1.6	100.0 (2,262)
80~84세	23.4	48.6	20.1	7.1	0.7	100.0 (1,426)
85세 이상	25.9	47.7	16.3	9.1	1.0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1.0	46.0	22.7	7.3	3.0	100.0 (6,704)
배우자 없음	21.6	47.5	21.2	8.0	1.7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21.0	47.6	23.2	6.8	1.4	100.0 (1,985)
노인부부	21.0	45.7	23.6	6.8	3.0	100.0 (5,847)
자녀동거	21.9	48.1	17.3	10.1	2.6	100.0 (1,935)
기타	24.1	46.0	17.6	11.9	0.5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26.2	38.1	24.8	9.3	1.6	100.0 (1,023)
초등학교	21.0	47.9	23.0	6.6	1.6	100.0 (3,134)
중학교	21.7	46.9	22.3	7.1	2.1	100.0 (2,323)
고등학교	19.5	48.4	21.9	8.0	2.2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0.0	43.4	14.8	9.1	12.7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19.3	44.5	25.5	7.0	3.7	100.0 (3,554)
미취업	22.3	47.7	20.3	7.8	1.9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1.1	48.5	22.7	6.4	1.4	100.0 (1,986)
제2오분위	23.7	47.5	22.1	5.6	1.0	100.0 (1,987)
제3오분위	22.9	43.6	24.2	7.7	1.6	100.0 (1,991)
제4오분위	19.4	46.4	22.9	8.4	2.9	100.0 (1,987)
제5오분위	18.8	46.5	19.1	9.7	5.8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2.7	48.1	22.1	5.9	1.2	100.0 (3,927)
50%이상~100%미만	21.8	43.9	24.0	8.4	1.9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20.3	47.3	20.4	9.0	3.0	100.0 (1,618)
150%이상	15.2	47.7	19.6	8.8	8.8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20.0	46.2	23.2	7.8	2.7	100.0 (8,832)
제한 있음	30.6	49.1	13.7	5.3	1.2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24〉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상담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필요	필요	그저 그렇다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 (명)
전체 ¹⁾	11.3	46.9	31.0	8.5	2.3	100.0 (9,930)
지역						
동부	11.1	47.0	29.9	9.2	2.8	100.0 (7,518)
읍·면부	12.1	46.6	34.3	6.0	0.9	100.0 (2,413)
성						
남자	10.6	46.9	30.5	8.7	3.2	100.0 (4,281)
여자	11.8	46.9	31.4	8.3	1.7	100.0 (5,649)
연령						
65~69세	10.8	45.9	30.8	8.1	4.4	100.0 (3,337)
70~74세	11.6	47.9	30.8	8.2	1.5	100.0 (2,319)
75~79세	11.1	45.7	32.8	9.0	1.4	100.0 (2,262)
80~84세	11.6	50.0	30.4	7.3	0.6	100.0 (1,426)
85세 이상	13.8	45.7	26.9	12.4	1.2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1.5	46.3	31.0	8.6	2.6	100.0 (6,704)
배우자 없음	11.0	48.1	31.0	8.1	1.8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11.3	47.7	32.8	6.8	1.4	100.0 (1,985)
노인부부	11.8	45.2	32.2	8.4	2.4	100.0 (5,847)
자녀동거	10.4	50.3	26.2	10.0	3.1	100.0 (1,935)
기타	7.3	58.0	22.8	11.3	0.5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11.9	43.5	31.5	11.3	1.9	100.0 (1,023)
초등학교	10.5	47.8	32.4	8.1	1.2	100.0 (3,134)
중학교	11.6	46.7	31.9	8.4	1.4	100.0 (2,323)
고등학교	11.5	47.8	30.6	7.7	2.4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12.4	44.3	21.2	9.5	12.6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10.7	44.8	33.7	7.6	3.2	100.0 (3,554)
미취업	11.6	48.1	29.5	9.0	1.8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7	47.0	34.7	6.7	0.9	100.0 (1,986)
제2오분위	12.3	48.0	32.1	6.7	0.9	100.0 (1,987)
제3오분위	11.6	45.9	32.3	9.0	1.2	100.0 (1,991)
제4오분위	11.1	47.7	29.1	9.5	2.6	100.0 (1,987)
제5오분위	11.0	45.8	26.8	10.4	6.0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1.5	47.6	33.4	6.7	0.9	100.0 (3,927)
50%이상~100%미만	11.2	47.0	30.6	9.8	1.5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12.1	45.0	30.0	9.7	3.2	100.0 (1,618)
150%이상	10.1	47.2	25.0	8.9	8.8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0.5	46.5	31.9	8.6	2.5	100.0 (8,832)
제한 있음	17.6	50.3	23.4	7.4	1.2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최근 노인의 건강과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주거 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노인 인구 규모가 커지고 노인의 욕구도 다양화되면서 이들 서비스는 공공서비스가 아닌 민간 서비스로 개발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향후 이들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에서의 다양한 유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들 서비스는 노인 시설/주택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기본 서비스 이외 이용자의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취향, 욕구, 생활스타일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추가적 서비스로 개발이 가능하다. 식사서비스, 청소 및 빨래 서비스, 운동·문화·여가 서비스, 의료서비스, 돌봄서비스, 병원 동행/외출 지원서비스에 대해 향후 이용 의향을 파악하였다.

이들 서비스 중 가장 욕구가 높은 것은 의료서비스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반드시 하고 싶다는 응답이 28.4%, 될 수 있으면 하고 싶다가 39.6%,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21.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유료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 희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18.9%가 반드시 이용하고 싶으며, 39.7%는 될 수 있으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병원 동행/외출 지원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은 반드시 하겠다는 13.8%, 될 수 있으면 하고 싶다가 41.6%로 나타났다.

가사지원서비스인 식사서비스, 청소 및 빨래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비율은 반드시 하고 싶다는 17.2%와 될 수 있으면 하고 싶다는 38.5%로 나타났다. 노인을 위한 별도의 주거시설에서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의료, 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 비해 운동·여가·문화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11-25〉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거시설 이용시 별도 유료서비스별 이용 희망 정도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¹⁾
식사서비스	17.2	38.5	24.9	13.4	6.1	100.0 (10,097)
청소 및 빨래서비스	17.5	35.4	29.9	11.1	6.0	100.0 (10,097)
운동, 문화, 여가서비스	15.2	34.7	31.7	12.9	5.5	100.0 (10,097)
의료서비스	28.4	39.6	21.7	6.3	4.1	100.0 (10,097)
돌봄서비스	18.9	39.7	26.5	9.8	5.2	100.0 (10,097)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교통 편의 제공)	13.8	41.6	31.4	9.1	4.1	100.0 (10,0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을 이용하게 될 때 별도의 유료 서비스에 희망 의사는 노인의 기능 상태의 제한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그 외의 응답자 특성별 차이는 일관된 경향성과 차이가 크지 않게 나타난다(〈부표 II-11-8〉~〈부표 II-11-13〉 참조). 서비스별 유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 의사(반드시 하고 싶음+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의 비율을 기준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 유료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욕구가 높게 나타난다. 그 중 의료서비스,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서비스(교통편의제공)에 대한 희망률은 76.3%, 69.7%로 높게 나타나며, 돌봄서비스는 67.0%, 식사서비스는 63.5%, 청소 및 빨래서비스는 61.7%, 운동·문화·여가서비스는 54.0%로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따른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률의 차이는 운동·문화·여가서비스의 경우 4.6%포인트의 차이를 보이지만, 나머지 의료 및 교통편의, 일상생활 서비스의 경우 약 10%포인트 가량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희망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1-26〉 노인의 기능상태별 주거시설 이용시 별도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식사서비스						
제한 없음	16.4	38.1	25.7	13.7	6.0	100.0 (8,864)
제한 있음	22.6	40.9	18.9	10.8	6.8	100.0 (1,233)
청소 및 빨래서비스						
제한 없음	16.6	35.1	30.8	11.5	6.1	100.0 (8,864)
제한 있음	24.0	37.7	24.2	8.5	5.5	100.0 (1,233)
운동, 문화, 여가서비스						
제한 없음	15.1	34.3	32.5	12.8	5.4	100.0 (8,864)
제한 있음	16.0	38.0	25.6	13.5	6.8	100.0 (1,233)
의료서비스						
제한 없음	27.4	39.4	22.7	6.5	4.1	100.0 (8,864)
제한 있음	35.6	40.7	14.9	4.5	4.2	100.0 (1,233)
돌봄서비스						
제한 없음	17.8	39.5	27.4	10.0	5.2	100.0 (8,864)
제한 있음	26.4	40.6	20.0	8.4	4.6	100.0 (1,233)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						
제한 없음	12.7	40.8	32.9	9.5	4.1	100.0 (8,864)
제한 있음	21.9	47.8	20.3	6.2	3.9	100.0 (1,23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4. 외출 및 교통수단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최근 평균수명 증가와 후기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이슈가 제기되어지고 있다. 노인의 이동권과 안전권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조건이다.

노인이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택시의 비율이 52.8%, 11.8%, 6.6%로 71.2%는 대중교통으로 나타났다. 자가용은 25.6%이며,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1.1%와 1.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73.1%이며 자가용이 24.5%인 것에 반해, 읍·면부의 경우는 대중교통은 63.7%이며, 자가용이 29.2%, 오토바이 이용률이 4.6%로 나타났다. 대중교통이 동부에 비해 발달하지 못한 읍·면부의 경우 자가용, 오토바이와 같이 개인용 이동수단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약 20.8%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의 경우 35.7%는 자가용 이용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5세 미만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자가용 이용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85세 이후에는 자가용 이용이 다시 증가하고 대중교통이 감소한다. 65~69세의 경우 자가용 이용이 38.1%, 70~74세는 23.4%, 75~79세는 15.2%, 80~84세는 16.1%이지만, 85세 이상에서는 28.2%로 다시 높아진다. 이는 젊은 노인의 경우는 스스로 운전하는 자가용 이용인 반면, 연령이 높아질 수록 가족이나 타인이 운전하는 자가용 이용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버스나 지하철 이용보다는 택시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85세 이상의 경우 16.9%는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택시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유배우의 경우 무배우에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많으며,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거의 경우 85.7%, 노인부부와 자녀동거의 경우 67.2%, 67.9%가 대중교통을 외출의 주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이용 비율이 높으며,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57.0%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업종일 경우 자가용 이용률이 높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용 이용률이 높으며, 대중교통 이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35.3%가 자가용을 이용하며, 16.8%가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는 24.3%가 자가용을 이용하며, 버스와 지하철 등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와 비교하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약 70%수준으로 유사하며, 자가용 이용률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노인이 평소 외출할 때 경험하는 불편사항에서는 34.3%가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버스 이용이 19.3%,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 24.9%, 교통수단 부족이 5.6%, 이동 불편한 도로 상태가 3.9%,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교통편의시설이 5.4%, 인도가 없어 보행시 위험이 1.5%,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하다는 응답이 4.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외출시 불편함이 없다는 응답은 읍·면부에 비해 동부가 높게 나타났다. 동부 지역은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 불편함이 18.9%, 계단 이용 불편함이 26.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읍·면부 지역에서는 동부지역과 같이 대중교통이나 계단 이용의 불편함과 함께 교통수단 부족이 12.5%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27.4%)에 비해 남자(43.5%)가 외출시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6.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을 주요 외출 수단으로 이용하는 여자의 경우는 버스 이용이나 계단 이용 등의 불편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외출에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65~69세의 경우는 47.8%가 불편함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대중교통 이용이나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도로상태가 이동하기에 불편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배우에 비해 무배우, 노인부부 또는 자녀동거가구에 비해 노인독거의 경우 외출시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이 높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기능 제한이 없을 경우 외출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하다는 응답은 남자,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용을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노인의 경우 차량이 많아서 운전하기 위험하다는 응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1-27〉 노인의 일반특성별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특성	없음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자전거	오토바이	기타	계 (명)
전체 ¹⁾	0.8	52.5	11.8	6.6	25.6	1.1	1.4	0.2	100.0 (10,097)
지역									
동부	0.7	51.5	15.1	6.5	24.5	1.1	0.4	0.2	100.0 (7,651)
읍·면부	1.3	55.6	1.3	6.8	29.2	1.0	4.6	0.1	100.0 (2,446)
성									
남자	0.8	41.5	11.4	6.2	35.7	1.9	2.4	0.1	100.0 (4,346)
여자	0.8	60.9	12.1	6.9	18.0	0.5	0.6	0.2	100.0 (5,751)
연령									
65~69세	0.7	46.1	10.9	2.6	38.1	0.7	0.8	0.1	100.0 (3,344)
70~74세	0.8	54.0	13.8	5.2	23.4	1.4	1.4	0.0	100.0 (2,342)
75~79세	0.9	58.6	13.2	8.1	15.2	1.3	2.5	0.2	100.0 (2,292)
80~84세	1.1	58.4	10.7	11.0	16.1	1.4	1.3	0.1	100.0 (1,475)
85세 이상	0.5	45.9	6.3	16.9	28.2	0.7	0.7	0.9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7	48.9	11.4	5.8	30.1	1.2	1.6	0.1	100.0 (6,779)
배우자 없음	1.1	59.9	12.5	8.2	16.5	0.8	0.9	0.2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1.1	65.1	12.7	7.9	10.9	0.9	1.3	0.1	100.0 (1,998)
노인부부	0.5	50.0	11.1	6.1	29.3	1.1	1.8	0.0	100.0 (5,898)
자녀동거	1.5	48.6	12.8	6.5	28.7	1.0	0.4	0.5	100.0 (2,026)
기타	0.0	41.5	12.5	7.5	34.0	3.5	1.1	0.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0.8	60.4	9.1	9.9	16.1	1.5	1.6	0.5	100.0 (1,073)
초등학교	0.8	62.1	10.0	7.1	16.5	1.2	2.1	0.2	100.0 (3,198)
중학교	0.7	56.4	13.3	6.3	21.5	0.7	1.2	0.0	100.0 (2,356)
고등학교	1.0	42.2	13.2	5.4	36.4	1.0	0.7	0.1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0.8	21.9	13.0	5.0	57.0	1.6	0.7	0.0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0.8	47.1	10.5	2.3	34.7	1.6	3.0	0.0	100.0 (3,564)
미취업	0.8	55.5	12.4	8.9	20.7	0.8	0.5	0.2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	61.4	9.9	9.0	15.5	0.5	2.5	0.1	100.0 (2,019)
제2오분위	0.7	61.7	11.5	7.7	15.1	1.5	1.4	0.3	100.0 (2,020)
제3오분위	0.9	55.7	11.2	6.1	22.9	1.5	1.6	0.0	100.0 (2,017)
제4오분위	0.3	45.4	12.8	5.0	34.5	0.8	0.8	0.4	100.0 (2,024)
제5오분위	0.8	38.4	13.4	5.3	40.3	1.2	0.6	0.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0	60.4	10.5	8.3	16.5	1.0	2.1	0.2	100.0 (3,999)
50%이상~100%미만	0.7	53.5	12.0	5.9	25.4	1.3	1.0	0.2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0.3	43.0	14.5	3.9	36.3	1.0	0.9	0.0	100.0 (1,647)
150%이상	1.2	34.8	11.5	6.6	44.1	1.1	0.7	0.0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0.8	54.7	12.3	5.2	24.3	1.2	1.5	0.0	100.0 (8,864)
제한 있음	0.8	37.0	8.1	16.8	35.3	0.3	0.7	1.0	100.0 (1,233)
2017년도 ²⁾	0.1	45.7	18.9	6.1	25.1	1.6	2.0	0.4	100.0 (10,23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28〉 노인의 일반특성별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점

(단위: %, 명)

특성	없음	버스 (전철)타고 오르내리기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 기	교통수단 부족	이동하기 불편한 도로상태	노을 배려하지 않는 교통편의시설	인도가 없어 보행 시 위험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	기타	계 (명)
전체 ¹⁾	34.3	19.3	24.9	5.6	3.9	5.4	1.5	4.9	0.1	100.0 (9,930)
지역										
동부	36.4	18.9	26.0	3.4	3.3	5.6	1.4	4.9	0.2	100.0 (7,518)
읍·면부	27.8	20.8	21.6	12.5	5.8	4.7	1.9	4.9	0.0	100.0 (2,413)
성										
남자	43.5	13.3	18.5	5.8	4.4	5.8	1.8	6.8	0.2	100.0 (4,281)
여자	27.4	24.0	29.8	5.4	3.6	5.0	1.3	3.4	0.1	100.0 (5,649)
연령										
65~69세	47.8	12.9	18.8	5.0	3.8	4.6	1.4	5.8	0.0	100.0 (3,337)
70~74세	34.0	18.5	24.1	5.6	3.8	6.7	2.0	5.2	0.1	100.0 (2,319)
75~79세	27.8	22.6	28.4	6.4	3.7	4.8	1.3	4.7	0.3	100.0 (2,262)
80~84세	18.8	28.2	30.7	6.1	4.8	5.9	1.7	3.6	0.2	100.0 (1,426)
85세 이상	21.8	25.3	35.1	4.7	4.3	5.3	1.3	2.1	0.1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8.6	16.5	22.7	5.7	4.1	5.2	1.7	5.4	0.1	100.0 (6,704)
배우자 없음	25.4	25.2	29.5	5.4	3.6	5.8	1.2	3.8	0.2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23.7	27.1	28.0	6.5	3.7	5.6	1.3	4.1	0.1	100.0 (1,985)
노인부부	36.3	16.9	23.8	6.0	4.4	5.4	1.7	5.4	0.1	100.0 (5,847)
자녀동거	39.0	19.2	24.3	3.8	3.0	5.2	1.3	4.0	0.2	100.0 (1,935)
기타	35.7	16.0	32.8	2.0	2.5	4.6	0.9	5.5	0.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19.3	27.7	31.0	7.0	4.8	5.1	2.2	2.8	0.0	100.0 (1,023)
초등학교	25.3	24.5	29.7	6.5	4.0	4.9	1.0	4.0	0.2	100.0 (3,134)
중학교	34.8	19.2	24.4	6.7	3.8	5.8	1.2	4.2	0.0	100.0 (2,323)
고등학교	43.7	13.8	20.5	3.9	3.7	5.9	1.9	6.6	0.0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60.9	5.5	12.2	2.6	4.0	4.2	2.1	7.6	0.9	100.0 (594)
현취업상태										
취업중	41.6	15.3	18.7	7.1	4.8	4.9	1.9	5.7	0.0	100.0 (3,554)
미취업	30.2	21.6	28.4	4.8	3.5	5.6	1.3	4.4	0.2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1.4	28.2	25.9	7.3	4.8	5.7	1.5	5.0	0.3	100.0 (1,986)
제2오분위	27.0	22.4	30.1	5.6	3.8	5.7	1.5	3.8	0.0	100.0 (1,987)
제3오분위	35.9	19.1	24.1	5.3	4.8	5.2	1.7	3.8	0.1	100.0 (1,991)
제4오분위	42.7	14.7	22.9	5.9	3.3	4.4	1.2	4.6	0.2	100.0 (1,987)
제5오분위	44.7	12.4	21.5	3.9	3.0	5.8	1.7	7.1	0.0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5.2	25.1	27.6	6.3	4.6	5.3	1.4	4.3	0.2	100.0 (3,927)
50%이상	36.5	18.3	25.3	5.5	3.5	5.3	1.5	3.9	0.2	100.0 (3,330)
100%미만	44.2	12.9	22.2	4.2	4.1	5.5	1.2	5.7	0.0	100.0 (1,618)
100%이상	46.4	11.3	18.0	5.3	2.8	5.3	2.3	8.6	0.0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36.7	19.1	23.5	5.5	3.6	5.4	1.5	4.7	0.0	100.0 (8,832)
제한 있음	15.4	21.5	36.1	6.8	6.5	5.1	1.5	6.2	1.0	100.0 (1,098)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인의 운전 실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1.9%는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운전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 비율인 17.8%, 평생 한적 없는 비율이 60.4%로 나타났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비율은 남자는 41.5%이며, 여자는 7.1%로 큰 차이를 보이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운전 비율이 높아 65~69세는 39.2%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0~84세는 4.2%가 운전을 하며, 85세 이상에서는 1.7%가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운전 현황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 학력이 높을수록, 현재 취업일 경우,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에서는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 23.8%가 운전을 하는 반면,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는 8.3%가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을 그만둔 평균 연령은 65.8세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읍·면부가 66.9세이며 동부가 65.6세로 약간 차이를 보이며, 남자가 여자에 비해 운전 중단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비율은 2017년 18.8%에 비해 3.1%포인트 높아졌으며, 운전을 그만둔 평균 연령 또한 3.7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거에 비해 평생 운전을 하지 않는 비율이 감소하면서 노년기에 접어들더라도 기능상태가 크게 제한이 없는 경우 운전을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운전을 할 때 느끼는 어려움 정도에서는 현재 운전을 하고 있는 69.4%는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3.8%는 어려움이 있으며 16.8%는 그저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특성별 어려움의 정도를 살펴보면, 읍·면부에 비해 동부가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여자에 비해 남자, 연령이 낮을수록 운전에서 어려움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65~69세의 경우 응답자의 72.9%는 운전에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취업중일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운전의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을 경우 26.2%는 운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전상의 위험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표 11-29〉 노인의 일반특성별 운전여부 및 운전을 그만둔 평균 나이

(단위: %, 명)

특성	현재 하고 있음	전에는 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그만둔 평균 나이(세) ²⁾	평생 한 적 없음	계 (명)
전체 ¹⁾	21.9	17.8	65.8	60.4	100.0 (10,097)
지역					
동부	21.9	19.5	65.6	58.6	100.0 (7,651)
읍·면부	21.7	12.5	66.9	65.8	100.0 (2,446)
성					
남자	41.5	33.0	66.7	25.5	100.0 (4,346)
여자	7.1	6.3	62.2	86.7	100.0 (5,751)
연령					
65~69세	39.2	11.5	61.2	49.2	100.0 (3,344)
70~74세	23.5	20.2	65.5	56.3	100.0 (2,342)
75~79세	11.9	24.1	67.2	64.0	100.0 (2,292)
80~84세	4.2	20.2	69.3	75.6	100.0 (1,475)
85세 이상	1.7	13.2	67.0	85.1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8.9	21.3	66.1	49.8	100.0 (6,779)
배우자 없음	7.6	10.5	64.4	81.9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8.4	12.0	64.0	79.6	100.0 (1,998)
노인부부	28.3	21.4	66.3	50.3	100.0 (5,898)
자녀동거	16.3	13.2	65.0	70.5	100.0 (2,026)
기타	23.1	14.7	64.7	62.2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0.8	6.7	67.2	92.5	100.0 (1,073)
초등학교	7.3	13.7	67.2	78.9	100.0 (3,198)
중학교	19.5	20.6	65.1	59.8	100.0 (2,356)
고등학교	40.0	22.4	65.2	37.5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59.7	25.6	66.3	14.7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39.0	13.5	64.1	47.4	100.0 (3,564)
미취업	12.5	20.1	66.4	67.4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0.4	15.5	65.5	74.0	100.0 (2,019)
제2오분위	9.9	19.6	67.1	70.5	100.0 (2,020)
제3오분위	22.0	19.4	65.7	58.7	100.0 (2,017)
제4오분위	31.7	17.0	65.1	51.2	100.0 (2,024)
제5오분위	35.3	17.3	65.3	47.4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1.1	18.4	66.5	70.5	100.0 (3,999)
50%이상~100%미만	22.5	17.6	65.6	59.9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32.6	15.9	65.6	51.5	100.0 (1,647)
150%이상	43.8	18.8	64.1	37.5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3.8	17.0	65.8	59.2	100.0 (8,864)
제한 있음	8.3	23.1	65.9	68.6	100.0 (1,233)
2017년도	18.8	10.5	62.1	70.7	100.0 (10,23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 대상으로 조사함. /

2) 운전을 한 적은 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1,7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표 11-30〉 노인의 일반특성별 운전 시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0.9	12.9	16.8	40.5	28.9	100.0 (2,207)
지역						
동부	0.8	12.3	16.0	41.1	29.9	100.0 (1,677)
읍·면부	1.3	14.7	19.5	38.6	25.8	100.0 (530)
성						
남자	0.9	12.4	16.2	41.5	29.0	100.0 (1,801)
여자	1.0	15.2	19.6	35.8	28.4	100.0 (406)
연령						
65~69세	0.9	9.8	16.3	41.0	31.9	100.0 (1,311)
70~74세	0.9	15.6	18.5	40.3	24.7	100.0 (551)
75~79세	0.7	20.4	14.6	39.9	24.5	100.0 (273)
80~84세	1.2	20.3	20.1	40.8	17.6	100.0 (62)
85세 이상	5.3	12.2	34.0	0.0	48.5	100.0 (1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9	12.4	16.8	40.6	29.3	100.0 (1,956)
배우자 없음	1.3	16.8	17.2	39.1	25.6	100.0 (251)
가구형태						
노인독거	1.4	14.2	16.9	39.9	27.6	100.0 (168)
노인부부	0.8	13.2	17.4	38.9	29.7	100.0 (1,669)
자녀동거	1.2	11.0	14.8	47.2	25.8	100.0 (330)
기타	0.0	7.5	11.2	52.7	28.7	100.0 (40)
교육수준						
무학	6.8	20.5	24.6	33.0	15.1	100.0 (8)
초등학교	1.4	14.3	18.6	35.0	30.6	100.0 (234)
중학교	1.0	14.4	16.5	45.4	22.7	100.0 (460)
고등학교	0.8	13.6	17.0	42.1	26.5	100.0 (1,148)
전문대학 이상	0.6	7.5	15.4	32.6	43.8	100.0 (357)
현취업상태						
취업중	0.9	12.3	16.2	41.7	28.9	100.0 (1,391)
미취업	1.0	13.8	17.9	38.3	28.9	100.0 (81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0	15.8	19.6	43.2	18.3	100.0 (211)
제2오분위	0.8	11.5	15.2	41.4	31.1	100.0 (199)
제3오분위	1.1	12.8	19.5	43.1	23.5	100.0 (443)
제4오분위	0.6	11.9	14.4	45.6	27.6	100.0 (641)
제5오분위	0.6	13.4	17.0	33.1	36.0	100.0 (71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9	12.8	17.3	42.0	26.0	100.0 (444)
50%이상~100%미만	0.9	13.0	17.1	44.6	24.4	100.0 (759)
100%이상~150%미만	0.9	9.4	15.1	43.7	30.9	100.0 (536)
150%이상	0.1	16.7	17.9	28.6	36.6	100.0 (4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0.9	11.1	16.5	41.5	30.0	100.0 (2,104)
제한 있음	2.3	48.2	23.3	18.8	7.4	100.0 (103)
2017년도	0.4	10.7	5.0	50.1	33.9	100.0 (1,920)

주: 1) 현재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207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운전 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676명을 대상으로 운전의 장애요소를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39.4%는 시력 저하, 3.6%는 청력 저하, 14.4%는 반응속도 저하, 22.3%는 판단력 저하, 20.3%는 속도감 둔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거주자(26.4%)의 경우 동부 거주자(20.8%)에 비해 판단력 저하의 비율이 5.6%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자의 경우 남자에 비해 판단력 저하, 팔·다리 반응속도 저하로 인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시력 저하, 청력 저하, 속도감 둔화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연령이 낮은 응답자의 경우 팔·다리 반응속도 저하, 판단력 저하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시력 저하나 청력 저하, 팔다리의 반응속도 저하의 어려움을 겪는 반면,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는 직접적인 신체적 기능 저하에 대한 것보다는 판단력 저하 또는 속도감 저하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 노인의 일반특성별 운전 시 장애요소

(단위: %, 명)

특성	시력 저하	청력 저하	팔 다리의 반응속도 저하	판단력 저하	속도감 둔화	계 (명)
전체 ¹⁾	39.4	3.6	14.4	22.3	20.3	100.0 (676)
지역						
동부	40.2	3.7	14.2	20.8	21.1	100.0 (487)
읍·면부	37.3	3.3	14.8	26.4	18.2	100.0 (189)
성						
남자	40.0	3.9	13.1	21.6	21.4	100.0 (531)
여자	37.2	2.4	18.9	25.0	16.5	100.0 (145)
연령						
65~69세	41.2	2.8	12.1	24.1	19.8	100.0 (355)
70~74세	39.9	2.9	17.4	20.6	19.2	100.0 (193)
75~79세	28.5	6.6	19.4	21.5	24.1	100.0 (97)
80~84세	47.6	2.6	7.3	16.0	26.4	100.0 (26)
85세 이상	58.5	27.3	0.0	14.2	0.0	100.0 (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0.9	3.7	13.6	22.0	19.8	100.0 (587)
배우자 없음	29.1	2.6	19.8	24.6	23.9	100.0 (88)
가구형태						
노인독거	40.1	3.1	25.1	8.1	23.5	100.0 (55)
노인부부	40.4	3.8	13.5	22.0	20.2	100.0 (525)
자녀동거	35.3	2.8	9.5	31.9	20.5	100.0 (89)
기타	9.5	0.0	57.8	32.7	0.0	100.0 (8)
교육수준						
무학	32.0	28.5	39.5	0.0	0.0	100.0 (4)
초등학교	32.9	3.1	20.8	21.2	22.0	100.0 (80)
중학교	35.8	5.6	9.7	29.0	19.9	100.0 (146)
고등학교	41.4	1.6	14.8	20.2	22.0	100.0 (361)
전문대학 이상	43.7	7.5	13.6	22.0	13.3	100.0 (84)
현취업상태						
취업중	45.8	3.6	11.8	17.9	20.9	100.0 (409)
미취업	29.6	3.6	18.4	29.1	19.4	100.0 (26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7.1	10.5	11.0	22.4	9.0	100.0 (81)
제2오분위	33.0	1.2	14.5	18.9	32.4	100.0 (55)
제3오분위	45.3	1.7	14.5	17.0	21.5	100.0 (148)
제4오분위	38.2	2.5	12.3	28.7	18.3	100.0 (172)
제5오분위	35.1	3.7	17.1	21.8	22.2	100.0 (22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2.7	6.9	10.0	23.0	17.4	100.0 (142)
50%이상~100%미만	42.6	1.9	12.4	22.2	20.9	100.0 (235)
100%이상~150%미만	37.3	2.4	15.8	27.5	17.0	100.0 (136)
150%이상	33.7	4.2	19.8	17.5	24.8	100.0 (162)
기능상태						
제한 없음	39.0	3.4	13.1	23.1	21.4	100.0 (600)
제한 있음	42.7	4.9	24.6	15.9	11.9	100.0 (76)

주: 1) 현재 운전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2,207명 중 운전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676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제2절 안전 실태

1. 낙상 실태

지난 1년간 낙상을 경험한 비율은 7.2%이며, 평균 낙상 경험은 평균 1.6회로 나타났다. 낙상 후 병원 치료율은 72.5%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 낙상률은 지역별로는 읍·면부가 6.2%이며 이에 비해 동부는 7.6%로 1.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8.1%)가 남자(6.1%)에 비해 2.0%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낙상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85세 이상에서의 지난 1년 간 낙상률은 13.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무배우의 경우 10.7%, 유배우는 5.6%로 나타나며,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가구보다는 노인독거, 자녀동거, 기타 가구에서 낙상률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낙상률은 높으며, 미취업상태일 경우 취업상태에 비해 낙상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 교육수준, 취업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을 경우 17.7%가 낙상을 경험한 반면,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 5.8%의 낙상 경험률을 보여, 기능 제한이 있을 경우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약 11.9%포인트가 높게 나타났다.

1년간 경험한 낙상 횟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며 특히 85세 이상에서는 2.3회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는 1년간 평균 1.9회로 기능 제한이 없는 1.5회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낙상 후 병원치료율은 읍·면부(68.8%)의 경우 동부(73.5%)에 비해 4.7%포인트 낮게 나타나며, 85세 이상의 고연령에서는 낙상률과 1년 평균 낙상횟수는 높지만 병원치료율은 66.7%로 낮게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중위소득 대비 비율이 50%~100% 미만인 저소득층에서 66.8%만이 낙상 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거리 또는 소득에서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읍·면 지역과 고연령, 저소득층에서의 낙상 후 병원치료율이 낮게 나타나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으로 보여진다.

2017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낙상률은 8.7%포인트 감소하였으며, 1년간 낙상 횟수도 2.1회에서 1.6회로 낮아진 반면 낙상 후 병원이용율은 64.9에서 72.5%로 증가하여 긍정적 결과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표 11-32〉 노인의 일반특성별 낙상경험

(단위: %, 명)

특성	낙상률 ¹⁾	낙상 경험횟수 및 치료	
		1년간 평균 낙상 경험 횟수 ²⁾	낙상 후 병원치료율
전체	7.2	1.6	72.5
지역			
동부	7.6	1.6	73.5
읍·면부	6.2	1.6	68.8
성			
남자	6.1	1.7	70.9
여자	8.1	1.6	73.4
연령			
65~69세	4.5	1.5	71.3
70~74세	6.9	1.4	73.9
75~79세	9.5	1.6	72.3
80~84세	7.7	1.6	77.3
85세 이상	13.6	2.3	66.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6	1.6	72.5
배우자 없음	10.7	1.6	72.5
가구형태			
노인독거	9.2	1.6	69.8
노인부부	5.6	1.5	72.5
자녀동거	9.6	1.7	75.3
기타	11.5	1.6	71.4
교육수준			
무학	11.1	1.7	70.5
초등학교	8.2	1.3	74.4
중학교	7.1	1.5	71.9
고등학교	5.5	1.4	71.6
전문대학 이상	4.0	1.5	71.9
현재취업상태			
취업중	5.3	1.5	71.6
미취업	8.3	1.7	72.8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9	1.8	71.4
제2오분위	6.7	1.7	74.4
제3오분위	6.4	1.4	65.3
제4오분위	6.9	1.6	73.8
제5오분위	8.2	1.5	76.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7.2	1.7	74.4
50%이상~100%미만	7.2	1.6	66.8
100%이상~150%미만	7.1	1.4	75.2
150%이상	7.8	1.5	78.7
기능상태			
제한 없음	5.8	1.5	71.6
제한 있음	17.7	1.9	74.7
2017년도	15.9	2.1	64.9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0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지난 1년간 낙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73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낙상의 원인은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실내 외 환경적 요인으로는 바닥, 도로, 문턱, 부적합한 조명 등이 원인이 되며, 신체적 요인으로는 발을 헛디디거나 어지럽거나, 힘이 없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노인이 낙상이 발생한 가장 높은 이유는 바닥이 미끄러워서가 30.1%이며,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가 8.1%, 도로나 문턱에 걸려서가 13.7%, 도로의 경사가 급해서 3.2%, 조명이 어두워서 1.8%로 환경적 요인은 총 56.9%이다. 다리를 접질려서가 18.6%, 갑자기 어지러워서 4.4%, 다리에 힘이 풀려서 18.8%로 신체적 이유는 41.8%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 낙상 이유를 살펴보면, 동부의 경우 환경적 요인에 의한 낙상이 57.7%이며, 신체적 이유는 41.1%이며, 읍·면부는 환경적 요인이 54.1%로 동부에 비해 약간 낮으며 신체적 이유가 44.5%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는 환경적 요인이 62.6%인 반면, 여자의 경우는 53.6%이며, 여자의 경우 신체적 이유의 비중이 45.1%로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낙상 이유에서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와 도로나 문턱에 걸려서 등의 이유가 높으며, 여자의 경우는 다리를 접질리거나 힘이 풀려서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적 요인은 낮아지고, 신체적 요인에 의한 낙상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은 65~74세는 외부 환경에서도 미끄러운 바닥, 사람이나 사물과의 충돌이 원인 비중이 높은 반면, 70세 이후에서는 도로나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체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걸음 걸이가 늦어지고 보폭이 좁아지는 신체적 허약상태에서 이들을 고려한 환경이 미흡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후기 노인의 허약상태는 근력 약화를 동반하여 낙상의 원인이 어지럽거나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게 되는 사고이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라는 응답은 80~84세에서 26.5%이며, 85세 이상에서는 43.3%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낙상 원인은 유배우는 외부환경이 원인인 경우가 60.8%, 신체적 이유가 38.4%이며, 무배우는 외부환경이 52.8%, 신체적 이유가 45.4%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거와 노인부부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비중이 30%대로 높게 나타나며, 자녀동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도로나 문턱에 걸려 넘어진 비율이 노인독거, 노인부부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실내외 환경에 의한 낙상 원인 비율이 높아지고 신체적 원인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 낙

상 원인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기능상태 제한이 없는 경우의 59.7%는 실내외 환경에 의한 낙상이며 39.3%는 신체적 이유로 나타났다. 반면,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실내외 환경 요인이 50.1%, 신체적 이유가 47.7%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낙상의 이유에서 실내외환경에 의한 낙상은 3.3% 증가하였으며, 신체적 이유에 의한 낙상은 4.2%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표 11-33〉 노인의 일반특성별 낙상 이유

(단위: %, 명)

특성	바닥이 미끄러 워서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	도로나 문턱에 걸려	도로의 경사가 급해서	조명이 어두워 서	다리를 잡질려서	갑자기 어지러 워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기타	계 (명)
전체 ¹⁾	30.1	8.1	13.7	3.2	1.8	18.6	4.4	18.8	1.3	100.0 (731)
지역										
동부	31.1	7.7	14.2	3.0	1.7	18.6	4.0	18.5	1.3	100.0 (578)
읍·면부	26.3	9.7	11.7	4.2	2.2	18.8	6.0	19.7	1.3	100.0 (153)
성										
남자	29.8	10.5	15.4	4.4	2.5	14.4	3.8	17.8	1.4	100.0 (265)
여자	30.2	6.8	12.7	2.5	1.4	21.0	4.7	19.4	1.3	100.0 (465)
연령										
65~69세	43.2	10.5	8.7	7.9	2.1	16.4	1.9	9.0	0.4	100.0 (149)
70~74세	26.8	13.1	15.6	2.4	2.5	21.2	4.8	13.6	0.0	100.0 (161)
75~79세	24.5	7.3	15.9	0.9	1.5	24.8	5.8	15.4	4.0	100.0 (219)
80~84세	34.3	3.2	15.4	4.1	1.7	12.0	2.5	26.5	0.3	100.0 (114)
85세 이상	22.1	3.4	10.7	1.5	1.1	11.1	6.9	43.3	0.0	100.0 (8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1.2	11.7	12.1	4.2	1.6	16.9	4.8	16.7	0.8	100.0 (377)
배우자 없음	28.9	4.4	15.3	2.2	2.0	20.4	4.0	21.0	1.8	100.0 (354)
가구형태										
노인독거	32.0	5.7	13.3	1.9	2.9	20.6	2.6	19.4	1.6	100.0 (184)
노인부부	31.3	12.1	12.2	3.5	1.8	16.3	5.2	16.6	0.9	100.0 (331)
자녀동거	27.8	4.5	16.7	3.4	0.9	20.0	4.8	21.9	0.0	100.0 (195)
기타	14.5	0.0	11.6	8.5	0.0	26.0	4.2	17.5	17.6	100.0 (20)
교육수준										
무학	27.9	6.3	15.0	1.2	2.8	17.6	2.0	26.1	1.1	100.0 (119)
초등학교	27.9	6.1	12.0	1.6	0.6	18.0	6.9	23.9	3.1	100.0 (263)
중학교	32.0	8.8	13.3	3.9	2.5	23.4	4.7	11.5	0.0	100.0 (168)
고등학교	32.7	13.5	14.9	5.2	2.1	15.5	1.3	14.7	0.0	100.0 (157)
전문대학 이상	34.6	0.0	19.4	13.7	2.8	18.6	7.1	3.8	0.0	100.0 (24)
현취업상태										
취업중	33.4	15.6	15.6	2.3	2.3	20.3	1.7	8.8	0.0	100.0 (190)
미취업	28.9	5.5	13.0	3.5	1.6	18.0	5.3	22.3	1.8	100.0 (54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7.5	8.0	10.0	1.6	3.1	22.3	1.9	22.8	2.8	100.0 (160)
제2오분위	30.7	7.5	17.1	1.2	1.4	10.8	4.3	23.5	3.4	100.0 (135)
제3오분위	30.7	9.0	10.6	3.9	3.3	16.3	11.3	14.4	0.4	100.0 (129)
제4오분위	39.6	9.7	10.9	3.0	0.0	16.5	3.4	16.8	0.0	100.0 (140)
제5오분위	23.5	6.7	19.0	6.0	1.2	25.1	2.2	16.1	0.0	100.0 (165)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7.5	8.0	13.0	1.3	2.0	18.9	3.3	23.0	3.0	100.0 (286)
50%이상~100%미만	37.5	8.2	10.3	3.9	2.2	11.3	7.8	18.4	0.4	100.0 (244)
100%이상~150%미만	24.6	9.1	17.8	5.7	1.7	22.9	1.2	17.0	0.0	100.0 (117)
150%이상	24.9	7.1	19.6	4.2	0.3	33.2	2.8	7.8	0.0	100.0 (83)
기능상태										
제한 없음	31.6	10.2	13.4	2.7	1.8	20.9	2.9	15.5	0.9	100.0 (512)
제한 있음	26.5	3.2	14.2	4.4	1.8	13.3	7.9	26.5	2.2	100.0 (219)
2017년도	26.4	5.8	16.5	3.7	1.2	14.3	11.6	20.1	0.3	100.0 (1,627)

주: 1) 지난 1년간 낙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73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2.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율

노인이 화재, 가스 사고, 누수 등의 사고를 지난 1년간 경험한 비율은 0.5%이다. 지역이나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연령별로는 65~69세의 경험률이 0.8%로 가장 높으며, 70세 이후에는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안전사고 경험률이 높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별로는 제한이 있는 경우 1.4%의 안전사고를 경험하여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0.4%)에 비해 약 1.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구매, 보이스 피싱,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과 같은 범죄 경험률은 사기성 물건 구매가 1.9%로 가장 높으며, 보이스 피싱이 1.2%, 보행자 교통사고 0.7%, 재산범죄 0.4%, 폭력 및 강력범죄 0.3%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피해율이 가장 높은 사기성 물건 구매 경험률은 남자에 비해 여자 피해 경험률이 높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을 경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보이스 피싱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피해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재산범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범죄 경험률이 높다. 사기성 물건구매, 보이스 피싱, 재산범죄의 피해는 돈이 있는 경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 이와같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폭력 및 강력범죄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독거 또는 노인부부가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교통사고 경험률은 읍·면부(0.5%) 보다는 동부(0.8%)의 경험률이 0.3%포인트 높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능제한이 없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부활동이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사기성 물건구매와 보이스 피싱,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4〉 노인의 일반특성별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경험률

(단위: %)

특성	안전사고 (화재, 가스, 누수 등) ¹⁾	범죄피해 ²⁾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 구매	보이스 피싱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
전체	0.5	0.4	0.3	1.9	1.2	0.7
지역						
동부	0.5	0.4	0.3	1.9	1.3	0.8
읍·면부	0.3	0.4	0.3	1.8	0.9	0.5
성						
남자	0.5	0.4	0.4	1.5	1.2	0.6
여자	0.5	0.4	0.3	2.2	1.2	0.8
연령						
65~69세	0.8	0.6	0.5	1.8	1.5	1.0
70~74세	0.3	0.3	0.4	2.1	1.5	0.4
75~79세	0.4	0.4	0.2	1.9	0.9	0.7
80~84세	0.3	0.1	0.1	1.3	0.7	0.5
85세 이상	0.3	0.4	0.2	2.8	0.9	0.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5	0.5	0.3	1.8	1.3	0.7
배우자 없음	0.3	0.3	0.3	2.0	1.0	0.7
가구형태						
노인독거	0.5	0.4	0.4	2.0	1.2	0.8
노인부부	0.6	0.5	0.4	1.9	1.4	0.8
자녀동거	0.0	0.3	0.1	1.9	0.9	0.5
기타	2.0	0.0	0.0	0.0	0.6	0.0
교육수준						
무학	0.2	0.2	0.2	1.2	0.4	0.1
초등학교	0.2	0.3	0.2	1.6	0.7	0.6
중학교	0.6	0.6	0.4	2.5	2.1	0.9
고등학교	0.8	0.5	0.5	1.8	1.5	0.8
전문대학 이상	0.9	0.4	0.3	2.4	0.8	1.0
현취업상태						
취업중	0.6	0.6	0.3	1.8	1.3	0.9
미취업	0.4	0.3	0.3	1.9	1.2	0.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4	0.3	0.4	1.2	1.0	0.5
제2오분위	0.1	0.1	0.0	1.3	0.9	0.6
제3오분위	0.4	0.3	0.2	2.2	1.3	0.6
제4오분위	0.5	0.8	0.4	2.4	1.3	0.9
제5오분위	1.0	0.5	0.6	2.3	1.7	0.9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3	0.3	0.2	1.1	0.8	0.5
50%이상~100%미만	0.4	0.3	0.2	2.2	1.4	0.7
100%이상~150%미만	0.7	0.6	0.3	2.6	1.5	0.9
150%이상	1.2	0.8	0.9	2.5	1.7	1.0
기능상태						
제한 없음	0.4	0.4	0.3	1.8	1.3	0.8
제한 있음	1.4	0.2	0.2	2.9	0.9	0.3
2017년도	0.6	0.2	0.1	0.0	0.1	-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 노인학대

노인 학대는 신체적 학대, 성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신체적 방임과 경제적 방임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1년간 노인의 학대 경험률은 신체적 학대 1.3%, 성 학대 1.1%, 정서적 학대 6.6%, 경제적 학대 0.4%, 신체적 방임 0.3%, 경제적 방임 0.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읍·면부가 높으며, 경제적 학대와 신체 및 경제적 학대는 동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는 정서적 학대 경험률이 여자에 비해 높으며, 여자는 남자에 비해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노인학대 유형별 경험률에는 큰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75~79세의 연령군에서 신체, 성, 정서적 학대의 경험률이 타 연령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신체, 성, 정서적 학대가 높으며, 무배우의 경우는 경제적 학대와 방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의 경우는 신체, 돌봄 및 경제적 방임의 경험률이 높은 반면, 노인부부가구 형태에서는 성, 정서적 학대 경험률이 타 가구형태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의 경우 타 교육수준에 비해 전반적인 학대유형에서 학대 경험률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취업상태에서는 취업중인 경우가 미취업에 비해 신체적 학대, 성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에서 다소 높은 경험률을 보이는데 이는 타인과의 접촉빈도가 높아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되어진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 신체적 학대, 성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 제한 여부에 따라서는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는 신체적 학대, 성 학대, 경제적 학대의 경험률이 제한이 있는 경우에 비해 높은 반면,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의 경험률이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증가하였으나, 정서적 학대와 돌봄 및 경제적 방임은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학대 경험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비율의 증감을 경향성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를 요한다.

〈표 11-35〉 노인의 일반특성별 학대유형별 경험률

(단위: %, 명)

특성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고통	성폭력 또는 성추행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상처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
전체 ¹⁾	1.3	1.1	6.6	0.4	0.3	0.2
지역						
동부	0.9	0.5	5.6	0.4	0.3	0.3
읍·면부	2.7	2.9	9.5	0.2	0.2	0.1
성						
남자	1.0	0.1	7.1	0.3	0.2	0.3
여자	1.5	1.8	6.2	0.4	0.3	0.2
연령						
65~69세	0.9	0.8	6.0	0.5	0.1	0.1
70~74세	1.4	1.2	6.1	0.4	0.3	0.1
75~79세	1.9	1.7	7.7	0.3	0.3	0.3
80~84세	1.2	0.8	6.5	0.0	0.2	0.3
85세 이상	1.2	0.2	7.8	0.6	1.0	0.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	1.2	6.7	0.2	0.2	0.0
배우자 없음	1.2	0.8	6.4	0.7	0.5	0.7
가구형태						
노인독거	1.7	1.3	5.7	0.5	0.6	0.9
노인부부	1.6	1.4	6.8	0.2	0.2	0.0
자녀동거	0.3	0.2	6.6	0.4	0.3	0.2
기타	0.0	0.0	9.0	2.8	0.0	0.0
교육수준						
무학	2.1	1.6	7.2	0.2	0.6	0.6
초등학교	1.3	1.3	6.5	0.2	0.3	0.3
중학교	0.5	0.4	6.1	0.5	0.4	0.2
고등학교	1.7	1.3	6.4	0.5	0.0	0.1
전문대학 이상	1.2	1.0	8.1	0.4	0.8	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2.0	2.0	8.9	0.5	0.1	0.1
미취업	0.9	0.6	5.3	0.3	0.4	0.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	2.7	8.6	0.3	0.6	0.6
제2오분위	1.3	1.1	5.9	0.5	0.4	0.3
제3오분위	1.3	0.7	4.7	0.5	0.1	0.1
제4오분위	0.6	0.4	6.4	0.5	0.2	0.0
제5오분위	0.9	0.6	7.3	0.1	0.2	0.1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9	1.9	7.3	0.4	0.5	0.4
50%이상~100%미만	1.0	0.5	5.6	0.5	0.1	0.1
100%이상~150%미만	1.3	0.5	6.1	0.2	0.1	0.2
150%이상	0.2	0.7	7.5	0.3	0.3	0.0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	1.2	6.2	0.4	0.2	0.1
제한 있음	0.8	0.5	9.9	0.1	1.3	1.0
2017년도	0.3	0.1	7.4	0.4	1.7	2.3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지난 1년간 노인학대 경험자의 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친구 및 이웃의 비율이 91.9%로 가장 높으며, 성 학대 또한 친구 및 이웃의 비중이 95.2%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의 행위자는 친구 및 이웃이 45.9%, 배우자가 25.1%, 노인의 아들이 14.4%로 나타났다. 경제적 학대에서는 친구 및 이웃의 비중이 52.0%, 노인의 아들이 11.9%로 나타났다. 신체적 방임은 배우자 30.4%, 아들 40.1%, 딸 26.9%이며, 경제적 방임은 아들 53.4%, 딸 29.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학대의 정의에서는 행위자와의 관계와 무관하게 노인에게 행해지는 모든 학대 행위를 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타인에 의한 신체적 폭력, 성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피해 등을 학대로 정의하고 있음으로 인해 노인학대에서 친구 및 이웃에 의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1-36〉 노인의 일반특성별 학대 유형별 행위자

(단위: %, 명)

특성	학대 유형별 행위자 ¹⁾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고통	성폭력 또는 성추행	타인의 말과 행동으로 인한 상처	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돌보아 주지 않음	가족이나 보호자가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음
노인의 배우자	0.5	0.9	25.1	2.6	30.4	0.0
노인의 아들	0.8	0.0	14.4	11.9	40.1	53.4
노인의 딸	0.0	0.0	2.2	0.0	26.9	29.1
노인의 며느리	0.0	0.0	3.1	1.8	0.0	7.0
노인의 사위	0.0	0.0	0.0	0.0	0.0	0.0
기타 친인척(손자포함, 노인 부모, 형제, 형제 배우자)	0.0	0.3	1.5	5.9	2.6	10.6
친구 및 이웃	91.9	95.2	45.9	52.0	0.0	0.0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1.6	0.0	0.8	0.0	0.0	0.0
기타	5.2	3.6	7.1	25.7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31)	(108)	(653)	(37)	(27)	(23)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3절 연령 규범 및 연령 차별

1. 연령기준에 대한 인지

수명의 증가는 생애에서 노년기의 기간이 길어지고, 또한 의학의 발달로 인해 과거와 동일 연령이라도 더 좋은 건강을 얻고 있다. 이로 인해 생애주기에서 노년기 시작시점에 대한 인식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 환갑이나 정부의 노인 정책의 일반적인 기준 연령인 65세를 노인으로 인식하였으나, 최근들어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에 대한 인식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노인이 생각하는 노년이 시작하는 연령은 평균 70.5세이며, 69세 이하가 25.9%, 70~74세가 52.7%, 75~79세가 14.9%, 80세 이상이 6.5%로 나타났다. 노인으로 인식하는 연령은 지역이나 성, 연령, 가구형태, 기능상태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평균 70세를 전후하여 나타나며, 다만 교육수준에서 전문대학 이상의 경우 72.5세,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인 경우 72.0세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7년 조사결과 노인으로 인식하는 평균 연령이 71.4세와 비교할 때 거의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2017년에 비해 2020년 노인조사에서 69세 이하로 응답한 비율이 12.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상당수의 정책 기준 연령이 65세로 활용됨에 따라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표 11-37〉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

(단위: %, 명, 세)

특성	69세 이하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계	(명)	평균(세)
전체 ¹⁾	25.9	52.7	14.9	6.5	100.0	(9,930)	70.5
지역							
동부	24.9	51.3	16.4	7.4	100.0	(7,518)	70.7
읍·면부	29.0	56.8	10.2	4.0	100.0	(2,413)	69.7
성							
남자	23.2	52.5	17.3	7.0	100.0	(4,281)	70.8
여자	28.0	52.8	13.0	6.2	100.0	(5,649)	70.2
연령							
65~69세	24.0	52.3	16.1	7.6	100.0	(3,337)	70.8
70~74세	27.2	51.3	15.3	6.2	100.0	(2,319)	70.4
75~79세	26.9	53.9	14.2	4.9	100.0	(2,262)	70.2
80~84세	24.9	54.2	13.8	7.1	100.0	(1,426)	70.4
85세 이상	30.3	51.4	11.3	7.1	100.0	(587)	69.9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5.6	52.4	15.3	6.7	100.0	(6,704)	70.5
배우자 없음	26.4	53.3	14.0	6.3	100.0	(3,226)	70.3
가구형태							
노인독거	26.2	53.3	13.9	6.6	100.0	(1,985)	70.3
노인부부	25.8	52.6	14.8	6.8	100.0	(5,847)	70.5
자녀동거	25.5	51.7	16.8	6.0	100.0	(1,935)	70.5
기타	29.9	58.1	7.0	5.0	100.0	(164)	69.7
교육수준							
무학	28.8	55.9	11.7	3.5	100.0	(1,023)	69.7
초등학교	29.2	52.3	12.4	6.2	100.0	(3,134)	70.1
중학교	27.0	52.6	14.2	6.2	100.0	(2,323)	70.3
고등학교	22.2	52.3	19.0	6.5	100.0	(2,857)	70.9
전문대학 이상	17.5	51.0	15.7	15.8	100.0	(594)	72.5
현 취업상태							
취업중	20.4	55.2	16.1	8.3	100.0	(3,554)	71.1
미취업	29.0	51.3	14.2	5.6	100.0	(6,377)	70.1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1.8	51.3	11.7	5.3	100.0	(1,986)	69.8
제2오분위	25.7	54.6	13.6	6.2	100.0	(1,987)	70.3
제3오분위	26.8	54.3	13.2	5.7	100.0	(1,991)	70.2
제4오분위	24.1	52.6	16.9	6.3	100.0	(1,987)	70.7
제5오분위	21.2	50.5	19.0	9.3	100.0	(1,980)	71.3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8.9	53.3	12.3	5.5	100.0	(3,927)	70.0
50%이상~100%미만	26.2	53.7	14.3	5.8	100.0	(3,330)	70.3
100%이상~150%미만	23.1	52.2	17.8	6.9	100.0	(1,618)	70.8
150%이상	18.1	48.0	21.5	12.4	100.0	(1,055)	72.0
기능상태							
제한 없음	24.7	53.2	15.2	6.8	100.0	(8,832)	70.6
제한 있음	35.4	48.2	12.2	4.2	100.0	(1,098)	69.4
2017년도	13.8	59.4	14.8	12.1	100.0	(10,073)	71.4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무응답 178명 제외한 9,919명에 대한 분석결과임.

2. 노인 차별 경험 및 사회적 존재감에 대한 인식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효 사상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두고 있으나, 반면 노화,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노인이 대중교통, 식당이나 커피숍 이용시, 판매시설, 공공기관 시설, 의료시설, 직장, 가족 내의 의사결정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차별(무시)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였다.

이들 상황 중 차별 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로 20.8%로 나타났으며, 식당이나 커피숍 이용할 때가 16.1%, 판매시설 이용시가 14.7%, 의료시설 이용시 12.7%, 일터 10.6%, 공공기관 이용시 8.7%로 나타났다. 가족 내에서 주요 의사 결정시 차별을 당했다고 경험한 비율은 11.3%로 나타났다. 노인은 사회의 다양한 상황에서 노인이기 때문에 차별당하고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읍·면부의 경우 식당이나 커피숍, 판매시설, 공공기관, 의료시설 이용시 차별경험을 한 비율이 동부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동부에서는 직장에서 노인차별의 경험이 읍·면부에 비해 높았다.

성별로는 남자는 식당, 의료시설, 일터에서의 노인 차별 경험이 여자에 비해 높으며, 여자는 대중교통 이용시와 가족 내 주요 의사 결정시에 노인차별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대중교통, 식당 이용시, 판매시설 이용시, 의료시설 이용시, 가족 내에서 차별 경험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일터에서의 차별 경험은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65~69세, 70~74세에서 13.2%와 12.4%로 75세 이후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무배우일 경우 가족 내 의사결정시 차별당한 경험률이 유배우에 비해 3.3%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형태별로는 노인독거가구는 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황에서 노인부부가구 또는 자녀동거가구에 비해 높은 차별 경험률을 보였다. 독거노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시 24.6%, 판매시설 이용시 17.3%, 의료시설이용시 14.1%가 노인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가구의 경우는 가족 내 주요 의사결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12.7%로 노인부부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중교통 이용 등 대부분의 상황에서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으며, 일터에서의 차별 경험은 교육수준이 중졸 이상에서 높게 나타

났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 중인 경우 미취업에 비해 사회에서의 노인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터에서의 노인 차별 경험은 16.9%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족 내 주요 의사결정에서 노인차별 경험은 미취업인 경우는 12.2%이며 취업 노인은 9.7%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사회와 가족에서 노인차별 경험률에는 큰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일터에서의 경우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노인차별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대중교통, 공공기관, 의료기관의 사회에서의 노인차별 경험률이 기능제한이 없는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에서는 기능제한자(28.4%)는 제한이 없는 경우(19.9%)에 비해 8.5%포인트 높은 차별을 경험했으며, 가족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11.6%포인트 높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노인 차별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 갖고 있는 존재감과 존중 정도를 파악하고자 노인이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응답자의 1.5%는 매우 그렇다, 27.9%는 그렇다라는 긍정적 응답을 하였으며, 27.0%는 그렇지 않다와 13.2%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응답을 하였다.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에 비해 10.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별로는 읍·면부의 경우 부정적 응답이 44.6%로 동부의 38.8%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정부 정책에 대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69세에서는 부정적 응답보다는 긍정적 응답이 2.8%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무배우가 유배우에 비해, 또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가구에 비해 자녀동거가구, 노인독거 가구의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정적 응답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현 취업상태에서는 미취업인 경우 취업중인 노인에 비해 긍정적 비중은 낮고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서는 중위소득 대비 150% 이상의 고소득 집단에서는 응답자 본인이 정

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9%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25.4% 비해 11.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소득이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보다는 부정적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50.1%)는 없는 경우(39.0%)에 비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1% 높게 나타났다.

노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2.3%, 그렇다가 31.5%로 긍정적 응답이 33.8%이며, 그렇지 않다는 21.4%, 전혀 그렇지 않다는 5.9%로 27.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 정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을 부정적 응답에 비해 6.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 응답 중 매우 적극적으로 응답한 비율에 비해 매우 적극적으로 부정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 성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 응답의 비중이 높으며, 배우자 유무에서는 유배우가 무배우에 비해 긍정적이며,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와 자녀동거에 비해 독거노인이 긍정적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 정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 정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25.5%) 보다 부정적인 응답(33.5%)이 8.0%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표 11-38〉 노인의 일반특성별 상황별 연령차별 경험율

(단위: %, 명)

특성	대중교통수 단 이용시	식당,커피숍 이용시	판매시설 이용시	공공기관 이용시	의료시설 이용시	일터	가족내 주요 의사결정시	기타
전체 ¹⁾	20.8	16.1	14.7	8.7	12.7	10.6	11.3	0.0
지역								
동부	20.9	15.3	13.1	7.9	11.4	11.1	11.1	0.0
읍·면부	20.7	18.7	19.5	11.0	16.9	9.2	11.7	0.0
성								
남자	20.5	16.6	14.6	9.2	13.2	12.8	10.3	0.0
여자	21.1	15.7	14.7	8.3	12.4	8.9	12.0	0.0
연령								
65~69세	18.0	16.8	14.1	8.2	11.9	13.2	9.2	0.0
70~74세	22.2	16.2	15.1	9.7	12.5	12.4	11.0	0.0
75~79세	23.0	17.3	15.9	9.1	16.4	8.6	12.5	0.0
80~84세	23.0	14.7	15.5	8.3	10.8	8.0	12.8	0.0
85세 이상	18.4	10.3	9.3	6.7	9.0	2.8	16.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0.5	16.6	14.5	9.0	12.9	11.4	10.2	0.0
배우자 없음	21.6	15.0	15.0	8.0	12.4	9.0	13.5	0.0
가구형태								
노인독거	24.6	16.8	17.3	9.9	14.1	9.8	13.0	0.0
노인부부	20.9	17.0	15.0	9.5	13.6	11.7	10.1	0.0
자녀동거	17.2	13.0	11.4	5.2	9.3	8.5	12.7	0.0
기타	15.7	12.7	7.9	5.3	7.4	7.2	15.2	0.0
교육수준								
무학	22.9	11.8	13.4	7.4	10.4	4.6	13.6	0.0
초등학교	21.7	16.1	16.5	8.7	13.8	7.9	11.5	0.0
중학교	24.3	18.1	15.6	9.6	13.5	12.4	12.5	0.0
고등학교	18.0	16.9	13.5	9.3	12.1	13.8	10.0	0.0
전문대학 이상	12.6	12.2	8.6	4.6	11.4	13.1	7.1	0.0
현 취업상태								
취업중	21.6	19.4	18.3	10.3	14.1	16.9	9.7	0.0
미취업	20.4	14.3	12.6	7.8	11.9	7.1	12.2	0.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0	16.6	19.7	10.7	15.8	6.7	11.1	0.0
제2오분위	22.4	16.2	14.8	8.0	11.6	7.3	11.0	0.0
제3오분위	19.1	14.7	12.7	8.6	10.9	9.9	10.5	0.0
제4오분위	17.9	14.0	13.6	7.7	12.1	14.8	13.0	0.0
제5오분위	19.8	19.0	12.4	8.4	13.2	14.4	10.8	0.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3.1	15.9	16.7	8.8	13.4	6.8	10.8	0.0
50%이상~100%미만	19.2	14.8	13.3	8.8	11.7	11.3	12.2	0.0
100%이상~150%미만	16.1	15.7	12.9	7.3	10.8	14.6	10.8	0.0
150%이상	24.7	21.8	13.8	10.2	16.5	16.4	10.9	0.0
기능상태								
제한 없음	19.9	15.9	14.5	8.2	12.0	10.3	10.0	0.0
제한 있음	28.4	17.8	15.9	12.8	18.7	13.1	21.6	0.0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39〉 노인의 일반특성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1.5	27.9	30.5	27.0	13.2	100.0 (9,930)
지역						
동부	1.4	28.5	31.4	26.4	12.4	100.0 (7,518)
읍·면부	1.7	26.0	27.7	28.8	15.8	100.0 (2,413)
성						
남자	1.5	30.1	31.4	25.5	11.4	100.0 (4,281)
여자	1.4	26.2	29.8	28.1	14.6	100.0 (5,649)
연령						
65~69세	1.5	33.2	33.4	22.4	9.5	100.0 (3,337)
70~74세	1.2	29.2	30.6	26.3	12.6	100.0 (2,319)
75~79세	1.4	24.5	30.5	29.3	14.3	100.0 (2,262)
80~84세	1.6	21.1	24.8	34.0	18.4	100.0 (1,426)
85세 이상	1.9	21.8	27.4	29.3	19.7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3	30.2	30.7	26.1	11.7	100.0 (6,704)
배우자 없음	1.7	23.0	30.1	28.9	16.3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1.5	24.3	30.0	28.2	15.9	100.0 (1,985)
노인부부	1.3	29.7	30.6	26.1	12.3	100.0 (5,847)
자녀동거	1.9	26.4	31.0	27.8	12.9	100.0 (1,935)
기타	1.0	22.0	26.7	33.6	16.7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1.3	18.0	28.4	30.7	21.7	100.0 (1,023)
초등학교	1.8	25.7	27.7	30.7	14.1	100.0 (3,134)
중학교	1.0	29.1	30.0	25.2	14.7	100.0 (2,323)
고등학교	1.3	32.6	32.9	24.0	9.2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7	28.5	39.4	22.1	7.3	100.0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8	31.1	30.3	24.3	12.5	100.0 (3,554)
미취업	1.3	26.0	30.6	28.5	13.6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	29.7	27.7	26.0	15.3	100.0 (1,986)
제2오분위	1.3	25.0	28.2	29.5	16.1	100.0 (1,987)
제3오분위	1.4	25.8	30.4	28.5	13.8	100.0 (1,991)
제4오분위	1.4	26.8	31.5	27.0	13.2	100.0 (1,987)
제5오분위	1.8	32.1	34.7	23.8	7.6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4	27.0	28.0	27.8	15.8	100.0 (3,927)
50%이상~100%미만	1.2	26.4	29.8	29.1	13.5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1.3	29.0	33.4	26.2	10.1	100.0 (1,618)
150%이상	2.8	34.1	37.6	18.1	7.3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	28.8	30.8	26.6	12.4	100.0 (8,832)
제한 있음	0.8	20.5	28.5	30.2	19.9	100.0 (1,098)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40〉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특성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체 ¹⁾	2.3	31.5	38.8	21.4	5.9	100.0 (9,930)
지역						
동부	2.4	30.9	39.7	21.2	5.8	100.0 (7,518)
읍·면부	2.1	33.3	36.1	22.1	6.4	100.0 (2,413)
성						
남자	2.8	31.2	37.8	21.7	6.5	100.0 (4,281)
여자	2.0	31.7	39.6	21.2	5.5	100.0 (5,649)
연령						
65~69세	2.2	33.0	40.4	18.4	5.9	100.0 (3,337)
70~74세	2.2	31.7	38.6	21.2	6.3	100.0 (2,319)
75~79세	2.6	29.6	38.4	22.9	6.5	100.0 (2,262)
80~84세	2.0	29.2	38.0	25.2	5.6	100.0 (1,426)
85세 이상	3.3	34.5	34.2	24.6	3.5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6	31.9	38.7	20.7	6.1	100.0 (6,704)
배우자 없음	1.8	30.6	39.0	22.9	5.7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2.1	30.7	38.5	22.6	6.2	100.0 (1,985)
노인부부	2.6	32.0	38.4	20.7	6.3	100.0 (5,847)
자녀동거	1.7	31.3	40.2	22.0	4.8	100.0 (1,935)
기타	2.0	25.2	39.1	28.1	5.6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1.9	29.2	37.4	25.0	6.6	100.0 (1,023)
초등학교	2.4	32.3	36.3	22.9	6.1	100.0 (3,134)
중학교	2.4	31.6	39.9	19.7	6.4	100.0 (2,323)
고등학교	2.1	31.9	40.9	20.5	4.7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3.6	28.5	40.2	19.3	8.5	100.0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2.3	33.4	36.8	19.0	8.5	100.0 (3,554)
미취업	2.3	30.4	39.9	22.8	4.5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6	30.1	37.1	23.1	6.2	100.0 (1,986)
제2오분위	2.0	32.6	36.4	22.6	6.5	100.0 (1,987)
제3오분위	1.9	29.8	41.2	22.8	4.4	100.0 (1,991)
제4오분위	1.8	30.1	39.4	21.2	7.4	100.0 (1,987)
제5오분위	2.4	34.8	39.9	17.6	5.3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9	31.1	37.0	22.9	6.1	100.0 (3,927)
50%이상~100%미만	1.8	29.7	40.6	22.3	5.6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1.9	34.1	39.6	18.9	5.5	100.0 (1,618)
150%이상	2.6	34.5	38.7	17.0	7.3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2.4	32.4	38.5	20.8	5.8	100.0 (8,832)
제한 있음	1.8	23.7	41.0	26.6	6.9	100.0 (1,098)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4절 웰다잉(well-dying) 인식 및 죽음 관련 준비

1. 좋은 죽음과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

최근 노년기 삶을 의미있게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존엄한 생애 마무리와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노인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노인이 생각하는 생애말기 좋은 죽음에 대해서 1) 임종 전후에 스스로 정리, 2)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 3) 임종시 가족, 지인과 함께 하는 것, 4)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의 네 가지 요소별 중요도를 살펴보았다.

임종 전후에 스스로 정리하는 것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38.8%, 중요하다는 응답은 50.2%로 나타났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는 임종에 대해서는 56.4%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1%로 나타났다. 임종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39.4%가 매우 중요, 47.5%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45.3%, 중요하다는 응답이 45.3%로 나타났다.

생애 말기 좋은 죽음의 요소별 중요도의 순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 90.6%,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는 죽음이 90.5%로 나타나며,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이 89.0%,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것은 86.9%로 나타났다.

〈표 11-41〉 노인의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중요	중요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¹⁾ (명)
1) 임종 전후의 상황을 스스로 정리한 후 임종을 맞이 하는 것	38.8	50.2	9.8	1.1	0.1	100.0 (9,930)
2) 신체적, 정신적 고통없이 임종을 맞이 하는 것	56.4	34.1	8.3	1.0	0.1	100.0 (9,930)
3) 임종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함께 하는 것	39.4	47.5	11.0	1.9	0.2	100.0 (9,930)
4)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45.3	45.3	8.8	0.5	0.0	100.0 (9,930)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생애말기 좋은 죽음에 대해 노인의 상당수는 동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임종 전후에 스스로 정리를 한 후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는 89.0%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가구형태에서 자녀동거노인의 92.6%, 교육수준에서 전문대 이상의 94.3%는 특히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90.5%가 신체 및 정신적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생애말기 좋은 죽음으로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에서 전문대 학 이상의 학력 응답자의 경우 96.2%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임종시 가족이나 지인이 함께 하는 것을 좋은 죽음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86.9%가 좋은 죽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전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4%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90.6%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동부 거주 노인에 비해 읍·면부 거주 노인이 생각하는 중요하다는 비율은 93.1%로 높으며, 가구형태에서는 자녀동거 노인이 노인독거, 노인부부가구에 비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전문대 이상의 교육수준에서도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 좋은 죽음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II-11-14>~<부표 II-11-17> 참조).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의식불명이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연명 치료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85.6%로 나타나며 특히 매우 반대하는 강력한 의견이 4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명치료에 대한 반대 의견은 지역,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형태, 소득수준, 기능상태 등의 어떤 특성에서도 다른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연명치료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력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17년 조사에서도 91.8%가 연명치료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42〉 노인의 일반특성별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계 (명)
전체 ¹⁾	0.1	2.4	11.8	39.6	46.0	100.0 (9,930)
지역						
동부	0.1	2.5	12.4	39.9	45.2	100.0 (7,518)
읍·면부	0.1	2.2	10.0	38.9	48.8	100.0 (2,413)
성						
남자	0.1	2.7	11.5	38.6	47.0	100.0 (4,281)
여자	0.0	2.2	12.1	40.4	45.3	100.0 (5,649)
연령						
65~69세	0.1	3.0	12.4	38.4	46.1	100.0 (3,337)
70~74세	0.1	1.9	12.5	40.7	44.8	100.0 (2,319)
75~79세	0.1	2.5	11.8	41.2	44.5	100.0 (2,262)
80~84세	0.1	1.8	10.8	39.2	48.1	100.0 (1,426)
85세 이상	0.1	2.0	8.8	37.5	51.6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0.1	2.4	12.2	39.8	45.5	100.0 (6,704)
배우자 없음	0.0	2.3	11.1	39.3	47.3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0.1	2.4	11.7	39.9	46.0	100.0 (1,985)
노인부부	0.1	2.4	12.5	39.9	45.2	100.0 (5,847)
자녀동거	0.1	2.5	9.7	39.3	48.4	100.0 (1,935)
기타	1.0	3.2	14.8	31.9	49.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0.1	1.9	11.6	39.1	47.3	100.0 (1,023)
초등학교	0.1	2.5	12.0	38.4	47.0	100.0 (3,134)
중학교	0.1	2.7	12.5	38.7	46.1	100.0 (2,323)
고등학교	0.1	2.6	12.1	42.0	43.3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0.0	0.8	7.6	39.4	52.2	100.0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0.1	3.0	11.9	38.0	47.1	100.0 (3,554)
미취업	0.1	2.1	11.8	40.6	45.5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0.1	2.7	12.0	38.6	46.6	100.0 (1,986)
제2오분위	0.1	1.6	11.3	39.9	47.0	100.0 (1,987)
제3오분위	0.1	1.9	11.6	42.0	44.4	100.0 (1,991)
제4오분위	0.1	3.3	12.8	38.0	45.8	100.0 (1,987)
제5오분위	0.0	2.5	11.4	39.7	46.4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0.1	2.3	11.7	38.8	47.1	100.0 (3,927)
50%이상~100%미만	0.1	2.2	12.0	40.7	45.0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0.0	2.4	11.5	39.8	46.3	100.0 (1,618)
150%이상	0.0	3.3	12.3	39.2	45.1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0.1	2.5	12.0	39.5	45.9	100.0 (8,832)
제한 있음	0.3	1.6	10.5	40.8	46.9	100.0 (1,098)
2017년도	0.2	3.4	4.5	49.2	42.6	100.0 (10,073)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죽음 준비 실태

임종 전후의 상황을 스스로 정리한 후 임종을 맞이 하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듯, 노인의 상당수는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7.8%는 수의, 24.8%는 묘지, 상조회 가입 17.0%, 상속처리 논의 12.4%, 유서작성 4.2%,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4.7%, 장기기증 서약 3.4%, 죽음준비교육 수강 2.7%로 나타났다. 수의, 묘지, 상조회 가입은 죽음 준비 중에서 장례 준비로서 79.6%이며, 그 외의 유서작성, 죽음준비 교육 수강, 상속 처리 논의, 사전연명의료, 장기기증 서약 등은 좋은 죽음을 위한 스스로 본인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현 노인은 본인의 장례와 관련된 준비의 비중이 높으며 죽음을 준비하며 삶을 정리하는 다양한 행위는 그에 비해 낮았다. 이와 같은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 죽음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좋은 죽음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읍·면부 거주자의 경우 수의, 묘지에 대한 준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상조회 가입, 상속처리 논의,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장기 기증 서약의 비율이 읍·면부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묘지를 비롯하여 상조회 가입, 유서작성, 상속 처리 논의,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등 다양한 형태의 죽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의, 묘지를 준비한 비율이 점차 높아지며, 연령이 낮을수록 상조회 가입, 장기기증 서약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직접적인 장례와 관련된 준비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상속 처리 논의, 사회적 기여나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적 준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독거와 노인부부 가구는 수의, 묘지, 상조회 가입의 장례준비는 82.4%와 80.9%로 높으며, 자녀동거 가구는 73.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삶을 정리하는 죽음 준비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준비율이 다양해지고 많아졌다.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이상인 경우 가족과 상속처리나 장례 의향에 대한 논의를 한 비율이 높으며, 특히 전문대 이상에서는 상속처리 논의가 21.8%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기증 서약, 죽음준비 교육 수강, 유서 작성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준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최근 좋은 죽음, 의미있는 죽음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는 문화 확대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장례에 대한 수의, 묘지, 상조회 가입 비율이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는 경우보다 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11-43〉 노인의 일반특성별 죽음 준비 실태

(단위: %, 명)

특성	수의	묘지	상조회 가입	유서 작성	죽음준비 교육 수강	상속처리 논의	사전연명 의료의향 ¹⁾	장기기증 서약	(명)
전체 ¹⁾	37.8	24.8	17.0	4.2	2.7	12.4	4.7	3.4	(9,930)
지역									
동부	33.8	22.8	17.8	4.1	2.8	13.3	5.0	3.7	(7,518)
읍·면부	50.4	30.8	14.6	4.5	2.2	9.6	3.9	2.6	(2,413)
성									
남자	35.7	25.8	18.1	5.3	2.8	12.6	5.7	3.8	(4,281)
여자	39.4	24.0	16.2	3.4	2.6	12.2	4.0	3.1	(5,649)
연령									
65~69세	23.2	19.3	20.3	4.0	2.9	10.7	4.1	4.4	(3,337)
70~74세	35.1	25.1	17.5	4.6	3.4	14.2	4.6	3.3	(2,319)
75~79세	46.1	27.2	15.4	4.0	2.2	12.6	5.7	2.6	(2,262)
80~84세	54.7	30.2	12.6	4.4	1.9	13.2	5.0	3.2	(1,426)
85세 이상	58.8	32.3	14.0	4.2	2.4	12.1	4.4	1.6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5.0	25.2	18.0	4.3	2.7	12.6	5.1	3.6	(6,704)
배우자 없음	43.6	23.8	14.9	4.1	2.6	12.0	4.0	3.1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43.7	22.7	16.0	4.3	2.6	10.7	3.8	2.8	(1,985)
노인부부	36.2	26.5	18.2	4.4	2.5	13.2	4.9	3.4	(5,847)
자녀동거	36.7	22.1	14.9	3.5	3.4	12.5	5.2	3.8	(1,935)
기타	36.5	18.9	13.8	5.4	2.0	3.7	3.9	5.5	(164)
교육수준									
무학	51.8	27.9	10.3	2.9	1.4	11.2	2.0	1.1	(1,023)
초등학교	43.7	26.6	13.6	3.4	2.5	10.1	4.4	2.3	(3,134)
중학교	36.5	21.9	17.8	3.9	2.1	11.7	4.3	3.3	(2,323)
고등학교	29.1	21.9	21.4	5.3	3.5	14.0	5.5	5.0	(2,857)
전문대학 이상	29.9	34.2	22.6	6.8	4.1	21.8	9.1	6.1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33.8	25.1	18.9	4.0	3.0	12.5	5.0	3.9	(3,554)
미취업	40.1	24.6	16.0	4.3	2.5	12.4	4.6	3.1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3.0	27.2	16.9	3.3	1.7	7.9	3.3	1.9	(1,986)
제2오분위	44.0	22.8	11.9	3.1	2.0	10.3	4.5	2.3	(1,987)
제3오분위	37.1	22.3	15.7	3.9	2.5	11.2	4.2	3.0	(1,991)
제4오분위	32.6	25.2	17.8	5.7	3.3	14.9	5.5	4.5	(1,987)
제5오분위	32.4	26.3	22.9	5.1	3.9	17.8	6.2	5.4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3.4	25.2	13.9	2.9	1.9	8.8	3.8	1.9	(3,927)
50%이상~100%미만	35.6	23.4	16.3	4.7	3.0	12.4	4.7	3.4	(3,330)
100%이상~150%미만	33.3	24.3	21.8	5.2	3.2	14.9	6.2	4.5	(1,618)
150%이상	31.0	28.3	23.6	6.2	4.0	22.2	6.2	7.5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35.8	24.0	16.6	4.3	2.6	11.8	4.9	3.4	(8,832)
제한 있음	53.8	30.8	20.2	3.4	3.5	17.0	3.4	3.2	(1,098)
2017년도 ²⁾	8.3	25.1	13.7	0.5	0.4	-	-	-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각 항목별로 준비했다고 응답한 비율임.

2) 2017년에는 상속처리논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장기기증서약 문항이 없었음.

좋은 죽음 준비에 대한 노인의 의식이 많이 높아진 만큼 본인의 장례 방법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 노인이 희망하는 장례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화장 후 납골당 33.3%, 화장 후 자연장 20.6%, 화장 후 산골 13.9%, 매장 11.6%로 매장에 비해 화장을 희망하는 비율이 67.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장례방법에서 화장이 확대되면서 이를 자연스러운 장례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20.6%로 나타났다.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화장 후 납골당/자연장/산골의 비중이 71.5%로 유사한 결과이며, 매장을 희망하는 비율이 5.9%포인트 낮아졌으며,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응답의 비중이 11.7% 포인트 높아졌다.

응답자의 특성별 본인의 희망 장례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비율이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읍·면부에 비해 동부, 남자에 비해 여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70세 전후의 노인의 경우 구체적 장례 방법에 대해 아직 까지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매장을 희망하는 비율은 동부에 비해 읍·면부, 여자에 비해 남자,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배우자가 없고 노인독거 또는 노인부부 가구일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11-44〉 노인의 일반특성별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방법

(단위: %, 명)

특성	화장 후 납골당	화장 후 자연장	화장 후 산골	매장	시신기 증 ²⁾	기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계	(명)
전체 ¹⁾	33.3	20.6	13.9	11.6	-	0.0	20.6	100.0	(9,930)
지역									
동부	32.8	21.2	14.9	9.8	-	0.0	21.4	100.0	(7,518)
읍·면부	34.7	18.8	10.9	17.2	-	0.0	18.5	100.0	(2,413)
성									
남자	35.2	19.3	12.6	13.0	-	0.0	19.9	100.0	(4,281)
여자	31.8	21.6	14.9	10.5	-	0.0	21.2	100.0	(5,649)
연령									
65~69세	31.7	23.4	12.4	6.9	-	0.0	25.6	100.0	(3,337)
70~74세	34.6	20.5	14.2	10.3	-	0.0	20.3	100.0	(2,319)
75~79세	33.6	20.2	14.4	13.1	-	0.0	18.8	100.0	(2,262)
80~84세	32.3	17.0	15.9	19.2	-	0.1	15.5	100.0	(1,426)
85세 이상	37.9	15.7	14.0	18.7	-	0.0	13.7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3.6	21.3	12.7	11.2	-	0.0	21.2	100.0	(6,704)
배우자 없음	32.5	19.1	16.3	12.4	-	0.0	19.6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30.8	18.8	17.2	13.0	-	0.0	20.2	100.0	(1,985)
노인부부	34.0	21.5	12.2	11.4	-	0.0	20.8	100.0	(5,847)
자녀동거	33.5	19.9	15.4	10.9	-	0.0	20.3	100.0	(1,935)
기타	32.9	17.3	15.5	9.5	-	0.0	24.8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32.5	15.2	17.7	17.9	-	0.0	16.8	100.0	(1,023)
초등학교	31.0	20.8	15.2	13.3	-	0.0	19.7	100.0	(3,134)
중학교	34.6	18.2	15.5	10.0	-	0.0	21.8	100.0	(2,323)
고등학교	32.9	24.6	11.2	8.6	-	0.0	22.8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43.1	19.4	7.6	12.2	-	0.2	17.5	100.0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32.7	21.9	13.4	10.6	-	0.0	21.4	100.0	(3,554)
미취업	33.6	19.9	14.2	12.1	-	0.0	20.3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0.5	18.0	15.1	12.4	-	0.0	23.9	100.0	(1,986)
제2오분위	32.6	20.2	14.4	12.1	-	0.1	20.7	100.0	(1,987)
제3오분위	35.1	20.9	13.8	11.8	-	0.0	18.4	100.0	(1,991)
제4오분위	30.6	23.8	14.5	12.0	-	0.0	19.1	100.0	(1,987)
제5오분위	37.4	20.1	11.7	9.7	-	0.0	21.1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1.8	19.0	14.5	12.2	-	0.0	22.5	100.0	(3,927)
50%이상~100%미만	33.0	22.3	14.2	11.6	-	0.0	18.9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33.1	22.6	14.9	10.2	-	0.0	19.3	100.0	(1,618)
150%이상	39.6	18.3	9.2	11.4	-	0.0	21.4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32.5	21.5	13.6	10.9	-	0.0	21.4	100.0	(8,832)
제한 있음	39.0	13.3	16.3	17.0	-	0.0	14.3	100.0	(1,098)
2017년도	26.4	14.8	30.3	17.5	2.0	0.1	8.9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2020년에는 시신기증 보기가 없었음.

노인의 죽음 준비 중 재산처리에 대한 부분은 본인의 삶을 정리하는 영역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재산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5%가 자녀에게 균등 배분, 장남에게 더 많이 10.9%, 장남에게만 배분 2.4%, 효도한 자녀에게 7%, 경제적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7.7%로 나타났다.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고 자신(배우자)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17.4%로 나타났다. 전체 또는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1%로 나타났다.

노인의 특성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사회에 환원하지 않고 본인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은 읍·면부에 비해 동부,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동거 가구에 비해 노인독거, 노인부부 가구일 때 높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타 응답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며, 특히 동부에 비해 읍·면부 지역,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과거 장남 중심의 재산분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동부에 비해 읍·면부, 남자에 비해 여자,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장남에게 더 많이 또는 장남에게만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자녀동거 노인의 경우 노인독거, 노인부부 가구에 비해 효도한 자녀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0.7%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의 경우 없는 노인에 비해 효도한 자녀라는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11-45〉 노인의 일반특성별 바람직한 재산처리방식

(단위: %, 명)

특성	자녀 균등 배분	장남에 게 더 많이	장남 에게만	효도한 자녀에게	경제적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전체 또는 일부 사회환원	자신 (배우자) 을 위해	기타	계 (명)
전체 ¹⁾	53.5	10.9	2.4	7.0	7.7	1.1	17.4	0.1	100.0 (9,930)
지역									
동부	52.1	10.2	2.3	7.1	8.3	1.2	18.8	0.0	100.0 (7,518)
읍·면부	57.8	13.1	2.7	6.7	5.7	0.7	13.2	0.1	100.0 (2,413)
성									
남자	55.0	9.3	2.1	6.0	7.9	1.1	18.6	0.1	100.0 (4,281)
여자	52.4	12.1	2.6	7.8	7.5	1.1	16.5	0.0	100.0 (5,649)
연령									
65~69세	55.4	8.2	2.1	5.7	8.1	1.3	19.1	0.1	100.0 (3,337)
70~74세	53.7	9.5	2.9	7.2	8.2	1.1	17.3	0.1	100.0 (2,319)
75~79세	53.0	11.0	2.8	7.1	7.4	1.1	17.6	0.0	100.0 (2,262)
80~84세	51.7	15.1	1.6	9.1	6.6	0.4	15.3	0.0	100.0 (1,426)
85세 이상	48.2	20.7	2.1	8.2	7.0	0.8	12.9	0.1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5.6	10.0	2.4	6.1	7.6	1.2	17.1	0.0	100.0 (6,704)
배우자 없음	49.2	12.8	2.5	8.9	7.7	0.9	18.0	0.1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51.2	9.9	1.8	6.8	7.5	1.1	21.6	0.1	100.0 (1,985)
노인부부	55.5	9.9	2.4	5.8	7.4	1.2	17.8	0.1	100.0 (5,847)
자녀동거	50.4	15.3	3.2	10.7	8.6	0.6	11.2	0.0	100.0 (1,935)
기타	49.2	6.9	2.0	8.9	6.5	1.6	24.9	0.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50.1	15.3	3.4	7.9	6.8	0.8	15.8	0.0	100.0 (1,023)
초등학교	52.8	13.9	2.2	7.4	7.2	0.6	15.8	0.1	100.0 (3,134)
중학교	49.9	9.2	2.7	8.8	9.5	1.3	18.6	0.0	100.0 (2,323)
고등학교	56.7	8.7	2.3	5.5	7.4	1.1	18.3	0.0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62.4	4.6	0.9	3.8	5.7	3.3	19.2	0.2	100.0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55.3	9.2	2.6	6.2	8.2	1.2	17.4	0.0	100.0 (3,554)
미취업	52.5	11.9	2.3	7.5	7.4	1.0	17.4	0.1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4.7	9.1	1.7	6.6	7.0	1.0	19.8	0.1	100.0 (1,986)
제2오분위	50.7	13.2	2.6	6.0	8.3	0.4	18.8	0.0	100.0 (1,987)
제3오분위	54.7	10.9	2.3	5.9	7.2	0.8	17.9	0.1	100.0 (1,991)
제4오분위	51.9	9.7	2.9	7.8	8.0	1.5	18.1	0.0	100.0 (1,987)
제5오분위	55.6	11.5	2.4	8.7	7.8	1.6	12.4	0.1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3.4	10.8	2.4	6.2	7.7	0.7	18.9	0.1	100.0 (3,927)
50%이상~100%미만	52.5	11.9	2.3	7.7	7.3	0.9	17.4	0.1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55.7	9.1	2.6	7.7	7.4	1.8	15.7	0.0	100.0 (1,618)
150%이상	54.1	10.8	2.6	7.0	9.0	2.0	14.4	0.1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54.2	10.3	2.4	6.7	7.8	1.1	17.5	0.1	100.0 (8,832)
제한 있음	48.4	15.7	2.2	9.5	6.5	0.8	16.8	0.1	100.0 (1,098)
2017년도	59.5	9.0	2.0	3.5	6.1	2.6	17.3	0.1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 자살에 대한 생각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인자살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조사응답자의 2.1%는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에서는 건강이 23.7%, 경제적 어려움이 23.0%, 외로움이 18.4%,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이 13.8%, 배우자나 가족과의 갈등이 13.1%, 배우자나 가족의 건강 및 돌봄 문제가 7.6%로 나타났다.

노년기에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약간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무배우자일 경우, 노인부부(1.6%)에 비해 자녀동거(2.9%), 노인독거(2.9%)일 경우 다소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을 경우 5.9%로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 1.7%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자살을 생각한 이유에서는 읍·면부에 비해 동부에서는 외로움의 비중이 21.2%로 높게 나타나며, 또한 배우자나 가족 간 갈등이 16.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읍·면부에서는 건강,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의 자살 생각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배우자/가족의 사망 또는 갈등의 비중이 높으며, 남자는 건강문제, 외로움, 배우자/가족의 건강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서 자살을 생각한 반면, 연령이 낮을 경우 외로움이나 가족의 사망 등 원인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무배우의 경우는 배우자/가족의 사망,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 생각 이유로 나타나며, 유배우는 건강, 배우자/가족의 건강 및 돌봄 문제가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독거노인의 경우는 외로움, 가족의 사망이 자살생각 이유로 나타나며, 노인부부는 건강문제, 배우자 건강과 돌봄 문제가 높으며, 자녀동거가구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건강문제가 49.6%로 가장 높으며, 제한이 없는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가족 갈등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2017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본 비율은 2017년 6.7%였으나 2020년은 2.1%로 많이 감소하였다. 또한, 자살을 생각한 원인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은 4.7%포인트 감소하였으며, 건강의 문제도 3.9%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러나 외로움은 6.0%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배우자와 가족의 사망, 배우자/가족의 건강과 돌봄이 원인이 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였다.

〈표 11-46〉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살 생각 경험 및 이유

(단위: %, 명)

특성	자살 생각률 ¹⁾	자살생각 이유 ²⁾							
		건강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사망(배우자 가족, 친구)	부부자녀 및 단절	배우자 가족 건강	기타	계 (명)
전체	2.1	23.7	23.0	18.4	13.8	13.1	7.6	0.4	100.0 (213)
지역									
동부	2.2	21.5	22.9	21.2	10.9	16.3	7.2	0.0	100.0 (166)
읍·면부	1.9	31.4	23.3	8.8	24.2	1.8	8.9	1.6	100.0 (47)
성									
남자	1.6	27.4	17.3	22.1	11.1	8.7	13.4	0.0	100.0 (69)
여자	2.5	22.0	25.7	16.7	15.1	15.2	4.8	0.5	100.0 (144)
연령									
65~69세	1.8	18.0	24.2	26.9	12.1	8.7	10.2	0.0	100.0 (60)
70~74세	2.3	25.6	20.4	16.1	15.4	11.5	9.6	1.5	100.0 (53)
75~79세	2.4	27.8	20.7	19.0	10.1	22.3	0.0	0.0	100.0 (54)
80~84세	3.0	26.1	29.3	6.5	15.9	10.3	11.8	0.0	100.0 (43)
85세 이상	0.6	0.0	0.0	46.8	53.2	0.0	0.0	0.0	100.0 (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7	30.8	20.3	19.4	4.0	11.6	13.8	0.0	100.0 (112)
배우자 없음	3.1	15.9	25.9	17.3	24.7	14.6	0.8	0.8	100.0 (101)
가구형태									
노인독거	2.9	18.4	21.2	21.8	27.7	8.3	1.4	1.3	100.0 (58)
노인부부	1.6	29.4	17.2	20.1	4.0	13.0	16.2	0.0	100.0 (95)
자녀동거	2.9	21.4	34.8	7.5	17.2	19.1	0.0	0.0	100.0 (55)
기타	2.6	0.0	22.7	77.3	0.0	0.0	0.0	0.0	100.0 (4)
교육수준									
무학	2.3	16.7	37.3	13.4	5.4	27.2	0.0	0.0	100.0 (23)
초등학교	2.1	30.5	32.0	14.3	8.7	6.6	6.8	1.2	100.0 (67)
중학교	2.8	13.1	21.4	29.3	18.0	5.5	12.6	0.0	100.0 (66)
고등학교	1.5	29.8	10.6	12.4	20.5	23.0	3.7	0.0	100.0 (44)
전문대학 이상	2.1	35.0	0.0	13.8	11.5	25.8	13.9	0.0	100.0 (12)
현 취업상태									
취업중	1.4	9.9	25.9	28.1	9.5	14.7	12.1	0.0	100.0 (50)
미취업	2.6	27.9	22.1	15.5	15.2	12.6	6.3	0.5	100.0 (16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3	24.3	36.6	14.3	5.7	15.3	3.9	0.0	100.0 (46)
제2오분위	2.0	20.7	21.4	12.6	17.6	25.8	0.0	2.0	100.0 (39)
제3오분위	2.1	16.4	17.3	28.0	14.9	5.4	18.1	0.0	100.0 (42)
제4오분위	1.7	32.6	19.5	18.0	11.8	13.0	5.1	0.0	100.0 (33)
제5오분위	2.6	25.8	19.2	18.9	18.6	7.9	9.7	0.0	100.0 (5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1	20.6	31.8	14.9	6.3	19.2	6.2	1.0	100.0 (81)
50%이상~100%미만	2.3	25.0	10.6	22.1	21.0	13.1	8.2	0.0	100.0 (75)
100%이상~150%미만	2.1	24.7	44.2	16.5	9.7	0.0	4.9	0.0	100.0 (35)
150%이상	2.1	28.9	0.0	21.9	23.3	11.0	14.8	0.0	100.0 (22)
기능상태									
제한 없음	1.7	12.3	25.3	20.7	14.1	18.8	8.2	0.5	100.0 (147)
제한 있음	5.9	49.6	17.7	13.3	13.2	0.0	6.2	0.0	100.0 (65)
2017년도	6.7	27.6	27.7	12.4	8.3	18.6	4.9	0.6	100.0 (6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자살생각을 한 응답자 213명을 대상으로 함.

제5절 삶의 만족도

노인의 49.6%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7.9%만이 삶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저그렇다라는 응답이 42.6%로 나타나지만, 만족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의 비중은 적게 나타났다.

삶의 영역별 만족하는 비율(매우 만족+만족)을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50.5%, 경제 상태는 37.4%,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2.6%이며, 배우자 관계는 70.9%, 자녀관계는 73.3%, 친구/지역사회와의 관계는 5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구/이웃과의 관계는 삶의 영역 중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는 경제상태로 나타났다. 삶의 영역별 불만족하는 비율(불만족+매우 불만족)은 경제 상태가 20.5%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건강,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관계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11-47〉 노인의 영역별 삶의 만족도¹⁾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건강상태	4.5	46.0	31.2	15.7	2.6	100.0 (9,930)
경제 상태	6.9	30.5	42.1	17.9	2.6	100.0 (9,930)
사회여가문화활동	7.6	35.0	42.0	13.7	1.7	100.0 (9,930)
배우자 관계 ²⁾	14.0	56.9	25.9	3.0	0.2	100.0 (6,702)
자녀 관계 ³⁾	14.3	59.0	22.6	3.6	0.5	100.0 (9,617)
친구/지역사회 관계	8.6	50.3	34.6	5.9	0.6	100.0 (9,930)
삶 전반	3.9	45.7	42.6	7.4	0.5	100.0 (9,9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6,702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

3) 본인응답자 중 생존 자녀가 있는 9,61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함

노인의 일반특성별 건강상태에 만족(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비율은 읍·면부 지역에 비해 동부가 높으며, 여자에 비해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5세 이후가 되면서 만족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불만족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65~69세는 68.4%가 건강상태에 만족하지만, 75~79세에서는 38.8%로 감소, 85세 이상에서는 28.0%만이 건강 상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일 경우 무배우에 비해 건강에 만족하는 비율이 약 14.8%포인트 높게 나타나며, 가구형태에서도 노인부부가구에 비해 독거, 자녀동거의 경우 만족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에 만족하는 비율은 높아지며, 취업중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에 만족하는 비율은 높았다. 건강상태 만족도는 기능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 기능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16.1%만이 건강상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경제상태 만족도는 여자에 비해 남자,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 노인부부의 경우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에서 65~69세의 경우 49.3%는 경제상태에 만족하는 반면, 80세 이후에서는 만족비율이 25%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상태 만족도는 높아져서 무학의 경우 19.4%만이 만족하는 것에 반해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66.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대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상태 만족도가 높으며 그 차이는 32.1%포인트로 크게 나타났다.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는 42.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여자에 비해 남자, 연령이 낮을수록, 유배우일 때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데 무학의 경우 24.0%가 만족하는 것에 반해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64.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40.0%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한다. 취업상태, 가구형태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제한이 있는 경우 22.4%만이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70.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족하는 경우는 3.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일반특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으며, 기능상태에 제한이 없을 경우 72.3%, 기능 제한이 있을 경우 56.4%로 나타났다.

〈표 11-48〉 노인의 일반특성별 건강 상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체 ¹⁾	4.5	46.0	31.2	15.7	2.6	100.0	(9,930)
지역							
동부	5.3	46.5	29.9	15.6	2.8	100.0	(7,518)
읍·면부	2.2	44.2	35.2	16.0	2.3	100.0	(2,413)
성							
남자	6.7	50.1	28.8	12.1	2.3	100.0	(4,281)
여자	2.9	42.8	33.0	18.4	2.9	100.0	(5,649)
연령							
65~69세	7.5	60.9	24.5	6.1	0.9	100.0	(3,337)
70~74세	5.3	47.7	33.2	12.5	1.3	100.0	(2,319)
75~79세	2.1	36.7	37.5	20.0	3.6	100.0	(2,262)
80~84세	1.5	30.8	33.5	29.1	5.0	100.0	(1,426)
85세 이상	1.5	26.5	30.6	33.2	8.3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6	49.7	30.3	12.3	2.1	100.0	(6,704)
배우자 없음	2.3	38.2	32.9	22.8	3.8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2.5	41.3	32.3	20.2	3.8	100.0	(1,985)
노인부부	5.7	49.1	31.2	12.0	2.1	100.0	(5,847)
자녀동거	3.2	41.9	30.6	21.2	3.1	100.0	(1,935)
기타	4.3	40.0	22.9	27.7	5.1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0.9	24.6	36.4	29.9	8.2	100.0	(1,023)
초등학교	2.1	37.5	37.0	20.5	3.0	100.0	(3,134)
중학교	3.2	49.4	31.9	13.7	1.8	100.0	(2,323)
고등학교	6.2	59.4	25.0	8.3	1.1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1.1	49.5	18.5	8.6	2.2	100.0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6.4	57.0	28.6	7.4	0.6	100.0	(3,554)
미취업	3.5	39.8	32.6	20.3	3.8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7	39.7	35.9	18.5	3.1	100.0	(1,986)
제2오분위	2.6	40.4	32.5	20.5	4.0	100.0	(1,987)
제3오분위	4.4	47.4	30.8	13.9	3.5	100.0	(1,991)
제4오분위	4.9	52.0	29.2	12.4	1.5	100.0	(1,987)
제5오분위	8.2	50.3	27.3	13.2	1.0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7	40.1	34.1	19.2	3.8	100.0	(3,927)
50%이상~100%미만	4.2	47.4	30.6	15.0	2.7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5.5	51.8	28.0	13.7	1.0	100.0	(1,618)
150%이상	10.8	54.2	26.8	7.6	0.5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5.0	49.8	31.6	12.8	0.8	100.0	(8,832)
제한 있음	0.8	15.3	27.6	38.9	17.4	100.0	(1,098)
2017년도	2.7	34.4	24.0	32.4	6.5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49〉 노인의 일반특성별 경제 상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체 ¹⁾	6.9	30.5	42.1	17.9	2.6	100.0 (9,930)
지역						
동부	7.8	30.4	41.5	17.5	2.8	100.0 (7,518)
읍·면부	4.1	31.0	44.0	19.1	1.8	100.0 (2,413)
성						
남자	8.3	33.9	40.1	15.8	1.8	100.0 (4,281)
여자	5.8	28.0	43.6	19.4	3.2	100.0 (5,649)
연령						
65~69세	10.4	38.9	38.9	10.9	1.0	100.0 (3,337)
70~74세	6.9	32.4	42.4	16.5	1.8	100.0 (2,319)
75~79세	4.3	25.6	44.1	22.8	3.3	100.0 (2,262)
80~84세	4.6	19.7	45.1	25.6	5.1	100.0 (1,426)
85세 이상	2.9	20.5	45.0	25.4	6.3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7.9	33.9	41.6	15.3	1.4	100.0 (6,704)
배우자 없음	4.9	23.5	43.3	23.2	5.2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5.3	24.7	42.0	23.3	4.8	100.0 (1,985)
노인부부	8.0	34.1	41.4	15.1	1.3	100.0 (5,847)
자녀동거	5.5	25.9	43.8	20.7	4.1	100.0 (1,935)
기타	3.4	26.6	49.5	15.2	5.3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1.4	18.0	40.9	31.2	8.4	100.0 (1,023)
초등학교	5.3	22.4	46.2	23.0	3.1	100.0 (3,134)
중학교	5.3	31.6	43.8	17.7	1.7	100.0 (2,323)
고등학교	8.9	40.1	40.1	10.0	0.9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2.1	44.5	25.8	5.8	1.8	100.0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9.0	35.7	37.9	16.0	1.4	100.0 (3,554)
미취업	5.7	27.6	44.5	18.9	3.3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9	22.3	41.8	24.3	4.8	100.0 (1,986)
제2오분위	5.1	23.8	44.2	22.7	4.2	100.0 (1,987)
제3오분위	6.5	30.0	44.0	17.9	1.6	100.0 (1,991)
제4오분위	5.5	35.2	41.9	16.0	1.4	100.0 (1,987)
제5오분위	10.6	41.3	38.7	8.3	1.0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1	22.8	43.3	23.2	4.6	100.0 (3,927)
50%이상~100%미만	5.5	30.2	44.0	18.8	1.6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6.8	39.6	41.2	11.5	1.0	100.0 (1,618)
150%이상	14.8	46.2	33.5	4.8	0.7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7.5	31.8	42.3	16.6	1.8	100.0 (8,832)
제한 있음	2.3	19.9	40.7	27.9	9.2	100.0 (1,098)
2017년도	0.9	27.9	36.0	30.3	5.0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50〉 노인의 일반특성별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체 ¹⁾	7.6	35.0	42.0	13.7	1.7	100.0 (9,930)
지역						
동부	8.1	35.0	41.8	13.5	1.5	100.0 (7,518)
읍·면부	6.0	34.9	42.6	14.3	2.3	100.0 (2,413)
성						
남자	8.6	36.1	41.7	11.8	1.7	100.0 (4,281)
여자	6.8	34.1	42.3	15.1	1.7	100.0 (5,649)
연령						
65~69세	11.2	39.6	39.0	9.5	0.8	100.0 (3,337)
70~74세	6.6	38.0	42.0	12.2	1.1	100.0 (2,319)
75~79세	5.9	33.7	43.2	15.3	1.9	100.0 (2,262)
80~84세	4.5	26.5	46.3	19.2	3.5	100.0 (1,426)
85세 이상	4.7	22.7	43.9	24.0	4.7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8.2	36.6	42.2	11.8	1.2	100.0 (6,704)
배우자 없음	6.2	31.6	41.6	17.7	2.9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6.7	32.2	41.3	16.8	3.0	100.0 (1,985)
노인부부	8.4	36.5	42.5	11.5	1.1	100.0 (5,847)
자녀동거	6.3	33.9	40.6	16.8	2.4	100.0 (1,935)
기타	4.6	27.7	48.7	18.0	0.9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2.4	21.6	48.0	22.6	5.4	100.0 (1,023)
초등학교	6.2	29.6	45.5	16.8	2.0	100.0 (3,134)
중학교	6.0	37.2	41.9	13.7	1.3	100.0 (2,323)
고등학교	9.1	42.7	38.7	8.9	0.6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3.2	40.8	29.6	5.7	0.7	100.0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9.0	37.0	41.5	11.5	0.9	100.0 (3,554)
미취업	6.8	33.9	42.3	14.9	2.2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8.1	31.2	42.0	16.1	2.7	100.0 (1,986)
제2오분위	5.8	31.9	44.2	15.3	2.8	100.0 (1,987)
제3오분위	6.8	35.1	42.5	14.4	1.3	100.0 (1,991)
제4오분위	6.6	36.8	43.1	12.3	1.2	100.0 (1,987)
제5오분위	10.7	40.1	38.1	10.5	0.6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7	31.5	43.2	16.1	2.6	100.0 (3,927)
50%이상~100%미만	6.9	34.0	43.6	14.1	1.5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6.5	41.6	40.2	10.9	0.8	100.0 (1,618)
150%이상	14.7	41.1	35.4	8.2	0.5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8.0	37.0	42.0	12.0	0.9	100.0 (8,832)
제한 있음	3.9	18.5	41.6	27.9	8.2	100.0 (1,098)
2017년도	3.6	44.1	32.4	17.6	2.3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51〉 노인의 일반특성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체 ¹⁾	14.0	56.9	25.9	3.0	0.2	100.0	(6,702)
지역							
동부	13.7	56.4	26.9	2.8	0.2	100.0	(5,076)
읍·면부	14.9	58.6	22.6	3.9	0.0	100.0	(1,627)
성							
남자	15.9	59.0	23.0	2.1	0.1	100.0	(3,701)
여자	11.7	54.4	29.4	4.2	0.3	100.0	(3,002)
연령							
65~69세	17.5	56.7	23.4	2.4	0.1	100.0	(2,628)
70~74세	13.3	59.0	24.4	3.2	0.1	100.0	(1,714)
75~79세	11.6	55.7	28.8	3.4	0.5	100.0	(1,489)
80~84세	8.2	56.0	31.3	4.3	0.2	100.0	(707)
85세 이상	11.2	53.4	31.8	3.6	0.0	100.0	(165)
가구형태							
노인부부	14.2	57.1	25.4	3.1	0.1	100.0	(5,847)
자녀동거	12.3	56.1	28.3	2.8	0.5	100.0	(772)
기타	15.3	47.7	34.1	0.9	2.0	100.0	(84)
교육수준							
무학	6.8	59.2	27.2	5.8	1.0	100.0	(375)
초등학교	9.8	54.3	32.4	3.4	0.1	100.0	(1,804)
중학교	13.4	54.1	28.9	3.5	0.2	100.0	(1,712)
고등학교	15.5	61.1	20.9	2.3	0.2	100.0	(2,282)
전문대학 이상	28.7	55.1	14.3	1.8	0.0	100.0	(529)
현 취업상태							
취업중	16.9	56.4	23.6	2.9	0.2	100.0	(2,678)
미취업	12.0	57.2	27.4	3.2	0.2	100.0	(4,025)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6.3	58.4	22.0	3.3	0.1	100.0	(877)
제2오분위	10.1	56.6	28.9	4.1	0.3	100.0	(1,314)
제3오분위	12.7	57.3	26.0	3.6	0.4	100.0	(1,585)
제4오분위	12.9	55.8	28.6	2.7	0.0	100.0	(1,501)
제5오분위	18.7	57.0	22.5	1.6	0.1	100.0	(1,424)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2	57.4	26.2	3.9	0.3	100.0	(2,508)
50%이상~100%미만	13.1	56.4	27.6	2.9	0.1	100.0	(2,369)
100%이상~150%미만	14.0	60.2	23.5	2.2	0.1	100.0	(1,083)
150%이상	22.9	52.1	23.0	1.9	0.1	100.0	(742)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8	57.5	24.6	2.9	0.2	100.0	(6,117)
제한 있음	5.5	50.9	38.9	4.3	0.3	100.0	(586)
2017년도	6.1	65.6	21.7	5.8	0.8	100.0	(6,404)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내 배우자가 있는 6,702명에 대해 분석함.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비율은 73.3%로 삶의 다양한 영역 중 만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특성별 자녀와의 관계만족도는 연령이 낮을수록 높으며, 유배우일 때 무배우에 비해 약 9.5%포인트의 만족도 비율이 높으며,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 가구가 77.3%가 만족하는 것에 반해 노인독거는 66.0%, 자녀동거는 69.4%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관계 만족도가 높으며, 기능제한이 없을 경우 만족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만족도 비율은 5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중이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생각하는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는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만족(매우 만족+만족), 절반 정도는 그저그렇다라고 평가한다. 노인의 일반 특성별 만족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여자(46.9%)에 비해 남자가 만족(53.2%)하는 비율이 6.3%포인트 높게 나타나며,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65~69세의 경우 62.1%가 만족하는 반면, 85세 이상에서는 35.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 가구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무학의 경우 28.6%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73.3%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며,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 만족하는 비율은 29.2%이며,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25.6%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52〉 노인의 일반특성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체 ¹⁾	14.3	59.0	22.6	3.6	0.5	100.0 (9,617)
지역						
동부	14.3	58.2	23.1	3.9	0.5	100.0 (7,272)
읍·면부	14.3	61.7	21.1	2.6	0.3	100.0 (2,344)
성						
남자	14.5	58.6	22.7	3.7	0.5	100.0 (4,160)
여자	14.2	59.3	22.5	3.5	0.5	100.0 (5,457)
연령						
65~69세	19.9	57.1	20.4	2.4	0.3	100.0 (3,228)
70~74세	14.4	59.2	22.7	3.3	0.4	100.0 (2,234)
75~79세	10.8	61.6	22.6	4.4	0.6	100.0 (2,193)
80~84세	8.4	59.5	25.9	5.2	1.0	100.0 (1,395)
85세 이상	10.4	58.1	26.0	4.9	0.6	100.0 (56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5.2	61.2	20.8	2.6	0.2	100.0 (6,536)
배우자 없음	12.4	54.5	26.4	5.6	1.1	100.0 (3,081)
가구형태						
노인독거	12.7	53.3	26.7	6.0	1.4	100.0 (1,851)
노인부부	15.2	62.1	20.0	2.5	0.2	100.0 (5,684)
자녀동거	13.7	55.7	25.7	4.6	0.3	100.0 (1,930)
기타	10.3	55.2	28.3	4.0	2.1	100.0 (152)
교육수준						
무학	8.8	54.3	27.4	8.1	1.4	100.0 (994)
초등학교	10.5	59.5	25.3	4.2	0.5	100.0 (3,013)
중학교	14.7	57.3	24.3	3.5	0.3	100.0 (2,251)
고등학교	17.3	61.8	18.7	1.9	0.3	100.0 (2,773)
전문대학 이상	27.5	58.6	12.2	1.3	0.3	100.0 (586)
현 취업상태						
취업중	16.0	60.6	20.6	2.5	0.4	100.0 (3,457)
미취업	13.4	58.1	23.7	4.2	0.5	100.0 (6,160)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7	54.6	25.2	5.4	1.0	100.0 (1,873)
제2오분위	11.3	59.4	24.0	4.4	0.9	100.0 (1,915)
제3오분위	14.3	61.0	21.0	3.3	0.4	100.0 (1,942)
제4오분위	13.3	59.0	24.4	3.2	0.1	100.0 (1,955)
제5오분위	19.0	60.9	18.4	1.7	0.1	100.0 (1,932)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2.4	57.1	24.5	5.1	0.9	100.0 (3,753)
50%이상~100%미만	13.6	60.4	22.4	3.3	0.2	100.0 (3,264)
100%이상~150%미만	14.6	61.7	21.5	2.0	0.3	100.0 (1,584)
150%이상	22.9	57.8	17.6	1.7	0.0	100.0 (1,016)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0	59.3	22.1	3.2	0.4	100.0 (8,557)
제한 있음	8.6	56.4	26.8	6.7	1.5	100.0 (1,060)
2017년도	8.0	68.7	16.6	5.1	1.6	100.0 (9,839)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내 생존자녀가 있는 9,617명을 대상으로 함.

〈표 11-53〉 노인의 일반특성별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체 ¹⁾	8.6	50.3	34.6	5.9	0.6		100.0 (9,930)
지역							
동부	8.8	49.1	35.0	6.4	0.7		100.0 (7,518)
읍·면부	7.7	54.0	33.3	4.5	0.5		100.0 (2,413)
성							
남자	10.3	49.8	33.6	5.7	0.6		100.0 (4,281)
여자	7.3	50.8	35.3	6.1	0.6		100.0 (5,649)
연령							
65~69세	10.8	57.8	27.4	3.7	0.2		100.0 (3,337)
70~74세	8.4	52.7	34.0	4.5	0.4		100.0 (2,319)
75~79세	8.1	46.8	38.2	6.2	0.7		100.0 (2,262)
80~84세	5.5	40.3	43.4	9.3	1.4		100.0 (1,426)
85세 이상	5.3	36.0	42.2	14.8	1.7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9.1	52.0	33.7	4.7	0.5		100.0 (6,704)
배우자 없음	7.4	46.9	36.4	8.4	0.9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7.6	48.4	35.8	7.5	0.7		100.0 (1,985)
노인부부	9.5	51.7	33.8	4.6	0.4		100.0 (5,847)
자녀동거	7.1	48.8	35.1	7.9	1.1		100.0 (1,935)
기타	5.8	41.8	40.1	11.9	0.4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3.7	39.2	42.8	12.1	2.3		100.0 (1,023)
초등학교	7.0	45.4	39.9	7.1	0.6		100.0 (3,134)
중학교	8.0	51.1	35.5	4.9	0.5		100.0 (2,323)
고등학교	9.1	59.0	28.0	3.8	0.1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24.8	50.8	20.4	3.3	0.7		100.0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11.7	55.9	28.5	3.5	0.4		100.0 (3,554)
미취업	6.8	47.2	37.9	7.3	0.8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7.4	49.1	35.8	6.9	0.9		100.0 (1,986)
제2오분위	7.1	45.3	38.5	8.3	0.9		100.0 (1,987)
제3오분위	7.4	50.9	36.0	5.1	0.7		100.0 (1,991)
제4오분위	7.4	52.3	35.2	4.6	0.5		100.0 (1,987)
제5오분위	13.6	54.1	27.4	4.8	0.1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9	46.7	37.5	7.9	1.0		100.0 (3,927)
50%이상~100%미만	7.1	50.7	36.6	5.0	0.6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8.0	57.7	29.2	4.9	0.1		100.0 (1,618)
150%이상	20.1	51.3	25.5	3.0	0.1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9.1	52.5	33.7	4.4	0.3		100.0 (8,832)
제한 있음	4.0	33.2	41.9	17.9	3.0		100.0 (1,098)
2017년도	4.5	55.8	28.1	10.1	1.6		100.0 (10,0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54〉 노인의 일반특성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특성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체 ¹⁾	3.9	45.7	42.6	7.4	0.5	100.0	(9,930)
지역							
동부	4.5	45.8	42.1	7.1	0.5	100.0	(7,518)
읍·면부	2.0	45.3	43.9	8.3	0.5	100.0	(2,413)
성							
남자	4.8	48.4	39.4	6.8	0.6	100.0	(4,281)
여자	3.3	43.6	45.0	7.9	0.3	100.0	(5,649)
연령							
65~69세	6.4	55.7	33.8	3.8	0.2	100.0	(3,337)
70~74세	3.7	47.2	43.0	5.6	0.5	100.0	(2,319)
75~79세	2.7	39.6	47.6	9.8	0.3	100.0	(2,262)
80~84세	1.5	34.0	52.0	11.8	0.8	100.0	(1,426)
85세 이상	1.4	34.0	48.3	14.5	1.8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6	48.7	40.9	5.5	0.3	100.0	(6,704)
배우자 없음	2.5	39.3	46.1	11.3	0.8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2.9	39.7	45.1	11.6	0.7	100.0	(1,985)
노인부부	4.8	48.1	41.3	5.5	0.3	100.0	(5,847)
자녀동거	2.6	44.7	43.6	8.3	0.8	100.0	(1,935)
기타	0.4	41.1	44.4	14.1	0.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1.4	27.2	52.1	17.9	1.3	100.0	(1,023)
초등학교	2.3	38.4	49.4	9.4	0.5	100.0	(3,134)
중학교	3.0	44.6	46.2	5.9	0.3	100.0	(2,323)
고등학교	4.8	58.6	32.6	3.7	0.2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16.1	57.2	23.8	2.1	0.9	100.0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5.2	51.0	38.2	5.4	0.3	100.0	(3,554)
미취업	3.2	42.7	45.0	8.5	0.6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6	39.5	45.3	11.7	0.8	100.0	(1,986)
제2오분위	2.3	40.2	47.0	9.8	0.6	100.0	(1,987)
제3오분위	4.4	45.4	42.9	6.9	0.4	100.0	(1,991)
제4오분위	3.4	48.2	42.6	5.4	0.4	100.0	(1,987)
제5오분위	6.9	54.9	34.8	3.1	0.1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4	39.9	46.1	10.9	0.7	100.0	(3,927)
50%이상~100%미만	4.1	44.0	44.6	6.8	0.5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3.4	55.9	36.5	4.0	0.3	100.0	(1,618)
150%이상	9.8	56.7	32.1	1.3	0.2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4.2	47.9	42.2	5.5	0.2	100.0	(8,832)
제한 있음	1.7	27.5	45.3	22.7	2.9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6절 노인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욕구

1. 노인정책에 대한 인지도

노인의 소득, 돌봄, 건강,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인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이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에서 노인의 돌봄 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치매대응 정책으로서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 치매전담요양기관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도별로 운영 중이며, 최근 치매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를 위한 성년후견인 제도, 그리고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의 자산을 활용한 연금제도로써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정책들은 기초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교할 때 급여 대상자 규모가 적거나 최근에 도입된 제도로써 각 제도에 대한 노인의 인지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기술한 9개의 서비스 또는 제도에 대해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은 치매조기검진서비스로 44.1%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 29.7%, 치매전담요양기관 26.9%, 치매안심센터 26.0%로 치매 대응 정책은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 비율은 38.6%로 높게 나타났다.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주택연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비율은 29.4%로 높으나, 농지연금의 경우 13.2%로 주택연금에 비해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주택연금에 비해 최근 도입되었으며 또한 주택에 비해 농지를 소유한 노인 비율이 높지 않음으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 보장 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1.9%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돌봄서비스나 치매 대응 서비스 기관 등에 비해 전국에 운영되는 기관 수가 많지 않음으로 인해 인지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비율이 10.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성년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인정책에 대한 인지도에서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라는 응답의 비율 또한 매

우 높게 나타났다. 성년후견인 제도의 경우는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5.8%로 매우 높은 반면, 맞춤형 돌봄이나 치매 정책들, 노인보호전문기관,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의 경우는 들어는 봤지만 알지 못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응답자의 40%대로 나타났다.

〈표 11-55〉 노인의 정책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잘 알고 있다	들어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	모른다	계 (명)
1)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38.6	46.9	14.5	100.0 (9,930)
2) 치매조기검진서비스	44.1	42.2	13.8	100.0 (9,930)
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	29.7	44.7	25.7	100.0 (9,930)
4) 치매전담요양기관 운영	26.9	45.8	27.2	100.0 (9,930)
5) 치매안심센터	26.0	45.5	28.5	100.0 (9,930)
6)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 및 대응기관)	21.9	43.3	34.9	100.0 (9,930)
7) 성년후견인제도	10.0	34.2	55.8	100.0 (9,930)
8) 주택연금	29.4	44.3	26.3	100.0 (9,930)
9) 농지연금	13.2	41.2	45.6	100.0 (9,930)
계	100.0	100.0	100.0	100.0 (9,93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인의 일반특성별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를 살펴보았다. 지역별로는 동부 지역은 읍·면부 지역에 비해 치매 대응 서비스 및 기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읍·면부가 동부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동부지역이 32.1%로 나타나며, 읍·면부가 21.1%로 동부가 높은 반면, 농지연금은 동부는 11.8%이지만, 읍·면부는 17.8%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노인서비스와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여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에 대한 인지도는 여자에 비해 약 11.0%포인트와 7.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치매조기검진과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80세 이후 노인에게도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매에 대한 노인의 높은 관심과 지역단위에 조기발견을 위한 적극적 노력의 결과로 보여지며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돌봄서비스 확대에 의해 고연령이라도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배우자 유무에서는 유배우가 무배우에 비해 제시된 노인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형태에서는 노인부부가구는 노인독거나 자녀동거에 비해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정책 인지도의 차이는 노인의 다른 특성에 비해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도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53.0%로 높게 나타난 반면 무학의 경우 15.8%로 37.2%포인트 낮게 나타났으며, 치매정책이나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에서 거의 2배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별 노인정책 인지도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따른 정책 인지도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의 인지도 편차는 그 외의 정책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치매 정책, 노인보호전문기관, 주택연금, 농지연금에 경우 인지도의 차이는 이보다 크게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는 기능상태에 따른 인지도 차이는 4.1%포인트로 나타났다.

고연령, 독거노인, 저학력, 기능제한의 경우 정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정보부족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또는 제도 이용에 제한이 나타날 수 있다. 노인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에게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표 11-56〉 노인의 일반특성별 정책인지도 :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

(단위: %, 명)

특성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치매 조기검진	치매전문 리ハビリ원	치매전담 요양기관	치매안 심센터	노인보호 전문기관	성년후견 인제도	주택 연금	농지 연금	(명)
전체 ¹⁾	38.6	44.1	29.7	26.9	26.0	21.9	10.0	29.4	13.2	(9,930)
지역										
동부	37.3	45.3	30.6	27.4	26.3	21.2	9.7	32.1	11.8	(7,518)
읍·면부	42.8	40.3	26.8	25.3	25.2	24.0	10.9	21.1	17.8	(2,413)
성										
남자	41.3	46.3	32.5	29.1	28.7	24.3	12.5	35.7	17.3	(4,281)
여자	36.5	42.4	27.5	25.3	24.0	20.0	8.2	24.7	10.2	(5,649)
연령										
65~69세	41.9	46.8	34.5	31.8	32.0	26.7	14.3	36.5	16.4	(3,337)
70~74세	38.6	44.6	29.6	25.3	25.3	22.0	9.1	28.9	12.8	(2,319)
75~79세	38.4	44.0	28.0	26.4	25.1	19.3	7.8	26.5	11.0	(2,262)
80~84세	35.4	41.8	25.8	23.3	19.6	18.0	7.1	23.4	12.3	(1,426)
85세 이상	28.4	31.6	17.8	16.7	13.3	13.0	5.0	16.9	8.3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0.0	45.3	31.6	28.5	28.1	23.7	11.0	32.3	14.8	(6,704)
배우자 없음	35.7	41.4	25.7	23.7	21.7	17.9	7.9	23.4	9.9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36.3	40.6	26.8	24.3	23.0	19.8	8.7	24.5	11.2	(1,985)
노인부부	40.0	45.2	31.8	28.4	28.0	24.0	10.9	32.1	15.1	(5,847)
자녀동거	36.7	44.8	26.4	26.0	23.1	18.0	8.8	26.6	10.0	(1,935)
기타	37.0	36.8	26.3	19.3	26.3	16.7	9.0	24.7	8.9	(164)
교육수준										
무학	31.5	35.2	16.8	16.7	14.4	14.3	3.6	15.8	7.6	(1,023)
초등학교	35.0	41.1	26.0	23.8	21.6	18.1	8.0	24.8	12.7	(3,134)
중학교	36.4	42.0	29.9	26.3	26.4	20.2	9.7	28.0	10.6	(2,323)
고등학교	43.7	48.5	34.7	31.6	31.2	25.9	12.7	35.6	14.5	(2,857)
전문대학 이상	53.9	61.7	45.5	41.5	42.7	41.8	20.2	53.0	29.9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42.8	47.4	33.0	30.4	30.1	24.0	11.2	31.2	16.3	(3,554)
미취업	36.2	42.2	27.8	25.0	23.7	20.6	9.4	28.4	11.5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3.0	36.9	26.5	22.7	21.5	19.3	7.4	25.7	10.1	(1,986)
제2오분위	37.5	41.6	26.1	23.5	23.5	20.4	9.1	24.8	12.4	(1,987)
제3오분위	37.2	44.4	28.2	25.7	24.5	19.1	10.2	27.9	13.3	(1,991)
제4오분위	40.0	47.9	31.7	27.5	28.1	22.5	10.6	31.1	13.4	(1,987)
제5오분위	45.3	49.4	35.8	35.3	32.5	28.0	12.8	37.6	17.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4.6	39.1	26.0	22.6	22.2	19.6	8.2	25.4	11.2	(3,927)
50%이상~100%미만	38.8	45.5	29.7	26.8	25.9	19.4	9.9	28.6	13.2	(3,330)
100%이상~150%미만	41.4	47.0	31.1	29.5	27.4	25.0	11.4	32.5	13.3	(1,618)
150%이상	48.5	53.2	41.0	39.5	38.5	33.0	15.0	42.2	21.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39.3	45.4	30.5	27.9	27.0	22.8	10.5	31.2	14.1	(8,832)
제한 있음	32.6	33.2	22.8	18.7	17.6	13.9	6.4	15.0	6.2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노인정책 확대의 우선순위

노인정책 중 향후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1순위로 확대되어야 할 것은 36.3%가 빈곤완화 지원, 26.3%가 노인건강서비스, 14.0%는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련 서비스는 8.6%로 나타났다. 노인고용/일자리 지원은 6.7%, 노인여가문화 4.2%, 노인특화 주거 1.6%, 자원봉사/사회참여 지원 1.2%, 주택개선/개조 0.8%, 노인특화 용품 0.3%로 나타났다.

2순위까지를 고려한 확대되어야 할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노인의 의견을 살펴보면, 노인빈곤완화가 49.0%, 노인건강 45.9%, 노인돌봄 32.0%, 치매 22.5%, 노인고용/일자리 지원 21.3%, 노인여가문화 14.4%, 노인특화된 다양한 주거 5.2%, 자원봉사/사회참여 지원 4.8%, 주택개선 및 개조서비스 3.5%, 노인특화된 용품 확대가 1.3%로 나타났다.

확대될 노인복지정책을 1순위만을 살펴보면 빈곤완화, 건강, 돌봄서비스에 85.2%가 집중되는 결과를 보이며, 2순위까지를 고려한다면 좀 더 치매, 노인고용/일자리 지원, 여가문화, 사회참여 정책에 대한 욕구가 드러남을 볼 수 있다. 노인주거와 주택개선/개조, 노인특화서비스 경우의 경우도 1-2순위를 함께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서는 밀리지만 욕구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표 11-57〉 확대되어야 할 노인복지정책에 의견

(단위: %, 명)

구분	1순위	2순위	1+2순위
노인빈곤완화지원	36.3	12.7	49.0
노인건강서비스	26.3	19.6	45.9
노인돌봄서비스	14.0	18.0	32.0
치매 관련 서비스	8.6	13.9	22.5
노인고용/일자리 지원	6.7	14.6	21.3
노후 여가문화 서비스	4.2	10.2	14.4
노인 특화된 다양한 주거	1.6	3.6	5.2
노인 자원봉사/사회참여 지원	1.2	3.6	4.8
주택개선 및 개조 서비스	0.8	2.7	3.5
노인특화된 용품 확대	0.3	1.0	1.3
기타	0.0	-	0.0
계	100.0	100.0	200.0
(명)	(9,930)	(9,930)	-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노인의 일반특성별 노인정책에서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일반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빈곤, 노인건강, 노인돌봄정책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며, 그 순위에서도 빈곤, 건강, 돌봄의 순으로 나타난다.

연령에 따른 노인정책 확대 우선순위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건강과 돌봄 정책 필요성이 높게 생각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고용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교육수준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노인빈곤 정책의 확대 필요성 비율 높아져 무학인 경우 41.9%로 높았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치매정책과 고용정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취업상태별로는 취업중인 경우 고용정책을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정책으로 응답한 비율이 9.3%로 미취업자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노인빈곤정책을 1순위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은 반면, 소득이 높은 집단에서는 치매정책, 노인고용, 노후 여가문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노인정책에서 향후 확대되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을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면 보다 다양한 정책에 대한 욕구가 나타난다. 확대되어야 할 정책의 1순위에서 강력하게 나타난 소득, 건강, 돌봄 이외의 확대 될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노인의 일반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차이에서는 치매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나며,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 고용, 노후 여가문화,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65~69세는 노인 고용이 23.3%, 노후 여가문화 16.4%, 사회참여가 5.7%로 고연령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낮을 경우 노인특화 주거, 주택 개조 등에 대한 정책 확대의 필요성도 나타났다. 고연령의 경우 1순위와 2순위를 함께 고려하더라도 소득, 건강, 돌봄에 집중되고 그 이외의 정책에 대한 확대 필요성 욕구가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 여가문화, 사회참여 정책에 대해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취업중인 노인은 미취업자에 비해 노인고용 정책을 우선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9.1%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치매 정책, 고용정책, 노인특화 주거 확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기능상태에 따라서는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에 비해 기능 제한이 없는 노인은 노인고용, 여가문화에 대한 정책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1-58〉 노인의 일반특성별 확대되어야 할 노인정책에 의견(1순위)

(단위: %, 명)

특성	노인 빈곤	노인 건강	노인 돌봄	치매 관련	노인 고용	노후 여가 문화	노인 특화 주거	자원봉사/ 사회 참여지원	주택 개선/ 개조	노인 특화 용품	기타	계 (명)
전체 ¹⁾	36.3	26.3	14.0	8.6	6.7	4.2	1.6	1.2	0.8	0.3	0.0	100.0 (9,930)
지역												
동부	36.2	26.6	13.4	8.5	6.8	4.5	1.6	1.3	0.9	0.3	0.0	100.0 (7,518)
읍·면부	36.4	25.6	15.9	8.8	6.4	3.3	1.7	0.9	0.6	0.4	0.0	100.0 (2,413)
성												
남자	36.7	26.1	13.2	7.9	7.6	4.5	1.6	1.3	0.8	0.2	0.0	100.0 (4,281)
여자	35.9	26.5	14.7	9.1	6.0	3.9	1.6	1.1	0.8	0.4	0.0	100.0 (5,649)
연령												
65~69세	34.0	24.1	13.9	9.4	8.3	5.4	2.0	1.4	1.2	0.5	0.0	100.0 (3,337)
70~74세	36.2	25.9	14.3	8.9	7.1	3.9	1.4	1.5	0.6	0.2	0.0	100.0 (2,319)
75~79세	39.7	27.7	13.0	7.2	5.4	3.8	1.3	0.8	0.8	0.3	0.0	100.0 (2,262)
80~84세	36.9	27.6	14.2	8.7	6.4	3.3	1.7	0.8	0.3	0.2	0.0	100.0 (1,426)
85세 이상	35.2	32.2	17.5	7.8	2.3	2.1	0.9	1.0	0.6	0.5	0.0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6.1	26.3	13.4	8.8	7.0	4.6	1.6	1.1	0.8	0.3	0.0	100.0 (6,704)
배우자 없음	36.7	26.4	15.3	8.2	6.0	3.3	1.6	1.4	0.8	0.3	0.0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37.1	26.3	14.6	7.7	6.2	3.8	1.3	1.6	1.0	0.4	0.0	100.0 (1,985)
노인부부	36.4	26.3	13.4	8.6	7.2	4.4	1.6	1.1	0.8	0.3	0.0	100.0 (5,847)
자녀동거	35.0	26.4	15.4	9.6	6.0	4.2	1.8	1.0	0.5	0.2	0.0	100.0 (1,935)
기타	36.5	27.8	14.1	8.5	4.3	1.8	2.1	3.7	1.3	0.0	0.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41.9	27.0	12.7	7.5	4.5	3.2	0.6	1.0	1.0	0.5	0.0	100.0 (1,023)
초등학교	38.8	26.7	13.2	8.1	6.6	3.5	1.4	0.9	0.4	0.2	0.0	100.0 (3,134)
중학교	33.4	24.7	16.7	8.5	7.1	4.8	2.2	1.2	1.0	0.4	0.0	100.0 (2,323)
고등학교	33.8	28.0	14.2	8.5	6.7	4.7	1.5	1.3	1.0	0.3	0.0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36.5	20.9	9.1	13.9	9.8	4.7	1.9	2.1	0.6	0.3	0.1	100.0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36.4	24.9	12.5	8.1	9.3	4.1	2.1	1.4	1.0	0.3	0.0	100.0 (3,554)
미취업	36.2	27.1	14.9	8.9	5.3	4.2	1.3	1.1	0.7	0.3	0.0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9.2	23.0	14.4	8.6	7.5	3.9	1.1	1.4	0.5	0.6	0.0	100.0 (1,986)
제2오분위	39.5	26.1	15.9	6.3	5.9	3.2	1.3	0.9	0.6	0.2	0.0	100.0 (1,987)
제3오분위	39.8	26.9	12.4	8.1	5.5	3.7	1.6	0.7	0.9	0.4	0.0	100.0 (1,991)
제4오분위	33.5	29.9	13.6	7.7	5.7	5.1	1.9	1.6	0.9	0.1	0.0	100.0 (1,987)
제5오분위	29.5	25.8	13.9	12.3	9.0	4.9	2.0	1.4	1.0	0.3	0.0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0.1	24.4	14.9	7.3	6.5	3.4	1.3	1.0	0.6	0.4	0.0	100.0 (3,927)
50%이상~100%미만	37.5	28.5	12.8	8.0	5.1	4.3	1.5	1.3	0.7	0.3	0.0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30.1	28.0	14.2	9.2	8.5	5.1	1.9	1.5	1.1	0.3	0.0	100.0 (1,618)
150%이상	27.6	23.8	14.3	14.4	9.8	5.1	2.5	1.1	1.1	0.2	0.0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37.2	26.2	13.1	8.0	7.1	4.4	1.7	1.2	0.8	0.3	0.0	100.0 (8,832)
제한 있음	28.7	27.5	21.3	13.3	3.5	2.7	0.7	1.0	0.7	0.6	0.0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표 11-59〉 노인의 일반특성별 확대되어야 할 노인정책에 의견(1+2 순위)

(단위: %, 명)

특성	노인 빈곤	노인 건강	노인 돌봄	치매 관련	노인 고용	노후 여가 문화	노인 특화 주거	자원봉사/ 사회 참여자원	주택 개선/ 개조	노인 특화 용품	기타	계
전체 ¹⁾	49.0	45.9	32.0	22.5	21.3	14.4	5.2	4.8	3.5	1.3	200.0	(9,930)
지역												
동부	48.8	47.1	31.3	21.8	21.1	14.7	5.5	4.9	3.6	1.4	200.0	(7,518)
읍·면부	49.3	42.7	34.3	24.4	22.1	13.4	4.5	4.5	3.5	1.3	200.0	(2,413)
성												
남자	49.2	45.1	30.3	21.5	24.1	14.9	5.5	4.7	3.2	1.3	200.0	(4,281)
여자	48.7	46.6	33.4	23.2	19.2	14.0	5.1	4.8	3.8	1.4	200.0	(5,649)
연령												
65~69세	47.0	41.7	30.5	23.8	23.3	16.4	6.1	5.7	4.2	1.5	200.0	(3,337)
70~74세	48.9	44.8	31.3	23.6	23.0	14.6	4.9	4.4	3.1	1.2	200.0	(2,319)
75~79세	51.3	46.9	31.4	20.5	21.1	14.2	5.6	3.5	4.2	1.4	200.0	(2,262)
80~84세	51.8	51.6	33.9	21.6	17.5	11.7	3.7	4.9	2.3	1.2	200.0	(1,426)
85세 이상	44.7	57.3	42.4	20.0	13.7	9.3	3.6	5	2.3	2.0	2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8.8	45.5	30.6	23.1	22.1	14.7	5.5	4.7	3.6	1.3	200.0	(6,704)
배우자 없음	49.2	46.9	35.0	21.3	19.6	13.6	4.8	4.8	3.4	1.4	2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49.6	46.3	34.5	20.2	20.3	15.1	4.6	4.6	3.4	1.5	200.0	(1,985)
노인부부	49.4	45.1	30.8	22.8	22.4	14.3	5.5	4.5	3.9	1.3	200.0	(5,847)
자녀동거	47.0	48.1	32.9	23.1	19.5	14.6	5.3	5.5	2.6	1.4	200.0	(1,935)
기타	48.7	47.0	35.2	30.6	17.0	7.1	2.9	7.6	3.1	1.0	200.0	(164)
교육수준												
무학	55.0	51.0	34.7	19.7	16.9	11.6	2.4	3.4	3.3	1.9	200.0	(1,023)
초등학교	52.4	48.1	30.2	21.3	21.7	13.4	4.6	4.1	2.8	1.1	200.0	(3,134)
중학교	46.8	44.1	33.9	21.7	21.4	14.6	6.7	5.1	4.4	1.4	200.0	(2,323)
고등학교	45.5	44.5	32.9	23.5	21.7	16.0	5.6	5.1	3.8	1.4	200.0	(2,857)
전문대학 이상	45.4	39.7	25.2	32.0	24.9	15.8	5.2	7.4	2.9	1.2	200.0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48.9	42.0	29.1	21.0	29.1	13.1	6.6	4.9	4.0	1.2	200.0	(3,554)
미취업	48.9	48.1	33.7	23.3	17.0	15.1	4.4	4.7	3.3	1.4	2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3.0	42.0	31.6	19.2	24.1	13.5	5.3	6.7	3.0	1.7	200.0	(1,986)
제2오분위	53.0	49.0	33.6	20.4	19.4	13.0	3.9	3.6	3.1	0.8	200.0	(1,987)
제3오분위	52.7	47.9	31.3	22.0	18.9	13.2	5.2	4.0	3.2	1.6	200.0	(1,991)
제4오분위	45.2	47.5	32.1	22.8	19.6	16.7	5.1	4.9	4.8	1.3	200.0	(1,987)
제5오분위	40.9	43.4	31.7	28	24.6	15.4	6.6	4.6	3.5	1.4	2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3.6	45.9	32.4	19.8	21.4	12.9	4.7	5.0	3.1	1.2	200.0	(3,927)
50%이상~100%미만	50.3	48.3	31.5	22.2	18.2	14.2	5.2	4.7	3.8	1.6	200.0	(3,330)
100%이상~150%미만	41.2	45.5	31.4	24.1	24.9	17.6	4.8	4.6	4.0	1.8	200.0	(1,618)
150%이상	39.2	39.1	33.5	30.5	25.6	15.6	7.8	4.5	3.4	0.7	2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50.1	45.9	30.0	21.5	22.7	15.2	5.3	4.6	3.4	1.3	200.0	(8,832)
제한 있음	39.4	46.7	48.4	30.0	10.4	8.2	4.2	5.8	4.7	2.1	2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제12장

결론

제1절 2020년 조사의 주요 결과와 노인의 삶의
변화(2008-2020)

제2절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제3절 조사의 한계점 및 향후 조사 발전을 위한 과제

제 12 장 결론

제1절 2020년 조사의 주요 결과와 노인의 삶의 변화(2008~202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조사시점에 65세에 도달한 1955년 8월 이전 출생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1차 베이비부머인 1955년부터 1963년 출생자의 65세 이상 진입이 본격화되기 이전 조사이다. 조사결과 조사응답자의 연령분포는 65세부터 최고 연령 102세로 최고령자와 최저연령자는 38세의 연령차이를 보인다. ‘노인’이라는 한 집단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1세대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생애주기에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지만, 노인 집단 내에서의 다양성은 수명 증가로 인해 커지고 있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 특성의 다양성은 크게 부각되었다. 노인의 연령, 지역, 성, 그리고 가구형태와 경제수준, 교육수준 등에 따라 노인의 가족과 사회 관계, 건강 상태와 건강행태, 돌봄 현황, 경제활동과 사회활동, 거주 환경과 가치관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앞서 3장부터 11장에 걸쳐 분석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와 함께 이전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된 노인실태조사의 결과 비교를 통해 노인 집단의 현재의 특성과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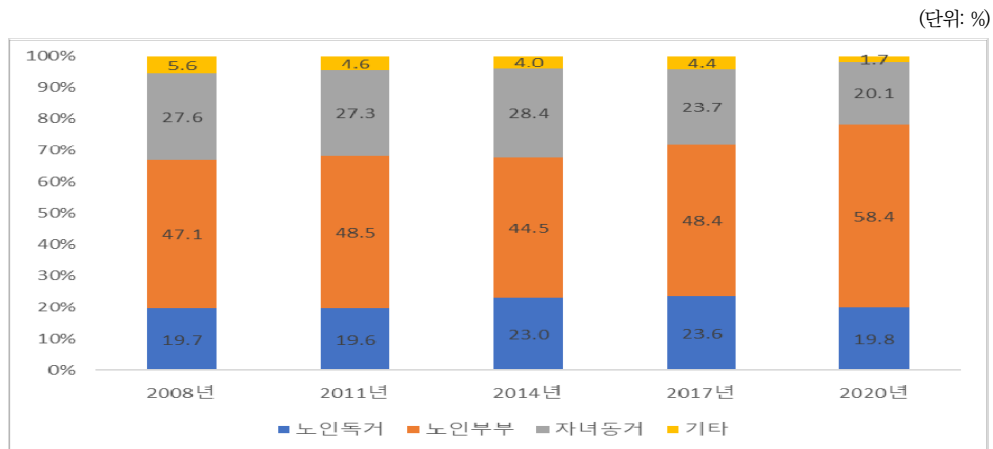
1.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2020년 조사 결과 노인의 연령분포는 65~69세 33.1%, 70~74세 23.2%, 75~79세 22.7%, 80~84세 14.6%, 85세 이상 6.4%로 분포하며, 평균 73.8세이다. 노인의 67.1%는 배우자가 있으며, 32.9%는 무배우 상태이며,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가 58.4%, 노인1인가구인 독거가 19.8%, 자녀 동거가구는 20.1%로 나타난다. 특히 자녀 동거가구 20.1% 중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9.8%이며,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10.8%로 나타난다.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75세 이상 후기노인(72.0%), 여성 노인(77.1%), 초졸 이하 저학력 노인(64.2%)로 나타났다. 한편 미혼자녀와 동거하

는 노인은 대체로 75세 미만의 전기 노인(66.2%), 여성 노인(63.2%), 고졸 이상의 고학력 노인(38.9%)으로 나타났다.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노인의 필요에 의해,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의 필요에 의해 자녀동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가구 형태는 2008년 조사 이후 노인독거가구와 노인 부부가구는 증가하고 자녀동거 가구는 감소하고 있다. 노인독거가구의 비중이 '08년 19.7%에서 '17년 23.6%로 증가하였으나, '20년 19.8%로 감소한 반면 노인부부가구는 '08년 47.1%에서 '20년 58.4%로 계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자녀동거가구는 '08년 27.6%에서 '20년 20.1%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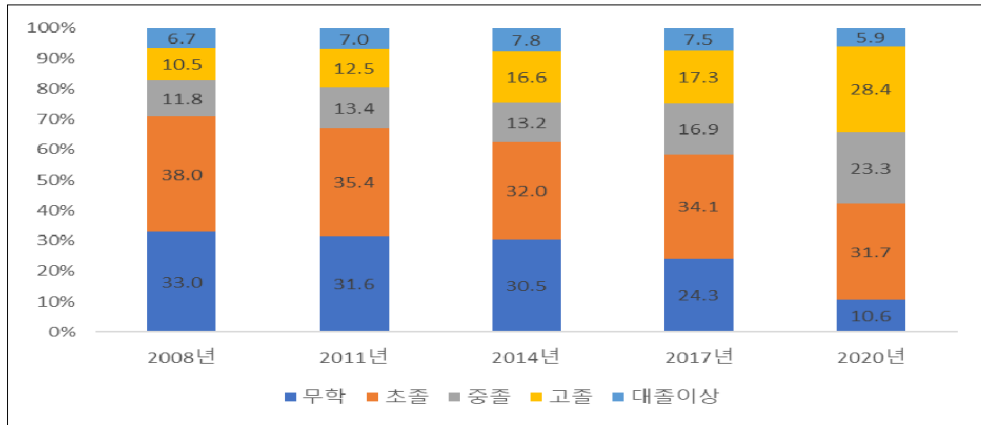
[그림 12-1] 노인의 가구형태의 변화(2008년~2020년)



2020년 조사결과 노인의 교육수준은 무학의 비율이 10.6%이며, 고등학교 이상이 34.3%로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인다. 무학의 비율이 '08년 33.0%에서 '20년 10.6%로 22.4포인트 급감하였으며, 중·고졸의 비율은 '08년 22.3%에서 '20년 51.7%로 29.4포인트 급증하여 노인의 학력수준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자의 비중은 17.2%에서 34.3%로 고학력 노인이 증가하였다. 노인의 학력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향후 노인들은 과거의 노인과는 상이한 욕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운 노인집단의 욕구 변화를 고려한 정책의 방향성 재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2-2] 노인의 교육수준의 변화(2008년~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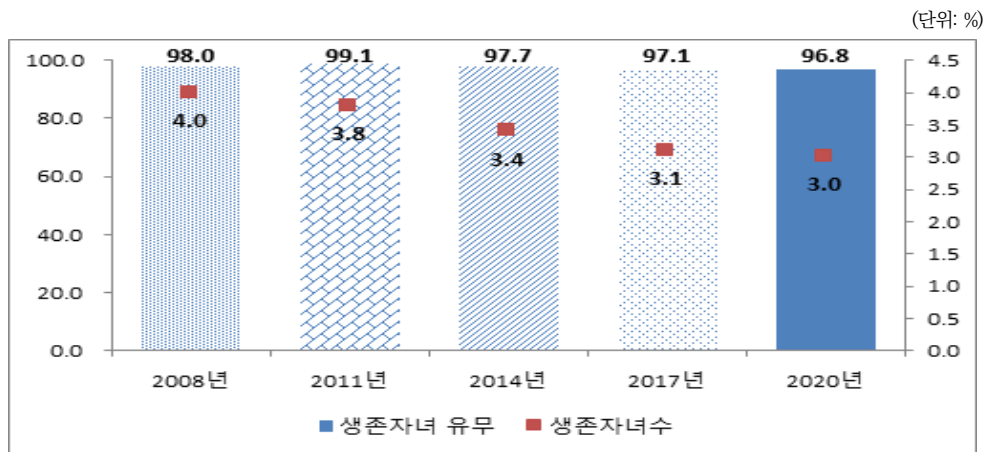
2.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노인의 가족과 친척, 친구는 공식적 관계가 감소하는 노년기에 주요한 관계 요소이다. 2020년 조사결과 노인의 대부분인 96.8%가 자녀가 있고 평균 자녀수는 3.0명이며, 88.3%가 손자녀를 두고 있으며 평균 손자녀는 4.1명으로 나타난다. 비동거하는 자녀와의 만남과 연락빈도를 살펴보면, 비동거 자녀와 노인의 만남 빈도는 6.0%는 주 1회 이상 왕래하고 있고 63.5%는 주 1회 이상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 월 1~2회 만남과 주 1회 이상의 연락이 평균적인 접촉실태이며, 이러한 접촉 실태는 자녀와의 거주거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노인과 비동거 자녀와의 접촉은 고연령 또는 기능상태 제한 노인의 경우 주 1회 이상 왕래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노인 중 17.9%는 비동거 자녀와 연 1~2회 왕래 또는 왕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독, 고립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자녀와는 주 1회 이상 만남 또는 연락하는 비율은 8.6%, 17.5%로 자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직접 돌봐준 10세 미만 손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이며, 평균적으로 2.3명의 손자녀를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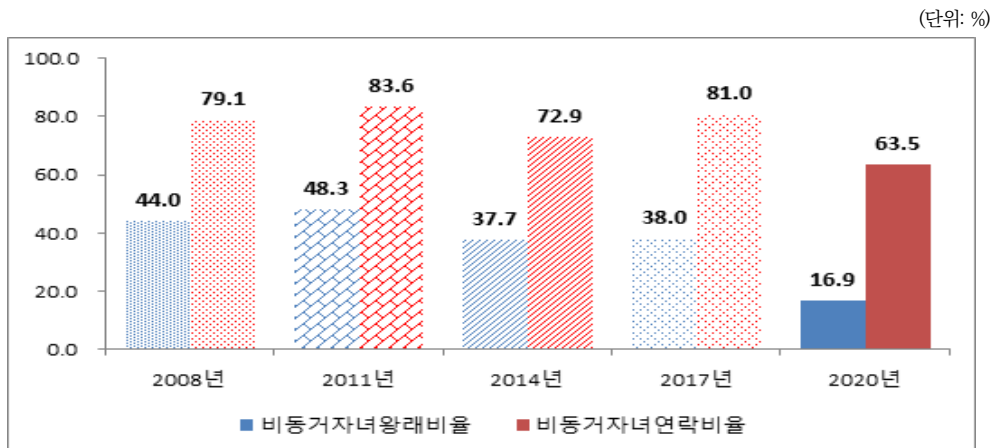
자녀의 규모와 접촉 빈도는 2008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녀가 있는 비율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생존자녀수는 2008년 평균 4명에서 2020년 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물리적 접촉을 기반으로 한 자녀와의 만남은 주 1회 이상 만나는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 38.0%에서 16.9%로 많이 감소하였다.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은 주1회 연락을 하는 비율이 최근 들어 감소하여 2017년 81.0%에서 2020년 63.5%로 나타났다.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만남 뿐 아니라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 뿐 아니라 노인과 자녀와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 집중도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12-3] 노인의 생존자녀 유무 및 규모 변화(2008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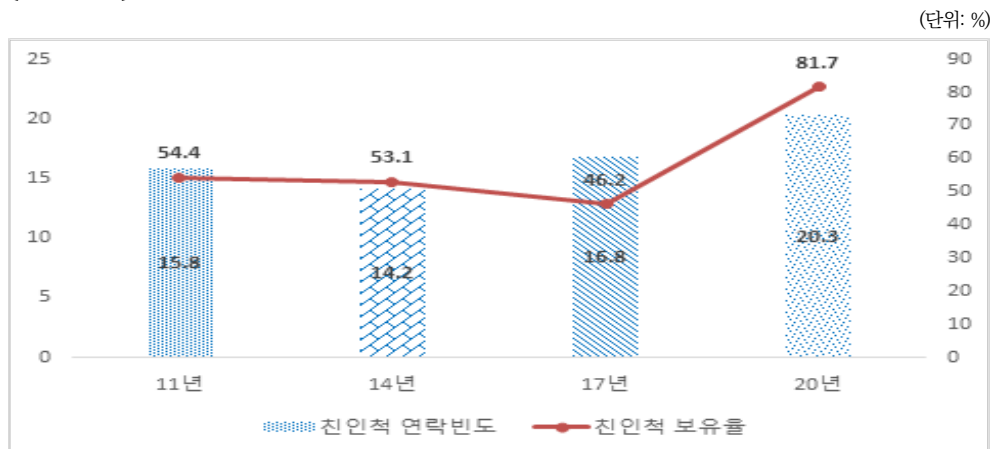


[그림 12-4] 노인의 비동거자녀와의 주1회 이상 왕래(연락)비율 변화(2008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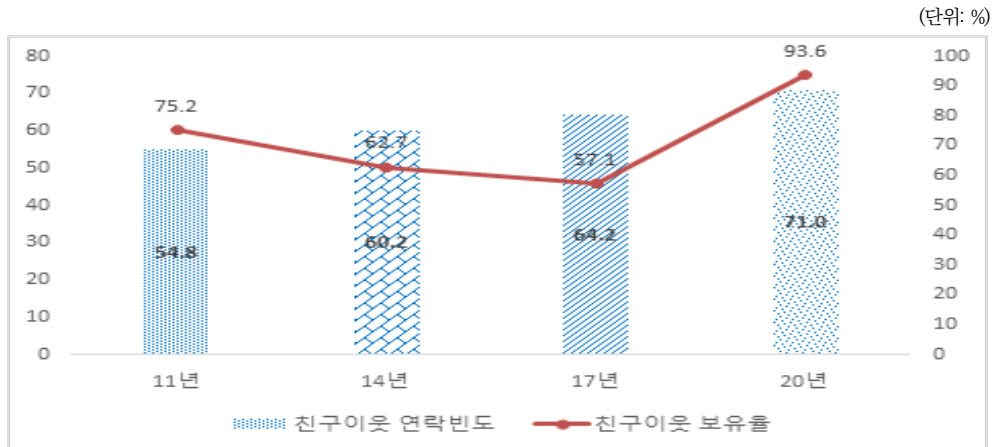


노인의 자녀와의 만남과 연락의 빈도는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노인은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비공식적 관계망 외에도 친인척, 친구나 이웃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미있는 타자(significant others)와의 관계는 최근 들어 다각화되고 있다.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친구와 이웃과의 만남과 연락 빈도는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까운 친인척 보유는 2011년 54.4%에서 2020년 81.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친한 친구나 이웃이 있는 경우도, 동기간 75.2%에서 93.6%로 증가하였다. 이같은 경향성은 교류빈도와 맞물려 가까운 친인척과의 연락빈도는 2011년 이후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주1회 이상 연락빈도는 20.3%로 나타났다. 친구 및 이웃과의 연락빈도 역시 유사한 경향으로 2020년 주 1회 이상 연락을 주고 받는 비율이 71.0%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 자원 보유율 증가 추이 및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친인척 및 친구 이웃 등 동년배와의 교류가 확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2-5] 친인척 보유율 및 연락빈도(주1회 이상)



[그림 12-6] 친구이웃 보유율 및 연락빈도(주1회 이상)



3. 노인의 부양 교환 및 부양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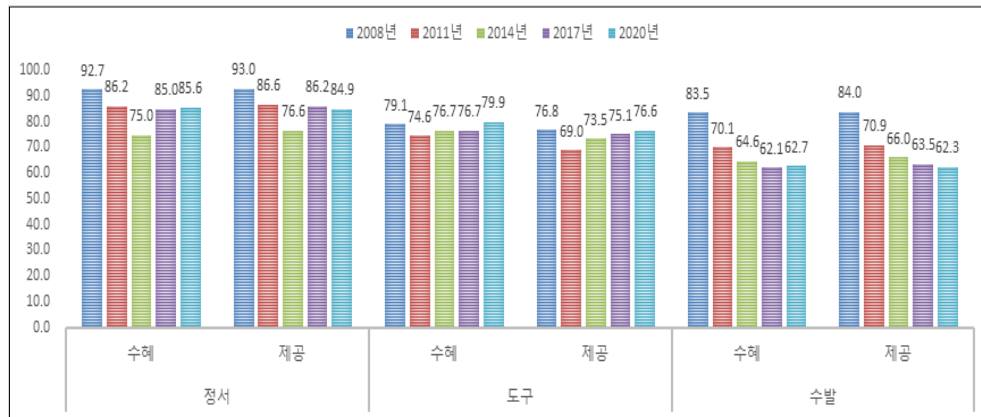
가. 배우자와의 부양 교환

배우자와의 부양 교환에 있어서는 정서적, 도구적(가사 등), 돌봄 지원 모두 제공-수혜간 상호호혜적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정서적 지원이 가장 활발한 경향을 보인다. 노인의 85.6%는 배우자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4.9%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도구적 지원의 수혜율은 79.9%, 제공률은 76.6%, 돌봄 지원은 62.7%의 수혜율, 62.3%의 제공률을 보여 수혜-제공이 유사한 수준이다. 도구적 지원 및 돌봄 지원에 있어서는 제공-수혜간 성별 차이가 두드러져 남자 노인은 배우자로부터 수혜를, 여자 노인은 배우자에게 제공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더 많은 가사 지원이나 신체 지원 등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배우자와의 부양 교환은 2008년부터 상호호혜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그 비율도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배우자와의 돌봄 지원은 2011년 이후 제공 및 수혜율 모두 약 60% 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비롯한 돌봄의 공적 책무가 강화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12-7] 배우자와의 부양 교환 변화(2008년~2020년)

(단위: %)



나. 자녀와의 부양 교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동거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돌봄 지원 순으로 제공 받으며,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돌봄 지원 순으로 제공하였다. 이같은 경향은 배우자와의 지원 교환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중 77.9%가 동거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았으며, 65.3%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청소·식사준비·세탁 등의 도구적 지원의 수혜율은 74.3%, 제공률은 68.9%로 나타났다. 돌봄의 경우 수혜율은 49.9%, 제공률은 29.5%로 차이를 보인다. 도구 및 돌봄지원은 신체 및 기능상태 저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여성 노인, 후기 노인, 기능 제한을 경험한 노인들에게서 수혜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도움의 경우 정기적 현금지원은 수혜율이 56.2%, 제공률이 19.5%이며, 비정기적 현금지원은 수혜율 79.8%, 제공률 33.4%, 현물지원은 수혜율 80.0%, 제공률 41.8% 등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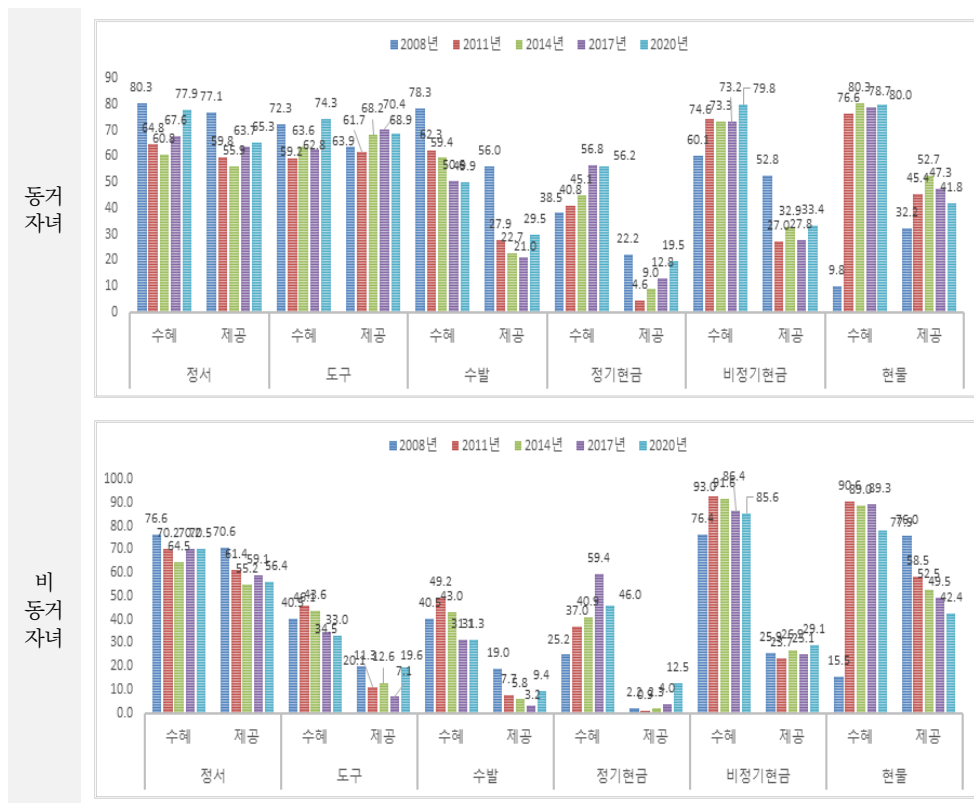
비동거 자녀와의 부양의 교환실태를 살펴보면 70.5%가 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제공률은 56.4%로 나타났다. 도구적 지원은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혜율은 33.0%이나 제공률은 19.6%, 돌봄 지원은 동 비율이 31.3%와 9.4%이다. 배우자나 동거자녀와 같이 거주공간을 공유하지 않음에 따라, 도구적 지원 및 돌봄 지원 등의 비율이 앞선 관계유형보다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인 지원의 경우 46.0%가 비동거 자녀로부터 정기

적인 현금지원을 받고 있고, 비정기적 현금지원은 85.6%, 현물지원은 77.9% 수준이다. 제공의 경우 현물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현금 제공 수준은 현물 제공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비정기 현금지원은 29.1%, 정기적 현금지원은 12.5%이다. 경제적 도움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닌 여성 노인, 무배우자 노인, 미취업 노인에게서 높은 수혜율을 보이며, 이는 동거자녀에게서도 나타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자녀와의 부양 교환에서 돌봄 지원은 배우자의 경우와 같이 '11년 이후 제공 및 수혜율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8] 자녀와의 부양 교환 변화(2008년~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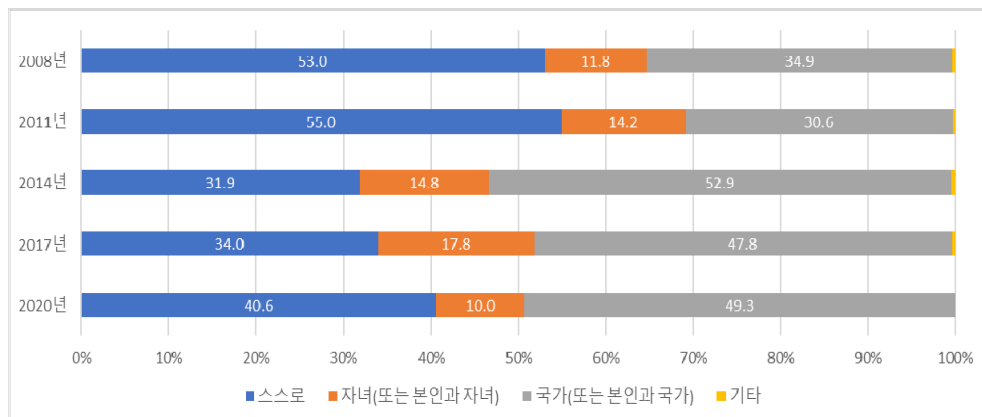


다. 노후 부양 가치관

노후 생활비 마련에 대하여 40.6%의 노인이 본인 스스로, 27.0%가 본인과 사회보장제도, 22.3%는 사회보장제도, 5.3%는 본인과 자녀, 4.7%는 자녀로 응답하였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지닌 집단(여성 노인, 후기 노인, 저학력 노인, 기능제한 노인 등)에서 제도적 지원을 통한 노후 생활비 마련을 더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부양에 대한 가치관에서 자녀의 비중이 감소하고, 사회보장제도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후생활비 마련 주체와 관련하여 본인이라는 응답은 '08년 53.0%에서 '17년 34.0%로 감소하였으나, '20년 40.6%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자녀(또는 본인과 자녀)라는 응답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이로 '20년 10.0%로 나타났다.

[그림 12-9] 노후 생활비 마련 주체에 대한 가치관 변화(2008년~2020년)

(단위: %)



4. 노인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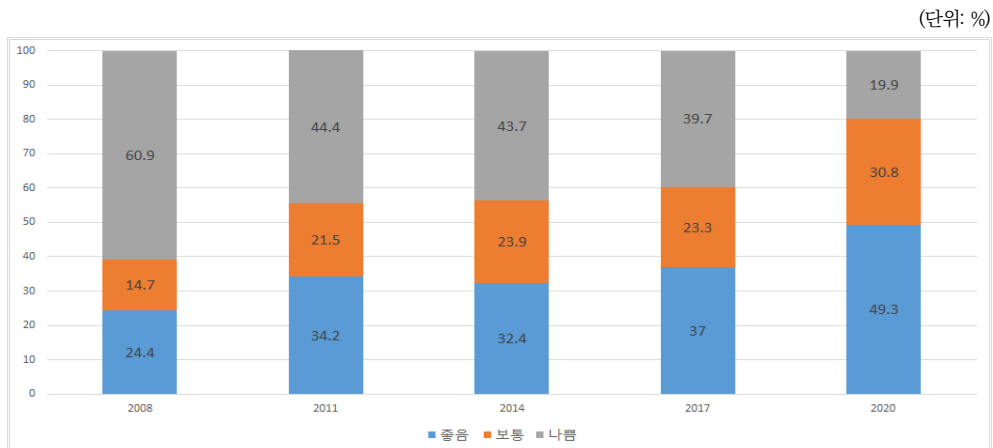
가. 건강상태

노인의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만성질환, 우울증상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49.3%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였고, 9.9%의 노인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29.4%p 더 높게 나타나며 연령대별로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를 보이며, 80세 이후부터 건강상태가 좋다고 평가하는 노인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노인의 비중이 높아진다. 남자노인(55.3%)이 여자노인(44.8%)보다, 유배우자 노인(55%)이 무배우자 노인(37.6%)보다, 노인부부가구(55.2%)에서, 고학력 집단일수록, 미취업한 노인 집단보다 취업한 노인 집단에서,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노인은 '08년 24.4%에서 '20년 49.3%로 24.9%p 증가하였고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노인은 '08년 60.9%에서 '20년 19.9%로 41%p 감소하였다. 평균수명 연장, 의료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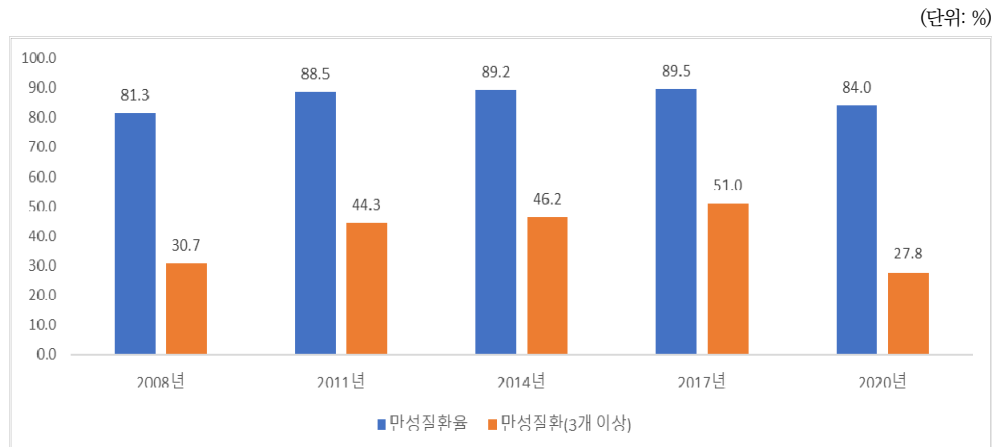
[그림 12-10] 노인의 주관적 건강 상태 변화(2008년~2020년)



65세 이상 노인의 84.0%가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1개 보유하고 있는 노인은 29.2%, 2개는 27.1%, 3개 이상은 27.8%로 나타났다. 다빈도 만성질환은 고혈압(56.8%), 당뇨병(24.2%), 고지혈증(17.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관절염(16.5%), 요통/좌골신경통(10.0%)로 나타나며, 그 외에 백내장(5.3%), 위·십이지궤양

(5.0%), 전립선비대증(4.1%) 의 순으로 나타난다. 만성질환보유율은 0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년 감소세('08년 81.3%→ '17년 89.5% → '20년 84.0%), 3개 이상 만성질환보유율 또한 08년 이후 계속적 증가하다 20년 조사에서 크게 감소('08년 30.7%→ '17년 51.0%→ '20년 27.8%)하였다.

[그림 12-11] 만성질환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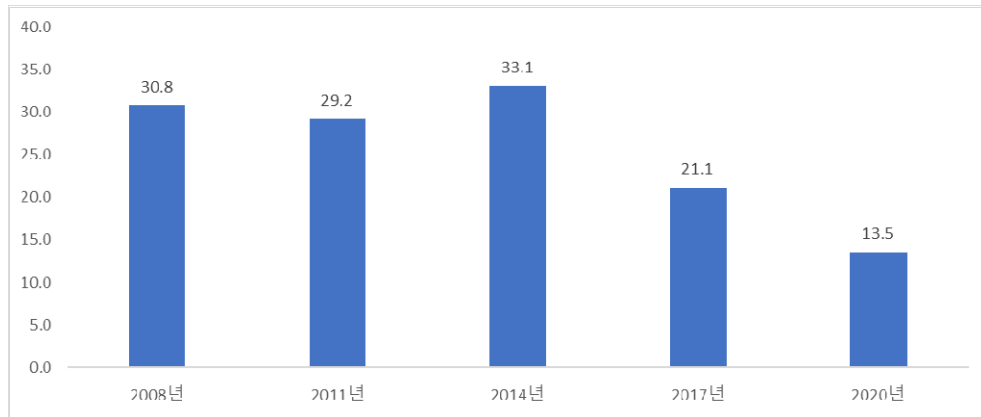


노인의 우울 증상 조사에서 13.5%는 우울증상을 보였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연령군의 우울증상은 24.0%로, 65세~69세 연령군(8.4%)에 비해 약 3배 정도 우울증상이 높은 수준이다. 우울증상은 '08년 30.8%에서 '14년 33.1%로 증가 이후 감소하여 '20년 13.5%로 감소하였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뿐 아니라 객관적 건강상태를 볼 수 있는 만성질환, 우울 증상에서도 과거에 비해 건강상태가 좋아진 결과를 보인다.

[그림 12-12] 우울증상율 변화

(단위: %)



나. 건강행태

건강행태는 대표적으로 흡연, 음주, 영양관리와 운동 실천으로 파악된다. 노인 중 현재 흡연자는 11.9%이고, 지난 1년간 음주경험자는 38.5%이며 이 중 과음주율(1주 8잔 이상)은 6.3%, 적정 음주비율은 32.2%으로 나타났다. 흡연율은 성별 차이를 보여 여자노인(2.3%)에 비해 남자노인(24.7%)이 높게 나타났다. 과음주율은 여자노인(1.5%)보다 남자노인(12.8%)이 높았고, 대체적으로 연령이 낮고 고학력인 집단,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노인의 영양관리 상태는 노인의 72.2%가 양호한 수준이고, 19.0%는 영양관리 주의가 요구되는 수준이며, 8.8%는 영양관리 개선이 필요한 수준이었다. 영양관리 개선이 요구되는 집단은 남자 노인(6.6%)보다 여자 노인(10.6%)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유배우 노인(5.8%)보다 무배우 노인 집단(15.1%)에서, 노인독거가구(17.2%)에서, 기능상태 제한이 있는 경우(23.3%)가 영양관리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 노인은 유배우 노인보다 영양관리 개선 요구비율이 약 3배 정도 높고, 노인독거가구의 영양관리 개선 비율이 다른 가구 집단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맞춤형노인돌봄사업이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무배우 노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영양관리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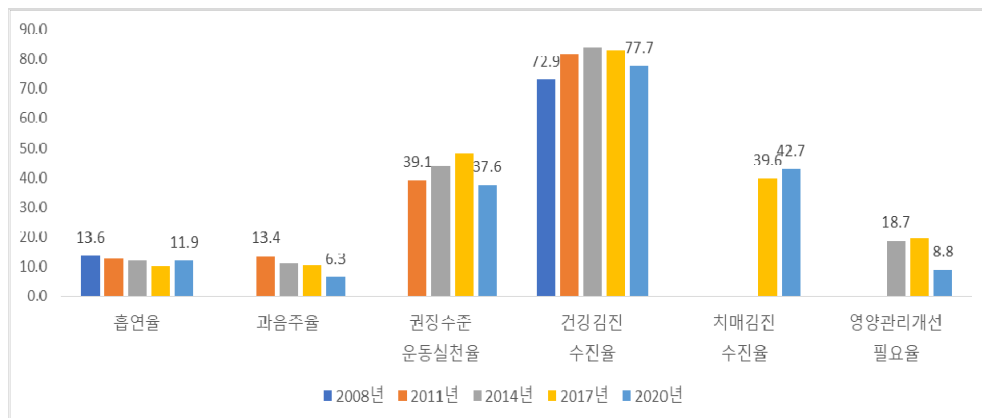
운동 실천율은 53.7%로 나타나며, 권장수준 이상(1주 150분 이상)의 운동 실천은

37.6%로 나타났다. 권장수준 이상 운동 실천율은 동부(40.8%) > 읍면부(27.5%), 남자(41.1%) > 여자(35.0%), 연령별로는 80세 미만에서는 40% 전후로 나타나지만 80세 이상에서는 30%미만으로 감소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기능제한이 없을수록 실천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건강행태는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2008년을 기준으로 2020년의 변화를 살펴보면, 흡연율은 다소 감소, 과음주율은 감소하였으며, 권장수준 운동 실천율과 건강검진율, 치매검진율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영양관리에서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그림 12-13] 노인의 건강행태 변화(2008년~2020년)

(단위: %)



5. 노인의 기능 상태와 돌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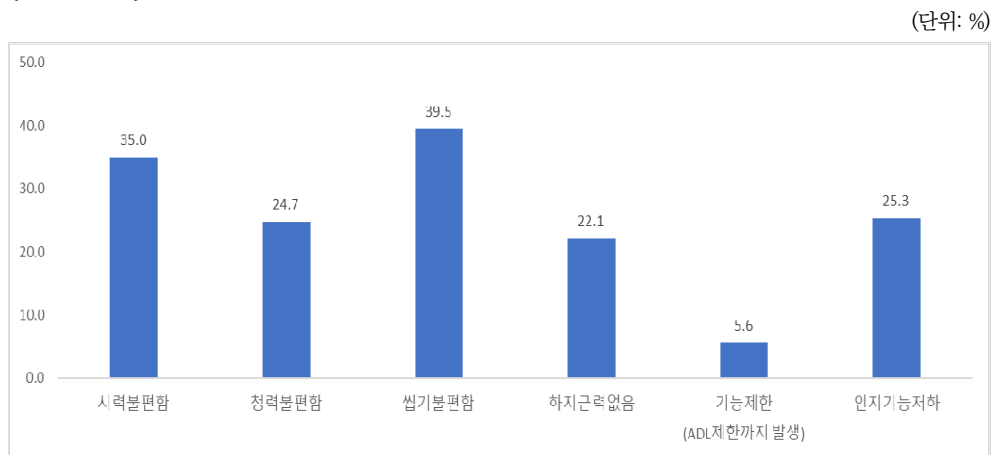
가. 신체 기능

노인의 기능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살펴 보았다. 7개의 ADL 항목과 10개의 IADL에 기초하여 파악한 기능 상태를 살펴보면 87.8%는 기능 제한이 전혀 없지만, 6.6%는 IADL만 제한을 경험하고 있으며, 5.6%는 ADL의 제한까지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능상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제한률이 높아 85세 이상 연령 군에서는 ADL 제한이 있는 비율이 22.8%에 달하고 있는

며, 무배우 노인과 노인독거가구 및 자녀동거가구의 신체기능 자립률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력에 불편함을 경험하는 노인은 35.0%, 청력 불편함은 24.7%, 씹기 불편함은 39.5%로 나타났다. 하지 근력이 없는 비율은 22.1%이며, 인지기능 저하는 25.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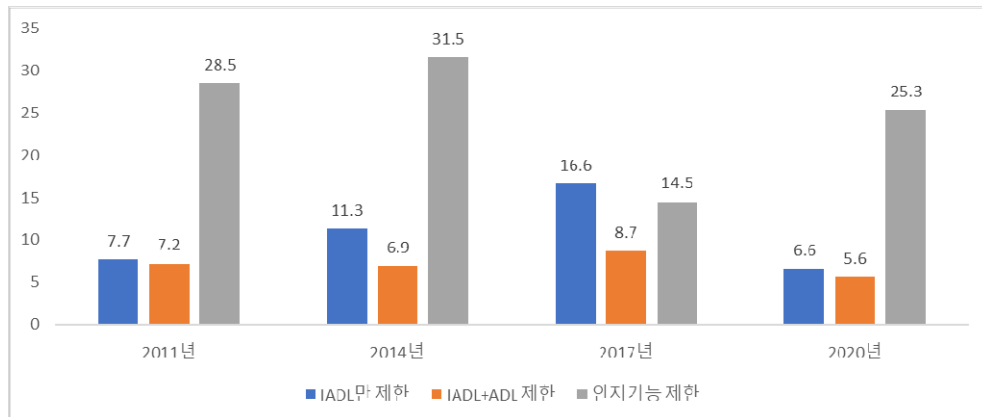
[그림 12-14] 노인의 기능상태 제한율



노인의 신체적 기능제한을 IADL만 제한, ADL까지 제한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IADL만 제한이 있는 비율은 '11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년 6.6%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ADL까지 제한율은 6.9%~8.7%의 규모를 보였으나 '20년에는 5.6%로 감소하였다. 신체기능 제한자 비율의 감소는 ADL 제한이 높은 중증 노인의 요양시설, 요양병원 이용률이 높으며 또한 재가에 거주할 경우도 조사 한계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제한율이 감소한 것을 기능상태의 긍정적 변화로만 해석하는 것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인지기능은 2017년 조사에서 이전 년도 약 30%내외에서 14.5%로 감소하였으나, '20년 25.3%로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활용하는 MMSE-DS 척도가 교육년수, 연령, 성별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의 컷 포인트를 이용하고 있어 이번 조사에서 노인의 교육년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컷포인트가 높은 집단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인지기능 저하로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그림 12-15] 노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제한율 변화(2011년~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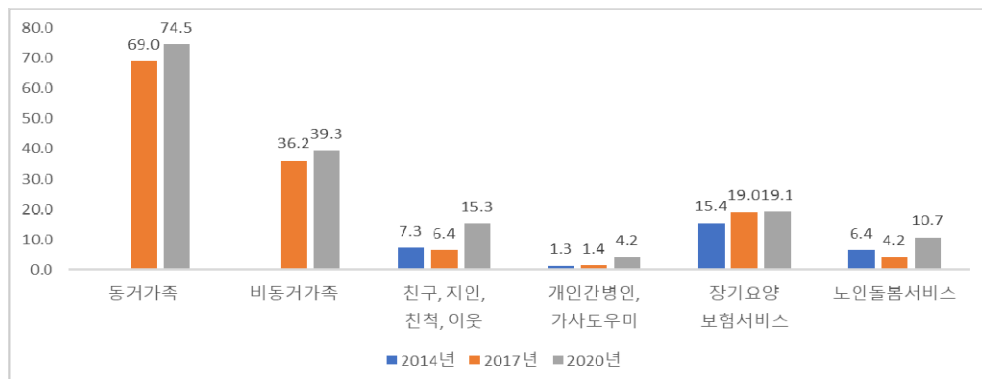


나. 돌봄 현황

신체적 기능 저하자 중 55.0%가 돌봄을 받고 있고, 이 중 74.5%는 동거가족원, 39.3%는 비동거 가족원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 또한, 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 중 공식돌봄서비스인 장기요양보험서비스 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이 19.1%, 노인돌봄서비스가 10.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75세 이후에서는 장기요양, 노인돌봄 등의 공적 서비스 이용율이 높아지며, 가족 등 비공식 돌봄자에 의한 돌봄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12-16] 노인의 돌봄제공자 특성

(단위: %)



6. 노인의 경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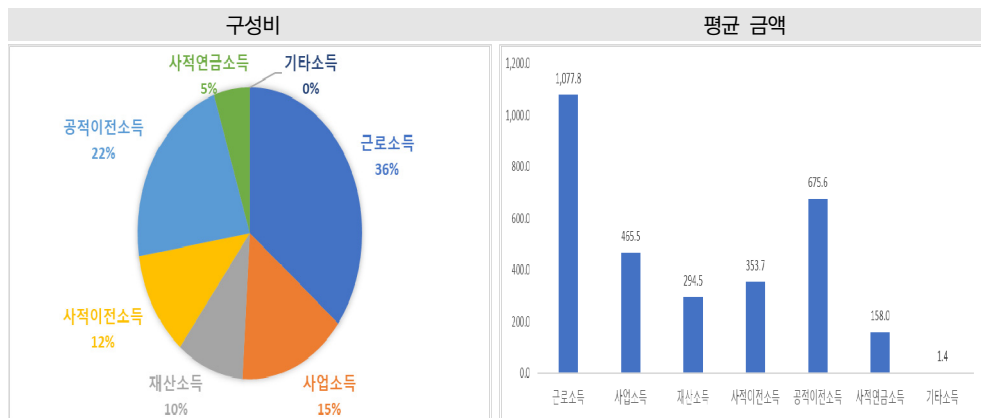
가. 노인 가구 소득

가구원 수를 고려한 중위소득을 산출하여, 노인 가구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상대적 빈곤)의 비율은 39.6%로 나타나며, 50~100% 미만이 33.5%, 100~150% 미만이 16.3%, 150% 이상은 10.6%로 나타났다.

노인가구의 연 총소득은 평균 3,026.5만원이고, 가구형태별 가구 연 총소득을 살펴보면, 1인가구는 1,44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2,879.8만원, 자녀동거가구는 4,965만원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가구소득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35.6%이며, 근로소득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적이전소득으로 22.3%, 다음으로 사업소득이 15.4%, 사적이전소득 11.7%이다. 전기노인(65~69세), 무배우 노인, 자녀동거 노인은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반면, 고연령 노인(8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의 사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특성이 있다.

[그림 12-17] 노인가구의 소득원별 구성 및 평균금액

(단위 %, 만원)



나. 노인 개인 소득

노인 개인소득의 경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소득원은 사적이전소득으로 90.0%이며, 다음이 기초연금 68.9%, 공적연금이 30.6%이다. 이외에도 근로소득 26.3%, 재산소득 16.5%, 사업소득 12.3% 등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연간 개인소득은 평균 1,557.6만원으로, 공적이전소득이 2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24.1%, 사업소득 17.2%, 사적이전소득 13.9%, 재산소득 11.0%, 사적연금소득 6.3%, 기타소득 0.0%의 순이다. 자녀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이전소득의 보유율은 매우 높지만,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의 기여로 만들어진 근로, 사업, 재산, 사적연금의 비중(58.6%)이 매우 높으며,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의 비중(27.5%) 또한 높게 나타났다.

2008년~2020년 동안 노인의 개인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노인의 소득은 연간 700만원('08년)에서 1,558만원('20년)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명목가격 기준), 노후소득 변화는 노인의 경제적 자립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인의 소득항목별 보유 실태를 비교해보면 2020년 근로소득 보유율은 2011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26.3%로 나타났으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이 있는 노인은 타년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노인 개인의 소득 내 구성비를 살펴보면, 근로소득 6.5%('08년) → 24.1%('20년), 사업소득 11.8%('08년) → 17.2%('20년), 재산소득 6.9%('08년) → 11.0%('20년)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사적이전소득은 46.5%('08년) → 13.9%('20년)로 감소하였다.

〈표 12-1〉 노인의 개인소득 변화(2008년~2020년)

(단위: 만원,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전체 소득	700 ¹⁾	849	959	1,176	1,558
보유율					
근로소득	28.0	13.6	14.3	17.1	26.3
사업소득	19.1	16.8	13.8	14.8	12.3
재산소득	15.8	27.5	27.6	23.5	16.5
사적이전소득	79.0	95.3	92.9	93.4	90.0
공적연금소득	21.0	25.3	31.9	34.6	30.6
구성비					
근로소득	6.5	7.4	12.7	13.3	24.1
사업소득	11.8	9.5	15.1	13.6	17.2
재산소득	6.9	9.0	11.5	12.2	11.0
사적이전소득	46.5	39.8	23.8	22.0	13.9
공적이전소득	28.4	32.5	35.0	36.9	27.5
사적연금소득	0.2	0.3	0.4	0.8	6.3
기타	-	1.4	1.3	1.2	0.0

주: 1) 2008년은 월단위 측정으로 타년도와의 비교를 위해 월 58.4만원에 12개월을 곱하여 연간단위로 환산한 결과임

7. 노인의 경제활동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은 36.9%이며, 응답자의 49.5%는 과거 일을 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으며, 13.6%는 평생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활동 참여율은 성별로는 남자(46.9%), 여자(29.3%)로 차이를 보이며, 연령별로는 65~69세는 55.1%로 과반수 가량이 일을 하고 있으나 70세 이후부터는 점차 감소하여 80세 이후에서는 20% 미만으로 감소한다. 노인의 종사 직종을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48.7%로 가장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13.5%로 나타났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은 감소 추세이나, 급여 수준이 낮고 일자리 안정성이 높지 않은 단순노무 종사자와 서비스 종사자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종사직종은 연령별로 70세 미만의 경우 관리자의 비중이 12.8%, 서비스 종사자의 비중이 17.2%로 타 연령층에 비해 높으나, 70대 이후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내용은 경비·수위·청소 관련한 일이 25.7%로 가장 많으며, 농림어업 20.6%, 운송·건설 관련 18.7%, 가사·조리·음식 관련 업무 13.8%, 공공·환경 관련 업무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70.2%(만족 56.3%, 매우 만족 13.9%)는 현재 일

자리에 만족하며, 불만족 이유로는 낮은 급여수준(47.2%), 일의 내용에 대한 불만족(24.2%)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2008년~2020년 기간 중 노인의 경제활동 변화를 살펴보면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30%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36.9%로 2017년 30.9%에 비해 6%p 증가하는 변화를 보인다. 종사 직종의 변화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농어업 종사자의 비율은 51.2%(‘08년) → 13.5%(‘20년)로 급감한 반면, 단순노무직은 26.2%(‘08년) → 48.7%(‘20년)로 급증하였으며 또한 서비스 종사자 4.8%(‘08년) → 12.2%(‘20년)와 고위임원관리자 2.7%(‘08년) → 8.8%(‘20년)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노인의 경제활동에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노무직과 서비스 종사자가 증가하였으나, 이들 모두 근로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직종인 반면, 고위임원관리자의 비율이 증가하여, 노인집단 내에서도 근로소득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3.3%(‘08년)에서 7.9%(‘20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성과로 판단된다.

〈표 12-2〉 노인의 경제활동 변화(2008년~2020년)

(단위: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경제활동 참가율	30.0	34.0	28.9	30.9	36.9
노인일자리 참여율	3.3	4.1 ¹⁾	4.3	6.7	7.9
농어업	51.2	52.9	36.4	32.9	13.5
단순노무직	26.2	26.1	36.6	40.1	48.7
판매종사자	6.6	7.4	6.3	5.6	4.7
기능원	2.8	3.2	2.6	3.8	5.6
종사직종					
서비스근로자	4.8	4.3	5.5	5.2	12.2
사무직원	0.9	0.3	1.5	0.9	1.1
조립원	3.1	2.8	4.8	7.5	3.2
전문가	1.7	2.0	2.7	2.2	2.0
고위임직원관리자	2.7	1.0	3.7	1.8	8.8

주: 1) 노인일자리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함

8. 노인의 여가 및 사회 활동

가. 여가문화 활동

노인의 여가활동은 2017년 85.1%에서 2020년 80.3%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문화예술참여활동, 스포츠 관람활동, 스포츠 참여활동에서의 감소폭이 컸으며, 휴식활동은 43.5%에서 52.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여가활동의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수준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정치단체활동은 2017년에 비해 증가, 평생교육참여율과 자원봉사참여율은 2014년 이후 계속 감소세에 있다.

노인의 대표적인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률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 경로당 이용률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약간 증가하였으며, 노인복지관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경로당 이용률은 동지역은 21.8%인 것에 반해 농어촌 지역인 읍면부에서는 47.8%로 높으며, 연령에서는 70대 이전에는 11.2%이지만, 70세 이후에는 20% 이상이며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40% 이상으로 높다. 또한,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35.8%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상대적으로 이동력이 낮은 노인층의 주요한 외부활동 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경우 친목도모를 위해 이용하는 비율이 계속적으로 가장 높으며 2020년 조사에서도 그 경향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취미여가프로그램이나 건강서비스를 위한 이용의 비율이 차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노인복지관은 동지역 이용률이 10.4%로 읍면부 6.8%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경로당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는 경로당과 같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이용률은 14.7%로 높게 나타난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이전 조사에서는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이 50% 안팎 수준이었으나 2017년 조사 결과부터는 취미여가, 식사서비스 이용이 원인인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 조사에서는 식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45.9%로 높게 나타났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모두 식사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 비율이 증가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 거주 노인 중 고연령의 노인,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 무배우 노인의 경우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 이용을 통해 여가활동과 함께 식사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표 12-3〉 노인의 사회활동 변화(2008년~2020년)

(단위: %)

구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여가활동비율	-	-	-	85.1	80.3
문화예술관람활동	-	-	-	1.0	3.5
문화예술참여활동	-	-	-	8.6	5.1
여가 스포츠관람활동	-	-	-	0.5	2.9
활동 스포츠참여활동	-	-	-	16.6	8.1
취미오락활동	-	-	-	50.5	49.8
휴식활동	-	-	-	43.5	52.7
사회 및 기타활동	-	-	-	49.1	44.4
친목(사교단체)	54.9	37.4	43.3	45.6	44.1
사회 정치단체	0.4	0.7	0.5	0.4	1.2
참여 동호회(문화활동)	-	3.8	4.9	4.4	4.7
활동 평생교육참여율	13.4	6.7	13.7	12.9	11.9
자원봉사참여율	-	3.9	4.5	3.9	2.9
경로당 이용률	46.9	34.2	25.9	23.0	28.1
친목도모	-	89.7	85.5	91.4	82.9
식사서비스	-	3.7	6.6	57.2	62.5
여가 건강증진프로그램이용	-	1.2	0.5	9.0	11.0
복지 취미여가프로그램이용	-	3.6	4.4	8.3	19.0
노인복지관 이용률	-	8.8	8.9	9.3	9.5
시설 친목도모	-	16.9	14.9	42.3	45.7
이용 식사서비스	-	12.8	17.6	27.5	45.9
건강증진프로그램이용	-	5.4	3.8	26.4	23.4
취미여가프로그램이용	-	57.9	53.2	49.6	35.1

주: 1) 2014년까지는 TV시청을 포함한 여가문화활동 비율이며, 1~3순위까지 제시한 것으로 직접 비교가 어려워 미제시

나. 노인 정보화 실태

최근 급속한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의 의사소통 기능 뿐 아니라 정보 습득, 학습, 구매 등의 대부분의 활동이 이를 통해 이루어진다. 새롭고 급속한 변화 속에서 노인의 정보화에 대한 적응수준은 매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노인의 정보화 기기 보유 및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노인 중 정보화기기는 스마트폰(보유 56.4%, 사용 52.8%)을 활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터넷이 안되는 휴대폰(보유 37.4%, 사용 34.9%), 컴퓨터(보유 12.9%, 사용 6.3%)로 노인의 대부분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연령과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데 65~69세는 81.6%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자는

86.0%가 사용하는 반면, 85세 이상은 9.9%만이 사용하고 있으며, 무학은 15.6%가 사용하여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른 정보화 기기 사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보화 기기 활용 능력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낮은 수준인 문자받기(80.6%) 기능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자보내기(69.7%), 사진·동영상 촬영(50.6%), 정보검색(48.2%), 동영상 보기(34.5%), 음악듣기(26.2%), SNS이용(23.7%), 게임(16.1%), 금융거래(12.6%),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9.9%), 온라인 쇼핑(7.9%) 순이다.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사용역량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이 모든 영역에서 높다.

〈표 12-4〉 연령별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

(단위 : %, 명)

구분	전체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문자받기	80.6	96.2	87.4	71.8	56.1	39.9
문자보내기	69.7	92.4	77.0	55.6	37.1	19.9
정보검색	48.2	77.5	50.0	29.0	13.2	5.6
사진동영상촬영	50.6	74.6	52.3	36.6	21.4	7.6
음악듣기	26.2	43.0	26.8	14.4	7.6	3.9
게임	16.1	28.1	15.1	8.4	3.6	1.7
동영상보기	34.5	56.4	36.3	18.2	9.8	5.1
SNS이용	23.7	40.8	24.1	10.9	6.1	3.1
온라인쇼핑	7.9	16.4	5.8	2.4	1.1	0.2
금융거래	12.6	25.2	9.7	4.3	2.0	0.7
애플리케이션 검색, 설치	9.9	19.6	9.1	2.6	1.0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721)	(3,122)	(2,084)	(1,957)	(1,125)	(433)

노인은 생활에서 제공되는 많은 정보 습득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있어 노인의 74.1%는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인터넷 중심이어서 이용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공공기관, 마을, 마트 공지 사항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 이해 어려움’은 63.5%, ‘정부나 공공기관 우편물 또는 공지사항 용어, 내용 이해 어려움’은 58.9%이다. 모든 영역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화된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을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정보화 기기 이용 경험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특성을 보이며, 이용의 불편함을 경험한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은 특성을 보인다.

노인 중 58.3%가 정보화 기기를 통해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예약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60.4%(불편하다+매우 불편하다)는 불편함을 경험하였다. 노인 중 58.1%가 정보화 기기를 통해 식당에서 주문을 해보았으며, 이들 중 64.2%(불편하다+매우 불편하다)는 불편함을 경험하며, 노인 중 88.9%가 ATM기기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38.4%(불편하다+매우 불편하다)는 불편함을 경험, 노인 중 87.9%가 신용카드, 체크카드만 이용 가능한 점포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31.3%(불편하다+매우 불편하다)는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노인세대가 적응하지 못하거나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9. 노인의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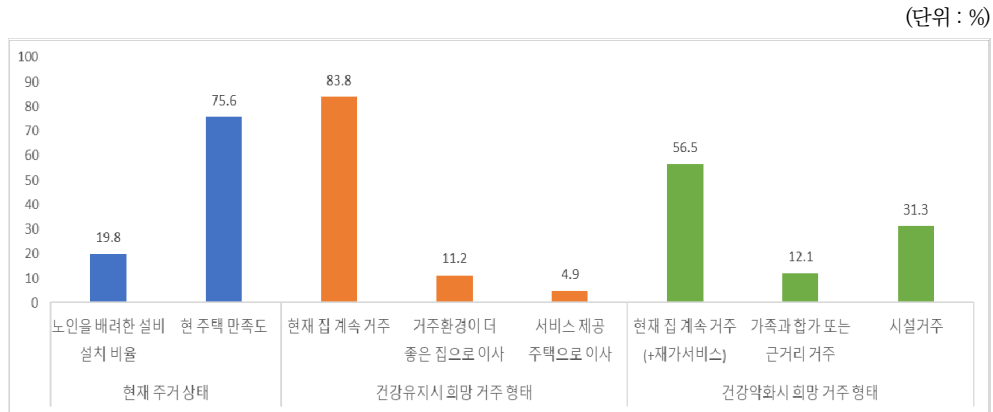
가. 주거실태 및 지역환경

노인의 거주 주택은 단독주택 35.3%, 아파트 48.4%, 연립·다세대 주택 15.1%, 기타 1.2%이다. 주택 소유는 자가 79.8%, 전세 9.8%, 월세 7.6%, 무상 2.8%로 자가의 비중이 높다. 거주 주택의 편리성에서 노인 주택의 8.9%는 생활하기에 불편한 구조이며, 71.3%는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 배려 설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비율은 19.8%로 이전 2017년 조사와 비교하면 6.1%에서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주택 만족도는 응답자의 75.6%는 만족하며, 불만족 이유는 1) 주방, 화장실, 욕실 등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응답이 32.3%이며, 2) 일상생활을 하기에 공간이 좁아서가 19.4%, 3) 주택의 출입이 불편해서(출입구, 계단 등)가 10.2%로 나타났다.

노인의 대다수는 건강이 유지된다면 현재 집 또는 거주환경이 좋은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95.0%)고 응답하며, 별도의 노인 주택을 희망하는 비율은 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를 받으면서, 자녀 등의 가족과 동거 또는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약 70%으로 나타난다. 31.3%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용 주택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2017년 조사에서도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12-18] 노인의 주거상태 및 희망 거주 형태



나. 운전 및 교통수단

노인이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이 매우 주요한 요소이다. 노인이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 수단은 버스, 지하철, 택시의 대중교통이 70.9%, 자가용은 25.6%이며,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1.1%와 1.4%이다. 노인이 평소 외출할 때 경험하는 불편사항에서는 버스 이용 19.3%,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 24.9%, 교통수단 부족 5.6%, 이동 불편한 도로 상태 3.9%,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교통편의시설 5.4%, 인도가 없어 보행 시 위험 1.5%, 차량이 많아 다니기 위험 4.9%, 34.3%가 불편함이 없다고 나타난다.

노인의 21.9%는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운전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 비율은 17.8%, 평생 한적 없는 비율이 60.4%로 나타났다. 현재 운전 비율은 남자 41.5%, 여자는 7.1%이며, 65~69세는 39.2%, 70~74세 23.5%, 75~79세 11.9%, 80세 이상에서는 5% 미만으로 나타났다.

다. 연령규범 및 연령 차별 경험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이 시작하는 기준 연령은 평균 70.5세이며, 69세 이하가 25.9%, 70~74세가 52.7%, 75~79세가 14.9%, 80세 이상이 6.5%로 나타났다. 노인을 정의하는 연령기준으로는 조사시점에 따른 등락은 있으나 70세 이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2008년 68.3%에서 그 이후는 계속적으로 70% 이상으로 나타난다. 69세 이하의 응답은 기초연금, 교통무임승차 등의 제도의 연령기준인 65세를 고려한 응답으로 해석된다.

노인 차별 경험은 대중교통 이용시 20.8%, 식당이나 커피숍 16.1%, 판매시설 이용시 14.7%, 의료시설 이용시 12.7%, 일터 10.6%, 공공기관 이용시 8.7%로 나타나며 가족 내에서 주요 의사 결정시 11.3%이다. 노인은 사회의 다양한 상황에서 노인이기 때문에 차별당하고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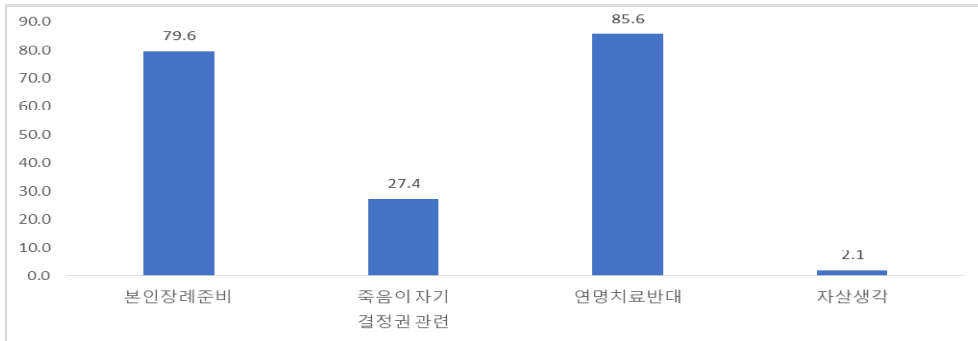
라. 웰다잉(well-dying) 실천과 인식

노인이 생각하는 생애말기 좋은 죽음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 90.6%,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는 죽음 90.5%로 나타나며,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 89.0%,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것 86.9%로 나타난다. 연명치료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85.6%로 나타나며 특히 매우 반대하는 강력한 의견이 46.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죽음을 앞두고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기 보다는 스스로 주변을 정리하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생각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 노인의 죽음을 위한 준비 실태에서는 수의, 묘지, 상조회 가입은 죽음 준비 중에서 장례 준비는 79.6%이며, 그 외의 유서작성, 죽음준비 교육 수강, 상속 처리 논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장기기증 서약 등의 좋은 죽음을 위한 스스로 본인의 주변 정리(자기 결정권 발휘)는 27.4%로 나타난다. 연명치료에 대한 반대 의견은 많으나 실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비율은 4.7%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현 노인은 본인의 장례와 관련된 준비의 비중이 높으며 죽음을 준비하며 삶을 정리하는 다양한 행위는 그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 죽음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좋은 죽음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은 것과 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2-19] 노인의 웰다잉 실천 및 인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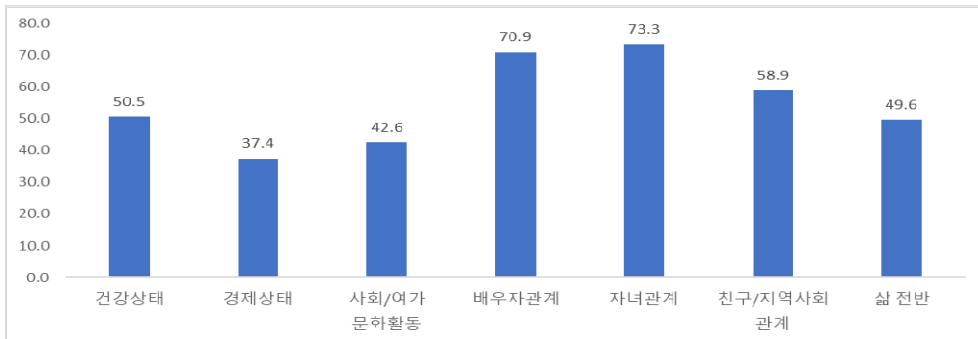
10. 삶의 만족도 및 정책적 욕구

가. 삶의 만족도

노인의 49.6%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7.9%만이 삶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50.5%, 경제상태는 37.4%,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2.6%이며, 배우자 관계는 70.9%, 자녀관계는 73.3%, 친구/지역사회와의 관계는 5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이나 친구/이웃과의 관계는 삶의 영역 중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는 경제상태로 나타난다.

[그림 12-20] 노인의 삶의 만족도 (매우 만족+만족의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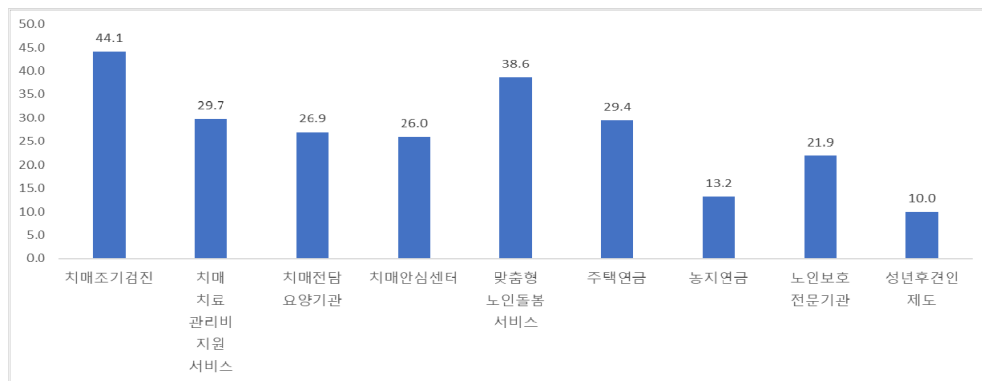
나. 노인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욕구

최근 도입된 노인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치매조기검진서비스는 44.1%로 가장 높으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 29.7%, 치매전담요양기관 26.9%, 치매안심센터 26.0%로 치매 대응 정책은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를 잘 알고 있는 비율은 38.6%로 높게 나타났다.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주택연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비율은 29.4%로 높으나, 농지연금의 경우 13.2%로 주택연금에 비해 인지도가 낮게 나타나며, 노인학대 예방·권리 보장 기관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1.9%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비율이 10.0%로 낮아 아직까지 성년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림 12-21] 최근 도입된 노인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



노인복지정책 중 향후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노인빈곤완화가 49.0%, 노인건강 45.9%, 노인돌봄 32.0%, 치매 22.5%, 노인고용/일자리 지원 21.3%, 노인특화된 다양한 주거 5.2%, 자원봉사/사회참여 지원 4.8%, 주택개선 및 개조서비스 3.5%, 노인특화된 용품 확대가 1.3%로 나타났다.

제2절 조사결과의 정책적 함의

1. 노인의 특성 변화를 고려한 노인정책의 패러다임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는 이전 이루어진 노인실태조사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면서도 더욱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젊은 노인 세대의 진입이 본격화 되면서 노인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석되어진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의 노인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는 노인의 ‘자립성’과 ‘다양성’이다.

노년기의 자립성은 이전 조사에서도 계속적 확대되었으나 이번 조사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노년기의 자녀 역할, 자녀에 대한 의존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노인의 경제를 비롯한 생활 전반에서의 자립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기존 노인정책에서의 ‘가족’ 의미와 기능에 대해 재설정을 고려해야 할 시기임을 의미한다. 노년기 가구 형태는 노인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화(80%는 노인 혼자 또는 부부형태로 생활)되고 있다. 노인의 대부분은 혼자 살거나 부부형태로 살아가고 있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형태에서도 노인의 부양을 위한 동거가 아닌 자녀의 부양을 위한 미혼자녀 동거가구가 절반을 차지한다.

즉, 이와같은 결과는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는 노인 보다는 노인(노부부)이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대부분이라는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부양과 돌봄을 당연시하며 설계된 소득, 건강, 영양 등의 정책에서 개편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노인의 자립성 확대는 건강 측면에서도 잘 나타난다. 주관적 건강상태에서 긍정적 평가의 결과가 과반수를 넘어선다는 것은 그만큼 노후의 자유롭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노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의 자립성은 노년기 독립적이고 자기주도적 삶에 대한 갈망에 기초한 결과로서 타인 또는 자녀에 의존적이거나 부담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며, 이러한 의식은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존엄한 임종을 위한 죽음 준비 등 노후 생활 전반에 나타난다.

기존 노인 정책이 4고(苦)에 초점을 둔 소극적 정책이라면 보다 노인이 노년기를 적극적으로 영위하며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정책으로의 전환을 필요로 하며, 문제 해결 중심에서 노인 개인의 권리적 차원으로의 넓은 의미의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이 요구되어진다. 이는 단지 노인 개개인의 삶의 질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활력을 확대할 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명의 연장과 사회의 급격한 발전은 현 시대의 노인세대 내의 연령차이 뿐 아니라 교육, 사회 발전의 경험치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현 노인세대는 동일한 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연령에 따라 사회참여, 건강은 75세 전후, 기능상태는 80세 전후하여 특성 변화를 보이며, 75세 이전의 전기 노인의 경우 정보화 등의 사회변화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노인의 다양성은 향후 노인정책에서의 노인의 유형과 욕구별 세심한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노인은 거주지역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갖는다. 도시, 농어촌지역의 도시화 정도에 따른 환경과 문화, 보건복지 인프라를 비롯하여, 교통 환경 등의 지역환경의 차이를 유발, 삶의 형태를 다르게 만들고 이로 인해 정책적 욕구의 우선순위에서도 차이를 필요로 한다. 그 외에도 성별, 경제 수준, 배우자 유무 등에 따라 노인은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노인 정책은 노인을 하나의 집단 군으로 고려한 획일적 접근이 일반적이었다면, 향후 노인정책은 노인의 다양한 집단군별 세심한 욕구에 따른 정책적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과 함께 노인이 생활하는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마을 단위의 정책적 접근이 더욱더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2. 영역별 주요 과제

가. 노인 1인가구와 고령 노인 부부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

노인의 자녀,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성은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또는 고령 부부 노인은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높다. 자녀 중심 사적 관계망 약화와 자녀 동거율 감소로 인해 노인 독거, 부부가구 중 고령, 기능악화의 경우 외부와의 단절 위험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고독사, 가구 내 학대, 부적절한 돌봄 위험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나. 가족 기능 감소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보편화 확대

노인에 대한 자녀세대부터의 경제적 부양과 돌봄 감소, 접촉 또한 감소하는 경향은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족의 역할에 대한 의무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후 소득보장제도에서는 노인 부양자 기준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장기요양보험 등 요양과 돌봄제도에서는 암묵적 가족 기능을 고려한 급여 기준 등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점은 향후 개편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의 다양화, 접근성 향상, 소득기준 폐지를 통한 기본 권리로서 노후 돌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서비스의 질과 양의 확대가 요구된다.

다.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친화 지역사회 조성

노인의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 단위의 다양한 주거-요양-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지역에서의 노인의 이동권 보장 확대와 낙상방지 등을 위한 지역 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보환경 조성 등이 요구되어진다. 고령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과 함께 운전하지 않아도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라.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적 사회문화 개선 및 제도 개편

노인의 증가로 인한 사회의 인구 고령화는 자칫 사회적 고령자에 대한 부양 부담 등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문화가 조성 되어진다. 현재 노인은 고용시장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노인 비하, 노인에 대한 연령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향후 고령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세대간 연대, 세대 교류의 확대가 가능한 제도적 접근이 요구되어진다. 현재의 연령에 따른 학습과 노동, 여가의 분절적 제도, 사회 문화를 변화시켜 연령에 유연한 제도의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노년기에도 교육을 받는 평생교육과 다양한 사회참여 등의 이루어지도록 하

는 접근 필요하다.

마. 노년 가치있는 삶의 의미와 주체적 노년 실현을 위한 정책,제도 개편

수명이 길어지면서 전체 생애에서 노년기가 길어지고 의미있는 노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 수치적으로 오래 사는 것 뿐 아니라 의미 있는 노년 삶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불필요한 수명연장을 위한 연명치료 반대, 좋은 죽음(well-dying)에 대한 관심이 이를 반증한다. 가치있는 노년기와 의미있는 삶과 죽음을 지향하는 인식의 변화가 실천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문화 형성과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방안으로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확대와 관련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노인의 사회에서의 기여를 높일 수 있는 지역단위 다양한 사회활동, 사회기여의 기회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필요로 한다.

바. 건강노화를 위한 계속적 정책 추진

건강한 노후를 위해 운동, 영양 등에 대한 계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노년기에 최대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필요로 한다. 치료 중심의 의료정책을 넘어서 질환 예방, 일상생활 기능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 노인에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과 지역내 보건, 복지기관을 적극 활용한 지역단위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 공적연금제도의 개선과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

노년기의 경제적 자립 중요성 높아짐에 따라 기존 사적 이전소득의 감소를 보완하고 소득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합의에 기반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국민연금 보험료 및 소득대체율 조정, 기초연금의 급여수준 상향 혹은 소득수준별 차등 등의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합리적인 수준의 노후소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로 한다.

아. 노인 경제활동 정책의 일자리의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향상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향상 필요, 특히 후기 고령자 중심 사업을 고려하여 사회참여, 사회기여의 형태로 전환(소득보장의 기능 보다는 사회참여의 성격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정부가 추진중인 계속 고용 지원 정책의 성과 확대를 위해 기업의 참여와 독려가 중요하며, 정부의 재정일자리 창출만으로는 노인의 경제활동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업에서 노인근로자에 대한 수요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자. 노인의 정보 접근의 소외 개선 노력

후기 노인의 정보화 기기 활용의 어려움과 생활에서의 정보 취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기기 보급 및 교육의 적극적 접근과 함께 정보 이해력을 확대하기 위한 고령자 친화적 정보 제공 접근 시·도(예, 정보지의 글씨 크기, 쉬운 말, 간략한 표현 등)가 공공정책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생활방식과 함께 기존 이용방식이 공존하여 소외받는 노인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존, 기계 이용방식과 함께 사람이 제공하는 방식 등이 유지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

차. 노인정책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

노인의 특성과 욕구는 점차 다양화 됨에 따라 공공 서비스를 통한 욕구 충족이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여가문화, 평생교육 등의 욕구, 건강 및 돌봄 서비스의 대한 높은 품질 욕구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 참여 추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어진다.

제3절 조사의 한계점 및 향후 조사 발전을 위한 과제

2008년부터 3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실태조사는 2020년 5번째 이루어진 조사였다. 올해 조사는 1955년 출생자인 1차 베이비부머가 처음으로 진입한 해에 이루어진 조사였으며, 코로나-19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한 위기상황에서의 이루어진 조사였다. 특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기저질환이 많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본 조사는 이전 조사보다 조사 응답을 꺼려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본 조사는 조사 응답자가 동의한 경우만 실시할 수 있음으로 인해 일부 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상태에 대한 염려가 높은 대상자의 경우 조사를 거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조사진행과정에서 조사구 전체에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조사구가 해당되는 마을, 또는 아파트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노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샘플링, 조사구 대체, 조사대상자 대체 등은 조사원에 의한 임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관리를 통해 실시되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어려운 조사 환경이 조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판단한다. 하지만 그 영향정도는 2023년 조사결과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조사환경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가를 파악할수 있을 것이다.

2023년 6번째로 이루어질 노인실태조사는 1차 베이비부머의 절반 가량이 노인층으로 진입하게 되는 시점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노인실태조사에서 이들의 특성이 정확히 파악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사체계의 개편이 요구되어진다.

첫째, 노인실태조사의 현 조사와 함께 주제별 부가조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범위를 비롯한 다양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조사체계의 개편이 요구되어진다. 조사대상이 특성이 다양해 지면서 현재의 질문 문항 외에 더욱 심도있게 질의를 해야 하는 문항이 많아지게 된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실태조사의 문항수는 응답자가 집중하여 응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더 이상 조사부담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3년마다 이루어지는 노인실태 조사 이외의 특별 주제별 부가조사를 통해 주제별 부가조사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별 조사결과의 대표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되어진다. 노인실태조사의 총 응답자 규모는 확보된 예산 범위에서 약 1만명 내외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항목에서는 시도 통계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하지만 17개 시도

별 통계를 생산하기에는 대표 항목 외에는 응답자의 규모가 크지 않아 분석에서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인구규모가 적은 세종시, 울산광역시 등은 응답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문항별로 통계적 대표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응답결과가 나온게 된다. 더욱이 세부 항목에서는 더더욱 응답자 규모가 적어 분석을 실시할 수 없어 본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것에는 한계를 갖는다. 이로 인하여 일부 시도에서는 유사한 항목을 활용하여 시도별 노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는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노인인구 집단 내에서도 다양성이 높아짐으로 전체 조사규모가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노인학대, 돌봄 등의 응답 대상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항목에서는 세부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질문에서는 응답규모의 한계가 나타난 바 있다. 2023년 조사에서는 노인인구의 규모를 고려하여 조사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노인실태조사가 노인정책의 의미있는 기초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행정데이터와의 연계 방안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공적연금,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일자리 사업, 소득자료 등의 행정데이터와 본 조사결과를 연계하여 분석할 경우 현재 조사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고, 또한 조사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묘안이 될 것이다.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우려점이 있으므로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관계부처협동.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관계부처협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김세진. (2019). **노인의 다차원적 빈곤 유형 전이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 김원경, 윤진. (1991). 성인 노인기의 주관적 연령지각에 따른 심리적 적응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157-168.
- 김종성. (2012). Management of Drinking Patients in Primary Care. *Korean J Fam Pract.* 2, 280-288.
- 김주현. (2012). 연령주의(Ageism)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 **한국인구학**, 35(1), 53-75.
- 김지연, 김민희, 민경환. (2012). 한국판 노인차별주의 척도의 타당화: 대학생 표본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4), 89-106.
- 김지연, 민경환, 김민희. (2014). 노인세대 위협에 대한 인식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4), 45-72.
- 박명화, 하정철, 신임희, 김한곤, 이신영, 조준행, 등. (2008). **2008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계명대학교.
- 박재홍. (2010).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 권력·이념·문화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75-99.
- 박종우. (1999). 한국사회의 연령주의(Ageism)와 노인문제.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1, 51-68.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201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신체활동]**.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5).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7).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 **2020년 치매정책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0).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보건복지부.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경래, 이윤경, 오미애, 등. (2017).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 오영희, 강은나, 김재호, 선우덕, 오미애, 등. (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오영희, 이윤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등. (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재·장인협.(2005). **노인복지론**.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통계청. (2018). **2018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Atchley, R. C., & Barusch.A.S.(2004). *Social forces and aging: an introduction to social gerontology*. Belmont, CA: Wadsworth Thomson learning.

Kahn, R. L., & Antonucci, T. C. (1980). Convoys over the life course attachment, roles, and social support.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3, 253-286.



부록 1.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결과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결과 통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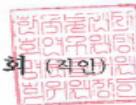
다음과 같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문서번호	제2020-36호	발송일자	2020. 07. 08.
연구과제명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과제번호	[수탁20-020-00]		
연구책임자	(성명) 이윤경 (소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위) 연구위원		
심사일자	2020.06.29.~2020.07.07.	심사형태	신속심사
심사결과	승인 ☒	시정승인 ☐	재심의 ☐ 부결 ☐
총 연구기간	2020.03.24. ~ 2020.11.30.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	2020.07.08부터 2021.07.07까지	*총 신청 연구기간이 IRB 연구승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지속심사' 승인을 받아야 연구지속 진행이 가능합니다. *연구종료 시 종료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			
심사의견	☐ 심사 대상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계획서의 윤리적, 학문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생명 윤리 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단, 본 조사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바와 달리 조사수행이 조사업체 위탁으로 변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맞추어 수정 보완 하는 것이 필요함. → 보완완료 ☐ 연구계획서 내에 조사 참여의 자발성 확보, 연구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 및 데이터 관련 보안 사항 조치 등에 대한 정보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생명윤리에 관련한 사항들이 어떻게 준수 될 수 있을지를 파악하기 어려움. 연구계획서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 보완되어야 함. → 보완완료 ☐ 조사 동의서 및 설명문에 누락 및 수정할 내용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연구 책임자/연구담당자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보완완료 - 조사 참여가 자발적이라는 설명 및 연구대상자가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연구참여를 철회 또는 중지 할 수 있다는 기술이 누락되어 있음. → 보완완료 -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보완완료 - 설문 참여에 따른 보상(답례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그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연구계획서 및 설명문에 추가 필요함. → 보완완료 ☐ 본 신청 내용을 승인합니다.		

* 연구책임자는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안에 대하여 2회 이상의 재심은 하지 않습니다.

2020년 7월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직인)



부록 II. 일반특성 분석표

〈부표 II-10-1〉 노인의 지역·성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1순위 응답

(단위: %, 명)

특성	전체 ¹⁾	지역 ²⁾		성 ²⁾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¹⁾	80.3	82.4	74.0	79.9	80.7
주된 여가활동 ²⁾					
문화예술관람활동	2.2	2.6	0.8	2.0	2.3
영화보기	1.6	1.9	0.5	1.5	1.7
기타 ³⁾	0.6	0.7	0.3	0.5	0.7
문화예술참여활동	3.7	4.1	2.4	2.5	4.7
악기연주·노래교실	2.7	2.9	1.9	1.4	3.6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0.5	0.5	0.2	0.5	0.4
춤·무용	0.2	0.2	0.1	0.1	0.2
기타 ⁴⁾	0.4	0.5	0.2	0.5	0.4
스포츠관람활동	1.7	1.9	0.8	3.3	0.5
스포츠참여활동	5.8	6.3	4.2	7.2	4.8
취미오락활동	30.0	30.3	28.9	34.8	26.4
화투·고스톱 등	3.0	2.5	4.6	2.1	3.6
등산	10.0	10.7	7.3	14.2	6.8
화초·텃밭가꾸기	5.6	5.6	5.6	3.8	7.0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1.2	1.3	0.9	1.4	1.1
낚시	1.0	1.1	0.9	2.2	0.1
바둑·장기·윷놀이 등	2.6	2.2	4.0	5.6	0.4
교양강좌, 노인교실 등	2.6	2.8	1.8	2.1	3.0
기타 ⁵⁾	4.0	4.0	3.8	3.5	4.3
휴식활동	26.0	25.7	27.3	23.8	27.7
산책	20.1	19.7	21.5	19.8	20.3
음악감상	1.3	1.5	0.6	0.8	1.7
기타 ⁶⁾	4.6	4.4	5.2	3.2	5.7
사회 및 기타활동	30.5	29.1	35.7	26.4	33.7
종교활동	16.0	15.8	16.6	11.9	19.1
그 외 사회활동 ⁷⁾	13.1	12.1	16.6	13.0	13.2
기타활동 ⁸⁾	1.4	1.1	2.5	1.5	1.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111)	(6,301)	(1,809)	(3,471)	(4,63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전체응답자 10,097명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8,111명을 대상으로 함.

3) 문화예술관람활동의 기타는 전시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 등이 포함됨.

4) 문화예술참여활동의 기타에는 문학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이 포함됨.

5) 취미오락활동의 기타에는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생활공예, 요리하기·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이 포함됨.

6) 휴식활동의 기타에는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등이 포함됨.

7) 그 외 활동에는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이 포함됨.

8) 기타활동에는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이 포함됨.

〈부표 II-10-2〉 노인의 연령군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1순위 응답

(단위: %, 명)

특성	전체 ¹⁾	연령 ²⁾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¹⁾	80.3	85.4	82.4	78.7	73.2	68.1
주된 여가활동 ²⁾						
문화예술관람활동	2.2	3.9	1.9	1.5	0.4	0.2
영화보기	1.6	3.1	1.0	1.0	0.3	0.0
기타 ³⁾	0.6	0.8	0.8	0.5	0.1	0.2
문화예술참여활동	3.7	3.9	4.6	3.5	3.0	2.1
악기연주·노래교실	2.7	2.9	3.3	2.2	2.1	1.7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0.5	0.4	0.7	0.5	0.3	0.3
춤·무용	0.2	0.3	0.2	0.2	0.1	0.0
기타 ⁴⁾	0.4	0.4	0.4	0.7	0.4	0.2
스포츠관람활동	1.7	1.7	2.3	1.4	1.7	0.2
스포츠참여활동	5.8	7.8	7.3	4.0	3.2	0.9
취미오락활동	30.0	37.5	24.0	19.0	13.7	5.8
화투·고스톱 등	3.0	2.6	3.2	3.1	2.8	4.2
등산	10.0	13.5	9.8	7.2	6.5	7.6
화초·텃밭가꾸기	5.6	6.1	5.7	4.3	6.1	6.2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1.2	1.3	1.4	0.9	0.8	2.7
낚시	1.0	1.3	1.4	0.6	0.5	0.0
바둑·장기·윷놀이 등	2.6	1.8	2.9	3.2	3.7	1.7
교양강좌, 노인교실 등	2.6	1.8	2.2	2.1	4.8	5.9
기타 ⁵⁾	4.0	3.5	3.6	4.1	5.7	3.9
휴식활동	26.0	24.3	24.5	30.8	24.3	28.5
산책	20.1	18.1	19.3	24.7	18.9	20.9
음악감상	1.3	1.4	1.4	1.3	0.8	2.0
기타 ⁶⁾	4.6	4.8	3.9	4.8	4.6	5.6
사회 및 기타활동	30.5	26.7	29.3	33.1	36.7	36.0
종교활동	16.0	11.9	13.7	18.4	22.1	27.6
그 외 사회활동 ⁷⁾	13.1	13.6	13.8	13.7	11.9	7.8
기타활동 ⁸⁾	1.4	1.2	1.8	1.0	2.6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111)	(2,857)	(1,930)	(1,804)	(1,080)	(43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전체응답자 10,097명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8,111명을 대상으로 함.

3) 문화예술관람활동의 기타는 전시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 등이 포함됨.

4) 문화예술참여활동의 기타에는 문학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이 포함됨.

5) 취미오락활동의 기타에는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생활공예, 요리하기·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이 포함됨.

6) 휴식활동의 기타에는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등이 포함됨.

7) 그 외 활동에는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이 포함됨.

8) 기타활동에는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이 포함됨.

〈부표 II-10-3〉 노인의 지역·성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1순위 응답

(단위: %, 명)

특성	전체 ¹⁾	지역		성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문화예술관람활동	4.7	5.1	3.4	4.1	5.2
영화보기	2.6	3.1	1.0	2.6	2.6
기타 ²⁾	2.1	2.1	2.3	1.5	2.6
문화예술참여활동	7.2	7.4	6.5	4.5	9.3
악기연주·노래교실	4.7	4.8	4.7	2.2	6.7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1.3	1.3	1.2	1.3	1.2
춤·무용	0.5	0.6	0.2	0.2	0.7
기타 ³⁾	0.8	0.8	0.5	0.9	0.6
스포츠관람활동	2.3	2.5	1.9	4.6	0.6
스포츠참여활동	6.1	6.5	4.7	8.3	4.4
관광활동	8.9	8.7	9.2	8.6	9.0
자동차 드라이브	0.7	0.7	1.0	0.8	0.7
기타 ⁴⁾	8.1	8.1	8.2	7.8	8.3
취미오락활동	22.8	22.4	24.2	28.0	18.9
화투·고스톱 등	3.5	2.7	6.2	2.8	4.1
등산	6.5	7.4	3.9	11.1	3.1
화초·텃밭가꾸기	5.2	5.2	5.1	2.7	7.0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1.0	1.0	0.8	1.0	0.9
낚시	1.5	1.4	1.7	3.2	0.1
바둑·장기·윷놀이 등	2.4	1.8	4.3	5.3	0.2
교양강좌, 노인교실 등	1.2	1.4	0.7	0.9	1.5
기타 ⁵⁾	1.6	1.7	1.5	1.0	2.1
휴식활동	41.3	40.7	43.1	36.4	45.0
TV시청	28.6	27.7	31.1	25.9	30.6
산책	9.4	9.7	8.6	8.6	10.0
음악감상	1.1	1.2	0.8	0.6	1.4
기타 ⁶⁾	2.2	2.1	2.6	1.2	3.0
사회 및 기타활동	6.7	6.5	7.0	5.5	7.6
종교활동	2.6	3.1	1.1	1.5	3.5
그 외 사회활동 ⁷⁾	2.5	2.2	3.5	2.6	2.4
기타활동 ⁸⁾	1.5	1.3	2.3	1.3	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30)	(7,518)	(2,413)	(4,281)	(5,64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문화예술관람활동의 기타는 전시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 등이 포함됨.

3) 문화예술참여활동의 기타에는 문학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이 포함됨.

4) 관광활동의 기타에는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삼림욕, 여행, 소풍·야유회·나들이 등이 포함됨.

5) 취미오락활동의 기타에는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생활공예, 요리하기·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이 포함됨.

6) 휴식활동의 기타에는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등이 포함됨.

7) 그 외 활동에는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이 포함됨.

8) 기타활동에는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이 포함됨.

〈부표 II-10-4〉 노인의 연령군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1순위 응답

(단위: %, 명)

특성	전체 ¹⁾	연령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문화예술관람활동	4.7	6.7	5.0	3.7	2.7	1.0
영화보기	2.6	3.6	2.7	2.3	1.2	0.7
기타 ²⁾	2.1	3.1	2.3	1.4	1.4	0.3
문화예술참여활동	7.2	8.5	7.8	7.3	5.3	2.2
악기연주·노래교실	4.7	5.1	5.1	5.1	3.9	1.5
미술활동(그림, 서예 등)	1.3	1.5	1.2	1.5	0.8	0.4
춤·무용	0.5	0.9	0.5	0.1	0.1	0.2
기타 ³⁾	0.8	1.0	0.9	0.6	0.5	0.1
스포츠관람활동	2.3	3.1	3.0	1.7	1.6	0.3
스포츠참여활동	6.1	7.7	7.5	4.9	4.2	0.5
관광활동	8.9	11.0	10.1	7.6	5.3	5.5
자동차 드라이브	0.7	1.0	0.8	0.5	0.5	1.0
기타 ⁴⁾	8.1	10.0	9.3	7.1	4.8	4.4
취미오락활동	22.8	25.8	23.1	21.2	20.5	16.7
화투·고스톱 등	3.5	2.8	3.9	3.7	4.1	4.0
등산	6.5	10.4	6.7	4.6	2.5	1.2
화초·텃밭가꾸기	5.2	5.3	4.7	4.8	5.9	5.7
독서·만화책·종교서적 보기	1.0	1.0	0.9	0.9	0.9	1.2
낚시	1.5	2.1	1.3	1.2	1.0	0.3
바둑·장기·윷놀이 등	2.4	1.1	2.9	3.5	2.9	1.8
교양강좌, 노인교실 등	1.2	1.0	1.3	1.4	1.3	1.2
기타 ⁵⁾	1.6	2.1	1.4	1.2	1.8	1.3
휴식활동	41.3	31.3	37.2	46.5	53.1	65.6
TV시청	28.6	22.3	24.3	32.0	37.9	45.5
산책	9.4	6.8	9.1	11.2	11.6	13.6
음악감상	1.1	0.5	1.3	1.5	1.0	2.2
기타 ⁶⁾	2.2	1.8	2.5	1.7	2.5	4.3
사회 및 기타활동	6.7	5.9	6.4	7.2	7.5	8.2
종교활동	2.6	2.6	2.5	2.6	2.2	4.7
그 외 사회활동 ⁷⁾	2.5	2.4	2.5	2.9	2.4	2.2
기타활동 ⁸⁾	1.5	0.9	1.5	1.7	2.9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30)	(3,337)	(2,319)	(2,262)	(1,426)	(587)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문화예술관람활동의 기타는 전시회, 박물관 관람, 음악연주회 및 전통예술공연 관람 등이 포함됨.

3) 문화예술참여활동의 기타에는 문학행사참여, 문예창작/독서토론, 전통예술 배우기, 사진촬영이 포함됨.

4) 관광활동의 기타에는 문화유적방문, 자연명승 및 풍경 관람, 산림욕, 여행, 소풍·야유회·나들이 등이 포함됨.

5) 취미오락활동의 기타에는 수집활동(스크랩 포함), 생활공예, 요리하기·다도, 애완동물 돌보기, 게임, 음주 등이 포함됨.

6) 휴식활동의 기타에는 목욕/사우나/찜질방, 낮잠, 라디오 청취, 신문/잡지보기 등이 포함됨.

7) 그 외 활동에는 사회봉사활동, 가족 및 친지방문,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단체활동 모임 등이 포함됨.

8) 기타활동에는 위에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가활동이 포함됨.

〈부표 II-11-1〉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요기관 도보 이동시간 : 시장,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장소

(단위: %, 명)

특성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걸어서 10분 ~20분	걸어서 20분 ~30분	걸어서 30분 이상	계 (명)
전체 ¹⁾	14.3	53.3	21.1	5.7	5.6	100.0 (10,097)
지역						
동부	16.6	58.2	20.0	4.2	1.0	100.0 (7,651)
읍·면부	7.2	37.8	24.6	10.5	19.9	100.0 (2,446)
성						
남자	15.0	52.7	21.0	5.7	5.7	100.0 (4,346)
여자	13.8	53.7	21.2	5.8	5.5	100.0 (5,751)
연령						
65~69세	15.0	55.9	20.6	4.7	3.8	100.0 (3,344)
70~74세	15.2	53.2	21.1	4.6	6.0	100.0 (2,342)
75~79세	13.5	54.0	20.4	5.9	6.3	100.0 (2,292)
80~84세	13.8	48.1	22.1	9.0	6.9	100.0 (1,475)
85세 이상	11.5	49.0	24.3	7.1	8.1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5	53.6	20.7	5.5	5.7	100.0 (6,779)
배우자 없음	14.0	52.5	22.0	6.2	5.3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13.0	52.6	21.5	6.1	6.8	100.0 (1,998)
노인부부	13.7	53.9	20.5	5.7	6.2	100.0 (5,898)
자녀동거	16.4	52.8	22.6	5.6	2.6	100.0 (2,026)
기타	26.3	44.0	21.4	4.5	3.8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0.4	45.4	24.0	8.7	11.5	100.0 (1,073)
초등학교	13.2	50.3	21.7	7.4	7.4	100.0 (3,198)
중학교	14.2	55.7	20.4	5.6	4.0	100.0 (2,356)
고등학교	14.0	58.1	21.0	3.8	3.2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29.4	50.3	16.3	1.2	2.8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14.4	49.5	21.4	6.1	8.6	100.0 (3,564)
미취업	14.3	55.3	21.0	5.5	3.9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3.9	51.0	20.1	6.0	9.0	100.0 (2,019)
제2오분위	14.1	51.2	21.9	6.6	6.2	100.0 (2,020)
제3오분위	12.8	52.8	20.9	6.5	7.0	100.0 (2,017)
제4오분위	13.2	53.9	23.6	5.6	3.7	100.0 (2,024)
제5오분위	17.7	57.4	19.1	3.9	2.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3.8	50.3	21.3	6.4	8.1	100.0 (3,999)
50%이상~100%미만	13.6	53.9	21.2	6.3	5.1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13.9	55.3	23.2	4.7	2.8	100.0 (1,647)
150%이상	19.3	58.8	17.0	3.0	2.0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3	54.1	20.8	5.3	5.4	100.0 (8,864)
제한 있음	14.3	46.9	23.2	8.7	6.9	100.0 (1,23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11-2〉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요기관 도보 이동시간 : 병·의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

(단위: %, 명)

특성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걸어서 10분 ~20분	걸어서 20분 ~30분	걸어서 30분 이상	계 (명)
전체 ¹⁾	6.9	35.5	36.7	11.7	9.2	100.0 (10,097)
지역						
동부	8.3	39.9	37.6	10.5	3.6	100.0 (7,651)
읍·면부	2.4	21.6	33.8	15.4	26.7	100.0 (2,446)
성						
남자	7.1	36.3	35.9	11.5	9.2	100.0 (4,346)
여자	6.8	34.8	37.3	11.9	9.2	100.0 (5,751)
연령						
65~69세	6.6	39.2	36.2	10.9	7.2	100.0 (3,344)
70~74세	6.9	35.0	39.2	9.9	8.9	100.0 (2,342)
75~79세	7.5	35.3	34.6	12.8	9.8	100.0 (2,292)
80~84세	6.6	31.7	35.9	13.7	12.1	100.0 (1,475)
85세 이상	7.1	27.1	39.3	14.4	12.1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6.7	35.8	36.7	11.5	9.4	100.0 (6,779)
배우자 없음	7.2	34.9	36.8	12.3	8.9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6.9	33.3	37.0	12.5	10.4	100.0 (1,998)
노인부부	6.2	35.2	37.4	11.3	9.8	100.0 (5,898)
자녀동거	8.6	37.9	34.6	12.4	6.4	100.0 (2,026)
기타	9.5	40.2	34.1	8.9	7.3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4.5	26.1	36.0	16.6	16.8	100.0 (1,073)
초등학교	6.9	33.3	35.3	13.1	11.3	100.0 (3,198)
중학교	6.0	36.1	38.9	11.2	7.9	100.0 (2,356)
고등학교	7.9	38.6	37.6	9.7	6.1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9.9	46.1	32.2	7.6	4.1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7.1	34.6	34.4	11.6	12.2	100.0 (3,564)
미취업	6.8	35.9	37.9	11.8	7.6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6.0	33.6	35.9	12.0	12.5	100.0 (2,019)
제2오분위	7.8	33.1	37.4	11.8	9.9	100.0 (2,020)
제3오분위	7.1	35.2	35.6	10.3	11.9	100.0 (2,017)
제4오분위	6.3	35.8	38.1	12.5	7.3	100.0 (2,024)
제5오분위	7.3	39.7	36.5	12.0	4.5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6.5	33.3	36.8	11.8	11.6	100.0 (3,999)
50%이상~100%미만	7.2	35.6	35.6	11.9	9.6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6.7	35.5	40.8	11.1	5.9	100.0 (1,647)
150%이상	7.6	42.8	33.3	12.1	4.2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6.9	36.5	36.7	11.1	8.8	100.0 (8,864)
제한 있음	6.8	28.3	36.5	16.1	12.4	100.0 (1,23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11-3〉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요기관 도보 이동시간 :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단위: %, 명)

특성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걸어서 10분 ~20분	걸어서 20분 ~30분	걸어서 30분 이상	계 (명)
전체 ¹⁾	5.2	27.5	37.2	19.3	10.8	100.0 (10,097)
지역						
동부	6.0	30.9	39.7	18.6	4.9	100.0 (7,651)
읍·면부	2.8	16.9	29.5	21.5	29.3	100.0 (2,446)
성						
남자	5.1	28.6	36.7	18.9	10.8	100.0 (4,346)
여자	5.2	26.7	37.6	19.7	10.9	100.0 (5,751)
연령						
65~69세	4.8	28.8	40.3	18.2	7.8	100.0 (3,344)
70~74세	5.6	26.1	39.2	18.5	10.7	100.0 (2,342)
75~79세	5.4	28.4	34.7	18.8	12.7	100.0 (2,292)
80~84세	5.6	27.2	32.3	21.6	13.3	100.0 (1,475)
85세 이상	3.6	23.1	33.7	25.0	14.6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9	27.7	37.6	19.1	10.8	100.0 (6,779)
배우자 없음	5.8	27.1	36.4	19.8	10.9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5.4	25.5	37.6	19.2	12.3	100.0 (1,998)
노인부부	4.5	27.5	37.8	19.0	11.2	100.0 (5,898)
자녀동거	6.7	28.9	35.3	20.4	8.7	100.0 (2,026)
기타	7.0	33.9	33.2	19.2	6.6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3.7	20.1	33.9	24.0	18.2	100.0 (1,073)
초등학교	5.2	24.5	35.9	20.5	13.8	100.0 (3,198)
중학교	4.9	30.6	36.0	18.7	9.8	100.0 (2,356)
고등학교	5.1	29.9	41.1	17.3	6.7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9.0	32.7	36.1	16.8	5.4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6.1	26.4	34.7	18.7	14.1	100.0 (3,564)
미취업	4.7	28.1	38.6	19.6	9.1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5	25.9	36.1	19.2	14.2	100.0 (2,019)
제2오분위	6.1	26.0	36.7	20.1	11.1	100.0 (2,020)
제3오분위	4.6	28.8	35.5	18.9	12.3	100.0 (2,017)
제4오분위	5.6	26.4	38.5	19.8	9.7	100.0 (2,024)
제5오분위	5.1	30.4	39.1	18.7	6.7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9	26.0	36.4	19.7	12.9	100.0 (3,999)
50%이상~100%미만	5.6	28.0	36.2	19.0	11.2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5.4	27.0	39.4	20.1	8.2	100.0 (1,647)
150%이상	4.7	31.8	39.9	17.9	5.7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5.4	27.7	37.5	18.9	10.4	100.0 (8,864)
제한 있음	3.3	25.6	35.2	22.3	13.5	100.0 (1,23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11-4〉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요기관 도보 이동시간 : 노인(종합)복지관

(단위: %, 명)

특성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걸어서 10분 ~20분	걸어서 20분 ~30분	걸어서 30분 이상	계 (명)
전체 ¹⁾	3.9	20.8	30.5	24.8	20.1	100.0 (10,097)
지역						
동부	4.3	22.9	32.2	25.9	14.7	100.0 (7,651)
읍·면부	2.7	14.2	24.9	21.4	36.8	100.0 (2,446)
성						
남자	4.0	21.1	30.1	24.3	20.5	100.0 (4,346)
여자	3.8	20.5	30.7	25.2	19.7	100.0 (5,751)
연령						
65~69세	3.2	21.8	33.0	25.2	16.7	100.0 (3,344)
70~74세	4.2	20.5	31.1	24.0	20.2	100.0 (2,342)
75~79세	4.5	21.0	27.9	24.4	22.2	100.0 (2,292)
80~84세	4.5	19.1	29.3	25.0	22.1	100.0 (1,475)
85세 이상	2.6	19.7	26.6	26.5	24.6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7	20.5	30.9	24.8	20.1	100.0 (6,779)
배우자 없음	4.4	21.3	29.7	24.7	19.9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4.4	20.4	31.4	23.4	20.4	100.0 (1,998)
노인부부	3.3	20.4	31.4	24.8	20.0	100.0 (5,898)
자녀동거	5.2	21.9	26.4	26.8	19.7	100.0 (2,026)
기타	2.9	25.2	34.6	16.9	20.5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3.2	14.1	27.4	27.3	28.0	100.0 (1,073)
초등학교	3.9	19.9	28.3	25.9	22.0	100.0 (3,198)
중학교	4.3	22.6	31.1	24.2	17.8	100.0 (2,356)
고등학교	3.8	21.7	33.8	23.1	17.6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4.0	26.4	29.0	24.4	16.3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3.7	21.8	28.5	23.1	23.0	100.0 (3,564)
미취업	4.0	20.3	31.6	25.7	18.5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4	19.2	31.2	23.6	21.6	100.0 (2,019)
제2오분위	4.4	20.5	30.9	24.8	19.3	100.0 (2,020)
제3오분위	3.6	21.6	27.9	23.0	24.0	100.0 (2,017)
제4오분위	3.6	20.4	31.3	26.6	18.1	100.0 (2,024)
제5오분위	3.5	22.3	31.0	25.8	17.3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2	19.5	30.6	25.0	20.7	100.0 (3,999)
50%이상~100%미만	4.1	21.6	29.3	23.6	21.5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3.2	19.6	30.8	27.1	19.2	100.0 (1,647)
150%이상	3.4	24.9	33.2	23.9	14.6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4.0	21.0	30.5	24.7	19.7	100.0 (8,864)
제한 있음	3.5	19.2	30.1	25.0	22.2	100.0 (1,23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11-5〉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요기관 도보 이동시간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단위: %, 명)

특성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걸어서 10분~20분	걸어서 20분~30분	걸어서 30분 이상	계 (명)
전체 ¹⁾	3.6	19.1	29.0	25.5	22.8	100.0 (10,097)
지역						
동부	4.3	20.9	30.5	26.4	18.0	100.0 (7,651)
읍·면부	1.7	13.5	24.5	22.5	37.8	100.0 (2,446)
성						
남자	3.2	20.4	28.2	24.9	23.3	100.0 (4,346)
여자	4.0	18.1	29.6	25.9	22.4	100.0 (5,751)
연령						
65~69세	3.2	21.9	29.5	26.6	18.8	100.0 (3,344)
70~74세	3.7	18.6	31.1	24.5	22.2	100.0 (2,342)
75~79세	4.4	18.1	27.4	24.5	25.6	100.0 (2,292)
80~84세	3.9	16.7	28.3	25.5	25.5	100.0 (1,475)
85세 이상	2.5	15.2	26.6	26.4	29.3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3	19.3	29.4	25.5	22.6	100.0 (6,779)
배우자 없음	4.3	18.6	28.4	25.5	23.2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4.0	18.0	29.9	24.9	23.1	100.0 (1,998)
노인부부	3.2	19.0	30.1	25.3	22.4	100.0 (5,898)
자녀동거	4.8	20.5	24.7	26.7	23.3	100.0 (2,026)
기타	2.0	16.5	32.7	21.4	27.4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3.2	12.8	23.3	26.7	34.1	100.0 (1,073)
초등학교	3.7	16.8	27.7	27.0	24.7	100.0 (3,198)
중학교	3.2	20.4	31.4	25.5	19.5	100.0 (2,356)
고등학교	4.2	20.9	31.9	23.2	20.0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3.4	28.6	23.2	25.7	19.1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3.7	20.0	27.6	23.6	25.1	100.0 (3,564)
미취업	3.6	18.6	29.8	26.5	21.5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5	19.4	31.3	23.1	23.7	100.0 (2,019)
제2오분위	4.4	18.0	29.9	25.9	21.9	100.0 (2,020)
제3오분위	4.0	18.4	26.3	24.3	27.0	100.0 (2,017)
제4오분위	3.0	19.6	28.5	26.8	22.2	100.0 (2,024)
제5오분위	4.3	20.0	29.2	27.2	19.2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3	18.5	30.1	25.1	23.0	100.0 (3,999)
50%이상~100%미만	3.9	19.0	26.7	25.0	25.4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3.5	17.6	30.0	28.3	20.6	100.0 (1,647)
150%이상	4.5	23.5	30.9	23.8	17.3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3.8	19.4	29.0	25.4	22.4	100.0 (8,864)
제한 있음	2.6	16.7	29.1	26.2	25.4	100.0 (1,23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11-6〉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요기관 도보 이동시간 : 버스정류장·지하철역

(단위: %, 명)

특성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걸어서 10분 ~20분	걸어서 20분 ~30분	걸어서 30분 이상	계 (명)
전체 ¹⁾	16.2	54.9	22.8	4.3	1.8	100.0 (10,097)
지역						
동부	17.8	56.3	22.0	3.4	0.5	100.0 (7,651)
읍·면부	11.3	50.6	25.2	7.2	5.8	100.0 (2,446)
성						
남자	17.2	54.1	22.9	4.2	1.7	100.0 (4,346)
여자	15.5	55.5	22.7	4.4	1.9	100.0 (5,751)
연령						
65~69세	16.2	53.4	25.1	3.9	1.4	100.0 (3,344)
70~74세	16.8	54.7	22.4	4.5	1.6	100.0 (2,342)
75~79세	15.9	58.1	20.3	4.2	1.5	100.0 (2,292)
80~84세	17.3	53.1	22.2	4.7	2.7	100.0 (1,475)
85세 이상	12.2	56.2	22.4	5.4	3.8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6.6	54.7	22.8	4.3	1.7	100.0 (6,779)
배우자 없음	15.3	55.4	22.8	4.4	2.1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14.7	54.2	23.5	5.0	2.5	100.0 (1,998)
노인부부	16.2	54.9	22.6	4.5	1.8	100.0 (5,898)
자녀동거	17.0	56.2	22.5	3.2	1.1	100.0 (2,026)
기타	24.0	47.6	23.3	3.7	1.3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3.8	52.5	23.0	6.7	4.0	100.0 (1,073)
초등학교	16.8	53.1	22.8	5.0	2.4	100.0 (3,198)
중학교	13.7	56.4	23.8	4.6	1.5	100.0 (2,356)
고등학교	15.8	57.7	22.8	2.9	0.9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29.2	50.1	18.3	1.6	0.8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16.8	52.2	24.0	4.9	2.1	100.0 (3,564)
미취업	15.9	56.4	22.1	4.0	1.7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4.1	56.4	20.9	6.1	2.5	100.0 (2,019)
제2오분위	17.6	52.3	23.9	4.2	2.0	100.0 (2,020)
제3오분위	13.8	54.5	25.1	4.4	2.2	100.0 (2,017)
제4오분위	15.1	55.9	23.1	4.1	1.7	100.0 (2,024)
제5오분위	20.3	55.4	20.9	2.6	0.7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5.6	54.0	22.9	5.2	2.3	100.0 (3,999)
50%이상~100%미만	14.8	55.4	24.0	4.1	1.7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17.3	56.6	21.2	3.5	1.5	100.0 (1,647)
150%이상	21.3	54.2	20.7	2.9	0.8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6.6	54.7	22.9	4.2	1.6	100.0 (8,864)
제한 있음	13.3	56.6	22.0	4.8	3.4	100.0 (1,23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11-7〉 노인의 일반특성별 주요기관 도보 이동시간 : 산책,운동할 수 있는 공원

(단위: %, 명)

특성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걸어서 10분 ~20분	걸어서 20분 ~30분	걸어서 30분 이상	계 (명)
전체 ¹⁾	14.5	47.3	30.7	5.4	2.2	100.0 (10,097)
지역						
동부	13.6	49.1	31.6	4.7	1.0	100.0 (7,651)
읍·면부	17.1	41.5	28.0	7.7	5.7	100.0 (2,446)
성						
남자	16.1	47.1	28.9	5.9	2.0	100.0 (4,346)
여자	13.3	47.4	32.0	5.0	2.3	100.0 (5,751)
연령						
65~69세	14.7	46.7	31.9	5.2	1.6	100.0 (3,344)
70~74세	14.7	45.7	31.8	6.0	1.8	100.0 (2,342)
75~79세	15.8	50.6	27.3	4.5	1.8	100.0 (2,292)
80~84세	13.0	45.9	31.7	5.6	3.7	100.0 (1,475)
85세 이상	11.1	47.4	29.8	7.1	4.6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4.9	46.8	30.9	5.5	1.9	100.0 (6,779)
배우자 없음	13.5	48.1	30.3	5.3	2.8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12.4	47.7	30.0	6.2	3.7	100.0 (1,998)
노인부부	15.0	46.0	31.4	5.6	2.0	100.0 (5,898)
자녀동거	14.9	50.0	29.8	4.0	1.3	100.0 (2,026)
기타	17.8	52.2	24.0	5.8	0.2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4.5	46.9	25.7	8.1	4.8	100.0 (1,073)
초등학교	13.7	46.5	31.6	5.6	2.6	100.0 (3,198)
중학교	12.7	46.8	32.7	6.0	1.8	100.0 (2,356)
고등학교	13.8	49.8	31.0	4.2	1.3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28.8	41.9	25.7	2.8	0.8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15.9	44.4	31.4	5.9	2.4	100.0 (3,564)
미취업	13.7	48.9	30.3	5.1	2.0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5.4	47.1	28.3	6.1	3.1	100.0 (2,019)
제2오분위	13.2	47.0	30.7	6.3	2.8	100.0 (2,020)
제3오분위	12.6	47.8	31.1	6.1	2.5	100.0 (2,017)
제4오분위	12.9	46.4	33.9	5.3	1.5	100.0 (2,024)
제5오분위	18.3	48.0	29.4	3.3	1.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4.3	46.7	30.0	6.1	3.0	100.0 (3,999)
50%이상~100%미만	13.2	47.9	31.2	5.8	2.0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13.5	46.4	33.7	4.7	1.6	100.0 (1,647)
150%이상	20.6	48.9	27.1	2.7	0.7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4.5	47.5	30.8	5.3	2.0	100.0 (8,864)
제한 있음	14.4	45.7	29.8	6.4	3.6	100.0 (1,23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11-8〉 노인의 일반특성별 별도 주거시설 이용시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식사서비스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17.2	38.5	24.9	13.4	6.1	100.0 (10,097)
지역						
동부	14.8	40.1	24.7	13.6	6.8	100.0 (7,651)
읍·면부	24.7	33.3	25.3	12.6	4.1	100.0 (2,446)
성						
남자	18.5	36.7	24.4	13.3	7.1	100.0 (4,346)
여자	16.2	39.8	25.3	13.4	5.3	100.0 (5,751)
연령						
65~69세	15.1	39.7	23.2	14.1	7.9	100.0 (3,344)
70~74세	17.6	39.6	25.3	12.9	4.6	100.0 (2,342)
75~79세	19.1	35.6	26.6	12.8	5.9	100.0 (2,292)
80~84세	17.8	39.2	25.4	12.6	5.0	100.0 (1,475)
85세 이상	18.0	36.1	24.7	15.2	6.0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7.2	38.5	24.5	13.5	6.2	100.0 (6,779)
배우자 없음	17.0	38.3	25.6	13.1	6.0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16.9	40.1	25.7	12.0	5.3	100.0 (1,998)
노인부부	17.4	37.9	25.2	13.4	6.1	100.0 (5,898)
자녀동거	16.5	38.6	23.6	14.4	6.9	100.0 (2,026)
기타	18.7	39.3	20.2	14.2	7.7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7.7	29.0	29.7	16.6	6.9	100.0 (1,073)
초등학교	18.2	39.7	23.6	13.2	5.2	100.0 (3,198)
중학교	16.8	43.4	23.5	11.6	4.8	100.0 (2,356)
고등학교	16.4	38.0	26.9	13.3	5.4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15.8	31.7	18.6	16.0	17.9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18.3	37.2	26.4	12.2	5.9	100.0 (3,564)
미취업	16.6	39.1	24.1	14.0	6.2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9.6	39.4	24.8	10.4	5.8	100.0 (2,019)
제2오분위	18.0	40.0	24.2	12.4	5.4	100.0 (2,020)
제3오분위	18.6	36.0	24.7	15.1	5.6	100.0 (2,017)
제4오분위	12.5	39.6	28.2	13.8	5.9	100.0 (2,024)
제5오분위	17.2	37.3	22.4	15.2	7.9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9.3	38.8	24.1	11.8	6.0	100.0 (3,999)
50%이상~100%미만	15.4	37.3	26.3	15.5	5.5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14.2	40.7	26.1	12.5	6.5	100.0 (1,647)
150%이상	19.4	37.6	21.3	13.5	8.1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6.4	38.1	25.7	13.7	6.0	100.0 (8,864)
제한 있음	22.6	40.9	18.9	10.8	6.8	100.0 (1,23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11-9〉 노인의 일반특성별 별도 주거시설 이용시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청소 및 빨래서비스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17.5	35.4	29.9	11.1	6.0	100.0 (10,097)
지역						
동부	16.9	35.9	29.3	11.2	6.6	100.0 (7,651)
읍·면부	19.4	33.6	31.9	10.9	4.1	100.0 (2,446)
성						
남자	17.1	33.6	30.8	11.6	6.8	100.0 (4,346)
여자	17.8	36.7	29.3	10.8	5.4	100.0 (5,751)
연령						
65~69세	17.0	35.6	28.2	11.2	7.9	100.0 (3,344)
70~74세	19.3	33.0	32.2	10.6	4.8	100.0 (2,342)
75~79세	15.7	35.1	31.6	11.9	5.7	100.0 (2,292)
80~84세	17.6	38.0	29.6	10.4	4.3	100.0 (1,475)
85세 이상	19.7	37.6	25.4	11.4	5.8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7.6	34.6	30.4	11.3	6.1	100.0 (6,779)
배우자 없음	17.2	37.1	29.1	10.8	5.8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16.1	38.7	29.7	10.1	5.3	100.0 (1,998)
노인부부	17.4	34.1	31.1	11.3	6.1	100.0 (5,898)
자녀동거	19.2	35.7	27.1	11.6	6.4	100.0 (2,026)
기타	17.7	37.9	26.0	10.8	7.5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6.6	30.5	31.6	14.7	6.7	100.0 (1,073)
초등학교	17.8	35.9	29.8	11.1	5.4	100.0 (3,198)
중학교	17.7	37.6	29.4	10.3	4.9	100.0 (2,356)
고등학교	18.2	35.5	30.3	10.9	5.0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13.2	32.0	27.8	9.4	17.5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15.4	33.3	34.4	10.6	6.3	100.0 (3,564)
미취업	18.6	36.5	27.5	11.4	5.9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8.8	36.7	29.7	9.0	5.8	100.0 (2,019)
제2오분위	16.2	37.8	29.1	11.5	5.4	100.0 (2,020)
제3오분위	18.3	35.6	27.6	13.0	5.5	100.0 (2,017)
제4오분위	15.9	32.8	33.9	11.6	5.8	100.0 (2,024)
제5오분위	18.3	34.0	29.4	10.6	7.6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7.7	36.4	29.3	10.6	5.9	100.0 (3,999)
50%이상~100%미만	16.8	34.9	30.0	12.9	5.5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17.6	34.9	31.0	10.4	6.1	100.0 (1,647)
150%이상	18.7	33.7	30.5	9.1	8.0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6.6	35.1	30.8	11.5	6.1	100.0 (8,864)
제한 있음	24.0	37.7	24.2	8.5	5.5	100.0 (1,23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11-10〉 노인의 일반특성별 별도 주거시설 이용시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운동, 문화, 여가 서비스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15.2	34.7	31.7	12.9	5.5	100.0 (10,097)
지역						
동부	14.5	35.0	31.3	12.8	6.4	100.0 (7,651)
읍·면부	17.1	34.0	32.8	13.1	3.0	100.0 (2,446)
성						
남자	14.9	34.7	31.3	12.5	6.6	100.0 (4,346)
여자	15.4	34.8	32.0	13.1	4.7	100.0 (5,751)
연령						
65~69세	16.2	33.4	31.2	12.3	6.9	100.0 (3,344)
70~74세	15.0	35.9	32.4	12.1	4.6	100.0 (2,342)
75~79세	14.4	34.4	32.4	14.1	4.7	100.0 (2,292)
80~84세	14.8	37.3	30.8	12.3	4.7	100.0 (1,475)
85세 이상	13.7	33.2	31.0	15.4	6.8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5.7	33.9	32.5	12.4	5.5	100.0 (6,779)
배우자 없음	14.1	36.4	30.1	13.9	5.5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14.0	37.1	30.2	13.3	5.5	100.0 (1,998)
노인부부	15.4	33.8	32.9	12.4	5.5	100.0 (5,898)
자녀동거	15.6	34.5	30.0	14.3	5.6	100.0 (2,026)
기타	16.2	41.1	27.0	8.1	7.7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2.6	28.8	32.2	19.2	7.3	100.0 (1,073)
초등학교	14.5	36.4	32.1	12.3	4.7	100.0 (3,198)
중학교	16.0	35.2	33.0	11.0	4.8	100.0 (2,356)
고등학교	16.7	34.6	31.7	13.0	4.1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13.2	35.6	23.5	10.9	16.8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14.7	33.2	34.2	12.1	5.8	100.0 (3,564)
미취업	15.4	35.6	30.3	13.3	5.4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7.1	34.1	29.7	13.1	6.0	100.0 (2,019)
제2오분위	15.3	36.1	31.0	13.1	4.5	100.0 (2,020)
제3오분위	14.9	35.6	31.5	12.6	5.4	100.0 (2,017)
제4오분위	13.4	31.7	36.0	14.4	4.5	100.0 (2,024)
제5오분위	15.2	36.2	30.2	11.1	7.3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6.0	34.9	30.3	13.2	5.6	100.0 (3,999)
50%이상~100%미만	14.7	33.4	33.1	13.8	5.0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12.9	36.1	34.8	11.3	5.0	100.0 (1,647)
150%이상	17.0	36.3	27.6	11.0	8.0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5.1	34.3	32.5	12.8	5.4	100.0 (8,864)
제한 있음	16.0	38.0	25.6	13.5	6.8	100.0 (1,23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11-11〉 노인의 일반특성별 별도 주거시설 이용시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의료서비스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28.4	39.6	21.7	6.3	4.1	100.0 (10,097)
지역						
동부	26.3	40.3	22.3	6.6	4.6	100.0 (7,651)
읍·면부	35.0	37.3	20.0	5.3	2.4	100.0 (2,446)
성						
남자	28.5	38.7	21.3	6.6	5.0	100.0 (4,346)
여자	28.3	40.2	22.1	6.0	3.4	100.0 (5,751)
연령						
65~69세	24.3	38.9	23.5	7.0	6.2	100.0 (3,344)
70~74세	27.2	41.4	22.8	5.6	3.0	100.0 (2,342)
75~79세	32.1	38.4	19.6	7.0	2.8	100.0 (2,292)
80~84세	32.2	40.5	20.5	4.4	2.5	100.0 (1,475)
85세 이상	31.7	38.1	19.1	6.3	4.8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7.8	39.9	21.9	6.2	4.3	100.0 (6,779)
배우자 없음	29.5	38.9	21.5	6.3	3.7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28.8	40.6	21.2	6.0	3.5	100.0 (1,998)
노인부부	27.6	40.1	21.8	6.1	4.3	100.0 (5,898)
자녀동거	29.9	37.5	21.6	7.2	3.8	100.0 (2,026)
기타	32.0	33.8	26.7	2.2	5.3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30.3	33.1	24.7	7.5	4.3	100.0 (1,073)
초등학교	32.1	39.2	19.9	6.0	2.8	100.0 (3,198)
중학교	25.4	42.3	23.5	5.5	3.2	100.0 (2,356)
고등학교	26.4	40.9	22.1	6.9	3.7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25.9	35.4	17.6	5.2	15.9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27.7	37.9	23.6	6.3	4.5	100.0 (3,564)
미취업	28.8	40.4	20.7	6.2	3.9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1.2	39.3	20.3	5.5	3.7	100.0 (2,019)
제2오분위	31.6	39.1	20.4	6.1	2.8	100.0 (2,020)
제3오분위	27.7	41.6	21.6	5.7	3.5	100.0 (2,017)
제4오분위	24.6	39.0	24.6	7.8	3.9	100.0 (2,024)
제5오분위	26.8	38.9	21.8	6.0	6.4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1.5	38.9	20.0	6.0	3.5	100.0 (3,999)
50%이상~100%미만	27.1	40.1	22.5	6.8	3.5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26.0	39.5	24.0	5.6	4.9	100.0 (1,647)
150%이상	24.2	40.5	22.3	6.1	6.8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27.4	39.4	22.7	6.5	4.1	100.0 (8,864)
제한 있음	35.6	40.7	14.9	4.5	4.2	100.0 (1,23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11-12〉 노인의 일반특성별 별도 주거시설 이용시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돌봄서비스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18.9	39.7	26.5	9.8	5.2	100.0 (10,097)
지역						
동부	16.5	40.0	27.8	10.0	5.8	100.0 (7,651)
읍·면부	26.5	38.7	22.4	9.3	3.1	100.0 (2,446)
성						
남자	19.4	38.0	26.0	10.4	6.3	100.0 (4,346)
여자	18.5	41.0	26.8	9.4	4.3	100.0 (5,751)
연령						
65~69세	15.5	39.8	26.8	10.6	7.3	100.0 (3,344)
70~74세	19.4	39.7	26.8	9.9	4.3	100.0 (2,342)
75~79세	21.0	38.2	27.1	9.3	4.3	100.0 (2,292)
80~84세	21.5	42.5	24.6	8.6	2.9	100.0 (1,475)
85세 이상	21.0	37.9	25.7	9.9	5.6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8.8	39.2	26.7	9.8	5.4	100.0 (6,779)
배우자 없음	19.1	40.5	26.0	9.8	4.6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19.5	41.5	24.7	9.7	4.6	100.0 (1,998)
노인부부	19.2	38.7	26.8	10.0	5.3	100.0 (5,898)
자녀동거	17.3	40.9	26.8	9.9	5.1	100.0 (2,026)
기타	19.0	37.1	32.9	4.6	6.4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23.2	30.6	28.5	11.3	6.3	100.0 (1,073)
초등학교	20.7	41.7	25.0	8.5	4.1	100.0 (3,198)
중학교	16.8	41.3	27.7	10.4	3.8	100.0 (2,356)
고등학교	17.2	40.8	27.2	10.4	4.5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17.8	33.1	22.7	9.0	17.3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18.6	37.9	27.8	10.1	5.5	100.0 (3,564)
미취업	19.0	40.6	25.8	9.6	5.0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21.1	42.2	22.7	9.2	4.8	100.0 (2,019)
제2오분위	22.7	38.9	25.3	8.5	4.6	100.0 (2,020)
제3오분위	17.8	40.9	25.1	11.0	5.2	100.0 (2,017)
제4오분위	15.5	37.7	31.3	11.3	4.3	100.0 (2,024)
제5오분위	17.3	38.6	27.9	9.2	7.0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22.2	39.7	23.8	9.2	5.1	100.0 (3,999)
50%이상~100%미만	16.6	40.0	28.0	10.9	4.5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16.5	38.4	30.4	9.3	5.4	100.0 (1,647)
150%이상	17.5	40.2	25.7	9.2	7.5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7.8	39.5	27.4	10.0	5.2	100.0 (8,864)
제한 있음	26.4	40.6	20.0	8.4	4.6	100.0 (1,23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11-13〉 노인의 일반특성별 별도 주거시설 이용시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병·의원 동행/
외출 지원 서비스(교통 편의 제공)

(단위: %, 명)

특성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13.8	41.6	31.4	9.1	4.1	100.0 (10,097)
지역						
동부	13.0	42.5	30.5	9.3	4.7	100.0 (7,651)
읍·면부	16.2	38.9	34.4	8.4	2.1	100.0 (2,446)
성						
남자	13.7	40.7	31.5	9.0	5.1	100.0 (4,346)
여자	13.9	42.4	31.3	9.1	3.3	100.0 (5,751)
연령						
65~69세	12.8	41.2	30.5	9.2	6.2	100.0 (3,344)
70~74세	13.9	42.7	31.3	8.9	3.1	100.0 (2,342)
75~79세	13.4	39.7	34.1	9.6	3.2	100.0 (2,292)
80~84세	15.1	43.4	31.0	8.5	2.0	100.0 (1,475)
85세 이상	16.7	42.8	27.9	8.1	4.5	100.0 (64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13.6	41.4	31.3	9.2	4.4	100.0 (6,779)
배우자 없음	14.2	42.1	31.5	8.8	3.4	100.0 (3,318)
가구형태						
노인독거	13.8	42.7	31.9	8.4	3.3	100.0 (1,998)
노인부부	13.4	41.4	31.6	9.2	4.4	100.0 (5,898)
자녀동거	14.7	42.0	29.5	9.9	3.8	100.0 (2,026)
기타	15.4	34.1	41.3	3.2	6.0	100.0 (174)
교육수준						
무학	13.4	38.1	31.8	12.4	4.3	100.0 (1,073)
초등학교	13.9	41.7	33.2	8.4	2.8	100.0 (3,198)
중학교	15.6	41.3	31.8	8.1	3.1	100.0 (2,356)
고등학교	12.5	43.5	30.7	9.4	3.8	100.0 (2,870)
전문대학 이상	13.0	39.9	22.4	8.7	16.0	100.0 (599)
현취업상태						
취업중	13.1	39.4	34.5	8.6	4.3	100.0 (3,564)
미취업	14.1	42.9	29.7	9.3	4.0	100.0 (6,533)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12.6	43.2	32.5	7.9	3.7	100.0 (2,019)
제2오분위	13.6	44.3	31.1	8.0	3.0	100.0 (2,020)
제3오분위	14.5	40.5	30.7	10.6	3.8	100.0 (2,017)
제4오분위	12.8	39.9	33.8	10.1	3.5	100.0 (2,024)
제5오분위	15.6	40.3	29.0	8.7	6.5	100.0 (2,017)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13.6	42.7	31.5	8.5	3.7	100.0 (3,999)
50%이상~100%미만	13.3	41.4	31.8	10.1	3.3	100.0 (3,382)
100%이상~150%미만	14.1	39.6	32.4	9.1	4.8	100.0 (1,647)
150%이상	15.5	41.5	28.1	7.9	6.9	100.0 (1,068)
기능상태						
제한 없음	12.7	40.8	32.9	9.5	4.1	100.0 (8,864)
제한 있음	21.9	47.8	20.3	6.2	3.9	100.0 (1,23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11-14〉 노인의 일반특성별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 임종 전 정리

(단위: %, 명)

특성	매우 중요	중요	그저그렇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체 ¹⁾	38.8	50.2	9.8	1.1	0.1	100.0 (9,930)
지역						
동부	36.6	52.4	10.1	0.9	0.1	100.0 (7,518)
읍·면부	45.6	43.6	8.9	1.8	0.1	100.0 (2,413)
성						
남자	41.0	48.8	9.2	0.9	0.1	100.0 (4,281)
여자	37.1	51.3	10.3	1.2	0.1	100.0 (5,649)
연령						
65~69세	38.8	49.7	10.3	1.0	0.2	100.0 (3,337)
70~74세	38.9	49.4	10.6	1.1	0.0	100.0 (2,319)
75~79세	38.9	50.2	9.4	1.5	0.0	100.0 (2,262)
80~84세	37.2	53.7	8.1	1.1	0.0	100.0 (1,426)
85세 이상	40.6	48.8	10.4	0.2	0.0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0.1	49.0	9.7	1.1	0.1	100.0 (6,704)
배우자 없음	36.0	52.7	10.1	1.0	0.1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35.6	51.0	12.1	1.1	0.1	100.0 (1,985)
노인부부	40.0	48.6	10.2	1.2	0.1	100.0 (5,847)
자녀동거	37.9	54.7	6.4	0.8	0.1	100.0 (1,935)
기타	42.7	47.0	7.9	1.2	1.2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39.4	46.9	11.8	1.9	0.0	100.0 (1,023)
초등학교	37.0	51.6	10.1	1.3	0.0	100.0 (3,134)
중학교	34.8	54.4	10.0	0.6	0.1	100.0 (2,323)
고등학교	40.4	48.7	9.7	1.2	0.1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54.2	40.1	5.1	0.3	0.3	100.0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39.2	50.2	9.7	0.8	0.1	100.0 (3,553)
미취업	38.6	50.3	9.9	1.3	0.0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34.7	52.8	11.4	1.1	0.1	100.0 (1,986)
제2오분위	39.2	49.2	9.9	1.6	0.2	100.0 (1,987)
제3오분위	40.2	50.0	8.8	1.0	0.0	100.0 (1,991)
제4오분위	38.0	50.5	10.4	1.0	0.2	100.0 (1,987)
제5오분위	41.8	48.7	8.6	0.9	0.1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37.5	50.9	10.3	1.3	0.1	100.0 (3,927)
50%이상~100%미만	39.1	50.1	9.7	1.0	0.1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41.9	48.3	8.7	1.0	0.1	100.0 (1,618)
150%이상	37.4	51.4	10.2	0.9	0.0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38.5	50.4	10.0	1.1	0.1	100.0 (8,832)
제한 있음	41.1	49.0	8.5	1.3	0.2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11-15〉 노인의 일반특성별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 신체적 정신적 고
통없이 임종

(단위: %, 명)

특성	매우 중요	중요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체 ¹⁾	56.4	34.1	8.3	1.0	0.1	100.0 (9,930)
지역						
동부	56.0	34.1	8.8	1.1	0.1	100.0 (7,518)
읍·면부	57.7	34.3	7.0	1.0	0.1	100.0 (2,413)
성						
남자	57.1	33.3	8.4	1.1	0.1	100.0 (4,281)
여자	55.9	34.7	8.3	1.0	0.1	100.0 (5,649)
연령						
65~69세	56.0	33.8	9.2	0.9	0.2	100.0 (3,337)
70~74세	55.9	35.2	7.8	1.1	0.0	100.0 (2,319)
75~79세	57.3	32.7	8.3	1.9	0.0	100.0 (2,262)
80~84세	57.2	34.4	7.6	0.6	0.1	100.0 (1,426)
85세 이상	55.4	36.6	7.3	0.7	0.0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57.6	33.3	7.9	1.1	0.1	100.0 (6,704)
배우자 없음	54.0	35.8	9.2	0.9	0.1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53.1	35.4	10.5	1.0	0.1	100.0 (1,985)
노인부부	57.2	33.6	8.0	1.1	0.1	100.0 (5,847)
자녀동거	57.4	34.6	7.1	0.8	0.1	100.0 (1,935)
기타	55.2	33.9	8.5	1.2	1.2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54.8	35.3	8.7	1.2	0.1	100.0 (1,023)
초등학교	55.7	35.1	8.0	1.1	0.0	100.0 (3,134)
중학교	54.1	35.2	9.3	1.3	0.1	100.0 (2,323)
고등학교	56.7	33.6	8.8	0.8	0.1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70.3	25.9	3.0	0.5	0.3	100.0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56.9	32.6	9.1	1.2	0.1	100.0 (3,553)
미취업	56.2	35.0	7.9	1.0	0.1	100.0 (6,376)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54.7	34.9	8.9	1.5	0.1	100.0 (1,986)
제2오분위	56.0	35.4	7.4	1.0	0.2	100.0 (1,987)
제3오분위	59.2	32.3	7.6	0.8	0.0	100.0 (1,991)
제4오분위	53.1	35.5	10.2	1.0	0.2	100.0 (1,987)
제5오분위	59.1	32.5	7.4	1.0	0.1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55.8	35.0	7.9	1.2	0.1	100.0 (3,927)
50%이상~100%미만	57.0	33.7	8.6	0.7	0.1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56.1	34.1	8.3	1.5	0.1	100.0 (1,618)
150%이상	57.7	32.4	9.0	0.9	0.0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56.1	34.2	8.6	1.1	0.1	100.0 (8,832)
제한 있음	59.0	33.5	6.4	1.0	0.2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11-16〉 노인의 일반특성별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 가족과 함께 하는 임종

(단위: %, 명)

특성	매우 중요	중요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체 ¹⁾	39.4	47.5	11.0	1.9	0.2	100.0 (9,930)
지역						
동부	37.6	48.5	11.7	2.0	0.2	100.0 (7,518)
읍·면부	45.0	44.6	8.7	1.5	0.2	100.0 (2,413)
성						
남자	40.6	46.6	10.5	2.0	0.2	100.0 (4,281)
여자	38.4	48.2	11.4	1.8	0.2	100.0 (5,649)
연령						
65~69세	38.8	47.9	11.4	1.6	0.3	100.0 (3,337)
70~74세	39.3	47.8	11.2	1.7	0.0	100.0 (2,319)
75~79세	41.5	45.5	10.1	2.6	0.4	100.0 (2,262)
80~84세	38.5	48.1	11.4	2.0	0.1	100.0 (1,426)
85세 이상	36.8	50.9	10.9	0.9	0.5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0.6	47.0	10.4	1.8	0.2	100.0 (6,704)
배우자 없음	36.8	48.6	12.3	2.0	0.2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35.9	47.6	14.1	2.1	0.3	100.0 (1,985)
노인부부	41.0	46.4	10.5	1.9	0.2	100.0 (5,847)
자녀동거	38.5	51.2	8.8	1.4	0.1	100.0 (1,935)
기타	32.9	45.7	17.7	2.4	1.2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37.3	48.1	12.2	1.9	0.5	100.0 (1,023)
초등학교	38.2	47.8	11.7	2.1	0.1	100.0 (3,134)
중학교	36.4	50.3	11.1	2.0	0.3	100.0 (2,323)
고등학교	41.3	46.6	10.5	1.5	0.1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51.6	38.8	7.1	2.2	0.3	100.0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41.8	45.3	11.1	1.5	0.3	100.0 (3,554)
미취업	38.0	48.8	11.0	2.0	0.2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1.8	43.0	11.7	3.2	0.3	100.0 (1,986)
제2오분위	39.0	49.1	10.5	1.2	0.2	100.0 (1,987)
제3오분위	38.4	48.6	11.1	1.8	0.2	100.0 (1,991)
제4오분위	36.5	48.5	12.7	2.0	0.3	100.0 (1,987)
제5오분위	41.2	48.5	9.0	1.1	0.2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0.8	46.1	10.7	2.2	0.2	100.0 (3,927)
50%이상~100%미만	37.2	48.5	12.3	1.8	0.2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38.6	48.9	10.4	1.7	0.4	100.0 (1,618)
150%이상	42.5	47.7	9.0	0.9	0.0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39.4	47.6	11.0	1.8	0.2	100.0 (8,832)
제한 있음	38.9	47.1	11.4	2.1	0.5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11-17〉 노인의 일반특성별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 대한 중요성 인지정도: 부담을 주지 않는
임종

(단위: %, 명)

특성	매우 중요	중요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체 ¹⁾	45.3	45.3	8.8	0.5	0.0	100.0 (9,930)
지역						
동부	44.6	45.3	9.5	0.6	0.1	100.0 (7,518)
읍·면부	47.6	45.5	6.6	0.4	0.0	100.0 (2,413)
성						
남자	47.1	43.7	8.7	0.5	0.1	100.0 (4,281)
여자	44.0	46.6	8.9	0.5	0.0	100.0 (5,649)
연령						
65~69세	44.5	45.0	9.7	0.7	0.1	100.0 (3,337)
70~74세	45.1	45.5	8.9	0.5	0.0	100.0 (2,319)
75~79세	45.7	45.9	7.9	0.5	0.0	100.0 (2,262)
80~84세	45.7	45.8	8.0	0.5	0.0	100.0 (1,426)
85세 이상	47.7	43.6	8.3	0.3	0.0	100.0 (58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45.8	44.8	8.7	0.6	0.1	100.0 (6,704)
배우자 없음	44.3	46.5	8.9	0.4	0.0	100.0 (3,226)
가구형태						
노인독거	43.4	45.2	10.9	0.5	0.1	100.0 (1,985)
노인부부	45.2	45.3	8.9	0.6	0.1	100.0 (5,847)
자녀동거	48.1	45.1	6.4	0.4	0.1	100.0 (1,935)
기타	40.9	52.4	5.5	1.2	0.0	100.0 (164)
교육수준						
무학	46.1	44.4	8.8	0.7	0.0	100.0 (1,023)
초등학교	44.7	46.2	8.7	0.4	0.0	100.0 (3,134)
중학교	43.4	46.3	9.7	0.5	0.0	100.0 (2,323)
고등학교	45.1	44.8	9.3	0.7	0.1	100.0 (2,857)
전문대학 이상	55.7	40.7	3.2	0.3	0.0	100.0 (594)
현 취업상태						
취업중	46.7	44.0	8.6	0.5	0.1	100.0 (3,554)
미취업	44.6	46.1	8.8	0.5	0.0	100.0 (6,377)
연가구소득						
제1오분위	43.2	45.8	10.4	0.7	0.0	100.0 (1,986)
제2오분위	45.8	45.4	8.1	0.6	0.1	100.0 (1,987)
제3오분위	46.6	44.5	8.4	0.4	0.1	100.0 (1,991)
제4오분위	41.2	48.8	9.2	0.6	0.1	100.0 (1,987)
제5오분위	49.7	42.2	7.7	0.4	0.1	100.0 (1,980)
중위소득 대비						
50%미만	44.3	46.1	8.9	0.6	0.1	100.0 (3,927)
50%이상~100%미만	45.5	45.1	9.0	0.4	0.1	100.0 (3,330)
100%이상~150%미만	46.1	44.9	8.0	0.9	0.1	100.0 (1,618)
150%이상	47.3	43.7	8.7	0.3	0.0	100.0 (1,055)
기능상태						
제한 없음	45.0	45.5	8.9	0.5	0.0	100.0 (8,832)
제한 있음	47.8	44.0	7.4	0.6	0.2	100.0 (1,098)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록 Ⅲ. 시·도별 분석표

〈부표 Ⅲ-3-3〉 노인의 시·도별 지역 및 성별 분포

(단위: %, 명)

지역	지역		성		계 (명)
	동부	읍·면부	남자	여자	
전국 ¹⁾	75.8	24.2	43.0	57.0	100.0 (10,097)
서울	100.0	0.0	44.3	55.7	100.0 (1,820)
부산	100.0	0.0	43.3	56.7	100.0 (784)
대구	100.0	0.0	42.3	57.7	100.0 (486)
인천	100.0	0.0	43.5	56.5	100.0 (487)
광주	100.0	0.0	42.7	57.3	100.0 (255)
대전	100.0	0.0	43.6	56.4	100.0 (256)
울산	100.0	0.0	45.0	55.0	100.0 (168)
세종	100.0	0.0	43.4	56.6	100.0 (39)
경기	77.4	22.6	43.6	56.4	100.0 (2,090)
강원	49.3	50.7	42.8	57.2	100.0 (380)
충북	46.0	54.0	42.7	57.3	100.0 (346)
충남	34.5	65.5	42.6	57.4	100.0 (487)
전북	59.7	40.3	41.7	58.3	100.0 (468)
전남	37.3	62.7	41.1	58.9	100.0 (520)
경북	44.6	55.4	41.8	58.2	100.0 (694)
경남	52.3	47.7	41.7	58.3	100.0 (692)
제주	63.6	36.4	41.9	58.1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3-4〉 노인의 시·도별 연령 및 배우자 유무

(단위: %, 명)

지역	연령					배우자 유무		계 (명)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배우자 있음	배우자 없음	
전국 ¹⁾	33.1	23.2	22.7	14.6	6.4	67.1	32.9	100.0 (10,097)
서울	35.3	24.8	22.8	12.3	4.8	67.0	33.0	100.0 (1,820)
부산	37.6	22.4	21.3	11.8	6.7	65.3	34.7	100.0 (784)
대구	39.9	18.0	22.5	12.6	7.0	67.9	32.1	100.0 (486)
인천	35.7	22.7	19.3	13.8	8.4	65.1	34.9	100.0 (487)
광주	41.1	16.3	23.5	15.7	3.5	59.5	40.5	100.0 (255)
대전	27.6	30.0	21.0	14.2	7.1	67.9	32.1	100.0 (256)
울산	43.0	20.6	19.9	13.0	3.5	67.9	32.1	100.0 (168)
세종	32.5	24.8	23.0	15.3	4.4	74.6	25.4	100.0 (39)
경기	33.9	23.2	23.6	14.3	5.0	68.9	31.1	100.0 (2,090)
강원	28.2	24.1	20.7	17.6	9.5	71.4	28.6	100.0 (380)
충북	29.8	22.9	19.8	18.0	9.5	63.9	36.1	100.0 (346)
충남	22.0	28.7	22.4	19.0	8.0	69.2	30.8	100.0 (487)
전북	27.6	24.0	20.9	18.0	9.5	65.2	34.8	100.0 (468)
전남	34.2	15.4	23.9	18.8	7.7	61.1	38.9	100.0 (520)
경북	28.4	23.6	23.9	16.7	7.3	69.9	30.1	100.0 (694)
경남	31.0	24.3	26.9	13.0	4.8	67.6	32.4	100.0 (692)
제주	27.6	25.7	21.6	13.4	11.7	69.7	30.3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3-5〉 노인의 시·도별 가구형태 및 교육수준

(단위: %, 명)

지역	가구형태				교육수준					계 (명)
	노인 독거	노인 부부	자녀 동거	기타	무학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전문대학 이상	
전국 ¹⁾	19.8	58.4	20.1	1.7	10.6	31.7	23.3	28.4	5.9	100.0 (10,097)
서울	17.1	55.7	25.1	2.2	5.4	22.0	21.1	43.1	8.4	100.0 (1,820)
부산	20.7	56.0	21.4	1.8	11.6	28.2	24.7	30.0	5.6	100.0 (784)
대구	20.4	60.9	17.6	1.1	10.9	36.8	18.1	26.6	7.6	100.0 (486)
인천	18.4	46.8	32.4	2.4	13.1	32.6	20.9	26.3	7.1	100.0 (487)
광주	19.9	44.1	34.8	1.2	5.6	42.0	23.8	27.0	1.6	100.0 (255)
대전	19.2	57.3	20.5	3.0	8.8	37.1	28.0	21.5	4.6	100.0 (256)
울산	19.2	62.8	17.6	0.4	6.8	37.8	28.5	22.9	4.0	100.0 (168)
세종	17.9	66.7	15.4	0.0	10.3	28.2	17.9	33.3	10.3	100.0 (39)
경기	16.7	61.1	20.4	1.8	9.6	26.8	24.4	30.6	8.5	100.0 (2,090)
강원	22.3	68.5	6.6	2.7	11.3	35.5	26.7	23.9	2.6	100.0 (380)
충북	28.4	58.3	11.1	2.1	11.0	39.1	28.0	18.1	3.8	100.0 (346)
충남	16.4	65.0	17.3	1.3	14.0	34.0	23.0	26.6	2.4	100.0 (487)
전북	23.1	62.0	13.8	1.2	13.5	43.5	19.0	17.1	6.9	100.0 (468)
전남	25.3	47.2	27.3	0.3	10.0	50.5	23.2	14.5	1.6	100.0 (520)
경북	23.5	65.0	9.5	2.1	18.7	32.4	24.0	22.2	2.7	100.0 (694)
경남	23.3	61.3	14.4	1.0	14.0	33.5	26.7	22.9	2.9	100.0 (692)
제주	17.4	52.6	27.9	2.1	17.7	33.7	16.5	21.7	10.3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3-7〉 노인의 시·도별 단독거주 이유

(단위: %, 명)

지역	경제적 능력	건강	개인(부부) 생활 향유	기존거주지 거주 희망	자녀의 결혼	자녀의 별거희망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	기타	계 (명)
전국 ¹⁾	12.7	11.2	19.9	18.2	28.3	5.9	3.2	0.5	100.0 (7,832)
서울	19.9	13.3	25.5	8.9	24.4	5.3	2.2	0.5	100.0 (1,320)
부산	10.4	10.7	16.3	21.4	29.8	9.2	2.2	0.1	100.0 (601)
대구	9.3	11.3	19.0	9.5	38.0	8.3	4.3	0.4	100.0 (391)
인천	5.2	17.4	14.0	5.8	47.5	5.8	3.5	0.8	100.0 (309)
광주	25.1	18.3	14.2	22.7	12.9	3.6	3.2	0.0	100.0 (163)
대전	16.4	8.0	13.6	20.8	37.8	2.3	1.2	0.0	100.0 (190)
울산	14.0	11.6	18.5	12.4	31.6	9.3	2.1	0.5	100.0 (138)
세종	19.5	4.4	17.8	4.4	50.6	2.5	0.7	0.0	100.0 (32)
경기	10.8	7.9	33.8	20.8	16.3	6.5	2.9	0.9	100.0 (1,619)
강원	5.0	7.4	11.4	17.8	48.4	7.2	2.2	0.4	100.0 (341)
충북	9.5	9.6	9.6	23.9	40.7	2.9	3.0	0.8	100.0 (297)
충남	6.6	11.8	12.0	23.2	41.4	0.6	3.4	1.0	100.0 (388)
전북	20.7	8.2	11.5	33.5	20.2	2.4	2.9	0.6	100.0 (393)
전남	15.1	23.5	12.9	22.2	9.7	8.8	7.9	0.0	100.0 (377)
경북	8.6	10.9	10.8	17.8	39.1	7.2	5.6	0.0	100.0 (604)
경남	11.4	9.6	16.0	25.3	29.7	6.0	2.0	0.0	100.0 (585)
제주	24.3	6.6	13.1	3.3	38.7	1.7	7.2	5.1	100.0 (85)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에서 노인 단독가구 7,832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3-10〉 노인의 시·도별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

(단위: %, 명)

지역	없음	아플 때 간호	일상생활 문제 처리	경제적 불안감	안전에 대한 불안감	심리적 불안감·외로움	계 (명)
전국 ¹⁾	40.9	23.7	9.9	13.3	3.8	8.3	100.0 (7,832)
서울	46.0	17.0	11.2	18.7	2.9	4.2	100.0 (1,320)
부산	36.8	24.5	9.0	17.0	4.6	8.1	100.0 (601)
대구	51.0	25.2	6.0	6.6	0.2	10.9	100.0 (391)
인천	39.1	20.8	8.3	24.8	1.7	5.2	100.0 (309)
광주	54.9	24.7	7.9	7.2	2.0	3.3	100.0 (163)
대전	36.7	25.4	13.8	11.4	6.3	6.5	100.0 (190)
울산	38.2	19.4	11.1	16.5	4.9	9.9	100.0 (138)
세종	63.6	18.2	3.0	6.1	3.0	6.1	100.0 (32)
경기	40.6	19.0	7.1	15.4	6.3	11.8	100.0 (1,619)
강원	28.6	47.0	10.7	6.5	2.5	4.6	100.0 (341)
충북	28.3	33.8	12.9	9.9	9.0	6.2	100.0 (297)
충남	53.8	20.7	3.8	9.0	4.3	8.4	100.0 (388)
전북	50.6	21.8	12.4	5.3	0.0	10.0	100.0 (393)
전남	37.6	29.9	10.7	9.6	2.5	9.7	100.0 (377)
경북	35.5	37.9	13.2	6.9	3.7	2.8	100.0 (604)
경남	26.8	19.8	15.8	16.8	3.4	17.4	100.0 (585)
제주	75.7	11.3	7.7	1.4	0.5	3.4	100.0 (85)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에서 노인 단독가구 7,832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3-11〉 노인의 시·도별 기혼자녀 동거 이유

(단위: %, 명)

지역	기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노인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본인/배우자 돌봄 필요	경제적 능력 부족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계 (명)
전국 ¹⁾	24.9	16.6	16.3	15.1	17.4	9.7	100.0 (872)
서울	20.3	18.6	17.0	6.8	19.8	17.4	100.0 (156)
부산	41.2	12.0	6.5	11.1	18.0	11.2	100.0 (57)
대구	3.4	10.3	13.8	31.0	27.6	13.8	100.0 (30)
인천	16.2	20.9	9.5	16.3	27.2	9.9	100.0 (66)
광주	31.3	22.5	12.3	23.6	10.2	0.0	100.0 (32)
대전	36.1	8.3	21.7	19.7	11.3	2.9	100.0 (25)
울산	33.3	16.7	16.7	16.7	16.7	0.0	100.0 (12)
세종	100.0	0.0	0.0	0.0	0.0	0.0	100.0 (2) ²⁾
경기	16.6	20.6	17.9	18.8	16.5	9.6	100.0 (242)
강원	52.4	14.3	9.5	14.3	4.8	4.8	100.0 (21)
충북	50.0	16.7	16.7	8.3	8.3	0.0	100.0 (11)
충남	25.5	11.0	27.3	25.3	7.3	3.6	100.0 (48)
전북	26.2	11.0	24.4	13.8	17.4	7.3	100.0 (29)
전남	54.8	12.9	15.7	5.0	6.5	5.1	100.0 (58)
경북	8.3	12.5	33.3	12.5	33.3	0.0	100.0 (25)
경남	26.6	10.3	8.4	14.1	28.1	12.6	100.0 (51)
제주	28.6	0.0	14.3	28.6	0.0	28.6	100.0 (8) ²⁾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기혼자녀 동거가구 872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3-14〉 노인의 시·도별 기혼자녀 동거 시 일상생활 분담 방법

(단위: %, 명)

지역	부모	자녀	공동	각자 따로	계 (명)
전국 ¹⁾	21.4	35.3	30.2	13.1	100.0 (872)
서울	21.2	34.8	26.4	17.6	100.0 (156)
부산	30.9	26.0	21.0	22.1	100.0 (57)
대구	4.8	3.9	50.2	21.1	100.0 (30)
인천	28.3	23.6	8.0	20.2	100.0 (66)
광주	22.4	52.1	4.1	11.4	100.0 (32)
대전	14.4	40.0	31.7	13.9	100.0 (25)
울산	18.2	54.5	9.1	18.2	100.0 (12)
세종	0.0	50.0	50.0	0.0	100.0 (2) ²⁾
경기	16.5	40.0	35.2	8.3	100.0 (242)
강원	9.5	57.1	23.8	9.5	100.0 (21)
충북	0.0	59.4	40.6	0.0	100.0 (11)
충남	9.5	48.7	32.4	9.4	100.0 (48)
전북	37.5	0.7	25.3	6.5	100.0 (29)
전남	34.4	31.5	28.0	6.0	100.0 (58)
경북	20.5	7.1	51.8	10.5	100.0 (25)
경남	40.6	20.2	22.0	17.3	100.0 (51)
제주	0.0	25.0	50.0	25.0	100.0 (8) ²⁾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기혼자녀 동거가구 872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3-15〉 노인의 시·도별 미혼자녀 동거 이유

(단위: %, 명)

지역	미혼자녀 동거가 당연하므로	노인 단독가구는 외로워서	본인/배우자 돌봄 필요	경제적 능력 부족	자녀에게 가사지원 등 제공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계 (명)
전국 ¹⁾	38.8	11.4	5.1	10.6	17.3	16.7	100.0 (1,060)
서울	42.3	11.6	3.5	8.5	15.1	19.0	100.0 (284)
부산	38.7	14.4	2.7	11.7	16.2	16.2	100.0 (111)
대구	40.0	2.0	4.0	4.0	36.0	14.0	100.0 (50)
인천	25.9	14.1	5.9	8.2	27.1	18.8	100.0 (86)
광주	59.1	18.2	11.4	2.3	4.5	4.5	100.0 (44)
대전	40.0	16.0	12.0	8.0	8.8	16.0	100.0 (24)
울산	45.0	10.0	10.0	20.0	5.0	10.0	100.0 (19)
세종	25.0	0.0	0.0	0.0	50.0	25.0	100.0 (4) ²⁾
경기	30.2	10.1	1.8	10.1	27.2	20.7	100.0 (169)
강원	25.0	0.0	0.0	50.0	50.0	0.0	100.0 (3) ²⁾
충북	45.5	9.1	18.2	13.6	4.5	9.1	100.0 (21)
충남	42.4	15.2	21.2	9.1	9.1	3.0	100.0 (32)
전북	27.3	3.0	9.1	27.3	15.2	18.2	100.0 (32)
전남	53.4	17.8	2.7	16.4	5.5	4.1	100.0 (73)
경북	50.0	11.1	8.3	5.6	11.1	13.9	100.0 (37)
경남	21.7	6.5	2.2	26.1	17.4	26.1	100.0 (46)
제주	50.0	0.0	4.2	0.0	12.5	33.3	100.0 (25)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미혼자녀 동거가구 1,060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3-18〉 노인의 시·도별 미혼자녀 동거 시 일상생활 분담 방법

(단위: %, 명)

지역	부모	자녀	공동	각자 따로	계 (명)
전국 ¹⁾	50.7	7.1	28.2	14.0	100.0 (1,060)
서울	46.5	7.4	29.6	16.5	100.0 (284)
부산	64.9	4.5	14.4	16.2	100.0 (111)
대구	44.0	0.0	44.0	12.0	100.0 (50)
인천	54.7	4.7	23.3	17.4	100.0 (86)
광주	68.2	13.6	9.1	9.1	100.0 (44)
대전	33.3	12.5	50.0	4.2	100.0 (24)
울산	57.9	10.5	5.3	26.3	100.0 (19)
세종	25.0	0.0	50.0	25.0	100.0 (4) ²⁾
경기	53.8	1.8	32.5	11.8	100.0 (169)
강원	0.0	0.0	100.0	0.0	100.0 (3) ²⁾
충북	23.8	23.8	47.6	4.8	100.0 (21)
충남	46.9	18.8	28.1	6.3	100.0 (32)
전북	40.6	15.6	21.9	21.9	100.0 (32)
전남	61.6	12.3	13.7	12.3	100.0 (73)
경북	33.3	5.6	52.8	8.3	100.0 (37)
경남	53.3	8.9	26.7	11.1	100.0 (46)
제주	44.0	0.0	44.0	12.0	100.0 (25)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미혼자녀 동거가구 1,060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4-1〉 노인의 시·도별 가족 및 친구·이웃·지인 유무(율)

(단위: %)

지역	생존자녀 ¹⁾	생존손자녀 ¹⁾	형제·자매 ¹⁾	가까운 친인척 ²⁾	친한 친구 이웃 ²⁾
전국 ¹⁾	96.8	88.3	79.8	81.7	93.6
서울	96.0	87.3	88.4	83.7	88.6
부산	93.9	83.1	80.7	87.4	97.1
대구	98.1	84.5	88.5	86.8	92.2
인천	98.7	87.9	85.5	75.4	91.0
광주	95.6	84.9	75.3	94.0	99.6
대전	97.5	83.0	69.5	74.9	91.9
울산	98.5	89.1	85.5	89.1	94.3
세종	96.2	87.9	6.5	74.5	95.9
경기	97.8	90.6	85.6	83.2	94.9
강원	95.2	88.7	59.3	67.2	96.3
충북	95.2	89.2	65.7	73.1	90.9
충남	96.4	94.0	61.8	71.6	95.6
전북	97.0	91.3	85.3	73.2	90.0
전남	97.0	86.4	79.9	92.4	99.7
경북	99.1	91.8	64.9	78.9	96.1
경남	96.8	87.4	73.6	83.5	97.1
제주	96.2	90.8	84.1	75.3	68.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4-2〉 노인의 시·도별 가족 및 친구·이웃 평균수

(단위: 명)

지역	생존자녀	생존 손자녀수	생존 형제·자매	가까운 친인척	친한 친구 이웃
전국 ¹⁾	3.0	4.1	2.9	2.1	3.0
서울	2.5	3.5	3.0	2.1	2.7
부산	2.9	3.6	3.0	2.3	2.8
대구	2.6	3.7	3.2	3.2	4.7
인천	2.6	3.6	3.3	1.9	2.5
광주	3.4	4.0	2.7	2.2	3.1
대전	3.0	3.9	2.8	1.7	2.4
울산	2.8	4.0	3.0	2.3	2.8
세종	2.9	4.2	3.1	1.5	2.2
경기	2.7	4.1	2.7	1.9	2.9
강원	3.1	4.6	2.9	1.4	3.3
충북	3.0	4.7	2.6	1.5	2.3
충남	3.4	5.2	2.5	1.5	2.6
전북	3.5	5.3	3.7	1.8	3.1
전남	3.9	4.8	2.7	2.3	3.4
경북	3.1	4.5	2.6	2.5	3.8
경남	2.9	4.4	3.1	2.7	3.6
제주	3.6	5.2	3.9	1.6	2.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4-3〉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의 건강상태

(단위: %, 명)

지역	매우 건강	건강한 편	그저 그렇다	건강하지 않은 편	전혀 건강하지 않음	계 (명)
전국 ¹⁾	5.8	51.1	28.4	12.4	2.3	100.0 (6,779)
서울	5.1	52.7	25.2	13.7	3.3	100.0 (1,219)
부산	4.1	49.4	29.5	15.2	1.8	100.0 (512)
대구	12.3	54.4	26.3	6.0	1.0	100.0 (330)
인천	2.7	55.6	26.2	13.1	2.4	100.0 (317)
광주	3.9	63.5	27.2	5.0	0.3	100.0 (152)
대전	8.2	49.1	30.1	11.2	1.4	100.0 (174)
울산	2.6	59.9	28.4	7.3	1.8	100.0 (114)
세종	12.5	55.2	23.3	7.6	1.4	100.0 (29)
경기	8.4	46.3	30.1	12.9	2.2	100.0 (1,439)
강원	2.2	48.5	44.6	4.4	0.3	100.0 (271)
충북	6.4	52.4	26.7	13.5	1.0	100.0 (221)
충남	4.3	43.3	35.4	14.5	2.1	100.0 (337)
전북	4.9	58.7	15.8	15.9	4.6	100.0 (305)
전남	3.5	57.4	29.7	8.5	0.9	100.0 (318)
경북	7.2	51.1	26.2	12.4	3.1	100.0 (485)
경남	2.8	50.1	30.7	13.6	2.9	100.0 (468)
제주	4.3	46.7	21.2	22.7	5.1	100.0 (88)

주: 1) 전체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6,77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I-4-4〉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와의 갈등 실태

(단위: %, 명)

특성	갈등 경험률 ¹⁾	이유 ²⁾								계 (명)
		부모동거 및 돌봄 문제	형제 자매 갈등	배우자 생활 방식	성격 및 사고 방식	본인 (배우자) 돌봄	경제 문제	가사 분담	기타	
전체 ¹⁾	16.8	3.0	1.3	21.2	53.9	7.7	8.1	4.8	0.1	100.0(1,125)
서울	19.9	2.1	1.3	29.3	43.1	11.7	10.5	2.1	0.0	100.0(239)
부산	9.0	10.9	0.0	28.3	37.0	6.5	17.4	0.0	0.0	100.0(46)
대구	8.6	6.9	0.0	31.0	37.9	17.2	3.4	0.0	3.4	100.0(29)
인천	14.0	4.7	2.3	20.9	55.8	7.0	7.0	2.3	0.0	100.0(43)
광주	2.0	0.0	0.0	33.3	33.3	0.0	33.3	0.0	0.0	100.0(3 ²⁾)
대전	8.4	13.3	0.0	33.3	33.3	0.0	0.0	20.0	0.0	100.0(15)
울산	14.0	6.7	0.0	26.7	40.0	6.7	13.3	6.7	0.0	100.0(15)
세종	10.3	0.0	0.0	0.0	33.3	0.0	33.3	33.3	0.0	100.0(3 ²⁾)
경기	35.0	0.6	1.4	17.4	63.9	6.2	5.6	5.0	0.0	100.0(501)
강원	3.0	0.0	12.5	37.5	25.0	25.0	0.0	0.0	0.0	100.0(8 ²⁾)
충북	13.9	12.9	0.0	16.1	38.7	16.1	6.5	9.7	0.0	100.0(31)
충남	12.2	0.0	0.0	24.4	41.5	2.4	4.9	26.8	0.0	100.0(41)
전북	15.3	0.0	0.0	8.5	74.5	0.0	17.0	0.0	0.0	100.0(47)
전남	2.8	10.0	30.0	30.0	0.0	0.0	20.0	10.0	0.0	100.0(10)
경북	7.8	7.9	0.0	13.2	63.2	2.6	10.5	2.6	0.0	100.0(38)
경남	9.2	14.0	0.0	18.6	37.2	11.6	9.3	9.3	0.0	100.0(43)
제주	21.7	0.0	0.0	16.7	72.2	5.6	5.6	0.0	0.0	100.0(18)

주:1) 본인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6,401명 중 배우자와의 갈등을 경험한 1,125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I-4-5〉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왕래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2,3회	주 1회 정도	월 1회 정도	분기1,2회	연 1,2회	없음	계 (명)
전국 ¹⁾	2.5	3.5	10.9	34.8	30.4	17.0	0.9	100.0 (9,552)
서울	1.9	2.4	16.4	43.6	26.8	8.1	0.8	100.0 (1,704)
부산	1.5	2.0	10.9	41.8	30.5	12.3	1.0	100.0 (717)
대구	3.1	4.9	12.4	37.9	29.5	9.9	2.2	100.0 (459)
인천	7.2	5.6	15.7	37.4	17.5	14.3	2.3	100.0 (454)
광주	0.4	4.4	22.5	43.8	14.4	14.3	0.3	100.0 (234)
대전	1.9	1.7	11.5	37.0	29.1	17.8	0.9	100.0 (238)
울산	1.4	4.0	12.1	45.0	32.2	4.6	0.8	100.0 (163)
세종	2.1	3.1	6.0	44.2	31.9	12.7	0.0	100.0 (37)
경기	1.8	3.9	8.4	32.8	33.9	18.2	1.0	100.0 (1,996)
강원	0.1	0.5	1.8	28.3	42.7	25.0	1.6	100.0 (360)
충북	7.1	5.1	6.3	30.2	31.2	19.8	0.2	100.0 (320)
충남	2.1	2.7	6.2	29.8	34.9	24.2	0.2	100.0 (464)
전북	3.2	2.9	11.9	21.1	45.1	15.6	0.2	100.0 (452)
전남	1.2	5.7	11.1	33.4	21.1	27.3	0.1	100.0 (493)
경북	2.2	2.6	4.1	11.9	35.6	43.3	0.5	100.0 (678)
경남	3.0	3.3	12.3	43.3	29.4	7.6	1.0	100.0 (664)
제주	12.0	13.7	14.5	28.6	9.2	19.3	2.8	100.0 (119)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또는 배우자)가 있는 9,552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4-6〉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2,3회	주 1회 정도	월 1회 정도	분기1,2회	연 1,2회	없음	계 (명)
전국 ¹⁾	8.2	23.0	32.3	26.1	6.6	2.9	0.8	100.0 (9,552)
서울	5.7	25.7	35.4	26.3	4.3	2.0	0.6	100.0 (1,704)
부산	9.3	21.7	32.7	25.8	7.7	1.7	1.0	100.0 (717)
대구	10.2	31.1	22.8	25.1	6.9	2.8	1.0	100.0 (459)
인천	17.6	25.0	22.6	23.9	7.0	1.4	2.6	100.0 (454)
광주	3.7	17.6	37.0	29.7	4.9	6.8	0.3	100.0 (234)
대전	4.6	18.7	38.3	29.8	5.6	1.8	1.2	100.0 (238)
울산	7.5	26.7	39.5	20.7	4.4	0.8	0.5	100.0 (163)
세종	4.2	20.1	43.2	21.8	10.3	0.3	0.0	100.0 (37)
경기	8.1	26.2	34.1	24.7	5.2	0.7	1.0	100.0 (1,996)
강원	1.1	27.8	40.4	22.8	5.9	1.1	0.9	100.0 (360)
충북	11.0	18.0	28.9	28.7	11.8	1.6	0.0	100.0 (320)
충남	2.8	17.7	34.6	34.2	7.8	1.5	1.4	100.0 (464)
전북	15.7	23.5	32.7	22.6	4.2	1.2	0.1	100.0 (452)
전남	3.4	18.2	31.2	22.7	5.6	18.7	0.3	100.0 (493)
경북	7.8	11.2	19.5	34.2	18.9	8.0	0.4	100.0 (678)
경남	11.7	23.2	35.8	23.1	4.0	1.5	0.7	100.0 (664)
제주	27.7	20.3	25.2	21.0	2.9	1.7	1.9	100.0 (119)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또는 배우자)가 있는 9,552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4-8〉 노인의 시·도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왕래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2,3회	주 1회 정도	월 1회 정도	분기1,2회	연 1,2회	없음	계 (명)
전국 ¹⁾	3.4	6.4	12.2	33.7	30.4	12.9	1.0	100.0 (9,552)
서울	3.1	7.0	20.4	39.4	24.2	5.3	0.6	100.0 (1,704)
부산	3.0	4.5	13.6	35.5	29.6	12.4	1.5	100.0 (717)
대구	3.2	6.2	10.6	35.1	32.1	10.3	2.6	100.0 (459)
인천	5.5	6.4	15.1	38.9	17.8	13.4	2.8	100.0 (454)
광주	2.5	11.1	19.7	34.9	17.1	14.6	0.1	100.0 (234)
대전	1.9	3.3	13.7	39.1	31.3	9.9	0.9	100.0 (238)
울산	2.8	5.8	13.6	42.3	32.0	3.1	0.3	100.0 (163)
세종	3.6	3.7	5.3	48.2	28.5	10.7	0.0	100.0 (37)
경기	2.4	5.8	10.3	30.0	35.8	14.6	1.0	100.0 (1,996)
강원	0.4	2.5	3.8	34.2	44.7	12.7	1.7	100.0 (360)
충북	7.1	6.0	7.7	27.0	36.9	15.1	0.2	100.0 (320)
충남	2.6	4.3	6.0	33.7	38.0	15.3	0.2	100.0 (464)
전북	6.4	9.6	9.7	29.2	33.7	9.9	1.5	100.0 (452)
전남	3.2	10.5	6.8	30.5	24.3	24.3	0.3	100.0 (493)
경북	2.2	3.9	7.5	25.3	33.3	27.6	0.2	100.0 (678)
경남	3.7	9.0	12.7	36.1	30.1	7.5	1.0	100.0 (664)
제주	18.3	14.9	14.5	29.2	5.7	15.3	2.2	100.0 (119)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또는 배우자)가 있는 9,552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4-9〉 노인의 시·도별 접촉이 가장 많은 비동거 자녀와의 연락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연락 없음	계 (명)
전국 ¹⁾	9.8	25.8	32.2	20.7	8.7	1.7	1.0	100.0 (9,552)
서울	10.2	23.3	36.2	20.1	7.6	2.3	0.4	100.0 (1,704)
부산	9.1	22.6	34.9	18.6	12.1	1.2	1.5	100.0 (717)
대구	10.6	30.4	23.3	19.9	9.3	5.3	1.3	100.0 (459)
인천	14.6	26.4	21.1	26.1	7.2	1.3	3.1	100.0 (454)
광주	5.4	23.9	35.5	22.8	9.5	2.8	0.1	100.0 (234)
대전	4.7	25.1	42.9	19.1	6.2	0.7	1.2	100.0 (238)
울산	8.0	22.6	38.5	23.9	6.5	0.5	0.0	100.0 (163)
세종	6.1	20.9	47.7	16.8	6.9	1.5	0.0	100.0 (37)
경기	8.0	31.0	31.3	19.2	8.1	0.9	1.5	100.0 (1,996)
강원	1.7	28.5	46.2	20.5	1.5	0.6	0.9	100.0 (360)
충북	11.4	24.3	22.7	23.9	16.6	0.9	0.2	100.0 (320)
충남	3.4	22.3	32.2	31.1	8.5	1.2	1.4	100.0 (464)
전북	21.4	36.7	25.3	11.2	4.5	0.7	0.2	100.0 (452)
전남	4.9	24.9	38.8	20.2	9.0	2.1	0.1	100.0 (493)
경북	14.6	16.7	27.1	23.8	14.9	2.5	0.3	100.0 (678)
경남	11.0	23.4	32.3	20.3	10.0	2.1	1.1	100.0 (664)
제주	30.4	24.2	23.4	17.7	1.7	1.0	1.7	100.0 (119)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또는 배우자)가 있는 9,552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4-10〉 노인의 시·도별 자녀와의 갈등 실태

(단위: %, 명)

지역	갈등 경험률 ¹⁾	이유									계 (명)
		동거 여부	돌봄 문제	자녀의 경제적 도움 요구	노인 생활비 보조	편애	자녀 장래 문제	손자녀양육 방식	노인의이성교제	기타	
전국	6.1	19.2	16.5	18.7	12.9	1.4	15.0	9.2	2.6	4.6	100.0 (604)
서울	7.4	8.7	19.5	26.3	8.0	2.6	17.7	15.2	1.3	0.6	100.0 (134)
부산	5.9	19.6	11.1	17.7	6.8	0.0	19.6	4.7	21.7	0.0	100.0 (46)
대구	4.9	9.0	17.2	34.0	14.3	2.0	9.1	4.9	0.0	9.5	100.0 (20)
인천	7.5	36.0	10.4	21.7	10.0	0.0	11.7	5.4	1.7	3.0	100.0 (35)
광주	0.9	0.0	0.0	50.0	0.0	50.0	0.0	0.0	0.0	0.0	100.0 (2) ³⁾
대전	3.3	10.0	20.0	10.0	19.6	0.0	40.0	0.0	0.0	0.0	100.0 (8) ³⁾
울산	3.0	0.0	40.0	20.0	0.0	0.0	20.0	20.0	0.0	0.0	100.0 (5) ³⁾
세종	2.8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 ³⁾
경기	11.2	23.1	12.1	12.0	18.4	0.7	15.1	9.0	0.0	9.6	100.0 (230)
강원	0.8	0.0	33.3	0.0	33.3	0.0	33.3	0.0	0.0	0.0	100.0 (3) ³⁾
충북	6.2	32.9	38.1	4.8	24.2	0.0	0.0	0.0	0.0	0.0	100.0 (21)
충남	4.6	22.7	22.7	40.9	0.0	0.0	4.5	9.6	0.0	0.0	100.0 (22)
전북	4.9	13.0	21.7	13.0	4.3	4.3	34.8	0.0	0.0	8.7	100.0 (23)
전남	2.0	50.0	20.0	30.0	0.0	0.0	0.0	0.0	0.0	0.0	100.0 (10)
경북	1.1	0.0	0.0	42.9	28.7	13.9	0.0	14.3	0.0	0.0	100.0 (7) ³⁾
경남	4.1	11.7	22.2	18.5	11.5	0.0	7.4	18.5	11.1	0.0	100.0 (29)
제주	6.1	28.6	28.6	14.3	14.3	0.0	14.3	0.0	0.0	0.0	100.0 (7) ³⁾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생존 자녀가 있는 9,617명을 대상으로 함. 2)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604명을 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4-11〉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왕래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왕래 없음	계 (명)
전국 ¹⁾	1.3	2.2	5.1	17.9	38.8	32.0	2.7	100.0 (8,829)
서울	2.2	2.2	10.0	27.9	37.4	18.3	1.9	100.0 (1,569)
부산	1.3	1.4	5.6	21.9	41.5	25.1	3.2	100.0 (641)
대구	1.6	3.0	3.4	15.9	47.0	27.4	1.7	100.0 (406)
인천	3.9	1.7	4.5	21.6	31.2	31.6	5.5	100.0 (418)
광주	0.0	5.2	8.1	23.0	33.0	28.6	2.1	100.0 (212)
대전	0.6	1.5	2.9	11.9	45.7	36.7	0.7	100.0 (211)
울산	1.4	1.5	4.3	22.1	57.2	12.2	1.3	100.0 (149)
세종	0.0	3.6	2.6	9.8	45.2	38.5	0.4	100.0 (34)
경기	0.9	2.4	4.9	18.6	39.9	30.5	2.8	100.0 (1,863)
강원	0.0	0.5	1.7	12.3	34.2	49.5	1.8	100.0 (336)
충북	1.9	0.9	3.7	11.1	43.5	37.8	1.2	100.0 (308)
충남	0.5	0.5	1.3	9.9	47.0	39.5	1.2	100.0 (455)
전북	1.0	3.3	5.4	8.1	35.3	40.6	6.3	100.0 (427)
전남	0.3	4.7	3.9	20.5	26.1	44.1	0.4	100.0 (447)
경북	0.2	1.3	1.2	4.2	25.5	61.8	5.9	100.0 (637)
경남	1.1	2.0	2.8	16.7	54.3	21.1	1.9	100.0 (601)
제주	7.2	4.6	10.3	18.0	15.7	38.9	5.3	100.0 (114)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손자녀가 있는 8,82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4-12〉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손자녀 전체와의 연락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연락 없음	계 (명)
전국 ¹⁾	1.3	5.5	10.7	17.9	29.6	21.7	13.3	100.0 (8,829)
서울	1.2	3.3	17.9	26.0	24.0	19.3	8.3	100.0 (1,569)
부산	1.8	4.7	14.0	22.5	31.5	16.2	9.3	100.0 (641)
대구	1.2	4.7	8.2	15.0	36.5	27.6	6.8	100.0 (406)
인천	2.7	2.8	5.8	16.1	26.8	22.7	23.2	100.0 (418)
광주	0.4	15.4	14.4	18.1	27.3	20.3	4.0	100.0 (212)
대전	1.4	4.3	8.7	11.5	39.7	19.4	14.9	100.0 (211)
울산	1.7	5.0	11.9	22.9	38.2	10.4	9.9	100.0 (149)
세종	0.0	3.2	10.8	14.1	36.8	27.5	7.6	100.0 (34)
경기	0.8	7.8	6.7	13.1	28.9	26.9	15.8	100.0 (1,863)
강원	0.0	5.9	9.7	15.0	28.1	33.3	8.0	100.0 (336)
충북	1.9	5.9	6.5	16.6	38.4	16.9	13.8	100.0 (308)
충남	0.3	4.8	7.5	26.8	28.8	16.7	15.1	100.0 (455)
전북	2.7	5.4	9.4	14.6	27.2	17.8	23.0	100.0 (427)
전남	0.7	12.0	23.8	18.4	24.4	19.1	1.5	100.0 (447)
경북	0.3	1.3	2.6	8.8	32.5	28.3	26.2	100.0 (637)
경남	2.1	3.9	10.1	18.1	38.5	14.3	12.9	100.0 (601)
제주	8.0	11.1	8.1	20.1	15.4	17.9	19.4	100.0 (114)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손자녀가 있는 8,82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I-4-13〉 노인의 시·도별 친인척과의 왕래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²⁾	왕래 없음	계 (명)
전국 ¹⁾	0.7	1.7	2.3	12.0	26.8	45.9	10.6	100.0 (8,053)
서울	0.7	1.0	3.3	15.7	29.6	40.7	9.0	100.0 (1,608)
부산	0.2	0.9	1.9	9.4	31.1	49.1	7.5	100.0 (633)
대구	1.0	1.1	1.3	12.2	35.5	41.4	7.6	100.0 (430)
인천	0.2	0.2	1.7	8.4	21.5	55.9	12.1	100.0 (417)
광주	0.9	2.6	2.7	22.8	28.3	35.9	6.8	100.0 (192)
대전	0.8	1.0	2.6	8.1	36.7	41.8	9.0	100.0 (178)
울산	0.0	1.8	1.0	12.4	37.5	42.3	4.9	100.0 (144)
세종	1.4	0.7	1.5	6.0	32.4	47.8	10.2	100.0 (30)
경기	0.3	1.4	1.9	8.6	19.0	56.0	12.8	100.0 (1,789)
강원	0.3	2.3	1.2	8.4	43.5	40.0	4.3	100.0 (225)
충북	0.9	3.3	5.5	16.9	24.7	40.6	8.1	100.0 (227)
충남	0.1	4.6	2.1	12.1	23.5	50.1	7.4	100.0 (301)
전북	0.3	1.6	2.0	13.0	21.4	45.6	16.2	100.0 (399)
전남	1.4	5.1	2.9	19.6	23.9	39.9	7.2	100.0 (415)
경북	0.6	1.4	2.1	7.1	21.2	38.9	28.8	100.0 (450)
경남	2.0	3.0	2.1	11.6	38.5	39.9	2.9	100.0 (509)
제주	4.0	0.9	2.6	13.0	20.9	39.5	19.0	100.0 (106)

주: 1) 전체응답자 중 생존 형제자매가 있는 8,053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III-4-14〉 노인의 시·도별 친인척과의 연락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²⁾	연락 없음	계 (명)
전국 ¹⁾	2.0	6.3	12.0	25.4	30.8	18.6	4.9	100.0 (8,053)
서울	2.6	4.2	17.6	25.3	30.7	15.6	4.0	100.0 (1,608)
부산	1.0	3.7	12.6	23.9	33.0	20.8	5.0	100.0 (633)
대구	0.5	8.8	9.6	20.5	34.3	21.3	5.1	100.0 (430)
인천	1.2	5.2	6.9	24.7	29.2	25.8	7.0	100.0 (417)
광주	1.6	12.8	9.7	22.7	28.5	21.4	3.4	100.0 (192)
대전	1.6	5.3	14.3	18.5	35.9	17.9	6.5	100.0 (178)
울산	0.8	6.8	13.3	21.3	39.5	17.6	0.7	100.0 (144)
세종	1.4	7.8	10.3	29.4	28.5	18.7	3.9	100.0 (30)
경기	2.3	4.6	11.4	26.3	23.7	25.6	6.2	100.0 (1,789)
강원	0.3	5.3	11.6	29.8	41.6	6.8	4.5	100.0 (225)
충북	2.3	11.9	10.8	28.1	32.1	13.5	1.3	100.0 (227)
충남	0.1	8.5	5.0	27.9	37.7	19.2	1.4	100.0 (301)
전북	4.8	7.6	8.8	28.0	31.8	9.7	9.2	100.0 (399)
전남	1.6	21.6	12.8	19.0	22.5	18.2	4.4	100.0 (415)
경북	1.9	2.8	7.2	31.8	40.9	11.2	4.2	100.0 (450)
경남	2.5	5.9	13.3	26.4	36.9	12.8	2.2	100.0 (509)
제주	6.8	3.4	6.2	26.1	26.4	17.5	13.7	100.0 (106)

주: 1) 전체응답자 중 생존 형제자매가 있는 8,053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4-15〉 노인의 시·도별 친구·이웃·지인과의 왕래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²⁾	왕래 없음	계 (명)
전국 ¹⁾	24.5	26.7	18.2	15.6	7.0	3.1	4.9	100.0 (10,097)
서울	15.1	18.8	27.2	22.4	9.2	2.4	4.9	100.0 (1,820)
부산	17.4	16.7	23.4	20.8	11.6	4.6	5.5	100.0 (784)
대구	26.9	23.8	19.4	18.5	5.3	1.4	4.7	100.0 (486)
인천	20.0	20.2	21.2	18.9	5.4	2.1	12.2	100.0 (487)
광주	33.1	27.3	10.2	14.0	9.2	2.7	3.5	100.0 (255)
대전	29.8	36.2	16.4	6.2	3.4	1.7	6.2	100.0 (256)
울산	16.6	26.0	19.0	15.6	14.9	4.8	3.0	100.0 (168)
세종	27.4	41.2	13.5	12.3	2.8	0.6	2.2	100.0 (39)
경기	17.6	28.2	19.4	18.0	7.3	4.1	5.4	100.0 (2,090)
강원	22.6	59.6	5.9	5.0	2.9	1.5	2.6	100.0 (380)
충북	29.0	35.2	17.1	6.4	2.2	4.8	5.3	100.0 (346)
충남	31.9	35.1	15.9	9.8	1.2	3.0	3.1	100.0 (487)
전북	28.8	25.1	11.4	16.2	7.2	3.6	7.6	100.0 (468)
전남	41.0	28.8	5.4	10.5	8.6	4.5	1.2	100.0 (520)
경북	37.5	36.0	14.7	6.0	1.7	1.3	2.7	100.0 (694)
경남	40.9	22.4	14.1	10.0	8.5	2.3	1.8	100.0 (692)
제주	24.8	8.4	11.3	28.9	5.1	3.4	18.1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4-16〉 노인의 시·도별 친구·이웃·지인과의 연락빈도

(단위: %, 명)

지역	거의 매일	일주일 2,3회	일주일 1회	한 달 1회	분기 1,2회	연 1,2회 ²⁾	연락 없음	계 (명)
전국 ¹⁾	19.9	28.1	23.0	14.2	6.3	2.4	6.1	100.0 (10,097)
서울	12.6	22.6	29.3	20.6	7.6	2.0	5.3	100.0 (1,820)
부산	15.5	20.4	29.1	14.8	9.1	3.5	7.5	100.0 (784)
대구	28.7	28.1	23.8	11.5	2.4	1.3	4.2	100.0 (486)
인천	12.5	21.0	29.4	17.1	4.3	2.3	13.5	100.0 (487)
광주	34.2	23.2	16.2	11.6	8.1	2.7	4.0	100.0 (255)
대전	22.9	34.1	21.1	8.6	3.1	1.6	8.7	100.0 (256)
울산	12.5	26.1	20.7	16.7	16.2	3.8	4.0	100.0 (168)
세종	28.8	38.4	18.4	10.2	2.0	0.0	2.2	100.0 (39)
경기	14.5	31.9	21.5	15.9	6.6	3.4	6.2	100.0 (2,090)
강원	16.2	59.9	11.2	7.4	1.8	0.9	2.7	100.0 (380)
충북	26.1	39.3	17.1	4.9	3.0	4.6	5.1	100.0 (346)
충남	15.8	32.0	23.4	13.3	3.7	3.9	7.9	100.0 (487)
전북	22.6	28.3	21.3	12.0	4.0	1.2	10.6	100.0 (468)
전남	38.2	29.7	13.6	6.9	8.9	1.5	1.1	100.0 (520)
경북	30.0	22.6	29.7	8.7	2.6	1.1	5.4	100.0 (694)
경남	30.0	26.1	16.0	12.5	10.8	1.8	2.8	100.0 (692)
제주	22.4	10.9	11.5	30.2	3.3	3.1	18.6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5-1〉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30.9	54.7	9.9	4.5	100.0 (6,778)
서울	26.9	58.3	11.0	3.9	100.0 (1,219)
부산	30.0	52.5	9.6	7.9	100.0 (512)
대구	18.9	70.2	9.4	1.5	100.0 (330)
인천	15.1	65.4	13.4	6.1	100.0 (317)
광주	48.3	43.6	7.0	1.1	100.0 (152)
대전	44.0	41.8	7.5	6.7	100.0 (174)
울산	17.5	59.6	11.5	11.3	100.0 (114)
세종	47.4	43.7	5.2	3.7	100.0 (29)
경기	28.1	57.4	12.2	2.3	100.0 (1,439)
강원	69.0	24.4	4.6	2.0	100.0 (271)
충북	38.8	52.6	6.5	2.1	100.0 (221)
충남	37.0	48.3	11.2	3.5	100.0 (336)
전북	18.0	69.7	7.2	5.0	100.0 (305)
전남	59.2	33.9	4.6	2.3	100.0 (318)
경북	31.3	56.1	10.2	2.5	100.0 (485)
경남	20.5	54.0	9.8	15.7	100.0 (468)
제주	30.1	60.1	5.3	4.5	100.0 (88)

주: 1) 전체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6,778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5-2〉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28.5	56.4	10.6	4.6	100.0 (6,778)
서울	25.8	58.4	12.7	3.2	100.0 (1,219)
부산	29.4	52.7	9.5	8.5	100.0 (512)
대구	17.9	71.0	10.6	0.6	100.0 (330)
인천	12.2	65.5	15.3	7.0	100.0 (317)
광주	28.3	55.7	15.0	1.0	100.0 (152)
대전	44.2	41.5	7.5	6.8	100.0 (174)
울산	19.1	51.4	16.8	12.7	100.0 (114)
세종	49.1	42.7	5.9	2.2	100.0 (29)
경기	29.0	57.4	11.0	2.5	100.0 (1,439)
강원	67.0	27.8	3.1	2.1	100.0 (271)
충북	37.5	52.7	7.0	2.8	100.0 (221)
충남	32.8	49.7	13.3	4.2	100.0 (336)
전북	13.8	70.7	7.9	7.6	100.0 (305)
전남	28.3	60.8	8.5	2.4	100.0 (318)
경북	31.2	54.9	10.9	3.1	100.0 (485)
경남	23.3	55.1	8.1	13.5	100.0 (468)
제주	31.6	59.2	4.8	4.3	100.0 (88)

주: 1) 전체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6,778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5-3〉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39.9	40.0	14.9	5.2	100.0 (6,778)
서울	37.0	44.0	13.9	5.1	100.0 (1,219)
부산	31.5	51.6	13.1	3.8	100.0 (512)
대구	30.1	43.4	21.4	5.1	100.0 (330)
인천	36.0	46.6	10.4	7.0	100.0 (317)
광주	47.4	39.2	10.9	2.6	100.0 (152)
대전	44.8	30.9	10.4	13.9	100.0 (174)
울산	31.5	46.9	16.1	5.4	100.0 (114)
세종	52.3	32.0	12.9	2.8	100.0 (29)
경기	41.6	36.1	18.2	4.2	100.0 (1,439)
강원	72.5	20.8	4.7	2.0	100.0 (271)
충북	41.0	43.9	8.2	6.9	100.0 (221)
충남	43.9	31.0	15.3	9.8	100.0 (336)
전북	31.4	48.2	16.9	3.4	100.0 (305)
전남	48.3	37.5	12.4	1.7	100.0 (318)
경북	43.7	28.6	23.0	4.7	100.0 (485)
경남	31.9	46.9	13.6	7.6	100.0 (468)
제주	38.9	46.5	5.1	9.6	100.0 (88)

주: 1) 전체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6,778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5-4〉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34.4	42.2	17.6	5.8	100.0 (6,778)
서울	28.9	48.0	17.4	5.6	100.0 (1,219)
부산	30.9	46.5	14.1	8.5	100.0 (512)
대구	23.6	46.1	25.6	4.7	100.0 (330)
인천	27.8	49.8	16.0	6.3	100.0 (317)
광주	30.8	44.6	21.7	2.9	100.0 (152)
대전	44.6	29.5	10.6	15.2	100.0 (174)
울산	24.9	48.4	15.8	10.9	100.0 (114)
세종	48.6	35.0	14.1	2.3	100.0 (29)
경기	35.3	39.9	21.3	3.5	100.0 (1,439)
강원	71.0	21.5	5.6	1.9	100.0 (271)
충북	40.1	42.5	10.9	6.5	100.0 (221)
충남	38.3	35.6	19.1	7.0	100.0 (336)
전북	26.4	50.0	18.8	4.8	100.0 (305)
전남	37.7	40.9	18.3	3.1	100.0 (318)
경북	41.3	30.0	23.5	5.2	100.0 (485)
경남	30.1	47.2	11.1	11.6	100.0 (468)
제주	32.1	51.0	8.4	8.5	100.0 (88)

주: 1) 전체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6,778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5-5〉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24.8	37.9	14.5	22.8	100.0 (6,778)
서울	19.1	36.5	15.7	28.8	100.0 (1,219)
부산	18.0	38.6	18.7	24.7	100.0 (512)
대구	13.5	52.1	21.9	12.4	100.0 (330)
인천	13.6	38.6	14.7	33.0	100.0 (317)
광주	39.9	33.8	11.0	15.4	100.0 (152)
대전	42.6	24.2	8.1	25.1	100.0 (174)
울산	13.3	44.9	14.5	27.3	100.0 (114)
세종	36.5	40.6	7.6	15.3	100.0 (29)
경기	24.8	35.4	16.1	23.6	100.0 (1,439)
강원	59.7	26.5	6.3	7.5	100.0 (271)
충북	34.9	48.1	8.7	8.3	100.0 (221)
충남	29.9	31.8	9.1	29.2	100.0 (336)
전북	14.9	42.3	19.0	23.8	100.0 (305)
전남	42.9	26.7	13.0	17.4	100.0 (318)
경북	25.2	47.6	18.5	8.6	100.0 (485)
경남	17.9	43.5	7.4	31.2	100.0 (468)
제주	24.1	39.1	6.5	30.3	100.0 (88)

주: 1) 전체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6,778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5-6〉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23.3	39.0	15.5	22.1	100.0 (6,778)
서울	16.6	39.2	17.0	27.2	100.0 (1,219)
부산	18.3	36.8	19.0	25.9	100.0 (512)
대구	12.7	50.9	24.0	12.4	100.0 (330)
인천	12.2	39.3	16.5	32.0	100.0 (317)
광주	30.8	39.7	12.2	17.3	100.0 (152)
대전	41.5	25.1	8.0	25.4	100.0 (174)
울산	12.9	42.1	16.4	28.5	100.0 (114)
세종	38.7	39.6	8.4	13.3	100.0 (29)
경기	24.0	37.1	17.2	21.8	100.0 (1,439)
강원	57.2	28.8	6.5	7.5	100.0 (271)
충북	33.6	47.6	11.4	7.4	100.0 (221)
충남	27.0	34.4	9.3	29.3	100.0 (336)
전북	11.6	46.3	17.9	24.2	100.0 (305)
전남	33.6	32.9	14.9	18.5	100.0 (318)
경북	27.3	44.5	19.3	9.0	100.0 (485)
경남	21.0	40.9	8.9	29.1	100.0 (468)
제주	24.5	39.8	6.0	29.7	100.0 (88)

주: 1) 전체응답자 중 배우자가 있는 6,778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5-7〉 노인의 시·도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26.0	51.9	15.0	7.1	100.0(1,998)
서울	21.3	53.2	21.2	4.2	100.0(448)
부산	21.9	51.0	9.9	17.2	100.0(167)
대구	15.1	71.9	13.1	0.0	100.0(86)
인천	17.8	56.8	14.0	11.3	100.0(158)
광주	60.5	34.2	4.6	0.7	100.0(86)
대전	24.7	52.1	9.0	14.2	100.0(52)
울산	22.3	49.8	18.4	9.5	100.0(30)
세종	33.3	33.3	16.7	16.7	100.0(6) ²⁾
경기	15.3	58.4	22.3	4.0	100.0(420)
강원	54.2	37.1	4.2	4.2	100.0(24)
충북	36.9	43.6	1.7	17.8	100.0(38)
충남	31.2	47.5	8.5	12.9	100.0(84)
전북	30.4	42.0	14.6	13.1	100.0(63)
전남	52.4	41.4	3.6	2.5	100.0(139)
경북	34.0	47.8	11.0	7.1	100.0(66)
경남	33.6	47.0	9.0	10.4	100.0(97)
제주	21.0	50.6	19.1	9.3	100.0(35)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자녀가 있는 1,998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5-8〉 노인의 시·도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6.1	49.2	22.4	12.3	100.0(1,998)
서울	16.1	51.4	26.4	6.1	100.0(448)
부산	22.3	44.9	15.6	17.2	100.0(167)
대구	11.8	64.2	16.7	7.2	100.0(86)
인천	7.5	48.3	24.0	20.2	100.0(158)
광주	19.4	41.8	23.7	15.1	100.0(86)
대전	19.4	46.8	11.2	22.7	100.0(52)
울산	14.1	42.2	19.9	23.7	100.0(30)
세종	28.6	42.9	14.3	14.3	100.0(6) ²⁾
경기	7.2	56.5	28.4	7.9	100.0(420)
강원	35.9	28.6	11.4	24.0	100.0(24)
충북	21.0	40.2	13.7	25.1	100.0(38)
충남	20.4	32.5	21.6	25.5	100.0(84)
전북	5.6	50.7	23.4	20.3	100.0(63)
전남	29.5	49.1	12.3	9.0	100.0(139)
경북	22.9	37.8	32.2	7.1	100.0(66)
경남	29.3	40.0	14.4	16.3	100.0(97)
제주	17.3	56.1	16.2	10.4	100.0(35)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자녀가 있는 1,998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5-9〉 노인의 시·도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30.0	44.3	16.2	9.6	100.0(1,998)
서울	20.8	47.1	21.4	10.8	100.0(448)
부산	24.4	44.7	13.7	17.2	100.0(167)
대구	19.7	62.7	12.2	5.4	100.0(86)
인천	31.2	42.1	11.9	14.8	100.0(158)
광주	55.6	31.3	11.0	2.1	100.0(86)
대전	28.3	50.0	10.1	11.7	100.0(52)
울산	21.3	50.9	15.6	12.3	100.0(30)
세종	33.3	50.0	16.7	0.0	100.0(6) ²⁾
경기	26.3	46.5	18.7	8.6	100.0(420)
강원	50.0	41.7	4.2	4.2	100.0(24)
충북	36.9	47.1	7.1	8.9	100.0(38)
충남	51.0	33.8	11.4	3.9	100.0(84)
전북	34.7	41.6	18.9	4.9	100.0(63)
전남	48.9	35.7	13.6	1.7	100.0(139)
경북	26.9	22.2	30.2	20.7	100.0(66)
경남	35.9	48.4	7.2	8.5	100.0(97)
제주	21.1	55.5	15.9	7.4	100.0(35)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자녀가 있는 1,998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5-10〉 노인의 시·도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25.6	43.3	17.9	13.2	100.0(1,998)
서울	31.8	37.7	19.4	11.1	100.0(448)
부산	31.0	41.5	18.2	9.4	100.0(167)
대구	14.8	54.2	19.9	11.1	100.0(86)
인천	22.5	43.2	13.9	20.5	100.0(158)
광주	23.1	41.8	20.2	14.9	100.0(86)
대전	15.9	53.5	10.6	20.0	100.0(52)
울산	31.4	44.6	7.0	17.1	100.0(30)
세종	33.3	50.0	16.7	0.0	100.0(6) ²⁾
경기	19.2	50.1	19.7	11.1	100.0(420)
강원	21.0	32.9	21.2	24.9	100.0(24)
충북	15.7	54.0	12.1	18.1	100.0(38)
충남	26.6	32.0	23.8	17.6	100.0(84)
전북	24.1	44.3	10.0	21.6	100.0(63)
전남	33.3	39.5	16.8	10.4	100.0(139)
경북	25.9	39.2	24.9	10.0	100.0(66)
경남	29.9	41.1	12.6	16.4	100.0(97)
제주	22.2	54.8	13.6	9.4	100.0(35)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자녀가 있는 1,998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5-11〉 노인의 시·도별 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4.3	35.6	19.3	30.8	100.0(1,998)
서울	8.8	34.7	18.0	38.4	100.0(448)
부산	9.1	33.7	16.8	40.3	100.0(167)
대구	8.8	52.9	19.5	18.8	100.0(86)
인천	16.2	29.5	16.1	38.2	100.0(158)
광주	27.3	31.8	23.1	17.8	100.0(86)
대전	10.5	46.4	10.9	32.2	100.0(52)
울산	15.8	38.9	16.0	29.3	100.0(30)
세종	0.0	33.3	33.3	33.3	100.0(6) ²⁾
경기	13.5	35.1	16.7	34.7	100.0(420)
강원	32.4	49.3	15.4	2.9	100.0(24)
충북	24.7	48.8	15.7	10.9	100.0(38)
충남	25.2	31.6	24.7	18.6	100.0(84)
전북	16.7	30.4	25.5	27.4	100.0(63)
전남	16.5	29.5	36.5	17.4	100.0(139)
경북	23.4	43.4	22.4	10.8	100.0(66)
경남	17.7	36.0	15.6	30.7	100.0(97)
제주	8.6	40.0	17.1	34.3	100.0(35)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자녀가 있는 1,998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5-12〉 노인의 시·도별 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8.5	21.0	21.8	48.7	100.0(1,998)
서울	5.4	12.6	23.5	58.5	100.0(448)
부산	10.0	20.4	21.4	48.2	100.0(167)
대구	7.1	35.6	19.1	38.3	100.0(86)
인천	5.6	20.3	17.6	56.5	100.0(158)
광주	14.7	32.4	20.1	32.8	100.0(86)
대전	9.3	28.0	8.0	54.7	100.0(52)
울산	12.6	35.0	10.4	42.0	100.0(30)
세종	14.3	28.6	14.3	42.9	100.0(6) ²⁾
경기	2.8	17.0	27.8	52.5	100.0(420)
강원	15.3	31.0	23.1	30.6	100.0(24)
충북	15.8	38.1	15.8	30.3	100.0(38)
충남	13.0	18.7	20.5	47.8	100.0(84)
전북	2.8	17.0	25.4	54.7	100.0(63)
전남	21.9	25.6	16.5	36.0	100.0(139)
경북	11.0	27.0	34.9	27.1	100.0(66)
경남	19.0	30.3	10.8	40.0	100.0(97)
제주	4.3	26.4	21.9	47.4	100.0(35)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자녀가 있는 1,998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5-13〉 노인의 시·도별 동거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지역	수혜			제공			계 (명)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전국 ¹⁾	56.2	79.8	80.0	19.5	33.4	41.8	100.0 (1,998)
서울	50.1	79.0	82.3	18.7	40.4	50.1	100.0 (448)
부산	64.2	76.9	76.4	26.6	31.6	40.5	100.0 (167)
대구	42.8	86.7	84.7	18.9	32.9	44.5	100.0 (86)
인천	52.9	79.0	88.3	25.0	31.4	38.4	100.0 (158)
광주	79.3	86.4	88.5	26.0	27.2	35.4	100.0 (86)
대전	38.5	81.0	60.3	11.7	15.1	23.1	100.0 (52)
울산	76.6	80.0	85.3	32.6	37.1	58.7	100.0 (30)
세종	50.0	66.2	66.7	14.3	29.9	16.7	100.0 (6) ²⁾
경기	56.8	80.1	77.3	8.8	35.4	37.4	100.0 (420)
강원	33.6	94.2	91.5	0.0	4.0	33.4	100.0 (24)
충북	59.5	74.8	66.0	10.6	26.2	36.7	100.0 (38)
충남	52.0	72.5	63.2	10.9	10.1	20.9	100.0 (84)
전북	50.2	85.6	89.7	8.3	20.1	44.0	100.0 (63)
전남	67.1	83.6	82.7	34.2	37.6	47.2	100.0 (139)
경북	68.7	84.7	91.5	16.6	25.8	45.9	100.0 (66)
경남	59.8	75.7	75.3	38.8	46.6	46.6	100.0 (97)
제주	46.0	57.9	69.6	41.8	45.7	51.3	100.0 (35)

주: 1) 전체응답자 중 동거자녀가 있는 1,998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5-14〉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8.8	51.7	16.7	12.9	100.0(9,463)
서울	16.8	55.8	19.7	7.7	100.0(1,671)
부산	21.1	47.9	14.1	16.9	100.0(710)
대구	9.5	59.0	23.7	7.9	100.0(457)
인천	14.1	56.1	19.0	10.8	100.0(453)
광주	44.4	45.2	7.1	3.3	100.0(226)
대전	16.7	32.2	12.6	38.6	100.0(238)
울산	9.2	46.1	21.8	22.8	100.0(162)
세종	13.2	51.4	13.4	22.0	100.0(37)
경기	12.9	63.3	18.1	5.7	100.0(1,983)
강원	6.9	35.3	17.5	40.2	100.0(359)
충북	22.3	42.4	12.5	22.9	100.0(319)
충남	20.6	30.3	14.2	34.9	100.0(463)
전북	23.3	52.9	18.2	5.6	100.0(449)
전남	55.5	36.9	5.9	1.8	100.0(484)
경북	21.5	56.4	16.6	5.5	100.0(678)
경남	14.6	45.7	15.0	24.7	100.0(657)
제주	18.4	54.8	14.9	11.9	100.0(119)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463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5-15〉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2.5	43.9	25.3	18.3	100.0(9,463)
서울	13.3	47.9	28.3	10.6	100.0(1,671)
부산	20.1	37.4	20.0	22.5	100.0(710)
대구	7.4	48.9	32.5	11.3	100.0(457)
인천	6.6	41.2	29.3	22.9	100.0(453)
광주	13.2	44.4	32.5	9.9	100.0(226)
대전	10.4	27.8	14.4	47.3	100.0(238)
울산	7.6	33.0	30.7	28.7	100.0(162)
세종	10.1	52.2	13.1	24.6	100.0(37)
경기	10.4	51.6	28.9	9.1	100.0(1,983)
강원	5.4	32.8	19.3	42.5	100.0(359)
충북	15.1	36.6	21.1	27.2	100.0(319)
충남	15.7	25.7	15.7	43.0	100.0(463)
전북	8.4	40.9	28.6	22.1	100.0(449)
전남	16.3	50.9	26.1	6.6	100.0(484)
경북	18.8	48.4	23.4	9.4	100.0(678)
경남	12.3	37.7	17.3	32.8	100.0(657)
제주	16.0	48.6	20.3	15.0	100.0(119)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463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5-16〉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7.9	25.1	29.1	37.9	100.0(9,463)
서울	7.0	27.5	23.3	42.3	100.0(1,671)
부산	7.1	27.1	23.7	42.2	100.0(710)
대구	2.4	28.5	37.0	32.1	100.0(457)
인천	9.0	34.9	24.2	31.9	100.0(453)
광주	24.4	38.1	18.0	19.6	100.0(226)
대전	7.9	17.3	11.0	63.9	100.0(238)
울산	4.0	31.8	26.3	37.9	100.0(162)
세종	2.8	15.9	21.6	59.7	100.0(37)
경기	3.8	21.6	46.1	28.5	100.0(1,983)
강원	1.7	16.0	21.5	60.8	100.0(359)
충북	8.7	22.9	31.9	36.4	100.0(319)
충남	12.2	15.4	17.9	54.4	100.0(463)
전북	10.6	28.9	26.9	33.6	100.0(449)
전남	30.8	30.0	17.9	21.4	100.0(484)
경북	6.2	19.1	44.3	30.4	100.0(678)
경남	5.6	30.4	11.5	52.5	100.0(657)
제주	5.2	16.0	35.1	43.6	100.0(119)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463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5-17〉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3.8	15.8	31.2	49.1	100.0(9,463)
서울	3.7	20.4	25.8	50.1	100.0(1,671)
부산	5.5	15.7	28.0	50.8	100.0(710)
대구	2.1	14.6	34.6	48.8	100.0(457)
인천	4.9	14.5	26.6	54.1	100.0(453)
광주	12.6	24.6	27.3	35.5	100.0(226)
대전	2.5	9.3	14.8	73.5	100.0(238)
울산	2.4	15.3	33.5	48.7	100.0(162)
세종	1.9	4.4	18.0	75.7	100.0(37)
경기	1.5	13.9	45.5	39.0	100.0(1,983)
강원	1.4	14.0	20.7	63.9	100.0(359)
충북	1.3	12.8	41.4	44.6	100.0(319)
충남	5.2	11.3	17.1	66.5	100.0(463)
전북	3.2	9.7	27.0	60.1	100.0(449)
전남	15.8	27.2	21.6	35.3	100.0(484)
경북	1.9	14.3	46.9	36.9	100.0(678)
경남	3.3	16.6	17.5	62.7	100.0(657)
제주	4.4	6.8	34.0	54.7	100.0(119)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463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5-18〉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8.2	23.1	24.6	44.1	100.0(9,463)
서울	7.7	21.6	23.0	47.7	100.0(1,671)
부산	5.9	23.0	23.0	48.1	100.0(710)
대구	3.6	24.5	31.4	40.5	100.0(457)
인천	8.3	25.2	18.1	48.4	100.0(453)
광주	25.0	32.1	15.5	27.4	100.0(226)
대전	7.8	17.6	9.6	65.0	100.0(238)
울산	3.2	29.3	23.9	43.6	100.0(162)
세종	4.4	17.6	17.7	60.3	100.0(37)
경기	3.3	20.3	37.1	39.3	100.0(1,983)
강원	4.4	17.0	17.9	60.8	100.0(359)
충북	10.3	36.9	22.3	30.5	100.0(319)
충남	13.4	25.0	14.4	47.2	100.0(463)
전북	11.1	14.8	19.4	54.8	100.0(449)
전남	29.4	26.5	14.4	29.7	100.0(484)
경북	9.4	28.2	35.8	26.6	100.0(678)
경남	4.9	24.0	14.7	56.4	100.0(657)
제주	8.4	19.3	16.1	56.1	100.0(119)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463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5-19〉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5	7.9	34.8	55.9	100.0(9,463)
서울	1.2	10.2	30.8	57.8	100.0(1,671)
부산	0.8	8.3	32.7	58.2	100.0(710)
대구	0.7	9.9	33.4	56.0	100.0(457)
인천	2.1	5.3	32.3	60.3	100.0(453)
광주	7.0	13.7	39.3	40.1	100.0(226)
대전	0.7	4.3	16.4	78.6	100.0(238)
울산	0.8	7.3	40.9	51.0	100.0(162)
세종	0.0	1.1	19.4	79.5	100.0(37)
경기	0.6	6.7	43.6	49.2	100.0(1,983)
강원	1.2	8.1	27.5	63.2	100.0(359)
충북	0.2	7.1	44.8	47.9	100.0(319)
충남	2.9	7.1	19.6	70.4	100.0(463)
전북	0.8	3.4	25.9	69.9	100.0(449)
전남	8.6	11.9	34.3	45.2	100.0(484)
경북	0.2	9.4	53.2	37.3	100.0(678)
경남	0.6	5.5	26.7	67.1	100.0(657)
제주	3.0	2.8	26.5	67.7	100.0(119)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463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5-20〉 노인의 시·도별 비동거 자녀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지역	수혜			제공			계(명)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전국 ¹⁾	46.0	85.6	77.9	12.5	29.1	42.4	100.0(9,463)
서울	52.6	83.5	76.6	22.2	45.4	49.7	100.0(1,671)
부산	39.7	84.3	74.9	12.6	28.0	35.2	100.0(710)
대구	34.3	85.8	82.2	7.2	20.3	31.7	100.0(457)
인천	43.8	91.4	90.6	12.7	30.5	44.7	100.0(453)
광주	69.1	90.0	83.0	26.7	31.9	37.5	100.0(226)
대전	29.1	77.4	62.1	5.0	14.0	24.5	100.0(238)
울산	32.7	79.6	79.1	10.5	25.2	42.5	100.0(162)
세종	36.8	80.5	74.3	6.8	38.0	35.1	100.0(37)
경기	35.5	83.5	69.9	9.5	34.7	40.3	100.0(1,983)
강원	43.2	87.0	79.4	1.3	2.0	28.0	100.0(359)
충북	59.1	90.7	77.1	3.9	20.8	45.4	100.0(319)
충남	41.4	80.8	59.7	3.7	11.2	27.4	100.0(463)
전북	42.4	95.3	95.1	6.6	23.4	67.2	100.0(449)
전남	70.4	86.6	86.9	27.1	34.8	45.7	100.0(484)
경북	65.7	90.0	84.4	4.1	10.2	40.8	100.0(678)
경남	41.6	89.1	87.7	15.0	29.0	47.6	100.0(657)
제주	43.0	69.9	82.8	28.7	50.0	66.6	100.0(119)

주: 1) 전체응답자 중 비동거 자녀가 있는 9,463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5-21〉 노인의 시·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4	21.2	42.3	35.0	100.0(519)
서울	1.6	29.3	38.5	30.5	100.0(108)
부산	1.1	5.4	59.6	33.9	100.0(75)
대구	0.0	40.7	34.2	25.1	100.0(14)
인천	0.0	9.2	45.0	45.8	100.0(36)
광주	7.6	5.9	48.1	38.5	100.0(15)
대전	0.0	0.0	40.7	59.3	100.0(8) ²⁾
울산	0.0	20.0	50.0	30.0	100.0(10) ²⁾
세종	0.0	0.0	0.0	100.0	100.0(1) ²⁾
경기	0.0	23.1	50.4	26.6	100.0(103)
강원	0.0	36.4	18.2	45.5	100.0(11)
충북	0.0	27.3	27.3	45.5	100.0(11)
충남	9.2	26.3	32.1	32.4	100.0(11)
전북	0.0	39.6	30.8	29.5	100.0(39)
전남	14.5	0.0	39.0	46.5	100.0(14)
경북	0.0	22.4	23.4	54.2	100.0(16)
경남	0.0	22.9	30.3	46.8	100.0(38)
제주	0.0	20.0	40.0	40.0	100.0(10) ²⁾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519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5-22〉 노인의 시·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정서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7.6	30.2	33.2	29.0	100.0(519)
서울	10.7	35.5	29.5	24.3	100.0(108)
부산	5.8	10.4	40.3	43.5	100.0(75)
대구	14.3	42.9	21.4	21.4	100.0(14)
인천	0.0	23.5	30.8	45.6	100.0(36)
광주	5.6	15.6	63.2	15.6	100.0(15)
대전	12.5	12.5	25.0	50.0	100.0(8) ²⁾
울산	0.0	20.0	40.0	30.0	100.0(10) ²⁾
세종	0.0	0.0	0.0	100.0	100.0(1) ²⁾
경기	8.1	37.4	32.7	21.8	100.0(103)
강원	0.0	50.9	8.9	40.3	100.0(11)
충북	24.1	37.1	6.2	32.6	100.0(11)
충남	9.2	34.6	33.0	23.2	100.0(11)
전북	0.0	39.1	36.5	24.4	100.0(39)
전남	4.8	22.4	55.0	17.7	100.0(14)
경북	18.8	37.5	37.5	6.3	100.0(16)
경남	6.7	29.1	26.5	37.6	100.0(38)
제주	10.0	30.0	30.0	30.0	100.0(10) ²⁾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519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5-23〉 노인의 시·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9	9.8	25.4	62.9	100.0(519)
서울	2.9	13.6	19.9	63.6	100.0(108)
부산	1.4	3.1	32.0	63.5	100.0(75)
대구	6.9	27.3	34.3	31.5	100.0(14)
인천	2.3	5.1	9.4	83.1	100.0(36)
광주	0.0	7.6	22.9	69.5	100.0(15)
대전	0.0	0.0	19.0	81.0	100.0(8) ²⁾
울산	10.0	10.0	20.0	60.0	100.0(10) ²⁾
세종	0.0	0.0	0.0	100.0	100.0(1) ²⁾
경기	0.0	11.0	38.4	50.7	100.0(103)
강원	8.5	34.6	0.0	56.9	100.0(11)
충북	0.0	10.0	10.0	80.0	100.0(11)
충남	0.0	16.2	36.0	47.8	100.0(11)
전북	0.0	8.6	24.9	66.5	100.0(39)
전남	7.1	0.0	35.7	57.1	100.0(14)
경북	6.7	6.7	20.0	66.7	100.0(16)
경남	0.0	5.3	18.4	76.3	100.0(38)
제주	0.0	0.0	11.1	88.9	100.0(10) ²⁾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519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5-24〉 노인의 시·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도구적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9.1	20.2	32.9	37.8	100.0(519)
서울	6.9	22.9	33.9	36.4	100.0(108)
부산	6.6	11.0	33.9	48.5	100.0(75)
대구	20.3	27.7	31.6	20.3	100.0(14)
인천	4.5	23.9	32.5	39.2	100.0(36)
광주	1.8	7.6	42.3	48.3	100.0(15)
대전	37.5	12.5	25.0	25.0	100.0(8) ²⁾
울산	0.0	20.0	30.0	50.0	100.0(10) ²⁾
세종	0.0	0.0	0.0	100.0	100.0(1) ²⁾
경기	6.5	23.8	46.0	23.8	100.0(103)
강원	16.6	26.5	0.0	56.9	100.0(11)
충북	35.8	37.8	0.0	26.4	100.0(11)
충남	19.5	43.0	9.3	28.2	100.0(11)
전북	3.1	21.6	26.6	48.7	100.0(39)
전남	7.1	0.0	35.6	57.1	100.0(14)
경북	11.9	18.8	32.8	36.5	100.0(16)
경남	12.8	17.9	33.3	35.9	100.0(38)
제주	10.0	20.0	30.0	40.0	100.0(10) ²⁾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519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5-25〉 노인의 시·도별 부모로부터 받은 돌봄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0.0	0.0	29.4	70.6	100.0(519)
서울	0.0	0.0	31.5	68.5	100.0(108)
부산	0.0	0.0	25.2	74.8	100.0(75)
대구	0.0	0.0	27.2	72.8	100.0(14)
인천	0.0	0.0	10.1	89.9	100.0(36)
광주	0.0	0.0	33.3	66.7	100.0(15)
대전	0.0	0.0	12.8	87.2	100.0(8) ²⁾
울산	0.0	0.0	50.0	50.0	100.0(10) ²⁾
세종	0.0	0.0	0.0	100.0	100.0(1) ²⁾
경기	0.0	0.0	42.4	57.6	100.0(103)
강원	0.0	0.0	34.1	65.9	100.0(11)
충북	0.0	0.0	24.1	75.9	100.0(11)
충남	0.0	0.0	32.6	67.4	100.0(11)
전북	0.0	0.0	30.5	69.5	100.0(39)
전남	0.0	0.0	23.4	76.6	100.0(14)
경북	0.0	0.0	30.3	69.7	100.0(16)
경남	0.0	0.0	14.6	85.4	100.0(38)
제주	0.0	0.0	19.1	80.9	100.0(10) ²⁾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519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5-26〉 노인의 시·도별 부모에게 제공한 돌봄 지원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8.1	32.0	16.0	33.9	100.0(519)
서울	17.3	37.5	13.0	32.1	100.0(108)
부산	10.5	28.3	17.4	43.9	100.0(75)
대구	20.8	33.7	11.2	34.3	100.0(14)
인천	4.8	47.5	10.7	37.0	100.0(36)
광주	39.5	26.3	25.7	8.5	100.0(15)
대전	28.6	0.0	14.3	57.1	100.0(8) ²⁾
울산	10.0	30.0	40.0	20.0	100.0(10) ²⁾
세종	100.0	0.0	0.0	0.0	100.0(1) ²⁾
경기	14.6	27.3	25.0	33.1	100.0(103)
강원	17.0	40.4	26.0	16.6	100.0(11)
충북	36.4	45.5	0.0	18.2	100.0(11)
충남	33.3	41.7	8.3	16.7	100.0(11)
전북	6.7	19.7	16.7	56.9	100.0(39)
전남	50.0	35.7	7.1	7.1	100.0(14)
경북	52.0	42.1	0.0	6.0	100.0(16)
경남	22.0	29.4	7.9	40.7	100.0(38)
제주	22.2	22.2	11.1	44.4	100.0(10) ²⁾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519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5-27〉 노인의 시·도별 부모와의 경제적 부양의 교환 실태

(단위: %, 명)

지역	수혜			제공			계 (명)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정기 현금지원	비정기 현금지원	현물지원	
전국 ¹⁾	7.5	11.2	13.4	52.8	65.2	61.7	100.0(519)
서울	10.7	16.0	14.5	59.9	68.8	67.9	100.0(108)
부산	4.6	7.3	8.2	62.5	70.2	45.3	100.0(75)
대구	20.4	27.3	27.3	50.0	61.0	54.0	100.0(14)
인천	5.3	11.6	11.3	55.2	74.3	73.8	100.0(36)
광주	6.7	6.7	6.7	60.2	58.2	52.3	100.0(15)
대전	0.0	0.0	0.0	28.6	50.4	58.6	100.0(8) ²⁾
울산	0.0	10.0	19.7	50.0	51.9	59.4	100.0(10) ²⁾
세종	0.0	0.0	0.0	100.0	100.0	100.0	100.0(1) ²⁾
경기	11.0	9.5	12.7	52.3	66.5	66.1	100.0(103)
강원	0.0	8.5	8.5	18.2	40.5	41.3	100.0(11)
충북	9.1	11.8	9.1	27.3	27.3	45.5	100.0(11)
충남	0.0	26.5	7.3	46.1	34.0	45.3	100.0(11)
전북	5.2	13.5	35.2	31.8	79.8	74.4	100.0(39)
전남	0.0	7.1	7.1	60.5	60.5	65.3	100.0(14)
경북	6.3	13.3	13.3	49.4	62.5	58.1	100.0(16)
경남	6.3	4.6	12.5	63.3	65.8	70.0	100.0(38)
제주	0.0	0.0	0.0	22.2	40.0	40.4	100.0(10) ²⁾

주: 1) 전체응답자 중 부모가 있다고 응답한 519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5-28〉 노인의 시·도별 생활비 지불방식

(단위: %, 명)

지역	지불상황 없었음	지불상황 있었음						계(명)
		대부분 본인 (배우자)부담	본인 (배우자)부담, 자녀일부보조	대부분 자녀 일정부담	대부분 자녀 전액부담	친인척 대부분 부담	사회 복지기관 부담	
전국 ¹⁾	0.0	65.0	17.1	10.1	7.0	0.1	0.7	100.0(10,097)
서울	0.0	58.4	22.9	10.3	7.6	0.1	0.7	100.0(1,820)
부산	0.0	69.1	16.4	8.3	4.4	0.0	1.7	100.0(784)
대구	0.0	76.5	8.1	10.5	3.8	0.0	1.0	100.0(486)
인천	0.0	55.2	17.8	14.3	11.8	0.2	0.7	100.0(487)
광주	0.0	58.4	18.7	11.2	10.9	0.0	0.7	100.0(255)
대전	0.0	62.1	15.3	11.5	8.0	0.0	3.0	100.0(256)
울산	0.0	77.9	9.7	8.6	3.8	0.0	0.0	100.0(168)
세종	0.0	76.6	12.1	6.3	5.0	0.0	0.0	100.0(39)
경기	0.0	68.6	13.2	10.6	7.0	0.0	0.6	100.0(2,090)
강원	0.0	64.9	18.9	10.7	5.0	0.0	0.5	100.0(380)
충북	0.0	40.3	34.0	16.7	8.9	0.2	0.0	100.0(346)
충남	0.0	47.1	29.3	12.4	10.5	0.0	0.7	100.0(487)
전북	0.0	76.1	8.0	11.9	4.0	0.0	0.1	100.0(468)
전남	0.0	54.6	19.2	10.2	16.0	0.0	0.0	100.0(520)
경북	0.0	79.6	10.8	6.1	2.8	0.2	0.4	100.0(694)
경남	0.0	73.4	16.4	5.6	4.2	0.2	0.2	100.0(692)
제주	0.0	83.4	7.0	4.0	4.7	0.0	1.0	100.0(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5-29〉 노인의 시·도별 의료비 지불방식

(단위: %, 명)

지역	지불상황 없었음	지불상황 있었음						계(명)
		대부분 본인 (배우자)부담	본인 (배우자)부담, 자녀일부보조	대부분 자녀 일정부담	대부분 자녀 전액부담	친인척 대부분 부담	사회 복지기관 부담	
전국 ¹⁾	2.1	59.0	20.7	10.7	6.5	0.0	0.9	100.0(10,097)
서울	2.8	55.0	23.8	11.5	5.4	0.0	1.5	100.0(1,820)
부산	2.4	64.2	19.3	8.1	4.3	0.0	1.8	100.0(784)
대구	1.3	76.3	8.3	7.4	5.5	0.0	1.2	100.0(486)
인천	1.1	58.2	19.1	13.0	8.2	0.0	0.5	100.0(487)
광주	3.3	53.4	22.3	10.6	9.7	0.0	0.7	100.0(255)
대전	4.1	53.3	17.1	14.5	7.8	0.0	3.0	100.0(256)
울산	1.5	73.5	15.0	6.9	3.1	0.0	0.0	100.0(168)
세종	1.2	66.4	22.5	5.9	3.8	0.0	0.0	100.0(39)
경기	1.2	62.7	19.4	9.2	6.8	0.0	0.6	100.0(2,090)
강원	0.4	64.7	18.1	11.3	5.0	0.0	0.5	100.0(380)
충북	2.4	29.1	40.8	16.7	11.1	0.0	0.0	100.0(346)
충남	2.6	40.9	31.9	13.0	10.0	0.0	1.6	100.0(487)
전북	0.6	65.7	12.8	17.4	3.3	0.0	0.2	100.0(468)
전남	3.0	47.6	23.3	9.8	16.0	0.0	0.2	100.0(520)
경북	3.8	57.0	20.6	13.9	4.2	0.1	0.4	100.0(694)
경남	1.8	67.9	19.7	6.6	3.3	0.2	0.6	100.0(692)
제주	3.0	83.8	5.7	2.4	4.6	0.0	0.5	100.0(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5-30〉 노인의 시·도별 간병비 지불방식

(단위: %, 명)

지역	지불상황 없었음	지불상황 있었음							계(명)
		대부분 본인 (배우자)부 담	본인 (배우자)부담, 자녀일부보 조	대부분 자녀 일정부담	대부분 자녀 전액부담	친인척 대부분 부담	사회 복지기관 부담	기타	
전국 ¹⁾	93.9	1.7	0.8	0.7	2.3	0.0	0.6	0.0	100.0(10,097)
서울	94.8	2.4	1.0	0.0	0.9	0.0	0.9	0.0	100.0(1,820)
부산	93.8	3.4	0.3	1.3	0.6	0.0	0.7	0.0	100.0(784)
대구	95.1	2.6	0.3	0.1	0.9	0.0	1.0	0.0	100.0(486)
인천	94.2	0.9	0.3	0.5	3.5	0.0	0.5	0.0	100.0(487)
광주	92.7	2.9	0.0	1.9	2.6	0.0	0.0	0.0	100.0(255)
대전	92.9	1.4	0.2	0.7	2.9	0.0	2.0	0.0	100.0(256)
울산	95.9	1.7	0.9	1.3	0.2	0.0	0.0	0.0	100.0(168)
세종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39)
경기	94.3	1.5	1.1	0.8	1.9	0.0	0.5	0.0	100.0(2,090)
강원	97.2	0.7	0.2	0.1	1.3	0.0	0.5	0.0	100.0(380)
충북	87.6	0.4	0.6	2.6	8.8	0.0	0.0	0.0	100.0(346)
충남	96.1	0.2	0.4	0.1	1.9	0.0	1.3	0.0	100.0(487)
전북	95.5	1.2	0.8	0.6	1.5	0.0	0.3	0.0	100.0(468)
전남	92.2	1.1	1.6	0.8	4.4	0.0	0.0	0.0	100.0(520)
경북	91.2	0.6	0.1	1.5	6.2	0.0	0.3	0.0	100.0(694)
경남	92.3	2.0	1.9	0.9	2.7	0.0	0.2	0.0	100.0(692)
제주	97.9	0.7	0.0	0.1	1.0	0.0	0.1	0.3	100.0(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5-31〉 노인의 시·도별 손자녀 돌봄 여부 및 돌본 손자녀 수

(단위: %, 명)

지역	손자녀 돌봄수급률	돌봄 손자녀 수			평균 돌봄 손자녀 수	계(명)
		1명	2명	3명 이상		
전국 ¹⁾	9.0	35.4	35.4	29.2	2.3	100.0(911)
서울	11.1	31.8	38.6	29.5	2.3	100.0(202)
부산	9.4	22.4	35.9	41.8	2.7	100.0(73)
대구	6.5	28.8	42.9	28.3	2.3	100.0(32)
인천	16.6	37.6	30.6	31.8	2.1	100.0(81)
광주	11.5	17.5	32.6	49.9	2.7	100.0(29)
대전	1.3	25.0	25.0	50.0	3.1	100.0(3) ²⁾
울산	7.3	38.6	38.4	23.0	2.3	100.0(12)
세종	4.1	50.0	50.0	0.0	1.4	100.0(2) ²⁾
경기	13.4	43.6	35.3	21.1	2.1	100.0(280)
강원	0.4	50.0	50.0	0.0	1.4	100.0(2) ²⁾
충북	4.1	56.7	14.5	28.8	2.3	100.0(14)
충남	3.8	47.4	31.7	20.9	2.2	100.0(18)
전북	6.6	33.2	42.3	24.6	2.5	100.0(31)
전남	4.0	36.8	19.7	43.5	2.6	100.0(21)
경북	5.3	33.0	31.5	35.5	2.7	100.0(37)
경남	8.7	24.4	39.6	35.9	2.6	100.0(60)
제주	10.4	46.2	30.8	23.1	2.2	100.0(13)

주: 1) 전체응답자 10,097명 중 손자녀를 돌본적이 있다고 응답한 9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5-32〉 노인의 시·도별 노후 자녀와의 동거 희망률·희망자녀

(단위: %, 명)

지역	자녀동거 희망률 ¹⁾	노후 동거 희망 자녀 ²⁾						계 (명)
		장남	아들	장녀	딸	형편이 되는 자녀	마음이 맞는 자녀	
전국	12.8	32.1	10.3	3.3	0.8	29.9	23.5	100.0 (1,270)
서울	17.0	27.0	9.8	4.4	0.5	26.6	31.6	100.0 (306)
부산	14.5	37.7	15.5	5.2	0.0	29.6	11.9	100.0 (113)
대구	5.3	44.9	11.4	0.0	0.0	27.0	16.7	100.0 (25)
인천	11.9	26.2	3.5	3.2	0.0	41.4	25.7	100.0 (55)
광주	13.9	22.2	16.8	0.0	0.0	49.4	11.6	100.0 (34)
대전	10.1	30.8	11.5	3.8	3.8	26.3	23.1	100.0 (25)
울산	15.0	12.1	30.6	1.3	0.0	30.5	25.5	100.0 (25)
세종	7.8	50.0	0.0	0.0	0.0	0.0	50.0	100.0 (3) ³⁾
경기	12.5	39.6	9.1	6.4	0.7	23.5	20.7	100.0 (259)
강원	9.4	26.4	2.8	0.0	0.0	36.1	34.8	100.0 (35)
충북	13.5	24.5	10.2	1.4	4.4	39.5	19.9	100.0 (46)
충남	13.0	42.3	10.0	1.1	1.7	13.6	31.2	100.0 (62)
전북	14.4	29.2	17.5	0.0	3.7	36.3	13.3	100.0 (66)
전남	13.4	36.7	0.8	1.0	0.0	50.9	10.6	100.0 (69)
경북	5.1	26.8	2.5	0.0	0.0	18.5	52.2	100.0 (35)
경남	12.9	27.8	11.7	0.0	1.2	32.1	27.2	100.0 (90)
제주	19.5	37.3	16.1	1.9	0.0	43.0	1.7	100.0 (2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 9,930명 중 동거희망자 1,270명을 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I-5-33〉 노인의 시·도별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

(단위: %, 명)

지역	본인 스스로	자녀	사회보장 제도	본인과 자녀	본인과 사회보장제도	기타	계 (명)
전국 ¹⁾	40.6	4.7	22.3	5.3	27.0	0.0	100.0 (9,930)
서울	42.2	6.3	14.8	7.2	29.6	0.0	100.0 (1,805)
부산	35.9	4.0	32.2	6.7	21.2	0.0	100.0 (783)
대구	50.2	1.6	14.2	5.6	28.4	0.0	100.0 (472)
인천	28.0	0.6	24.2	4.0	43.0	0.2	100.0 (465)
광주	61.4	13.7	8.9	2.9	12.7	0.4	100.0 (242)
대전	35.0	2.1	31.8	6.7	24.4	0.0	100.0 (246)
울산	33.4	3.2	35.8	3.1	24.5	0.0	100.0 (168)
세종	39.7	2.6	19.2	4.2	34.3	0.0	100.0 (38)
경기	42.1	4.3	24.5	3.9	25.2	0.0	100.0 (2,068)
강원	22.2	2.5	44.7	6.1	24.5	0.0	100.0 (376)
충북	26.5	2.2	32.4	7.0	32.0	0.0	100.0 (337)
충남	62.1	2.7	14.2	6.0	15.1	0.0	100.0 (473)
전북	41.7	3.7	11.2	2.9	40.4	0.0	100.0 (459)
전남	51.5	21.2	12.6	3.9	10.8	0.0	100.0 (511)
경북	39.8	0.9	20.6	8.6	29.9	0.2	100.0 (676)
경남	24.6	2.1	35.0	2.6	35.7	0.0	100.0 (692)
제주	69.5	1.6	3.7	5.6	19.6	0.0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I-6-1〉 노인의 시·도별 평소의 건강상태

(단위: %, 명)

지역	매우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	그저 그렇다	건강이 나쁜 편이다	건강이 매우 나쁘다	계 (명)
전국 ¹⁾	4.5	44.8	30.8	17.6	2.3	100.0 (9,930)
서울	5.2	47.5	25.7	18.8	2.8	100.0 (1,805)
부산	2.3	43.9	31.0	19.9	2.9	100.0 (783)
대구	6.7	51.0	31.7	9.7	0.9	100.0 (472)
인천	4.0	45.6	26.3	21.3	2.9	100.0 (465)
광주	2.2	52.0	36.0	9.6	0.2	100.0 (242)
대전	5.1	46.6	34.7	13.1	0.5	100.0 (246)
울산	3.6	50.2	29.2	15.4	1.6	100.0 (168)
세종	7.9	52.6	31.6	7.9	0.0	100.0 (38)
경기	5.8	42.3	31.3	17.7	3.0	100.0 (2,068)
강원	0.6	44.9	44.0	10.1	0.4	100.0 (376)
충북	4.8	45.1	32.8	16.4	0.9	100.0 (337)
충남	5.3	41.0	33.4	19.1	1.1	100.0 (473)
전북	5.7	47.1	25.1	18.1	4.0	100.0 (459)
전남	1.7	46.7	34.4	16.8	0.4	100.0 (511)
경북	5.0	43.4	30.6	19.0	2.0	100.0 (676)
경남	3.4	38.5	34.8	21.0	2.3	100.0 (692)
제주	5.3	40.3	21.2	26.4	6.8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6-2〉 노인의 시·도별 만성질병(의사진단 기준) 수

(단위: %, 명, 개)

지역	의사진단 만성질병				계 (명)	평균(개)
	없음	1개	2개	3개 이상		
전국 ¹⁾	16.0	29.2	27.1	27.8	100.0 (10,097)	1.9
서울	12.3	28.3	27.8	31.7	100.0 (1,820)	2.2
부산	18.5	32.0	24.5	24.9	100.0 (784)	1.8
대구	17.0	27.1	25.7	30.2	100.0 (486)	1.9
인천	19.6	28.9	24.8	26.7	100.0 (487)	1.8
광주	14.8	32.3	31.4	21.5	100.0 (255)	1.7
대전	22.6	30.9	26.9	19.6	100.0 (256)	1.6
울산	20.1	34.6	27.8	17.5	100.0 (168)	1.5
세종	17.9	33.3	33.3	15.4	100.0 (39)	1.5
경기	12.5	29.1	26.1	32.3	100.0 (2,090)	2.1
강원	18.1	30.4	30.1	21.5	100.0 (380)	1.7
충북	19.9	33.4	28.3	18.4	100.0 (346)	1.5
충남	18.9	28.8	31.4	20.9	100.0 (487)	1.7
전북	9.8	21.5	29.6	39.1	100.0 (468)	2.3
전남	14.1	36.0	29.5	20.4	100.0 (520)	1.7
경북	24.6	30.1	25.8	19.5	100.0 (694)	1.5
경남	19.1	23.6	24.6	32.7	100.0 (692)	1.9
제주	13.8	26.4	22.7	37.2	100.0 (126)	2.1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6-4〉 노인의 시·도별 우울증상

(단위: %, 명)

지역	정상	우울증상	계 (명)	평균(점)
전국 ¹⁾	86.5	13.5	100.0 (9,930)	3.5
서울	88.1	11.9	100.0 (1,805)	3.4
부산	85.3	14.7	100.0 (783)	3.4
대구	90.7	9.3	100.0 (472)	2.6
인천	84.9	15.1	100.0 (465)	3.9
광주	79.6	20.4	100.0 (242)	4.2
대전	89.4	10.6	100.0 (246)	3.1
울산	91.8	8.2	100.0 (168)	2.8
세종	97.4	2.6	100.0 (38)	1.5
경기	80.9	19.1	100.0 (2,068)	4.3
강원	87.1	12.9	100.0 (376)	2.6
충북	90.6	9.4	100.0 (337)	3.2
충남	93.7	6.3	100.0 (473)	2.8
전북	90.9	9.1	100.0 (459)	2.6
전남	76.3	23.7	100.0 (511)	4.5
경북	94.4	5.6	100.0 (676)	3.1
경남	87.3	12.7	100.0 (692)	3.2
제주	89.1	10.9	100.0 (119)	2.4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단축형 노인우울척도(SGDS)를 사용하였으며, 0~15점 중에서 8~15점을 우울증상으로 분류함.

〈부표 Ⅲ-6-5〉 노인의 시·도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는 의사처방약 수

(단위: %, 명, 개)

지역	없음	1~2개	3~4개	5개 이상	계 (명)	평균(개)
전국 ¹⁾	17.8	56.4	21.4	4.3	100.0 (10,097)	1.8
서울	14.5	58.8	21.0	5.7	100.0 (1,820)	1.9
부산	19.6	57.1	19.5	3.9	100.0 (784)	1.7
대구	19.2	52.6	24.0	4.2	100.0 (486)	1.8
인천	21.2	53.0	21.6	4.1	100.0 (487)	1.7
광주	15.7	63.7	18.2	2.4	100.0 (255)	1.7
대전	23.2	56.9	15.0	4.9	100.0 (256)	1.6
울산	25.2	58.8	13.6	2.5	100.0 (168)	1.4
세종	17.6	66.7	15.7	0.0	100.0 (39)	1.5
경기	14.7	56.5	24.7	4.2	100.0 (2,090)	1.9
강원	18.1	55.7	17.8	8.4	100.0 (380)	2.1
충북	21.1	59.5	14.5	4.8	100.0 (346)	1.7
충남	19.4	58.1	18.9	3.6	100.0 (487)	1.8
전북	12.6	52.2	29.7	5.5	100.0 (468)	2.1
전남	14.1	65.8	18.5	1.6	100.0 (520)	1.6
경북	26.0	55.2	16.5	2.3	100.0 (694)	1.5
경남	23.5	46.0	26.4	4.1	100.0 (692)	1.8
제주	16.1	47.2	31.0	5.8	100.0 (126)	2.0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6-6〉 노인의 시·도별 지난 1개월간 보건의료기관 방문 횟수

(단위: %, 명, 회)

지역	없음	외래 경험 횟수				계 (명)	평균(회)
		1회	2~3회	4~5회	6회 이상		
전국 ¹⁾	29.4	38.0	23.6	5.0	4.0	100.0 (10,097)	1.5
서울	29.4	33.4	24.8	4.8	7.7	100.0 (1,820)	1.9
부산	33.7	38.6	19.5	5.1	3.2	100.0 (784)	1.4
대구	26.8	34.1	28.3	6.2	4.5	100.0 (486)	1.8
인천	35.1	42.1	15.8	3.7	3.3	100.0 (487)	1.3
광주	32.5	30.7	32.3	4.3	0.0	100.0 (255)	1.2
대전	42.6	38.8	14.9	3.1	0.4	100.0 (256)	0.9
울산	38.1	43.8	12.4	2.4	3.6	100.0 (168)	1.2
세종	41.0	30.0	22.5	5.0	2.5	100.0 (39)	1.1
경기	19.2	42.2	28.4	6.6	3.6	100.0 (2,090)	1.6
강원	40.5	23.7	33.2	2.1	0.5	100.0 (380)	1.1
충북	35.8	33.1	23.6	5.2	2.3	100.0 (346)	1.4
충남	32.8	48.0	18.0	0.6	0.6	100.0 (487)	1.0
전북	20.1	44.4	20.3	8.5	6.6	100.0 (468)	2.0
전남	28.5	41.3	26.7	1.7	1.7	100.0 (520)	1.3
경북	34.6	38.7	20.2	4.8	1.7	100.0 (694)	1.2
경남	34.4	33.4	19.5	7.7	5.1	100.0 (692)	1.6
제주	27.0	36.0	15.2	5.6	16.0	100.0 (126)	3.1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보건의료기관은 병원, 의원, 보건(지·진료)소, 한의원, 치과를 포함함.

〈부표 Ⅲ-6-7〉 노인의 시·도별 지난 1년간 요양병원 입원 횟수

(단위: %, 명, 회)

지역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계 (명)
전국 ¹⁾	99.6	0.3	0.0	0.1	100.0 (10,097)
서울	99.3	0.3	0.0	0.4	100.0 (1,820)
부산	99.9	0.1	0.0	0.0	100.0 (784)
대구	99.9	0.1	0.0	0.0	100.0 (486)
인천	99.8	0.2	0.0	0.0	100.0 (487)
광주	100.0	0.0	0.0	0.0	100.0 (255)
대전	99.8	0.2	0.0	0.0	100.0 (256)
울산	100.0	0.0	0.0	0.0	100.0 (168)
세종	100.0	0.0	0.0	0.0	100.0 (39)
경기	99.3	0.6	0.0	0.0	100.0 (2,090)
강원	99.6	0.4	0.0	0.0	100.0 (380)
충북	99.4	0.4	0.2	0.0	100.0 (346)
충남	100.0	0.0	0.0	0.0	100.0 (487)
전북	99.7	0.3	0.0	0.0	100.0 (468)
전남	99.7	0.3	0.0	0.0	100.0 (520)
경북	99.7	0.2	0.1	0.0	100.0 (694)
경남	99.7	0.3	0.0	0.0	100.0 (692)
제주	99.7	0.3	0.0	0.0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6-9〉 노인의 시·도별 지난 1년간 그 외 병의원 입원 경험 여부 및 유경험자 입원 횟수

(단위: %, 명, 회)

지역	없음	1회	2회	3회 이상	계 (명)
전국 ¹⁾	92.9	4.8	1.0	1.3	100.0 (10,097)
서울	93.1	4.2	1.7	1.0	100.0 (1,820)
부산	95.3	3.7	0.9	0.1	100.0 (784)
대구	94.9	3.1	0.2	1.9	100.0 (486)
인천	89.5	8.8	0.6	1.0	100.0 (487)
광주	93.7	2.4	0.4	3.5	100.0 (255)
대전	96.5	2.3	0.8	0.4	100.0 (256)
울산	94.6	4.2	0.6	0.6	100.0 (168)
세종	97.4	2.6	0.0	0.0	100.0 (39)
경기	91.0	7.1	1.4	0.5	100.0 (2,090)
강원	97.9	2.1	0.0	0.0	100.0 (380)
충북	96.8	2.6	0.3	0.3	100.0 (346)
충남	97.1	2.5	0.4	0.0	100.0 (487)
전북	81.8	12.2	1.5	4.5	100.0 (468)
전남	90.4	2.1	0.0	7.5	100.0 (520)
경북	96.0	2.6	0.4	1.0	100.0 (694)
경남	93.8	3.8	1.6	0.9	100.0 (692)
제주	88.9	7.9	2.4	0.8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 10,0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부표 Ⅲ-6-11〉 노인의 시·도별 흡연상태

(단위: %, 명)

지역	비흡연	현재 흡연	계 (명)
전국 ¹⁾	88.1	11.9	100.0 (10,097)
서울	87.9	12.1	100.0 (1,820)
부산	88.2	11.8	100.0 (784)
대구	87.5	12.5	100.0 (486)
인천	85.8	14.2	100.0 (487)
광주	91.0	9.0	100.0 (255)
대전	86.6	13.4	100.0 (256)
울산	88.3	11.7	100.0 (168)
세종	92.3	7.7	100.0 (39)
경기	83.0	17.0	100.0 (2,090)
강원	91.7	8.3	100.0 (380)
충북	89.8	10.2	100.0 (346)
충남	87.0	13.0	100.0 (487)
전북	93.2	6.8	100.0 (468)
전남	91.0	9.0	100.0 (520)
경북	92.3	7.7	100.0 (694)
경남	92.6	7.4	100.0 (692)
제주	91.8	8.2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6-12〉 노인의 시·도별 음주정도

(단위: %, 명)

지역	비음주	음주 정도 ²⁾			계 (명)
		소계	적정 음주	과음주	
전국 ¹⁾	61.4	38.6	32.2	6.3	100.0 (10,097)
서울	53.3	46.7	39.3	7.4	100.0 (1,820)
부산	63.8	36.2	31.8	4.4	100.0 (784)
대구	66.4	33.6	26.8	6.8	100.0 (486)
인천	70.4	29.6	20.4	9.2	100.0 (487)
광주	41.1	58.9	56.3	2.6	100.0 (255)
대전	69.7	30.3	27.6	2.7	100.0 (256)
울산	62.6	37.4	32.5	5.0	100.0 (168)
세종	81.7	18.3	14.6	3.7	100.0 (39)
경기	53.2	46.8	37.1	9.7	100.0 (2,090)
강원	74.4	25.6	23.8	1.8	100.0 (380)
충북	70.8	29.2	26.4	2.8	100.0 (346)
충남	72.1	27.9	21.5	6.3	100.0 (487)
전북	71.1	28.9	22.7	6.2	100.0 (468)
전남	47.8	52.2	47.7	4.5	100.0 (520)
경북	78.6	21.4	18.6	2.8	100.0 (694)
경남	62.6	37.4	32.1	5.3	100.0 (692)
제주	75.1	24.9	15.6	9.2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적정음주는 일주일에 7잔 이하의 알콜을 섭취한 경우이고, 과음주는 일주일에 7잔을 초과하여 섭취한 경우임.

〈부표 III-6-13〉 노인의 시·도별 운동 정도

(단위: %, 명, 분)

지역	비실천	운동 실천 정도			
		소계	권장수준 미달	권장수준 ²⁾	계 (명)
전국 ¹⁾	46.3	53.7	16.1	37.6	100.0 (10,097)
서울	41.4	58.6	17.4	41.2	100.0 (1,820)
부산	53.1	46.9	10.3	36.6	100.0 (784)
대구	28.4	71.6	14.9	56.7	100.0 (486)
인천	45.4	54.6	19.4	35.2	100.0 (487)
광주	47.8	52.2	15.3	36.9	100.0 (255)
대전	55.2	44.8	13.6	31.2	100.0 (256)
울산	43.5	56.5	14.9	41.6	100.0 (168)
세종	53.8	46.1	12.8	33.3	100.0 (39)
경기	44.1	55.9	17.4	38.4	100.0 (2,090)
강원	73.7	26.3	8.0	18.3	100.0 (380)
충북	58.2	41.8	16.1	25.7	100.0 (346)
충남	48.3	51.7	22.6	29.1	100.0 (487)
전북	35.9	64.1	18.7	45.4	100.0 (468)
전남	54.7	45.3	11.8	33.6	100.0 (520)
경북	42.8	57.2	23.1	34.2	100.0 (694)
경남	50.4	49.6	9.6	40.1	100.0 (692)
제주	39.7	60.3	17.5	42.9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권장수준은 1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한 경우임.

〈부표 III-6-14〉 노인의 시·도별 영양관리 상태

(단위: %, 명)

지역	양호	영양관리주의	영양관리개선	계 (명)	평균(점수)
전국 ¹⁾	72.2	19.0	8.8	100.0 (10,097)	1.9
서울	67.0	24.2	8.8	100.0 (1,820)	2.1
부산	78.2	13.5	8.3	100.0 (784)	1.5
대구	82.1	14.6	3.4	100.0 (486)	1.2
인천	71.6	16.9	11.5	100.0 (487)	1.9
광주	67.6	16.2	16.2	100.0 (255)	3.1
대전	78.8	16.6	4.6	100.0 (256)	1.3
울산	76.9	18.3	4.7	100.0 (168)	1.4
세종	84.6	12.8	2.6	100.0 (39)	1.0
경기	67.4	22.1	10.5	100.0 (2,090)	2.2
강원	89.3	8.6	2.1	100.0 (380)	.8
충북	70.5	23.7	5.8	100.0 (346)	1.8
충남	77.5	17.5	5.0	100.0 (487)	1.5
전북	73.2	18.9	7.9	100.0 (468)	1.8
전남	63.0	13.7	23.3	100.0 (520)	4.3
경북	73.9	19.4	6.7	100.0 (694)	1.6
경남	75.0	17.6	7.3	100.0 (692)	1.7
제주	77.7	16.5	5.8	100.0 (126)	1.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NSI 영양선별 도구의 10개 항목에 문항별 가중치를 부여한 총점 21점 기준으로 0~2점은 양호, 3~5점은 영양 관리 주의, 6점 이상은 영양관리 개선으로 구분함.

〈부표 III-6-15〉 노인의 시·도별 비만도 수준

(단위: %, 명)

지역	비만 지수(BMI)			계 (명)
	저체중($18.5 < \text{BMI}$)	정상($18.5 \leq \text{BMI} < 25$)	비만($\text{BMI} \geq 25$)	
전국 ¹⁾	2.6	72.4	25.0	100.0 (10,082)
서울	2.3	69.3	28.4	100.0 (1,818)
부산	2.0	74.0	24.0	100.0 (783)
대구	3.8	73.7	22.5	100.0 (484)
인천	3.2	69.4	27.4	100.0 (486)
광주	1.1	74.1	24.8	100.0 (255)
대전	1.9	75.4	22.7	100.0 (256)
울산	1.0	76.2	22.8	100.0 (168)
세종	0.0	74.4	25.6	100.0 (39)
경기	3.1	71.9	25.0	100.0 (2,085)
강원	0.6	76.6	22.8	100.0 (380)
충북	1.7	73.9	24.4	100.0 (346)
충남	3.0	76.8	20.3	100.0 (485)
전북	3.1	72.2	24.8	100.0 (467)
전남	0.9	78.3	20.8	100.0 (519)
경북	4.9	63.0	32.2	100.0 (694)
경남	2.2	78.1	19.7	100.0 (692)
제주	3.5	66.1	30.4	100.0 (121)

주: 1) 전체 응답자 10,097명 중 무응답자 5명을 제외한 10,0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2) 비만지수(BMI)=체중/(신장²)

〈부표 III-6-18〉 노인의 시·도별 건강검진수진율 및 병원·치과 미치료율

(단위: %, 명)

지역	수진율		미치료율 ¹⁾		(대상자수) ²⁾
	건강검진	치매검진	병원 진료	치과 진료	
전국 ¹⁾	77.7	42.7	2.5	3.7	(9,930)
서울	81.7	39.9	2.3	4.5	(1,805)
부산	73.5	42.3	4.8	5.0	(783)
대구	87.0	31.2	0.9	0.9	(472)
인천	83.3	30.9	6.3	10.5	(465)
광주	81.8	49.1	0.2	0.1	(242)
대전	69.7	41.8	0.8	0.6	(246)
울산	78.2	45.8	2.5	2.3	(168)
세종	71.8	41.0	0.0	0.3	(38)
경기	77.9	43.5	1.9	4.5	(2,068)
강원	59.5	54.7	0.2	0.2	(376)
충북	71.7	52.4	1.1	2.4	(337)
충남	84.6	55.2	1.6	2.1	(473)
전북	87.9	59.2	1.8	1.3	(459)
전남	84.9	58.0	0.5	0.1	(511)
경북	62.5	18.4	0.0	0.4	(676)
경남	72.2	44.9	8.9	8.4	(692)
제주	82.3	30.4	3.1	3.6	(119)

주: 1) 미치료율은 본인이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 받지 못한 비율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7-1〉 노인의 시·도별 시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단위: %, 명)

지역	보조기 사용여부 ¹⁾		일상생활 불편함 ²⁾			계 (명)
	사용률	계 (명)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편이다	매우 불편하다	
전국 ¹⁾	54.0	100.0 (10,097)	65.0	32.2	2.8	100.0 (9,930)
서울	54.3	100.0 (1,820)	60.3	34.0	5.8	100.0 (1,805)
부산	44.7	100.0 (784)	63.6	35.4	1.1	100.0 (783)
대구	57.2	100.0 (486)	65.4	33.6	1.0	100.0 (472)
인천	45.4	100.0 (487)	56.7	39.4	3.9	100.0 (465)
광주	52.9	100.0 (255)	56.4	42.1	1.5	100.0 (242)
대전	47.3	100.0 (256)	82.2	16.9	0.9	100.0 (246)
울산	45.5	100.0 (168)	71.3	27.2	1.6	100.0 (168)
세종	62.4	100.0 (39)	81.6	18.4	0.0	100.0 (38)
경기	63.6	100.0 (2,090)	60.9	34.7	4.4	100.0 (2,068)
강원	46.0	100.0 (380)	82.5	17.5	0.0	100.0 (376)
충북	55.9	100.0 (346)	67.9	31.0	1.1	100.0 (337)
충남	48.3	100.0 (487)	80.9	19.1	0.0	100.0 (473)
전북	37.2	100.0 (468)	66.3	32.2	1.5	100.0 (459)
전남	60.1	100.0 (520)	55.3	42.7	2.1	100.0 (511)
경북	55.8	100.0 (694)	73.9	24.8	1.3	100.0 (676)
경남	55.6	100.0 (692)	64.6	33.9	1.5	100.0 (692)
제주	56.7	100.0 (126)	80.6	18.4	1.0	100.0 (11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7-2〉 노인의 시·도별 청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단위: %, 명)

지역	보조기 사용여부 ¹⁾		일상생활 불편함 ²⁾			계 (명)
	사용률	계 (명)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편이다	매우 불편하다	
전국 ¹⁾	11.2	100.0 (10,097)	75.4	22.1	2.6	100.0 (9,930)
서울	10.2	100.0 (1,820)	67.8	27.5	4.7	100.0 (1,805)
부산	13.8	100.0 (784)	79.6	18.7	1.7	100.0 (783)
대구	8.6	100.0 (486)	80.2	19.3	0.5	100.0 (472)
인천	8.7	100.0 (487)	77.0	20.2	2.9	100.0 (465)
광주	26.0	100.0 (255)	57.8	42.2	0.0	100.0 (242)
대전	7.7	100.0 (256)	91.0	8.5	0.5	100.0 (246)
울산	12.7	100.0 (168)	85.2	12.6	2.2	100.0 (168)
세종	7.7	100.0 (39)	89.5	10.5	0.0	100.0 (38)
경기	8.2	100.0 (2,090)	76.8	20.3	3.0	100.0 (2,068)
강원	13.7	100.0 (380)	78.4	21.4	0.2	100.0 (376)
충북	10.8	100.0 (346)	76.1	23.2	0.7	100.0 (337)
충남	9.2	100.0 (487)	81.5	17.3	1.2	100.0 (473)
전북	8.1	100.0 (468)	79.3	18.5	2.2	100.0 (459)
전남	34.0	100.0 (520)	62.4	33.9	3.7	100.0 (511)
경북	5.1	100.0 (694)	74.7	22.1	3.2	100.0 (676)
경남	11.2	100.0 (692)	78.9	18.8	2.3	100.0 (692)
제주	5.7	100.0 (126)	85.0	13.3	1.7	100.0 (11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7-3〉 노인의 시·도별 씹기능력 보조기 사용여부 및 일상생활의 불편함

(단위: %, 명)

지역	보조기 사용여부 ¹⁾		일상생활 불편함 ²⁾			
	사용률	계 (명)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편이다	매우 불편하다	계 (명)
전국 ¹⁾	36.9	100.0 (10,097)	60.5	34.8	4.7	100.0 (9,930)
서울	24.8	100.0 (1,820)	57.0	36.9	6.2	100.0 (1,805)
부산	39.4	100.0 (784)	61.4	36.0	2.6	100.0 (783)
대구	42.2	100.0 (486)	67.1	31.4	1.5	100.0 (472)
인천	49.8	100.0 (487)	52.2	42.2	5.6	100.0 (465)
광주	38.0	100.0 (255)	51.8	43.8	4.5	100.0 (242)
대전	26.2	100.0 (256)	80.1	18.6	1.3	100.0 (246)
울산	43.4	100.0 (168)	63.5	34.4	2.1	100.0 (168)
세종	13.8	100.0 (39)	81.6	18.4	0.0	100.0 (38)
경기	41.6	100.0 (2,090)	54.3	39.3	6.4	100.0 (2,068)
강원	30.2	100.0 (380)	69.3	30.2	0.5	100.0 (376)
충북	26.0	100.0 (346)	69.2	29.9	0.9	100.0 (337)
충남	32.1	100.0 (487)	72.7	27.1	0.2	100.0 (473)
전북	39.6	100.0 (468)	59.0	37.8	3.2	100.0 (459)
전남	51.7	100.0 (520)	49.4	36.1	14.5	100.0 (511)
경북	27.7	100.0 (694)	75.2	22.3	2.4	100.0 (676)
경남	52.7	100.0 (692)	57.2	37.9	4.9	100.0 (692)
제주	25.9	100.0 (126)	76.4	20.4	3.2	100.0 (11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7-4〉 노인의 시·도별 하지 근력상태

(단위: %, 명)

지역	수행함	시·도했으나 수행 못함	수행 시·도조차 못하는 상태	계 (명)
전국 ¹⁾	77.9	18.8	3.3	100.0 (10,097)
서울	83.0	12.6	4.4	100.0 (1,820)
부산	78.0	18.1	3.8	100.0 (784)
대구	84.6	13.3	2.1	100.0 (486)
인천	82.4	13.7	3.9	100.0 (487)
광주	77.5	18.7	3.8	100.0 (255)
대전	75.9	20.9	3.2	100.0 (256)
울산	73.4	23.1	3.6	100.0 (168)
세종	84.6	15.4	0.0	100.0 (39)
경기	84.0	13.5	2.5	100.0 (2,090)
강원	54.5	42.8	2.7	100.0 (380)
충북	68.4	28.1	3.5	100.0 (346)
충남	64.5	31.4	4.1	100.0 (487)
전북	80.2	18.3	1.5	100.0 (468)
전남	73.8	23.7	2.5	100.0 (520)
경북	79.1	18.7	2.2	100.0 (694)
경남	66.5	28.7	4.8	100.0 (692)
제주	82.4	14.3	3.4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7-5〉 노인의 시·도별 신체 근력상태(평균점수)

(단위: 점, 명)

지역	운동장 한바퀴 뛰기(400m)	운동장 한바퀴 걷기(400m)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몸 구부리기 꾸고려 앉기 무릎 꿇기	머리 위 높은 곳 손 뻗어서 달기	쌀 1말(8kg) 정도의 물건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전국 ¹⁾	2.7	1.8	1.9	1.8	1.6	1.9
서울	2.6	1.7	1.8	1.8	1.6	1.9
부산	2.4	1.7	1.8	1.7	1.6	1.8
대구	2.3	1.4	1.6	1.5	1.4	1.6
인천	2.6	1.5	1.7	1.5	1.3	1.7
광주	2.9	2.1	2.1	2.2	2.0	2.2
대전	2.7	1.9	1.8	1.6	1.5	1.7
울산	2.5	1.7	1.6	1.5	1.4	1.7
세종	2.9	1.6	1.7	1.4	1.3	1.5
경기	2.5	1.6	1.8	1.8	1.5	1.9
강원	3.5	2.3	1.9	1.7	1.5	1.6
충북	3.0	1.9	1.9	1.8	1.6	2.0
충남	2.7	1.7	1.9	1.8	1.6	1.7
전북	2.9	1.9	2.0	1.7	1.4	1.9
전남	3.1	2.3	2.2	2.2	1.9	2.2
경북	2.9	1.6	2.0	1.7	1.7	2.2
경남	2.8	1.9	2.0	1.8	1.7	2.0
제주	2.8	1.7	1.8	1.7	1.5	1.5

주: 1) 평균점수는 전혀 어렵지 않다=1, 약간 어렵다=2, 매우 어렵다=3, 전혀 할 수 없다=4로 계산함.

2)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097명 중 '모르겠다' 응답자를 제외함.

〈부표 Ⅲ-7-7〉 노인의 시·도별 일상생활수행능력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1개도움	2개도움	3개도움	4개도움	5개도움	6개도움	7개도움	계 (명)
전국 ¹⁾	94.4	1.6	1.0	0.5	0.3	0.4	0.3	1.4	100.0 (10,097)
서울	93.3	2.6	1.2	0.3	0.5	0.6	0.4	1.1	100.0 (1,820)
부산	94.0	2.4	0.8	0.6	0.3	0.5	0.1	1.4	100.0 (784)
대구	95.3	1.3	0.6	0.7	0.6	0.3	0.2	0.9	100.0 (486)
인천	93.9	1.6	0.9	1.0	0.3	0.2	0.6	1.5	100.0 (487)
광주	92.6	2.1	1.8	0.8	0.0	0.6	0.0	2.2	100.0 (255)
대전	92.2	2.6	0.7	1.2	0.8	0.4	0.3	1.9	100.0 (256)
울산	95.8	1.6	0.0	0.0	0.3	0.9	0.4	1.1	100.0 (168)
세종	100.0	0.0	0.0	0.5	0.0	0.0	0.0	0.0	100.0 (39)
경기	96.0	0.7	0.6	0.7	0.1	0.4	0.1	1.5	100.0 (2,090)
강원	97.2	0.9	0.4	0.2	0.1	0.0	0.4	0.8	100.0 (380)
충북	90.9	2.8	1.8	1.0	0.6	0.0	0.6	2.3	100.0 (346)
충남	93.5	1.2	1.4	0.3	0.4	0.2	0.5	2.4	100.0 (487)
전북	93.9	1.3	1.9	1.0	0.2	0.4	0.0	1.2	100.0 (468)
전남	96.5	1.2	1.3	0.0	0.3	0.1	0.3	0.4	100.0 (520)
경북	95.2	1.3	0.6	0.5	0.4	0.7	0.2	1.1	100.0 (694)
경남	93.4	2.2	1.1	0.5	0.1	0.6	0.3	1.6	100.0 (692)
제주	92.0	0.8	0.8	0.0	1.6	0.8	0.8	3.2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I-7-9〉 노인의 시·도별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단위: %, 명)

지역	완전자립	1~2개도움	3~4개도움	5~6개도움	7~8개도움	9~10개도움	계 (명)
전국 ¹⁾	88.0	4.3	2.5	1.4	1.2	2.7	100.0 (10,097)
서울	86.3	3.0	5.0	1.8	1.5	2.5	100.0 (1,820)
부산	89.5	3.3	1.2	1.9	1.6	2.4	100.0 (784)
대구	91.8	2.4	2.5	0.7	1.0	1.6	100.0 (486)
인천	86.1	4.8	2.2	1.0	1.5	4.3	100.0 (487)
광주	83.4	8.8	2.0	0.6	1.6	3.6	100.0 (255)
대전	86.2	4.4	2.8	2.2	1.8	2.5	100.0 (256)
울산	93.1	2.1	1.2	1.2	0.9	1.5	100.0 (168)
세종	97.4	2.6	0.0	0.0	0.0	0.0	100.0 (39)
경기	88.5	5.5	1.5	1.2	0.6	2.7	100.0 (2,090)
강원	90.1	4.4	1.8	0.6	0.8	2.3	100.0 (380)
충북	84.2	5.4	1.8	1.0	3.4	4.2	100.0 (346)
충남	87.4	3.2	2.6	1.0	2.6	3.2	100.0 (487)
전북	87.8	4.8	2.3	1.3	1.9	1.8	100.0 (468)
전남	86.6	7.9	2.3	1.1	0.4	1.6	100.0 (520)
경북	91.8	2.2	1.3	1.3	0.4	3.0	100.0 (694)
경남	87.2	4.1	3.2	2.1	0.8	2.6	100.0 (692)
제주	86.5	3.2	2.4	0.8	0.8	6.3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I-7-10〉 노인의 시·도별 기능상태 제한 현황

(단위: %, 명)

지역	기능제한 없음	IADL만 제한	ADL도 제한	계 (명)
전국 ¹⁾	87.8	6.6	5.6	100.0 (10,097)
서울	86.0	7.3	6.7	100.0 (1,820)
부산	88.9	5.1	6.0	100.0 (784)
대구	91.5	3.8	4.7	100.0 (486)
인천	86.1	7.8	6.1	100.0 (487)
광주	82.1	10.5	7.4	100.0 (255)
대전	86.2	6.0	7.8	100.0 (256)
울산	92.6	3.2	4.1	100.0 (168)
세종	95.0	2.5	2.5	100.0 (39)
경기	88.5	7.5	4.1	100.0 (2,090)
강원	90.1	7.1	2.8	100.0 (380)
충북	84.2	6.7	9.1	100.0 (346)
충남	87.4	6.1	6.5	100.0 (487)
전북	87.8	6.1	6.1	100.0 (468)
전남	86.4	10.1	3.5	100.0 (520)
경북	91.8	3.4	4.8	100.0 (694)
경남	86.8	6.6	6.5	100.0 (692)
제주	86.0	5.0	9.0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동 항목에는 IADL에는 제한이 없고 ADL만 제한이 있는 사람 22명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조사 기간 내(조사 표 문항 상 조사 시점 기준 지난 일주일) 일시적으로 제한이 있는 사람임.

〈부표 Ⅲ-7-11〉 노인의 시·도별 MMSE-DS 진단검사 결과

(단위: 점, 명)

지역	평균점수	인지저하자 비율	대상자수
전국 ¹⁾	24.5	25.3	(9,887)
서울	25.1	23.7	(1,795)
부산	24.0	24.9	(781)
대구	25.4	19.6	(471)
인천	24.6	19.7	(463)
광주	23.4	30.0	(242)
대전	25.2	24.6	(244)
울산	24.0	25.9	(167)
세종	25.0	23.6	(38)
경기	26.0	16.6	(2,055)
강원	22.2	44.6	(376)
충북	24.0	33.1	(336)
충남	23.8	32.9	(472)
전북	25.6	9.7	(453)
전남	23.1	26.7	(511)
경북	22.0	46.8	(673)
경남	23.3	34.5	(691)
제주	27.1	4.9	(118)

주: 1) 본인 응답자 9,930명 중 비해당 처리된 시각장애인 43명을 제외한 9,987명을 분석함.

〈부표 Ⅲ-7-15〉 노인의 시·도별 돌봄 수급여부 및 돌봄제공자(중복응답)

(단위: %, 명)

지역	돌봄수급률	돌봄제공자 ²⁾						(명)
		가족원		친척, 이웃·친구·지인	개인간병인, 가사도우미	장기요양 보험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동거	비동거					
전국 ¹⁾	55.0	74.5	39.3	15.3	4.2	19.1	10.7	(678)
서울	72.0	84.3	56.2	22.2	8.6	21.3	0.4	(183)
부산	43.7	56.4	17.9	13.0	5.1	7.9	23.7	(38)
대구	57.1	75.2	20.8	8.3	4.2	24.7	4.2	(24)
인천	53.7	50.1	52.8	0.0	0.0	19.4	16.7	(36)
광주	28.3	100.0	61.5	30.8	7.7	7.7	0.0	(13) ⁴⁾
대전	52.8	73.8	31.6	5.3	5.6	10.2	22.2	(19) ⁴⁾
울산	30.8	89.3	33.3	0.0	0.0	0.0	0.0	(3) ⁴⁾
세종	0.0	0.0	0.0	0.0	0.0	0.0	0.0	(0) ⁴⁾
경기	51.9	84.0	39.7	9.0	1.6	13.7	11.0	(125)
강원	54.1	62.8	25.0	15.0	9.5	10.0	19.0	(20)
충북	72.2	80.4	15.4	7.7	7.2	10.0	15.0	(39)
충남	55.7	59.5	17.8	5.9	0.0	26.3	34.3	(34)
전북	63.2	71.6	44.4	8.3	0.0	44.7	5.6	(36)
전남	28.2	84.8	26.3	45.0	0.0	15.8	15.0	(20)
경북	58.6	54.2	45.5	33.3	0.0	32.3	11.8	(34)
경남	47.8	57.9	20.9	18.4	4.5	14.0	16.3	(44)
제주	50.0	76.4	44.4	11.1	0.0	22.2	11.1	(9) ⁴⁾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097명 중 1개 이상의 ADL/IADL에서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이 필요한 1,233명을 대상으로 함.

2) ADL/IADL 중 1개 이상 부분도움 또는 완전도움이 필요한 1,233명 중 돌봄을 받고 있는 678명을 대상으로 함.

3) 동거 또는 비동거 가족원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는 경우임. /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I-7-27〉 노인의 시·도별 도움 충분성

(단위: %, 명)

지역	매우충분	충분	보통	부족	매우부족	계 (명)
전국 ¹⁾	5.2	35.8	35.1	22.5	1.3	100.0 (556)
서울	1.0	41.6	33.2	22.3	1.9	100.0 (169)
부산	9.1	30.3	42.4	18.2	0.0	100.0 (33)
대구	18.8	43.8	18.8	18.8	0.0	100.0 (15)
인천	5.0	55.0	30.0	10.0	0.0	100.0 (20)
광주	0.0	50.0	25.0	25.0	0.0	100.0 (4) ²⁾
대전	0.0	6.7	73.3	20.0	0.0	100.0 (15)
울산	0.0	50.0	25.0	25.0	0.0	100.0 (4) ²⁾
세종	0.0	0.0	100.0	0.0	0.0	100.0 (0) ²⁾
경기	15.8	29.4	33.7	19.5	1.6	100.0 (103)
강원	0.0	22.2	27.8	44.4	5.6	100.0 (18)
충북	2.9	29.4	44.1	23.5	0.0	100.0 (34)
충남	3.8	38.5	30.8	26.9	0.0	100.0 (26)
전북	0.0	44.5	16.0	36.5	3.1	100.0 (29)
전남	0.0	56.2	43.8	0.0	0.0	100.0 (16)
경북	8.3	25.0	45.8	20.8	0.0	100.0 (24)
경남	0.0	24.4	41.5	31.7	2.4	100.0 (41)
제주	0.0	66.7	33.3	0.0	0.0	100.0 (4) ²⁾

주: 1) 돌봄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한 1,233명 중 본인응답자 55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I-7-29〉 노인의 시·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신청 및 등급현황

(단위: %, 명)

지역	신청률 ¹⁾	최근에 받은 등급 ²⁾								계 (명)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등급외	기타	
전국	4.3	0.6	5.4	18.8	21.3	9.2	6.8	37.7	0.1	100.0 (431)
서울	3.5	0.0	0.0	27.0	41.3	6.3	1.6	23.8	0.0	100.0 (63)
부산	4.5	0.0	0.0	30.6	33.3	11.1	0.0	25.0	0.0	100.0 (36)
대구	3.3	0.0	18.8	31.3	18.8	12.5	0.0	18.8	0.0	100.0 (16)
인천	6.4	0.0	9.7	16.1	32.3	9.7	0.0	32.3	0.0	100.0 (31)
광주	2.3	0.0	0.0	0.0	0.0	16.7	0.0	83.3	0.0	100.0 (6) ³⁾
대전	3.3	0.0	0.0	28.6	14.3	14.3	14.3	28.6	0.0	100.0 (7) ³⁾
울산	2.4	0.0	0.0	52.1	0.0	0.0	0.0	32.4	15.5	100.0 (4) ³⁾
세종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 ³⁾
경기	5.1	0.0	1.9	9.3	9.3	8.4	11.2	59.8	0.0	100.0 (107)
강원	2.8	0.0	10.0	40.0	10.0	0.0	10.0	30.0	0.0	100.0 (10) ³⁾
충북	6.5	0.0	4.8	0.0	9.5	14.3	14.3	57.1	0.0	100.0 (21)
충남	6.5	6.5	6.5	9.7	12.9	3.2	19.4	41.9	0.0	100.0 (31)
전북	5.5	0.0	0.0	18.5	51.9	14.8	7.4	7.4	0.0	100.0 (27)
전남	2.9	0.0	13.3	0.0	6.7	20.0	0.0	60.0	0.0	100.0 (15)
경북	2.7	0.0	10.5	26.3	21.1	15.8	5.3	21.1	0.0	100.0 (19)
경남	4.2	0.0	20.0	30.0	10.0	10.0	3.3	26.7	0.0	100.0 (30)
제주	2.7	0.0	0.0	33.3	33.3	0.0	0.0	33.3	0.0	100.0 (3) ³⁾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장기요양등급신청자 431명을 대상으로 함.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7-31〉 노인의 시·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미신청 이유

(단위: %, 명)

지역	건강 양호	제도를 알지 못해서	등급신청을 받지 못한 것 같아서	타인의 도움 비희망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요양 병원 희망	원하는 서비스 부재	현 서비스로 충분	기타	계 (명)
전국 ¹⁾	61.8	9.7	10.4	7.7	8.6	0.8	0.3	0.7	0.1	100.0 (9,663)
서울	68.8	6.8	10.2	5.8	4.6	0.9	0.5	2.0	0.5	100.0 (1,756)
부산	60.5	10.3	11.3	7.9	6.9	1.0	0.9	1.2	0.2	100.0 (747)
대구	77.5	2.7	6.4	11.5	1.9	0.0	0.0	0.0	0.0	100.0 (469)
인천	74.1	2.1	12.3	3.8	7.3	0.2	0.1	0.2	0.0	100.0 (456)
광주	51.2	17.2	11.9	8.2	10.8	0.4	0.4	0.0	0.0	100.0 (249)
대전	61.0	7.8	11.3	8.1	9.9	1.1	0.6	0.2	0.0	100.0 (247)
울산	71.2	9.2	6.6	7.8	4.4	0.1	0.0	0.7	0.0	100.0 (164)
세종	69.2	5.1	10.3	10.3	2.6	2.6	0.0	0.0	0.0	100.0 (39)
경기	57.0	10.3	8.2	6.7	16.4	0.5	0.2	0.6	0.0	100.0 (1,982)
강원	49.5	5.5	18.7	20.2	5.4	0.7	0.0	0.0	0.0	100.0 (370)
충북	45.8	19.0	9.9	13.3	10.2	1.2	0.7	0.0	0.0	100.0 (324)
충남	57.1	5.8	10.3	14.4	11.6	0.7	0.1	0.0	0.0	100.0 (455)
전북	71.8	2.6	11.7	7.9	4.5	0.7	0.3	0.4	0.0	100.0 (442)
전남	53.8	9.2	13.5	6.9	15.1	0.6	0.6	0.4	0.0	100.0 (505)
경북	60.8	23.9	5.2	3.0	4.8	2.2	0.0	0.2	0.0	100.0 (674)
경남	55.3	16.3	15.2	6.5	5.4	0.4	0.4	0.4	0.0	100.0 (662)
제주	83.7	2.4	9.8	2.4	.8	0.0	0.0	0.8	0.0	100.0 (123)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097명 중 등급신청을 한 적이 없는 응답자 9,6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부표 Ⅲ-8-1〉 노인의 시·도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가구소득)

(단위: %, 명)

지역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연금 소득 ¹⁾	기타 소득	(명)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기초생활 보장급여	기타 공적 급여			
전국 ¹⁾	44.0	17.5	34.8	95.1	40.5	71.6	5.6	15.4	87.1	13.0	0.1 (10,097)
서울	50.8	18.1	44.1	95.5	44.9	53.0	7.1	11.0	82.0	25.8	0.2 (1,820)
부산	37.1	10.4	32.6	91.9	40.8	79.4	6.0	17.4	90.2	13.0	0.0 (784)
대구	41.4	12.9	51.0	96.5	45.1	69.8	5.4	14.2	83.7	4.9	0.0 (486)
인천	55.1	16.7	34.8	97.7	36.1	78.6	6.7	17.6	88.9	8.0	0.0 (487)
광주	57.4	9.2	61.3	99.7	28.4	76.8	6.7	10.9	87.8	9.9	0.0 (255)
대전	35.0	11.9	26.6	87.5	40.7	74.6	4.6	22.9	86.3	10.2	0.0 (256)
울산	34.5	16.0	31.6	91.7	54.0	76.8	2.5	9.9	91.1	2.3	0.0 (168)
세종	28.2	20.8	25.6	87.2	52.8	59.0	0.0	18.2	77.5	15.4	0.0 (39)
경기	60.9	12.8	37.4	95.9	40.0	68.8	6.4	10.2	85.5	15.9	0.1 (2,090)
강원	23.7	26.8	19.8	87.3	50.3	84.0	1.9	23.5	94.2	3.7	0.0 (380)
충북	20.9	18.8	14.3	94.7	30.3	77.4	2.2	22.7	86.1	9.7	0.2 (346)
충남	33.0	25.3	19.4	91.7	19.8	72.5	2.6	21.1	80.1	7.2	0.0 (487)
전북	42.0	25.9	29.6	97.0	49.8	84.0	5.8	24.4	95.5	12.8	0.0 (468)
전남	49.1	16.3	51.0	99.3	22.1	81.1	7.3	10.5	89.0	9.8	0.0 (520)
경북	24.1	21.5	26.0	97.2	45.9	77.0	5.9	19.5	91.2	8.9	0.0 (694)
경남	25.8	25.4	15.4	95.2	42.1	83.5	2.9	17.8	91.9	3.2	0.1 (692)
제주	48.1	30.5	45.8	95.1	63.7	58.6	6.1	33.3	92.9	6.3	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 해(2019.1.1.~2019.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부표 III-8-2〉 노인의 시·도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가구소득)

(단위: 만원, %)

지역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연 총소득	(명)
전국 ¹⁾	1,077.8	465.5	294.5	353.7	675.6	158.0	1.4	3,026.5	(10,097)
서울	1,296.9	577.7	378.0	398.1	583.1	386.9	0.1	3,620.8	(1,820)
부산	1,005.4	330.6	156.1	367.0	823.8	179.5	0.0	2,862.4	(784)
대구	951.8	382.6	156.0	389.4	733.8	61.3	0.0	2,674.9	(486)
인천	1,538.6	545.9	197.6	398.9	706.1	94.2	0.0	3,481.2	(487)
광주	2,046.4	211.4	125.6	437.8	564.2	110.3	0.0	3,495.6	(255)
대전	910.4	308.2	93.8	249.9	784.3	137.3	0.0	2,483.9	(256)
울산	1,137.5	425.9	66.2	295.9	838.0	25.7	0.0	2,789.1	(168)
세종	526.4	480.2	103.5	319.2	657.4	348.3	0.0	2,435.1	(39)
경기	1,683.1	502.5	785.5	334.5	588.3	122.4	0.8	4,017.1	(2,090)
강원	361.2	404.3	26.4	171.9	814.0	77.9	0.0	1,855.9	(380)
충북	411.6	345.3	52.4	323.3	704.5	150.4	0.2	1,987.8	(346)
충남	592.9	510.0	79.1	328.7	691.7	115.5	0.0	2,317.9	(487)
전북	479.8	506.6	73.7	309.8	796.0	94.7	0.0	2,260.6	(468)
전남	751.3	317.1	56.9	395.2	506.9	70.2	0.0	2,097.6	(520)
경북	446.0	391.5	59.4	465.7	718.6	105.3	0.0	2,186.7	(694)
경남	626.5	492.1	59.0	274.8	771.3	48.8	17.6	2,290.0	(692)
제주	886.7	1,025.9	525.0	299.6	916.8	99.0	0.0	3,753.0	(126)
〈구성비〉									
전국 ¹⁾	35.6	15.4	9.7	11.7	22.3	5.2	0.0	100.0	(10,097)
서울	35.8	16.0	10.4	11.0	16.1	10.7	0.0	100.0	(1,820)
부산	35.1	11.6	5.5	12.8	28.8	6.3	0.0	100.0	(784)
대구	35.6	14.3	5.8	14.6	27.4	2.3	0.0	100.0	(486)
인천	44.2	15.7	5.7	11.5	20.3	2.7	0.0	100.0	(487)
광주	58.5	6.0	3.6	12.5	16.1	3.2	0.0	100.0	(255)
대전	36.7	12.4	3.8	10.1	31.6	5.5	0.0	100.0	(256)
울산	40.8	15.3	2.4	10.6	30.0	0.9	0.0	100.0	(168)
세종	21.6	19.7	4.3	13.1	27.0	14.3	0.0	100.0	(39)
경기	41.9	12.5	19.6	8.3	14.6	3.0	0.0	100.0	(2,090)
강원	19.5	21.8	1.4	9.3	43.9	4.2	0.0	100.0	(380)
충북	20.7	17.4	2.6	16.3	35.4	7.6	0.0	100.0	(346)
충남	25.6	22.0	3.4	14.2	29.8	5.0	0.0	100.0	(487)
전북	21.2	22.4	3.3	13.7	35.2	4.2	0.0	100.0	(468)
전남	35.8	15.1	2.7	18.8	24.2	3.3	0.0	100.0	(520)
경북	20.4	17.9	2.7	21.3	32.9	4.8	0.0	100.0	(694)
경남	27.4	21.5	2.6	12.0	33.7	2.1	0.8	100.0	(692)
제주	23.6	27.3	14.0	8.0	24.4	2.6	0.0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 해(2019.1.1.~2019.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부표 Ⅲ-8-3〉 노인의 시·도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개인소득)

(단위: %, 명)

지역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 연금 소득 ²⁾	기타소득	(명)
					공적 연금	기초 연금	기타 공적 급여	계			
전국 ¹⁾	26.3	12.3	16.5	90.0	30.6	68.9	12.8	81.8	10.3	0.0	(10,097)
서울	29.6	13.2	24.3	89.2	36.6	51.7	8.6	73.6	22.4	0.0	(1,820)
부산	21.2	7.7	14.0	85.0	34.0	76.1	14.1	87.1	10.6	0.0	(784)
대구	24.9	8.9	23.3	91.5	32.3	66.0	11.6	79.0	3.8	0.0	(486)
인천	25.1	10.3	14.8	94.3	27.4	77.4	14.1	85.2	5.7	0.0	(487)
광주	32.7	8.2	19.5	97.5	24.0	74.8	10.0	85.5	7.8	0.0	(255)
대전	17.3	7.5	9.8	84.2	27.2	69.6	19.6	80.9	8.2	0.0	(256)
울산	18.6	12.2	9.7	87.4	42.0	73.4	8.1	86.3	1.4	0.0	(168)
세종	15.1	12.5	12.7	82.1	34.7	56.4	12.8	70.0	10.1	0.0	(39)
경기	39.9	8.1	18.4	91.3	29.8	66.4	7.9	79.9	12.1	0.1	(2,090)
강원	15.7	18.9	13.0	80.4	34.1	79.3	20.3	88.4	2.3	0.0	(380)
충북	11.1	13.1	7.6	89.4	21.7	73.9	19.8	81.2	7.6	0.2	(346)
충남	14.3	16.0	9.5	84.9	13.5	67.9	19.0	75.6	4.7	0.0	(487)
전북	27.3	17.9	13.4	94.6	34.7	82.6	19.7	91.9	8.4	0.0	(468)
전남	35.8	14.4	15.4	97.0	19.4	80.6	10.2	88.1	9.2	0.0	(520)
경북	13.2	14.1	14.4	93.7	32.7	72.7	17.5	83.1	5.2	0.0	(694)
경남	14.5	19.7	7.4	88.0	30.8	80.1	14.7	89.2	2.4	0.0	(692)
제주	26.9	19.3	22.2	86.6	45.6	56.5	26.3	83.5	4.3	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 해(2019.1.1.~2019.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부표 III-8-4〉 노인의 시·도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개인소득)

(단위: 만원, %)

지역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연금 소득	기타소득	연 총소득	(명)
전국 ¹⁾	375.8	267.4	171.8	215.8	428.7	97.9	0.2	1,557.6	(10,097)
서울	456.8	341.8	254.8	238.0	404.3	239.0	0.0	1,934.8	(1,820)
부산	392.9	213.2	91.7	219.4	536.7	123.6	0.0	1,577.4	(784)
대구	389.2	240.6	79.5	248.5	460.0	42.9	0.0	1,460.6	(486)
인천	260.0	267.2	114.4	243.1	474.9	55.5	0.0	1,415.1	(487)
광주	428.9	171.0	35.0	292.3	441.0	64.7	0.0	1,432.8	(255)
대전	225.9	138.9	35.7	151.2	468.6	84.4	0.0	1,104.8	(256)
울산	309.3	227.6	27.8	169.3	569.8	13.8	0.0	1,317.5	(168)
세종	145.2	268.2	54.7	187.0	400.9	191.8	0.0	1,247.9	(39)
경기	657.6	258.1	445.9	198.5	342.4	74.3	0.8	1,977.6	(2,090)
강원	147.5	238.3	14.6	100.6	488.1	47.7	0.0	1,036.9	(380)
충북	119.1	179.3	28.6	208.7	427.7	100.6	0.2	1,064.2	(346)
충남	126.1	272.2	39.9	195.0	407.4	68.1	0.0	1,108.6	(487)
전북	173.4	287.7	44.3	195.9	494.1	53.8	0.0	1,249.2	(468)
전남	350.2	225.3	15.9	265.0	393.0	56.3	0.0	1,305.7	(520)
경북	140.1	251.4	34.1	280.9	411.1	51.7	0.0	1,169.3	(694)
경남	268.9	307.2	44.8	173.5	484.3	30.5	0.0	1,309.1	(692)
제주	279.1	578.7	233.1	165.6	557.7	64.8	0.0	1,879.0	(126)
〈구성비〉									
전국 ¹⁾	24.1	17.2	11.0	13.9	27.5	6.3	0.0	100.0	(10,097)
서울	23.6	17.7	13.2	12.3	20.9	12.4	0.0	100.0	(1,820)
부산	24.9	13.5	5.8	13.9	34.0	7.8	0.0	100.0	(784)
대구	26.6	16.5	5.4	17.0	31.5	2.9	0.0	100.0	(486)
인천	18.4	18.9	8.1	17.2	33.6	3.9	0.0	100.0	(487)
광주	29.9	11.9	2.4	20.4	30.8	4.5	0.0	100.0	(255)
대전	20.4	12.6	3.2	13.7	42.4	7.6	0.0	100.0	(256)
울산	23.5	17.3	2.1	12.8	43.2	1.0	0.0	100.0	(168)
세종	11.6	21.5	4.4	15.0	32.1	15.4	0.0	100.0	(39)
경기	33.3	13.1	22.5	10.0	17.3	3.8	0.0	100.0	(2,090)
강원	14.2	23.0	1.4	9.7	47.1	4.6	0.0	100.0	(380)
충북	11.2	16.9	2.7	19.6	40.2	9.5	0.0	100.0	(346)
충남	11.4	24.6	3.6	17.6	36.7	6.1	0.0	100.0	(487)
전북	13.9	23.0	3.5	15.7	39.6	4.3	0.0	100.0	(468)
전남	26.8	17.3	1.2	20.3	30.1	4.3	0.0	100.0	(520)
경북	12.0	21.5	2.9	24.0	35.2	4.4	0.0	100.0	(694)
경남	20.5	23.5	3.4	13.3	37.0	2.3	0.0	100.0	(692)
제주	14.9	30.8	12.4	8.8	29.7	3.4	0.0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 해(2019.1.1.~2019.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부표 Ⅲ-8-5〉 노인의 시·도별 가구소득 중 개인소득의 비중

(단위: %, 명)

지역	가구소득 20% 미만	가구소득 20~40%	가구소득 40~60%	가구소득 60~80%	가구소득 80~100%	계(명)	평균비중
전국 ¹⁾²⁾	17.1	13.0	22.6	11.7	35.6	100.0 (10,097)	59.1
서울	17.5	14.0	22.3	11.2	35.0	100.0 (1,820)	58.2
부산	13.5	11.2	26.3	10.1	38.9	100.0 (784)	62.0
대구	14.6	14.9	22.9	11.8	35.8	100.0 (486)	60.1
인천	24.4	17.4	21.1	9.7	27.4	100.0 (487)	51.3
광주	12.0	14.5	20.6	14.0	38.9	100.0 (255)	62.6
대전	22.3	11.5	25.9	8.1	32.2	100.0 (256)	54.9
울산	17.0	12.2	17.9	14.4	38.5	100.0 (168)	61.1
세종	19.6	12.3	21.4	12.1	34.6	100.0 (39)	57.5
경기	21.3	12.8	23.7	10.7	31.5	100.0 (2,090)	55.4
강원	14.0	13.1	24.9	13.1	34.9	100.0 (380)	60.6
충북	15.0	9.8	26.6	8.9	39.7	100.0 (346)	62.4
충남	23.5	11.9	22.1	8.2	34.3	100.0 (487)	55.1
전북	13.4	14.2	18.7	18.3	35.4	100.0 (468)	61.9
전남	8.7	8.1	14.5	17.2	51.5	100.0 (520)	71.5
경북	13.1	15.7	24.4	13.9	32.9	100.0 (694)	60.0
경남	14.0	10.8	22.9	11.1	41.2	100.0 (692)	63.4
제주	20.2	18.2	15.7	15.0	30.9	100.0 (126)	55.1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소득은 작년 한 해(2019.1.1.~2019.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부표 Ⅲ-8-6〉 노인의 시·도별 소득원천별 보유 유무(응답 노인 외 가구원)

(단위: %, 명)

지역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연금 소득 ²⁾	기타소득	(명)
					공적연금	기초연금	기타공적급여			
전국 ¹⁾	35.3	10.4	24.5	92.2	21.2	44.5	11.2	55.7	7.2	(8,083)
서울	41.9	9.0	24.9	92.3	19.6	29.3	6.6	42.2	15.1	(1,519)
부산	27.7	5.2	25.1	88.8	22.7	46.0	13.3	55.4	6.3	(617)
대구	31.5	7.0	36.7	95.3	23.2	46.4	10.4	58.5	1.6	(384)
인천	51.5	9.6	26.3	96.5	16.4	42.2	11.6	51.0	5.1	(397)
광주	45.9	2.5	53.7	99.5	8.3	27.8	2.0	31.7	3.9	(204)
대전	30.1	7.8	21.4	85.4	22.9	48.3	19.5	58.5	5.4	(205)
울산	26.7	12.6	28.9	89.6	23.7	43.0	5.9	55.6	1.5	(135)
세종	21.9	12.5	15.6	84.4	31.3	46.9	12.5	59.4	12.5	(32)
경기	49.3	7.6	27.1	93.0	23.7	43.3	7.5	58.8	9.5	(1,744)
강원	18.4	23.2	8.9	80.2	29.1	65.5	14.3	75.7	1.7	(293)
충북	17.4	16.6	9.8	91.1	19.4	61.4	20.7	68.0	4.5	(246)
충남	28.1	15.1	12.5	88.0	10.3	51.5	19.5	59.3	3.5	(399)
전북	32.1	14.8	21.2	95.8	28.2	59.3	20.7	68.2	7.2	(359)
전남	24.7	6.7	48.2	99.5	7.2	29.3	1.5	32.4	1.0	(388)
경북	19.2	13.6	16.2	93.6	27.7	59.1	18.5	71.1	6.2	(529)
경남	18.7	17.5	10.4	90.0	22.3	59.2	15.9	66.4	1.1	(530)
제주	42.7	19.6	31.4	92.2	35.0	37.3	19.6	63.7	2.9	(102)

주: 1) 2019년 기준 소득이 있는 그 외 가구원 8,083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해(2019.1.1.~2019.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부표 III-8-7〉 노인의 시·도별 연간 총소득, 소득항목별 금액 및 구성비율(응답 노인 외 가구원)

(단위: 만원, %)

지역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사적연금 소득 ²⁾	기타소득	연 총소득	(명)
전국 ¹⁾	876.8	247.4	153.3	172.3	278.7	75.1	1.5	1,805.2	(8,083)
서울	1,006.6	282.6	147.6	191.9	183.2	177.2	0.1	1,989.3	(1,519)
부산	777.4	149.1	81.8	187.4	329.6	71.0	0.0	1,596.1	(617)
대구	711.7	179.7	96.8	178.3	312.4	23.3	0.0	1,502.3	(384)
인천	1,572.2	342.6	102.3	191.5	250.2	47.6	0.0	2,506.5	(397)
광주	2,018.1	50.5	113.1	181.6	126.4	56.9	0.0	2,546.5	(204)
대전	851.4	210.5	72.2	122.7	367.4	65.9	0.0	1,690.1	(205)
울산	1,033.0	247.3	47.9	157.9	322.3	14.8	0.0	1,823.1	(135)
세종	468.8	260.7	60.1	162.7	315.5	192.5	0.0	1,460.3	(32)
경기	1,228.7	292.8	406.8	162.9	254.9	57.7	0.0	2,403.8	(1,744)
강원	277.7	215.8	15.4	92.6	418.7	39.3	0.0	1,059.5	(293)
충북	411.0	233.2	33.5	161.1	375.2	70.0	0.0	1,284.0	(246)
충남	570.9	290.9	48.0	163.4	334.0	58.0	0.0	1,465.2	(399)
전북	399.5	285.4	38.3	148.5	360.7	53.3	0.0	1,285.8	(359)
전남	536.8	122.9	54.8	174.2	119.4	18.5	0.0	1,026.7	(388)
경북	400.6	183.6	33.2	242.1	372.5	70.2	0.0	1,302.3	(529)
경남	466.9	241.4	18.5	132.3	357.1	23.9	22.9	1,263.1	(530)
제주	748.7	551.0	359.6	165.2	413.9	42.2	0.0	2,280.6	(102)
〈구성비〉									
전국 ¹⁾	48.6	13.7	8.5	9.5	15.4	4.2	0.1	100.0	(8,083)
서울	50.6	14.2	7.4	9.6	9.2	8.9	0.0	100.0	(1,519)
부산	48.7	9.3	5.1	11.7	20.7	4.4	0.0	100.0	(617)
대구	47.4	12.0	6.4	11.9	20.8	1.6	0.0	100.0	(384)
인천	62.7	13.7	4.1	7.6	10.0	1.9	0.0	100.0	(397)
광주	79.2	2.0	4.4	7.1	5.0	2.2	0.0	100.0	(204)
대전	50.4	12.5	4.3	7.3	21.7	3.9	0.0	100.0	(205)
울산	56.7	13.6	2.6	8.7	17.7	0.8	0.0	100.0	(135)
세종	32.1	17.9	4.1	11.1	21.6	13.2	0.0	100.0	(32)
경기	51.1	12.2	16.9	6.8	10.6	2.4	0.0	100.0	(1,744)
강원	26.2	20.4	1.5	8.7	39.5	3.7	0.0	100.0	(293)
충북	32.0	18.2	2.6	12.5	29.2	5.5	0.0	100.0	(246)
충남	39.0	19.9	3.3	11.2	22.8	4.0	0.0	100.0	(399)
전북	31.1	22.2	3.0	11.5	28.1	4.1	0.0	100.0	(359)
전남	52.3	12.0	5.3	17.0	11.6	1.8	0.0	100.0	(388)
경북	30.8	14.1	2.5	18.6	28.6	5.4	0.0	100.0	(529)
경남	37.0	19.1	1.5	10.5	28.3	1.9	1.8	100.0	(530)
제주	32.8	24.2	15.8	7.2	18.1	1.9	0.0	100.0	(102)

주: 1) 2019년 기준 소득이 있는 그 외 가구원 8,083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사적연금소득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함.

3) 소득은 작년 한해(2019.1.1.~2019.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부표 Ⅲ-8-8〉 노인의 시·도별 가구소득 중 응답 노인 외 가구원 소득의 비중

(단위: %, 명)

지역	가구소득 20% 미만	가구소득 20~40%	가구소득 40~60%	가구소득 60~80%	가구소득 80~100%	계(명)	평균비중
전국 ¹⁾	17.9	12.0	21.7	12.0	36.4	100.0 (8,083)	48.9
서울	21.1	11.2	21.3	13.1	33.3	100.0 (1,519)	47.8
부산	21.3	10.9	24.2	9.5	34.2	100.0 (617)	44.9
대구	17.6	13.0	22.2	12.6	34.5	100.0 (384)	47.2
인천	12.4	9.6	19.1	16.9	42.1	100.0 (397)	57.2
광주	20.1	13.9	20.6	14.1	31.3	100.0 (204)	45.6
대전	15.4	9.1	24.2	9.5	41.9	100.0 (205)	53.7
울산	20.2	14.0	17.6	11.5	36.8	100.0 (135)	47.5
세종	15.9	12.1	21.4	12.3	38.3	100.0 (32)	52.3
경기	17.4	10.9	22.9	11.7	37.1	100.0 (1,744)	51.3
강원	12.4	13.2	24.7	12.7	37.0	100.0 (293)	50.8
충북	12.0	8.8	26.8	8.8	43.6	100.0 (246)	51.6
충남	17.2	8.8	21.5	10.8	41.8	100.0 (399)	53.7
전북	15.6	17.8	17.5	13.8	35.3	100.0 (359)	47.0
전남	27.2	16.9	14.3	9.2	32.3	100.0 (388)	36.6
경북	10.9	16.1	23.7	12.8	36.7	100.0 (529)	50.1
경남	19.6	11.1	22.0	10.0	37.3	100.0 (530)	46.1
제주	15.7	14.5	14.5	18.4	36.7	100.0 (102)	52.2

주: 1) 2019년 기준 소득이 있는 그 외 가구원 8,083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소득은 작년 한해(2019.1.1.~2019.12.31.)가 기준으로 가구형태 등의 항목들과 시점의 차이가 있음.

〈부표 Ⅲ-8-9〉 노인의 시·도별 부동산 보유 유무와 보유 부동산 규모

(단위: %, 명, 만원)

지역	보유 유무		계 (명)	부동산 규모
	있음	없음		
전국 ¹⁾	96.6	3.4	100.0 (10,097)	26,182.7
서울	96.9	3.1	100.0 (1,820)	5,2253.8
부산	97.8	2.2	100.0 (784)	2,1301.7
대구	96.8	3.2	100.0 (486)	2,3893.3
인천	93.3	6.7	100.0 (487)	2,4985.1
광주	95.7	4.3	100.0 (255)	1,7512.4
대전	93.5	6.5	100.0 (256)	2,0878.8
울산	98.9	1.1	100.0 (168)	2,1872.3
세종	97.4	3.0	100.0 (39)	4,1340.1
경기	98.1	1.9	100.0 (2,090)	2,8659.3
강원	90.9	9.1	100.0 (380)	1,1044.2
충북	96.0	4.0	100.0 (346)	1,4983.3
충남	98.9	1.1	100.0 (487)	1,5594.5
전북	95.4	4.6	100.0 (468)	1,3207.2
전남	97.7	2.3	100.0 (520)	1,3015.5
경북	95.0	5.0	100.0 (694)	1,1466.1
경남	99.1	0.9	100.0 (692)	1,3804.0
제주	81.2	18.8	100.0 (126)	5,0507.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I-8-10〉 노인의 시·도별 금융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금융자산 규모

(단위: %, 명, 만원)

지역	보유 유무		계 (명)	금융자산 규모
	있음	없음		
전국 ¹⁾	77.8	22.2	100.0 (10,097)	3,212.8
서울	83.2	16.8	100.0 (1,820)	4,339.9
부산	73.1	26.9	100.0 (784)	3,192.9
대구	87.5	12.5	100.0 (486)	5,065.5
인천	84.3	15.7	100.0 (487)	3,621.0
광주	91.7	8.3	100.0 (255)	4,705.4
대전	69.4	30.6	100.0 (256)	2,368.1
울산	63.9	36.1	100.0 (168)	2,757.3
세종	77.1	22.9	100.0 (39)	3,730.2
경기	80.4	19.6	100.0 (2,090)	3,377.8
강원	65.1	34.9	100.0 (380)	1,982.3
충북	57.5	42.5	100.0 (346)	1,405.3
충남	74.0	26.0	100.0 (487)	2,392.9
전북	85.5	14.5	100.0 (468)	2,684.2
전남	85.3	14.7	100.0 (520)	3,036.6
경북	74.1	25.9	100.0 (694)	1,788.2
경남	60.5	39.5	100.0 (692)	1,919.1
제주	93.7	6.3	100.0 (126)	4,219.7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I-8-11〉 노인의 시·도별 기타자산 보유 유무와 보유 기타자산 규모

(단위: %, 명, 만원)

지역	보유 유무		계 (명)	기타자산 규모
	있음	없음		
전국 ¹⁾	45.6	54.4	100.0 (10,097)	1,120.1
서울	47.0	53.0	100.0 (1,820)	1,909.3
부산	26.8	73.2	100.0 (784)	507.8
대구	67.9	32.1	100.0 (486)	1,038.0
인천	45.5	54.5	100.0 (487)	715.4
광주	48.3	51.7	100.0 (255)	849.6
대전	54.8	45.2	100.0 (256)	966.9
울산	24.5	75.5	100.0 (168)	539.8
세종	60.1	39.9	100.0 (39)	1,176.2
경기	48.3	51.7	100.0 (2,090)	1,559.9
강원	60.8	39.2	100.0 (380)	989.6
충북	39.4	60.6	100.0 (346)	637.9
충남	50.9	49.1	100.0 (487)	780.6
전북	41.8	58.2	100.0 (468)	741.1
전남	46.8	53.2	100.0 (520)	695.9
경북	45.4	54.6	100.0 (694)	588.5
경남	29.9	70.1	100.0 (692)	497.2
제주	60.3	39.7	100.0 (126)	2,273.7

주: 1) 기타자산 보유 유무는 전체응답자, 기타자산 규모는 무응답 118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부표 Ⅲ-8-12〉 노인의 시·도별 부채 보유 유무와 부채 규모

(단위: %, 명, 만원)

지역	보유 유무		계 (명)	부채 규모
	있음	없음		
전체 ¹⁾	27.1	72.9	100.0 (10,097)	1,892.8
서울	32.7	67.3	100.0 (1,820)	3,272.6
부산	15.0	85.0	100.0 (784)	1,168.4
대구	20.4	79.6	100.0 (486)	1,430.4
인천	24.5	75.5	100.0 (487)	2,256.1
광주	15.7	84.3	100.0 (255)	681.4
대전	16.7	83.3	100.0 (256)	1,115.6
울산	19.0	81.0	100.0 (168)	1,172.5
세종	23.1	75.9	100.0 (39)	1,498.6
경기	30.3	69.7	100.0 (2,090)	2,149.0
강원	29.6	70.4	100.0 (380)	1,216.6
충북	23.2	76.8	100.0 (346)	1,203.3
충남	30.3	69.7	100.0 (487)	1,395.9
전북	30.5	69.5	100.0 (468)	1,552.9
전남	21.6	78.4	100.0 (520)	1,035.7
경북	25.8	74.2	100.0 (694)	1,302.5
경남	32.3	67.7	100.0 (692)	1,492.0
제주	38.7	61.3	100.0 (126)	3,814.5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8-13〉 노인의 시·도별 월평균 가구소비지출 및 주거비지출 금액(대표 가구원 응답)

(단위: 만원, 명)

지역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월평균 주거비지출 금액	대상자 수
전국 ¹⁾	147.5	23.0	(10,097)
서울	201.5	26.1	(1,820)
부산	136.0	18.5	(784)
대구	138.3	20.1	(486)
인천	168.8	19.3	(487)
광주	146.2	28.9	(255)
대전	128.3	35.3	(256)
울산	142.3	22.0	(168)
세종	147.6	47.0	(39)
경기	156.4	20.6	(2,090)
강원	119.4	27.8	(380)
충북	110.0	31.7	(346)
충남	124.3	36.7	(487)
전북	131.2	19.8	(468)
전남	128.7	23.3	(520)
경북	99.9	12.4	(694)
경남	114.1	19.9	(692)
제주	153.7	21.2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지출은 작년 한해(2019.1.1.~2019.12.31.) 기준임.

〈부표 Ⅲ-8-14〉 노인의 시·도별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대표 가구원 응답)

(단위: %, 명)

지역	식비	주거관련비	보건의료비	월세	경조사비	기타 ²⁾	없음	계 (명)
전국 ¹⁾	46.6	22.3	10.9	2.2	1.6	5.9	10.5	100.0 (10,097)
서울	49.2	10.5	11.2	3.9	0.8	8.7	15.7	100.0 (1,820)
부산	60.1	18.0	5.4	2.2	2.6	2.4	9.1	100.0 (784)
대구	47.9	25.7	7.8	2.7	1.0	7.8	7.0	100.0 (486)
인천	60.1	16.4	9.8	2.5	0.4	4.1	6.5	100.0 (487)
광주	28.1	34.8	15.2	0.0	4.7	8.2	9.0	100.0 (255)
대전	40.0	29.4	8.5	1.9	2.2	5.8	12.0	100.0 (256)
울산	40.9	25.3	5.3	1.4	0.0	3.0	23.9	100.0 (168)
세종	42.1	28.9	5.3	5.3	0.0	7.9	10.5	100.0 (39)
경기	52.1	15.4	13.1	2.1	0.4	5.9	11.0	100.0 (2,090)
강원	40.4	43.8	2.0	2.9	0.8	2.2	7.8	100.0 (380)
충북	46.2	31.2	8.4	1.4	0.6	3.8	8.4	100.0 (346)
충남	35.8	30.9	11.7	1.6	0.5	6.7	12.8	100.0 (487)
전북	10.3	58.7	12.6	2.4	7.9	7.5	0.6	100.0 (468)
전남	15.6	47.7	20.4	0.6	5.0	5.8	5.0	100.0 (520)
경북	69.0	13.0	8.0	0.3	0.5	4.5	4.3	100.0 (694)
경남	45.6	17.8	13.2	1.6	0.1	4.9	16.8	100.0 (692)
제주	44.4	10.3	15.1	4.8	11.9	5.6	7.9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원이 응답한 결과임.

2) 기타는 교육비, 교통비, 간병돌봄비, 피복비, 부채상환, 통신비, 교양오락비, 가구·집기·사무용품, 기타를 합한 항목임.

〈부표 Ⅲ-8-15〉 노인의 시·도별 노인을 위한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

(단위: %, 만원, 명)

지역	지출유무				지출액				(명)
	보건의료비	간병돌봄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간병돌봄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전국 ¹⁾	92.6	3.7	57.9	52.0	9.4	1.6	6.9	7.6	(10,097)
서울	95.3	6.3	73.6	64.3	17.9	5.9	12.3	13.4	(1,820)
부산	89.8	1.3	51.7	53.1	4.9	0.2	4.6	3.7	(784)
대구	92.7	3.2	57.0	58.7	7.5	0.9	7.4	6.7	(486)
인천	96.1	2.2	49.6	51.2	11.6	0.3	5.5	5.7	(487)
광주	97.0	8.7	64.8	67.3	9.1	0.7	5.7	6.8	(255)
대전	85.3	1.7	33.8	31.2	6.4	0.3	3.4	5.0	(256)
울산	91.7	1.9	57.8	51.9	6.4	0.3	4.3	3.5	(168)
세종	87.1	0.3	55.1	43.6	4.6	0.1	4.4	3.0	(39)
경기	97.9	3.5	74.4	61.8	11.1	1.2	9.4	13.0	(2,090)
강원	85.4	0.8	34.8	19.7	5.0	0.2	3.8	3.2	(380)
충북	85.9	1.0	32.5	19.7	4.6	0.7	3.0	2.2	(346)
충남	88.5	2.1	35.0	25.4	5.0	0.6	3.2	2.2	(487)
전북	95.5	4.1	65.2	68.1	6.5	0.5	4.0	4.4	(468)
전남	98.8	7.7	68.1	61.3	8.3	0.7	5.1	5.6	(520)
경북	79.5	2.7	28.4	13.8	3.5	0.7	2.5	1.5	(694)
경남	88.1	2.7	46.1	55.9	5.2	0.4	3.8	2.9	(692)
제주	92.2	3.2	48.3	75.0	9.8	0.9	10.7	12.7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다만, 보건의료비 금액은 무응답 1명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지출은 작년 한해(2019.1.1.~2019.12.31.) 기준임.

〈부표 Ⅲ-8-16〉 노인의 시·도별 노인을 위한 월평균 지출액(지출 경험이 있는 노인의 평균)

(단위: 만원, 명)

지역	지출노인의 지출액				지출노인 수(명)			
	보건의료비	간병돌봄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간병돌봄비	문화여가비	경조사비
전국 ¹⁾	10.1	44.0	11.9	14.6	(9,347)	(373)	(5,842)	(5,250)
서울	18.7	93.3	16.7	20.8	(1,735)	(115)	(1,340)	(1,171)
부산	5.5	15.8	8.8	6.9	(704)	(10) ²⁾	(405)	(416)
대구	8.1	29.0	12.9	11.4	(450)	(16) ²⁾	(277)	(285)
인천	12.0	14.9	11.0	11.1	(468)	(11) ²⁾	(242)	(249)
광주	9.4	8.1	8.8	10.1	(247)	(22) ²⁾	(165)	(172)
대전	7.6	18.5	10.1	16.0	(218)	(4) ²⁾	(86)	(80)
울산	6.9	18.1	7.4	6.8	(154)	(3) ²⁾	(97)	(87)
세종	5.3	18.0	7.9	7.0	(34)	(0) ²⁾	(22) ²⁾	(17) ²⁾
경기	11.3	33.2	12.6	20.9	(2,045)	(74)	(1,556)	(1,292)
강원	5.9	22.2	10.8	16.3	(325)	(3) ²⁾	(132)	(75)
충북	5.3	70.7	9.2	11.4	(297)	(3) ²⁾	(113)	(68)
충남	5.6	28.1	9.1	8.6	(431)	(10) ²⁾	(171)	(124)
전북	6.8	11.8	6.1	6.4	(447)	(19) ²⁾	(305)	(318)
전남	8.3	9.7	7.4	9.1	(514)	(40)	(354)	(318)
경북	4.4	27.2	8.6	10.5	(551)	(19) ²⁾	(197)	(96)
경남	5.9	13.9	8.3	5.2	(609)	(19) ²⁾	(319)	(387)
제주	10.7	29.0	22.1	16.9	(116)	(4) ²⁾	(61)	(95)

주: 1) 전체응답자 중 항목별로 지출이 있었던 노인을 대상으로, 평균 지출액을 계산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 3) 지출은 작년 한해(2019.1.1.~2019.12.31.) 기준임.

〈부표 Ⅲ-8-17〉 노인의 시·도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단위: %, 명)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만	그 외	계 (명)
전국 ¹⁾	4.6	2.4	92.9	100.0 (10,097)
서울	3.6	2.8	93.6	100.0 (1,820)
부산	6.3	1.1	92.6	100.0 (784)
대구	4.1	1.0	94.9	100.0 (486)
인천	4.9	0.8	94.3	100.0 (487)
광주	5.6	4.4	90.0	100.0 (255)
대전	4.4	1.6	94.0	100.0 (256)
울산	1.5	1.3	97.2	100.0 (168)
세종	0.0	2.6	97.4	100.0 (39)
경기	5.7	4.7	89.6	100.0 (2,090)
강원	1.9	0.8	97.3	100.0 (380)
충북	2.5	0.6	96.9	100.0 (346)
충남	3.1	2.6	94.3	100.0 (487)
전북	4.7	2.2	93.1	100.0 (468)
전남	8.0	3.3	88.7	100.0 (520)
경북	6.0	0.5	93.5	100.0 (694)
경남	2.8	1.5	95.7	100.0 (692)
제주	5.3	1.1	93.6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9-1〉 노인의 시·도별 경제활동 실태

(단위: %, 명)

지역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한 경험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계 (명)
전국 ¹⁾	36.9	49.5	13.6	100.0 (10,097)
서울	37.4	48.3	14.3	100.0 (1,820)
부산	25.2	54.6	20.2	100.0 (784)
대구	32.0	51.4	16.6	100.0 (486)
인천	34.3	54.3	11.4	100.0 (487)
광주	38.2	41.5	20.3	100.0 (255)
대전	23.7	55.2	21.1	100.0 (256)
울산	29.4	54.0	16.6	100.0 (168)
세종	30.8	56.4	11.8	100.0 (39)
경기	44.2	46.4	9.5	100.0 (2,090)
강원	35.4	53.3	11.3	100.0 (380)
충북	22.9	63.7	13.4	100.0 (346)
충남	37.1	49.8	13.2	100.0 (487)
전북	46.7	43.3	10.0	100.0 (468)
전남	54.9	30.5	14.6	100.0 (520)
경북	30.3	55.1	14.6	100.0 (694)
경남	30.6	54.9	14.4	100.0 (692)
제주	48.4	48.4	3.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9-2〉 노인의 시·도별 종사 직종

(단위: %, 명)

지역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 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 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군인	계 (명)
전국 ¹⁾	8.8	2.0	1.1	12.2	4.7	13.5	5.6	3.2	48.7	0.3	100.0 (3,725)
서울	18.1	3.0	1.6	18.6	6.5	0.0	7.4	5.4	39.3	0.0	100.0 (680)
부산	7.5	1.8	1.5	18.7	7.2	1.6	11.7	7.0	43.0	0.0	100.0 (197)
대구	13.1	2.4	1.2	15.3	6.0	2.2	10.8	3.1	45.9	0.0	100.0 (156)
인천	7.9	3.1	0.0	14.4	3.8	5.4	4.3	4.9	56.0	0.0	100.0 (167)
광주	14.1	2.7	1.0	17.7	3.0	7.1	5.0	3.8	45.7	0.0	100.0 (98)
대전	1.7	5.0	3.3	10.0	6.7	6.7	11.7	1.7	53.3	0.0	100.0 (61)
울산	11.8	2.0	2.0	17.6	7.8	2.0	7.8	5.9	43.1	0.0	100.0 (50)
세종	7.7	7.7	0.0	15.4	7.7	0.0	15.4	0.0	46.2	0.0	100.0 (12) ²⁾
경기	8.2	1.1	0.9	13.6	5.1	4.8	5.0	3.5	56.8	1.0	100.0 (923)
강원	4.8	2.1	0.4	5.1	3.7	47.9	2.9	0.7	32.4	0.0	100.0 (135)
충북	9.1	0.0	1.3	7.8	3.9	35.1	1.3	0.0	41.6	0.0	100.0 (79)
충남	0.5	1.5	0.6	5.2	0.6	24.7	3.1	1.2	62.7	0.0	100.0 (181)
전북	4.9	3.2	0.9	3.9	1.8	30.8	3.4	1.7	49.0	0.4	100.0 (218)
전남	5.0	0.1	0.4	3.2	1.5	24.1	5.5	0.0	59.6	0.4	100.0 (286)
경북	4.1	1.1	1.2	12.9	2.9	38.5	1.4	2.7	35.2	0.0	100.0 (210)
경남	3.4	2.8	0.8	5.4	7.0	28.0	4.6	0.5	47.5	0.0	100.0 (212)
제주	3.3	3.3	1.6	13.1	1.6	29.5	3.3	1.6	42.6	0.0	100.0 (61)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 2) 실수가 작아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3〉 노인의 시·도별 일의 내용

(단위: %, 명)

지역	농림어업	경비, 수위, 청소	가사, 조리, 음식	운송, 건설 관련 ²⁾	공공 환경 관련 ³⁾	기타 ⁴⁾	계 (명)
전국 ¹⁾	20.6	25.7	13.8	18.7	10.0	11.2	100.0 (3,725)
서울	0.2	21.5	20.5	33.3	6.4	18.1	100.0 (680)
부산	0.8	32.0	20.3	25.6	4.6	16.6	100.0 (197)
대구	4.0	18.4	22.5	27.9	10.6	16.7	100.0 (156)
인천	12.0	32.3	17.3	22.8	8.7	6.8	100.0 (167)
광주	7.1	34.7	17.2	24.8	10.8	5.4	100.0 (98)
대전	9.8	31.1	16.4	19.7	9.8	13.1	100.0 (61)
울산	2.0	30.0	20.0	28.0	6.0	14.0	100.0 (50)
세종	16.7	16.7	25.0	8.3	0.0	33.3	100.0 (12) ²⁾
경기	8.0	26.7	14.8	17.5	22.3	10.8	100.0 (923)
강원	49.3	23.6	4.4	8.4	4.0	10.3	100.0 (135)
충북	47.8	19.8	6.7	8.8	4.6	12.3	100.0 (79)
충남	53.3	27.1	6.8	4.4	3.5	4.9	100.0 (181)
전북	36.2	32.8	6.7	10.7	6.8	6.9	100.0 (218)
전남	54.4	24.0	6.3	7.4	3.6	4.2	100.0 (286)
경북	38.8	27.2	7.7	10.9	6.9	8.5	100.0 (210)
경남	51.2	19.3	7.5	12.4	1.6	8.0	100.0 (212)
제주	40.2	23.8	9.9	12.6	5.0	8.5	100.0 (61)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운전·운송, 택배·배달, 건설·기계, 생산작업, 현장관리가 해당됨.

3) 환경조경, 공공질서유지, 폐휴지 줍기가 포함됨. / 4) 전문직, 행정사무직, 문화예술, 기타가 해당됨.

5)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4〉 노인의 시·도별 현재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지역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 (명)
전국 ¹⁾	18.4	21.2	15.2	4.3	33.4	7.4	100.0 (3,725)
서울	28.2	24.8	8.7	10.1	26.0	2.2	100.0 (680)
부산	26.3	24.8	11.8	5.8	27.6	3.7	100.0 (197)
대구	25.9	26.5	14.6	4.8	26.5	1.7	100.0 (156)
인천	14.3	34.6	15.9	4.0	26.1	5.2	100.0 (167)
광주	26.6	20.3	21.5	2.9	27.9	0.8	100.0 (98)
대전	18.0	36.1	8.2	1.6	31.1	4.9	100.0 (61)
울산	21.6	11.8	21.6	3.9	29.4	11.8	100.0 (50)
세종	16.7	8.3	8.3	8.3	41.7	16.7	100.0 (12) ²⁾
경기	18.1	22.2	28.6	2.8	24.1	4.1	100.0 (923)
강원	14.7	19.1	6.6	0.7	40.4	18.4	100.0 (135)
충북	21.8	6.2	2.6	6.3	45.4	17.7	100.0 (79)
충남	12.2	14.5	1.3	2.0	43.0	27.1	100.0 (181)
전북	6.6	24.8	16.8	2.7	42.5	6.7	100.0 (218)
전남	9.2	10.5	19.4	1.8	53.7	5.4	100.0 (286)
경북	15.9	19.6	1.4	3.3	44.3	15.5	100.0 (210)
경남	11.5	9.3	10.0	2.7	51.0	15.5	100.0 (212)
제주	8.2	31.1	4.9	4.9	36.1	14.8	100.0 (61)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5〉 노인의 시·도별 정부지원일자리 참여여부

(단위: %, 명)

지역	예	아니오	계 (명)
전국 ¹⁾	41.8	58.2	100.0 (2,045)
서울	23.4	76.6	100.0 (420)
부산	15.0	85.0	100.0 (124)
대구	31.7	68.3	100.0 (104)
인천	50.1	49.9	100.0 (108)
광주	44.6	55.4	100.0 (67)
대전	35.7	64.3	100.0 (38)
울산	25.9	74.1	100.0 (27) ²⁾
세종	60.0	40.0	100.0 (5) ²⁾
경기	50.5	49.5	100.0 (637)
강원	49.0	51.0	100.0 (54)
충북	24.0	76.0	100.0 (24) ²⁾
충남	35.2	64.8	100.0 (50)
전북	77.2	22.8	100.0 (105)
전남	62.0	38.0	100.0 (112)
경북	52.5	47.5	100.0 (78)
경남	30.5	69.5	100.0 (65)
제주	59.3	40.7	100.0 (27) ²⁾

주: 1) 전체응답자 중 임금근로자 2,04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6〉 노인의 시·도별 현재 근무장소 형태

(단위: %, 명)

지역	사업체 아님(농림 어업)	개인 사업체	민간 회사	공공 기관	비영리, 시민, 종교단체	특정사업 미소속	미등록 사업장	계 (명)
전국 ¹⁾	21.3	31.6	20.8	20.4	1.8	2.6	1.5	100.0 (3,725)
서울	1.0	51.6	31.4	9.1	1.7	2.5	2.6	100.0 (680)
부산	4.1	46.1	35.8	9.3	1.1	3.2	0.5	100.0 (197)
대구	3.3	40.4	27.8	24.9	0.5	2.0	1.1	100.0 (156)
인천	10.7	26.9	18.5	30.8	4.1	5.4	3.6	100.0 (167)
광주	10.6	33.3	22.6	27.0	5.2	1.3	0.0	100.0 (98)
대전	9.8	32.8	23.0	21.3	1.6	9.8	1.6	100.0 (61)
울산	2.0	44.0	34.0	14.0	0.0	2.0	4.0	100.0 (50)
세종	15.4	47.2	9.4	20.9	1.6	3.7	1.6	100.0 (12) ²⁾
경기	8.3	31.5	25.9	29.2	1.3	2.9	0.9	100.0 (923)
강원	48.6	14.9	13.4	19.9	0.8	1.6	0.9	100.0 (135)
충북	49.4	19.8	16.3	5.4	1.5	4.8	2.7	100.0 (79)
충남	68.4	11.2	5.3	9.3	3.7	1.9	0.2	100.0 (181)
전북	37.5	15.8	3.4	35.6	1.9	4.7	1.2	100.0 (218)
전남	46.3	20.9	5.4	25.3	0.8	0.1	1.1	100.0 (286)
경북	41.5	22.0	12.1	18.8	1.4	2.2	1.9	100.0 (210)
경남	50.0	22.7	15.6	9.6	1.4	0.0	0.7	100.0 (212)
제주	39.3	21.3	3.3	21.3	9.8	3.3	1.6	100.0 (61)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7〉 노인의 시·도별 주당 근무일수

(단위: %, 명)

지역	2일 이하	3일	4일	5일	6일	7일	계 (명)
전국 ¹⁾	3.4	14.7	6.3	41.5	24.1	10.0	100.0 (3,725)
서울	1.1	6.2	4.5	53.7	30.2	4.3	100.0 (680)
부산	2.8	8.2	4.2	43.9	35.9	5.0	100.0 (197)
대구	11.1	17.8	4.2	28.3	32.7	5.9	100.0 (156)
인천	6.9	31.4	5.2	34.9	13.0	8.6	100.0 (167)
광주	2.1	18.6	8.2	45.4	18.6	7.2	100.0 (98)
대전	5.0	21.7	6.7	31.7	23.3	11.7	100.0 (61)
울산	2.0	12.2	12.2	34.7	28.6	10.2	100.0 (50)
세종	8.3	16.7	8.3	33.3	25.0	8.3	100.0 (12) ²⁾
경기	3.9	17.2	7.7	42.4	20.1	8.6	100.0 (923)
강원	0.7	20.0	3.5	26.2	34.4	15.3	100.0 (135)
충북	1.3	8.9	3.8	35.4	34.2	16.5	100.0 (79)
충남	2.3	4.9	7.1	38.7	27.9	19.0	100.0 (181)
전북	3.3	37.0	3.7	32.1	18.2	5.7	100.0 (218)
전남	0.6	8.4	10.8	55.1	16.7	8.3	100.0 (286)
경북	6.8	10.5	4.0	38.0	18.2	22.6	100.0 (210)
경남	4.2	13.2	8.3	25.0	27.2	22.2	100.0 (212)
제주	6.6	26.2	6.6	32.8	9.8	18.0	100.0 (61)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8〉 노인의 시·도별 주당 근무시간

(단위: %, 명)

지역	10시간 미만	10-19시간	20-29시간	30-39시간	40-49시간	50시간이상	계 (명)
전국 ¹⁾	22.2	16.3	7.2	12.1	26.8	15.5	100.0 (3,725)
서울	17.1	11.1	9.3	8.4	36.1	18.1	100.0 (680)
부산	19.3	13.0	6.1	4.6	46.8	10.1	100.0 (197)
대구	34.3	9.7	2.9	6.5	26.9	19.7	100.0 (156)
인천	41.3	10.9	7.1	10.3	16.9	13.5	100.0 (167)
광주	11.4	18.6	8.1	8.5	25.7	27.6	100.0 (98)
대전	26.2	16.4	3.3	8.2	26.2	19.7	100.0 (61)
울산	22.0	10.0	2.0	4.0	32.0	30.0	100.0 (50)
세종	36.4	18.2	0.0	18.2	9.1	18.2	100.0 (12) ²⁾
경기	16.2	27.4	4.7	7.7	28.1	15.8	100.0 (923)
강원	21.0	9.0	6.4	21.4	27.2	15.0	100.0 (135)
충북	31.0	5.4	13.6	16.3	22.5	11.2	100.0 (79)
충남	30.5	15.7	12.6	17.5	14.3	9.4	100.0 (181)
전북	38.3	16.6	8.2	16.0	13.1	7.8	100.0 (218)
전남	12.5	19.4	3.0	26.7	20.2	18.2	100.0 (286)
경북	28.3	9.8	11.1	19.7	17.0	14.1	100.0 (210)
경남	24.3	8.6	9.5	16.2	28.1	13.4	100.0 (212)
제주	31.1	18.0	14.8	11.5	16.4	8.2	100.0 (61)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9〉 노인의 시·도별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명)

지역	1-29만원	30-49만원	50-99만원	100-149만원	150만원 이상	계 (명)
전국 ¹⁾	15.7	9.4	13.0	14.0	47.9	100.0 (3,725)
서울	8.0	1.0	12.7	11.3	67.0	100.0 (680)
부산	5.6	5.1	6.4	17.7	65.2	100.0 (197)
대구	26.0	4.0	5.7	7.4	57.0	100.0 (156)
인천	26.3	7.6	10.6	10.7	44.8	100.0 (167)
광주	6.0	23.7	7.0	8.9	54.4	100.0 (98)
대전	24.6	4.9	4.9	13.1	52.5	100.0 (61)
울산	14.0	6.0	8.0	14.0	58.0	100.0 (50)
세종	25.0	0.0	8.3	16.7	50.0	100.0 (12) ²⁾
경기	10.7	16.1	12.0	12.1	49.2	100.0 (923)
강원	28.7	1.4	25.6	13.4	31.0	100.0 (135)
충북	19.7	2.8	14.3	23.1	40.1	100.0 (79)
충남	20.8	3.3	15.8	24.4	35.7	100.0 (181)
전북	43.1	11.2	13.5	11.6	20.7	100.0 (218)
전남	6.5	23.7	19.3	19.3	31.1	100.0 (286)
경북	33.6	4.2	16.6	14.9	30.7	100.0 (210)
경남	7.8	10.5	15.3	20.2	46.1	100.0 (212)
제주	22.8	3.5	17.5	14.0	42.1	100.0 (61)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10〉 노인의 시·도별 현직업의 종사기간

(단위: %, 명)

지역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계 (명)
전국 ¹⁾	30.1	13.5	16.1	13.5	26.9	100.0 (3,725)
서울	24.1	14.7	25.1	19.1	17.1	100.0 (680)
부산	27.2	19.6	28.4	13.8	11.1	100.0 (197)
대구	31.0	9.3	21.0	16.5	22.2	100.0 (156)
인천	45.4	13.1	13.5	12.1	15.9	100.0 (167)
광주	35.2	13.6	14.7	18.0	18.5	100.0 (98)
대전	38.7	12.9	11.3	4.8	32.3	100.0 (61)
울산	22.0	16.0	24.0	26.0	12.0	100.0 (50)
세종	25.0	8.3	16.7	8.3	41.7	100.0 (12) ²⁾
경기	40.6	18.7	17.6	11.2	12.0	100.0 (923)
강원	30.3	10.6	7.1	9.0	43.0	100.0 (135)
충북	15.0	8.5	14.5	15.9	46.1	100.0 (79)
충남	13.8	10.0	8.7	6.8	60.7	100.0 (181)
전북	37.6	8.6	8.9	5.3	39.6	100.0 (218)
전남	27.1	2.1	4.5	20.4	45.9	100.0 (286)
경북	19.0	15.7	12.2	11.8	41.2	100.0 (210)
경남	17.5	10.2	8.5	11.5	52.3	100.0 (212)
제주	29.0	11.3	12.9	6.5	40.3	100.0 (61)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11〉 노인의 시·도별 현재 일을 하는 이유

(단위: %, 명)

지역	생계비 마련	용돈 마련	건강 유지	친교 사교	시간 보내기	능력 발휘	사회 기여	기타	계 (명)
전국 ¹⁾	73.9	7.9	8.3	1.7	3.9	3.6	0.5	0.2	100.0 (3,712)
서울	64.6	6.8	11.9	3.3	3.6	9.6	0.1	0.2	100.0 (679)
부산	83.4	5.3	6.7	1.7	0.9	0.7	0.6	0.6	100.0 (197)
대구	76.5	12.0	3.5	2.2	0.0	5.8	0.0	0.0	100.0 (156)
인천	79.2	7.1	6.5	3.6	2.4	0.6	0.0	0.6	100.0 (167)
광주	65.6	15.1	10.1	4.4	0.7	4.1	0.0	0.0	100.0 (98)
대전	73.3	6.7	5.0	1.7	10.0	3.3	0.0	0.0	100.0 (60)
울산	76.0	10.0	4.0	2.0	0.0	6.0	2.0	0.0	100.0 (50)
세종	90.9	0.0	0.0	0.0	9.1	0.0	0.0	0.0	100.0 (12)
경기	74.2	4.7	12.3	1.4	4.4	2.1	0.9	0.0	100.0 (920)
강원	71.5	14.0	3.6	0.9	9.5	0.0	0.5	0.0	100.0 (135)
충북	73.2	7.9	4.3	0.0	13.8	0.8	0.0	0.0	100.0 (79)
충남	65.4	14.9	4.8	1.8	9.1	2.4	1.0	0.5	100.0 (180)
전북	69.4	14.9	10.3	0.4	2.4	1.8	0.2	0.6	100.0 (216)
전남	81.4	9.6	5.9	1.6	0.2	1.0	0.2	0.0	100.0 (286)
경북	76.6	9.1	3.3	0.3	6.0	4.0	0.6	0.0	100.0 (208)
경남	89.2	1.4	3.3	0.0	2.8	3.3	0.0	0.0	100.0 (212)
제주	81.7	8.3	1.7	0.0	5.0	1.7	1.7	0.0	100.0 (60)

주: 1)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12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12〉 노인의 시·도별 현재 일자리 만족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하는 편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 편	전혀 만족하지 않음	계 (명)
전국 ¹⁾	13.9	56.3	24.5	4.7	0.7	100.0 (3,712)
서울	11.6	63.5	22.5	2.0	0.3	100.0 (679)
부산	3.3	69.0	25.2	2.5	0.0	100.0 (197)
대구	18.7	59.8	20.1	1.4	0.0	100.0 (156)
인천	7.6	42.5	36.8	12.2	1.0	100.0 (167)
광주	20.1	61.5	15.6	2.9	0.0	100.0 (98)
대전	18.6	55.9	16.9	8.5	0.0	100.0 (60)
울산	2.0	60.0	32.0	6.0	0.0	100.0 (50)
세종	15.4	53.8	23.1	7.7	0.0	100.0 (12)
경기	14.8	49.9	30.4	4.1	0.9	100.0 (920)
강원	19.4	48.9	27.1	3.6	1.0	100.0 (135)
충북	13.9	55.7	26.6	3.8	0.0	100.0 (79)
충남	12.8	40.9	17.8	24.0	4.6	100.0 (180)
전북	16.6	65.9	13.8	3.7	0.0	100.0 (216)
전남	23.5	59.2	14.9	2.0	0.4	100.0 (286)
경북	15.9	52.9	28.9	2.2	0.0	100.0 (208)
경남	5.0	60.1	29.0	5.4	0.5	100.0 (212)
제주	20.0	63.3	13.3	3.3	0.0	100.0 (60)

주: 1)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12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I-9-13〉 노인의 시·도별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지역	낮은 급여수준	건강상태와 맞지 않음	일의 내용	기타 ²⁾	계 (명)
전국 ¹⁾	47.2	15.3	24.2	13.3	100.0 (197)
서울	87.5	0.0	0.0	12.5	100.0 (16) ³⁾
부산	80.0	0.0	20.0	0.0	100.0 (5) ³⁾
대구	50.0	0.0	0.0	50.0	100.0 (2) ³⁾
인천	36.4	9.1	18.2	36.4	100.0 (22) ³⁾
광주	33.3	66.7	0.0	0.0	100.0 (3) ³⁾
대전	60.0	20.0	20.0	0.0	100.0 (5) ³⁾
울산	100.0	0.0	0.0	0.0	100.0 (3) ³⁾
세종	100.0	0.0	0.0	0.0	100.0 (1) ³⁾
경기	40.0	11.1	22.2	26.7	100.0 (46)
강원	57.1	28.6	14.3	0.0	100.0 (6) ³⁾
충북	33.3	33.3	33.3	0.0	100.0 (3) ³⁾
충남	26.9	21.2	50.0	1.9	100.0 (51)
전북	37.5	37.5	12.5	12.5	100.0 (8) ³⁾
전남	42.9	42.9	14.3	0.0	100.0 (7) ²⁾
경북	60.0	20.0	20.0	0.0	100.0 (5) ³⁾
경남	84.6	15.4	0.0	0.0	100.0 (13) ³⁾
제주	50.0	0.0	0.0	50.0	100.0 (2) ³⁾

주: 1) 현재 일하고 있는 본인응답자 중 현재 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9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기타: 불안정한 일자리, 근로시간, 대인관계 등을 합한 값임.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I-9-14〉 노인의 시·도별 현재 일의 최장기 직업 여부

(단위: %, 명)

지역	예	아니오	계 (명)
전국 ¹⁾	61.0	39.0	100.0 (3,725)
서울	66.5	33.5	100.0 (680)
부산	58.1	41.9	100.0 (197)
대구	65.1	34.9	100.0 (156)
인천	46.4	53.6	100.0 (167)
광주	56.4	43.6	100.0 (98)
대전	60.6	39.4	100.0 (61)
울산	59.8	40.2	100.0 (50)
세종	76.9	23.1	100.0 (12) ²⁾
경기	48.4	51.6	100.0 (923)
강원	67.0	33.0	100.0 (135)
충북	77.1	22.9	100.0 (79)
충남	80.9	19.1	100.0 (181)
전북	55.0	45.0	100.0 (218)
전남	75.2	24.8	100.0 (286)
경북	67.7	32.3	100.0 (210)
경남	68.0	32.0	100.0 (212)
제주	50.8	49.2	100.0 (61)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3,72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15〉 노인의 시·도별 최장기 직업의 직종

(단위: %, 명)

지역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 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 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군인	계 (명)
전국 ¹⁾	16.4	4.4	4.0	14.3	6.7	14.0	9.6	4.1	26.2	0.5	100.0 (8,724)
서울	24.1	6.1	5.6	18.8	10.4	1.3	9.8	4.5	19.1	0.3	100.0 (1,560)
부산	19.8	5.1	6.3	15.9	6.5	1.4	16.4	7.0	21.0	0.5	100.0 (625)
대구	18.5	4.5	3.8	15.6	12.4	5.7	16.7	4.3	18.3	0.2	100.0 (405)
인천	18.3	5.6	2.2	18.4	5.2	6.2	15.8	5.4	22.5	0.4	100.0 (432)
광주	24.9	4.0	1.3	22.0	4.6	14.3	7.5	2.4	19.0	0.0	100.0 (203)
대전	19.8	4.9	3.3	13.3	7.0	8.3	8.7	2.5	30.7	1.5	100.0 (202)
울산	14.7	4.0	5.1	14.6	5.9	4.5	14.2	10.0	26.8	0.0	100.0 (140)
세종	17.1	8.6	5.7	14.3	8.6	8.6	5.7	2.9	28.6	0.0	100.0 (34)
경기	16.1	3.9	4.5	16.4	7.0	7.3	9.7	5.1	29.6	0.4	100.0 (1,892)
강원	13.5	3.1	1.5	8.6	6.4	44.6	6.7	1.4	12.8	1.4	100.0 (337)
충북	13.1	3.5	3.8	10.5	4.3	27.7	2.3	1.0	33.2	0.5	100.0 (300)
충남	7.9	3.8	2.5	10.8	0.7	21.1	5.2	2.2	44.5	1.2	100.0 (423)
전북	8.4	7.0	2.0	8.7	4.8	31.1	7.9	4.3	25.4	0.4	100.0 (421)
전남	12.1	1.7	0.5	6.4	1.9	27.0	3.7	0.4	46.4	0.0	100.0 (444)
경북	9.4	2.4	6.6	11.1	6.0	36.7	5.2	4.4	17.7	0.4	100.0 (592)
경남	13.6	2.4	2.4	8.4	5.5	21.4	11.1	2.2	32.4	0.6	100.0 (592)
제주	9.1	6.6	3.2	13.5	3.5	27.8	4.3	3.3	28.4	0.2	100.0 (123)

주: 1) 전체응답자 중 최장기 직업이 있는 8,72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9-16〉 노인의 시·도별 최장기 직업의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지역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계 (명)
전국 ¹⁾	37.4	9.4	7.5	5.6	31.1	9.1	100.0 (8,724)
서울	45.4	13.7	7.5	10.2	21.0	2.2	100.0 (1,560)
부산	53.1	8.9	9.8	4.1	22.8	1.2	100.0 (625)
대구	44.4	7.5	11.6	3.6	29.1	3.9	100.0 (405)
인천	37.8	10.8	9.9	8.1	27.3	6.0	100.0 (432)
광주	39.3	12.0	9.9	3.1	29.0	6.7	100.0 (203)
대전	38.9	15.0	5.7	5.2	31.7	3.4	100.0 (202)
울산	50.4	6.7	12.8	3.7	21.9	4.7	100.0 (140)
세종	40.0	5.7	2.9	5.7	31.4	14.3	100.0 (34)
경기	39.4	11.5	7.9	5.3	30.7	5.2	100.0 (1,892)
강원	30.4	3.0	3.4	2.4	39.3	21.5	100.0 (337)
충북	33.2	8.6	2.9	4.0	32.9	18.5	100.0 (300)
충남	28.3	9.2	2.0	2.9	35.8	21.9	100.0 (423)
전북	21.6	6.4	11.1	6.6	37.8	16.5	100.0 (421)
전남	16.6	6.8	9.1	3.4	52.0	12.2	100.0 (444)
경북	30.8	3.6	2.9	3.2	37.7	21.9	100.0 (592)
경남	32.4	4.6	7.1	4.1	37.1	14.7	100.0 (592)
제주	23.2	5.9	9.8	11.4	35.3	14.4	100.0 (123)

주: 1) 전체응답자 중 최장기 직업이 있는 8,72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9-17〉 노인의 시·도별 최장기 직종의 종사기간

(단위: %, 명)

지역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40년 미만	40년 이상	계 (명)
전국 ¹⁾	4.0	7.8	22.8	23.4	23.9	18.1	100.0 (8,724)
서울	4.9	9.2	28.4	27.1	22.3	8.1	100.0 (1,560)
부산	1.8	9.3	29.4	28.3	26.2	5.0	100.0 (625)
대구	4.7	6.4	24.0	26.4	25.2	13.3	100.0 (405)
인천	7.4	11.6	27.5	23.6	16.9	13.0	100.0 (432)
광주	4.0	4.0	19.3	34.7	29.7	8.4	100.0 (203)
대전	7.9	6.9	20.2	20.2	24.1	20.7	100.0 (202)
울산	.7	3.6	22.9	41.4	24.3	7.1	100.0 (140)
세종	2.9	2.9	29.4	20.6	23.5	20.6	100.0 (34)
경기	4.4	11.7	30.5	21.0	18.9	13.5	100.0 (1,892)
강원	2.1	3.3	15.7	20.2	33.8	24.9	100.0 (337)
충북	1.3	4.7	18.7	19.0	23.7	32.7	100.0 (300)
충남	3.5	5.9	14.4	12.8	29.1	34.3	100.0 (423)
전북	3.1	8.3	15.2	15.2	27.6	30.6	100.0 (421)
전남	8.6	1.4	5.6	27.7	32.9	23.9	100.0 (444)
경북	1.4	4.2	13.0	23.2	28.6	29.6	100.0 (592)
경남	1.9	5.8	15.6	22.3	21.0	33.5	100.0 (592)
제주	1.6	4.1	16.4	17.2	22.1	38.5	100.0 (123)

주: 1) 전체응답자 중 최장기 직업이 있는 8,72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9-18〉 노인의 시·도별 최장기 직종을 그만둔 이유

(단위: %, 명)

지역	정년 퇴직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휴업	가사 문제	근로조건/환경이 나빠서	이직, 창업	일할 필요가 없어서	기타	계 (명)
전국 ¹⁾	24.6	35.7	16.9	6.7	7.8	3.5	4.4	0.4	100.0 (6,451)
서울	27.9	30.4	20.7	8.1	6.6	1.4	4.2	0.7	100.0 (1,107)
부산	33.0	33.2	16.4	5.7	7.8	2.0	1.6	0.3	100.0 (511)
대구	29.8	30.1	22.3	4.3	7.4	1.1	4.7	0.5	100.0 (304)
인천	21.8	35.0	22.9	6.3	7.1	3.9	1.7	1.4	100.0 (354)
광주	26.0	43.9	7.7	5.6	10.9	0.8	5.1	0.0	100.0 (148)
대전	26.2	39.2	18.3	2.3	8.3	0.4	4.4	0.9	100.0 (165)
울산	45.0	36.0	8.1	3.6	3.6	1.8	0.9	0.9	100.0 (111)
세종	32.0	28.0	28.0	8.0	0.0	0.0	4.0	0.0	100.0 (24) ²⁾
경기	21.9	28.7	16.3	10.0	9.8	9.9	3.1	0.3	100.0 (1,445)
강원	21.5	38.2	22.3	2.0	8.8	0.6	6.6	0.0	100.0 (247)
충북	19.6	48.6	8.2	6.6	8.2	0.6	7.7	0.6	100.0 (239)
충남	24.7	37.0	18.2	3.9	7.5	0.4	8.2	0.0	100.0 (277)
전북	15.4	39.9	20.7	7.4	10.0	4.0	2.6	0.0	100.0 (301)
전남	16.9	66.0	2.6	2.1	8.0	0.0	4.5	0.0	100.0 (229)
경북	22.8	34.2	20.1	4.8	3.5	1.4	13.0	0.2	100.0 (450)
경남	26.1	46.8	7.1	6.4	8.4	1.8	3.2	0.3	100.0 (448)
제주	16.7	45.6	20.0	6.7	3.3	3.3	4.4	0.0	100.0 (91)

주: 1) 전체응답자 중 과거 일한 적이 있는 응답자와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 직업이 아닌 6,45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19〉 노인의 시·도별 최장기 직종 퇴직 후 경제활동 지속 여부

(단위: %, 명)

지역	예	아니오	계 (명)
전국 ¹⁾	31.5	68.5	100.0 (6,451)
서울	33.2	66.8	100.0 (1,107)
부산	22.0	78.0	100.0 (511)
대구	20.9	79.1	100.0 (304)
인천	36.9	63.1	100.0 (354)
광주	30.8	69.2	100.0 (148)
대전	13.8	86.2	100.0 (165)
울산	32.4	67.6	100.0 (111)
세종	16.7	83.3	100.0 (24) ²⁾
경기	49.0	51.0	100.0 (1,445)
강원	19.2	80.8	100.0 (247)
충북	9.5	90.5	100.0 (239)
충남	15.8	84.2	100.0 (277)
전북	36.5	63.5	100.0 (301)
전남	47.1	52.9	100.0 (229)
경북	17.8	82.2	100.0 (450)
경남	21.0	79.0	100.0 (448)
제주	40.8	59.2	100.0 (91)

주: 1) 전체응답자 중 과거 일한 적이 있는 응답자와 현재 일자리가 최장기 직업이 아닌 6,45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20〉 노인의 시·도별 향후 경제활동 참여 형태

(단위: %, 명)

지역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현재 일을 지속하고 싶다	현재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지금 일을 하지 않으나, 일을 하고 싶다	계 (명)
전국 ¹⁾	61.6	28.6	2.7	7.2	100.0 (9,930)
서울	60.6	29.3	3.3	6.9	100.0 (1,805)
부산	66.6	22.5	3.2	7.7	100.0 (783)
대구	65.9	28.6	2.7	2.7	100.0 (472)
인천	50.2	29.7	4.5	15.5	100.0 (465)
광주	65.2	23.9	4.2	6.6	100.0 (242)
대전	74.9	18.5	1.4	5.3	100.0 (246)
울산	65.4	24.6	2.7	7.3	100.0 (168)
세종	74.4	17.9	2.6	5.1	100.0 (38)
경기	49.1	36.5	3.1	11.3	100.0 (2,068)
강원	71.8	24.4	0.6	3.2	100.0 (376)
충북	78.6	14.2	3.0	4.3	100.0 (337)
충남	68.9	22.5	1.7	7.0	100.0 (473)
전북	56.7	35.3	1.7	6.3	100.0 (459)
전남	56.5	37.8	1.7	4.0	100.0 (511)
경북	78.1	20.3	0.3	1.3	100.0 (676)
경남	67.7	23.1	2.9	6.3	100.0 (692)
제주	45.7	46.2	2.2	5.9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9-21〉 노인의 시·도별 향후 일을 하고 싶은 이유

(단위: %, 명)

지역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용돈이 필요해서	건강유지를 위해서	사람들과 사귄 수 있으므로	능력(경력) 발휘하기 위하여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기타	계 (명)
전국 ¹⁾	61.9	11.2	13.6	4.6	3.8	4.1	0.8	100.0 (3,814)
서울	53.3	9.8	18.2	6.5	8.5	3.4	0.2	100.0 (712)
부산	67.7	5.9	16.8	5.5	2.4	1.7	0.0	100.0 (262)
대구	64.9	12.3	6.9	3.9	7.3	4.1	0.6	100.0 (161)
인천	70.3	9.0	10.6	4.4	0.8	3.8	1.1	100.0 (231)
광주	53.5	19.8	15.1	8.1	2.3	1.2	0.0	100.0 (84)
대전	59.7	9.7	12.9	6.5	4.8	3.2	3.2	100.0 (62)
울산	70.7	8.6	13.8	1.7	3.4	0.0	1.7	100.0 (58)
세종	55.6	0.0	11.1	0.0	11.1	11.1	11.1	100.0 (10) ²⁾
경기	60.7	8.3	17.3	5.5	3.0	4.2	1.1	100.0 (1,052)
강원	60.3	21.2	6.6	2.6	0.8	8.4	0.0	100.0 (106)
충북	54.2	16.7	9.7	5.6	0.0	13.9	0.0	100.0 (72)
충남	40.2	20.1	9.3	7.7	4.7	16.5	1.5	100.0 (147)
전북	62.6	20.7	13.1	.5	1.0	1.5	0.5	100.0 (199)
전남	70.9	20.3	5.3	1.1	2.1	0.3	0.0	100.0 (223)
경북	73.1	9.7	4.8	2.1	3.9	4.7	1.7	100.0 (148)
경남	75.9	6.8	10.3	0.8	2.0	2.6	1.5	100.0 (224)
제주	76.9	9.2	1.5	1.5	3.1	6.2	1.5	100.0 (65)

주: 1) 본인응답자 중 향후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3,81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22〉 노인의 시·도별 희망 근로시간

(단위: %, 명)

지역	10시간 미만	10-20시간 미만	20-30시간 미만	30-40시간 미만	40-50시간 미만	50시간 이상	계 (명)
전국 ¹⁾	13.8	15.6	15.2	18.4	30.6	6.4	100.0 (3,814)
서울	14.3	9.5	15.4	16.6	35.4	8.8	100.0 (712)
부산	13.6	10.6	11.8	18.7	42.9	2.5	100.0 (262)
대구	23.1	9.1	8.2	12.1	34.2	13.3	100.0 (161)
인천	17.3	12.1	19.8	17.7	28.4	4.7	100.0 (231)
광주	11.8	15.3	11.8	14.1	35.3	11.8	100.0 (84)
대전	11.3	16.1	22.6	11.3	32.3	6.5	100.0 (62)
울산	10.2	13.6	6.8	20.3	39.0	10.2	100.0 (58)
세종	20.0	10.0	10.0	30.0	20.0	10.0	100.0 (10) ²⁾
경기	9.9	24.6	16.4	17.9	26.9	4.4	100.0 (1,052)
강원	10.4	8.5	14.2	22.6	40.3	4.0	100.0 (106)
충북	9.7	4.2	31.9	25.0	25.0	4.2	100.0 (72)
충남	5.0	20.4	22.3	30.3	17.8	4.3	100.0 (147)
전북	24.8	18.4	18.3	17.8	14.2	6.4	100.0 (199)
전남	10.1	12.3	5.3	20.4	43.2	8.7	100.0 (223)
경북	26.7	13.0	8.4	18.0	20.9	13.0	100.0 (148)
경남	16.5	13.0	14.0	22.7	30.5	3.3	100.0 (224)
제주	16.9	23.1	24.6	10.8	23.1	1.5	100.0 (65)

주: 1) 본인응답자 중 향후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3,81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23〉 노인의 시·도별 희망 월평균 근로소득

(단위: %, 명)

지역	50만원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이상	계 (명)
전국 ¹⁾	13.4	21.7	15.7	15.6	33.5	100.0 (3,814)
서울	6.0	15.4	13.5	17.0	48.0	100.0 (712)
부산	8.0	13.7	16.8	23.7	37.8	100.0 (262)
대구	23.0	9.3	13.0	11.2	43.5	100.0 (161)
인천	12.9	22.0	17.7	17.7	29.7	100.0 (231)
광주	25.0	23.8	9.5	7.1	34.5	100.0 (84)
대전	11.5	27.9	8.2	11.5	41.0	100.0 (62)
울산	13.6	15.3	11.9	18.6	40.7	100.0 (58)
세종	22.2	11.1	22.2	11.1	33.3	100.0 (10) ²⁾
경기	7.9	28.5	15.0	15.5	33.1	100.0 (1,052)
강원	18.9	21.7	19.8	20.8	18.9	100.0 (106)
충북	9.7	15.3	25.0	19.4	30.6	100.0 (72)
충남	24.3	14.2	18.9	11.5	31.1	100.0 (147)
전북	31.5	31.0	13.0	11.0	13.5	100.0 (199)
전남	23.0	32.9	18.5	13.5	12.2	100.0 (223)
경북	27.9	18.4	17.0	9.5	27.2	100.0 (148)
경남	16.5	17.4	19.6	17.4	29.0	100.0 (224)
제주	10.9	18.8	21.9	10.9	37.5	100.0 (65)

주: 1) 본인응답자 중 향후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3,814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24〉 노인의 시·도별 구직활동 비율 및 구직활동

(단위: %, 명)

지역	구직활동 비율 ¹⁾	구직활동				계 (명)
		취업지원 센터 의뢰	개인 인맥 의뢰	신문, 잡지, 컴퓨터 등 검색	기타	
전국 ¹⁾	34.4	58.2	32.0	3.9	5.9	100.0 (1,311)
서울	26.8	37.4	46.8	7.4	8.4	100.0 (191)
부산	37.1	50.0	40.8	3.1	6.1	100.0 (97)
대구	39.1	57.1	34.9	3.2	4.8	100.0 (63)
인천	42.8	52.0	37.8	3.1	7.1	100.0 (99)
광주	28.6	70.8	25.0	0.0	4.2	100.0 (24) ²⁾
대전	37.1	65.2	26.1	0.0	8.7	100.0 (23) ²⁾
울산	27.6	64.7	23.5	0.0	11.8	100.0 (16) ²⁾
세종	29.9	50.0	50.0	0.0	0.0	100.0 (3) ²⁾
경기	47.2	59.0	30.8	4.6	5.6	100.0 (496)
강원	28.2	83.3	6.7	3.3	6.7	100.0 (30)
충북	29.2	66.7	19.0	9.5	4.8	100.0 (21) ²⁾
충남	20.0	69.0	20.7	0.0	10.3	100.0 (29) ²⁾
전북	31.0	83.6	13.1	0.0	3.3	100.0 (62)
전남	23.0	65.4	30.8	3.8	0.0	100.0 (51)
경북	12.8	63.2	31.6	0.0	5.3	100.0 (19) ²⁾
경남	32.4	68.5	26.0	1.4	4.1	100.0 (72)
제주	23.4	86.7	13.3	0.0	0.0	100.0 (15) ²⁾

주: 1) 본인응답자 중 향후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3,814명(현재 경제활동 참여자 포함) 중 구직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31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25〉 노인의 시·도별 노인일자리 참여경험

(단위: %, 명)

지역	현재 참여 중	참여 경험없음	신청했으나 참여 기회 없었음	비신청	계 (명)
전국 ¹⁾	7.9	5.9	5.9	80.3	100.0 (10,097)
서울	4.4	5.8	4.8	85.0	100.0 (1,820)
부산	2.9	2.6	7.1	87.4	100.0 (784)
대구	8.3	5.2	3.0	83.5	100.0 (486)
인천	10.5	6.6	3.4	79.6	100.0 (487)
광주	14.7	9.3	13.0	63.1	100.0 (255)
대전	5.6	4.4	2.2	87.8	100.0 (256)
울산	3.9	4.0	9.0	83.2	100.0 (168)
세종	7.7	0.0	2.6	89.7	100.0 (39)
경기	12.7	9.3	8.0	70.0	100.0 (2,090)
강원	7.3	0.9	2.8	89.0	100.0 (380)
충북	3.4	9.9	4.0	82.7	100.0 (346)
충남	3.1	3.6	2.7	90.5	100.0 (487)
전북	19.1	4.4	6.5	70.0	100.0 (468)
전남	12.2	8.7	12.6	66.5	100.0 (520)
경북	5.5	2.1	2.0	90.3	100.0 (694)
경남	2.9	4.7	7.0	85.5	100.0 (692)
제주	13.5	4.1	3.2	79.2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9-26〉 노인의 시·도별 노인일자리 참여 사업유형

(단위: %, 명)

지역	공익활동	시장형 사업단	취·창업형 사업단	재능나눔활동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계 (명)
전국 ¹⁾	71.9	5.4	13.5	3.2	5.9	100.0 (802)
서울	48.6	8.5	24.9	2.8	15.2	100.0 (80)
부산	69.6	4.3	0.0	13.0	13.0	100.0 (23) ²⁾
대구	70.7	7.3	12.2	4.9	4.9	100.0 (40)
인천	78.4	5.9	2.0	5.9	7.8	100.0 (51)
광주	78.9	15.8	2.6	0.0	2.6	100.0 (37)
대전	73.3	0.0	0.0	6.7	20.0	100.0 (14) ²⁾
울산	66.7	0.0	16.7	0.0	16.7	100.0 (7) ²⁾
세종	66.7	0.0	33.3	0.0	0.0	100.0 (3) ²⁾
경기	77.8	1.9	13.2	2.6	4.5	100.0 (265)
강원	22.2	3.7	55.6	7.4	11.1	100.0 (28) ²⁾
충북	66.7	8.3	8.3	8.3	8.3	100.0 (12) ²⁾
충남	85.7	7.1	0.0	0.0	7.1	100.0 (15) ²⁾
전북	68.5	1.1	25.8	4.5	0.0	100.0 (89)
전남	87.5	10.9	1.6	0.0	0.0	100.0 (64)
경북	73.7	15.8	7.9	0.0	2.6	100.0 (38)
경남	71.4	0.0	4.8	9.5	14.3	100.0 (20) ²⁾
제주	77.8	5.6	5.6	5.6	5.6	100.0 (17) ²⁾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노인일자리 참여자 80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27〉 노인의 시·도별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의 세부 사업유형

(단위: %, 명)

지역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	계 (명)
전국 ¹⁾	25.8	6.1	67.1	1.0	100.0 (577)
서울	28.2	28.2	43.6	0.0	100.0 (39)
부산	43.8	12.5	43.8	0.0	100.0 (16) ²⁾
대구	55.2	10.3	34.5	0.0	100.0 (29) ²⁾
인천	35.0	12.5	52.5	0.0	100.0 (40)
광주	53.3	6.7	36.7	3.3	100.0 (30)
대전	10.0	0.0	90.0	0.0	100.0 (11) ²⁾
울산	25.0	25.0	50.0	0.0	100.0 (4) ²⁾
세종	0.0	0.0	100.0	0.0	100.0 (2) ²⁾
경기	4.3	3.9	90.3	1.4	100.0 (207)
강원	16.7	0.0	66.7	16.7	100.0 (6) ²⁾
충북	0.0	12.5	75.0	12.5	100.0 (8) ²⁾
충남	15.4	0.0	84.6	0.0	100.0 (12) ²⁾
전북	39.3	3.3	57.4	0.0	100.0 (61)
전남	58.9	0.0	41.1	0.0	100.0 (56)
경북	25.0	0.0	75.0	0.0	100.0 (28) ²⁾
경남	7.1	7.1	85.7	0.0	100.0 (15) ²⁾
제주	30.8	0.0	69.2	0.0	100.0 (14) ²⁾

주: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802명 중 공익활동 참여자 577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9-28〉 노인의 시·도별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향

(단위: %, 명)

지역	예	아니오	계 (명)
전국 ¹⁾	22.4	77.6	100.0 (9,930)
서울	17.9	82.1	100.0 (1,805)
부산	15.9	84.1	100.0 (783)
대구	15.7	84.3	100.0 (472)
인천	35.0	65.0	100.0 (465)
광주	21.1	78.9	100.0 (242)
대전	12.9	87.1	100.0 (246)
울산	15.7	84.3	100.0 (168)
세종	13.0	87.0	100.0 (38)
경기	37.4	62.6	100.0 (2,068)
강원	9.9	90.1	100.0 (376)
충북	15.1	84.9	100.0 (337)
충남	13.5	86.5	100.0 (473)
전북	30.2	69.8	100.0 (459)
전남	22.8	77.2	100.0 (511)
경북	9.8	90.2	100.0 (676)
경남	20.0	80.0	100.0 (692)
제주	31.9	68.1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9-29〉 노인의 시·도별 희망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단위: %, 명)

지역	공익활동	시장형 사업단 취	창업형 사업단	재능나눔활동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계 (명)
전국 ¹⁾	58.9	9.7	14.3	7.0	10.1	100.0 (2,222)
서울	48.8	10.1	16.5	8.8	15.7	100.0 (322)
부산	48.0	15.8	18.6	5.7	12.0	100.0 (124)
대구	62.1	4.0	18.9	3.0	12.0	100.0 (74)
인천	57.7	10.0	4.8	8.2	19.3	100.0 (163)
광주	78.4	9.8	2.0	5.9	3.9	100.0 (51)
대전	65.6	6.3	9.4	3.1	15.6	100.0 (32)
울산	57.7	7.7	11.5	3.8	19.2	100.0 (26)
세종	60.0	20.0	20.0	0.0	0.0	100.0 (5) ²⁾
경기	52.4	11.3	17.5	10.0	8.6	100.0 (774)
강원	24.3	5.4	48.6	8.1	13.5	100.0 (37)
충북	72.0	6.0	14.0	4.0	4.0	100.0 (51)
충남	73.0	14.3	1.6	6.3	4.8	100.0 (64)
전북	66.6	2.8	25.5	4.4	0.7	100.0 (139)
전남	90.8	8.1	0.6	0.0	0.6	100.0 (117)
경북	75.8	12.1	9.1	0.0	3.0	100.0 (66)
경남	69.3	7.3	3.6	2.9	16.8	100.0 (138)
제주	84.2	5.3	2.6	2.6	5.3	100.0 (38)

주: 1) 본인응답자 중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2,222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1〉 노인의 시·도별 TV 및 라디오 청취

(단위: % 시간)

지역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¹⁾	1일 평균 시청시간 ²⁾	1일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 시간					계 (명)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이상	
전국	96.6	4.2	3.0	12.7	25.3	20.0	39.0	100.0 (9,749)
서울	94.1	4.1	3.3	15.1	23.3	21.2	37.0	100.0 (1,713)
부산	95.4	4.7	1.8	7.3	21.2	19.4	50.4	100.0 (748)
대구	97.7	4.5	4.0	10.9	26.2	20.4	38.5	100.0 (475)
인천	96.2	4.2	2.8	16.1	25.9	17.1	38.0	100.0 (469)
광주	92.2	4.1	5.1	11.7	28.5	27.1	27.6	100.0 (235)
대전	96.3	4.4	4.6	5.6	21.4	27.2	41.3	100.0 (246)
울산	98.0	4.6	0.9	6.9	17.4	26.3	48.5	100.0 (165)
세종	97.5	4.2	1.7	18.9	16.2	29.7	32.4	100.0 (38)
경기	98.5	4.1	3.2	17.7	25.2	17.5	36.5	100.0 (2,059)
강원	98.0	4.5	1.3	6.3	17.5	19.6	55.3	100.0 (373)
충북	98.3	4.3	3.0	12.0	24.1	17.5	43.3	100.0 (340)
충남	95.3	4.4	1.3	11.8	20.8	26.6	39.5	100.0 (464)
전북	97.6	4.5	2.8	9.8	24.1	16.7	46.6	100.0 (456)
전남	96.2	4.0	5.6	8.3	33.9	23.7	28.6	100.0 (500)
경북	97.6	3.9	3.0	11.4	39.1	21.4	25.1	100.0 (677)
경남	96.7	4.4	1.5	10.2	25.8	16.1	46.4	100.0 (669)
제주	96.8	3.8	8.1	20.9	23.1	11.9	36.0	100.0 (122)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 2) TV시청 및 라디오 청취를 한다고 응답한 9,749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10-2〉 노인의 시·도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및 주된 활동: 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명)

지역	여가문화활동 참여율 ¹⁾	활동내용 ²⁾							(명)
		문화예술 관람활동	문화예술 참여활동	스포츠관 람활동	스포츠참 여활동	취미오락 활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전체	80.3	3.5	5.1	2.9	8.1	49.8	52.7	44.4	(8,111)
서울	89.6	7.2	6.3	6.0	10.6	57.5	56.5	32.3	(1,631)
부산	87.3	3.5	4.3	2.8	5.1	45.7	54.7	39.3	(684)
대구	77.5	3.6	1.8	2.3	13.5	45.5	53.9	46.4	(376)
인천	83.4	1.5	4.3	2.3	11.3	43.4	51.7	43.2	(406)
광주	71.8	3.9	5.4	2.6	6.4	54.2	59.1	40.3	(183)
대전	64.5	4.4	5.1	2.0	5.0	56.7	50.0	39.5	(165)
울산	80.9	1.9	7.4	1.3	5.7	45.8	63.7	46.7	(136)
세종	74.7	.7	4.3	.8	15.4	54.2	54.2	47.6	(29)
경기	83.4	3.4	7.2	2.2	8.9	55.4	47.0	48.1	(1,742)
강원	64.2	1.1	2.0	1.9	4.6	37.4	55.8	67.7	(244)
충북	71.3	1.1	1.5	1.2	5.2	43.4	51.0	55.9	(247)
충남	68.3	1.0	3.5	3.4	3.1	61.6	54.7	39.7	(333)
전북	85.7	1.8	6.5	2.6	13.3	37.6	63.7	50.8	(400)
전남	76.0	1.3	4.7	1.2	4.2	36.1	55.2	55.1	(395)
경북	65.9	3.2	1.4	.5	4.5	52.0	46.9	42.7	(457)
경남	82.1	2.0	5.0	2.1	4.2	41.2	47.3	50.7	(568)
제주	89.7	.9	4.9	1.0	11.8	35.7	48.9	53.1	(11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 2) 전체응답자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한 8,11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10-4〉 노인의 시·도별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지역	시간이 없어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가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타	계 (명)
전국	25.9	19.5	20.9	8.6	3.9	20.7	0.5	100.0 (1,905)
서울	31.2	13.4	9.7	5.4	2.7	37.1	0.5	100.0 (186)
부산	15.0	19.0	19.0	13.0	13.0	21.0	0.0	100.0 (100)
대구	14.2	46.2	18.9	1.9	0.9	16.0	1.9	100.0 (105)
인천	16.7	26.4	25.0	6.9	5.6	19.4	0.0	100.0 (72)
광주	44.4	23.8	17.5	11.1	0.0	3.2	0.0	100.0 (62)
대전	22.4	17.6	34.1	7.1	1.2	15.3	2.4	100.0 (84)
울산	34.4	25.0	9.4	9.4	3.1	18.8	0.0	100.0 (32)
세종	40.0	10.0	30.0	10.0	10.0	0.0	0.0	100.0 (9) ²⁾
경기	29.5	21.1	7.4	5.1	6.0	30.4	0.6	100.0 (336)
강원	16.8	9.2	35.1	22.9	0.0	16.0	0.0	100.0 (132)
충북	21.1	13.7	23.2	15.8	2.1	23.2	1.1	100.0 (96)
충남	21.1	8.6	36.2	15.8	1.3	17.1	0.0	100.0 (151)
전북	22.2	25.4	15.9	9.5	0.0	27.0	0.0	100.0 (63)
전남	47.5	29.2	10.0	1.7	0.8	10.8	0.0	100.0 (120)
경북	23.4	8.6	39.2	9.5	5.0	14.0	0.5	100.0 (223)
경남	27.4	32.3	12.9	3.2	9.7	14.5	0.0	100.0 (124)
제주	18.2	9.1	36.4	0.0	0.0	36.4	0.0	100.0 (12)

주: 1) 본인응답자 중 지난 1년간 여가문화활동을 하지 않은 1,9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5〉 노인의 시·도별 희망하는 여가문화활동: 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명)

지역	문화예술관람 활동	문화예술참 여활동	스포츠관람 활동	스포츠참여 활동	취미오락활 동	휴식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명)
전체	7.2	11.7	4.0	9.0	14.4	48.0	83.7	(9,930)
서울	11.2	15.2	7.8	11.5	14.9	47.9	73.6	(1,805)
부산	10.0	15.5	4.4	5.3	14.4	47.5	91.6	(783)
대구	2.2	4.2	1.6	11.9	9.9	36.0	120.3	(472)
인천	3.3	9.5	3.6	15.2	9.8	41.3	90.1	(465)
광주	4.7	6.0	3.0	3.1	4.4	52.4	109.2	(242)
대전	14.3	13.9	5.3	3.8	10.9	50.8	82.2	(246)
울산	4.8	16.2	2.7	8.1	14.6	29.3	109.7	(168)
세종	5.9	14.6	4.0	15.7	2.8	45.7	82.6	(38)
경기	9.5	12.1	2.7	12.9	24.1	57.4	53.9	(2,068)
강원	5.7	13.2	2.8	4.7	10.5	24.7	87.6	(376)
충북	2.9	8.0	2.6	6.8	11.6	51.6	83.4	(337)
충남	6.0	10.7	4.3	3.0	11.1	57.4	87.6	(473)
전북	1.6	9.2	2.4	8.5	6.4	53.2	81.2	(459)
전남	3.7	5.1	2.7	4.8	8.2	51.0	106.3	(511)
경북	2.5	6.0	2.6	3.9	12.4	47.1	111.4	(676)
경남	6.4	17.5	4.2	7.8	13.9	38.0	93.8	(692)
제주	2.8	7.5	2.2	10.7	9.0	29.5	111.7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0-7〉 노인의 시·도별 지난 1년간 국내외 여행 경험 여부

(단위: %, 명)

지역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명)
전국	27.6	72.4	100.0 (10,097)
서울	40.4	59.6	100.0 (1,820)
부산	19.1	80.9	100.0 (784)
대구	32.4	67.6	100.0 (486)
인천	23.1	76.9	100.0 (487)
광주	29.1	70.9	100.0 (255)
대전	18.4	81.6	100.0 (256)
울산	27.4	72.6	100.0 (168)
세종	25.0	75.0	100.0 (39)
경기	36.9	63.1	100.0 (2,090)
강원	8.7	91.3	100.0 (380)
충북	16.9	83.1	100.0 (346)
충남	16.1	83.9	100.0 (487)
전북	20.7	79.3	100.0 (468)
전남	24.0	76.0	100.0 (520)
경북	23.0	77.0	100.0 (694)
경남	17.6	82.4	100.0 (692)
제주	11.8	88.2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0-8〉 노인의 시·도별 학습활동 참여율 및 교육 참여 빈도

(단위: %, 명)

지역	학습활동 참여율	평균 참여 시간	월당 교육 참여 시간 ³⁾					계 (명)
			1시간~5시간	6시간~10시간	11시간~15시간	16시간~20시간	21시간 이상	
전국	11.9	9.0	48.7	25.6	9.7	9.3	6.7	100.0 (1,198)
서울	15.8	9.1	50.5	21.6	12.9	10.1	4.9	100.0 (287)
부산	14.2	9.7	47.7	32.4	3.6	7.2	9.0	100.0 (111)
대구	10.0	10.2	39.6	25.0	8.3	18.8	8.3	100.0 (48)
인천	9.8	9.9	46.8	29.8	4.3	6.4	12.8	100.0 (48)
광주	6.6	6.5	52.9	35.3	5.9	5.9	0.0	100.0 (17)
대전	11.7	9.2	48.4	29.0	9.7	6.5	6.5	100.0 (30)
울산	13.5	11.8	36.4	27.3	9.1	13.6	13.6	100.0 (23)
세종	7.0	8.9	50.0	50.0	0.0	0.0	0.0	100.0 (3) ³⁾
경기	12.0	8.1	52.2	23.5	10.8	9.6	4.0	100.0 (250)
강원	4.1	8.8	41.2	35.3	0.0	11.8	11.8	100.0 (16)
충북	8.0	9.5	41.4	24.1	13.8	10.3	10.3	100.0 (28)
충남	10.4	8.7	41.2	35.3	11.8	3.9	7.8	100.0 (51)
전북	10.7	8.2	45.1	33.3	3.9	7.8	9.8	100.0 (50)
전남	7.1	8.8	52.8	19.4	11.1	2.8	13.9	100.0 (37)
경북	12.9	9.9	56.2	15.7	11.2	10.1	6.7	100.0 (89)
경남	13.2	8.3	44.6	30.4	9.8	10.9	4.3	100.0 (91)
제주	15.2	9.3	45.0	25.0	10.0	10.0	10.0	100.0 (19)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전체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학습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198명을 대상으로 평균 참여 횟수와 회당 하루 참여시간을 곱하여 산출함. /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9〉 노인의 시·도별 학습활동 참여 영역

(단위: %, 명)

지역	건강관리/운동	문화예술	어학	인문학	정보화	취업/직업	기타	계 (명)
전국 ¹⁾	44.1	28.1	6.0	5.3	11.5	4.7	0.3	100.0 (1,198)
서울	49.8	28.2	2.4	4.5	7.7	7.3	0.0	100.0 (287)
부산	41.1	22.3	11.6	8.0	13.4	1.8	1.8	100.0 (111)
대구	33.3	35.4	4.2	6.3	8.3	12.5	0.0	100.0 (48)
인천	44.9	26.5	6.1	2.0	20.4	0.0	0.0	100.0 (48)
광주	11.1	72.2	0.0	5.6	5.6	5.6	0.0	100.0 (17)
대전	45.2	29.0	9.7	3.2	9.7	3.2	0.0	100.0 (30)
울산	40.9	22.7	9.1	4.5	18.2	0.0	4.5	100.0 (23)
세종	33.3	0.0	33.3	0.0	33.3	0.0	0.0	100.0 (3) ³⁾
경기	52.0	24.0	5.6	4.4	10.0	4.0	0.0	100.0 (250)
강원	17.6	52.9	5.9	11.8	5.9	5.9	0.0	100.0 (16)
충북	44.4	40.7	0.0	0.0	7.4	7.4	0.0	100.0 (28)
충남	41.2	25.5	0.0	7.8	23.5	2.0	0.0	100.0 (51)
전북	39.2	35.3	7.8	2.0	11.8	3.9	0.0	100.0 (50)
전남	19.4	55.6	16.7	5.6	0.0	2.8	0.0	100.0 (37)
경북	41.6	24.7	4.5	10.1	13.5	5.6	0.0	100.0 (89)
경남	39.6	19.8	11.0	6.6	19.8	2.2	1.1	100.0 (91)
제주	57.9	15.8	10.5	0.0	10.5	5.3	0.0	100.0 (19)

주: 1) 전체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학습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198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10〉 노인의 시·도별 학습활동 실시 기관

(단위: %, 명)

지역	노인 복지관	경로당	대한 노인회	종교 기관	사·군·구/ 읍·면·동	학교	공공문화 센터	시설문화센 터·학원	매체 활용	계 (명)
전국 ¹⁾	35.6	3.7	2.4	3.2	15.1	2.7	14.5	5.9	16.9	100.0 (1,198)
서울	40.3	2.1	3.1	2.4	10.1	3.5	13.2	8.0	17.4	100.0 (287)
부산	38.7	3.6	2.7	7.2	21.6	.9	7.2	4.5	13.5	100.0 (111)
대구	28.6	2.0	0.0	2.0	16.3	2.0	18.4	6.1	24.5	100.0 (48)
인천	36.7	4.1	2.0	6.1	18.4	0.0	16.3	4.1	12.2	100.0 (48)
광주	41.2	5.9	5.9	5.9	5.9	0.0	29.4	5.9	0.0	100.0 (17)
대전	24.1	0.0	6.9	6.9	31.0	0.0	13.8	10.3	6.9	100.0 (30)
울산	22.7	9.1	0.0	13.6	18.2	4.5	13.6	9.1	9.1	100.0 (23)
세종	50.0	0.0	0.0	0.0	50.0	0.0	0.0	0.0	0.0	100.0 (3) ³⁾
경기	35.3	6.0	2.4	2.0	16.5	3.2	12.0	2.4	20.1	100.0 (250)
강원	53.3	6.7	0.0	0.0	13.3	0.0	6.7	6.7	13.3	100.0 (16)
충북	32.1	7.1	3.6	3.6	10.7	3.6	25.0	3.6	10.7	100.0 (28)
충남	27.5	2.0	3.9	2.0	15.7	2.0	21.6	5.9	19.6	100.0 (51)
전북	40.8	4.1	0.0	2.0	12.2	6.1	8.2	6.1	20.4	100.0 (50)
전남	43.2	0.0	0.0	0.0	18.9	2.7	10.8	2.7	21.6	100.0 (37)
경북	25.6	4.4	1.1	3.3	15.6	1.1	23.3	8.9	16.7	100.0 (89)
경남	35.9	3.3	3.3	2.2	13.0	3.3	16.3	7.6	15.2	100.0 (91)
제주	23.5	0.0	0.0	0.0	17.6	5.9	29.4	5.9	17.6	100.0 (19)

주: 1) 전체응답자 중 지난 1년간 학습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1,198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11〉 노인의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시간

(단위: %, 명)

지역	자원봉사 활동 경험률 ¹⁾	월 평균 참여시간	월당 자원봉사 참여 시간 ²⁾					계	(명)
			0시간~ 5시간	6시간~ 10시간	11시간~ 15시간	16시간~ 20시간	21시간 이상		
전국 ¹⁾	2.9	6.3	59.2	23.9	6.9	4.8	5.2	100.0	(291)
서울	5.1	4.6	71.3	13.8	10.6	2.1	2.1	100.0	(94)
부산	1.3	7.0	50.0	30.0	0.0	0.0	20.0	100.0	(10)
대구	1.1	9.0	60.0	0.0	0.0	40.0	0.0	100.0	(5) ²⁾
인천	3.8	8.4	42.1	26.3	5.3	15.8	10.5	100.0	(18)
광주	0.7	6.9	0.0	100.0	0.0	0.0	0.0	100.0	(2) ²⁾
대전	2.4	5.2	83.3	16.7	0.0	0.0	0.0	100.0	(6) ²⁾
울산	0.9	11.7	100.0	0.0	0.0	0.0	0.0	100.0	(1) ²⁾
세종	5.3	5.0	100.0	0.0	0.0	0.0	0.0	100.0	(2) ²⁾
경기	5.2	6.5	50.9	31.5	6.5	5.6	5.6	100.0	(108)
강원	0.2	1.0	100.0	0.0	0.0	0.0	0.0	100.0	(1) ²⁾
충북	0.2	24.0	0.0	0.0	0.0	0.0	100.0	100.0	(1) ²⁾
충남	1.3	4.6	50.0	50.0	0.0	0.0	0.0	100.0	(6) ²⁾
전북	1.8	6.9	62.5	25.0	0.0	0.0	12.5	100.0	(8) ²⁾
전남	0.3	6.1	50.0	50.0	0.0	0.0	0.0	100.0	(2) ²⁾
경북	1.7	4.2	81.8	18.2	0.0	0.0	0.0	100.0	(12)
경남	0.7	4.6	40.0	60.0	0.0	0.0	0.0	100.0	(5) ²⁾
제주	8.0	15.9	50.0	10.0	20.0	10.0	10.0	100.0	(10)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전체응답자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91명을 대상으로 함.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12〉 노인의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역

(단위: %, 명)

지역	사회복지	문화체육	교통질서	환경보호	보건의료	교육활동	계 (명)
전국 ¹⁾	48.8	7.8	20.5	14.0	5.8	3.1	100.0 (291)
서울	41.5	7.4	16.0	17.0	10.6	7.4	100.0 (94)
부산	54.5	0.0	27.3	18.2	0.0	0.0	100.0 (10)
대구	40.0	40.0	20.0	0.0	0.0	0.0	100.0 (5) ²⁾
인천	73.7	0.0	10.5	10.5	5.3	0.0	100.0 (18)
광주	0.0	0.0	100.0	0.0	0.0	0.0	100.0 (2) ²⁾
대전	50.0	0.0	33.3	16.7	0.0	0.0	100.0 (6) ²⁾
울산	50.0	0.0	0.0	50.0	0.0	0.0	100.0 (1) ²⁾
세종	50.0	0.0	0.0	50.0	0.0	0.0	100.0 (2) ²⁾
경기	43.5	11.1	26.9	14.8	3.7	0.0	100.0 (108)
강원	100.0	0.0	0.0	0.0	0.0	0.0	100.0 (1) ²⁾
충북	0.0	0.0	100.0	0.0	0.0	0.0	100.0 (1) ²⁾
충남	80.0	0.0	0.0	0.0	20.0	0.0	100.0 (6) ²⁾
전북	37.5	12.5	25.0	12.5	0.0	12.5	100.0 (8) ²⁾
전남	50.0	0.0	50.0	0.0	0.0	0.0	100.0 (2) ²⁾
경북	91.7	0.0	8.3	0.0	0.0	0.0	100.0 (12)
경남	100.0	0.0	0.0	0.0	0.0	0.0	100.0 (5) ²⁾
제주	45.5	9.1	18.2	9.1	9.1	9.1	100.0 (10)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91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13〉 노인의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참여 종류

(단위: %, 명)

지역	단순 노력 봉사	취미(교육) 등으로 습득한 지식/기술 활용	직업경력, 자격증 등 전문성 활용	계 (명)
전국 ¹⁾	84.4	8.3	7.3	100.0 (291)
서울	77.4	14.0	8.6	100.0 (94)
부산	80.0	0.0	20.0	100.0 (10)
대구	60.0	40.0	0.0	100.0 (5) ²⁾
인천	88.9	5.6	5.6	100.0 (18)
광주	100.0	0.0	0.0	100.0 (2) ²⁾
대전	83.3	0.0	16.7	100.0 (6) ²⁾
울산	100.0	0.0	0.0	100.0 (1) ²⁾
세종	100.0	0.0	0.0	100.0 (2) ²⁾
경기	89.8	5.6	4.6	100.0 (108)
강원	100.0	0.0	0.0	100.0 (1) ²⁾
충북	100.0	0.0	0.0	100.0 (1) ²⁾
충남	100.0	0.0	0.0	100.0 (6) ²⁾
전북	75.0	0.0	25.0	100.0 (8) ²⁾
전남	100.0	0.0	0.0	100.0 (2) ²⁾
경북	90.9	0.0	9.1	100.0 (12)
경남	100.0	0.0	0.0	100.0 (5) ²⁾
제주	70.0	20.0	10.0	100.0 (10)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91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I-10-14〉 노인의 시·도별 자원봉사활동 연계 기관

(단위: %, 명)

지역	연계기관 없음	종교기관	경로당	복지기관	지자체	민간단체	계 (명)
전국 ¹⁾	6.6	33.7	5.9	15.6	31.3	6.9	100.0 (291)
서울	9.7	33.3	6.5	23.7	19.4	7.5	100.0 (94)
부산	27.3	18.2	18.2	9.1	27.3	0.0	100.0 (10)
대구	0.0	20.0	0.0	40.0	20.0	20.0	100.0 (5) ²⁾
인천	5.3	57.9	0.0	5.3	15.8	15.8	100.0 (18)
광주	0.0	0.0	0.0	0.0	100.0	0.0	100.0 (2) ²⁾
대전	14.3	14.3	14.3	14.3	42.9	0.0	100.0 (6) ²⁾
울산	0.0	0.0	0.0	0.0	100.0	0.0	100.0 (1) ²⁾
세종	0.0	0.0	0.0	0.0	0.0	100.0	100.0 (2) ²⁾
경기	2.8	30.8	4.7	12.1	47.7	1.9	100.0 (108)
강원	100.0	0.0	0.0	0.0	0.0	0.0	100.0 (1) ²⁾
충북	0.0	0.0	0.0	0.0	100.0	0.0	100.0 (1) ²⁾
충남	0.0	83.3	0.0	0.0	16.7	0.0	100.0 (6) ²⁾
전북	12.5	37.5	12.5	0.0	25.0	12.5	100.0 (8) ²⁾
전남	0.0	0.0	50.0	0.0	50.0	0.0	100.0 (2) ²⁾
경북	0.0	54.5	0.0	9.1	0.0	36.4	100.0 (12)
경남	0.0	40.0	0.0	60.0	0.0	0.0	100.0 (5) ²⁾
제주	0.0	22.2	11.1	11.1	44.4	11.1	100.0 (10)

주: 1) 전체응답자 중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291명을 대상으로 함.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III-10-15〉 노인의 시·도별 사회단체활동 참여율

(단위: %, 명)

지역	참여율			(명)
	동호회(클럽)	친목 단체	정치사회 단체	
전국 ¹⁾	4.7	44.1	1.2	(10,097)
서울	9.5	57.5	2.4	(1,820)
부산	2.3	46.2	0.1	(784)
대구	4.6	49.3	0.5	(486)
인천	4.6	34.9	1.2	(487)
광주	2.1	44.8	0.1	(255)
대전	3.1	24.7	0.2	(256)
울산	0.9	49.3	0.0	(168)
세종	3.8	41.2	0.0	(39)
경기	5.9	57.4	2.7	(2,090)
강원	2.9	15.8	0.0	(380)
충북	1.3	20.4	0.0	(346)
충남	5.6	27.0	0.0	(487)
전북	4.3	37.4	1.0	(468)
전남	2.3	42.0	0.4	(520)
경북	0.7	18.7	0.3	(694)
경남	1.5	44.4	0.2	(692)
제주	8.7	49.1	1.2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0-16-1〉 노인의 시·도별 사회단체활동 참여빈도: 동호회

(단위: %, 명)

지역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국 ¹⁾	4.4	6.7	14.9	8.6	40.1	25.2	100.0 (475)
서울	5.2	8.1	6.4	12.7	48.0	19.7	100.0 (173)
부산	5.6	5.6	16.7	5.6	38.9	27.8	100.0 (18)
대구	0.0	17.4	13.0	13.0	39.1	17.4	100.0 (22)
인천	26.1	8.7	39.1	8.7	13.0	4.3	100.0 (22)
광주	0.0	0.0	16.7	0.0	16.7	66.7	100.0 (5) ²⁾
대전	12.5	0.0	37.5	12.5	37.5	0.0	100.0 (8) ²⁾
울산	50.0	0.0	0.0	0.0	0.0	50.0	100.0 (2) ²⁾
세종	0.0	0.0	0.0	100.0	0.0	0.0	100.0 (1) ²⁾
경기	0.0	3.3	19.7	1.6	30.3	45.1	100.0 (122)
강원	0.0	0.0	0.0	0.0	75.0	25.0	100.0 (11)
충북	0.0	0.0	40.0	0.0	40.0	20.0	100.0 (4) ²⁾
충남	0.0	0.0	1.4	4.9	10.5	2.5	100.0 (27)
전북	0.0	12.5	9.9	4.9	3.1	1.7	100.0 (20)
전남	0.0	0.0	1.4	7.3	1.0	4.2	100.0 (12)
경북	0.0	6.3	0.0	0.0	1.6	0.0	100.0 (5) ²⁾
경남	9.5	0.0	5.6	0.0	1.6	0.8	100.0 (10)
제주	4.8	3.1	2.8	4.9	1.6	0.8	100.0 (11)

주: 1) 해당 항목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16-2〉 노인의 시·도별 사회단체활동 참여빈도: 친목단체

(단위: %, 명)

지역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국 ¹⁾	0.6	2.1	4.8	14.0	49.6	28.9	100.0 (4,448)
서울	1.2	3.4	6.2	12.3	43.5	33.3	100.0 (1,047)
부산	0.8	0.8	3.9	7.7	48.9	37.8	100.0 (362)
대구	0.0	0.8	8.0	17.2	55.0	18.9	100.0 (239)
인천	0.0	1.8	1.8	17.5	46.2	32.7	100.0 (170)
광주	0.0	1.8	1.8	21.9	57.0	17.5	100.0 (114)
대전	0.0	0.0	9.5	17.5	65.1	7.9	100.0 (63)
울산	0.0	1.2	2.4	12.2	41.5	42.7	100.0 (83)
세종	0.0	0.0	0.0	25.0	68.8	6.3	100.0 (16)
경기	0.4	2.6	5.7	12.3	42.2	36.9	100.0 (1,199)
강원	0.0	0.0	3.3	40.0	51.7	5.0	100.0 (60)
충북	0.0	7.0	4.2	26.8	57.7	4.2	100.0 (71)
충남	0.0	0.0	0.0	37.4	51.9	10.7	100.0 (132)
전북	1.1	2.9	4.6	17.1	58.9	15.4	100.0 (175)
전남	0.5	0.0	1.8	17.8	69.4	10.5	100.0 (219)
경북	0.0	3.1	4.7	7.0	65.1	20.2	100.0 (130)
경남	1.3	0.3	2.3	6.8	61.4	27.9	100.0 (307)
제주	0.0	1.6	4.8	11.3	62.9	19.4	100.0 (62)

주: 1) 해당 항목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0-16-3〉 노인의 시·도별 사회단체활동 참여빈도: 정치사회단체

(단위: %, 명)

지역	주 4회 이상	주 2~3회	주 1회	2주 1회	월 1회	월 1회 미만	계 (명)
전국 ¹⁾	0.0	0.7	1.2	8.3	26.9	63.0	100.0 (122)
서울	0.0	0.0	0.0	20.9	20.9	58.1	100.0 (44)
부산	0.0	100.0	0.0	0.0	0.0	0.0	100.0 (1) ²⁾
대구	0.0	0.0	0.0	0.0	0.0	100.0	100.0 (3) ²⁾
인천	0.0	0.0	0.0	0.0	83.3	16.7	100.0 (6) ²⁾
광주	0.0	0.0	0.0	0.0	0.0	0.0	100.0 (0) ²⁾
대전	0.0	0.0	0.0	0.0	100.0	0.0	100.0 (1) ²⁾
울산	0.0	0.0	0.0	0.0	0.0	0.0	0.0 (0) ²⁾
세종	0.0	0.0	0.0	0.0	0.0	0.0	0.0 (0) ²⁾
경기	0.0	0.0	0.0	0.0	22.8	77.2	100.0 (57)
강원	0.0	0.0	0.0	0.0	0.0	0.0	0.0 (0) ²⁾
충북	0.0	0.0	0.0	0.0	0.0	0.0	0.0 (0) ²⁾
충남	0.0	0.0	0.0	0.0	0.0	0.0	0.0 (0) ²⁾
전북	0.0	0.0	20.0	0.0	40.0	40.0	100.0 (4) ²⁾
전남	0.0	0.0	0.0	0.0	0.0	100.0	100.0 (2) ²⁾
경북	0.0	0.0	0.0	0.0	100.0	0.0	100.0 (2) ²⁾
경남	0.0	0.0	0.0	0.0	100.0	0.0	100.0 (1) ²⁾
제주	0.0	0.0	0.0	0.0	0.0	100.0	100.0 (2) ²⁾

주: 1) 해당 항목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17〉 노인의 시·도별 종교 현황

(단위: %, 명)

지역	종교없음	불교	개신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기타	계 (명)
전국 ¹⁾	40.2	23.8	24.3	10.8	0.6	0.2	0.1	100.0 (10,097)
서울	35.0	20.1	29.8	14.2	0.6	0.3	0.0	100.0 (1,820)
부산	11.4	53.3	21.4	12.4	1.3	0.2	0.0	100.0 (784)
대구	45.5	26.5	18.8	8.1	0.8	0.1	0.3	100.0 (486)
인천	31.3	15.0	30.8	20.8	1.4	0.0	0.6	100.0 (487)
광주	61.7	13.2	19.8	5.1	0.2	0.0	0.0	100.0 (255)
대전	57.4	21.4	13.5	6.2	0.5	0.3	0.8	100.0 (256)
울산	30.2	50.1	8.7	9.8	1.3	0.0	0.0	100.0 (168)
세종	56.2	15.1	15.8	12.3	0.6	0.0	0.0	100.0 (39)
경기	45.9	16.6	27.9	9.0	0.3	0.1	0.2	100.0 (2,090)
강원	72.8	9.4	10.0	7.2	0.1	0.5	0.0	100.0 (380)
충북	47.2	14.2	27.9	10.6	0.0	0.0	0.0	100.0 (346)
충남	52.4	18.6	19.4	9.0	0.3	0.3	0.0	100.0 (487)
전북	33.3	16.7	36.8	11.2	0.6	1.3	0.0	100.0 (468)
전남	57.0	9.4	23.8	9.8	0.0	0.0	0.0	100.0 (520)
경북	43.7	29.9	21.0	4.8	0.6	0.0	0.0	100.0 (694)
경남	23.2	48.1	15.9	11.6	1.0	0.0	0.2	100.0 (692)
제주	12.3	39.9	23.9	22.1	1.2	0.2	0.3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부표 Ⅲ-10-18〉 노인의 시·도별 종교 활동 참여 정도

(단위: %, 명)

지역	없음	주4회 이상	주2~3회	주1회	2주1회	월1회	월1회미만	계	(명)
전국 ¹⁾	10.9	2.6	9.1	41.2	3.7	8.4	24.1	100.0	(6,034)
서울	9.2	2.3	10.8	43.2	4.5	10.4	19.6	100.0	(1,182)
부산	19.2	1.8	5.2	30.7	2.9	8.7	31.5	100.0	(694)
대구	4.4	4.2	10.0	34.2	1.9	9.1	36.3	100.0	(265)
인천	9.0	5.0	9.0	48.6	4.8	8.2	15.5	100.0	(334)
광주	12.5	7.5	3.1	44.2	8.7	16.3	7.8	100.0	(98)
대전	16.0	4.2	3.5	33.1	5.5	13.9	23.8	100.0	(109)
울산	21.1	1.6	1.7	21.7	1.6	5.8	46.4	100.0	(117)
세종	5.9	0.0	5.9	52.9	0.0	11.8	23.5	100.0	(17)
경기	5.2	2.0	18.2	43.1	3.2	7.2	21.1	100.0	(1,131)
강원	4.8	0.0	2.6	60.4	5.2	11.4	15.6	100.0	(104)
충북	11.5	1.1	9.2	60.2	2.3	5.8	9.8	100.0	(183)
충남	15.1	3.2	4.8	42.8	5.9	10.4	17.7	100.0	(232)
전북	7.7	2.9	7.1	57.2	0.7	3.8	20.6	100.0	(312)
전남	2.8	4.9	5.2	63.5	4.7	8.4	10.5	100.0	(224)
경북	12.9	1.5	5.2	34.2	4.9	10.7	30.6	100.0	(391)
경남	19.6	2.1	4.3	27.3	3.0	4.9	38.8	100.0	(531)
제주	10.0	7.5	4.5	35.3	2.9	4.1	35.6	100.0	(111)

주: 1) 전체응답자 중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6,034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10-19〉 노인의 시·도별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

(단위: %, 명)

지역	자원봉사 활동	학습 활동	취미·여 가 활동	종교 활동	정치사회(단체) 활동	친목(단체) 활동	경제 활동	기타	계 (명)
전국	1.7	0.9	37.7	14.1	0.2	19.3	25.4	0.8	100.0 (9,930)
서울	1.6	0.5	35.7	19.8	0.0	19.8	21.1	1.4	100.0 (1,805)
부산	1.3	1.6	30.8	9.8	0.2	26.4	28.7	1.1	100.0 (783)
대구	0.5	0.0	47.3	18.4	0.0	19.4	12.9	1.6	100.0 (472)
인천	1.3	0.3	30.0	15.7	0.2	12.3	39.4	0.8	100.0 (465)
광주	5.3	1.8	44.6	11.2	0.3	29.7	7.0	0.1	100.0 (242)
대전	1.6	0.0	34.8	10.3	0.0	24.8	28.0	0.4	100.0 (246)
울산	1.1	3.9	34.7	3.6	0.0	20.6	36.0	0.0	100.0 (168)
세종	2.6	0.0	34.2	10.5	0.0	26.3	26.3	0.0	100.0 (38)
경기	2.1	0.9	33.7	16.6	0.2	15.4	30.8	0.3	100.0 (2,068)
강원	0.4	0.5	56.5	5.1	0.4	12.8	24.3	0.0	100.0 (376)
충북	0.2	0.2	41.7	16.4	0.0	18.8	21.8	0.9	100.0 (337)
충남	0.6	0.2	28.3	11.5	0.0	27.9	30.1	1.4	100.0 (473)
전북	0.6	1.5	35.8	23.2	0.0	9.0	28.7	1.2	100.0 (459)
전남	4.1	2.9	40.4	11.6	0.9	26.1	14.0	0.0	100.0 (511)
경북	3.1	0.0	59.9	9.5	0.2	10.6	15.1	1.6	100.0 (676)
경남	0.9	1.3	34.2	4.3	0.3	29.2	29.8	0.0	100.0 (692)
제주	1.1	1.1	25.4	11.6	0.0	11.3	48.4	1.2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0-20〉 노인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자원봉사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지역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국 ¹⁾	2.3	18.0	25.3	30.4	23.9	100.0 (9,930)
서울	3.0	23.7	26.0	30.4	16.8	100.0 (1,805)
부산	2.0	19.1	26.8	28.5	23.6	100.0 (783)
대구	1.3	7.9	19.7	42.8	28.3	100.0 (472)
인천	1.6	12.1	20.3	36.2	29.8	100.0 (465)
광주	5.2	42.4	28.6	14.4	9.4	100.0 (242)
대전	3.3	18.4	27.1	25.7	25.6	100.0 (246)
울산	1.0	18.4	31.0	28.6	21.0	100.0 (168)
세종	5.3	26.3	10.5	26.3	31.6	100.0 (38)
경기	3.5	13.2	33.3	31.5	18.5	100.0 (2,068)
강원	0.8	7.7	36.0	12.8	42.8	100.0 (376)
충북	0.6	12.6	15.6	27.7	43.5	100.0 (337)
충남	0.1	6.5	20.1	37.1	36.2	100.0 (473)
전북	0.4	11.6	22.8	51.3	14.0	100.0 (459)
전남	2.2	46.0	23.0	13.9	14.9	100.0 (511)
경북	2.1	17.7	15.6	28.0	36.6	100.0 (676)
경남	1.5	19.8	19.7	31.1	28.0	100.0 (692)
제주	3.5	8.9	17.0	36.3	34.3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0-21〉 노인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학습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지역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국 ¹⁾	3.0	15.5	24.6	30.1	26.8	100.0 (9,930)
서울	4.6	18.9	24.9	30.7	20.9	100.0 (1,805)
부산	2.7	16.1	26.7	28.0	26.5	100.0 (783)
대구	0.8	10.6	23.8	38.9	26.0	100.0 (472)
인천	2.8	11.1	20.6	37.2	28.3	100.0 (465)
광주	6.6	30.8	27.8	16.9	17.9	100.0 (242)
대전	2.1	14.2	25.2	30.6	27.9	100.0 (246)
울산	4.9	17.9	22.9	30.0	24.4	100.0 (168)
세종	2.6	15.8	18.4	28.9	34.2	100.0 (38)
경기	2.6	11.2	29.1	33.6	23.5	100.0 (2,068)
강원	3.1	15.2	21.6	7.9	52.2	100.0 (376)
충북	1.4	11.2	15.1	26.3	46.0	100.0 (337)
충남	0.2	6.9	20.9	32.6	39.4	100.0 (473)
전북	2.3	10.9	34.6	42.1	10.2	100.0 (459)
전남	7.8	32.5	21.8	13.0	24.9	100.0 (511)
경북	0.7	20.1	19.1	31.8	28.3	100.0 (676)
경남	2.8	16.0	20.4	28.6	32.1	100.0 (692)
제주	2.0	3.6	18.3	36.1	40.0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0-22〉 노인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취미·여가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지역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국 ¹⁾	29.8	39.1	20.9	6.6	3.6	100.0 (9,930)
서울	31.5	41.9	17.3	6.3	3.1	100.0 (1,805)
부산	24.3	39.9	24.9	6.6	4.3	100.0 (783)
대구	29.5	36.8	26.1	7.1	0.4	100.0 (472)
인천	25.4	47.9	19.1	4.3	3.3	100.0 (465)
광주	28.4	33.8	28.0	8.7	1.1	100.0 (242)
대전	29.0	25.3	32.6	9.6	3.5	100.0 (246)
울산	22.3	48.3	13.0	7.3	9.1	100.0 (168)
세종	53.8	28.2	10.3	5.1	2.6	100.0 (38)
경기	36.7	38.6	15.4	6.5	2.8	100.0 (2,068)
강원	52.1	17.2	21.6	6.1	3.1	100.0 (376)
충북	23.6	34.5	23.9	7.6	10.4	100.0 (337)
충남	20.7	35.3	30.0	9.8	4.1	100.0 (473)
전북	18.7	50.0	25.8	4.5	0.9	100.0 (459)
전남	27.0	40.7	22.9	6.0	3.4	100.0 (511)
경북	27.6	42.8	24.3	4.2	1.0	100.0 (676)
경남	26.9	36.6	19.8	8.2	8.5	100.0 (692)
제주	12.6	43.1	20.7	13.5	10.1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0-23〉 노인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종교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지역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국 ¹⁾	14.7	21.1	18.2	24.9	21.1	100.0 (9,930)
서울	23.0	21.1	17.8	23.5	14.6	100.0 (1,805)
부산	8.0	18.9	22.5	27.5	23.0	100.0 (783)
대구	15.4	20.3	15.4	29.0	20.0	100.0 (472)
인천	19.4	21.7	10.9	20.6	27.5	100.0 (465)
광주	14.3	31.4	26.8	12.8	14.8	100.0 (242)
대전	6.5	19.3	18.6	28.5	27.0	100.0 (246)
울산	4.3	14.6	28.1	29.0	24.0	100.0 (168)
세종	10.5	21.1	13.2	15.8	39.5	100.0 (38)
경기	18.2	18.0	14.1	30.1	19.6	100.0 (2,068)
강원	6.2	18.9	30.4	14.4	30.1	100.0 (376)
충북	10.4	15.8	13.8	24.8	35.2	100.0 (337)
충남	6.3	14.0	13.3	30.6	35.7	100.0 (473)
전북	21.7	33.4	13.9	20.8	10.2	100.0 (459)
전남	14.1	34.3	24.1	12.4	15.1	100.0 (511)
경북	10.4	23.5	19.5	21.9	24.7	100.0 (676)
경남	5.5	19.6	24.4	28.5	22.1	100.0 (692)
제주	13.8	22.3	16.2	28.0	19.6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I-10-24〉 노인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정치사회 단체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지역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국 ¹⁾	1.5	9.0	13.6	32.6	43.3	100.0 (9,930)
서울	2.6	9.8	17.2	33.8	36.5	100.0 (1,805)
부산	0.5	6.9	16.9	31.6	44.1	100.0 (783)
대구	1.0	3.8	7.3	40.5	47.4	100.0 (472)
인천	1.1	3.4	8.8	30.2	56.5	100.0 (465)
광주	6.9	29.5	24.4	16.9	22.2	100.0 (242)
대전	2.3	7.4	15.2	23.2	51.9	100.0 (246)
울산	0.6	6.9	17.5	29.7	45.4	100.0 (168)
세종	2.6	15.8	15.8	21.1	44.7	100.0 (38)
경기	1.0	4.5	10.0	45.3	39.3	100.0 (2,068)
강원	0.6	17.1	16.7	8.8	56.7	100.0 (376)
충북	0.6	4.5	13.3	24.1	57.5	100.0 (337)
충남	0.0	0.7	8.3	24.2	66.7	100.0 (473)
전북	0.7	5.8	10.6	37.0	45.8	100.0 (459)
전남	4.2	39.2	18.2	13.4	25.0	100.0 (511)
경북	0.3	8.3	17.1	31.0	43.3	100.0 (676)
경남	1.0	8.5	13.4	33.9	43.3	100.0 (692)
제주	0.3	2.2	1.1	33.7	62.8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III-10-25〉 노인의 시·도별 노후(여생)의 친목단체활동 희망 정도

(단위: %, 명)

지역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국 ¹⁾	14.8	39.5	26.8	11.7	7.2	100.0 (9,930)
서울	17.8	44.2	22.0	11.3	4.8	100.0 (1,805)
부산	15.1	39.8	27.6	9.5	8.1	100.0 (783)
대구	7.3	33.1	38.9	15.8	4.9	100.0 (472)
인천	11.5	36.8	24.2	17.2	10.2	100.0 (465)
광주	20.6	47.4	25.3	3.5	3.2	100.0 (242)
대전	18.6	31.6	24.2	13.9	11.7	100.0 (246)
울산	13.0	36.3	37.6	6.7	6.4	100.0 (168)
세종	36.8	26.3	18.4	13.2	5.3	100.0 (38)
경기	18.0	39.6	24.1	12.9	5.3	100.0 (2,068)
강원	16.1	28.1	36.2	10.7	9.0	100.0 (376)
충북	10.3	23.6	29.4	16.1	20.6	100.0 (337)
충남	7.3	39.2	35.2	9.7	8.6	100.0 (473)
전북	4.9	46.2	31.6	14.0	3.4	100.0 (459)
전남	14.1	57.8	23.4	2.3	2.3	100.0 (511)
경북	9.1	27.6	30.8	19.5	13.1	100.0 (676)
경남	19.5	43.1	23.5	6.5	7.4	100.0 (692)
제주	14.4	36.0	19.3	13.6	16.7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0-26〉 노인의 시·도별 경로당 이용실태

(단위: %, 명)

특성	이용 현황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²⁾
	현재 이용률 ¹⁾	현재 평균 이용 빈도 ³⁾	(명)	
전국 ¹⁾	28.1	3.2	(2,841)	45.8
서울	14.6	3.1	(265)	30.2
부산	10.6	3.1	(83)	25.6
대구	25.8	3.2	(125)	31.8
인천	14.8	2.8	(72)	28.5
광주	38.5	3.3	(98)	63.3
대전	29.5	3.9	(75)	52.8
울산	15.4	4.0	(26)	31.6
세종	39.7	3.8	(16)	63.2
경기	30.9	2.7	(646)	51.0
강원	29.8	4.0	(113)	53.3
충북	40.7	3.5	(141)	61.4
충남	34.6	4.0	(168)	56.3
전북	33.6	2.8	(157)	46.8
전남	50.9	3.3	(265)	67.6
경북	47.1	2.7	(327)	72.7
경남	35.0	4.0	(242)	50.7
제주	16.8	3.2	(21)	27.8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3)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2,841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10-27〉 노인의 시·도별 경로당 이용이유(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명)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식사 서비스 이용	돌봄 서비스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참여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기타	계(명)
전국 ¹⁾	0.2	19.0	11.0	62.5	-	2.3	1.6	1.3	82.9	-	(2,841)
서울	1.3	28.6	14.7	62.5	-	2.8	0.7	3.1	57.5	-	(265)
부산	0.0	25.2	19.2	60.1	-	4.0	1.9	0.0	69.1	-	(83)
대구	0.0	23.3	16.7	28.8	-	2.4	0.0	0.0	92.2	-	(125)
인천	1.3	24.9	12.7	54.8	-	0.0	4.7	1.4	67.8	-	(72)
광주	0.0	3.7	1.4	83.9	-	4.8	6.8	4.9	90.2	-	(98)
대전	0.0	26.2	8.5	40.5	-	0.0	2.2	1.6	85.3	-	(75)
울산	0.0	29.2	27.1	56.4	-	0.0	6.6	0.0	60.7	-	(26)
세종	0.0	25.8	15.3	33.8	-	0.8	0.0	1.5	85.2	-	(16)
경기	0.0	15.1	7.9	78.3	-	1.9	2.0	0.9	80.8	-	(646)
강원	0.0	18.5	2.4	66.3	-	0.0	0.0	0.0	99.1	-	(113)
충북	0.0	27.8	7.7	54.5	-	3.0	0.0	0.0	90.9	-	(141)
충남	0.0	16.2	11.5	30.8	-	0.8	0.0	0.0	90.5	-	(168)
전북	0.0	10.2	23.1	62.6	-	1.5	0.7	6.2	79.7	-	(157)
전남	0.0	18.0	6.7	65.9	-	5.6	1.1	1.8	90.2	-	(265)
경북	0.0	16.2	10.9	60.8	-	1.2	0.5	0.4	98.3	-	(327)
경남	0.0	23.1	10.7	66.4	-	2.8	3.7	0.0	76.4	-	(242)
제주	1.8	20.0	54.4	45.8	-	0.0	2.9	3.5	62.8	-	(21)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2,841명을 대상으로 함.

2) 1,2순위 중복응답으로 분석하여 전체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부표 Ⅲ-10-28〉 노인의 시·도별 노인복지관 이용실태

(단위: %, 명)

특성	이용 현황			향후(개수) 이용 희망률 ²⁾
	현재 이용률 ¹⁾	현재 평균 이용 빈도 ³⁾	(명)	
전국 ¹⁾	9.5	2.0	(963)	37.8
서울	10.1	2.1	(183)	40.0
부산	7.9	2.6	(62)	39.6
대구	2.7	1.2	(13)	17.7
인천	9.1	1.9	(44)	33.6
광주	15.0	1.4	(38)	57.8
대전	4.4	1.9	(11)	23.3
울산	4.7	2.8	(8) ⁴⁾	35.8
세종	5.6	1.4	(2) ⁴⁾	29.5
경기	16.9	2.1	(352)	53.4
강원	2.3	3.8	(9) ⁴⁾	13.5
충북	10.3	2.3	(36)	30.0
충남	7.0	1.6	(34)	26.3
전북	7.5	2.0	(35)	29.6
전남	17.6	1.4	(92)	55.1
경북	2.2	2.7	(15)	23.8
경남	3.0	2.2	(21)	34.2
제주	6.0	2.5	(8) ⁴⁾	18.8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3) 본인응답자 9,930명 중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963명을 대상으로 함. /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29〉 노인의 시·도별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명)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식사 서비스 이용	돌봄 서비스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참여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기타	계(명)
전국 ¹⁾	3.7	35.1	23.4	45.9	-	7.0	9.1	1.9	45.7	0.1	(963)
서울	5.4	41.3	25.4	48.8	-	0.0	0.4	2.3	37.6	0.0	(183)
부산	0.0	48.5	36.2	34.7	-	8.9	2.6	0.0	29.7	0.0	(62)
대구	0.0	39.8	37.6	8.9	-	5.6	0.0	0.0	34.9	0.0	(13)
인천	6.0	32.7	26.3	23.9	-	1.9	12.1	4.0	44.2	0.0	(44)
광주	1.4	32.5	6.9	54.0	-	5.8	19.8	0.5	75.5	0.0	(38)
대전	0.0	27.4	26.8	51.4	-	11.7	6.6	2.3	49.5	0.0	(11)
울산	5.4	58.3	21.7	19.2	-	4.3	2.6	0.0	55.8	0.0	(8) ³⁾
세종	0.0	93.0	69.4	7.0	-	0.0	0.0	0.0	21.4	0.0	(2) ³⁾
경기	5.5	27.1	27.3	56.6	-	7.4	12.6	3.0	41.1	0.0	(352)
강원	0.0	6.3	34.3	79.8	-	22.0	0.0	0.0	51.9	0.0	(9) ³⁾
충북	0.0	25.8	22.0	49.2	-	2.3	4.1	0.0	64.1	0.0	(36)
충남	0.0	31.0	16.9	34.9	-	0.0	0.0	0.0	42.6	0.0	(34)
전북	5.4	61.6	14.5	23.2	-	13.0	22.2	0.0	20.3	0.0	(35)
전남	0.7	39.9	2.8	34.7	-	23.5	13.8	0.0	79.5	0.0	(92)
경북	0.0	15.7	12.8	52.4	-	0.0	11.4	0.0	58.2	4.6	(15)
경남	0.0	52.0	27.9	22.2	-	6.8	15.2	4.7	47.3	0.0	(21)
제주	0.0	48.6	36.0	44.1	-	0.0	0.0	0.0	53.3	0.0	(8) ³⁾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963명을 대상으로 함.

2) 1,2순위 중복응답으로 분석하여 전체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30〉 노인의 시·도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이용실태

(단위: %, 명)

특성	이용 현황			향후(개년) 이용 희망률 ²⁾
	현재 이용률 ¹⁾	현재 평균 이용 빈도 ³⁾	(명)	
전국 ¹⁾	6.0	1.7	(602)	30.6
서울	7.3	1.9	(134)	37.1
부산	2.9	2.8	(22)	33.7
대구	3.3	1.9	(16)	22.2
인천	4.8	1.8	(24)	26.8
광주	15.0	1.7	(38)	40.1
대전	4.6	2.2	(12)	14.3
울산	1.7	2.4	(3) ⁴⁾	31.3
세종	0.0	0.0	(0) ⁴⁾	26.3
경기	8.9	1.5	(186)	44.8
강원	6.6	2.1	(25)	15.4
충북	5.9	1.8	(20)	23.7
충남	2.1	2.2	(10)	16.7
전북	3.2	1.4	(15)	19.3
전남	14.6	1.3	(76)	33.0
경북	1.6	1.9	(11)	16.5
경남	1.0	2.1	(7) ⁴⁾	23.0
제주	2.0	1.4	(3) ⁴⁾	9.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3)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602명을 대상으로 함. /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31〉 노인의 시·도별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이용 이유(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명)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식사 서비스 이용	돌봄 서비스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참여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기타	계(명)
전국 ¹⁾	3.2	38.4	23.2	38.1	-	12.1	8.7	3.4	38.5	-	(602)
서울	6.2	36.2	21.0	37.8	-	6.2	2.3	5.7	32.0	-	(134)
부산	0.0	43.8	26.6	37.0	-	4.6	3.7	0.0	35.1	-	(22)
대구	11.6	66.1	27.9	22.1	-	0.0	3.7	5.6	2.5	-	(16)
인천	4.5	32.7	41.0	28.8	-	3.7	7.5	0.0	19.0	-	(24)
광주	0.0	42.2	2.2	44.2	-	0.5	14.8	0.0	91.5	-	(38)
대전	0.0	30.4	20.6	33.8	-	23.0	12.4	18.5	15.2	-	(12)
울산	0.0	49.9	40.0	0.0	-	15.7	24.4	8.0	36.4	-	(3) ³⁾
세종	0.0	0.0	0.0	0.0	-	0.0	0.0	0.0	0.0	-	(0) ³⁾
경기	3.4	35.7	29.2	40.5	-	17.4	17.2	4.3	23.8	-	(186)
강원	0.0	21.6	53.3	23.6	-	13.0	0.0	2.8	52.0	-	(25)
충북	0.0	23.8	17.4	55.3	-	3.8	3.2	0.0	48.7	-	(20)
충남	0.0	19.1	19.3	72.9	-	0.0	0.0	0.0	0.0	-	(10)
전북	0.0	49.8	15.8	33.6	-	13.9	17.7	0.0	46.1	-	(15)
전남	0.0	52.0	3.4	38.0	-	26.5	4.0	0.0	72.8	-	(76)
경북	0.0	9.8	59.8	25.1	-	0.0	0.0	6.2	68.6	-	(11)
경남	22.7	82.4	0.0	17.4	-	0.0	0.0	0.0	17.6	-	(7) ³⁾
제주	12.1	42.7	64.2	45.2	-	17.8	0.0	0.0	8.9	-	(3) ³⁾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602명을 대상으로 함.

2) 1,2순위 중복응답으로 분석하여 전체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32〉 노인의 시·도별 노인교실 이용실태

(단위: %, 명)

특성	이용 현황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²⁾
	현재 이용률 ¹⁾	현재 평균 이용 빈도 ³⁾	(명)	
전국 ¹⁾	1.8	1.2	(181)	24.3
서울	0.7	1.1	(12)	30.5
부산	0.9	1.1	(7) ⁴⁾	24.0
대구	0.4	2.1	(2) ⁴⁾	13.7
인천	1.8	1.0	(9) ⁴⁾	24.3
광주	3.5	1.4	(9) ⁴⁾	17.1
대전	3.0	1.3	(8) ⁴⁾	19.6
울산	1.8	1.6	(3) ⁴⁾	19.5
세종	0.0	-	-	17.1
경기	3.2	1.3	(67)	40.1
강원	0.0	-	-	4.0
충북	2.2	1.2	(8) ⁴⁾	19.0
충남	2.6	1.4	(13)	11.6
전북	1.2	1.0	(5) ⁴⁾	13.2
전남	6.6	1.0	(35)	20.8
경북	0.2	2.8	(2) ⁴⁾	15.8
경남	0.4	1.0	(3) ⁴⁾	16.7
제주	0.7	3.9	(1) ⁴⁾	9.8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3) 노인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181명을 대상으로 함. /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33〉 노인의 시·도별 노인교실 이용 이유(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명)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식사 서비스 이용	돌봄 서비스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참여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기타	계(명)
전국 ¹⁾	9.5	38.3	27.4	14.8	-	15.9	12.6	0.2	55.0	-	(181)
서울	0.0	50.9	59.4	13.2	-	0.0	0.0	0.0	5.9	-	(12)
부산	0.0	100.0	14.1	0.0	-	0.0	0.0	0.0	52.1	-	(7) ³⁾
대구	0.0	71.6	0.0	0.0	-	0.0	0.0	0.0	56.9	-	(2) ³⁾
인천	0.0	67.4	67.9	0.0	-	0.0	21.9	0.0	32.1	-	(9) ³⁾
광주	0.0	7.6	0.0	26.4	-	10.1	56.0	0.0	86.8	-	(9) ³⁾
대전	0.0	45.1	52.8	0.0	-	25.6	0.0	0.0	26.5	-	(8) ³⁾
울산	0.0	85.2	14.8	14.8	-	10.9	0.0	0.0	74.2	-	(3) ³⁾
세종	-	-	-	-	-	-	-	-	-	-	-
경기	21.6	25.7	28.4	1.1	-	18.8	16.5	0.0	58.9	-	(67)
강원	-	-	-	-	-	-	-	-	-	-	-
충북	8.6	73.5	9.2	0.0	-	46.2	0.0	0.0	53.9	-	(8) ³⁾
충남	0.0	52.6	43.4	28.5	-	0.0	0.0	0.0	15.2	-	(13)
전북	12.9	17.3	17.3	50.6	-	19.2	0.0	0.0	69.8	-	(5) ³⁾
전남	0.0	23.7	10.1	41.7	-	24.2	14.3	1.2	84.8	-	(35)
경북	0.0	54.4	45.6	54.4	-	0.0	0.0	0.0	0.0	-	(2) ³⁾
경남	61.4	100.0	0.0	0.0	-	0.0	0.0	0.0	38.6	-	(3) ³⁾
제주	0.0	27.4	100.0	0.0	-	27.0	0.0	0.0	0.0	-	(1) ³⁾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노인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181명을 대상으로 함.

2) 1,2순위 중복응답으로 분석하여 전체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34〉 노인의 시·도별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실태

(단위: %, 명)

특성	이용 현황			향후(개선) 이용 희망률 ²⁾
	현재 이용률 ¹⁾	현재 평균 이용 빈도 ³⁾	(명)	
전국 ¹⁾	4.7	1.6	(477)	31.2
서울	6.2	1.9	(113)	45.3
부산	1.8	2.7	(14)	28.4
대구	2.0	1.8	(10)	28.6
인천	6.7	1.6	(33)	32.8
광주	2.3	1.1	(6) ⁴⁾	19.7
대전	2.7	2.5	(7) ⁴⁾	17.6
울산	6.1	2.5	(10)	28.0
세종	4.4	1.5	(2) ⁴⁾	25.3
경기	9.6	1.4	(200)	47.9
강원	0.9	1.0	(4) ⁴⁾	7.4
충북	1.4	2.5	(5) ⁴⁾	21.1
충남	3.0	1.4	(14)	16.2
전북	5.4	1.7	(25)	17.6
전남	3.0	1.0	(16)	19.0
경북	2.2	1.5	(15)	17.8
경남	0.4	2.7	(3) ⁴⁾	20.0
제주	0.7	1.0	(1) ⁴⁾	13.2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3) 공공 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477명을 대상으로 함. /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35〉 노인의 시·도별 공공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명)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식사 서비스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참여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기타	계(명)
전국 ¹⁾	5.9	52.6	35.8	16.9	9.8	8.5	4.1	30.9	-	(477)
서울	16.1	63.7	31.2	7.2	1.3	1.3	2.0	27.0	-	(113)
부산	12.2	73.6	47.9	0.0	0.0	0.0	0.0	47.3	-	(14)
대구	0.0	74.8	28.4	0.0	0.0	6.0	0.0	16.8	-	(10)
인천	0.0	41.1	40.6	5.2	15.9	0.0	0.0	39.7	-	(33)
광주	0.0	15.9	24.7	34.5	6.2	34.6	0.0	84.1	-	(6) ³⁾
대전	0.0	46.6	21.1	28.0	37.5	14.4	0.0	6.1	-	(7) ³⁾
울산	0.0	90.7	65.9	0.0	0.0	6.0	0.0	21.5	-	(10)
세종	0.0	60.3	25.1	0.0	0.0	11.7	0.0	63.1	-	(2) ³⁾
경기	4.0	43.4	37.8	25.0	11.8	14.9	8.6	27.2	-	(200)
강원	0.0	25.8	74.2	0.0	0.0	19.0	0.0	55.1	-	(4) ³⁾
충북	0.0	69.9	31.5	0.0	31.5	0.0	0.0	39.9	-	(5) ³⁾
충남	0.0	75.1	20.8	19.8	5.6	0.0	0.0	24.9	-	(14)
전북	0.0	77.5	40.9	8.8	15.4	5.6	0.0	12.2	-	(25)
전남	0.0	17.8	14.2	51.3	25.9	16.5	0.0	65.8	-	(16)
경북	0.0	47.7	35.4	21.9	21.1	0.0	0.0	58.8	-	(15)
경남	0.0	63.9	58.0	0.0	0.0	0.0	0.0	78.1	-	(3) ³⁾
제주	0.0	0.0	26.7	28.1	0.0	0.0	0.0	71.9	-	(1) ³⁾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공공 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477명을 대상으로 함.

2) 1,2순위 중복응답으로 분석하여 전체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36〉 노인의 시·도별 민간 문화시설 이용실태

(단위: %, 명)

특성	이용 현황			향후(계속) 이용 희망률 ²⁾
	현재 이용률 ¹⁾	현재 평균 이용 빈도 ³⁾	(명)	
전국 ¹⁾	0.8	1.4	(79)	14.6
서울	2.7	1.4	(49)	30.0
부산	0.5	1.3	(4) ⁴⁾	11.1
대구	0.9	1.1	(4) ⁴⁾	13.7
인천	0.3	1.0	(1) ⁴⁾	6.5
광주	0.0	0.0	(0) ⁴⁾	12.7
대전	1.5	0.2	(4) ⁴⁾	12.3
울산	0.7	3.6	(1) ⁴⁾	7.1
세종	0.0	0.0	(0) ⁴⁾	10.2
경기	0.4	1.6	(8) ⁴⁾	17.7
강원	0.0	0.0	(0) ⁴⁾	3.6
충북	0.4	1.5	(1) ⁴⁾	8.6
충남	0.8	1.0	(4) ⁴⁾	9.8
전북	0.3	1.6	(1) ⁴⁾	9.5
전남	0.1	1.0	(0) ⁴⁾	15.5
경북	0.0	0.0	(0) ⁴⁾	5.2
경남	0.0	0.0	(0) ⁴⁾	3.6
제주	0.0	0.0	(0) ⁴⁾	7.3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3) 민간 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79명을 대상으로 함. / 4)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37〉 노인의 시·도별 민간 문화시설 이용 이유(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명)

지역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식사 서비스 이용	돌봄 서비스 이용	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참여	자원봉사 활동참여	친목 도모	기타	계(명)
전국 ¹⁾	2.9	73.0	17.2	30.6	-	3.2	5.0	-	13.9	-	(79)
서울	4.6	66.0	15.5	47.7	-	3.5	6.7	-	6.8	-	(49)
부산	0.0	65.3	47.0	0.0	-	0.0	0.0	-	53.0	-	(4) ³⁾
대구	0.0	91.3	8.7	0.0	-	0.0	0.0	-	0.0	-	(4) ³⁾
인천	0.0	49.0	51.0	0.0	-	0.0	0.0	-	49.0	-	(1) ³⁾
광주	-	-	-	-	-	-	-	-	-	-	-
대전	0.0	81.5	24.6	18.5	-	0.0	0.0	-	0.0	-	(4) ³⁾
울산	0.0	100.0	47.3	0.0	-	0.0	18.7	-	0.0	-	(1) ³⁾
세종	0.0	32.7	67.3	0.0	-	0.0	0.0	-	0.0	-	(0) ³⁾
경기	0.0	100.0	0.0	0.0	-	0.0	0.0	-	20.0	-	(8) ³⁾
강원	-	-	-	-	-	-	-	-	-	-	-
충북	0.0	100.0	48.9	0.0	-	0.0	0.0	-	51.1	-	(1) ³⁾
충남	0.0	100.0	0.0	0.0	-	20.3	0.0	-	58.8	-	(4) ³⁾
전북	0.0	0.0	68.2	0.0	-	0.0	31.8	-	31.8	-	(1) ³⁾
전남	0.0	100.0	0.0	0.0	-	0.0	0.0	-	0.0	-	(0) ³⁾
경북	-	-	-	-	-	-	-	-	-	-	-
경남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민간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79명을 대상으로 함.

2) 1,2순위 중복응답으로 분석하여 전체가 100%를 초과할 수 있음. /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38〉 노인의 시·도별 전자기기(인터넷이 안되는 휴대폰) 보유 및 사용 여부

(단위: %, 명)

지역	보유	사용	계 (명)
전국 ¹⁾	37.4	34.9	100.0 (10,097)
서울	25.1	21.7	100.0 (1,820)
부산	33.9	33.7	100.0 (784)
대구	31.9	22.0	100.0 (486)
인천	30.8	26.9	100.0 (487)
광주	41.3	39.1	100.0 (255)
대전	46.6	42.5	100.0 (256)
울산	27.8	26.1	100.0 (168)
세종	38.5	36.0	100.0 (39)
경기	33.4	31.6	100.0 (2,090)
강원	63.3	62.7	100.0 (380)
충북	52.0	51.4	100.0 (346)
충남	47.5	39.5	100.0 (487)
전북	46.6	46.9	100.0 (468)
전남	46.6	46.4	100.0 (520)
경북	42.9	41.8	100.0 (694)
경남	44.6	44.1	100.0 (692)
제주	34.9	31.8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부표 Ⅲ-10-39〉 노인의 시·도별 전자기기(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 보유 및 사용 시간

(단위: %, 일, 명)

특성	보유 ¹⁾	사용 ¹⁾	주당 사용 일수 ²⁾	일일 사용 시간 ²⁾					계 (명)
				평균 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전국 ¹⁾	56.4	52.8	6.4	1.3	40.4	35.9	13.2	10.4	100.0 (5,331)
서울	70.4	66.4	6.7	1.6	27.8	38.8	17.1	16.4	100.0 (1,208)
부산	60.2	57.8	6.3	1.0	48.9	38.1	10.8	2.2	100.0 (453)
대구	65.6	59.3	6.4	1.0	43.9	42.9	10.4	2.8	100.0 (288)
인천	63.2	58.6	6.1	1.0	46.5	38.8	11.2	3.5	100.0 (285)
광주	52.2	50.7	6.4	1.3	39.5	33.3	21.7	5.4	100.0 (129)
대전	47.7	34.7	6.2	1.8	13.6	40.9	23.9	21.6	100.0 (89)
울산	66.1	60.2	6.4	0.8	58.4	36.6	4.0	1.0	100.0 (101)
세종	59.0	57.6	6.6	1.6	26.1	34.8	21.7	17.4	100.0 (23)
경기	62.7	59.1	6.4	1.4	36.1	33.7	14.1	16.1	100.0 (1,236)
강원	30.5	30.9	6.6	1.0	51.3	44.4	3.4	.9	100.0 (117)
충북	36.4	36.2	5.6	1.4	40.5	34.1	12.7	12.7	100.0 (125)
충남	42.7	34.1	6.0	1.6	30.7	43.4	12.0	13.9	100.0 (166)
전북	47.0	45.7	6.3	1.6	29.6	35.7	20.7	14.1	100.0 (214)
전남	45.2	43.6	6.6	1.3	39.2	38.8	18.5	3.5	100.0 (227)
경북	46.3	45.6	5.6	0.6	80.1	16.1	3.2	.6	100.0 (316)
경남	46.2	43.1	6.6	0.8	61.1	29.5	4.4	5.0	100.0 (298)
제주	54.0	44.8	6.8	1.2	28.6	50.0	14.3	7.1	100.0 (5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 2)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5,331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부표 Ⅲ-10-40〉 노인의 시·도별 전자기기(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보유 및 사용 시간

(단위: %, 일, 명)

특성	보유 ¹⁾	사용 ¹⁾	주당 사용 일수 ²⁾	일일 사용 시간 ²⁾					계 (명)
				평균 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전국 ¹⁾	12.9	6.3	3.5	1.5	19.5	44.9	24.2	11.5	100.0 (635)
서울	22.4	9.2	3.7	1.6	13.7	44.0	22.6	19.6	100.0 (168)
부산	17.1	9.2	3.6	1.4	19.4	44.4	31.9	4.2	100.0 (72)
대구	14.2	8.8	3.5	1.6	14.0	55.8	14.0	16.3	100.0 (43)
인천	29.7	13.8	2.3	1.0	41.8	37.3	17.9	3.0	100.0 (67)
광주	3.9	1.6	4.0	1.7	20.0	20.0	60.0	0.0	100.0 (5) ³⁾
대전	6.6	3.1	3.9	1.8	0.0	57.1	14.3	28.6	100.0 (7) ³⁾
울산	7.7	4.7	3.8	1.3	25.0	50.0	12.5	12.5	100.0 (8) ³⁾
세종	2.6	0.0	-	-	-	-	-	-	-
경기	15.1	7.9	4.1	1.5	20.0	36.4	31.5	12.1	100.0 (165)
강원	2.1	1.1	2.7	1.6	0.0	50.0	50.0	0.0	100.0 (4) ³⁾
충북	1.4	.6	3.0	1.3	0.0	66.7	33.3	0.0	100.0 (3) ³⁾
충남	7.2	3.7	2.7	1.5	0.0	88.9	11.1	0.0	100.0 (18)
전북	8.8	4.5	3.3	1.6	33.3	33.3	19.0	14.3	100.0 (21)
전남	2.3	1.5	2.9	1.3	0.0	87.5	12.5	0.0	100.0 (8) ³⁾
경북	1.0	.6	3.7	1.6	0.0	75.0	0.0	25.0	100.0 (4) ³⁾
경남	9.1	5.1	3.2	1.1	20.0	62.9	17.1	0.0	100.0 (35)
제주	14.3	7.1	4.2	1.5	33.3	33.3	22.2	11.1	100.0 (9) ³⁾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 2)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635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3) 실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무의미함.

〈부표 Ⅲ-10-41〉 노인의 시·도별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

(단위: %, 명)

지역	문자 받기	문자 보내기	정보 검색	사진동영 상촬영	음악 듣기	게임	동영상 보기	SNS 서비스	온라인 쇼핑	금융거 래	애플리케이션 검색, 설치	(명)
전국	80.6	69.7	48.2	50.6	26.2	16.1	34.5	23.7	7.9	12.6	9.9	(8,721)
서울	88.5	81.9	62.8	61.3	32.0	19.3	38.1	26.4	11.7	20.1	14.8	(1,597)
부산	86.7	75.3	54.3	52.1	30.4	20.8	48.9	27.4	7.7	9.5	5.7	(693)
대구	89.0	74.4	53.6	60.0	35.7	19.6	46.3	36.9	12.5	16.7	13.8	(386)
인천	78.3	69.1	57.4	54.1	34.6	18.2	44.9	33.4	9.4	19.5	16.3	(405)
광주	75.4	64.8	39.1	38.1	23.1	11.0	12.7	10.3	3.3	5.0	1.9	(222)
대전	84.7	74.8	41.1	54.2	23.3	11.1	32.5	22.4	7.2	12.7	14.1	(194)
울산	89.8	81.2	64.9	62.4	38.7	24.7	57.4	36.3	8.5	10.2	6.7	(141)
세종	83.6	73.6	41.2	58.0	30.6	13.7	34.8	28.0	13.1	13.3	16.8	(36)
경기	81.1	73.5	56.9	65.0	30.7	20.8	40.9	31.8	9.4	14.4	13.7	(1,882)
강원	76.9	64.8	24.3	32.5	15.1	8.8	28.5	15.1	5.6	6.2	6.2	(352)
충북	77.3	62.8	27.9	35.0	12.1	8.2	20.7	10.4	2.9	7.2	5.0	(295)
충남	72.5	59.4	34.0	44.7	21.8	12.2	28.1	14.7	6.4	10.1	7.7	(353)
전북	84.5	58.3	34.4	41.0	21.4	10.1	25.2	17.7	4.6	11.6	8.7	(424)
전남	68.0	56.5	36.1	34.1	18.9	10.4	10.2	9.4	3.2	4.4	3.2	(457)
경북	69.5	55.2	24.7	18.2	4.4	5.1	17.3	7.0	2.2	3.7	1.6	(600)
경남	73.4	60.5	43.7	39.9	24.8	16.5	33.3	22.5	7.2	10.1	5.2	(589)
제주	72.3	55.8	37.6	49.4	30.5	8.1	30.4	27.8	10.6	13.1	11.5	(93)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중 정보화 기기 1개 이상 사용 가능한 8,721명에 대해 분석함.

〈부표 Ⅲ-10-42〉 노인의 시·도별 생활에 필요한 정보 이용의 어려움

(단위: %, 명)

지역	정부나 공공기관 우편물 또는 공지사향 용어, 내용 이해 어려움	공공기관, 마을, 마트 공지사향 글씨 크기가 작아 내용 이해 어려움	정보 제공 서비스가 온라인 인터넷 중심이어서 이용하기 어려움	계 (명)
전국 ¹⁾	58.9	63.5	74.1	100.0 (9,930)
서울	48.4	55.5	66.7	100.0 (1,805)
부산	54.6	62.9	68.6	100.0 (783)
대구	46.0	58.1	69.3	100.0 (472)
인천	45.0	46.7	69.5	100.0 (465)
광주	52.4	49.7	60.6	100.0 (242)
대전	70.7	77.8	85.2	100.0 (246)
울산	66.0	68.0	80.8	100.0 (168)
세종	64.1	67.6	82.2	100.0 (38)
경기	61.2	70.0	76.4	100.0 (2,068)
강원	81.3	81.0	88.5	100.0 (376)
충북	60.8	68.8	79.0	100.0 (337)
충남	65.1	66.1	83.2	100.0 (473)
전북	66.6	62.7	72.1	100.0 (459)
전남	58.4	57.0	66.7	100.0 (511)
경북	70.8	65.9	84.9	100.0 (676)
경남	69.1	73.6	79.7	100.0 (692)
제주	33.6	32.4	63.9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부표 Ⅲ-10-43〉 노인의 시·도별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예매 불편함 정도

(단위: %, 명)

지역	이용한 경험 있음 ¹⁾	불편함 정도 ²⁾					계(명)
		전혀 불편하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	보통이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전국 ¹⁾	58.3	7.2	11.6	20.9	35.7	24.7	100.0(5,792)
서울	68.5	5.3	13.3	25.6	35.7	20.1	100.0(1,237)
부산	63.9	3.0	15.1	14.3	36.7	30.9	100.0(502)
대구	70.9	27.2	21.5	16.1	23.9	11.3	100.0(335)
인천	36.4	8.3	10.7	17.8	38.5	24.9	100.0(169)
광주	85.8	4.8	15.4	30.8	36.1	13.0	100.0(208)
대전	61.9	4.6	5.9	24.8	37.3	27.5	100.0(153)
울산	62.1	2.9	6.7	21.9	35.2	33.3	100.0(105)
세종	53.7	5.0	10.0	30.0	30.0	25.0	100.0(20)
경기	61.1	9.3	6.0	18.8	45.0	21.0	100.0(1,264)
강원	31.5	0.0	1.7	3.4	23.7	71.2	100.0(118)
충북	42.8	0.0	6.3	24.3	39.6	29.9	100.0(144)
충남	42.5	5.5	12.4	22.9	18.4	40.8	100.0(201)
전북	58.4	6.0	10.9	19.1	44.2	19.9	100.0(267)
전남	85.5	6.2	20.6	30.0	30.7	12.6	100.0(437)
경북	22.7	5.2	11.1	22.2	34.0	27.5	100.0(153)
경남	66.4	5.0	8.5	13.5	26.5	46.5	100.0(460)
제주	16.5	36.8	10.5	31.6	10.5	10.5	100.0(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 2) 알지 못하거나 이용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이를 제외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다~5)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분석 함.

〈부표 Ⅲ-10-44〉 노인의 시·도별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식당 기계 주문 불편함 정도

(단위: %, 명)

지역	이용한 경험 있음 ¹⁾	불편함 정도 ²⁾					계 (명)
		전혀불편하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	보통이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전국 ¹⁾	58.1	6.6	10.5	18.8	36.1	28.0	100.0 (5,767)
서울	68.1	6.3	16.4	25.1	33.4	18.8	100.0 (1,230)
부산	65.5	3.5	9.0	18.9	36.5	32.0	100.0 (512)
대구	56.0	18.1	16.6	17.0	27.5	20.8	100.0 (265)
인천	40.1	8.6	11.8	13.4	41.4	24.7	100.0 (186)
광주	83.1	5.5	11.0	24.5	40.0	19.0	100.0 (200)
대전	57.9	3.5	4.2	15.5	43.0	33.8	100.0 (142)
울산	66.6	1.8	6.3	16.1	42.0	33.9	100.0 (112)
세종	47.1	10.5	15.8	26.3	26.3	21.1	100.0 (19)
경기	65.2	9.1	4.5	14.5	42.7	29.2	100.0 (1,348)
강원	32.8	0.8	7.3	13.0	26.8	52.0	100.0 (123)
충북	36.0	1.7	5.0	14.9	30.6	47.9	100.0 (121)
충남	37.9	3.9	16.8	26.8	27.9	24.6	100.0 (179)
전북	61.2	6.7	11.3	19.5	40.8	21.6	100.0 (282)
전남	82.1	5.2	15.2	26.8	36.1	16.6	100.0 (421)
경북	23.1	0.6	8.3	6.4	33.8	51.0	100.0 (157)
경남	64.7	4.0	7.4	12.1	27.7	48.9	100.0 (448)
제주	18.4	31.8	18.2	22.7	13.6	13.6	100.0 (22)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 2) 알지 못하거나 이용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이를 제외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다~5)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분석 함.

〈부표 Ⅲ-10-45〉 노인의 시·도별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은행 ATM 사용 또는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한 불편함 정도

(단위: %, 명)

지역	이용한 경험 있음 ¹⁾	불편함 정도 ²⁾					계 (명)
		전혀불편하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	보통이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전국 ¹⁾	88.9	10.6	21.2	29.8	29.0	9.4	100.0 (8,830)
서울	95.2	15.9	25.7	23.0	28.6	6.7	100.0 (1,719)
부산	93.0	10.7	26.7	25.1	23.9	13.6	100.0 (729)
대구	90.3	17.1	35.2	21.8	18.8	7.0	100.0 (426)
인천	86.6	18.7	30.6	21.9	22.9	6.0	100.0 (402)
광주	95.5	6.0	14.6	27.5	36.1	15.9	100.0 (233)
대전	83.8	3.4	9.2	28.5	43.0	15.9	100.0 (207)
울산	96.7	12.3	23.9	29.4	25.8	8.6	100.0 (163)
세종	96.1	10.8	24.3	35.1	24.3	5.4	100.0 (37)
경기	92.7	10.2	18.9	36.3	28.8	5.7	100.0 (1,917)
강원	64.0	0.8	19.1	52.3	19.5	8.3	100.0 (241)
충북	79.0	2.3	10.9	33.5	33.1	20.3	100.0 (266)
충남	65.5	3.9	19.0	38.4	28.1	10.6	100.0 (310)
전북	86.9	9.0	19.8	27.3	35.3	8.8	100.0 (400)
전남	93.5	6.5	16.1	25.7	38.1	13.6	100.0 (478)
경북	89.4	2.5	12.6	41.1	34.5	9.3	100.0 (603)
경남	89.5	10.6	19.2	26.5	29.4	14.4	100.0 (620)
제주	66.5	32.9	20.3	13.9	19.0	13.9	100.0 (7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 2) 알지 못하거나 이용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이를 제외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다~5)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분석 함.

〈부표 Ⅲ-10-46〉 노인의 시·도별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신용카드, 체크카드만 이용 가능한 점포 증가로 인한 불편함 정도

(단위: %, 명)

지역	이용한 경험 있음 ¹⁾	불편함 정도 ²⁾					계 (명)
		전혀불편하 지않다	불편하지 않다	보통이다	불편하다	매우 불편하다	
전국 ¹⁾	87.9	11.0	26.0	31.7	23.6	7.7	100.0 (8,725)
서울	95.4	15.0	30.7	28.6	20.0	5.6	100.0 (1,722)
부산	91.8	10.3	29.1	24.9	25.0	10.7	100.0 (719)
대구	89.6	19.6	37.1	25.1	14.4	3.8	100.0 (423)
인천	89.6	19.2	37.3	20.9	17.5	5.0	100.0 (416)
광주	93.6	5.8	19.0	30.1	31.9	13.3	100.0 (226)
대전	85.1	3.3	11.0	34.3	39.0	12.4	100.0 (210)
울산	95.9	14.3	24.8	30.4	24.2	6.2	100.0 (161)
세종	93.9	8.3	25.0	41.7	22.2	2.8	100.0 (36)
경기	91	12.8	28.5	32.7	22.7	3.4	100.0 (1,880)
강원	61.1	.9	20.0	52.6	19.1	7.4	100.0 (230)
충북	78.6	1.5	9.5	38.3	33.7	17.0	100.0 (264)
충남	67.5	7.5	18.8	40.8	22.9	10.0	100.0 (319)
전북	88	7.7	21.5	27.2	34.4	9.2	100.0 (404)
전남	90.5	5.4	17.7	30.1	32.7	14.1	100.0 (462)
경북	85.2	4.0	18.7	54.4	18.4	4.5	100.0 (577)
경남	87.3	7.3	23.1	25.5	27.2	16.9	100.0 (603)
제주	60.6	32.9	24.7	15.1	15.1	12.3	100.0 (73)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임. / 2) 알지 못하거나 이용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이를 제외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다~5) 매우 불편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분석 함.

〈부표 Ⅲ-11-1〉노인의 시·도별 주택종류

(단위: %, 명)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기타	계 (명)
전체 ¹⁾	35.3	48.4	15.1	1.2	100.0 (10,097)
서울	19.2	42.7	34.9	3.2	100.0 (1,820)
부산	31.2	56.7	10.9	1.3	100.0 (784)
대구	39.2	54.3	6.5	0.0	100.0 (486)
인천	19.3	58.4	19.5	2.9	100.0 (487)
광주	29.5	65.1	5.4	0.0	100.0 (255)
대전	34.3	54.3	11.4	0.0	100.0 (256)
울산	35.9	58.8	5.3	0.0	100.0 (168)
세종	21.8	73.4	4.8	0.0	100.0 (39)
경기	20.4	55.1	23.1	1.4	100.0 (2,090)
강원	57.2	42.5	0.3	0.0	100.0 (380)
충북	50.9	44.6	4.6	0.0	100.0 (346)
충남	52.1	44.6	3.3	0.0	100.0 (487)
전북	50.5	43.5	4.3	1.8	100.0 (468)
전남	59.7	37.6	2.7	0.0	100.0 (520)
경북	56.0	37.5	6.5	0.0	100.0 (694)
경남	52.9	45.3	1.8	0.0	100.0 (692)
제주	60.8	23.8	14.5	0.9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2〉노인의 시·도별 주거위치

(단위: %, 명)

구분	주거위치			평균 방 개수	계 (명)
	지하 또는 반지하	지상	옥탑		
전체 ¹⁾	1.2	98.7	0.0	2.9	100.0 (10,097)
서울	3.0	97.0	0.0	2.9	100.0 (1,820)
부산	0.8	99.1	0.1	2.8	100.0 (784)
대구	0.7	99.3	0.0	3.2	100.0 (486)
인천	2.3	97.7	0.0	2.9	100.0 (487)
광주	0.2	99.8	0.0	3.0	100.0 (255)
대전	0.3	99.7	0.0	2.8	100.0 (256)
울산	0.2	99.8	0.0	2.8	100.0 (168)
세종	0.0	100.0	0.0	2.9	100.0 (39)
경기	1.4	98.6	0.0	2.9	100.0 (2,090)
강원	0.0	100.0	0.0	2.8	100.0 (380)
충북	0.2	99.8	0.0	2.9	100.0 (346)
충남	1.0	99.0	0.0	2.9	100.0 (487)
전북	1.1	98.9	0.0	3.1	100.0 (468)
전남	0.0	100.0	0.0	2.7	100.0 (520)
경북	0.8	98.9	0.3	3.0	100.0 (694)
경남	0.3	99.7	0.0	2.7	100.0 (692)
제주	1.2	98.8	0.0	3.2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3〉노인의 시·도별 주거지의 생활편리성(조사원 의견)

(단위: %, 명)

구분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배려설비 없음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추고 있음	계 (명)
전체 ¹⁾	8.9	71.3	19.8	100.0 (10,097)
서울	4.5	74.4	21.1	100.0 (1,820)
부산	8.0	73.6	18.5	100.0 (784)
대구	6.9	81.3	11.8	100.0 (486)
인천	9.1	68.4	22.6	100.0 (487)
광주	11.9	61.0	27.1	100.0 (255)
대전	10.8	80.1	9.0	100.0 (256)
울산	7.0	69.9	23.1	100.0 (168)
세종	0.0	82.6	17.4	100.0 (39)
경기	7.0	68.6	24.4	100.0 (2,090)
강원	3.8	73.5	22.7	100.0 (380)
충북	8.3	77.9	13.7	100.0 (346)
충남	16.8	65.5	17.7	100.0 (487)
전북	11.3	77.0	11.7	100.0 (468)
전남	29.0	48.9	22.0	100.0 (520)
경북	8.6	76.7	14.7	100.0 (694)
경남	8.5	69.0	22.5	100.0 (692)
제주	8.1	87.1	4.8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4〉노인의 시·도별 거주형태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무상	계 (명)
전체 ¹⁾	79.8	9.8	7.1	0.5	2.8	100.0 (10,097)
서울	66.6	22.7	9.1	0.5	1.2	100.0 (1,820)
부산	83.3	6.8	7.7	0.6	1.6	100.0 (784)
대구	84.0	6.3	5.8	1.3	2.6	100.0 (486)
인천	75.8	11.4	7.0	1.2	4.6	100.0 (487)
광주	88.8	2.1	8.8	0.0	0.4	100.0 (255)
대전	80.2	4.9	7.9	0.8	6.3	100.0 (256)
울산	89.1	4.3	6.2	0.0	0.4	100.0 (168)
세종	79.8	1.4	11.9	0.0	7.0	100.0 (39)
경기	75.0	14.4	9.6	0.0	1.0	100.0 (2,090)
강원	77.1	3.0	7.4	0.7	11.9	100.0 (380)
충북	88.1	5.5	2.4	0.5	3.5	100.0 (346)
충남	88.7	5.3	2.8	0.1	3.2	100.0 (487)
전북	85.9	3.5	6.2	0.3	4.0	100.0 (468)
전남	96.0	1.2	2.5	0.0	0.3	100.0 (520)
경북	88.6	1.6	0.8	0.5	8.5	100.0 (694)
경남	85.9	3.7	9.7	0.0	0.7	100.0 (692)
제주	72.9	0.4	4.3	8.2	14.2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대리응답자 포함) 10,097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11-5〉노인의 시·도별 거주주택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계 (명)
전체 ¹⁾	9.9	65.7	20.7	3.5	0.2	100.0 (9,930)
서울	9.3	68.0	19.6	2.9	0.1	100.0 (1,805)
부산	3.1	71.2	23.3	2.4	0.0	100.0 (783)
대구	11.4	72.0	14.6	2.0	0.0	100.0 (472)
인천	10.6	56.7	28.5	4.1	0.1	100.0 (465)
광주	10.4	72.4	15.9	1.3	0.0	100.0 (242)
대전	11.3	61.4	21.7	5.6	0.1	100.0 (246)
울산	3.5	76.1	18.5	2.0	0.0	100.0 (168)
세종	28.0	67.1	4.9	0.0	0.0	100.0 (38)
경기	13.1	60.3	22.5	3.7	0.4	100.0 (2,068)
강원	6.5	56.0	32.3	5.1	0.2	100.0 (376)
충북	6.6	62.0	27.8	3.6	0.0	100.0 (337)
충남	5.8	57.4	21.1	14.5	1.1	100.0 (473)
전북	16.5	67.3	11.3	3.7	1.2	100.0 (459)
전남	14.1	71.7	12.6	1.5	0.0	100.0 (511)
경북	10.8	64.8	22.6	1.7	0.2	100.0 (676)
경남	1.7	78.8	18.3	1.2	0.0	100.0 (692)
제주	36.1	45.4	13.7	4.5	0.3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6〉노인의 시·도별 시장/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장소와의 도보 이동시간

(단위: %, 명)

구분	5분 미만	5분~10분	10분~20분	20분~30분	30분 이상	계 (명)
전체 ¹⁾	14.3	53.3	21.1	5.7	5.6	100.0 (10,097)
서울	16.7	69.7	12.6	1.0	0.0	100.0 (1,820)
부산	3.3	69.7	19.7	6.9	0.3	100.0 (784)
대구	23.8	66.1	8.3	1.7	0.1	100.0 (486)
인천	10.5	47.3	30.0	9.5	2.7	100.0 (487)
광주	28.3	50.3	21.0	0.4	0.0	100.0 (255)
대전	25.3	46.8	18.1	7.2	2.6	100.0 (256)
울산	12.7	58.9	25.1	1.8	1.6	100.0 (168)
세종	20.2	53.2	18.7	8.0	0.0	100.0 (39)
경기	12.1	48.9	28.2	5.9	4.9	100.0 (2,090)
강원	23.0	33.3	17.3	16.8	9.7	100.0 (380)
충북	8.8	45.5	26.5	7.2	12.0	100.0 (346)
충남	9.4	41.8	24.7	15.2	8.9	100.0 (487)
전북	41.4	22.1	12.2	4.0	20.2	100.0 (468)
전남	11.7	47.8	31.7	3.5	5.3	100.0 (520)
경북	9.0	48.9	25.5	5.5	11.1	100.0 (694)
경남	5.7	56.0	15.4	7.8	15.1	100.0 (692)
제주	8.4	44.0	31.8	8.1	7.7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7〉노인의 시·도별 병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과의 도보 이동시간

(단위: %, 명)

구분	5분 미만	5분~10분	10분~20분	20분~30분	30분 이상	계 (명)
전체 ¹⁾	6.9	35.5	36.7	11.7	9.2	100.0 (10,097)
서울	10.6	45.2	36.0	6.6	1.6	100.0 (1,820)
부산	3.9	44.2	38.3	7.7	5.9	100.0 (784)
대구	14.3	61.6	19.2	4.1	0.7	100.0 (486)
인천	4.6	27.3	42.1	19.0	6.9	100.0 (487)
광주	15.8	48.0	34.0	1.8	0.4	100.0 (255)
대전	11.2	33.7	32.8	17.2	5.0	100.0 (256)
울산	5.3	41.5	39.5	10.5	3.2	100.0 (168)
세종	4.9	48.1	30.5	16.4	0.0	100.0 (39)
경기	3.7	31.4	40.9	15.2	8.8	100.0 (2,090)
강원	3.7	44.6	24.3	16.6	10.7	100.0 (380)
충북	4.1	25.5	38.8	17.5	14.2	100.0 (346)
충남	5.1	22.1	32.5	18.5	21.8	100.0 (487)
전북	19.7	30.4	21.2	9.5	19.2	100.0 (468)
전남	5.3	40.2	39.6	8.5	6.4	100.0 (520)
경북	6.0	12.2	50.2	12.9	18.7	100.0 (694)
경남	0.7	25.7	39.0	13.8	20.9	100.0 (692)
제주	4.5	37.0	31.6	11.6	15.3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8〉 노인의 시·도별 주민센터와의 도보 이동시간

(단위: %, 명)

구분	5분 미만	5분~10분	10분~20분	20분~30분	30분 이상	계 (명)
전체 ¹⁾	5.2	27.5	37.2	19.3	10.8	100.0 (10,097)
서울	6.5	41.8	39.3	10.4	2.0	100.0 (1,820)
부산	2.0	33.0	46.4	16.3	2.3	100.0 (784)
대구	10.6	41.9	32.7	14.1	0.7	100.0 (486)
인천	3.3	19.1	36.3	32.5	8.8	100.0 (487)
광주	7.9	45.2	40.6	5.9	0.4	100.0 (255)
대전	6.0	20.7	44.8	19.1	9.3	100.0 (256)
울산	0.6	23.7	47.6	20.5	7.7	100.0 (168)
세종	3.1	28.8	43.0	21.2	3.8	100.0 (39)
경기	4.2	24.2	33.5	24.5	13.7	100.0 (2,090)
강원	4.9	29.4	25.3	28.2	12.3	100.0 (380)
충북	1.6	19.7	38.9	24.8	15.2	100.0 (346)
충남	6.1	13.1	36.7	18.2	25.9	100.0 (487)
전북	12.9	19.9	28.9	18.2	20.1	100.0 (468)
전남	6.7	37.1	38.1	12.6	5.4	100.0 (520)
경북	5.8	8.8	42.5	23.9	19.0	100.0 (694)
경남	0.5	17.0	34.9	24.2	23.4	100.0 (692)
제주	3.3	21.5	36.9	18.3	20.1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9〉 노인의 시·도별 노인복지관과의 도보 이동시간

(단위: %, 명)

구분	5분 미만	5분~10분	10분~20분	20분~30분	30분 이상	계 (명)
전체 ¹⁾	3.9	20.8	30.5	24.8	20.1	100.0 (10,097)
서울	3.9	32.1	34.1	16.3	13.6	100.0 (1,820)
부산	1.3	23.6	43.8	23.4	7.9	100.0 (784)
대구	7.8	11.7	26.2	29.5	24.8	100.0 (486)
인천	0.8	8.8	28.4	33.4	28.6	100.0 (487)
광주	11.8	38.9	39.3	8.6	1.4	100.0 (255)
대전	6.3	17.0	40.2	26.7	9.9	100.0 (256)
울산	1.2	17.6	44.5	23.8	12.8	100.0 (168)
세종	4.3	20.9	36.4	31.7	6.7	100.0 (39)
경기	2.4	19.0	22.5	30.4	25.7	100.0 (2,090)
강원	9.3	24.5	21.1	31.5	13.6	100.0 (380)
충북	3.8	16.0	31.8	29.7	18.7	100.0 (346)
충남	5.2	16.1	34.4	19.6	24.7	100.0 (487)
전북	2.8	12.2	20.1	26.7	38.2	100.0 (468)
전남	5.8	35.4	38.5	14.8	5.5	100.0 (520)
경북	5.8	8.1	30.1	28.8	27.2	100.0 (694)
경남	0.7	15.2	26.6	28.1	29.4	100.0 (692)
제주	6.6	17.7	33.0	19.2	23.6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10〉 노인의 시·도별 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과의 도보 이동시간

(단위: %, 명)

구분	5분 미만	5분~10분	10분~20분	20분~30분	30분 이상	계 (명)
전체 ¹⁾	3.6	19.1	29.0	25.5	22.8	100.0 (10,097)
서울	5.1	25.8	31.4	23.2	14.6	100.0 (1,820)
부산	1.3	23.0	42.0	20.4	13.3	100.0 (784)
대구	8.0	14.4	21.1	31.4	25.1	100.0 (486)
인천	0.3	8.7	28.3	35.5	27.2	100.0 (487)
광주	14.6	39.2	31.4	13.2	1.6	100.0 (255)
대전	5.6	19.0	38.7	26.1	10.5	100.0 (256)
울산	0.8	16.5	42.4	26.8	13.5	100.0 (168)
세종	3.2	19.8	39.2	31.0	6.8	100.0 (39)
경기	2.1	16.2	22.5	24.8	34.3	100.0 (2,090)
강원	3.0	29.7	24.5	31.1	11.6	100.0 (380)
충북	1.4	17.8	33.8	28.9	18.2	100.0 (346)
충남	5.1	15.0	32.4	24.3	23.2	100.0 (487)
전북	1.6	9.1	24.6	29.7	35.0	100.0 (468)
전남	5.3	35.9	37.7	15.5	5.6	100.0 (520)
경북	5.8	5.9	25.3	30.4	32.6	100.0 (694)
경남	1.0	15.7	25.3	27.2	30.8	100.0 (692)
제주	2.1	12.0	20.3	25.6	40.1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11〉 노인의 시·도별 버스 정류장/지하철역과의 도보 이동시간

(단위: %, 명)

구분	5분 미만	5분~10분	10분~20분	20분~30분	30분 이상	계 (명)
전체 ¹⁾	16.2	54.9	22.8	4.3	1.8	100.0 (10,097)
서울	17.3	63.6	14.7	3.7	0.6	100.0 (1,820)
부산	10.7	58.8	26.6	3.6	0.3	100.0 (784)
대구	22.9	52.4	21.4	3.1	0.2	100.0 (486)
인천	20.6	51.7	23.1	3.5	1.1	100.0 (487)
광주	23.9	42.2	31.9	2.0	0.0	100.0 (255)
대전	23.9	51.1	20.5	4.3	0.3	100.0 (256)
울산	12.1	59.8	23.3	4.1	0.7	100.0 (168)
세종	19.3	64.6	13.0	2.5	0.7	100.0 (39)
경기	16.6	63.1	16.5	3.5	0.4	100.0 (2,090)
강원	4.5	58.1	26.7	8.8	1.9	100.0 (380)
충북	7.8	46.0	33.6	7.7	4.8	100.0 (346)
충남	10.7	50.9	23.7	8.8	5.8	100.0 (487)
전북	44.3	34.6	11.5	3.5	6.2	100.0 (468)
전남	9.8	41.9	45.5	2.3	0.6	100.0 (520)
경북	8.5	38.9	40.8	7.5	4.3	100.0 (694)
경남	14.2	56.9	20.5	3.0	5.4	100.0 (692)
제주	13.0	52.6	28.5	4.7	1.2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12〉노인의 시·도별 산책, 운동할 수 있는 공원과 도보 이동시간

(단위: %, 명)

구분	5분 미만	5분~10분	10분~20분	20분~30분	30분 이상	계 (명)
전체 ¹⁾	14.5	47.3	30.7	5.4	2.2	100.0 (10,097)
서울	13.8	51.9	30.7	3.0	0.6	100.0 (1,820)
부산	9.5	39.2	40.7	9.8	0.9	100.0 (784)
대구	20.4	52.9	23.4	3.2	0.1	100.0 (486)
인천	6.4	47.2	37.8	4.7	3.9	100.0 (487)
광주	15.2	50.4	33.0	1.4	0.0	100.0 (255)
대전	20.7	50.7	22.6	5.6	0.5	100.0 (256)
울산	5.5	51.2	35.2	6.4	1.7	100.0 (168)
세종	14.3	74.9	8.4	2.5	0.0	100.0 (39)
경기	19.9	47.2	29.2	3.6	0.1	100.0 (2,090)
강원	7.9	57.4	24.2	8.2	2.3	100.0 (380)
충북	6.8	42.4	37.3	7.7	5.9	100.0 (346)
충남	9.4	53.8	22.1	11.2	3.5	100.0 (487)
전북	18.7	40.7	22.1	6.6	11.8	100.0 (468)
전남	9.0	40.1	47.0	3.7	0.2	100.0 (520)
경북	21.6	36.7	28.3	8.4	4.9	100.0 (694)
경남	13.7	49.7	29.1	3.6	3.8	100.0 (692)
제주	4.9	39.7	26.6	20.1	8.7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13〉노인의 시·도별 현재 거주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거리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전혀 만족않음	계 (명)
전체 ¹⁾	7.6	62.4	21.8	6.3	1.8	100.0 (9,930)
서울	7.5	74.5	16.5	1.5	0.0	100.0 (1,805)
부산	1.4	69.7	24.6	4.3	0.0	100.0 (783)
대구	14.7	73.2	7.8	4.1	0.2	100.0 (472)
인천	3.0	60.9	26.4	8.8	0.9	100.0 (465)
광주	14.7	71.9	13.2	0.2	0.0	100.0 (242)
대전	14.0	62.6	18.3	4.1	1.1	100.0 (246)
울산	4.3	73.5	20.4	1.5	0.3	100.0 (168)
세종	12.3	62.5	21.5	3.7	0.0	100.0 (38)
경기	9.7	57.7	21.8	6.9	3.9	100.0 (2,068)
강원	16.4	41.7	32.6	8.4	1.0	100.0 (376)
충북	3.8	56.6	27.0	11.1	1.5	100.0 (337)
충남	8.9	41.0	31.2	14.9	4.0	100.0 (473)
전북	4.0	57.3	24.5	11.1	3.1	100.0 (459)
전남	12.1	64.9	20.6	2.4	0.0	100.0 (511)
경북	4.3	49.5	28.8	14.0	3.4	100.0 (676)
경남	1.5	67.1	21.6	6.5	3.2	100.0 (692)
제주	10.2	63.5	20.5	4.5	1.2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14〉 노인의 시·도별 현재 거주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 : 대중교통 빈도/노선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전혀 만족않음	계 (명)
전체 ¹⁾	14.3	53.6	24.7	6.1	1.4	100.0 (9,930)
서울	21.8	58.7	18.2	1.4	0.0	100.0 (1,805)
부산	9.3	57.2	30.6	2.9	0.0	100.0 (783)
대구	23.8	61.9	11.3	2.3	0.6	100.0 (472)
인천	7.9	67.7	16.4	7.5	0.5	100.0 (465)
광주	30.9	50.0	18.1	1.0	0.0	100.0 (242)
대전	22.6	46.4	25.1	5.8	0.1	100.0 (246)
울산	13.6	58.1	27.1	1.0	0.2	100.0 (168)
세종	22.9	50.5	22.8	3.8	0.0	100.0 (38)
경기	13.3	51.7	24.6	7.9	2.5	100.0 (2,068)
강원	10.6	48.8	28.9	10.5	1.3	100.0 (376)
충북	5.9	46.9	36.2	10.0	1.0	100.0 (337)
충남	8.1	40.3	36.6	11.5	3.4	100.0 (473)
전북	11.2	55.9	22.9	8.1	1.9	100.0 (459)
전남	23.4	49.7	23.5	3.2	0.2	100.0 (511)
경북	6.5	43.7	36.3	10.5	2.9	100.0 (676)
경남	6.1	52.1	29.2	9.3	3.3	100.0 (692)
제주	11.0	72.2	8.7	7.1	1.0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15〉 노인의 시·도별 현재 거주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_녹지공간, 공간 충분성 또는 거리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전혀 만족않음	계 (명)
전체 ¹⁾	19.8	45.5	29.1	4.8	0.7	100.0 (9,930)
서울	19.7	48.1	28.9	3.0	0.3	100.0 (1,805)
부산	11.2	41.9	38.7	8.2	0.0	100.0 (783)
대구	21.1	56.0	20.0	2.8	0.1	100.0 (472)
인천	10.6	46.7	32.3	8.3	2.1	100.0 (465)
광주	25.2	50.8	20.7	3.3	0.0	100.0 (242)
대전	27.9	40.3	24.6	5.9	1.3	100.0 (246)
울산	10.9	46.4	39.8	2.9	0.0	100.0 (168)
세종	36.5	31.6	27.4	4.5	0.0	100.0 (38)
경기	24.1	40.7	30.1	4.9	0.2	100.0 (2,068)
강원	27.9	42.7	23.9	4.0	1.4	100.0 (376)
충북	15.3	37.5	41.2	5.2	0.6	100.0 (337)
충남	14.1	42.5	30.3	10.3	2.8	100.0 (473)
전북	14.1	55.0	27.8	2.8	0.3	100.0 (459)
전남	31.5	49.0	16.9	2.5	0.1	100.0 (511)
경북	20.8	36.5	33.4	6.9	2.5	100.0 (676)
경남	16.6	54.5	25.7	2.7	0.5	100.0 (692)
제주	10.9	59.4	18.8	5.2	5.7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16〉 노인의 시·도별 현재 거주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_치안, 교통안전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전혀 만족않음	계 (명)
전체 ¹⁾	13.1	51.9	29.2	4.9	1.0	100.0 (9,930)
서울	14.0	56.3	26.5	3.2	0.0	100.0 (1,805)
부산	8.3	52.3	36.9	2.5	0.0	100.0 (783)
대구	16.8	63.6	16.1	3.2	0.4	100.0 (472)
인천	3.2	64.5	25.0	7.3	0.0	100.0 (465)
광주	25.2	47.5	25.7	1.5	0.0	100.0 (242)
대전	19.6	49.6	25.5	5.1	0.2	100.0 (246)
울산	11.5	49.0	36.2	3.3	0.0	100.0 (168)
세종	30.1	41.6	25.5	2.8	0.0	100.0 (38)
경기	10.7	46.4	33.0	7.4	2.6	100.0 (2,068)
강원	24.8	46.3	22.8	4.6	1.5	100.0 (376)
충북	10.7	42.8	37.7	8.2	0.6	100.0 (337)
충남	13.6	44.0	31.6	9.1	1.7	100.0 (473)
전북	11.2	60.9	26.3	1.7	0.0	100.0 (459)
전남	27.0	51.9	19.9	1.1	0.1	100.0 (511)
경북	10.0	42.3	37.4	7.9	2.4	100.0 (676)
경남	9.7	58.5	26.2	4.3	1.2	100.0 (692)
제주	7.0	56.7	33.9	2.3	0.0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17〉 노인의 시·도별 현재 거주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_자녀 또는 친지의 거주지와의 거리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전혀 만족않음	계 (명)
전체 ¹⁾	9.8	45.8	33.7	9.3	1.4	100.0 (9,930)
서울	9.0	49.5	35.1	6.2	0.2	100.0 (1,805)
부산	4.2	46.4	40.8	5.8	2.8	100.0 (783)
대구	15.6	53.1	21.7	7.1	2.5	100.0 (472)
인천	6.7	43.6	38.8	9.4	1.5	100.0 (465)
광주	20.8	48.0	28.6	2.5	0.1	100.0 (242)
대전	23.4	37.7	26.1	10.3	2.5	100.0 (246)
울산	6.1	54.5	34.5	4.6	0.2	100.0 (168)
세종	25.9	44.5	23.2	6.4	0.0	100.0 (38)
경기	9.7	44.0	33.7	11.6	0.9	100.0 (2,068)
강원	12.4	45.4	29.8	11.2	1.2	100.0 (376)
충북	9.3	38.7	41.0	10.3	0.8	100.0 (337)
충남	8.0	35.7	28.8	24.8	2.7	100.0 (473)
전북	6.9	44.7	28.3	18.0	2.2	100.0 (459)
전남	16.4	54.0	25.8	3.6	0.1	100.0 (511)
경북	7.0	35.8	43.8	10.0	3.3	100.0 (676)
경남	7.7	50.1	35.5	5.3	1.4	100.0 (692)
제주	9.8	57.9	20.5	7.7	4.0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18〉 노인의 시·도별 현재 거주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_이웃과의 교류 기회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전혀 만족않음	계 (명)
전체 ¹⁾	12.0	55.8	28.3	3.6	0.3	100.0 (9,930)
서울	9.4	56.2	30.5	3.7	0.2	100.0 (1,805)
부산	6.8	56.2	32.9	3.9	0.1	100.0 (783)
대구	19.0	59.2	19.3	2.0	0.5	100.0 (472)
인천	7.1	56.6	30.8	5.3	0.2	100.0 (465)
광주	22.6	53.3	23.2	0.9	0.0	100.0 (242)
대전	22.5	49.4	23.7	3.3	1.1	100.0 (246)
울산	9.0	55.7	33.4	1.7	0.2	100.0 (168)
세종	29.7	51.1	18.1	1.1	0.0	100.0 (38)
경기	12.8	54.1	29.6	3.3	0.2	100.0 (2,068)
강원	9.9	60.7	25.2	3.6	0.6	100.0 (376)
충북	13.3	48.2	31.9	5.7	0.8	100.0 (337)
충남	10.6	51.3	31.4	5.4	1.2	100.0 (473)
전북	8.0	63.4	24.7	3.3	0.5	100.0 (459)
전남	19.0	60.6	19.6	0.8	0.0	100.0 (511)
경북	11.1	51.0	31.5	6.3	0.2	100.0 (676)
경남	13.6	59.7	23.8	2.2	0.7	100.0 (692)
제주	7.0	57.8	30.1	4.4	0.7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19〉 노인의 시·도별 현재 거주 지역사회 환경 만족도_지역사회 환경 전반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불만족	전혀 만족않음	계 (명)
전체 ¹⁾	6.9	57.0	32.1	3.6	0.3	100.0 (9,930)
서울	5.5	67.7	24.6	2.2	0.0	100.0 (1,805)
부산	4.8	51.2	41.6	2.4	0.0	100.0 (783)
대구	12.9	71.5	13.1	2.1	0.5	100.0 (472)
인천	3.2	54.3	41.1	1.2	0.2	100.0 (465)
광주	10.8	65.6	23.4	0.1	0.0	100.0 (242)
대전	11.0	61.1	23.3	4.5	0.1	100.0 (246)
울산	5.0	58.1	35.1	1.8	0.0	100.0 (168)
세종	15.2	63.8	21.0	0.0	0.0	100.0 (38)
경기	7.5	47.2	38.4	6.7	0.2	100.0 (2,068)
강원	13.8	54.1	27.8	3.5	0.8	100.0 (376)
충북	5.9	52.0	36.9	4.8	0.4	100.0 (337)
충남	4.0	49.5	39.3	7.1	0.1	100.0 (473)
전북	2.1	60.2	34.4	3.3	0.0	100.0 (459)
전남	8.0	71.3	20.1	0.6	0.0	100.0 (511)
경북	7.2	46.8	39.6	4.9	1.6	100.0 (676)
경남	7.4	58.6	30.6	2.1	1.3	100.0 (692)
제주	7.2	56.4	33.9	2.3	0.2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20〉 노인의 시·도별 건강 유지시 희망 거주 형태

(단위: %, 명)

구분	현재 집에서 계속 산다	거주 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한다	식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주택에 들어간다	기타	계 (명)
전체 ¹⁾	83.8	11.2	4.9	0.0	100.0 (9,930)
서울	74.4	17.5	8.1	0.0	100.0 (1,805)
부산	81.5	12.9	5.6	0.0	100.0 (783)
대구	93.2	4.6	2.2	0.0	100.0 (472)
인천	86.6	11.1	2.1	0.2	100.0 (465)
광주	87.9	10.1	2.0	0.0	100.0 (242)
대전	89.1	8.3	2.6	0.0	100.0 (246)
울산	87.4	9.2	3.4	0.0	100.0 (168)
세종	97.1	1.7	1.2	0.0	100.0 (38)
경기	80.5	12.8	6.6	0.0	100.0 (2,068)
강원	88.5	8.4	3.2	0.0	100.0 (376)
충북	79.8	9.4	10.9	0.0	100.0 (337)
충남	89.0	8.6	2.4	0.0	100.0 (473)
전북	88.5	8.8	2.6	0.1	100.0 (459)
전남	87.9	11.0	1.2	0.0	100.0 (511)
경북	92.8	4.8	2.5	0.0	100.0 (676)
경남	87.4	8.7	3.9	0.0	100.0 (692)
제주	94.3	3.9	1.7	0.0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21〉 노인의 시·도별 거동 불편시 희망 거주 형태

(단위: %, 명)

구분	(자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산다	자녀 또는 형제자매/친구의 근거리로 이사하여 산다	돌봄, 식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들어간다	기타	계 (명)
전체 ¹⁾	56.5	7.2	4.9	31.3	0.0	100.0 (9,930)
서울	49.1	13.2	7.4	30.3	0.0	100.0 (1,805)
부산	66.1	6.2	4.9	22.9	0.0	100.0 (783)
대구	54.9	5.0	2.2	37.9	0.0	100.0 (472)
인천	50.6	2.3	4.4	42.2	0.4	100.0 (465)
광주	81.8	10.0	1.9	6.3	0.0	100.0 (242)
대전	60.7	6.7	3.5	29.0	0.1	100.0 (246)
울산	67.9	6.2	5.0	21.0	0.0	100.0 (168)
세종	53.7	16.7	4.8	24.9	0.0	100.0 (38)
경기	56.2	5.6	4.8	33.4	0.0	100.0 (2,068)
강원	41.6	4.9	2.9	50.5	0.0	100.0 (376)
충북	42.9	4.2	5.1	47.8	0.0	100.0 (337)
충남	45.1	8.8	5.6	40.5	0.0	100.0 (473)
전북	77.7	2.0	1.9	18.3	0.0	100.0 (459)
전남	74.9	10.0	1.4	13.8	0.0	100.0 (511)
경북	47.0	4.1	10.2	38.7	0.0	100.0 (676)
경남	62.6	6.8	3.5	27.0	0.0	100.0 (692)
제주	55.9	4.7	1.0	38.4	0.0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22〉 노인의 시·도별 지속 거주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	필요	그저 그렇다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 (명)
전체 ¹⁾	11.0	56.4	21.1	9.2	2.2	100.0 (9,930)
서울	10.4	60.8	16.5	11.5	0.8	100.0 (1,805)
부산	6.4	54.9	30.1	7.7	0.9	100.0 (783)
대구	6.0	44.4	23.9	21.0	4.6	100.0 (472)
인천	17.4	58.8	12.4	7.7	3.7	100.0 (465)
광주	15.7	67.0	13.2	2.5	1.6	100.0 (242)
대전	16.5	56.9	20.7	3.9	2.0	100.0 (246)
울산	5.5	58.1	29.8	6.3	0.3	100.0 (168)
세종	12.6	45.8	33.3	8.3	0.0	100.0 (38)
경기	10.6	58.3	13.8	11.7	5.5	100.0 (2,068)
강원	24.7	24.7	40.2	9.1	1.4	100.0 (376)
충북	11.5	55.5	26.7	4.8	1.4	100.0 (337)
충남	14.6	41.6	31.7	11.4	0.8	100.0 (473)
전북	13.0	60.6	22.7	3.6	0.0	100.0 (459)
전남	13.6	71.3	12.9	0.8	1.3	100.0 (511)
경북	6.0	53.8	31.4	8.0	0.8	100.0 (676)
경남	6.6	61.3	24.5	6.9	0.7	100.0 (692)
제주	18.7	50.2	17.6	13.0	0.5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23〉 노인의 시·도별 지속 거주를 위한 일상생활 지원 필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	필요	그저 그렇다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 (명)
전체 ¹⁾	22.2	42.9	23.6	8.3	3.0	100.0 (9,930)
서울	27.2	40.1	24.0	7.2	1.5	100.0 (1,805)
부산	12.9	44.3	31.0	9.6	2.2	100.0 (783)
대구	10.6	29.2	35.5	18.9	5.7	100.0 (472)
인천	20.4	49.5	17.2	8.2	4.7	100.0 (465)
광주	28.4	45.7	19.2	3.4	3.4	100.0 (242)
대전	28.8	46.2	18.7	4.1	2.2	100.0 (246)
울산	13.6	45.2	31.7	7.9	1.7	100.0 (168)
세종	30.8	31.9	28.1	8.6	0.7	100.0 (38)
경기	28.2	31.4	21.3	12.6	6.5	100.0 (2,068)
강원	25.5	40.5	26.9	6.2	1.0	100.0 (376)
충북	20.8	57.0	16.8	5.2	0.2	100.0 (337)
충남	19.5	46.9	24.8	8.5	0.3	100.0 (473)
전북	20.0	53.6	21.0	4.4	1.1	100.0 (459)
전남	24.8	53.9	16.4	1.2	3.6	100.0 (511)
경북	9.8	57.3	27.2	5.1	0.5	100.0 (676)
경남	19.7	47.5	23.8	5.5	3.5	100.0 (692)
제주	25.9	45.7	15.5	12.4	0.5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24〉 노인의 시·도별 지속 거주를 위한 안전 지원 필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	필요	그저 그렇다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 (명)
전체 ¹⁾	22.5	44.0	22.8	8.2	2.6	100.0 (9,930)
서울	25.4	43.2	21.6	9.0	0.8	100.0 (1,805)
부산	10.1	48.4	32.2	6.5	2.7	100.0 (783)
대구	9.9	34.2	30.7	20.3	5.0	100.0 (472)
인천	15.8	49.2	22.7	7.9	4.3	100.0 (465)
광주	30.5	39.4	21.1	5.4	3.6	100.0 (242)
대전	32.1	42.1	20.0	4.7	1.1	100.0 (246)
울산	15.1	42.7	31.6	8.5	2.0	100.0 (168)
세종	39.2	30.7	24.0	4.7	1.3	100.0 (38)
경기	23.6	36.9	21.3	12.7	5.5	100.0 (2,068)
강원	27.9	40.9	23.6	7.0	0.6	100.0 (376)
충북	32.3	47.9	16.7	2.7	0.4	100.0 (337)
충남	22.6	44.9	26.8	5.2	0.4	100.0 (473)
전북	16.0	60.6	20.8	2.5	0.2	100.0 (459)
전남	37.3	42.2	14.8	2.4	3.3	100.0 (511)
경북	23.9	52.6	19.7	3.7	0.2	100.0 (676)
경남	18.3	48.9	24.2	5.5	3.1	100.0 (692)
제주	15.9	46.5	21.0	15.6	0.9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25〉 노인의 시·도별 지속 거주를 위한 의료인이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건강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	필요	그저 그렇다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 (명)
전체 ¹⁾	25.9	43.5	20.9	7.1	2.6	100.0 (9,930)
서울	25.3	43.9	21.0	9.2	0.6	100.0 (1,805)
부산	11.8	54.6	26.7	5.0	1.8	100.0 (783)
대구	15.3	38.6	25.8	14.2	6.0	100.0 (472)
인천	28.7	44.4	16.4	6.2	4.3	100.0 (465)
광주	30.2	45.4	17.6	3.7	3.0	100.0 (242)
대전	30.3	43.3	19.9	5.3	1.4	100.0 (246)
울산	16.7	47.0	29.5	4.8	2.0	100.0 (168)
세종	31.2	35.6	27.7	4.8	0.7	100.0 (38)
경기	28.4	38.6	16.8	10.4	5.7	100.0 (2,068)
강원	30.3	44.0	18.8	4.7	2.2	100.0 (376)
충북	29.7	47.5	19.6	1.9	1.4	100.0 (337)
충남	22.7	44.4	24.4	7.7	0.8	100.0 (473)
전북	42.8	44.1	12.4	0.6	0.2	100.0 (459)
전남	37.5	41.2	16.1	2.0	3.2	100.0 (511)
경북	28.6	36.6	29.4	4.8	0.5	100.0 (676)
경남	16.8	51.3	24.3	5.0	2.7	100.0 (692)
제주	16.3	43.3	26.8	13.0	0.5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26〉 노인의 시·도별 지속 거주를 위한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	필요	그저 그렇다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 (명)
전체 ¹⁾	21.2	46.5	22.2	7.5	2.6	100.0 (9,930)
서울	17.9	49.9	22.5	8.9	0.7	100.0 (1,805)
부산	13.7	52.2	25.6	7.1	1.5	100.0 (783)
대구	11.1	36.6	28.7	18.6	4.9	100.0 (472)
인천	27.2	44.6	15.5	8.1	4.6	100.0 (465)
광주	27.6	46.9	18.1	3.9	3.6	100.0 (242)
대전	27.4	49.9	16.3	4.9	1.5	100.0 (246)
울산	16.1	46.5	30.2	5.1	2.1	100.0 (168)
세종	25.0	44.3	20.4	9.6	0.7	100.0 (38)
경기	17.5	39.9	26.3	10.9	5.5	100.0 (2,068)
강원	26.7	41.7	23.2	6.0	2.3	100.0 (376)
충북	23.0	57.6	15.1	3.2	1.2	100.0 (337)
충남	19.7	42.8	28.4	8.3	0.7	100.0 (473)
전북	42.9	44.9	11.3	0.7	0.2	100.0 (459)
전남	30.8	48.9	16.1	0.9	3.3	100.0 (511)
경북	26.9	50.5	19.8	2.3	0.5	100.0 (676)
경남	18.7	52.4	21.0	5.6	2.3	100.0 (692)
제주	23.2	50.5	14.1	11.4	0.8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27〉 노인의 시·도별 지속 거주를 위한 상담 서비스 필요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필요	필요	그저 그렇다	불필요	전혀 불필요	계 (명)
전체 ¹⁾	11.3	46.9	31.0	8.5	2.3	100.0 (9,930)
서울	10.3	52.4	26.6	10.5	0.3	100.0 (1,805)
부산	5.3	43.3	39.8	9.0	2.5	100.0 (783)
대구	4.8	36.3	35.7	17.9	5.3	100.0 (472)
인천	13.1	45.5	28.3	8.6	4.5	100.0 (465)
광주	18.2	55.4	19.9	3.9	2.6	100.0 (242)
대전	20.2	51.2	22.4	4.7	1.5	100.0 (246)
울산	6.1	43.2	40.9	7.5	2.3	100.0 (168)
세종	18.2	40.0	33.6	7.5	0.7	100.0 (38)
경기	8.5	42.0	33.2	11.2	5.1	100.0 (2,068)
강원	17.8	41.2	32.3	7.9	0.8	100.0 (376)
충북	16.9	52.2	25.9	4.0	1.1	100.0 (337)
충남	13.3	39.3	38.3	8.8	0.3	100.0 (473)
전북	30.1	43.1	23.5	3.3	0.0	100.0 (459)
전남	15.8	60.9	19.8	0.8	2.7	100.0 (511)
경북	7.4	51.4	38.9	2.0	0.3	100.0 (676)
경남	8.2	50.5	31.9	7.3	2.2	100.0 (692)
제주	12.7	42.5	27.0	16.3	1.4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28〉 노인의 시·도별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의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_식사서비스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17.2	38.5	24.9	13.4	6.1	100.0 (10,097)
서울	19.0	43.6	23.1	9.8	4.5	100.0 (1,820)
부산	6.6	35.7	29.7	18.0	10.0	100.0 (784)
대구	8.4	32.9	17.0	32.4	9.3	100.0 (486)
인천	20.1	36.0	20.3	15.5	8.0	100.0 (487)
광주	8.4	54.4	22.8	9.2	5.2	100.0 (255)
대전	13.9	50.0	21.8	12.1	2.3	100.0 (256)
울산	9.3	36.9	27.4	17.3	9.0	100.0 (168)
세종	11.5	47.8	20.8	15.4	4.5	100.0 (39)
경기	25.1	31.1	22.5	13.0	8.3	100.0 (2,090)
강원	28.0	21.5	40.2	9.8	0.4	100.0 (380)
충북	18.1	43.7	23.8	11.7	2.7	100.0 (346)
충남	12.0	31.8	38.2	14.0	4.0	100.0 (487)
전북	10.3	50.6	28.0	10.3	0.7	100.0 (468)
전남	8.1	62.4	19.4	4.4	5.8	100.0 (520)
경북	20.8	31.0	26.0	19.5	2.7	100.0 (694)
경남	16.9	39.8	22.6	9.4	11.3	100.0 (692)
제주	12.5	32.3	38.4	15.4	1.5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29〉 노인의 시·도별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의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_청소 및 빨래서비스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17.5	35.4	29.9	11.1	6.0	100.0 (10,097)
서울	21.7	35.9	27.4	10.2	4.9	100.0 (1,820)
부산	12.3	35.1	32.2	10.2	10.2	100.0 (784)
대구	13.7	30.0	25.8	23.3	7.1	100.0 (486)
인천	10.8	41.0	24.9	15.1	8.2	100.0 (487)
광주	15.2	47.3	24.7	8.1	4.7	100.0 (255)
대전	26.0	31.4	27.0	11.9	3.7	100.0 (256)
울산	14.6	32.0	36.4	8.3	8.7	100.0 (168)
세종	27.0	33.7	23.6	11.4	4.3	100.0 (39)
경기	14.9	27.0	39.6	10.3	8.1	100.0 (2,090)
강원	31.3	28.8	30.7	8.1	1.0	100.0 (380)
충북	22.5	41.2	22.4	11.3	2.7	100.0 (346)
충남	13.6	28.6	40.2	13.8	3.8	100.0 (487)
전북	12.7	50.6	26.6	9.5	0.6	100.0 (468)
전남	15.2	55.6	20.5	3.7	5.0	100.0 (520)
경북	21.0	31.5	27.2	18.7	1.5	100.0 (694)
경남	20.4	42.1	19.1	6.2	12.2	100.0 (692)
제주	11.6	31.3	43.7	11.9	1.5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30〉 노인의 시·도별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의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_운동, 문화, 여가서비스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15.2	34.7	31.7	12.9	5.5	100.0 (10,097)
서울	17.7	40.6	28.0	10.2	3.5	100.0 (1,820)
부산	11.1	30.7	30.3	16.2	11.6	100.0 (784)
대구	9.8	25.9	29.4	28.2	6.7	100.0 (486)
인천	5.5	30.4	34.3	19.4	10.4	100.0 (487)
광주	20.9	40.2	29.5	5.5	4.0	100.0 (255)
대전	24.3	32.3	29.2	11.2	3.0	100.0 (256)
울산	11.2	27.9	28.5	20.1	12.3	100.0 (168)
세종	30.6	32.4	27.1	7.1	2.8	100.0 (39)
경기	11.5	30.0	38.1	13.0	7.4	100.0 (2,090)
강원	28.4	34.4	25.3	10.4	1.5	100.0 (380)
충북	20.2	41.9	26.0	9.6	2.4	100.0 (346)
충남	15.5	28.3	38.3	16.5	1.4	100.0 (487)
전북	12.3	47.3	30.7	9.0	0.6	100.0 (468)
전남	22.6	44.2	27.8	3.0	2.4	100.0 (520)
경북	20.1	34.7	34.3	9.8	1.1	100.0 (694)
경남	13.0	36.5	25.5	13.7	11.4	100.0 (692)
제주	4.7	19.6	49.3	22.9	3.5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31〉 노인의 시·도별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의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_의료서비스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28.4	39.6	21.7	6.3	4.1	100.0 (10,097)
서울	31.3	40.8	19.7	5.7	2.5	100.0 (1,820)
부산	14.5	43.6	26.7	9.9	5.4	100.0 (784)
대구	23.8	32.2	24.9	12.9	6.3	100.0 (486)
인천	23.9	39.2	23.8	6.4	6.7	100.0 (487)
광주	29.4	35.1	24.9	6.0	4.6	100.0 (255)
대전	21.2	48.3	22.6	6.3	1.6	100.0 (256)
울산	17.2	37.4	32.5	5.9	7.1	100.0 (168)
세종	29.8	42.1	19.4	7.6	1.1	100.0 (39)
경기	33.5	35.2	19.4	5.9	6.0	100.0 (2,090)
강원	27.9	41.1	22.3	7.0	1.7	100.0 (380)
충북	29.7	42.0	21.1	5.2	2.0	100.0 (346)
충남	18.6	43.4	29.3	7.1	1.7	100.0 (487)
전북	45.8	39.8	13.4	1.0	0.0	100.0 (468)
전남	29.9	46.7	18.4	1.8	3.3	100.0 (520)
경북	39.3	34.1	21.4	5.0	0.3	100.0 (694)
경남	18.6	44.0	20.6	7.3	9.5	100.0 (692)
제주	7.7	40.3	41.0	9.3	1.6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32〉 노인의 시·도별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의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_돌봄서비스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18.9	39.7	26.5	9.8	5.2	100.0 (10,097)
서울	16.3	45.9	27.1	8.3	2.3	100.0 (1,820)
부산	10.3	36.6	29.1	12.9	11.1	100.0 (784)
대구	10.7	26.6	32.5	23.4	6.7	100.0 (486)
인천	17.8	38.1	25.4	11.0	7.7	100.0 (487)
광주	19.8	42.1	27.9	6.3	3.9	100.0 (255)
대전	16.9	50.5	19.2	8.6	4.8	100.0 (256)
울산	9.6	37.1	34.7	9.6	9.0	100.0 (168)
세종	10.3	51.7	17.5	16.0	4.5	100.0 (39)
경기	21.6	33.8	28.2	9.9	6.5	100.0 (2,090)
강원	24.2	34.4	28.9	11.9	0.7	100.0 (380)
충북	23.7	45.1	18.0	10.9	2.4	100.0 (346)
충남	14.3	43.3	23.9	11.7	6.7	100.0 (487)
전북	32.4	41.2	16.7	8.9	0.8	100.0 (468)
전남	19.5	55.6	19.1	1.8	4.1	100.0 (520)
경북	27.8	32.9	31.0	7.6	0.8	100.0 (694)
경남	17.7	41.2	23.9	7.0	10.2	100.0 (692)
제주	10.0	39.0	39.6	9.7	1.6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33〉 노인의 시·도별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의 유료서비스 이용 희망 정도_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교통 편의 제공)

(단위: %, 명)

구분	반드시 하고 싶음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별로 할 생각이 없음	전혀 할 생각이 없음	계 (명)
전체 ¹⁾	13.8	41.6	31.4	9.1	4.1	100.0 (10,097)
서울	11.2	49.5	28.7	9.1	1.5	100.0 (1,820)
부산	11.0	35.4	32.5	12.7	8.5	100.0 (784)
대구	6.7	33.3	33.3	20.1	6.5	100.0 (486)
인천	17.7	35.4	29.1	10.3	7.4	100.0 (487)
광주	13.8	50.3	27.6	5.8	2.6	100.0 (255)
대전	14.2	49.8	25.1	8.6	2.3	100.0 (256)
울산	9.9	33.8	36.1	12.2	7.9	100.0 (168)
세종	6.5	56.9	27.0	9.1	0.6	100.0 (39)
경기	12.1	33.0	38.6	9.8	6.4	100.0 (2,090)
강원	15.3	38.7	37.1	8.7	0.2	100.0 (380)
충북	18.4	51.5	20.8	7.3	2.0	100.0 (346)
충남	9.9	36.4	44.5	8.4	0.6	100.0 (487)
전북	33.5	47.4	18.0	1.2	0.0	100.0 (468)
전남	8.8	64.2	22.9	1.4	2.7	100.0 (520)
경북	18.5	44.6	29.9	6.4	0.6	100.0 (694)
경남	18.5	36.6	26.2	9.8	8.9	100.0 (692)
제주	8.0	36.8	43.3	10.3	1.6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34〉 노인의 시·도별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특성	없음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자전거	오토바이	기타	계 (명)
전체 ¹⁾	0.8	52.5	11.8	6.6	25.6	1.1	1.4	0.2	100.0 (10,097)
서울	0.4	40.1	31.6	5.2	21.8	0.9	0.1	0.0	100.0 (1,820)
부산	0.0	57.8	18.5	7.7	15.4	0.0	0.5	0.2	100.0 (784)
대구	0.8	37.1	23.7	6.5	30.0	0.4	1.0	0.5	100.0 (486)
인천	0.0	53.0	14.0	4.0	28.1	0.6	0.2	0.2	100.0 (487)
광주	2.7	65.3	0.5	6.7	24.5	0.2	0.1	0.0	100.0 (255)
대전	2.0	50.2	1.8	11.5	31.9	1.5	1.0	0.0	100.0 (256)
울산	0.4	67.8	0.7	8.2	22.6	0.3	0.0	0.0	100.0 (168)
세종	0.0	48.9	0.0	11.5	36.3	0.0	3.2	0.0	100.0 (39)
경기	1.3	54.1	12.1	3.9	23.5	2.0	2.7	0.3	100.0 (2,090)
강원	0.0	47.4	0.6	19.1	30.9	0.8	1.0	0.1	100.0 (380)
충북	0.2	56.9	1.4	15.4	23.8	0.9	1.1	0.2	100.0 (346)
충남	0.5	51.0	0.8	11.3	31.3	1.1	3.8	0.0	100.0 (487)
전북	0.9	48.2	0.0	4.6	40.8	2.9	2.3	0.3	100.0 (468)
전남	3.4	66.6	0.3	4.4	24.2	0.6	0.6	0.0	100.0 (520)
경북	0.8	62.6	1.1	4.3	28.2	1.9	1.2	0.0	100.0 (694)
경남	0.2	62.7	0.5	7.3	26.8	0.2	2.3	0.0	100.0 (692)
제주	0.6	46.4	0.3	7.4	41.9	0.5	2.6	0.3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35〉 노인의 시·도별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한 점

(단위: %, 명)

구분	없음	버스 (전철)타고 오르내리기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교통수단 부족	이동하기 불편한 도로상태	노인을 배려하지 않는 교통편의시설	인도가 없어 보행 시 위험	차량이 많아 다니다 위험	기타	계 (명)
전체 ¹⁾	34.3	19.3	24.9	5.6	3.9	5.4	1.5	4.9	0.1	100.0 (9,930)
서울	34.6	13.9	30.3	2.9	4.5	4.1	2.4	6.6	0.7	100.0 (1,805)
부산	41.0	16.2	30.5	3.2	2.3	3.3	0.8	2.8	0.0	100.0 (783)
대구	52.0	12.5	24.7	0.6	0.8	5.1	1.4	2.7	0.1	100.0 (472)
인천	53.3	17.6	14.1	2.4	1.9	6.0	0.5	4.1	0.0	100.0 (465)
광주	38.5	32.4	23.0	1.2	1.0	2.9	0.0	0.9	0.0	100.0 (242)
대전	27.5	20.0	23.9	4.4	6.4	9.8	1.9	6.0	0.0	100.0 (246)
울산	44.9	22.0	17.5	6.7	2.0	4.3	1.1	1.5	0.0	100.0 (168)
세종	35.1	18.3	25.6	3.8	0.6	8.1	2.2	6.3	0.0	100.0 (38)
경기	26.0	20.1	24.1	8.5	5.4	6.4	2.7	6.9	0.0	100.0 (2,068)
강원	15.5	38.1	19.8	10.5	2.3	4.6	0.5	8.7	0.0	100.0 (376)
충북	24.2	19.5	24.9	9.8	5.4	7.8	1.4	7.1	0.0	100.0 (337)
충남	33.6	15.1	27.1	5.5	6.1	7.8	1.4	3.3	0.0	100.0 (473)
전북	48.0	20.5	19.4	2.8	2.7	2.9	0.4	3.2	0.0	100.0 (459)
전남	34.8	41.1	16.7	3.4	1.8	0.4	0.2	1.6	0.0	100.0 (511)
경북	29.8	9.4	33.4	5.5	7.1	11.9	1.0	1.9	0.0	100.0 (676)
경남	30.9	22.8	21.4	14.0	2.9	4.1	1.1	3.0	0.0	100.0 (692)
제주	59.6	7.5	13.9	1.3	1.4	1.5	0.2	13.7	0.8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36〉 노인의 시·도별 운전여부 및 운전을 그만둔 나이

(단위: %, 명)

구분	현재 하고 있음	전에는 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평생 한 적 없음	계 (명)
전체 ¹⁾	21.9	17.8	60.4	100.0 (10,097)
서울	24.4	24.6	51.0	100.0 (1,820)
부산	18.9	17.3	63.8	100.0 (784)
대구	26.6	17.9	55.5	100.0 (486)
인천	20.3	19.2	60.6	100.0 (487)
광주	25.5	14.5	60.0	100.0 (255)
대전	19.7	18.8	61.6	100.0 (256)
울산	20.7	14.3	65.0	100.0 (168)
세종	25.4	22.4	52.2	100.0 (39)
경기	21.9	18.1	60.0	100.0 (2,090)
강원	21.5	12.2	66.3	100.0 (380)
충북	14.5	22.8	62.7	100.0 (346)
충남	19.5	21.0	59.5	100.0 (487)
전북	26.7	10.3	63.0	100.0 (468)
전남	24.1	11.9	64.1	100.0 (520)
경북	16.7	13.4	69.9	100.0 (694)
경남	20.1	13.5	66.4	100.0 (692)
제주	31.9	7.5	60.6	100.0 (12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37〉 노인의 시·도별 낙상경험

(단위: %, 명)

구분	낙상률 ¹⁾	낙상횟수 및 치료	
		1년간 낙상횟수 ²⁾	병원이용률
전체 ¹⁾	7.2	1.3	72.5
서울	8.3	1.2	78.6
부산	3.3	1.2	83.2
대구	6.8	1.4	64.4
인천	10.7	1.3	73.4
광주	2.5	1.3	66.5
대전	6.1	1.2	78.1
울산	4.5	1.4	56.6
세종	4.6	1.7	33.5
경기	12.4	1.3	73.9
강원	3.0	1.4	62.3
충북	3.6	1.4	61.7
충남	4.0	1.5	53.0
전북	8.2	1.3	72.2
전남	2.4	1.3	67.6
경북	2.2	1.4	58.8
경남	8.4	1.3	66.0
제주	7.6	1.2	81.6

주: 1) 전체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지난 1년간 낙상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731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부표 Ⅲ-11-38〉노인의 시·도별 안전사고 및 범죄피해 경험률

(단위: %)

구분	안전사고 (화재, 가스, 누수 등) ¹⁾	범죄피해 ²⁾				
		재산범죄	폭력 및 강력범죄	사기성 물건 구매	보이스 피싱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
전체 ¹⁾	0.5	0.4	0.3	1.9	1.2	0.7
서울	1.2	0.9	0.7	2.9	2.5	1.0
부산	0.9	0.8	0.6	2.1	2.4	0.9
대구	0.0	0.0	0.0	0.0	0.0	0.0
인천	0.2	0.2	0.0	1.7	0.5	2.3
광주	0.4	1.3	1.5	0.9	0.2	0.4
대전	0.0	0.0	0.0	1.1	0.0	0.0
울산	0.2	0.4	0.3	0.6	0.6	0.2
세종	0.0	0.0	0.0	1.1	0.0	0.0
경기	0.4	0.2	0.1	3.2	1.5	1.0
강원	0.1	0.1	0.4	3.4	0.8	0.1
충북	0.2	0.0	0.0	2.1	2.3	0.2
충남	0.0	0.0	0.0	0.4	0.2	0.5
전북	0.4	0.6	0.6	0.6	0.4	0.4
전남	0.4	0.7	0.5	0.3	0.4	0.4
경북	0.2	0.3	0.2	0.6	0.3	0.2
경남	0.5	0.0	0.1	1.2	0.6	0.4
제주	0.2	0.7	0.0	0.0	0.0	0.5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39〉노인의 시·도별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

(단위: %, 명)

지역	69세 이하	70~75세 미만	75~80세 미만	80세 이상	평균 나이	계 (명)
전국 ¹⁾	25.9	52.7	14.9	6.5	70.5	100.0 (9,930)
서울	21.0	51.4	19.3	8.3	71.1	100.0 (1,805)
부산	24.4	57.2	16.9	1.5	70.1	100.0 (783)
대구	18.9	67.3	10.7	3.2	70.0	100.0 (472)
인천	20.0	53.8	20.1	6.1	70.9	100.0 (465)
광주	25.0	41.4	24.2	9.5	71.2	100.0 (242)
대전	37.1	45.0	8.1	9.8	69.5	100.0 (246)
울산	30.9	57.5	11.3	0.3	69.7	100.0 (168)
세종	48.3	35.7	12.0	3.9	68.7	100.0 (38)
경기	21.1	51.5	17.8	9.6	71.4	100.0 (2,068)
강원	48.1	48.9	2.2	0.8	67.9	100.0 (376)
충북	29.8	60.2	6.0	4.1	69.3	100.0 (337)
충남	30.1	54.5	12.7	2.7	69.5	100.0 (473)
전북	18.1	56.8	15.1	9.9	71.1	100.0 (459)
전남	17.1	41.0	24.1	17.9	72.3	100.0 (511)
경북	49.6	47.7	2.0	0.7	68.1	100.0 (676)
경남	31.7	57.4	10.8	0.1	69.5	100.0 (692)
제주	10.5	56.3	11.5	21.6	72.3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40〉 노인의 시·도별 건강상태 만족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 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국 ¹⁾	4.5	46.0	31.2	15.7	2.6	100.0 (9,930)
서울	4.7	47.6	26.8	17.5	3.4	100.0 (1,805)
부산	2.2	46.9	33.3	15.1	2.5	100.0 (783)
대구	8.1	54.4	25.6	10.6	1.2	100.0 (472)
인천	2.1	46.4	28.4	20.6	2.6	100.0 (465)
광주	5.7	65.2	23.8	4.5	0.7	100.0 (242)
대전	8.4	51.3	26.4	11.8	2.1	100.0 (246)
울산	3.2	57.1	26.5	11.2	2.0	100.0 (168)
세종	16.7	52.4	26.5	4.5	0.0	100.0 (38)
경기	6.4	34.6	37.7	18.0	3.3	100.0 (2,068)
강원	2.1	33.4	52.1	11.3	1.1	100.0 (376)
충북	4.8	44.5	31.9	17.3	1.6	100.0 (337)
충남	3.1	41.0	32.4	20.2	3.2	100.0 (473)
전북	3.4	47.8	28.6	16.5	3.6	100.0 (459)
전남	4.7	65.8	20.7	7.6	1.3	100.0 (511)
경북	2.6	51.0	28.7	16.1	1.6	100.0 (676)
경남	2.3	48.4	33.1	13.9	2.3	100.0 (692)
제주	8.3	38.7	19.7	24.3	9.1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41〉 노인의 시·도별 경제 상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국 ¹⁾	6.9	30.5	42.1	17.9	2.6	100.0 (9,930)
서울	8.3	31.3	41.1	14.8	4.4	100.0 (1,805)
부산	2.5	28.4	48.4	18.6	2.0	100.0 (783)
대구	6.8	31.9	48.1	12.0	1.2	100.0 (472)
인천	0.7	22.2	41.2	31.5	4.4	100.0 (465)
광주	19.1	38.6	34.7	6.8	0.8	100.0 (242)
대전	15.8	32.6	32.9	17.0	1.7	100.0 (246)
울산	5.2	27.1	51.9	13.0	2.7	100.0 (168)
세종	29.8	38.7	29.9	1.5	0.0	100.0 (38)
경기	6.7	20.1	42.9	26.5	3.8	100.0 (2,068)
강원	5.5	36.1	46.3	11.5	0.5	100.0 (376)
충북	8.2	33.7	44.1	13.5	0.4	100.0 (337)
충남	2.5	30.5	40.4	23.3	3.3	100.0 (473)
전북	3.7	33.6	47.1	15.1	0.6	100.0 (459)
전남	19.0	42.2	29.3	9.1	0.5	100.0 (511)
경북	2.2	46.2	41.5	9.2	0.9	100.0 (676)
경남	6.2	31.2	42.1	18.9	1.6	100.0 (692)
제주	4.7	39.4	33.7	18.0	4.2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42〉 노인의 시·도별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국 ¹⁾	14.0	56.9	25.9	3.0	0.2	100.0 (6,702)
서울	11.0	57.7	27.9	3.1	0.3	100.0 (1,208)
부산	4.9	63.9	28.4	2.7	0.0	100.0 (512)
대구	14.0	68.3	15.2	2.1	0.3	100.0 (327)
인천	8.3	62.9	27.3	1.4	0.0	100.0 (307)
광주	27.8	46.5	24.4	1.3	0.0	100.0 (151)
대전	32.0	47.9	19.1	0.7	0.3	100.0 (167)
울산	8.8	56.5	31.8	2.5	0.4	100.0 (114)
세종	39.3	53.8	6.9	0.0	0.0	100.0 (29)
경기	11.9	50.4	32.1	5.3	0.4	100.0 (1,433)
강원	32.7	58.6	8.4	0.3	0.0	100.0 (268)
충북	22.6	52.1	23.6	1.3	0.3	100.0 (217)
충남	14.4	62.5	20.7	2.4	0.0	100.0 (328)
전북	7.7	57.9	33.2	1.1	0.0	100.0 (300)
전남	32.3	44.7	21.7	1.3	0.0	100.0 (318)
경북	15.9	65.0	16.6	2.3	0.3	100.0 (473)
경남	6.5	56.5	31.3	5.7	0.0	100.0 (468)
제주	6.4	69.4	20.8	3.5	0.0	100.0 (84)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내 유배우자 6,702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11-43〉 노인의 시·도별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국 ¹⁾	14.3	59.0	22.6	3.6	0.5	100.0 (9,617)
서울	11.3	63.7	19.9	4.2	0.8	100.0 (1,733)
부산	4.7	58.6	31.3	5.2	0.3	100.0 (735)
대구	22.3	58.9	14.3	3.7	0.8	100.0 (463)
인천	18.1	57.4	21.3	2.6	0.6	100.0 (458)
광주	27.4	45.5	25.5	1.5	0.1	100.0 (231)
대전	22.7	54.4	19.5	2.3	1.2	100.0 (240)
울산	8.4	62.5	25.9	2.9	0.3	100.0 (166)
세종	42.8	48.8	8.4	0.0	0.0	100.0 (37)
경기	10.5	56.1	27.5	5.3	0.6	100.0 (2,021)
강원	30.9	53.5	12.6	2.6	0.4	100.0 (358)
충북	25.0	53.1	18.7	3.0	0.2	100.0 (321)
충남	17.2	55.5	22.9	4.3	0.1	100.0 (457)
전북	9.1	71.1	17.9	1.8	0.1	100.0 (445)
전남	27.7	52.3	19.3	0.5	0.1	100.0 (496)
경북	15.7	61.1	22.4	0.6	0.2	100.0 (671)
경남	5.6	65.8	24.8	3.5	0.4	100.0 (670)
제주	8.8	62.9	21.4	5.8	1.1	100.0 (115)

주: 1) 본인응답자 9,930명 내 생존자녀가 있는 9,617명을 대상으로 함.

〈부표 Ⅲ-11-44〉 노인의 시·도별 사회·여가·문화활동 만족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국 ¹⁾	7.6	35.0	42.0	13.7	1.7	100.0 (9,930)
서울	7.8	35.2	40.2	14.7	2.1	100.0 (1,805)
부산	3.8	32.8	47.3	14.9	1.1	100.0 (783)
대구	6.8	36.4	47.7	8.6	0.4	100.0 (472)
인천	1.4	24.2	47.8	25.0	1.6	100.0 (465)
광주	15.8	51.1	26.7	6.1	0.4	100.0 (242)
대전	15.9	37.9	28.8	13.3	4.0	100.0 (246)
울산	5.7	34.0	52.0	7.4	0.8	100.0 (168)
세종	26.6	47.4	21.3	4.4	0.3	100.0 (38)
경기	7.7	28.1	47.1	14.7	2.4	100.0 (2,068)
강원	10.7	42.3	34.1	12.1	0.8	100.0 (376)
충북	7.9	34.4	42.8	13.0	1.9	100.0 (337)
충남	8.3	32.4	34.8	23.4	1.1	100.0 (473)
전북	2.8	36.0	42.3	16.4	2.5	100.0 (459)
전남	19.7	49.7	23.3	4.8	2.7	100.0 (511)
경북	3.0	37.7	50.1	9.0	0.2	100.0 (676)
경남	6.2	40.7	41.5	10.1	1.4	100.0 (692)
제주	4.2	33.7	38.7	21.8	1.6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45〉 노인의 시·도별 친구 및 지역사회 관계 만족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 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국 ¹⁾	8.6	50.3	34.6	5.9	0.6	100.0 (9,930)
서울	7.5	49.1	35.0	7.1	1.2	100.0 (1,805)
부산	3.3	47.9	40.3	8.3	0.2	100.0 (783)
대구	10.6	55.8	30.3	3.1	0.2	100.0 (472)
인천	4.4	47.6	38.1	9.9	0.0	100.0 (465)
광주	14.7	61.1	21.3	2.7	0.2	100.0 (242)
대전	14.6	48.1	30.5	5.8	1.0	100.0 (246)
울산	6.2	55.6	30.8	6.5	1.0	100.0 (168)
세종	27.2	52.7	19.0	0.6	0.5	100.0 (38)
경기	13.5	47.2	32.3	6.5	0.5	100.0 (2,068)
강원	4.2	48.0	44.2	3.6	0.0	100.0 (376)
충북	7.4	44.7	41.0	6.5	0.4	100.0 (337)
충남	4.3	47.7	41.9	5.3	0.8	100.0 (473)
전북	2.5	53.4	35.5	7.7	0.9	100.0 (459)
전남	17.6	60.0	20.9	1.1	0.4	100.0 (511)
경북	5.1	48.7	43.3	2.5	0.4	100.0 (676)
경남	6.7	57.6	28.9	5.9	1.0	100.0 (692)
제주	3.6	50.2	38.1	7.1	1.1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46〉 노인의 시·도별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만족	만족	그저그렇다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 안함	계 (명)
전국 ¹⁾	3.9	45.7	42.6	7.4	0.5	100.0 (9,930)
서울	2.8	49.2	39.5	7.9	0.6	100.0 (1,805)
부산	1.0	42.6	49.6	6.7	0.1	100.0 (783)
대구	6.7	56.9	31.8	4.4	0.2	100.0 (472)
인천	0.9	39.5	49.5	9.8	0.2	100.0 (465)
광주	7.8	63.9	25.4	2.9	0.0	100.0 (242)
대전	6.4	51.7	33.8	7.0	1.1	100.0 (246)
울산	2.4	50.3	40.9	5.8	0.5	100.0 (168)
세종	23.8	55.7	20.6	0.0	0.0	100.0 (38)
경기	5.7	31.2	50.3	12.0	0.8	100.0 (2,068)
강원	2.4	43.5	51.6	2.5	0.0	100.0 (376)
충북	4.8	45.8	44.0	5.3	0.0	100.0 (337)
충남	2.0	44.0	41.7	11.9	0.5	100.0 (473)
전북	0.8	48.9	44.5	5.3	0.5	100.0 (459)
전남	6.3	68.3	24.0	1.2	0.1	100.0 (511)
경북	3.6	47.2	46.1	2.9	0.2	100.0 (676)
경남	4.5	50.2	37.4	6.9	1.0	100.0 (692)
제주	3.2	51.1	38.4	6.5	0.8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47〉 노인의 시·도별 정부 정책에 영향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1.5	27.9	30.5	27.0	13.2	100.0 (9,930)
서울	1.2	28.4	34.8	24.3	11.3	100.0 (1,805)
부산	0.2	35.5	36.5	22.0	5.8	100.0 (783)
대구	2.8	25.9	39.1	25.6	6.7	100.0 (472)
인천	0.2	18.3	38.4	38.1	5.0	100.0 (465)
광주	3.1	52.5	30.8	11.0	2.6	100.0 (242)
대전	4.4	40.8	27.8	21.1	5.9	100.0 (246)
울산	0.7	34.6	32.3	25.7	6.7	100.0 (168)
세종	6.6	52.9	25.1	10.4	4.9	100.0 (38)
경기	0.9	18.4	24.8	32.5	23.5	100.0 (2,068)
강원	0.9	42.3	33.0	16.6	7.1	100.0 (376)
충북	2.3	27.4	33.5	26.9	9.9	100.0 (337)
충남	4.0	29.8	26.0	24.1	16.0	100.0 (473)
전북	2.7	22.8	27.3	34.8	12.3	100.0 (459)
전남	3.5	55.4	24.1	10.3	6.6	100.0 (511)
경북	0.5	12.5	28.0	32.5	26.5	100.0 (676)
경남	0.2	27.7	29.6	34.6	7.9	100.0 (692)
제주	0.8	22.8	25.2	28.3	22.9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48〉 노인의 시·도별 노인의 사회적 존중감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지역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계 (명)
전국 ¹⁾	2.3	31.5	38.8	21.4	5.9	100.0 (9,930)
서울	1.4	28.3	44.8	22.3	3.2	100.0 (1,805)
부산	0.3	25.2	47.9	24.8	1.8	100.0 (783)
대구	1.9	39.7	46.7	10.6	1.0	100.0 (472)
인천	1.3	21.2	41.0	32.5	4.0	100.0 (465)
광주	1.5	49.3	34.7	13.1	1.4	100.0 (242)
대전	10.2	45.4	25.8	15.0	3.6	100.0 (246)
울산	2.5	24.1	44.6	28.0	0.7	100.0 (168)
세종	11.0	60.0	21.0	4.5	3.6	100.0 (38)
경기	2.2	21.2	32.0	27.9	16.8	100.0 (2,068)
강원	2.7	44.4	33.8	13.3	5.8	100.0 (376)
충북	3.7	37.0	36.2	18.1	5.0	100.0 (337)
충남	6.4	46.0	34.3	10.0	3.3	100.0 (473)
전북	2.6	61.5	29.8	5.1	1.0	100.0 (459)
전남	2.8	47.2	35.3	10.3	4.4	100.0 (511)
경북	1.0	19.1	47.8	28.1	4.0	100.0 (676)
경남	2.7	27.7	40.3	27.7	1.6	100.0 (692)
제주	1.0	37.1	31.8	18.4	11.6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49〉 노인의 시·도별 상황별 차별 경험

(단위: %, 명)

구분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식당, 커피 숍 이용시	판매시설 이용시	공공기관 이용시	의료시설 이용시	일터	가족내 의사결정시	기타
전체 ¹⁾	20.8	16.1	14.7	8.7	12.7	10.6	11.3	0.0
서울	21.3	19.3	12.8	8.7	12.9	12.9	9.3	0.0
부산	20.9	12.0	10.8	7.0	10.2	8.1	15.2	0.0
대구	15.9	3.6	5.1	0.7	1.9	7.6	2.0	0.0
인천	15.9	5.6	5.3	2.6	2.7	7.0	10.3	0.0
광주	27.6	29.5	25.3	21.2	16.0	12.4	14.5	0.0
대전	23.4	21.4	17.1	8.4	10.6	7.0	6.8	0.0
울산	19.3	8.1	6.4	3.3	6.5	9.9	6.9	0.0
세종	11.8	8.9	13.1	5.8	7.6	3.9	4.1	0.0
경기	27.3	22.1	22.6	10.4	24.9	18.8	15.6	0.0
강원	16.1	8.5	8.9	10.3	3.5	3.0	11.4	0.0
충북	21.6	19.3	19.8	10.7	9.0	3.6	11.2	0.0
충남	16.1	12.9	12.4	11.3	12.1	5.9	9.2	0.0
전북	6.8	5.6	6.1	2.9	3.8	2.8	4.4	0.0
전남	29.3	34.1	28.0	19.5	18.3	14.9	17.4	0.0
경북	10.4	6.1	9.3	3.7	3.7	3.5	2.3	0.0
경남	25.8	16.2	15.8	9.6	13.4	9.1	18.6	0.0
제주	7.6	3.4	2.1	7.2	7.0	7.0	8.4	0.0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50〉 노인의 시·도별 바람직한 재산처리방식

(단위: %, 명)

지역	자녀 균등 배분	장남에 게 더 많이	장남 에게만	효도한 자녀에 게	경제적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사회환원/가족 과 사회상속 및 환원	자신 (배우자) 을 위해	기타	계 (명)
전국 ¹⁾	53.5	10.9	2.4	7.0	7.7	1.1	17.4	0.1	100.0 (9,930)
서울	55.5	6.6	2.3	9.6	11.9	1.0	13.0	0.0	100.0 (1,805)
부산	47.3	10.2	2.2	4.8	9.6	0.9	25.1	0.0	100.0 (783)
대구	53.6	18.1	3.9	3.0	5.1	0.2	15.8	0.2	100.0 (472)
인천	51.2	5.8	0.8	7.6	5.2	0.8	28.4	0.2	100.0 (465)
광주	61.5	17.5	2.7	4.3	3.2	0.1	10.7	0.0	100.0 (242)
대전	50.6	5.8	2.5	6.0	5.8	2.3	27.1	0.0	100.0 (246)
울산	48.5	8.8	0.8	3.6	14.8	1.8	21.6	0.0	100.0 (168)
세종	73.6	6.7	0.0	3.6	1.7	2.3	12.2	0.0	100.0 (38)
경기	45.5	10.9	2.9	8.8	7.7	1.8	22.4	0.0	100.0 (2,068)
강원	46.2	6.5	0.8	4.8	7.3	1.4	33.0	0.0	100.0 (376)
충북	59.4	8.2	3.0	6.9	7.7	1.5	13.2	0.0	100.0 (337)
충남	61.0	6.1	1.9	9.5	7.2	1.4	12.8	0.1	100.0 (473)
전북	76.4	6.9	2.5	2.9	4.8	0.2	5.9	0.4	100.0 (459)
전남	56.2	19.2	3.4	11.6	3.8	0.3	5.6	0.0	100.0 (511)
경북	48.1	26.3	2.7	3.6	6.2	0.3	12.9	0.0	100.0 (676)
경남	60.4	9.4	1.8	4.7	6.2	0.8	16.7	0.0	100.0 (692)
제주	71.9	13.3	0.7	4.6	1.5	0.7	7.0	0.3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51〉 노인의 시·도별 연명치료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지역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그저 그렇다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계 (명)
전국 ¹⁾	0.1	2.4	11.8	39.6	46.0	100.0 (9,930)
서울	0.0	3.8	15.9	40.4	40.0	100.0 (1,805)
부산	0.2	5.6	18.6	38.9	36.7	100.0 (783)
대구	0.1	0.3	13.6	38.7	47.2	100.0 (472)
인천	0.0	0.2	4.2	40.6	55.0	100.0 (465)
광주	0.5	5.6	13.2	39.9	40.9	100.0 (242)
대전	0.0	0.1	4.6	33.3	61.9	100.0 (246)
울산	0.0	3.1	18.7	48.4	29.7	100.0 (168)
세종	0.0	0.8	7.2	28.3	63.7	100.0 (38)
경기	0.1	2.2	9.0	38.6	50.0	100.0 (2,068)
강원	0.0	0.2	11.3	27.9	60.6	100.0 (376)
충북	0.0	0.8	8.3	38.5	52.4	100.0 (337)
충남	0.0	0.5	4.2	36.5	58.7	100.0 (473)
전북	0.0	1.0	4.3	29.3	65.4	100.0 (459)
전남	0.2	4.6	12.1	38.1	45.0	100.0 (511)
경북	0.1	1.4	17.4	43.9	37.1	100.0 (676)
경남	0.2	2.0	14.9	54.1	28.8	100.0 (692)
제주	0.0	0.5	1.8	45.4	52.3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52〉 노인의 시·도별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방법

(단위: %, 명)

지역	화장 후 납골당	화장 후 자연장	화장 후 산골	매장	기타	생각해보지않음	계 (명)
전국 ¹⁾	33.3	20.6	13.9	11.6	0.0	20.6	100.0 (9,930)
서울	30.5	24.7	15.6	9.6	0.0	19.6	100.0 (1,805)
부산	39.0	15.7	14.3	6.1	0.0	24.9	100.0 (783)
대구	27.4	25.3	12.2	10.5	0.0	24.6	100.0 (472)
인천	35.8	18.8	18.3	3.6	0.2	23.3	100.0 (465)
광주	31.4	24.3	8.6	6.5	0.0	29.1	100.0 (242)
대전	39.4	16.9	7.6	13.3	0.0	22.8	100.0 (246)
울산	36.3	15.5	11.4	6.2	0.0	30.6	100.0 (168)
세종	27.4	10.0	5.2	15.0	0.0	42.4	100.0 (38)
경기	31.2	22.1	18.7	12.6	0.0	15.4	100.0 (2,068)
강원	30.8	10.1	5.9	23.7	0.0	29.5	100.0 (376)
충북	41.6	18.0	8.9	19.5	0.0	12.0	100.0 (337)
충남	45.9	9.5	7.4	21.4	0.0	15.7	100.0 (473)
전북	29.0	29.4	20.3	11.6	0.1	9.6	100.0 (459)
전남	25.6	28.1	7.5	8.7	0.0	30.0	100.0 (511)
경북	31.4	15.6	11.4	13.7	0.0	27.9	100.0 (676)
경남	37.4	19.0	13.3	8.7	0.0	21.6	100.0 (692)
제주	44.6	18.8	6.6	26.8	0.0	3.2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53〉 노인의 시·도별 죽음 준비 실태

(단위: %, 명)

지역	수의 ²⁾	묘지 ²⁾	상조회 가입 ²⁾	유서 작성 ²⁾	장기기증 서약	사전연명 의료의향 ²⁾	죽음준비 교육수강	상속처리 논의	(명)
전국 ¹⁾	37.8	24.8	17.0	4.2	3.4	4.7	2.7	12.4	(9,930)
서울	24.6	17.6	25.7	6.2	4.7	6.2	3.9	15.8	(1,805)
부산	28.0	8.5	19.5	4.2	4.2	5.0	4.2	7.2	(783)
대구	37.2	28.7	11.3	0.6	1.2	1.0	0.9	6.3	(472)
인천	23.2	7.4	17.9	0.4	2.7	3.7	4.3	7.2	(465)
광주	45.2	19.6	25.8	7.1	9.5	6.6	7.4	9.1	(242)
대전	35.2	28.1	17.1	7.4	2.4	2.5	1.3	7.0	(246)
울산	28.4	18.1	12.9	3.8	3.7	4.7	2.7	3.2	(168)
세종	39.3	41.5	16.8	4.5	4.0	2.3	0.6	13.7	(38)
경기	40.6	40.2	17.3	3.5	4.1	6.1	1.9	22.9	(2,068)
강원	58.0	63.2	5.9	0.9	7.2	1.7	0.0	2.1	(376)
충북	62.7	47.5	12.6	8.5	3.0	1.8	0.6	7.0	(337)
충남	50.0	26.2	10.5	3.5	0.6	0.9	0.9	12.2	(473)
전북	25.6	20.2	10.4	1.8	1.3	9.7	4.4	10.3	(459)
전남	58.0	20.5	24.8	7.3	3.5	3.8	5.2	8.1	(511)
경북	47.8	15.3	10.3	5.6	0.5	3.9	0.0	12.3	(676)
경남	38.1	6.5	11.7	2.8	1.9	3.7	2.4	4.7	(692)
제주	37.2	35.8	7.3	0.3	1.3	5.3	2.3	8.6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2) 각 항목별로 준비했다고 응답한 비율임.

〈부표 Ⅲ-11-54〉 노인의 시·도별 생애 말기 좋은 죽음을 위한 요소별 중요도_임종 전후 상황 정리
(단위: %, 명)

지역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국 ¹⁾	38.8	50.2	9.8	1.1	0.1	100.0 (9,930)
서울	33.8	52.1	13.0	1.0	0.1	100.0 (1,805)
부산	37.6	49.9	11.2	1.1	0.1	100.0 (783)
대구	31.3	62.1	6.4	0.2	0.0	100.0 (472)
인천	44.8	47.5	7.3	0.2	0.2	100.0 (465)
광주	24.2	63.5	9.4	2.9	0.0	100.0 (242)
대전	39.1	54.4	5.6	0.8	0.0	100.0 (246)
울산	43.5	48.0	8.0	0.5	0.0	100.0 (168)
세종	45.2	40.5	13.3	0.9	0.0	100.0 (38)
경기	42.7	49.5	7.2	0.5	0.1	100.0 (2,068)
강원	34.2	43.3	22.3	0.2	0.0	100.0 (376)
충북	41.2	48.2	9.3	1.3	0.0	100.0 (337)
충남	48.4	41.8	7.6	2.1	0.0	100.0 (473)
전북	66.2	30.2	3.4	0.2	0.0	100.0 (459)
전남	25.4	64.8	8.6	1.2	0.1	100.0 (511)
경북	28.2	48.7	17.8	5.0	0.3	100.0 (676)
경남	42.5	52.2	4.9	0.3	0.0	100.0 (692)
제주	38.2	44.8	16.1	0.9	0.0	100.0 (119)

주: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55〉 노인의 시·도별 생애 말기 좋은 죽음을 위한 요소별 중요도_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는 임종

(단위: %, 명)

지역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국 ¹⁾	56.4	34.1	8.3	1.0	0.1	100.0 (9,930)
서울	58.0	30.7	9.4	1.8	0.1	100.0 (1,805)
부산	51.2	32.0	13.8	2.8	0.1	100.0 (783)
대구	53.1	39.8	6.7	0.3	0.0	100.0 (472)
인천	62.4	30.6	6.6	0.2	0.2	100.0 (465)
광주	51.5	35.0	11.6	1.7	0.2	100.0 (242)
대전	61.1	35.9	2.5	0.5	0.0	100.0 (246)
울산	46.1	41.5	11.4	1.0	0.0	100.0 (168)
세종	61.9	35.8	2.3	0.0	0.0	100.0 (38)
경기	64.7	27.3	7.1	0.8	0.1	100.0 (2,068)
강원	57.2	33.8	9.0	0.0	0.0	100.0 (376)
충북	52.4	39.7	7.9	0.0	0.0	100.0 (337)
충남	56.7	38.8	4.0	0.5	0.0	100.0 (473)
전북	68.7	27.9	3.3	0.0	0.0	100.0 (459)
전남	54.1	36.6	8.0	1.3	0.0	100.0 (511)
경북	37.4	46.4	15.2	0.9	0.1	100.0 (676)
경남	49.1	44.6	5.0	1.3	0.1	100.0 (692)
제주	47.0	43.5	9.5	0.0	0.0	100.0 (119)

주: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56〉 노인의 시·도별 생애 말기 좋은 죽음을 위한 요소별 중요도_임종 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함께 하는 것

(단위: %, 명)

지역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국 ¹⁾	39.4	47.5	11.0	1.9	0.2	100.0 (9,930)
서울	37.4	45.6	12.0	4.6	0.3	100.0 (1,805)
부산	39.1	47.4	12.0	1.3	0.1	100.0 (783)
대구	38.4	52.3	8.9	0.3	0.0	100.0 (472)
인천	29.8	51.4	15.9	2.6	0.3	100.0 (465)
광주	36.9	45.0	15.1	2.8	0.2	100.0 (242)
대전	46.6	45.3	6.8	1.1	0.1	100.0 (246)
울산	44.8	45.7	9.1	0.4	0.0	100.0 (168)
세종	50.9	37.9	11.2	0.0	0.0	100.0 (38)
경기	40.5	49.9	8.5	0.9	0.2	100.0 (2,068)
강원	55.7	34.6	9.4	0.1	0.2	100.0 (376)
충북	42.0	46.9	10.9	0.2	0.0	100.0 (337)
충남	45.1	45.4	8.2	1.2	0.0	100.0 (473)
전북	53.2	42.1	4.6	0.1	0.0	100.0 (459)
전남	43.3	45.7	10.3	0.5	0.3	100.0 (511)
경북	23.8	49.1	22.2	4.1	0.8	100.0 (676)
경남	35.0	56.4	7.7	0.9	0.0	100.0 (692)
제주	32.6	38.2	24.2	4.8	0.2	100.0 (119)

주: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57〉 노인의 시·도별 생애 말기 좋은 죽음을 위한 요소별 중요도_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단위: %, 명)

지역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저 그렇다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계 (명)
전국 ¹⁾	45.3	45.3	8.8	0.5	0.0	100.0 (9,930)
서울	42.3	46.6	10.1	0.9	0.2	100.0 (1,805)
부산	45.4	41.8	11.5	1.4	0.0	100.0 (783)
대구	38.5	54.6	6.9	0.0	0.0	100.0 (472)
인천	63.0	30.0	6.5	0.4	0.2	100.0 (465)
광주	37.5	44.0	16.5	2.0	0.0	100.0 (242)
대전	44.5	51.1	4.2	0.1	0.0	100.0 (246)
울산	41.0	49.9	9.1	0.0	0.0	100.0 (168)
세종	48.0	45.4	6.1	0.5	0.0	100.0 (38)
경기	49.8	42.9	7.0	0.4	0.0	100.0 (2,068)
강원	43.0	41.2	15.8	0.0	0.0	100.0 (376)
충북	43.5	48.9	7.4	0.2	0.0	100.0 (337)
충남	56.8	38.1	4.6	0.3	0.2	100.0 (473)
전북	53.2	42.8	4.0	0.0	0.0	100.0 (459)
전남	43.9	45.8	9.6	0.7	0.0	100.0 (511)
경북	28.8	57.8	13.2	0.2	0.0	100.0 (676)
경남	44.1	47.5	7.9	0.5	0.0	100.0 (692)
제주	37.5	56.5	6.1	0.0	0.0	100.0 (119)

주: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58〉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단위: %, 명)

지역	잘 알고 있다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	모른다	계 (명)
전국 ¹⁾	38.6	46.9	14.5	100.0 (9,930)
서울	34.7	55.5	9.7	100.0 (1,805)
부산	34.7	58.0	7.3	100.0 (783)
대구	55.1	36.1	8.8	100.0 (472)
인천	33.2	44.1	22.7	100.0 (465)
광주	45.8	40.4	13.8	100.0 (242)
대전	42.3	44.1	13.6	100.0 (246)
울산	28.9	55.5	15.6	100.0 (168)
세종	37.3	41.3	21.4	100.0 (38)
경기	37.0	53.0	10.0	100.0 (2,068)
강원	50.5	25.8	23.7	100.0 (376)
충북	38.2	40.7	21.1	100.0 (337)
충남	54.2	35.3	10.5	100.0 (473)
전북	54.5	35.4	10.0	100.0 (459)
전남	39.1	39.0	21.9	100.0 (511)
경북	31.6	31.9	36.5	100.0 (676)
경남	28.0	57.9	14.2	100.0 (692)
제주	37.9	27.0	35.1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59〉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 치매조기검진서비스

(단위: %, 명)

지역	잘 알고 있다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	모른다	계 (명)
전국 ¹⁾	44.1	42.2	13.8	100.0 (9,930)
서울	44.5	45.7	9.8	100.0 (1,805)
부산	45.4	46.7	7.8	100.0 (783)
대구	62.1	29.7	8.3	100.0 (472)
인천	45.3	46.0	8.7	100.0 (465)
광주	39.1	49.4	11.5	100.0 (242)
대전	37.3	38.5	24.2	100.0 (246)
울산	42.7	45.5	11.8	100.0 (168)
세종	48.3	32.7	19.0	100.0 (38)
경기	47.6	41.2	11.2	100.0 (2,068)
강원	35.0	32.5	32.4	100.0 (376)
충북	35.3	37.6	27.2	100.0 (337)
충남	44.4	40.4	15.2	100.0 (473)
전북	60.1	33.0	6.9	100.0 (459)
전남	38.8	47.6	13.5	100.0 (511)
경북	28.8	36.7	34.6	100.0 (676)
경남	39.0	52.0	9.0	100.0 (692)
제주	42.7	37.5	19.8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60〉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

(단위: %, 명)

지역	잘 알고 있다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	모른다	계 (명)
전국 ¹⁾	29.7	44.7	25.7	100.0 (9,930)
서울	32.3	43.5	24.2	100.0 (1,805)
부산	28.7	49.0	22.3	100.0 (783)
대구	44.3	38.8	16.9	100.0 (472)
인천	27.8	48.1	24.1	100.0 (465)
광주	28.3	58.5	13.2	100.0 (242)
대전	22.9	46.7	30.4	100.0 (246)
울산	25.6	39.1	35.3	100.0 (168)
세종	38.4	37.4	24.1	100.0 (38)
경기	26.5	47.6	25.9	100.0 (2,068)
강원	40.2	34.4	25.4	100.0 (376)
충북	25.4	40.5	34.1	100.0 (337)
충남	31.5	48.7	19.8	100.0 (473)
전북	32.8	47.0	20.2	100.0 (459)
전남	27.5	53.5	19.0	100.0 (511)
경북	23.8	31.0	45.2	100.0 (676)
경남	27.5	43.5	29.0	100.0 (692)
제주	34.1	36.5	29.4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61〉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치매전담요양기관 운영

(단위: %, 명)

지역	잘 알고 있다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	모른다	계 (명)
전국 ¹⁾	26.9	45.8	27.2	100.0 (9,930)
서울	26.4	48.8	24.9	100.0 (1,805)
부산	25.9	45.5	28.6	100.0 (783)
대구	39.4	45.3	15.3	100.0 (472)
인천	26.4	49.6	24.0	100.0 (465)
광주	29.1	56.5	14.4	100.0 (242)
대전	18.0	52.6	29.4	100.0 (246)
울산	25.7	33.9	40.4	100.0 (168)
세종	26.9	42.1	31.0	100.0 (38)
경기	26.4	46.1	27.6	100.0 (2,068)
강원	36.1	42.5	21.4	100.0 (376)
충북	18.0	43.7	38.2	100.0 (337)
충남	24.7	55.0	20.3	100.0 (473)
전북	30.3	47.6	22.1	100.0 (459)
전남	28.5	52.0	19.5	100.0 (511)
경북	23.9	34.4	41.7	100.0 (676)
경남	24.8	36.0	39.2	100.0 (692)
제주	35.8	36.9	27.4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62〉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 치매안심센터

(단위: %, 명)

지역	잘 알고 있다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	모른다	계 (명)
전국 ¹⁾	26.0	45.5	28.5	100.0 (9,930)
서울	21.9	47.3	30.8	100.0 (1,805)
부산	32.5	45.3	22.2	100.0 (783)
대구	33.6	47.8	18.6	100.0 (472)
인천	23.8	46.4	29.8	100.0 (465)
광주	28.7	54.9	16.4	100.0 (242)
대전	19.3	48.0	32.7	100.0 (246)
울산	26.6	42.4	31.0	100.0 (168)
세종	26.2	47.2	26.6	100.0 (38)
경기	25.1	47.6	27.3	100.0 (2,068)
강원	36.4	38.5	25.1	100.0 (376)
충북	17.2	47.2	35.6	100.0 (337)
충남	20.4	51.9	27.7	100.0 (473)
전북	40.7	41.9	17.4	100.0 (459)
전남	27.1	47.1	25.8	100.0 (511)
경북	20.3	31.0	48.7	100.0 (676)
경남	25.6	43.6	30.9	100.0 (692)
제주	35.2	42.3	22.5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63〉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 및 대응기관)

(단위: %, 명)

지역	잘 알고 있다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	모른다	계 (명)
전국 ¹⁾	21.9	43.3	34.9	100.0 (9,930)
서울	18.7	49.4	31.9	100.0 (1,805)
부산	24.8	45.5	29.7	100.0 (783)
대구	27.9	50.5	21.5	100.0 (472)
인천	10.5	44.8	44.6	100.0 (465)
광주	19.7	54.2	26.0	100.0 (242)
대전	19.3	41.2	39.5	100.0 (246)
울산	22.4	33.7	43.9	100.0 (168)
세종	13.0	45.2	41.8	100.0 (38)
경기	21.0	48.5	30.5	100.0 (2,068)
강원	38.5	28.4	33.1	100.0 (376)
충북	16.8	40.8	42.3	100.0 (337)
충남	19.3	45.0	35.8	100.0 (473)
전북	26.7	38.0	35.3	100.0 (459)
전남	22.2	48.3	29.5	100.0 (511)
경북	27.1	21.3	51.7	100.0 (676)
경남	21.8	33.6	44.6	100.0 (692)
제주	19.6	31.7	48.7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64〉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 성년후견인제도

(단위: %, 명)

지역	잘 알고 있다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	모른다	계 (명)
전국 ¹⁾	10.0	34.2	55.8	100.0 (9,930)
서울	10.2	39.3	50.5	100.0 (1,805)
부산	10.4	40.7	48.9	100.0 (783)
대구	16.0	36.5	47.5	100.0 (472)
인천	2.5	28.4	69.1	100.0 (465)
광주	21.9	47.2	30.8	100.0 (242)
대전	5.7	29.2	65.1	100.0 (246)
울산	11.7	34.4	53.9	100.0 (168)
세종	5.6	34.1	60.3	100.0 (38)
경기	4.9	33.4	61.7	100.0 (2,068)
강원	8.1	23.1	68.8	100.0 (376)
충북	5.7	31.0	63.3	100.0 (337)
충남	8.5	38.6	52.9	100.0 (473)
전북	12.3	25.2	62.5	100.0 (459)
전남	22.5	45.2	32.3	100.0 (511)
경북	17.8	22.4	59.7	100.0 (676)
경남	7.6	29.7	62.6	100.0 (692)
제주	14.9	26.8	58.3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65〉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 주택연금

(단위: %, 명)

지역	잘 알고 있다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	모른다	계 (명)
전국 ¹⁾	29.4	44.3	26.3	100.0 (9,930)
서울	35.1	46.5	18.4	100.0 (1,805)
부산	30.4	48.2	21.4	100.0 (783)
대구	67.3	29.7	3.0	100.0 (472)
인천	23.9	49.9	26.1	100.0 (465)
광주	31.3	53.7	15.0	100.0 (242)
대전	16.1	38.1	45.8	100.0 (246)
울산	22.2	52.1	25.7	100.0 (168)
세종	19.2	38.4	42.4	100.0 (38)
경기	29.6	47.3	23.2	100.0 (2,068)
강원	21.6	31.5	46.9	100.0 (376)
충북	15.3	40.7	43.9	100.0 (337)
충남	13.4	44.0	42.6	100.0 (473)
전북	33.4	42.5	24.2	100.0 (459)
전남	27.1	55.9	17.0	100.0 (511)
경북	34.5	23.6	41.9	100.0 (676)
경남	13.6	52.0	34.4	100.0 (692)
제주	29.1	37.4	33.5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66〉 노인의 시·도별 정책인지도 : 농지연금

(단위: %, 명)

지역	잘 알고 있다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	모른다	계 (명)
전국 ¹⁾	13.2	41.2	45.6	100.0 (9,930)
서울	9.3	46.3	44.3	100.0 (1,805)
부산	7.9	43.3	48.9	100.0 (783)
대구	18.6	59.7	21.7	100.0 (472)
인천	9.9	32.2	57.8	100.0 (465)
광주	18.4	61.1	20.5	100.0 (242)
대전	7.8	38.8	53.4	100.0 (246)
울산	4.9	40.7	54.4	100.0 (168)
세종	8.6	36.5	54.9	100.0 (38)
경기	9.4	37.9	52.7	100.0 (2,068)
강원	12.0	37.2	50.9	100.0 (376)
충북	10.2	38.0	51.8	100.0 (337)
충남	14.5	41.4	44.0	100.0 (473)
전북	33.3	38.8	27.9	100.0 (459)
전남	19.2	61.6	19.2	100.0 (511)
경북	26.1	24.4	49.6	100.0 (676)
경남	10.4	29.7	59.9	100.0 (692)
제주	27.2	36.6	36.3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67〉 시·도별 향후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노인복지정책(1순위)

(단위: %, 명)

지역	노인 빈곤	노인 건강	노인 돌봄	치매 관련	노인 고용	노후 여가 문화	노인 특화 주거	자원봉사 사회참여 자원	주택 개선/ 개조	노인 특화 용품	기타	계 (명)
전국 ¹⁾	36.3	26.3	14.0	8.6	6.7	4.2	1.2	1.6	0.8	0.3	0.0	100.0 (9,930)
서울	30.0	23.1	15.1	12.8	8.6	4.7	2.0	2.4	1.2	0.2	0.0	100.0 (1,805)
부산	45.5	22.3	11.7	7.6	4.9	4.0	1.4	1.2	0.9	0.4	0.0	100.0 (783)
대구	43.8	35.0	6.7	3.6	4.5	5.0	0.2	0.6	0.5	0.2	0.0	100.0 (472)
인천	47.7	23.5	12.1	2.4	10.0	0.9	0.3	1.5	1.3	0.2	0.0	100.0 (465)
광주	22.2	41.3	14.4	8.2	3.4	7.2	2.5	0.2	0.5	0.2	0.0	100.0 (242)
대전	41.6	31.6	11.4	4.3	6.6	3.1	0.5	0.4	0.3	0.0	0.0	100.0 (246)
울산	50.3	26.6	10.1	3.3	8.4	1.2	0.3	0.0	0.0	0.0	0.0	100.0 (168)
세종	44.5	29.6	12.5	3.8	4.6	2.5	0.8	0.5	0.6	0.6	0.0	100.0 (38)
경기	34.2	26.3	11.0	10.6	8.4	4.7	1.3	2.0	1.0	0.5	0.0	100.0 (2,068)
강원	30.8	15.9	33.5	13.3	5.3	1.1	0.0	0.1	0.0	0.0	0.0	100.0 (376)
충북	28.7	28.2	24.3	9.6	3.3	4.2	0.6	0.2	0.4	0.4	0.0	100.0 (337)
충남	32.9	30.5	18.1	5.6	7.4	4.6	0.6	0.3	0.0	0.0	0.0	100.0 (473)
전북	30.8	40.7	6.9	8.3	5.2	5.1	1.8	0.6	0.6	0.0	0.0	100.0 (459)
전남	31.5	34.1	13.4	4.7	4.6	6.6	2.9	1.2	0.4	0.5	0.0	100.0 (511)
경북	35.6	23.1	16.8	9.8	2.1	5.4	0.5	5.5	0.8	0.3	0.0	100.0 (676)
경남	53.9	18.7	14.2	4.2	6.3	1.0	0.4	0.2	0.4	0.7	0.0	100.0 (692)
제주	24.5	20.8	19.7	10.2	15.7	3.1	0.7	1.1	3.5	0.5	0.3	100.0 (119)

주: 1) 본인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표 Ⅲ-11-68〉 시·도별 향후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노인복지정책(2순위)

(단위: %, 명)

지역	노인 빈곤	노인 건강	노인 돌봄	치매 관련	노인 고용	노후 여가 문화	노인 특화 주거	자원봉사/ 사회참여 지원	주택 개선/ 개조	노인 특화 용품	계 (명)
전국 ¹⁾	12.7	19.6	18.0	13.9	14.6	10.2	3.6	3.6	2.7	1.0	100.0 (9,930)
서울	11.7	18.4	19.9	12.8	12.6	11.7	5.1	4.5	2.7	0.6	100.0 (1,805)
부산	11.5	25.9	19.4	9.6	13.5	8.0	3.2	3.9	3.2	1.8	100.0 (783)
대구	11.0	22.9	14.5	19.6	9.2	16.2	1.8	1.0	1.0	2.7	100.0 (472)
인천	13.2	23.2	18.8	12.1	20.8	5.3	0.6	4.5	1.4	0.2	100.0 (465)
광주	8.5	15.4	9.9	14.8	19.2	15.8	10.0	3.1	3.1	0.1	100.0 (242)
대전	10.4	13.9	20.2	8.6	22.4	11.3	6.3	4.4	1.0	1.3	100.0 (246)
울산	12.8	26.4	19.5	10.2	18.2	8.8	1.4	1.1	1.4	0.2	100.0 (168)
세종	12.3	21.1	12.6	13.3	17.2	12.4	6.1	2.9	0.6	1.5	100.0 (38)
경기	15.2	14.8	14.6	11.9	21.2	8.3	2.6	5.4	4.4	1.4	100.0 (2,068)
강원	16.6	14.6	22.2	20.6	16.1	6.3	2.5	0.9	0.3	0.0	100.0 (376)
충북	7.4	26.7	22.2	18.3	8.1	10.8	2.5	1.6	1.7	0.8	100.0 (337)
충남	11.6	18.3	17.6	19.1	11.7	9.8	5.4	3.5	2.2	0.9	100.0 (473)
전북	11.4	19.6	19.3	15.6	13.3	14.4	3.3	1.0	1.6	0.6	100.0 (459)
전남	9.1	24.8	14.7	12.2	14.4	12.1	6.1	3.1	2.8	0.7	100.0 (511)
경북	17.7	18.8	18.9	16.2	5.0	13.8	2.8	3.4	2.5	0.9	100.0 (676)
경남	11.8	25.0	20.1	14.7	11.4	7.1	2.3	2.7	3.5	1.4	100.0 (692)
제주	11.1	17.3	29.5	20.3	7.3	4.3	2.7	4.0	3.1	0.4	100.0 (119)

주: 1) 본인V답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임.

부록 IV.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표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닐슨컴퍼니코리아 (http://www.nielsen.com/kr)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가구 ID				가구원 번호			
1				-			
읍면동 번호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CARD	
						0 1	
주소	도로명 주소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_____ 읍면 (도로명)					
	(세부주소)	_____					
	가구연락처	() _____ - _____					
가구주 성명		성명	가구원 번호	연락처			
응답자 1 (노인 조사 대상자)		응답유형	(0) 본인 응답 (1) 동거인 대리 응답 (2) 비동거인 대리 응답	대상자와의 관계		※ 조사원: <별첨1> [노인과의 관계] 코드를 참조하여 기입하십시오.	
응답자 2 (가구사항)		성명	가구원 번호	연락처			
조사표 완료 소요시간		총	분	총 방문 횟수		총	회
1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미완사유(번호 기입):		※ 미완 사유		
2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미완사유(번호 기입):		⑥ 비헤당(완료)		
3차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미완사유(번호 기입):		① 늦은 귀가		
최종방문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미완사유(번호 기입):		② 창기 출타		
					③ 부재중(원인 미파악)		
					④ 일부 문항 미완		
					⑤ 조사 거부		
조사원 이름	(인)	SV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미완사유(번호 기입):		검증원 확인	(인)	
조사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닐슨컴퍼니코리아			
		조사문의 전화 : 044-287-8402, 8167		조사문의 전화 : 02-2122-7267			
		조사문의 E-mail : soopiasj@kihasa.re.kr		조사문의 E-mail : hyekyung.ko@nielsen.com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참여·자료활용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노인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인의 현재 생활 실태와 복지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셔서 조사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데는 약 1시간이 걸리며, 질문 내용은 노인의 생활 전반과 관련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니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에 참여하시는 데 동의하시면 아래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연구위원

<문의 및 연락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44-287-8402, 044-287-8167) 날스코리아 (☎ 02-2122-7267)

내용	동의함
■ 본인은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自意)에 의해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 본인은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수행과 관련 통계작성의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① 한국 노인의 현재 생활실태와 복지에 대한 욕구 파악 ② 노인복지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국가통계 생산 [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
[민감정보 수집 항목] 소득, 지출, 부채, 재산 등 설문문항 항목	☐
■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참여 완료 후 <u>당첨권(1만원 상당권) 및 생활용품</u> 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인) _____

B. 건강 상태와 건강 행태

※ 조사원 : 문항 중 ★표시가 있는 문항은 개인적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대리응답이 불가합니다

■ ★ 문B1. 귀하께서는 자신의 평소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건강이 나쁜 편이다 5) 건강이 매우 나쁘다

■ 문B2. 다음은 귀하께서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의사 진단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성질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문B2-1. 만성질환 유무: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환으로서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습니까?
□ 문B2-2. 치료 여부: 이 질환에 대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까?

질병명	□ 문B2-1.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유무		□ 문B2-2. 치료 여부		질병명	□ 문B2-1.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질환 유무		□ 문B2-2. 치료 여부	
	(1) 예	(2) 아니요	(1) 예	(2) 아니요		(1) 예	(2) 아니요	(1) 예	(2) 아니요
순환기	1) 고혈압	☐	☐	☐	감각기	19) 백내장	☐	☐	☐
	2) 뇌졸중(중풍, 뇌경색)	☐	☐	☐		20) 녹내장	☐	☐	☐
	3)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	☐	☐		21) 만성중이염	☐	☐	☐
	4) 협심증, 심근경색증	☐	☐	☐		22) 노인성 난청	☐	☐	☐
	5) 기타 심장질환 (심부전증과 부정맥)	☐	☐	☐		23) 파부병	☐	☐	☐
내분비계	6) 당뇨병	☐	☐	☐	암	24) 암(악성신생물)	☐	☐	☐
	7) 갑상선 질환	☐	☐	☐		25) 위·십이지장궤양	☐	☐	☐
근골격계	8)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류마티즘 관절염	☐	☐	☐	소화기	26) 간염	☐	☐	☐
	9) 골다공증	☐	☐	☐		27) 간경변증	☐	☐	☐
	10) 요통, 좌골신경통	☐	☐	☐	비뇨생식기	28) 만성 신장 질환	☐	☐	☐
	11) 골절, 탈골 및 사고 후유증	☐	☐	☐		29) 전립선 비대증	☐	☐	☐
호흡기계	12)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	☐	☐		30) 요실금	☐	☐	☐
	13) 천식	☐	☐	☐	31) 빈혈	☐	☐	☐	
	14) 폐결핵, 결핵	☐	☐	☐	32) 기타(무엇:)	☐	☐	☐	
신경정신계	15) 우울증	☐	☐	☐	기타				
	16) 치매	☐	☐	☐					
	17) 파킨슨병	☐	☐	☐					
	18) 불면증	☐	☐	☐					

※ 조사원 : 총 만성질환(의사 진단 기준) 수를 확인하여 기록하십시오. (실수 기입)

B2-3 총 수 개

■ 문B3. 귀하께서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 중 현재 3개월 이상 복용 중인 약은 하루 몇 종류입니까? (실수 기입)

1일 종류

- 문B4. 귀하께서는 지난 1개월 동안 병원, 의원, 보건(자진료)소, 한의원, 치과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신 적(외래)이 있으십니까? 이용하셨다면, 몇 회 이용하셨습니다?

1) 있다 → (1개월 횟수: 회)

2) 없다

- 문B5.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아프거나 다쳐서 요양병원이나 그 외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입원하셨다면, 몇 회 입원하셨으며, 전체 입원 일수는 며칠입니까?

1) 요양병원: ① 있다 → (지난 1년간 회 일) ② 없다

2) 그 외 병원: ① 있다 → (지난 1년간 회 일) ② 없다

- ★ 문B6. 지난 일주일 동안 귀하의 생활이 아래 내용과 같으면 1)예, 그렇지 않으면 2)아니요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현재의 생활에 대체적으로 만족하십니까?	1) 예	2) 아니요
2) 요즈음 들어 활동량이나 의욕이 많이 떨어지셨습니까?	1) 예	2) 아니요
3) 자신이 헛되이 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1) 예	2) 아니요
4)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1) 예	2) 아니요
5) 평소에 기분은 상쾌한 편입니까?	1) 예	2) 아니요
6) 자신에게 불길한 일이 닥칠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1) 예	2) 아니요
7) 대체로 마음이 즐거운 편입니까?	1) 예	2) 아니요
8) 절망적이라는 느낌이 자주 드십니까?	1) 예	2) 아니요
9) 바깥에 나가기가 싫고 집에만 있고 싶습니다?	1) 예	2) 아니요
10) 비슷한 나이의 다른 분들보다 기억력이 더 나쁘다고 느끼십니까?	1) 예	2) 아니요
11) 현재 살아 있다는 것이 즐겁게 생각되십니까?	1) 예	2) 아니요
12) 지금의 내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십니까?	1) 예	2) 아니요
13) 기억이 좋은 편입니까?	1) 예	2) 아니요
14) 지금 자신의 처지가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느끼십니까?	1) 예	2) 아니요
15)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처지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요

- 문B7.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1) 예(현재 피움)

2) 아니요

- 문B8.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술을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0)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 B9로 이동

1) 연 1회 이상~12회 미만

2) 한 달에 1회 정도

3) 한 달에 2~3회 정도

4) 일주일에 1회 정도

5) 일주일에 2~3회 정도

6) 일주일에 4~6회 정도

7) 매일

- 문B8-1. 술을 한 번 마실 때 평균 몇 잔정도 마십니까? 평균 잔

【보기】 전예 대한 정의 : 캔맥주 1개(355ml)는 1.6잔, 맥주 1병(500cc)은 2잔, 막걸리 1병(750ml)는 7잔, 소주 1병(360ml)은 6.5잔, 와인 1병은 8잔, 양주는 병마다 잔 수가 다릅니다.

- 문B9. 귀하께서는 평소 운동을 하십니까? (※ 조사원: 지속적으로 10분 이상 운동을 한 경우)

1) 예

2) 아니요 ⇨ B10으로 이동

- 문B9-1. 일주일에 며칠 운동을 하십니까? 일주일에 일

- 문B9-2. 한번 운동할 때 몇 분 정도 하십니까? 1회당 분

■ 문B10. 귀하의 몸무게와 키는 어느 정도입니까?

몸무게	kg	측정여부 : 1) 측정 2) 미측정	키	cm	측정여부 : 1) 측정 2) 미측정

■ 문B11. 다음은 귀하의 1개월 간 영양 관리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 각각에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1) 질병(건강) 때문에 먹는 음식의 양이나 종류를 바꾸고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6) 돈이 부족해 필요한 음식을 구입 못할 때도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2) 하루에 채 두 끼를 못 먹는다	1) 그렇다 2) 아니다	7) 거의 매일 혼자서 식사한다	1) 그렇다 2) 아니다
3) 과일, 채소 또는 유제품(우유 등)을 거의 먹지 않는다 (각각 응답)	1) 과일 2) 채소 3) 유제품	8) 하루에 세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약(처방 및 비처방)을 복용한다	1) 그렇다 2) 아니다
4) 거의 매일 3잔 이상의 술을 마신다	1) 그렇다 2) 아니다	9) 지난 6개월 사이 일부러 체중을 조절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무게가 5kg 이상 줄거나 늘었다	1) 그렇다 2) 아니다
5) 치아가 좋지 않거나 입안이 헐어서 음식 먹기가 힘들다	1) 그렇다 2) 아니다	10) 장보고, 음식 만들고, 식사하는 것이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다	1) 그렇다 2) 아니다

■ 문B12.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정부 또는 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경로식당 또는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얼마나 자주 이용하셨습니까?

1) 경로식당(복지관 식당)		0)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4) 한 달에 1~2회 정도
2) 식사(밀반찬) 배달 서비스(정부, 복지관 등에서 배달)		1) 거의 매일(주4회 이상)	5) 3개월에 1~2회 정도
		2) 일주일에 2~3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 문B13. 귀하께서는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사업장 특수건강검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1차 건강검진, 정부의 노인 건강검진 등)

1) 귀하께서는 지난 2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단, 치매검진 제외)	1) 예 2) 아니오
2) 귀하께서는 지난 2년간 치매검진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1) 예 2) 아니오

■ ★ 문B14.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본인이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으십니까?

병·의원	1) 예 2) 아니오 ⇒ C1으로 이동	치과진료	1) 예 2) 아니오 ⇒ C1으로 이동

□ ★ 문B14-1.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의원		치과진료	

1) 경제적 어려움	6) 증상이 가벼워서
2) 교통이 불편해서	7) 진단받거나 치료받는 것이 두려워서
3) 기동이 불편해서[동행할 가족(간병인 등)이 없어서]	8) 가사, 일 등으로 시간이 없어서
4) 의료 정보가 부족해서(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잘 몰라서)	9) 기타(구체적으로 _____)
5) 병원 예약이 힘들거나 또는 진료받기 위한 대기 시간이 길어서	

C. 기능 상태와 간병 수발

※ 조사원 : 문항 중 ★표시가 있는 문항은 개인적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대리응답이 불가합니다

※ 다음은 시력, 청력, 씹기의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항목	1) 보조기 사용 여부 ※ 시력: 시력보조기(안경, 렌즈, 돋보기 등) 청력: 보청기, 심가: 틀니(의치)	★2) 일상생활의 불편함 (보조기 사용자는 보조기 착용 후)
■ 문C1. 시력(텔레비전 보기, 신문 읽기)	1) 예(사용) 2) 아니오(미사용)	1) 불편하지 않다 2) 불편한 편이다 3) 매우 불편하다
■ 문C2. 청력(전화 통화, 옆 사람과의 대화)	1) 예(사용) 2) 아니오(미사용)	1) 불편하지 않다 2) 불편한 편이다 3) 매우 불편하다
■ 문C3. 씹기(고기나 딱딱한 것 씹기)	1) 예(사용) 2) 아니오(미사용)	1) 불편하지 않다 2) 불편한 편이다 3) 매우 불편하다

■ 문C4. 다음은 귀하의 근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자나 침대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5회 반복해 주세요 (양손을 앞으로 모아 두 손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서고 앉기를 5번 시행)

- 1) 수행함
- 2) 시도했으나, 수행 못 함(5회 못 한 경우)
- 3) 수행 시도조차 못 하는 상태(와상 노인, 기타 장애로 일어서기가 불가능한 경우)
- 9) 지금 하고싶지 않음

■ 문C5. 귀하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1)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뛰기	☐	4) 몸을 구부리거나, 쭉그려 엮거나, 무릎을 꿇기	☐	1) 전혀 어렵지 않다
2) 운동장 한 바퀴(400m) 정도 걸기	☐	5) 머리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손을 뻗어서 닿기	☐	2) 약간 어렵다
3) 쉬지 않고 10계단 오르기	☐	6) 쌀 1말(8kg) 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옮기기	☐	3) 매우 어렵다
				4) 전혀 할 수 없다
				5) 모르겠다

■ 문C6. 귀하께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셨습니까?

1) 옷 입기(옷 꺼내기, 단추 · 지퍼, 벨트 채우기)	☐	5) 누웠다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가기	☐	
2)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	6) 화장실 출입과 대소변 후 닦고 옷 입기	☐	1) 완전 자립
3) 목욕 또는 샤워하기(목조 드나들기, 때밀기, 샤워)	☐	7) 대소변 조절하기	☐	2) 부분 도움
4) 차려 놓은 음식 먹기	☐			3) 완전 도움

■ 문C7. 귀하께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정도 필요하셨습니까?

1) 몸단장(빗질, 화장, 면도, 손톱 · 발톱 깎기)	☐	5) 제시된 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챙겨 먹기	☐	
2) 집안일(실내 청소, 설거지, 침구 정리, 집안 정리 정돈 등)	☐	6) 금전 관리(용돈, 통장 관리, 재산 관리)	☐	1) 완전 자립
3) 식사준비(음식 재료 준비, 요리, 상 차리기)	☐	7) 근거리 외출하기(가까운 거리 걸어서)	☐	2) 부분 도움
4) 빨래(손이나 세탁기로 세탁 후 널어 말리기 포함)	☐			3) 완전 도움
8) 물건 구매 결정, 돈 지불, 거스름돈 받기	☐	10) 교통수단 이용하기 (대중교통, 개인 차)	☐	1) 완전 자립
9) 전화 걸고 받기	☐			2) 적은 부분 도움
				3) 많은 부분 도움
				4) 완전도움

※ 조사원: <문C6~문C7>의 어느 한 항목이라도 하는 데 불편함이 있거나 수행하지 못한 경우 <문C8>로 가시오
모두 불편함이 없거나 수행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경우(모두 완전 자립인 경우)만 <문C9>로 가시오

■ 문C8. 귀하께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가족이나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으십니까?

- 1) 예 (2) 아니요 ⇒ C8-5로 이동

□ 문C8-1. 누구의 도움을 받으십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1) 동거 가족원	1) 도움받음 2) 도움받지 않음	4) 개인 간병인이나 가사 도우미(파출부)	1) 도움받음 2) 도움받지 않음
2) 비동거 가족원	1) 도움받음 2) 도움받지 않음	5)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요양보호사, 주야간보호 등)	1) 도움받음 2) 도움받지 않음
3) 친척, 이웃·친구·지인	1) 도움받음 2) 도움받지 않음	6) 노인돌봄서비스 (가사 간병 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 각종 공공 돌봄 서비스, 맞춤형노인돌봄서비스 등)	1) 도움받음 2) 도움받지 않음

※ 조사원 : 귀하를 돌봐주는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C8-1>에서

- 1) ~ 3) 중에서 하나라도 '1) 도움 받음'을 택한 경우 ⇒ C8-2로 이동
- 4)에서 '1) 도움 받음'을 택한 경우 ⇒ C8-3으로 이동
- 1)-6) 중에서 하나라도 '1) 도움 받음'을 택한 경우 ⇒ C8-4로 이동

□ 문C8-2. (가족, 친척, 이웃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 지난 1개월 동안 어떤 도움을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도움 내용	C8-2-1. 도움 빈도	C8-2-2. 주 도움 제공자
1) 청소, 빨래, 시장 보기	☐	0) 도움 받지 않음
2) 외출 동행	☐	1) 거의 매일(주 4회 이상)
3) 식사 준비(음식 준비)	☐	2) 주 2~3회 정도
4) 목욕 등 신체 기능 유지지원	☐	3) 일주일에 1일 정도
		4) 격주 1회 정도
		5) 월 1회 이하

〈별첨1〉【노인과의 관계】코드를 참조하여 기입

□ 문C8-3. (개인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은 경우) 1주일 동안 평균 몇 시간 이용하십니까?

주 _____ 시간

□★ 문C8-4. 귀하께서는 현재 가족이나 친척,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통해 받는 도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충분하다 2) 충분하다 3) 보통이다 4) 부족하다 5) 매우 부족하다

⇒ 응답 후 C9로 이동

□★ 문C8-5.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도움이 필요 없어서(아직까지는 혼자서 할 수 있어서)
- 2) 도움은 필요하지만, 가족 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 3)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와 줄 사람이 없어서
- 4) 도움은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 5) 도움은 필요하지만, 도움 받는 방법을 알 수 없어서
- 6) 도움은 필요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집에 오는 것이 싫어서
-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C9. 귀하께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있다) (2) 아니요(없다) ⇒ C9-2로 이동

□ 문C9-1. (등급 인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면) 가장 최근에 받은 등급은 무엇입니까?

- 1) 1등급 2) 2등급 3) 3등급 4) 4등급 5) 5등급

- 6) 인지지원등급 7) 등급외 ⇒ C10으로 이동

-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C10으로 이동

□ 문C9-1-1. 귀하가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1) 방문요양	1) 예 2) 아니오	4) 주간간보호서비스	1) 예 2) 아니오
2) 방문간호	1) 예 2) 아니오	5) 단기보호	1) 예 2) 아니오
3) 방문목욕	1) 예 2) 아니오	6) 복지용구	1) 예 2) 아니오

→ **응답 후 C10으로 이동**

□ 문C9-2. (장기요양 등급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0) 건강이 양호해서(도움이 필요 없어서)
- 1)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서
- 2) 건강 상태가 불량하지만단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 3) 타인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 4) 비용이 부담될 것 같아서
- 5) 노인요양시설보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 6) 장기요양보험에는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 7)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재가돌봄서비스,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등)로 충분해서
- 8) 기타(구체적으로)

■ 문C10. 귀하께서는 장애판정을 받으셨습니까?

- 1) 예 2) 아니요 ⇒ D1로 이동

□ 문C10-1. 주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장애 유형	1) 지체장애 2) 뇌병변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장애 5) 언어장애	6) 지적장애 7) 자폐성장애 8) 정신장애 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13) 안면장애 14) 장루·요루장애 15) 뇌전증장애	장애 정도	1) 심한 장애인(1~3급) 2)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 문D5.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교육(학습활동) (TV 및 인터넷 강좌 등 온라인 학습활동 포함)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1) 예 2) 아니요 ⇒ D6으로 이동

□ 문D5-1. 주로 어떤 영역을 배우셨습니까?

- 1) 건강관리(증진)·운동 관련 교육 5) 컴퓨터 등 정보화 교육
2) 문화 예술(춤·가요·음악) 활동 학습 6) 취업 교육 또는 직업 교육
3) 외국어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 인문학(사수필) 학습

□ 문D5-2. 주로 어디에서 하는 교육(학습활동)에 참여하셨습니까?

- 1) 노인(종합)복지관/센터(노인여가복지시설)
2) 경로당
3) 대한노인회 운영 노인교실(대학)
4) 종교기관 운영 노인교실(대학)
5) 시·군·구민회관/주민센터
6) 초·중·고·대학(교)
7) 공공 문화센터((종합)사회복지관, 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
8) 사설 문화센터(배화점, 마트, 신문사, 방송사 등), 학원
9)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매체 활용(TV·라디오·인터넷 강좌, 컴퓨터·인터넷 활용 학습, 책·전문잡지 등 인쇄매체)
10)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D5-3. 귀하께서는 이 교육(학습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셨으며, 회당 참여시간은 얼마입니까?

월 회, 회당 하루 시간

(※ 월 참여횟수 1회 미만은 0으로 기입)

■ 문D6. 귀하는 지난 1년간 동호회(클럽활동), 친목 단체(동창회, 계모임 등), 정치사회 단체 활동에 참여하셨습니까?

□ 문D6-1. 참여하였다면, 얼마나 자주 참여하셨습니까?

구분	문D6. 참여여부	문D6-1. 참여빈도		
1) 동호회(클럽활동)	1) 참여함	1) 주 4회 이상	2) 주 2~3회	3) 주 1회
	2) 참여하지 않았음	4) 2주 1회	5) 월 1회	6) 월 1회 미만
2) 친목 단체(동창회, 계모임 등)	1) 참여함	1) 주 4회 이상	2) 주 2~3회	3) 주 1회
	2) 참여하지 않았음	4) 2주 1회	5) 월 1회	6) 월 1회 미만
3) 정치사회 단체	1) 참여함	1) 주 4회 이상	2) 주 2~3회	3) 주 1회
	2) 참여하지 않았음	4) 2주 1회	5) 월 1회	6) 월 1회 미만

■ ★ 문D9. 다음의 활동 중 현재 귀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1) 자원봉사 활동	5) 정치사회 (단체) 활동
2) 학습 활동	6) 친목 (단체) 활동
3) 취미·여가 활동	7) 경제활동
4) 종교 활동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문D10. 다음은 귀하께서 앞으로 희망하시는 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각각의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얼마나 있습니까?

(1) 자원봉사 활동	☐	(4) 종교 활동	☐	1) 반드시 하고 싶음
(2) 학습 활동	☐	(5) 정치사회 (단체) 활동	☐	2) 될 수 있으면 하고 싶음
(3) 취미·여가 활동	☐	(6) 친목 (단체) 활동	☐	3)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음
				4) 별로 할 생각이 없음
				5) 전혀 할 생각이 없음

■ 문D11. 다음은 여가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간 이용경험에 대해 각 이용기관별로 응답해주시요.

항목	☐ D11-1 이용여부	☐ D11-2 이용빈도	☐ D11-3 주된 이용이유	☐ ★D11-4 향후 이용의향
(1) 경로당	1) 이용경험 있음 2) 없음 → D11-4로 이동	주 ☐ 회	1순위 ☐ 2순위 ☐	1) 이용의향 있음 2) 이용의향 없음
(2) 노인복지관	1) 이용경험 있음 2) 없음 → D11-4로 이동	주 ☐ 회	1순위 ☐ 2순위 ☐	1) 이용의향 있음 2) 이용의향 없음
(3)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화관 등	1) 이용경험 있음 2) 없음 → D11-4로 이동	주 ☐ 회	1순위 ☐ 2순위 ☐	1) 이용의향 있음 2) 이용의향 없음
(4) 노인교실	1) 이용경험 있음 2) 없음 → D11-4로 이동	주 ☐ 회	1순위 ☐ 2순위 ☐	1) 이용의향 있음 2) 이용의향 없음
(5) 공공 여가문화시설 (문화회관, 구민회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1) 이용경험 있음 2) 없음 → D11-4로 이동	주 ☐ 회	1순위 ☐ 2순위 ☐	1) 이용의향 있음 2) 이용의향 없음
(6) 민간문화시설 (백화점·마트, 대학 내 평생교육관 등의 문화센터)	1) 이용경험 있음 2) 없음 → D11-4로 이동	주 ☐ 회	1순위 ☐ 2순위 ☐	1) 이용의향 있음 2) 이용의향 없음

-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2) 취미·여가 프로그램 이용
3) 건강증진 프로그램 이용
4) 식사서비스 이용
5) 상담·정서지원 프로그램 이용
6) 알자리·소독지원 프로그램 이용
7) 자원봉사활동 참여
8) 친목도모
9)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D12. 귀하께서는 다음의 전자기기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보유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전자기기	보유여부	사용여부 ※미보유시에도 응답	사용시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시간 제외
(1) 인터넷이 안되는 휴대폰(피쳐폰)	1) 보유 2) 미보유	1) 사용 2) 미사용	(전화만 되는 기기로 해당 없음)
(2) 스마트 폰 또는 태블릿 PC	1) 보유 2) 미보유	1) 사용 2) 미사용	주 일 /하루 시간 분
(3) 컴퓨터(데스크톱, 노트북)	1) 보유 2) 미보유	1) 사용 2) 미사용	주 일 /하루 시간 분

⇒ 응답 후 C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D14로 이동

■ ★ 문D13. 귀하께서는 PC나 휴대전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십니까

1) 메시지 받기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1) 예 2) 아니요	7) 동영상 보기(영화, TV프로그램, 유튜브 등)	1) 예 2) 아니요
2) 메시지 보내기 (문자,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1) 예 2) 아니요	8)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블로그, 커뮤니티, 밴드,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1) 예 2) 아니요
3) 정보 검색 및 조회(뉴스, 날씨 등)	1) 예 2) 아니요	9)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 예매, 예약 등)	1) 예 2) 아니요
4)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1) 예 2) 아니요	10) 금융거래(인터넷 뱅킹, 증권 등)	1) 예 2) 아니요
5) 음악 듣기(MP3, 라디오 등)	1) 예 2) 아니요	11) 애플리케이션 검색 및 설치	1) 예 2) 아니요
6) 게임	1) 예 2) 아니요	12) 기타(구체적으로)	1) 예 2) 아니요

■ ★ 문D14.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1) 정부나 공공기관(건강보험공단 등)의 우편물 또는 공지 사항 등에 대해 용어 또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1) 어려움이 있다 2) 어려움이 없다
2) 공공기관이나 마을(아파트), 마트 등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공지사항의 글씨 크기가 작아서 보기 어려움	1) 어려움이 있다 2) 어려움이 없다
3) 각종 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신청이 온라인/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이용하기 어려움	1) 어려움이 있다 2) 어려움이 없다

■ ★ 문D15. 다음은 생활에서의 정보화 기기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십니까?

(1) 기차/고속버스/시외 버스 예매(온라인 예매 중심으로 자리가 없어서)	☐	1) 전혀 불편하지 않다
(2) 식당 등에서 기계(키오스크) 주문	☐	2) 불편하지 않다
(3) 은행에서의 ATM 사용 또는 은행 점포 감소	☐	3) 보통이다
(5)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카드만 이용 가능한 점포 증가	☐	4) 불편하다
		5) 매우 불편하다
		6) 알지 못하거나 이용해본 적 없음

E. 경제활동

■ 문E1. 귀하께서는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십니까?

- 1) 현재 일을 한다
- 2)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 문E2로 이동
- 3)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 문E3로 이동

※ 조사원: <문E1-1>~<문E1-10>은 현재 일하는 경우에만 질문하십시오.

□ 문E1-1. 귀하께서는 현재 무슨 일을 하십니까? (※ 조사원: <별첨8. 직업분류표> 참조, 중분류로 코딩 기입)

하시는 일: _____

□ 문E1-2.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 농업·어업	5) 가사·돌봄	9) 조리·음식업	13) 건설·기계
2) 경비·수위·시설관리	6) 운전·운송	10) 택배·배달	14) 문화·예술
3) 청소 업무	7) 전문직	11) 현장 관리	15) 공공질서 유지
4) 생산 작업	8) 행정 사무	12) 환경·조경	16) 폐휴지 수거
			1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E1-3. 귀하께서 하시는 일의 종사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상용 근로자	2) 임시 근로자	3) 일용 근로자
4)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문E1-4로 이동		
5) 단독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문E1-4로 이동		
6) 무급 가족 종사자 ⇒ 문E1-4로 이동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E1-4로 이동

□ 문E1-3-1.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은 정부 지원 일자리(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입니까?

- 1) 예
- 2) 아니요

□ 문E1-4. 귀하께서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다음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1) 사업체 야년(농림·어업 등)	5) 비영리법인, 시민 단체 또는 종교 단체
2) 개인 사업체(가게)	6)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3) 민간 회사	7)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장
4) 중앙·지방 정부 또는 기타 공공 기관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문E1-5.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의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와 주 평균 근무시간은 얼마입니까?

주 일 / 주평균 시간

□ 문E1-6.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만 원

□ 문E1-7. 귀하께서 현재 하시는 일에 종사한 기간은 몇 년 몇 개월입니까?

년 개월

□ ★문E1-8. 귀하께서 현재 일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5) 능력(경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2) 용돈이 필요해서	6)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3)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7) 사회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4) 사람들과 사귀 수 있어서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 문E1-9. 귀하는 현재 하시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문E1-10 이동 2) 만족하는 편이다 ⇨ 문E1-10 이동
3) 그저 그렇다 ⇨ 문E1-10 이동 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문E1-9-1. 귀하가 현재 하시는 일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낮은 급여(소득) 수준 5) 일(업무)의 내용
2) 건강 상태와 맞지 않음 6) 대인관계
3) 불안정한 일자리 7) 기타()
4) 근로시간

□ 문E1-10. 현재 하시는 일이 일생에서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입니까?

※ 조사원: 직종이나 종사상의 지위가 하나라도 다른 경우는 현재 일자리와 다른 것으로 간주

- 1) 예 2) 아니요

※ <문E2>는 귀하께서 일생에서 가장 오래 한 일(직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E2. 귀하께서 일생동안 가장 오래한 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조사원 : <별첨 8. 직업분류표> 참조, 중분류로 코딩 기입)

하신 일: _____

□ 문E2-1. 귀하께서 일생 동안 가장 오래 한 일의 종사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상용 근로자 4) 고용주(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 임시 근로자 5) 단독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 일용 근로자 6) 무급 가족 종사자
7) 기타(구체적으로)

□ 문E2-2. 귀하께서 일생 동안 가장 오래 한 일에 종사한 기간은 몇 년 몇 개월입니까? 년 개월

※ 조사원: <문E2-3>과 <문E2-4>는 1) 현재하고 있는 일이 최장기 직업이 아니거나, 2) 일한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 경우에만 질문하십시오.

□ 문E2-3. 귀하께서 일생 동안 가장 오래 한 일을 그만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정년퇴직 5) 근로 조건 및 환경이 나빠서
2) 건강이 좋지 않아서 6) 이직, 창업
3) 정리해고, 명예퇴직, 폐업, 휴업 7) 일할 필요가 없어서
4) 가사 문제(육아, 가사, 간병 등) 8) 기타(구체적으로)

□ 문E2-4. 최장기 일자리 퇴직 이후 다른 근로 활동(가교 일자리)을 하셨습니까?

- 1) 예 2) 아니요

■ ★ 문E3. 귀하께서는 앞으로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 1) 일을 하고 싶지 않다 ⇨ 문E4로 이동
2) 지금 하고 있는 직종의 일을 계속 하고 싶다
3)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
4) 지금은 일하지 않으나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

□ ★ 문E3-1. 귀하께서 일을 하고 싶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5) 능력(경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2) 용돈이 필요해서 6)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3)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7) 사회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4)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8) 기타(구체적으로)

□ ★ 문E3-2. 귀하께서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주당 몇 시간입니까?

주

 시간

□ ★ 문E3-3. 귀하께서 희망하는 월 소득은 얼마 정도입니까?

월

 만원

□ ★ 문E3-4.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다음에서 해당되는 것 중 가장 주요한 한 가지를 고르십시오.

- 0) 노력하지 않음
- 1) 취업 지원 센터(주민센터, 구청, 대한노인회, 고용센터, 복지관, 시니어클럽 등) 의뢰
- 2) 개인적 인맥 의뢰
- 3) 신문, 잡지, 컴퓨터 등 검색
- 4)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면접건설령 참여
- 5) 직업 상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일자리 박람회 등 참여
- 6) 직업 교육 훈련 참여
- 7) 기타(구체적으로)

※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E4. 귀하께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1) 현재 참여하고 있다
- 2) 참여한 적이 있다 ⇒ 문E5로 이동
- 3) 신청했으나 참여 기회가 없었다 ⇒ 문E5로 이동
- 4) 신청한 적이 없다 ⇒ 문E5로 이동

□ 문E4-1. 귀하께서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떤 유형입니까?

- 1) 공익활동(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1일 3시간 이내 참여)
- 2) 시장형 사업단(소규모 매장, 사업단 등을 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 문E5로 이동
- 3) 취·창업형 사업단(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교령자친화기업) ⇒ 문E5로 이동
- 4) 재능나눔활동(노인안전예방, 상담·안내, 교육 및 학습지도, 문화예술 등의 봉사활동) ⇒ 문E5로 이동
- 5) 사회서비스형 사업단(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주 15시간 이상 근로) ⇒ 문E5로 이동

□ 문E4-1-1. 다음 중 어떤 공익활동 유형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1) 노노케어(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안부 확인, 말벗, 생활 안전 점검 등의 활동)
- 2) 취약계층 지원(취약계층 대상 상담, 교육, 정서적 지원 등)
- 3) 공공시설 봉사(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에서 활동)
- 4) 경륜 전수 활동(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아동, 청소년, 노인 등에게 전수)

□ ★ 문E5. 귀하께서는 앞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예
- 2) 아니요 ⇒ 문F1로 이동

□ ★ 문E5-1. 귀하께서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어떤 유형입니까?

- 1) 공익활동(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활동으로, 일 3시간 이내 참여)
- 2) 시장형 사업단(소규모 매장, 사업단 등을 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
- 3) 취·창업형 사업단(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교령자친화기업)
- 4) 재능나눔활동(노인안전예방, 상담·안내, 교육 및 학습지도, 문화예술 등의 봉사활동)
- 5) 사회서비스형 사업단(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주 15시간 이상 근로)

F. 가족 및 사회관계

※ 귀하의 자녀와 손자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와 손자녀도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단, 행방불명은 제외).

- 문F1. 귀하는 현재 따로 살고 있는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있습니까? 그 자녀의 성과 결혼상태는 어떻습니까?
(※ 결혼한 자녀와 양자녀의 수를 모두 포함하여 실수로 기록해 주십시오.)

- 1) 따로 살고 있는 자녀가 있다
2) 따로 살고 있는 자녀는 없지만,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있다 ⇨ 문F2로 이동
3) 따로 살고 있는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전혀 없다 ⇨ 문F4로 이동

- 문F1-1. 현재 따로 살고 있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

전체	계	성별	남자	여자	결혼 여부별	미혼	기혼
	명		명	명		명	명

- 문F2.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전체(자녀의 배우자 포함)와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 1) 거의 매일(주4회 이상) 4) 한 달에 1~2회 정도 7)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2) 일주일에 2~3회 정도 5) 3개월에 1~2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 문F2-1.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자녀 전체(자녀의 배우자 포함)와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거나 받았습니까?
(전화, 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한 상호연락)

- 1) 거의 매일(주4회 이상) 4) 한 달에 1~2회 정도 7)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2) 일주일에 2~3회 정도 5) 3개월에 1~2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 문F3. 따로 사는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중 가장 많이 접촉한(방문, 전화, 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이메일, 편지 포함) 자녀는 누구입니까?

(※ 조사원 <별첨1. 노인과의 관계> 참조 기입)

- 문F3-1. 그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가 사는 곳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1) 걸어서 10분 미만 4) 자동차로 30분 ~ 1시간 미만 7) 자동차로 3시간 이상
2) 걸어서 10분 ~ 30분 미만 5) 자동차로 1시간 ~ 2시간 미만 8) 해외 거주
3) 자동차로 30분 미만 6) 자동차로 2시간 ~ 3시간 미만 9) 기타(구체적으로)

- 문F3-2. 귀하는 지난 1년간 그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와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 1) 거의 매일(주4회 이상) 4) 한 달에 1~2회 정도 7)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2) 일주일에 2~3회 정도 5) 3개월에 1~2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 문F3-3. 귀하는 지난 1년간 그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와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거나 받았습니까? (전화, 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한 상호연락)

- 1) 거의 매일(주4회 이상) 4) 한 달에 1~2회 정도 7)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2) 일주일에 2~3회 정도 5) 3개월에 1~2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 문F4. 귀하는 지난 1년간 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요 ⇨ 문F5로 이동

□ ★ 문F4-1. 자녀와 갈등의 원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1) 자녀와의 동거 여부를 둘러싼 갈등	6) 자녀의 진로, 이성 교제, 결혼 문제
2)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	7) 손자녀 양육방식 등에 대한 이견
3) 자녀가 경제적 도움 요구	8) 나의 이성 교제, 결혼 문제
4) 나 또는 배우자 생활비 보조와 관련한 갈등	9) 기타(구체적으로 _____)
5) 나 또는 배우자의 자녀 편애	

■ 문F5. 귀하는 따로 사는 (친/외) 손자·손녀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1) 있다 (명) 2) 없다 ⇒ 문F6으로 이동

□ 문F5-1.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손자손녀 전체와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1) 거의 매일(주4회 이상)	4) 한 달에 1~2회 정도	7)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2) 일주일에 2~3회 정도	5) 3개월에 1~2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 문F5-2.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살고 있는 손자손녀 전체와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거나 받았습니까? (전화, 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이메일, 편지 등을 통한 상호연락)

1) 거의 매일(주4회 이상)	4) 한 달에 1~2회 정도	7)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2) 일주일에 2~3회 정도	5) 3개월에 1~2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 귀하의 배우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사원: 배우자가 없으면 <문F6>~<문F7-1>은 비해당(9) 처리한 후 <문F8>로 가시오)

■ 문F6. 귀하께서는 배우자의 평소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건강이 나쁜 편이다 5) 건강이 매우 나쁘다

■ ★ 문F7. 귀하는 지난 1년간 배우자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 1) 예 2) 아니요 ⇒ 문F8로 이동

■ ★ 문F7-1. 배우자와의 갈등의 원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1) 나(배우자)의 부모와의 동거 여부 및 수발을 둘러싼 갈등	5) 나 또는 배우자의 수발 관련 갈등
2) 나(배우자)의 부모 부양관련 형제자매와의 갈등	6)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3) 배우자의 생활방식으로 인한 갈등	7) 가사분담 방식으로 인한 갈등
4) 배우자의 성격 및 사고방식 차이로 인한 갈등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 귀하의 가구형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조사원: • 노인 부부가구, 독거노인 → <문F8>~<문F9> 질문 (<문F10>~<문F12> 비해당(9) 처리)

• 자녀 동거가구 → <문F10>~<문F12> 질문 (<문F8>~<문F9> 비해당(9) 처리)

※ 조사원: <문F8>~<문F9>은 노인 부부가구와 독거노인가구만 질문하시오

■ ★ 문F8. 귀하가 부부 또는 혼자서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6) 자녀가 따로 살기를 원해서
2) 건강해서	7) 자녀가 직장(학업)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어서
3) 개인생활 또는 부부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8)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기 싫어서	
5) 자녀가 결혼해서	

■ ★ 문F9. 귀하가 지금 생활하시면서(부부 또는 혼자 사실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0) 없음	3) 경제적 불안감	6) 기타(구체적으로 _____)
1)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	4) 안전에 대한 불안감	
2) 가사 등 일상생활 문제를 처리하기 어려움	5) 심리적 불안감 또는 외로움	

※ 조사원 <문F10>~<문F11>는 기혼 또는 미혼 자녀 동거가구만 질문하시오
(조사원: 자녀와 동거하지 않으면 <문F10>~<문F12>는 비해당(9) 처리한 후 <문F13>으로 가시오)

■ ★ 문F10. 귀하가 기혼 자녀와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5) 자녀에게 가사, 육아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2) 혼자 또는 배우자와 사는 것만으로는 외로워서	6)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3) 나 또는 배우자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 ★ 문F11. 귀하가 미혼 자녀와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5) 자녀에게 가사 등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2) 혼자 또는 배우자와 사는 것만으로는 외로워서	6)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3) 나 또는 배우자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	7) 기타(구체적으로 _____)
4)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 문F12. 귀하는 함께 사는 자녀와 가사 등의 일상생활을 어떤 방식으로 분담하십니까?

-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행 2) 자녀가 수행 3) 공동 수행 4) 각자 알아서 따로 하는 편

※ 귀하의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사원: 형제자매가 없으면 <문F13>~<문F14-1>은 비해당(9) 처리한 후 <문F15>로 가시오)

■ 문F13. 귀하는 살아 있는 형제자매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1) 있다 (명) 2) 없다

■ 문F14.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1) 거의 매일(주4회 이상)	4) 한 달에 1~2회 정도	7)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2) 일주일에 2~3회 정도	5) 3개월에 1~2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 문F14-1. 귀하는 지난 1년간 따로 사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 얼마나 자주 연락(전화, 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이메일, 편지 등으로 서로 연락)을 주거나 받았습니까?

1) 거의 매일(주4회 이상)	4) 한 달에 1~2회 정도	7)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2) 일주일에 2~3회 정도	5) 3개월에 1~2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 문F15. 귀하는 지난 1년간 친구·이웃·지인과 얼마나 자주 만났습니까?

1) 거의 매일(주4회 이상)	4) 한 달에 1~2회 정도	7)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2) 일주일에 2~3회 정도	5) 3개월에 1~2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 문F15-1. 귀하는 지난 1년간 친구·이웃·지인과 얼마나 자주 연락(전화, 휴대전화 문자 및 카카오톡, 이메일, 편지 등으로 서로 연락)을 주거나 받았습니까?

1) 거의 매일(주4회 이상)	4) 한 달에 1~2회 정도	7) 왕래(연락)를 거의 하지 않는다
2) 일주일에 2~3회 정도	5) 3개월에 1~2회 정도	
3) 일주일에 1회 정도	6) 1년에 1~2회 정도	

■ ★ 문F16. 귀하께서 가깝게 지내는(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과 친구·이웃·지인은 각각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실수 기입)

(1)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인척	명	(2) 친구·이웃·지인	명

※ 노후 생활과 관련한 귀하의 가치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 ★ 문F17. 귀하는 자녀 중 적어도 한 명은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2) 아니요 ⇒ 문F18로 이동

□ ★ 문F17-1. 귀하는 자녀 중 누가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장남 2) 아들 중 누군가 3) 장녀 4) 딸 중 누군가
5) 딸·아들 상관없이 형편이 되는 자녀 6) 딸·아들 상관없이 마음이 맞는 자녀
7) 기타(구체적으로)

■ ★ 문F18. 귀하는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본인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다 4) 본인과 자녀가 함께 마련
2) 자녀들이 마련해 주어야 한다 5) 본인과 사회보장제도(연금 등)가 함께 마련
3) 사회보장제도(연금 등) 등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6) 기타(구체적으로)

G. 가족간 도움의 교환

■ 문G1~G4. 지난 1년간 귀하께서 자녀, 부모, 배우자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받았습니까?

(※ 조사원: 해당자가 없으면 다음 대상으로 넘어가시오.)

		G1. 동거자녀	G2. 비동거자녀	G3. 본인 (배우자)부모	G4. 배우자	[보기]
존재여부(조사원기입)		1) 2)	1) 2)	1) 2)	1) 2)	1) 있음 2) 없음
1) 고인 상담(정서적 도움)	(1) 도움 받음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2) 도움줌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 청소·식사준비·세탁(도구적 도움)	(1) 도움 받음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 도움줌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3) 간병·수발·병원동행 도움(신체적 도움)	(1) 도움 받음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 도움줌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4) 경제적 도움	4-1) 정기적 현금 지원	(1) 도움 받음	1) 2) 3) 4)	1) 2) 3) 4)		
		(2) 도움줌	1) 2) 3) 4)	1) 2) 3) 4)		
	4-2) 비정기적 현금 지원	(1) 도움 받음	1) 2) 3) 4)	1) 2) 3) 4)		
		(2) 도움줌	1) 2) 3) 4)	1) 2) 3) 4)		
	4-3) 현물지원	(1) 도움 받음	1) 2) 3) 4)	1) 2) 3) 4)		
		(2) 도움줌	1) 2) 3) 4)	1) 2) 3) 4)		

■ 문G5. 지난 1년간 귀하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1) 생활비	☐	0) 지불 상황 없었음	4)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전액 부담
(2) 의료비	☐	1) 대부분의 경우 나 또는 배우자가 전액 부담	5) 자녀 외의 친인척이 대부분 부담
(3) 간병 비용	☐	2) 나 또는 배우자가 부담하는 편이지만 특별한 경우는 자녀가 보조	6) 사회복지기관 등이 대부분 부담
		3) 대부분의 경우 자녀가 일정 부분 부담	7) 기타(구체적으로)

■ 문G6. 지난 1년간 귀하께서 직접 돌봐주신 10세 미만의 (친/외) 손자 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함께 살거나 따로 사는 것에 관계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 1) 있다 (명) 2) 없다

H. 생활환경과 노후 생활

※ 다음은 귀하의 주거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H1. 귀택은 자가(귀하 또는 귀하 배우자 소유)입니까? 전·월세입니까?

- 1) 자가 2) 전세 3) 보증금 있는 월세 4)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5) 무상

■★ 문H2. 귀하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전반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 ⇨ 문H3으로 이동 4)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2) 만족하는 편이다 ⇨ 문H3으로 이동 5) 전혀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 문H3으로 이동

□★ 문H2-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주방, 화장실, 욕실 등이 사용하기 불편해서
2) 냉난방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3) 방음이나 채광에 문제가 있어서
4) 안전관리, 보수, 청소 등 관리가 힘들어서
5) 임차료, 주거관리비(냉난방비, 전기료, 개보수 등) 등 비용이 많이 들어서
6) 생활하기에 공간이 좁아서
7) 주택의 출입이 불편해서(출입구 관련, 계단 등)
8) 기타(구체적으로)

■ 문H3.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다음과 같은 기관(시설 포함)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항목	집에서부터 소요시간				
(1) 시장, 슈퍼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1)	2)	3)	4)	1) 걸어서 5분 미만 2) 걸어서 5분~10분 미만 3) 걸어서 10분~20분 미만 4) 걸어서 20분~30분 미만 5) 걸어서 30분 이상(약 2km)
(2) 병원,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	1)	2)	3)	4)	
(3)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1)	2)	3)	4)	
(4) 노인(종합)복지관	1)	2)	3)	4)	
(5)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1)	2)	3)	4)	
(6) 버스 정류장·지하철역	1)	2)	3)	4)	
(7) 산책, 운동할 수 있는 공원	1)	2)	3)	4)	

■★ 문H4. 귀하께서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항목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1) 매우 만족 2) 만족 3) 그저 그렇다 4) 불만족 5) 전혀 만족하지 않음
(1)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의 거리	1)	2)	3)	4)	5)	
(2) 대중교통 빈도/노선	1)	2)	3)	4)	5)	
(3) 녹지공간, 공간 충분성 또는 거리	1)	2)	3)	4)	5)	
(4) 치안, 교통안전	1)	2)	3)	4)	5)	
(5) 자녀 또는 친지의 거주지와의 거리	1)	2)	3)	4)	5)	
(6) 이웃과의 교류 기회	1)	2)	3)	4)	5)	
(7) 지역사회 환경 전반	1)	2)	3)	4)	5)	

■★ 문H5. 귀하께서는 건강이 유지된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실 생각입니까?

- 1) 현재 집(아파트 등)에서 계속 산다
2) 거주 환경이 더 좋은 주택으로 이사한다
3) 식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주택(실버타운,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이사한다
4) 기타(구체적으로)

■ ★ 문H6. 귀하께서는 만약 건강이 약화되어 거동이 불편해하신다면 어디에서 거주하실 생각입니까?

- 1)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
- 2)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친인척 포함)와 같이 산다(거처를 옮기거나 옮겨 오도록 해서)
- 3) 자녀 또는 형제·자매/친구의 근거리로 이사하여 산다
- 4) 돌봄, 식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으로 이사한다
- 5) 기타(구체적으로)

■ ★ 문H7. 귀하께서는 노인이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필요 서비스 정도				
(1)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 개선	1)	2)	3)	4)	5)
(2) 일상생활 지원(가사, 간병, 목욕, 요양, 식사 지원 등)	1)	2)	3)	4)	5)
(3) 안전 지원(정기적 안부 확인,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연계 지원 등)	1)	2)	3)	4)	5)
(4)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건강서비스	1)	2)	3)	4)	5)
(5)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	1)	2)	3)	4)	5)
(6) 상담 서비스(각종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1)	2)	3)	4)	5)
(7) 기타()	1)	2)	3)	4)	5)

- 1) 매우 필요
- 2) 필요
- 3) 그저 그렇다
- 4) 불필요
- 5) 전혀 불필요

■ 문H8. 귀하께서는 노인을 위한 별도의 주거시설(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을 이용한다면 기본 서비스 외의 다음과 같은 유료 서비스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싶으십니까? 각각의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주거시설 관련 유료 서비스 이용 의향				
(1) 식사 서비스	1)	2)	3)	4)	5)
(2) 청소 및 빨래 서비스	1)	2)	3)	4)	5)
(3) 운동문화여가 서비스	1)	2)	3)	4)	5)
(4) 의료 서비스	1)	2)	3)	4)	5)
(5) 돌봄 서비스	1)	2)	3)	4)	5)
(6) 병·의원 동행/외출 지원 서비스(교통 편의 제공)	1)	2)	3)	4)	5)

※ 다음은 외출 시 교통수단과 운전 관련 질문입니다.

■ 문H9. 귀하께서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시는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 0) 없음
- 1) 버스
- 2) 지하철
- 3) 택시
- 4) 자가용
- 5) 자전거
- 6) 오토바이
- 7) 기타(구체적으로)

■ ★ 문H10. 귀하께서 평소 외출할 때 가장 불편하신 점은 무엇입니까?

- 0) 없음
- 1) 버스(전철) 타고 내리기
- 2) 계단이나 경사로 오르내리기
- 3) 교통수단 부족
- 4) 이동하기에 불편한 도로 상태
- 5) 노인을 배려하지 않은 교통 편의 시설(짧은 신호시간 등)
- 6) 인도가 없어 보행 시 위험
- 7) 차량이 많아 다니기에 위험함
- 8) 기타(구체적으로)

■ 문H11. 귀하께서는 현재 운전을 하십니까?

- 1) 현재 한다
- 2) 전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 문H11-3으로 이동
- 3) 평생 한 적이 없다 ⇒ 문H12로 이동

□ ★ 문H11-1. 귀하께서는 현재 운전하면서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그런 편이다
- 3) 그저 그렇다
- 4)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문H12로 이동
- 5) 전혀 그렇지 않다 ⇒ 문H12로 이동

□★ 문H11-2. 귀하께서 운전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 응답 후 H12로 이동

1) 시력 저하	4) 판단력 저하(신호, 교차로 등 도로 상황에 대한 이해)
2) 청력 저하	5) 속도감 둔화
3) 팔·다리의 반응속도 저하	6) 기타(구체적으로)

□ 문H11-3. 귀하께서는 몇 세 때 운전을 그만두셨습니까? 단 세

※ 다음은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 문H12.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낙상(넘어짐, 미끄러짐 또는 주저앉음)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번입니까?

1) 예(있다) (1년 횟수: 회)	2) 아니요(없다) ⇒ 문H13으로 이동

□ 문H12-1. 낙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1) 예	2) 아니요

□ 문H12-2. 귀하께서 낙상을 경험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 바닥이 미끄러워서	5) 조명이 어두워서
2) 사람이나 사물에 부딪혀서	6) 다리를 걸려서(발을 헛디뎠서)
3) 도로나 문턱에 걸려	7) 갑자기 어지러워서
4) 도로의 경사가 급해서	8) 다리에 힘이 풀려서(갑자기 주저앉아서)
	9) 기타(구체적으로)

■★ 문H13.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범죄 또는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항목 각각에 모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항목	범죄 및 사고 경험
1) 재산범죄 (강도, 절도, 장물, 사기, 공갈, 횡령, 배임)	1) 2)
2) 폭력 및 강력범죄 (폭력행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 및 유인, 체포 및 감금, 손괴, 살인, 강도, 강간, 방화)	1) 2)
3) 노인 대상 사기성 물건 구매 경험	1) 2)
4) 사기전화(보이스 피싱) 피해 경험	1) 2)
5)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	1) 2)
6) 안전사고(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경험	1) 2)

■★ 문H14. 귀하께서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하신 경우,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습니까?

항목	경험 여부	행위자
(1) 타인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당하였다 (일치거나 때리는 행위 등)	1) 2)	※ 조사원 (별첨1) 【노년과여성에게 코드를 참조하여 기입하십시오】
(2) 타인에게 성폭력을 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경험하였다	1) 2)	
(3) 타인의 말과 행동이 내 감정을 상하게 만들었다 (대화 기피, 의견 무시, 못 들은 척, 짜증, 불평등)	1) 2)	
(4) 타인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내 동의 없이 돈을 쓰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 등)	1) 2)	
(5) 가족이나 보호자가 내(건강하지 않을 때)를 돌봐주지 않았다 (간병, 청결유지 등의 도움을 주지 않음)	1) 2)	
(6) 가족이나 보호자가 거의 찾아오지 않거나 생활비 등을 전혀 주지 않았다	1) 2)	

※ 다음은 노후생활 전반에 관한 질문입니다.

■ ★ 문H15. 귀하께서는 노인은 몇 세 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 세 이상

■ ★ 문H16.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삶의 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항목	삶의 만족도				
1) 자신의 건강 상태	1)	2)	3)	4)	5)
2) 자신의 경제 상태	1)	2)	3)	4)	5)
3) 배우자와의 관계(유배우자만)	1)	2)	3)	4)	5)
4) 자녀와의 관계(생존자녀가 있는 경우만)	1)	2)	3)	4)	5)
5) 사회여가문화 활동	1)	2)	3)	4)	5)
6) 친구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1)	2)	3)	4)	5)
7) 삶 전반	1)	2)	3)	4)	5)

1) 매우 만족함
2) 만족함
3) 그저 그렇다
4) 만족하지 않음
5) 전혀 만족하지 않음

■ ★ 문H17. 귀하께서는 귀하가 정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2) 그렇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 ★ 문H18. 귀하께서는 노인이 사회적으로 존중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4) 그렇지 않다
2) 그렇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 ★ 문H19.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상황에서 노인이기 때문에 무시(차별) 당했다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항목	무시(차별) 경험		
1) 대중교통 이용 시	0)	1)	2)
2) 식당, 커피숍 이용 시	0)	1)	2)
3)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판매 시설 이용 시	0)	1)	2)
4) 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기관 이용 시	0)	1)	2)
5) 병원 등 의료시설 이용 시	0)	1)	2)
6) 일터(직장)	0)	1)	2)
7) 가족 내 주요 의사 결정시	0)	1)	2)
8) 기타 (구체적으로)	0)	1)	2)

0) 해당사항 없음
1) 예
2) 아니요

■ ★ 문H20. 귀하께서 재산 처리 방식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1) 모든 자녀에게 골고루 상속 5) 경제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전부/더 많이 상속
2) 장남에게 더 많이 상속 6) 전체 또는 일부 사회에 환원
3) 장남에게만 상속 7) 나 자신(배우자)을 위해 쓰겠다
4) 효도한 자녀에게 전부/더 많이 상속 8) 기타(구체적으로)

■ ★ 문H21. 귀하께서는 의식불명이거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 행위(연명의료)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반대하는 편이다 5) 매우 반대한다

■ ★ 문H22. 귀하께서는 본인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기를 원하십니까?

- 1) 화장 후 봉안당(납골당) 4) 화장하지 않고 묘지에 매장
2) 화장 후 자연장(수목·잔디·화초장) 5) 기타(구체적으로)
3) 화장 후 산골(산/강/바다 등에 뿌리는 것) 6) 아직 생각해 보지 않음

■ ★ 문H23. 귀하께서는 본인의 생애 말기 죽음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셨거나 하고 계십니까?

항목	죽음에 대한 대비 여부	
(1) 죽음 준비교육 수강	1) 2)	1) 예 2) 아니오
(2) 가족과 상속처라·장례의향 논의	1) 2)	
(3) 장례 상담 및 상조회 가입	1) 2)	
(4) 유서 작성	1) 2)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1) 2)	
(6) 장기 등 기증 서약	1) 2)	
(7) 장지(자연장지, 봉안당, 묘지 등)	1) 2)	
(8) 수의 또는 영정사진	1) 2)	

■ ★ 문H24. 귀하께서는 생애 말기 좋은 죽음에서 다음의 각 항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좋은 죽음					
1) 임종 전후의 상황을 스스로 정리한 이후 임종을 맞이하는 것	1)	2)	3)	4)	5)	(1) 매우 중요하다
2) 신체적, 정신적 고통 없이 임종을 맞이하는 것	1)	2)	3)	4)	5)	(2) 중요하다
3) 임종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함께 하는 것	1)	2)	3)	4)	5)	(3) 그저그렇다
4)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1)	2)	3)	4)	5)	(4) 중요하지 않다
						(5)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문H25. 귀하께서는 만 60세 이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1) 예(있다) 2) 아니오(없다) ⇒ 문H26으로 이동

□ ★ 문H25-1. 귀하께서 자살을 생각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건강문제 4) 배우자·가족·지인의 사망 7) 기타(구체적으로)
 2) 경제적 어려움 5)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
 3) 외로움 6) 배우자·가족의 건강 및 수발문제

■ ★ 문H26.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 또는 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항목	인지 정도			1) 잘 알고 있다. 2) 들어는 봤지만, 잘 알지 못한다 3) 모른다
1)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	1)	2)	3)	
2) 치매조기검진서비스	1)	2)	3)	
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	1)	2)	3)	
4) 치매전담요양기관 운영	1)	2)	3)	
5) 치매안심센터	1)	2)	3)	
6)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 및 대응기관)	1)	2)	3)	
7) 성년후견인제도	1)	2)	3)	
8) 주택연금	1)	2)	3)	
9) 농지연금	1)	2)	3)	

■ ★ 문H27.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정책 중 향후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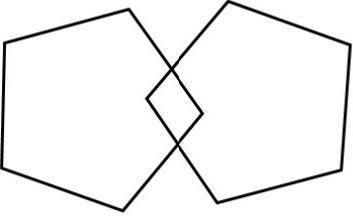
- 1) 노인 빈곤 완화 지원(노인 소득 보장) 7) 노인 자원봉사/사회참여 지원
 2) 노인 건강 서비스 8) 노인 특화된 다양한 주거
 3) 노인 돌봄(요양) 서비스 9) 주택개선 및 개조 서비스
 4) 치매 관련 서비스 10) 노인 특화된 용품(고령친화용품) 확대
 5) 노인 고용/일자리 지원 11) 기타(구체적으로)
 6) 노후 여가문화 서비스

I. 인지기능

※ 조사원: 응답자가 문항을 보지 않게 하십시오.

■ ★ 문1. 지금부터 귀하의 기억력과 집중력을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중 몇 가지는 쉽지만 몇 가지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 문	틀림	맞음
1.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0	1
2.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0	1
3. 오늘은 며칠입니까?	0	1
4.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0	1
5. 지금은 몇 월입니까?	0	1
6. 우리가 있는 이곳은 무슨 도/특별시/광역시입니까?	0	1
7. 여기는 무슨 시/군/구입니까?	0	1
8. 여기는 무슨 동/읍/면입니까?	0	1
9. 우리는 지금 이 건물의 몇 층에 있습니까?	0	1
10. 이 장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0	1
11. 제가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을 모두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몇 분 후에는 그 세 가지 물건의 이름들을 다시 물어볼 것이니 들으신 물건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무 자동차 모자 이제 000님께서 방금 들으신 세 가지 물건 이름을 모두 말씀해 보세요. 나무 자동차 모자	0 0 0	1 1 1
12. 100에서 7일 빼면 얼마가 됩니까?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거기에서 7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0 0 0 0 0	1 1 1 1 1
13. 조금 전에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세 가지 물건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무 자동차 모자	0 0 0	1 1 1
14. (실제 시계를 보여 주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실제 연필을 보여 주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0 0	1 1
15.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따라해 보십시오. 한 번만 말씀드릴 것이니 잘 듣고 따라 하십시오. 간장공장공장장	0	1

16.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 보십시오. 한 번만 말씀드릴 것이니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해 보십시오. 제가 종이를 한 장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이를 오른손으로 받아, 반으로 접은 다음, 무릎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오른손으로 받는다.	0	1
	반으로 접는다.	0	1
	무릎 위에 놓는다.	0	1
17.	(겹친 오각형 그림을 가리키며) 여기에 오각형이 겹쳐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빈 곳에 그대로 그려 보십시오.		
		0	1
18.	웃은 왜 빨아서 입습니까?	0	1
19.	'티끌 모아 태산'은 무슨 뜻입니까?	0	1
총 점			/30

(여백)

J. 경제 상태

- 문J1. 작년 한 해(2019. 1. 1. ~ 2019. 12. 31.) 귀하를 위한 지출항목별 지출 유무 및 월평균 지출액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천원단위는 반올림하십시오.

항목	지출유무	월평균 금액(만 원)
(1) 보건의료비 (병원 진료비, 약국 파스/약 등 구입비용. 건강보험료 제외)	1)있음 2)없음	만 원
(2) 간병수발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개인간병가사, 기저귀 등의 용품 등)	1)있음 2)없음	만 원
(3) 문화여가비	1)있음 2)없음	만 원
(4) 경조사비	1)있음 2)없음	만 원

- 문 J2. 귀하께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이십니까?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지만 의료급여수급자
-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의료급여수급자도 아님

※ 조사원: <문J3-2>와 <문J4>~<문J6>은 가구 경제상황을 잘 아는 가구원에게 질문하십시오.
<문J3-3>의 경우는 질문하지 않고, <문J3-1>과 <문J3-2>를 합산하여 기록하십시오.

- 문J3. 귀하 및 귀댁의 작년 한 해(2019. 1. 1. ~ 2019. 12. 31.) 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응답 노인의 수입과 귀댁의 소득을 소득항목별로 소득유무와 소득 금액 (세금 및 사회보험료 공제 후, 천원단위 반올림), 연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소득은 명의기준입니다.

항목 (명의기준)	□ 문J3-1. 응답 노인의 수입		□ 문J3-2. 그 외 가구원의 수입 (※ 가구 경제상황을 잘 아는 가구원이 응답)		□ 문J3-3. 가구소득 (※ 조사원이 문J3-1과 문J3-2를 합산하여 기록)	
	수입유무	연간 금액(만 원)	수입유무	연간 금액(만 원)	수입유무	연간 금액(만 원)
1) 근로소득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2) 사업소득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3) 재산소득 (금융소득, 임대수입) ※ 주식배당금, 재산소득, 주식매매수익금 기타소득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4) 개인연금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5) 퇴직연금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6) 주택연금, 농지연금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항목 (명의기준)	□ 문J3-1. 응답 노인의 수입		□ 문J3-2. 그 외 가구원의 수입 (※ 가구 경제상황을 잘 아는 가구원이 응답)		□ 문J3-3. 가구소득 (※ 조사원이 문J3-1과 문J3-2를 합쳐서 2회)	
	수입유무	연간 금액(만 원)	수입유무	연간 금액(만 원)	수입유무	연간 금액(만 원)
7) 사적·이전소득 (자녀용돈, 생일선물, 명절제 사비, 교회 등의 헌금/물품 지원)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8) 공적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9) 기초연금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10)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급여로 가구소득으로만 파악함 ※ 노인 1인 가구(독거가구)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드시 조사하여 J3-3에 반드시 기록				1)있음 2)없음	만 원
11) 기타 공적급여 (보훈급여, 고용보험급여, 산재보험급여,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12) 기타 소득 (구체적)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1)있음 2)없음	만 원
13) 총수입		만 원		만 원		만 원

■ 문J4. 귀댁의 작년 한 해(2019. 1. 1. ~ 2019. 12. 31.) 월평균 소비 지출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과 부동산 등의 자산축적을 위한 지출, 차입금 상환 등의 현금 지출 등 기타지출은 제외하며, 천원단위는 반올림)

만 원

□ 문J4-1. 이 중 월평균 주거비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만 원

※ 조사원: 주거비는 실제주거비(월세 등), 주택 유지 및 수선비, 관리비, 냉난방비, 수도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문J5. 귀댁에서 지출하는 생활비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0) 없음	8) 피복비(옷, 신발 등 구입비)
1)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9) 교양오락비
2) 교육비	10) 교통비(차량 구입비 제외)
3) 월세	11)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전화 사용료 등)
4) 주거 관련비(주택관리비, 냉난방비, 수도비 등)	12) 경조사비
5) 보건의료비(건강보험료 제외)	13) 부채상환
6) 간병수발비(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개인간병비, 용품 등)	14) 기타(구체적으로)
7) 가구·집기·가사용품	

■ 문 J6. 현재 귀댁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을 아래의 항목별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귀댁 가구원 명의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해 현재시가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천 원 단위 반올림)

항목	자산 및 부채 유무	금액(만원)
(1) 부동산자산 (보유주택, 전세/사무실보증금, 논, 밭, 임야 등)	1)있음 2)없음	만 원
(2) 금융자산 (저축, 타지 없는 현금, 불입금액, 주식/채권 구입비용 등)	1)있음 2)없음	만 원
(3) 기타자산 (자동차, 농기계, 동물/식물, 골프회원권, 경영업자 설비 및 재고자산 등)	1)있음 2)없음	만 원
(4) 부채	1)있음 2)없음	만 원

조사원 확인 사항

■1.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립·다세대 주택 4) 기타(구체적으로 _____)

■2. 주거위치는 어디입니까?

- 1) 지하 또는 반지하 2) 지상 3) 옥탑

■3. 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침자는 방,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옷방, 서재 등), 거실, 식사용 방 포함은 몇 개입니까?

방 개

■4. 조사원께서는 노인의 주택이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이다
 2)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을 배려한 설비는 없다
 3) 노인을 배려한 설비(문턱 없애기, 경사 조절, 손잡이 설치 등)를 갖추고 있다
 4) 기타(구체적으로 _____)

■5. 응답 노인의 배우자의 노인실태조사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1) 배우자 조사 완료 → 배우자 조사표상의 ID를 기록하십시오.

가구 ID						가구원 번호	
1						-	
[배우자의] 읍면동 번호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내 응답 노인번호
조사원확인(4-1)							조사구내 응답 노인번호

- 2) 배우자 조사 미실시(65세 이상)
 3) 배우자 조사 비해당(65세 미만)
 4) 배우자 없음(미혼, 사별, 이혼, 별거, 비동거 배우자)

■6. 응답자가 응답한 방식을 선택해 주십시오.

- 1) TAPI 진행 (방문면접)
 2) 종이조사표 진행 (방문면접) 후 사후 TAPI 입력
 3)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V.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구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서울특별시	(11)		
종로구	(11010)	무악동	1101057
		혜화동	1101073
중구	(11020)	신당5동	1102065
용산구	(11030)	효창동	1103058
		원효로1동	1103072
		한남동	1103074
성동구	(11040)	성수2가1동	1104067
		옥수동	1104073
광진구	(11050)	화양동	1105053
		중곡1동	1105055
		광장동	1105063
		자양1동	1105064
동대문구	(11060)	제기동	1106082
		전농1동	1106083
		장안1동	1106087
중랑구	(11070)	면목4동	1107054
		상봉1동	1107059
		중화1동	1107061
		목1동	1107064
		목2동	1107065
성북구	(11080)	안암동	1108060
		정릉1동	1108062
		삼선동	1108082
		동선동	1108083
강북구	(11090)	수유1동	1109063
		송중동	1109071
		송천동	1109072
		인수동	1109075
도봉구	(11100)	쌍문2동	1110052
		쌍문3동	1110053
		창1동	1110059
노원구	(11110)	하계1동	1111058
		상계1동	1111065
		상계3·4동	1111076
		상계6·7동	1111077
은평구	(11120)	응암1동	1112059
		신사1동	1112065
		신사2동	1112066
		역촌동	1112074
서대문구	(11130)	천연동	1113052
		홍제2동	1113065
		북가좌2동	1113072
		북아현동	1113074
		신촌동	1113075
마포구	(11140)	대흥동	1114060
		성산2동	1114073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양천구	(11150)	야현동	1114078
		신월2동	1115058
		신정3동	1115066
		신정7동	1115070
		신정4동	1115072
강서구	(11160)	등촌2동	1116053
		등촌3동	1116054
		화곡8동	1116063
		가양2동	1116065
		공항동	1116069
		방화2동	1116071
		방화3동	1116072
		구로1동	1117052
구로구	(11170)	개봉2동	1117064
		수궁동	1117069
		독산1동	1118052
금천구	(11180)	독산4동	1118055
		시흥4동	1118060
		양평1동	1119061
영등포구	(11190)	신길1동	1119063
		대림3동	1119072
		문래동	1119076
		상도3동	1120055
동작구	(11200)	사당1동	1120063
		노량진1동	1120072
		사당2동	1120073
		신원동	1121065
관악구	(11210)	성현동	1121079
		창룡동	1121080
		서초1동	1122051
서초구	(11220)	잠원동	1122055
		반포4동	1122060
		양재1동	1122066
강남구	(11230)	논현1동	1123052
		역삼2동	1123065
		도곡2동	1123067
		세곡동	1123076
		압구정동	1123077
송파구	(11240)	풍납2동	1124052
		거여1동	1124053
		마천2동	1124056
		송파2동	1124062
		석촌동	1124063
		문정1동	1124068
		문정2동	1124069
		잠실4동	1124075
		강일동	1125051
강동구	(11250)	천호3동	1125063
강동구	(11250)	길동	1125074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부산광역시	(21)		
중구	(21010)	영주2동	2101060
서구	(21020)	동대신2동	2102052
		암남동	2102068
동구	(21030)	초량6동	2103055
		범일2동	2103066
영도구	(21040)	청학2동	2104064
		동삼3동	2104067
부산진구	(21050)	연지동	2105054
		초읍동	2105055
		전포2동	2105061
		부암1동	2105064
		당감2동	2105068
		가야2동	2105072
		개금1동	2105074
		개금3동	2105076
		당감제1동	2105080
		부전1동	2105082
동래구	(21060)	수민동	2106051
		복산동	2106052
		온천1동	2106055
		사직1동	2106058
		안락2동	2106062
		명장2동	2106064
남구	(21070)	대연5동	2107055
		대연6동	2107056
		용호1동	2107057
		용호3동	2107059
		감만1동	2107062
북구	(21080)	구포1동	2108051
		구포3동	2108053
		금곡동	2108054
		화명1동	2108055
		덕천3동	2108058
		만덕3동	2108061
해운대구	(21090)	중1동	2109053
		반여3동	2109059
		좌1동	2109066
		좌3동	2109068
		반여4동	2109071
		반송1동	2109072
		우2동	2109074
사하구	(21100)	하단1동	2110056
		신평1동	2110058
		신평2동	2110059
		장림1동	2110060
		다대2동	2110063
		감천1동	2110065
금정구	(21110)	서2동	2111052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강서구	(21120)	부곡4동	2111060
		청룡노포동	2111067
		남산동	2111068
		구서2동	2111070
		강동동	2112053
연제구	(21130)	녹산동	2112056
		명지2동	2112060
		거제3동	2113053
		연산4동	2113058
		연산9동	2113063
수영구	(21140)	남천1동	2114051
		망미1동	2114054
		광안2동	2114057
		민락동	2114060
		모라1동	2115052
사상구	(21150)	주례2동	2115061
기장군	(21310)	기장읍	2131011
		정관읍	2131013
		철마면	2131033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대구광역시	(22)		
중구	(22010)	남산3동	2201066
		동인동	2201070
동구	(22020)	신암3동	2202053
		신암4동	2202054
		신천3동	2202058
		효목1동	2202060
		동촌동	2202066
		안심1동	2202073
		안심3·4동	2202075
서구	(22030)	비산1동	2203054
		비산4동	2203056
		상중이동	2203066
남구	(22040)	이천동	2204051
		봉덕1동	2204053
		대명1동	2204056
		대명9동	2204064
북구	(22050)	칠성동	2205052
		침산3동	2205057
		산격4동	2205064
		무태조야동	2205071
		태전2동	2205074
		구암동	2205079
		노원동	2205081
		동천동	2205082
		대현동	2205084
수성구	(22060)	범어1동	2206051
		만촌1동	2206055
		만촌3동	2206057
		두산동	2206066
		지산2동	2206068
		고산1동	2206071
		고산2동	2206072
달서구	(22070)	본리동	2207056
		감삼동	2207057
		이곡1동	2207060
		신당동	2207061
		월성2동	2207063
		진천동	2207064
		상인2동	2207066
		도원동	2207068
		송현1동	2207069
		송현2동	2207070
		용산2동	2207073
달성군	(22310)	화원읍	2231011
		다사읍	2231013
		유가읍	2231014
		구지면	2231036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인천광역시	(23)		
중구	(23010)	연안동	2301052
		영종동	2301065
동구	(23020)	송림2동	2302059
연수구	(23040)	선학동	2304052
		연수2동	2304054
		연수3동	2304055
		청학동	2304056
		동춘2동	2304058
		송도1동	2304064
남동구	(23050)	구월1동	2305051
		간석1동	2305055
		간석3동	2305057
		만수3동	2305061
		만수4동	2305062
		만수5동	2305063
		만수6동	2305064
		서창2동	2305065
		남촌도립동	2305067
		논현1동	2305072
		논현2동	2305073
부평구	(23060)	부평1동	2306051
		부평6동	2306056
		산곡2동	2306058
		갈산1동	2306063
		갈산2동	2306064
		부개1동	2306066
		부개2동	2306067
		십정1동	2306070
계양구	(23070)	계산1동	2307053
		계산2동	2307054
		작전2동	2307057
		작전서운동	2307058
		계양3동	2307064
서구	(23080)	연희동	2308053
		가정2동	2308055
		석남1동	2308058
		가좌2동	2308063
		신현원창동	2308073
		청라1동	2308074
		김단동	2308080
		당하동	2308083
		오류왕길동	2308084
미추홀구	(23090)	용현5동	2309059
		학익2동	2309061
		도화1동	2309062
		주안1동	2309065
		주안8동	2309072
		송의1·3동	2309075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강화군	(23310)	용현1·4동	2309076
		도화2·3동	2309077
		선원면	2331031
		하점면	2331037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광주광역시	(24)		
동구	(24010)	계림1동	2401056
		지산2동	2401063
		서남동	2401064
서구	(24020)	양동	2402051
		유덕동	2402057
		상무1동	2402058
		상무2동	2402059
		화정1동	2402060
		화정2동	2402061
		화정4동	2402063
		풍암동	2402067
		금호1동	2402068
		동천동	2402070
남구	(24030)	양림동	2403051
		방림1동	2403052
		사직동	2403054
		주월1동	2403064
		효덕동	2403066
		송암동	2403067
북구	(24040)	신안동	2404056
		용봉동	2404057
		운암1동	2404058
		운암3동	2404060
		우산동	2404062
		풍향동	2404063
		문흥2동	2404066
		두암1동	2404067
		삼각동	2404070
		오치1동	2404072
		일곡동	2404078
		진국동	2404079
		양산동	2404080
광산구	(24050)	송정2동	2405052
		신흥동	2405055
		어룡동	2405056
		우산동	2405058
		월곡2동	2405060
		동곡동	2405065
		첨단2동	2405070
		운남동	2405071
		수완동	2405075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대전광역시	(25)		
동구	(25010)	효동	2501053
		판암1동	2501055
		판암2동	2501056
		가양1동	2501063
		용전동	2501065
		산내동	2501075
		대동	2501078
중구	(25020)	석교동	2502057
		용두동	2502060
		오류동	2502062
		태평2동	2502064
		유천2동	2502066
		산성동	2502069
서구	(25030)	도마1동	2503052
		정림동	2503054
		탄방동	2503057
		둔산2동	2503060
		갈마2동	2503065
		월평1동	2503066
		월평3동	2503068
		가수원동	2503070
		기성동	2503071
		관저2동	2503073
		둔산3동	2503074
유성구	(25040)	온천2동	2504054
		신성동	2504055
		전민동	2504057
		관평동	2504063
		원신흥동	2504065
		노은2동	2504066
		노은3동	2504067
대덕구	(25050)	회덕동	2505053
		비래동	2505054
		법2동	2505057
		덕암동	2505060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울산광역시	(26)		
중구	(26010)	반구1동	2601052
		복산2동	2601055
		태화동	2601060
		병영1동	2601062
		중암동	2601067
남구	(26020)	신정1동	2602051
		신정4동	2602054
		달동	2602056
		무거동	2602059
		옥동	2602060
		대현동	2602062
		수암동	2602063
		선암동	2602064
동구	(26030)	방어동	2603051
		대송동	2603054
		전하1동	2603055
		남목2동	2603059
		전하2동	2603061
북구	(26040)	농소1동	2604051
		농소2동	2604052
		농소3동	2604053
		강동동	2604054
		송정동	2604057
		염포동	2604059
울주군	(26310)	온산읍	2631011
		언양읍	2631012
		온양읍	2631013
		범서읍	2631014
		웅촌면	2631034
		삼동면	2631040

870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세종특별자치시	(29)		
세종특별자치시	(29010)	조치원읍	2901011
		연기면	2901031
		부강면	2901033
		금남면	2901034
		장군면	2901035
		연서면	2901036
		전동면	2901038
		도담동	2901053
		종촌동	2901056
		고운동	2901060
		새롬동	2901062
		대평동	2901064
		보람동	2901066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경기도	(31)		
수원시 장안구	(31011)	송죽동	3101159
		조원2동	3101163
수원시 권선구	(31012)	세류3동	3101254
		서둔동	3101256
		권선1동	3101260
수원시 팔달구	(31013)	지동	3101353
		매산동	3101368
수원시 영통구	(31014)	매탄1동	3101451
		매탄2동	3101452
		영통2동	3101465
성남시 수정구	(31021)	태평2동	3102155
		위례동	3102168
성남시 중원구	(31022)	금광2동	3102254
		은행1동	3102255
성남시 분당구	(31023)	수내1동	3102353
		정자2동	3102355
		야탑3동	3102363
		구미동	3102367
의정부시	(31030)	호원1동	3103055
		장암동	3103056
		녹양동	3103064
		송산2동	3103066
안양시 만안구	(31041)	안양9동	3104159
		석수3동	3104162
안양시 동안구	(31042)	부림동	3104258
		평촌동	3104259
부천시	(31050)	원미1동	3105056
		상동	3105062
		중1동	3105066
		상2동	3105069
		소사본3동	3105076
		오정동	3105083
		원종1동	3105084
광명시	(31060)	광명2동	3106052
		소하1동	3106066
평택시	(31070)	팽성읍	3107011
		안중읍	3107012
		오성면	3107034
		서정동	3107052
		비전1동	3107062
		비전2동	3107063
동두천시	(31080)	불현동	3108056
안산시 상록구	(31091)	본오2동	3109155
		부곡동	3109157
		사동	3109176
안산시 단원구	(31092)	와동	3109259
		선부2동	3109269
		호수동	3109273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고양시 덕양구	(31101)	고잔동	3109274
		고양동	3110159
고양시 일산동구	(31103)	행신3동	3110169
		중산동	3110352
		풍산동	3110354
고양시 일산서구	(31104)	백석1동	3110355
		주엽2동	3110456
		대화동	3110457
과천시	(31110)	별양동	3111053
구리시	(31120)	수택2동	3112057
남양주시	(31130)	와부읍	3113011
		화도읍	3113013
		평내동	3113052
		별내동	3113057
오산시	(31140)	신장동	3114054
시흥시	(31150)	목감동	3115056
		정왕본동	3115064
		정왕1동	3115065
		월곶동	3115069
군포시	(31160)	군포1동	3116051
		군포2동	3116052
		산본1동	3116054
		광정동	3116061
의왕시	(31170)	내손2동	3117055
하남시	(31180)	신장2동	3118053
		덕풍2동	3118055
용인시 기흥구	(31192)	구성동	3119256
		마북동	3119257
		상하동	3119260
		신갈동	3119261
용인시 수지구	(31193)	풍덕천1동	3119351
파주시	(31200)	적성면	3120037
		금촌1동	3120053
		운정1동	3120056
		운정2동	3120057
이천시	(31210)	부발읍	3121012
		모가면	3121036
안성시	(31220)	안성2동	3122052
김포시	(31230)	양촌읍	3123013
		풍무동	3123054
		구래동	3123058
		김포본동	3123061
화성시	(31240)	봉담읍	3124012
		향남읍	3124014
		정남면	3124043
		반월동	3124055
		화산동	3124057
		동탄5동	3124065
		동탄6동	3124066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광주시	(31250)	초월읍	3125012
양주시	(31260)	양주2동	3126052
		회천4동	3126056
포천시	(31270)	군내면	3127031
		일동면	3127037
여주시	(31280)	여흥동	3128051
연천군	(31350)	전곡읍	3135012
양평군	(31380)	양평읍	3138011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강원도	(32)		
춘천시	(32010)	동내면	3201034
		후평2동	3201061
		석사동	3201066
		퇴계동	3201067
		강남동	3201068
		신사우동	3201071
원주시	(32020)	문막읍	3202011
		흥업면	3202036
		명륜2동	3202055
		단구동	3202056
		일산동	3202057
		단계동	3202060
		반곡관설동	3202068
강릉시	(32030)	주문진읍	3203011
		교1동	3203055
		포남1동	3203057
		포남2동	3203058
		강남동	3203062
		성덕동	3203065
동해시	(32040)	천곡동	3204051
		북삼동	3204053
		북평동	3204060
속초시	(32060)	교동	3206056
		조양동	3206058
삼척시	(32070)	하장면	3207032
		교동	3207053
		정라동	3207054
홍천군	(32310)	홍천읍	3231011
		동면	3231035
횡성군	(32320)	횡성읍	3232011
영월군	(32330)	영월읍	3233011
		주천면	3233036
평창군	(32340)	용평면	3234035
정선군	(32350)	북평면	3235034
양구군	(32380)	양구읍	3238011
고성군	(32400)	죽왕면	3240032
양양군	(32410)	현북면	3241033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충청북도	(33)		
충주시	(33020)	금가면	3302038
		대소원면	3302043
		교현2동	3302054
		용산동	3302055
		봉방동	3302061
		칠금·금릉동	3302062
		연수동	3302063
제천시	(33030)	봉양읍	3303011
		교동	3303051
		의립지동	3303073
청주시 상당구	(33041)	남일면	3304134
		탑·대성동	3304153
		금천동	3304155
		용암1동	3304157
		용암2동	3304158
청주시 서원구	(33042)	사창동	3304253
		분평동	3304256
		수곡1동	3304257
		성화·개신·죽림동	3304259
청주시 흥덕구	(33043)	오송읍	3304311
		북대1동	3304352
		가경동	3304354
		강서1동	3304357
청주시 청원구	(33044)	오창읍	3304412
		북이면	3304431
		우암동	3304452
옥천군	(33330)	옥천읍	3333011
영동군	(33340)	양산면	3334039
진천군	(33350)	덕산면	3335031
		백곡면	3335034
		광혜원면	3335036
괴산군	(33360)	괴산읍	3336011
		청안면	3336037
음성군	(33370)	음성읍	3337011
		금왕읍	3337012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충청남도	(34)		
천안시 동남구	(34011)	원성2동	3401154
		일봉동	3401156
		신안동	3401159
천안시 서북구	(34012)	성거읍	3401212
		입장면	3401231
		성정2동	3401252
		쌍용2동	3401254
		불당동	3401259
		부성2동	3401261
공주시	(34020)	반포면	3402034
		신관동	3402057
		웅진동	3402058
보령시	(34030)	웅천읍	3403011
		대천3동	3403053
아산시	(34040)	배방읍	3404012
		영인면	3404036
		신창면	3404040
		온양6동	3404056
서산시	(34050)	음암면	3405036
		해미면	3405038
		수석동	3405054
논산시	(34060)	광석면	3406032
		연산면	3406036
		양촌면	3406038
		부창동	3406052
계룡시	(34070)	엄사면	3407033
당진시	(34080)	송악읍	3408012
		당진3동	3408053
금산군	(34310)	금산읍	3431011
부여군	(34330)	규암면	3433031
		세도면	3433043
서천군	(34340)	서천읍	3434012
홍성군	(34360)	홍성읍	3436011
		홍동면	3436033
		은하면	3436035
예산군	(34370)	고덕면	3437038
태안군	(34380)	태안읍	3438011
		이원면	3438036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전라북도 (35)			
전주시 완산구	(35011)	평화2동	3501165
		서신동	3501166
		삼천3동	3501169
		효자3동	3501172
		완산동	3501177
전주시 덕진구	(35012)	인후3동	3501256
		덕진동	3501257
		우아2동	3501262
		호성동	3501263
		조촌동	3501267
		동산동	3501268
군산시	(35020)	임피면	3502033
		중앙동	3502060
		경암동	3502066
		구암동	3502067
		수송동	3502069
		나운1동	3502070
		나운3동	3502074
익산시	(35030)	망성면	3503038
		인화동	3503055
		동산동	3503057
		영등1동	3503066
		어양동	3503072
정읍시	(35040)	용동면	3504041
		수성동	3504051
		연지동	3504057
남원시	(35050)	덕과면	3505039
		죽향동	3505052
		도통동	3505059
김제시	(35060)	금구면	3506040
		황산면	3506042
		검산동	3506054
완주군	(35310)	삼례읍	3531011
		봉동읍	3531012
		상관면	3531032
진안군	(35320)	동향면	3532033
임실군	(35350)	신덕면	3535036
순창군	(35360)	적성면	3536033
고창군	(35370)	고창읍	3537011
		고수면	3537031
부안군	(35380)	부안읍	3538011
		변산면	3538036
		백산면	3538038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전라남도	(36)		
목포시	(36010)	용당2동	3601052
		연산동	3601056
		원산동	3601057
		하당동	3601072
		신흥동	3601073
여수시	(36020)	소라면	3602031
		충무동	3602054
		쌍봉동	3602065
		여천동	3602067
순천시	(36030)	송광면	3603032
		해룡면	3603037
		향동	3603051
		덕연동	3603057
		도사동	3603063
나주시	(36040)	왕곡면	3604032
		동강면	3604035
		송월동	3604051
광양시	(36060)	광양읍	3606011
		봉강면	3606031
		금호동	3606056
담양군	(36310)	봉산면	3631031
		남면	3631033
곡성군	(36320)	겸면	3632039
구례군	(36330)	토지면	3633033
고흥군	(36350)	고흥읍	3635011
		금산면	3635033
보성군	(36360)	북내면	3636035
화순군	(36370)	화순읍	3637011
		한천면	3637031
		이서면	3637038
장흥군	(36380)	부산면	3638036
강진군	(36390)	칠량면	3639032
해남군	(36400)	해남읍	3640011
		황산면	3640040
		문내면	3640042
영암군	(36410)	금정면	3641032
무안군	(36420)	일로읍	3642012
		삼향읍	3642013
함평군	(36430)	나산면	3643036
영광군	(36440)	백수읍	3644012
장성군	(36450)	남면	3645032
		삼계면	3645035
완도군	(36460)	완도읍	3646011
진도군	(36470)	지산면	3647035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경상북도	(37)		
포항시 남구	(37011)	연일읍	3701112
		오천읍	3701113
		송도동	3701155
		청림동	3701156
		상대동	3701160
포항시 북구	(37012)	청하면	3701232
		장량동	3701265
경주시	(37020)	외동읍	3702014
		현곡면	3702036
		용강동	3702062
		불국동	3702066
		황오동	3702068
김천시	(37030)	남면	3703032
		양금동	3703055
		대신동	3703056
안동시	(37040)	녹전면	3704043
		안기동	3704059
		송하동	3704061
		서구동	3704062
구미시	(37050)	산동면	3705035
		형곡2동	3705060
		상모사곡동	3705067
		인동동	3705070
		양포동	3705072
영주시	(37060)	휴천2동	3706060
영천시	(37070)	신녕면	3707032
상주시	(37080)	청리면	3708034
		이안면	3708046
		남원동	3708052
		동문동	3708055
경산시	(37100)	진량읍	3710012
		와촌면	3710031
		자인면	3710032
		동부동	3710052
		서부1동	3710053
의성군	(37320)	의성읍	3732011
		다인면	3732044
영덕군	(37350)	강구면	3735031
청도군	(37360)	이서면	3736034
		운문면	3736035
고령군	(37370)	다산면	3737034
성주군	(37380)	성주읍	3738011
칠곡군	(37390)	석적읍	3739013
예천군	(37400)	효자면	3740042
울진군	(37420)	울진읍	3742011
		죽변면	3742037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경상남도	(38)		
진주시	(38030)	금산면	3803040
		수곡면	3803045
		이현동	3803069
		천전동	3803072
		성북동	3803073
		하대동	3803078
통영시	(38050)	북신동	3805055
		미수동	3805063
사천시	(38060)	사천읍	3806011
		사남면	3806032
김해시	(38070)	진영읍	3807011
		생림면	3807035
		내외동	3807054
		활천동	3807058
		삼안동	3807059
		장유1동	3807061
밀양시	(38080)	단장면	3808035
		내이동	3808052
거제시	(38090)	하청면	3809038
		옥포2동	3809056
		고현동	3809058
		상문동	3809059
양산시	(38100)	물금읍	3810012
		동면	3810031
		원동면	3810032
		삼성동	3810052
		평산동	3810056
		덕계동	3810057
창원시 의창구	(38111)	북면	3811131
		대산면	3811132
		봉림동	3811154
창원시 성산구	(38112)	반송동	3811251
		중앙동	3811252
		상남동	3811253
		가음정동	3811255
창원시 마산합포구	(38113)	문화동	3811354
		완월동	3811357
		반월중앙동	3811366
창원시 마산회원구	(38114)	내서읍	3811411
		회원1동	3811451
		구암1동	3811460
창원시 진해구	(38115)	이동	3811559
		용동2동	3811565
의령군	(38310)	의령읍	3831011
		용덕면	3831035
함안군	(38320)	군북면	3832032
창녕군	(38330)	대지면	3833036
남해군	(38350)	창선면	3835039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하동군	(38360)	하동읍	3836011
산청군	(38370)	산청읍	3837011
거창군	(38390)	북상면	3839034
합천군	(38400)	초계면	3840036

시/군/구	(코드)	읍/면/동	(코드)
제주특별자치도	(39)		
제주시	(39010)	한림읍	3901011
		애월읍	3901012
		구좌읍	3901013
		조천읍	3901014
		일도2동	3901052
		이도2동	3901054
		삼도1동	3901055
		용담1동	3901057
		건입동	3901059
		화북동	3901060
		오라동	3901064
		연동	3901065
		노형동	3901066
		외도동	3901067
		도두동	3901069
서귀포시	(39020)	대정읍	3902011
		남원읍	3902012
		성산읍	3902013
		동홍동	3902057
		서홍동	3902058
		대륜동	3902059
		대천동	3902060
		중문동	3902061

부록 VI. 자문위원 명단

연번	이름	소속
1	구철희	청주대학교
2	김민경	건강보험연구원
3	김수영	경성대학교
4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5	남일성	성공회대학교
6	남현주	가천대학교
7	모선희	공주대학교
8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9	박명화	충남대학교
10	서동민	백석대학교
11	석상훈	기획재정부
12	엄기욱	군산대학교
13	염지혜	증원대학교
14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15	윤민석	서울연구원
16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7	윤종률	한림대학교
18	이민홍	동의대학교
19	이윤환	아주대학교
20	이재정	부산복지개발원
21	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
22	전승훈	대구대학교
23	전용호	인천대학교
24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25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26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27	한정란	한서대학교
28	황경란	경기복지재단